읽기 쉬운
한국어 성경

AI 번역 초안

구약과 신약 66권 / 2026. 09. 29.

Nante Studio
https://bible.nante.app

이 책과 이용 안내

읽기 쉬운 한국어 성경 – AI 번역 초안
배포판: 2026-09-29 / 운영: Nante Studio
https://bible.nante.app

이용 허락

Nante Studio는 이 한국어 번역 본문과 자체 작성한 편집자 표시에 관하여 보유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CC0 1.0 Universal에 따라 포기합니다. 포기가 유효하지 않은 범위에는 CC0의 대체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legalcode.ko

별도 허락이나 사용료 없이 복사, 수정, 재배포, 인쇄, 낭독, 앱 수록 및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책, 유료 앱, 광고가 있는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출처와 수정 여부를 밝혀 주시면 독자가 판본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용 조건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범위

영어 원문 World English Bible 개신교판(engwebp)은 제공자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한국어 본문은 독립적인 영어 중역 초안이며 공식 WEB 번역본이 아닙니다.
https://ebible.org/details.php?id=engwebp

이 선언은 Nante Studio 및 제3자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Google Fonts 글꼴, 웹사이트 코드와 기타 제3자 자료에 이 CC0 선언을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해 공식 번역 또는 보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안과 책임의 한계

AI로 생성하고 일부 구절을 AI로 대조 및 수정한 초안입니다. 사람에 의한 한국어 교정과 성서 원어 전문가의 검토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없는 설명, 해석 오류, 누락된 의미, 어색한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현 상태로 제공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 적합성 및 제3자 권리 비침해에 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합니다. 법률상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와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자 권리나 개별 이용 목적의 적법성을 대신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English summary

Nante Studio applies CC0 1.0 Universal to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t holds in this Korean translation and its original editorial markers. Copying, adaptation, redistribution and commercial use are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or royalties. Attribution is optional. Where waiver is ineffective, CC0's fallback license applies. This does not grant trademark or patent rights, third-party rights, or endorsement. Fonts and website code are outside this dedication. The work is an AI draft, without completed human linguistic or scholarly review, supplied as is without warrantie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Liability is limited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non-excludable rights and liabilities remain unaffected. This notice does not guarantee clearance for every use. The CC0 legal code governs the dedication.

오류 제보와 문의: dev@nantestudio.com

목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1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맴돌고 계셨다.

1: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1:4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1:5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1: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어라."

1:7 하나님이 넓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아래의 물과 그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8 하나님은 그 넓은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1: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10 하나님은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11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그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12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식물과 그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1:1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넓은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하는 징표가 되어라.

1:15 그리고 하늘의 넓은 공간에 있는 빛이 되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16 하나님이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다.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더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다.

1:17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늘의 넓은 공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고,

1:18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1:20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가득해지고, 새들은 땅 위로 펼쳐진 하늘을 날아다녀라."

1:21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22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다를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라."

1: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1:2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1:2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27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1:2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온 땅에서 씨를 맺는 모든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1:30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1:31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아라, 참으로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2장

2:1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2:2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시던 모든 일을 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2:3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신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2:4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기록이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2:5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들의 풀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2:6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모두 적셨다.

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2:8 주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2:9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2: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강줄기의 근원이 되었다.

2: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흐른다.

2:12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그곳에 있었다.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굽이쳐 흐른다.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이 강은 앗수르 동쪽으로 흐른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이다.

2:15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2:16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2:17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2:18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2:19 주 하나님이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사람에게 이끌고 가셨다. 사람이 살아 있는 각 생물을 부르는 말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2:20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이 없었다.

2:21 주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2:22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2:23 사람이 말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2:24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2:25 사람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3:1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3:2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3:3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려면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3:4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해 줄 만큼 탐스러웠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3:7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을 위한 덮개를 만들었다.

3:8 그들은 날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3:9 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3:10 사람이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3:11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3:12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3:13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3:14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먼지를 먹을 것이다.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3: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3:17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3:18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3:19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3:20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그녀가 살아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3:21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3:22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 먹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3:23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일구게 하셨다.

3:24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4장

4:1 사람이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

4:2 그 후 그녀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사람이 되었다.

4:3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주님께 예물로 바쳤다.

4: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주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4:5 가인과 그의 예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굳어졌다.

4:6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굳어지느냐?

4:7 네가 옳은 일을 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노릴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4:8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4:9 주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4:10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4: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흘러내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4:12 네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더 이상 네게 그 결실을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도망치며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4:13 가인이 주님께 말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4:14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셨으니, 저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하고 땅에서 도망치며 떠도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4:15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시어, 그를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4:16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4:17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지었다.

4:18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두사엘을 낳고, 므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4:19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첫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둘째 아내의 이름은 씰라였다.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4:21 그의 동생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4:22 씰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는 청동과 철로 온갖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4:23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4:24 가인을 위한 복수가 일곱 배라면, 라멕을 위한 복수는 일흔일곱 배일 것이다."

4: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으며 말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게 다른 자식을 주셨다."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5장

5: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5:2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아담)'이라 부르셨다.

5: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습, 곧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5: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5 아담은 모두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

5: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5:7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8 셋은 모두 구백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5: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다.

5:10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11 에노스는 모두 구백오 년을 살고 죽었다.

5: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5:13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14 게난은 모두 구백십 년을 살고 죽었다.

5: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다.

5:16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17 마할랄렐은 모두 팔백구십오 년을 살고 죽었다.

5: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다.

5:19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20 야렛은 모두 구백육십이 년을 살고 죽었다.

5: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다.

5:22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23 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5: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5: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다.

5:26 므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27 므두셀라는 모두 구백육십구 년을 살고 죽었다.

5: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았다.

5:29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며 말했다. "주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되게 일할 때,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5: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5:31 라멕은 모두 칠백칠십칠 년을 살고 죽었다.

5:32 노아는 오백 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6:1 지면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자,

6:2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6:3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6:4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낳았을 때였다. 그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들이었다.

6:5 주님은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다.

6:6 주님은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6:7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6:8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6:9 이것은 노아의 계보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며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6:10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6:11 땅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6:12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땅이 타락해 있었다.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자신의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육체를 끝장내기로 결정했다. 그들 때문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배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라.

6:15 네가 만들 배는 이러하다.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으로 하여라.

6:16 배에 지붕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일 규빗 아래까지 덮어 마무리하고, 배의 문은 옆면에 내어라. 그리고 배를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6:17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숨을 가진 모든 육체를 멸망시킬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거라.

6:19 그리고 너는 모든 육체를 가진 각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6:20 새들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각 두 마리씩 네게 올 것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6:21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음식을 가져다가 모아 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 동물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6:22 노아는 그대로 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했다.

7장

7:1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려가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두 마리를 데려가거라.

7:3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 일곱 쌍씩 데려가서, 온 땅 위에 그 씨를 살아남게 하거라.

7:4 칠 일 뒤에 내가 사십 일 낮과 사십 일 밤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의 표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7:5 노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7:6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육백 세였다.

7:7 노아는 홍수를 피해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배로 들어갔다.

7:8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짝을 지어 노아에게 나아와 배로 들어갔다.

7:10 칠 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7: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십칠일에 큰 깊음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7:12 사십 일 낮과 사십 일 밤 동안 땅에 비가 내렸다.

7:13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세 며느리가 함께 배로 들어갔다.

7: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모든 종류의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

7:15 생명의 숨결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짝을 지어 노아에게 나아와 배로 들어갔다.

7:16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7:17 땅에 사십 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 배를 들어 올렸고, 배가 땅 위로 떠올랐다.

7:18 물이 차올라 땅에 크게 불어났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7:19 물이 땅에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높은 산들이 모두 잠겼다.

7:20 물이 십오 규빗이나 더 차올라서 산들이 잠겼다.

7:21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다.

7:22 마른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코에 생명의 숨결이 있는 것은 모두 죽었다.

7:23 사람과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를 포함하여, 땅의 표면에 있던 모든 생물이 멸망했다. 그것들은 땅에서 멸망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7:24 물이 백오십 일 동안 땅에 넘쳤다.

8장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땅 위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8:2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8:3 물이 땅에서 계속 물러갔다. 백오십 일이 끝난 뒤에 물이 줄어들었다.

8:4 일곱째 달 곧 그달 십칠일에 배가 아라랏 산맥에 머물렀다.

8:5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8:6 사십 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배의 창문을 열었다.

8:7 그리고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8:8 그는 땅의 표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다.

8:9 하지만 물이 온 땅의 표면을 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돌아와 그에게 왔다.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잡아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8:10 그는 칠 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냈다.

8: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부리에 갓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8:12 그는 칠 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둘기는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8: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덮개를 치우고 내다보니, 땅의 표면이 말라 있었다.

8:14 둘째 달 곧 그달 이십칠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8: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가거라.

8:17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을 모두 데리고 나가거라. 그것들이 땅에서 많이 번식하고, 새끼를 많이 낳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거라."

8:18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다.

8:19 모든 들짐승과 모든 기어 다니는 것과 모든 새, 곧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갔다.

8:20 노아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8:21 주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

8:22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9장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거라.

9:2 땅의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손에 맡겨졌다.

9: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채소를 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9:4 하지만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 곧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9:5 나는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에 대한 값을 요구할 것이다. 어떤 짐승에게든 그것을 요구하겠다. 사람에게서도, 곧 사람의 형제에게서도 내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값을 요구할 것이다.

9: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 의해 그의 피도 흘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9:7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거라. 땅에서 크게 불어나고 그곳에서 번성하거라."

9: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9 "보아라, 내가 이제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 뒤에 올 자손과 내 언약을 세운다.

9:10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 있는 땅의 모든 들짐승과도 언약을 세우니, 배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들짐승과 세우는 것이다.

9:11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홍수의 물로 모든 육체를 끊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9:1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징표는 이것이다.

9:13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9:14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몰고 올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9:15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9:16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9: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

9:18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9:19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며,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9:20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9:21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9:22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말했다.

9:23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

9:24 노아는 술에서 깬 뒤, 막내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

9:25 그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9:26 그가 또 말했다. "셈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여라.

9:27 하나님이 야벳을 넓히시고, 그가 셈의 장막들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란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여라."

9:28 홍수가 있은 뒤에 노아는 삼백오십 년을 살았다.

9:29 노아는 모두 구백오십 년을 살고 죽었다.

10장

10:1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10: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이다.

10:3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다.

10:4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다시스, 깃딤, 도다님이다.

10:5 이들에게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섬들이 그들의 땅에 따라 나뉘었다. 각자 자신의 언어와 가문과 나라에 따라 나뉘었다.

10:6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10:7 구스의 아들들은 세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10:8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땅에서 힘센 용사가 되기 시작했다.

10:9 그는 주님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 앞의 뛰어난 사냥꾼인 니므롯같이"라는 말이 생겼다.

10:10 그의 왕국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10:11 그는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봇일, 갈라를 세우고,

10:12 니느웨와 큰 성읍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10:13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10:14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이 나왔다.)

10:15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또 헷을 낳았으며,

10:16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10:17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10:18 아르밧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 사람의 가문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10:19 가나안 사람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 가사에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10:20 이들이 가문과 언어와 땅과 나라에 따른 함의 자손들이다.

10:21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는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며 야벳의 형이다.

10:22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다.

10:23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10: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10:25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는데,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10:26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10:27 하도람, 우살, 디글라,

10:28 오발, 아비마엘, 스바,

10:29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10: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로 가는 길에 있었다.

10:31 이들이 가문과 언어와 땅과 나라에 따른 셈의 자손들이다.

10:32 이들이 족보와 나라에 따른 노아 아들들의 가문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땅의 나라들이 나뉘었다.

11장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쓰이는 말도 같았다.

11:2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11:3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11:4 그들이 말했다. "자, 우리를 위해 성읍을 세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표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11:5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11: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고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어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이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11:8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땅의 표면으로 흩으셨다. 그들은 성읍 짓는 일을 그만두었다.

11:9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뒤섞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백 세가 되어, 홍수가 있은 지 이 년 뒤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11:11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오백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년을 살고 셀라를 낳았다.

11:13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사백삼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14 셀라는 삼십 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다.

11:15 셀라는 에벨을 낳고 사백삼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16 에벨은 삼십사 년을 살고 벨렉을 낳았다.

11:17 에벨은 벨렉을 낳고 사백삼십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18 벨렉은 삼십 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다.

11:19 벨렉은 르우를 낳고 이백구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20 르우는 삼십이 년을 살고 스룩을 낳았다.

11:21 르우는 스룩을 낳고 이백칠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22 스룩은 삼십 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다.

11:23 스룩은 나홀을 낳고 이백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24 나홀은 이십구 년을 살고 데라를 낳았다.

11:25 나홀은 데라를 낳고 백십구 년을 살면서 다른 아들딸들을 낳았다.

11:26 데라는 칠십 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11:28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신이 태어난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이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며, 하란은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11:31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며느리이자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11:32 데라는 이백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2: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12:3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12:4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다.

12: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12:6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12:7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12:8 그는 거기서 벧엘 동쪽 산지로 옮겨 가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벧엘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12:9 아브람은 계속 이동하며 남쪽으로 나아갔다.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애굽에서 임시로 머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12:11 아브람이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2:12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여자는 그의 아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 둘 거예요.

12:13 그러니 부디 내 누이라고 말해 줘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대접받고, 당신 때문에 목숨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12: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12:15 바로의 고관들도 그 여인을 보고 바로에게 칭찬했고,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불려 갔다.

12:16 바로는 그 여인 덕분에 아브람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양과 소, 숫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 낙타를 얻었다.

12:17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12: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왜 저 여인이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12:19 왜 '그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삼게 했느냐? 자,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12:20 바로는 신하들에게 아브람에 대해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아브람을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냈다.

13장

13:1 아브람은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남쪽 지역으로 올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13: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13:3 그는 남쪽 지역에서 출발해 이곳저곳을 거쳐 벧엘까지 갔다. 처음 장막을 쳤던 벧엘과 아이 사이의 장소였다.

13:4 그곳은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거기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13:5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 장막이 있었다.

13:6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이다.

13:7 아브람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13:8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부디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13: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냐? 부디 내게서 갈라서거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3:10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평원을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했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주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13:11 그래서 롯은 요단 온 평원을 자기 몫으로 택했다.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3: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평원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 갔다.

13:13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은 극도로 악하여, 주님께 큰 죄를 짓고 있었다.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3:15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3:16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13:17 일어나 이 땅을 가로세로 두루 걸어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13:18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곁에 가서 살았고,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14장

14: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대의 일이다.

14:2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샤,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소알이라고도 한다) 왕과 전쟁을 벌였다.

14:3 이들 모두가 싯딤 골짜기(염해라고도 한다)에 함께 모였다.

14:4 그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째 되는 해에 반역했다.

14: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진군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임 사람들을 쳐부수고,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에밈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14:6 또 세일산의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14:7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미스밧(가데스라고도 한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14: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벨라(소알이라고도 한다) 왕이 출전하여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14:9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섰으니,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이었다.

14: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가득했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어떤 이들은 거기에 빠졌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14: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여 길을 떠났다.

14:12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까지 끌고 떠나갔다.

14:13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곁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이자 아넬의 형제였으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14:14 아브람은 자기 친족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삼백열여덟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했다.

14:15 그는 밤에 부하들을 나누어 적들을 기습하여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다.

14:16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자기 친족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다른 백성들도 모두 되찾아 왔다.

14: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

14:18 살렘 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4:19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람이 복을 받기를 빕니다.

14:20 아브람의 원수들을 아브람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14: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가져가십시오."

14: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14:23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 끈 하나라도 왕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왕께서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4:24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몫을 주도록 하십시오."

15장

15:1 이 일들이 있은 뒤, 아브람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람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15:2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고, 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15:3 아브람이 다시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은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15:4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다.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15:5 주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으면 세어 보아라." 주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5:6 아브람은 주님을 믿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15:7 주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네가 물려받도록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 낸 주님이다."

15:8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5:9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세 살 된 암소와 세 살 된 암염소와 세 살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15:10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왔다. 그는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 갈라진 것들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들은 가르지 않았다.

15:11 맹금류들이 짐승의 사체 위로 내려오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15:12 해가 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두려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쳤다.

15:13 주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 두어라. 너의 자손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며 그곳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 사람들은 너의 자손을 사백 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15:14 그러나 나는 너의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 뒤에 너의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15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오래 살다가 묻힐 것이다.

15:16 너의 자손은 사 대째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15:17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연기가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나타나 갈라 놓은 짐승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15:18 그날 주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었다. 애굽의 강에서 큰 강인 유브라데강에 이르는 땅,

15:19 곧 겐 사람들과 그니스 사람들과 갓몬 사람들,

15:20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르바임 사람들,

15:21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16장

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에게 자녀를 낳아 주지 못했다.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름의 애굽 사람인 여종이 있었다.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디 제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혹시 그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들었다.

16:3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십 년 동안 산 뒤에,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자기 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16:4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임신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겪는 이 부당한 대우는 당신 탓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는데, 그 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업신여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그러자 사래가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고, 하갈은 사래를 피해 도망쳤다.

16:7 주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가에서 하갈을 찾았다.

16:8 천사가 말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이 말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래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16:9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여라."

16:10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16:11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주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16:12 그는 사람들 가운데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자기 모든 형제에게 맞서 살 것이다."

16: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내가 그분을 뵙고도 여기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16:14 그러므로 그 우물을 브엘라해로이라고 불렀다. 보라,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16:15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

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여든여섯 살이었다.

17장

17:1 아브람이 아흔아홉 살이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흠 없이 살아라.

17:2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7:3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17:4 "나로 말하자면, 보아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17:5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고,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7:6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17:7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를 이을 대대손손 네 자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17:8 내가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17: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로 말하자면, 너와 네 뒤를 이을 대대손손 네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17:10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곧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 사이에 너희가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17:11 너희는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17:12 대대로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여드레 된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네 자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17:13 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네 돈으로 산 사람이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7:14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17: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래로 말하자면, 너는 그의 이름을 사래라고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여라.

17: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참으로 그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정녕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고, 여러 백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17:17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백 살 된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흔 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7:19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정녕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 그의 뒤를 이을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17:20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그를 매우 크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는 열두 지도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17:21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 줄 이삭과 세울 것이다."

17:2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7:23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 집안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그들의 포피 살을 베어 할례를 행했다.

17:24 아브라함이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흔아홉 살이었다.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열세 살이었다.

17:26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17:27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18:1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18:2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

18:3 그리고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18: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18:5 종에게 오셨으니, 내가 빵을 조금 가져와 원기를 돋우어 드린 뒤에 길을 떠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18:6 아브라함은 장막 안으로 급히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했다. "서둘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18:7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 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니, 종이 그것을 서둘러 요리했다.

18:8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와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그는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가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8:10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분 뒤쪽의 장막 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18:11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18:12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겠는가?"

18:13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18:14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정해진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8:15 사라는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18:16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18:17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18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18:19 내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뒤에 남을 집안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고 의롭고 정의롭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한 것을 이루어 주려는 것이다."

18:20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무거우니,

18: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게 들려온 울부짖음대로 그들이 악을 행했는지 보고, 그렇지 않은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8:22 그 사람들은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 쪽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었다.

18:23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18:24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쉰 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시고, 그 안에 있는 쉰 명의 의인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8:25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일은 주께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8:2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안에서 의인 쉰 명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해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18:27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저이지만,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18:28 만일 쉰 명의 의인 중에서 다섯 명이 모자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다섯 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마흔다섯 명을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18:29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께 아뢰었다. "만일 거기서 마흔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마흔 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18:30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일 거기서 서른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서른 명을 찾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18:31 아브라함이 말했다. "제가 감히 주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스무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무 명을 위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8:32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열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열 명을 위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8:33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 곧바로 떠나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19장

19:1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19:2 그리고 말했다. "내 주들이여, 부디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하룻밤 묵으시며 발을 씻으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19:3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 주니 그들이 먹었다.

19:4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사방에서 몰려와 집을 둘러쌌다.

19:5 그들이 롯을 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네게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19:6 롯은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뒤로 문을 닫았다.

19:7 그리고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19:8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 딸들을 여러분에게 내어 줄 테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하십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으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19:9 그들이 소리쳤다. "물러서라!" 그리고 또 말했다. "이 자가 나그네로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재판관 행세를 하려 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 그들은 롯을 세차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19:10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손을 뻗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뒤 문을 닫았다.

19:11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지쳐 버렸다.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이곳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더 있느냐? 사위들이나 네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성 안에 있는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19:13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곳 사람들에 대한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19:14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게! 주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걸세!"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19:15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19:16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19:17 그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낸 뒤에 한 천사가 말했다. "목숨을 걸고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평들에 머물지 마라.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19:18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십시오.

19: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목숨을 건져 주심으로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닥쳐 제가 죽을까 두려워 산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19:20 보십시오, 저 성읍은 도망치기에 가깝고 작은 성입니다. 제발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그리하면 제 목숨이 살 것입니다."

19:21 그가 롯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이 일에서도 너의 청을 들어주어, 네가 말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19:22 서둘러 그곳으로 도망하라. 네가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라 불렸다.

19:23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아올랐다.

19:24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주님에게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처럼 쏟아부으셨다.

19:25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평들과 성에 살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난 것들을 다 뒤엎어 멸망시키셨다.

19:26 그러나 롯의 뒤를 따르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19:27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갔다.

19:28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평들의 땅을 내려다보니, 그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마치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고 있었다.

19:29 하나님께서 그 평들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곧 롯이 살던 성읍들을 뒤엎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파멸의 한가운데서 내보내 주셨다.

19:30 롯은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 소알에서 나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살았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19:31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와 잠자리를 함께할 남자가 없어.

19:32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대를 잇자."

19:33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 뒤,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19:34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누워 우리 아버지의 대를 잇자."

19:35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작은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19:36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19:37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다.

19:38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지었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20장

20:1 아브라함은 거기서 남쪽 땅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머물렀으며, 그랄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20:2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 "그녀는 내 누이요" 하고 말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다.

20:3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20:4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20:5 그가 저에게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또한 스스로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20:6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이므로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20:8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 이 모든 일을 그들의 귀에 말해 주었고, 신하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20:9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처럼 큰 죄를 끌어들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소!"

20:10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했다. "당신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했소?"

20:11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2 게다가 사라는 실제로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는 다른 이복누이인데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20:13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가리켜 내 오라비라고 말해 주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은혜요'라고 당부했습니다."

20:14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20:15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했다.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마음에 드는 곳에 머무시오."

20:16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당신의 오라비에게 은 천 세겔을 주었소.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수치를 덮어 줄 것이며, 모든 면에서 당신의 결백이 밝혀졌소."

20: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 주셔서 그들이 다시 아이를 낳게 하셨다.

20:18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주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단단히 닫아 두셨기 때문이었다.

21장

21:1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1:2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정해진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21: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다.

21:4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21:5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백 세였다.

21:6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21:7 또 사라가 말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아 주었구나."

21:8 아이가 자라 젖을 떼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21:9 사라는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놀리는 것을 보았다.

21:10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11 자기 아들에 관한 일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괴로워했다.

21:1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자손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21: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 내가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1: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가죽부대에 담긴 물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아이를 딸려 그녀를 내보냈다. 하갈은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었다.

21:15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두었다.

21:16 그리고 "아이가 죽어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하면서, 화살 한 바탕 닿을 만큼 떨어진 맞은편으로 가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이의 맞은편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다.

21:17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그곳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21:18 일어나 아이를 안아 손으로 붙들어 주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21:19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시니, 그녀가 샘을 보았다. 하갈은 가서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21:20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자라났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21:21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21:22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오.

21:23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과 내 후손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베푼 친절대로, 그대도 나와 그대가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땅에 행해 주시오."

21:24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21:25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우물 문제로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21:26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오늘에야 이 일을 들었소."

21: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

21:28 아브라함이 양 떼 가운데서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21: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오?"

21:30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도록, 그대는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으십시오."

21:31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불렀다.

21: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지휘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21:34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 동안 나그네로 머물렀다.

22장

22:1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2: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22: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22:4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보았다.

22:5 아브라함이 함께 온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22:6 아브라함은 번제용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22:7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말했다.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22:8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걸어갔다.

22:9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올려놓은 뒤,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혔다.

22:10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22:11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2:12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뒤쪽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22:14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22:15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22:16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22:17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22:18 또한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22:19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22:20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했다. "밀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22:21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의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22:22 그리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입니다."

22:23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여덟 명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 준 자식들이다.

22:24 나홀의 첩인 르우마라는 여인도 디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23:1 사라는 백이십칠 년을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다.

23:2 사라는 가나안 땅의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곡했다.

23:3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헷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3:4 "나는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게 매장지 소유권을 넘겨주어, 내가 죽은 아내를 데려다가 내 눈앞에서 장사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다.

23:5 헷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23:6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고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묘지를 내주지 않아 당신의 고인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23: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 자손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23:8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아내를 내 눈앞에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자 하신다면, 내 말을 듣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나를 위해 간청해 주십시오.

23:9 그가 자기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팔도록 해주십시오. 온당한 값을 다 치르고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사서 매장지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23:10 그때 에브론은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헷 사람 에브론은 성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헷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23:11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릴 테니, 당신의 고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23:12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굽혀 절했다.

23:13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부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밭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내가 내 죽은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23: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23:15 "내 주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은 사백 세겔짜리 땅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고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23:16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은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액수대로,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표준에 따라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23:17 이렇게 해서 마므레 맞은편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의 굴, 그리고 밭 경계선 안의 모든 나무가

23:18 성문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헷 자손들의 입회하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편(곧 헤브론) 막벨라 밭 굴에 장사 지냈다.

23:20 이로써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져 매장지 소유가 되었다.

24장

24:1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고,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24:2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가장 늙은 종에게 말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24:3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자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가리켜 네게 맹세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24:4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와야 한다."

24:5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인의 아드님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야 합니까?"

24:6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다. "조심하여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24:7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태어난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하늘의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게 될 것이다.

24:8 만일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다. 다만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마라."

24:9 그리하여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관해 맹세했다.

24:10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들 가운데서 열 마리를 끌고,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을 챙겨 떠났다. 그는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24:11 그는 저녁 무렵,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성 밖의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무릎 꿇려 쉬게 했다.

24:12 그리고 기도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 부디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4:13 보십시오, 제가 이 샘 곁에 서 있고, 성안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24:14 제가 한 젊은 여자에게 '청하건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말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24:15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인 브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24:16 그 젊은 여자는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샘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왔다.

24:17 종이 달려 나가 그녀를 맞으며 말했다. "청하건대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시오."

24:18 그러자 그녀가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며 서둘러 물동이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했다.

24:19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뒤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더 길어다 주겠습니다."

24:20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 주었다.

24:21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의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묵묵히 그녀를 주목해 보았다.

24:22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는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하나와 열 세겔 무게의 금 팔찌 한 쌍을 꺼내어,

24:23 말했다. "그대는 누구의 딸이오? 부디 내게 말해 주시오.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소?"

24:24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 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24:25 그녀는 또 덧붙여 말했다. "우리에게 짚과 여물도 넉넉하고, 묵어가실 방도 있습니다."

24:26 그 사람은 머리를 숙여 주님께 예배했다.

24:27 그리고 말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친족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4:28 그 젊은 여자는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안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전했다.

24:29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라반이 성 밖 샘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 나갔다.

24:30 그는 코걸이와 자기 누이의 손에 들린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전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에게로 갔다. 가 보니, 그는 샘 곁에서 낙타들 옆에 서 있었다.

24:31 라반이 말했다. "주님께 복을 받으신 분이여,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두었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24:32 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풀고 짚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24:33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용무를 다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했다.

24:34 그가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24:35 주님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내 주인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양 떼와 소 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24:36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24:37 내 주인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24:38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4:39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24:40 그러자 주인은 내게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자기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24:41 네가 내 친족에게 갈 때에 비로소 내 맹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네게 여인을 내주지 않더라도 너는 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4:42 그리하여 내가 오늘 이 샘에 이르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 부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24:43 보십시오, 제가 이 샘 곁에 서 있습니다.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에게 제가 "부디 그대의 물동이에서 마실 물을 조금만 주시오"라고 말할 때,

24:44 그녀가 제게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 주신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24:45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샘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청하건대 내게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라고 청했습니다.

24:46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마셨고,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24:47 내가 그녀에게 '그대는 뉘 댁 따님이오?' 하고 묻자, 그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 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 주고, 손에 팔찌들을 끼워 주었습니다.

24:48 그리고 머리를 숙여 주님께 예배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주인의 조카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데려갈 수 있도록 저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4:49 이제 여러분이 내 주인을 너그럽고 진실하게 대하고자 하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정할 수 있겠습니다."

24: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24:51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24:52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절했다.

24:53 그리고 종은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24:54 그 후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신 뒤 하룻밤을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종이 말했다. "나를 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24:55 그러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이 아이를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 동안만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떠나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24:56 그러자 종이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제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저를 보내 주셔서 제가 내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57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불러 직접 물어봅시다."

24:58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4:59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과 함께 떠나보냈다.

24:60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말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라."

24: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24:62 그때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길에서 오고 있었는데, 그는 남쪽 땅에 살고 있었다.

24:63 이삭은 저녁때에 묵상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24:64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24:65 종에게 물었다. "들에서 우리를 맞으러 걸어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리브가는 너울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렸다.

24:66 종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해 주었다.

24:67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데려갔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사랑했다. 그리하여 이삭은 어머니를 여읜 뒤에 위로를 얻었다.

25장

25:1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25:2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 주었다.

25:3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앗수림 족속, 르두심 족속, 르움밈 족속이었다.

25: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였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25:5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25:6 그러나 아브라함은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고, 자기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냈다.

25:7 아브라함이 살았던 평생의 햇수는 백칠십오 년이었다.

25:8 아브라함은 숨을 거두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흡족한 여생을 누리다가 늘그막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25: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헷 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 곧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했다.

25:10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서 사들인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그곳에 묻혔다.

25: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25:12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25:13 태어난 순서에 따른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이었고, 그 다음은 게달, 앗브엘, 밉삼,

25:14 미스마, 두마, 맛사,

25:15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25:16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며, 마을과 진영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들은 각 민족에 따른 열두 지도자였다.

25:17 이스마엘의 평생 햇수는 백삼십칠 년이었다. 그는 숨을 거두어 죽었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25:18 그들은 앗수르로 가는 길목, 애굽 맞은편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 맞은편에서 살았다.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25:20 이삭은 마흔 살에 밧단아람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25:21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해 주님께 간구했다.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25:22 그런데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안에서 서로 부딪쳤다. 리브가는 "이렇다면 내가 어찌 살까?" 하고 말하며 주님께 뜻을 여쭈어보러 갔다.

25:23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갈라져 나올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25:24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차서 보니,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25:25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옷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다.

25:26 그 뒤에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예순 살이었다.

25:27 그 아이들이 자라났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자 들판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물러 살았다.

25: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25:29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몹시 허기져 있었다.

25:30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몹시 배고프니,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해 다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25:31 야곱이 말했다. "형의 맏아들 권리를 먼저 내게 파시오."

25:32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5:33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했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다.

25:34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렌즈콩 죽을 주었다. 에서는 먹고 마신 뒤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렇게 에서는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26장

26:1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는 앞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에 더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26:2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일러 줄 땅에서 살아라.

26:3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서약을 이룰 것이다.

26:4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요구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26:6 그리하여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살았다.

26:7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묻자, 이삭은 "그는 내 누이요"라고 말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웠으므로, "이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26:8 이삭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26:9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 "보시오, 그는 분명히 당신의 아내가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내 누이요'라고 말했소?"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26:10 아비멜렉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자칫 당신 아내와 함께 누웠더라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책을 뒤집어쓸 뻔하지 않았소!"

26:11 아비멜렉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해에 백 배나 거두어들였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26:13 그 사람은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26:14 양 떼와 소 떼를 많이 거느리고 종들도 아주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26:15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26:17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다.

26:18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워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땅을 파다가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우물을 발견했다.

26:20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6:21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두고서도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싯나라고 불렀다.

26:22 이삭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말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26:23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26:24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며,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26:25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

26:26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훗삿과 군대 지휘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다.

26:27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쫓았으면서,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26:28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서약을 맺고 당신과 언약을 체결합시다'라고 했습니다.

26:29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좋은 일만 베풀어 평안히 떠나보냈듯이,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6:30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그들이 먹고 마셨다.

26:31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배웅하자, 그들은 평안히 떠나갔다.

26:32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전하며 말했다.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26:33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가 되었다.

26:34 에서는 마흔 살이 되었을 때 헷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매를 아내로 맞이했다.

26:35 이 여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깊은 근심거리가 되었다.

27장

27:1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에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7:2 이삭이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27:3 그러니 이제 네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 오너라.

27:4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27:5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사냥감을 잡아 가져오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27:6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27:7 '사냥감을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셨다.

27:8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일러 주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해라.

27:9 지금 가축 떼에게 가서 좋은 어린 염소 두 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27:10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아버지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해라."

27:11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보세요, 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결이 매끄러운 사람입니다.

27:12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여겨져,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27:13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네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오직 내 말만 듣고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27:14 야곱이 가서 염소들을 끌어 어머니에게 가져왔다.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27:15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꺼내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27:16 그리고 어린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끄러운 목둘레에 둘러 입혔다.

27:17 리브가는 자기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쥐여 주었다.

27: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27: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을 담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27:20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처럼 빨리 사냥감을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7:21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27:22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다.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27:23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이삭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했다.

27:24 이삭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자, 야곱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7:25 이삭이 말했다. "그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까이 가져다주자 이삭이 먹었고, 포도주를 가져다주자 마셨다.

27:26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라."

27:27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주님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로구나.

27:28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주시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시기를 바란다.

27:29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기고 뭇 민족이 네게 절하기를 바란다.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기를 바란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든 복을 받기를 바란다."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을 떠나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27:31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에서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27:33 이삭이 몸을 심하게 떨며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감을 잡아 내게 가져온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으니,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27:34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몹시 크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27:35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네 축복을 가로챘구나."

27:36 에서가 말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두 번이나 밀쳐냈습니다. 전에는 제 맏아들 권리를 빼앗더니, 보십시오, 이제는 제 축복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남겨 두신 축복이 없습니까?"

27: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를 먹여 살렸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27:38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 축복이 겨우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다.

27:39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네 거처에는 땅의 기름짐과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이슬이 있을 것이다.

27:40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가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얽매임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벗어 던질 것이다."

27:41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빌어 준 축복 때문에 야곱을 원망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가 되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생각했다.

27:42 큰아들 에서가 한 말이 리브가에게 전해졌다.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보아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원한을 풀려고 벼르고 있다.

27:43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27:44 네 형의 격분이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27:45 네 형의 노여움이 네게서 풀리고 네가 그에게 한 짓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오겠다.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이 헷 여인들 때문에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만약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이와 같은 헷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가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8장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28: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할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28:3 전능한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어 여러 민족의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빈다.

28:4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상속받게 되기를 바란다."

28:5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갔다.

28:6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을 보았다. 또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하고 명령한 것과,

28:7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28:8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8:9 이에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미 데리고 있던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

28: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났다.

28:11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그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28:12 그가 꿈을 꾸었는데, 땅 위에 계단 하나가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28:13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니,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28:14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28: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8: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구나."

28:17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28: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28:19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28:20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8:22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십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장

29:1 그 뒤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29:2 야곱이 바라보니 들판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가축 떼에게 물을 먹이곤 했는데, 우물 어귀를 덮고 있는 돌이 컸다.

29:3 모든 가축 떼가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 내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을 우물 어귀 원래 자리에 덮어 두곤 했다.

29:4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9:5 야곱이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알고말고요" 하고 대답했다.

29:6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십니까?" 그들이 말했다. "잘 지냅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29:7 야곱이 말했다. "아직 한낮이라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게 하십시오."

29:8 그들이 대답했다. "가축 떼가 다 모이고 사람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 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29:9 야곱이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왔다.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9:10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 떼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 내어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29:11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다.

29:12 야곱은 자기가 라헬 아버지의 친족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라헬에게 말해 주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29:13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맞으러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29:14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다.

29:15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내 친족이라고 해서 거저 내 일을 해 줄 수야 있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내게 말해 보아라."

29:16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29:17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나, 라헬은 몸매가 예쁘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29:18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이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얻기 위해 제가 칠 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9:19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나와 함께 머물러라."

29:20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칠 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칠 년이 그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다.

29:21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여자와 함께 지내겠습니다."

29:22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29:23 저녁이 되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했다.

29:24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29:25 아침이 되어 보니, 뜻밖에도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외삼촌께서 어찌하여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 곁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29:26 라반이 말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맏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다네.

29:27 이 아이를 위해 결혼식 주간을 채우게나. 그러면 다른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자네는 나를 위해 칠 년을 더 일해야 하네."

29:28 야곱은 그대로 하여 레아의 주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9:29 라반은 자기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29:30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같이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했다. 그리고 라반 곁에서 칠 년 동안 더 일했다.

29:31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으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 "주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29:33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29:34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결합하겠지."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

29:35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때문에 레아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 나서 레아는 출산을 멈추었다.

30장

30:1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도 자식을 낳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30:2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 태의 열매를 가로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30:3 라헬이 말했다. "내 여종 빌하가 있지 않아요. 그 아이와 잠자리를 같이하세요. 빌하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 주면, 나도 그 아이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30:4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빌하와 동침했다.

30: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6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하여 라헬은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30:7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8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치열하게 겨루어 이겼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30:9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30:10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11 레아가 "참 복되다!" 하고 외치며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

30:12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13 레아가 말했다. "기쁘다!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부르겠구나."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30:14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발견하여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환채를 내게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30:15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으로는 모자라서, 내 아들의 합환채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 대가로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잘 수 있게 해 줄게요."

30:16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마중 나가서 말했다. "오늘 밤은 내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으니까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누웠다.

30:17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18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품삯을 갚아 주셨구나."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지었다.

30: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30:20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30:21 그 뒤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30:22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30:23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30:24 라헬은 "주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30: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보내 주셔서 제가 살던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30:26 제가 외삼촌을 위해 일하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넘겨주셔서 제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외삼촌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27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너그럽게 보아준다면 제발 머물러 있게나.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점을 쳐서 알았네."

30:28 라반이 또 말했다. "자네 품삯을 정해 보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30:29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가축 떼가 제 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외삼촌께서 잘 아십니다.

30:30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크게 불어나 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발길을 돌리는 곳마다 주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제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30:31 라반이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했다.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삼촌께서 저를 위해 이 한 가지만 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30:32 오늘 제가 외삼촌의 양 떼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양 가운데 검은 것을 모두 골라내고, 염소 중에서도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을 골라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30:33 훗날 외삼촌께서 오셔서 제 품삯을 확인하실 때 제 정직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염소 중에 점이나 얼룩무늬가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제게 있다면, 그것은 다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30:34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30:35 그날 라반은 줄무늬와 점이 있는 숫염소들과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모든 암염소, 곧 흰 털이 섞인 모든 것과 양 가운데 검은 것들을 다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30:36 그리고 라반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의 거리를 두었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 떼를 먹였다.

30:37 야곱은 미루나무와 아몬드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 가지 속의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30:38 그는 양 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물구유에,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 떼 앞에 세워 두었다. 양 떼는 물을 마시러 왔다가 새끼를 배었다.

30:39 양 떼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어, 줄무늬가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30:40 야곱은 어린양들을 따로 떼어 놓고, 라반의 양 떼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온통 검은 것을 양 떼가 마주 보게 했다. 그리고 자기 가축 떼를 따로 두어 라반의 양 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30:41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밸 때마다 야곱은 물구유 가지들을 양들의 눈앞에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했다.

30:42 그러나 약한 양들이 올 때에는 가지들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30:43 그리하여 야곱은 몹시 큰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 떼와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갖게 되었다.

31장

31:1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는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1:2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31:3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31:4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냈다.

31:5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소.

31:6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31:7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31:8 그가 '점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온 양 떼가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네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온 양 떼가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31: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31:10 가축이 짝짓기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양 떼와 짝짓기하는 숫염소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이었소.

31:11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소.

31:12 그분이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양 떼와 짝짓기하는 숫염소는 다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이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31:13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던 벧엘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31: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받을 몫이나 유산이 아직 남아 있겠어요?

31:15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기고 우리 몫의 돈까지 다 써 버렸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31:16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찾아오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31:17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31:18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자기가 모은 모든 가축과 재산, 곧 밧단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모두 몰고 길을 나섰다.

31:19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 있었는데,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31:20 야곱은 자기가 도망친다는 사실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를 속였다.

31:21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일어나 강을 건넜고,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31:22 사흘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말을 들었다.

31:23 라반은 친족들을 이끌고 이레 동안 그를 뒤쫓아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31:24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31:25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산에 장막을 쳐 놓은 상태였다. 라반도 친족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진을 쳤다.

31:26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31:27 어찌하여 은밀히 도망쳐 나를 속이고 내게 알리지 않았는가? 알렸더라면 내가 기쁨과 노래와 소고와 수금으로 자네를 전송했을 것이 아닌가?

31:28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도 못하게 했으니, 자네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네.

31:29 자네들을 해칠 힘이 내 손에 있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31:30 이제 자네가 아버지 집을 몹시 그리워하여 떠나려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내 신상들은 어찌하여 훔쳐 갔는가?"

31: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제게서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31:32 그러나 장인어른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 앞에서 제게 장인어른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31:33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31:34 라헬은 이미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31:35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게 여자의 주기(월경)가 있어 아버지 앞에 일어설 수 없으니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두루 찾았으나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다.

31:36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을 책망하며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물었다. "제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기에 장인어른께서 불같이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31:37 장인어른께서 제 모든 짐을 다 뒤져 보셨는데, 장인어른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제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 앞에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결하게 하십시다.

31:38 내가 장인어른과 함께한 이 이십 년 동안 장인어른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은 낙태한 적이 없었고, 장인어른 양 떼의 숫양들을 내가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31:39 맹수에게 찢긴 것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물어내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께서는 그것을 제 손에서 물어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31:40 저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31:41 장인어른의 집에서 보낸 이 이십 년 동안, 두 딸을 얻으려고 십사 년을 일했고 장인어른의 양 떼를 위해 육 년을 일했건만, 장인어른께서는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습니다.

31:42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장인어른께서는 분명 지금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고난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지난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31: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양 떼는 내 양 떼며, 자네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일세!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31:44 자, 이제 나와 자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를 삼세."

31:45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31:46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이 돌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고, 그 무더기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31: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31:48 라반이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네" 하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갈르엣이라 불렸고,

31:49 또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떨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네" 했기 때문이다.

31:50 "자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더 얻는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도 보게나,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시네."

31:51 라반이 야곱에게 또 말했다.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 둔 이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이 기둥을 보게.

31:52 내가 자네를 해치려고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고, 자네 또한 나를 해치려고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 무더기가 증인이 되고 이 기둥이 증인이 될 것이네.

31: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했다.

31:54 야곱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 산에서 밤을 지냈다.

31:55 이튿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32장

32: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32:2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32:3 야곱은 세일 땅, 곧 에돔 들판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32:4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너희는 내 주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라반 곁에 머물며 나그네로 지내다가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32:5 제게는 소와 나귀, 양 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주께 사람을 보내어 알려 드리오니, 주인의 눈에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32:6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의 형님이신 에서께 다녀왔습니다. 그분께서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으러 오고 계십니다."

32:7 야곱은 몹시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32:8 그는 '에서가 한 무리에 닥쳐 그것을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32:9 야곱이 기도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제게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

32:10 저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한결같은 사랑과 온갖 진실하심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쥐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32:11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자식 딸린 어머니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32:12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해 주고, 네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2:13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고,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32:14 그것은 암염소 이백 마리와 숫염소 스무 마리, 암양 이백 마리와 숫양 스무 마리,

32:15 젖을 짜는 낙타 서른 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마흔 마리와 황소 열 마리, 암나귀 스무 마리와 새끼 나귀 열 마리였다.

32:16 그는 이것들을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리고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32:17 그는 맨 앞선 사람에게 명령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32:18 너는 '주인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내 주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32:19 그는 둘째와 셋째와 떼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명령했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말하여라.

32:20 너희는 '주인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덧붙여 말하여라." 야곱은 '내가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의 마음을 풀고, 그 뒤에 형의 얼굴을 보면 형이 어쩌면 나를 너그럽게 맞아 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32:21 그리하여 선물은 그보다 앞서 건너갔고, 야곱 자신은 그날 밤 진영에 머물렀다.

32:22 그는 그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32:23 그는 그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도 건너보냈다.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서 그와 씨름했다.

32:25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관절을 쳤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씨름할 때 엉덩이관절이 어긋났다.

32:26 그 사람이 "날이 밝아 오니 나를 놓아주어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32:27 그 사람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그가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32:28 그 사람이 말했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32:29 야곱이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제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32:30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목숨이 보전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32: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

32:32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관절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 엉덩이관절에 붙은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33장

33: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33:2 그는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두었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33:3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몸을 땅에 일곱 번 굽혀 절했다.

33:4 그러자 에서가 그를 맞으러 달려와 그를 껴안고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33: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자네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33:6 그러자 여종들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와 엎드려 절했다.

33:7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아와 절했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나아와 엎드려 절했다.

33:8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이 모든 무리는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야곱이 말했다. "내 주의 눈에 은혜를 입으려는 것입니다."

33:9 에서가 말했다. "내 동생아, 내게도 넉넉하니 자네 것은 자네가 가지게."

33:10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부디 제가 형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제 손에서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께서도 저를 기꺼이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33:11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게도 넉넉하니,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

33:12 에서가 말했다. "자, 길을 떠나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에서 이끌어 주마."

33:13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 "제 주께서도 아시듯이, 아이들은 여리고 제가 거느린 양 떼와 소 떼도 젖먹이 새끼들이 딸려 있습니다. 하루만 무리해서 몰아쳐도 온 양 떼가 다 죽을 것입니다.

33:14 부디 내 주께서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가는 가축들의 걸음걸이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서, 세일에 계신 제 주께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33:15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네 곁에 남겨 두겠다." 야곱이 말했다.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다만 제 주의 눈에 은혜를 입게만 해 주십시오."

33:16 그날 에서는 발길을 돌려 세일로 돌아갔다.

33:17 야곱은 숙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게 되었다.

33:18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떠나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33:19 그는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 백 닢을 주고 샀다.

33:20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34: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34:2 그 땅의 통치자인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누워 그를 욕되게 했다.

34:3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처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정하게 말했다.

34:4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저 처녀를 제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34:5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34: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이야기하려고 그에게로 나왔다.

34:7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비통에 잠겼고 심히 분노했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34:8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여러분의 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34:9 우리와 서로 통혼합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은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34:10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마련하십시오."

34: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34:12 제게 아무리 많은 신붓값과 예물을 요구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릴 터이니 오직 그 처녀만 제 아내로 주십시오."

34:13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했다.

34:14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34:15 오직 이 조건 하나라면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면,

34:16 우리가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오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서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34:17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34:18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에 들었다.

34:19 그 젊은이는 야곱의 딸을 몹시 좋아했으므로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하고자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

34:20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 성읍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34: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장사하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34:22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한 백성이 되는 데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34:23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34:24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34:25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직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빼 들고 기습하여 무방비 상태의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였다.

34:26 그들은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34:27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들이닥쳐 성읍을 약탈했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다.

34:28 그들은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들, 곧 성읍 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을 빼앗았고,

34: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털었다. 또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모두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34: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재앙에 빠뜨려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수가 적다.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 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34:31 그러나 그들은 "그자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어도 된단 말입니까?" 하고 쏘아붙였다.

35장

35: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35:2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고, 몸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갈아입어라.

35: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35:4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달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35:5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에 큰 두려움을 내리셨으므로, 그 성읍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않았다.

35:6 그리하여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벧엘에 이르렀다.

35:7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35: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벧엘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고, 그 나무의 이름은 알론바굿이라 불렸다.

35: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를 축복하셨다.

35:10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으셨다.

35:11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의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35: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줄 것이며,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35:13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35:14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35:15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불렀다.

35:16 그들이 벧엘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아직 얼마간 거리가 남아 있었을 때,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심한 난산을 했다.

35:17 그가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또 아들을 얻으시게 되었어요."

35:18 라헬의 숨이 끊어지려 할 때(그는 결국 죽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35:19 라헬이 죽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35:20 야곱이 그의 무덤에 묘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남아 있다.

35: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탑 너머에 장막을 쳤다.

35: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고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모두 열둘이었다.

35: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이다.

35: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35: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다.

35: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났다.

35:27 야곱은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곳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로 살던 곳이었다.

35:28 이삭이 산 날 수는 백팔십 년이었다.

35:29 이삭은 나이가 많아 살 만큼 다 살고 숨을 거두어 죽었으며,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지냈다.

36장

36:1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36:2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들을 맞이했으니, 곧 헷 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며,

36:3 또 느바욧의 누이이자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매였다.

36:4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 주었고, 바스매는 르우엘을 낳았으며,

36: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다.

36:6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갔다.

36:7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머물던 땅은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6:8 그리하여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는 곧 에돔이다.

36:9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36:10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매의 아들은 르우엘이다.

36: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36:12 딤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는데, 그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36:13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밋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매의 자손이다.

36:14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아 주었다.

36:15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36: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엘리바스의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이다.

36:17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밋사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르우엘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매의 자손이다.

36:18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로는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36:19 이들이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들의 족장들이었다.

36:20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사람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36: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던 세일의 자손으로서 호리 사람들의 족장이었다.

36:22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만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36:23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36:24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였다.

36:25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다.

36:26 디손의 아들들은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36:27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36:28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36:29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36: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이 세일 땅에서 그들의 족속에 따라 나온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이었다.

36:31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아직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36:32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고,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였다.

36:33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34 요밥이 죽자 데만 족속의 땅 출신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35 후삼이 죽자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브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 이름은 아윗이었다.

36:36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37 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38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39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자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 이름은 바우였고, 그의 아내 이름은 메사합의 손녀이자 마드렛의 딸인 므헤다벨이었다.

36:40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36:41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36: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36: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각자 소유한 땅의 거주지에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이다.

37장

37:1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된 소년 요셉은 자기 형들과 함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는데, 요셉은 그들의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다.

37:3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해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37:4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37:5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37:6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제가 꾼 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37:7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제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37:8 그의 형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37:9 요셉이 다시 또 다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며 말했다.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37:10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말을 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꾼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단 말이냐?"

37:11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37:12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였다.

37: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오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요셉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7:14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 떼도 무사한지 살펴보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해 다오." 그리하여 야곱은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고, 요셉은 세겜에 이르렀다.

37:15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37:16 요셉이 말했다. "제가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 떼를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 주십시오."

37:17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37:18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37:19 그들이 서로 말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37:20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 하나에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37:21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말했다. "그의 목숨까지 빼앗지는 말자."

37: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말했다.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37: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요셉의 옷, 곧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겨 냈다.

37:24 그리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텅 비어 있었고 물이 전혀 없었다.

37:25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 무리가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애굽으로 싣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37: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피붙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 말을 따랐다.

37:28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스무 개를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다.

37:29 르우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

37:30 그는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그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부르짖었다.

37:31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다.

37:32 그들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37:33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틀림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37:34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른 채 여러 날 동안 아들을 위해 애통해했다.

37:35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 일어났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울었다.

37:36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

38장

38:1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 히라라는 이름의 아둘람 사람을 찾아갔다.

38:2 거기서 유다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 동침했다.

38:3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유다는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38:4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다.

38:5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다.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38:6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38:7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38:8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고, 네 형을 위해 자손을 세워 주어라."

38:9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할 때 형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에 흘렸다.

38:10 그가 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주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38:11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거라" 하고 말했다.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은 가서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38:12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슬픔을 달랜 뒤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는 딤나로 올라갔다.

38:13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38:14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싼 채, 딤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 성문 어귀에 앉았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가 그의 아내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38:15 유다는 그녀를 보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창녀로 여겼다.

38:16 유다는 길가에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게 들어가게 해 다오" 하고 말했다.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이 말했다. "저와 함께 주무시려면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38:17 유다가 "가축 떼에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염소를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38:18 유다가 "어떤 담보물을 주면 되겠느냐?" 하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손에 쥔 지팡이입니다." 유다는 그것들을 그녀에게 주고 동침했고,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38:19 다말은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다.

38:20 유다는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돌려받으려고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어린 염소를 보냈으나, 그는 여인을 찾지 못했다.

38:21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길가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그들은 "여기에는 창녀가 없었소" 하고 대답했다.

38:22 그는 유다에게 돌아와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도 '여기에는 창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38:23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그 여자가 가지게 두어라. 내가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도 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것뿐이다."

38:24 석 달쯤 지나서 사람들이 유다에게 알렸다. "맥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음행으로 임신까지 했습니다." 유다가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38:25 다말은 끌려 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저는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38:26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38:27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38:28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38:29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들이밀자 그의 아우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왔느냐?"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38:30 그 뒤에 손에 붉은 실을 묶은 그의 형이 나왔고,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39장

39:1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다.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39:2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으므로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39:3 그의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며 주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39:4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었고, 주인을 시중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39:5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관리인으로 삼은 때부터, 주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주님의 복이 임했다.

39:6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다부지고 용모가 잘생겼다.

39:7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주며 "나와 함께 누워요" 하고 말했다.

39:8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제 주인께서는 집안에서 제 손에 맡겨진 것에 대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39:9 이 집에는 저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께서는 마님 말고는 아무것도 제게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39:10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으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 곁에 눕지도 않았으며 함께 있지도 않았다.

39:11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사람 중 아무도 안에 없었다.

39:12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나와 함께 누워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39:13 그녀는 요셉이 자기 손에 옷을 남겨 둔 채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39:14 집안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소.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큰 소리로 질렀소.

39:15 그는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듣고,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소."

39:16 그녀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보관해 두었다.

39:17 그리고 주인에게 이와 같은 말로 고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어요.

39:18 그러나 내가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자, 그는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39:19 요셉의 주인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게 행했소"라고 말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39:20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 곧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39:21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39:22 간수장은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했다.

39:23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겨진 어떤 것도 살피지 않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40장

40:1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애굽 왕의 술 따르는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었다.

40:2 바로는 자기의 두 관리,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다.

40:3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 곧 요셉이 갇혀 있던 곳에 가두었다.

40:4 경호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자 요셉이 그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40:5 감옥에 갇혀 있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은 저마다 고유한 뜻을 지니고 있었다.

40: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40: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던 바로의 관리들에게 "오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40:8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풀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40:9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내 꿈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었네.

40:10 그 나무에 가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익었다네.

40:11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들려 있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 드렸네."

40:12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40:13 사흘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머리를 들어 올려 관원장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관원장님은 전에 술 맡은 자였을 때 하셨던 것처럼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40:14 부디 잘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께 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40:15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며, 여기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0:16 빵 굽는 관원장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 위에 흰 빵 세 광주리가 얹혀 있었네.

40:17 가장 위쪽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의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파먹었다네."

40:18 요셉이 대답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40:19 사흘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머리를 잘라 내고 나무에 매다실 것이며,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40:20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으므로,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와 빵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40:21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그의 자리에 복직시켰고, 그는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 드렸다.

40:22 그러나 빵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였다.

40:23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41장

41:1 만 이 년이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강가에 서 있었다.

41:2 강에서 살지고 보기에 좋은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41:3 그 뒤를 이어 흉하고 야윈 다른 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의 다른 소들 곁에 섰다.

41:4 그런데 그 흉하고 야윈 소들이 살지고 윤기 흐르는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이에 바로가 잠에서 깼다.

41:5 바로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서 통통하고 좋은 이삭 일곱 개가 솟아났다.

41:6 그 뒤를 이어 동풍에 말라 야위고 메마른 이삭 일곱 개가 솟아올랐다.

41:7 그 야윈 이삭들이 통통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를 삼켜 버렸다. 바로가 깨어 보니 꿈이었다.

41:8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해 주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41:9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아뢰었다. "제가 오늘 저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41: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였습니다.

41:11 저와 그 사람은 하룻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마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41:12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꿈에 맞게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41: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풀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께서는 저를 제 자리에 복직시키셨고,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41: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고,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나아갔다.

41:15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에 관해 듣기로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풀어낸다고 하더구나."

41: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께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41:17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꿈에 내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41:18 살지고 윤기 흐르는 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41:19 그 뒤를 이어 볼품없고 매우 흉하며 야윈 다른 소 일곱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흉한 것은 온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41:20 그런데 그 야위고 흉한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41:21 먹어 치웠는데도 그것들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처음처럼 흉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깨어났다.

41:22 내가 또 꿈에서 보니,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이삭 일곱 개가 솟아났다.

41:23 그 뒤를 이어 시들고 야위며 동풍에 메마른 이삭 일곱 개가 솟아올랐다.

41:24 그런데 그 야윈 이삭들이 좋은 이삭 일곱 개를 삼켜 버렸다.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했으나,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41:25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41:26 좋은 소 일곱 마리는 칠 년이요, 좋은 이삭 일곱 개도 칠 년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41:27 그 뒤를 이어 올라온 야위고 흉한 소 일곱 마리도 칠 년이며, 동풍에 메말라 속이 빈 이삭 일곱 개도 칠 년 동안의 기근이 될 것입니다.

41:28 이것이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께 보여 주셨습니다.

41:29 온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41:30 그러나 그 뒤에 칠 년 동안 기근이 이어져, 애굽 땅의 모든 풍년이 잊힐 것입니다.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41:31 뒤이어 닥칠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 이 땅에서 그 풍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1: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1:33 그러므로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41:34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셔서 이 땅 위에 관리들을 세우시고, 풍년이 드는 칠 년 동안 애굽 땅 소출의 오분의 일을 거두어들이십시오.

41:35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좋은 시절의 모든 양식을 모아, 바로의 권한 아래 성읍들에 양식을 저장하고 지키게 하십시오.

41:36 이 양식은 애굽 땅에 닥칠 칠 년의 기근에 대비하여 이 땅을 위한 비축물이 될 것이며, 그래야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41:37 이 제안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보기에 좋았다.

41:38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찾을 수 있겠는가?"

41:39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 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41:40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모든 백성이 네 말에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왕위뿐이다."

41:41 바로가 요셉에게 또 말했다. "보라,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41:42 바로는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41:43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병거에 요셉을 태우자,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

41:44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다. 네 허락 없이는 온 애굽 땅에서 아무도 손발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41:45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나아가 애굽 땅을 두루 살폈다.

41: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녔다.

41:47 풍년이 든 칠 년 동안 땅은 소출을 풍성하게 냈다.

41:48 요셉은 애굽 땅에 든 칠 년 동안의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했는데, 각 성읍 주위의 밭에서 난 양식을 그 성읍 안에 저장해 두었다.

41:49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이 쌓아 두어서,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세는 것을 그쳤다.

41:50 기근의 해가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었다.

41:51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41:52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41:53 애굽 땅에 있던 칠 년의 풍년이 끝났다.

41: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 년의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나, 온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41:55 온 애굽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바로는 모든 애굽 사람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거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여라."

41:56 기근이 온 땅에 퍼졌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41:57 기근이 온 땅에 심했으므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나아왔다.

42장

42:1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42:2 야곱이 또 말했다.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한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사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42:3 그리하여 요셉의 열 형제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42:4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무슨 해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42:5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다.

42:6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였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이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42:7 요셉은 형들을 보고 곧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42:8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42:9 요셉은 전에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땅의 취약한 곳을 엿보려고 왔다."

42:10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종들은 오직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42:11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42:12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취약한 곳을 엿보러 온 것이다."

42:13 그들이 말했다. "종들은 열두 형제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42:14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42:15 너희는 이 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막내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42:16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갇혀 있어라. 그리하여 너희 말이 참된지 시험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는 분명 정탐꾼들이다."

42:17 요셉은 그들을 다 함께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42:18 사흘째 되는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여 생명을 건져라.

42:19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게 하고 나머지는 너희 집 안의 굶주림을 면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42:20 그리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그대로 했다.

42:21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참으로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42: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42:23 그들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42:24 요셉은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울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한 뒤,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42:25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그대로 그들에게 시행되었다.

42:26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42:27 여관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기 돈을 보았다. 돈이 자루 어귀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42:28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왔다! 보아라,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떨며 서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가?"

42:29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렸다.

42:30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며,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42:31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42: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열두 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2:33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이것으로 알겠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 곁에 남겨 두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할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42:34 그리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돌려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42:35 그들이 자루를 쏟아붓는데,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들과 아버지는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

42:36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히는구나."

42: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 주시면 제가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42:38 그러나 야곱이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남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 아이에게 해가 미치면, 너희는 흰 머리가 성성한 나를 슬픔 속에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43장

43:1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43:2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더 사 오너라."

43: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3:4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 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 오겠습니다.

43:5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보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3:6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더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

43:7 그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관해 자세히 캐물으며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묻기에,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43:8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일어나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43:9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손에서 그 아이를 찾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께 죄책을 짊어지겠습니다.

43:10 우리가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벌써 두 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43: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출을 너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려라. 약간의 유향과 약간의 꿀, 향료와 몰약,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져가거라.

43:12 그리고 돈도 두 배로 손에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들어 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가거라. 어쩌면 착오였을 수도 있다.

43:13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43:14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수밖에 없다."

43:15 그 사람들은 그 선물을 챙기고 두 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43: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43:17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43:18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되자 두려워하여 말했다. "지난번 우리 자루에 도로 들어 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온 것이다. 우리를 덮쳐 공격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며 우리 나귀마저 빼앗으려는 것이다."

43:19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 집 문어귀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43:20 그들이 말했다. "내 주여, 우리는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었습니다.

43:21 그런데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열어 보니,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어귀에 무게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으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43:22 또한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43:23 관리인이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나왔다.

43:24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43:25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올 요셉을 맞이하려고 선물을 준비했다.

43:26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선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43:27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했다.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 계시느냐?"

43:28 그들이 말했다.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공손히 절했다.

43: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친아우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아우가 이 아이냐?" 그리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다.

43:30 요셉은 아우를 보고 마음이 북받쳐 올라 울 곳을 급히 찾았다. 그는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43:31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왔다. 그는 감정을 가라앉히며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했다.

43:32 사람들은 요셉에게 따로 상을 차려 주고,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 주었으며, 그와 함께 식사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려 주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43:33 그들은 맏아들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대로 요셉 앞에 앉혀졌고,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보며 놀라워했다.

43:34 요셉은 자기 상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덜어 주었는데, 베냐민의 몫은 다른 모든 사람의 몫보다 다섯 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

44장

44:1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명령했다. "그 사람들이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자루에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어귀에 넣어라.

44:2 그리고 내 잔, 곧 은잔을 막내의 자루 어귀에 그의 곡식 값과 함께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44:3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은 나귀들과 함께 떠나보내졌다.

44:4 그들이 성읍을 빠져나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44:5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실 뿐 아니라 점을 치실 때도 쓰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여라."

44:6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아 이 말을 그대로 전했다.

44:7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종들이 결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44:8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루 어귀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시 가져와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44:9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어 마땅하며, 우리도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44:10 관리인이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합시다.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44:11 그들은 서둘러 각자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다.

44:12 관리인이 맏이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44:13 그러자 그들은 자기 옷을 찢고 각자 나귀에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44: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땅에 꿇어앉았다.

44:15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칠 줄 모를 줄 알았느냐?"

44:16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밝혀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잔이 발견된 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주의 종입니다."

44:17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니,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거라."

44:18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오, 내 주여, 청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시고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는 바로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4:19 내 주께서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느냐?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기에,

44:20 우리가 내 주께 '우리에게 노인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노년에 얻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으로는 그 아이만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몹시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4:21 그러자 주께서는 종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직접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22 그래서 우리가 내 주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4:23 그러나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24 우리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올라갔을 때 내 주의 말씀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44:25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 오너라'라고 하셨을 때,

44:26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야 내려갈 것입니다.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4:27 그러자 주의 종인 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44:28 그런데 하나는 내게서 나가 버렸고, 나는 "그가 찢겨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를 보지 못했다.

44:29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데려갔다가 그에게 재난이라도 닥치면, 너희는 흰 머리가 성성한 나를 슬픔 속에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44:30 그러므로 이제 제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단단히 얽혀 있기에,

44:31 아버지는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를 슬픔 속에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꼴이 됩니다.

44:32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맡으며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께 죄책을 짊어지겠습니다'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44:33 그러므로 이제 부디 주의 종이 아이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44:34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에게 닥칠 그 비극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45장

45:1 그때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고 외쳤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45:2 요셉이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울자, 애굽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도 그 소식이 들렸다.

45:3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두려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45:4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45:5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6 지난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도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해가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45:7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 두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목숨을 건져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8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안의 주인이자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45:9 어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45:10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살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 떼와 소 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함께할 것입니다.

45:11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모든 소유가 궁핍해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하십시오.

45:12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으로 직접 보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요셉입니다.

45:13 형님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여러분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45:14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45:15 요셉은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며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런 뒤에야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5:16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중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다.

45:17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45:18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45:19 이제 그대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행하시오. '너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울 수레를 애굽 땅에서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45:20 너희의 세간에 미련을 두지 마라. 온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전하시오."

45: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수레를 내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45:22 요셉은 그들 각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 한 벌씩을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 개와 갈아입을 옷 다섯 벌을 주었다.

45:23 요셉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을 보냈다. 애굽의 좋은 물품을 실은 숫나귀 열 마리와,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은 암나귀 열 마리였다.

45:24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이 출발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45:25 그들은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45:26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며, 그가 온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야곱은 어안이 벙벙하여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45:27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모든 말을 야곱에게 전했다. 그리고 자기를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되살아났다.

45:28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보아야겠다."

46장

46:1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46:2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46: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

46:5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46:6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챙겨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갔다.

46:7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46:8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46:9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46:10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다.

46:11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다.

46:12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이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46:13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다.

46:14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다.

46: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며, 딸 디나도 낳았다. 그의 아들과 딸을 합한 모든 인원은 서른세 명이었다.

46:16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이다.

46:17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다.

46:18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 준 자손이니, 모두 열여섯 명이었다.

46: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46:20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 준 아들들이다.

46:21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뭅빔과 훕빔과 아릇이다.

46: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 준 자손이니, 모두 열네 명이었다.

46:23 단의 아들은 후심이다.

46:24 납달리의 아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다.

46:25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 준 자손이니, 모두 일곱 명이었다.

46:26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직계 자손은 모두 예순여섯 명이었다.

46:27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은 두 명이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사람은 모두 일흔 명이었다.

46:28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했고, 마침내 그들은 고센 땅에 이르렀다.

46:29 요셉은 자기 병거를 갖추어 타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46: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가 아직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46:31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이 제게로 왔습니다.

46:32 이 사람들은 대대로 가축을 쳐 온 목자들이어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46:33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46:34 여러분은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축을 쳐 온 사람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다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47장

47:1 요셉이 들어가 바로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47:2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다섯 사람을 뽑아 바로 앞에 데리고 갔다.

47:3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종들은 목자들로서, 저희와 저희 조상들이 다 그러합니다."

47:4 그들은 바로에게 덧붙여 말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먹일 풀밭이 없으므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종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47:5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47:6 애굽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하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맡아 돌보게 하시오."

47: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47:8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오?"

47:9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 나그네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제 인생의 햇수가 험악하고 짧아, 제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걸었던 햇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47:10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47:11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인 라암셋 땅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47:12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사람들에게 그 식구 수에 맞추어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47:13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 온 땅에 먹을 양식이 없었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기진맥진해졌다.

47:14 요셉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낸 모든 돈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였고, 그 돈을 바로의 궁중으로 가져갔다.

47: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다 떨어지자, 모든 애굽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어르신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47:16 요셉이 말했다. "돈이 떨어졌다면 너희 가축을 내놓아라. 너희 가축과 맞바꾸어 양식을 주겠다."

47:17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자, 요셉은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그해에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을 양식으로 먹여 살렸다.

47:18 그해가 다 지나고 다음 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의 돈이 다 떨어졌고 가축 떼도 다 어르신의 것이 되었음을 어르신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눈앞에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뿐입니다.

47:19 어찌 우리와 우리의 토지가 어르신 눈앞에서 망해야 하겠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토지를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시고, 땅도 황폐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47:20 그리하여 요셉은 바로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들였다.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밭을 팔았고, 마침내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47:21 요셉은 애굽 국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여러 성읍으로 옮겨 살게 했다.

47:22 다만 제사장들의 땅은 요셉이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일정한 몫의 배급을 받았고, 바로가 주는 그 몫으로 먹고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47:23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토지를 바로를 위하여 샀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려라.

47:24 추수할 때에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오분의 사는 너희 것으로 삼아 밭에 뿌릴 씨앗으로 쓰고 너희와 너희 집안사람들의 양식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아라."

47:25 백성들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부디 어르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47:26 요셉은 애굽의 토지에 관하여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는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 다만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47:27 이스라엘은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서 소유지를 얻고, 자녀를 많이 낳으며 크게 번성했다.

47:28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리하여 야곱의 평생 햇수는 백사십칠 년이 되었다.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네가 내게 참된 효성을 다하고자 한다면, 부디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내게 신의와 진실을 보여 다오. 제발 나를 애굽에 묻지 말아라.

47: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 주어라." 요셉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47:31 이스라엘이 "내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자 요셉이 그에게 맹세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다.

48장

48: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대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하고 전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갔다.

48:2 누군가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48:3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내게 복을 주셨다.

48:4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여 많은 백성의 무리가 되게 하겠고, 이 땅을 네 뒤를 이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48:5 내가 애굽으로 너를 찾아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48:6 이들 뒤에 네게서 태어날 다른 자녀들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릴 것이다.

48:7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간 거리가 남아 있는 가나안 땅 길 위에서 라헬이 내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라헬을 묻었다."

48: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48:9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48: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이끌고 가자,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48:1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까지 보게 해 주셨구나."

48:12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오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48:13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 쪽으로 이끌고, 므낫세는 자기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48:14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뻗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이스라엘은 일부러 손을 어긋맞겨 얹은 것이었다.

48:15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며 동행했던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평생 나를 기르신 목자이신 하나님,

48:16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번성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48: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다.

48:18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48:19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아우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48:20 그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이 너희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 주시기를 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48: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48:22 그리고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땅 한 몫을 네 형제들보다 너에게 더 주겠다."

49장

49:1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다. "너희는 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겠다.

49:2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49:3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넘치고 권능이 넘치는 자였다.

49:4 그러나 끓어오르는 물 같았으니,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기 때문이니,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

49: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다.

49:6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마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고, 제멋대로 소들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49:7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잔혹한 분노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 버릴 것이다.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쥘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다.

49:9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사냥한 것을 뜯어먹고 산 위로 올라갔구나. 그가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감히 깨우겠느냐?

49:10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마침내 지배권을 가진 자가 오실 것이니,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49:11 그는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로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으로 빨 것이다.

49: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어질 것이요, 그의 이는 우유로 하얗게 빛날 것이다.

49:13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 것이며,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고,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49:14 잇사갈은 안장 짐 사이에 웅크려 누운 억센 나귀다.

49: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아 보였고,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는 어깨를 굽혀 짐을 짊어지고, 강제 노역을 하는 종이 되었다.

49:16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49:17 단은 길가의 뱀이요, 오솔길의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뜯어 그 위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49:18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49:19 갓은 군대의 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발꿈치를 맹렬히 추격할 것이다.

49:20 아셀에게서 나오는 음식은 기름질 것이며, 그는 왕의 식탁에 오를 진미를 마련할 것이다.

49:21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과 같아서, 아름다운 새끼들을 낳는다.

49:22 요셉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이며, 샘가에 심긴 풍성한 포도나무다. 그 가지들이 담을 타고 뻗어 나간다.

49:23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하게 괴롭히고, 화살을 쏘며 그를 적대했으나,

49:24 그의 활은 굳건했고, 그의 팔과 손은 힘이 넘쳤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 덕분이요,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자 목자이신 분의 힘 덕분이다.

49:25 너를 도우시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과, 너를 축복하시는 전능자로 말미암은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가슴과 태의 복으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49:26 네 아버지의 축복은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뛰어나며, 영원한 언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머물며, 형제들 가운데 으뜸으로 구별된 자의 정수리 위에 내릴 것이다.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사냥감을 집어삼키고, 저녁에는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49:28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이며, 그들을 축복한 말이다. 그는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추어 그들을 축복했다.

49:29 야곱이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말했다. "나는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 다오.

49:30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삼으려고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사들인 곳이다.

49:31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그곳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으며, 나도 그곳에 레아를 묻었다.

49:32 그 밭과 거기에 딸린 굴은 헷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49:33 야곱은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다 마치고 발을 침상 안으로 거두어들인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50장

50:1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

50:2 요셉은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게 했고, 의사들은 이스라엘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

50:3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사십 일이 걸렸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칠십 일 동안 곡을 했다.

50:4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중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바로의 귀에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50:5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직접 파 둔 무덤에 나를 묻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50:6 바로가 대답했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내시오."

50:7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지내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왕궁의 원로들과 애굽 온 땅의 원로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50:8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도 함께 올라갔다. 오직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겨 두었다.

50:9 병거와 기병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으니, 그 행렬이 참으로 대단했다.

50:10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매우 크고 애통하게 통곡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도했다.

50:11 그 땅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애도를 보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심한 애통이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다.

50:12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했다.

50:13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지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삼으려고 마므레 앞 밭과 함께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들인 곳이었다.

50:14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지낸 뒤에,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지내러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돌아왔다.

50:15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말했다.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그대로 다 갚으면 어쩌지?"

50:16 그리하여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0:17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부디 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허물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울었다.

50:18 그의 형들도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50:19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50:20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0:21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말로 안심시켰다.

50:22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사람들과 함께 애굽에 머물며 백십 년을 살았다.

50:23 요셉은 에브라임의 삼대 자손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녀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자라났다.

50:24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아 주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50:25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여러분은 내 유골을 이곳에서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50: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자, 그들은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애굽에서 관에 모셨다.

출애굽기

1장

1:1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1: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1: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

1: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1:5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흔 명이었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1:6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으며, 마침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1:8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났다.

1:9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힘도 세다.

1:10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불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맞서 싸우고 이 땅에서 빠져나갈까 두렵다."

1:11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위에 감독관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하여 곡식 창고 성읍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1:12 그러나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불어나고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1:13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혹하게 일을 시켰다.

1: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굽는 일과 밭에서 하는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그들에게 시키는 모든 일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1: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부아였다.

1:16 왕이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조산대를 살펴보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 두었다.

1:18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추궁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 두었느냐?"

1:19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1:20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백성은 더욱 불어나 몹시 강해졌다.

1:21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1:22 마침내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버리고, 여자아이는 다 살려 두어라."

2장

2:1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2:2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2:3 그러나 더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인은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나일강 가의 갈대 숲 사이에 두었다.

2:4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따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몸종을 보내어 가져오게 했다.

2:6 공주가 상자를 열어 보니 아기가 있었는데, 마침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고 말했다.

2:7 그때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한 사람 불러다가 공주님 대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2:8 바로의 딸이 그 소녀에게 "가거라" 하고 말했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2:9 바로의 딸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 길러라. 내가 네게 삯을 주겠다."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길렀다.

2:10 아이가 자라자 여인은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이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2:11 그 무렵 모세가 어른이 된 뒤, 자기 동족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2:12 모세는 이리저리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2:13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 동족을 때리느냐?" 하고 말했다.

2:14 그 사람이 대답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작정이냐?" 모세는 두려워하며 "정말로 이 일이 탄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2:15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쳐 미디안 땅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았다.

2: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며 자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 했다.

2:17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2:18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2:19 딸들이 대답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고, 우리를 위해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2:20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 음식을 대접해라."

2:21 모세는 그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기꺼이 여겼고,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2:22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2:23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애굽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었고,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다.

2:24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2:2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보셨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아셨다.

3장

3:1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자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가 양 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3:2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바라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3 모세가 "내가 다가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했다.

3:4 주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5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3:6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얼굴을 가렸다.

3: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잘 알고 있다.

3: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이끌어 내어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거처로 인도하려 한다.

3:9 이제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참상도 내가 보았다.

3:10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3: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3:1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3:13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3: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해라."

3: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이다.

3: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똑똑히 보았다.

3:17 내가 약속하기를, 애굽의 고난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하였다.'"

3:18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3:19 그러나 강한 손으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 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3:20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애굽 가운데서 행할 온갖 놀라운 일로 그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3:21 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떠날 때에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3:22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집 여인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할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아들딸들에게 입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4장

4:1 모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4:2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4: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는 그 뱀을 피해 달아났다.

4: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4:5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4:6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 손을 품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그의 손이 눈처럼 하얗게 나병에 걸려 있었다.

4: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손을 다시 품속에 넣어라." 그가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 보니,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4:8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의 소리는 믿을 것이다.

4:9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4: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오, 주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뒤에도 그러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합니다."

4: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 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눈먼 자로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4:12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4:13 모세가 말했다. "오, 주님, 부디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4:14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네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아라,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나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4: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4: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하여라."

4:18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애굽에 있는 내 동족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거라."

4:19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라.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4:20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다.

4: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맡긴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반드시 행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4:22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맏아들이다.

4:23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절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

4:24 길을 가다가 하룻밤 머무는 숙소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4:25 그때 십보라가 차돌을 집어 들어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했다. "진실로 당신은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4:26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할례 때문에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4:27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맞이하여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4:28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며 하신 모든 말씀과,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알려 주었다.

4:29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4:30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적들을 행했다.

4:31 백성이 믿었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5장

5:1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

5:2 바로가 말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5:3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합니다."

5:4 애굽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을 일에서 떼어놓으려 하느냐? 너희의 부역으로 돌아가라!"

5:5 바로가 또 말했다. "보아라, 지금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부역에서 쉬게 하려 하는구나."

5:6 바로가 바로 그날 백성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했다.

5:7 "너희는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짚을 더 이상 백성에게 대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5:8 하지만 그들이 이전까지 만들던 벽돌 수량은 그대로 요구해야 한다. 그 양을 조금도 줄여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져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고 외쳐 대는 것이다.

5:9 이 사람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여 일에 전념하게 하고, 거짓된 말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라."

5:10 백성의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5:11 너희는 직접 가서 어디서든 짚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와라. 그러나 너희의 일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5:12 이에 백성은 짚 대신 쓸 그루터기를 모으려고 온 애굽 땅으로 흩어졌다.

5:13 감독관들은 그들을 다그치며 "짚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너희의 하루 일당을 채워라!" 하고 말했다.

5:14 바로의 감독관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를 맞으며 추궁을 당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할당량을 어제도 오늘도 다 채우지 못했느냐?"

5:15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임금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5:16 종들에게 짚은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으나, 허물은 바로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5:17 그러나 바로가 말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다.

5:18 그러니 지금 당장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벽돌은 정해진 수량을 그대로 바쳐야 한다!"

5:19 "너희가 매일 바쳐야 하는 벽돌 수량을 조금도 줄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5:20 그들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 나오다가, 길가에 서서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5:21 반장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에 우리를 악취 나는 존재로 만들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여 주었습니다!"

5:22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5:23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 왔으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장

6: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들을 보낼 것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6: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6:4 또한 내가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6:5 더욱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6: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그들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6:7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낸 내가 너희 하나님 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상속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나는 주다.' "

6: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했으나, 그들은 마음의 낙담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6: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6:12 모세가 주님 앞에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저를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6:1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6:14 그들의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니, 이들은 르우벤의 가문들이다.

6: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문들이다.

6:16 세대별로 기록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이며, 레위가 산 햇수는 백삼십칠 년이었다.

6:17 가문별로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립니와 시므이이다.

6: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며, 고핫이 산 햇수는 백삼십삼 년이었다.

6: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문이다.

6:20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다. 아므람이 산 햇수는 백삼십칠 년이었다.

6: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6: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6: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아 주었다.

6: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들의 가문이다.

6: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는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아 주었다. 이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조상 가문 우두머리들이다.

6:26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6:27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

6:28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6:2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라."

6:30 모세가 주님 앞에 아뢰었다. "보십시오, 저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였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7장

7: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였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7: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네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해야 한다.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크게 늘릴 것이다.

7:4 그러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애굽 위에 내 손을 얹고 큰 심판을 내려 나의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7:5 내가 애굽 위에 내 손을 뻗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은 내가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7:6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

7: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여든 살이었고 아론은 여든세 살이었다.

7:8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7:9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해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7: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7:11 그러자 바로 역시 지혜자들과 요술사들을 불렀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으로 그와 똑같이 행했다.

7:12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이 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 버렸다.

7:13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7: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구나.

7:15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보아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기다려라. 그리고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라.

7:16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7:1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너는 내가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강물을 칠 것이니,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7:18 강의 물고기는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마시기를 몹시 꺼리게 될 것이다." ' "

7: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 위로, 곧 그들의 강들과 시내들과 늪들과 모든 웅덩이 위로 손을 뻗어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여라. 온 애굽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속까지 피가 가득할 것이다."

7:20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자, 강에 있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

7:21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났다.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온 애굽 땅에 피가 가득했다.

7:22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으로 그와 똑같이 행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7:23 바로는 몸을 돌려 궁궐로 들어갔고, 이 일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다.

7:24 모든 애굽 사람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강 주변을 파헤쳤다.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7:25 주님께서 강을 치신 뒤로 온전한 칠 일이 지났다.

8장

8: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8:2 만일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보아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영토를 칠 것이다.

8:3 강에 개구리가 우글거릴 것이며, 개구리들이 올라와 네 궁궐과 침실과 침대 위로, 네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 위로, 네 화덕과 반죽 그릇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8:4 개구리들이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 "

8: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들과 시내들과 못들 위로 뻗어, 애굽 땅 위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8:6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뒤덮었다.

8:7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행하여 애굽 땅 위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다.

8:8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주님께 간청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해 다오.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

8:9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궁궐에서 끊어져 강에만 남아 있도록, 왕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해 제가 언제 기도해야 할지 왕께서 정하는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8:10 바로가 말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왕의 말씀대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왕께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8:11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을 떠나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12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 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재앙에 대해 주님께 부르짖었다.

8:13 주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으니, 집과 마당과 들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8:14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모아 쌓아 두니 온 땅에 악취가 진동했다.

8:15 그러나 바로는 숨을 쉴 틈이 생긴 것을 보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의 티끌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8:17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땅의 티끌을 치자,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다. 온 애굽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었다.

8:18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법으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8:19 그러자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2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8:21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보아라,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낼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파리 떼로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딛고 선 땅도 그러할 것이다.

8:22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내가 이 땅 한가운데 있는 주임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8:23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내일 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 "

8:24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엄청난 파리 떼가 바로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으로 들어갔고, 온 애굽 땅이 파리 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

8:25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가서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8:26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혐오하는 것을 제물로 바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8:27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8:28 바로가 말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8:29 모세가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왕에게서 물러나가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는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다시 거짓되게 행하지 마십시오."

8:30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 나와 주님께 기도했다.

8:31 주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셔서 파리 떼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없애 주셨으니,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8:32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9: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9:2 만일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붙잡아 둔다면,

9:3 보아라, 들에 있는 네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 떼와 양 떼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돌 것이다.

9:4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 "

9:5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9:6 이튿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9: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8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의 재를 두 손 가득 쥐고, 모세가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9:9 그 재가 온 애굽 땅 위에 고운 먼지가 되어, 온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터지는 종기가 될 것이다."

9:10 그들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터지는 종기가 생겨났다.

9:11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마술사들과 모든 애굽 사람에게 종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9:12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9:14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의 마음과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9:15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9:16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 둔 까닭은 오직 이것이니, 곧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는 것이다.

9:17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고 있구나.

9:18 보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우박은 없었다.

9:19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네게 속한 모든 것을 피신시켜라. 집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떨어져 다 죽을 것이다." ' "

9:20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9:21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9: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9:23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번갯불이 땅으로 내리꽂혔다. 주님께서 애굽 땅 위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부으셨다.

9:24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번갯불이 우박 사이로 맹렬하게 번쩍였으니, 애굽이 나라가 된 이래로 온 애굽 땅에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9:25 우박이 온 애굽 땅에서 들에 있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은 들의 모든 풀을 쳤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버렸다.

9:26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9:27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9:28 주님께 기도해 다오. 이 무서운 천둥과 우박은 이제 충분하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9:29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제가 성읍에서 나가는 대로 주님을 향해 손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왕께서 알게 될 것입니다.

9: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제가 압니다."

9:31 삼과 보리는 이미 상했으니,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9:32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 상하지 않았다.

9:33 모세는 바로에게서 떠나 성읍 밖으로 나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폈다. 그러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더 이상 땅에 쏟아지지 않았다.

9:34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9:35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10장

10: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들어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나의 이 표적들을 보이기 위함이다.

10:2 또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과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네가 네 아들과 손자의 귀에 들려주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10: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10:4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보아라, 내가 내일 네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를 몰고 올 것이다.

10:5 메뚜기들이 온 땅의 표면을 뒤덮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을 피하여 너희에게 남아 있는 남은 것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들에서 너희를 위해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갉아먹을 것이다.

10:6 네 궁궐들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니, 이는 네 조상들이나 그 조상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다.' " 말을 마치고 모세는 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10:7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덫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애굽이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10:8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으로 불려 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섬겨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10:9 모세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양 떼와 소 떼도 함께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0:10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것들을 함께 보내 준다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셈이 되겠구나! 보아라, 악한 생각이 너희 얼굴 앞에 뻔히 드러나 있다.

10:11 절대로 안 된다! 너희 장정들만 가서 주님을 섬겨라. 그것이 애초에 너희가 바라던 것 아니냐!" 그러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10: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애굽 땅 위에 손을 뻗어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라. 메뚜기들이 애굽 땅 위로 올라와, 우박이 남겨 놓은 땅의 모든 풀을 갉아먹게 하라."

10:13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과 온 밤 동안 그 땅에 동풍을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10:14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으로 올라와 애굽의 모든 영토에 내려앉았다. 그 피해가 참으로 극심하여, 이전에도 이런 메뚜기 떼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10:15 메뚜기들이 온 땅의 표면을 뒤덮어 땅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겨 놓은 나무 열매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온 애굽 땅의 나무나 들의 풀이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10:16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주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0:17 그러니 부디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여 이 죽음의 재앙만은 내게서 거두어 가시게 해 다오."

10:18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했다.

10:19 주님께서 매우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휩쓸어 홍해로 몰아넣으셨다. 애굽의 온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10:20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10: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애굽 땅 위에 어둠이 내리게 하라. 더듬어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짙은 어둠일 것이다."

10:22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덮였다.

10: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아무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10:24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말했다. "가서 주님을 섬겨라. 다만 너희의 양 떼와 소 떼는 남겨 두고, 어린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10:25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10:26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발굽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 쓸 것을 그 가축 가운데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10:27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10:28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0:29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11장

1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와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11:2 이제 백성의 귀에 일러 주어, 남자마다 자기 이웃에게, 여자마다 자기 이웃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라."

11:3 주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백성이 호의를 입게 하셨다. 또한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들의 눈과 백성의 눈에 애굽 땅에서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다.

11:4 모세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 무렵에 내가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11:5 왕위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맏아들이 죽을 것이며 가축의 맏배도 모두 죽을 것이다.

11:6 온 애굽 땅에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니,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1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려 짖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11:8 왕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내려와 내 앞에 엎드려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어서 나가라!' 하고 간청할 것이며, 그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모세는 맹렬한 분노를 품고 바로에게서 물러나 나왔다.

1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이 크게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11:10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12장

12:1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2:2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12: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달 열흘날에 각 사람은 자기 집안에 따라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곧 한 집안에 한 마리씩 마련해야 한다.

12:4 만일 그 집안에 식구가 너무 적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그 사람과 그의 집 바로 이웃 집이 사람 수에 따라 함께 한 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맞추어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12:5 너희가 고를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여라.

12:6 너희는 그 어린 양을 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 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 그것을 잡아야 한다.

12:7 그리고 그 피를 얼마쯤 받아, 그 어린 양을 먹을 집의 양쪽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한다.

12:8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12:9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12:10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 두지 마라.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12: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유월절이다.

12:12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며,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12:13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12:14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님을 향한 축제로 지켜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을 축제로 지켜야 한다.

12:15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곧바로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워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12:16 첫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며,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각 사람이 먹을 음식만은 너희가 준비해도 좋다.

12:17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을 지켜야 한다.

12:18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2:19 이레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12:20 너희는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2:21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안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십시오.

12:22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대야의 피를 문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12:23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양쪽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실 것이며 멸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2:24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합니다.

12:25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12:26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12:27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유월절 제사이다. 그분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12:28 이스라엘 자손은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했다.

12:29 한밤중에 주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포로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다.

12:30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애굽 사람이 그 밤에 일어났으며,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12:31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님을 섬겨라!

12:32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 떼와 소 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다오!"

12:33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서둘러 그 땅에서 내보내려 했다.

12:34 백성은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멨다.

12:35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옷을 요구했다.

12:36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백성이 호의를 입게 하셨으므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취했다.

12:37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숙곳으로 향했다. 아이들 외에 걸어서 이동한 장정만 약 육십만 명이었다.

12:38 수많은 다른 민족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 떼와 소 떼 등 심히 많은 가축도 함께했다.

12:39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다.

12: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12:42 이날 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밤이다.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주님의 밤이다.

12:4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인은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12:44 그러나 돈으로 산 종은 누구든지 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45 나그네와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12:46 그것은 한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12:47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12:48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가까이 나아와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며,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12:49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한 법이 적용될 것이다."

12:50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했다.

12:51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13장

1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여라. 그것은 내 것이다."

13: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집, 곧 애굽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누룩 든 빵은 먹지 마십시오.

13:4 여러분은 오늘 아빕월에 길을 떠납니다.

13:5 주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여러분은 이 달에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13:6 여러분은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는 주님을 향한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13:7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누룩 든 빵이 여러분 곁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온 영토 안에서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13:8 그날에 여러분은 아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13:9 이것은 여러분의 손 위에 있는 표가 되고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기념 표가 되어 주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입에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13:10 그러므로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키십시오.

13:11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13:12 여러분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과 여러분이 기르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수컷은 주님의 것입니다.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며,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모든 자는 대속해야 합니다.

13:14 훗날 여러분의 아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13:15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자, 주님께서 사람의 맏아들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수컷을 다 주님께 제사로 드리고,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대속하는 것이다.'

13:16 이것이 여러분의 손 위의 표가 되고 여러분의 이마 위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13:17 바로가 백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운데도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3:18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곁 광야 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장을 하고 애굽 땅에서 올라왔다.

13:19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했기 때문이다.

13:20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자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13:21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13:22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돌아가서 바알스본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여라. 너희는 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14: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광야가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고 할 것이다.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은 그대로 행했다.

14:5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애굽 왕에게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서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어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했으니, 어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14:6 바로는 자기 병거를 준비하고 군대를 이끌었다.

14:7 그는 정예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렸고, 모든 병거마다 지휘관들을 두었다.

14:8 주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당하게 나아갔기 때문이다.

14:9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바닷가에 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14:10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14:11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대합니까?

14:12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14:1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14:14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잠잠히 계십시오."

14: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4: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갈 것이다.

14:17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다.

14: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19 이스라엘 진영 앞서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의 뒤로 갔고,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의 뒤에 섰다.

14:20 그것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으나 밤새 빛을 비추어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자,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이 갈라졌다.

14:22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갔으며, 물은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벽이 되었다.

14: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14:24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로 애굽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14:25 주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내시어 병거를 몰기가 매우 어렵게 하셨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며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하고 말했다.

14: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다시 덮치게 하여라."

14:27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날이 밝아 올 무렵 바다가 본래의 힘을 되찾았다. 애굽 사람들은 물결을 거슬러 도망쳤으나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쓸어 넣으셨다.

14:28 물이 되돌아와 병거와 기병들, 곧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쳤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14: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고, 물은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벽이 되었다.

14:30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14:31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15:1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겠다.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말과 그 말을 탄 사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15:2 주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겠다.

15:3 주님은 용사이시니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라.

15:4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그의 뽑힌 장수들이 홍해에 잠겼다.

15: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15:6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우시니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이 부수셨습니다.

15:7 주님의 크신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을 엎으십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내보내시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 버렸습니다.

15:8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큰물이 무더기처럼 우뚝 섰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깊은 물이 엉겼습니다.

15:9 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뒤쫓아 따라잡겠다. 약탈물을 나누겠다. 그들에게서 내 욕망이 채워질 것이다. 내 칼을 빼 들겠다.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15:10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거센 물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15:11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으실 만큼 두려우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15:12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5:13 주님께서는 속량하신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15:14 여러 민족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15:15 그때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낙담하였습니다.

15:16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덮쳐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처럼 잠잠해졌으니, 주님, 주님의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곧 주님께서 사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였습니다.

15:17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기업인 산에 심으실 것이니, 주님, 이곳은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친히 만드신 처소요 주님, 이곳은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15:18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15:19 바로의 말들이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다.

15:20 아론의 누이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자, 모든 여인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녀를 따라 나왔다.

15:21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로 화답했다. "주님께 노래하라, 그분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자, 그들은 술 광야로 나아갔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15: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15:24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말했다.

15:25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셨다.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15:2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16:1 그들은 엘림에서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애굽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열닷새 날에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16: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16: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군요."

16:4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려 줄 것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하루치 분량씩 거두어야 한다. 이로써 그들이 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시험하겠다.

16: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준비하되,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16: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16:7 아침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불평합니까?"

16:8 모세가 또 말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님께 불평한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16:9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16: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16: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6:13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사방에 내려앉았다.

16:14 내렸던 이슬이 마르자, 보라,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의 서리처럼 잘게 부스러진 것이 널려 있었다.

16:15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입니다.

16:16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각자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두어라. 너희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은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거두어야 한다.'"

16: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여 어떤 이는 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덜 거두었다.

16:18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다.

16:19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16:20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했다.

16:21 그들은 아침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것은 녹아 버렸다.

16:22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두 배로 많은 빵, 곧 한 사람당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다.

16:23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굽고자 하는 것은 굽고 삶고자 하는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아침까지 간직해 두어라.'"

16:24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간직해 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16:25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드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16:26 엿새 동안은 여러분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16:27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16: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16:29 보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치 빵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처소에 머물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처소 밖으로 나가지 마라."

16:30 그리하여 백성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16:31 이스라엘 집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16:32 모세가 말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것을 한 오멜 가득 채워 너희 대대로 간직하여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6: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16: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직하게 했다.

16:35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16: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17장

17:1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신 광야를 떠나 차례대로 행진하여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17:2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나와 다툽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합니까?"

17:3 백성은 거기서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17: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칠 기세입니다."

17: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앞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네가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17:6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17:7 그는 그곳 이름을 맛사라 부르고 또 므리바라고도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17:8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습니다."

17: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17:12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리하여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17:13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17: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지워 버릴 것이다."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 불렀다.

17:16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18장

18:1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일을 들었다.

18:2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있었다.

18:3 또한 그녀의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모세가 "내가 이국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8:4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으니,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8: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로 모세를 찾아왔으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다.

18:6 그가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대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소."

18:7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18:8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온갖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지를 장인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18:9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18:10 이드로가 말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애굽 사람들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8:11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거만하게 굴었던 바로 그 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18:12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18:13 다음 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둘러서 있었다.

18: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자네가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대체 무엇인가? 어찌하여 자네는 혼자 앉아 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 있는가?
"

18:15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18:16 그들에게 어떤 분쟁이 생기면 제게 찾아오고, 저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재판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해 줍니다."

18: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못하네.

18:18 자네와 자네와 함께한 이 백성이 반드시 기력이 다하여 지치고 말 것이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무거워서 자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네.

18:19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송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18:20 자네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 주게.

18:21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게. 그리고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게.

18:22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게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직접 재판하게 하게. 그러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질 것이니 자네에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네.

18:23 자네가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자네에게 그렇게 명하신다면, 자네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네."

18:24 모세는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했다.

18:25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았다.

18:26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했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왔으나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직접 재판했다.

18:27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19장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19: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진을 쳤다.

19:3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19:4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너희가 직접 보았다.

19:5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진실로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19:6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말이다."

19: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했다.

19:8 온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전했다.

19: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아뢰었다.

19: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라.

19:11 그리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주님이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19:12 너는 백성을 위해 사방에 경계선을 정해 주고 일러라. '너희는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9:13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야 그들이 산으로 나아올 수 있다."

19:14 모세가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19:15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십시오. 여인을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19:16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였으며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하여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다.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진영에서 이끌어 내자, 그들이 산기슭에 섰다.

19:18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 연기가 가마솥의 연기처럼 솟아올랐고 온 산이 몹시 뒤흔들렸다.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19:20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로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19: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여라. 그들이 주님을 엿보려고 밀고 들어오다가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죽을까 염려된다.

19:22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칠지도 모른다."

19:23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경고하여 '산 둘레에 경계선을 정하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9:2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거라! 너는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은 밀고 들어와 주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이 그들을 칠지도 모른다."

19:25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20장

20: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너의 하나님 주님이다.

20:3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0:4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를 자손에게 물어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20:6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20:9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하여라.

20:10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주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0:11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20:1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의 하나님 주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20:13 살인하지 마라.

20:14 간음하지 마라.

20:15 도둑질하지 마라.

20:16 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20:18 온 백성은 천둥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떨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20:19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20: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20:21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다가갔다.

20: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자신이 직접 보았다.

20:23 너희는 결코 내 곁에 두려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거나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24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을 줄 것이다.

20:25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과 같은 연장을 대면 제단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20:26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오지 마라. 네 알몸이 제단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21:1 "네가 그들 앞에 세워야 할 법규들은 이러하다.

21:2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야 한다.

21:3 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21:4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주인의 차지가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21:5 그러나 그 종이 분명하게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사랑하니, 자유의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21: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려가야 한다.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평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21: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

21:8 만일 주인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그녀를 속량받게 해야 한다. 주인이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는 없다.

21:9 만일 주인이 그녀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 한다면, 딸을 대하듯이 그녀를 대우해야 한다.

21:10 그가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일지라도, 첫째 아내의 음식과 옷과 부부의 잠자리 권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

21:11 그가 이 세 가지를 그녀에게 해 주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다.

21:12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3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너에게 그가 도망갈 한 곳을 정해 줄 것이다.

21:14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계획적으로 다가갔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6 사람을 유괴하여 팔았거나 자기 수중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18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21:19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게 되면, 그를 친 사람은 처벌을 면한다. 다만 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1:20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그 종이 그의 손에 맞아 죽으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뒤에 일어나면, 그를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1: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아이를 일찍 낳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고 재판관들이 허용하는 만큼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한다.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1: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1: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21:27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려도,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21:28 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황소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29 그러나 그 황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가두어 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면,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21:30 만일 그 주인에게 속죄금이 부과되면, 그는 자기 목숨의 속전을 위해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21:31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와 똑같은 판결로 처벌해야 한다.

21:32 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황소 주인은 그 종들의 주인에게 은 서른 세겔을 주고 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1:33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웅덩이를 파 놓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그곳에 빠지면,

21:34 그 웅덩이 주인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한다. 그는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물어주고, 죽은 짐승은 자기 것으로 가져야 한다.

21:35 어떤 사람의 황소가 다른 사람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들은 살아 있는 황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황소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21:36 그러나 그 황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음을 알고도 주인이 가두어 두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물어주어야 하고 죽은 황소는 자기 것이 된다.'

22장

22: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았으면,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다가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2:3 그러나 해가 뜬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도둑질한 죄로 그 자신을 팔아야 한다.

22:4 도둑맞은 소나 나귀나 양이 그의 손에서 산 채로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22:5 어떤 사람이 가축을 풀어놓아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함으로써 밭이나 포도원을 망쳐 놓았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22:6 불이 번져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워 버렸으면, 불을 지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22:7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맞았을 때,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22:8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은 이웃의 재산에 손을 대었는지 확인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2: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온갖 물건에 대해 누군가가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죄로 판결하시는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두 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22:10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가축이든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보는 사람도 없이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다면,

22:11 그가 이웃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주님의 맹세가 둘 사이에 있어야 한다.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맡았던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2 그러나 실제로 도둑맞은 것이라면, 그는 그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22:13 만일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찢긴 사체를 증거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2:14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은 때에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그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22:15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삯을 주고 빌려온 것이라면, 그 손실은 삯으로 충당된 것이다.

22:16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그는 반드시 신부 값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22: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절하면, 그는 처녀들의 신부 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22: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마라.

22:19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2:20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전멸되어야 한다.

22:21 너는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22: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22:23 네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22:24 내 분노가 맹렬히 타올라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22:25 네가 너와 함께 사는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마라.

22:26 네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22:27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개요 그의 살갗을 감싸는 옷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을 것이니, 나는 은혜롭기 때문이다.

22:28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2:29 너는 추수한 곡식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미루지 마라. 너는 네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22:30 너의 소와 양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22:31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판에서 맹수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23장

23:1 "너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손잡고 악의적인 증인이 되지 마라.

23:2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재판에서 다수의 편을 들어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23:3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23:4 네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3:5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짐을 풀어주어야 한다.

23:6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해서 공정한 판결을 가로막지 마라.

23:7 거짓 고발을 멀리하고, 무죄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 밝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23:9 너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23:10 너는 여섯 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23:11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 두어, 네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네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이와 같이 하여라.

23:12 엿새 동안은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래야 네 소와 나귀가 쉬고,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23:13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하여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네 입 밖으로 내지도 마라.

23:14 너는 한 해에 세 번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23:15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23:16 또 네가 밭에 뿌려 가꾼 노동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연말에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결실을 모아들일 때 수장절을 지켜라.

23:17 한 해에 세 번씩 너의 모든 남자는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23:18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23:19 너는 네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의 하나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23:20 보라, 내가 길에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이끌도록 네 앞서 한 천사를 보낸다.

23:21 너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23:22 그러나 네가 그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내가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자들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23:23 내 천사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23:24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우상 기둥들을 산산이 부수어야 한다.

23:25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 빵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 줄 것이다.

23:26 네 땅에 유산하는 자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 수를 다 채워 줄 것이다.

23:27 내가 내 공포를 네 앞서 보내어 네가 맞닥뜨릴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네 모든 원수가 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할 것이다.

23:28 내가 말벌을 네 앞서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23:29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염려되므로, 내가 일 년 만에 그들을 네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23: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상속받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23:31 내가 너의 영토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해 주겠다.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23:32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23:33 그들이 네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정녕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24장

24:1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일흔 명은 주님께로 올라와 멀찍이 서서 예배하여라.

24:2 오직 모세만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와서도 안 된다."

24:3 모세가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에게 전했다.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24:4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따라 열두 기둥을 세웠다.

24:5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하고 소를 잡아 주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24:6 모세는 피의 절반을 받아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24:7 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낭독하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24:8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24:9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일흔 명이 올라갔다.

24:10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밑에는 마치 청옥을 깐 바닥 같았고, 맑기가 하늘 자체와 같았다.

24:1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24: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산 위로 나에게 올라와서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도록 직접 기록한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24:13 모세는 자기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24:14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다툴 일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십시오."

24:15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24:16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24:17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산에 머물렀다.

25장

25: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기쁜 마음으로 바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는 내 예물을 받아라.

25: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 은, 청동,

25:4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고운 베실, 염소 털,

25:5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25:6 등잔 기름, 기름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품,

25:7 홍옥수, 그리고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아 넣을 보석들이다.

25:8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25: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모든 것, 곧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을 따라 너희는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25:10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25:11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25:12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네 발에 달되,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25:13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25:14 그 채들을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멜 수 있게 하여라.

25:15 그 채들은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마라.

25: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 두어라.

25: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25:18 금으로 두 그룹을 두들겨 만들어 속죄판 양 끝에 두어라.

25:19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되, 그룹들을 속죄판 양 끝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25:20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활짝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게 하되 그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하게 하여라.

25:21 너는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5:22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너에게 명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25:23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25:24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25:25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 테두리를 둘러라.

25:26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다리가 달린 네 모서리에 붙여라.

25:27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붙여 상을 운반할 채를 꿰는 자리가 되게 하여라.

25:28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것으로 상을 나르게 하여라.

25:29 너는 상에 쓸 대접과 숟가락과 주전자와 부어 드리는 제물용 잔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25:30 너는 상 위에 진설병을 차려 놓아 언제나 내 앞에 있게 하여라.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는 두들겨 만들어야 하며, 그 받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25:32 등잔대 줄기 곁에서 가지 여섯 개가 뻗어 나오게 하되, 한쪽에 가지 세 개, 다른 쪽에 가지 세 개가 나오게 하여라.

25:33 한 가지에 꽃받침과 꽃을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잔 세 개를 만들고, 다른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을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잔 세 개를 만들어,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그렇게 하여라.

25:34 등잔대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을 갖춘 아몬드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어라.

25:35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가지 여섯 개를 위해, 줄기에서 뻗어 나온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 하나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 하나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 하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25:36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줄기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전부를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어라.

25:37 너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불을 켤 때 앞쪽을 비추도록 그 위에 얹어 놓아라.

25:38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25:39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한다.

25:40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대로 이것들을 만들도록 주의하여라."

26장

26:1 "너는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로 정교한 기술자의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열 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26:2 각 휘장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하여 모든 휘장의 치수를 똑같이 하여라.

26:3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잇고,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이어라.

26:4 첫 번째로 이은 휘장의 가장자리 끝에 청색 천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은 맨 바깥쪽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여라.

26:5 첫째 휘장 가장자리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둘째 휘장 가장자리에도 고리 쉰 개를 만들어 고리들이 서로 마주 보게 하여라.

26:6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들로 휘장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이 하나의 통으로 이어지게 하여라.

26:7 너는 성막 위를 덮을 천막용으로 염소 털로 휘장 열한 폭을 만들어라.

26:8 각 휘장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하여 열한 폭 휘장의 치수를 모두 똑같이 하여라.

26:9 다섯 폭의 휘장을 따로 잇고, 여섯 폭의 휘장을 따로 잇되, 여섯째 폭은 천막 앞쪽에서 반으로 접어 겹치게 하여라.

26:10 연결한 첫째 휘장의 맨 바깥 가장자리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둘째 휘장의 맨 바깥 가장자리에도 고리 쉰 개를 만들어라.

26:11 청동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을 고리에 꿰어 천막을 하나로 연결하여라.

26:12 천막 휘장 가운데 늘어져 남는 부분, 곧 남은 반 폭의 휘장은 성막 뒤쪽으로 늘어뜨려야 한다.

26:13 천막 휘장의 길이에 남는 이쪽의 한 규빗과 저쪽의 한 규빗은 성막을 덮기 위해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야 한다.

26:14 너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얹을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26:15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곧게 서도록 만들어라.

26:16 각 널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여라.

26:17 각 널판마다 장부 두 개를 내어 서로 맞물리게 하되, 성막의 모든 널판을 다 이와 같이 만들어라.

26:18 너는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향해 널판 스무 개를 만들어라.

26:19 이 스무 개 널판 밑에 받칠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되, 이쪽 널판 밑에도 장부 두 개를 위한 받침 두 개를 두고, 저쪽 널판 밑에도 장부 두 개를 위한 받침 두 개를 두어라.

26:20 성막의 다른 쪽, 곧 북쪽 벽을 위해서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26:21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판 밑에도 받침 두 개, 다른 널판 밑에도 받침 두 개를 두어라.

26:22 성막 뒤쪽인 서쪽 벽을 위해서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어라.

26:23 성막 뒤쪽 두 모서리를 위해 널판 두 개를 만들어라.

26:24 이 널판들은 아래에서부터 겹쳐지고, 꼭대기까지 한 고리로 온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두 모서리 모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26:25 그리하여 여덟 개의 널판과 은 받침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니, 한 널판 밑에 받침 두 개씩 둘이 된다.

26:26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이쪽 널판들을 위해 다섯 개,

26:27 성막 저쪽 널판들을 위해 다섯 개, 서쪽 뒤편 널판들을 위해 다섯 개를 만들어라.

26:28 널판들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라.

26:29 널판들을 금으로 입히고, 가로다지를 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가로다지들도 금으로 입혀라.

26:30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방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26:31 너는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한 기술자의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휘장을 만들어라.

26:32 금으로 입힌 네 개의 아카시아 나무 기둥에 그것을 걸되, 기둥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고 네 개의 은 받침 위에 기둥들을 세워라.

26:33 너는 갈고리들 아래에 그 휘장을 늘어뜨리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쪽으로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줄 것이다.

26:34 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얹어라.

26:35 휘장 바깥쪽에 상을 차려 놓고, 상 맞은편인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라. 상은 북쪽에 두어야 한다.

26:36 너는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26:37 그 막을 위해 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 개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들을 위해 청동 받침 다섯 개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27:1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는 다섯 규빗, 너비는 다섯 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 되게 하여라.

27:2 네 모서리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들이 제단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청동으로 제단을 입혀라.

27:3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담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27:4 제단을 위해 청동 그물망을 만들고, 그 그물망 네 모서리에 청동 고리 네 개를 달아라.

27:5 그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 턱 아래에 달아 제단 높이의 절반까지 이르게 하여라.

27:6 제단을 나를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청동으로 입혀라.

27:7 제단을 운반할 때에는 그 채들을 고리에 꿰어 제단 양쪽에 두어야 한다.

27:8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대로 그들이 만들어야 한다.

27: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는 가늘게 꼰 베실로 짠 길이가 백 규빗인 뜰의 포장을 둘러라.

27:10 기둥 스무 개와 청동 받침 스무 개를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27:11 북쪽 면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백 규빗인 포장을 두르고, 기둥 스무 개와 청동 받침 스무 개를 만들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라.

27:12 서쪽 뜰의 너비는 쉰 규빗 길이의 포장을 두르고, 기둥 열 개와 받침 열 개를 세워라.

27:13 동쪽을 향한 동쪽 뜰의 너비도 쉰 규빗으로 하여라.

27:14 문 이쪽을 위한 포장의 길이는 열다섯 규빗이며, 기둥 셋과 받침 셋을 세워라.

27:15 문 저쪽을 위한 포장의 길이도 열다섯 규빗이며, 기둥 셋과 받침 셋을 세워라.

27:16 뜰 문을 가리는 막은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 길이의 막으로 하고, 기둥 넷과 받침 넷을 세워라.

27:17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두르고 은 갈고리를 달며 받침은 청동으로 하여라.

27:18 뜰의 길이는 백 규빗, 너비는 곳곳이 쉰 규빗, 높이는 다섯 규빗으로 가늘게 꼰 베실로 두르고, 받침은 청동으로 하여라.

27:19 성막의 온갖 제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성막 말뚝 및 뜰의 모든 말뚝은 다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27:2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용으로 찧어 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너에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켜져 있게 하여라.

27:21 회막 안 증거궤 앞의 휘장 바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28장

28:1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28:2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28:3 너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28:4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곧 가슴받이, 에봇, 겉옷, 정교하게 짠 속옷, 관, 띠이다. 그들은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해야 한다.

28:5 그들은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야 한다.

28:6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정교하게 꼰 모시실로 솜씨 좋은 일꾼의 솜씨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28:7 에봇의 양 끝에는 서로 이어붙인 멜빵 둘이 있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28:8 에봇 위에 매는 정교하게 짠 띠는 같은 방식으로 짜서 에봇에 붙여 만들되,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28:9 너는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28:10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한 보석에 여섯 사람의 이름을, 나머지 보석에 다른 여섯 사람의 이름을 새겨야 한다.

28:11 너는 보석을 깎는 장인이 도장을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보석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테에 물려라.

28:12 너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 보석이 되게 하여라. 아론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해야 한다.

28:13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28:14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 두 개를 만들어, 그 꼰 사슬들을 테에 달아라.

28:15 너는 판결의 가슴받이를 솜씨 좋은 일꾼의 솜씨로 만들어라. 에봇을 만든 방식과 같이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28:16 그것은 네모반듯하게 두 겹으로 접고,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이 되게 하여라.

28:17 너는 그 안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석이요,

28:18 둘째 줄은 터키석과 청옥과 홍옥수이며,

28:19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마노와 자수정이고,

28:20 넷째 줄은 감람석과 호마노와 벽옥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금테에 물려 박아야 한다.

28: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열둘이어야 하며, 도장을 새기듯 각 사람의 이름에 따라 열두 지파를 나타내야 한다.

28:22 너는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을 만들어 가슴받이 위에 달아라.

28:23 또 가슴받이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받이 양쪽 끝에 그 두 고리를 달아라.

28:24 그 두 금사슬을 가슴받이 양 끝에 있는 두 고리에 꿰어라.

28:25 그 두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은 두 테에 걸고,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아라.

28:26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받이 양쪽 끝,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28:27 너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쪽 두 멜빵 아래, 곧 멜빵이 에봇과 이어지는 곳 근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아라.

28:28 그들은 파란 끈으로 가슴받이 고리를 에봇 고리에 묶어, 가슴받이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단단히 붙어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의 가슴받이를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야 한다.

28:30 너는 판결의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아론이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그것이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언제나 자기 가슴에 품어야 한다.

28:31 너는 에봇에 딸린 겉옷을 온통 청색으로 만들어라.

28:32 그 겉옷 한가운데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구멍 둘레를 갑옷 깃처럼 깃을 짜서 덧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28:33 그 옷 가장자리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 둘러라.

28:34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가 되게 옷자락 둘레를 따라 돌아가며 달아야 한다.

28:35 아론이 섬길 때에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 성소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려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28:36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듯 그 위에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새겨라.

28:37 너는 그것을 청색 끈으로 관 앞쪽에 매어 달아라.

28:38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모든 성물에 관련된 허물을 아론이 짊어져야 한다. 그 패가 언제나 그의 이마에 있어야 그 제물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28:39 너는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짜고,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어라. 띠는 수를 놓아 만들어야 한다.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머리띠를 만들어라.

28:41 너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임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28:42 너는 그들의 맨몸을 가릴 모시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라.

28:43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

29장

29:1 "네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행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29:2 또 누룩 없는 빵과 기름 섞인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29:3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째 수소와 숫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29: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29:5 너는 그 옷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겉옷과 에봇과 가슴받이를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어 주어라.

29: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성패를 얹어라.

29:7 그런 다음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발라라.

29:8 너는 그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29: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머리띠를 둘러 주어라. 그들은 영원한 규례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맡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세워라.

29:10 너는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29:11 너는 회막 문 앞, 곧 주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29:12 너는 그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29:13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29:14 그러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라.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29:15 너는 숫양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29:16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 제단 둘레에 뿌려라.

29:17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29:18 너는 그 숫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번제이며, 기분 좋은 향기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이다.

29:19 너는 다른 숫양을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29:20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29:21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질 것이다.

29:22 너는 또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내어라. 이것은 위임식의 숫양이기 때문이다.

29:23 또 주님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꺼내어라.

29:24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고,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아라.

29:25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이다.

29:26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아라. 그것이 네 몫이 될 것이다.

29:27 너는 위임식 숫양 가운데서 아론의 몫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29:28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어야 할 몫이니,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29:29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뒤를 이을 아들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위임을 받을 것이다.

29:30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성소에서 섬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 이레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29:31 너는 위임식의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29: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29:33 그들은 자신들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속죄하는 데 쓴 이 제물들을 먹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29:34 위임식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하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29:35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그들의 위임식을 거행하여라.

29:36 너는 날마다 속죄를 위해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또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29: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29:38 네가 제단 위에 드려야 할 것은 이러하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29:39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 무렵에 바쳐라.

29:40 첫 번째 어린 양에는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곁들이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바쳐라.

29:41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무렵에 바치되, 아침의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처럼 제물을 바쳐 주님께 기분 좋은 향기, 곧 불로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29:42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문 주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드릴 번제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너에게 말할 것이다.

29: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니,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29:44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9:46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주님이다."

30장

3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30:2 그 제단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뿔들은 제단과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하여라.

30:3 너는 제단의 윗면과 둘레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30:4 금 테두리 아래 양쪽 옆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달아라. 곧 양옆에 그것들을 만들어 제단을 나르는 채를 꿸 자리가 되게 하여라.

30:5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입혀라.

30:6 너는 그 제단을 증거궤 곁에 있는 휘장 앞, 곧 내가 너와 만날 증거판 위의 속죄소 앞에 두어라.

30:7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하되,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그것을 살라야 한다.

30:8 또 아론이 저녁 무렵에 등잔 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하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주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피울 향이다.

3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지 말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드리지 말며, 부어 드리는 제물의 술도 붓지 마라.

30:10 아론은 일 년에 한 번 그 뿔 위에 속죄해야 한다. 너희 대대로 일 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써 제단을 속죄하여라. 이 제단은 주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30: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인구를 조사받을 때 자기 목숨의 대가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를 셀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30:13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30:14 스무 살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30:15 너희 목숨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해서 반 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마라.

30: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의 돈을 받아 회막의 봉사에 쓰도록 정하여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이 되어 너희 목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30: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0:18 "너는 씻을 놋 물두멍과 놋 받침을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채워 넣어라.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불로 제물을 살라 바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30:21 이처럼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30: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30:23 "너는 최상품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향기로운 육계는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을 취하여라.

30:24 계피 오백 세겔은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올리브 기름 한 힌을 취하여라.

30:25 너는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의 기름을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기술대로 정교하게 섞어 만든 향기름이 되게 하여라. 이것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기름이 될 것이다.

30: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기름을 붓고,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들, 분향단과,

30:28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라.

30:29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장 거룩한 것으로 삼아라.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해질 것이다.

30: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30:3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기름 부음의 기름이다.

30:32 일반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이 배합 비율대로 이와 같은 기름을 만들지도 마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30:33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30: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품들에 순수한 유향을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하여라.

30:35 너는 향 제조공의 솜씨로 그것으로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30:36 너는 그 향 일부를 아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판 앞에 두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30:37 네가 만들 향은 그 배합법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님께 바칠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30:38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31장

3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2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31:3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솜씨를 갖추게 하였으니,

31:4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고,

31:5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여 온갖 기술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31:6 보아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일하게 하였으며,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31: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는 속죄소와 장막의 모든 기구,

31:8 상과 그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 분향단,

31: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31:10 정교하게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들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그의 아들들의 옷들,

31:11 거룩한 기름과 성소를 위한 향기로운 향이다. 그들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31: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참으로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표징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31:14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31: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님께 거룩한 온전한 쉼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31:1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31: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31:18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곧 증거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32장

32:1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 우리를 앞서갈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2:2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아내와 아들과 딸들의 귀에 달린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오너라."

32:3 온 백성이 귀에 걸려 있던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32:4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조각칼로 다듬어 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들이다!"

32:5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으며, 아론이 선포하여 말했다. "내일은 주님의 축제일이다."

32:6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3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32:8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빠르게 벗어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제물을 바치고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들이다!'"

32: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아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32:10 그러니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멸절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32: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주님께 간청하며 말했다. "주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불태우십니까?

32: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해치려고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멸절하려고 끌어내었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32:13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걸고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2:14 그러자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32:15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다. 그 돌판들은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으니, 이쪽에도 저쪽에도 글이 새겨져 있었다.

32:16 그 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은 하나님이 쓰신 글로서 돌판 위에 새겨진 것이었다.

32:17 여호수아가 백성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 안에서 전쟁 소리가 납니다."

32:18 모세가 대답했다.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이다."

32:19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돌판들을 내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다.

32:20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 위에 뿌린 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32: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형님은 이 큰 죄를 그들에게 끌어들였습니까?"

32:22 아론이 대답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에 쏠려 있음을 그대도 잘 알지 않습니까?

32: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앞서갈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32:24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빼내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32:25 모세는 백성이 통제를 잃은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것이다.

32:26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외쳤다.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32:27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오가며 각자 자기 형제를, 각자 자기 친구를, 각자 자기 이웃을 죽여라.'"

32:28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약 삼천 명이 쓰러졌다.

32:29 모세가 말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거슬러 대적하였으니, 오늘 주님께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라. 그리하여 그분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게 하여라."

32: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갈 것이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2:31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슬픕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어 자기들을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2:32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부디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32:3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거슬러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것이다.

32:34 이제 가거라.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네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물어 벌할 것이다."

32:35 주님께서는 백성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두고 벌인 일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33장

3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33:2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낼 것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33:3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멸절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33:4 백성은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아무도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

33: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로 올라간다면, 너희를 멸절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장신구를 벗어 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다.'"

33:6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 냈다.

33:7 모세는 늘 장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 곧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했으며, 그 장막을 '회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33: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33:9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33:10 온 백성은 회막 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온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33:11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젊은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33:12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 제게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13 그러므로 이제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제게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33:14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33:15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33:16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온 땅 위의 모든 백성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33: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그대로 하겠다. 네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기 때문이다."

33:18 모세가 아뢰었다. "부디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33:19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33:20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보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33:21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33: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주겠다.

33:23 그런 다음 내가 내 손을 거둘 것이니,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나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34장

3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라.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 있던 글을 내가 그 돌판들에 쓰겠다.

34: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네 모습을 보여라.

34:3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온 산 어디에서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양 떼나 소 떼도 그 산 앞에서는 풀을 뜯지 못하게 하여라."

34:4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았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둘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34:5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기서 그와 함께 서 계셨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34:6 주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님! 주님!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34:7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결코 죄 있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삼사 대까지 갚는 하나님이다."

34:8 모세는 서둘러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34:9 모세가 아뢰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가 주십시오. 이 백성이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저희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산으로 삼아 주십시오."

34: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의 온 백성 앞에서 온 땅이나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일찍이 행해지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 네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이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34:11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34:12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들어가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스럽다.

34:13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돌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려라.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주님은 질투라 불리는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4:15 너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자기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누군가 너를 초대하면 네가 그의 제물을 먹을까 염려스럽다.

34:16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그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네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게 만들까 염려스럽다.

34:17 너는 부어 만든 신상들을 너를 위해 만들지 마라.

34:18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네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34:19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네 모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수컷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34: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네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34:21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하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

34:22 너는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칠칠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34:23 너희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34:24 내가 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 줄 것이니, 네가 한 해에 세 번씩 너의 하나님 주님 앞에 뵈러 올라갈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34:25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유월절 축제의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라.

34:26 너는 네 땅에서 거둔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의 하나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34: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들의 뜻에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4:28 모세는 거기서 사십 일 사십 야를 주님과 함께 머물렀는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들 위에 기록하셨다.

34:29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주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았는데, 보아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34:31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그에게 돌아왔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34:32 그 뒤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다가왔고,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34:33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다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34:34 그러나 모세가 주님과 말씀하려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으며, 나와서는 명령받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과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35장

35:1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35: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 바치는 온전한 쉼의 안식일이다.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35:3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35: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35:5 '너희 소유 중에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모아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가져와라. 곧 금과 은과 놋,

35:6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 고운 베실, 염소 털,

35:7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바다소 가죽, 아카시아 나무,

35:8 등불을 켤 기름, 거룩한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품,

35:9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아 넣을 얼룩마노와 여러 보석이다.

35:10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35:11 곧 성막과 그 덮개와 지붕,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받침이며,

35:12 궤와 그 채, 속죄판, 가림막 휘장이며,

35:13 상과 그 채와 모든 기구, 차려놓는 빵이며,

35:14 불을 밝힐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들, 불을 켤 기름이며,

35:15 분향단과 그 채, 거룩한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문 입구의 가림막이며,

35:16 번제단과 그 놋 석쇠, 채와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이며,

35:17 뜰의 포장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 뜰 문의 가림막이며,

35:18 성막 말뚝과 뜰 말뚝, 그리고 그 줄들이며,

35:19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옷, 곧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35: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갔다.

35:21 마음이 감동한 모든 사람과 기꺼이 바치려는 뜻을 품은 모든 사람이 와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일과 그 안에서 드리는 온갖 예배와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35:22 마음에서 우러나온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와서 브로치, 귀고리, 인장 반지, 팔찌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니, 누구나 다 주님께 금 예물을 바쳤다.

35:23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 고운 베실,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바다소 가죽을 가진 사람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35:24 은과 놋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예물로 가져왔고, 예배의 어떤 일에든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35:25 손재주와 지혜가 있는 모든 여자는 손수 실을 자아, 자신들이 잣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 고운 베실을 가져왔다.

35:26 지혜로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여자는 염소 털로 실을 잣다.

35:27 지도자들은 얼룩마노와,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아 넣을 보석들을 가져왔다.

35:28 또 향품과, 불을 켤 기름, 거룩한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도 가져왔다.

35:29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위해, 마음에 자원하는 뜻이 일어난 남녀는 누구나 예물을 가져왔다.

35: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35:31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35:32 그리하여 정교한 작품을 도안하고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셨으며,

35:33 물릴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여 온갖 정교한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35: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35:35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온갖 기술을 행하게 하셨으니,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을 발휘하는 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 고운 베실로 수놓는 일, 베를 짜는 일과 같이 온갖 기술을 행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 내게 하셨습니다."

36장

36:1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주님께서 성소의 예배를 위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36:2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사람 곧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 일에 참여하고자 나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불렀다.

36:3 그들은 성소의 예배를 위한 일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건네받았다. 백성은 아침마다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을 모세에게 계속 가져왔다.

36:4 성소의 온갖 일을 맡아 하던 지혜로운 기술자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찾아왔다.

36:5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백성이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36:6 모세가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진영 전체에 이렇게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바칠 예물을 더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백성이 예물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다.

36:7 이미 모인 재료만으로도 모든 일을 다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36:8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이 가늘게 꼰 베실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로 휘장 열 폭을 짜서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솜씨 좋은 기술자의 솜씨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36:9 각 휘장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이고 너비는 네 규빗이었으며, 휘장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36:10 그는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잇고,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이었다.

36:11 그는 이은 휘장의 한쪽 가장자리에 파란색 실로 고리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 이은 휘장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만들었다.

36:12 첫 번째 휘장 끝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은 휘장 가장자리에도 고리 쉰 개를 만들어 서로 맞물리게 했다.

36:13 또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로 두 휘장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했다.

36:14 그는 성막 위를 덮을 덮개로 염소 털 휘장을 만들었는데, 모두 열한 폭을 만들었다.

36:15 각 휘장의 길이는 서른 규빗이고 너비는 네 규빗이었으며, 열한 폭의 휘장 크기는 모두 같았다.

36:16 그는 휘장 다섯 폭을 따로 잇고,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36:17 첫 번째로 이은 휘장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고리 쉰 개를 만들고, 두 번째로 이은 휘장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도 고리 쉰 개를 만들었다.

36:18 또 놋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장막을 서로 이어 하나가 되게 했다.

36:19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장막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바다소 가죽으로 덮개를 하나 더 만들었다.

36:20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

36:21 각 널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었다.

36:22 널판마다 서로 맞물리는 촉을 두 개씩 만들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을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36:23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향하는 남면에 쓸 널판 스무 개를 만들었다.

36:24 그 널판 스무 개 아래에 댈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널판 하나마다 두 촉을 받칠 두 받침을 대고, 다른 널판 하나마다도 두 촉을 받칠 두 받침을 대었다.

36:25 성막의 다른 쪽, 곧 북쪽 면을 위해서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었다.

36:26 은 받침 마흔 개도 만들었으니, 널판 하나마다 두 받침을 대고, 다른 널판 하나마다도 두 받침을 대었다.

36:27 서쪽인 성막 뒷면을 위해서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다.

36:28 성막 뒷면의 양쪽 모퉁이에 댈 널판 두 개도 만들었다.

36:29 이 널판들은 밑에서부터 둘씩 겹쳐져 꼭대기의 첫째 고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어졌다. 그는 두 모퉁이의 두 널판을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36:30 그리하여 널판 여덟 개와 그 은 받침 열여섯 개가 되었으니, 널판마다 받침이 두 개씩이었다.

36:31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들을 만들었다. 성막 한쪽 면의 널판들을 위해 다섯 개를 만들었고,

36:32 성막 다른 쪽 면의 널판들을 위해서도 가로다지 다섯 개를, 서쪽인 성막 뒷면의 널판들을 위해서도 가로다지 다섯 개를 만들었다.

36:33 또 가운데 가로다지를 만들어, 널판 중간을 지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했다.

36:34 그는 널판들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꿸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으며, 가로다지들에도 금을 입혔다.

36:35 그는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휘장을 만들고, 솜씨 좋은 기술자의 솜씨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36:36 휘장을 걸 기둥 넷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을 받칠 은 받침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36:37 또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가릴 가림막을 만들었다.

36:38 가림막을 칠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들도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가름대에는 금을 입혔고, 기둥의 받침 다섯 개는 놋으로 만들었다.

37장

37:1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었다.

37:2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 테두리를 둘렀다.

37:3 네 발 위에 달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37:4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을 입혔다.

37:5 궤를 메어 나를 수 있도록 궤 양옆의 고리에 그 채들을 꿰었다.

37:6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었다.

37:7 금을 두드려 쳐서 속죄판 양 끝에 그룹 둘을 만들었다.

37: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 속죄판 양 끝에서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37:9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활짝 펴서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속죄판을 향하게 했다.

37:10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었다.

37:11 상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 금 테두리를 둘렀다.

37:12 또 그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 테두리를 둘렀다.

37:13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네 다리의 네 모퉁이에 달았다.

37:14 고리들은 상을 메어 나를 채를 꿸 수 있도록 턱 곁에 붙어 있었다.

37:15 그는 상을 메고 다닐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37:16 또 상 위에 놓을 기구들, 곧 대접과 숟가락과 부어 드리는 잔과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37:17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밑받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했다.

37:18 줄기 양옆에서 가지 여섯 개가 뻗어 나왔으니, 한쪽에서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도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나왔다.

37:19 한 가지에 꽃받침과 꽃이 달린 아몬드꽃 모양의 잔 셋이 있고, 다른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이 달린 아몬드꽃 모양의 잔 셋이 있어, 등잔대에서 뻗어 나온 가지 여섯 개가 모두 그러했다.

37:20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 넷과 그 꽃받침과 꽃들이 있었으며,

37:21 줄기에서 뻗어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해, 첫 번째 두 가지 아래에 줄기와 한 덩어리를 이룬 꽃받침이 있고, 다음 두 가지 아래에도 꽃받침이 있고, 또 다음 두 가지 아래에도 꽃받침이 있었다.

37:22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줄기와 한 덩어리를 이루었으며, 전체가 순금을 두드려 만든 하나의 작품이었다.

37:23 그는 등잔 일곱 개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37:24 그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37:25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그 모양은 네모반듯하여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이었고, 높이는 두 규빗이었으며, 뿔들은 제단과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37:26 상판과 둘레의 옆면과 뿔들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 테두리를 둘렀다.

37:27 금 테두리 아래 양쪽 옆면의 모퉁이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달아 제단을 메어 나를 채를 꿸 곳으로 삼았다.

37:28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금을 입혔다.

37:29 또 향을 만드는 기술자의 솜씨를 따라 거룩한 기름과 향기로운 향품으로 된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38장

38:1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 모양은 네모반듯하여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이었고, 높이는 세 규빗이었다.

38:2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을 만들되 제단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제단에 놋을 입혔다.

38:3 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었다.

38:4 제단을 위해 그물 모양의 놋 석쇠를 만들어, 제단 둘레 턱 아래 제단 중간 높이까지 닿게 했다.

38:5 놋 석쇠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다.

38:6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고 놋을 입혔다.

38:7 제단을 메어 나를 수 있도록 제단 양옆의 고리에 그 채들을 꿰었다. 제단은 널판으로 안이 비게 만들었다.

38:8 그는 만남의 장막 문에서 섬기던 여인들의 놋거울로 물두멍과 그 놋 받침을 만들었다.

38:9 그는 뜰을 만들었다. 남쪽을 향하는 남면에는 가늘게 꼰 베실로 짠 길이가 백 규빗인 포장을 둘렀다.

38:10 기둥 스무 개와 그 놋 받침 스무 개를 만들었으며,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38:11 북면에도 길이가 백 규빗인 포장을 두르고, 기둥 스무 개와 놋 받침 스무 개를 만들었으며,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38:12 서면에는 쉰 규빗인 포장을 두르고, 기둥 열 개와 받침 열 개를 만들었으며,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38:13 해 뜨는 동쪽 면도 쉰 규빗이었다.

38:14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고,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었다.

38:15 문 저쪽도 마찬가지여서, 뜰 문 양쪽에 친 포장이 각각 열다섯 규빗이고, 기둥이 셋씩이며 받침이 셋씩이었다.

38:16 뜰 둘레의 모든 포장은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것이었다.

38:17 기둥 받침들은 놋이었고,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으며, 기둥 머리에는 은을 입혔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띠를 둘렀다.

38:18 뜰 문의 가림막은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것이었다. 길이는 스무 규빗이었고 높이는 뜰의 포장과 마찬가지로 너비를 따라 다섯 규빗이었다.

38:19 그 기둥 넷과 놋 받침 넷이 있었고, 갈고리는 은이었으며, 기둥 머리 덮개와 가름대도 은이었다.

38:20 성막과 뜰 둘레의 모든 말뚝은 놋이었다.

38:21 성막, 곧 증거판을 둔 성막을 짓는 데 쓰인 물자의 목록은 이러하다. 이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레위 사람들이 세어 기록한 것이다.

38:22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38:23 그와 함께한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과 정교한 기술을 지녔으며,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고운 베실로 수놓는 기술자였다.

38:24 성소 건축의 모든 일에 쓰인 금, 곧 바쳐진 예물의 금은 성소 세겔에 따라 스물아홉 달란트 칠백삼십 세겔이었다.

38:25 회중 가운데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친 은은 성소 세겔에 따라 백 달란트 천칠백칠십오 세겔이었다.

38:26 곧 스무 살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 성소 세겔에 따라 일 인당 한 베가, 곧 반 세겔씩 낸 것이다.

38:27 그 은 백 달란트는 성소 받침들과 휘장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 쓰였으니, 받침 백 개에 백 달란트, 곧 받침 하나당 한 달란트가 들었다.

38:28 천칠백칠십오 세겔로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에 은을 입히며,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

38:29 예물로 바쳐진 놋은 일흔 달란트 이천사백 세겔이었다.

38:30 그는 이것으로 만남의 장막 문 받침들과 놋 제단과 놋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38:31 또 뜰 둘레의 받침들과 뜰 문의 받침들,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모든 말뚝도 만들었다.

39장

39:1 그들은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하게 짠 옷을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39:2 그는 금실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39:3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 편 다음 잘라서 실을 만들어, 기술자의 솜씨로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고운 베실 사이에 섞어 짰다.

39:4 그들은 에봇에 멜빵 둘을 만들어 달아 양쪽 끝에서 이어지게 했다.

39:5 에봇 위에 묶는 정교하게 짠 띠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한 덩어리로 짰으니, 곧 금실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었다.

39:6 그들은 얼룩마노 보석들을 다듬어 금테에 물리고, 인장을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39:7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으로 삼아 에봇의 멜빵 위에 그것들을 달았다.

39:8 그는 에봇을 만들 때처럼 솜씨 좋은 기술자의 솜씨로 가슴받이를 만들었으니, 곧 금실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들었다.

39:9 그것은 네모반듯했다. 그들은 가슴받이를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두 겹으로 접었을 때 길이는 한 뼘, 너비도 한 뼘이었다.

39:10 그 안에 보석 네 줄을 물렸다.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었다.

39:11 둘째 줄은 터키석, 남보석, 홍옥수였다.

39:12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었다.

39:13 넷째 줄은 감람석, 얼룩마노, 벽옥이었다. 이 보석들은 금테에 물렸다.

39:14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열둘이었으니, 열두 지파를 위해 각 사람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겼다.

39:15 그들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들을 만들어 가슴받이에 달았다.

39:16 또 금테 둘과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가슴받이 양쪽 끝에 달았다.

39:17 금으로 꼰 두 사슬을 가슴받이 끝의 두 고리에 꿰었다.

39:18 두 꼰 사슬의 다른 쪽 두 끝은 두 금테에 고정하고, 에봇 앞쪽 멜빵 위에 달았다.

39:19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가슴받이 아래 양쪽 끝,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39:20 또 다른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쪽 두 멜빵 아래, 멜빵을 잇는 곳 곁,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았다.

39: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파란색 끈으로 가슴받이 고리와 에봇 고리를 매어, 가슴받이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단단히 붙어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

39:22 그는 에봇 받침 겉옷을 온통 파란색 천으로 짜서 만들었다.

39:23 겉옷 한가운데 깃구멍을 뚫고 갑옷 깃처럼 둘레에 깃을 대어 찢어지지 않게 했다.

39:24 겉옷 자락 둘레에는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석류를 만들어 달았다.

39:25 또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 자락 둘레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다.

39: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길 때 입도록 겉옷 자락 둘레에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번갈아 달았다.

39:27 그들은 고운 베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옷을 짜서 만들었다.

39:28 고운 베실로 관을 만들고, 고운 베실로 빛나는 두건들을 만들었으며, 가늘게 꼰 베실로 베바지를 만들었다.

39:29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늘게 꼰 베실과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붉은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다.

39:30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관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 그 위에 "주님께 거룩"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39: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파란색 끈으로 관 위 앞쪽에 매어 달았다.

39:32 이렇게 만남의 장막 성막의 모든 공사가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39:33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장막과 그 모든 기구,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받침이며,

39:34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덮개와 바다소 가죽 덮개, 가림막 휘장이며,

39:35 언약궤와 그 채, 속죄판이며,

39:36 상과 그 모든 기구, 차려놓는 빵이며,

39:37 순금 등잔대와 늘어놓을 등잔들, 그 모든 기구, 불을 켤 기름이며,

39:38 금 제단, 거룩한 기름, 향기로운 향, 장막 문 가림막이며,

39:39 놋 제단, 놋 석쇠, 그 채들과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이며,

39:40 뜰의 포장과 기둥들과 받침들, 뜰 문의 가림막, 그 줄들과 말뚝들, 그리고 만남의 장막 성막의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이며,

39:41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옷, 곧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었다.

39:42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공사를 마쳤다.

39:43 모세가 그 모든 작업을 살펴보니, 과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들이 그대로 해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40장

40: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0: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만남의 장막 성막을 세워라.

40:3 그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40:4 상을 들여와 그 위에 물품들을 정돈하고, 등잔대를 들여와 그 등잔들에 불을 켜라.

40:5 또 향을 피울 금 제단을 언약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가림막을 달아라.

40:6 번제단을 만남의 장막 성막 문 앞에 놓아라.

40:7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채워라.

40:8 그 둘레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가림막을 쳐라.

40:9 너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40:10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40:11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40:1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40: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40:14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혀라.

40:15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40:16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40:17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40: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웠으며, 가로다지들을 꿰고 기둥들을 세웠다.

40: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성막 위에 장막을 펴고 그 위에 성막 지붕 덮개를 덮었다.

40:20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궤에 채를 꿰었으며, 궤 위에 속죄판을 얹었다.

40: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가림막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다.

40:22 그는 만남의 장막 안, 곧 성막의 북쪽 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40: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상 위에 주님 앞 차려놓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40:24 그는 만남의 장막 안, 성막 남쪽 면에 상 맞은편으로 등잔대를 놓았다.

40: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주님 앞에 등잔불을 켰다.

40:26 그는 만남의 장막 안,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았다.

40: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그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품을 살랐다.

40:28 그는 성막 문에 가림막을 달았다.

40:29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만남의 장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40:30 그는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씻을 물을 담아 두었다.

40:31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다.

40:32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40:33 그는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가림막을 달았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공사를 마쳤다.

40:34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40:35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모세는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걷혀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40:37 그러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구름이 걷히는 날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40:38 그 모든 여정 동안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온 이스라엘 집이 보는 앞에서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1장

1:1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남의 장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 가축으로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1:3 그 예물이 소로 드리는 번제물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남의 장막 문으로 그것을 끌고 와서 바쳐야 한다.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1:5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1:6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1:7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한다.

1:8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 불 위의 장작에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한다.

1:9 그러나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니, 이는 번제요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1:10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 떼에서 드리는 번제물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1:11 그는 제단 북쪽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1:12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기를 떼어 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불 위의 장작에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한다.

1:13 그러나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바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번제요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1:14 주님께 바치는 예물이 새의 번제물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예물을 바쳐야 한다.

1:15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목을 비틀어 머리를 떼어 내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며, 피는 제단 곁면에 대고 다 짜내야 한다.

1:16 또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떼어 내어 제단 동쪽, 곧 재를 버리는 곳에 던져야 한다.

1:17 그는 날개깃을 잡고 찢되 완전히 쪼개지는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불 위의 장작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번제요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2장

2:1 "누구든지 주님께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야 한다.

2:2 그는 그것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기억의 몫으로 불살라야 하니, 이는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2:3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2:4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빵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과자로 바쳐야 한다.

2:5 만일 네 예물이 넓은 철판에 부친 곡식 제물이면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이어야 한다.

2:6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떼어 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2:7 만일 네 예물이 냄비에 익힌 곡식 제물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들어야 한다.

2:8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주님께 가져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2:9 제사장은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억의 몫을 떼어 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니, 이는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이다.

2:10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2:11 너희가 주님께 바치는 어떤 곡식 제물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조금이라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12 첫 열매의 예물로는 그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제단 위에서 살라서는 안 된다.

2:13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네 곡식 제물에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2:14 만일 네가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주님께 바치려거든, 불에 볶아 찧은 햇곡식 이삭으로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2:15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2:16 제사장은 찧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를 모든 유향과 함께 기억의 몫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이다.'"

3장

3:1 "만일 그의 제물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고, 소 떼에서 골라 바치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3:2 그는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뒤, 회막 문간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3 그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주변에 붙은 모든 기름기,

3: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기 곧 허리께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떼어 내야 한다.

3:5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의 장작불에 올려진 번제물 위에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불로 바치는 제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3:6 만일 주님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양 떼나 염소 떼에서 고른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3:7 그가 바칠 제물이 어린양이면,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바쳐야 한다.

3:8 그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9 그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기름기를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척추뼈 가까이에서 떼어 낸 기름진 꼬리 전체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 내장 주변에 붙은 모든 기름기,

3: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기 곧 허리께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떼어 내야 한다.

3:11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의 음식이다.

3:12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라면,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바쳐야 한다.

3:13 그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3:14 그는 그 제물 가운데서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하니, 곧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내장 주변에 붙은 모든 기름기,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기 곧 허리께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떼어 내야 한다.

3: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불로 바치는 제물의 음식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모든 기름기는 주님의 것이다.

3:17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는, 너희가 기름기나 피를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장

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행하였을 때에는 이러하다.

4:3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책이 돌아가게 했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벗기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주님께 바쳐야 한다.

4:4 그는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 곧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4:5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쯤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4:6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일곱 번 뿌려야 한다.

4:7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일부를 회막 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수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4:8 그는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에서 모든 기름기를 떼어 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주변에 붙은 모든 기름기,

4: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기 곧 허리께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떼어 내야 하니,

4:10 화목제의 희생 제물인 소에게서 떼어 내는 것과 같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4:11 그러나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4:12 곧 수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것은 진영 밖의 깨끗한 곳, 재를 버리는 곳으로 메고 가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한다.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회중의 눈에 그것이 숨겨져서 알아채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가운데 하나를 어겨 죄책을 지게 되었다면,

4:14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중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하며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4:15 회중의 장로들은 주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4:16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쯤 회막으로 가져가야 한다.

4:17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4:18 그는 또 그 피의 일부를 회막 안 주님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4:19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기는 떼어 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4:20 그는 이 수송아지를 앞서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에게 한 것과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해 주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4: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4:22 만일 통치자가 죄를 지어, 그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를 부지중에 어겨 죄책을 지게 되었을 때,

4:23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4:24 그는 그 숫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4:25 제사장은 손가락에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4:26 제사장은 그 모든 기름기를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기름기처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4:27 만일 일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가운데 하나를 부지중에 행하여 죄를 짓고 죄책을 지게 되었을 때,

4:28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벗기 위해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4:29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4:30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4:31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서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모든 기름기를 떼어 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4:32 만일 그가 속죄 제물로 어린양을 바치고자 한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야 한다.

4:33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잡아야 한다.

4:34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야 한다.

4:35 그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서 어린양의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모든 기름기를 떼어 내야 하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들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5장

5:1 "만일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서 직접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공적인 증언 요청의 맹세를 듣고서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죄를 짓는다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2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기어 다니는 생물의 주검에 몸이 닿았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해졌으므로 죄책을 진다.

5:3 또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한 것에라도 몸이 닿았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죄책을 진다.

5:4 또 누구든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겠다고 입술로 경솔하게 맹세하였는데, 사람이 경솔하게 맹세할 만한 어떤 일에 대해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죄책을 지게 된다.

5:5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일로 죄책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5:6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벗기 위해 주님께 배상 제물을 바쳐야 하니, 양 떼나 염소 떼에서 암컷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해 주어야 한다.

5:7 만일 그가 어린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님께 배상 제물로 바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5:8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며,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꺾되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게 해야 한다.

5:9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옆면에 얼마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모두 짜내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5:10 제사장은 두 번째 비둘기를 규례대로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5:11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얹지 말아야 한다.

5:12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며, 제사장은 그 가운데서 기억을 위한 몫으로 한 움큼을 쥐어 제단 위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들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5:13 제사장은 그가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를 어겨 지은 죄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해 주어야 하며, 그러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나머지 곡식 가루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5: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15 "누구든지 주님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부지중에 잘못을 저질러 불성실하게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주님께 배상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네가 평가한 은 세겔 가치에 해당하는,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5:16 그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물어내되, 그 가치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배상 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5:17 만일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를 행하여 죄를 지었다면, 알지 못하고 저질렀더라도 여전히 죄책이 있으며,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18 그는 네가 평가한 가치에 해당하는 양 떼의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그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5:19 이것은 배상 제물이다. 그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죄책을 진 사람이다."

6장

6: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2 "누구든지 죄를 지어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여,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거래한 일이나 빼앗은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을 억누르고 착취하였거나,

6:3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렀을 때에는 이러하다.

6:4 그가 죄를 짓고 죄책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강도질하여 빼앗은 물건이나 억눌러 가로챈 물건, 자기가 맡았던 물건이나 주웠던 잃어버린 물건,

6:5 또는 거짓으로 맹세했던 모든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그 원금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며,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자기가 유죄로 밝혀지는 날에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6:6 그리고 그는 네가 평가한 가치에 해당하는 양 떼의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주님께 바치기 위해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6:7 제사장이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 주면, 그는 죄책을 지게 만들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용서받을 것이다."

6: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9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화덕에 놓여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한다.

6:10 제사장은 아마포 옷을 입고 맨몸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불이 번제물을 삼키고 남은 재를 거두어들여 제단 곁에 두고,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옮겨 가야 한다.

6:12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장작을 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정돈해 놓고 화목제의 기름기를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6:13 불은 제단 위에서 언제나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6:14 곡식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은 주님 앞, 곧 제단 앞에서 그것을 바쳐야 한다.

6:15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곡식 제물 위에 얹힌 유향을 모두 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기억을 위한 몫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6:16 그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들은 회막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6:17 그것을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내가 불로 내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나 배상 제물처럼 가장 거룩하다.

6:18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대대로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영원히 받을 몫이다. 그것들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해질 것이다.'"

6: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20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주님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항상 바치는 곡식 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6:21 그것은 기름을 둘러 부침판에 만들어야 한다. 잘 반죽된 뒤에 그것을 가져와서 구운 조각으로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곡식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6:22 아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니, 주님께 온전히 불살라 바쳐야 한다.

6:23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태워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

6:2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속죄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님 앞에 잡아야 하니, 가장 거룩하다.

6:26 죄를 속하기 위해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 뜰 안에서 먹어야 한다.

6:27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해질 것이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에는 피가 튄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6:28 그 고기를 삶은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만일 놋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잘 닦고 물로 헹궈야 한다.

6:29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6:30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하기 위해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7장

7:1 "배상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7:2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배상 제물을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7:3 그는 그 모든 기름기를 바쳐야 하니,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

7: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기 곧 허리께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낼 간 위에 덮인 꺼풀을 떼어 내야 한다.

7:5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배상 제물이다.

7:6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며 가장 거룩하다.

7:7 속죄 제물과 배상 제물은 마찬가지여서 두 제물에 대한 규례는 하나다. 그것으로 속죄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차지하게 된다.

7:8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바쳐 주는 제사장은 자기가 바친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차지한다.

7:9 화덕에 구운 모든 곡식 제물과 냄비나 부침판에 만든 모든 제물은 그것을 바친 제사장의 것이 된다.

7:10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모든 아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7:11 주님께 바쳐야 할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7:12 만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친다면, 그는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야 한다.

7:13 그는 누룩을 넣은 빵 과자를 감사 화목제의 희생 제물과 함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7:14 그는 각 예물 가운데서 하나씩 떼어 내어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7:15 감사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는 그것을 바친 바로 그날에 먹어야 하며,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7:16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라면, 그 제물을 바친 날에 먹되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다.

7:17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아 있는 희생 제물의 고기는 불로 태워야 한다.

7:18 만일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바친 사람에게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19 어떤 부정한 것에라도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그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7:20 그러나 주님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7:21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함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어떤 부정한 가증한 것에 닿은 채 주님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 고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7: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23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전혀 먹어서는 안 된다.

7:24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기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7:25 사람이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7:26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어떤 피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7:27 어떤 피라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7: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주님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자기가 바치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몫을 가져와야 한다.

7:30 그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하니, 곧 가슴 부위와 함께 기름기를 가져와 그 가슴 부위를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아야 한다.

7:31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지만,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다.

7:32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주어야 한다.

7:33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바치는 사람이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할 것이다.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를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7:35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로 주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에,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성별된 몫이다.

7:36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이것을 주도록 명령하셨다.

7:37 이것은 번제와 곡식 제물과 속죄제와 배상 제물과 제사장 위임식 제물과 화목제의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다.

7:38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던 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8장

8: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고, 예복들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누룩 없는 빵이 담긴 광주리를 함께 챙겨라.

8:3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 문간으로 모아라."

8:4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회중은 회막 문간으로 모여들었다.

8:5 모세가 회중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8: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그들을 씻겼다.

8:7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워 주었으며,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주었다. 그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둘러 에봇을 몸에 단단히 묶어 주었다.

8:8 그는 아론에게 가슴받이를 달아 주고, 그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8:9 그는 아론의 머리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앞쪽에 거룩한 관인 금 패를 붙였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8:10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8:11 그는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8:12 그는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8:13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워 주었으며 머리띠를 씌워 주었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8:14 그는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속죄 제물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8:15 모세가 그것을 잡고 피를 받아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 둘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했으며,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어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속죄 의식을 행했다.

8:16 그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기와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기를 떼어 내었고, 모세는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8:17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8:18 그는 번제물로 바칠 숫양을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8:19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8:20 그는 숫양의 각을 떴고, 모세는 머리와 저민 고기 조각들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8:21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었고, 모세는 그 숫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물이며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이었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8:22 그는 다른 숫양 곧 제사장 위임식 숫양을 끌고 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8:23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얼마쯤 받아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8:24 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주었으며, 모세는 나머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8:25 그는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기와 간 위의 꺼풀, 두 콩팥과 그 기름기,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 냈다.

8:26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빵 한 덩이와 기름 섞은 빵 한 덩이와 전병 한 장을 꺼내어, 그 기름기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다.

8:27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의 두 손과 그의 아들들의 두 손에 얹어 주고,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게 했다.

8:28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넘겨받아 제단 위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위임 제물이었으며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이었다.

8:29 모세는 가슴 부위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었다. 이것은 위임식 숫양 가운데서 모세의 몫이었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8:30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 위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8:31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문간에서 그 고기를 삶으십시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명령받은 대로, 거기서 고기와 위임식 광주리에 담긴 빵을 먹으십시오.

8:32 고기와 빵 가운데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합니다.

8:33 여러분은 위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레 동안 회막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이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8:34 오늘 행한 일은 여러분을 위해 속죄하도록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8:35 여러분은 죽지 않도록 이레 동안 밤낮으로 회막 문간에 머물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8: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했다.

9장

9:1 여덟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9:2 그는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축사에서 골라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9:3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번제물로 일 년 된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9:4 또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칠 화목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5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이 다가와 주님 앞에 섰다.

9:6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9:7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제단으로 나아가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의 예물을 바쳐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9:8 이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9: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건네주자, 그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었다.

9:10 그러나 속죄 제물의 기름기와 콩팥과 간 위의 꺼풀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9:11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다.

9:12 그는 번제물을 잡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건네주자 그는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9:13 그들이 번제물을 토막 내어 머리와 함께 그에게 건네주자, 그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9:14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의 번제물 위에 얹어 불살랐다.

9:15 그는 백성의 예물을 바쳤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염소를 끌어다가 잡고, 첫 번째 제물처럼 죄를 속하기 위해 그것을 바쳤다.

9:16 그는 번제물을 바치되 규례대로 바쳤다.

9:17 그는 곡식 제물을 바치되 그 가운데서 한 움큼을 가득 채워,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9:18 그는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인 황소와 숫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제단 둘레에 뿌렸다.

9:19 그들은 황소와 숫양의 기름기,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과 콩팥과 간 위의 꺼풀을 가져왔다.

9:20 그들이 그 기름기를 가슴 부위들 위에 올려놓자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9:21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슴 부위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었다.

9:22 아론은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9:23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9:24 주님 앞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삼켜 버렸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0장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운 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다.

10:2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었다.

10:3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요,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 친족들의 주검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거라."

10:5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다가와 그들을 속옷을 입힌 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

10:6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온 회중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들 곧 온 이스라엘 집은 주님께서 불태우신 그 참사를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10:7 여러분은 죽지 않으려거든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름부음의 기름이 여러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10:8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0:9 "너와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10:10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10:11 또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례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10:12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10:13 그것은 주님께 불로 바친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드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10:14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는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깨끗한 곳에서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10:15 사람들은 불로 바친 기름기와 함께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와 흔들어 바친 가슴을 가져와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받을 몫이 될 것입니다."

10:16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찾아보았더니 이미 다 타 버린 뒤였다. 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10:17 "그것은 가장 거룩하며,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성소 구역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10:18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내가 명령한 대로 여러분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었어야 마땅합니다."

10:19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는데도 내게 이런 비극이 닥쳤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10: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수긍했다.

11장

11: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1: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땅 위의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다.

11:3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11:4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지 못한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11:5 바위너구리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11:6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11: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11:8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11:9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와 강 등 물속에 있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11:10 그러나 바다와 강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곧 물에서 떼 지어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11:11 이것들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역겹게 여겨야 한다.

11:12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11:13 새들 가운데 너희가 역겹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역겨운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검은독수리,

11:14 붉은솔개와 각종 검은솔개,

11:15 각종 까마귀 종류,

11:16 뿔올빼미와 소쩍새와 갈매기와 각종 매 종류,

11:17 작은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올빼미,

11:18 흰올빼미와 사막올빼미와 물수리,

11:19 황새와 각종 왜가리 종류, 오디새와 박쥐다.

11:20 네 발로 기어 다니며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11:21 그러나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날개 달린 모든 곤충 가운데,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관절이 있는 긴 다리를 가진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11:22 곧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종 메뚜기와 각종 베짱이와 각종 귀뚜라미와 각종 풀무치다.

11:23 그러나 그 밖의 네 발을 가진 날개 달린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11:24 너희는 이런 것들로 부정해질 것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25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 일부라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26 굽이 갈라졌으나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할 것이다.

11:27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걸어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28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11:29 땅 위에 기어 다니는 길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도마뱀,

11:30 도마뱀붙이와 왕도마뱀과 벽도마뱀과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11:31 기어 다니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32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해진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기구이든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뒤에 깨끗해질 것이다.

11:33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질그릇 속에 떨어지면 그 안에 든 것은 모두 부정해지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11:34 그 그릇 안에서 물에 젖은 먹을거리는 모두 부정해지고, 그런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모두 부정해진다.

11:35 이런 것들의 주검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해진다. 화덕이든 냄비 받침이든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희에게도 부정할 것이다.

11:36 그러나 물이 괸 샘이나 웅덩이는 깨끗함을 유지하겠지만,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부정해진다.

11:37 그 주검의 일부가 심으려고 둔 어떤 씨앗에 떨어지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11:38 그러나 씨앗에 물을 부었는데 그 주검의 일부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11:39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40 그 주검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주검을 옮긴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1:41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역겨운 것이니 먹지 못한다.

11:42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이나,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11:43 너희는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으로도 너희 자신을 역겹게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11:44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어떤 길짐승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11:45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11:46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에 관한 규례이니,

11:47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12장

1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12:3 여드렛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해야 한다.

12:4 그 여자는 피가 깨끗해지는 삼십삼 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12:5 그러나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할 때처럼 두 주 동안 부정할 것이며, 피가 깨끗해지는 육십육 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12:6 아들이든 딸이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자는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2:7 제사장은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출혈의 원천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규례다.

12:8 만일 그 여자가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 여자가 깨끗해질 것이다.'"

13장

13: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3:2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나 반점이 생겨 그 피부가 악성 피부병 증상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13:3 제사장은 피부의 병든 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그 환부가 피부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의 환부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13:4 만일 피부의 반점이 희기만 하고 피부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털도 희어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5 이렛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의 눈에 병의 상태가 멈추고 피부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6 이렛날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살펴보아, 환부가 옅어지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깨끗해질 것이다.

13:7 그러나 정결 판정을 받으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부스럼이 피부에 번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13:8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13:9 사람에게 악성 피부병 환부가 생기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13:10 제사장이 살펴보아 피부에 흰 부스럼이 나고 털이 희어졌으며 그 부스럼에 생살이 드러나 있으면,

13:11 그것은 그의 피부에 생긴 만성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므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13:12 만일 악성 피부병이 피부 전체에 번져 제사장의 눈에 보이는 대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13:13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에게 병이 깨끗해졌다고 선언해야 한다. 온몸이 다 희어졌으니 그는 깨끗하다.

13:14 그러나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드러나면 그는 부정해진다.

13:15 제사장이 생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니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13:16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13:17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에게 병이 깨끗해졌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깨끗하다.

13:18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13:19 그 종기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13:20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그 털이 희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 환부이며 종기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13:21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안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깊지 않으며 빛깔이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22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 환부다.

13:23 그러나 그 반점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번지지 않았으면 종기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13:24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덴 자리에 드러난 생살이 희붉거나 흰 반점이 되면,

13:25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의 털이 희어지고 피부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이 화상 자국에서 번져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 환부다.

13:26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반점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깊지 않으며 빛깔이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27 제사장은 이렛날에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 환부다.

13:28 그러나 그 반점이 제자리에 머물러 피부에 번지지 않고 빛깔이 옅어졌으면 화상으로 인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화상 흉터이기 때문이다.

13:29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턱수염 부위에 환부가 생기면,

13:30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피부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 가늘고 노란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옴이니 머리나 턱수염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13:31 제사장이 그 옴의 환부를 살펴보아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옴에 걸린 사람을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32 이렛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옴이 번지지 않았고 노란 털도 없으며 옴이 피부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13:33 그는 털을 밀되 옴 환부는 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옴 환자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해야 한다.

13:34 이렛날에 제사장이 그 옴을 살펴보아 옴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고 피부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깨끗해질 것이다.

13:35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옴이 피부에 번지면,

13:36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옴이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13:37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멎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옴이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13:38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반점, 곧 흰 반점이 생겼다면,

13:39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반점이 엷은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에 돋아난 단순한 백반이다. 그는 깨끗하다.

13:40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이지만 깨끗하다.

13:41 앞머리의 털이 빠져도 앞대머리이지만 깨끗하다.

13:42 그러나 정수리 대머리나 앞대머리에 희붉은 환부가 생기면, 그것은 그의 정수리 대머리나 앞대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번져 나온 것이다.

13:43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정수리 대머리나 앞대머리에 생긴 환부의 부스럼이 희붉어서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13:44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다. 그는 부정하다.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반드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13:45 악성 피부병 환부를 가진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13:46 환부가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할 것이다. 그는 부정하므로 홀로 살아야 하며,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어야 한다.

13:47 옷에 악성 곰팡이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양털 옷이든 아마포옷이든,

13:48 아마포나 양털의 날실이나 씨실에 있든,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든,

13:49 그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물건에 생긴 병반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 병이니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13:50 제사장은 그 병반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레 동안 따로 두어야 한다.

13:51 이렛날에 제사장이 그 병반을 살펴보아, 그 병반이 옷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에든 번졌으면, 그 병반은 파괴적인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13:52 그는 병반이 있는 양털이나 아마포의 날실이나 씨실로 된 옷이나 가죽으로 된 모든 물건을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파괴적인 곰팡이이므로 불로 태워야 한다.

13:53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병반이 옷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도 번지지 않았으면,

13:54 제사장은 병반이 있는 물건을 빨게 하고 다시 이레 동안 따로 두어야 한다.

13:55 그 병든 물건을 빤 뒤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야 한다. 병반의 색이 변하지 않았고 비록 번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고든 곰팡이 얼룩이다.

13:56 그러나 빤 뒤에 제사장이 살펴보아 병반의 빛깔이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옷이나 가죽이나 날실이나 씨실에서 그 부분을 찢어 내야 한다.

13:57 그래도 그 옷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물건에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번져 가는 것이니, 병반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워야 한다.

13:58 그러나 너희가 빤 옷이나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물건에서 병반이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 번 더 빨아야 깨끗해질 것이다."

13:59 이것이 양털 옷이나 아마포옷, 날실이나 씨실, 또는 가죽으로 된 온갖 물건에 생긴 곰팡이 병에 관하여 깨끗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규례다.

14장

1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2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14:3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에게 있던 악성 피부병 환부가 나았으면,

14:4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을 위해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해야 한다.

14:5 제사장은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의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명령해야 한다.

14:6 살아 있는 새는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것들과 살아 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야 한다.

14:7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일곱 번 뿌려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 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14:8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민 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 뒤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이레 동안은 자기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14:9 이렛날이 되면 그는 머리털과 턱수염과 눈썹을 비롯하여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한다.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물로 몸을 씻어야 깨끗해질 것이다.

14:10 여드렛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곡식제물로 바치고,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14:11 정결 선언을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사람과 그 제물들을 회막 문 앞 주님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14:12 제사장은 어린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제물로 바치고,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아야 한다.

14:13 제사장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 곧 성소 구역에서 그 어린 숫양을 잡아야 한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처럼 제사장의 몫이며,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4:14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얼마쯤 받아다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14:15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쯤 덜어내어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14:16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의 기름을 찍어 주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4:17 그리고 손에 남은 기름에서 얼마쯤 덜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되, 이미 바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14:18 제사장은 자기 손에 아직 남아 있는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머리에 붓고,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14:19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뒤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14:20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14:21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렇게 많이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속건제물로 어린 숫양 한 마리와,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14:22 또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14:23 여드렛날에 그는 정결함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회막 문 앞 주님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4:24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삼아야 한다.

14:25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어린 양을 잡고, 그 속건제물의 피를 얼마쯤 받아다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14:26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14:27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주님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4:28 제사장은 손에 있는 기름 얼마를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자리에 덧발라야 한다.

14:29 제사장의 손에 아직 남아 있는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머리에 부어,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14:30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이 닿아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하는데,

14:31 곧 그의 형편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14:32 이것이 악성 피부병 환부를 가졌으나 정결 의식에 드리는 제물을 넉넉히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규례다.

14:3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4:34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너희 소유의 땅에 있는 어떤 집에 내가 번지는 곰팡이 병을 일으킬 때,

14:35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 집에 어떤 병반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14:36 제사장은 그 병반을 살펴보러 들어가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펴보러 들어가야 한다.

14:37 제사장이 그 병반을 살펴볼 때, 만일 집 벽에 파인 자국이 나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며 벽면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14:38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해야 한다.

14:39 이렛날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병반이 집 벽에 번졌으면,

14:40 제사장은 병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14:41 또 집 안을 돌아가며 온통 긁어내게 해야 하며, 그들이 긁어낸 흙과 회반죽은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려야 한다.

14:42 사람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이 있던 자리에 끼워 넣고, 다른 흙과 회반죽을 가져다가 집을 다시 발라야 한다.

14:43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뒤에도 그 집에 병반이 다시 생겨 번져 나오면,

14:44 제사장은 들어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병반이 집 안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 안에 생긴 파괴적인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14:45 그는 그 집과 그 돌들과 목재와 집의 온갖 흙과 회반죽을 헐어 내어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날라야 한다.

14:46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4:47 그 집에서 눕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14:48 그러나 집을 다시 바른 뒤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 그 병반이 집 안에 번지지 않았으면, 그 병이 나았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14:49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은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한다.

14:50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의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한다.

14:51 그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4:52 제사장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14:53 그리고 살아 있는 새는 성 밖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집을 위해 속죄하면 그 집이 깨끗해질 것이다."

14:54 이것은 온갖 악성 피부병 환부와 옴,

14:55 옷과 집의 파괴적인 곰팡이 병,

14:56 그리고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규례이니,

14:57 언제 부정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다.

15장

15: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5: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몸에서 유출물이 흘러나오면 그 유출물 때문에 부정하다.

15:3 유출물로 인한 그의 부정함은 이러하다.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계속 흘러나오든 유출물이 막혔든, 그것은 그의 부정함이다.

15:4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해지고, 그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해진다.

15:5 그의 침상에 닿는 사람은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6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 위에 앉는 사람은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7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8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9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은 무엇이든 부정해진다.

15:10 그의 밑에 놓여 있던 것에 닿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11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물로 손을 씻지 않은 채 누구에게 닿으면,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12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15:13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유출에서 깨끗해지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레를 센 뒤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15:14 여드렛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5:15 제사장은 그것들을 바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유출병에 대해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15:16 어떤 사람에게서 정액이 흘러나왔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17 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모든 가죽은 물로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18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사정했으면, 두 사람 모두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19 여자가 유출을 하는데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물이 피이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할 것이며, 그 여자에게 닿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20 그 여자가 불결한 동안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해지고,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해진다.

15:21 그 여자의 침상에 닿는 사람은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22 그 여자가 앉았던 어떤 자리에든 닿는 사람은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23 그것이 침상 위에 있든 그 여자가 앉았던 물건 위에 있든, 그것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24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워 그 여자의 월경혈이 그에게 묻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가 눕는 침상도 모두 부정해진다.

15:25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지나도 계속 피가 흐르면, 그 부정하게 흐르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월경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15:26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은 월경 때의 침상과 같고, 그 여자가 앉는 모든 자리도 월경 때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해진다.

15:27 이것들에 닿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해지므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5:28 그러나 그 여자가 유출에서 깨끗해지면, 이레를 센 뒤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15:29 여드렛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5:30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유출의 부정함에 대해 주님 앞에서 그 여자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15: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구별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 부정함 가운데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32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정액이 흘러나와 그것으로 부정해진 사람,

15:33 그리고 월경 중인 여자와 유출병이 있는 남자나 여자, 또 부정해진 여자와 함께 누운 사람에 관한 규례다.

16장

16:1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죽지 않으려면 휘장 안쪽 지성소, 곧 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속죄판 위 구름 속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16:4 그는 거룩한 모시 속옷을 입고 몸에 모시 바지를 입으며, 모시 띠를 띠고 모시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옷들을 입어야 한다.

16:5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받아야 한다.

16: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16:7 그는 두 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주님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16:8 아론은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한 제비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제비는 내보내는 염소를 위한 것이다.

16:9 아론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16:10 그러나 내보내는 염소로 제비 뽑힌 염소는 살아 있는 채로 주님 앞에 세워 두어, 그 염소를 위해 속죄하고 그것을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로 보내야 한다.

16: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16:12 그는 주님 앞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채우고, 곱게 빻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16:13 그는 주님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의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16:14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쯤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속죄판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판 앞에도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6:15 그런 다음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처럼 그 피로 행하여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려야 한다.

16:16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온갖 죄로 인한 반역 때문에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들의 부정함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16:17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16:18 그는 주님 앞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하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 뿔 주위에 발라야 한다.

16:19 그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16:20 그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쳤을 때, 살아 있는 염소를 끌어와야 한다.

16:21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모든 반역, 곧 그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은 뒤, 미리 정해 둔 사람의 손에 맡겨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한다.

16:22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땅으로 갈 것이며,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한다.

16:23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16: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뒤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16:25 그는 속죄제물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16:26 염소를 내보내는 염소로 떠나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16:27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속죄제물의 수송아지와 속죄제물의 숫염소는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16:28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16:29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니,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그러해야 한다.

16:30 이날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속죄할 것이니,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16:31 이날은 너희에게 온전한 쉼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16:32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속죄를 행하되, 모시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해야 한다.

16:33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하며, 제사장들과 온 회중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한다.

16:34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일 년에 한 번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17장

17: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2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17:3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진영 안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거나 진영 밖에서 잡고도,

17:4 주님의 성막 앞, 곧 회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주님께 예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돌아갈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으니,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17:5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들판에서 바치던 제물을 주님께, 곧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주님께 화목제 제물로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17:6 제사장은 회막 문 주님의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기름기를 불태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17:7 그들은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우상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17:8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치면서,

17:9 주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것을 회막 문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7:10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든, 어떤 피든 먹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피를 먹는 그 사람을 엄히 대적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17:11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목숨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피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속죄하는 것은 바로 피이다.

17: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어떤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17:13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외국인 가운데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는, 그 피를 쏟아 내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17:14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지 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7:15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뒤에 정결해질 것이다.

17:16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18장

18: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8:3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데려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마라.

18:4 너희는 나의 법도를 실천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8:5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18:6 너희 가운데 누구도 가까운 친척에게 접근하여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18:7 너는 아버지의 하체 곧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어머니는 네 어머니이니, 어머니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18:8 너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것은 네 아버지의 하체이다.

18:9 너는 네 누이,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마찬가지이다.

18:10 너는 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들의 하체는 곧 네 자신의 하체이기 때문이다.

18:11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누이이다.

18:12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다.

18:13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18:14 너는 삼촌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의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녀는 네 숙모이다.

18:15 너는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18:16 너는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것은 네 형제의 하체이다.

18:17 너는 한 여인과 그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니, 이는 악한 짓이다.

18:18 너는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삼아 대적하게 하거나 하체를 범하지 마라.

18:19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부정한 동안에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 하체를 범하지 마라.

18:20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녀와 함께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18:21 너는 네 자녀 가운데 누구도 몰렉에게 제물로 넘겨주지 마라.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증한 짓이다.

18:23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자도 짐승 앞에 나아가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문란한 짓이다.

18:24 너희는 이 어떤 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18: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의 죄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주민들을 토해 냈다.

18:26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마라.

18:27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저질렀고, 그 땅은 더러워졌다.

18:28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살던 민족을 토해 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 내게 될 것이다.

18:29 누구든지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저지르면,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8:30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켜 너희보다 앞서 저질러지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장

19: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9: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19:3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4 너희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5 너희가 주님께 화목제 제물을 바칠 때는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바쳐야 한다.

19:6 그 제물은 너희가 바치는 그 날과 그 다음 날에 먹어야 하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야 한다.

19:7 만일 그것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19:8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므로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하며,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9:9 너희가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마라.

19:10 너는 네 포도원을 샅샅이 뒤져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속이지 마라.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19:13 너는 네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19:14 너는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놓지 마라.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19:15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마라. 오직 공의로 네 이웃을 재판하여라.

19:16 너는 네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다니지 마라.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19:17 너는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네 이웃을 반드시 훈계하여라.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19:18 원수를 갚지 마라. 네 동족의 자손들에게 앙심을 품지 마라. 오직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19:19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라. 네 가축에게 다른 종류의 짐승과 짝짓기하지 마라. 네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두 가지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19:20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였는데, 그녀가 아직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거나 해방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녀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21 그 남자는 주님께 바칠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 한 마리를 회막 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19:22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를 위해 주님 앞에서 그 속건제 숫양으로 속죄해야 하며, 그러면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19:23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을 온갖 과일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금지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삼 년 동안은 그것을 너희에게 금지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야 한다.

19:24 넷째 해에는 그 모든 열매가 거룩하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물이 될 것이다.

19:25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그래야 나무가 너희에게 소출을 더 많이 낼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26 너희는 피가 든 채로 어떤 고기도 먹지 마라. 복술을 행하지 마라. 주술을 부리지 마라.

19:27 너희는 관자놀이 쪽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네 턱수염의 끝을 깎아 훼손하지 마라.

19:28 너희는 죽은 자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주님이다.

19:29 네 딸을 창녀로 만들어 욕되게 하지 마라. 그 땅이 음행에 빠져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될까 염려된다.

19:30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19:31 너희는 신접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박수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그들을 찾아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32 너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19:33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19:34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을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저지르지 마라.

19:36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추와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힌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19: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20장

20: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머물러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식 가운데 누구라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20:3 나 또한 그 사람을 엄히 대적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니,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20:4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칠 때 그 땅의 백성이 눈을 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20:5 내가 친히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을 엄히 대적하여 그와, 그를 따라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20:6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엄히 대적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릴 것이다.

20:7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0:8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20:9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0:10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0:11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그 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며,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0:12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문란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0:13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며,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0:14 어떤 남자가 한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아내로 맞아들이면, 이는 악한 짓이다. 너희 가운데 악한 일이 없도록 그 남자와 그 여인들을 모두 불태워 죽여야 한다.

20:15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20:16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며,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0:17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녀의 하체를 보고 그녀도 그의 하체를 보면, 이는 부끄러운 짓이다. 그들은 자기 동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자기 누이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20:18 남자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하체를 범하면, 그는 그녀의 샘을 드러낸 것이고 그녀는 자기 피의 샘을 드러낸 것이다. 그 둘은 모두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0:19 너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자기 가까운 친척을 범한 것이니,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20:20 남자가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삼촌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20:21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데려가면, 이는 불결한 짓이다. 그가 자기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들은 자식이 없을 것이다.

20:22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려고 데려가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지 않을 것이다.

20: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다.

20: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다.

20:25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구별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구별해 둔 짐승이나 새나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만들지 마라.

20: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나 주가 거룩하며,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20:27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하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1장

2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21:2 다만 자기와 가까운 친족, 곧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21:3 그리고 남편이 없는 처녀로서 자기와 가까운 친누이의 경우에는 그녀를 위해 몸을 더럽힐 수 있다.

21:4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자신을 더럽혀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21:5 그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턱수염 가장자리를 밀지 말며,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21:6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 곧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21:7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21:8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가 네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21:9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 창녀 짓을 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녀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

21:10 자기 형제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 머리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자기 머리칼을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21:11 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21:12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의 하나님께 속한 관유의 성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이다.

21:13 그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21:14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직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21:15 그리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손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21: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1:17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의 자손 가운데 대대로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려고 나아와서는 안 된다.

21:18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 곧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비뚤어진 사람이나 지체가 기형인 사람,

21:19 발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손에 부상을 입은 사람,

21:20 등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자라지 못한 사람, 눈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나 옴이 있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이다.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 그에게 흠이 있으므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

21:22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가장 거룩한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먹을 수 있다.

21:23 다만 그에게 흠이 있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성소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21:24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22장

2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거룩하게 바치는 성물을 스스로 조심하여 다루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22:3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자손 가운데 누구든지 부정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성물에 가까이 나아오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22:4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마라.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만진 사람이나 정액을 흘린 사람,

22:5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어 다니는 것을 만진 사람이나, 어떤 부정에 걸렸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진 자는 누구든지,

22:6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는 성물을 먹지 못한다.

22:7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며, 그 뒤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22:8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22:9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그것으로 죄를 짊어지지 않고 성물을 욕되게 하여 그 안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22:10 일반인은 아무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 집에 머무는 손님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22:11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종을 사면, 그 종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22:12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갔다면, 그녀는 성물의 거제물을 먹지 못한다.

22:13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당하고 자식이 없어 어린 시절처럼 친정으로 돌아왔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22:14 누구든지 실수로 성물을 먹었을 때는, 그 성물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그 성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22:15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치는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22:16 그들이 성물을 먹음으로써 죄책을 낳는 죄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22: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18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로 주님께 바치려고 서원 예물이든 자원 예물이든 예물을 드릴 때는,

22:19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22:20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2:21 누구든지 서원을 갚으려고 하거나 자원 예물로 소나 양으로 주님께 화목제 제물을 바칠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흠이 없이 온전해야 한다. 어떤 결함도 없어야 한다.

22:22 눈먼 것이나 상처 입은 것, 불구가 된 것, 혹이 난 것, 궤양이 있거나 고름이 흐르는 상처가 있는 것은 주님께 바치지 마라. 제단 위에서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로 그런 것들을 올려서는 안 된다.

22:23 지체가 기형이거나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소나 양은 자원 예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서원 예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2:24 너희는 고환이 멍들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린 것을 주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해서도 안 된다.

22:25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부패한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므로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22: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27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칠 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머물러 두어야 한다. 여덟째 날부터는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2:28 암소든 암양이든 너희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22:29 너희가 주님께 감사제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바쳐야 한다.

22:30 그것은 그 날에 다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22:31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22:32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며,

22:33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님이다. 나는 주님이다."

23장

2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주님의 정한 절기들, 곧 나의 정한 절기들은 이러하다.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님의 안식일이다.

23:4 너희가 그 정한 때에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주님의 정한 절기들은 이러하다.

23:5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23:6 같은 달 보름날은 주님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23:7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고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3:8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께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니, 어떤 고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3: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첫 수확의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23: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 곡식단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23:12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23:13 그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이며, 이는 주님께 바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물이다. 함께 부어 드릴 전제물은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이다.

23:14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 날까지 빵이든 볶은 곡식이든 햇곡식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23:15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흔들어 바치는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계산하여 일곱 번의 안식일을 온전히 채워야 한다.

23:16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오십 일을 세어, 주님께 새로운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23:17 너희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빵 두 덩이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은 누룩을 넣어 구워야 하며, 주님께 바치는 첫 열매이다.

23:18 너희는 그 빵과 함께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주님께 바치는 번제물이 되며,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물이다.

23:19 너희는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23:20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한 것으로서 주님께 거룩한 것이다.

23:21 너희는 바로 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고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23:22 너희가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3: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초하룻날은 너희에게 온전히 쉬는 날이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23:25 너희는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고, 주님께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23: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27 "그러나 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의 날이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낮추고 주님께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23:28 너희는 바로 그 날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날은 속죄일이니,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23:29 바로 그 날에 스스로를 낮추어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3:30 바로 그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다.

23:31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23:32 이 날은 너희에게 온전히 쉬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낮추어야 한다. 그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

23:3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23:35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마라.

23:36 이레 동안 너희는 주님께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을 것이며, 주님께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마라.

23:37 이것들은 주님의 정한 절기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하여 주님께 화제물, 곧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23:38 이것은 주님의 안식일들에 더하여 바치는 것이며, 너희의 선물과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과 너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자원 예물에 더하여 바치는 것이다.

23:39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거두어들였을 때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에도 온전히 쉬고 여덟째 날에도 온전히 쉬어야 한다.

23:40 너희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해야 한다.

23:41 너희는 해마다 이레 동안 주님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니,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23: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본토인은 누구나 초막에 살아야 한다.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 머물러 살게 하였음을 너희 대대의 후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3:44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정한 절기들을 선포하였다.

24장

2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켜기 위해 찧어 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잔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24:3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등불을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24:4 그는 순금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잘 보살펴야 한다.

24:5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 열두 개를 구워라. 빵 하나마다 십분의 이 에바의 가루가 들어가게 해야 한다.

24:6 너는 그것들을 주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24:7 너는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 빵을 기념하는 제물, 곧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되게 하여라.

24:8 그는 안식일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그것을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24:9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 가운데 그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영원한 규례에 따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4:10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서로 싸웠다.

24: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었는데,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24:12 그들은 주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었다.

24: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14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여라.

24: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24:16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그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24:17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4:18 짐승을 쳐서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하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24:19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져야 한다.

24:20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상해를 입혀야 한다.

24: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24:22 외국인에게든 본토인에게든 너희에게는 단 하나의 법이 있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4: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그들은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25장

25:1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께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한다.

25:3 여섯 해 동안은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은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두어라.

25:4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이 온전히 쉬어야 하는 안식의 해이니, 곧 주님께 드리는 안식의 해다.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네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25:5 네가 수확한 뒤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따지 마라. 그것은 땅을 위한 온전한 안식의 해다.

25:6 그 땅의 안식 중에 나는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곧 너와 네 남종과 여종,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외국인 나그네를 위한 것이며,

25: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소출이 먹거리가 될 것이다.

25:8 '너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 일곱 번의 기간은 마흔아홉 해가 될 것이다.

25:9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날에 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곧 속죄일에 너희의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여라.

25:10 너희는 쉰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25:11 그 쉰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스스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지 마라.

25:12 그것이 희년이며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것이다.

25:13 '이 희년에는 너희 각자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25:14 '너희가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 서로를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25:15 너는 희년 이후의 햇수에 따라 이웃에게서 살 것이며, 그 사람도 수확할 수 있는 햇수에 따라 너에게 팔 것이다.

25:16 그 햇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그 값을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이 너에게 파는 것은 소출을 거둘 햇수이기 때문이다.

25:17 너희는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5:18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간직하여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5:19 땅은 소출을 내어 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5:20 너희가 만일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25:21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내 복을 내려 세 해 동안 먹을 충분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25:22 너희가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릴 때에도 아홉째 해까지 예전 소출을 먹을 것이다. 곧 새로운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옛 양식을 먹을 것이다.

25:23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다.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무는 나그네이자 외국인일 뿐이다.

25:24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토지를 무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25: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다.

25:26 만일 어떤 사람이 무를 친족이 없으나 형편이 나아져서 스스로 무를 만한 여력이 생기면,

25:27 그 땅을 판 때부터 지난 햇수를 셈하여 남은 금액을 땅을 샀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5:28 그러나 스스로 되찾을 힘이 없다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을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것은 풀려날 것이며,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25:29 '만일 어떤 사람이 성벽이 있는 성읍 안의 살림집을 팔았다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그것을 무를 수 있다. 만 1년 동안에는 그에게 무를 권리가 있다.

25:30 만일 만 1년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그 성벽 있는 성읍 안의 집은 산 사람과 그의 대대에 걸쳐 영구히 확정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려나지 않는다.

25:31 그러나 주위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집은 시골의 밭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것은 무를 수도 있고 희년에 풀려나기도 할 것이다.

25:32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들 곧 그들이 소유한 성읍들의 집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다.

25:33 레위 사람이 팔았던 집이나 그가 소유한 성읍의 재산은 무를 수 있으며 희년이 되면 풀려날 것이다. 레위 사람 성읍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25:34 그러나 그들 성읍 주위의 목초지 밭은 팔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영구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25:3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네 곁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가 나그네나 체류자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25:36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여라.

25:37 너는 이자를 바라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바라고 그에게 양식을 주지 마라.

25:38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25:39 '만일 네 곁에 사는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너에게 몸을 팔더라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25:40 그는 품꾼이나 체류자처럼 너와 함께 지내야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길 것이다.

25:41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25: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25:43 너는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25:44 '너희가 소유할 남종과 여종은 너희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서 얻어야 한다. 너희는 그 나라들에서 남종과 여종을 살 수 있다.

25:45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 체류자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낳아 너희와 함께 사는 그 가족들 중에서도 살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5: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영구한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끼리는 서로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25:47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체류자는 부유해지고 그 곁에 사는 네 형제는 가난해져서, 너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이나 체류자 또는 그 외국인 가문의 사람에게 몸을 팔았다고 하자.

25:48 그는 팔린 뒤에도 속량받을 수 있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속량해 줄 수 있다.

25:49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해 줄 수도 있고, 그의 가문 가운데 가까운 친족 누구라도 그를 속량해 줄 수 있다. 또는 그가 넉넉해지면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다.

25:50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자기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까지의 햇수를 계산해야 한다. 그의 몸값은 그 햇수에 따라 매겨질 것이며, 그의 일한 날은 품꾼의 날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25:51 아직 남은 햇수가 많으면, 그 햇수에 비례하여 자기가 팔렸던 돈에서 속량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25: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다시 셈하여 자기의 섬길 햇수에 따라 속량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25:53 그는 해마다 고용된 품꾼처럼 주인과 함께 지내야 한다. 너는 주인이 네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25:54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풀려날 것이다.

25: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6장

26:1 "너희는 스스로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기둥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어떤 새긴 석상을 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6:2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26:3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26:4 내가 제때에 너희에게 비를 주어 땅은 그 소출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6:5 너희의 타작은 포도를 딸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6: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서 없앨 것이며, 칼이 너희 땅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26:7 너희는 원수들을 뒤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26:8 너희 다섯 사람이 백 사람을 쫓고, 너희 백 사람이 만 사람을 쫓을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26:9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아지게 할 것이며,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26:10 너희는 오래 보관해 둔 묵은 양식을 먹다가, 새 양식이 들어오면 묵은 양식을 치워야 할 것이다.

26:11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26:12 내가 너희 가운데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살이를 면하게 해 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26:14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않으며,

26:15 내 규례를 업신여기고 너희 마음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깨뜨린다면,

26:16 나 또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공포를 내릴 것이니 곧 눈을 멀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폐병과 열병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 치울 것이다.

26:17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얼굴을 돌릴 것이니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칠 것이다.

26:18 이러한 일들을 겪고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겠다.

26:19 내가 너희 권세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놋쇠처럼 만들겠다.

26:20 너희의 힘이 헛되이 소진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26:21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동하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죄에 따라 일곱 배나 더 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26:22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가게 하고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를 줄어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길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26:23 이러한 일을 겪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26:24 나 역시 너희를 거슬러 맞서 싸울 것이며, 바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로 칠 것이다.

26:25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언약을 어긴 죄를 되갚을 것이다. 너희가 성읍 안으로 모여들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것이며,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6:26 내가 너희가 의지할 양식의 지팡이를 꺾을 때에 열 여자가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무게를 달아 나누어 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26:27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26:28 내가 분노하여 너희를 거슬러 맞설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로 징벌하겠다.

26:29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26:30 내가 너희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분향 제단들을 찍어 넘기며, 너희 주검들을 너희 우상들의 몸뚱이 위에 던질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몹시 싫어할 것이다.

26:31 내가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26:32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26:33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버리고 너희 뒤를 쫓아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26:34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져 있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야 땅이 쉬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26:35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에는 쉼을 얻을 것이니, 곧 너희가 그 땅에 살 때 안식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쉼을 누릴 것이다.

26:36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보내겠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이 놀라 도망치고, 마치 칼을 피해 도망치듯 달아날 것이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26:37 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 앞에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26:38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26:39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메말라 갈 것이며,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들과 함께 메말라 갈 것이다.

26:40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한 허물과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나를 거슬러 행했던 일을 인정하며,

26:41 나 또한 그들을 거슬러 맞서서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는다면,

26: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26:43 그들이 떠난 그 땅은 비어 있는 동안에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내 규례를 몹시 싫어했으므로, 그들은 자기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26:44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저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6:45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주님이다.'"

26:46 이것들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법률들이다.

27장

27: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서원으로 사람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면, 네가 정한 평가 금액에 따라 바쳐야 한다.

27:3 스무 살부터 예순 살까지의 남자에 대해 네가 정할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쉰 세겔이다.

27:4 그 사람이 여자라면 네가 정할 값은 서른 세겔이다.

27:5 다섯 살부터 스무 살까지의 사람이면 남자의 값은 스무 세겔, 여자의 값은 열 세겔로 정해야 한다.

27:6 생후 한 달부터 다섯 살까지의 아이라면 남자의 값은 은 다섯 세겔, 여자의 값은 은 세 세겔로 정해야 한다.

27:7 예순 살 이상인 사람의 경우, 남자라면 네가 정할 값이 열다섯 세겔이고 여자라면 열 세겔이다.

27:8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치를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값을 정할 것인데, 서원한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해야 한다.

27:9 '만일 그것이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라면, 주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해진다.

27:10 그는 그것을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지 못하니,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만일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꾼다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해질 것이다.

27:11 만일 주님께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

27:12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 값을 정해야 하니,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27:13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정녕 무르려고 하면, 정한 값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27:14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주님께 거룩히 바치려 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값을 정해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27:15 집을 바친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 한다면, 네가 정한 평가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해 주어야 그 집이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27:16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가운데 얼마를 주님께 바치려 한다면, 그 밭에 뿌릴 씨의 분량에 따라 값을 정해야 한다. 보리 한 호멜을 뿌릴 땅은 은 쉰 세겔로 평가해야 한다.

27:17 그가 희년부터 자기 밭을 바친다면, 네가 정한 평가 금액대로 확정될 것이다.

27:18 그러나 그가 희년이 지난 뒤에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맞추어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평가 금액에서 그만큼을 감해주어야 한다.

27:19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정녕 무르려 한다면, 네가 정한 평가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해 주어야 그 밭이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27:20 만일 그가 밭을 무르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면, 다시는 그것을 무를 수 없다.

27:2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날 때에는 주님께 거룩히 바쳐진 땅, 곧 온전히 봉헌된 밭처럼 주님께 거룩해질 것이며,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27:22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조상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산 밭을 주님께 바치려 한다면,

27:23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평가 금액을 정해야 하며, 그 사람은 바로 그날에 네가 정한 금액을 주님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27: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팔았던 본래 주인, 곧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7:25 네가 정하는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을 따라야 하며,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해야 한다.

27:26 '그러나 짐승의 첫새끼는 아무도 따로 바칠 수 없다. 그것은 맏배로서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니,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27:27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라면, 네가 정한 평가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것을 도로 사야 한다. 만일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네가 정한 값대로 팔릴 것이다.

27: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가운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유산의 밭을 막론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팔 수도 없고 무를 수도 없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주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27:29 사람 가운데 멸망하도록 온전히 바쳐진 자는 누구도 몸값을 받고 풀어줄 수 없으니,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27:30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씨앗이나 나무의 열매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거룩한 것이다.

27:31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일조 가운데 얼마를 무르려 한다면, 그는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27:32 소 떼나 양 떼의 십분의 일, 곧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것의 열 번째 짐승은 주님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27:33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내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지도 마라. 만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해질 것이니, 다시는 무를 수 없다.'"

27:34 이것들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다.

민수기

1장

1:1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모든 남자를 하나하나 세어 인구를 조사하여라.

1:3 이스라엘 가운데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너와 아론이 그 부대별로 세어야 한다.

1:4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서게 하되, 각 사람은 자기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여야 한다.

1:5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1:6 시므온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1:7 유다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1:8 잇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1:9 스불론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1:10 요셉의 자손 가운데서는, 에브라임에서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므낫세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1:11 베냐민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1:12 단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1:13 아셀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1:14 갓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1:15 납달리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1:16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로서 자기 조상 지파들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천인대장들이었다.

1:17 모세와 아론은 이름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한곳에 모았다. 그러자 백성은 그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족보를 밝혔고, 스무 살 이상 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었다.

1: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했다.

1:20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하나하나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21 르우벤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46,500명이었다.

1:22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하나하나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23 시므온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59,300명이었다.

1:24 갓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25 갓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45,650명이었다.

1:26 유다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27 유다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74,600명이었다.

1:28 잇사갈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29 잇사갈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54,400명이었다.

1:30 스불론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31 스불론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57,400명이었다.

1:32 요셉의 자손 가운데서 에브라임 자손 중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33 에브라임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40,500명이었다.

1:34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35 므낫세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32,200명이었다.

1:36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37 베냐민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35,400명이었다.

1:38 단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39 단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62,700명이었다.

1:40 아셀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41 아셀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41,500명이었다.

1:42 납달리 자손 가운데서 그 족보와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이름의 수대로 센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1:43 납달리 지파에서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이 53,400명이었다.

1:44 이들이 바로 계수된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자 자기 조상의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열두 사람이 그들을 세었다.

1:45 이처럼 조상의 집안에 따라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스무 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

1:46 곧 등록된 사람의 총수는 603,550명이었다.

1:47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조상의 지파에 따라 이 명단에 함께 세어지지 않았다.

1:48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49 "너는 오직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1:50 오히려 레위 사람들에게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맡겨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나르고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1:51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5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진영에, 각자 자기 부대의 깃발 곁에 장막을 쳐야 한다.

1:53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거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막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1:5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2장

2: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군기 아래, 자기 조상의 집안을 나타내는 깃발 곁에 진을 쳐야 한다. 그들은 회막을 마주 보며 얼마간 거리를 두고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2:3 동쪽 해 뜨는 편에 진을 칠 사람들은 부대별로 배치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2:4 그의 군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2:5 그 곁에 진을 칠 지파는 잇사갈 지파다. 잇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2:6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54,400명이다.

2:7 다음은 스불론 지파다.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2:8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이다.

2:9 유다 진영에 등록된 총인원은 부대별로 186,400명이다. 그들이 맨 먼저 행진해야 한다.

2:10 남쪽에는 부대별로 배치된 르우벤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2:11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2:12 그 곁에 진을 칠 지파는 시므온 지파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2:13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2:14 다음은 갓 지파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2:15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2:16 르우벤 진영에 등록된 총인원은 군대별로 151,450명이다. 그들이 두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2:17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 사람들의 진영과 함께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은 진을 친 순서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깃발을 따라 행진해야 한다.

2:18 서쪽에는 부대별로 배치된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2:19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40,500명이다.

2:20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야 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2:21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32,200명이다.

2:22 다음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2:23 그의 군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35,400명이다.

2:24 에브라임 진영에 등록된 총인원은 부대별로 108,100명이다. 그들이 세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2:25 북쪽에는 부대별로 배치된 단 진영의 군기가 있어야 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2:26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62,700명이다.

2:27 그 곁에 진을 칠 지파는 아셀 지파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2:28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41,500명이다.

2:29 다음은 납달리 지파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2:30 그의 부대 곧 등록된 사람의 수는 53,400명이다.

2:31 단 진영에 등록된 총인원은 15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 군기를 따라 맨 마지막으로 행진해야 한다."

2:32 이들이 조상의 집안에 따라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모든 진영의 군대별로 등록된 총인원은 603,550명이었다.

2:33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2:3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실천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들은 자기 군기 곁에 진을 쳤고, 각자 자기 가문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행진했다.

3장

3:1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의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했다.

3: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다.

3:3 이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었다.

3: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 앞에 다른 불을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3: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6 "너는 레위 지파를 나아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세우고,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3:7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맡아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3:8 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3:9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그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3: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들의 제사장 직무를 지키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는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3: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니,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3:13 모든 맏이는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맏이를 쳐죽이던 날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이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다."

3:14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5 "너는 레위 자손을 조상의 가문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다 조사해야 한다."

3:16 모세는 명령을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수를 세었다.

3:17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였다.

3:18 가족별로 본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립니와 시므이였다.

3:19 가족별로 본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었다.

3:20 가족별로 본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였다. 이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었다.

3:21 게르손에게서 립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나왔으니, 이들이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었다.

3:22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조사된 사람들은 칠천오백 명이었다.

3:23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쪽 서쪽에 진을 쳐야 했다.

3:24 게르손 족속의 조상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3:25 회막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문에 치는 휘장과,

3:26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 문에 치는 휘장,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데 쓰는 줄들이었다.

3:27 고핫에게서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웃시엘 가족이 나왔으니, 이들이 고핫 족속의 가족들이었다.

3:28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로 성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팔천육백 명이었다.

3:29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쳐야 했다.

3:30 고핫 족속 가족들의 조상 가문의 지도자는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3:31 그들이 맡은 임무는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과 휘장,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모든 일이었다.

3: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으뜸 지도자가 되어 성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3:33 므라리에게서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나왔으니, 이들이 므라리의 가족들이었다.

3:34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조사된 사람들은 육천이백 명이었다.

3:35 므라리 가족들의 조상 가문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으며,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쳐야 했다.

3:36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는 성막의 널판과 빗장과 기둥과 받침, 그리고 성막의 모든 부속 기구와 거기에 딸린 모든 관리 작업이었으며,

3:37 성막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었다.

3:38 성막 앞 동쪽, 곧 해 뜨는 쪽인 회막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를 위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가까이 나아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3:39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별로 계수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이만 이천 명이었다.

3:4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을 조사하여 그 이름의 수를 기록하라.

3:4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나를 위해 구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 모든 첫새끼 대신에 레위 사람의 가축을 구별하라. 나는 주다."

3:42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조사했다.

3:43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되어 이름의 수에 따라 조사된 모든 맏아들은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이었다.

3:4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5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다.

3:46 레위 사람들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이백칠십삼 명을 대속하기 위해,

3:47 너는 한 사람당 다섯 세겔씩 거두어야 한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거두되,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다.

3:48 그리고 그 초과한 사람들을 대속한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3:49 모세는 레위 사람들로 대속된 수를 초과한 이들로부터 대속금을 거두었다.

3:50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천삼백육십오 세겔의 돈을 받았다.

3:51 모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대속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4: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4:2 "너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의 인구를 가족별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하라.

4:3 곧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는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4:4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지성물에 관하여 맡을 임무는 이러하다.

4:5 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가림막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4:6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얹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뒤 채를 꿰어야 한다.

4:7 진설병을 차려 놓는 상 위에도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부어 드리는 잔들을 올려놓아야 하며, 항상 바치는 빵도 그 위에 있어야 한다.

4:8 그 기구들 위에 진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 채를 꿰어야 한다.

4:9 그들은 또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그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야 한다.

4:10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고 들것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4:11 금 제단 위에도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 채를 꿰어야 한다.

4:12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 안에 넣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 들것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4:13 그들은 제단에서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야 한다.

4:14 그리고 제단에서 봉사할 때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은 뒤 채를 꿰어야 한다.

4:15 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메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물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니, 손을 대면 죽을 것이다. 회막에 딸린 이것들이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할 짐이다.

4: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직무는 등유와 향품과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과 관유이며,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성소와 모든 비품을 감독하는 일이다."

4:17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4:18 "너희는 고핫 가족들의 지파를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4:19 그들이 지성물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멜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4:20 그러나 고핫 사람들은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 성물을 보아서는 안 되니, 보면 죽을 것이다."

4: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22 "게르손 자손도 조상의 가문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4:23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일하며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4:24 게르손 가족들이 섬기며 멜 짐은 이러하다.

4:25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얹는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문 휘장을 메어야 한다.

4:26 또한 뜰의 휘장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 문 입구의 휘장, 그 줄들과 그것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와 그것들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맡아 섬겨야 한다.

4:27 게르손 자손의 모든 임무, 곧 그들이 멜 모든 짐과 수행할 모든 섬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메어야 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4:28 이것이 회막에서 게르손 자손 가족들이 맡은 임무이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 두어야 한다.

4:29 너는 므라리 자손도 가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4:30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일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4:31 그들이 회막에서 섬기며 메어야 할 책임은 이러하니, 성막의 널판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이며,

4:32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관리 작업이다. 너희는 그들이 책임지고 메어야 할 기구들의 목록을 이름별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4:33 이것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회막에서 온갖 섬김을 맡은 므라리 자손 가족들의 임무이다."

4: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핫 자손을 가족별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했다.

4:35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세었는데,

4:36 가족별로 조사된 사람들은 이천칠백오십 명이었다.

4:37 이들이 고핫 가족들 중에서 조사된 사람들로,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었으며,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조사한 수였다.

4:38 게르손 자손 중에서 가족별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된 사람들은,

4:39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었으며,

4:40 가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된 사람들은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4:41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 중에서 조사된 사람들로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었으며,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

4:42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 중에서 가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된 사람들은,

4:43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었으며,

4:44 가족별로 조사된 사람들은 삼천이백 명이었다.

4:45 이들이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 중에서 조사된 사람들로,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조사했다.

4: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족과 조상의 가문별로 조사한 레위 사람들은 모두,

4:47 삼십 세 이상부터 오십 세까지, 곧 회막에서 섬기는 일과 짐을 메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었으며,

4:48 그 계수된 총인원은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4:49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섬길 일과 멜 짐에 따라 모세가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계수했다.

5장

5: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5:3 남녀를 가리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5: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

5: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를 지어 주님께 죄를 범하고 그 영혼이 죄책을 지게 되면,

5:7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전액을 배상하고, 거기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8 그러나 그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친족이 없으면,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배상물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속죄의 숫양과 함께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그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5:9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중에서 바치는 모든 헌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5:10 각 사람이 바치는 거룩한 물건은 제사장의 것이 되며,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5: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1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빗나가서 남편에게 불충실하고,

5:13 다른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했는데도 남편의 눈에 숨겨져 비밀에 부쳐지고,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을 때,

5:14 그 남편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여 그녀가 실제로 더럽혀졌거나, 혹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지만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도,

5:15 그 남자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요, 불의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므로 거기에 기름을 붓지도 말고 유향을 얹지도 말아야 한다.

5:16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

5:17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약간 긁어모아 그 물에 넣어야 한다.

5:18 제사장은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채를 풀게 한 뒤,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녀의 손에 쥐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부르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5:19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하게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남자도 그대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고, 그대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빗나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주를 부르는 이 쓴 물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오.

5:20 그러나 그대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했다면-"

5:21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시고 배를 붓게 하실 때, 주님께서 그대를 백성 가운데 저줏거리와 맹셋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

5:22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 속에 들어가 그대의 배를 붓게 하고 그대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오." 그러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5:23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것을 쓴 물에 씻어 넣어야 한다.

5:24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부르는 그 쓴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하니,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5:25 제사장은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5:26 제사장은 곡식 제물에서 기억의 몫으로 한 움큼을 집어 제단 위에서 불사른 뒤,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5:27 그가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켜 그녀의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며, 그 여자는 백성 가운데 저줏거리가 될 것이다.

5:28 그러나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그녀는 해를 입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5:29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내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을 때나,

5:30 남편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님 앞에 세우면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해야 한다.

5:31 남편은 죄책을 벗을 것이나, 그 여자는 자신의 죗값을 져야 한다.'"

6장

6: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주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치고자 할 때에는,

6: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며,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6:4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모든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6:5 그가 구별하여 서원한 모든 기간에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을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6:6 주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치는 모든 기간에는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6:7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더라도, 그들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6:8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모든 기간에 그는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다.

6:9 누군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구별된 그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하니, 곧 일곱째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6:10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6:11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시체로 인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6:12 그는 구별된 기간을 주님께 다시 바치고 일 년 된 어린 숫양을 가져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의 구별된 몸이 더럽혀졌으므로 이전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6:13 나실인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구별하여 바친 기간이 다 차면, 그는 회막 문으로 가야 한다.

6:14 그는 주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니, 번제물로는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는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6:15 또한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과자들과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들을,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6:16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 그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6:17 그리고 숫양을 화목 제물로 주님께 바치되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드리고, 그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6:18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구별하여 기른 머리털을 깎고, 그 구별된 머리털을 가져다가 화목 제물 밑에 피운 불 위에 넣어야 한다.

6:19 나실인이 구별된 머리털을 깎은 뒤에, 제사장은 그 숫양의 삶은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실인의 두 손에 얹어 주어야 한다.

6:20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속한 거룩한 몫이다. 그 후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6:21 이것이 서원한 나실인에 관한 법이며, 자신의 형편이 닿는 대로 더 바칠 수 있는 것 외에, 자신을 구별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바쳐야 할 예물에 관한 규례이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서원에 따라 구별된 법대로 행해야 한다.'"

6: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23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6:24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6:25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6:26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라.'

6:27 그들이 이처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7:1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

7:2 조상의 가문들의 우두머리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이들은 인구 조사를 맡았던 자들이었다.

7:3 그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으니, 지도자 두 사람마다 수레 한 대씩, 지도자 한 사람마다 소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앞에 바쳤다.

7: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5 "그들에게서 이것들을 받아 회막의 일을 수행하는 데 쓰게 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7:6 모세는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7:7 그는 게르손 자손에게 그들의 직무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고,

7:8 므라리 자손에게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그들의 직무에 따라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7:9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 성소를 돌보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어 그들이 어깨로 성물을 직접 메어야 했기 때문이다.

7:10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쳤다. 지도자들은 제단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다.

7: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을 위해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바쳐야 한다."

7:12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7:13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14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15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16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17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7:18 둘째 날에는 잇사갈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7:19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20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21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22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23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다.

7:24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7:25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26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27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28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29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다.

7:30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7:31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32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33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34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35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다.

7:36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7:37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38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39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40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41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다.

7:42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7:43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44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45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46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47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다.

7:48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7:49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50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51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52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53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다.

7:54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인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7:55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56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57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58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59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다.

7:60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7:61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62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63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64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65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다.

7:66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7:67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68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69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70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71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다.

7:72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7:73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74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75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76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77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다.

7:78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7:79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였으며, 둘 다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채운 것이었다.

7:80 또 향을 가득 채운 십 세겔 나가는 금 국자 하나와,

7:81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였고,

7:82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였으며,

7:83 화목 제물로는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다.

7:84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의 봉헌 예물이었으니, 곧 은반이 열둘, 은 대접이 열둘, 금 국자가 열둘이었다.

7:85 은반은 각각 백삼십 세겔, 대접은 각각 칠십 세겔이 나가니,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이 그릇들의 은을 모두 합하면 이천사백 세겔이었다.

7:86 향을 가득 채운 금 국자는 열둘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각각 십 세겔씩 나갔으니, 국자의 금을 모두 합하면 백이십 세겔이었다.

7:87 번제물로 바친 가축은 황소가 열두 마리, 숫양이 열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이 열두 마리였고, 그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으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열두 마리였다.

7:88 화목 제물로 바친 가축은 황소가 스물네 마리, 숫양이 육십 마리, 숫염소가 육십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이 육십 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7:89 모세가 주님과 말씀하기 위해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는 증거궤 위의 속죄판 위,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

8: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2 "아론에게 말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일러라. '네가 등잔들을 켤 때, 일곱 등잔은 등잔대 앞쪽을 비추어야 한다.'"

8:3 아론은 그대로 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등잔대 앞쪽을 비추도록 등잔들을 켰다.

8:4 등잔대의 제작 방식은 이러했다.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에서부터 꽃에 이르기까지 두드려 만든 것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 주신 모양을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다.

8: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6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8:7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온몸을 면도칼로 밀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여라.

8:8 그런 다음 그들에게 어린 수소 한 마리와 그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또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8:9 너는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

8:10 너는 레위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야 하고,

8:11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게 해야 한다.

8:12 레위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8:13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8:14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야 하니,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8:15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8:17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맏이를 치던 날에, 나는 그들을 나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했다.

8:18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8:19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그들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게 했다."

8: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주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8:21 레위 사람들은 죄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다. 아론은 주님 앞에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속죄했다.

8:22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자신들의 섬김을 수행하러 들어갔다. 주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했다.

8: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24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규정은 이러하다. 스물다섯 살 이상인 사람은 만남의 장막의 일에 복무하여 일하러 들어가야 한다.

8:25 그러나 쉰 살부터는 그 일에서 물러나 더 이상 일하지 않아야 한다.

8:26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형제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섬김의 일을 하지는 않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정해 주어야 한다."

9장

9:1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2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9:3 이달 열나흗날 저녁, 정해진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를 따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

9:4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9:5 그들은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행했다.

9:6 그런데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몇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왔다.

9:7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으나, 어찌하여 우리가 막혀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정해진 때에 주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해야 합니까?"

9:8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9: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라도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거나 먼 길을 여행 중이라 해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9:11 그들은 둘째 달 열나흗날 저녁에 그것을 지켜야 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그것을 먹어야 한다.

9:12 그들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하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따라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9:13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고 여행 중도 아니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주님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9:14 만일 외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는 유월절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본토인에게나 너희에게는 하나의 규례만 있을 뿐이다.'"

9:15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저녁이 되자 그것은 아침까지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으로 머물렀다.

9:16 늘 그러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같은 모양이 있었다.

9:17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걷혀 올라갈 때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다.

9:18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진에 머물렀다.

9:19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9:20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만 머물렀는데, 그때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에 머물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다.

9:21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는데, 아침에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9:22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일 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머물고 길을 떠나지 않았으나,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9:23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10장

10: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2 "은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회중을 불러 모으고 진들을 출발시킬 때 써야 한다.

10:3 나팔 둘을 길게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있는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10:4 하나만 불 때에는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인대 우두머리들이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10:5 너희가 비상 신호로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진 친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10:6 너희가 두 번째로 비상 신호를 불 때에는, 남쪽에 진 친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비상 신호를 불어야 한다.

10:7 그러나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되, 비상 신호를 내며 불어서는 안 된다.

10:8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10:9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대적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는 나팔로 비상 신호를 울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10 또한 너희의 기쁨의 날과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너희는 번제물과 화목제 희생제물 위로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기억의 표가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0:11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언약의 성막 위에서 걷혀 올라갔다.

10:12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 행진하여 나아갔고, 구름은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10:13 그들은 모세를 통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10:14 먼저 유다 자손 진영의 깃발이 군대별로 앞장서 나아갔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

10:15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잇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16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17 성막이 걷히자, 성막을 멘 게르손의 아들들과 므라리의 아들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10:18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군대별로 앞으로 나아갔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

10:19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0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1 고핫 족속은 성소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 두었다.

10:22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깃발이 군대별로 앞으로 나아갔다.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3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4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5 모든 진영의 후방 경호대였던 단 자손 진영의 깃발이 군대별로 앞으로 나아갔다.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6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7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다.

10:28 이스라엘 자손이 군대별로 행진한 순서가 이러했고, 그들은 이렇게 나아갔다.

10:29 모세는 자신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0:30 호밥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고향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0:31 모세가 말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10:32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도 당신에게 그대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10:33 그들은 주님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나아갔다. 주님의 언약궤는 그들이 쉴 곳을 찾아 주려고 그들 앞서 사흘 길을 갔다.

10:34 그들이 진에서 길을 떠날 때,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10:35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달아나게 하십시오!"

10:36 궤가 쉴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수천수만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11장

11:1 백성이 주님의 귀에 대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가 불타올라, 주님의 불이 그들 사이에 타올라 진영 변두리를 살랐다.

11: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고 불길이 가라앉았다.

11:3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이다.

11:4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가 극심한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11:5 애굽에서는 거저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11:6 이제는 우리의 입맛이 떨어졌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11:7 만나는 고수 씨앗 같았고, 그 모양은 브델리엄 같았다.

11:8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신선한 기름 맛과 같았다.

11:9 밤에 진영 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함께 내렸다.

11:10 모세는 백성이 온 가족마다 각자 자기 장막 문턱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고, 모세의 마음도 몹시 언짢았다.

11:11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처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해,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11:12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배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기에, 주님께서는 제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에 안듯 그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까?

11: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제 앞에서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 달라'고 합니다.

11:14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11:15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실 바에는,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저를 죽여 주셔서, 제가 저의 이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장로이며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네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일흔 명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으로 데려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 있게 하여라.

11:17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네 위에 있는 성령을 얼마간 떼어 그들에게 둘 것이니, 그들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게 할 것이다.

11:18 또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귀에 대고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1:19 너희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 동안만 먹는 것이 아니라,

11:20 한 달 내내, 곧 너희 콧구멍에서 넘쳐 나와 역겨워질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너희가 저버리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어쩌자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11:21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걸어 다니는 사람만 육십만 명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22 그들을 위해 양 떼와 소 떼를 잡는다고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조리 긁어모은다고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11: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손이 짧아졌단 말이냐?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11:24 모세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일흔 명을 모아 장막 둘레에 둘러세웠다.

11:25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위에 있던 성령을 얼마간 떼어 일흔 명의 장로들에게 부어 주셨다.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무르시자 그들이 예언을 했으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1:26 그런데 두 사람이 진영 안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성령이 그들 위에도 머무르셨다. 그들은 명단에 적힌 자들이었으나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진영 안에서 예언했다.

11:27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1:28 모세의 수종자이며 그가 택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내 주 모세님, 그들을 말리십시오!"

11:29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주님의 온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11:30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11:31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진영 곁에 떨어지게 했는데, 진영 이쪽으로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만큼 사방으로 진영 둘레에 떨어뜨렸고, 땅 표면 위로 약 두 규빗 높이에 이르게 했다.

11:32 백성은 그날 온종일, 그리고 그 밤 내내, 이튿날 온종일 일어나 메추라기를 거두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십 호멜을 거두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리 펴 말렸다.

11:33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잇사이에 있어 다 씹히기도 전에, 주님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랐고,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11:34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탐욕을 품은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11:35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하여 하세롯에 머물렀다.

12장

12:1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맞이한 구스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 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12:2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12:3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여,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했다.

12:4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리하여 세 사람이 나왔다.

12:5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오자,

12: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 주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12:7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이다.

12:8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수수께끼로 하지 않으며, 그는 주님의 형상까지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12:9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셨다.

12: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자, 보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을 때, 보라, 그녀는 나병 환자였다.

12:11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죄를 지었으나, 부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12:12 간청하건대 그 누이를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 버린 죽은 아이처럼 되게 두지 마십시오."

12:13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고쳐 주십시오!"

12: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해도, 칠 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칠 일 동안 가두어 두고, 그 뒤에 다시 데려오게 하여라."

12:15 그리하여 미리암은 칠 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12:16 그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13: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2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그들 조상의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야 한다."

13:3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13:4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13: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13:6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13:7 잇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13:8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3: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13: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13:11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13:12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13:13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요,

13:14 납달리 지파에서는 웝시의 아들 나비요,

13:15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13:16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13: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쪽 길로 남쪽 지역을 거쳐 산지로 올라가거라.

13:18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보아라.

13:19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열린 진영인지 요새인지 살펴보아라.

13:20 또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열매를 얼마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을 무렵이었다.

13:21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호브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했다.

13:22 그들은 남쪽 지역을 거쳐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아낙의 자손인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칠 년 먼저 세워진 성읍이었다.)

13: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얼마간 가져왔다.

13: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잘라 냈기 때문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13:25 그들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13:26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나아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 주었다.

13:27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참으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 땅의 열매입니다.

13:28 하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큽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13:29 남쪽 땅에는 아말렉 사람이 살고, 산지에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으며, 해변과 요단강 가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3: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곳을 이길 수 있습니다!"

13: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13:32 그들은 자신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곳 주민을 집어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13:33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14장

14:1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백성은 그 밤에 소리 내어 울었다.

14: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4:3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사로잡히거나 죽임당하겠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14:4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14:5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온 모임 앞에서 엎드렸다.

14:6 그 땅을 탐지한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14:7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참으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14:8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4:9 오직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막은 그들에게서 벗겨졌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4:10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위협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14: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징을 보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4: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14:13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14:14 그들은 이 땅의 주민들에게 그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신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이신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나타나셨고,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4:15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이 백성을 단 한 사람 치듯 죽이신다면,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민족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4:16 '주님이 그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14:17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18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방면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삼사 대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4:19 주님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오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14: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한다.

14:21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한,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걸고 말하노니,

14:22 내 영광과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표징들을 보고도, 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14:23 결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었고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들일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14:25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거라."

14:26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4:27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불평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14:28 그들에게 일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너희가 내 귀에 대고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14:29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계수된 모든 사람, 곧 스무 살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모든 자는

14: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4:31 그러나 사로잡히거나 죽임당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다.

14:32 그러나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14:33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의 부정한 반역을 짊어질 것이다.

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인 사십 일에 따라,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14:35 나 주님이 말했다. 나를 거역하여 모여든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할 것이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14:36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곧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자들,

14:37 곧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14:38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아남았다.

14:39 모세가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했다.

14:40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14:41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 일은 결코 잘되지 못할 것이다.

14:42 올라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패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라.

14:43 거기서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으므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지 않을 것이다."

14:44 그러나 그들은 무모하게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14:45 그러자 아말렉 사람과 그 산지에 살던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

15장

15: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15:3 소 떼나 양 떼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려고, 번제물이나 서원을 갚는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정한 절기의 제물로 주님께 불로 바치는 화제를 드릴 때에는,

15:4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곡식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15:5 어린 양 한 마리마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과 함께 전제물로 바칠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해야 한다.

15:6 숫양 한 마리에는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곡식 제물로 준비하고,

15:7 전제물로는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15:8 서원을 갚거나 주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수소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준비할 때에는,

15:9 그 수소와 함께 기름 반 힌을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려야 한다.

15:10 또 전제물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 불로 바치는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15:11 수소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는, 마리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15:12 너희가 준비하는 짐승의 수에 따라, 마리마다 그 수에 맞추어 이와 같이 하여라.

15:13 본토인은 누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

15:14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15:15 회중에게는 너희나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에게나 한 규례가 있을 것이니,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 앞에서는 너희나 외국인이나 한결같을 것이다.

15:16 너희와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에게 하나의 법과 하나의 규례가 있을 것이다.'"

15: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에,

15:19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는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15:20 너희의 첫 반죽으로 과자 하나를 빚어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타작마당의 거제물처럼 너희는 그것을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15:21 너희는 대대로 첫 반죽 가운데서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15:22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15:23 곧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날부터 대대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15:24 만일 그것이 회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중에 저지른 일이라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규례에 따른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인 번제물로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15: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실수였으며, 그 실수를 위하여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과 주님 앞에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5:26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한 일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15:27 '만일 어떤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면, 그는 일 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15:28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부지중에 죄를 지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15:29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본토인이든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이든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15:30 '그러나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는 자니,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15:31 그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15: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줍는 것을 발견했다.

15:33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끌고 왔다.

15:34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15:3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15:36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15:3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 대대로 그들의 겉옷 자락에 술을 달고, 각 옷자락의 술에 청색 끈을 달게 하여라.

15:39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를 음란하게 만들던 너희 마음과 너희 눈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5:4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15:41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16장

16:1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았다.

16:2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총회에 속하여 부름을 받은 유명한 지도자들인 회중의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16: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모여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 위에 군림하려 하오?"

16:4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6:5 모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누가 그분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보여 주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16:6 이렇게 하십시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오십시오.

16:7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지나칩니다!"

16:8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16:9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입니까?

16:10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려 합니까?

16:11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무리가 모여 주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그를 원망합니까?"

16: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16:13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위에 군림하여 지배자 노릇까지 하려 하오?

16:14 더구나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았고, 밭과 포도원도 유산으로 주지 않았소.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작정이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16:15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들의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16:16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시오.

16:17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각자 향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오. 향로는 모두 이백오십 개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시오."

16:18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피운 뒤,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문에 섰다.

16:19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으로 모아 그들에 맞서게 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16:20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6:21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16:22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16: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24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위에서 물러나라!'"

16: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다.

16:26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제발 떠나십시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16:27 회중은 사방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곁을 떠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들과 아들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자기 장막 문에 섰다.

16:28 모세가 말했다. "이 일로써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16:29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겪는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을 겪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16:30 그러나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31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이 갈라졌다.

16:32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삼켰다.

16:33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은 총회 가운데서 멸망했다.

16:34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땅이 우리마저 삼킬까 두렵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16:35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이백오십 명을 삼켜 버렸다.

16:3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37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라.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어 불은 멀리 흩어 버리라고 하여라.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16:38 자기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는 판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쳤으므로 거룩하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16:39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 죽은 사람들이 바쳤던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는 판으로 만들었다.

16:40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하게 하는 표가 되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고라와 그 무리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다.

16:41 그러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16: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맞설 때, 그들이 회막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16: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왔다.

16:4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6: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6:46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진노가 쏟아져 나와 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16:47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하여 총회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이미 백성 가운데 염병이 시작되어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16:48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자, 염병이 그쳤다.

16:49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들 외에 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사천칠백 명이었다.

16:50 아론이 회막 문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고, 염병은 완전히 그쳤다.

17장

17: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조상의 가문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열두 개를 취하고, 각 사람의 지팡이에 그의 이름을 써라.

17: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7:4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두어라.

17:5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거슬러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겠다."

17: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그들의 모든 지휘관이 조상의 가문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에게 건네주어 지팡이가 모두 열두 개였으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사이에 있었다.

17:7 모세는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두었다.

17: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익은 아몬드가 열려 있었다.

17:9 모세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지팡이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17: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다 두어, 반역하는 자손에게 표징이 되도록 간직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를 거슬러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17:11 모세는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17: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17:13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18장

18:1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버지의 집안은 성소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 또 너와 네 곁의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

18:2 너는 네 형제들 곧 네 아버지의 지파인 레위 지파도 데려와서 너와 연합하여 너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네 곁의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서야 한다.

18:3 그들은 네 지시를 따르고 장막 전체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그들이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죽고 너희도 죽을 것이다.

18:4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회막의 책임을 맡아 장막의 모든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

18:5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라.

18:6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친히 택했다. 그들은 주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회막의 봉사를 하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18:7 너와 네 곁의 네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일과 휘장 안의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가까이 나아오는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18:8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거룩한 제물을 네가 맡도록 했다. 내가 기름부음을 받은 까닭에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18:9 불로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제물, 즉 그들의 모든 곡식 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너와 네 아들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18:10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먹어야 한다.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18:11 이것도 너의 것이니, 곧 그들의 예물 가운데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물이다.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네 집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8:12 기름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포도주와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곧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18:13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익은 첫 열매로서 그들이 주님께 가져오는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집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8:14 이스라엘 안에서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18:15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반드시 대속해야 하며, 부정한 짐승의 첫새끼도 대속해야 한다.

18:16 그들 가운데 대속할 자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때부터 네가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은 다섯 세겔을 받고 대속하여라. 일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18:17 그러나 소의 첫새끼나 양의 첫새끼나 염소의 첫새끼는 대속하지 마라. 그것들은 거룩하다. 너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바치는 제물로 불태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18:18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그 고기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맺어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18:20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몫이며 너의 유산이다.

18:21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봉사, 곧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다.

18:22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18:23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신들의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얻지 못할 것이다.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18: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26 "너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때에, 너희는 그 십일조 가운데 십분의 일을 주님께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18:27 너희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주 틀의 가득 찬 즙처럼 너희의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18:28 이와 같이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십일조 가운데서 주님께 들어 올려 제물을 바쳐야 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 바치는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18:29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분, 곧 거룩한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들어 올려 제물로 바쳐야 한다.'

18:30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처럼 인정받을 것이다.

18:31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나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은 회막에서 봉사한 데 대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18:32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고 나면, 그 일로 인해 아무런 죄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제물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죽지 않을 것이다.'"

19장

19: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9:2 "주님이 명령한 율법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아직 멍에를 멘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네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19: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자기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19:4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쪽을 향해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9:5 그리고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태우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태워야 한다.

19:6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한가운데로 던져야 한다.

19:7 그 뒤에 제사장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녁때까지는 부정하다.

19:8 암송아지를 불태운 사람도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19:9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해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19:10 암송아지의 재를 모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머무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19:11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19: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로 정결하게 해야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도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다.

19: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을 씻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여전히 부정하며, 그의 부정함이 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19: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법은 이러하다.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레 동안 부정하다.

19:15 뚜껑을 덮어 묶지 않고 열어 둔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

19:16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이레 동안 부정하다.

19:17 부정해진 사람을 위하여 속죄를 위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흐르는 물을 부어야 한다.

19:18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적셔,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뼈나 칼에 맞아 죽은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19:19 그 정결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해야 하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저녁때에 깨끗해질 것이다.

19:20 그러나 부정해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총회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부정을 씻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정하다.

19:21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며, 부정을 씻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19:22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해지며,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20장

20: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묻혔다.

20:2 회중에게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모여들었다.

20:3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20:4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여기서 죽게 하오?

20:5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으며, 마실 물도 없소!"

20:6 모세와 아론은 총회 앞을 떠나 회막 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20: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8 "지팡이를 잡고, 너와 네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에게 마시게 하여라."

20:9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20:10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총회를 모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반역자 여러분, 이제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소?"

20:11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솟구쳐 나왔다.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20:12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할 것이다."

20:13 이것이 므리바 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20: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며 말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20:15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우리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20:16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국경 변두리에 있는 도시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20:17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대로를 따라 지나갈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20:18 에돔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너는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지나가려 하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치러 나갈 것이다."

20:19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에게 말했다. "우리는 대로로만 올라가겠습니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20:20 에돔이 대답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에돔은 많은 백성과 강한 무력을 이끌고 그들에게 맞서 나왔다.

20:21 이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으므로,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돌아섰다.

20:22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20:23 주님께서 에돔 땅 국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0:24 "아론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으므로,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25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20:26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20:27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20: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20:29 온 회중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집이 삼십 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애곡했다.

21장

21:1 남쪽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21:2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원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21:3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21:4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출발했다.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오?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을 지긋지긋해하오!"

21:6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고, 뱀들이 사람들을 물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21:7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거슬러 말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21: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21:9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21:10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21:11 그들은 오봇을 떠나 해 돋는 쪽, 곧 모압 맞은편 광야에 있는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다.

21:12 그곳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21:13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국경에서 뻗어 나온 광야에 있었으니,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 사이의 모압 국경이기 때문이다.

21:14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수바의 와헵과 아르논 골짜기들과,

21:15 아르의 거주지를 향해 기울어지고 모압의 국경에 맞닿은 골짜기들의 비탈길."

21:16 그곳을 떠나 그들은 브엘에 이르렀다. 그곳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우물이다.

21:17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 우물을 노래하여라,

21:18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족들이 지휘봉과 자기 지팡이로 파낸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21: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으며,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21:20 바못에서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황무지를 내려다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닿았다.

21: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했다.

21:22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21:23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혼은 자기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에 맞서 광야로 나와 야핫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21: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쳐부수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했다. 암몬 자손의 국경은 견고했기 때문이다.

21:25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 곧 헤스본과 그에 딸린 모든 마을에 거주했다.

21:26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성이었다. 그가 이전의 모압 왕과 싸워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던 것이다.

21:27 그러므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혼의 성읍을 세우고 굳건히 하라.

21: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의 군주들을 집어삼켰다.

21:29 모압아, 네게 화가 있다!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모스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자로 내주고 자기 딸들을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포로로 넘겨주었다.

21:30 우리가 그들에게 활을 쏘았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였고,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황폐하게 하였다."

21:31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았다.

21:32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들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21:33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자기 온 백성을 이끌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 했다.

21: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에게 행하여라."

21:35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때까지 쳐부수고, 그의 땅을 차지했다.

22장

22:1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22:2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22:3 모압은 그 백성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큰 불안에 사로잡혔다.

22:4 모압은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 무렵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22:5 그는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려고, 큰 강가 그의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에 있는 브돌로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다. "보시오, 애굽에서 한 백성이 나왔습니다. 보시오, 그들이 온 땅을 뒤덮고 내 맞은편에 머물고 있습니다.

22:6 그러니 이제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7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손에 들고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22:8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22:9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22:10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어쩌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22:12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22: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2:14 모압의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22:15 발락은 그들보다 더 많고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냈다.

22:16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그대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22:17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할 것이며,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 찬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어겨 작거나 큰 일 어느 것 하나도 넘어서서 행할 수 없습니다.

22:19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더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22:20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행해야 한다."

22: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22:22 발람이 가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고, 주님의 천사가 그를 가로막는 대적으로 길에 섰다. 그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있었고, 두 하인이 그와 함께 있었다.

22:23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다시 길로 돌려세우려고 때렸다.

22:24 그러자 주님의 천사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는데,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22:25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몸을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렀다. 발람이 나귀를 다시 때렸다.

22:26 주님의 천사는 더 앞으로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22:27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버렸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2:28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주인님께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22: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놀림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22: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날까지 평생 동안 당신이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다. "없었다."

22:31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머리를 숙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2:3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왜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서 그릇되었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대적으로 나왔다.

22:33 나귀가 나를 보고 내 앞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피했다.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해 돌아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틀림없이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 두었을 것이다."

22:34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려고 길에 서 계신 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이 당신 보시기에 악하다면, 제가 되돌아가겠습니다."

22:35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22:36 발락은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국경의 맨 끝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 성읍으로 그를 맞으러 나갔다.

22:3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간절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22:38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내게 무엇이든 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할 것입니다."

22:39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가서 기랏후솟에 이르렀다.

22:40 발락은 소와 양을 제물로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2:41 아침이 되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23장

23:1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23:2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23:3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내가 저리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23:4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일곱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마다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23:5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23:6 발람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은 모압의 모든 고관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23:7 발람이 시를 지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다.

23:8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는가?

23:9 바위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보며, 언덕 위에서 그를 바라본다. 보라,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백성이니,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23:10 누가 야곱의 먼지 같은 무리를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이라도 셀 수 있겠는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23: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대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내 원수를 저주해 달라고 데려왔거늘, 보십시오, 그대가 도리어 넘치도록 축복했습니다."

23:12 발람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시는 것을 내가 명심하여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3:13 발락이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백성의 일부만 보이고 다 보이지는 않을 터이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23:14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산꼭대기의 소빔 들로 데리고 가서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23: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왕은 여기에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23:16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23:17 발람이 그에게 가보니, 발락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3:18 발람이 시를 지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어찌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시겠으며,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23:20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23:21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재앙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23:22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다. 그들은 들소의 힘과 같은 힘을 지녔다.

23:23 참으로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다.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이리 큰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23:24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 먹이를 먹고 쓰러진 자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23:25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을 전혀 저주하지도 말고, 조금도 축복하지도 마십시오."

23:26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내가 왕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3:2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자, 내가 그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23:28 발락은 발람을 광야를 내려다보는 브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23: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23:30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여, 제단마다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24장

24:1 발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전처럼 점술을 쓰러 가지 않고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24:2 발람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24:3 그가 시를 지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요, 눈을 뜬 자의 말이며,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밝히 열린 자의 말이다.

24:5 야곱이여,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24:6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24:7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흐를 것이다. 그의 씨는 많은 물속에 있을 것이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높아질 것이다.

24:8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다. 그는 들소의 힘과 같은 힘을 지녔다. 그는 자기 원수인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뼈를 바수며, 자기 화살로 꿰뚫을 것이다.

24:9 그는 웅크리고 누웠으니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아, 누가 감히 그를 깨우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10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화가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내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십시오, 그대가 이렇게 세 번이나 그들을 온전히 축복했습니다!

24:11 그러니 이제 그대는 그대의 자리로 달아나십시오!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대우하려 했으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대가 존귀를 얻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24: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보내신 전령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4:13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 찬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뜻대로 선이든 악이든 행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24:14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십시오, 앞으로 올 날들에 이 백성이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왕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4:15 발람이 시를 지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요, 눈을 뜬 자의 말이며,

24: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렸으나 눈이 밝히 열린 자의 말이다.

24:17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까운 곳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요, 한 지휘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의 이마를 쳐서 부수고,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24:18 에돔은 점령지가 될 것이며, 그의 원수인 세일 역시 점령지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은 용맹을 떨칠 것이다.

24:19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그 성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24:20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며 시를 지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24:21 그가 겐 사람을 바라보며 시를 지어 읊었다. "네 거처는 견고하며,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놓여 있구나.

24:22 그러나 앗수르가 너를 포로로 끌고 갈 때까지, 가인은 황폐해질 것이다."

24:23 그가 다시 시를 지어 읊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24:24 그러나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괴롭히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 역시 멸망에 이를 것이다."

24:25 발람은 일어나 길을 떠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25장

25: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은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25:2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백성을 초대하자, 백성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25:3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했고,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다.

25: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 대낮에 주님 앞 해 아래서 목매달아 처형하라. 그래야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25: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관할에 속한 사람 가운데 바알브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십시오."

25:6 보라,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앞에서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한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25:8 그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한꺼번에 꿰뚫어 찔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전염병이 그쳤다.

25:9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만 사천 명이었다.

25: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11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열정으로 열정을 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 진노를 돌이켰다. 그리하여 내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없애 버리지 않게 되었다.

25:12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25:13 이 언약은 그와 그 뒤를 이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 것이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25:14 살해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 사람들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25:15 살해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는데, 미디안의 한 가문의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수르의 딸이었다.

25: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17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쳐라.

25:18 그들이 교활한 계략으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니,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도자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다. 고스비는 브올의 일로 전염병이 돌던 날에 살해당한 여인이다."

26장

26:1 전염병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6: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스무 살 이상으로,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라.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라."

26: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했다.

26:4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무 살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26:5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녹에게서 하녹 가족이 나왔고, 발루에게서 발루 가족이 나왔으며,

26:6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가족이 나왔고, 갈미에게서 갈미 가족이 나왔다.

26:7 이들이 르우벤 사람들의 가족들이며, 그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었다.

26:8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26:9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지도자였으나, 고라의 무리에 가담하여 주님께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이었다.

26:10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가 죽을 때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켰고, 불이 이백오십 명을 삼켜 그들이 하나의 경고의 표징이 되었다.

26:11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26:12 가족별로 본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가족이 나왔고, 야민에게서 야민 가족이 나왔으며, 야긴에게서 야긴 가족이 나왔고,

26:13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나왔으며,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나왔다.

26:14 이들이 시므온 사람들의 가족들이며,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다.

26:15 가족별로 본 갓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나왔고,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나왔으며, 수니에게서 수니 가족이 나왔고,

26:16 오스니에게서 오스니 가족이 나왔으며,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나왔고,

26:17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나왔으며,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나왔다.

26:18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갓 자손의 가족들이며, 사만 오백 명이었다.

26:19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26:20 가족별로 본 유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나왔고,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나왔으며,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나왔다.

26:21 베레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가족이 나왔고, 하물에게서 하물 가족이 나왔다.

26:22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유다의 가족들이며, 칠만 육천오백 명이었다.

26:23 가족별로 본 잇사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나왔고, 부와에게서 부니 가족이 나왔으며,

26:24 야숩에게서 야숩 가족이 나왔고,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나왔다.

26:25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잇사갈의 가족들이며, 육만 사천삼백 명이었다.

26:26 가족별로 본 스불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나왔고, 엘론에게서 엘론 가족이 나왔으며, 얄르엘에게서 얄르엘 가족이 나왔다.

26:27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스불론 사람들의 가족들이며, 육만 오백 명이었다.

26:28 가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26:29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이 나왔고,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으며,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이 나왔다.

26:30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이에셀 가족이 나왔고, 헬렉에게서 헬렉 가족이 나왔으며,

26:31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가족이 나왔고, 세겜에게서 세겜 가족이 나왔으며,

26:32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가족이 나왔고,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나왔다.

26:33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는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26:34 이들이 므낫세의 가족들이며, 그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은 오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26:35 가족별로 본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나왔고,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나왔으며, 다한에게서 다한 가족이 나왔다.

26:36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에란 가족이 나왔다.

26:37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들이며, 삼만 이천오백 명이었다. 이들이 가족별로 본 요셉의 자손이다.

26:38 가족별로 본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나왔고,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나왔으며,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가족이 나왔고,

26:39 스부밤에게서 수밤 가족이 나왔으며,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나왔다.

26:40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이 나왔고,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나왔다.

26:41 이들이 가족별로 본 베냐민의 자손이며, 그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은 사만 오천육백 명이었다.

26:42 가족별로 본 단의 아들은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가족별로 본 단의 가족들이다.

26:43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수함 가족의 모든 가족은 육만 사천사백 명이었다.

26:44 가족별로 본 아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나왔고,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가족이 나왔으며,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가족이 나왔다.

26:45 브리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나왔고,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나왔다.

26:46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였다.

26:47 이들이 계수된 사람 수에 따른 아셀 자손의 가족들이며,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다.

26:48 가족별로 본 납달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야셀 가족이 나왔고, 구니에게서 구니 가족이 나왔으며,

26:49 예셀에게서 예셀 가족이 나왔고, 실렘에게서 실렘 가족이 나왔다.

26:50 이들이 가족별로 본 납달리의 가족들이며, 그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은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다.

26:51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수된 사람들은 육십만 일천칠백삼십 명이었다.

26:5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53 "이들에게 명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유산으로 삼게 하라.

26:54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유산을 더 적게 주되, 각 지파는 계수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아야 한다.

26:55 그러나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그들은 조상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26:56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의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26:57 가족별로 본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계수된 자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가족이 나왔고, 고핫에게서 고핫 가족이 나왔으며, 므라리에게서 므라리 가족이 나왔다.

26:58 레위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마흘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26:59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애굽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레위의 딸이었다. 그 여인이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다.

26:60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26:61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 앞에 다른 불을 바치다가 죽었다.

26:62 그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로, 이만 삼천 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26:63 이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셀 때 계수한 사람들이다.

26:64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포함되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26:65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27장

27:1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27:2 그들은 만남의 장막 문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27:3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처럼 주님을 거슬러 모여 작당한 무리 가운데 들지 않으셨고, 오직 자기 죄로 돌아가셨으며, 아들이 없으셨습니다.

27:4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가문 가운데서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27:5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 앞에 가져갔다.

27: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7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 아버지의 유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해야 한다.

27: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산을 그의 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7:9 만일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27:10 만일 그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27:11 만일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으면, 그의 가문 가운데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 차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와 법도가 될 것이다.'"

27: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27:13 네가 그 땅을 본 뒤에는, 네 형 아론이 조상에게 돌아간 것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7:14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툴 때, 너희가 물가에서 그들의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다.)

27:15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27:16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27:17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어 내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7:1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27: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직무를 맡겨라.

27:20 너는 네 권위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7: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주님 앞에서 우림의 판결로 뜻을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그들이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그들이 들어올 것이니, 그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렇게 할 것이다."

27:22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27:23 모세는 그에게 안수하고 직무를 맡겼으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다.

28장

28: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8: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향기인 내 제물, 곧 화제로 바치는 내 음식을 정해진 제때에 내게 바치도록 주의하라.'

28:3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주님께 바쳐야 할 화제는 이러하다.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상번제로 바쳐라.

28:4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무렵에 바쳐야 한다.

28:5 곡식 제물로는 빻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함께 바쳐야 한다.

28:6 이것은 시내산에서 제정된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인 상번제이다.

28:7 그에 딸린 전제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사분의 일 힌을 바쳐야 하니, 거룩한 곳에서 주님께 독주를 전제로 부어 드려야 한다.

28:8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무렵에 바치되, 아침의 곡식 제물과 그 전제와 마찬가지로 바쳐야 하니,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28:9 '안식일에는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고, 그 전제를 함께 바쳐라.

28:10 이것이 매 안식일의 번제이니,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28:11 '매달 초하루에는 주님께 번제를 바쳐야 하니, 어린 수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28:12 수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며,

28:13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하니,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인 번제이다.

28:14 그에 딸린 전제로는 수소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 숫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 힌,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일 년 동안 매달 바쳐야 할 월삭의 번제이다.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주님께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28:16 '첫째 달 열나흗날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28:17 이 달 열닷샛날부터는 명절이 시작되니,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28:18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생업의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8:19 너희는 화제로 주님께 번제를 바쳐야 하니, 어린 수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28:20 그에 딸린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을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바쳐라.

28:21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

28:22 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28:23 너희는 상번제물인 아침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28:24 너희는 이와 같이 이레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인 화제 음식을 바쳐야 하니,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28:25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생업의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8:26 '또한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곧 너희 칠칠절에 주님께 새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생업의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8:27 너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번제를 바쳐야 하니, 어린 수소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28:28 그에 딸린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을 바치고,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바치며,

28:29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바쳐라.

28:30 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28:31 너희는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외에 이것들과 그에 딸린 전제를 바쳐야 하며, 이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29장

29:1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생업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29:2 너희는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치는 번제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29:3 곡식 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바치고,

29:4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각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

29:5 또 너희를 위해 속죄할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29:6 이것은 규례에 따라 주님께 불로 사르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초하루 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7 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마라.

29:8 너희는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바치되,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29:9 곡식 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을,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바치고,

29:10 어린 숫양 일곱 마리에는 각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바쳐라.

29:11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속죄제 제물과 상번제, 그리고 그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12 일곱째 달 열닷샛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생업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29:13 너희는 주님께 불로 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번제로 흠 없는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14 곡식 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 마리마다 십분의 삼을, 숫양 두 마리에는 각 마리마다 십분의 이를 바치고,

29:1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에는 각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바쳐라.

29:16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17 둘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18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19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20 셋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21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22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23 넷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24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25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26 다섯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27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28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29 여섯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30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31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32 일곱째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라.

29:33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34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35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집회를 열고, 어떤 생업도 하지 마라.

29:36 너희는 주님께 불로 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번제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29:37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규례에 따라 그 수효대로 바쳐야 한다.

29:38 또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것은 상번제와 그 곡식 제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39 너희는 정해진 절기에 이것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외에 번제물, 곡식 제물, 부어 드리는 제물, 화목 제물로 따로 드리는 것이다.

29:40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30장

30: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30:2 어떤 사람이 주님께 서원하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얽어매는 서약을 했다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되며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30:3 또한 여자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님께 서원하거나 스스로를 서약으로 얽어매었을 경우,

30:4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자신을 얽어맨 서약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효력을 가지며 자신을 얽어맨 모든 서약도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30:5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날에 딸을 가로막는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자신을 얽어맨 서약은 어느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로막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30:6 만일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신을 얽어매는 경솔한 말을 입술로 내뱉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30:7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들은 날에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서원은 효력을 가지며 자신을 얽어맨 서약도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30:8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들은 날에 아내를 가로막는다면, 남편은 아내가 짊어진 서원과 자신을 얽어맨 경솔한 입술의 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30:9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녀가 자신을 얽어맨 모든 것에 대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30:10 만일 여자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거나 맹세로 자신을 얽어매는 서약을 했을 때,

30:11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침묵하며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효력을 가지며 자신을 얽어맨 모든 서약도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30:12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들은 날에 그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었다면, 서원이든 스스로를 얽어맨 서약이든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유효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만들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30:13 어떤 서원이든, 스스로를 낮추려고 한 어떤 구속력 있는 맹세든, 남편은 그것을 확정할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30:14 그러나 남편이 날마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서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들은 날에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은 그것들을 확정한 것입니다.

30:15 그러나 남편이 듣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들을 무효로 만든다면, 남편은 아내의 죄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30:16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로,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아직 젊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관한 것이다.

31장

3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2 "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뒤에 너는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1: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그들이 미디안을 치러 가서 주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게 하여라.

31:4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지파마다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

31:5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천 명 단위 군대 중에서 지파마다 천 명씩 선발되어, 모두 만 이천 명이 전쟁을 위해 무장했다.

31:6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전쟁에 보냈다.

31:7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 모든 남자를 죽였다.

31:8 그들은 쓰러뜨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는데,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 곧 미디안의 다섯 왕이었다. 그들은 또 브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31:9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여인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모든 가축과 모든 양 떼와 모든 재물을 노략물로 삼았다.

31:10 또 그들이 살던 모든 성읍과 모든 진영을 불태웠다.

31:11 그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략물과 모든 전리품을 거두었다.

31:12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과 노략물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있는 곳, 곧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진영으로 왔다.

31: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31:14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31:15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모든 여자를 살려 두었단 말인가?

31:16 보아라, 바로 이 여인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브올 사건 때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염병이 돌지 않았는가!

31:17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적이 있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31:18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은 모두 너희를 위해 살려 두어라.

31:19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에 닿은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너희 포로 모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정결하게 하여라.

31:20 너희는 모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 털로 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31: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례입니다.

31:22 금, 은, 놋, 쇠, 주석, 납처럼

31:23 불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해야 정결해집니다. 그래도 부정함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31:24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야 깨끗해질 것이며, 그런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31: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1:26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각 가문 우두머리들은 사로잡아 온 사람들과 가축 등 노략물을 모두 조사하여라.

31:27 그리고 그 노략물을 둘로 나누어,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들과 온 회중에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

31:28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 가운데 오백 분의 일을 주님께 바칠 세금으로 떼어 내어라.

31:29 그들의 절반에서 그것을 거두어, 주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31:30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 등 모든 가축 중에서 오십 분의 일을 떼어, 주님의 성막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31: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31:32 군인들이 약탈한 것 외에 남은 전리품은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

31:33 소가 칠만 이천 마리,

31:34 나귀가 육만 천 마리였으며,

31:35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여자아이는 모두 삼만 이천 명이었다.

31:36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몫인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였는데,

31:37 그 양 가운데 주님께 세금으로 바친 것은 육백칠십오 마리였다.

31:38 소는 삼만 육천 마리였고, 그 가운데 주님께 세금으로 바친 것은 칠십이 마리였다.

31:39 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였고, 그 가운데 주님께 세금으로 바친 것은 육십일 마리였다.

31:40 사람은 만 육천 명이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 세금으로 바친 사람은 서른두 명이었다.

31:41 모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 흔들어 바치는 몫인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건네주었다.

31:42 모세가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은 이러했다.

31:43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

31:44 소가 삼만 육천 마리,

31:45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

31:46 사람이 만 육천 명이었다.)

31:47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오십 분의 일을 떼어, 주님의 성막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31:48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왔다.

31:49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어르신의 종들이 지휘 아래 있던 군인들의 수를 세어 보았는데,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31:50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서 저희 목숨을 위해 속죄하려고, 각자 얻은 금 패물, 곧 발목고리, 팔찌,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를 주님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31:5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세공된 온갖 장신구인 금을 받았다.

31:52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흔들어 바친 예물의 금은 모두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었다.

31:53 군인들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노략물을 챙겨 두었다.

31:54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3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 떼가 매우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 과연 가축을 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32:2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32:3 "아다롯, 디본, 야셀, 님라, 헤스본, 엘르알레, 세밤, 느보, 브온 땅은,

32:4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부수신 이 땅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며, 어르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32:5 그들이 또 말했다. "저희가 어르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어르신의 종들에게 소유지로 주시고, 저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32: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겠다는 말이냐?

32:7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려 하느냐?

32:8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너희 조상들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32: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담시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32:10 그날에 주님의 진노가 타올라 맹세하시기를,

32:11 '애굽에서 올라온 스무 살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2:12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볼 것이니,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셨다.

32:13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32:14 그런데 보아라, 너희가 죄 많은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의 뒤를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구나.

32:15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며, 결국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32:16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한 양 우리를 짓고, 어린것들을 위한 성읍들을 세우겠습니다.

32:17 그러나 저희 자신은 무장을 갖추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어린것들은 이 땅 주민들의 위협을 피해 요새 성읍에 머물 것입니다.

32:18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기업을 차지하기까지는,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32:19 저희는 요단강 건너 서쪽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요단강 이편 동쪽에서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32:20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만일 이 말대로 하여 무장을 갖추고 주님 앞에서 싸우러 나간다면,

32:21 너희 무장한 사람이 모두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분 앞에서 다 쫓아내실 때까지 싸우고,

32:22 그 땅이 주님 앞에서 굴복할 때까지 함께한다면, 그 뒤에 너희가 돌아와도 주님과 이스라엘 앞에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32:23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보아라, 너희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아라.

32:24 너희 어린것들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양 떼를 위해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약속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여라."

32: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종들이 행하겠습니다.

32:26 저희 어린것들과 아내들과 양 떼와 모든 가축은 길르앗의 성읍들에 머물러 두고,

32:27 어르신의 종들은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한 모든 자가 주님 앞에서 싸우러 건너가겠습니다."

32:28 그리하여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그들에 관해 명령했다.

32:29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가운데 무장한 모든 사람이 너희와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이 너희 앞에 굴복하게 되거든, 너희는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어라.

32:30 그러나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소유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32: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어르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32:32 저희가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되, 저희 기업의 소유지는 요단강 건너 이편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32:33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었다. 곧 그 땅과 그 경계에 속한 성읍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32:34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32:35 아다롯쇼반, 야셀, 욕브하,

32:36 벧님라, 벧하란을 건축하여 요새 성읍들을 세우고 양 우리도 지었다.

32:37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32:38 그리고 이름을 바꾼 느보와 바알므온, 또 시브마를 건축하고, 자신들이 지은 성읍들에 다른 이름들을 붙였다.

32: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32:40 모세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는 거기서 살았다.

32:41 므낫세의 자손 야일은 가서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을 하봇야일이라고 불렀다.

32:42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33장

33:1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군대를 이루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은 이러하다.

33:2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출발한 출발지들을 기록했다. 그들의 출발지에 따른 여정은 이러하다.

33:3 그들은 첫째 달 열닷샛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해 나갔다.

33:4 그때 애굽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모든 맏아들을 묻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

33:5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쳤다.

33:6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33:7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33:8 그들은 하히롯 앞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에담 광야를 사흘 길 동안 걸어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33:9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샘 열두 곳과 야자나무 일흔 그루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다.

33:10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곁에 진을 쳤다.

33:11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쳤다.

33:12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다.

33:13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33:14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33:15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33:16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다.

33:17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다.

33:18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릿마에 진을 쳤다.

33:19 그들은 릿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쳤다.

33:20 그들은 림몬베레스를 떠나 립나에 진을 쳤다.

33:21 그들은 립나를 떠나 릿사에 진을 쳤다.

33:22 그들은 릿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33:23 그들은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다.

33:24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33:25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쳤다.

33:26 그들은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다.

33:27 그들은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다.

33:28 그들은 데라를 떠나 밋가에 진을 쳤다.

33:29 그들은 밋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33:30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다.

33:31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다.

33:32 그들은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쳤다.

33:33 그들은 홀하깃갓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쳤다.

33:34 그들은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33:35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33:36 그들은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33:37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국경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33:38 제사장 아론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마흔째 해 다섯째 달 초하루였다.

33:39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 나이는 백스물세 살이었다.

33:40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33:41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33:42 그들은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다.

33:43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33:44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국경에 있는 이예아바림에 진을 쳤다.

33:45 그들은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다.

33:46 그들은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33:47 그들은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맥에 진을 쳤다.

33:48 그들은 아바림 산맥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33:49 그들은 요단강가를 따라 진을 쳤는데, 모압 평야의 벧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싯딤에 이르렀다.

33:50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3:5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33:52 너희 앞에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돌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산당을 모조리 헐어 버려라.

33:53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33:54 너희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져라. 수가 많은 무리에게는 더 큰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무리에게는 더 작은 기업을 주어야 한다. 각 사람의 몫은 제비 뽑힌 그 자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조상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상속받아야 한다.

33:55 그러나 너희가 그 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 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33:56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34장

34: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에게 기업으로 돌아갈 땅 곧 사방 경계에 따른 가나안 땅은 이러하다.

34:3 너희의 남쪽 구역은 에돔 곁에 있는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의 끝에서 시작하여,

34:4 아그랍빔 언덕 남쪽으로 돌아서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거기서 하살앗달로 나아가 아스몬을 지난다.

34:5 그리고 경계는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거쳐 바다에 이른다.

34:6 서쪽 경계로는 대해와 그 해안이 너희 경계가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34:7 너희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34:8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선을 긋고, 그 경계는 스닷을 지나야 한다.

34:9 이어 경계는 시브론으로 뻗어 나가 하살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34:10 너희는 동쪽 경계로 하살에난에서 스밤까지 선을 그어라.

34:11 그 경계는 스밤에서 아인 동쪽에 있는 립라로 내려가고, 다시 더 내려가 긴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이른다.

34:12 그리고 경계는 요단강으로 내려가 염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사방 경계로 둘러싸인 너희의 땅이다.'"

34: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차지할 땅이며, 주님께서 아홉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34:14 르우벤 자손 지파는 그 가문별로, 갓 자손 지파도 그 가문별로 이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자기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34:15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 곧 해 뜨는 쪽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다."

34: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17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34:18 또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야 한다.

34:19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34:20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34:21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34:22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34:23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34: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34:25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34:26 잇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앗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34:27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34:28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도자인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다."

34:29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다.

35장

35:1 주님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강 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5: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상속받을 기업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여라. 또 그 성읍들 주변의 목초지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35:3 그들은 성읍에서 살 것이며,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될 것이다.

35:4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천 규빗이어야 한다.

35:5 너희는 성 밖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재어라. 성읍은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가 될 것이다.

35:6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여섯 곳과, 그 외에 너희가 줄 마흔두 성읍이다.

35:7 너희가 목초지와 함께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성읍은 총 마흔여덟 성읍이다.

35: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성읍들을 떼어 줄 때에는, 수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떼어 내고 수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야 한다. 각 지파는 저마다 상속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자기 성읍들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35: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5: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35:11 너희를 위해 몇몇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여라.

35:12 그 성읍들은 복수하는 사람을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니,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35:13 너희가 줄 성읍 가운데 여섯 곳이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35:14 세 성읍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서 주어야 한다. 이 성읍들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거류민과 외국인에게도 피난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 누구나 그곳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5:16 만일 어떤 사람이 쇠 연장으로 다른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5:17 만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돌을 손에 쥐고 쳐서 그를 죽게 했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5:18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쥐고 쳐서 그를 죽게 했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5:19 피를 갚는 복수자가 직접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를 만나면 그를 죽여야 한다.

35:20 만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밀치거나, 숨어서 엿보다가 무엇을 던져 상대를 죽게 하거나,

35:21 적대감을 품고 손으로 쳐서 상대를 죽게 했다면, 상대를 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이다. 피를 갚는 복수자는 그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35:22 그러나 적대감 없이 뜻밖에 밀쳤거나, 숨어서 엿보는 일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35:23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돌을 상대를 보지 못한 채 떨어뜨려 죽게 했는데, 그가 상대의 원수도 아니었고 상대를 해칠 뜻도 없었다면,

35:24 회중은 이 규례에 따라 친 사람과 피를 갚는 복수자 사이에서 판결해야 한다.

35:25 회중은 그 살인자를 피를 갚는 복수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35:26 그러나 살인자가 자기가 피한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어느 때든 나갔는데,

35:27 피를 갚는 복수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그를 찾아내어 죽이더라도, 복수자에게는 피흘린 죄가 없다.

35:28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35:29 이러한 규정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킬 법령과 규례가 될 것이다.

35: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경우,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구도 사형에 처할 수 없다.

35:31 너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살인자의 목숨값으로 어떠한 몸값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35:32 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서도 몸값을 받고 그가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35:33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며, 땅 위에 흘려진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써가 아니면 속죄받을 수 없다.

35:34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36장

36:1 요셉 자손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36:2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내 주는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으셨습니다.

36:3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의 상속 재산은 우리 조상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상속 재산에 합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비 뽑아 받은 상속 몫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36: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와도 그들의 상속 재산은 그들이 속하게 된 지파의 상속 재산에 그대로 더해질 것이니, 결국 그들의 상속 재산은 우리 조상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36:5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36:6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이러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되,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문 안으로만 시집가야 한다.

36:7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마다 자기 조상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켜야 한다.

36: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 상속 재산을 얻은 딸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조상의 상속 재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36:9 그리하여 상속 재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저마다 자기 상속 재산을 지켜야 한다.'"

36:10 슬로브핫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36:11 슬로브핫의 딸들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사촌 오라비들의 아내가 되었다.

36:12 그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문들 안으로 시집을 갔고, 그들의 상속 재산은 자기 아버지 가문의 지파에 그대로 남았다.

36:13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강 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다.

신명기

1장

1:1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광야, 곧 숩 맞은편 아라바에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1:2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는 길을 따라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1:3 마흔째 해 열한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1:4 이는 그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을 쳐부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을 쳐부순 뒤였다.

1:5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1:6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

1:7 방향을 돌려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고, 그 주변의 모든 곳,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원과 남쪽 지역과 해변과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거라.

1:8 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들어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 뒤를 이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라.'

1: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 혼자서는 너희의 짐을 다 질 수 없다.

1:10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니, 보아라, 너희는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1:11 너희 조상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천 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1:12 그러나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무거운 짐과 다투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1:13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하였다.

1:14 그러자 너희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내게 대답하였다.

1:15 그래서 나는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관리들로 세웠다.

1:16 그때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 형제들 사이의 소송을 잘 듣고, 각 사람과 그 동포 사이든, 함께 사는 외국인 사이든 공정하게 재판하여라.

1:17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들어야 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판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듣겠다.'

1:18 그때에 나는 너희가 행해야 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1:19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거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다.

1:20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다.

1:21 보아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1:22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내게 다가와 말하기를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였다.

1:23 나는 그 제안이 좋다고 여겨, 너희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다.

1:24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였다.

1:25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내려와 보고하며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하였다.

1: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너희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1:27 너희는 장막 안에서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다.

1: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단 말인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그 백성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키도 크며 성읍들은 거대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견고하다. 게다가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의 자손들까지 보았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1:2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30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분은 애굽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처럼 싸우실 것이며,

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듯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를 품어 주셨다.'

1:32 그런데도 너희는 이 일에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았다.

1:33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아 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보여 주셨다.

1:34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여 맹세하셨다.

1: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1: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것을 볼 것이다. 그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1:37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하여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8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9 또 사로잡히거나 죽을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던 너희의 어린것들과, 오늘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1:40 그러나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

1:41 그러자 너희는 내게 대답하여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저마다 무기를 차고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려 하였다.

1:4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 염려된다."'

1:43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오만하게 산지로 올라갔다.

1:44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너희를 맞서 나와 벌 떼처럼 너희를 뒤쫓았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쳐부수었다.

1:45 너희가 돌아와 주님 앞에서 울부짖었으나, 주님께서는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1:46 그리하여 너희는 가데스에서 그 머문 날수만큼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2장

2:1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발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끼고 돌았다.

2: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3 '너희가 이 산을 끼고 돈 지 충분하니,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2:4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사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의 국경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2:5 그들과 다투지 마라. 발바닥 하나 디딜 만큼의 땅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2:6 너희는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어야 하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셔야 한다.'"

2:7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이 넓은 광야를 걸어가는 너를 보살펴 주셨다. 이 사십 년 동안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2:8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들을 지나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이어지는 아라바 길을 벗어났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 길을 따라 지나갔다.

2:9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마라.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아르를 롯의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2:10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강하고 수가 많으며 키도 컸다.

2:11 그들도 아낙 사람처럼 르바임으로 여겨졌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다.

2:12 호리 사람도 예전에는 세일에 살았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유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그들은 호리 사람을 자기들 앞에서 멸망시키고 그들의 자리에 정착하여 살았다.)

2:13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우리는 세렛 시내를 건넜다.

2:14 우리가 가데스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다. 그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안에서 군인들의 온 세대가 다 쓰러져 사라졌다.

2:15 참으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영 한가운데서 그들이 다 망하여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멸하셨다.

2:16 군인들이 마침내 백성 가운데서 다 죽어 사라졌을 때,

2:17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18 '너는 오늘 모압의 국경인 아르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2:19 네가 암몬 자손의 국경 가까이 이를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마라. 암몬 자손의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2:20 (그곳도 르바임의 땅으로 여겨진다. 예전에는 르바임이 거기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숨밈이라고 불렀다.

2:21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강하고 수가 많으며 키도 컸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에 정착하여 살았다.

2:22 이는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셨을 때와 같으니, 에서의 자손이 호리 사람을 몰아내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2:23 또 가사까지 마을들에 살던 아위 사람의 경우도, 갑돌에서 나온 갑도림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자리에 정착하여 살았다.)

2:24 '일어나 길을 떠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와 맞서 싸워라.

2:25 오늘부터 내가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겠다. 그들이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네 앞에서 떨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2:26 그래서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말로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2:27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길로만 갈 것이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2:28 우리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우리가 먹게 해 주시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걸어서 지나가려는 것뿐입니다.

2:29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준 것처럼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30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그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2:3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앞에 넘겨주기 시작하였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아라.'

2:32 그러자 시혼이 자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를 맞서 싸우러 야핫으로 나왔다.

2:33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우리 앞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부수었다.

2:34 그때에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이 살던 모든 성읍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완전히 전멸시켰으며,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2:35 다만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에서 거둔 노획물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2:36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안의 성읍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락시키지 못할 만큼 높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2:37 오직 암몬 자손의 땅, 곧 얍복강 기슭의 모든 곳과 산지의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모든 곳에는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않았다.

3장

3:1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바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와 맞서 싸우러 에드레이로 나왔다.

3: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에게 행해야 한다.'

3:3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

3:4 그때에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니, 곧 바산에 있던 옥의 왕국 아르곱 온 지역의 예순 성읍이었다.

3:5 이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고,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3:6 우리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으니, 주민들이 살던 모든 성읍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다.

3:7 그러나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거둔 노획물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3:8 그때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두 아모리 사람 왕의 손에서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다.

3:9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부른다.)

3:10 우리는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에 있던 옥의 왕국 성읍들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다 차지하였다.

3:11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보라, 그의 침대는 쇠침대이다. 그것이 암몬 자손의 랍바에 있지 않은가? 보통 사람의 팔꿈치 길이로 재어 볼 때, 그 길이는 아홉 규빗이고 너비는 네 규빗이다.)

3:12 그때에 우리가 차지한 이 땅 가운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에게 주었다.

3:13 그리고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온 땅, 곧 아르곱 온 지역을 포함한 바산 전체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곳 역시 르바임의 땅이라 불린다.

3: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역을 차지하고, 바산을 포함한 그곳을 자기 이름을 따라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렀다.)

3:15 그리고 내가 길르앗은 마길에게 주었다.

3:16 또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곧 골짜기 한가운데를 경계로 삼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강까지 주었으며,

3:17 아라바와 요단강 및 그 주변 지역도 주었으니, 곧 긴네렛에서부터 동쪽으로 비스가 기슭 아래에 있는 아라바 바다, 곧 염해에 이르는 지역이다.

3:18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용사들은 모두 무기를 갖추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거라.

3:19 다만 너희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가축은내가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알고 있다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3:20 주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그들 역시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하여라. 그런 뒤에야 너희는 저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3:21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눈으로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네가 건너갈 모든 왕국에도 이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3:22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3:23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렸다.

3:24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강한 손을 종에게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큰 권능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3:25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저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3:26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마라.

3:27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아라.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28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힘을 실어 주어라. 그가 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서, 네가 보게 될 그 땅을 그들이 상속받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3:29 그리하여 우리는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렀다.

4장

4:1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4:2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거기서 아무것도 빼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4:3 주님께서 바알브올 일로 행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곧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4:4 그러나 너희 하나님 주님을 굳게 붙잡았던 너희는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 있다.

4:5 보아라, 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 한가운데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4:6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이것이 바로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분별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4:7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신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느냐?

4:8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처럼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느냐?

4:9 너희는 오직 스스로 조심하며 정성을 다해 너희 영혼을 지켜라. 너희 눈으로 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평생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그것을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4:10 너희가 호렙에서 너희 하나님 주님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여라.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겠다' 하셨다.

4:11 너희는 가까이 다가와 산 아래 섰다. 그 산은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에 휩싸인 채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4:12 주님께서 불길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고 오직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4:13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언약, 곧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

4:14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4:15 그러므로 너희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는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4:16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타락하여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곧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본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4:17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 공중을 나는 어떤 날개 달린 새의 모습이든,

4:18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 본떠 만들지 마라.

4:19 또 너희가 하늘을 우러러보아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몫으로 나누어 주신 것들이다.

4:20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4:21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며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4:22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4:23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4:24 너희 하나님 주님은 삼켜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4:25 너희가 자녀와 손자들을 낳고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스스로 타락하여 어떤 형상의 새긴 우상이든 만들고 너희 하나님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을 노엽게 한다면,

4:26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너희에게 엄히 경고하건대,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4:27 주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 중 살아남을 사람의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4:28 거기서 너희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4:29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4:30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쳤을 때, 훗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4:31 너희 하나님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4:32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이전 날들에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이처럼 위대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아라.

4:33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길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느냐?

4:34 아니면 어떤 신이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뻗친 팔과 큰 두려운 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자신을 위해 인도해 내려고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애굽에서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같다.

4:35 너희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4:36 그분은 너희를 훈계하시려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땅 위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 주셨으며, 너희는 불길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4:37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후손들을 택하셨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분의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4:38 그리고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어,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이었다.

4:39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이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라.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 위에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아라.

4:40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히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4:41 그때에 모세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 세웠으니,

4:42 이는 전에 아무런 원한도 없이 뜻하지 않게 이웃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4:43 르우벤 사람을 위해서는 평원 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을, 갓 사람을 위해서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므낫세 사람을 위해서는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다.

4:44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선포한 율법이다.

4:45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증거와 규례와 법도이다.

4:46 이것이 선포된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벧브올 맞은편 골짜기, 곧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땅이었다.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쳐부순 왕이다.

4:47 그들은 그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들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다.

4:48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에 이르며,

4:49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온 아라바, 곧 비스가 기슭 아래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5장

5: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들려주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철저히 실천하여라.

5:2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5:3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다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으셨다.

5:4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길 한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5:5 (그때에 너희가 그 불 때문에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했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5:6 '나는 너를 종살이하던 집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너의 하나님 주다.

5:7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들도 섬기지 마라.

5:8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5:9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조상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갚겠다.

5: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

5:11 너는 너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5:12 너의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5:13 너는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하여라.

5:14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주님의 안식일이니,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나귀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너의 성문 안에 머무는 거류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하여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여라.

5:15 너는 기억하여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너의 하나님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너를 거기서 이끌어 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5:16 너의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의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다.

5:17 살인하지 마라.

5:18 간음하지 마라.

5:19 도둑질하지 마라.

5:20 너의 이웃을 거슬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5:21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의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5:22 주님께서는 산 위 불길과 구름과 짙은 흑암 한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온 총회에 이 말씀들을 선포하셨고, 더 이상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 내게 주셨다.

5:23 산이 불타고 있는 동안 어둠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와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5:24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우리는 불길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5:25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불길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5:26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길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처럼 듣고도 살아남은 육체를 지닌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5:27 모세께서 직접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전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하였다.

5:28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한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다 옳다.

5:29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5:30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5:31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일러줄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실천하게 하여라.'

5:3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5:33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 걸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복을 누리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6장

6:1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다.

6:2 이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평생토록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며, 또 너의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6: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6:5 너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6:6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에 새겨라.

6:7 너는 이 말씀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6:8 너는 그것들을 손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대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6:10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주기로 하신 땅으로 너를 이끄실 때, 네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을 것이다.

6:11 또 네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물건으로 가득 찬 집들과 네가 파지 않은 우물들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가 있을 것이며,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6:12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종살이하던 집 곧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6:13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6:14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중 어떤 다른 신들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6:15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이 너희를 땅 위에서 멸망시키실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6:17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6:18 너는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주님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6:19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6:20 훗날 네 아들이 너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6:21 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6:22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눈앞에서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크고 두려운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셨다.

6:23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어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6:24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6:25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행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7장

7:1 주 너의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끄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때,

7:2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네게 넘겨주셔서 네가 그들을 칠 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해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말라.

7:3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7:4 그들이 네 아들을 돌아서게 하여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7:5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태워라.

7:6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면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7:7 주님이 너희를 마음에 두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의 수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다.

7:8 오직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살이하던 집 곧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7:9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만이 참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시며,

7:10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갚아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갚으실 것이다.

7:11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7:12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지키실 것이다.

7:13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소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복을 주시며, 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의 번식과 양 떼의 새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7:14 너는 모든 민족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남녀나 가축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이다.

7:15 주님이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시고, 네가 아는 애굽의 악한 질병을 너에게 두지 않으시며,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내리실 것이다.

7:16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진멸해야 한다.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7:17 만일 네가 마음속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할지라도,

7:18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라.

7:19 곧 네 눈으로 본 큰 시험과 표징과 이적,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펴신 강한 손과 뻗으신 팔을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은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7:20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이 왕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살아남아 네 앞에 숨어 있는 자들까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7:21 너는 그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7:22 주 너의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염려되므로, 너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없애지 못할 것이다.

7:23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네게 넘겨주시고 큰 혼란에 빠뜨리셔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7:24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실 것이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네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아무도 네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7:25 너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로 태우고,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네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되니,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이 몹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7:26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처럼 멸망할 바쳐진 물건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몹시 미워해야 하니, 그것은 멸망하도록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8장

8: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8:2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곧 네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알아보려 하심이었다.

8:3 그분은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8:4 이 사십 년 동안 네 옷이 해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8:5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8:6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라.

8:7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곳은 시내와 샘과 지하수가 골짜기와 산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땅이며,

8:8 밀과 보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의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꿀의 땅이다.

8:9 그 땅에서는 네가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네게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이다.

8:10 네가 먹고 배부를 때,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라.

8:11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8:12 네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곳에 살게 될 때,

8:13 또 네 소 떼와 양 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네 모든 소유가 늘어날 때,

8:14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를 종살이하던 집 곧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8:15 그분은 독사와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메마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너를 인도하셨으며, 부싯돌 바위에서 너를 위해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고,

8:16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8:17 그러니 너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8:18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오늘과 같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8:19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엄히 경고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8:20 주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는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9장

9: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한 요새 성읍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9:2 그 백성은 크고 키가 큰 아낙 사람의 자손들이며, 너도 알고 있고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9:3 그러므로 너는 오늘 알라. 주 너의 하나님이 삼키는 불처럼 네 앞에 앞서 건너가신다. 그분이 그들을 멸하시고 네 앞에서 굴복시키실 것이니, 주님이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순식간에 멸망시켜야 한다.

9:4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내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말하지 말라. 주님이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9:5 네가 들어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또 주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9:6 그러므로 너는 알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이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것은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실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9:7 너는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해 왔다.

9:8 호렙에서도 너희가 주님을 격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주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9:9 내가 돌판들, 곧 주님이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사십 일 밤낮을 산에 머물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9:10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두 개를 내게 주셨다. 그 돌판들에는 총회의 날에 주님이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적혀 있었다.

9:11 사십 일 밤낮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그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

9:12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여기서 급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 낸 네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빠르게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

9:13 주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실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9:14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9:15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은 불타고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들려 있었다.

9:16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 주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빠르게 벗어나 있었다.

9:17 내가 그 두 돌판을 쥐고 내 두 손에서 내던져 너희 눈앞에서 깨뜨려 버렸다.

9:18 그리고 나는 처음처럼 사십 일 밤낮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을 격노하시게 함으로써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이었다.

9:19 주님이 너희를 향해 맹렬한 진노를 품으시고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으나,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내 말을 들어주셨다.

9:20 주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몹시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9:21 그리고 나는 너희가 지은 죄의 결과물인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부수어 먼지처럼 곱게 갈아서, 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시내에 그 가루를 뿌렸다.

9:22 너희는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격노하시게 했다.

9:23 주님이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시며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9:24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줄곧 주님을 거역해 왔다.

9:25 주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사십 일 밤낮을 엎드려 있었다.

9:26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드렸다. "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의 소유를 멸하지 마십시오.

9:27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완악함이나 악행이나 죄를 보지 마십시오.

9:28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 그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었고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끌어 냈다' 할까 두렵습니다.

9:29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이끌어 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10장

10:1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 만들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라.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10:2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어라."

10:3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은 뒤,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10:4 주님께서는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을 처음 쓰셨던 것과 같이 그 돌판들에 쓰셨고, 주님이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10:5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든 궤에 그 돌판들을 넣었더니,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다.

10:6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 브네야아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10:7 그들은 거기서 출발하여 굿고다에 이르렀고, 굿고다를 떠나 물 시내가 흐르는 땅인 욧바다에 이르렀다.

10:8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0:9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나눌 몫이나 유산이 없다. 주 너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의 유산이 되신다.)

10:10 내가 처음처럼 사십 일 밤낮을 산에 머물렀더니, 주님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어주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지 않으셨다.

10:11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길을 떠나라. 그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10:12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10:13 네가 행복하도록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10:14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

10:15 오직 주님은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 뒤를 이은 그들의 후손, 곧 너희를 오늘과 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셨다.

10: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0:17 주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10:19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10:20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10:21 그분은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니, 네 눈으로 직접 본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해 행하신 분이시다.

10:22 네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칠십 명뿐이었으나,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11장

11:1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언제나 지켜라.

11:2 너희는 오늘 기억하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대하심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3 곧 그분이 애굽 한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징들과 일들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4 또 그분이 애굽의 군대와 그 말들과 병거들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쳐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신 일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5 또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11:6 르우벤의 손자이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생물을 삼켜 버리게 하신 일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7 오직 너희 눈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직접 보았다.

11: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해져서,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1:9 또 주님이 너희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11:10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네가 채소밭에 물을 대듯 씨를 뿌린 뒤 발로 물을 대어야 했으나,

11:11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흡수하는 땅이며,

11:12 주 너희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너희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땅 위에 머물러 있다.

11: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온전히 듣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11:14 내가 너희 땅에 제때 비를 내려 줄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이다.

11:15 또 네 가축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11:1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빗나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11:17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11:1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영혼에 두어라.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11:19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라.

11:20 또 네 집 문설주와 대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11:21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땅 위의 하늘의 날처럼 많아질 것이다.

11:22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행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분만을 굳게 붙잡으면,

11:23 주님이 이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어 차지하게 될 것이다.

11:24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강, 곧 유브라데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11:25 아무도 너희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온 땅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두실 것이다.

11:26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11:27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11:28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11:29 주 너의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끄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11:30 그 산들은 요단강 건너편, 해 지는 쪽 길 뒤편, 길갈 맞은편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의 땅 곧 모레의 상수리나무 곁에 있지 않은가?

11:31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고 있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11:32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켜 행하라.

12장

12:1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너희가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삼가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12: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 곧 높은 산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곳들을 너희는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12:3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석상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그들의 신상들을 찍어 버려 그 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 버려야 한다.

12:4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2:5 오직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곧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찾아 그리로 가야 한다.

12:6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제물과 십일조와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소와 양의 맏배들을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12:7 거기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와 너희 집안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즐거워하라.

12:8 너희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12:9 너희가 아직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12:10 그러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려주시는 땅에 살게 되고,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쉬게 하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될 때,

12:11 주 너희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제물과 십일조와 손의 거제물과 너희가 주님께 서원하는 모든 훌륭한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12:12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딸, 너희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도 함께 즐거워해야 하니, 레위 사람은 너희와 나눌 몫이나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12:13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보는 아무 곳에서나 네 번제물을 바치지 않도록 하라.

12:14 오직 주님이 네 지파 중 한 곳에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물을 바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야 한다.

12:15 그러나 너는 네 모든 성문 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나 정한 자를 막론하고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16 다만 너희는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한다.

12:17 너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십일조, 또는 소나 양의 맏배, 네가 서원한 어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또는 손의 거제물을 네 성문 안에서는 먹을 수 없다.

12:18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먹어야 한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이 함께 먹고,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2:19 너는 네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12:20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약속하신 대로 네 영토를 넓혀 주셨을 때, 네가 고기를 먹고 싶어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거든,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어도 좋다.

12:21 만일 주 너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네게서 너무 멀거든,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주님이 네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성문 안에서 먹어라.

12:22 영양이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부정한 자나 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12:23 다만 너는 피는 결코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피는 생명이니,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12:24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한다.

12:25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네가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 너와 네 뒤를 이을 자녀가 잘될 것이다.

12:26 오직 네게 있는 거룩한 물건들과 네 서원 제물은 주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12:27 너는 번제물의 고기와 피를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한다. 네 희생제물의 피는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고, 고기는 네가 먹어라.

12:28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삼가 들으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너와 네 뒤를 이을 자녀가 영원히 잘될 것이다.

12:29 주 너의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살게 될 때,

12:30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을 따라 하다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며 그들의 신들에 대해 묻지 말라.

12:31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가증한 일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였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했다.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삼가 지켜 행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

13장

13:1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이적을 제시하고,

13:2 그가 너희에게 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고 한 그 표징이나 이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라도,

13:3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13:4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13:5 그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야 한다.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구속하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희를 빗나가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야 한다.

13:6 네 친형제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품의 아내나 네 생명과 같은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13:7 곧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주변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자고 하더라도,

13:8 너는 그의 뜻을 따르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를 아끼거나 감싸주지도 말라.

13:9 너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를 죽일 때 네 손이 먼저 그에게 닿아야 하고, 그 뒤에 온 백성의 손이 닿아야 한다.

13:10 너는 돌로 그를 쳐 죽여야 한다. 그가 너를 종살이하던 집 곧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13:11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13:12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에 대해 들었을 때,

13:13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들을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 한다고 하거든,

13:14 너는 자세히 묻고 조사하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보라, 그런 역겨운 일이 너희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것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면,

13:15 너는 그 성읍 주민을 반드시 칼날로 쳐야 한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13:16 너는 그 모든 전리품을 성읍 거리 한가운데 모아 두고, 그 성읍과 모든 전리품을 주 너의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바쳐야 한다.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13:17 멸망하도록 바쳐진 것 중 아무것도 네 손에 남겨 두지 말라. 그리하면 주님이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네게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13:18 이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리하실 것이다.

14장

14:1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14:2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이 지면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14:3 너는 역겨운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14:4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14:5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들염소와 아이벡스와 안틸롭과 산양이다.

14:6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14:7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곧 낙타와 산토끼와 토끼이다. 이것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14: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14: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14:10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되니,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14:11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14:12 그러나 너희가 먹지 못할 새들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14:13 붉은솔개와 매와 온갖 종류의 솔개와,

14:14 온갖 종류의 모든 까마귀와,

14:15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온갖 종류의 매와,

14:16 작은올빼미와 큰올빼미와 뿔올빼미와,

14:17 펠리컨과 대머리수리와 가마우지와,

14:18 황새와 온갖 종류의 왜가리와 후투티와 박쥐이다.

14:19 날개 달린 모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

14:20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14:21 너희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네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외국인에게 팔 수는 있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14:22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오는 씨의 모든 소출에서 십일조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14:23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 곧 그분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맏배를 먹어야 한다. 그리하여 네가 언제나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14:24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네게서 너무 멀어 길이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4:25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손에 싸 쥐고, 주 너의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 가라.

14:26 그리고 네 마음에 바라는 모든 것,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돈으로 사서,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집안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14:27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저버리지 말라. 그는 너와 나눌 몫이나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14:28 너는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출의 십일조를 다 내어 네 성문 안에 쌓아 두어라.

14:29 그러면 너와 나눌 몫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네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5장

15:1 매 칠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15:2 면제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모든 채권자는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면제년이 선포되었으므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

15:3 외국인에게는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형제에게 빌려준 것은 여러분의 손으로 면제해 주어야 한다.

15:4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게 주시는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5 다만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15:6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빌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겠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15:7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여러분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손을 움켜쥐지 마라.

15:8 반드시 그에게 손을 활짝 펴서, 그가 부족하게 여기는 필요한 것을 넉넉히 빌려주어야 한다.

15:9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면제년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가 여러분을 걸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다.

15:10 여러분은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하며, 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5:11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다. 여러분의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여러분의 형제에게 반드시 손을 활짝 펴라.

15:12 여러분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여러분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떠나가게 해야 한다.

15:13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떠나가게 할 때,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15:14 여러분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주어야 한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15:15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15:16 그러나 만일 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을 사랑하여 여러분 곁에서 잘 지내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거든,

15:17 여러분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15:18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보낼 때에 아까워하지 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품꾼 품삯의 두 배나 되는 몫을 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5:19 여러분의 소 떼와 양 떼에서 태어난 첫 수컷은 모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 소의 첫 새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마라.

15:20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은 주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해마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15:21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흠이든 있으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마라.

15:22 여러분은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정하거나 정결한 사람 모두가 가젤이나 사슴을 먹듯이 먹을 수 있다.

15:23 오직 그 피만은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한다.

16장

16:1 아빕월을 지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빕월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밤에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16:2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에서, 양 떼와 소 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16:3 유월절 제물과 함께 누룩 든 빵을 먹지 마라.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므로, 칠 일 동안은 고난의 빵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될 것이다.

16:4 칠 일 동안 여러분의 온 영토 안에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며, 첫날 저녁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16:5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든 유월절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16:6 오직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에서만 제물을 바쳐라. 저녁 해 질 무렵, 곧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시간에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한다.

16:7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16:8 엿새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하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6:9 여러분은 칠 주간을 세라.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부터 칠 주간을 세어야 한다.

16:10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손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바치며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라.

16:11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성문 안에 사는 레위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6:12 여러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

16:13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뒤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16: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성문 안에 사는 레위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가 다 함께 즐거워하라.

16:15 주님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온전히 기뻐하라.

16:16 여러분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님께서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며,

16:17 각 사람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닿는 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16:18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지파의 모든 성문에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두라. 그들은 공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

16:19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16:20 오직 온전한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겠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6:21 여러분을 위해 만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 아세라 목상을 심지 마라.

16:22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돌기둥 우상도 세우지 마라.

17장

17:1 흠이나 어떤 결함이 있는 소나 양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것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17:2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문 가운데 어디에서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

17:3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거나, 해나 달이나 하늘의 어떤 별들에게 절하고,

17:4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알려져 듣게 되거든, 여러분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보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확실하면,

17:5 여러분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17:6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해야만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일 수 있으며, 증인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죽이지 못한다.

17:7 그를 처형할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17:8 성문 안에서 피 흘린 사건들 사이의 판결, 권리 다툼들 사이의 판결, 폭행 사건들 사이의 판결처럼,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소송거리가 생기거든, 여러분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17:9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 줄 것이다.

17:10 주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판결 내용대로 행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 행하라.

17:11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율법의 지침과 그들이 여러분에게 일러 주는 판결에 따라 행하라. 그들이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판결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지 마라.

17:12 누구든지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라.

17:13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17:14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여 살면서, '주변의 모든 민족처럼 나도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17:15 여러분은 반드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17:16 다만 왕은 군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며, 말을 더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다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7:17 왕은 마음이 빗나가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은과 금을 지나치게 많이 모아도 안 된다.

17: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책에 베껴 적어야 한다.

17:19 그 책을 곁에 두고 평생토록 읽으며, 주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17:20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해지지 않고, 계명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의 왕국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18장

18:1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몫도 유산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과 주님의 몫을 먹을 것이다.

18:2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친히 그들의 유산이시기 때문이다.

18:3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에게 바쳐야 할 마땅한 몫은 이러하다. 곧 어깨와 두 뺨과 내장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8:4 여러분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소출과, 양 떼의 깎은 첫 털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18:5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8:6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가 살던 어느 성문에서든지 한 레위 사람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오거든,

18:7 거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동족 모든 레위 사람처럼, 그도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18:8 그는 조상의 재산을 판 돈 외에도,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먹을 것이다.

18:9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 민족들의 역겨운 행위를 본받지 마라.

18:10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술가나, 길흉을 점치는 자나, 요술을 부리는 자나, 마술사나,

18:11 주문을 외우는 자나,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죽은 자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8:12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이런 역겨운 일들 때문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18:13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

18:14 여러분이 쫓아낼 이 민족들은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나 점술가들의 말을 듣지만,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8:15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곧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18:16 이것은 여러분이 총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든 것과 같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다시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18:17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18:18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그들을 위해 세우겠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니,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18:19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18:20 그러나 어떤 예언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함부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18:21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18:22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일에 징조도 없고 성취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함부로 말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19장

19:1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민족들을 없애 버리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들과 집들에 살게 될 때,

19:2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주시는 땅의 한가운데에 세 성읍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19:3 길을 닦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시는 땅의 경계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19: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곧 이전에 아무런 원한도 없이 뜻하지 않게 이웃을 죽인 경우이다.

19:5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쥐고 나무를 베려고 내리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 이웃을 쳐서 죽게 한 경우, 그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도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다.

19:6 그렇지 않으면 피의 보복자가 분노에 불타 살인자를 뒤쫓다가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죽을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19:7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세 성읍을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19:8 만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온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19:9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분의 길로 걷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 성읍 외에 세 성읍을 더해야 한다.

19:10 그리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 한가운데서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져, 여러분에게 피 흘린 죗값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라.

19: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덮쳐 치명타를 가해 죽게 한 뒤에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도피하거든,

19:12 그가 속한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끌어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해야 한다.

19:13 여러분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죄를 없애라. 그리해야 여러분이 잘될 것이다.

19:14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 여러분이 받을 상속 재산에서 옛사람들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

19:15 어떤 사람이 저지른 어떤 부정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구도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해야 그 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19:16 만일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죄를 지었다고 거짓 증언하거든,

19:17 소송이 걸린 두 사람은 주님 앞, 곧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19:18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야 하며, 보아서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형제를 거슬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거든,

19:19 여러분은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어,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야 한다.

19:20 남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19:21 여러분의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야 한다.

20장

20:1 여러분이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군마와 병거와 여러분보다 많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0:2 여러분이 싸움터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제사장이 백성 앞으로 나아와 말해야 한다.

20:3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원수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 때문에 겁내지 마십시오.

20:4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원수들을 대적하여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5 관리들도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쟁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집의 낙성식을 치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0:6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쟁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0:7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쟁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0:8 관리들은 백성에게 더 일러 말해야 한다.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의 형제들의 마음마저 그의 마음처럼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0:9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을 다 마친 뒤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의 맨 앞에 서게 해야 한다.

20:10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치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선언하라.

20:11 그 성읍이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주거든,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여러분의 강제 노동자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해야 한다.

20:12 그러나 그 성읍이 여러분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거부하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려 하거든, 여러분은 그 성읍을 포위하라.

20:13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때, 여러분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쳐 죽여야 한다.

20:14 그러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노획물은 여러분의 몫으로 가져도 된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원수들의 전리품을 누릴 수 있다.

20:15 여러분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 곧 이 민족들의 성읍에 속하지 않은 모든 성읍에는 이렇게 행하라.

20:16 그러나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 두지 마라.

20:17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20:18 그것은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며 행하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본받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0:19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여 공격할 때라도, 도끼를 휘둘러 그 성읍의 나무들을 쓰러뜨리지 마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베어 내지 마라. 들판의 나무가 사람이기에 여러분에게 포위당해야 한단 말인가?

20:20 오직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나무만 쓰러뜨려 베어 내어, 여러분과 맞서 싸우는 그 성읍이 무너질 때까지 포위용 둑을 쌓아라.

21장

21:1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도록 주시는 땅의 들판에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쳐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21:2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된 시신 주위에 있는 성읍들까지 거리를 재어야 한다.

21:3 살해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일하지도 않고 멍에를 메어 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21:4 그 성읍의 장로들은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21:5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가까이 나아와야 한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모든 다툼과 모든 폭행 사건이 그들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21:6 살해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는 골짜기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

21:7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우리 손은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21:8 주님,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피 흘린 죄에 대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21:9 이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눈앞에 옳은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없애게 될 것이다.

21:10 여러분이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21:11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고 싶거든,

21:12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 여인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야 한다.

21:13 포로로 잡혀 올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여러분의 집에 머물며,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곡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분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 남편이 되고, 그 여인은 여러분의 아내가 될 것이다.

21:14 만일 나중에 여러분이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든,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게 해 주어야 한다.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며, 종으로 대우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그 여인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21:15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은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모두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소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1:16 자기가 가진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인 진짜 맏아들을 제쳐 두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21:17 그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기력의 시작이며,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21:18 어떤 사람에게 완고하고 반항적인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21:19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아 그가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문으로 끌고 가야 한다.

21:20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아들은 완고하고 반항적이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취해 삽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21:21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21:22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처형을 당하고, 여러분이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았거든,

21:23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묻어야 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22장

22:1 여러분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여러분의 형제에게 다시 끌어다 주어야 한다.

22:2 여러분의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것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2:3 그의 나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의 옷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며, 여러분의 형제가 잃어버려 여러분이 찾은 온갖 유실물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못 본 척 지나쳐서는 안 된다.

22:4 여러분의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

22: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22:6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에 있는 새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 새를 새끼와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

22:7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만 가져가야 한다. 그리해야 여러분이 잘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22:8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 둘레에 난간을 만들어, 누군가 거기서 떨어져 여러분의 집에 피 흘린 죄를 끌어들이지 않게 하라.

22:9 여러분의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여러분이 뿌린 씨의 소출과 포도원의 수확물이 모두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10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함께 밭을 갈지 마라.

22:11 양털과 삼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22:12 여러분이 걸치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22:13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함께 잠자리를 한 뒤에 그 여인을 미워하여,

22:14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트집을 잡고 악명을 씌우며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여 가까이해 보았더니, 그에게서 처녀의 표를 찾지 못했다' 하고 말하거든,

22:15 그 젊은 여인의 부모는 그 여인이 처녀였음을 증명하는 표를 가져다가 성문의 장로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2:16 젊은 여인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합니다.

22:17 보십시오, 그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내가 당신 딸에게서 처녀의 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내 딸의 처녀의 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 장로들 앞에 그 옷감을 펴 보여야 한다.

22:18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잡아다가 벌하고,

22:19 그에게 은 백 세겔의 벌금을 물려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악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인을 내쫓지 못한다.

22:20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인에게 처녀의 표가 발견되지 않았거든,

22:21 그들은 그 젊은 여인을 자기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음행을 저질러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22:22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이 들통나거든,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라.

22:23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그 여인을 만나 함께 동침하거든,

22:24 여러분은 그 둘을 모두 그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22:25 그러나 만일 그 남자가 들판에서 약혼한 여인을 만나 힘으로 제압하여 동침한 것이라면,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22:26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여인에게는 죽을죄가 없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인 사건과 같기 때문이다.

22:27 남자가 들판에서 약혼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소리쳐 비명을 질렀어도 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2:28 어떤 남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붙잡고 동침하다가 들통나거든,

22:29 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인을 욕보였으므로 그 여인은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하며,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인을 내쫓지 못한다.

22:30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되며,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어서는 안 된다.

23장

23:1 고환이 짓상했거나 생식기가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3:2 금지된 결합에서 태어난 자는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십 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속한 자는 아무도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3:3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십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3:4 이것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길에서 빵과 물로 여러분을 맞이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서 브올의 아들 발람을 삯을 주고 불러왔기 때문이다.

23:5 그러나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저주를 바꾸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23:6 여러분은 평생토록 영원히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구하지 마라.

23:7 여러분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23:8 그들에게서 태어난 삼 대째 자손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23:9 여러분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에는, 온갖 악한 일을 스스로 멀리해야 한다.

23:10 여러분 가운데 밤에 일어난 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거든,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며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23:11 저녁때가 되면 그는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23:12 여러분은 진영 밖에 볼일을 볼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23:13 여러분은 무기와 함께 모종삽을 갖추고 있다가, 밖에서 용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

23:14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원수들을 넘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영 한가운데를 거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23:15 주인을 피해 여러분에게로 도망쳐 온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23:16 그가 여러분의 성문 가운데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곳을 골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살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마라.

23:17 이스라엘 딸들 가운데는 창녀가 없어야 하고,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는 남창이 없어야 한다.

23:18 창녀의 화대나 남창의 몸값을 어떤 서원을 위해서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둘은 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23:19 여러분은 형제에게 돈의 이자든 식량의 이자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어떤 것의 이자든,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23:20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으나, 여러분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해야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23:21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미루지 마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니, 미루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다.

23:22 서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23:23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성심껏 지켜 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겠다고 입으로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23:24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껏 배불리 포도를 따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된다.

23:25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24장

24:1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다가,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쥐여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24:2 그 여자가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24:3 그런데 뒤의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여 주고 집에서 내보내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뒤의 남편이 죽었을 경우,

24:4 그 여자를 내보낸 이전 남편은 여자가 부정해진 뒤에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주님 앞에 역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로 물들여서는 안 된다.

24:5 새로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군대에 나가지 말아야 하며, 어떤 공무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는 일 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

24:6 맷돌 전체나 그 위짝만을 저당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저당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4:7 누가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도둑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24:8 나병 같은 피부병이 생기거든 각별히 주의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 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여러분은 힘써 행해야 한다.

24:9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24:10 이웃에게 어떤 것을 빌려줄 때, 저당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24:11 여러분은 밖에 서 있고, 빌리는 사람이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여러분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24:12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의 저당물을 여러분 곁에 두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24:13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그 저당물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기 옷을 덮고 자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며, 이것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24:14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여러분의 형제이든 여러분의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인이든 학대하지 마라.

24:15 그가 가난하여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그날 품삯은 그날에 주고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걸어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다.

24:16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사형에 처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오직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24:17 외국인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도 안 된다.

24:18 여러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24:19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볏단을 잊어버리고 두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24:20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남은 가지를 다시 털지 마라.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24:21 포도원의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포도를 다시 따지 마라.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24:22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25장

25:1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판결하고 악한 사람은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

25:2 악한 사람이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자기 앞에서 그의 죄질에 따라 횟수를 정해 매를 때리게 해야 한다.

25:3 그에게 마흔 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많이 때려서 마흔 대를 넘기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25:4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25: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거든, 죽은 사람의 아내는 집안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는 안 된다.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5:6 그 여인이 낳는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25:7 그러나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의 이름을 잇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로서 제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25:8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 타일러야 한다. 만일 그가 고집을 부려 '나는 그 여자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거든,

25:9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기 형제의 집안을 세우려 하지 않는 남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25:10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25:11 두 남자가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다가와 남편을 때리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해 내려고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붙잡거든,

25:12 여러분은 그 여인의 손을 잘라 버려야 하며, 여러분의 눈은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25:13 여러분은 주머니에 무겁고 가벼운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고 다녀서는 안 된다.

25:14 여러분은 집 안에 크고 작은 두 종류의 되를 두어서는 안 된다.

25:15 여러분은 온전하고 정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하고, 온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25:16 이런 짓을 하는 자, 곧 부정하게 행하는 자는 모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기 때문이다.

25:17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25:18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가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 뒤처진 모든 연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5:19 그러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게 주시는 땅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주실 때,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 버려야 한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6장

26:1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될 때에,

26:2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땅에서 거둔 땅의 모든 소출 가운데 첫 열매를 얼마쯤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십시오.

26:3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제가 들어왔음을, 오늘 제사장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26:4 제사장은 여러분의 손에서 그 바구니를 받아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26:5 그러면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며 망할 뻔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강하며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26:6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우리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26: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수고와 억압을 살펴보셨습니다.

26:8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으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징과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6:9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6:10 그러니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두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26:11 그리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과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함께 기뻐하십시오.

26:12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여러분 소출의 모든 십일조 떼기를 마친 뒤에는,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해야 합니다.

26:13 그리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에 따라, 제가 거룩한 몫을 제 집에서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주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26:14 제가 애곡하는 날에 이것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지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해 이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주 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26:15 주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26:16 오늘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이것들을 힘써 지키고 행하십시오.

26:17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6:18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선언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19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민족보다 여러분을 찬양과 명성과 영예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7장

27: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27:2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27:3 강을 건넌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7:4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27:5 거기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제단, 곧 돌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돌들에 어떤 철 연장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27:6 다듬지 않은 돌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27:7 화목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먹으며,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27:8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27:9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여, 잠잠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7:10 그러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행하십시오."

27:11 바로 그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27:12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27:13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입니다.

27:14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27:15 '장인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27: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17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18 '시각장애인을 길에서 헤매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19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0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1 '어떤 짐승과든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2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3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4 '이웃을 몰래 살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5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7: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28장

28:1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힘써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성심껏 행하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28:2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28:3 여러분은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28:4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와 여러분 땅의 소출과 여러분 가축의 새끼, 곧 소의 번식과 양 떼의 어린 것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28:5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28:6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28:7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한 길로 여러분을 치러 나왔다가, 여러분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28:8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창고와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도록 명령하실 것입니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8:9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28:10 그러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28:11 주님께서 여러분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여 넘치도록 번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28:12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 철에 따라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28:13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삼가 행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28:14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28:15 그러나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힘써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28:16 여러분은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8:17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8:18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와 여러분 땅의 소출과 여러분 가축의 번식, 곧 소와 양 떼의 어린 것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8:19 여러분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8:20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행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시어, 마침내 여러분이 멸망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28:21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여러분을 소멸하실 때까지, 염병이 여러분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28:22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극심한 열기와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여러분을 치실 것이며, 이것들이 여러분이 망할 때까지 여러분을 뒤쫓을 것입니다.

28:23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놋이 되고, 여러분 발밑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입니다.

28:24 주님께서는 여러분 땅의 비를 먼지와 흙더미로 바꾸실 것이며, 그것이 하늘에서 여러분 위에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28:25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 위의 모든 나라 사이에서 공포와 유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8:26 여러분의 시체는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8:27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기와 종양과 부스럼과 가려움증으로 여러분을 치실 것이며,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28:28 주님께서는 광기와 눈멂과 정신적 혼란으로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28:29 시각장애인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듯 여러분은 대낮에도 더듬거릴 것이며, 여러분의 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억압과 약탈만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8:30 여러분이 어떤 여자와 약혼할지라도 다른 남자가 그녀와 동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지라도 그 안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꿀지라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28:31 여러분의 소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도살당해도 여러분은 그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귀를 여러분 면전에서 강제로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양 떼가 원수들에게 넘어가도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8:32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고, 여러분의 눈은 온종일 그들을 애타게 바라보다가 지칠 것이나, 여러분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8:33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여러분 땅의 소출과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먹어 치울 것이며, 여러분은 언제나 억압당하고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28:34 그리하여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미쳐 버릴 것입니다.

28:35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를 지독한 종기로 치실 것이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낫지 않는 종기로 고통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28:36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세울 왕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28:37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실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은 놀람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28:38 여러분이 들에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 치우므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28:39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볼지라도 벌레가 갉아먹으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28:40 여러분의 온 영토 안에 올리브나무가 있을지라도 올리브 열매가 떨어져 버려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28:41 여러분이 아들과 딸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여러분의 곁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28:42 메뚜기 떼가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소출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28:43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여러분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28:44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꾸어 주겠지만 여러분은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28:45 여러분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뒤쫓아 덮쳐서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28:46 이 저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과 경고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28:47 여러분이 온갖 것이 풍족한 때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28:48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려고 보내실 원수들을 여러분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온갖 궁핍 속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때까지 여러분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실 것입니다.

28:49 주님께서는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먼 곳, 곧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와 여러분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민족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민족이며,

28:50 얼굴빛이 사납고 흉포하여 노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민족입니다.

28:51 그들이 여러분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먹어 치워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이며,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번식이나 양 떼의 어린 것을 여러분에게 남겨 두지 않고 여러분을 아주 망하게 할 것입니다.

28:52 그들은 여러분의 온 영토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문을 포위할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온 땅의 모든 성문 안에서 여러분을 에워쌀 것입니다.

28:53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극심한 곤경으로 몰아넣을 때,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몸의 열매, 곧 아들과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28:54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지극히 고상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살아남은 자기 자식들을 노려보며 사나운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28:55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모든 성문에서 여러분을 에워싸고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28:56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온순하고 고상하여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려 하지도 않던 온순하고 고상한 여자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을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볼 것입니다.

28:57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반과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성문 안에서 여러분을 에워싸고 극심한 곤경으로 몰아넣을 때 모든 것이 결핍되어, 그녀가 그들을 은밀히 먹어 치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28:58 여러분이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지 않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럽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28:59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크고 오래 지속되는 재앙과 지독하고 오래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28:60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시 여러분에게 끌어들이실 것이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28:61 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어,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28:62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을지라도,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28:63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뽑혀 나갈 것입니다.

28:64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28:65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에게 떨리는 마음과 침침한 눈과 쇠약해진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28:66 여러분의 생명은 늘 위태로워 보일 것이며, 여러분은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며 자기 목숨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28:67 여러분 마음속에 엄습하는 두려움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는 '차라리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차라리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28:68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길을 통해 배에 태워 여러분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원수들에게 남종과 여종으로 몸을 팔려 해도, 여러분을 사 줄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29장

29:1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29: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29:3 곧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큰 시련과 표징들과 그 커다란 기적들입니다.

29:4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29:5 내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였으나, 여러분의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발의 신발도 닳아 해어지지 않았습니다.

29:6 여러분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주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9:7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29:8 우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습니다.

29: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29:10 오늘 여러분 모두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여러분의 우두머리들과 지파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과,

29:11 여러분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여러분 진영 한가운데 머무는 외국인들, 곧 나무를 패는 사람부터 물을 긷는 사람까지 다 서 있습니다.

29:12 이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맺으시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맹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29:13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을 굳게 세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29:14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여러분과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29:15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29:16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 민족의 한가운데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29:17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있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29:18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가문이든 지파든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 그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쓰디쓴 독초를 맺는 뿌리가 생겨나지 않게 하십시오.

29:19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속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완고함대로 행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물 댄 땅과 메마른 땅을 함께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29:20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주님의 진노와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연기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쏟아질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29:21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재앙에 빠지도록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29:22 다음 세대, 곧 여러분 뒤에 일어날 여러분의 자녀들과 먼 땅에서 찾아온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과 주님께서 그 땅에 앓게 하신 질병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9:23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어 불에 탔으니,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소출도 나지 않으며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구나. 이는 주님께서 진노와 격분 속에서 무너뜨리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파멸과도 같다.'

29:24 모든 민족들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처럼 행하셨는가? 이처럼 맹렬히 타오르는 큰 진노는 대체 무슨 까닭인가?'

29:25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29:26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했기 때문이다.

29:27 그러므로 이 땅을 향해 주님의 진노가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땅에 쏟아부으셨다.

29:28 주님께서는 분노와 격분과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시어, 오늘날 보는 것처럼 다른 땅으로 내던지셨다.'

29:29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드러난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0장

30:1 내가 여러분 앞에 둔 복과 저주, 곧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30:2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30:3 그때에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흩으셨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30:4 여러분 가운데 쫓겨난 자들이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을 모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30:5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여러분의 수를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30:6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30:7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수들과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30:8 여러분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행할 것입니다.

30:9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듯이, 다시 여러분을 기뻐하시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0:10 이는 여러분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리될 것입니다.

30:11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30:12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겠는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0:13 또한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겠는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0:14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30:15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재앙을 두었습니다.

30:16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30:17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서 순종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30:18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건대,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여러분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30: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에 대한 증인으로 삼습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 곧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수 있습니다.

30:20 곧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수명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31장

31:1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31: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내 나이가 백스무 살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드나들며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3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 앞서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 앞서 건너갈 것입니다.

31:4 주님께서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멸하셨듯이 이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31:5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31:6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31: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해 줄 것입니다.

31:8 주님께서 친히 당신보다 앞서 가실 것이며,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31:9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었다.

31:10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매 칠 년 끝, 곧 면제년의 정해진 때인 초막절에,

31:11 온 이스라엘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나아와 그분 앞에 뵐 때에,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하십시오.

31:12 백성, 곧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여러분의 성문 안에 머무는 외국인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듣고 배우며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행하게 하십시오.

31:13 또한 이를 알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도 듣고,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사는 동안 주 여러분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31: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와 함께 서라. 내가 그에게 임무를 맡기겠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만남의 장막에 섰다.

31:15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다.

31: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기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행동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31:17 그날에 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오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들은 집어삼켜질 것이며,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31:18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행한 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31: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어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들의 입에 이 노래를 담아 주어,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스르는 나를 위한 증언이 되게 하라.

31:20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였을 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31:21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 이 노래가 그들 자손의 입에서 잊히지 않고 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전인 오늘 벌써, 나는 그들이 품은 생각과 행하는 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31:22 그리하여 모세는 바로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31:23 주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시며 말씀하셨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31: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온전히 다 써서 마쳤을 때,

31:25 모세는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31: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여러분을 거스르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31:27 나는 여러분의 반역과 목이 곧은 완고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직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주님께 반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31:28 여러분 지파들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으로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을 거스르는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31:29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완전히 타락시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아설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것들로 그분을 노엽게 하여, 훗날 여러분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31:30 모세는 이 노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끝까지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32장

32: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겠다. 땅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32: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 위의 가랑비 같고 채소 위의 소나기 같다.

32:3 저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32:4 반석이신 그분,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불의가 전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32:5 백성은 그분 앞에서 부패하게 행하였으니, 자신들의 흠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다.

32: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주님께 이처럼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희를 사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이 너희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32:7 옛날을 기억하라. 지나간 여러 세대의 세월을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네게 알려 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네게 말해 줄 것이다.

32:8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여러 민족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실 때,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맞추어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32:9 주님의 몫은 바로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이 상속받으신 몫이다.

32:10 주님께서 그를 황무지 땅에서, 짐승 울음소리 가득한 황량한 광야에서 찾아내셨다. 그를 감싸 안아 돌보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

32:11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어 깨우고 새끼들 위에서 날갯짓하듯, 날개를 펴서 그들을 받아 자신의 깃 위에 업으셨다.

32:12 주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분 곁에는 이방 신이 없었다.

32:13 주님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게 하셔서 들의 소출을 먹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꿀을,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32:14 소의 엉긴 젖과 양 떼의 젖, 어린 양의 기름진 고기와 바산 품종의 숫양들과 염소들, 가장 좋은 밀을 먹이셨고, 붉은 포도즙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32:15 그러나 여수룬이 살찌자 발길질을 하였다. 네가 살찌고 두터워지고 기름이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겨 내쳤다.

32:16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고, 가증한 우상들로 그분의 분노를 돋우었다.

32:17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하였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들, 최근에 나타나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던 새로운 신들이었다.

32:18 너희는 너희를 낳으신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32:19 주님께서 이를 보시고 혐오하셨으니,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32: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그들은 참으로 비뚤어진 세대요 신실함이 없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32:21 그들이 신도 아닌 것들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헛된 우상들로 내 분노를 돋우었으니, 나 또한 백성도 아닌 자들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돋우겠다.

32:22 내 분노로 불길이 타올라 가장 깊은 스올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출을 삼키고 산들의 기초까지 불태울 것이다.

32:23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 화살들을 다 쏘아 그들을 칠 것이다.

32:24 그들은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타는 열기와 참혹한 파멸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빨과 흙먼지 속을 기어 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32:25 밖에서는 칼이 자식을 빼앗아 가고, 방 안에서는 공포가 덮쳐, 젊은 남자와 처녀, 젖먹이와 백발 노인까지 다 멸할 것이다.

32:26 내가 '그들을 흩어 버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겠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32:27 원수들의 도발과 대적들이 오판하여 '우리의 손이 높아진 것이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였을 것이다."

32:28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며, 그들 속에는 지각이 없다.

32:29 그들이 지혜로워 이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마지막 종말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32: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넘기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32:31 참으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니, 우리의 원수들조차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32: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서 자란 것이니,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요 그 송이는 쓰디쓰다.

32: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맹독이다.

32:34 "이것이 내 곁에 쌓여 있고, 내 보물 창고 속에 봉해져 있지 아니한가?

32:35 보복과 응징은 내 것이니,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에게 임할 파멸이 급히 닥쳐오고 있다."

32:36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다 빠지고 갇힌 자나 풀려난 자나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실 때, 친히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32:37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

32:38 그들이 바친 제물의 기름을 먹고 전제물로 바친 포도주를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 보아라!

32:39 이제 보아라, 나 곧 내가 그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니, 내 손에서 빼낼 자가 아무도 없다.

32:40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영원히 살아 있음을 두고 선언한다.

32:41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고 내 손으로 심판을 틀어쥐면, 내 대적들에게 보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겠다.

32:42 내 화살들이 피에 취하게 하겠고, 내 칼은 살코기를 삼킬 것이니, 곧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의 피요 적군 지휘관들의 머리에서 흘린 피다."

32:43 너희 민족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실 것이다.

32:44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와서 백성의 귀에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32:45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해 주었다.

32:46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32:47 이것은 여러분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여러분의 날이 길어질 것입니다."

32:48 바로 그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2:49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32:50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32: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게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32:52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3장

33:1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축복이다.

33:2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그들을 향해 솟아오르셨다.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수만 명의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오셨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

33:3 참으로 주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신다. 모든 거룩한 성도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저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33: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물려받은 유업이다.

33:5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여수룬의 왕이 되셨다.

33:6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그의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33:7 이것은 유다를 위한 축복이다. 그가 말하였다. "주님, 유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가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웠으니,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맞서는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33:8 레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둠밈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종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맛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므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33:9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기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33:10 그들이 주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물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릴 것입니다.

33:11 주님, 그의 재능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3:12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주시고, 그분의 어깨 사이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33:13 요셉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땅이 주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보물과 이슬을 얻고, 아래에 누워 있는 깊은 바다의 샘을 얻기를 바란다.

33:14 햇빛이 무르익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마다 거두는 귀한 소산의 복을 받으며,

33:15 옛 산의 으뜸가는 선물과 영원한 언덕의 귀한 보물의 복을 받고,

33:16 땅의 귀한 것들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의 복, 그리고 가시덤불 가운데 계시던 분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의 정수리 위에 내리기를 바란다.

33:17 그의 첫 수소는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다. 그 뿔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몰아낼 것이니, 이들은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요 므낫세의 수천 명이다."

33:18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고, 잇사갈아, 너는 네 장막 안에 머묾을 기뻐하라.

33:19 그들이 뭇 백성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33:20 갓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갓은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누워 팔과 정수리를 찢어발긴다.

33:21 그는 자기를 위하여 가장 좋은 첫 몫을 마련하였으니, 거기에 지도자의 몫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법도를 집행하였다."

33:22 단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33:23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듬뿍 받고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찬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33:24 아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은 자녀의 복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발을 기름에 담그기를 바란다.

33:25 네 문빗장은 쇠와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네 힘이 계속될 것이다.

33:26 "여수룬이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드높은 위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거처가 되시니, 그분의 영원한 팔이 너를 떠받치신다. 그분이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멸망시켜라!' 하고 명령하셨다.

33:28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솟아오르고, 그분의 하늘은 이슬을 떨군다.

33:29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너를 도우시는 방패이시며, 네 영광을 드높이는 칼이시다. 네 원수들이 네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을 것이다."

34장

34:1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 주셨다.

34: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에 이르는 유다 온 땅과,

34:3 남쪽 지역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 주셨다.

34: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였으나, 너는 저곳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34:5 그리하여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34:6 주님께서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34:7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34:8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야에서 삼십 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였으며, 마침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며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다.

34: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며 순종하였다.

34:10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사람이었다.

34:11 주님께서는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34:12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권능의 손과 온갖 두려운 일을 다 행하였다.

여호수아

1장

1:1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1:4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헷 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큰 바다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해 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1: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하여 차지하게 할 것이다.

1:7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번영할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1: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담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1: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1:11 "진영 가운데를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1:12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도 말하였다.

1:13 "주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1:14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녀와 가축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준 땅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모든 용감한 용사는 무기를 들고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1:15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그들도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하십시오. 그런 뒤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준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1: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도자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으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1:17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지도자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지도자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도자님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1:18 누구든지 지도자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도자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장

2: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저 땅과 여리고를 살펴보아라." 그들은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

2: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2: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게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2:4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 두고 말하였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2:5 성문을 닫을 무렵 어두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6 그러나 여인은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줄기 밑에 숨겨 놓은 뒤였다.

2:7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로 가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추격하는 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사람들은 성문을 닫았다.

2:8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그들에게 올라왔다.

2:9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여러분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여러분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2:10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홍해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어떻게 행하여 그들을 전멸시켰는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2:11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여러분 때문에 아무에게도 더는 용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2 그러니 이제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였으니, 여러분도 내 아버지의 집안을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게 확실한 표를 주십시오.

2:13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2:14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 목숨을 대신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2:15 여인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어서 여인이 성벽 위에 살고 있었으므로, 여인은 창문으로 줄을 드리워 그들을 달아내렸다.

2:16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산으로 가십시오. 뒤쫓는 자들이 여러분을 마주치지 않도록,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숨어 계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2:17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에게 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2:18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사람을 네 집에 모아 두어라.

2:19 누구든지 네 집 문밖으로 나가 거리로 가는 사람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2:20 하지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하게 한 그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이다."

2:21 여인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두었다.

2:22 그들은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추격자들은 길을 따라 두루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2:23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2: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3장

3:1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싯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에 이르렀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진을 쳤다.

3:2 사흘 뒤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로 두루 다니며,

3:3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뒤따르십시오.

3:4 그러나 여러분과 궤 사이의 거리가 약 이천 규빗이 되게 하고, 궤에 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3: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3:6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3:7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높이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3:8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 물속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어라.'"

3: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3:10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이것으로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11 보라, 온 땅의 주이신 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간다.

3:12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라.

3:13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아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무더기로 솟아오를 것이다."

3:14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3:15 궤를 멘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 내내 언덕까지 물이 넘쳐흘렀다),

3:16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사르단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고, 아라바 바다, 곧 염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하여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3:17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온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4장

4:1 온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4:2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라.

4:3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열두 개를 집어 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건너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어라.'"

4:4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열두 사람을 불렀다.

4: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자 돌 하나씩 주워 어깨에 메라.

4:6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4:7 너희는 그들에게 '요단강 물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4:8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맞추어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집어 들고, 자기들이 묵을 곳으로 가져가 거기에 내려놓았다.

4:9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도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4:10 궤를 멘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서둘러 건너갔다.

4:11 온 백성이 완전히 건너간 뒤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너갔다.

4: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4:13 무장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한 약 사만 명이 주님 앞에서 건너가 여리고 평야에서 싸우려고 나아갔다.

4:14 그날에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으므로,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두려워하였다.

4:15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4:16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4:17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하고 명령하였다.

4:18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이전처럼 온 강둑에 넘쳐흘렀다.

4: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4:20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4:21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4:22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4:23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4: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5장

5:1 요단강 서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는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5:2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5:3 여호수아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포피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5:4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뒤 길을 가는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

5:5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뒤 길을 가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5:6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의 온 민족이 다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으니,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5:7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키신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할례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5:8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영 안의 자기 처소에 머물렀다.

5:9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 버렸다." 그리하여 그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다.

5:10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5:11 유월절 다음 날, 바로 그날에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로 만든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5:12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으며, 그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5:13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있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수들 편입니까?"

5:14 그가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군대 지휘관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5:15 주님의 군대 지휘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6장

6:1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6:2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맹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6: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주위를 돌아 성읍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6:4 제사장 일곱 명은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읍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6:5 그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온 백성이 큰 함성으로 외쳐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야 한다."

6: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제사장 일곱 명은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메고 나아가십시오."

6:7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전진하십시오! 성읍 주위를 도십시오. 무장한 군사들은 주님의 궤 앞에서 앞서 나아가십시오."

6: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마치자, 주님 앞에서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멘 일곱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6:9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 걸어갔고, 후군은 궤 뒤를 따랐으며, 나팔들은 행진하는 내내 소리를 내었다.

6: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까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너희는 외쳐야 한다."

6:11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가 성읍 주위를 한 번 돌게 하였다. 그런 뒤에 그들은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밤을 보냈다.

6: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주님의 궤를 메었다.

6:13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멘 일곱 제사장은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군사들은 그들보다 앞서 걸어갔고, 후군은 주님의 궤 뒤를 따랐으며, 나팔들은 행진하는 내내 소리를 내었다.

6:14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엿새 동안 이렇게 행하였다.

6:15 일곱째 날에는 그들이 동틀 녘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일곱 번 돌았다. 성읍을 일곱 번 돈 것은 오직 그날뿐이었다.

6: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읍을 주셨습니다!

6:17 이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서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만은 살려 줄 것이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6:18 그러나 여러분은 전멸시켜 바칠 물건들에 손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을 바친 뒤에 바쳐진 물건 중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를 받아 재난을 겪게 될까 염려됩니다.

6:19 모든 은과 금, 놋과 쇠로 된 그릇들은 주님께 거룩한 것이니, 주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6:20 그리하여 백성은 외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으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였다.

6:21 그들은 칼날로 성읍 안에 있던 모든 것, 곧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전멸시켰다.

6: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6:23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족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6:24 그들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다만 은과 금, 놋과 쇠로 된 그릇들만 주님의 집 곳간에 두었다.

6:25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려 주었다. 라합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6:26 그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말하였다.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성읍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6:27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7장

7: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쳐진 물건들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바쳐진 물건 얼마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타올랐다.

7: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벧엘 동쪽 벧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였다.

7:3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온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삼천 명쯤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으니 온 백성을 다 그곳으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7:4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삼천 명쯤이 그리로 올라갔으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7:5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서른여섯 명쯤을 쳐죽였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그들을 쫓아가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처럼 되었다.

7:6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저녁때까지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썼다.

7:7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슬픕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끌어 내시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족하며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7:8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쳤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7:9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10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7:11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그들은 바쳐진 물건 중 얼마를 가져갔고,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들 사이에 두었다.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하고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니,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도록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7:13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바쳐진 물건이 있다. 너희가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치우기 전에는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7:14 아침에 너희는 지파별로 나아와야 한다. 주님께서 뽑으시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아오고, 주님께서 뽑으시는 가문은 집안별로 나아오며, 주님께서 뽑으시는 집안은 각 사람별로 나아와야 한다.

7:15 바쳐진 물건을 가지고 뽑힌 사람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하니,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라."

7:16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7:17 그가 유다의 가문들을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가족이 뽑혔고, 세라 가족을 남자별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7:18 그가 삽디의 집안을 남자별로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7: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제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죄를 자백하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지금 내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말라!"

7: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행한 일은 이러합니다.

7:21 노획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시날의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무게가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이 제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7:22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자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갔다.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7:23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한가운데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7:24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자손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7: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혔느냐? 주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으며, 그들을 불태우고 돌로 쳤다.

7:26 그들이 그의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8:1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담하지 말라.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8: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그곳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차지하라. 성읍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8:3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용맹한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8:4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보라, 너희는 성읍 뒤쪽에서 성읍을 향해 매복하되,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모두 준비하고 있으라.

8:5 나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성읍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8:6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뒤쫓아 성읍에서 멀리 유인될 것이니, 그들이 '저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치거든,

8:7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차지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8:8 너희가 성읍을 점령하거든 성읍에 불을 지르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8:9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가서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아이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밤을 백성 가운데서 보냈다.

8:10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보다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8:11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가 올라가 성읍에 가까이 다가가서 성읍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와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8:12 여호수아가 오천 명쯤을 데려다가 성읍 서쪽 벧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8:13 그리하여 그들은 성읍 북쪽에 온 군대를 배치하고, 성읍 서쪽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8:14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와 그의 온 백성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아라바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아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쪽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8: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8:16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뒤쫓으려고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뒤쫓다가,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8:17 아이나 벧엘에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뒤쫓았다.

8:18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를 향하여 뻗으라. 내가 그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창을 성읍을 향하여 뻗었다.

8:19 그가 손을 뻗자마자 복병이 매복한 곳에서 급히 일어나 달려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고, 서둘러 성읍에 불을 질렀다.

8: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보라,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백성은 뒤쫓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다.

8: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 것과 성읍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쳐죽였다.

8:22 다른 사람들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서 싸우니,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갇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살아남거나 도망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였다.

8:23 그들은 아이 왕을 산 채로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8:24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뒤쫓던 광야의 들판에서 아이의 모든 주민을 다 죽이고, 그들이 칼날에 다 쓰러져 멸망할 때까지 친 뒤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성읍을 칼날로 쳤다.

8:25 그날 쓰러진 사람은 남녀를 합쳐 모두 만 이천 명이었으니, 곧 아이의 모든 사람이었다.

8: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창을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8:27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획물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차지하였다.

8:28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황폐한 채로 남아 있다.

8:29 그는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8:30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8:31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제단 위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8:32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가 쓴 율법의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들 위에 베껴 썼다.

8:33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주님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양쪽에 섰는데,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다 마찬가지였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였다.

8:34 그 뒤에 그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8:35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머물던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

9장

9:1 요단강 서쪽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 대해의 온 해안에 있던 모든 왕, 곧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9:2 그들은 함께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한마음으로 싸우려 했다.

9:3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4 꾀를 내어 행동했다. 그들은 마치 사절단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를 나귀에 싣고, 찢어져서 기운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챙겼다.

9:5 또 발에는 낡아서 기운 샌들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양식으로 준비한 빵은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9:6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9: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 근처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9: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9:9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종들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9:10 또한 그분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들었습니다.

9:11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행에 쓸 양식을 손에 챙겨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9:12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출발하던 날 집에서 양식으로 챙겨 온 이 빵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라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9:13 우리가 포도주를 채운 이 가죽 부대들도 새것이었으나, 보십시오,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샌들도 여행이 너무 길어서 다 낡았습니다."

9: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얼마간 받아 맛보았지만, 주님의 입에 뜻을 묻지 않았다.

9:15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었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다.

9:16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운 이웃이며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9:17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는데, 그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랏여아림이었다.

9:18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했다. 이에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9:19 그러자 모든 지도자가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9:20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 때문에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9:21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을 살려두어라" 하고 말했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가 되었다.

9: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는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9:23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9: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종들이 분명히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9:25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9: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죽이지 못하게 했다.

9:27 그날 여호수아는 회중을 위하고, 또 주께서 택하실 곳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위해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긷는 자로 삼았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0장

10:1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다는 것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10:2 기브온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들처럼 큰 성읍이었고, 아이보다 더 컸으며, 그곳 남자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10:3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10: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10:5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였다. 이 왕들은 온 군대와 함께 올라와 기브온 맞은편에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했다.

10:6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10:7 이에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모든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10:8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네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10:9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군하여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10:10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렀고, 벧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다.

10: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벧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그들 위에 쏟아부으셔서 그들이 죽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10:12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10:13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 머물며 거의 하루 동안 지지 않았다.

10:14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10: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0:16 그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10:17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알렸다.

10:18 여호수아가 말했다. "동굴 입구에 큰 돌들을 굴려 막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라.

10:19 그러나 너희는 거기 머물지 말고 원수들을 추격하여 후미를 공격하라.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10: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전멸시키고,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가 요새화된 성읍들로 들어갔을 때,

10:21 온 백성이 무사히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슬러 혀를 놀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10:22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했다.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다섯 왕을 동굴에서 내게로 끌어내라."

10: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냈다.

10: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라.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다.

10: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담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같이 행하실 것이다."

10:26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죽이고 다섯 나무에 매달았으며, 그들은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10:27 해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던져 넣고 동굴 어귀에 큰 돌들을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10:28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쳤다. 그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다.

10:29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를 떠나 립나로 건너가서 립나와 맞서 싸웠다.

10:30 주님께서 그 성읍과 그 왕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그곳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왕에게도 행했다.

10:31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를 떠나 라기스로 건너가서 그곳 맞은편에 진을 치고 싸웠다.

10:32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둘째 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곳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쳐서, 립나에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다.

10:33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10:34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그곳 맞은편에 진을 치고 싸웠다.

10:35 그들은 그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쳤다. 여호수아는 라기스에 행한 것과 똑같이, 그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했다.

10:36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맞서 싸웠다.

10:37 그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에글론에 행한 것과 똑같이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곳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했다.

10:38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맞서 싸웠다.

10:39 그는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드빌과 그 왕에게 행했고,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다.

10:40 이처럼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남쪽 지역과 평지와 비탈진 땅과 그 모든 왕을 쳤다. 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숨 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10:41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또 고센의 온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10:42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점령했다.

10:43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11: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11:2 또한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고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보냈으며,

11: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산지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리고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도 보냈다.

11:4 그들은 자기들의 온 군대,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과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나왔다.

11:5 이 모든 왕이 연합하여 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11:6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11:7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용사를 이끌고 메롬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공격했다.

11:8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11:9 여호수아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로 태웠다.

11:10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11:11 그들은 그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멸하였으니, 숨 쉬는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하솔을 불태웠다.

11:12 여호수아는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왕들을 사로잡아 칼날로 치고 완전히 멸하였으니,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11:13 그러나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은 하솔을 빼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11:14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읍들의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자기들을 위한 노획물로 삼았으나, 사람은 모두 칼날로 쳐서 전멸시켜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11:15 주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

11:16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 온 땅, 곧 산지와 남쪽 지역 전체와 온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점령했으니,

11:17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 이르기까지였다. 그는 그곳의 모든 왕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11:18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다.

11:19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했다.

11:20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러 나온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셨기 때문이다.

11:21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곧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 성읍들과 함께 완전히 멸했다.

11: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얼마간 남아 있었다.

11:23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온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마침내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12장

12:1 이스라엘 자손이 쳐부수고 해 뜨는 쪽 요단강 건너편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와 동쪽의 온 아라바를 차지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12:2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강까지 길르앗의 절반을 다스렸고,

12:3 동쪽으로 긴네롯 호수까지의 아라바와, 동쪽으로 벧여시못 쪽 아라바 바다 곧 염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비스가 비탈 아래를 다스렸다.

12:4 또 르바임의 남은 자손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의 영토가 있었는데,

12:5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을 다스려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에 이르렀고, 길르앗의 절반 곧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12:6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12: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까지 쳐부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구분에 따라 소유지로 주었으니,

12:8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비탈길과 광야와 남쪽 지역, 곧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다.

12:9 여리고 왕 하나, 벧엘 곁에 있는 아이 왕 하나,

12:10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12:11 야르뭇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12:12 에글론 왕 하나, 게셀 왕 하나,

12:13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12:14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12:15 립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12:16 막게다 왕 하나, 벧엘 왕 하나,

12:17 답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12:18 아벡 왕 하나, 라사론 왕 하나,

12:19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12:20 시므론므론 왕 하나, 악삽 왕 하나,

12:21 다아낙 왕 하나, 므깃도 왕 하나,

12:22 게데스 왕 하나, 갈멜의 욕느암 왕 하나,

12:23 돌의 고지에 있는 돌 왕 하나, 길갈의 고임 왕 하나,

12:24 디르사 왕 하나로, 모든 왕은 서른한 명이었다.

13장

13:1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 있다.

13:2 아직 남아 있는 땅은 이러하다. 곧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땅,

13:3 애굽 앞의 시홀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군주, 곧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글론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이며,

13:4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라에서부터 아벡을 지나 아모리 사람의 경계까지,

13:5 또 그발 사람의 땅과 해 뜨는 쪽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이며,

13:6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에 사는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이다. 내가 친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13:7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13: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서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다.

13:9 곧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에서부터,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온 평원과,

13:10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에서부터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이며,

13:11 또 길르앗과 그술 사람 및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온 바산이며,

13:12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옥의 바산 온 왕국이다. 그는 르바임의 남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자였는데,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다.

13:1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13: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은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드리는 불로 태워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13:15 모세는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땅을 주었다.

13:16 그들의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에서부터 메드바 곁의 온 평원과,

13:17 헤스본과 평원에 있는 그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바알, 벧바알므온,

13:18 야핫, 그데못, 메바앗,

13:19 기랴다임, 시브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렛사할,

13:20 벧브올, 비스가 비탈, 벧여시못이며,

13:21 평원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온 왕국이다. 모세는 시혼과 함께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지도자들, 곧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를 쳤으니, 이들은 시혼의 제후들이었다.

13:22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전사자들과 함께 브올의 아들인 점술가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13:23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과 그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기업이며, 그 성읍들과 마을들이다.

13:24 모세는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문별로 땅을 주었다.

13:25 그들의 경계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 땅의 절반, 곧 랍바 근처의 아로엘까지이며,

13:26 헤스본에서부터 라맛미스베와 브도님까지, 그리고 마하나임에서부터 드빌 경계까지이며,

13:27 골짜기에서는 벧하람, 벧님라, 숙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의 남은 땅과 요단강 및 그 강가로부터 요단강 동쪽 긴네롯 호수 끝에 이르기까지였다.

13:28 이것이 갓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기업이며, 그 성읍들과 마을들이다.

13:29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것이다.

13:30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 예순 개 성읍이며,

13:31 길르앗 절반과 바산에 있던 옥의 왕국 성읍들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였다.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문별로 받은 것이다.

13:32 이것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다.

13:33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14장

14: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물려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은 이러하다.

14:2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14:3 모세가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4:4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살 성읍들과 가축 및 재산을 둘 목초지 말고는 아무 몫도 주지 않았다.

14:5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땅을 나누었다.

14:6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주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아십니다.

14:7 주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냈을 때 내 나이 마흔 살이었는데, 나는 내 마음에 품은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14: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주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14:9 그날 모세는 맹세하며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참으로 네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4:10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던 동안 주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마흔다섯 해 동안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든다섯 살입니다.

14: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때 내 힘이 지금도 여전하여, 싸우러 나가고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4:12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 들으셨듯이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4:13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14:14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날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14: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15장

15:1 유다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에돔 경계까지, 곧 남쪽으로 맨 끝에 있는 신 광야까지 이르렀다.

15:2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끝, 곧 남쪽을 향한 만에서부터 시작되어,

15:3 아그랍빔 언덕 남쪽으로 나가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고,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꺾였다.

15:4 그리고 아스몬을 지나 애굽 시내로 나아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르렀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15:5 동쪽 경계는 염해로서 요단강 끝까지이며, 북쪽 경계는 요단강 끝에 있는 바다의 만에서 시작되었다.

15:6 그 경계는 벧호글라로 올라가 벧아라바 북쪽을 지나고,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로 올라갔다.

15:7 또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향하여 시내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길 맞은편 길갈을 마주보고, 엔세메스 샘으로 이어져 엔로겔에서 끝났다.

15:8 그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여부스 곧 예루살렘 곁으로 올라갔고, 또 서쪽으로 힌놈 골짜기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북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끝에 있었다.

15:9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경계가 넵도아 물 샘으로 뻗어나가 에브론산의 성읍들로 나아갔고, 또 바알라 곧 기랏여아림으로 이어졌다.

15:10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일산에 이르러 북쪽으로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을 지나 벧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났다.

15:11 또 그 경계는 북쪽으로 에그론 곁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뻗어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로 나아갔으니, 그 끝이 바다에 이르렀다.

15:12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선이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둘러싼 사방의 경계였다.

15:13 여호수아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몫을 주었으니, 곧 아낙의 아버지 이름을 딴 기랏아르바이며, 이곳은 헤브론이다.

15:14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의 소생인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냈다.

15:15 그는 거기서 드빌 주민들을 치러 올라갔는데,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랏세벨이었다.

15:16 갈렙이 말했다.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15: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 성읍을 점령했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15:18 악사가 올 때 남편을 재촉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

15:19 악사가 대답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쪽 땅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다.

15:20 이것이 유다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기업이다.

15:21 유다 자손 지파가 남쪽 에돔 경계 쪽으로 차지한 가장 끝 성읍들은 갑스엘, 에델, 야굴,

15:22 기나, 디모나, 아다다,

15:23 게데스, 하솔, 잇난,

15:24 십, 델렘, 브알롯,

15:25 하솔하닷다, 그리욧헤스론 곧 하솔,

15:26 아맘, 세마, 몰라다,

15:27 하살갓다, 헤스몬, 벧벨렛,

15:28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디야,

15:29 바알라, 이임, 에셈,

15:30 엘돌랏, 그실, 호르마,

15:31 시글락, 맛만나, 산산나,

15:32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으로, 모든 성읍이 스물아홉 개였고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15:33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15:34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15:35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15:36 사아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또는 그대로다임이니, 열네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37 스난, 하다사, 믹달갓,

15:38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15:39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15:40 갑본, 라맘, 기들리스,

15:41 그데롯, 벧다곤, 나아마, 막게다이니, 열여섯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42 립나, 에델, 아산,

15:43 입다, 아스나, 느십,

15:44 그일라, 악십, 마레사이니, 아홉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45 에그론과 그에 딸린 읍들과 마을들,

15: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곳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47 아스돗과 그에 딸린 읍들과 마을들, 가사와 그에 딸린 읍들과 마을들이었으니, 애굽 시내와 대해 및 그 해안선까지 이르렀다.

15:48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15:49 단나, 드빌인 기럇산나,

15:50 아납, 에스드모, 아님,

15:51 고센, 홀론, 길로이니, 열한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52 아랍, 두마, 에산,

15:53 야님, 벧답부아, 아베가,

15:54 훔다, 헤브론인 기럇아르바, 시올이니, 아홉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55 마온, 갈멜, 십, 유다,

15:56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15:57 가인, 기브아, 딤나이니, 열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58 할훌, 벧술, 게돌,

15:59 마아랏, 벧아놋, 엘드곤이니, 여섯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60 기럇여아림인 기럇바알, 랍바이니, 두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61 광야에는 벧아라바, 밋딘, 스가가,

15:62 닙산, 소금 성읍, 엔게디이니, 여섯 개 성읍과 딸린 마을들이었다.

15:63 그러나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16장

16:1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강, 곧 동쪽 여리고의 샘물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서부터 산지를 거쳐 벧엘로 올라갔다.

16:2 그리고 벧엘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16:3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의 경계로 내려가서 아래 벧호론의 경계와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이 바다에 닿았다.

16:4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기업을 받았다.

16:5 에브라임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 기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앗달에서부터 위 벧호론에 이르고,

16:6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의 믹므닷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실로에 이르고, 야노아 동쪽을 지나갔다.

16:7 또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닿아서 요단강으로 나아갔다.

16:8 답부아에서부터 그 경계가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 나아가 바다에서 끝났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기업이다.

16:9 이 밖에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므낫세 자손의 기업 한가운데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읍과 그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16:10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땅 가운데 살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17장

17:1 므낫세 지파를 위한 제비뽑기 결과는 이러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다.

17:2 므낫세 자손 가운데 남은 이들에게도 가문별로 몫이 돌아갔다. 곧 아비에셀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 자손, 세겜 자손, 헤벨 자손, 스미다 자손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가문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었다.

17:3 그런데 므낫세의 증손이자 마길의 손자이며 길르앗의 아들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17:4 그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17:5 그리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돌아갔다.

17:6 므낫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속했다.

17:7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맞은편 믹므닷까지 이어졌다. 그 경계는 오른쪽으로 나아가 엔답부아 주민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다.

17:8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17:9 그 경계는 가나 시내로 내려가 시내 남쪽으로 이어졌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는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했다. 므낫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에 있었으며 바다에서 끝났다.

17:10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었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이었으며, 바다가 그 경계였다. 그들은 북쪽으로는 아셀에 닿았고 동쪽으로는 잇사갈에 닿았다.

17:11 므낫세는 잇사갈과 아셀 안에도 차지한 곳이 있었다. 곧 벧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들, 돌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 엔돌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 다아낙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 므깃도 주민과 그 주변 마을들로, 세 언덕 지역이었다.

17: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았다.

17: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17: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 하나와 한 몫만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까?"

17: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큰 무리라면, 에브라임 산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좁다면, 숲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땅을 개간하십시오."

17:16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골짜기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은 벧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에 있는 사람이든 이스르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철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17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큰 무리이며 큰 힘을 지녔으니 한 몫의 제비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17:18 그 산지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숲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베어 내면 그 끝까지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8장

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장막을 세웠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어 복종하게 되었다.

18: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 자기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18: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18:4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 지파가 받을 유산에 따라 땅을 조사하여 기록한 뒤 내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18:5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유다는 남쪽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집안은 북쪽 자기 영토에 머물러야 합니다.

18:6 여러분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것을 이곳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제비를 뽑겠습니다.

18:7 그러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운데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18:8 그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조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조사하여 기록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곳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제비를 뽑겠습니다."

18:9 그 사람들은 길을 떠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일곱 몫으로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8: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18:11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제비가 뽑혔다. 그들이 뽑은 몫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자리 잡았다.

18:12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 그 경계는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지나 벧아웬 광야에서 끝났다.

18:13 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루스로 이어져 루스(곧 벧엘)의 비탈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래 벧호론 남쪽에 있는 산을 따라 아다롯앗달로 내려갔다.

18:14 그 경계는 더 뻗어 나가 벧호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부터 서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꺾여,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랏바알(곧 기랏여아림)에서 끝났다. 이것이 서쪽 지역이었다.

18:15 남쪽 지역은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샘으로 이어졌다.

18:16 그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곧 북쪽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산 끝자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 여부스 사람의 남쪽 비탈을 지나 엔로겔로 내려갔다.

18:17 이어 북쪽으로 뻗어 나가 엔세메스로 나아가고, 아둠밈 비탈길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로 내려갔다.

18:18 또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 비탈을 따라 지나가 아라바로 내려갔다.

18:19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벧호글라 비탈을 따라 지나가, 요단강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만에서 끝났다.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18:20 동쪽 지역의 경계는 요단강이었다. 이것이 사방 경계에 따라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18:21 베냐민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 벧호글라, 에멕그십,

18:22 벧아라바, 스마라임, 벧엘,

18:23 아위, 바라, 오브라,

18:24 그발암모니, 오브니, 게바였으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8:25 또 기브온, 라마, 브에롯,

18:26 미스베, 그비라, 모사,

18:27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18:28 셀라, 엘렙, 여부스(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랏이었으니, 모두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이것이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19장

19:1 둘째 제비는 시므온, 곧 가문별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뽑혔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유산 한가운데에 있었다.

19:2 그들이 유산으로 얻은 곳은 브엘세바(또는 세바), 몰라다,

19:3 하살수알, 발라, 에셈,

19:4 엘돌랏, 브둘, 호르마,

19:5 시글락, 벧말가봇, 하살수사,

19:6 벧르바옷, 사루헨이었으니, 모두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7 또 아인, 림몬, 에델, 아산이었으니,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8 또한 바알랏브엘(곧 남쪽 지역의 라마)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던 모든 마을도 포함되었다. 이것이 시므온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다.

19:9 시므온 자손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몫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유산 한가운데서 유산을 얻었다.

19:10 셋째 제비는 스불론 자손을 위해 가문별로 뽑혔다. 그들의 유산 경계는 사릿까지 이르렀다.

19:11 그 경계는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셋에 닿았으며, 욕느암 맞은편에 있는 시내에 닿았다.

19:12 또 사릿에서부터 해 뜨는 쪽인 동쪽으로 돌아서 기슬롯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갔다.

19:13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잇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뻗어 있는 림몬으로 나아갔다.

19:14 그 경계는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서 끝났다.

19:15 또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이었으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16 이것이 스불론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17 넷째 제비는 잇사갈, 곧 가문별로 잇사갈 자손을 위해 뽑혔다.

19:18 그들의 경계는 이스르엘, 그술롯, 수넴,

19:19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라,

19:20 랍빗, 기시온, 에베스,

19:21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벧바셋으로 이어졌다.

19:22 그 경계는 다볼, 사하시마, 벧세메스에 닿았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강이었다.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23 이것이 잇사갈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24 다섯째 제비는 아셀 자손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뽑혔다.

19:25 그들의 경계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19:26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었으며, 서쪽으로는 갈멜에 닿고 시홀립낫에 닿았다.

19:27 또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벧다곤에 이르고 스불론에 닿았으며,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벧에멕과 느이엘에 닿았고, 왼쪽으로 가불에 이르렀다.

19:28 이어 에브론, 르호브,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렀다.

19:29 그 경계는 라마로 돌아서 요새 성읍 두로에 이르렀고, 다시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역의 바다에서 끝났다.

19:30 또한 움마, 아벡, 르호브였으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31 이것이 아셀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32 여섯째 제비는 납달리 자손, 곧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을 위해 뽑혔다.

19:33 그들의 경계는 헬렙에서부터, 곧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와 아다미네겜과 얌느엘에서부터 락굼까지 이어졌고 요단강에서 끝났다.

19:34 그 경계는 서쪽으로 아스놋다볼로 돌아서 거기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갔다. 남쪽으로는 스불론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아셀에 닿았으며, 해 뜨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 유다에 닿았다.

19:35 요새 성읍들은 싯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19:36 아다마, 라마, 하솔,

19:37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19:38 이론, 믹달엘, 호렘, 벧아낫, 벧세메스였으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39 이것이 납달리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40 일곱째 제비는 단 자손 지파를 위해 가문별로 뽑혔다.

19:41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19:42 사알랍빈, 아얄론, 이들라,

19:43 엘론, 딤나, 에그론,

19:44 엘드게, 깁브돈, 바알랏,

19:45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19:46 메얄곤, 라꼰과 함께 욥바 맞은편 경계였다.

19:47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에게서 더 뻗어 나갔다.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차지한 뒤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19:48 이것이 단 자손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9:49 이렇게 그들은 각 경계에 따라 유산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다.

19:50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딤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19:51 이것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곧 만남의 장막 문 앞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한 유산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

20장

20:1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0:2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정하여라.

20:3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의 보복자를 피할 도피처가 될 것이다.

20:4 그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도망하면,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맞아들여 그들 가운데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5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에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부지중에 쳤기 때문이다.

20:6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야 한다. 그 뒤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자기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7 그리하여 그들은 갈릴리의 납달리 산지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아르바(곧 헤브론)를 구별하여 정했다.

20:8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야 광야에 있는 베셀을,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지정했다.

20:9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성읍들이었으니,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나 그곳으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21장

21:1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21:2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우리가 살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21:3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유산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21:4 고핫 사람들의 가문을 위해 제비가 뽑혔다.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얻었다.

21:5 고핫의 나머지 자손은 제비뽑기를 통해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들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성읍을 얻었다.

21:6 게르손 자손은 제비뽑기를 통해 잇사갈 지파의 가문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얻었다.

21:7 므라리 자손은 가문별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열두 성읍을 얻었다.

21:8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21:9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 이름이 지정된 이 성읍들을 주었다.

21:10 이 성읍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사람의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의 몫이 되었다. 첫째 제비가 그들에게 뽑혔기 때문이다.

21:11 그들은 유다 산지에 있는 아낙의 아버지 이름을 딴 기랏아르바(곧 헤브론)와 그 주변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21:12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판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그의 소유로 주었다.

21:13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립나와 그 목초지,

21:14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21:15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21:16 아인과 그 목초지, 윳다와 그 목초지, 벧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 두 지파에서 나온 성읍이 아홉이었다.

21:17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 게바와 그 목초지,

21:18 아나돗과 그 목초지, 알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19 제사장들인 아론 자손의 모든 성읍은 그 목초지와 함께 열세 성읍이었다.

21:20 레위 사람인 고핫 자손의 가문들 가운데 남은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비뽑기로 성읍들을 얻었다.

21:21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게셀과 그 목초지,

21:22 깁사임과 그 목초지, 벧호론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23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와 그 목초지, 깁브돈과 그 목초지,

21:24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25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다아낙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었다.

21:26 남은 고핫 자손의 가문들이 얻은 모든 성읍은 그 목초지와 함께 열 성읍이었다.

21:27 레위 가문 가운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었다.

21:28 잇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21:29 야르뭇과 그 목초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30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21:31 헬갓과 그 목초지, 르호브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32 납달리 지파에서는 갈릴리의 살인자의 도피성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못돌과 그 목초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었다.

21:33 게르손 사람들이 가문별로 얻은 모든 성읍은 그 목초지와 함께 열세 성읍이었다.

21:34 나머지 레위 사람인 므라리 자손의 가문들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욕느암과 그 목초지, 가르다와 그 목초지,

21:35 딤나와 그 목초지, 나할랄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36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핫과 그 목초지,

21:37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었다.

21:38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21:39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셀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모두 네 성읍이었다.

21:40 이 모든 성읍은 가문별로 레위 사람들의 남은 가문인 므라리 자손의 성읍이었으며, 그들이 제비뽑기로 얻은 것은 열두 성읍이었다.

21:41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가운데 레위 사람이 얻은 모든 성읍은 그 목초지와 함께 마흔여덟 성읍이었다.

21:42 이 각 성읍마다 주변에 목초지가 딸려 있었으며, 이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다.

21:43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았다.

21:44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모든 원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 앞에 맞서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21:45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22장

22:1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22:2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22:3 여러분은 오랫동안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따른 책임을 다했습니다.

22:4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장막으로, 곧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준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22:5 다만 주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열심히 힘써 지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22:6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22:7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유산을 주었으나,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22:8 그들에게 말했다. "많은 재산과 매우 많은 가축,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매우 많은 옷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십시오."

22:9 그리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돌아갔다. 모세를 통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이 얻은 소유의 땅, 곧 길르앗 땅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22:10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부근 지역에 이르렀을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웅장한 제단이었다.

22:11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말을 들었다.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를 따라 요단강 주변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22: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려고 했다.

22:13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게 했다.

22:14 그와 함께 각 지파에서 한 족장씩 열 명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저마다 이스라엘 수천 가문 가운데 자기 조상의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22: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말했다.

22:16 "주님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배반의 죄를 짓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제단을 쌓아 오늘 주님께 반역하는 것입니까?

22:17 브올의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22:18 그런데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반역하면, 내일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22:19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소유의 땅이 부정하다면, 주님의 장막이 서 있는 주님의 소유의 땅으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얻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주님께 반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반역하지 마십시오.

22: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완전히 바칠 물건에 손을 대어 죄를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하나만 자기 죄악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21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에게 대답했다.

22:22 "전능하신 분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께 반역한 것이거나 배반한 것이라면(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22:23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또는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물을 드리거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벌을 물으실 것입니다.

22:24 우리는 염려가 되고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2:25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께 받을 몫이 없다"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22:26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제단을 하나 쌓자.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22:27 오직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우리 뒤를 이을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여,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제물과 화목 제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리하면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께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22:28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을 보아라.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일 뿐이다"라고 할 것이다.'

22:29 성막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제단 외에 번제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반역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2:30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수천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한 말을 듣고 흡족해했다.

22: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배반의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22: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했다.

22:33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기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사는 땅을 멸망시키려고 싸우러 올라가겠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22: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이에 증명하는 증거"라고 불렀다.

23장

23:1 오랜 세월이 흘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신 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

23:2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23:3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23:4 보십시오, 내가 요단강에서부터 해 지는 쪽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망시킨 모든 민족뿐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이 민족들도 여러분의 각 지파를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23:5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밀어내시고 여러분 눈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23:6 그러므로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23:7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 절하지도 마십시오.

23:8 오직 오늘날까지 행해 온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23:9 주님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아무도 여러분 앞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23:10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23:11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각별히 살펴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23:12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돌아서서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을 굳게 붙들고, 그들과 통혼하여 서로 왕래한다면,

23:13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23:14 보십시오,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 가운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23:15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절시키실 때까지 모든 재앙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23:16 곧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24장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섰다.

24:2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24:3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24:4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24:5 그 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들 가운데 행한 일대로 애굽에 재앙을 내렸으며,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24:6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뒤쫓아왔다.

24:7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셨고,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여 그들을 덮어 버리셨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뒤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24:8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24:9 그때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24:10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도리어 너희를 거듭 축복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24:11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도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24:12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24:13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곳에 살고 있으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24:14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24:15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좋지 않다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24:16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4:17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24:18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4:20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24: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24: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로 스스로 선택했으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증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24:23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24: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24:25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세웠다.

24:26 여호수아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24:27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24:28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자 자기 유산으로 돌려보냈다.

24:29 이 일들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열 살의 나이로 죽었다.

24:30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쪽에 있는 그의 유산 경계 안 딤낫세라에 묻었다.

24:31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줄곧 주님을 섬겼다.

24:3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혔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 개를 주고 산 밭이었다. 그곳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되었다.

24: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언덕에 그를 묻었다.

사사기

1장

1:1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1: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올라갈 것이다.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1:3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내게 배정된 몫의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배정된 몫의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1:4 유다가 올라가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섹에서 만 명을 쳐서 쓰러뜨렸다.

1:5 그들은 베섹에서 아도니베섹을 만나 그와 맞서 싸웠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서 물리쳤다.

1:6 그러나 아도니베섹이 도망쳤으므로 그들이 그를 뒤쫓아가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1:7 아도니베섹이 말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일흔 명의 왕들이 내 식탁 밑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주워 먹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다.

1: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그곳 사람들을 쳤으며,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1:9 그 뒤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쪽 지역과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

1:10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갔다. (그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아르바였다.) 그들은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쳐서 쓰러뜨렸다.

1:11 거기서부터 그는 드빌 주민들을 치러 갔다. (그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랏세벨이었다.)

1:12 갈렙이 말했다.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1: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1:14 악사가 올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도록 재촉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1:15 악사가 그에게 말했다. "제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남쪽 땅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1:16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나와,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가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1:17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1:18 유다는 또한 가사와 그 영토, 아스글론과 그 영토, 에그론과 그 영토를 차지했다.

1:19 주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1:20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1: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1:22 요셉 집안도 벧엘을 치러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1:23 요셉 집안이 벧엘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 전에는 루스였다.)

1:24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소."

1:25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르쳐 주자, 그들은 성읍을 칼날로 쳤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은 놓아주었다.

1:26 그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다.

1:27 므낫세는 벧스안과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 돌과 그 주변 마을 주민,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 주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끈질기게 그 땅에서 살았다.

1:28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뒤에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1:29 에브라임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았다.

1:30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살며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1:31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 그리고 압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호브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1:32 그리하여 아셀 사람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았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33 납달리는 벧세메스 주민과 벧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벧세메스와 벧아낫 주민은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1:34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35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끈질기게 머물러 살았으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강해지자 마침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1:36 아모리 사람의 국경선은 아그랍빔 언덕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어졌다.

2장

2:1 주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2:2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2: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4 주님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

2:5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고, 거기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2:6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은 제각기 자기 몫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2:7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사람들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겼다.

2:8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열 살의 나이로 죽었다.

2:9 그들은 가아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상속지 경내인 딤낫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2:10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뒤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2:11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2:12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리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절하여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2:13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2:14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 사방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 앞에 맞서지 못했다.

2:15 그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주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한 곤경에 빠졌다.

2:16 그때 주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하셨다.

2:17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사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자기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재빨리 벗어났고,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2:18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었다.

2:19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함으로써 자기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게 행했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고한 길을 버리지 않았다.

2:20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2:21 나 또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2:22 그 민족들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길을 지켜 그 길로 걷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2:23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성급하게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3장

3:1 가나안의 온갖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 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3:2 이것은 전에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한 것뿐이었다.

3:3 남겨진 민족들은 블레셋 사람의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그리고 바알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레바논산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이었다.

3:4 그들이 남겨진 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계명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시기 위함이었다.

3:5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섞여 살았다.

3:6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3:7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3:8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다.

3:9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었다.

3:10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가 싸우러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겼다.

3:11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을 누렸고, 그 뒤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다.

3: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3:13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을 자기 편으로 모으고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

3:14 이스라엘 자손은 십팔 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3: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3:16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3:17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살찐 사람이었다.

3:18 에훗은 조공 바치기를 마친 뒤에 조공을 짊어지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3:19 그러나 자신은 길갈 근처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말했다. "왕이여, 제가 왕께 드릴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조용히 하라!" 하고 명하니, 왕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다.

3:20 에훗이 왕에게 다가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제가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21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배를 찔렀다.

3:22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을 덮었으며, 칼 끝이 등 뒤로 뚫고 나왔다.

3:23 그런 다음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다락방 문들을 닫고 잠갔다.

3:24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와서 보니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틀림없이 그분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계시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3:25 그들은 부끄러울 지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왕이 다락방 문들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 보니, 그들의 군주가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3:26 그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쳐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빠져나갔다.

3:27 에훗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지에서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의 앞장을 섰다.

3:2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막았다.

3:29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쳤는데, 모두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으며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3:30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아래 굴복했고, 그 땅은 팔십 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

3:31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일어났는데,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쳐서 쓰러뜨렸다. 그 사람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4장

4:1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4:2 주님께서는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이방의 하로셋에 살고 있었다.

4:3 야빈 왕에게는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었고,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4:4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4:5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벧엘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녀에게 올라왔다.

4: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게데스 납달리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나아가 지휘하라.

4:7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많은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여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4:8 바락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4:9 그녀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는 길에서는 당신이 영예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4: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자, 만 명의 병사가 그의 뒤를 따랐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4:11 한편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들, 곧 겐 사람들에게서 갈라져 나와 게데스 곁에 있는 사아난님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4: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시스라에게 전해졌다.

4:13 시스라는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를 이방의 하로셋에서 기손강으로 불러 모았다.

4:14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왔고, 만 명의 병사가 그의 뒤를 따랐다.

4:15 주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뛰어내려 걸어서 도망쳤다.

4:16 바락은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의 하로셋까지 뒤쫓아갔고,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4:17 그러나 시스라는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18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와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제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그를 담요로 덮어 주었다.

4:19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 주시오." 그러자 그녀는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4:20 그가 또 그녀에게 말했다. "장막 문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네게 '여기 누가 있느냐?' 하고 묻거든 '없다'라고 말하여라."

4:21 그가 깊이 잠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오고 손에 망치를 들고서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땅에 꽂히게 하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4:22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왔을 때 야엘이 그를 맞으러 나가 말했다.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

4:23 이처럼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다.

4: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은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세게 짓눌렀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5장

5:1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다.

5: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바쳤으니, 주님을 찬양하라!

5:3 "왕들이여, 들으십시오! 군주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제가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4 주님,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행진하여 오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쏟았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 내렸습니다.

5:5 산들이 주님 앞에서 흔들렸으니,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5: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들에, 야엘의 날들에는 큰길에 인적이 끊겼고, 나그네들은 굽은 오솔길로 다녔다.

5:7 이스라엘에는 지휘관들이 끊어졌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날 때까지 끊어졌다.

5:8 사람들이 새 신들을 택하자 성문 앞에 전쟁이 닥쳤으나, 이스라엘 사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5: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향하니,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5:10 "흰 나귀를 타는 이들, 값진 양탄자 위에 앉는 이들, 길을 걸어가는 이들, 말하십시오.

5:11 활 쏘는 자들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물 긷는 곳에서, 그들이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할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5:12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여!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너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 포로들을 끌고 가라!'

5:13 그때에 살아남은 귀족들과 백성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을 치려고 내려오셨다.

5:14 아말렉에 뿌리를 둔 자들은 에브라임에서 나왔고, 네 백성 가운데서 베냐민이 그 뒤를 따랐다.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령의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나왔다.

5:15 잇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잇사갈이 바락과 같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렸다. 르우벤의 시냇가에서는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

5:16 네가 어찌하여 양우리 사이에 앉아서 양 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만 있었느냐?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마음에 깊은 뉘우침이 있었다.

5:17 길르앗은 요단강 너머에 머물러 있었다. 단은 어찌하여 배에 머물렀는가? 아셀은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자기 포구 곁에 머물러 있었다.

5:18 스불론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쓴 백성이요, 납달리 또한 들판의 높은 언덕에서 그러하였다.

5:19 왕들이 와서 싸웠다. 그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5:20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으니,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맞서 싸웠다.

5:21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으니, 옛 강, 곧 기손강이다.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5:22 그때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으니, 힘센 군마들이 달리고 달리는 소리다.

5:23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고 주님의 사자가 말하였다. '그 주민들을 엄하게 저주하라. 그들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주님을 도와 용사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5:24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떤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으뜸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5:25 시스라가 물을 구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었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담아 바쳤다.

5:26 그녀가 손을 뻗어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망치를 쥐었다. 망치로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었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쪼개 버렸다.

5:27 그는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 누웠다.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졌으니, 구부러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5: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내다보며 격자창 너머로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 바퀴 소리가 왜 이토록 늦어지는가?'

5:29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고, 그녀 또한 스스로 혼잣말을 하였다.

5:30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 나누지 못했을 리가 있겠는가?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테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것이다. 수놓은 화려한 채색 옷, 곧 약탈한 사람들의 목에 걸칠 양면에 수놓은 채색 옷이다.'

5:31 주님, 주님의 모든 원수는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돋아나는 해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

6장

6:1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으므로, 주님께서는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6:2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때문에 산에 있는 은신처와 동굴과 산성을 자기들의 처소로 삼았다.

6:3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

6:4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 보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땅의 농작물을 파괴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먹을거리를 남겨 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6:5 그들이 가축 떼와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낙타는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온통 황폐하게 만들었다.

6:6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극심한 곤경에 빠졌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6: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6:8 주님께서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었다.

6:9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냈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6:10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6:11 주님의 사자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6:12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너 용맹한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6:13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다. "오, 나의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지 않으셨느냐?' 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6:14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6:15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오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의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6:16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릴 것이다."

6:17 기드온이 주님께 말했다. "만약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제게 보여 주십시오.

6:18 제가 제 예물을 가져와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부디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6:19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가지고 나와 바쳤다.

6: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6:21 주님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솟아올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태워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6:22 기드온은 그분이 주님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외쳤다. "아, 슬픕니다, 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자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습니다!"

6:23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6:24 기드온은 거기서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불렀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6:25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수소, 곧 일곱 살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6:26 그런 다음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네가 찍어 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6:27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낮에는 감히 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다.

6: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이 찍혀 나갔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바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6:29 그들은 서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고 물었다. 조사하고 물어본 뒤에 그들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라고 말했다.

6: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기 때문이다."

6: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다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그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신이라면 누군가 그의 제단을 헐었으니 그 스스로 다투게 두시오!"

6:32 그리하여 그날 요아스는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와 맞서 다투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6:33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6:34 주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이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6:35 그는 온 므낫세에 전령들을 보냈고, 그들도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들을 맞으러 올라왔다.

6: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6: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의 모든 땅은 말라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6:38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양털을 꼭 쥐어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짜여 나와 그릇 하나에 물이 가득 찼다.

6:39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양털로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6:40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양털만 말라 있었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7장

7: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골짜기 안 모레 언덕 곁에 있었다.

7:2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며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7:3 그러므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라. '두려워 떨리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돌아서서 떠나가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갔고, 만 명이 남았다.

7:4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7:5 기드온이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다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다 그렇게 따로 세워라."

7:6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삼백 명이었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7:7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핥아 먹은 이 삼백 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른 백성은 모두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7:8 그리하여 삼백 명의 백성은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고,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삼백 명은 남겨 두었다. 미디안 진영은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7:9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 진영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7:10 그러나 만약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7:11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의 경계에 있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7: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7:13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쓰러뜨리고 완전히 뒤집어엎어 장막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네."

7:14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

7:15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듣고 주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7: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

7:17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진영 끝에 이를 때, 내가 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하십시오.

7:18 나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십시오."

7:19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의 용사가 밤의 중간 경점 초에 경계병들이 막 교대했을 때 진영 끝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쥐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다.

7:20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불 나팔을 든 채 외쳤다. "주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7:21 그들은 진영을 둘러싸고 각자 자기 자리에 굳게 서 있었고, 온 적군은 아우성을 치며 도망쳤다.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스레라 쪽의 벧싯다까지 도망치고, 답밧 곁에 있는 아벨므홀라의 경계에까지 도망쳤다.

7: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모여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다.

7:24 기드온은 온 에브라임 산지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보다 앞서 벧바라에 이르는 물가와 요단강을 점령하십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벧바라에 이르는 물가와 요단강을 점령했다.

7:25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았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의 포도주 틀에서 죽인 뒤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 뒤쫓았다. 그리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

8장

8: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를 거세게 비난했다.

8:2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를 주워 모은 것이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8:3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

8:4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삼백 명의 용사는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으나, 지쳐 있으면서도 계속 뒤쫓고 있었다.

8: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저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8:6 숙곳의 지도자들이 대답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아귀에라도 들어왔다는 말이오? 우리가 왜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하오?"

8:7 기드온이 말했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 내가 광야의 가시덤불과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버릴 것이오."

8:8 기드온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으나, 브누엘 사람들도 숙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했다.

8:9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여 말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 버리겠다."

8:10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고 그들의 군대 약 만 오천 명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칼을 빼든 자 십이만 명이 쓰러졌으므로 이들은 동방 사람들의 온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8:11 기드온은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사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군대를 쳤는데, 그때 그 군대는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었다.

8: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자 기드온이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8: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투를 마치고 헤레스 언덕에서 돌아왔다.

8:14 그는 숙곳 사람 가운데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캐물었다. 그 젊은이는 숙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일흔일곱 명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8: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했다. "당신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아귀에라도 들어왔다는 말이오? 우리가 왜 지친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하오?' 하며 나를 조롱했던 바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시오."

8:16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덤불과 찔레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숙곳 사람들을 응징했다.

8:17 그는 또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8:18 그런 다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는데, 하나같이 왕의 아들들의 풍채를 지녔습니다."

8:19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 두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8:20 그리고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했다.

8:21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사람은 그 힘에 걸맞아야 하는 법이오."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졌다.

8:22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8:23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8:24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하나씩 주십시오." (그 적들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8:25 그들이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겉옷을 펴고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그 위에 던졌다.

8: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천칠백 세겔에 달했다. 그 밖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귀걸이 패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줏빛 옷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목사슬들도 있었다.

8:27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8:28 이와 같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기드온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

8: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8:30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일흔 명이었다.

8:31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8: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장수하고 평안히 죽어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8:33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따랐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8:34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8:35 또한 그들은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안에 신의를 지키지도 않았다.

9장

9: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외삼촌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9:2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9:3 그의 외삼촌들이 그를 대신하여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 그들이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9:4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건달과 방탕한 자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9:5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다.

9: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세겜에 있는 기둥의 상수리나무 곁으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9:7 사람들이 이 일을 요담에게 알리자,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실 것이다.

9:8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나섰다. 나무들이 올리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말하였다.

9:9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 생산을 멈추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리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9:10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네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말하였다.

9:11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들에게 '내 단맛과 좋은 열매를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리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9:12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네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말하였다.

9:13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 새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리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9: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네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하고 말하였다.

9:15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9:16 그러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느냐?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잘 대우하였으며, 그의 손이 행한 수고에 따라 그에게 보답하였느냐?

9:17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9:18 그런데 너희는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거슬러 일어나 그의 아들 일흔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라는 이유로 그의 여종의 아들인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9:19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안을 진실하고 의롭게 대하였다면, 너희는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도 너희로 인해 기뻐하게 하라.

9:20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9:21 요담은 자기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도망쳐 브엘로 가서 그곳에 살았다.

9:22 아비멜렉은 삼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9:23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9: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에게 저지른 폭력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가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힘을 보태 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 피 흘린 죄를 묻기 위함이었다.

9:25 세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복병을 두어 그를 노리게 하였고,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털었다. 누군가 이 일을 아비멜렉에게 전하였다.

9: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건너오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

9:27 그들은 들로 나가 포도원의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포도를 밟아 축제를 열었으며, 자기 신들의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9: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인가? 그는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스불은 그의 관리관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지,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

9:29 이 백성이 내 손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쫓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을 향해 "군대를 늘려서 나와 보아라!" 하고 외쳤다.

9:30 그 성읍의 다스리는 자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9:31 그는 아비멜렉에게 몰래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와서 성읍을 충동질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9:32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함께 밤에 올라와 들에 매복하십시오.

9:33 아침에 해가 돋는 대로 일찍 일어나 성읍을 기습하십시오. 보십시오,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당신을 치러 나오면,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행하십시오."

9:3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부대로 나뉘어 세겜을 향해 매복하였다.

9: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섰을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9:36 가알이 그 무리를 보고 스불에게 "보라,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자, 스불이 그에게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9:37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라, 사람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있으며, 한 부대는 므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고 있다."

9:38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하던 네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멸시하던 그 백성이 아니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 보아라."

9:39 가알은 세겜 사람들 앞장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9:40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가알은 그 앞에서 도망쳤고, 성문 어귀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입고 쓰러진 자들이 많았다.

9: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9:42 이튿날 백성이 들로 나가자, 사람들이 이를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9:43 그는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 그가 바라보니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덮쳐 쳤다.

9:4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진하여 성문 어귀에 섰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쳤다.

9:45 아비멜렉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였다. 그는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9:46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 요새로 들어갔다.

9:47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는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9:48 아비멜렉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찍어 어깨에 멘 다음,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것을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9:49 온 백성도 저마다 나뭇가지를 하나씩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요새 기저에 그것들을 쌓아 놓고 요새에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남녀가 약 천 명이었다.

9:50 그 후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9:51 그러나 그 성읍 안에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었으므로, 성읍의 모든 남녀가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지붕으로 올라갔다.

9:52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 가까이 나아가 불을 지르려 하였다.

9:53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9:54 그는 황급히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부하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부하가 그를 찌르자 그가 죽었다.

9:55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9:5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일흔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을 갚으셨다.

9:57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의 머리 위로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10장

10: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에 살았다.

10:2 그는 이십삼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한 뒤에 죽어 사밀에 묻혔다.

10:3 그의 뒤를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0:4 그에게는 어린 나귀 삼십 마리를 타는 아들 삼십 명이 있었고 성읍 삼십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길르앗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고 불린다.

10:5 야일이 죽어 가몬에 묻혔다.

10: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10:7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다.

10:8 그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누르고 괴롭혔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십팔 년 동안 억압하였다.

10:9 암몬 자손은 또한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집안과도 싸웠으므로, 이스라엘이 몹시 곤경에 처하였다.

10:10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0:11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0:12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너희를 억압하였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10:13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0:14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10:15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다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10:16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없애고 주님을 섬겼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10:17 그때 암몬 자손이 결집하여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10:18 백성 곧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앞장서서 시작할 자가 누구인가?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11장

11:1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는 창기의 아들이었으며,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였다.

11:2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11:3 이에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해 도망쳐 돕 땅에 살았다. 건달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몰려다녔다.

11:4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11: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갔다.

11:6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오."

11:7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곤경에 처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11:8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대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웁시다. 그대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을 다스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오."

11:9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참으로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11:10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실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그대의 말대로 행할 것이오."

11:11 그리하여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말을 아뢰었다.

11: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습니까?"

11: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영토를 평화롭게 돌려다오."

11:14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11:15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11:1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렀고 가데스로 갔습니다.

11:17 그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으나, 에돔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11:18 그 뒤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압 국경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11:19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11:20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모아 야핫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11: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시혼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자, 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 지방 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11:22 그들은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11:23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당신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11:24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당신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자들이 차지했던 땅은 누구의 것이든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11:25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11: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삼백 년 동안 살았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 기간 동안 그곳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11:27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나를 쳐서 전쟁을 벌여 내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8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11:29 그때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로 건너갔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11:30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신다면,

11:31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무사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것이 될 것이며, 제가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11:32 그리하여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건너갔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11:33 그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스무 개 성읍을 쳤고, 아벨그라밈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살육을 벌였다. 이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11: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그에게는 그녀 외에 아들이나 딸이 전혀 없었다.

11:35 입다는 딸을 보자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참담하게 무너뜨렸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께 입을 열어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가 없구나."

11:36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님께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들, 곧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37 그녀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게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달만 저를 내버려 두시어, 저와 제 동무들이 산으로 내려가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 주십시오."

11:38 아버지는 "가거라" 하고 말하며 그녀를 두 달 동안 보냈다. 그녀는 동무들과 함께 떠나 산 위에서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울었다.

11:39 두 달이 지나자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11:40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기억하여 일 년에 나흘씩 가서 애곡하였다.

12장

12:1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집하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 버리겠다!"

12:2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큰 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12:3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건너갔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싸우려 하느냐?"

12:4 그리하여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서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다.

12:5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로막아 요단강 나루턱들을 장악하였다.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이 "내가 건너가게 해 주시오"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12:6 그들은 그에게 "그렇다면 '쉽볼렛'이라고 발음해 보시오"라고 말하였다. 그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사만 이천 명이었다.

12:7 입다는 육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어 길르앗의 성읍들 중 하나에 묻혔다.

12:8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2:9 그에게는 아들 삼십 명이 있었다. 그는 딸 삼십 명을 다른 가문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서른 명의 여자를 데려왔다. 그는 칠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2:10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12:11 그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여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2: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의 아얄론에 묻혔다.

12:13 그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2:14 그에게는 아들 마흔 명과 손자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칠십 마리를 탔다. 그는 팔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2:15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있는 비라돈에 묻혔다.

13장

13: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13:2 소라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13:3 주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13:4 그러므로 이제 부디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3: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13:6 이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과 같아 매우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분도 내게 자기 이름을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13:7 그런데 그분이 내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3:8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말하였다. "오 주님, 부디 주님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시어,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게 하십시오."

13:9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오셨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13:10 여인은 서둘러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13: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물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입니까?" 그가 "내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13:12 마노아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생활 방식과 사명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13:13 주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가 삼가 지켜야 한다.

13:14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키게 하라."

13:15 마노아가 주님의 사자에게 말하였다. "부디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 대접하겠습니다."

13:16 주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붙잡아 둔다 해도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번제물을 준비하려거든 주님께 바쳐야 한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3:17 마노아가 주님의 사자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13:18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묻느냐?"

13:19 그리하여 마노아는 어린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바쳤다. 그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13:20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주님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3:21 주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

13:22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13:23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이때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13:24 여인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 그 아이가 자라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13:25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14장

14:1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다.

14:2 그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14:3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녀를 내게 데려와 주십시오. 그녀가 내 마음에 쏙 듭니다" 하고 말하였다.

14: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14:5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14:6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그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도 마치 어린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14: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삼손의 마음에 쏙 들었다.

14:8 얼마 후 삼손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그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갔다. 그런데 사자의 몸에 벌 떼와 꿀이 있었다.

14:9 그는 그것을 손으로 긁어모아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것을 드리자 그들도 먹었으나, 그는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떠온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14:10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관례대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14:11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그와 함께할 서른 명의 동무를 데려왔다.

14:12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잔치가 계속되는 이레 동안 너희가 그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겠다.

14:13 그러나 너희가 내게 그 답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어야 한다." 그들이 삼손에게 "네 수수께끼를 말해 보아라. 우리가 들어 보겠다" 하고 말하였다.

14:14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것이 나왔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14:15 이레째 되는 날,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 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알거지로 만들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14: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않아요. 내 민족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서도 내게는 알려 주지 않았잖아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내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 알려 주겠소?"

14:17 그녀는 잔치가 이어지는 이레 동안 그의 앞에서 울었다. 그녀가 그를 심하게 조르자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답을 알려 주었고, 그녀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주었다.

14:18 이레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14:19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서른 명을 쳐죽이고 그들의 노획물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넘겨주었다.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14:20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다.

15장

15:1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다. 그가 "내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15:2 장인이 말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녀를 몹시 미워한다고 확신하여, 그녀를 자네의 동무에게 주었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 제발 그녀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15:3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친다 해도 그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15: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횃불들을 가져다가 꼬리와 꼬리를 맞매고, 두 꼬리 사이에 횃불 하나씩을 매달았다.

15:5 그가 횃불에 불을 붙인 뒤,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내몰아 쌓아 놓은 곡식단과 베지 않은 곡식뿐 아니라 올리브 과원까지 태워 버렸다.

15:6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였다.

15:7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멈출 것이다."

15:8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마구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에담 바위 굴에 머물렀다.

15:9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졌다.

15:10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려고 올라왔다" 하고 대답하였다.

15:11 이에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오?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을 뿐이오."

15:12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직접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15:13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당신을 단단히 묶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할 뿐, 결코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들은 새 밧줄 두 채로 삼손을 결박하여 바위에서 끌고 올라왔다.

15:14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되어 그의 손에서 결박이 스르르 풀려 내렸다.

15:15 그는 나귀의 싱싱한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쳐죽였다.

15:16 삼손이 말하였다. "나귀의 턱뼈로 더미에 더미를 쌓았구나.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쳐죽였다."

15:17 삼손이 말을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는데,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15:18 삼손이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제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15:19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

15:20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6장

16:1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16: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여기에 왔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그를 잡으려고 매복하였으며, "새벽빛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며 밤새도록 조용히 있었다.

16:3 삼손은 자정까지 누워 있다가 자정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를 붙잡고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짊어지고 올라갔다.

16:4 그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16:5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올라와 말하였다.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켜 결박하여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겠다."

16: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해야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부디 내게 알려 주세요."

16:7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마르지 않은 신선한 칡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오."

16:8 그러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신선한 칡줄 일곱 개를 그녀에게 가져왔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였다.

16:9 그때 방 안에 복병이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실오라기가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그 줄들을 끊어 버렸다. 그리하여 그의 힘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

16:10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당신은 나를 놀리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하는지 부디 알려 주세요."

16:11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묶기만 하면, 내가 힘이 빠져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오."

16:12 그리하여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쳤다. 그때 방 안에 복병이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에서 그 밧줄들을 실오라기처럼 끊어 버렸다.

16:13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놀리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알려 주세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엮어 짜면 되오."

16:14 들릴라가 바디로 단단히 고정하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베틀 핀과 날실을 쑥 뽑아 버렸다.

16:15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게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알려 주지 않았어요."

16:16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조르고 재촉하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16:17 삼손이 마침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없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오. 만일 내 머리털이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16:18 들릴라는 삼손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그가 내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왔다.

16:19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어 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 버렸다.

16:20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치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쳐 버리겠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16:21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가 놋 족쇄를 채웠으며,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16:22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깎인 뒤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16:23 블레셋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려고 함께 모여 말하였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16:24 백성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16:25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우리를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자 삼손이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다.

16: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게 해 다오. 내가 기둥에 기대고 싶구나."

16:27 그 건물에는 남녀가 가득 차 있었고, 블레셋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으며, 지붕 위에도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는 남녀가 삼천 명가량 있었다.

16:28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시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 두 눈을 잃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

16:29 삼손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두 중앙 기둥을 껴안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의지하였다.

16:30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바란다!" 하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그 건물이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다.

16:31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체를 수습하여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그를 장사하였다. 삼손은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였다.

17장

17: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17:2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에게서 은 천백 개를 잃어버리셨을 때 어머니께서 저주를 쏟아내셨고 제 귀에도 들리게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17:3 그가 은 천백 개를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며,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마."

17:4 그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는 은 이백 개를 가져다가 은세공업자에게 주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이 미가의 집에 놓였다.

17: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 세워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17:6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

17: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17:8 그 사람은 살 만한 곳을 찾으려고 유다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17:9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인데, 머물 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17:10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내가 해마다 은 열 개와 옷 한 벌과 먹을거리를 주겠소." 그리하여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17:11 그 레위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으며, 그 젊은이는 미가에게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17:12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가 그의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

17:13 그러자 미가가 말하였다. "이제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안다."

18장

18:1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시절에 단 지파 사람들은 정착하여 살아갈 유산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2 단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온 집안 가운데 용사 다섯 명을 뽑아 보내며,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땅을 탐지하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18:3 그들이 미가의 집 곁에 있을 때, 레위 사람인 그 젊은이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가가 그에게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18:4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미가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대우해 주었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8:5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될지 알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 뜻을 물어 주십시오."

18:6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18:7 그리하여 다섯 사람은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사는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억압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어느 누구와도 거래가 없었다.

18:8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동족들에게 돌아오자, 동족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떤 소식이오?"

18:9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참으로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셈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가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합시다.

18:10 여러분이 가면 경계하지 않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그 땅은 넓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8:11 단 지파 집안에서 육백 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동했다.

18:12 그들은 올라가 유다의 기랏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르는데, 보라, 그곳은 기랏여아림 뒤쪽에 있다.

18:13 그들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18:14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동족들에게 말했다. "이 집들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18:15 그들은 그쪽으로 가서 젊은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18:16 단 자손 가운데 무기를 지닌 육백 명은 문 입구에 서 있었다.

18:17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져갔다. 그때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육백 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18:18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18:19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오. 손으로 입을 막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에게 아버지이자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낫겠습니까?"

18:20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들고 그 무리와 함께 떠났다.

18:21 그들은 돌아서서 길을 떠났는데,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재물을 앞세웠다.

18:22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갔을 때, 미가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을 따라잡았다.

18:23 그들이 단 자손을 향해 외치자, 단 자손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 따라왔소?"

18:24 미가가 말했다. "내가 만든 내 신상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 가 버렸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데도 어찌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느냐?"

18:25 단 자손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 가운데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화가 난 자들이 너를 쳐서 너와 네 집안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18:26 단 자손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8:27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거느리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평온하고 방심하고 있던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태웠다.

18:28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아무런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벧르호브 곁 골짜기에 있었다. 그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

18:29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18:30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혀 가던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18:31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자기들을 위하여 세웠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날 동안 그대로 있었다.

19장

19:1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 깊은 곳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맞아들였다.

19:2 그런데 그의 첩이 그를 배신하고 음행을 저지른 뒤,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네 달 동안 머물렀다.

19:3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자기 종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뒤따라갔다.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젊은 여자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다.

19:4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 그가 사흘 동안 그와 함께 묵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 머물렀다.

19:5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가 떠나려고 일어섰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사위에게 말했다. "빵 한 조각으로 원기를 북돋운 뒤에 길을 떠나시오."

19:6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부디 좋게 여겨 오늘 밤을 묵으며 마음을 즐겁게 하시오."

19:7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섰지만, 그의 장인이 간곡히 권하므로 거기서 다시 하룻밤을 묵었다.

19:8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그가 떠나려고 일어나자,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다. "부디 원기를 북돋우고 날이 저물 때까지 머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

19:9 그 사람이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일어서자,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 가니 부디 하룻밤 더 묵으시오. 보시오, 날이 저물고 있소. 여기서 묵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 집으로 가시오."

19:10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밤을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떠나 여부스(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른다) 부근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가 있었고,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다.

19:11 그들이 여부스 곁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물어 있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부디 우리가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19:12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기브아로 건너가자."

19:13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다. "자, 이 장소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하룻밤을 묵자."

19:14 그리하여 그들은 지나서 길을 떠났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19:15 그들은 기브아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가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묵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9:16 마침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으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19: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길손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어디서 오셨소?"

19:18 그가 노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깊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곳 사람이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주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9: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사료도 있고, 저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젊은이를 위한 빵과 포도주도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9:20 노인이 말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돌보아 줄 터이니, 결코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는 마시오."

19:21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19: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읍의 어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외쳤다.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겠소!"

19:23 집주인인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안 됩니다, 내 형제 여러분, 부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19:24 보십시오, 여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여자들을 끌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19:25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남자가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범하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윤간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에야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19:26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자기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까지 와서 쓰러져 날이 환해질 때까지 누워 있었다.

19:27 아침에 그녀의 주인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밖으로 나가 보니,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인이 손을 문지방에 얹은 채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19:28 그가 여인에게 "일어나라, 떠나자!" 하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떠났다.

19:29 그는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의 시신을 마디마디 열두 토막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두루 보냈다.

19:30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 보자."

20장

20:1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 이르기까지 온 회중이 한 사람처럼 미스바에 모여 주님 앞에 섰다.

20:2 온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했는데, 칼을 빼는 보병이 사십만 명이었다.

20:3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런 흉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20:4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20:5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 밤에 내가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성폭행하여 그녀가 죽었습니다.

20:6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신을 토막 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온 땅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음란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0:7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기서 생각과 조언을 내놓으십시오."

20:8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말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20:9 이제 우리가 기브아를 향해 취할 행동은 이러하니, 곧 제비를 뽑아 그것을 치러 올라갈 것이다.

20:10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백 명에서 열 명, 천 명에서 백 명, 만 명에서 천 명을 뽑아 군대를 위한 양식을 조달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지른 모든 끔찍한 악행대로 갚아 주게 할 것이다."

20:11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굳게 뭉쳐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20: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악행이 어찌 된 일이냐?

20:13 그러니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게 하라." 그러나 베냐민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20:14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우러 나가려고 성읍들에서 나와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20:15 그날 성읍들에서 소집된 베냐민 자손은 칼을 빼는 사람이 이만 육천 명이었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가운데서 뽑힌 정예병이 칠백 명이었다.

20:16 이 모든 군사 가운데 왼손잡이 정예병 칠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돌을 던지면 털끝 하나 빗나가지 않는 명사수들이었다.

20:17 베냐민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집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빼는 사람이 사십만 명이었으며, 모두가 용사였다.

20: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0:19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마주 보고 진을 쳤다.

20: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그들을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20: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쓰러뜨려 죽였다.

20:22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째 날 전열을 갖추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20:23 이스라엘 자손은 올라가 주님 앞에서 저녁때까지 울며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치러 올라가라."

20:24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다가갔다.

20:25 베냐민도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맞서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만 팔천 명을 땅에 쓰러뜨려 죽였는데, 이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20:26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과 온 백성이 올라가 벧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님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0:27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20:28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시절에 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20:29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방에 복병을 배치했다.

20: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20:31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맞서 밖으로 나오다가 성읍에서 멀리 유인되었다. 그들은 전처럼 들판에서 한쪽은 벧엘로 올라가고 다른 쪽은 기브아로 통하는 큰길에서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 서른 명가량을 죽였다.

20:32 베냐민 자손은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쓰러지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길로 유인해 내자" 하고 말했다.

20:33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던 곳, 곧 마아레게바에서 쏟아져 나왔다.

20:34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예병 만 명이 기브아 맞은편으로 밀어닥치니 싸움이 치열했으나,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했다.

20:35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쳐 죽였는데, 이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20:36 그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를 마주 보고 매복시켜 둔 복병들을 믿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척했던 것이다.

20:37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격하여 성읍 안으로 흩어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20:38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 맺은 신호는 성읍에서 큰 연기구름이 치솟아 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20:39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첫 번째 싸움처럼 우리 앞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사람 서른 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했다.

20:40 그러나 연기기둥 구름이 성읍에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자 베냐민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았고, 보라,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20:41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기겁했으니,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쳤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20:42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 길로 도망쳤으나 싸움이 그들을 맹렬히 뒤쫓았고, 여러 성읍에서 나온 자들이 그 한가운데서 베냐민 사람들을 쳐 죽였다.

20:43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고 쫓아가며 그들의 휴식처에서, 곧 해 뜨는 쪽 기브아 맞은편까지 그들을 짓밟았다.

20:44 베냐민 사람 만 팔천 명이 쓰러졌으니,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20: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달아나 림몬 바위로 도망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길에서 남은 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쳐 죽이고, 기돔까지 바짝 뒤쫓아가 또 이천 명을 쳐 죽였다.

20:46 그날 쓰러진 베냐민 사람은 모두 칼을 빼는 자 이만 오천 명이었으니,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20:47 그러나 육백 명은 몸을 돌려 광야로 달아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 림몬 바위에서 네 달 동안 머물렀다.

20:48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성읍 전체와 가축과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칼날로 쳤으며, 닥치는 대로 온 성읍에 불을 질렀다.

21장

21: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21:2 백성이 벧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저녁때까지 앉아 목소리를 높여 슬피 울었다.

21:3 그들이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21:4 다음 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1:5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주님 앞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이는 미스바에 올라와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은 자를 두고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하며 크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21:6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형제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고 말았다.

21:7 우리가 주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으니,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 줄 것인가?"

21:8 그들이 또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니, 보라, 야베스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의 총회에 오지 않았다.

21:9 백성의 수를 세어 보았을 때, 보라, 거기에 야베스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21:10 회중은 가장 용맹한 용사 만 이천 명을 그곳으로 보내며 명령했다. "가서 야베스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21:11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니, 곧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한 여자를 모조리 진멸하라."

21:12 그들은 야베스길르앗 주민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사백 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21:13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했다.

21:14 그때 베냐민이 돌아오자, 그들은 야베스길르앗의 여인들 가운데서 살려 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 여자가 넉넉하지 않았다.

21:15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했다.

21:16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 주어야 하겠는가?"

21:17 그들이 말했다.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유산이 이어져야 하니,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18 그러나 우리는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21:19 그들이 또 말했다. "보라, 해마다 실로에서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있다." 그곳은 벧엘 북쪽, 벧엘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르보나 남쪽에 있다.

21:20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기다리시오.

21:21 지켜보고 있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아내를 하나씩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21:22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오. '그 여자들을 너그럽게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마다 아내를 얻어 주지 못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직접 딸을 준 것도 아니니,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21:23 베냐민 자손은 그대로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를 붙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산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살았다.

21:24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집안으로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21:25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다.

룻기

1장

1: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1: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았다.

1: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1:4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십 년가량 살았다.

1:5 그러다가 말론과 기룐 두 사람도 다 죽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두 자식과 남편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다.

1:6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1:7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곳을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1: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1:9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1:10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1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품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더 남아 있겠느냐?

1:12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제 갈 길을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단다. 설령 내가 '내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밤에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13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주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비통하구나."

1:14 그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1:15 나오미가 말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1:16 룻이 말했다.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서라고 저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17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1:18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1:19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 술렁이며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물었다.

1:20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전능자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21 내가 나갈 때는 가득 찼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께서 나에게 불행을 내리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1:22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였다.

2장

2:1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족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유력한 재력가였으며 이름은 보아스였다.

2: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제가 밭으로 나가,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는 사람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나오미가 그녀에게 "내 딸아, 가거라" 하고 말했다.

2:3 룻이 가서 베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데, 마침 그녀가 이른 곳은 엘리멜렉 집안에 속한 보아스의 밭뙈기였다.

2:4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주님께서 주인님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2:5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뉘 집 사람이냐?"

2:6 추수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2:7 그녀가 '부디 추수꾼들을 따라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해 왔으며,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뿐입니다."

2:8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들으시오.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시오. 내 여종들 곁에 바짝 붙어 있으시오.

2:9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을 잘 보고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내가 젊은 일꾼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소? 목이 마르거든 물그릇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시오."

2:10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2:11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대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고향을 떠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다 전해 들었소.

2:12 주님께서 그대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대가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상을 받기를 바라오."

2:13 룻이 말했다. "내 주여, 제가 어르신의 눈에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어르신의 여종들 가운데 하나와도 같지 못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4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빵을 먹고,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2:15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인이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무안을 주지 마라.

2:16 또 곡식 단에서 얼마를 일부러 뽑아 흘려 두고 줍게 하며 꾸짖지 마라."

2:17 이렇게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가량 되었다.

2:18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여 주었다. 또 배불리 먹고 남겨 둔 것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2:19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보아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룻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며 말했다. "오늘 제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2:20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베푸는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기업을 무를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2:21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은 또 제게 '내 모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 곁에 바짝 붙어 있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그 사람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다른 밭에 갔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23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 머물며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웠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3: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딸아, 네가 잘되도록 내가 네 안식처를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3:2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3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차려입은 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끝낼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네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3:4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눈여겨보았다가,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것이다."

3:5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3:6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

3:7 보아스는 먹고 마셔 마음이 즐거워진 뒤 곡식 더미 끝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가만히 다가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3:8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보니,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3:9 그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어르신은 기업을 무를 분이십니다."

3:10 보아스가 말했다. "내 딸이여, 주님께 복을 받기를 바라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대가 나중에 베푼 정성이 처음에 베푼 정성보다 더 큽니다.

3:11 그러니 내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말한 것을 내가 다 해주겠소.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 백성의 온 성읍이 알고 있소.

3:12 내가 기업을 무를 친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3:13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시오. 아침이 되어 그 사람이 그대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면 좋으니, 그가 친족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대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그대에게 친족의 책임을 다하겠소.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3:14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스레할 때 일어났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여인이 왔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3:15 보아스가 또 말했다. "그대가 두르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서 펴 잡으시오." 룻이 그것을 펴 잡자, 보아스는 보리 여섯 번을 되어 담아 룻에게 지워 준 뒤 성읍으로 들어갔다.

3:16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 준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3:17 룻이 또 말했다. "그분이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 보리 여섯 번을 제게 주었습니다."

3:18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매듭짓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4장

4:1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무를 친족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친구여,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자, 그가 와서 앉았다.

4:2 보아스는 성읍 장로 열 명을 데려와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들도 앉았다.

4: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친족에게 말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토지 뙈기를 팔려고 하오.

4:4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알려 말하기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당신이 기업을 무르려거든 무르시오. 그러나 무르지 않겠다면 내게 말해 주어 내가 알게 하시오. 당신 말고는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나는 당신 다음이오' 하려고 생각했소." 그 사람이 "내가 무르겠소" 하고 말했다.

4:5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사람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야 하오."

4:6 그 기업 무를 친족이 말했다. "내 유산에 손해가 갈까 두려워,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무를 수 없소. 내가 무를 권리를 당신이 가지시오. 나는 무를 수 없소."

4:7 옛적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을 무르거나 맞바꾸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할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거래를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4:8 그래서 그 기업 무를 친족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것을 사시오" 하고 말하며 자기 신을 벗었다.

4:9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4:10 또한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아들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의 유산 위에 세우고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고향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4:11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대가 에브랏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4:12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그대에게 주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바랍니다."

4:13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그가 그녀와 한자리에 들자 주님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4:14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에게 기업 무를 자를 없게 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4:15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되살려 줄 자이며 노년에 어머니를 봉양할 자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며 아들 일곱보다 어머니에게 더 나은 며느리가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4:16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유모가 되었다.

4:17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외치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4: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으며,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으며,

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으며,

4: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무엘상

1장

1: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숩의 현손이었다.

1:2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1:3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1:4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면 엘가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제물 몫을 나누어 주었다.

1:5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으니, 그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두셨다.

1:6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두셨으므로, 그녀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몹시 괴롭히며 화나게 했다.

1:7 해마다 한나가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적수가 그녀를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1:8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여, 왜 울고 있소? 왜 먹지 않소? 왜 마음에 슬퍼하오? 내가 열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소?"

1:9 실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 문기둥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1:10 한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며 서럽게 울었다.

1:11 한나가 서원하여 말했다. "만군의 주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의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1:12 한나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의 입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1:13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기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

1:14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1:15 한나가 대답했다. "내 주여,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1: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억울함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7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1:18 한나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이 어르신의 눈에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길을 떠나 음식을 먹었으며, 그녀의 얼굴빛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1:19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1:20 때가 이르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내가 주님께 아이를 구했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1:21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은 매년 드리는 제사와 서원제를 주님께 바치러 올라갔다.

1:22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거든 데리고 올라가 주님 앞에 뵙게 하고 평생 거기 머물게 하겠습니다."

1:23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머물러 있으시오.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여인은 머물러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길렀다.

1:24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는 아직 어렸다.

1: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1:26 한나가 말했다. "오, 내 주여,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주여, 저는 여기서 어르신 곁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1:27 제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제가 그분께 간구한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1:28 그러므로 저 또한 그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가 살아 있는 한 평생 주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주님께 예배했다.

2장

2:1 한나가 기도하며 말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뿔이 주님 안에서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활짝 열렸으니,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2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니, 주님 곁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2:3 더는 심히 오만하게 말하지 마라. 입에서 거만한 말을 내지 마라.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다.

2:4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으로 무장한다.

2:5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얻으려고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배부르게 되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일곱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둔 여인은 쇠약해졌다.

2:6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2:7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2:8 주님은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받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그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2:9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실 것이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0 주님과 다투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천둥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

2:11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2:12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었으며, 주님을 알지 못했다.

2:13 백성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관례는 이러했다. 누군가 제물을 바칠 때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손에 삼발창을 쥐고 와서,

2:14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뚝배기에 그것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이 차지했다. 그들은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처럼 행동했다.

2:15 더구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말했다. "제사장께 구워 드릴 고기를 주시오. 그분은 그대에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실 것이오."

2:16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뒤에 당신 마음에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하인은 "아니오,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하고 대답하곤 했다.

2:17 그 젊은이들의 죄가 주님 앞에 몹시 컸으니, 그들이 주님의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2:18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섬겼다.

2:19 그의 어머니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를 바치러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져다주었다.

2: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했다. "주님께 간청하여 얻어 바친 아이 대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그대에게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2:21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고,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2:22 엘리는 몹시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온갖 일과, 만남의 장막 문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23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한 행실에 관한 말을 듣고 있다.

2:24 내 아들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2:25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청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26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2: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 조상의 집안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안에 종살이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더냐?

2:28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더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바친 모든 제물을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더냐?

2:29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짓밟으며,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2: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전에 네 집안과 네 조상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31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네 조상 집안의 팔을 꺾어, 네 집안에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2:32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베풀 모든 번영 가운데서도 내 처소의 고통을 볼 것이며, 네 집안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2:33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 버리지 않을 네 사람도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네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한창나이에 죽을 것이다.

2: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2:35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 줄 것이며,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2:36 네 집안에 남은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덩이를 얻으려고 절하며, "제발 나를 제사장 직분 가운데 하나에 맡겨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3장

3:1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그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많지 않았다.

3:2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했다.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3:4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5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다.

3: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하고 대답했다.

3:7 그때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않았다.

3:8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깨달았다.

3:9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거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3:10 주님께서 오셔서 곁에 서서 이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1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3:12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3:13 내가 그에게 알린 대로,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였는데도 그가 그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3: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3: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3:16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말하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3:17 엘리가 말했다. "주님께서 네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제발 내게 숨기지 마라. 그분이 네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3:18 사무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

3:19 사무엘이 자라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3: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로 세움받았음을 알았다.

3:21 주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으니,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4장

4: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4:2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싸움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했고, 블레셋 사람은 들판의 군대 가운데서 약 사천 명을 죽였다.

4: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4:4 그리하여 백성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들은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4:5 주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고, 땅이 뒤흔들렸다.

4: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 그들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4: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며 말했다. "하나님이 진영에 들어오셨다!" 또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4:8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누가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내겠는가?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친 신들이다.

4: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해져서 대장부답게 행동하라. 히브리 사람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대장부처럼 힘을 내어 싸워라!"

4:10 블레셋 사람이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도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 삼만 명이 쓰러졌다.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었다.

4:12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전열에서 빠져나와 달려가서 바로 그날 실로에 이르렀는데,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4:13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4:14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다.

4:15 그때 엘리는 아흔여덟 살이었고 눈이 굳어져서 볼 수 없었다.

4: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군대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4:17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서도 큰 도륙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4:18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는 순간, 엘리는 성문 곁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가 늙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다.

4: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해산의 진통이 닥쳤기 때문이다.

4:20 그녀가 죽어 갈 무렵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4:21 그녀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4:22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5장

5:1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5:2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곁에 두었다.

5:3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5: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을 때에도, 보라,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잘려 문턱에 놓여 있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5:5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턱을 밟지 않는다.

5:6 그러나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겁게 내리쳤고,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종기로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주변 지역까지 그렇게 하셨다.

5:7 아스돗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혹독하게 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5:8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그리로 옮겼다.

5:9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긴 뒤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혼란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치시자 그들에게 종기가 돋아났다.

5:10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쳐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 우리에게로 가져왔다!"

5:11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게 하시오." 온 성읍에 죽음의 공포가 번졌고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무겁게 내리치셨기 때문이다.

5:12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고통당했고 성읍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다.

6장

6:1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은 지 일곱 달이 되었다.

6:2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원래 자리로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6:3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손이 왜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6:4 그들이 물었다. "우리가 그분께 바쳐야 할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점술가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 종기 다섯 개와 금 쥐 다섯 마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똑같은 재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6:5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기 모양과 땅을 망치는 쥐 모양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쩌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6:6 애굽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찌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놓아주어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6:7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 하나를 준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소 두 마리를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암소들을 수레에 매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6:8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 위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분께 바칠 금 보물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떠나보내 가도록 하십시오.

6:9 지켜보다가 만일 그 궤가 자기 영토 길을 따라 벧세메스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6:10 사람들은 그대로 행하여 젖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두었다.

6:11 그리고 수레 위에 주님의 궤와 금 쥐들과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6:12 암소들은 벧세메스로 가는 길을 곧장 따라 대로를 지나며 울음소리를 내었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벧세메스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6:13 벧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고 있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6:14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섰다. 그러자 그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6:15 레위 사람들은 주님의 궤와 금 보물이 든 상자를 내려놓아 큰 바위 위에 두었고, 바로 그날 벧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

6:16 블레셋 사람의 다섯 군주가 이것을 지켜보고 바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6:17 블레셋 사람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금 종기는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해 하나, 가사를 위해 하나,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 가드를 위해 하나, 에그론을 위해 하나였다.

6:18 또 금 쥐들은 요새화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섯 통치자에게 속한 모든 블레셋 성읍의 수대로 바친 것이었으니, 그들이 주님의 궤를 내려놓았던 큰 바위에 이르기까지였다. 그 바위는 오늘날까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 있다.

6:19 주님께서 벧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님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만 칠십 명을 치시니, 주님께서 큰 도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했다.

6:20 벧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는가?"

6:21 그들은 기랏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7장

7: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

7:2 궤가 기랏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이십 년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사모하며 슬피 울었다.

7: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고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7: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

7:5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7:6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주님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7: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7: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주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7:9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7: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그날 큰 천둥소리로 블레셋 사람을 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

7: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을 뒤쫓으며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

7:12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7:13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은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7: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경계를 되찾았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7:15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7:16 그는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7:17 그런 다음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의 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8장

8:1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8: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8:3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좇아 곁길로 가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8:4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8: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늙으셨고 어르신의 아들들은 어르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 민족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8:6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한 것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주님께 기도했다.

8:7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네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곧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들이 네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8:9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관례를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 주어라."

8:10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

8:11 사무엘이 말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관례는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들을 돌보는 하수인으로 삼을 것이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8:12 그는 그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밭을 갈고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전쟁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8:13 그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8:14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8:15 그는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출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8:16 그는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에 쓸 것이다.

8:17 그는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8:18 그날에 너희는 스스로 택한 너희 왕 때문에 부르짖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8:19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8:20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이방 민족처럼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야겠습니다."

8:21 사무엘은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님의 귀에 그대로 아뢰었다.

8:22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9장

9: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한 베냐민 사람의 자손으로서 유력한 용사였다.

9: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으며, 어깨 위로는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

9: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들 가운데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9:4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또 사알림 땅을 지나갔으나 거기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들의 땅을 지나갔으나 찾지 못했다.

9:5 그들이 숩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함께 있던 종에게 말했다. "자,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을 거두고 우리 때문에 염려하실까 두렵다."

9:6 종이 사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로 가 보시지요. 혹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알려 주실지도 모릅니다."

9:7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드려야 하겠느냐? 자루에 든 빵도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9:8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가 갈 길을 알려 달라고 하겠습니다."

9:9 (옛적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자, 선견자에게 가자" 하고 말했으니, 지금 예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이전에는 선견자라 불렀기 때문이다.)

9:10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9:11 그들이 성읍으로 오르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젊은 여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께서 여기에 계십니까?"

9:12 여인들이 대답했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들 앞에 계십니다. 지금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분이 오늘 성읍에 오셨습니다.

9:13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에 곧바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물을 축복하신 뒤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백성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십시오. 지금 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9:14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들어설 때,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마주 보고 나오고 있었다.

9: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시며 말씀하셨다.

9: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 하나를 네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러 내가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다."

9: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게 말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9:18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제게 알려 주십시오."

9: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들은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하오. 아침이 되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주겠소.

9: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마음을 두지 마시오. 온 이스라엘이 바라는 자가 누구겠소?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니겠소?"

9:21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제게 이처럼 말씀하십니까?"

9: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약 삼십 명 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9: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주면서 '따로 떼어 두라'고 일렀던 그 몫을 가져오시오."

9:24 요리사는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보시오, 따로 남겨 둔 것이니 당신 앞에 두고 드시오. 내가 '백성을 초대했다'고 말하며 정해진 때를 위해 당신 몫으로 간직해 둔 것이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9: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뒤 사무엘은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9:26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동틀 무렵 사무엘이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부르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보내 주겠소." 사울이 일어나 그와 사무엘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

9:27 그들이 성읍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에게 우리 앞서 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자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가만히 서 있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10장

10:1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을 다스릴 영도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소?

10:2 오늘 당신이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국경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오.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이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부친께서 나귀 걱정을 거두시고 당신 때문에 염려하시며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오.

10:3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벧엘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오. 한 사람은 어린 염소 세 마리를 메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며,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오.

10:4 그들이 당신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시오.

10:5 그 뒤에 당신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오. 당신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오.

10:6 그러면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딴사람으로 변할 것이오.

10:7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거든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오.

10:8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내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행할 일을 알려 줄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시오."

10:9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모든 표징이 바로 그날 일어났다.

10:10 그들이 그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예언자 무리가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그도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

10:11 이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단 말인가?"

10:12 그곳에 살던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단 말인가?"라는 말이 속담이 되었다.

10:13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10:14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사울이 말했다.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찾지 못하자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10:15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 내게 알려 다오."

10:16 사울이 삼촌에게 말했다.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던 왕국의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알리지 않았다.

10:17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았다.

10:18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왕국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10:19 그러나 너희는 오늘 너희의 온갖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친히 구원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아닙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소.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천 명씩 주님 앞에 나아오시오."

10:20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나아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10:21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나아오게 하자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10:22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보라,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10:23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왔다. 그가 백성 가운데 서자 어깨 위로는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

10:24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시오.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소!"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외쳤다. "왕 만세!"

10:25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님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10:26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군인들이 그와 함께 갔다.

10:27 그러나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며 그를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히 있었다.

11장

11:1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길르앗에 맞서 진을 쳤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11: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내야만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겠소.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 수치를 안겨 줄 것이오."

11:3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레의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국경으로 사자들을 보내게 해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소."

11:4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의 귀에 이 말을 전하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11:5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말했다.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우는 것이오?" 사람들이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했다.

11: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그의 분노가 맹렬히 타올랐다.

11:7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아 토막을 내고 사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온 국경에 두루 보내며 말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오." 주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내리니,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11: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었다.

11:9 그들이 찾아온 사자들에게 말했다.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뜨거워질 무렵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사자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했다.

11:10 그리하여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아갈 것이니,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11:11 이튿날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들은 새벽녘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워질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둘도 함께 남지 못했다.

11:12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게 해 주십시오!"

11:13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오."

11:14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합시다."

11:15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주님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 앞에 화목제물을 바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12장

12: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시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모든 말을 듣고 여러분 위에 왕을 세웠소.

12:2 이제 보시오, 왕이 여러분 앞에서 걷고 있소.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시오, 내 아들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소. 나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살아왔소.

12:3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과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나를 거슬러 증언해 보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소?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소? 누구를 속였소? 누구를 억압했소? 내 눈을 멀게 하려고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소?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갚아 주겠소."

12:4 그들이 말했다. "어르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셨고 억압하지도 않으셨으며,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12:5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거슬러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오." 백성이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12:6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주님이시오.

12:7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변론하겠소.

12:8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뒤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소. 그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소.

12:9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주님을 잊었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솔 군대의 지휘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고, 이들이 그들과 싸웠소.

12:10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12:11 주님께서는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에 있던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았소.

12:12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셨는데도 여러분은 내게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12:13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고 요구한 왕을 보시오. 보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왕을 세우셨소.

12:14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면 좋을 것이오.

12:15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치실 것이오.

12:16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일을 보시오.

12:17 오늘은 밀을 거두는 날이 아니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눈앞에 저지른 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오."

12:18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바로 그날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심히 두려워했다.

12:19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어르신의 종들을 위해 어르신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했습니다."

12: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오.

12:21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이오.

12:22 주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오.

12:23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춤으로써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바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오.

12:24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시오.

12:25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악을 행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도 모두 멸망할 것이오."

13장

13:1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서른 살이었고, 마흔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3:2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삼천 명을 뽑아, 그중 이천 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벧엘 산지에 머물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13:3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하던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을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며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외쳤다.

13:4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을 쳤다는 소식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성은 사울을 따라 길갈로 집결했다.

13:5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병거가 삼만 대, 기병이 육천 명이었으며,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올라와 벧아웬 동쪽의 믹마스에 진을 쳤다.

13:6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위축되어,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무덤과 구덩이에 숨었다.

13:7 히브리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다.

13: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따라 이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13:9 그러자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시오" 하고 말한 뒤, 직접 번제를 드렸다.

13:10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은 그를 맞이하러 나가 인사했다.

13:11 사무엘이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했다. "백성은 제게서 흩어지고 제사장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13:12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나를 치러 내려올 텐데,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께서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지키셨더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13:14 그러나 이제는 왕의 나라가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3:15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백성을 세어 보니 약 육백 명이었다.

13: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13:17 블레셋 진영에서 약탈 부대가 세 부대로 나뉘어 나왔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섰고,

13:18 다른 한 부대는 벧호론 길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야를 향해 스보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국경 길로 돌아섰다.

13:19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13:20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보습이나 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야만 했다.

13:21 괭이나 보습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를 갈거나 쇠막대기를 손질하는 비용은 한 파임씩이었다.

13:22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

13:23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군은 믹마스 길목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14장

14:1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젊은 부관에게 말했다. "오너라,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

14:2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육백 명이었다.

14:3 그곳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자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

14: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군에게 건너가려고 하던 길목 사이 양쪽에는 험한 바위 절벽이 있었는데,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다.

14:5 한 바위 절벽은 북쪽으로 믹마스 맞은편에 솟아 있었고, 다른 바위 절벽은 남쪽으로 게바 맞은편에 솟아 있었다.

14:6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젊은 부관에게 말했다. "오너라,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도 모른다. 주님의 구원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14:7 무기를 든 부관이 그에게 대답했다. "장군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제가 온 마음으로 장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4:8 그러자 요나단이 말했다. "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14:9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14:10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14:11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14:12 주둔군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14:13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부관도 그 뒤를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부관은 그 뒤를 따르며 그들을 쳐 죽였다.

14:14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벌인 첫 전투에서 쓰러진 자는 겨우 반 에이커쯤 되는 밭 반 이랑 안에서 스무 명가량이었다.

14:15 진영과 들판과 온 백성 사이에 공포가 번졌고, 주둔군과 약탈 부대도 떨었다. 땅까지 흔들리며 극심한 공포가 휘몰아쳤다.

14:16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적의 무리가 흩어져 사방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4:17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말했다. "지금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그들이 점호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었다.

14:18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14: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졌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시오!" 하고 말했다.

14:20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집결하여 전장으로 나아갔다.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저마다 칼로 자기 동료를 쳐 죽이고 있었다.

14:21 이전에 블레셋 사람 편에 서서 사방에서 진영으로 함께 올라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했다.

14: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터로 나와 그들을 맹렬히 뒤쫓았다.

14:23 이처럼 주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전쟁은 벧아웬 너머까지 번져 나갔다.

14:24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지쳐 있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키며 "저녁이 되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은 아무 음식도 맛보지 못했다.

14:25 온 백성이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땅 위에 꿀이 있었다.

14:26 백성이 숲에 들어섰을 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입에 대지 않았다.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4:27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명령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쥔 막대기 끝을 내밀어 벌집에 찍어 손으로 꿀을 찍어 먹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졌다.

14:28 그러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왕께서 백성에게 엄하게 맹세시키시며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탈진해 있습니다."

14:29 요나단이 말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경에 빠뜨리셨구나.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아라.

14: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찾아낸 원수의 약탈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승리가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느냐?"

14:31 그날 그들은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백성은 몹시 탈진했다.

14:32 백성은 전리품으로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땅에서 잡고는, 피가 든 채로 고기를 먹었다.

14:33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 말했다. "보십시오,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했구나. 오늘 큰 돌 하나를 내게로 굴려 오너라!"

14:34 사울이 또 말했다. "너희는 백성 가운데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전하라. '저마다 자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먹고, 핏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지 마라.' 하여라." 그날 밤 모든 백성이 저마다 자기 소를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았다.

14:35 사울이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을 위해 쌓은 첫 제단이었다.

14:36 사울이 말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가 아침 밝을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맙시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무엇이든 행하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봅시다."

14:37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14:38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여, 다 이리로 가까이 나아오너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 확인하자.

14: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비록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4:40 그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너희는 한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서겠다." 백성이 사울에게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14:41 그러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아뢰었다. "옳은 판결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났다.

14:42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아라" 하고 말하자, 요나단이 뽑혔다.

14: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말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어야 합니까?"

14:44 사울이 말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14:45 그러나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가져온 요나단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가 죽지 않았다.

14:46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를 그치고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14:47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확립한 뒤,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와 맞서 싸웠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으며, 그가 돌아서는 곳마다 원수들을 무찔렀다.

14:48 그는 용맹을 떨치며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들의 손에서 백성을 건져냈다.

14: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였다. 두 딸의 이름은 이러했는데,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14:50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었다.

14:51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였고, 아브넬의 아버지인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14:52 사울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블레셋 사람들과의 격렬한 전쟁이 이어졌다.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곁으로 불러들였다.

15장

15:1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5: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을 막고 저지른 일, 곧 그들에게 맞서 저지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15:3 그러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여라. 그들을 아끼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여라.'"

15:4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일만 명이었다.

15:5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매복 부대를 배치했다.

15:6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나 내려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그들과 함께 멸망시킬지도 모르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소." 그러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났다.

15:7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이르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15:8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온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진멸했다.

15:9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과 살진 송아지들과 어린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꺼렸으며,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완전히 진멸했다.

15:10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15:11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여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15:12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가려 하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 자신을 위해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15:13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제사장님은 주님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습니다."

15:14 사무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15:15 사울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입니다. 백성이 제사장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15:16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멈추십시오. 지난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15:17 사무엘이 말했다.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5:18 주님께서 왕을 길에 보내시며 '가서 저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되, 그들을 다 없애기까지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5:19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만 달려들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15: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저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15:21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제사장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제사하려고 마땅히 진멸할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 중에서 취했을 뿐입니다."

15:22 사무엘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와 희생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15:23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드라빔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5: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제사장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5:25 그러니 이제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돌아가셔서, 제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5:26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5:27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리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았고 옷자락이 찢어졌다.

15:28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내시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15:29 또한 이스라엘의 존귀하신 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15:30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부디 저를 높여 주셔서, 저와 함께 돌아가 제가 제사장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5:31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돌아갔고, 사울은 주님께 예배했다.

15:32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시오!" 아각은 마음을 놓고 기뻐하며 그에게 나아왔다. 아각은 "분명 죽음의 고비는 지나갔다" 하고 생각했다.

15:33 사무엘이 말했다.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듯이, 여인들 가운데 네 어머니도 자식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주님 앞에서 아각을 토막 내어 죽였다.

15:34 그 뒤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15: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했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16장

16: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아 두었다."

16:2 사무엘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말하여라.

16:3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여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네게 지명해 주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야 한다."

16:4 사무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맞으러 나와 물었다. "평안한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16:5 사무엘이 대답했다. "평안한 일이오.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소.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에 갑시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했다.

16:6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참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받을 자가 그분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16: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얼굴이나 큰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16: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신 이가 아니오" 하고 말했다.

16:9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 사람도 주님께서 택하신 이가 아니오" 하고 말했다.

16:10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소" 하고 말했다.

16:11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대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소?" 하고 물었다.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올 때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

16:12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그는 혈색이 붉고 눈빛이 빼어나며 용모가 준수했다. 주님께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6:13 사무엘은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 이후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돌아갔다.

16:14 한편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16: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6:16 우리 주군께서는 모시고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구해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에게 내릴 때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16:17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16:18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맹한 용사이며 전사이고, 말도 분별력 있게 잘하며 준수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6:19 그러자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고 전했다.

16:20 이새는 빵을 실은 나귀 한 마리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16: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를 모시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를 든 부관으로 삼았다.

16:22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다윗이 내 눈에 들어 흡족하니, 내 곁에서 나를 모시게 하여라."

16:23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은 상쾌해져서 회복되었고 악한 영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17장

17:1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다. 그들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17: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대열을 갖추었다.

17:3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위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 위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17:4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결투 용사가 나왔는데,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

17:5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었다.

17:6 다리에는 놋 각반을 대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다.

17:7 그의 창자루는 베틀 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는 철 육백 세겔이었으며, 방패 든 부관이 그보다 앞서 걸어갔다.

17:8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쳤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대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내게로 내려보내라.

17:9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7:10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말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보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17: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며 몹시 두려워했다.

17: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에브랏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 시대에 그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다.

17:13 이새의 맏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17:14 다윗은 막내였다.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17:15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 떼를 쳤다.

17:16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저녁으로 다가와 사십 일 동안 모습을 드러냈다.

17: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네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빵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빨리 달려가 네 형들에게 전하여라.

17:18 그리고 이 치즈 열 덩이는 천부장에게 갖다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펴서 그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17:19 그때 사울과 형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17:20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 떼를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났다. 군대가 전선으로 나아가며 함성을 지를 때, 다윗은 병거들이 늘어선 곳에 이르렀다.

17: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마주 세우고 대열을 갖추었다.

17:22 다윗은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 쪽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했다.

17:23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블레셋 결투 용사인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전선에서 올라와 전과 같은 말을 외쳤고,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17:2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자 모두 무서워하며 그 앞에서 달아났다.

17:25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올라왔다.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주시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시며, 그의 아버지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부역을 면제해 주실 것이다."

17:26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 준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17:27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 줄 것이오" 하고 앞서 한 말을 되풀이했다.

17:28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군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 떼는 누구에게 맡겨 두었느냐? 네 교만과 마음의 악함을 내가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17:29 다윗이 말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꺼내지 못합니까?"

17:30 다윗은 형에게서 몸을 돌려 다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물었고, 사람들도 이전과 같이 대답했다.

17:31 다윗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게 했다.

17: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자 때문에 아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17:33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전사였기 때문이다."

17: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 가운데서 어린양을 물어가면,

17:35 제가 뒤쫓아가 놈을 쳐서 그 입에서 어린양을 빼내었습니다. 놈이 저에게 달려들면 수염을 낚아채 쳐 죽였습니다.

17:36 왕의 종인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17:37 다윗이 또 말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빈다."

17:38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 주었다. 머리에 놋 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17:39 다윗은 군복 위에 칼을 차고 걸어보려 했으나 익숙하지 않았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것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것들을 다 벗었다.

17:40 다윗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목자 가방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다.

17:41 그 블레셋 사람도 다윗을 향해 다가왔으며, 방패를 든 사람이 그보다 앞서 걸었다.

17:42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붉은 혈색에 용모가 준수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7: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17:44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또 말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17:46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벨 것이며,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17:47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17:48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적진을 향해 재빨리 달려 나갔다.

17:49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로 던졌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졌다.

17:50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다윗은 칼을 쥐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17:51 다윗은 달려가 블레셋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17: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사아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쓰러졌다.

17:53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약탈했다.

17:54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의 무기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17:55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 나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아,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말했다. "왕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17:56 왕이 말했다.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17:57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손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든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으로 나아갔다.

17:58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18:1 다윗이 사울과 말을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묶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18:2 사울은 그날 다윗을 곁에 머물게 하고 다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18: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다.

18:4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주었다.

18: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처신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인들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일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 흡족했다.

18:6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소고를 치고 기뻐 뛰놀며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악기를 들고 사울 왕을 맞으러 나왔다.

18:7 여인들은 춤추며 화답하여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

18:8 사울은 이 말에 몹시 불쾌해하며 화를 냈다. 그는 "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렸으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왕권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18:9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 어린 눈으로 주목했다.

18:10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덮치자, 그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쥐여 있었다.

18:11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 하고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의 앞에서 몸을 피해 달아났다.

18:12 주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셨으므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

18:13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내보내 천부장으로 삼았다. 다윗은 백성 앞서 출동하고 돌아왔다.

18:14 다윗이 그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하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18:15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18:16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가 백성 앞서 나아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18: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보아라. 내가 그 아이를 네게 아내로 주겠다. 너는 오직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주님의 싸움을 싸워라."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18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제 아버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18:19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그녀를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18:20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기뻐했다.

18:21 사울은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덫이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네가 오늘 내 사위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

18:22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은밀히 말하여라. '왕께서 장군님을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장군님을 사랑하니, 이제 왕의 사위가 되십시오' 하여라."

18: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속삭이자, 다윗이 말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제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입니까?"

18:24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전했다.

18:25 사울이 말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왕께서는 아무런 신부 예물도 바라지 않으시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십니다' 하여라."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뜨리려는 속셈이었다.

18:26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기한이 차기도 전에,

18:27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출동하여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의 사위가 되려고 그 수를 온전히 채워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18:28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함을 알았다.

18:29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18:30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출전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싸워 그의 이름이 크게 명성을 떨쳤다.

19장

19:1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몹시 좋아했다.

19: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 말했다. "내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 하고 있네. 그러니 내일 아침 부디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19:3 내가 나가서 자네가 있는 들판에서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네. 그러고서 무슨 일이든 알아내면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19:4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말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왕의 종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며, 그가 한 일들은 왕께 매우 유익했습니다.

19:5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19:6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그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19:7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가니, 다윗이 예전처럼 사울을 모시게 되었다.

19:8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타격을 입히며 그들을 무찔렀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다.

19:9 사울이 손에 창을 쥐고 집안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쳤다. 그때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다.

19:10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다윗이 사울 앞을 피해 물러나자 창은 벽에 꽂혔다. 다윗은 그날 밤 도망쳐 몸을 피했다.

19:11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게 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경고하여 말했다. "오늘 밤 목숨을 건지지 못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19:12 미갈은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려 주었고, 그는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19:13 미갈은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베개를 머리맡에 둔 뒤 옷으로 덮어두었다.

19:14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내자, 미갈은 "그는 앓아누웠습니다" 하고 말했다.

19:15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어 다윗을 직접 보게 하며 "그를 침대째 내게로 끌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고 명령했다.

19:16 부하들이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드라빔이 놓여 있고 머리맡에는 염소 털 베개가 있었다.

19:17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여 내 원수를 놓아주어 도망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그가 제게 '나를 놓아주어라. 내가 어찌하여 너를 죽이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19:18 다윗은 도망쳐 탈출한 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욧으로 가서 머물렀다.

19:19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습니다" 하고 알렸다.

19: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예언자들이 떼를 지어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덮쳐 그들도 예언을 했다.

19:21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다.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예언을 했다.

19:22 마침내 사울 자신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한 사람이 "그들은 라마 나욧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9:23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덮쳐 그는 라마 나욧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19:24 그는 자기 옷까지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그 온 날 온 밤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말이 생겨났다.

20장

20:1 다윗은 라마 나욧에서 도망쳐 요나단에게 와서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목숨을 노리십니까?"

20:2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보게나,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밝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어찌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네."

20:3 다윗이 거듭 맹세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은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슬퍼할지도 모르니, 그가 이것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 있음을 두고 진실로 맹세하건대, 나와 죽음 사이는 겨우 한 걸음뿐입니다."

20:4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네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네를 위해 해 주겠네."

20:5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일은 초하루여서 내가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들판에 가서 모레 저녁까지 숨어 있도록 나를 보내 주십시오.

20:6 만일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찾으시거든,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가도록 제게 간곡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온 집안을 위한 연례 제사가 거기서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20:7 만일 그분이 '좋다'고 하시면 당신의 종이 안전하겠지만, 만일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해를 끼치기로 결심하신 줄 아십시오.

20:8 그러니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종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어떠한 죄악이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데려갈 까닭이 무엇입니까?"

20:9 요나단이 말했다. "결코 그런 일이 자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에게 해를 끼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 주지 않겠는가?"

20:10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거칠게 대답하시면, 누가 내게 알려 주겠습니까?"

20:11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게, 우리 들판으로 나가세." 그리하여 두 사람은 들판으로 함께 나갔다.

20:1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증인으로 맹세하네. 내일 이맘때나 모레에 내가 내 아버지를 떠보아서, 보게나, 다윗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알려 주지 않겠는가?

20:13 만일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않고 자네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20:14 자네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줄 뿐만 아니라,

20:15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 버리실 때에도, 자네의 사랑을 내 집안에서 영원히 끊지 말아 주게."

20:16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으며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했다.

20:18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사람들이 자네를 찾을 것일세.

20:19 자네는 사흘 동안 머물다가 신속히 내려가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자네가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 있게.

20:20 내가 과녁을 쏘듯이 그 바위 곁으로 화살 세 발을 쏘겠네.

20:21 그리고 내가 아이를 보내며 '가서 화살들을 찾아라' 하고 말할 것일세. 만일 내가 그 아이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네 이쪽에 있으니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돌아오게.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자네에게 평안이 있고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일세.

20:22 그러나 내가 그 아이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네 너머에 있다'고 말하거든, 자네는 길을 떠나게.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셨기 때문일세.

20:23 자네와 내가 서로 나눈 그 일에 대해서는, 보게나, 주님께서 영원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시네."

20:24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20:25 왕은 늘 앉던 자리, 곧 벽 쪽 자리에 앉았다. 요나단은 일어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으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20:26 하지만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몸이 정결하지 못한가 보다. 정녕 정결하지 못해서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7 초하루 다음 날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느냐?"

20: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제게 간곡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20:29 그는 '우리 집안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니, 제발 내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형님이 내게 꼭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가서 제 형제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20:30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사악하고 반역을 일삼는 여자의 아들아, 네가 네 수치를 자초하고 네 어미의 부끄러운 벗은 몸을 욕되게 하려고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20:31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너도 네 왕국도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20:32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맞서 말했다.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20:33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쳐서 맞히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이를 통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20:34 그래서 요나단은 격분하여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달 둘째 날에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수치스럽게 대한 까닭에, 그가 다윗 때문에 가슴 아파했기 때문이다.

20:35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판으로 나갔으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갔다.

20:36 요나단이 아이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라."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은 화살을 아이 너머로 쏘았다.

20:37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외쳐 말했다. "화살이 네 너머에 있지 않느냐?"

20:38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다시 외쳤다. "빨리 가거라! 서둘러라! 지체하지 마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들을 주워 모아 자기 주인에게로 왔다.

20:39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 영문도 몰랐고,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고 있었다.

20:40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아이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가서 이것들을 성읍으로 가져가거라."

20:41 아이가 떠나자마자, 다윗이 남쪽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세 번 절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으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20:4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시게. 우리 둘이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자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21장

21:1 그 후 다윗은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맞으러 나와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장군께서 혼자 계시고,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21: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며 '내가 너를 보내며 네게 지시한 일에 관해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들을 특정한 장소로 보냈습니다.

21:3 그러니 지금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21: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들을 가까이하지 않기만 했다면 줄 수 있습니다."

21: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우리가 출전할 때 늘 그러했듯이 요 며칠 동안 여자들을 멀리했습니다. 비록 일상적인 여정이었을 때도 젊은이들의 몸이 정결했는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21:6 그리하여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거기에는 주님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 외에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빵을 물려내던 날에 따뜻한 빵으로 갈아 놓으려고 치운 것이었다.

21:7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돔 사람 도엑이었으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21: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매우 급했으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미처 챙겨 오지 못했습니다."

21:9 제사장이 말했다. "장군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십시오, 여기 에봇 뒤에 천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21:10 다윗은 그날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21: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고 서로 노래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21:12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몹시 두려워했다.

21:13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손안에서 미친 척을 하며 문짝에 마구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21:14 그러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너희도 보듯이 이 자가 미쳤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자를 내게 끌고 왔느냐?

21: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런 자가 내 궁궐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22장

22:1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2:2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과 빚진 모든 사람과 마음에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이 사백 명가량 되었다.

22:3 다윗은 그곳을 떠나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가 나와서 왕과 함께 머물게 해 주십시오."

22:4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머무는 내내 왕과 함께 지냈다.

22:5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 요새에 머물지 마십시오.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22:6 사울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라마에 있는 위령목 아래에 손에 창을 쥐고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둘레에 서 있었다.

22:7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지금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것 같으냐? 너희를 모두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 같으냐?

22:8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거슬러 공모하였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을 때에도 내게 밝혀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너희 가운데 나를 위해 가슴 아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종을 부추겨 오늘날처럼 나를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게 한 것을 내게 밝혀 준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22:9 그때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엑이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22:10 그는 다윗을 위해 주님께 여쭈어 주었고, 음식도 주었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22:11 그러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 곧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 왔다.

22:12 사울이 말했다. "아히둡의 아들아, 지금 들으라." 그가 대답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22:13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거슬러 공모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 그가 오늘날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숨어서 기다리게 하였느냐?"

22: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처럼 충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의 집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22:15 제가 오늘에야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종에게나 제 아버지의 온 집안에 아무것도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은 이 모든 일에 관해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2:16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22:17 왕이 자기 둘레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했다. "돌아서서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면서도 내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뻗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치려 하지 않았다.

22:18 왕이 도엑에게 말했다. "네가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쳐라!"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쳤으며, 그날 가는 베 에봇을 입은 사람 여든다섯 명을 죽였다.

22:19 그는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으니,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칼날로 쳤다.

22:20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하나가 빠져나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22:21 아비아달은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렸다.

22: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었을 때, 나는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알릴 줄 알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입니다.

22:23 내 곁에 머무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당신의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23장

23:1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23:2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

23:3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 머물러 있어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23:4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23:5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무찔렀다. 이처럼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

23: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23:7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힌 셈이다."

23:8 사울은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 했다.

23:9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 흉계를 꾸미고 있음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시오"라고 말했다.

23:10 그리고 다윗이 아뢰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사울이 저 때문에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 한다는 소식을 당신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23:11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종에게 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23:12 다윗이 다시 물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23:13 그러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 육백 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빠져나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출동을 포기했다.

23:14 다윗은 광야의 요새들에 머물렀고,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도 머물렀다.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23:15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나왔음을 알았다. 다윗은 십 광야 수풀 속에 있었다.

23: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 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굳세게 해 주었다.

23:17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를 찾아내지 못할 것일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일세.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고 계시네."

23:18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수풀 속에 머물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3:19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곁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 언덕 수풀 속 요새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23:20 그러니 왕이시여,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23:21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 주님께 복을 받기를 바란다.

23:22 가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가 어디에 자주 나타나는지, 누가 그를 거기서 보았는지 알아보고 살펴보아라. 그가 몹시 교활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3:23 그러므로 그가 숨어 있는 모든 은신처를 살펴보고 확실하게 알아내어 내게 다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샅샅이 찾아내겠다."

23:24 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십으로 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23:25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 나섰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이 이를 듣고 마온 광야로 다윗을 뒤쫓았다.

23:26 사울은 산 이편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으로 갔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 붙잡으려 했으므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빠져나가려 했다.

23:27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서둘러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하고 외쳤다.

23:28 이에 사울은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러 갔다. 그러므로 그곳을 셀라하마글곳이라 불렀다.

23:29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들에 머물렀다.

24장

24:1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24:2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삼천 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 쪽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갔다.

24:3 길가 양 떼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굴이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24: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장군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24:5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인해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24:6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손을 들어 내 주인이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이다."

24:7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막아서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은 굴에서 일어나 제 갈 길을 갔다.

24:8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시여!" 하고 외쳤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24:9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보십시오,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24:10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굴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의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을 죽이라고 권했지만,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저는 '내 주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분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4:11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들린 왕의 겉옷 자락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 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제 손에 아무런 악이나 반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피십시오. 왕께서는 내 목숨을 노려 빼앗으려 하시지만, 저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4:12 주님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고, 주님께서 왕을 향해 제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24:13 옛사람의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였으니, 제 손으로는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24:14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입니까? 벼룩 한 마리입니까?

24:15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제 사정을 변호하시며, 왕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24:16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녕 네 목소리냐?" 사울은 목놓아 울었다.

24: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으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다.

24:18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을 때에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오늘 네가 나를 얼마나 후대했는지를 드러냈다.

24:19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보내 주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오늘 내게 베푼 일로 인해 주님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24:20 이제 보아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임을 분명히 안다.

24:21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 뒤에 남을 내 자손을 끊어 버리지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해 다오."

24: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25장

25:1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 지냈다. 그 후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25:2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업은 갈멜에 있었고, 그는 대단한 부자였다. 그에게는 양 삼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가 있었으며, 그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25: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25:4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다.

25:5 다윗은 젊은이 열 명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안부를 물어라.

25:6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오래도록 평안하십시오! 당신께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에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25:7 지금 당신에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머무는 내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5:8 당신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당신께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이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수중에 닿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25:9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전하고 기다렸다.

25:10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제멋대로 떠나가는 종들이 많다.

25:11 내가 어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25:12 이에 다윗의 젊은이들은 돌아섰고,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다.

25:13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다. "각자 칼을 차라!" 그러자 모두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다. 사백 명가량이 다윗을 따라올라가고, 이백 명은 짐 곁에 남았다.

25:14 하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려 말했다.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께 문안하려고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께서 그들을 모욕하셨습니다.

25:15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 다닐 동안에 우리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도 없었습니다.

25:16 우리가 양을 치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내내,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방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25:17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실지 똑똑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해치기로 재앙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도 거친 사람이라 아무도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25:18 그러자 아비가일은 서둘러 빵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 손질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 스아, 건포도 백 송이,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실었다.

25:19 아비가일이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가거라. 보아라,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 그러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5: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등성이를 돌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주 내려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마주쳤다.

25:21 다윗은 이미 속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구나.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25:22 내가 아침 밝을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 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25:23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땅에 절했다.

25:24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그 허물을 오직 제게 돌리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씀드리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5:25 내 주께서는 이 무례한 나발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그는 참으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미련한 자)이니, 미련함이 늘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종인 저는 내 주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5:26 그러니 내 주여, 주님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막으셔서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셨고 손수 원수를 갚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 꾀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25:27 그리고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게 하십시오.

25:28 부디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안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며, 내 주의 평생에 당신에게서 아무런 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29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뒤쫓고 당신의 생명을 노릴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묶여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구멍에서 던지듯 팽개치실 것입니다.

25:30 주님께서 내 주께 약속하신 온갖 좋은 일들을 다 행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25:31 내 주께서 까닭 없이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손수 원수를 갚으셨다 하여 마음에 걸리거나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부디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25: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오늘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오!

25:33 그대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대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오. 오늘 그대가 나를 막아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게 해 주었소.

25:34 나를 막아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실로 맹세하오. 그대가 서둘러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아침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남자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오."

25:35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말했다. "평안히 그대의 집으로 올라가시오. 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그대의 청을 들어주었소."

25: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보라,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벌이고 있었다. 나발은 몹시 취해 마음이 흥겨워 있었으므로, 그녀는 아침 밝을 때까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5:37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속에서 멎어 버려 그는 돌처럼 굳어졌다.

25:38 열흘쯤 뒤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25:39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손에서 내가 당한 모욕을 갚아 주시고 당신의 종을 악한 일에서 지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녀에게 뜻을 전했다.

25:40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녀에게 말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25:41 그녀는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25:42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탔고, 그녀를 따르는 다섯 하녀와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25:43 다윗은 또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두 여인이 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25:44 한편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갈을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26장

26:1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이 광야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26:2 그러자 사울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삼천 명을 거느리고,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십 광야로 내려갔다.

26:3 사울은 길가 광야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진을 쳤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울이 자기를 쫓아 광야로 들어왔음을 알았다.

26:4 다윗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사울이 틀림없이 와 있음을 확인했다.

26: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친 곳으로 가 보았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 있는 곳을 보았다. 사울은 진영 중앙 진지 안에 누워 있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

26:6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말했다. "제가 장군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26:7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군대에게 이르렀다. 보라, 사울은 진지 안에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의 둘레에 누워 있었다.

26:8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내리찔러 땅에 박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26:9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마라.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고서 죄가 없을 자가 누구이겠느냐?"

26:10 다윗이 또 말했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터에 나아가 망할 것이다.

26:11 내가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챙겨서 떠나자."

26:12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챙겼고,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며 깨어난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셔서 그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26:13 다윗은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는데, 그들 사이에 거리가 멀었다.

26:14 다윗이 군사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해 외쳐 말했다. "아브넬아, 대답하지 않겠느냐?"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26:15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너는 사내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네 주인이신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하나가 네 주인이신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26:16 네가 한 이 일은 옳지 못하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 주인이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왕의 창이 어디에 있는지,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라!"

26:17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 목소리입니다."

26:18 다윗이 또 말했다. "내 주께서는 어찌하여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26:19 그러니 이제 부디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왕을 부추겨 저를 대적하게 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짓이라면, 그들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주님의 기업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6:20 그러므로 이제 제 피가 주님의 면전에서 벗어나 땅에 흐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 산에서 자고새를 사냥하듯 겨우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26:21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내 목숨이 네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몹시 잘못을 저질렀다."

26:22 다윗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창을 보십시오! 젊은이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가져가게 하십시오.

26:23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을 제 손에 넘기셨지만, 저는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26:24 보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이 제 눈에 귀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주님의 눈에도 제 생명이 귀하게 여겨져서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저를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26: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큰일을 해낼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제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27장

27:1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나를 다시 찾기를 단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27:2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육백 명을 거느리고 건너가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27:3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각자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다.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과 함께 머물렀다.

27:4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그를 다시는 찾지 않았다.

27:5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시골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제게 주어 그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실 성읍에 거하겠습니까?"

27:6 그리하여 아기스는 그날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이 때문에 시글락은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27:7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골 땅에 머문 기간은 일 년 넉 달이었다.

27:8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올라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이 부족들은 옛적부터 술을 지나 애굽 땅으로 가는 길목에 살던 주민들이었다.

27:9 다윗은 그 땅을 쳐서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은 뒤에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27:10 아기스가 "오늘은 어디를 침노하였느냐?"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 남부입니다" 하거나 "여라무엘 사람의 남부입니다" 또는 "겐 사람의 남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27:11 다윗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전하기를,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는 내내 그의 행실이 이러했다 할까 염려된다' 하여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다.

27:12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28장

28:1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너와 네 부하들이 나와 함께 군대로 출전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28:2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평생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28:3 사무엘이 이미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도하며 그의 고향 성읍 라마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상태였다.

28: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28:5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크게 떨렸다.

28:6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28:7 그러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내가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아야겠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28:8 사울은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은 뒤, 두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다. 사울이 말했다. "청하건대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점을 쳐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올려다오."

28:9 여인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도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잘 알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 목숨에 올가미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시오?"

28:10 사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로는 네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28:11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가 누구를 당신께 불러 올려 드릴까요?" 그가 말했다.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려라."

28: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이 바로 사울이십니다!"

28:13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땅에서 신 같은 존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28:14 사울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말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28:15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몹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제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도록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28:16 사무엘이 말했다. "주님께서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8:17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셨다. 주님께서 왕국을 네 손에서 찢어 네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다.

28:18 네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말렉을 향한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신 것이다.

28:19 더욱이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28:20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땅에 온몸을 뻗고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다. 하루 밤낮을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으므로 그에게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28:21 그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와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제 목숨을 내걸고 당신이 제게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28:22 그러니 이제 왕께서도 부디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제가 왕 앞에 빵 한 조각을 차려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음식을 드셔야 길을 가실 때 기운을 차리실 수 있습니다."

28:23 그러나 사울은 "먹지 않겠다" 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과 그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28:24 그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웠다.

28:25 여인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음식을 차려 놓으니 그들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 그 밤에 떠났다.

29장

29:1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29:2 블레셋 통치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나아갔다.

29:3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오? 그가 여러 날, 아니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왔지만, 그가 내게로 귀순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소."

29:4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그에게 정해 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오. 전투 중에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소. 이 자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과 화해하겠소?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소?

29:5 이 자가 바로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고 서로 노래했던 그 다윗이 아니오?"

29:6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는 정직했고 군대에서 나와 함께 출입하는 네 행동이 내가 보기에 좋았다. 네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서 악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통치자들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29:7 그러니 이제 돌아서서 평안히 가거라. 블레셋 통치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마라."

29:8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머문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29: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29:10 그러니 이제 너와 함께 온 네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29:11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갔다.

30장

30:1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째 되는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태웠다.

30:2 그들은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해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았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고 모두 끌고 자기들의 길을 떠났다.

30:3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 있었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

30:4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30:5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30:6 백성이 저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워져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으므로,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왔다.

30:8 다윗이 주님께 "내가 이 약탈자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추격해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모두 되찾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0:9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부하 육백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 브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뒤처진 이들은 그곳에 머물렀다.

30:10 이백 명은 너무 지쳐서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머물렀고, 다윗은 사백 명을 이끌고 계속 추격했다.

30:11 그들이 들판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하여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30:12 또 무화과 과자 한 덩이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다. 그가 사흘 밤낮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으나, 먹고 나자 정신을 차렸다.

30:13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애굽 젊은이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30:14 우리가 그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과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의 남쪽 지역을 습격했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30:15 다윗이 그에게 "네가 나를 그 약탈자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말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제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그 무리에게로 데려다주겠습니다."

30:16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해 온 모든 전리품 때문에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30:17 다윗이 황혼 무렵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다.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사백 명 말고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30:18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해 냈다.

30:19 그들에게 속했던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전리품이든 그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왔다.

30:20 다윗은 양 떼와 소 떼를 모두 차지했고, 사람들은 그 가축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서 몰고 가며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30:21 다윗이 너무 지쳐서 다윗을 따르지 못하고 브솔 시내에 머물러 있게 했던 이백 명에게 이르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맞으러 나왔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안부를 물었다.

30:22 그러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모든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나서서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아 온 전리품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십시오."

30:23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약탈자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30:24 이 일에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싸움에 내려갔던 사람의 몫이나 물건 곁에 머물렀던 사람의 몫이나 같아야 합니다. 다 함께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30:25 그날 이후로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30: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유다의 장로들 곧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며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마련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30:27 그는 벧엘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 라못에 있는 사람들과 얏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고,

30:28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과 십못에 있는 사람들과 에스드모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냈으며,

30:29 라갈에 있는 사람들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과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30:30 또 호르마에 있는 사람들과 보라산에 있는 사람들과 아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냈고,

30:31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 드나들던 모든 곳에 보냈다.

31장

31: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칼에 맞아 쓰러졌다.

31: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따라잡아,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31:3 전투가 사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따라잡았고, 사울은 활 쏘는 자들 때문에 몹시 다급해졌다.

31:4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욕보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너무 두려워하여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가져다가 그 위에 엎드러졌다.

31:5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

31:6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다.

31:7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31:8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1:9 그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무기를 벗긴 뒤, 블레셋 사람들의 온 땅에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자기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31:10 그들은 사울의 무기를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그의 시신은 벧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31:11 야베스길르앗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31:12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벧산 성벽에서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와서 거기서 불태웠다.

31:13 그들은 그들의 뼈를 거두어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했다.

사무엘하

1장

1:1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1: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러 땅에 엎드려 절했다.

1:3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4 다윗이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해 보아라" 하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백성이 싸움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1:5 다윗이 소식을 전해 준 젊은이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다.

1:6 소식을 전해 준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1:7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 불렀기에, 제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1:8 그가 제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1:9 그러자 그가 제게 '제발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 다오. 목숨이 아직 내게 남아 있어 고통에 짓눌려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1:10 그가 쓰러진 뒤에는 살 수 없을 줄을 알았으므로, 제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제 주인께 가져왔습니다."

1:11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

1:12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이 칼에 쓰러졌으므로, 저녁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

1:13 다윗이 소식을 전해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묻자, 그가 "저는 이방 사람 곧 아말렉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1:14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냐?"

1:15 다윗이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자를 쳐라!" 하고 말하자, 그가 그를 쳐서 죽였다.

1:16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입이 스스로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1:17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두고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애도했다.

1:18 (그는 유다 자손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1:19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1:20 가드에 알리지 마라. 아스글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까 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까 봐 두렵다.

1:21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말고 예물로 바칠 열매를 내는 밭도 없기를 바란다.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더럽혀져 버려졌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의 방패처럼 사울의 방패가 버려졌기 때문이다.

1:22 죽임당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진 살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서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1:23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죽을 때에도 서로 갈라서지 않았다.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강했다.

1:24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붉은 옷을 곱게 입혀 주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 준 사울을 위해 울어라.

1:25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한가운데서 쓰러졌는가! 요나단이 네 높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1:26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형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 형은 내게 참으로 다정했고, 형이 나를 향해 품었던 사랑은 놀라워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1:27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2장

2:1 이 일이 있은 뒤에 다윗이 주님께 "내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리하여 다윗은 두 아내인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2:3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올라가게 했고, 그들은 헤브론의 성읍들에 자리 잡고 살았다.

2: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의 왕으로 삼았다. 그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입니다" 하고 알렸다.

2:5 다윗이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에게 이러한 정성을 다하여 그를 묻어 주었으니, 여러분은 주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2:6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이 일을 행했으므로 나 또한 여러분에게 이 선행을 갚겠습니다.

2:7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손을 굳게 잡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 집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8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2:9 그는 그를 길르앗과 아술 사람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2: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마흔 살이었으며, 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랐다.

2: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의 왕으로 다스린 기간은 일곱 해 여섯 달이었다.

2:12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갔다.

2:13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그리하여 한 편은 못 이쪽에 앉고,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앉았다.

2:14 아브넬이 요압에게 "젊은이들을 일으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고 말하자, 요압이 "그들을 일으켜 겨루게 하자" 하고 대답했다.

2:15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수를 맞추어 나아갔으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열두 명이었고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열두 명이었다.

2:16 그들은 저마다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핫수림이라고 불렀다.

2:17 그날 전투가 몹시 치열해졌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했다.

2:18 그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다. 아사헬은 발이 들가젤처럼 빨랐다.

2:19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했는데,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았다.

2: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네가 아사헬이냐?" 하고 묻자,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했다.

2:21 아브넬이 그에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아서서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를 붙잡아 그의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아사헬은 그를 쫓기를 멈추지 않았다.

2:22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했다. "나를 쫓기를 멈추어라. 내가 어찌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2:23 그래도 그가 물러서기를 거부하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이 등 뒤로 꿰뚫고 나왔다. 그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

2:24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광야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2:25 베냐민 자손은 아브넬을 따라 하나로 뭉쳐 한 무리를 이루고 언덕 꼭대기에 섰다.

2:26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외쳤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삼켜야 하겠는가? 결국에는 씁쓸한 일만 남을 것을 알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백성에게 자기 형제를 쫓기를 멈추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겠는가?"

2:27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장군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백성은 아침까지 각자 자기 형제를 쫓아갔을 것이오."

2:28 요압이 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멈춰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았고, 싸움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2:29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그 밤새도록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온 비드론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2:30 요압은 아브넬을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온 백성을 모았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아사헬을 비롯해 열아홉 명이 보이지 않았다.

2:31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삼백육십 명을 죽였다.

2:32 그들은 아사헬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가니,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동이 텄다.

3장

3:1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으나,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3: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이었다.

3:3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길르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 압살롬이었다.

3:4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야였다.

3:5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이드르암이었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3:6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 집안에서 자기 세력을 굳혀 갔다.

3:7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였고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소?" 하고 따졌다.

3: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유다에 속한 개 머리란 말이오? 오늘 내가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여인에 관한 잘못을 물어 나를 탓하려 하시오?

3:9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3:10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 왕국을 사울의 집안에서 넘겨받아 다윗의 보좌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오."

3:11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3:12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동맹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려놓겠습니다."

3:13 다윗이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과 조약을 맺겠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겠소. 당신이 내 얼굴을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오."

3:14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그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주고 결혼한 사람이오."

3: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다.

3:16 그의 남편은 울면서 그를 따라 바후림까지 왔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고 말했고, 그는 돌아갔다.

3:17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난날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3:18 그러니 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3:19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말했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귀에 말하러 직접 갔다.

3:20 아브넬이 부하 스무 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르자,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3:2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제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로 모아 오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언약을 맺어, 왕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자, 그는 평안히 떠났다.

3:22 그때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냈고 그가 평안히 떠났기 때문이다.

3:23 요압과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었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평안히 떠났습니다" 하고 전했다.

3:24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왕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벌써 가 버리게 하셨습니까?

3:25 왕께서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을 속이고 왕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살피며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3:26 요압은 다윗에게서 나와 아브넬의 뒤로 전령들을 보냈고,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했다.

3: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성문 안쪽 한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를 갚으려는 것이었다.

3:28 그 뒤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3:29 그 피의 죗값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 고름을 흘리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는 자나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나 먹을 빵이 없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3: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3:31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은 상여 뒤를 따라갔다.

3:32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자 왕이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목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3:33 왕이 아브넬을 두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아브넬이 어찌 어리석은 자의 죽음처럼 죽어야 했는가?

3:34 네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네 발이 쇠사슬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들 앞에 쓰러지듯 그렇게 네가 쓰러졌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그를 두고 다시 울었다.

3:35 아직 대낮이었는데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기를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다른 어떤 것을 맛보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좋다" 하고 맹세했다.

3:36 온 백성이 이를 알아채고 좋게 여겼으니, 왕이 행한 모든 일이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3:37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3:38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이자 위대한 인물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3: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오늘은 힘이 약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드세다. 주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4장

4:1 사울의 아들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안에 떨었다.

4:2 사울의 아들에게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는데, 베냐민 자손 가운데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도 베냐민에 속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4:3 브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도망쳐서 오늘날까지 거기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4:4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전해졌을 때 그는 다섯 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쳤다. 유모가 서둘러 도망치다가 아이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었다.

4: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한낮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4:6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집 안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고 나서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는 달아났다.

4:7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침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따라 도망쳤다.

4:8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와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목숨을 노리던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주 왕을 위해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4: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 생명을 온갖 환난에서 건져 주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4:10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알리며 자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여겼을 때,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으니, 그것이 내가 그에게 전한 소식의 대가로 준 것이었다.

4:11 하물며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그의 집 자기 침상 위에서 죽였으니, 이제 내가 그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손에서 찾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 버리지 않겠느냐?"

4:12 다윗이 자기 젊은이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5장

5:1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입니다.

5:2 지난날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오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왕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오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5:4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서른 살이었으며,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5:5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5:6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땅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에게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하고 말했으니, "다윗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5:7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5:8 그날 다윗이 말했다. "여부스 사람들을 치는 자는 누구든지 물길을 타고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움을 받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쳐라." 그러므로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말이 생겼다.

5:9 다윗은 그 산성에 머물며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성벽을 쌓았다.

5:10 다윗은 점점 더 위대해졌으니,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5: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전령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5:12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굳게 세우셨으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셨음을 깨달았다.

5:13 다윗은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 예루살렘에서 첩들과 아내들을 더 맞아들였고, 다윗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더 태어났다.

5: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5:15 입할, 엘리수아, 네벡, 야비아,

5:16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이었다.

5:17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5:18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퍼져 있었다.

5:19 다윗이 주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5: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쳐부수고 말했다. "주님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터뜨려 흩으셨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5:21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거기에 버려두었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워 버렸다.

5:22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퍼졌다.

5:23 다윗이 주님께 여쭙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곧바로 올라가지 마라.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여라.

5:24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곧바로 움직여라. 그때 주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5:25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6장

6:1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사람 삼만 명을 모두 모았다.

6:2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6: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어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6:4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걸어갔다.

6: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주님 앞에서 연주했다.

6:6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렸으므로,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6:7 주님의 진노가 웃사를 향해 불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그를 거기서 치셨고, 그는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6:8 주님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언짢아하여,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웃사라고 불렀다.

6:9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말했다. "어찌 주님의 궤가 내게로 올 수 있겠는가?"

6:10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 갔다.

6:11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6:12 다윗 왕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기쁨으로 모셔 올렸다.

6:13 주님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6:14 다윗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모시 에봇을 입고 있었다.

6:15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셔 올렸다.

6:16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6:17 그들은 주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위해 쳐 놓은 장막 한가운데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6:18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뒤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6:19 그리고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온 무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빵 한 개와 대추야자 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6:20 다윗이 자기 집안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염치없는 불량배가 부끄러움도 없이 벗어 제치는 것처럼, 오늘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6:21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보다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주님 앞에서 한 일이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 것이오.

6: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 눈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오."

6:23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7:1 왕이 자기 궁궐에 살고, 주님께서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였다.

7:2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7:3 나단이 왕에게 "주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마음에 품으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7:4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7: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 집을 네가 나를 위해 짓겠다는 말이냐?

7: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집에 머물지 않고 장막과 성막을 처소 삼아 옮겨 다녔다.

7:7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7: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 떼를 따르던 자리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7:9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없애 버렸다. 이제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7:10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어, 그들이 자기 처소에 살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악한 자들이 예전처럼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7:11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웠던 날부터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 주겠다. 더욱이 주님이 너를 위해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임을 주님이 네게 선포한다.

7:12 네 날들이 다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네 몸에서 나올 네 뒤의 자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7: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할 것이다.

7: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7:15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었던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7:16 네 집안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될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이다.'"'

7:17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7:18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님 앞에 앉아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7:19 주 하나님, 주님의 눈에는 이것조차 작은 일이어서, 주님의 종의 집안에 닥칠 먼 훗날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까!

7:20 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는데,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을 더 아뢸 수 있겠습니까?

7:21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이 모든 큰일을 이루셔서 주님의 종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7:22 그러므로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며,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7:23 땅 위에 어느 한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속량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떨치시며, 주님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7:24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7:25 이제 주 하나님, 주님의 종과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영원히 확증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7:26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7:27 만군의 주님이시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종에게 계시하여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7:28 이제 오 주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 좋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7:29 그러니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8장

8:1 이 일이 있은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수도의 통제권을 빼앗았다.

8:2 그는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었다. 두 줄 길이에 이르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을 꽉 채운 길이에 이르는 사람들은 살려 두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8:3 또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를 쳤다.

8:4 다윗은 그에게서 기병 천칠백 명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병거 백 대를 이끌 말들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

8:5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쳐 죽였다.

8:6 그러고 나서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 주셨다.

8:7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차고 있던 금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8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대에서 아주 많은 놋을 빼앗았다.

8:9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8:10 하닷에셀은 도이와 전쟁을 벌이던 사이였으므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축하하게 했다.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들을 가지고 왔다.

8:11 다윗 왕은 이것들도 주님께 바쳤는데,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8:12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들과,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바쳤다.

8:13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아람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8:14 그는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으며,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 주셨다.

8:15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8: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다.

8:17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8: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었다.

9장

9:1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9:2 사울 집안에는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렀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다. "종이 시바입니다."

9:3 왕이 물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하나 있는데, 두 발을 다 접니다."

9:4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9:5 이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9:6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므비보셋이냐?" 하고 부르자, 그가 "네,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9:7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9:8 므비보셋이 절하며 말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9:9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속했던 것을 모두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9:10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어들여, 네 주인의 아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당시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9:11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종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9:12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9:13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10장

10:1 그 뒤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2 다윗이 말했다.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잃은 하눈을 위로하게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10:3 그러나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주인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왕에게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뒤지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10: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의 중간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 낸 뒤에 돌려보냈다.

10: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큰 수치를 느꼈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

10:6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벧르호브의 아람 사람들과 소바의 아람 사람들 가운데 보병 이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군사 천 명, 돕 사람들 만 이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10:7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모든 용사들의 군대를 보냈다.

10:8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전열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호브의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판에 진을 쳤다.

10:9 요압은 전선이 자기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병사를 뽑아 아람 사람들을 마주하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10:10 남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을 마주하여 전열을 갖추게 했다.

10:11 요압이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10:12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

10:13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아가자,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다.

10: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들 역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0:15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다시 한데 모였다.

10: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고 하닷에셀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10:17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맞아 전열을 갖추고 그와 맞서 싸웠다.

10:18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고, 다윗은 아람의 병거 병사 칠백 명과 기병 사만 명을 죽였다. 또한 그들의 군대 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

10:19 하닷에셀을 섬기던 모든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겼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다.

11장

11: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11:2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보았다. 그 여인은 보기에 몹시 아름다웠다.

11:3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자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닙니까?"

11:4 다윗이 사령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오자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했다. (그 여인은 정결 예식을 마쳐 부정을 벗은 상태였다.) 그 뒤에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1:5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알렸다.

11:6 다윗이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11: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자, 다윗은 요압이 잘 있는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전쟁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었다.

11:8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자, 왕이 내린 선물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11:9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주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11:10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알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다. "길을 멀리 다녀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11:11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머물고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인의 신하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제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눕겠습니까? 왕께서 살아 계심과 왕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11:12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에 머물러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과 이튿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11:13 다윗이 그를 부르자,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다윗은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나가서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11:14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11:15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세우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 죽게 하라."

11:16 요압은 성읍을 감시하다가,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11:17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다.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서 백성 몇 사람이 쓰러졌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11:18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11:19 요압은 전령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네가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왕께 다 말씀드린 뒤에,

11:20 왕께서 진노하셔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성읍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줄을 몰랐느냐?

11: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맷돌 위짝을 그에게 던져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그렇게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라."

11:22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에게 보낸 모든 소식을 전했다.

11:23 전령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들판으로 우리를 치러 나왔으나, 우리가 그들을 몰아세워 성문 어귀까지 이르렀습니다.

11:24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종들을 쏘아, 왕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11:25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해라.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삼키는 법이니, 이 일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그 성읍을 향해 더 거세게 공격을 퍼부어 성읍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여 요압을 격려하라."

11:26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애도했다.

11:27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일은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

12장

12:1 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12:2 그 부자에게는 양 떼와 소 떼가 아주 많았으나,

12:3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셨으며, 그의 품에 누워 그에게는 딸과 같았습니다.

12:4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온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 떼나 소 떼에서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워,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2:5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 몹시 분노하여 나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런 짓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12:6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양을 네 배로 물어 주어야 마땅하다!"

12:7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

12:8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네게 맡겼다.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12:9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헷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그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다.

12:10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 칼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12:11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네 집안에서 너를 거스르는 재앙을 일으키겠다.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12:12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저질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과 대낮에 이 일을 행하겠다.'"

12:13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12:14 그러나 왕이 이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큰 빌미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2:15 그러고 나서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를 치시자,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다.

12:16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은 금식하고 방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12:17 그의 집안 장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다윗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12:18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으나 왕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스스로를 해치실지도 모릅니다" 했다.

12:19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죽었습니다."

12:20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뒤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 뒤에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 오라고 청하여 음식을 먹었다.

12:21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십니다."

12:22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2:23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12:24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나아가 동침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12:25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12:26 한편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의 도성을 함락시켰다.

12:27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했다. "제가 랍바와 맞서 싸워 물의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12:28 그러므로 이제 남은 군사들을 모아 성읍을 마주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읍을 점령하여 그곳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12:29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과 맞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했다.

12:30 다윗은 그들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고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이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다. 다윗은 그 성읍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12:31 다윗은 그 성읍 안에 있던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쇠도끼질과 쇠도끼 작업과 벽돌 굽는 가마에서 일하게 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도 이와 같이 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온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13:1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했다.

13:2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어찌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13:3 그런데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었다. 요나답은 매우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13:4 요나답이 그에게 물었다. "왕자님, 어찌하여 날마다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내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13:5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척하십시오. 왕자님의 부친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게 먹을거리를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차려 그녀의 손에서 직접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13:6 이에 암논이 누워 병든 척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왕에게 말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과자 몇 개를 만들어, 그녀의 손에서 직접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13:7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지금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려 주어라."

13:8 다말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암논이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반죽을 가져다가 치대어 그가 보는 앞에서 과자를 빚고 구웠다.

13:9 다말이 냄비를 가져다가 과자를 암논 앞에 쏟아 놓았으나, 암논은 먹기를 거절했다. 암논이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물러갔다.

13:10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그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오너라. 내가 네 손에서 직접 받아먹겠다."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오라비 암논에게 건넸다.

13:11 다말이 그에게 먹으라고 가까이 가져갔을 때,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눕자!"

13:12 다말이 그에게 대답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 나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13:13 내가 이 수치를 어디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3:14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다말을 억누르고 강제로 그녀와 동침했다.

13:15 그런 뒤에 암논은 몹시 큰 증오심으로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다말을 미워하는 미움이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다. 암논이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 나가라!"

13:16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잘못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이전의 잘못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13:17 암논이 자기를 시중드는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여자를 내게서 당장 밖으로 내쫓고, 뒤따라 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가라."

13:18 다말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처녀인 공주들은 그런 겉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암논의 종이 그녀를 밖으로 내쫓고 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갔다.

13:19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입고 있던 알록달록한 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부짖으며 길을 떠나갔다.

13:20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누이야,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는 네 오라비이니, 이 일로 너무 마음을 상해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13:21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13:22 압살롬은 암논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그를 몹시 미워했기 때문이다.

13:23 꼭 두 해가 지난 뒤,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했다.

13:24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와 말했다. "보십시오, 종에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왕과 신하들이 종과 함께 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13:25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가면 네게 짐이 될 터이니 가지 않겠다." 압살롬이 거듭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 하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3:26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제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13:27 그러나 압살롬이 간청하므로, 왕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 주었다.

13:28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주의하여 지켜보다가, 암논이 포도주를 마셔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라' 하고 말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용기를 내어 용맹하게 행동하라!"

13:29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13:30 그들이 아직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13:31 이에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으며, 곁에 서 있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13: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다. "내 주께서는 왕자님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으로 이 일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13:33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왕자님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13:34 한편 압살롬은 도망쳤다. 망을 보던 젊은이가 눈을 들어 보니, 많은 사람이 자기 뒤쪽 산비탈 길로 내려오고 있었다.

13:35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종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13:36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이르러 목놓아 울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13:37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두고 슬퍼했다.

13:38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세 해 동안 머물렀다.

13:39 다윗 왕은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에 대한 슬픔을 가라앉히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14장

14: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14:2 요압은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와 그녀에게 말했다. "부디 애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애도해 온 여인처럼 행하십시오.

14:3 왕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요압은 그녀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

14:4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14:5 왕이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참으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14:6 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들판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14:7 그런데 보십시오, 온 집안이 종을 거슬러 일어나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쳐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 상속자마저 없애 버리겠다'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내게 남아 있는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려, 제 남편에게 이 땅 위에 이름도 후손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14:8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네 집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14:9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과 왕의 보좌는 죄가 없게 하십시오."

14:10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너를 탓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14:11 여인이 말했다. "부디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억하셔서, 피의 보복자가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파멸시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14:12 여인이 말했다. "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 더 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하여라" 했다.

14:13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이런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 쫓겨난 자기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시니, 이런 말씀을 하신 왕 자신이 죄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14:14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이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여러 방도를 찾으셔서, 쫓겨난 자라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14:15 그러므로 제가 이제 내 주 왕께 나아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왕께 말씀드리면, 왕께서 종의 간청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14:16 왕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에서 저와 제 아들을 함께 멸망시키려는 자의 손에서 종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17 그래서 종이 생각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14:18 그러자 왕이 여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마라." 여인이 말했다. "내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14:19 왕이 물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배후에 있지 않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내 주 왕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제게 시켰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14:20 왕의 종 요압이 사태의 국면을 바꾸려고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으셔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14:21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 청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14:22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요압이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종의 간청을 들어주셨으니,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14:23 이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14:24 왕이 말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14:25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외모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14:26 그는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를 깎곤 했는데, 그가 깎은 머리털을 왕실 저울로 달아 보면 이백 세겔이나 나갔다.

14:27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14:28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꼬박 두 해 동안 살면서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14:29 이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그를 불렀으나, 요압은 그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 하지 않았다.

14:30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곁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다. 가서 그 밭에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14:31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왕자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14: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내가 어찌하여 그술에서 돌아왔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그대로 있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십시오.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14:33 이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그 말을 전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자 그가 왕에게 나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15장

15:1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릴 호위병 오십 명을 두었다.

15:2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목 곁에 서 있곤 했다. 재판을 받으려고 왕에게 소송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압살롬이 그를 불러 "너는 어느 성읍 출신이냐?"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곳 출신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15:3 압살롬은 그에게 "보시오, 당신의 사정은 옳고 정당하지만, 왕에게는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세운 사람이 없소" 하고 말했다.

15:4 압살롬은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으로 세워져서, 소송이나 판결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정의롭게 판결해 줄 수 있을 텐데!"

15:5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15:6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려고 왕에게 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15:7 사십 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갚게 해 주십시오.

15:8 종이 아람의 그술에 머물 때 서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15:9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니, 압살롬이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15:10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밀사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했다.

15:11 초대를 받은 이백 명의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는데, 그들은 순진하게 따라갔을 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15:12 압살롬이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불러왔다. 반역의 음모가 점점 강해졌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의 수도 끊임없이 늘어났다.

15:13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15:14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 떠나자. 그가 곧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덮어씌우고 칼날로 이 성읍을 칠까 두렵다."

15:1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종들은 내 주 왕께서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16 왕이 나가고 그의 온 집안이 그의 뒤를 따랐다.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열 명을 남겨 두었다.

15:17 왕이 나가고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랐으며, 그들은 벧메르학에 머물렀다.

15:18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사람 육백 명이 왕의 앞으로 나아갔다.

15:19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며 또한 망명자이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15:20 너는 어제 왔을 뿐인데, 내가 오늘 너를 우리와 함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가서 네 동포들도 데려가거라. 인자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15:21 잇대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죽음이든 생명이든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종도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15:22 다윗이 잇대에게 "가서 건너가거라"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어린아이들이 다 건너갔다.

15:23 온 땅의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고, 모든 백성이 건너갔다. 왕도 친히 기드론 시내를 건넜고, 모든 백성도 광야 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15:24 보라, 사독도 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은 온 백성이 성읍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올라가 기다렸다.

15:25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 안으로 다시 메고 돌아가라.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셔서 그 궤와 주님의 처소를 내게 보여 주실 것이다.

15:26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5: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냐?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곧 두 사람의 아들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15:28 보아라, 너희에게서 내게 소식을 전해 주는 전갈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길목 나루터에 머물러 있겠다."

15:29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15:30 다윗은 올리브산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저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15:31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이 말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15:32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쓴 채 다윗을 맞으러 왔다.

15:33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짐이 될 뿐이다.

15:34 그러나 그대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왕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대는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15:35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모든 것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라.

15:36 보라, 그들에게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곧 그들의 두 아들이 함께 있다. 그대들이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으로 내게 보내어 알려라."

15:37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새가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16장

16:1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나쳤을 때,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와서 그를 맞이했다. 나귀들 위에는 빵 이백 덩이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가 실려 있었다.

16:2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다 무슨 뜻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집안사람들이 타도록 한 것이고, 빵과 여름 과일은 젊은이들이 먹게 한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16:3 왕이 물었다.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다' 했습니다."

16:4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보아라, 므비보셋에게 딸린 모든 것이 이제 네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제가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제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16: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는데,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16:6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서 있었다.

16:7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다. "꺼져라, 꺼져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한 놈아!

16:8 주님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네게 갚으셨다! 네가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여 왕이 되었으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네가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이기에 네 자신의 악행에 걸려든 것이다!"

16:9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16:10 왕이 말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16:11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 저주하게 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16:12 혹시 주님께서 내가 겪는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 그가 내린 저주 대신에 주님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

16:13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길을 계속 갔고, 시므이는 다윗의 맞은편 산비탈을 따라 걸어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

16:14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지친 몸으로 목적지에 이르러, 거기서 숨을 돌렸다.

16:15 한편 압살롬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16:16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아와 말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16:17 압살롬이 후새에게 말했다. "이것이 친구를 향한 그대의 신의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16:18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택하신 분에게 제가 속할 것이며, 제가 그분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16:19 또한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부친 앞에서 섬겼던 것처럼, 이제 왕 앞에서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16:20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내놓으시오."

16: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왕의 부친께서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 두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부친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며,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16:22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에 압살롬을 위하여 장막을 쳤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16:23 그 무렵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성소 안쪽에서 물어 얻은 답처럼 여겨졌다. 다윗에게든 압살롬에게든 그의 모든 조언이 그랬다.

17장

17: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말하였다. "이제 제가 만 이천 명을 뽑아, 오늘 밤 당장 일어나 다윗의 뒤를 쫓게 해 주십시오.

17:2 그가 지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들이닥쳐 그를 겁에 질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이고, 저는 오직 왕만을 칠 것입니다.

17:3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만 쓰러뜨리면 모든 백성이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으니, 온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17:4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 말을 매우 좋게 여겼다.

17:5 그러나 압살롬이 말하였다. "아렉 사람 후새도 불러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들어보자."

17:6 후새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였소.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17:7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책은 좋지 않습니다."

17:8 후새가 말을 이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들이며, 들판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독이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노련한 전사라서 백성과 함께 밤을 지내지 않습니다.

17:9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느 구덩이나 다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군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쓰러지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든지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패하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7:10 그러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사라도 완전히 사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이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용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11 그러므로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온 이스라엘을 왕께로 불러 모으고, 왕께서 직접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17:12 그렇게 하면 그가 발견되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덮칠 수 있으며, 땅에 이슬이 내리듯 그를 덮쳐 그와 그의 모든 부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17:13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간다 해도,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끌어내어 강물 속에 던져 넣고, 그곳에 작은 돌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17: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아렉 사람 후새의 계책이 아히도벨의 계책보다 낫다." 이는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책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셨던 것이다.

17:15 그 뒤에 후새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놓았고, 저도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17:16 그러니 이제 서둘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리십시오. '오늘 밤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하고 전하십시오."

17:17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므로 한 여종이 오가며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곤 하였다.

17:18 그러나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나 바후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두 사람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17:19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귀를 덮고 그 위에 찧은 곡식을 펼쳐 놓으니,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하였다.

17: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 여인에게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그들은 물시내를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7:21 그들이 떠난 뒤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서둘러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치려고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17:22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7:23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얹어 일어나 자기 성읍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 목을 매어 죽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에 묻혔다.

17:24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17:25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자매인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한 사람이었다.

17:26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17:27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자손의 성읍 랍바 출신인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인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겔림 출신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찾아왔다.

17:28 그들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그리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앗,

17:29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8장

18:1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호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18:2 다윗은 백성의 삼분의 일은 요압의 지휘 아래, 삼분의 일은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지휘 아래 내보냈다. 왕이 백성에게 "나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나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18:3 그러나 백성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 만 명보다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읍에 머무시며 우리를 돕도록 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8:4 왕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왕이 성문 곁에 서 있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열을 지어 나아갔다.

18: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였다. "나를 보아서라도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18:6 이에 군대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고, 전투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다.

18: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배하였으며, 그날 그곳에서 죽은 자가 이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살육이 일어났다.

18:8 싸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갔는데, 그날 수풀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18:9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고,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빠져나가 버렸다.

18:10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렸다. "제가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8:11 요압이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를 쳐서 당장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18: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 손에 은 천 개를 쥐여 준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누구도 저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18:13 만일 제가 왕의 명을 거스르고 그의 목숨을 해쳤다면, 왕께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장군님 스스로도 저를 편들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18:14 그러자 요압이 "너와 함께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손에 작은 창 세 자루를 쥐고,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나무 한가운데에 살아서 매달려 있을 때 그의 심장을 찔렀다.

18:15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젊은 군사 열 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쳐서 그를 죽였다.

18:16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18:17 그들은 압살롬을 끌어다가 수풀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18:18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여, 왕의 골짜기에 있는 돌기둥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세워 두었다. 그는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린다.

18:19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제가 달려가서 주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해 주십시오."

18:20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도록 하여라. 오늘은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소식을 전하지 마라."

18:21 그리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전하여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18: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간청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도 제발 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말하였다. "내 아들아, 소식을 가져가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텐데, 네가 왜 가려고 하느냐?"

18:23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요압이 "달려가거라!" 하고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아히마아스는 들판 길로 질주하여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18:24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벽 문루 지붕으로 올라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었다.

18:25 파수꾼이 소리쳐 왕에게 알렸다. 왕이 말하였다.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18:26 그때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쳐 말하였다.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18:27 파수꾼이 말하였다. "앞서 오는 사람의 달리는 모습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 같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18: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평안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내 주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든 자들을 넘겨주신 왕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18:29 왕이 물었다.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였다. "요압이 왕의 종과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18:30 왕이 말하였다. "물러서서 저기 서 있어라." 그가 물러서서 가만히 서 있었다.

18:31 이어 구스 사람이 다다라 말하였다. "내 주 왕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에게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18: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다.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18:33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슬퍼하며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19장

19:1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19:2 왕이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을 그날 온 백성이 전해 듣고, 그날의 승리는 온 백성에게 통곡으로 바뀌었다.

19:3 백성은 마치 전쟁터에서 도망치느라 부끄러워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날 성읍 안으로 숨어들었다.

19:4 왕은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었다.

19:5 요압이 왕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딸들의 목숨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 준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19:6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십니다. 오늘 왕께서는 지휘관들과 신하들이 왕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임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19:7 그러니 이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단 한 사람도 왕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으신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왕께 닥칠 것입니다."

19:8 이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19:9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백성 사이에 서로 다투며 말하였다. "왕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 주셨는데, 지금은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달아나셨다.

19:10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가?"

19:11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러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가장 늦습니까?

19:12 여러분은 나의 형제요 나의 살과 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꼴찌가 되려 합니까?'

19:13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하십시오. '너는 나의 살과 뼈가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19:14 다윗이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돌려놓으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께서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하고 전하였다.

19:15 그리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다.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여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길갈로 왔다.

19:16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다.

19:17 그와 함께 베냐민 사람 천 명이 있었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과 함께 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으로 뛰어들었다.

19:18 왕의 가족을 건너오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섬기기 위해 나룻배 한 척이 오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19:19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는 저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이 종이 저지른 패역한 짓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19:20 이 종이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셉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19:21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말하였다. "시므이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저주하였는데, 이 일로 그를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9:22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라도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19:23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며 그에게 맹세하였다.

19: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발도 가꾸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았다.

19:25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19:26 그가 대답하였다. "내 주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가 나귀에 안장을 얹고 타고서 왕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19:27 그 종이 내 주 왕께 이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하십시오.

19:28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 불과하였으나, 왕께서는 이 종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권리가 더 있어서 왕께 더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19:29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네 일에 대해 더 말하느냐? 내가 명령하니, 너와 시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19:30 므비보셋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 주 왕께서 왕궁에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가 전부 차지해도 좋습니다."

19:31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도 로겔림에서 내려와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배웅하려고 왕과 함께 요단강으로 갔다.

19:32 바르실래는 여든 살이나 된 매우 늙은 사람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왕에게 양식을 대접하였다.

19:33 왕이 바르실래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당신을 돌보아 드리겠소."

19:34 바르실래가 왕에게 말하였다. "제 남은 여생의 날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19:35 제가 오늘 여든 살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는 맛을 어찌 알겠으며, 노래하는 남녀의 노랫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종이 내 주 왕께 짐이 되겠습니까?

19:36 이 종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조금 건너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제게 이처럼 큰 보상으로 갚으려 하십니까?

19:37 부디 이 종이 다시 돌아가 내 고향 성읍에서 내 부모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19:38 왕이 대답하였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그에게 해 줄 것이며, 당신이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다 해 주겠소."

19:39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자, 바르실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9:40 왕이 길갈로 건너가니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왕을 모시고 건넜다.

19:41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왕을 가로채어, 왕과 왕의 집안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모셔 왔습니까?"

19:42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왕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의 비용으로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라도 했느냐?"

19:43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지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도 너희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 왕을 다시 모셔 오는 일에 우리와 먼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칠었다.

20장

20:1 마침 그곳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세바라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20:2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만두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왕 곁에 굳게 붙어 있었다.

20:3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이르렀다. 왕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 열 명을 데려다가 별채에 가두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20:4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나를 위해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나오너라."

20:5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갔으나, 왕이 정해 준 기한을 넘겨 지체하였다.

20:6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칠 것이다. 너는 네 주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거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숨어 우리 눈앞에서 벗어날까 두렵다."

20:7 이에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나섰는데,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20:8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맞으러 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띠에는 칼집에 꽂힌 칼이 매여 있었는데, 그가 걸어갈 때에 칼이 칼집에서 빠져 떨어졌다.

20:9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제여, 잘 있었소?" 하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20:10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든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자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고,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20:11 요압의 젊은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자, 다윗 편에 선 자는 요압을 따르라!"

20:12 아마사는 큰길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온 백성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길에서 끌어내어 들판으로 옮긴 뒤, 그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그 시체 위에 겉옷을 덮어 주었다.

20:13 그가 큰길에서 치워지자, 온 백성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요압을 따라 나아갔다.

20:14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 아벨과 벧마아가와 브리아 온 지역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도 다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20:15 요압의 군대가 와서 벧마아가의 아벨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성읍을 향해 흙 언덕을 쌓아 올리니, 그것이 성벽 바깥 방벽 높이까지 닿았다. 그리고 요압과 함께한 온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허물어뜨리기 시작하였다.

20:16 그때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외쳤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부디 요압 장군께 '내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전해 주십시오."

20: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여인이 "당신이 요압입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여인이 그에게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그가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20:18 여인이 말하였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보아야 한다' 하였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20:19 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 하나를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유산을 삼키려 하십니까?"

20:20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렇지 않소! 내가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오.

20:21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비그리의 아들로서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곧 다윗을 대적하였소. 너희가 그 사람만 넘겨준다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날 것이오."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질 것입니다."

20:22 이에 그 여인이 지혜를 발휘하여 온 백성에게 나아갔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내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대는 성읍을 떠나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흩어졌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20:23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었다.

20:24 아도람은 강제 노동을 맡은 사람들을 관리하였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20:25 세와는 서기관이었으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20:26 그리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었다.

21장

21:1 다윗의 시대에 해마다 굶주림이 이어져 삼 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의 뜻을 구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린 죄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기 때문이다."

21:2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세한 바가 있었음에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다.)

21:3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소? 내가 무엇으로 죗값을 치러야 여러분이 주님의 유산을 축복하겠소?"

21:4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다투는 것은 은이나 금의 문제가 아니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를 죽이는 것도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다 해 주겠소."

21:5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몰살시키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안에도 머물지 못하도록 멸절시키려 흉계를 꾸민 그 사람,

21:6 그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향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목매달겠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21:7 그러나 왕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아껴 주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맺은 주님 앞에서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21:8 대신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 준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 준 다섯 아들을 붙잡았다.

21:9 다윗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산 위에서 주님 앞에 그들을 목매달았다. 그리하여 그 일곱 사람이 함께 쓰러졌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기, 곧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첫 무렵이었다.

21: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시체들을 적실 때까지 머물렀다. 그녀는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시체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였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다.

21:11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21:12 이에 다윗이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벧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던 것을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왔던 것이다.

21:13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거두어들였다.

21:14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묻고 왕이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21:15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몹시 지쳤다.

21:16 그때 거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이스비브놉이라는 자가 무게가 삼백 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새 칼을 차고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21:17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였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21:18 그 뒤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죽였다.

21:19 또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베틀채만큼 굵었다.

21:20 가드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 거기 키가 매우 큰 자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양쪽에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였으며, 그 또한 거인의 자손이었다.

21:21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죽였다.

21:22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거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이었으며,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2장

22:1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주님께 아뢰었다.

22:2 그가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22:3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폭력에서 건져내십니다.

22:4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22:5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22:6 스올의 밧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습니다.

22:7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22:8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뒤흔들리고 흔들렸으니,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22:9 그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입에서 삼키는 불이 뿜어져 나왔으며, 숯불이 그 불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22:10 주님께서 하늘을 드리우시고 내려오시니, 짙은 어둠이 주님의 발밑에 깔렸습니다.

22:11 그룹을 타고 날아가셨고, 바람 날개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22:12 주님께서 어둠으로 사방에 장막을 치셨으니, 모여든 물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그리하셨습니다.

22:13 그분 앞의 눈부신 광채로 말미암아 불붙는 숯들이 타올랐습니다.

22:14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22:15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22:16 주님의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콧김의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길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22:17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붙드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22:18 나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22:19 내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그들이 내게 들이닥쳤으나, 주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22:20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22:21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22:22 내가 주님의 길을 지켰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23 그분의 모든 법도가 내 앞에 있었고, 그분의 규례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2:24 나 또한 그분 앞에서 흠 없이 행하며 내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22:25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따라, 주님의 눈앞에 드러난 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습니다.

22:26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나타내시며,

22:27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고,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지혜를 보이십니다.

22:28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오만한 자들을 눈여겨보시어 그들을 낮추십니다.

22:29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저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22:30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들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22:31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22:32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22: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내 길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22:34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22:35 내 손에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니, 내 팔이 청동 활도 당깁니다.

22:36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2:37 내 발걸음이 딛는 곳을 넓혀 주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22:38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을 다 없애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2:39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고 찔러 쓰러뜨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내 발아래 쓰러졌습니다.

22:40 주님께서 싸우러 나갈 힘을 내게 띠 띠워 주셨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22:41 주님께서는 또한 내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하셨으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렸습니다.

22:42 그들이 둘러보았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2:43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고,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아 온 사방에 흩어 버렸습니다.

22:44 주님께서는 또한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지켜 뭇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22: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 소문을 듣자마자 내게 복종할 것입니다.

22:46 이방인들의 기세가 꺾이고, 자기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떨며 나올 것입니다.

22:47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분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22:48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시고, 뭇 백성을 내 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2:49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시고, 폭력배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22:50 그러므로 주님, 내가 뭇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22:51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십니다."

23장

23:1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러하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자가 말한다.

23:2 "주님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끝에 머물렀다.

23: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셨다. '의롭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23:4 해가 뜰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내린 뒤 맑게 비치는 햇살로 땅에서 움트는 연한 풀과 같을 것이다.'

23:5 내 집안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서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질서를 잡고 굳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나와 맺으셨으니, 이것이 나의 온전한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 아니겠는가? 그분께서 어찌 이를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23:6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모두 내던져질 가시덤불과 같으니, 손으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23:7 가시나무를 만지는 사람은 쇠붙이와 창자루로 무장해야 하니,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불속에 완전히 던져져 타 버릴 것이다."

23:8 다윗이 거느렸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렸는데, 한 번에 팔백 명을 쳐죽인 사람이다.

23:9 그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그는 싸우려고 모여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을 때, 다윗과 함께 싸운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23:10 그는 손이 지치고 손이 칼에 굳어붙을 때까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날 주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어 주셨으므로, 백성은 전리품을 챙기러 그의 뒤를 따라 돌아왔을 뿐이다.

23:11 그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팥이 가득 심긴 밭뙈기가 있는 곳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자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달아났다.

23:12 그러나 그는 그 밭뙈기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켜내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23:13 추수 때에 서른 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굴로 내려와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23:14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군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23:15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내게 마시게 해 줄까?"

23:16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주님께 부어 드렸다.

23:17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23:18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쳐 죽여 그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23:19 그는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23:20 갑스엘 출신의 용감한 사람의 손자이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도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죽였고,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 한가운데로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다.

23:21 그는 또 체구가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에게 내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23: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여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23:23 그는 서른 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23:24 서른 명 가운데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었고,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23:25 하롯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카,

23:26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

23: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므분내,

23:28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래,

23: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출신 리배의 아들 잇대,

23:30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아스 골짜기 시내 출신 힛대,

23: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훔 사람 아스마웹,

23:32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들, 요나단,

23:33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

23:34 마아갓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23:35 갈멜 사람 헤스래, 아랍 사람 바아래,

23:36 소바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23:37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던 브에롯 사람 나하래,

23:38 이드라 사람 이라, 이드라 사람 가렙,

23:39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서른일곱 명이었다.

24장

24:1 주님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그들을 치게 하시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24:2 왕이 곁에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의 수를 세어라. 내가 백성의 총수를 알고자 한다."

24:3 요압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백성이 얼마나 되든지 백 배나 더 많게 하시고, 내 주 왕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24:4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떠났다.

24:5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 남쪽 아로엘에 진을 쳤고, 이어서 야셀로 나아갔다.

24:6 그 뒤 그들은 길르앗과 다힘홋시 땅에 이르렀고, 단얀에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갔으며,

24:7 두로 요새와 히위 사람 및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다 남쪽으로 나아가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24:8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4:9 요압이 인구 조사의 총수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빼는 용감한 사람이 팔십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은 오십만 명이었다.

24:10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지른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24: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4:12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니,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24:13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며 말했다. "왕의 땅에 칠 년 동안 기근이 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원수들이 뒤쫓는 동안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깊이 생각하셔서,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대답을 전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24:14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24:15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칠만 명이 죽었다.

24:16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손을 뻗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망시키던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충분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24: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그릇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양 떼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디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24:18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셔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십시오."

24:19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이 한 말을 따라 올라갔다.

24:20 아라우나가 내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24:21 아라우나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러 왔소."

24: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물로는 소들이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 마당용 썰매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24:23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또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했다.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왕을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4:24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그대에게서 사겠소. 나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내 하나님이신 주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은 오십 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다.

24:25 다윗이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이에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고,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물러갔다.

열왕기상

1장

1:1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 주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1:2 그리하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처녀가 왕을 모시며 돌보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 왕께서 따뜻해지시도록 하겠습니다."

1:3 그들은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1:4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왕을 돌보고 시중들었다. 그러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는 않았다.

1:5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자신을 높이며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병거와 기병과 자기 앞에서 달릴 호위병 오십 명을 마련했다.

1:6 그의 아버지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그를 한 번도 꾸짖어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으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1:7 아도니야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상의했고, 그들은 아도니야를 따르며 도왔다.

1:8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야 편에 서지 않았다.

1:9 아도니야가 엔로겔 곁의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왕의 아들들인 자기 모든 형제와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을 불렀다.

1:10 그러나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1:11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 다윗께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1:12 그러니 이제 오셔서 제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목숨과 아드님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13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일찍이 종에게 맹세하시며 "틀림없이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습니까?'

1:14 당신께서 왕과 아직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저도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15 밧세바가 침실에 계신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매우 늙었으며,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을 시중들고 있었다.

1:16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을 했다. 왕이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1:17 밧세바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재여,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종에게 맹세하시며 '틀림없이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8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는데도 내 주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1:19 그가 소와 살진 짐승과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1:20 내 주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왕을 향하고 있으며,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을지 왕께서 그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1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에,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1:22 밧세바가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1:23 사람들이 왕에게 "예언자 나단이 와 있습니다!" 하고 알렸다. 나단은 왕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엎드려 절했다.

1:24 나단이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야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1:25 그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살진 짐승과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 만세!'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1:26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1:27 이 일이 정녕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인데도,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아야 할지를 왕의 종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1:28 그러자 다윗 왕이 대답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왕 앞에 섰다.

1:29 왕이 맹세하며 말했다. "내 목숨을 온갖 환난에서 건져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1:30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그대에게 '틀림없이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한 그대로, 오늘 내가 틀림없이 행하겠소."

1:31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예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1:32 다윗 왕이 말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로 부르시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

1:33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군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1: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시오.

1:35 그런 다음 그를 뒤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영도자로 세웠소."

1: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1:37 주님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왕좌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좌보다 더 높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38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갔다.

1:39 제사장 사독이 장막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들이 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1:40 온 백성이 솔로몬을 뒤따라 올라왔다. 백성들은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 환호하여 땅이 그들의 소리로 진동할 정도였다.

1:41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이 음식을 다 먹어 갈 무렵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찌하여 성읍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가?"

1:42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다. 아도니야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1:43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44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1:45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온 성읍이 떠나갈 듯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1:46 게다가 솔로몬이 왕국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1:47 더구나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려고 와서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왕좌를 왕의 왕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자, 왕께서는 침상에서 몸을 굽혀 경배하셨습니다.

1:48 또한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좌에 앉을 자를 주셔서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49 아도니야의 손님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어나 제 갈 길로 흩어졌다.

1: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더니, 제단 뿔을 잡았다.

1:51 솔로몬에게 말이 전해졌다. "보십시오,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이 그의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먼저 내게 맹세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52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직한 사람다운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에게서 악함이 드러난다면 그는 죽을 것이오."

1:53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렸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엎드려 절하자, 솔로몬이 그에게 "네 집으로 가라." 하고 말했다.

2장

2:1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2:2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어 대장부답게 행동하여라.

2:3 네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법규와 계명과 규례와 증거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2:4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 관하여 '만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조심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2:5 또한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저지른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그는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발에 전쟁의 피를 묻혔다.

2:6 그러니 네 지혜대로 행동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2:7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네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2:8 또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모진 저주로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러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두고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

2:9 그러나 이제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며, 그의 백발이 피를 흘리며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할 것이다."

2:10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다.

2: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헤브론에서 칠 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다.

2:12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았고, 그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졌다.

2:13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다. 밧세바가 "평화로운 목적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평화로운 목적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2:14 그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자, 밧세바가 "말해 보아라." 하고 말했다.

2:15 그가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왕국은 제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돌아서서 제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아우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16 이제 제가 한 가지 간청을 드리오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해 보아라." 하고 말했다.

2:17 그가 말했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께서는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도록 해 주십시오."

2:18 밧세바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에게 말하겠다."

2:19 밧세바는 아도니야를 위해 말해 주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다. 왕이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한 뒤, 왕좌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한 의자도 마련하게 하니 밧세바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2:20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어 부탁하니, 나를 거절하지 마시오." 왕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2:21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당신의 형 아도니야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 주시오."

2:22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저의 형이니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십시오.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2:23 그러고서 솔로몬 왕이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했다. "아도니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2:24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집안을 세워 주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아도니야는 틀림없이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2:25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브나야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다.

2:26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너는 네 밭이 있는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겪은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므로,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

2:27 그리하여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여, 실로에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2:28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요압은 비록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야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요압은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잡았다.

2:29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쳐라." 하고 명령했다.

2:30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이르러 요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소." 요압이 "아니오, 나는 여기서 죽겠소." 하고 말했다.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며 제게 대답했습니다."

2:31 왕이 브나야에게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 죽이고 묻어 주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씻어 버려라.

2:32 주님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 다윗 모르게 칼로 쳐서 죽였기 때문이다.

2:33 그리하여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2:34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2:35 왕은 군대를 다스릴 자리에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웠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세웠다.

2:36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너는 예루살렘에 너를 위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어디로도 나가지 마라.

2:37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2:38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다. "말씀하신 바가 좋습니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행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2:39 삼 년 뒤에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 누군가 시므이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 주었다.

2:40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종들을 찾으려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시므이는 가서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다.

2:41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2:42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게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네가 밖으로 나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을 줄을 분명히 알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또한 내게 '제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말했다.

2:43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께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2:44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했다. "너는 네 마음으로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되돌리실 것이다.

2: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이다."

2:46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굳건하게 확립되었다.

3장

3:1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자기 궁전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둘레의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머물게 했다.

3:2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3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를 따르며 주님을 사랑했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만은 여전히 계속했다.

3:4 왕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이 가장 유명한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천 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

3:5 기브온에서 밤에 주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3:6 솔로몬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진실과 의로움과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이 큰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3:7 이제 저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주님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3:8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3:9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큰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3: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 간청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3:11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네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재판을 올바르게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3:12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13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으니,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3:14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을 걸으며 내 법규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길게 해 주겠다."

3: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쳤으며, 자기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3:16 그때 창기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3:17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재여, 저와 이 여자는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3:18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그 집에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19 그런데 밤사이에 이 여자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웠기 때문입니다.

3:20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의 종이 잠든 사이에 제 곁에서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뉘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제 품에 뉘었습니다.

3: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 하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맞섰다.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다투었다.

3:23 왕이 말했다. "한 사람은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는구나."

3:24 왕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말했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다.

3:25 왕이 말했다.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3:26 그러자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향한 모정이 불붙듯 솟아올라 왕에게 애원했다. "내 주재여, 살아 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결코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않게 둘로 나누어라." 하고 말했다.

3:27 이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그 여자가 바로 아이의 어머니다."

3: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안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4장

4:1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4:2 그가 거느린 고위 관리들은 이러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었고,

4: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으며,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4: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4:5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들의 우두머리였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수석 대신으로서 왕의 벗이었다.

4:6 아히살은 궁내대신이었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동 감독관이었다.

4:7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위에 열두 명의 지방 장관을 두어 왕과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게 했는데, 각자가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마련해야 했다.

4:8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 있었고,

4:9 마가지와 사알빔과 벧세메스와 엘론벧하난에는 벤데겔이 있었다.

4:10 아룹봇에는 벤헤셋이 있었는데 소고와 헤벨 온 땅이 그의 관할이었다.

4:11 돌 고지대 전역에는 벤아비나답이 있었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맞았다.

4:12 다아낙과 므깃도와 사르단 곁 이스르엘 아래에 있는 벧스안 온 땅, 곧 벧스안에서부터 아벨므홀라에 이르고 욕느암 너머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다.

4:13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 있었는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마을들이 그의 관할이었고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바산의 아르곱 지역 육십 개의 큰 성읍도 그의 관할이었다.

4:14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있었고,

4:15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가 있었는데 그 역시 솔로몬의 딸 바스매를 아내로 맞았다.

4:16 아셀과 브알롯에는 후새의 아들 바아나가 있었고,

4:17 잇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있었으며,

4:18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었다.

4:19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는 그가 유일한 지방 장관이었다.

4:20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으며,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4:21 솔로몬은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4:22 솔로몬의 하루 음식 공급량은 고운 밀가루 삼십 고르와 거친 밀가루 육십 고르였고,

4:23 살진 소 열 마리와 초장의 소 스무 마리와 양 백 마리였으며, 그 밖에도 수사슴과 가젤과 노루와 살진 새들이 있었다.

4:24 솔로몬은 강 이편 전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사방 모든 방면에서 평화를 누렸다.

4:25 솔로몬이 다스리는 평생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4:26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들을 둘 마구간 사만 칸과 기병 만 이천 명을 두었다.

4:27 그 지방 장관들은 각자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했다.

4:28 또한 그들은 말과 군마를 먹일 보리와 짚을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4:29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4:30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4: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에 자자했다.

4:32 그는 삼천 편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에 달했다.

4:33 그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담 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에 관해 논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서도 논했다.

4:34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모든 민족에게서 몰려왔다.

5장

5:1 두로 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평소 다윗을 늘 사랑하고 아꼈다.

5:2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5:3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 두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5:4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대적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5:5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네 왕좌에 앉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5:6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해 주십시오. 내 일꾼들이 당신의 일꾼들과 함께할 것이며, 당신의 일꾼들에게 줄 품삯은 당신이 정하는 대로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능숙하게 벨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께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5:8 히람이 솔로몬에게 전갈을 보냈다. "당신이 내게 보내신 전갈을 잘 받았습니다. 백향목 목재와 잣나무 목재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바를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5:9 내 일꾼들이 나무를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내게 지정해 주는 곳으로 보내어 거기서 풀어놓을 테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왕실을 위해 식량을 공급하여 내 바람을 채워 주십시오."

5:10 그리하여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목재와 잣나무 목재를 다 공급해 주었다.

5:11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에 먹을 음식으로 밀 이만 고르와 찧어 짠 맑은 기름 이십 고르를 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와 같이 주었다.

5:12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조약을 맺었다.

5:13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징발하니, 징발된 인원이 삼만 명이었다.

5:14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보냈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머물고 두 달은 집에 머물렀으며, 아도니람이 강제 노동을 감독했다.

5:15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이 칠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캐내는 석수가 팔만 명이었다.

5:16 그 밖에도 공사를 총괄하는 솔로몬의 수석 관리들이 삼천삼백 명 있었는데, 그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지휘했다.

5:17 왕이 명령하여 크고 귀한 돌들을 캐내어,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했다.

5:18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짓는 데 쓸 목재와 돌들을 준비했다.

6장

6: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째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는 해 둘째 달인 시브월에,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6:2 솔로몬 왕이 주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다.

6:3 성전 본당 앞의 현관은 길이가 성전 너비를 따라 이십 규빗이었고, 성전 앞쪽으로 튀어나온 너비는 열 규빗이었다.

6:4 그는 성전 벽에 붙박이 격자창을 만들었다.

6:5 그는 성전의 외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둘레 벽을 따라 돌아가며 부속 건물의 층들을 지었으며, 둘레를 돌아가며 곁방들을 만들었다.

6:6 아래층 방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었고, 가운데 층 방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었으며, 셋째 층 방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었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서까래 들보들이 성전 벽 속으로 파고들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6:7 성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어 놓은 돌을 가져다 썼으므로, 공사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6:8 가운데 층 곁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고, 나선형 계단을 통해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가운데 층에서 셋째 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6:9 그가 성전 건축을 마쳤고, 백향목 서까래와 널빤지로 성전 천장을 덮었다.

6:10 그는 온 성전 벽에 기대어 각 층의 높이가 다섯 규빗인 부속 건물을 지었는데, 백향목 목재로 성전에 연결했다.

6:11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6:12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하여 말하자면, 만일 네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실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내 말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6:13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6:14 그리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6:15 그는 성전 안쪽 벽을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는데, 성전 바닥에서 천장 벽에 이르기까지 안쪽을 나무로 덮었고, 성전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다.

6:16 그는 성전 뒤쪽에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판을 대어 이십 규빗 공간을 막았는데, 안쪽을 위한 내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만들었다.

6:17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외소인 성소의 길이는 사십 규빗이었다.

6:18 성전 안쪽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겼는데, 온통 백향목뿐이어서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6:19 그는 성전 안쪽 깊숙한 곳에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 둘 내소를 마련했다.

6:20 내소는 길이가 이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이십 규빗이었는데, 순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금으로 입혔다.

6:21 솔로몬은 성전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고, 내소 앞에 금사슬을 둘렀으며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

6:22 온 성전을 완전히 완성할 때까지 금으로 입혔고, 내소에 딸린 제단 전체도 금으로 입혔다.

6:23 그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열 규빗이었다.

6:24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었으니,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열 규빗이었다.

6:25 다른 그룹도 열 규빗이었으며,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6:26 한 그룹의 높이가 열 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6:27 그는 성전 가장 안쪽 방에 그룹들을 두었다.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져 있어서 한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성전 한가운데서는 그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6:28 그는 그룹들도 금으로 입혔다.

6:29 그는 성전 둘레의 모든 안팎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6:30 성전 바닥도 안팎 모두 금으로 입혔다.

6:31 내소 입구에는 감람나무로 문들을 만들었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 벽 모양을 이루었다.

6:32 감람나무로 만든 이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혔는데,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위에 금을 얇게 펴서 발랐다.

6:33 그는 성소 입구에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벽의 사분의 일 크기로 사각형 문틀을 이루었다.

6:34 그리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었으니, 한 문짝도 접이식 두 잎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문짝도 접이식 두 잎으로 되어 있었다.

6:35 그는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기고, 그 새겨진 조각 위에 꼭 들어맞게 금을 입혔다.

6:36 그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들보 한 켜로 안뜰을 둘러 쌓았다.

6:37 제사 년 시브월에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6:38 제십일 년 여덟째 달인 불월에 모든 부분이 그 설계와 규격대로 온전히 완성되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칠 년이 걸렸다.

7장

7:1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십삼 년 동안 지어 궁궐 전체를 완공했다.

7:2 그는 '레바논 숲의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백 규빗, 너비가 오십 규빗,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으며, 백향목 기둥 네 줄 위에 백향목 들보를 얹었다.

7:3 기둥 위에 얹은 마흔다섯 개의 들보 위쪽을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다섯 개씩이었다.

7:4 창틀은 세 줄로 놓여 있었고, 창과 창이 삼 단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7:5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모반듯한 들보로 만들었으며, 창과 창이 삼 단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7:6 그는 기둥들로 현관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오십 규빗, 너비가 삼십 규빗이었고, 기둥들 앞에는 현관이 딸려 있었으며 그 앞에도 기둥들과 디딤돌이 있었다.

7:7 그는 재판할 보좌의 현관, 곧 재판의 현관을 만들고, 바닥 전체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7:8 솔로몬이 머물 궁궐은 현관 안쪽 다른 뜰에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지었다. 그는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현관과 같은 궁을 지었다.

7:9 이 모든 건물은 기초부터 처마까지, 또 바깥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안팎 모두 규격에 맞춰 톱으로 켠 값진 돌로 만들었다.

7:10 기초는 값지고 거대한 돌로 놓았는데, 십 규빗 되는 돌과 팔 규빗 되는 돌이었다.

7:11 그 위에는 규격대로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을 얹었다.

7:12 주님의 성전 안뜰과 성전 현관처럼, 주변의 큰 뜰도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들보 한 켜로 둘러쌌다.

7:13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7:14 히람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놋쇠를 다루는 두로 사람이었다. 히람은 온갖 놋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공사를 맡아 일했다.

7:15 그는 놋으로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십팔 규빗이었고 둘레는 십이 규빗 되는 줄로 잴 수 있었다.

7:16 그는 기둥 꼭대기에 얹을 두 기둥머리를 놋을 부어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었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었다.

7:17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장식하기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망과 사슬 모양의 화환을 만들었는데, 한쪽 기둥머리에 일곱 개, 다른 쪽 기둥머리에도 일곱 개였다.

7:18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으려고 그물망 하나마다 두 줄로 석류를 둘렀으며, 다른 기둥머리에도 똑같이 했다.

7:19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들은 백합꽃 모양이었으며, 그 높이는 사 규빗이었다.

7:20 두 기둥의 기둥머리 위, 곧 그물망 곁의 볼록한 부분 근처에도 석류가 둘려 있었는데, 다른 기둥머리 둘레에도 줄을 지어 이백 개가 달려 있었다.

7:21 그는 성전 현관에 이 기둥들을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7:2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꽃 모양의 장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다.

7:23 그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 십 규빗으로 둥근 모양이었다.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었고, 삼십 규빗 길이의 줄로 둘레를 잴 수 있었다.

7:24 그 가장자리 아래쪽 둘레에는 십 규빗에 걸쳐 바다를 감싸는 박 모양의 돌기들이 둘려 있었다. 이 박 모양의 돌기들은 바다를 주조할 때 두 줄로 함께 부어 만든 것이었다.

7:25 이 바다는 열두 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놓여 있었다.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그 황소들 위에 얹혀 있었고, 황소들의 엉덩이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7:26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처럼 백합꽃 모양으로 다듬어졌다. 그것은 이천 밧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7:27 그는 또 놋으로 열 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받침대 하나의 길이는 사 규빗, 너비는 사 규빗, 높이는 삼 규빗이었다.

7:28 받침대의 구조는 이러했다. 받침대에는 옆판들이 있었고, 옆판들은 테두리 사이에 있었다.

7:29 테두리 사이에 있는 옆판들 위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테두리 위쪽에도 받침이 있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늘어뜨린 화환 모양의 장식이 있었다.

7:30 받침대마다 네 개의 놋 바퀴와 놋 차축이 달려 있었고, 네 모퉁이 발에는 버팀대가 있었다. 그 버팀대들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든 것으로, 각 옆면에는 화환이 붙어 있었다.

7:31 기둥머리 안쪽과 그 위로 뚫린 입구의 깊이는 한 규빗이었다. 그 입구는 받침 모양처럼 둥글게 파여 일 규빗 반이었으며, 입구 둘레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났다.

7:32 네 바퀴는 옆판 아래에 있었고 바퀴의 축들은 받침대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퀴 하나의 높이는 일 규빗 반이었다.

7:33 그 바퀴들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아서, 축과 림과 바큇살과 바퀴통이 모두 놋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7:34 각 받침대의 네 모퉁이에는 네 개의 버팀대가 있었는데, 그 버팀대들은 받침대와 한 몸으로 이어져 있었다.

7:35 받침대 윗부분에는 반 규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꼭대기의 버팀대들과 옆판들도 받침대와 한 몸으로 이어져 있었다.

7:36 그는 버팀대의 평평한 면과 옆판들 위에 공간이 있는 대로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기고 둘레에는 화환을 둘렀다.

7:37 그는 이런 방식으로 열 개의 받침대를 만들었으며, 그것들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주조되어 크기와 형태가 동일했다.

7:38 그는 또 놋으로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다. 물두멍 하나는 사십 밧을 담을 수 있었고, 물두멍마다 크기가 사 규빗이었다. 열 개의 받침대 위에 각각 물두멍을 하나씩 얹었다.

7:39 그는 받침대 다섯 개를 성전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다.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

7:40 히람은 솥과 부삽과 대야들을 만들었다. 이로써 히람은 주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맡은 모든 일을 마쳤다.

7:41 곧 두 기둥과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두 개의 둥근 기둥머리, 기둥 꼭대기의 두 둥근 기둥머리를 덮는 두 그물망,

7:42 두 그물망을 위해 만든 사백 개의 석류, 곧 기둥 위의 두 둥근 기둥머리를 덮는 각 그물망마다 두 줄로 단 석류들과,

7:43 열 개의 받침대와 받침대 위의 열 개의 물두멍,

7:44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의 열두 마리 황소 모형,

7:45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야들이었다. 히람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을 낸 놋으로 만든 것이었다.

7:46 왕은 요단 평야의 숙곳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7:47 그 기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게를 달아보지 못했으며, 놋의 총 무게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7:48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차려 놓는 빵을 얹는 금 상,

7:49 지성소 앞 좌우에 다섯 개씩 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7:50 순금으로 만든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야와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인 내실 문과 성전 외실 문을 위한 금 돌쩌귀들이었다.

7:51 이렇게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와 주님의 성전 곳간에 들여놓았다.

8장

8:1 그때에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 앞으로 불러 모았다.

8:2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인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8: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8:4 그들은 주님의 궤와 만남의 장막,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렸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메어 올렸다.

8:5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여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모여,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8:6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인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여놓았다.

8:7 그룹들이 궤를 둔 곳 위로 날개를 펼쳐 궤와 그 채를 위에서 덮고 있었다.

8:8 그 채들은 매우 길어서 채의 끝부분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8:9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어 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판들이었다.

8: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다.

8:11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8:12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13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계실 궁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처소입니다."

8:14 왕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했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일어서 있었다.

8:15 그가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직접 이루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내 이름이 머물 집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성읍도 택하지 않았으나,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8:17 내 아버지 다윗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8:18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참으로 갸륵하다.

8:19 그렇지만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요, 오직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20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8:21 또한 내가 그곳에 언약궤를 둘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 궤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주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8:22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쳤다.

8:23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8:24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8:25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며 '네 자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제 길을 삼가 내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8:26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8: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 위에 머무르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8:28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어, 주님의 종이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8:29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곳, 곧 이 성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8:30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8:31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요구받아 맹세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8:32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주님의 종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무죄를 선언하여 그의 의로움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8:33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8:34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8:35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선다면,

8:36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8:37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마름병이나 깜부기병이나 메뚜기나 누에 떼가 생기거나, 원수가 그들의 성읍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나 온갖 질병이 닥쳐올 때,

8:38 한 사람이든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닥친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거든,

8:39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동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8:40 그리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8:41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찾아와,

8:42 그들이 주님의 위대한 이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8:43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8:44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따라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거든,

8:45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8:4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원수에게 넘겨주시매, 원수가 그들을 멀거나 가까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가더라도,

8:4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8:48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들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거든,

8:49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8:50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거슬러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8:51 그들은 주님께서 쇠 풀무 한가운데인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8:52 주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피시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8:53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8:54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편 채 머물던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8:55 그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다.

8:56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8:57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58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모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9 내가 주님 앞에서 간구한 이 말씀들이 낮이나 밤이나 주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주님의 종의 사정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60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8:61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분의 규례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8:62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8:63 솔로몬이 주님께 바친 화목제 희생제물은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였다. 이처럼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8:64 그날 왕은 주님의 성전 앞마당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주님 앞에 있는 놋 제단이 너무 작아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바쳤던 것이다.

8:65 그때 솔로몬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큰 회중과 함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잔치를 열었고, 또다시 이레를 더하여 모두 열 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8:66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9장

9:1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소망을 다 마쳤을 때였다.

9:2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9:3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9:4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네가 온전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걸어가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9: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9:6 그러나 만일 너나 네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면,

9:7 나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 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9:8 비록 이 성전이 이토록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며 비웃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할 것이다.

9:9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맞아들여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할 것이다."

9:10 솔로몬이 두 집, 곧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이십 년이 걸렸다.

9:11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주었다.

9:12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보려고 두로에서 왔으나,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9:13 그가 말했다.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대체 어떤 것들이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곳을 '가불 땅'이라 부른다.

9:14 히람은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를 보냈다.

9:15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징집한 까닭은 이러했다. 주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9:16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 게셀을 점령하고 불태웠으며, 그 성읍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혼수 선물로 주었던 곳이다.

9:17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 벧호론을 건축하고,

9:18 바알랏과 그 땅 광야에 있는 다말을 건축했다.

9:19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를 두는 성읍들, 마병들을 두는 성읍들을 건축했으며,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던 온 영토 안에 짓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지었다.

9:20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있었다.

9:21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 있던 그들의 후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징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

9: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전사, 신하, 지휘관, 장교,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9:23 솔로몬의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자들은 오백오십 명이었으며,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지휘했다.

9:24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 준 궁궐로 들어가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다.

9:25 솔로몬은 해마다 세 번씩 주님을 위해 쌓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했다.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마쳤다.

9:26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 바닷가 엘롯 근처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9:27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인 자기 종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에 태워 보냈다.

9:28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10장

10:1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10:2 그녀는 심히 큰 수행단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나아와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말했다.

10:3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왕에게 숨겨져서 그녀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10:4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궁궐을 보았다.

10:5 또한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 관리들의 시중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술잔을 올리는 신하들과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보고 넋을 잃고 말았다.

10:6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내 나라에서 들었던 왕의 업적과 지혜에 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10:7 하지만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절반도 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었던 명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10:8 왕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하며, 왕 앞에 늘 서서 왕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10:9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신 주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셨으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왕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10:10 그녀는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바쳤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양의 향료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10:11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온 히람의 상선대도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10:12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다.

10:13 솔로몬 왕은 왕의 관대함으로 스바 여왕에게 베푼 것 외에도, 그녀가 요구하여 바란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0:14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0:15 이것은 무역상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수입과 여러 민족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이 바친 것 외에 들어온 것이었다.

10:16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0:17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삼 마네가 들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두었다.

10:18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다.

10:19 그 보좌에는 계단 여섯 개가 있었고, 보좌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마리 사자가 서 있었다.

10: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열두 마리 사자가 서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은 없었다.

10:21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숲의 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으로 된 것은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22 왕은 바다에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니는 다시스 배들을 두고 있었다. 그 다시스 배들은 삼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싣고 돌아왔다.

10:23 이리하여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10:24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다.

10:25 그들은 해마다 저마다 예물을 가져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이었다.

10:26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었다. 그는 이들을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왕 곁에 배치했다.

10:27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해졌다.

10:28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왕의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떼로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10:29 병거 한 대는 은 육백 세겔에 애굽에서 들여왔고, 말 한 필은 백오십 세겔에 들여왔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의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았다.

11장

11:1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과 에돔 여인과 시돈 여인과 헷 여인이었다.

11:2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11:3 왕에게는 왕비가 칠백 명, 후궁이 삼백 명이 있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11:4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11:5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우상 밀곰을 따랐다.

11:6 솔로몬은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11:7 그때 솔로몬은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우상 몰렉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11:8 그는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는 모든 외국인 아내들을 위해 이와 같이 했다.

11:9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11:10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11:11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찢어 내어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11: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네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찢어 낼 것이다.

11:13 다만 온 나라를 다 찢어 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11:14 주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대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에돔의 왕손이었다.

11: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사령관 요압이 죽임당한 자들을 묻으러 올라가서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인 적이 있었다.

11:16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1:17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인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애굽으로 달아났다.

11:18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모아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다. 바로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마련해 주었으며 토지도 주었다.

11:19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바로는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여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11:20 다브네스의 여동생이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 주자 다브네스가 바로의 궁궐에서 그 아이의 젖을 떼게 했고, 그누밧은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자랐다.

11:21 하닷은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것과 군대 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에서 듣고, 바로에게 말했다. "저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22 그러자 바로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고국으로 가려 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보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11:23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적대자를 일으키셨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이었던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11:24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였을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살며 다메섹을 다스렸다.

11:25 그는 하닷이 끼친 해악에 더하여,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몹시 미워하며 아람을 다스렸다.

11:26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왕에게 반역했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로 과부였다.

11:27 그가 왕에게 반역한 까닭은 이러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다.

11:28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근면한 것을 보고, 그에게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을 감독하게 했다.

11:29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을 때, 실로 사람인 예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들판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11: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11:31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열 조각을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 내어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11:32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 둘 것이다.

11: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달리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1:34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켰으므로,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의 손에서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통치자로 남아 있게 할 것이다.

11:35 그러나 그의 아들의 손에서는 왕국을 빼앗아 네게 줄 것이니, 곧 열 지파를 줄 것이다.

11:36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종 다윗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항상 등불을 켜 두게 할 것이다.

11:37 내가 너를 택할 것이고, 너는 네 마음에 바라는 모든 것을 따라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11:38 만일 네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듣고 내 길로 걸어가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안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11:39 내가 이 일로 인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11:40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갔으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다.

11:41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1: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11:43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2장

12: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12: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직 애굽에 있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 달아나 애굽에 머물고 있었다.

12:3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12:4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께서 시키신 고된 노역과 우리에게 메워 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12: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흘 뒤에 다시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물러갔다.

12:6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그를 모시던 원로들과 의논하며 물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조언해 주십시오."

12:7 원로들이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다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2:8 그러나 왕은 원로들이 조언한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자기를 모시는 젊은이들과 의논했다.

12:9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게 말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어떤 의견을 주겠느냐?"

12:10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왕께 청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2:11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12:12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은 왕이 "사흘 뒤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말한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나아왔다.

12:13 왕은 원로들이 조언한 것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했다.

12:14 그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12:15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었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2:16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2:17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12:18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으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12:19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12:20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 앞으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안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12:2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용사로 선발된 자가 십팔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되찾아 주려는 것이었다.

12:2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12: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집안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12:2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서 돌아갔다.

12:25 그 뒤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으며, 거기서 나가 브누엘을 건축했다.

12:26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왕국이 다시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12: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군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2:28 이에 왕은 의논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여러분에게 너무 벅찬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린 여러분의 신들이 여기 있습니다!"

12:29 그는 하나는 벧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12:30 이 일은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예배했기 때문이었다.

12:31 그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세웠다.

12:32 여로보암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덟째 달 열닷새 날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벧엘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와 같이 행했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벧엘에 임명했다.

12:33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덟째 달 열닷새 날에 벧엘에 만든 제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분향했다.

13장

13:1 그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벧엘로 왔다. 마침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13:2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제단을 향해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다윗 집안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13:3 그날 그는 한 징표를 제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표입니다.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13:4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의 제단을 향해 외친 말을 듣고,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그의 손이 말라비틀어져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되었다.

13:5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전한 징표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렸다.

13: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했다. "부디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13: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원기를 회복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리겠소."

13: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설령 왕께서 왕궁의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13:9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3:10 그리하여 그는 다른 길로 떠났고, 벧엘로 올 때 거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13:11 한편 벧엘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벧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왕에게 한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13:12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다.

13:13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아들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가 나귀를 탔다.

13:14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가 물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13:15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십시다."

13:16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13:17 주님의 말씀이 내게 '너는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올 때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13:18 그가 말했다. "나 역시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한 거짓말이었다.

13:19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13:20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13:21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쳤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13:22 돌아와서 그분이 너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신이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23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예언자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13:24 그가 떠나자, 길에서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신은 길 위에 내던져졌고, 나귀는 시신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시신 곁에 서 있었다.

13:25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 위에 내던져진 시신과 그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13:26 그를 길에서 데려왔던 예언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어 찢기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13:27 그가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13:28 그가 가서 길 위에 내던져진 그의 시신과 그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했다. 사자는 시신을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해치지도 않았다.

13:29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나귀에 싣고 돌아왔다.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슬피 울며 묻어 주려고 자기 성읍으로 들어갔다.

13:30 그는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며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13:31 그를 묻은 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그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13:32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벧엘의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의 신당들을 향해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3:33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온 백성 가운데서 다시 산당의 제사장들을 임명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13:34 이 일이 여로보암 집안의 죄가 되어, 결국 그 집안이 땅 위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

14장

14:1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14:2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 변장을 하여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실로로 가시오.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그곳에 있소.

14:3 빵 열 개와 과자 몇 개,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오."

14:4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렇게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었다.

14:5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고 있다.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 그 여자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척할 것이다."

14:6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으로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척하시오? 내가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그대에게 보냄을 받았소.

14:7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14:8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찢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일만을 행했던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14:9 오히려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여,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분노하게 하였고, 나를 네 등 뒤로 내던져 버렸다.

14: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풀린 자나 할 것 없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끊어 버릴 것이다. 사람이 똥을 다 치울 때까지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14: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4:12 그러므로 그대는 일어나 집으로 가시오. 그대의 발이 성읍에 들어설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이오.

14: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피 울며 묻어줄 것이오. 여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이 무덤에 묻힐 텐데, 이는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그 아이에게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오.

14:14 더욱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직접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끊어 버릴 것이오. 바로 오늘이 그날이오! 무슨 말이오?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일이오.

14:15 주님께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듯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저 큰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오.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주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이오.

14:16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버리실 것이오."

14:17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길을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 여자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죽었다.

14:18 주님께서 자신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묻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14:19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통치했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4:20 여로보암이 통치한 기간은 스물두 해였다.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마흔한 살이었으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14:22 유다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그들이 저지른 죄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크게 주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14:23 그들도 높은 언덕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거룩한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14:24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모든 역겨운 풍습을 그대로 따랐다.

14:25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14:26 그는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포함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져갔다.

14:27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 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14:28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그 방패들을 메고 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다 두었다.

14:29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4: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14:31 르호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

15: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십팔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15:2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15:3 그는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 가운데 행했고, 그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주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15:4 그럼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으니,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셨다.

15:5 이는 다윗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고,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15:7 아비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15:8 아비얌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9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15:10 그는 예루살렘에서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15:11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15:12 그는 그 땅에서 신전 남창들을 내쫓았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15:13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아사는 그녀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다.

15:14 그러나 산당들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 온전했다.

15:15 그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놓았다.

15:16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는 평생토록 전쟁이 있었다.

15:17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의 아사 왕에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15:18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 있던 모든 은과 금을 꺼내 신하들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에게 신하들을 보내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15:19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그대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깨뜨려 그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15:20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쳐서 이욘과 단과 아벨벧마아가와 긴네롯 전 지역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

15:21 바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에 머물렀다.

15:22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원했다. 그들은 바아사가 건축하던 라마의 돌과 목재를 날라 왔고, 아사 왕은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15:23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용맹,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읍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늙어 발에 병이 들었다.

15:24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25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제이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5:26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랐고,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했다.

15:27 잇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반역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나답을 쳐 죽였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다.

15:28 유다의 아사 왕 제삼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29 바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쳤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을 다 멸망시켰다.

15:30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 때문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든 도발 때문이었다.

15:31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5:32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는 평생토록 전쟁이 있었다.

15:33 유다의 아사 왕 제삼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이십사 년 동안 다스렸다.

15:34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했다.

16장

16:1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으셨다.

16:2 "내가 너를 먼지 구덩이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거늘,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16:3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아사와 그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려 네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 것이다.

16:4 바아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16:5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일과 그의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6:6 바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7 또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안에 임했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 집안처럼 주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또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쳐 죽였기 때문이다.

16:8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두 해 동안 다스렸다.

16:9 그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자 그의 신하인 시므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머물며 디르사의 궁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16:10 시므리가 들어가서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칠년에 그를 쳐 죽이고,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11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 왕좌에 앉자마자 바아사의 온 집안을 공격했다. 그는 그의 친족이든 친구든 남자라면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16:12 이처럼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바아사의 온 집안을 멸망시켰다.

16:13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으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헛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6:14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6:15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칠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레 동안 다스렸다. 그때 군대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을 향해 진을 치고 있었다.

16:16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바로 그날 진영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16:17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깁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했다.

16:18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므리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다.

16:19 이는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그대로 행함으로써 지은 죄 때문이었다.

16:20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반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6:21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갈라졌다.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16:22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다. 그리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16:23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일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디르사에서 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16:24 그는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산의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16:25 오므리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기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16:26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따랐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여 헛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16:27 오므리가 행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떨친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6:28 오므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29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16: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보다 앞서 있던 모든 사람보다 주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행했다.

16:31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길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

16:32 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

16:33 아합은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 그리하여 아합은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16:34 그의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17장

17:1 길르앗의 정착민 가운데 한 사람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17:2 그때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17:3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17:4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너를 먹이게 하였다."

17:5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행했다. 곧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았다.

17:6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

17:7 얼마 뒤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말라버렸다.

17:8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17:9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라. 보라, 내가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보살피게 하였다."

17:10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다. "그릇에 물을 조금만 가져다주어 내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

17:11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다시 불러 말했다. "부탁이니 그대의 손에 빵 한 조각만 내게 가져다주십시오."

17:12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게는 구운 빵이 전혀 없고 오직 항아리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17:13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그대가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구워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런 뒤에 그대와 그대의 아들을 위해 만드시오.

17:14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오. '주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가루 항아리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17:15 그녀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리하여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가족이 여러 날 동안 먹었다.

17:16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가루 항아리가 비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17:17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세가 너무 심해 마침내 숨이 끊어졌다.

17:18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게 무슨 원한이 있으시기에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7:19 엘리야가 그녀에게 "아이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는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안고 올라가 자기 침상에 뉘었다.

17:20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17:21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세 번 몸을 포개어 엎드리고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의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17:22 주님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아이의 영혼이 다시 그의 몸 안으로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다.

17:23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아래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보시오, 그대의 아들이 살아났소."

17:24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18장

18:1 많은 날이 지난 뒤 삼 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서 아합에게 네 모습을 보여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18:2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

18:3 아합이 궁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18:4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예언자 백 명을 데려다가 쉰 명씩 동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18:5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온 땅의 모든 물 샘과 모든 시내로 가보시오. 어쩌면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들을 다 잃지 않을 수도 있소."

18:6 두 사람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었다. 아합은 홀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18:7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마주쳐 왔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 엘리야 어르신, 진정 어르신이십니까?"

18:8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18:9 오바댜가 말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18:10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나라나 왕국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는 여기에 없다'고 하면, 제 주인은 그 나라와 왕국으로 하여금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18:11 그런데 지금 당신은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12 제가 당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당신을 제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렸는데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경우, 그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해 왔습니다.

18:13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백 명을 쉰 명씩 동굴에 숨기고 빵과 물로 먹였던 일을 내 주께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18:14 그런데 지금 당신은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18:15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나타낼 것이오."

18:16 그리하여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18:17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바로 네놈이냐?"

18:18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 집안이 괴롭혔습니다. 왕들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8:19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예언자 사백오십 명,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아 주십시오."

18:20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18:22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의 예언자로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오십 명입니다.

18:23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소 두 마리를 가져다주십시오. 그들이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수소를 손질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18:24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8: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18:26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가져다 준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껑충거리며 뛰놀았다.

18:27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는 신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자고 있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지 않소."

18:28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18:29 정오가 지나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자도 없었다.

18: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수리했다.

18:31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열두 개의 돌을 취했다.

18:32 그는 그 돌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담을 만한 도랑을 팠다.

18:33 나무를 정돈하고 수소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말했다. "항아리 넷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시오."

18:34 엘리야가 "두 번째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자 그들이 두 번째로 그렇게 했다. 또 "세 번째로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자 그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다.

18:35 물이 제단 둘레로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18:36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아가 아뢰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18:37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18:38 그러자 주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18:39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외쳤다.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18:40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그들을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18: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18:42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18:43 그가 사환에게 말했다. "지금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엘리야가 "일곱 번을 다시 가보아라" 하고 말했다.

18:44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말했다.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 아합에게 전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채비하고 내려가십시오' 하라."

18:45 조금 지나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졌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갔다.

18:46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는 옷자락을 허리띠에 묶고 아합의 앞에서 달려가 이스르엘 입구까지 이르렀다.

19장

19:1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낱낱이 전했다.

19:2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을 저들 중 한 사람의 목숨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바란다!"

19:3 엘리야는 두려워 일어나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다.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19:4 그리고 자신은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 그는 자기가 죽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19:5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일어나 먹어라."

19:6 그가 바라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다.

19:7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19:8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사십 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19:9 그는 그곳의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물으셨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10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19:1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산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서 있어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주님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주님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19:12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지나갔으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19:13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밖으로 나가 동굴 입구에 섰다. 그때 한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14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19: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 네 길을 따라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라.

19:16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19: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9:18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든 무릎과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모든 입을 가진 칠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둘 것이다."

19:19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번째 겨리를 따르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에게 건너가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19:20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아가 말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19: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죽이고, 쟁기 기구를 땔감 삼아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다.

20장

20:1 아람 왕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했다. 그와 함께한 서른두 명의 왕이 있었고, 말과 병거들도 있었다. 그가 올라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20:2 그는 성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전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한다.

20:3 '너의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자들은 내 것이다.'"

20:4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20:5 사절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 사람을 보내어 "너는 너의 은과 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20:6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들이 너의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귀하고 값진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 가져갈 것이다.'"

20:7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악을 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 은과 금을 요구하며 사람을 보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20:8 모든 장로와 온 백성이 왕에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승낙하지도 마십시오."

20:9 그래서 왕은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 전하십시오. '왕께서 처음에 종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지만, 이번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사절들은 떠나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20:10 벤하닷이 다시 사절을 보내어 말했다.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이 손에 한 줌씩 쥐기에도 사마리아의 먼지가 부족하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20: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그에게 전하여라.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20:12 벤하닷이 막사에서 다른 왕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공격 준비를 하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채비를 마쳤다.

20:13 그때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거대한 무리를 보았느냐? 보아라, 오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주님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20:14 아합이 물었다. "누구를 통해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주님께서 '각 지방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다시 물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왕이십니다."

20:15 그리하여 아합은 지방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소집하니 이백삼십두 명이었다. 그들 뒤를 이어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소집하니 칠천 명이었다.

20:16 그들은 정오에 진군해 나갔다. 그때 벤하닷은 막사에서 자기를 돕는 서른두 명의 왕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20:17 지방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나아갔다. 벤하닷이 정찰병을 보내자 그들이 보고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 벤하닷이 명령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더라도 산 채로 사로잡아라."

20:19 지방관들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갔다.

20:20 그들은 저마다 맞선 적을 쳐죽였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했다. 아람 왕 벤하닷은 기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20:21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 말과 병거들을 치고, 아람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었다.

20:22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가서 힘을 기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해가 바뀔 때에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20: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20:24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군 지휘관들을 세우십시오.

20:25 그리고 왕께서 잃으신 군대와 맞먹는 군대를 소집하시되,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채우십시오.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20:26 해가 바뀌자 벤하닷은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20:27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보급품을 받고 그들에게 맞서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은 적들 앞에 두 무리의 작은 염소 떼처럼 진을 쳤으나, 아람 사람들은 온 땅을 가득 채웠다.

20:28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 주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0:29 그들은 칠 일 동안 서로 맞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레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십만 명을 쳐죽였다.

20:30 남은 자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망쳤으나, 성벽이 무너져 남아 있던 이만 칠천 명 위에 덮쳤다. 벤하닷도 도망쳐 성안의 골방으로 들어갔다.

20:3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안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그가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20:32 그들은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묶은 채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아합이 물었다.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20:33 그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며 재빨리 그 말을 받아 말했다.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벤하닷이 왕에게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했다.

20:34 벤하닷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왕께서도 다메섹에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다. "이런 조약을 맺고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20:35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동료에게 말했다. "나를 쳐 주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치기를 거절했다.

20:36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당신이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오."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

20:37 그 예언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다. "나를 쳐 주시오." 그 사람은 그를 쳐서 상처를 입혔다.

20:38 예언자는 떠나가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는데, 수건으로 눈을 가려 변장했다.

20:39 왕이 지나가자 그는 왕에게 부르짖었다. "종이 한창 싸우는 전쟁터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가 도망친다면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

20:40 그런데 종이 이리저리 바쁜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했다. " 네 판결은 네가 받아야 한다.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20:41 그는 서둘러 눈에서 수건을 벗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20:42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20:43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궁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21장

21:1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이스르엘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 곁에 있었다.

21:2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네 포도원이 내 집 곁에 있으니 내게 넘겨주어 채소밭으로 삼게 해다오.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주겠다. 네가 좋다면 그 값을 돈으로 셈해 줄 수도 있다."

21:3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넘겨주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21:4 아합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21:5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의 마음이 어찌하여 이토록 상해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21:6 아합이 대답했다.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넘겨다오. 네가 원한다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더니, 그가 '내 포도원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이오."

21:7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21:8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21:9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시오.

21:10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히고,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죽이시오."

21:11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의 성읍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써서 보낸 편지의 지시대로 실행했다.

21:12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혔다.

21:13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악한 자들이 백성 앞에서 나봇을 고발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죽였다.

21:14 그들은 이세벨에게 전갈을 보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21:15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했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21:16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21:17 주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21:18 "일어나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맞으러 내려가거라. 보아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가 거기에 있다.

21:19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차지하기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너 자신의 피도 핥을 것이다."'"

21:20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아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왕을 찾아냈습니다. 왕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도록 자신을 팔아넘기셨기 때문입니다.

21:21 '보아라,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종이든 이스라엘에 자유롭게 남아 있는 자든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다.

21:22 네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네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 것이다.'

21:23 주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르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21:24 아합에게 속한 사람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21:25 아합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도록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21:26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온갖 것을 따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심히 가증하게 행동했다.

21:27 아합은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몸에 굵은 베를 걸쳤으며, 금식하고 굵은 베 위에 누우며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21:28 주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21:29 "아합이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22장

22:1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22:2 삼 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다.

22:3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람 왕의 손에서 되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2:4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길르앗 라못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과 같고, 내 백성은 왕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왕의 말들과 같습니다."

22:5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말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22:6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약 사백 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야 하겠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22:7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뜻을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22: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에 대해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오직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22:9 이에 이스라엘 왕이 한 관리를 불러 명령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너라."

22:10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차려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22:11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쇠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다.'"

22:12 모든 예언자도 이와 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22: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절이 그에게 일러주었다.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한목소리로 왕에게 좋은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씀해 주십시오."

22:14 미가야가 대답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것만을 전할 뿐이오."

22:15 그가 왕에게 나아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하겠느냐,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다.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22:16 왕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만을 내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해야 하겠느냐?"

22:17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22:18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할 것이라고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2:19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모셔 서 있었습니다.

22:20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내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22:21 그때 한 영이 나와 주님 앞에 서서 '제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2:22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제가 나아가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꾀어낼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여라.'

22:23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이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주님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22:24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22:25 미가야가 대답했다. "보아라,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22:26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다. "미가야를 잡아 성읍의 통치자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거라.

22:27 그리고 전하여라.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22:28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너희 모든 백성아, 들으라!"

22:29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22:3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22:31 한편 아람 왕은 자기 병거 지휘관 서른두 명에게 명령했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가리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22:32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22:33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 그를 쫓기를 멈추고 돌아섰다.

22:34 그런데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를 맞혔다.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했다. "병거를 돌려 나를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게 하여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22:35 그날 싸움이 맹렬해져 왕은 아람 사람들을 마주 보며 병거 안에서 몸을 지탱하다가 저녁때에 숨을 거두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다.

22:36 해가 질 무렵 군중에 외침이 울려 퍼졌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22:37 그렇게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졌고,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에 묻었다.

22:38 그들이 사마리아 연못에서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창기들이 그곳에서 목욕했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22:39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지은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22:40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41 이스라엘 왕 아합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2:42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삼십오 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이며 실히의 딸이었다.

22:43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따라 걸었으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다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22:44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를 누렸다.

22:45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떨친 용맹,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22:46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22:47 당시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관이 다스렸다.

22:48 여호사밧은 금을 구하러 오빌로 보내려고 다시스 선박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했으니,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난파되었기 때문이다.

22:49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내 종들을 왕의 종들과 함께 배에 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으나, 여호사밧은 허락하지 않았다.

22:50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51 유다 왕 여호사밧 제십칠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2:52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

22:53 그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가 행한 온갖 행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노엽게 해 드렸다.

열왕기하

1장

1:1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역했다.

1: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는 사절들을 보내며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물어보아라."

1:3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절들을 맞으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1:4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대로 떠나갔다.

1:5 사절들이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벌써 돌아왔느냐?"

1:6 그들이 대답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맞으러 올라와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7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를 맞으러 올라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8 그들이 대답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1:9 이에 왕이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오십부장이 엘리야에게 올라가 보니 그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오십부장이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명하셨소."

1:10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과 당신의 부하 오십 명을 삼킬 것이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삼켜 버렸다.

1: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보냈다. 그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명하셨소."

1:12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과 당신의 부하 오십 명을 삼킬 것이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오십 명을 삼켜 버렸다.

1:13 왕이 세 번째로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 오십 명을 보냈다. 그 셋째 오십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오십 명의 목숨을 당신의 눈앞에 귀하게 보아주십시오.

1:14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난번 두 오십부장과 그들의 부하 오십 명씩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1:15 주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1:16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절들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물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1:17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왕이 죽었다. 아하시야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이년에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18 아하시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2장

2:1 주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났다.

2: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벧엘까지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벧엘로 내려갔다.

2:3 벧엘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2:4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엘리사야, 주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다.

2:5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2:6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2:7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 오십 명이 가서 멀찍이 마주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요단강 가에 서 있었다.

2:8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2:9 건너간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선생님의 영의 몫을 갑절이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2:10 엘리야가 말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했구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보면 네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11 그들이 계속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아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2:12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들이여!" 그 뒤로 엘리사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2:13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고 돌아와 요단강 가에 섰다.

2:14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사가 건넜다.

2: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2:16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오십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아보게 해 주십시오. 혹시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보내지 마십시오."

2:17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하자, 그는 "보내시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고,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2:18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그가 말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19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 주께서 보시듯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20 엘리사가 말했다. "새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소금을 담아 오너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2:21 그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다시는 죽음이나 결실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2:22 그 물은 엘리사가 한 말대로 오늘날까지 맑은 물로 남아 있다.

2:23 그는 거기서 벧엘로 올라갔다. 그가 길을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2:24 그가 뒤를 돌아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마흔두 명을 찢어 죽였다.

2:25 그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3장

3:1 유다 왕 여호사밧 제십팔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3:2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지는 않았으니,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돌기둥을 치웠기 때문이다.

3:3 그러나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다.

3:4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어린 양 십만 마리와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

3:5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거역했다.

3:6 그때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

3:7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모압 왕이 나를 거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싸움터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왕과 같고, 내 백성은 왕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왕의 말들과 같습니다."

3:8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여호람이 대답했다. "에돔 광야 길로 가야 합니다."

3:9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나 칠 일 동안 우회하여 행군했다. 그러나 군대와 그들을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3:10 이스라엘 왕이 부르짖었다. "슬프다! 주님께서 이 세 왕을 함께 불러내어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구나."

3:11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물을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3:12 여호사밧이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3: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왕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3:14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15 이제 악사를 내게 데려오십시오." 악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주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3:16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3:17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3:18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압 사람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3:19 너희는 모든 요새 성읍과 모든 으뜸가는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모든 샘을 메우며, 모든 좋은 밭을 돌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3:20 아침이 되어 제물을 바칠 무렵에, 보아라,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온 땅에 물이 가득 찼다.

3:21 한편 모든 모압 사람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국경에 늘어섰다.

3:22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비추자, 맞은편에 있는 물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처럼 붉게 보였다.

3:23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틀림없이 서로 칼을 겨누어 싸우다가 서로를 죽인 것이다. 그러니 모압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3:24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으로 전진하며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3:25 그들은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좋은 밭마다 각자 돌을 던져 가득 채웠으며,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다. 길하레셋에서는 돌벽만 남겼는데, 물매를 든 자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3:26 모압 왕은 전투가 자기에게 너무 벅찬 것을 보고, 칼을 든 군사 칠백 명을 이끌고 에돔 왕을 뚫고 지나가려 했으나 뚫지 못했다.

3:27 이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큰 진노가 임했고,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4장

4:1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제 두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4:2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면 좋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 보시오." 여인이 말했다.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3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4:4 그런 다음 들어가 너와 네 아들들 뒤로 문을 닫아걸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것은 따로 놓아두어라."

4:5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와 자기와 아들들 뒤로 문을 닫아걸었다.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주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

4:6 그릇들이 다 차자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기름이 그쳤다.

4:7 여인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렸다. 그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살아가시오."

4: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를 간청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들러 음식을 먹었다.

4:9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곁으로 늘 지나가시는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4:10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대를 놓아둡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곳에 머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11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4:12 그가 자기 종 게하씨에게 말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게하씨가 그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4:13 엘리사가 종에게 말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당신을 위해 힘써 줄 말이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4:14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느냐?" 게하씨가 대답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4:15 엘리사가 말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게하씨가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섰다.

4:16 엘리사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4:17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듬해 바로 그 계절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낳았다.

4:18 아이가 자라나, 하루는 추수꾼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

4:19 아이가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주어라" 하고 말했다.

4:20 종이 아이를 안아 어머니에게 데려다주니,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4:21 여인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4:22 여인이 남편을 불러 말했다. "종들 가운데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제게 보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다녀오겠습니다."

4:23 남편이 물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오늘 그분에게 가려 하오?" 여인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4:24 여인은 나귀에 안장을 얹고 자기 종에게 말했다. "몰아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속도를 늦추지 마라."

4:25 여인은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여인을 보고 자기 종 게하씨에게 말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있구나.

4:26 지금 달려가 그를 맞으며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남편도 평안합니까? 아이도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여인이 대답했다. "평안합니다."

4:27 여인이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잡았다. 게하씨가 다가와 여인을 밀어내려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 주님께서 이를 내게 숨기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4:28 여인이 말했다. "내 주여, 제가 왕께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29 엘리사가 게하씨에게 말했다.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4:30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일어나 여인을 따라나섰다.

4:31 게하씨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다. 그는 엘리사를 맞으러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다.

4:32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4:33 그는 들어가 두 사람 뒤로 문을 닫아걸고 주님께 기도했다.

4:34 그는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었다. 그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4:35 엘리사는 물러나 집 안에서 이리저리 한 번 거닐고는,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일곱 번 하더니 눈을 떴다.

4:36 엘리사가 게하씨를 불러 말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게하씨가 여인을 불렀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4:37 여인이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4:38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다. "큰 솥을 걸고 예언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4:39 한 사람이 나물을 캐려고 들로 나갔다가 들포도덩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 왔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다.

4:40 사람들이 먹으려고 국을 퍼주었는데, 그들이 국을 맛보자마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을 먹을 수 없었다.

4:41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그가 밀가루를 솥에 던져 넣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퍼주어 먹게 하라." 그러자 솥 안에 아무런 해로운 것이 없었다.

4:42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맏물로 만든 빵, 곧 보리빵 스무 개와 자루에 담긴 햇곡식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3 그의 종이 말했다. "어찌 이것을 백 명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4:44 그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5장

5:1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주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용맹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5:2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모시게 되었다.

5:3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다. "제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의 나병을 고쳐 주실 텐데요."

5:4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자기 주인에게 고하여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5:5 아람 왕이 말했다. "지금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 열 벌을 가지고 떠났다.

5:6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냈으니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5:7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치라고 하다니! 그가 나에게 시비를 걸 핑계를 찾고 있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5: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나에게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5: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5:10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결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5:11 그러나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려 떠나면서 말했다. "보아라, 나는 그가 분명 나에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 환자를 고칠 줄 알았다.

5:12 다메섹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는 없단 말인가?" 그러고는 성을 내며 발길을 돌려 떠나갔다.

5:13 그의 종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하며 아뢰었다. "내 아버지여,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어떤 큰일을 행하라고 요구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장군님께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5:14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5:15 그와 그의 모든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온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당신의 종에게서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5:16 그러나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5:17 나아만이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부디 노새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릴 것입니다.

5:18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내 손에 기대므로 내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할 때,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9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은 그에게서 떠나 얼마쯤 갔다.

5:20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아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아껴 주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 그에게서 무엇이든 받아 내겠다."

5:21 그리하여 게하씨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 뒤를 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물었다. "모든 일이 평안합니까?"

5:22 게하씨가 대답했다. "다 평안합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청년이 나에게 왔다. 부디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어라.'"

5:23 나아만이 말했다. "기꺼이 두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나아만은 그에게 권하며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묶고 옷 두 벌과 함께 자기의 두 종에게 지워 주었고, 그들은 게하씨 앞에서 그것을 메고 갔다.

5:24 게하씨가 언덕에 이르자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집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갔다.

5:25 게하씨가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씨야,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5:26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병거에서 내려 너를 맞으려고 돌아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나무 밭과 포도원과 양 떼와 소 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겠느냐?

5: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들러붙어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게하씨가 엘리사 앞을 물러나오자, 나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6장

6:1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이 장소는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6:2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자 들보 하나씩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낼 곳을 거기에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거라."

6:3 한 사람이 말했다. "부디 기꺼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다. "내가 가겠다."

6:4 그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었다.

6:5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물속에 빠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치며 말했다. "아, 내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6:6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보여 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지니 쇠도끼 머리가 떠올랐다.

6:7 엘리사가 말했다. "그것을 집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뻗어 그것을 집었다.

6:8 그 무렵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하며 말했다. "어느어느 곳에 진을 칠 것이다."

6:9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조심하여 그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6:10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알려 경고해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 대비하였으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6:11 이 일로 인해 아람 왕의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 편인지 나에게 밝히지 않겠느냐?"

6:12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줍니다."

6:13 왕이 말했다.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겠다." 누군가 왕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6:14 왕은 그곳으로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에 와서 그 성읍을 둘러쌌다.

6:15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16 엘리사가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보다 더 많다."

6:17 엘리사가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 부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가 보게 되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6:18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부디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6:19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다.

6:20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들이 보았는데,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6: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칠까요? 내가 그들을 칠까요?"

6:22 엘리사가 대답했다. "치지 마십시오.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라도 치시겠습니까? 그들 앞에 빵과 물을 차려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6:23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신 뒤에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갔다. 그리하여 아람의 약탈 부대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6:24 이 일이 있은 뒤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6:25 사마리아에 큰 흉년이 들었다.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캅이 은 다섯 세겔에 팔릴 지경이었다.

6:26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6:27 왕이 말했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어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얻겠느냐?"

6:28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 "무슨 사정이냐?" 여자가 대답했다. "이 여자가 저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그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6:29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그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먹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 버렸습니다."

6:30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백성이 보았는데, 그의 몸 안쪽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6:31 왕이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6:32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이 자기 앞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보십시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그의 뒤에서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6:33 엘리사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사자가 그에게 내려왔다. 왕이 말했다. "보아라, 이 재앙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내가 어찌 주님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7장

7:1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7:2 그러자 왕이 팔을 의지하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주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말했다. "보아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7:3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하겠는가?

7:4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말한다면 성읍 안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넘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뿐이다."

7:5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다. 그들이 아람 진영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7: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을 돈 주고 고용했다."

7:7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 도망쳤는데, 자신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남겨 두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다.

7:8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자락에 이르러 한 장막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를 가지고 나가 숨겨 두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숨겨 두었다.

7:9 그 뒤에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구나. 만일 우리가 아침 밝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리자."

7:10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알려 말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전혀 없었으며,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7:11 문지기들이 외쳐서 성읍 안 왕궁에 그 소식을 전했다.

7:12 왕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밝혀 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나 들에 숨으며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읍 안으로 쳐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7:13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청하건대, 성안에 아직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끌고 가게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 말들은 성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거나,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을 뿐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십시오."

7:14 그리하여 그들이 말들이 끄는 병거 두 대를 취하니, 왕이 그들을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 보내며 말했다. "가서 살펴보아라."

7:15 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 요단강까지 가 보니, 아람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내던진 옷가지와 장비가 길에 가득했다. 사자들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7:16 그러자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약탈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7:17 왕은 자기가 팔을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성문 책임자로 세웠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짓밟아 그는 죽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그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7:1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던 대로 일어난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7:19 그때 그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주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보아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7:20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일어났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짓밟아 그가 죽었다.

8장

8:1 엘리사는 자기가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일어나 너와 네 가족과 함께 떠나서, 머물 수 있는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어라. 주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칠 년 동안 기근이 닥칠 것이다."

8:2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떠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칠 년 동안 살았다.

8:3 칠 년이 끝났을 때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자기 집과 밭을 돌려받기를 왕에게 간청하러 나아갔다.

8:4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나에게 들려주어라."

8:5 게하씨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낸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 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집과 밭을 돌려받기를 왕에게 간청해 왔다. 게하씨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며,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낸 그의 아들입니다."

8:6 왕이 그 여인에게 묻자, 여인이 사실대로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여인에게 한 관리를 붙여 주며 명령했다. "그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것과, 그가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8:7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누군가 왕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8:8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다. "손에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여라.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께 여쭈어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8:9 그리하여 하사엘은 그를 맞이하러 가면서 다메섹의 온갖 좋은 물건을 낙타 마흔 마리에 싣고 떠났다. 그가 엘리사 앞에 와서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인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여쭙니다."

8:10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에게 '왕은 틀림없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내게 보여 주셨소."

8:11 엘리사는 하사엘이 무안해할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다.

8:12 하사엘이 물었다. "내 주여,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8:13 하사엘이 말했다. "개에 지나지 않는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8:14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하사엘이 대답했다. "왕께서 틀림없이 나으실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8:15 다음 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었고, 왕은 숨이 끊어졌다. 그리하여 하사엘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8:16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8:17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삼십이 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8:18 그는 아합의 가문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으니,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19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언제나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8:20 여호람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역하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웠다.

8:21 이에 요람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건너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자신과 병거 대장들을 둘러싼 에돔 사람들을 쳤으나, 군사들은 도망쳐 각자의 장막으로 흩어졌다.

8:22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때 립나도 동시에 반역했다.

8:23 요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8:24 요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8:25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십이년에 여호람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8:26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이십이 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8:27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28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는데,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8:29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받으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으므로 그를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9장

9:1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허리를 묶고 이 기름병을 손에 쥐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9:2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아라. 안으로 들어가 그의 동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골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9:3 그런 다음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고는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마라."

9:4 그리하여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9:5 그가 이르렀을 때 군대의 장수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려는 말이냐?" 그가 말했다. "장군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9:6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9:7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안을 쳐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주님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갚을 것이다.

9:8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할 것 없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9:9 내가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 것이다.

9:10 개들이 이스르엘의 밭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며, 그를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9:11 예후가 자기 주인의 신하들에게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모든 일이 평안합니까? 저 미치광이가 왜 장군에게 왔습니까?" 예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과 그가 떠들어댄 것을 여러분도 알지 않소."

9:12 그들이 말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였소."

9:13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각자 자기 옷을 벗어 계단 꼭대기 예후의 발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외쳤다. "예후가 왕이다!"

9:14 이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거슬러 반역을 꾀했다. (그때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9:15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받으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와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스르엘에 가서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9:16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르엘로 갔으니,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9:17 이스르엘 망대 위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다가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기마병 하나를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평안하냐?' 하고 묻게 하여라."

9:18 이에 말을 탄 사람이 예후를 맞으러 가서 말했다. "왕께서 '평안하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서라!" 파수꾼이 보고했다. "전령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9:19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했다. "왕께서 '평안하냐?' 하십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서라!"

9:20 파수꾼이 보고했다. "그 사람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거를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가 모는 것과 같으니, 미친 듯이 몰기 때문입니다."

9:21 요람이 말했다. "채비하라!" 그러자 병거를 준비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그를 마주쳤다.

9: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소?"

9:23 요람이 말고삐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외쳤다. "아하시야여, 반역이오!"

9:24 예후가 힘껏 활시위를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가 그가 병거 안에서 엎드러졌다.

9:25 예후가 자기 장관 빗갈에게 말했다. "그를 들어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기억해 보아라, 너와 내가 함께 말을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를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셨다.

9:26 '내가 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로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들어 이 토지에 내던져라."

9:27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것을 보고 정자 길로 도망쳤다. 예후가 그의 뒤를 쫓으며 말했다. "병거에 있는 그도 쳐라!" 그들이 이블르암 근처 구르 언덕길에서 그를 쳤다. 아하시야는 므깃도로 도망쳤으나 거기서 죽었다.

9:28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지냈다.

9:29 아합의 아들 요람 제십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9:30 예후가 이스르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소식을 듣고는,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뒤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9:31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 이세벨이 말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9: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바라보며 외쳤다.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그러자 내시 두세 사람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9:33 예후가 말했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를 내던지니, 그의 피가 담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가 그를 짓밟았다.

9:34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말했다.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지내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9:35 그들이 장사지내러 갔으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9:36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개들이 이스르엘 땅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요,

9:37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르엘 땅 밭에 뿌려진 거름더미처럼 되어, 아무도 "이것이 이세벨이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10장

10:1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있었다.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로 보내어 이스르엘의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전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10:2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읍과 무기가 있으니,

10:3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자를 골라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하여 싸우라."

10:4 그러나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아라, 두 왕도 그 앞에 맞서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맞설 수 있겠는가?"

10:5 궁내대신과 성읍을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과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우리는 장군님의 종들이니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10:6 예후가 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르엘로 나에게 오라." 그때 왕의 아들 칠십 명은 자신들을 길러 준 그 성읍의 귀족들과 함께 있었다.

10:7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왕의 아들들을 붙잡아 죽였으니 곧 칠십 명이었다. 그들은 그 머리들을 광주리에 담아 이스르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10:8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 두어라."

10:9 아침에 예후가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주인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10:10 이제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10:11 그리하여 예후는 이스르엘에 남아 있던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을 쳤으니, 그의 귀족들과 친한 벗들과 제사장들까지 쳐서 그에게 속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10:12 예후가 일어나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향했다. 그가 길에 있는 목자들의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였다.

10:13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입니다. 왕자들과 태후의 자손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10:14 예후가 명령했다. "그들을 사로잡아라!" 군사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의 웅덩이 곁에서 죽였으니, 마흔두 명이었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다.

10:15 예후가 거기서 떠나 길을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말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대하듯 당신의 마음도 진실합니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손을 주시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기 병거에 태웠다.

10:16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나답을 예후의 병거에 태워 동행하게 했다.

10:17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쳐서 멸망시켰으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였다.

10:18 예후가 온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10:19 그러니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숭배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불러 모아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빠지는 자는 누구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멸절시키려고 간계를 꾸민 것이었다.

10:20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거룩한 집회를 선포하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공포했다.

10:21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니, 바알의 모든 숭배자가 와서 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니 바알의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찼다.

10:22 예후가 의복을 맡은 자에게 말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를 위해 옷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꺼내 주었다.

10:23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잘 살펴보고 확인하여, 주님의 종들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오직 바알 숭배자들만 있는지 확인하라."

10:24 그들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러 들어갔다. 한편 예후는 밖의 여든 명을 배치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치게 내버려 두면, 그를 놓아준 자의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10:25 예후가 번제물 바치는 일을 마치자마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에게 명령했다.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죽였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이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당으로 들어갔다.

10:26 그들은 바알의 신전에 있던 기둥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10:27 또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거름터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10:28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 버렸다.

10:29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았다.

10:30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옳은 일을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아합의 집안에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사 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10:31 그러나 예후는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10:32 그 무렵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 지대에서 그들을 쳤으니,

10:33 요단강 동쪽 온 길르앗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과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10:34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0:35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이십팔 년이었다.

11장

11: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족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켰다.

11:2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살해당할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달랴에게서 아이를 숨겼으므로 아이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11:3 요아스는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리는 육 년 동안 그 여인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숨겨져 있었다.

11:4 제칠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 주님의 성전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성전에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한 뒤,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11:5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안식일에 당번으로 들어오는 너희 가운데 삼분의 일은 왕궁을 경비하고,

11:6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편 문에 있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경비하여 방벽이 되어야 한다.

11:7 안식일에 비번으로 나가는 너희 두 대는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왕을 호위하여라.

11:8 너희는 각자 손에 무기를 쥐고 왕을 에워싸며, 대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죽여라.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 왕과 함께 있어야 한다."

11:9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했다. 그들은 각자 안식일에 당번으로 들어오는 자들과 안식일에 비번으로 나가는 자들을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다.

11:10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내주었다.

11:11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을 따라 왕을 둘러서서 경호했다.

11:12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왕관을 씌우고 증거판을 건네주었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으며, 손뼉을 치며 "왕 만세!" 하고 외쳤다.

11:13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나아갔다.

11:14 그가 바라보니, 관례대로 왕이 기둥 곁에 서 있고 장수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서 있었으며,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그러자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11: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그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 칼로 죽여라." 이는 제사장이 "그 여자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1:16 그리하여 그들이 아달랴를 붙잡았다. 그가 말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11:17 여호야다는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게 했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했다.

11:18 온 나라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헐었다. 그들은 바알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관리들을 세웠다.

11:19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리고 왕을 주님의 성전에서 인도하여 호위대 문을 지나 왕궁으로 내려갔다. 왕은 왕좌에 앉았다.

11:20 그리하여 온 나라 백성이 기뻐했고 성읍은 평온해졌다. 그들은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11:21 여호아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

12장

12:1 여호아스는 예후 제칠년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인데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12:2 여호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를 가르친 모든 날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12:3 다만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12:4 여호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주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은, 곧 통용되는 화폐와 각 사람의 몸값으로 정해진 돈과 각 사람이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12:5 제사장들은 각자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성전에 파손된 곳이 보이면 어디든 그 파손된 곳을 수리하도록 하시오."

12:6 그러나 여호아스 왕 제이십삼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지 않았다.

12:7 이에 여호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기부자들에게서 돈을 더 이상 받지 말고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도록 그 돈을 넘겨주시오."

12:8 제사장들은 백성에게서 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성전의 파손된 곳을 직접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했다.

12:9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 하나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 제단 곁에 두었다. 그리하여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었다.

12:10 궤 안에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자루에 담고 세었다.

12:11 그들은 달아놓은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했고,

12:12 또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 지불했으며, 주님의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으로 썼다.

12:13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 들어온 그 돈으로는 성전을 위한 은잔이나 부집게나 대야나 나팔이나 그 어떤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않았다.

12:14 오직 그 돈을 공사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했다.

12:15 또한 일꾼들에게 줄 돈을 넘겨받은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12:16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주님의 성전에 들이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다.

12:17 그 무렵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 그리고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뜻을 정했다.

12:18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바친 모든 거룩한 물건과 자신이 바친 거룩한 물건, 그리고 주님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이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12:19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2:20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쳤다.

12:21 그의 신하인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그를 쳐서 그가 죽었다. 그들은 그를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13:1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13:2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13:3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주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계속 넘겨주셨다.

13:4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다.

13:5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이 아람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처럼 자기 장막에서 살게 되었다.

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걸어갔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13:7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하여 타작 때의 먼지처럼 만들었으므로, 그에게 남겨 준 군사는 기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뿐이었다.

13:8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3:9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10 유다 왕 요아스 제삼십칠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13:11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걸어갔다.

13:12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3:13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13:14 엘리사가 죽을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를 굽어보며 울면서 말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13:15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그러자 그가 활과 화살들을 잡았다.

13:16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활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왕이 손을 얹자 엘리사가 왕의 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13:17 엘리사가 말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 곧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13:18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들을 잡았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 치고 멈추었다.

13:19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노하여 말했다. "왕께서 대여섯 번을 치셨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왕께서 아람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치셨을 텐데, 이제는 아람을 겨우 세 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13:20 엘리사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장사지냈다. 해가 바뀔 때에 모압 사람들의 약탈 부대가 그 땅에 침략해 들어왔다.

13:21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지내다가 약탈 부대를 보고는,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내던졌다. 그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다.

13:22 여호아하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다.

13:23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으며 돌보아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고, 아직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13:24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아 왔으니, 이는 하사엘이 전쟁을 통해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손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이었다. 요아스가 그를 세 번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되찾았다.

14장

14:1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14:2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었다.

14:3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다.

14: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14:5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잡자마자, 그의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14:6 그러나 살인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들이 자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자녀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오직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14:7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일만 명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켜 셀라를 점령한 뒤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14:8 그 뒤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자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오너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보자" 하고 말했다.

14:9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14:10 네가 에돔을 쳐부수더니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승리를 영광으로 여기고 궁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쓰러지려 하느냐?"

14:11 그러나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올라왔고, 그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맞섰다.

14:12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14:13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이자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허물었다.

14:14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찾아낸 모든 금과 은, 그리고 모든 기구를 빼앗았고, 인질들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14:15 여호아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과 그의 용력,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4:16 여호아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4:17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십오 년을 더 살았다.

14:18 아마샤가 행한 나머지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4:19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키자 그는 라기스로 달아났으나, 그들은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14:20 그들은 시신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14:21 유다 온 백성은 열여섯 살인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14:22 아사랴는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의 영토로 되돌려놓았다.

14:23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십오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십일 해 동안 다스렸다.

14:24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4:25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드헤벨 출신의 예언자이자 그분의 종인 아밋대의 아들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했다.

14:26 주님께서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14:27 주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14:28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그의 용력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한때 유다에 속했던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되찾았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4:29 여로보암은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5장

15: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칠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15:2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였다.

15:3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15:4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15:5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살았고,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15:6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5:7 아사랴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사람들은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5:8 유다 왕 아사랴 제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15:9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5:10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백성 앞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11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5:12 이것은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사 대 자손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5:13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웃시야 제삼십구년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15: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15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꾸민 반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5:16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출정하여 딥사와 그 성읍 안의 모든 사람과 그 주변 지역을 쳤다. 그들이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쳐부순 것이며, 그 성읍의 아이 밴 여인들의 배를 모두 갈랐다.

15:17 유다 왕 아사랴 제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5:18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평생 동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5:19 앗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치러 오자, 므나헴은 자기 손으로 왕권을 굳게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불에게 은 일천 달란트를 주었다.

15:20 므나헴은 앗수르 왕에게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재력가에게서 은 오십 세겔씩을 강제로 거두었다. 그리하여 앗수르 왕은 발길을 돌려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나갔다.

15:21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5:22 므나헴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5:23 유다 왕 아사랴 제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두 해 동안 다스렸다.

15:24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5:25 그의 군지휘관인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그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함께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아르곱과 아리에와 더불어 왕을 공격했다. 베가는 왕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26 브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5:27 유다 왕 아사랴 제오십이년에,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다스렸다.

15:28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5:29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 이욘, 아벨벧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곧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

15:30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그를 쳐 죽이고, 웃시야의 아들 요담 제이십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31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15:32 이스라엘 왕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제이년에,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15:33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15:34 그는 그의 아버지 웃시야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15:35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는 주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15:36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5:37 그 무렵 주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15:38 요담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6장

16:1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제십칠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16:2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스무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주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16:3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을 지나가게 했다.

16:4 그는 산당들과 언덕 위, 그리고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16:5 그 무렵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16:6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되찾아 아람에 합병하고 유대인들을 엘랏에서 쫓아냈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와서 오늘날까지 거기 살고 있다.

16:7 그러자 아하스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고 일어난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6:8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서 찾아낸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16:9 앗수르 왕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앗수르 왕이 다메섹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길로 사로잡아 갔으며, 르신을 죽였다.

16:10 아하스 왕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았다.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의 모형과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16:11 우리야 제사장은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지침대로 만들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완성해 두었다.

16: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았다. 왕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16:13 그는 자신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16:14 그는 주님 앞에 있던 놋제단을 성전 앞,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 북쪽에 두었다.

16:15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왕의 번제물과 왕의 곡식 제물, 그리고 그 땅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번제물의 모든 피와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려라.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쭈어볼 때만 사용할 것이다."

16:16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16:17 아하스 왕은 받침대의 옆판들을 떼어 내고 그 위에 있던 물두멍을 떼어 놓았으며, 놋바다를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놋황소들 위에서 내려 돌바닥 위에 두었다.

16:18 그는 앗수르 왕의 눈치를 보아, 성전 안에 안식일을 위해 지어 둔 가림막 통로와 왕이 성전 밖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치워 버렸다.

16:19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16:20 아하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17장

17:1 유다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17:2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나, 그보다 앞서 살았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17:3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17:4 그러나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앗수르 왕에게 바치지 않자, 앗수르 왕은 호세아의 반역 음모를 알아챘다. 그리하여 앗수르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17:5 그 뒤에 앗수르 왕은 온 땅으로 진격해 와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삼 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17: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성읍들에 두었다.

17:7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곧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끌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17:8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법규를 따랐다.

17:9 이스라엘 자손은 은밀하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들을 저질렀다. 그들은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들을 지었다.

17:10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 위와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17:11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으며, 악한 일들을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17:12 그들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

17:13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모든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행하여라."

17:14 그럼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세웠다.

17:15 그들은 주님의 규례와 그분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허망해졌고,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 민족들을 본받았다.

17:16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부어 만든 두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 무리를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다.

17:17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며 술수를 부렸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에 스스로를 팔아넘겨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

17:18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눈앞에서 내쫓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17:19 유다도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든 규례를 따라 걸었다.

17:20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리셨고, 그들을 괴롭히시며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셔서, 마침내 그분의 눈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17:21 주님께서 다윗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찢어 내셨을 때,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몰아내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17:22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걸었으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17:23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분의 눈앞에서 내쫓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고국 땅에서 앗수르로 사로잡혀 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7:24 앗수르 왕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17:25 그들이 그곳에 처음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고 사자들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물어 죽였다.

17:26 그러자 사람들이 앗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냈고, 보십시오, 그 사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27 이에 앗수르 왕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그곳에서 끌고 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가서 거기에 살며, 그 땅 신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17:28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끌려왔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벧엘에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17:29 그러나 민족마다 제각기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각 민족은 자기들이 살던 성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 놓은 산당의 신전들에 그것들을 두었다.

17: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놋을 만들었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17:31 아와 사람들은 니브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다.

17:32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신전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17:33 이처럼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이 끌려 나온 원래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자기 신들도 섬겼다.

17:34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전의 풍습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규례나 법도나 율법이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17:35 주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17:36 오직 큰 능력과 뻗치신 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17:37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는 언제나 힘써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7:38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7:39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17:40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행했다.

17:41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신들이 새긴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행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8장

18: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18:2 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가랴의 딸 아비였다.

18:3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18:4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또한 그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 분향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다.

18:5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굳게 신뢰했으므로,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살았던 왕들 가운데도 없었다.

18:6 그는 주님께 꼭 붙어 그분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철저히 지켰다.

18:7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에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는 앗수르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않았다.

18:8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영토 전체를 정복했다.

18:9 히스기야 왕 제사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칠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포위했다.

18:10 삼 년 끝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했다. 곧 히스기야 제육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18:11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성읍들에 두었다.

18:12 이것은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겼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8:13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러 올라와 그것들을 점령했다.

18:14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앗수르 왕에게 전갈을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서 물러가 주십시오. 왕께서 내게 부과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이에 앗수르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부과했다.

18:15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서 찾아낸 모든 은을 그에게 건넸다.

18:16 그때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 문들과 유다 왕 히스기야 자신이 입혀 두었던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내어 앗수르 왕에게 바쳤다.

18:17 그러나 앗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서 빨래터 큰길에 있는 윗못 수도 곁에 멈추어 섰다.

18:18 그들이 왕을 부르자, 왕궁 관리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갔다.

18:19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앗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18:20 네가 전쟁할 계략과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헛된 말뿐이다. 이제 네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18:21 보아라, 너는 이제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사람이 그것에 기대면 손에 찔려 들어가 꿰뚫고 말 것이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다.

18:22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말하려는가?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하고 말했던 그 신이 아니냐?'

18:23 그러니 이제 나의 주인이신 앗수르 왕과 내기를 해 보아라. 네가 말을 탈 사람들을 내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이천 필을 주겠다.

18:24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휘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마병을 얻으려고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냐?

18:25 내가 지금 주님의 뜻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러 올라왔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올라가 그것을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18:26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 부디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18:27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 주인이 너의 주인과 너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겠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18:28 그리고 랍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대왕이신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18:29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

18:30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성읍은 앗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며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18:31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앗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러면 너희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저마다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8:32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원의 땅, 올리브 나무와 꿀의 땅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너희를 설득할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18:33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

18: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18:35 그 모든 땅의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8:36 그러나 백성은 조용히 있었고,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18:37 그 뒤 왕궁 관리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는 옷을 찢은 채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보고했다.

19장

19:1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으며, 굵은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19:2 그는 왕궁 관리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19: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19:4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인인 앗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모든 말을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 주십시오.'"

19: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왔다.

19: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모독하며 지껄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19:7 보아라, 내가 그의 안에 한 영을 넣어 줄 터이니,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그의 고국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만들겠다.'""

19:8 랍사게는 돌아가다가,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립나를 치고 있던 왕을 만났다.

19:9 그때 앗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에 대해 "보아라, 그가 너와 싸우려고 출정했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19: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신뢰하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앗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속지 마라.

19:11 보아라,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떻게 행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는지 너도 들었다. 그런데 너 홀로 구원을 받겠느냐?

19:12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내었느냐?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쌀에 살던 에덴 자손을 건져내었느냐?

19:13 하맛 왕은 어디에 있으며, 아르밧 왕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읍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은 어디에 있느냐?'"

19:14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뒤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다.

19:15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만이 땅의 모든 나라 위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19:16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보낸 산헤립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19:17 주님, 참으로 앗수르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19:18 그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19:19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19:20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을 두고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19:21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의 처녀 딸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했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19:22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했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치켜떴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해서다!

19:23 너는 사자들을 보내어 주를 모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고 산들의 꼭대기에,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에 올라갔다. 내가 그 키 큰 백향목들과 엄선된 잣나무들을 찍어 넘길 것이며, 그 가장 먼 은신처,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19:24 내가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 버릴 것이다."

19:25 너는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오랜 옛날부터 행했고, 아득한 태고에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로 만든 것은 네가 한 일이다.

19:26 그러므로 그곳 주민들은 힘을 잃고 낙담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들은 들판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았으며, 지붕 위의 잡초 같고 다 자라기도 전에 바짝 말라 버린 곡식 같았다.

19:27 그러나 나는 네가 앉아 있는 것과 네가 나가는 것과 네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해 네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다 알고 있다.

19:28 나를 향한 너의 분노와 너의 거만함이 내 귀에 닿았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너의 입술에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19:29 '이것이 왕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돋아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19:30 유다 집에서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9:31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이며, 시온산에서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9:32 그러므로 주님께서 앗수르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읍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이 성읍 앞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며, 흙 언덕을 쌓아 성벽을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19:33 그는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갈 것이며, 결코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19:34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지켜 구원할 것이다.'"

19:35 그날 밤 주님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사람들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보아라,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다.

19:36 그리하여 앗수르 왕 산헤립은 발길을 돌려 떠나갔고, 고국으로 돌아가 니느웨에서 머물렀다.

19:37 산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20장

20:1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20:2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20:3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으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 왔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피 통곡했다.

20: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20:5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흘째 되는 날에 너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20:6 내가 너의 수명에 십오 년을 더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지켜 줄 것이다.""

20:7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얹자 히스기야가 나았다.

20: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고, 내가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표징이 무엇입니까?"

20:9 이사야가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 주는 주님의 표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자가 십 단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십 단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20:10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림자가 십 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십 단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20:11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져 내려갔던 그림자를 십 단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20:12 그 무렵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20:13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 그의 무기고와 보물고에서 찾아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왕궁 안과 자신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20:14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께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인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20:15 이사야가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6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0:17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니, 너의 궁전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 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 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18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자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20: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전해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20:20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용력,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읍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0:21 히스기야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21장

21:1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열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21:2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21:3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 무리를 숭배하며 섬겼다.

21:4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성전 안에 그는 제단들을 쌓았다.

21:5 그는 주님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별 무리를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21:6 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술수를 부렸으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수없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다.

21:7 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의 새긴 신상을 성전에 세워 두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21:8 만일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의 발이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

21:9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므낫세는 그들을 꾀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21:10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21: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보다 앞서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했으며, 자신의 우상들로 유다마저 죄를 짓게 만들었다.

21: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커다란 재앙을 내릴 터이니,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21:13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안을 잰 다림줄을 예루살렘 위에 늘어뜨리고, 사람이 그릇을 닦아 엎어 놓듯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닦아 내겠다.

21:14 내가 내 소유 가운데 남은 자들을 버리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약탈당하고 먹잇감이 될 것이다.

21:15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21:16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그 죄 외에도, 죄 없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

21:17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1:18 므낫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21:19 아몬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욧바 출신 하루스의 딸 므술레멧이었다.

21:20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21:21 그는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모든 길을 그대로 걸었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했다.

21:22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21:23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왕을 죽였다.

21:24 그러나 그 땅 백성은 아몬 왕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했다.

21:25 아몬이 행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1:26 그는 웃사의 동산에 있는 자신의 무덤에 묻혔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22장

22:1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였는데, 보스갓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22:2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모든 길을 따랐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22:3 요시야 왕 십팔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이자 아살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다.

22:4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22:5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22:6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들에게 주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게 하시오.

22:7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준 돈에 대해서는 회계를 요구하지 마시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오."

22: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하고 말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자, 사반이 그것을 읽었다.

22: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 보고하며 말했다. "왕의 종들이 성전에 있던 돈을 쏟아 내어, 주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22: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힐기야 제사장이 제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22:11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

22:12 왕은 힐기야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했다.

22:13 "가서 나를 위해, 백성을 위해, 온 유다를 위해,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두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님의 진노가 매우 큽니다."

22:14 이에 힐기야 제사장,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예복 관리자였던 하르하스의 손자이자 디과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 예언자 훌다에게 갔다(훌다는 예루살렘의 제이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와 함께 이야기하자,

22:15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22: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22:17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온갖 것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오를 것이며, 꺼지지 않을 것이다.

22:18 그러나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들은 그 말에 관해서는,

22:19 이곳과 주민들을 두고 내가 한 말, 곧 그들이 폐허가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네가 들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며,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 역시 네 기도를 들었다. 주님의 말씀이다.

22:20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네가 평안히 무덤에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23장

23:1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23:2 왕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는 데서 소리 내어 읽어 주었다.

23:3 왕은 기둥 곁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했다.

23:4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위해 만든 온갖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에서 꺼내 오게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 재를 벧엘로 가져갔다.

23:5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웠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폐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함께 폐했다.

23:6 그는 주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23:7 그는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들의 집을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방들이었다.

23:8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또 그 성읍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문 어귀, 곧 성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에 있던 산당들을 헐어 버렸다.

23:9 하지만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는 오르지 못하고, 다만 자기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이었다.

23:10 그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만들어,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다.

23:11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해 바쳤던 말들을 주님의 성전 입구, 곧 뜰에 있던 관리 나단멜렉의 방 곁에서 없애 버렸고, 태양 수레들을 불태웠다.

23:12 왕은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헐어 버렸다. 그곳에서 그것들을 깨뜨려 부수고,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23:13 왕은 예루살렘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역겨운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웠던 것들이었다.

23:14 그는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렸으며, 그 자리를 사람의 뼈로 채웠다.

23:15 또한 벧엘에 있던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도 헐어 버렸다. 그 제단과 산당을 헐어 불사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았으며,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23:16 요시야가 몸을 돌리다가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뼈를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었는데, 그는 이 일들을 미리 선포했었다.

23:17 요시야가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 성읍 사람들이 대답했다. "유다에서 와서 왕께서 벧엘의 제단에 행하신 이 일들을 미리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비입니다."

23:18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다.

23:19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지어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산당의 모든 신전들도 다 없애 버렸는데, 벧엘에서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다.

23:20 그는 그곳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불태운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3:21 왕은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유월절을 지키시오."

23:22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나 유다 왕들의 시대에 걸쳐,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3:23 그러나 요시야 왕 십팔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향해 이 유월절을 지켰다.

23:24 또한 요시야는 힐기야 제사장이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온갖 역겨운 것들을 없애 버렸다.

23:25 요시야처럼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주님께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그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

23:26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불타오른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으니, 므낫세가 주님을 격노하게 한 그 모든 분노 때문이었다.

23:2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처럼 유다도 내 눈앞에서 물리칠 것이며,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23:28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3:29 요시야 시대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서 나갔으나, 바로 느고는 므깃도에서 요시야를 보자마자 그를 죽였다.

23:30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그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 땅의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23:31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물세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었는데, 립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23:32 그는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23:33 바로 느고는 그를 하맛 땅 립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게 했다.

23:34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끌고 갔으며, 그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

23:35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매겼다. 그는 바로 느고에게 주기 위해, 각자의 재산 평가에 따라 그 땅의 백성에게서 은과 금을 징수했다.

23:36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였는데, 루마 출신 브다야의 딸이었다.

23:37 그는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24장

24:1 그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자, 여호야김은 삼 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돌아서서 그에게 반역했다.

24:2 주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의 부대들과 아람 사람의 부대들과 모압 사람의 부대들과 암몬 자손의 부대들을 그에게 보내셨고,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였다.

24:3 이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정녕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므낫세가 행한 그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눈앞에서 물리치시기 위함이었다.

24:4 또한 그가 흘린 무고한 피 때문이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을 무고한 피로 가득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24:5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4:6 여호야김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4:7 애굽 왕은 다시는 자기 땅에서 나오지 못했으니, 바벨론 왕이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했던 곳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다.

24:8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열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였는데,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이었다.

24:9 그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24:10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그 성읍은 포위되었다.

24:11 그의 신하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히 그 성읍에 이르렀다.

24:12 유다 왕 여호야긴이 어머니와 신하들과 고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자, 바벨론 왕은 통치 제팔년에 그를 사로잡았다.

24:13 그는 주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그곳에서 꺼내 왔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든 금 기구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다 부수었다.

24:14 그는 온 예루살렘과 모든 고관들과 용사 일만 명을 사로잡아 끌고 갔으며,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도 끌고 갔다.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24:15 그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

24:16 또한 바벨론 왕은 용사 칠천 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일천 명, 곧 강하고 전쟁에 익숙한 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24:17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맛다냐를 그를 대신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24:18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물한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었는데, 립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24:19 그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24:20 주님의 분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다.

25장

25:1 시드기야 통치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맞은편에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았다.

25:2 그리하여 성읍은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다.

25:3 넷째 달 구일에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었다.

25:4 마침내 성벽이 뚫리자, 갈대아 사람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의 정원 곁 두 성벽 사이 문길을 통해 도망쳤다. 왕은 아라바 길로 향했다.

25:5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그의 온 군대는 그에게서 흩어져 달아났다.

25:6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립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자, 그들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25:7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25: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구년 다섯째 달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25:9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으며, 모든 큰 집을 불태웠다.

25:10 근위대장과 함께 온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 성벽을 헐었다.

25:11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투항한 자들과 나머지 무리를 모두 사로잡아 끌고 갔다.

25:12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밭을 갈게 했다.

25:13 갈대아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에 있던 놋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님의 성전에 있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 조각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25:14 그들은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던 모든 놋기구들을 가져갔다.

25:15 근위대장은 불 옮기는 그릇들과 대야들, 곧 금으로 된 것은 금대로, 은으로 된 것은 은대로 다 가져갔다.

25:16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받침대들에 든 이 모든 기구의 놋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25:17 한 기둥의 높이는 십팔 규빗이었고, 그 위에 놋머리가 얹혀 있었다. 그 머리의 높이는 삼 규빗이었으며, 머리 둘레에는 놋으로 만든 그물망과 석류들이 있었는데 모두 놋이었다. 둘째 기둥도 그물망과 함께 이와 같았다.

25:18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붙잡았다.

25:19 또 성읍 안에서 군사들을 감독하던 관리 한 사람과, 성읍에서 발견된 왕을 직접 모시던 사람 다섯 명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 사령관의 서기관과, 성읍에서 발견된 그 땅 백성 육십 명을 붙잡았다.

25:20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붙잡아 립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25:21 바벨론 왕은 하맛 땅 립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처럼 유다는 사로잡혀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다.

25:2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아 있던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세웠다.

25:23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야에게 나아왔다. 곧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25:24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의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오."

25:25 그러나 일곱째 달에 왕족 출신 엘리사마의 손자이자 느다니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야를 쳐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죽였다.

25:26 이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 애굽으로 갔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5:27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년째 되던 해, 열두째 달 이십칠일에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25:28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 주었다.

25:29 또 그의 죄수복을 갈아입혀 주었다. 여호야긴은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항상 음식을 먹었다.

25:30 그의 생활비는 왕이 정기적으로 대주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매일 필요한 몫이 날마다 지급되었다.

역대상

1장

1:1 아담, 셋, 에노스,

1:2 게난, 마할랄렐, 야렛,

1:3 에녹, 므두셀라, 라멕,

1:4 노아, 셈, 함, 야벳.

1:5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이다.

1:6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이다.

1:7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깃딤, 로다님이다.

1:8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1:9 구스의 아들은 세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1:10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은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되었다.

1:11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1:12 바드루심, 가슬루힘(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 갑도림을 낳았다.

1:13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1:14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1:15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1:16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을 낳았다.

1:17 셈의 아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섹이다.

1:18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1:19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었다. 그의 시대에 온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1:20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1:21 하도람, 우살, 디글라,

1:22 에발, 아비마엘, 스바,

1:23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었다.

1:24 셈, 아르박삿, 셀라,

1:25 에벨, 벨렉, 르우,

1:26 스룩, 나홀, 데라,

1:27 아브람(아브라함이라고도 함).

1: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1:29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욧이며, 그 다음은 게달, 앗브엘, 밉삼,

1:30 미스마, 두마, 맛사, 하닷, 데마,

1:31 여둘, 나비스, 게드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1:32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1:33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다.

1:34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1:35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1:36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딤나, 아말렉이다.

1:37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밋사이다.

1:38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1:39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딤나는 로단의 누이였다.

1:40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1:41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함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1:42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아완,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1: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아직 없던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브올의 아들 벨라였는데,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였다.

1:44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5 요밥이 죽자, 데만 족속의 땅 출신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6 후삼이 죽자,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브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 이름은 아윗이었다.

1:47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8 삼라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49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0 바알하난이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므헤다벨이었으며, 메사합의 손녀이자 마드렛의 딸이었다.

1:51 그 뒤에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딤나 족장, 알랴 족장, 여뎃 족장,

1:52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1:53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1:54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었다.

2장

2: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2:2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2:3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이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여인인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2: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다.

2: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2:6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로 모두 다섯 명이다.

2:7 갈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바쳐진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였다.

2:8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2:9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므엘, 람, 글루배이다.

2:10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으며,

2:11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2:12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2:13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2:14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2:15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2:16 그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었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 요압, 아사헬 세 사람이었다.

2: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여델이었다.

2:18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자녀를 낳았으니,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2:19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랏을 아내로 맞이했고, 에브랏은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다.

2:20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다.

2:21 그 뒤에 헤스론이 예순 살에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했더니, 그녀가 그에게 스굽을 낳아 주었다.

2:22 스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다스렸다.

2:23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과 그낫과 그 주변 마을들, 곧 육십 성읍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다.

2:24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훌을 낳아 주었다.

2:25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2:26 여라므엘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다라였다. 그녀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2:27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2:28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다.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2:29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었으며, 그녀가 아비술에게 아반과 몰릿을 낳아 주었다.

2:30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압바임인데, 셀렛은 자녀 없이 죽었다.

2:31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자손은 알래이다.

2:32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여델과 요나단인데, 여델은 자녀 없이 죽었다.

2:33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므엘의 자손이다.

2:34 세산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세산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사람 종이 있었다.

2:35 세산이 자기 종 야르하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그녀가 그에게 앗대를 낳아 주었다.

2:36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으며,

2:37 사밧은 에블랄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으며,

2:38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으며,

2:39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으며,

2:40 엘르아사는 시스매를 낳았고, 시스매는 살룸을 낳았으며,

2:41 살룸은 여가먀를 낳았고, 여가먀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2:42 여라므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은 맏아들 메사인데, 그는 십의 아버지이다. 또 헤브론의 아버지인 마레사의 아들들도 갈렙의 자손이다.

2:43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답부아, 레겜, 세마이다.

2:44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인 라함을 낳았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2:45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벧술의 아버지였다.

2:46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셋을 낳았고, 하란은 가셋을 낳았다.

2:47 야대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벨렛, 에바, 사압이다.

2:48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다.

2:49 그녀는 또 맛만나의 아버지인 사압과,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인 세와를 낳았다. 그리고 갈렙의 딸은 악사였다.

2:50 이들이 갈렙의 자손이다. 에브랏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기랏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과,

2:51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살마와, 벧가델의 아버지인 하렙이다.

2:52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메뉴홋 사람의 절반이다.

2:53 기랏여아림의 종족들은 이델 족속, 붓 족속, 수맛 족속, 미스라 족속이다. 이들에게서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다.

2:54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족속, 아다롯벧요압, 마나핫 족속의 절반인 소라 족속이다.

2:55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은 디랏 족속, 시므앗 족속, 수갓 족속이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겐 사람들이다.

3장

3:1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암논이니,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의 소생이었다. 둘째는 다니엘이니, 갈멜 사람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

3:2 셋째는 압살롬이니,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였다.

3:3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난 스바디야였고,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난 이드르암이었다.

3:4 이 여섯 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다. 다윗은 그곳에서 칠 년 여섯 달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다.

3:5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난 아들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이었다.

3:6 또 입할, 엘리사마, 엘리벨렛,

3:7 노가, 네벡, 야비아,

3:8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아홉 사람이다.

3:9 이들은 다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첩들의 아들들은 이 셈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말은 그들의 누이였다.

3: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의 아들은 아비야이며, 그의 아들은 아사이고,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며,

3:11 그의 아들은 요람이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이며, 그의 아들은 요아스이고,

3:12 그의 아들은 아마샤이며, 그의 아들은 아사랴이고, 그의 아들은 요담이며,

3:13 그의 아들은 아하스이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이며, 그의 아들은 므낫세이고,

3:14 그의 아들은 아몬이며,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다.

3:15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다.

3:16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이다.

3:17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3:18 말기람, 브다야, 세낫살, 여가먀, 호사마, 느다비야이다.

3:19 브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였다.

3:20 또 하수바, 오헬, 베레갸, 하사디야,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다.

3:21 하나냐의 아들은 벨라디야와 여사야이다. 또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 있다.

3:22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밧 여섯 사람이다.

3:23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내, 히스기야, 아스리감 세 사람이다.

3:24 엘료에내의 아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십, 벨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일곱 사람이다.

4장

4:1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었다.

4:2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매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은 소라 족속의 가문들이었다.

4:3 에담의 조상에게서 난 자손들은 이러하니, 곧 이스르엘, 이스마, 잇바스였으며,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하술렐보니였다.

4:4 브누엘은 게돌의 아버지였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였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에브랏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이었다.

4:5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4:6 나아라는 그에게 아훗삼, 헤벨, 데므니, 하아하스다리를 낳아 주었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었다.

4:7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이스할, 에드난이었다.

4:8 곳은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의 가문들을 낳았다.

4:9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4:10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주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고 제 영토를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악에서 지켜 주시고, 제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4:11 수하의 형제 글룹은 므힐을 낳았는데, 므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였다.

4:12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디힌나를 낳았다. 이들은 레가의 사람들이었다.

4:13 그나스의 아들들은 옷니엘과 스라야였고, 옷니엘의 아들은 하닷이었다.

4:14 므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장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4:15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었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였다.

4:16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십, 시바, 디리아, 아사렐이었다.

4:17 에스라의 아들들은 여델, 메렛, 에벨, 얄론이었다. 메렛의 아내는 미리암, 삼매,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다.

4:18 메렛의 유대인 아내는 게돌의 아버지 예렛, 소고의 아버지 헤벨,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이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었다.

4:19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름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였다.

4:20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난, 딜론이었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었다.

4:21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엘,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 그리고 고운 아마포를 짜는 집안이었던 아스베아 집안의 가문들이었다.

4:22 또 요김, 고세바 사람들, 모압을 다스렸던 요아스와 사라프, 그리고 야수비레헴이었다. 이 기록들은 오래된 것이다.

4:23 이들은 토기장이들이었으며, 느다임과 그데라의 주민이었다. 그들은 왕의 일을 하면서 왕과 함께 그곳에 살았다.

4:24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이었다.

4:25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었고,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었으며,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였다.

4:26 미스마의 자손은 이러했다. 그의 아들은 함무엘이었고, 함무엘의 아들은 삭굴이었으며, 삭굴의 아들은 시므이였다.

4:27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 명과 딸 여섯 명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자녀가 많지 않아 그들의 온 가문이 유다 자손만큼 번성하지는 못했다.

4:28 그들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4:29 빌하, 에셈, 돌랏,

4:30 브두엘, 호르마, 시글락,

4:31 벧말가봇, 하살수심, 벧비리, 사아라임에 살았다. 이곳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까지 그들의 성읍이었다.

4:32 그들의 마을들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이렇게 다섯 성읍이었으며,

4:33 바알에 이르기까지 이들 성읍 주변에 있던 모든 마을도 포함되었다. 이곳들이 그들의 거주지였으며, 그들은 족보를 보존했다.

4:34 또 메소밥, 얌렉, 아마샤의 아들 요사,

4:35 요엘, 아시엘의 증손이자 스라야의 손자이며 요시비야의 아들인 예후,

4:36 엘료에내, 야하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브나야,

4:37 스마야의 5대손이자 시므리의 현손이며 여다야의 증손이고 알론의 손자이며 시비의 아들인 시사였다.

4:38 이름이 언급된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조상의 집안은 크게 번성했다.

4:39 그들은 양 떼를 칠 목초지를 찾으려고 게돌 어귀, 곧 골짜기 동쪽 편까지 갔다.

4:40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를 발견했는데, 그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웠다. 예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4:41 이름이 적힌 이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그곳 사람들의 장막과 거기서 발견된 마온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그들은 그들을 오늘날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자리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그곳에 양 떼를 칠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4:42 시므온 자손 가운데 오백 명은 이시의 아들들인 벨라디야, 느아랴, 르바야, 웃시엘을 지휘관으로 삼아 세일산으로 갔다.

4:43 그들은 살아남아 피신해 있던 아말렉 사람들의 남은 자들을 쳐부수고,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5장

5:1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고, 족보도 장자권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

5:2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했고 그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다.)

5:3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였다.

5:4 요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스마야였고, 스마야의 아들은 곡이었으며, 곡의 아들은 시므이였고,

5:5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였으며,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였고,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이었으며,

5:6 바알의 아들은 브에라였다. 브에라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는 르우벤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5:7 대대로 기록된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들은 가문별로 이러하니, 우두머리인 여이엘과 스가랴,

5:8 그리고 벨라였다. 벨라는 요엘의 증손이자 세마의 손자이며 아사스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므온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5:9 또 그들의 가축 떼가 길르앗 땅에서 크게 불어났으므로, 그는 동쪽으로 유브라데강에서부터 광야 어귀에 이르기까지 살았다.

5:10 사울 시대에 그들은 하갈 사람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쓰러뜨렸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 걸쳐 그들의 장막에서 살았다.

5:11 갓 자손은 그들 곁의 바산 땅에서 살며 살르가까지 이르렀다.

5:12 우두머리는 요엘이었고, 둘째는 사밤이었으며, 야내와 사밧도 바산에 살았다.

5:13 그들 조상의 집안에 속한 그들의 형제들은 미가엘, 므술람, 세바, 요래, 야간, 시아, 에벨 이렇게 일곱 명이었다.

5:14 이들은 아비하일의 아들들이었다. 아비하일은 부스의 7대손이자 야도의 6대손이며 여시새의 5대손이고 미가엘의 현손이며 길르앗의 증손이고 야로아의 손자이며 후리의 아들이었다.

5:15 구니의 손자이자 압디엘의 아들인 아히가 그들 조상의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5:16 그들은 바산의 길르앗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사론의 모든 목초지 경계 끝까지 살았다.

5:17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 시대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등록되었다.

5:18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전쟁에 능숙한 용사로서 싸움터에 나갈 만한 사람은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었다.

5:19 그들은 하갈 사람들과 여둘, 나비스, 노답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

5:20 그들이 그들을 칠 때 도우심을 받아 하갈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자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는 그들이 전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5:21 그들은 적들의 가축을 빼앗았으니, 곧 낙타 오만 마리, 양 이십오만 마리, 나귀 이천 마리였으며, 포로로 잡은 사람은 십만 명이었다.

5:22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 쓰러졌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적들의 땅에서 살았다.

5:23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은 그 땅에 살면서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번성했다.

5:24 그들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곧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다. 이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자 이름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었다.

5:25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르며 음란하게 섬겼다.

5:26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 불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를 포로로 끌고 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날까지 할라, 하볼, 하라와 고산강 가에 머물게 하셨다.

6장

6: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였다.

6:2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이었다.

6:3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다.

6:4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6:5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았고, 북기는 웃시를 낳았다.

6:6 웃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므라욧을 낳았다.

6:7 므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다.

6:8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다.

6:9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다.

6:10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는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사람이었다.

6:11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다.

6:12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다.

6:13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다.

6:14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6:15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실 때 여호사닥도 끌려갔다.

6:16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솜, 고핫, 므라리였다.

6:17 게르솜의 아들들의 이름은 립니와 시므이였다.

6: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이었다.

6: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였다. 이들은 조상의 집안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문들이었다.

6:20 게르솜에게서 난 자손은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립니였고, 립니의 아들은 야핫이었으며, 야핫의 아들은 짐마였고,

6:21 짐마의 아들은 요아였으며, 요아의 아들은 잇도였고, 잇도의 아들은 세라였으며,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래였다.

6:22 고핫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었고,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였으며, 고라의 아들은 앗실이었고,

6:23 앗실의 아들은 엘가나였으며,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었고, 에비아삽의 아들은 앗실이었으며,

6:24 앗실의 아들은 다핫이었고, 다핫의 아들은 우리엘이었으며, 우리엘의 아들은 웃시야였고, 웃시야의 아들은 사울이었다.

6:25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못이었다.

6:26 엘가나로 말하자면, 엘가나의 자손은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소배였고, 소배의 아들은 나핫이었으며,

6:27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이었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이었으며,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였다.

6: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비야였다.

6:29 므라리의 자손은 마흘리였고, 마흘리의 아들은 립니였으며, 립니의 아들은 시므이였고, 시므이의 아들은 웃사였으며,

6:30 웃사의 아들은 시므아였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였으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였다.

6:31 궤가 안식처를 찾은 뒤에 다윗이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긴 사람들은 이러했다.

6:32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만남의 장막 장막 앞에서 찬양으로 섬겼으며, 규례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6:33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들은 이러했다. 고핫 자손 가운데는 찬양하는 자 헤만이 있었는데, 그는 사무엘의 손자요 요엘의 아들이었으며,

6:34 요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며,

6:35 도아는 숩의 아들이고, 숩은 엘가나의 아들이며,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새의 아들이며,

6:36 아마새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며,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며,

6:37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앗실의 아들이며, 앗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며,

6:38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며,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다.

6:39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섬긴 그의 형제는 아삽이었는데, 아삽은 시므아의 손자요 베레갸의 아들이었으며,

6:40 베레갸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며,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6:41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며,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며,

6: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짐마의 아들이며, 짐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6:43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며, 야핫은 게르솜의 아들이고,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이었다.

6:44 그들의 왼쪽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므라리 자손이 섬겼는데, 에단은 말룩의 증손이자 압디의 손자이며 기시의 아들이었다.

6:45 기시는 하사비야의 아들이고, 하사비야는 아마샤의 아들이며, 아마샤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6:46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며,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며,

6:47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며,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고,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었다.

6:48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장막의 온갖 섬기는 일을 맡도록 세워졌다.

6:49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며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규례를 따른 것이었다.

6:50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었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였으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였고,

6:51 아비수아의 아들은 북기였으며, 북기의 아들은 웃시였고, 웃시의 아들은 스라히야였으며,

6:52 스라히야의 아들은 므라욧이었고, 므라욧의 아들은 아마랴였으며, 아마랴의 아들은 아히둡이었고,

6:53 아히둡의 아들은 사독이었으며,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였다.

6:54 그들이 영토 안에서 진을 치고 거주하던 거처들은 이러했다.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 제비뽑기를 얻었으므로,

6:55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6:56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판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6:57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은 헤브론이었으며, 립나와 그 목초지, 얏딜,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6:58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6:59 아산과 그 목초지, 벧세메스와 그 목초지였다.

6:60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그들의 가문들이 얻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이었다.

6:61 나머지 고핫 자손에게는 그 지파의 가문에서 제비를 뽑아,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에서 열 성읍을 주었다.

6:62 게르솜 자손에게는 그 가문에 따라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다.

6: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에 따라 제비를 뽑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열두 성읍을 주었다.

6:64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주었다.

6:65 그들은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와 베냐민 자손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이 지명된 성읍들을 주었다.

6:66 고핫 자손의 몇몇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서 성읍들을 얻었다.

6:67 그들은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6:68 욕느암과 그 목초지, 벧호론과 그 목초지,

6:69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였다.

6:70 그리고 나머지 고핫 자손의 가문을 위해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1 게르솜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가문 가운데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2 또 잇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6:73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4 아셀 지파 가운데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6:75 후곡과 그 목초지, 르호브와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6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7 나머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에게는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78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는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하스와 그 목초지,

6:79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6:80 갓 지파 가운데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6:81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셀과 그 목초지를 주었다.

7장

7: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아, 야숩, 시므론 이렇게 네 명이었다.

7: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 르바야, 여리엘, 야매, 입삼, 스무엘이었으니, 돌라에게서 난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용맹한 전사들이었으며, 다윗 시대에 그들의 수는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다.

7:3 웃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였고,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잇시야 이렇게 다섯 명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였다.

7:4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계통과 조상의 집안에 따라 출전할 군대가 삼만 육천 명 있었으니, 그들에게 아내와 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7:5 잇사갈의 모든 가문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은 용맹한 전사들이었으며, 족보에 오른 자는 모두 팔만 칠천 명이었다.

7:6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이렇게 세 명이었다.

7:7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 웃시, 웃시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다섯 명이었으니,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족보에 오른 그들의 수는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었다.

7:8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료에내,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돗, 알레멧이었다. 이들이 모두 베겔의 아들들이었다.

7:9 그들의 계통을 따라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이자 용맹한 전사로서 족보에 오른 자는 이만 이백 명이었다.

7:10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었고,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아나, 세단, 다시스, 아히사할이었다.

7:11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자손으로서, 그들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자 용맹한 전사들이었으며,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었다.

7:12 또 이르의 아들 숩빔과 훕빔이 있었고, 아헬의 아들 후심이 있었다.

7:13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살룸이었으니, 빌하의 자손이었다.

7:14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아람인 첩이 낳은 아스리엘이었다. 그 첩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낳았다.

7:15 마길은 훕빔과 숩빔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의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였다. 둘째의 이름은 슬로브핫이었으며, 슬로브핫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7:16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세레스였으며, 그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었다.

7:17 울람의 아들은 베단이었다. 이들은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었다.

7:18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홋, 아비에셀, 말라를 낳았다.

7:19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 세겜, 릭히, 아니암이었다.

7:20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였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이었으며, 베렛의 아들은 다핫이었고, 다핫의 아들은 엘르아다였으며, 엘르아다의 아들은 다핫이었고,

7:21 다핫의 아들은 사밧이었으며, 사밧의 아들은 수델라였다.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으려고 내려갔다가 그 땅에서 태어난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7:22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고,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다.

7:23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자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집안에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아이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다.

7:24 그의 딸은 세에라였으니, 그는 아래 벧호론과 위 벧호론과 우센세에라를 세웠다.

7:25 또 그의 아들은 레바였고, 레바의 아들은 레셉이었으며, 레셉의 아들은 델라였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이었으며,

7:26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었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이었으며,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였고,

7:27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었으며,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였다.

7:28 그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벧엘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고,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또 세겜과 그 마을들에서부터 아사와 그 마을들에 이르렀다.

7:29 또 므낫세 자손의 경계 곁에는 벧스안과 그 마을들, 다아낙과 그 마을들, 므깃도와 그 마을들, 돌과 그 마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곳들에 살았다.

7:30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였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였다.

7:31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었는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였다.

7:32 헤벨은 야블렛, 소멜,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7:33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 빔할, 아스왓이었다. 이들이 야블렛의 자손이었다.

7:34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 로가, 여훕바, 아람이었다.

7:35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 임나, 셀레스, 아말이었다.

7:36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 하르네벨, 수알, 베리, 임라,

7:37 베셀, 호옷, 삼마, 실사, 이드란, 브에라였다.

7:38 여델의 아들들은 여분네, 비스바, 아라였다.

7:39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 한니엘, 리시아였다.

7:40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자 엄선된 용맹한 전사들이며 지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이었다. 군대에 나가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족보상 이만 육천 명이었다.

8장

8:1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를 낳았고, 둘째로 아스벨, 셋째로 아하라,

8:2 넷째로 노하, 다섯째로 라바를 낳았다.

8: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곧 앗달, 게라, 아비훗,

8:4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

8:5 게라, 스부반, 후람이었다.

8:6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게바 주민의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었는데, 마나핫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8:7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였는데, 게라가 그들을 사로잡아 데려갔으며, 그는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다.

8:8 사하라임은 모압 들판에서 자기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뒤에 자녀를 낳았다.

8:9 그는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8:10 여우스, 사갸, 미르마를 낳았다. 이들은 그의 아들들이자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었다.

8:11 또 후심에게서는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8:12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 미삼, 세멧이었는데, 세멧은 오노와 로옷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8:13 그리고 브리아와 세마가 있었으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었으며,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8:14 또 아효, 사삭, 여레못,

8:15 스바댜, 아랏, 에델,

8:16 미가엘, 이스바, 요하는 브리아의 아들들이었다.

8:17 스바댜, 므술람, 히스기, 헤벨,

8:18 이스므래, 이슬리아,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들이었다.

8:19 야김, 시그리, 삽디,

8:20 엘리에내, 실르대, 엘리엘,

8:21 아다야, 브라야,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들이었다.

8:22 이스반, 에벨, 엘리엘,

8:23 압돈, 시그리, 하난,

8:24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8:25 이브드야, 브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었다.

8:26 삼스래, 스하랴, 아달랴,

8:27 야아레시야, 엘리야,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었다.

8:28 이들은 대대로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들이자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8:29 기브온의 아버지는 기브온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였다.

8:30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었고, 그 외에 수르, 기스, 바알, 나답,

8:31 게돌, 아효, 세겔이 있었으며,

8:32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다. 이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자기 친족들 곁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8:33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8: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었고,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8:35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였다.

8:36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았고, 여호앗다는 알레멧, 아스마웹,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8:37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고,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였으며,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였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이었다.

8:38 아셀에게는 아들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었다. 이들이 모두 아셀의 아들들이었다.

8:39 그의 아우 에섹의 아들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이었다.

8:40 울람의 아들들은 용맹한 전사이자 활 쏘는 자들이었으며, 많은 아들과 손자를 두어 그 수가 백오십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 자손이었다.

9장

9:1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올랐고, 그 명단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주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9:2 자신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서 가장 먼저 돌아와 살던 주민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9:3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일부가 살았다.

9:4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는 우대였는데,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임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었다.

9:5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었다.

9:6 세라의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동족 육백구십 명이었다.

9: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살루였는데,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야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었다.

9:8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이자 웃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자 르우엘의 손자이자 스바디야의 아들인 므술람이었다.

9:9 그들의 족보에 따른 친족은 모두 구백오십육 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문별로 자기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9:10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9:11 하나님의 집을 총괄하는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었다.

9:12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었다. 또 마아새가 있었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었다.

9:13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인 그들의 친족은 천칠백육십 명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9:14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가운데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핫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야의 증손이었다.

9:15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맛다냐가 있었는데, 맛다냐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었다.

9:16 또 오바댜가 있었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었다. 또 베레갸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로서 느도바 족속의 마을들에 살았다.

9:17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이었다. 살룸이 우두머리였다.

9:18 그들은 지금까지 동쪽 왕의 문을 지켰으며,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다.

9:19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조상 집안 출신인 고라 족속 형제들은 장막 문지기로서 섬기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진영을 맡아 입구를 지켰다.

9:20 지난날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을 다스렸으며,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9:21 므셀레먀의 아들 스가랴는 만남의 장막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9:22 문간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이백열두 명이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등록된 자들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직무를 맡긴 충직한 사람들이었다.

9:23 그들과 그 자손은 주님의 집, 곧 성막의 문들을 파수병으로 지켰다.

9:24 문지기들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네 방향에 배치되었다.

9:25 마을에 살던 그들의 형제들은 정기적으로 이레마다 교대로 와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 했다.

9:26 문지기 우두머리 네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서 중요한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집의 방들과 보물창고들을 관리했다.

9:27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기에 그 주변에 머물렀으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도 그들의 임무였다.

9:28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제사에 쓰는 기구들을 맡았는데, 기구를 들여올 때와 내갈 때마다 수를 세어 관리했다.

9:29 또 다른 이들은 성소의 가구들과 성소의 모든 기구,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도록 임명되었다.

9:30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향품을 섞어 만드는 일을 맡았다.

9:31 레위 사람 가운데 고라 족속 살룸의 맏아들 맛디디야는 팬에 구워 바치는 제물을 만드는 직무를 맡았다.

9:32 또 그들의 친족인 고핫 자손 가운데 일부는 차려 놓는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9:33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인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 방에 머물며 다른 직무는 면제받았는데, 밤낮으로 그들의 일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9:34 이들은 대대로 레위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9:35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였다.

9:36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었고, 그 뒤로 수르, 기스, 바알, 넬, 나답,

9:37 게돌, 아효, 스가랴, 미글롯이 태어났다.

9:38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친족 맞은편에 친족들과 함께 살았다.

9:39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9:40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었고,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9:41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였다.

9:42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웹과 시므리를 낳았으며,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9:43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고,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며,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었다.

9:44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들이었다.

10장

10: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다.

10: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10:3 사울 쪽의 전투가 치열해지더니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따라잡았다. 사울은 활 쏘는 자들 때문에 큰 부상을 입고 괴로워했다.

10:4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능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무기 든 부하는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가져다가 그 위에 엎드러졌다.

10:5 무기를 든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10:6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10:7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들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10:8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사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0:9 그들은 사울의 옷과 무기를 벗기고 그의 머리를 베었으며, 블레셋 땅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10:10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매달았다.

10:11 온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듣고,

10:12 모든 용사가 일어나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와 야베스로 옮겼다. 그리고 야베스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했다.

10:13 사울이 죽은 것은 주님께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 조언을 구했으며,

10:14 주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11장

11: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11:2 지난날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돌아오게 하신 분은 바로 왕이셨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1: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왔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11:4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여부스라고도 부르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땅의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11:5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11:6 다윗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가장 먼저 쳐부수는 사람을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11:7 다윗이 그 산성에 머물렀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11:8 그는 밀로에서부터 그 주위를 빙 둘러 성읍을 쌓았고, 요압은 성읍의 나머지 부분을 수축했다.

11:9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졌다.

11:10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의 왕국에서 그를 힘껏 도와 왕으로 세웠다.

11:11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들어 한 번에 삼백 명을 찔러 죽였다.

11: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1:13 그는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11:14 그러나 그들이 밭 한가운데 서서 그곳을 지켜 내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였다. 주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11:15 삼십 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굴 바위로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11:16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11:17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했다. "누가 성문 곁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내게 마시게 해 줄까!"

11:18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성문 곁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주님께 부어 바쳤다.

11:19 그리고 말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 주십시오!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

11:20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찔러 죽였으므로,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11:21 그는 세 사람 가운데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존귀하여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첫 세 사람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다.

11:22 갑스엘 출신 용사의 아들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쳐죽이기도 했다.

11:23 또 그는 키가 다섯 규빗이나 되는 거구의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 애굽 사람의 손에는 베틀 채 같은 창이 들려 있었는데, 브나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11:2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여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11:25 그는 삼십 명보다 존귀했지만, 첫 세 사람의 반열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11:26 군대의 용사들에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11:27 하롤 사람 삼못, 벨론 사람 헬레스,

11:28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11:29 후사 사람 십브개, 아호아 사람 일래,

11:30 느도바 사람 마하래,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

11:31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이대, 비라돈 사람 브나야,

11:32 가아스 시내 출신 후래, 아르바 사람 아비엘,

11:33 바하룸 사람 아스마웹,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11:34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11:35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발,

11:36 므게랏 사람 헤벨, 벨론 사람 아히야,

11:37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

11:38 나단의 아우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브할,

11:39 암몬 사람 셀렉, 브에롯 사람 나하래(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였다),

11:40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11:41 헷 사람 우리아, 알래의 아들 사밧,

11:42 르우벤 사람 시사의 아들 아디나(그는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함께 삼십 명이 있었다),

11:43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11:44 아스드랏 사람 웃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

11:45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

11:46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나암의 아들들인 여리배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11:47 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시엘이었다.

12장

12: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그에게 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전쟁에서 싸운 용사들이었다.

12:2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거나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족이었다.

12:3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었고, 다음은 요아스였는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들이었다. 또 아스마웹의 아들들인 여시엘과 벨렛, 베라가, 아나돗 사람 예후,

12:4 삼십 명 가운데 용사요 삼십 명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게데라 사람 요사밧,

12:5 엘루새, 여리못, 브알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디야,

12:6 고라 족속인 엘가나, 잇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브암,

12:7 그돌 출신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댜였다.

12:8 갓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광야의 산성에 있던 다윗에게로 넘어온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요 전쟁 훈련을 받은 자들로,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고, 산 위의 노루처럼 빨랐다.

12:9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12:10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12:11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12:12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12:13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였다.

12:14 갓 자손 출신인 이들은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다. 가장 작은 자도 백 명에 맞먹고, 가장 큰 자는 천 명에 맞먹었다.

12:15 첫째 달에 요단강 물이 양쪽 모든 언덕에 넘쳐흐를 때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던 모든 사람을 동쪽과 서쪽으로 쫓아낸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12: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이 산성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왔다.

12:17 다윗이 마중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도우려고 평화로운 뜻으로 왔다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지만, 내 손에 아무런 불의가 없는데도 나를 내 대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18 그때 성령께서 삼십 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감동시키시니 그가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왕의 사람이며,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왕께 평화가, 평화가 있기를 빌며, 왕을 돕는 이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들로 삼았다.

12:19 다윗이 사울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했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도 몇몇 사람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는 못했으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의논한 끝에 "그가 자기 주인 사울에게로 넘어가 우리의 목이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하며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2:20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넘어온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대였는데, 이들은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다.

12:21 그들은 약탈자 무리를 치는 일에 다윗을 도왔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용사였으며,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다.

12:22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도왔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12:23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온 무장한 군대 우두머리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2:24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손은 무장한 병사가 육천팔백 명이었다.

12:25 시므온 자손 가운데 싸움에 나갈 용감한 용사는 칠천백 명이었다.

12:26 레위 자손 가운데는 사천육백 명이었다.

12:27 아론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야다였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삼천칠백 명이었다.

12:28 또 젊고 용감한 용사인 사독과 그의 아버지 집안 출신 지휘관 스물두 명이었다.

12:29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는 삼천 명이었는데, 그때까지 그들 대다수는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12:30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는 이만 팔백 명이었는데, 그들은 용감한 용사이자 조상의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12:31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는 만 팔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오도록 지명된 자들이었다.

12:32 잇사갈 자손 가운데는 시세를 알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도자 이백 명이었고, 그들의 모든 형제가 그들의 지휘를 받았다.

12:33 스불론 가운데는 군대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대열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오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2:34 납달리 가운데는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든 병사 삼만 칠천 명이었다.

12:35 단 사람 가운데는 대열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이만 팔천육백 명이었다.

12:36 아셀 가운데는 군대에 나갈 수 있고 대열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사만 명이었다.

12:37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온갖 무기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자가 십이만 명이었다.

12:38 이들은 모두 대열을 정비할 줄 아는 군인들로, 온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사람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12:39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먹고 마셨으니, 그들의 형제들이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12:40 게다가 그들의 이웃들은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음식을 싣고 왔는데, 밀가루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 묶음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넉넉히 가져왔다.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다.

13장

13:1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했다.

13:2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딸린 성읍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두루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합시다.

13:3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모셔 옵시다. 사울의 날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13:4 온 백성의 눈에 그 일이 옳게 여겨졌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13:5 그리하여 다윗은 기랏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려고,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

13:6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 곧 바알라로 올라갔다.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주 하나님의 궤, 곧 그 이름으로 불리는 궤를 그곳에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였다.

13:7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끌고 나왔는데,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13:8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13:9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13:10 주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타올라 그를 치셨으니, 그가 궤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었다.

13:11 주님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은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웃사라고 부른다.

13:12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 갈 수 있겠는가?"

13:13 그리하여 다윗은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방향을 돌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 갔다.

13:14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주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다.

14장

14: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궁전을 짓게 했다.

14:2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우셨음을 깨달았으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14:3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를 맞아들였고,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14: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14:5 입할, 엘리수아, 엘벨렛,

14:6 노가, 네벡, 야비아,

14:7 엘리사마, 브엘랴다, 엘리벨렛이었다.

14: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나갔다.

14:9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략해 있었다.

14:10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14:11 그리하여 그들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쳐부수었다. 다윗이 말했다. "물이 둑을 터뜨리듯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내 원수들을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14:12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려두고 달아났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들을 불태워 버렸다.

14: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침략했다.

14:14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뒤를 쫓아 곧장 올라가지 마라. 그들을 피해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여라.

14:15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싸우러 나가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너보다 앞서 나아갔기 때문이다."

14:16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었다.

14:17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15장

15:1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을 위해 궁전들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여 장막을 쳤다.

15:2 그때 다윗이 말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5:3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자리로 주님의 궤를 모셔 올리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았다.

15:4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15:5 고핫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우리엘과 그의 형제 백이십 명이었고,

15:6 므라리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아사야와 그의 형제 이백이십 명이었으며,

15:7 게르솜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요엘과 그의 형제 백삼십 명이었고,

15:8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스마야와 그의 형제 이백 명이었으며,

15:9 헤브론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엘리엘과 그의 형제 팔십 명이었고,

15:10 웃시엘 자손 가운데는 우두머리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백열두 명이었다.

15:11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15:12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은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자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궤를 모셔 올리십시오.

15:13 처음에 여러분이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14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궤를 모셔 올리려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15:15 레위 자손은 모세가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멨다.

15:16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같은 악기를 울려 기쁜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15:17 이에 레위 사람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을 세우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베레갸의 아들 아삽을, 또 그들의 친족인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15:18 또 그들과 함께 둘째 서열의 형제들을 세웠으니, 스가랴, 벤, 야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맛디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그리고 문지기인 오벳에돔과 여이엘이었다.

15:19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을 크게 치는 일을 맡았고,

15:20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알라못에 맞춘 비파를 탔으며,

15:21 맛디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벳에돔, 여이엘, 아사시야는 여덟째 줄에 맞춘 수금으로 곡을 인도했다.

15:22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능숙했으므로 노래를 지휘하며 가르쳤다.

15:23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15:24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마새,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오벳에돔과 여히야도 궤 앞에서 문을 지켰다.

15:25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뻐하며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렸다.

15:26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15:27 다윗은 고운 모시 겉옷을 입었고, 궤를 멘 모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지휘자 그나냐도 같은 옷을 입었다. 다윗은 또 모시 에봇을 걸치고 있었다.

15:28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트럼펫 소리와 제금 소리를 내고, 비파와 수금을 힘차게 타며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렸다.

15:29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6장

16:1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들여와서 다윗이 마련해 둔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2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16:3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16:4 다윗은 레위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16:5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둘째는 스가랴였으며, 그 다음은 여이엘, 스미라못, 여히엘, 맛디디야, 엘리압, 브나야, 오벳에돔, 여이엘이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고, 아삽은 제금을 힘차게 쳤다.

16:6 또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16:7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세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처음으로 정했다.

16:8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널리 알려라.

16:9 그분께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

16:10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16:11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16:12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기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심판을 기억하라.

16:13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16:14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 그분의 심판이 온 땅에 미친다.

16:15 천대에 걸쳐 명하신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16:16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다.

16:17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규례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16:18 말씀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가 물려받을 몫이 되게 하겠다."

16:19 그때 너희의 수가 적었고, 참으로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다.

16:20 그들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16:21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16:22 "내가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16:23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전하라.

16:24 모든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

16:25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요, 모든 신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16:26 뭇 백성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으나, 주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16:27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처소에 있다.

16:28 만민의 족속들아, 주님께 돌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라!

16:29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거룩한 옷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라.

16:30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16: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뭇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고 말하라.

16:32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은 외쳐라!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 날뛰어라!

16:33 그때 숲의 나무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16:34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16:35 이렇게 외쳐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뭇 나라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건져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16:36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16:37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남겨 두어, 날마다 맡은 직무에 따라 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했다.

16:38 또 오벳에돔과 그의 친족 예순여덟 명도 남겨 두었으며,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다.

16:39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두어,

16:40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아침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항상 주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

16:41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지명되어 뽑힌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했다.

16:42 또 헤만과 여두둔 곁에는 소리 높여 연주할 나팔과 제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위한 악기들을 두었으며,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게 했다.

16:43 그리하여 온 백성은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갔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17장

17:1 다윗이 자기 궁전에 살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장막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17:2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품으신 뜻을 모두 행하십시오."

17:3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17: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머물 집을 네가 지을 것이 아니다.

17:5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 살지 않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처소에서 저 처소로 옮겨 다녔다.

17:6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쳐 온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재판관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17:7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 떼를 따르던 자리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17: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앞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17:9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마련해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며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전처럼 악한 자들이 더는 그들을 짓밟지 못할 것이며,

17:10 곧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재판관들을 세웠던 날부터 해 왔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을 네게 밝힌다.

17:11 네 날수가 다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때, 내가 네 뒤를 이어 네 아들들 가운데서 네 씨를 일으키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겠다.

17:12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할 것이다.

17: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앞에 있던 사람에게서 내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었던 것과 달리, 그에게서는 내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

17:14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굳건히 세울 것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7:15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17:16 그러자 다윗 왕이 성소로 들어가 주님 앞에 앉아 말씀드렸다.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17:17 하나님, 이것조차 주님의 눈에는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아, 주께서는 주의 종의 집안이 먼 훗날 누릴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처럼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17:18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 다윗이 주님께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17:19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이 모든 큰일을 행하셔서 이 위대한 일들을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17:20 주님, 저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으며,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17:21 세상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크고 두려운 일들로 주님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17:22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7:23 이제, 주님, 주의 종과 그의 집안에 대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17:24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견고해지고 높임을 받게 하셔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17:25 저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종에게 밝혀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17:26 이제, 주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주의 종에게 이 좋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7:27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18장

18:1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18:2 다윗이 모압을 쳐부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18:3 다윗은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굳히려고 나아갔을 때, 하맛 쪽으로 가던 그를 쳐부수었다.

18:4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병거 백 대를 끌 말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었다.

18:5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쳐 죽였다.

18:6 그리고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 주셨다.

18:7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18:8 또 하닷에셀의 성읍들인 디브핫과 군에서 놋을 아주 많이 빼앗아 왔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것으로 놋 바다와 기둥들과 여러 놋그릇을 만들었다.

18:9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18:10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축하하게 했다.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쳐부수었기 때문이다. 하닷에셀은 도우와 줄곧 전쟁을 벌여 왔던 자였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온갖 그릇을 가지고 왔다.

18:11 다윗 왕은 이 그릇들도 주님께 바쳤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18:12 한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였다.

18: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 주셨다.

18:14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다.

18: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다.

18: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사브사는 서기관이었다.

18: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 곁에서 일하는 주요 고관들이었다.

19장

19:1 그 뒤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9:2 다윗은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를 애도하고자 조문 사절을 보냈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위로하려고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갔다.

19:3 그러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왕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온 것은 이 땅을 샅샅이 뒤져 정복하고 정탐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19:4 그리하여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중간에서 잘라내어 돌려보냈다.

19:5 사람들이 가서 다윗에게 그들이 겪은 일을 전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며 이렇게 전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19:6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하눈과 암몬 자손은 은 천 달란트를 보내어 메소포타미아와 아람마아가와 소바에서 병거와 기병을 고용했다.

19:7 그들이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자손도 자기 성읍들에서 모여들어 싸우러 나왔다.

19:8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모든 용사 군대를 보냈다.

19:9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전열을 갖추었고, 도우러 온 왕들은 따로 들판에 진을 쳤다.

19:10 요압은 적의 전선이 자기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병사들을 뽑아 아람 사람들을 마주하도록 정렬시켰다.

19:11 그리고 남은 군대는 자기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맡겨 암몬 자손을 마주하여 정렬하게 했다.

19:12 요압이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19:13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실 것이다."

19:14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앞으로 나아가자, 아람 사람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19:15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9:16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사절을 보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19:17 다윗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고 맞서 싸우자,

19:18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의 병거 병사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군대 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19:19 하닷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을 맺고 그를 섬겼다. 그 뒤로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20장

20: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의 땅을 짓밟고 랍바에 이르러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20:2 다윗이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였고 거기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이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고, 다윗은 그 성읍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

20:3 다윗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도끼로 일하게 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같이 행했다. 그런 다음 다윗과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0:4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십배를 쳐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했다.

20:5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베틀 채 같았다.

20:6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곳에 키가 아주 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양손과 양발에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였으며, 그 역시 거인의 자손이었다.

20:7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20:8 이들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으나,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21장

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21: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수를 세고, 내게 보고하여 그들의 총수를 알게 하시오."

21:3 요압이 말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내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죄책이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까?"

21:4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압도했다. 그리하여 요압은 떠나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1:5 요압이 인구 조사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백십만 명이었고, 유다에서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사십칠만 명이었다.

21:6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몹시 혐오스러워했으므로, 레위와 베냐민은 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1:7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21: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21:9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1: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행하겠다.""

21:11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1:12 삼 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주님의 칼 곧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영토를 멸망시킬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저를 보내신 분께 제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21:13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매우 크시니,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21:14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 칠만 명이 쓰러졌다.

21:1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 천사가 멸망시키려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그 재앙을 가엾게 여기셔서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21: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 손에 쥐고 예루살렘을 향해 뻗치고 있었다. 이에 굵은 베옷을 입은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1:17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자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몹시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양 떼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 하나님이신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21:18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이르게 했다.

21:19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대로 올라갔다.

21:20 오르난이 몸을 돌렸을 때 천사를 보았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네 아들은 숨었고, 오르난은 계속 밀을 떨고 있었다.

21: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다윗을 알아보았다. 그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21: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 터를 내게 파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오. 그 값을 넉넉히 쳐서 내게 넘기시오. 그래야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 그칠 것이오."

21: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께서 가져가셔서 내 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보십시오, 번제물로는 소를 드리고, 땔감으로는 타작하는 기구를 드리며, 곡식 제물로는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21:24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오, 내가 반드시 제값을 다 주고 살 것이오. 내가 당신의 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릴 수는 없으며,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바칠 수도 없소."

21:25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의 대가로 오르난에게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주었다.

21:26 다윗이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뒤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셨다.

21:27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21:28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21:29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21:30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성막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

22장

22:1 다윗이 말했다. "여기가 주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22:2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다듬은 돌을 깎아낼 석수들을 세웠다.

22:3 다윗은 성문 문짝에 쓸 못과 이음못에 쓸 철을 넉넉히 준비했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도 마련했다.

22:4 또 백향목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했는데,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아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22:5 다윗이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지을 성전은 온 세상에 명성과 영광이 자자하도록 지극히 웅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두어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

22:6 그런 다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22:7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고 있었다.

22:8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피를 몹시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네가 내 앞에서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22:9 보아라,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온을 누리게 해 주겠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할 것이니,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22: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22:11 그러니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번영을 누리며, 주께서 너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란다.

22:12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총명을 주시고 너를 이스라엘 위에 세우셔서,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22:13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네가 성심껏 지켜 행하면 번영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22:14 보아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놋과 철은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또 목재와 석재도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거기에 더 보태도록 하여라.

22:15 또 너에게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 석수와 미장이와 목수들, 그리고 온갖 일에 능숙한 온갖 기술자들이 있다.

22:16 금과 은과 놋과 철은 셀 수조차 없다. 그러니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22:17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다.

22:18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분께서 사방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느냐? 주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 땅이 주님 앞과 주님의 백성 앞에 굴복했다.

22:19 이제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 일어나 주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을 성전으로 들여놓아라."

23장

23:1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23:2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23:3 삼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니, 한 사람씩 머릿수를 센 총수가 삼만 팔천 명이었다.

23:4 다윗이 말했다. "이들 가운데 이만 사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감독하게 하고, 육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으며,

23:5 사천 명은 문지기로 삼고, 또 사천 명은 내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

23:6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에 따라 그들을 반열로 나누었다.

23:7 게르손 사람 가운데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23: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23: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못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이들은 라단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23:10 또 다른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였다. 이 네 사람이 시므이의 아들들이었다.

23:11 야핫이 우두머리였고 시사가 둘째였다. 그러나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한 가문으로 묶여 계수되었다.

23:12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었다.

23: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구별되어 가장 거룩한 것을 성별하고, 주님 앞에서 분향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되었다.

23:1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23:15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다.

23:16 게르솜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스부엘이었다.

23:17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르합야였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합야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다.

23:18 이스할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슬로밋이었다.

23: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여리야와 둘째인 아마랴, 셋째인 야하시엘, 넷째인 여가므암이었다.

23:20 웃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미가와 둘째인 잇시야였다.

23:21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였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다.

23:22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는데, 그들의 친척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23:23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23:24 이들은 가문별로 계수된 레위의 자손들이었으니, 곧 각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헤아려 명단에 올린 가문의 족장들로서, 이십 세 이상으로 주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23:25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무르신다.

23:26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그 제사에 쓰는 모든 기물을 더 이상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

23:27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레위 자손은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23:28 그들의 직무는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것이었으니, 곧 뜰과 방들을 돌보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23:29 또한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에 쓸 고운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나 번철에 구운 것이나 기름에 반죽한 것을 맡았으며, 모든 양과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과 자를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23:30 그리고 아침마다 서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했다.

23:31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마다 주님께 번제를 바치되, 그에 관한 규례에 따라 정해진 수효대로 항상 주님 앞에 바쳐야 했다.

23:32 그리하여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관한 직무와 성소에 관한 직무를 지키고, 주님의 성전 섬기는 일에서 자기 형제들인 아론 자손들의 직무를 도와야 했다.

24장

24:1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24:2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

24:3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과 함께, 그들의 직무 순서에 따라 그들을 나누었다.

24:4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 우두머리 된 자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더 많았으므로 그들을 이렇게 나누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는 가문의 족장이 열여섯 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그 가문에 따라 여덟 명이었다.

24:5 성소의 관리들과 하나님의 관리들이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도 있었으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었다.

24:6 레위 사람인 서기관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가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및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그 명단을 기록했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가문을 뽑고 이다말 가문에서 한 가문을 뽑았다.

24:7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뽑혔고,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24:8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림에게,

24:9 다섯 번째는 말기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민에게,

24:10 일곱 번째는 곳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24:11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가냐에게,

24:12 열한 번째는 엘리아십에게, 열두 번째는 야김에게,

24:13 열세 번째는 훕바에게, 열네 번째는 여세브압에게,

24:14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열여섯 번째는 임멜에게,

24:15 열일곱 번째는 헤실에게, 열여덟 번째는 합비세스에게,

24:16 열아홉 번째는 브다히야에게, 스무 번째는 여헤스겔에게,

24:17 스물한 번째는 야긴에게, 스물두 번째는 가물에게,

24:18 스물세 번째는 들라야에게, 스물네 번째는 마아시야에게 뽑혔다.

24:19 이것이 그들의 직무 순서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순서였다.

24:20 레위의 남은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가운데는 여드야이다.

24:21 르합야에게 속한 자로는, 르합야의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잇시야이다.

24:22 이스할 사람 가운데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가운데는 야핫이다.

24:23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여리야와 둘째인 아마랴, 셋째인 야하시엘, 넷째인 여가므암이다.

24:24 웃시엘의 아들들 가운데는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가운데는 사밀이다.

24:25 미가의 형제는 잇시야요, 잇시야의 아들들 가운데는 스가랴이다.

24: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야의 아들은 베노이다.

24:27 야아시야에게서 난 므라리의 자손들은 베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이다.

24:28 마흘리에게서는 엘르아살이 났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24:29 기스에게 속한 자로는, 기스의 아들 여라므엘이다.

24:30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다. 이들이 그 가문에 따라 계수된 레위 자손들이었다.

24:31 이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및 레위 사람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 자손들처럼 제비를 뽑았는데, 맏형의 가문이나 그 아우의 가문이나 다름없이 제비를 뽑았다.

25장

25:1 또한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 몇 사람을 구별하여 봉사하게 했는데,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제금에 맞추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이처럼 자기들의 직무에 따라 일한 사람들의 수효는 다음과 같았다.

25:2 아삽의 아들들 가운데는 삭굴과 요셉과 느다니야와 아사렐라였다.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 있었다.

25:3 여두둔에게 속한 자로는 여두둔의 아들들인 그달리야와 세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야와 맛디디야, 이렇게 여섯 명이었는데, 그들은 수금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자기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있었다.

25:4 헤만에게 속한 자로는 헤만의 아들들인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었다.

25:5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뿔을 높이 들도록 세움받은,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25:6 이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지휘 아래 주님의 성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에 맞추어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수행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명령 아래 있었다.

25:7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워 능숙하게 된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효는 이백팔십팔 명이었다.

25:8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나누었다.

25:9 첫 번째 제비는 아삽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고, 두 번째는 그달리야에게 뽑혔으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0 세 번째는 삭굴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1 네 번째는 이스리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2 다섯 번째는 느다니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3 여섯 번째는 북기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4 일곱 번째는 여사렐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5 여덟 번째는 여사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6 아홉 번째는 맛다냐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7 열 번째는 시므이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8 열한 번째는 아사렐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19 열두 번째는 하사비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0 열세 번째는 수바엘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1 열네 번째는 맛디디야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2 열다섯 번째는 여레못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3 열여섯 번째는 하나냐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4 열일곱 번째는 요스브가사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5 열여덟 번째는 하나니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6 열아홉 번째는 말로디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7 스무 번째는 엘리아다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8 스물한 번째는 호딜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29 스물두 번째는 깃달디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30 스물세 번째는 마하시옷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5:31 스물네 번째는 로맘디에셀에게 뽑혔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두 명이었다.

26장

26:1 문지기들의 반열은 다음과 같다. 고라 사람들 가운데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므셀레먀가 있었다.

26:2 므셀레먀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맏아들은 스가랴요, 둘째는 여디아엘, 셋째는 스바댜, 넷째는 야니엘,

26:3 다섯째는 엘람, 여섯째는 여호하난, 일곱째는 엘려호에내였다.

26:4 오벳에돔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맏아들은 스마야요, 둘째는 여호사바드, 셋째는 요아, 넷째는 사갈, 다섯째는 느다넬,

26:5 여섯째는 암미엘, 일곱째는 잇사갈, 여덟째는 브울래대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26:6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으므로 자기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26: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었고, 그의 친척 엘리후와 스마갸도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26:8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으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섬기는 일에 능력이 있고 유능한 자들이었으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예순두 명이었다.

26:9 므셀레먀에게도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으니, 용맹한 사람 열여덟 명이었다.

26:10 또 므라리 자손 가운데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우두머리는 시므리였다(그가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다).

26:11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랴, 넷째는 스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열세 명이었다.

26:12 문지기들의 반열은 이러했으니, 곧 그 우두머리들은 자기 형제들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

26:13 그들은 각 문을 맡기 위해 가문에 따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름없이 제비를 뽑았다.

26:14 동쪽 문을 맡는 제비는 셀레먀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모사인 스가랴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그에게 뽑혔다.

26:15 오벳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뽑혔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곳간이 맡겨졌다.

26:16 숩빔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이 뽑혔는데, 올라가는 큰길에 있는 살레겟 문 곁에서 보초들이 서로 마주 보고 지켰다.

26:17 동쪽에는 레위 사람 여섯 명이 있었고, 북쪽에는 하루에 네 명, 남쪽에도 하루에 네 명이 있었으며, 곳간에는 두 명씩 배치되었다.

26:18 서쪽 바르발에는 큰길에 네 명, 바르발 자체에 두 명이 배치되었다.

26:19 이것이 고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 가운데 속한 문지기들의 반열이었다.

26:20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히야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물건의 곳간을 맡았다.

26:21 라단의 자손들은 게르손 사람인 라단에게 속한 자손들이니, 곧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였다.

26:22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세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26:23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웃시엘 가족 가운데는 다음과 같았다.

26:24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스부엘이 곳간들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였다.

26:25 그의 친족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손은 이러하니, 곧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합야요, 그의 아들은 여사야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시그리요, 그의 아들은 슬로못이었다.

26:26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구별하여 바친 모든 물건의 곳간을 맡았는데, 이는 다윗 왕과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바친 것이었다.

26:27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구별하여 바쳐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했다.

26:28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과, 그 밖에 누구든지 구별하여 바친 것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맡겨졌다.

26:29 이스할 가족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6:30 헤브론 가족 가운데 하사비야와 그의 친족인 용사 천칠백 명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총괄 감독했다.

26:31 헤브론 가족 가운데 여리야가 족보와 가문에 따른 헤브론 가족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통치 제사십 년에 그들을 조사해 보니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가운데 용맹한 용사들이 발견되었다.

26:32 여리야의 친족으로서 가문의 족장인 용사는 이천칠백 명이었는데, 다윗 왕은 그들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맡은 감독관으로 삼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과 왕의 일들을 감독하게 했다.

27장

27:1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연중 매월 차례대로 들어오고 나가며 여러 부대 업무로 왕을 섬긴 관리들에 따라 나뉘었는데, 각 부대의 인원은 2만 4천 명이었다.

27:2 첫째 달에 편성된 첫째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었으며, 그의 부대에는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3 그는 베레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첫째 달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였다.

27:4 둘째 달의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아호아 사람 도대와 그의 부대였고, 미글롯이 그 부대의 지도자였다.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5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6 이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을 이끄는 용사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함께 맡았다.

27:7 넷째 달의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댜가 맡았다.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8 다섯째 달의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었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9 여섯째 달의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0 일곱째 달의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벨론 사람 헬레스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1 여덟째 달의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가족에 속한 후사 사람 십브개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2 아홉째 달의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사람에 속한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었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3 열째 달의 열째 지휘관은 세라 가족에 속한 느도바 사람 마하래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4 열한째 달의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5 열두째 달의 열두째 지휘관은 옷니엘 집안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였으며, 그의 부대에도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다.

27:16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끈 지도자들은 이러했다. 르우벤 사람을 다스린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었고, 시므온 사람을 다스린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야였다.

27:17 레위 지파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야였고, 아론 집안에는 사독이었다.

27:18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후였고, 잇사갈 지파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였다.

27:19 스불론 지파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였고, 납달리 지파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었다.

27:20 에브라임 자손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였고, 므낫세 반 지파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었다.

27:21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였고, 베냐민 지파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었다.

27:22 단 지파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27:23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스무 살 이하의 사람들은 인구수에 넣지 않았다.

27: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했으나 끝마치지는 못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진노가 내렸으며, 그 숫자는 다윗 왕의 연대기 기록에 오르지 않았다.

27:25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웹이었고, 들과 성읍들과 마을들과 망대에 있는 곳간들을 맡은 사람은 웃시야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27:26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들판의 일꾼들을 관리한 사람은 글룹의 아들 에스리였다.

27:27 포도원을 관리한 사람은 라마 사람 시므이였고, 포도원의 소출로 포도주 저장소를 관리한 사람은 시밤 사람 삽디였다.

27:28 평야 지대의 올리브나무와 돌무화과나무를 관리한 사람은 게델 사람 바알하난이었고, 기름 저장고를 관리한 사람은 요아스였다.

27:29 사론에서 풀을 뜯는 소 떼를 관리한 사람은 사론 사람 시드래였고, 골짜기들에 있는 소 떼를 관리한 사람은 아들래의 아들 사밧이었다.

27:30 낙타를 맡은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었고, 나귀를 맡은 사람은 메로놋 사람 여드야였으며, 양 떼를 맡은 사람은 하그리 사람 야시스였다.

27:31 이들이 모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관리들이었다.

27:32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모사이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27:33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었다.

27:34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모사가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28장

28:1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곧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조별로 왕을 섬기던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내시들과 용사들과 모든 유능한 군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28:2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언약궤를 둘 안식처이자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고 건축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28: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니,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28:4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안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통치자로 유다를 택하셨고, 유다 집안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28:5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28:6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전과 내 뜰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7 그가 오늘처럼 내 계명과 규례를 굳게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우겠다.'

28:8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키고 찾으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뒤를 이을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28: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온갖 뜻을 헤아리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나, 네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28:10 이제 너는 명심하여라. 주님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가 될 전을 짓게 하셨으니, 힘을 내어 그 일을 이루어라."

28:11 그런 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현관과 건물들, 곳간들, 다락방들과 골방들, 그리고 속죄판을 둘 곳에 관한 도면을 건네주었다.

28:12 또한 성령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의 설계도, 곧 주님의 전의 뜰과 주위의 모든 방, 하나님의 전 곳간들과 거룩하게 구별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간들에 관한 설계도를 넘겨주었다.

28:13 아울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 편성,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직무와 주님의 전을 섬기는 데 쓰는 온갖 기구에 관한 지침도 넘겨주었다.

28:14 그는 온갖 쓰임새에 맞추어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금 기구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해 주고, 온갖 은 기구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28:15 금 등잔대들과 그 금 등잔들에 들어갈 금의 무게도 등잔대마다 그 등잔에 맞추어 정해 주었고, 은 등잔대들과 그 등잔들에 대해서도 각 등잔대의 용도에 맞추어 은의 무게를 정해 주었다.

28:16 진설병 상마다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으며, 은 상들에 들어갈 은도 정해 주었다.

28:17 갈고리들과 대야들과 잔들을 만들 순금과, 금그릇마다 들어갈 금의 무게, 그리고 은그릇마다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28:18 분향단을 만들 정련된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고, 날개를 펼쳐 주님의 언약궤를 덮는 그룹들의 병거를 만들 금도 정해 주었다.

28:19 다윗이 말했다. "이 모든 설계의 세부 사항은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기록으로 알려 주신 것이다."

28:20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말했다. "힘을 내어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28:21 보아라, 하나님의 전에서 맡을 온갖 직무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가 갖추어져 있다. 온갖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지닌 모든 자원하는 일꾼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며, 지휘관들과 온 백성도 온전히 너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29장

29: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반면, 이 일은 대단히 큽니다. 이 궁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9:2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곧 금 기구를 만들 금과, 은 기구를 만들 은과, 놋 기구를 만들 놋과, 철 기구를 만들 철과, 목제품을 만들 나무뿐 아니라, 얼룩 마노와 박아 넣을 보석들, 색깔 있는 모자이크용 돌들과 온갖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수많은 대리석을 마련했습니다.

29:3 그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두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해 마련해 둔 모든 것 외에도 내 개인 소유인 금과 은을 내 하나님의 전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29:4 그것은 오빌의 금으로 된 금 3천 달란트와 건물들의 벽을 입힐 정련된 은 7천 달란트이며,

29:5 금 기구를 만들 금과 은 기구를 만들 은,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 온갖 물품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바쳐 헌신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29:6 그러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의 공사를 맡은 관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쳤다.

29:7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금 5천 달란트와 다릭 1만 개,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29:8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맡아 관리하는 주님의 전 곳간에 바쳤다.

29:9 백성은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바쳤기 때문이며, 다윗 왕도 큰 기쁨에 넘쳤다.

29:10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29:11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로서 드높임을 받으십니다.

29:12 부와 명예도 주님에게서 나오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능과 힘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9:13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29:14 하지만 제가 누구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29:15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29:16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으려고 우리가 마련한 이 모든 재산은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다 주님의 것입니다.

29:17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으며, 이제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큰 기쁨으로 봅니다.

29:18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의 마음속 생각에 이러한 뜻을 영원히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29:19 또한 제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제가 준비해 둔 것으로 그 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29:20 그런 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를 숙여 주님과 왕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29:21 그들은 이튿날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번제물을 드렸는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소 1천 마리와 숫양 1천 마리와 어린양 1천 마리를 드리고 그에 따른 전제물과 많은 제물을 드렸다.

29:22 그날에 그들은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통치자로 세웠으며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29:23 이리하여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왕좌에 왕으로 앉았고 번영을 누렸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했다.

29:24 모든 고관과 용사들뿐 아니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29:25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높여 주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전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왕다운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29:26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9:27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29:28 그는 장수를 누리고 부와 영예를 마음껏 누리다가 늙어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29 다윗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적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적혀 있으며,

29:30 그가 다스린 모든 일과 그의 권세,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그 땅의 모든 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담겨 있다.

역대하

1장

1: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어 그를 심히 위대하게 만드셨다.

1:2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1:3 그런 뒤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기랏여아림에서 옮겨 와 다윗이 마련해 둔 곳에 두었으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궤를 두려고 장막을 쳐 두었기 때문이었다.

1:5 또한 훌의 손자이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도 기브온의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으므로, 솔로몬과 회중은 그곳에서 뜻을 구했다.

1:6 솔로몬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주님 앞 놋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에 번제물 1천 마리를 바쳤다.

1:7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여라."

1: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저를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1:9 이제 주 하나님이시여,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10 이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드나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네 마음에 있어,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12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또한 네 이전의 왕들도 갖지 못했고 네 뒤에도 아무도 누리지 못할 부와 재물과 명예도 네게 주겠다."

1:13 그리하여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의 만남의 장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14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천 4백 대이고 기병이 1만 2천 명이었다. 그는 이들을 병거 주둔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왕 곁에 배치했다.

1:15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야 지대의 돌무화과나무처럼 많게 만들었다.

1:16 솔로몬이 사들인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에에서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1:17 그들은 애굽에서 병거는 은 6백 세겔에, 말은 은 1백 5십 세겔에 들여와 되팔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수출했다.

2장

2:1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전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궁궐을 짓기로 결정했다.

2:2 솔로몬은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천 6백 명을 뽑아 세웠다.

2:3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전갈을 보내 말했다. "그대가 제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살 궁궐을 짓게 해 주셨듯이,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어 그분께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항상 진설병을 차려 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정한 절기마다 아침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2:5 내가 지으려는 전은 매우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2:6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다 모실 수 없는데, 누가 능히 그분을 위해 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분을 위해 전을 짓겠습니까? 그저 그분 앞에 분향하려는 것뿐입니다.

2:7 그러므로 이제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다루고 자주색과 붉은색과 청색 실을 다루며 조각할 줄 아는 기술자 한 사람을 내게 보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두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2:8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 주십시오. 그대의 신하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벨 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신하들이 그대의 신하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2:9 그들이 내게 쓸 나무를 넉넉히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전은 크고 웅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0 보십시오, 나무를 베는 그대의 신하들에게 내가 빻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밧과 포도주 2만 밧과 기름 2만 밧을 주겠습니다."

2: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글을 써서 답장을 보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대를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12 후람이 말을 이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롭고 명철하며 지각이 뛰어난 아들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전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궁궐을 짓게 하셨습니다.

2:13 이제 내가 지각과 능력을 갖춘 기술자인 후람아비를 보냅니다.

2:14 그는 단 자손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는 데 능하고, 자주색과 청색과 가는 베와 붉은색 실을 다루는 데도 능숙하며, 온갖 조각을 새기고 어떤 도안이라도 고안해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대의 기술자들과 내 주인이신 그대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2:15 그러므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그분의 신하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2:16 그러면 우리가 레바논에서 그대에게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 바다로 욥바까지 띄워 보낼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날라 올리십시오."

2:17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조사했던 방식에 따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을 조사했는데, 그 수가 15만 3천 6백 명이었다.

2:18 그는 그들 가운데 7만 명을 짐꾼으로 삼았고, 8만 명을 산에서 돌을 캐내는 사람으로 삼았으며, 3천 6백 명을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 감독관으로 삼았다.

3장

3:1 그리하여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님의 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지정해 둔 장소였다.

3:2 그는 통치 제4년 둘째 달 초이틀에 짓기 시작했다.

3: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놓은 기초의 치수는 이러했다. 옛 규격으로 잰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이었다.

3:4 전의 앞쪽에 있는 현관은 길이가 건물의 너비와 맞추어 20규빗이었고 높이는 120규빗이었으며, 그는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다.

3:5 그는 본당의 천장을 잣나무로 대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혔으며,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으로 장식했다.

3:6 그는 아름답게 보이도록 보석으로 전을 꾸몄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었다.

3:7 그는 전과 그 들보들과 문지방들과 벽들과 문들에 금을 입혔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다.

3:8 그는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전의 너비에 맞추어 20규빗이었고 너비도 20규빗이었다. 그는 그곳에 6백 달란트 분량의 순금을 입혔다.

3:9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다. 그는 다락방들에도 금을 입혔다.

3:10 지성소 안에는 나무를 깎아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금을 입혔다.

3:11 그룹들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5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3:12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5규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5규빗으로 첫째 그룹의 날개와 맞닿았다.

3:13 이들 그룹이 펼친 날개는 20규빗에 달했다. 그들은 발로 서 있었으며, 얼굴은 본당을 향하고 있었다.

3:14 그는 청색과 자주색과 붉은색 실과 가는 베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3:15 그는 전 앞에 높이 35규빗 되는 기둥 두 개를 만들었고, 각 기둥 꼭대기에는 5규빗짜리 기둥머리를 올렸다.

3:16 그는 성소 안쪽에 사슬들을 만들어 기둥머리 위에 두었고, 석류 1백 개를 만들어 그 사슬들에 달았다.

3:17 그는 성전 앞에 이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두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두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다.

4장

4:1 그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다.

4:2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0규빗이었다. 그것은 둥근 모양이었고 높이는 5규빗이었으며, 둘레는 30규빗 줄로 잴 수 있었다.

4:3 그 가장자리 아래 둘레에는 10규빗마다 바다를 빙 둘러싼 소 형상들이 있었는데, 바다를 부어 만들 때 소 형상들도 두 줄로 함께 부어 만들었다.

4:4 그 바다는 열두 마리 소 위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그 소들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소들의 엉덩이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4:5 그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꽃 모양의 잔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그것은 물 3천 밧을 담을 수 있었다.

4:6 그는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는 데 쓰게 했다.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그 안에서 씻었으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였다.

4:7 그는 규례에 따라 금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는데,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4:8 그는 또 상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배치했는데,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그리고 금 대야 1백 개를 만들었다.

4:9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그 뜰들에 달 문들을 만든 뒤 그 문들에 놋을 입혔다.

4:10 그는 바다를 전의 오른쪽, 곧 동남쪽에 두었다.

4:11 후람은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솔로몬 왕을 위해 하던 일을 다 마쳤다.

4:12 그가 만든 것은 두 기둥과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야 모양의 두 기둥머리,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두 기둥머리의 대야 부분을 덮는 두 그물망과,

4:13 그 두 그물망에 달 석류 4백 개였다. 곧 기둥 위에 있는 기둥머리의 두 대야 부분을 덮도록 각 그물망마다 석류를 두 줄씩 달았다.

4:14 그는 또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며,

4:15 바다 하나와 그 아래에 둘 소 열두 마리를 만들었다.

4:16 후람아비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주님의 전에서 쓸 솥들과 부삽들과 갈고리들과 모든 부속 기구를 윤이 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4:17 왕은 숙곳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 땅인 요단 평예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게 했다.

4:18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아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의 무게는 다 달아볼 수가 없었다.

4:19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곧 금제단과 진설병을 차려 놓는 상들과,

4:20 규례대로 안쪽 성소 앞에서 불을 켤 순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들을 만들었다.

4:21 또 꽃들과 등잔들과 집게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순도 높은 금이었다.

4:22 심지 다듬는 가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전의 입구에 관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쪽 문들과 성전 본당의 문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5장

5:1 이리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5:2 그때에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5:3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으로 모여들었다.

5:4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도착하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

5:5 그들은 궤와 만남의 장막과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어 올렸는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메어 올렸다.

5:6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여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 모여,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5:7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 곧 전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으로 모셔 들여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5:8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로 날개를 펼쳐 궤와 그 채들을 위에서 덮었다.

5:9 그 채들이 매우 길어서 채의 끝부분이 안쪽 성소 앞 궤에서는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있다.

5:10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뒤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넣어 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5:11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은 모두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였으므로 조의 순번을 따지지 않았다.

5:12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모두 가는 베 옷을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서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서 있었다.

5:13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목소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나팔과 제금과 여러 악기를 갖추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 같은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고 외치자, 주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5:14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6장

6:1 그때에 솔로몬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2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처소입니다."

6:3 왕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일어섰다.

6:4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손으로 이루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물 전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6:6 그러나 이제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6:7 내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6:8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6:9 그렇지만 너는 그 전을 짓지 못할 것이며, 오직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전을 지을 것이다.'

6:10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6:11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 담겨 있는 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6:12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펼쳤다.

6:13 (솔로몬이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높이 3규빗의 놋 단을 만들어 뜰 한가운데 두었기 때문인데, 그가 그 위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쳤다.)

6:14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하늘이나 땅에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15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친히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6:16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며 '네 자손이 길을 조심하여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율법대로 걷기만 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6:17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6:18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머무르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거늘, 제가 지은 이 전이야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6:19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6:20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이곳, 곧 이 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을 밤낮으로 열어 두셔서,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6:21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해 주십시오.

6:22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요구받아 맹세하게 될 때, 그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6:23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며 주님의 종들을 판결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인정하셔서 그의 의로움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6:24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배했다가도,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6:25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6:26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에 그 죄에서 돌아서거든,

6:27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6:28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떼가 몰려오거나, 원수들이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닥칠 때,

6:29 누구든지 또는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저마다 자기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온갖 기도나 간구를 드리거든,

6:30 주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6:31 그리하시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6:32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6:33 주님께서는 주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제가 지은 이 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6:34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원수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갈 때,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6:35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6:36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기심으로 원수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멀든 가깝든 다른 땅으로 끌고 가더라도,

6:37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하거든,

6:38 그들이 끌려간 포로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자신들의 땅과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6:39 주님께서는 주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며,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6:40 나의 하나님, 이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6:41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쉬실 처소로, 주님과 주님의 권능의 궤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6:42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7장

7: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주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 찼다.

7:2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은 주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7:3 불이 내려오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전 위에 머무는 것을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포장된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시다!"

7:4 그 뒤에 왕과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7:5 솔로몬 왕이 바친 제물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이처럼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했다.

7:6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서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려고 다윗 왕이 만든 주님의 악기를 가지고 서 있었다. 다윗이 그들의 연주를 통해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며 주님을 찬양했던 악기들이었다. 제사장들은 그들 맞은편에서 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7:7 솔로몬은 주님의 전 앞마당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으로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바쳤던 것이다.

7:8 그 무렵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7:9 여덟째 날에 그들은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제단을 봉헌하는 일을 이레 동안 치르고, 절기도 이레 동안 지켰기 때문이었다.

7:10 일곱째 달 스무사흗날에 왕은 백성을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으며,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7:11 이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전과 왕궁을 완공했다. 솔로몬은 주님의 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12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를 드리는 전으로 삼았다.

7:13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에,

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7:15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

7:16 내가 이제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머물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여기에 있을 것이다.

7:17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7:18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대로, 네 왕국의 왕좌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7:19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규례와 계명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7:20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려,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7:21 비록 이 전이 높을지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왜 이 땅과 이 전을 이렇게 대하셨는가?'

7:22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아 그들에게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8장

8:1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 이십 년이 걸렸는데, 이십 년이 끝났을 때에,

8:2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 살게 했다.

8:3 솔로몬이 하맛 소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다.

8:4 그는 광야에 다드몰을 세우고, 하맛에 건축한 모든 국고성들을 세웠다.

8:5 또 위 벧호론과 아래 벧호론을 세웠는데, 성벽과 성문과 빗장을 갖춘 견고한 요새 성읍들로 만들었다.

8:6 또 바알랏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국고성, 그의 모든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세웠으며,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던 온 땅에 세우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건축했다.

8:7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던 모든 백성,

8:8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절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 있던 그들의 자손에 대해, 솔로몬은 오늘날까지 그들을 강제 노동군으로 징집했다.

8:9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기 일을 위한 종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군사로,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로, 그의 병거와 기병의 지휘관들로 삼았다.

8:10 이들은 솔로몬 왕의 고위 관리들로 이백오십 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렸다.

8:11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와 자기가 그녀를 위해 지어 준 궁전에 살게 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님의 궤가 들어온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8:12 그때 솔로몬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8:13 그는 날마다 정해진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곧 안식일과 초하루와 일 년에 세 번 지키는 정한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바쳤다.

8:14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분반을 정해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무를 맡겨 날마다 정해진 일과대로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며 섬기게 했다. 또 문지기들에게도 그 분반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8:1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든, 또 보물 창고에 관한 일에서든, 왕이 명령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

8:16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부터 완성될 때까지 솔로몬의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

8:17 그 후에 솔로몬은 에돔 땅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게벨과 엘롯으로 갔다.

8:18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 배들과 바다에 익숙한 종들을 그에게 보냈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그곳에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9장

9: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어려운 질문들로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을 거느리고 매우 큰 행렬과 함께 왔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

9:2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솔로몬에게 숨겨져 있어서 그녀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9: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궁전을 보았고,

9:4 그의 식탁에 오른 음식과 신하들의 좌석 배치, 시종들의 시중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그의 술잔을 바치는 시종들과 그들의 옷차림, 그리고 그가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보고는 넋을 잃었다.

9:5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의 행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참됩니다!

9:6 그러나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 보십시오, 왕의 그 큰 지혜의 절반도 내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9:7 왕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언제나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듣는 왕의 이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9:8 왕을 기뻐하셔서 왕을 그분의 보좌에 앉혀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해 왕으로 삼으신,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왕을 그들 위에 세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9 그녀는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을 바쳤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향료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

9:10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던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알굼 나무와 보석을 가져왔다.

9:11 왕은 알굼 나무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는 유다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9:12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녀가 원하고 요구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이에 그녀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9:13 솔로몬에게 한 해 동안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9:14 이것은 무역상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것 외에 들어온 것이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9:15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쳐서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하나에 두드려 만든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9:16 또 금을 두드려 쳐서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겔이 들었다. 왕은 이것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두었다.

9:17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9:18 그 보좌에는 계단 여섯 개와 금 발판이 달려 있었고, 이것들은 보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서 있었다.

9:19 또 열두 마리의 사자가 여섯 계단 양쪽에 서 있었다. 어떤 다른 왕국에서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

9:20 솔로몬 왕이 마실 때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의 궁에 있는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9:21 왕에게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스의 배들은 삼 년에 한 번씩 와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를 실어 날랐다.

9:22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

9:23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다.

9:24 그들은 해마다 저마다 예물로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를 가져왔다.

9:25 솔로몬에게는 말과 병거를 두는 외양간 사천 개와 기병 만 이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이들을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왕 곁에 배치했다.

9:26 그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9:27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지의 돌무화과나무처럼 많게 했다.

9:28 사람들은 솔로몬을 위해 애굽과 모든 나라에서 말들을 들여왔다.

9:29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잇도의 이상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9:30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9:31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장

10:1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10: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그는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나 애굽에 머물고 있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10:3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10:4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가혹한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10: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삼 일 뒤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말하니, 백성이 물러갔다.

10:6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그를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말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10:7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0:8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자기를 모시는 젊은이들과 의논했다.

10:9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이 백성이 내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냅니까?"

10:10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왕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우리에게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0: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하십시오."

10:12 왕이 "삼 일째 되는 날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했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삼 일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다.

10:13 왕은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10:14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그것에 더 무겁게 더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10:15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이끄셔서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0:16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10:17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다스렸다.

10:18 그 후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10:19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11장

11: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에서 용사 십팔만 명을 선발하여 모았으니,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함이었다.

11:2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11:3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라.

11: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도 말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던 길에서 돌아섰다.

11:5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세웠다.

11:6 그는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11:7 벧술, 소고, 아둘람,

11:8 가드, 마레사, 십,

11:9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11:10 소라, 아얄론, 헤브론을 세웠으니, 이 성읍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요새 성읍들이었다.

11:11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고 그곳들에 지휘관들을 두고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해 두었다.

11:12 또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두고 그 성읍들을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통치 아래 남았다.

11:13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온 영토에서 나와 그에게 합류했다.

11:14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11:15 여로보암은 산당들과 자기가 만든 숫염소 우상들과 송아지 우상들을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11:16 레위 사람들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한 자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11:17 그들은 삼 년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이 삼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11:18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이었다.

11:19 그녀가 르호보암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으니,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었다.

11:20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아 주었다.

11:21 르호보암은 모든 아내와 첩보다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 그는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두어,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다.

11:22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지도자로 삼아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했으니,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11:23 그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자기 아들들 중 일부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영토와 모든 요새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었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 주었다.

12장

12:1 르호보암의 왕국이 굳건해지고 그가 강해지자, 그는 주님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12:2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12:3 그는 병거 천이백 대와 기병 육만 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았으니, 곧 룹 사람과 수키 사람과 구스 사람이었다.

12:4 그는 유다에 속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12:5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유다의 고관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 주었다.'"

12:6 그러자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왕이 자신을 낮추며 말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12:7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원을 베풀어, 내 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않겠다.

12:8 그러나 그들이 그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12:9 이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가져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으며,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12:10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 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12:11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와서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다 두었다.

12:12 그가 스스로를 낮추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유다에는 좋은 일들도 있었다.

12:13 이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사십일 세였으며, 그는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12:14 그는 악을 행했으니,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2:15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역사책에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12:16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13:1 여로보암 왕 제십팔년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13:2 그는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13:3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사십만 명을 선발하여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도 용맹한 용사 팔십만 명을 선발하여 그와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13:4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으라!

13:5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13:6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을 거역했다.

13:7 가치 없는 자들과 사악한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맞섰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유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13:8 이제 너희는 다윗 자손의 손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맞서려 하고 있다. 너희는 큰 무리이며, 너희에게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함께 있다.

13:9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너희 자신을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직무를 맡으려 하면, 신도 아닌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13:10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아론의 자손들과 자기 일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

13:11 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 위에 진설병을 차려 놓고, 저녁마다 불을 켜려고 금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돌본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13:12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향해 경보를 울릴 나팔을 들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13:13 그러나 여로보암은 군대를 돌려 유다의 뒤쪽에 매복시켰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본대는 유다 앞에 있고 매복병들은 유다 뒤에 있었다.

13:14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앞뒤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13:15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큰 함성을 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13: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13:17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크게 쳐서 죽였으니,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용사 오십만 명이 쓰러져 죽임을 당했다.

13:18 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굴복당했고 유다 자손이 승리했으니,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13: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그에게서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벧엘과 그 주변 마을들, 여사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이었다.

13:20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13:21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더 강해져서 아내 열네 명을 맞아들였고,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다.

13:22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길과 그의 말들은 예언자 잇도의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다.

14장

14:1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시대에 그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했다.

14:2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14:3 그는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렸다.

14:4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게 하고,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했다.

14:5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을 없앴으며, 그의 앞에서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

14:6 그 땅이 평안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전쟁도 없었으므로 그는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건축했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14:7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세우고 그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두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건축하여 번영을 누렸다.

14:8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의 군사 삼십만 명과,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출신의 군사 이십팔만 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용맹한 용사들이었다.

14:9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에 이르렀다.

14:10 아사가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갔고, 그들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14:11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주님, 힘센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4:12 그러자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고, 구스 사람들은 도망쳤다.

14: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했다. 구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했으니, 그들이 주님 앞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군대는 매우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14:14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을 쳤으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성읍들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그 성읍들에 물건이 매우 많았으므로 그들은 그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14:15 그들은 또 가축을 치는 자들의 장막들을 쳐서 양과 낙타를 많이 사로잡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15:1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15:2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15:3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참하나님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으며, 율법도 없었습니다.

15:4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5:5 그 시절에는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으며, 그 모든 땅의 주민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15:6 나라와 나라가 부딪치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맞서 부서졌으니, 하나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5:7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십시오! 손에 힘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15:8 아사가 이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현관 앞에 있던 주님의 제단을 보수했다.

15:9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도 모았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건너왔기 때문이었다.

15:10 그리하여 그들은 아사 통치 제십오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15:11 그날 그들은 가져온 전리품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15:12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15:13 그리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다.

15:14 그들은 큰 소리와 함성과 함께 나팔과 뿔나팔을 불며 주님께 맹세했다.

15:15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으니, 그들이 온 마음으로 맹세하고 온전한 뜻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15:16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위해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를 모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아사는 그녀의 우상을 찍어 부수어 가루로 만든 뒤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다.

15:17 비록 산당들이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는 않았으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온전했다.

15:18 그는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15:19 아사 왕 제삼십오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었다.

16장

16:1 아사 왕 제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 했다.

16:2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보물 창고와 왕궁 보물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했다.

16:3 "내 아버지와 왕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왕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왕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 그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16:4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욘,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16:5 바아사가 이 소식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했다.

16:6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사람을 동원하여 바아사가 건축하던 라마의 돌과 목재를 날라다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16:7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16:8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수많은 병거와 기병을 거느린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왕께서 주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6:9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그분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왕께서는 이 일에 어리석게 행동하셨으니,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16:10 그러자 아사는 그 선견자에게 화를 내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 일로 인해 그에게 크게 격분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사는 백성 가운데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다.

16:11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16:12 아사는 왕위에 오른 지 삼십구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이 매우 심해졌으나, 그런 병 중에서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의사들만 찾았다.

16:13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통치 제사십일년에 죽었다.

16:14 사람들은 그가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 둔 무덤에 그를 장사했다. 그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향기로운 향과 온갖 향품으로 가득 찬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해 매우 큰 불을 피웠다.

17장

17: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17:2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17:3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르고 바알들을 찾지 않았으며,

17:4 오직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7:5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손에서 왕국을 굳건하게 하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는 부와 영예를 크게 누렸다.

17:6 그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용기를 얻었으며, 그는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 버렸다.

17:7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삼년에 자기 고관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게 했다.

17:8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 느다니야, 스바댜,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등의 레위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인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17:9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 가운데서 가르쳤다.

17:10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국들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으므로, 그들이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17:11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으로 은을 가져왔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가축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그에게 가져왔다.

17:12 여호사밧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에 요새들과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17:13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공사를 벌였고, 예루살렘에는 용맹한 군사들을 두었다.

17:14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른 군사의 수는 이러했다. 유다에 속한 천부장들로는 지휘관 아드나가 있었고, 그와 함께한 용맹한 용사가 삼십만 명이었다.

17:15 그 다음으로는 지휘관 여호하난이 있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이십팔만 명이었다.

17:16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 자원하여 자신을 바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가 있었고, 그와 함께한 용맹한 용사가 이십만 명이었다.

17:17 베냐민에 속한 자로는 용맹한 용사 엘리아다가 있었고, 그와 함께 활과 방패로 무장한 자가 이십만 명이었다.

17:18 그 다음으로는 여호사바드가 있었고, 그와 함께 전쟁을 위해 준비를 갖춘 자가 십팔만 명이었다.

17:19 이들은 왕을 모시는 자들이었으며, 왕이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에 배치한 군사들은 이들 외에 따로 있었다.

18장

18:1 여호사밧은 부와 영예를 크게 누렸으며,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18:2 몇 년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아합을 찾아 내려갔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를 권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부추겼다.

18: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과 같고 내 백성은 왕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전쟁에서 왕과 함께하겠습니다."

18:4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쭈어보십시오."

18:5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사백 명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하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어야 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18:6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우리가 뜻을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18: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나에 대해 결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임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18:8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내시 하나를 불러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18: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저마다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넓은 마당에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18:10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들이받아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18:11 모든 예언자도 이와 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18: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이 한결같이 왕에게 좋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되게 하여 좋게 말해 주십시오."

18:13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18:14 그가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야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그만두어야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왕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8:15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만을 내게 말하도록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해야 하겠느냐?"

18:16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 대해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왕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18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18:19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내어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8:20 그때 한 영이 나아와 주님 앞에 서서 '제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18:21 그가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꾀어낼 것이며, 또한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8:22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이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주님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18:23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 건너가 말씀하시더냐?"

18:24 미가야가 대답했다. "보라,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18:25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

18:26 그리고 말하기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하라."

18:27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참으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말했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들으라!"

18:28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18: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18:30 아람 왕은 자기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낮은 자나 높은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했다.

18:31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자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치려고 돌아섰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고,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그에게서 물러나게 하셨다.

18:32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격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18:33 그런데 어떤 군사가 무턱대고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맞았다. 그러자 왕이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했다. "병거를 돌려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18:34 그날 전쟁이 격렬해졌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마주 보며 자기 병거 안에서 몸을 지탱하고 서 있다가 해 질 무렵에 죽었다.

19장

19:1 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왔다.

19:2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진노가 왕에게 임했습니다.

19:3 그렇지만 왕에게서 선한 일들도 발견되었으니, 왕께서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9:4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다시 백성 가운데로 나가서, 그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19:5 그는 온 땅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마다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웠다.

19:6 그는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피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판결할 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19:7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 주의하여 판결하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시는 일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19:8 여호사밧은 또 예루살렘에서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세워, 주님의 재판과 송사를 판결하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었다.

19:9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한다.

19:10 성읍들에 사는 너희 형제들이 피 흘림에 관한 사건이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관한 사건이든 어떤 송사를 너희에게 가져오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행해야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19:11 보라, 주님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에는 유다 집안의 통치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가 다스릴 것이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로 일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 행하라. 주님께서 선한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20장

20:1 이 일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몇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싸우러 왔다.

20:2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바다 저편 아람 쪽에서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20:3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주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다.

20:4 유다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였으며, 주님을 찾으려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

20:5 여호사밧은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

20:6 그가 말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20:7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20:8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9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굶주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0:10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침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하여 돌아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20:11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도록 주신 주님의 재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20:12 우리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20:13 온 유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20:14 그때 회중 한가운데에서 아삽의 자손인 레위 사람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인 야하시엘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다.

20:15 그가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20: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 앞,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20:17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20:18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했다.

20:19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했다.

20:20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번영할 것입니다."

20:21 그는 백성과 의논한 뒤 주님께 노래할 사람들을 세우고, 거룩한 옷차림으로 찬양하며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외치게 했다.

20:22 그들이 노래와 찬양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에게 복병을 두셨고, 그들은 패배했다.

20:23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일 주민들을 다 없앤 뒤에는 서로 힘을 합쳐 서로를 죽였다.

20:24 유다 군대가 광야를 내려다보는 망대에 이르러 그 큰 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보라,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었고 아무도 도망친 사람이 없었다.

20: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러 갔을 때, 그들 가운데 재물과 시체들과 보석들이 풍부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거두어들인 물건이 너무 많아 다 짊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거두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

20:26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베라가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을 "베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20:27 그런 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20:28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0:29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다.

20:30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온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20:31 이렇게 여호사밧은 유다를 다스렸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서른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였는데 실히의 딸이었다.

20:32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20:33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20:34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수록되어 있다.

20:35 이 일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매우 악하게 행동하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았다.

20:36 그는 아하시야와 결탁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건조했다.

20:37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거슬러 예언하며 말했다. "왕이 아하시야와 결탁했으므로 주님께서 왕이 만든 것들을 부수셨습니다." 배들이 파선하여 다시스로 갈 수 없었다.

21장

21:1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2 여호람에게는 여호사밧의 아들들인 형제들이 있었으니, 곧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야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다.

21:3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함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넉넉히 선물로 주었지만, 왕위는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21:4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 세력을 굳힌 뒤, 자기 모든 형제들을 칼로 죽였고 이스라엘의 고관들 중 몇몇도 죽였다.

21:5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서른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21:6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21:7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21:8 여호람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 맞서 반역하여 스스로 왕을 세웠다.

21:9 그러자 여호람은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자신과 병거 지휘관들을 둘러싼 에돔 사람들을 쳤다.

21:10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반역하고 있다. 그때 립나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반역했는데, 이는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21:11 게다가 그는 유다 산지에 산당들을 짓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으며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21:12 예언자 엘리야에게서 여호람에게 편지가 도착하여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나 유다 왕 아사의 길을 걷지 않고,

21:13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으며 아합의 집안이 음행하게 만든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으며, 또 너보다 선했던 네 아버지 집안의 네 형제들을 죽였다.

21:14 그러므로 보라, 주님이 큰 재앙으로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칠 것이다.

21:15 그리고 너는 창자에 몹쓸 병이 들어, 날마다 그 질병 때문에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21:16 주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대적하게 하셨다.

21:17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 침략하여 왕궁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끌고 갔다. 그래서 막내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21:18 이 모든 일 후에 주님께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다.

21:19 시간이 흘러 두 해가 끝날 무렵, 그의 창자가 병으로 인해 빠져나왔고 그는 심한 질환 속에서 죽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피웠던 분향처럼 그를 위해 분향을 피우지 않았다.

21:20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서른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떠나갔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들의 무덤에는 두지 않았다.

22장

22:1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워 뒤를 잇게 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군대가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22:2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마흔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였는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22:3 그도 아합 집안의 길을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도록 꾀었기 때문이다.

22:4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를 멸망으로 이끈 조언자들인 아합 집안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2:5 그는 그들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다. 거기서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22:6 그는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그를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22: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간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파멸이었다. 그가 도착하자 여호람과 함께 나아가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섰는데,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끊어버리도록 기름 부으신 자였다.

22:8 예후가 아합 집안에 심판을 집행할 때, 그는 유다의 고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던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죽였다.

22:9 예후가 아하시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 있던 그를 사로잡아 예후에게 끌고 와서 죽였다. 사람들은 "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묻어 주었다. 그래서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왕국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

22: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의 왕족 혈통을 모두 몰살하려 했다.

22:11 그러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살해된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여호람 왕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그녀는 아하시야의 누이였다)이 요아스를 아달랴에게서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

22:12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리는 여섯 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져 있었다.

23장

23:1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언약을 맺었다.

23:2 그들은 유다를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23: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23:4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직무를 맡으러 들어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삼분의 일은 문지기가 되어 문턱을 지키십시오.

23: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계십시오. 모든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에 머물러야 합니다.

23:6 그러나 제사장들과 섬기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거룩하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23:7 레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둘러싸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이십시오. 왕이 드나들 때 왕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23:8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대 근무반을 해산시키지 않았으므로, 각자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자들을 데리고 있었다.

23:9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넘겨주었다.

23:10 그는 모든 백성에게 손에 무기를 들리고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을 따라 왕 주위를 에워싸도록 배치했다.

23:11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건네주며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 만세!" 하고 외쳤다.

23:12 아달랴가 백성들이 달려가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아갔다.

23:13 그녀가 바라보니, 보라, 왕이 입구 쪽 자기 기둥 곁에 서 있었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이끌고 있었다. 이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23: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대열 사이로 끌어내라. 그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제사장이 "그 여자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마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23:15 그래서 그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왕궁의 말 문 입구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거기서 그녀를 쳐죽였다.

23:16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세웠다.

23:17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으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23:18 여호야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쁨과 노래로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다윗이 지정했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주님의 성전 관리들을 세웠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였다.

23:19 그는 어떤 일로든 부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전 문들에 문지기들을 세웠다.

23:20 그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내려왔다. 그들은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가 왕을 나라의 왕좌에 앉혔다.

23:21 그리하여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했고 성읍은 평온했다. 아달랴는 이미 칼에 맞아 죽었다.

24장

24:1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일곱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브엘세바 출신의 시비아였다.

24: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24:3 여호야다는 그를 위해 두 아내를 맞아들였고, 그는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24:4 이 일 후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4:5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해마다 온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라. 너희는 이 일을 서둘러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곧바로 서두르지 않았다.

24:6 왕은 우두머리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위해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4:7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주님의 성전에 바쳐진 모든 물건을 바알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24:8 이에 왕이 명령하여 상자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바깥에 두게 했다.

24:9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했다.

24:10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뻐하며 헌금을 가져와 상자가 가득 찰 때까지 집어넣었다.

24:11 레위 사람들의 손으로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올 때마다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상자를 비우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24:12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성전을 복구했고 철공과 놋공들도 고용하여 주님의 성전을 수리했다.

24:13 그리하여 일꾼들이 일했고 수리하는 작업이 그들의 손에서 진척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설계대로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24:14 일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고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 쓸 기물들 곧 섬기고 제사드리는 데 쓸 그릇들과 숟가락들과 금은 그릇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날 동안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계속 번제를 드렸다.

24:15 그러나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 생을 다하고 죽었다. 그가 죽을 때 백서른 살이었다.

24:16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들의 곁에 묻었는데,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24:17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24:18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다.

24:19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백성에게 경고했으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24:20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가 백성 위에 높이 서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어겨 형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셨다."

24:21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24:22 이처럼 요아스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굽어살피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

24:23 그해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모든 전리품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24:24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으나 주님께서 매우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요아스를 심판했다.

24:25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심한 부상 가운데 두고 떠나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음모를 꾸몄고 그를 침상에서 쳐 죽여 그가 죽었다. 그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들의 묘지에는 묻지 않았다.

24:26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24:27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게 닥친 큰 경고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한 일은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장

25:1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여호앗단이었다.

25:2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25:3 왕국이 그의 손에 확고히 서자 그는 자기 아버지인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25:4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책에 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으니, 곧 주님께서 "아버지는 자녀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도 아버지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

25:5 아마샤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을 가문에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아래 정렬시켰다. 그가 스무 살 이상 된 사람들을 세어보니 창과 방패를 다룰 줄 알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정예 용사가 삼십만 명이었다.

25:6 그는 또 은 백 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맹한 용사 십만 명을 고용했다.

25:7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25:8 만일 왕이 가시려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왕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권능도 있고 넘어뜨리실 권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25: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백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주실 수 있습니다."

25:10 그러자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따로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유다를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들은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25:11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자손 만 명을 쳐죽였다.

25:12 유다 자손은 만 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져 모두 산산조각 나게 했다.

25:13 그러나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하게 돌려보냈던 군대의 군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벧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삼천 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다.

25:14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온 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분향했다.

25:15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아마샤에게 타올랐고, 주님은 그에게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한 저 백성의 신들을 어찌하여 찾으십니까?"

25:16 예언자가 왕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를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입을 다물어라! 어찌하여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가 말을 멈추며 말했다. "왕이 이런 일을 행하고 내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압니다."

25:17 그 후 유다 왕 아마샤는 신하들과 의논한 뒤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오라!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보자."

25: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회답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고 했다. 그러나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며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25:19 너는 네가 에돔을 쳤다고 스스로 말하며 마음이 교만해져 자랑하고 있다. 이제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쓰러지려 하느냐?"

25:20 그러나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으므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25:21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왔고 그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었다.

25:22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25:23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벧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헐었다.

25:24 그는 오벳에돔이 지키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모든 금과 은과 온갖 그릇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들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5:25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25:26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25:27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선 때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쳤으나 사람들이 그를 쫓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그를 죽였다.

25:28 그들이 그를 말에 싣고 와서 유다 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26장

26:1 온 유다 백성이 열여섯 살인 웃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26:2 아마샤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웃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려놓았다.

26:3 웃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열여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두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였다.

26:4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26:5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던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

26:6 그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었고 아스돗 지역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26:7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26:8 암몬 사람들은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가 매우 강해져서 그의 명성이 애굽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다.

26:9 또한 웃시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들을 세우고 요새화했다.

26:10 그는 평지와 고원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망대들을 세우고 우물들을 많이 팠다. 농사를 좋아했으므로 산간 지대와 기름진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 지기들을 두었다.

26:11 웃시야에게는 무리를 지어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지휘관들 중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 서기관 여이엘과 관리 마아세야가 계수한 인원수에 따른 것이었다.

26:12 가문의 우두머리들 곧 용맹한 용사들의 총수는 이천육백 명이었다.

26:13 그들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었는데 강력한 힘으로 싸워 적을 맞서 왕을 돕는 자들이었다.

26:14 웃시야는 온 군대를 위해 방패들과 창들과 투구들과 갑옷들과 활들과 물맷돌들을 준비했다.

26:15 그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고안한 무기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들어 망대들과 성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했다.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강해졌으므로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

26:16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 악을 행했고 주 그의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곧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 위에 분향하려 했던 것이다.

26:17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 주님의 용감한 제사장 여든 명이 그와 함께 들어갔다.

26:18 그들이 웃시야 왕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웃시야여,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습니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6:19 그러자 웃시야가 화를 냈다. 그의 손에는 분향할 향로가 들려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님의 성전 안 분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

26: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바라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번져 있었다. 그들은 그를 그곳에서 급히 쫓아냈다. 주님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그 자신도 서둘러 나갔다.

26:21 웃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였으므로 별채에 살았으니 주님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26:22 웃시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26:23 웃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이 그를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 들판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7장

27:1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27:2 그는 그의 아버지 웃시야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으나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게 행동했다.

27:3 그는 주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고 오벨 성벽에 많은 공사를 했다.

27:4 게다가 그는 유다 산간 지대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속에 요새들과 망대들을 건축했다.

27:5 그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해에 암몬 자손은 그에게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은 둘째 해와 셋째 해에도 그만큼을 그에게 바쳤다.

27:6 이처럼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27:7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7:8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27:9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28:1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무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28:2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고 바알들을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28:3 게다가 그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서 살라 바쳤다.

28:4 그는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며 분향했다.

28:5 그러므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아하스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그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겨져 큰 살육을 당했다.

28:6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십이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용사들이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28: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가는 엘가나를 죽였다.

28:8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형제들 중에서 여자들과 아들딸들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많은 전리품까지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28:9 그러나 거기에 오뎃이라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으러 나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기셨는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격분 속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28:10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아 복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이 없습니까?

28:11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8:12 그러자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갸,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았다.

28:13 그들이 말했다. "너희는 포로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마라. 너희가 행하려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죄를 짓게 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할 뿐이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크고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진노가 임해 있다."

28:14 이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포로들과 전리품을 내려놓았다.

28:15 이름이 지명된 사람들이 일어나 포로들을 돌보았고,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가져다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기름을 발라 주었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 데려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인계한 뒤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8:16 그 무렵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8:17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28: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쪽 성읍들을 침략하여 벧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28: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님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28:20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왔으나 그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혔다.

28:21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집에서 재물을 털어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28:22 환난의 때에도 이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더 범죄했다.

28:23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나를 돕게 하겠다." 그러나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들었다.

28:24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모아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고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닫아걸었으며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들을 만들었다.

28:25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산당들을 지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노엽게 했다.

28:26 그의 나머지 행적과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8:27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 왕들의 묘역에 들이지 않고 성안 곧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장

29:1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29:2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29:3 그는 즉위 첫해 첫째 달에 주님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29:4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 동쪽 넓은 광장에 모으고,

29:5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치우십시오.

29:6 우리 조상들이 불성실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얼굴을 돌려 등을 돌렸습니다.

29:7 또한 현관 문들을 닫아걸고 등불을 껐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29:8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들을 내던져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9:9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졌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이 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29:10 이제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언약을 세우려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29:11 나의 아들들이여,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님 앞에 서서 섬기며 주님의 일꾼이 되어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29:12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곧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요,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요,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었다.

29:13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요,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맛다냐였다.

29:14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요,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웃시엘이었다.

29:15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뒤, 주님의 말씀에 따른 왕의 명령대로 들어가 주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29:16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모든 부정한 것을 주님의 성전 뜰로 끌어내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성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29:17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달 초여드렛날에 주님의 현관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드레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했고 첫째 달 십엿샛날에 일을 마쳤다.

29:18 그런 뒤 그들은 궁궐 안의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온 성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물들,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 모든 기물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9:19 게다가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불성실하여 내버렸던 모든 기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29:20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29:21 그들은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제물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고 왔다. 왕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했다.

29:22 그리하여 그들이 수소들을 잡았고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들은 숫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어린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29:23 그들은 속죄제물로 쓸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고 그들이 그 염소들 위에 손을 얹었다.

29:24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하려고 그 피로 제단에 속죄제를 드렸다.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29:25 왕은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의 명령에 따라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에 배치했다. 그 명령은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것이었다.

29:26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섰다.

29:27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번제물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노래도 함께 시작되었으며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 연주도 함께 울려 퍼졌다.

29:28 온 회중이 예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며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 모든 일이 번제물이 다 타기까지 계속되었다.

29:29 제물 바치기를 마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했다.

29:30 또한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29:31 히스기야가 말을 이어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가까이 나아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번제물도 가져왔다.

29: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 일흔 마리, 숫양 백 마리, 어린양 이백 마리였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이었다.

29:33 성별하여 바친 제물은 소 육백 마리와 양 삼천 마리였다.

29:34 그러나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많은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일이 끝나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제사장들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더 성실했기 때문이다.

29:35 또한 화목제의 기름과 번제물마다 따르는 전제물과 함께 번제물이 매우 많았다. 이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섬김의 일이 바로잡혔다.

29:36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일로 인해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30장

30:1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령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했다.

30:2 왕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30:3 제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까닭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30:4 왕과 온 회중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30:5 그리하여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포고령을 내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로 정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을 다 함께 지켜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30:6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과 고관들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앗수르 왕들의 손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30:7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죄를 지어 여러분이 보듯 황폐해지도록 내버려지게 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30:8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복종하여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30:9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오면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30:10 보발꾼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거쳐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다녔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30:11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30:12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른 왕과 고관들의 명령을 따르게 하셨다.

30:13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참으로 큰 무리였다.

30:14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 제단들을 없애고, 모든 분향 제단도 치워 기드론 시내에 던져 버렸다.

30:15 둘째 달 십사일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한 뒤,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30:16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질서 있게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30:17 회중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일을 맡았다.

30:18 백성의 많은 무리,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규례와 다르게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선하신 주님,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30:19 비록 성소의 정결 규례에 따라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30:20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다.

30: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칠 일 동안 큰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소리 높은 악기로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30:22 히스기야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격려했다. 그들은 칠 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30:23 온 회중은 칠 일을 더 지키기로 의논하고, 기쁨으로 다시 칠 일을 지켰다.

30:24 유다 왕 히스기야는 회중에게 제물로 수소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었고, 고관들도 회중에게 수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주었으며, 수많은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30:25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유다에 살던 이방인들까지 모두 크게 기뻐했다.

30:26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은 없었다.

30:27 그 뒤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거처인 하늘에 이르렀다.

31장

31:1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의 성읍들로 나아가 돌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렸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저마다 자기의 소유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31:2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분과를 다시 정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모두 저마다 맡은 직무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의 성전 문에서 섬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

31:3 왕은 또한 자기 소유 가운데서 몫을 정하여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과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정한 절기들에 드릴 번제물로 바치게 했으니,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였다.

31:4 그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어,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31:5 이 명령이 널리 퍼지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 가운데서 첫 열매를 풍성하게 바쳤고, 온갖 것의 십일조를 넉넉하게 가져왔다.

31:6 유다의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역시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와 여러 더미로 쌓아 두었다.

31:7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쌓기를 마쳤다.

31:8 히스기야와 고관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31:9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었다.

31:10 사독 가문 출신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31:11 이에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 안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방들을 준비했다.

31:12 그들은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하여 바친 성물들을 성실하게 들여왔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이 물품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고, 그의 동생 시므이가 버금가는 책임자였다.

31:13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갸, 마핫, 브나야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총감독인 아사랴가 임명한 관리들로서, 고나냐와 그의 동생 시므이의 지휘를 받았다.

31:14 동문 문지기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맡아, 주님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담당했다.

31:15 그의 지휘 아래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제사장들의 성읍에서 신임받는 직무를 맡아, 각 분과에 따라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31:16 이와 별도로, 족보에 기록된 세 살 이상의 남자들, 곧 매일의 직무에 따라 자기 분과의 직책을 수행하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1:17 제사장들은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올랐고, 스무 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분과에 따른 직무별로 기록되었다.

31:18 또한 온 회중 가운데 그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와 아들과 딸 등 온 가족이 족보에 올랐으니, 그들이 신임받는 직무 안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31:19 각 성읍에 딸린 초원 밭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이름이 지명된 사람들이 있어,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와 레위 사람들 가운데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31:20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서 이처럼 행하며,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며 성실하게 일했다.

31:21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시작한 모든 일을 온 마음을 다해 행했고, 번영을 누렸다.

32장

32:1 이러한 일들과 이 같은 성실한 섬김 뒤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그는 견고한 요새 성읍들을 포위하고 진을 친 뒤, 그 성읍들을 무너뜨려 차지하려고 생각했다.

32:2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계획하는 것을 보고,

32:3 고관들과 용사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샘줄기들을 막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은 왕을 도왔다.

32:4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그 땅 한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를 막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앗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풍성하게 얻게 하겠는가?"

32:5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까지 높였으며, 그 바깥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또한 다윗성에 있는 밀로를 보강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32:6 그는 백성을 지휘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문 앞 광장에 있는 자신에게로 모은 뒤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32:7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앗수르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32:8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32:9 그 뒤에 앗수르 왕 산헤립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다.

32:10 "앗수르 왕 산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포위된 채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느냐?

32:11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만들려는 속임수가 아니냐?

32:12 바로 그 히스기야가 그 신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너희는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32:13 나와 내 조상들이 여러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땅 여러 민족의 신들이 과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32:14 내 조상들이 완전히 멸망시킨 그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32:15 그러므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이런 말로 설득당하지도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32:16 산헤립의 신하들도 주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말을 더욱 쏟아냈다.

32:17 산헤립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들을 써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 땅 민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32:18 산헤립의 부하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쳐 그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에 빠뜨려 성을 함락시키려 했다.

32:19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백성들의 신들을 대하듯,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했다.

32:20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는 이 일 때문에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32:21 주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앗수르 왕의 진영에 있던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교들을 전멸시키셨다. 그리하여 산헤립은 얼굴에 수치를 가득 안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쳐 죽였다.

32:22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방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32:23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귀한 보물들을 바쳤다. 그 뒤로 히스기야는 모든 민족의 눈에 높임을 받았다.

32:24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징표를 주셨다.

32:25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32:26 하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으며,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겸손해졌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32:27 히스기야는 부와 영예가 심히 넘쳐났다. 그는 은과 금, 보석과 향품, 방패와 온갖 값진 기물들을 보관할 창고를 마련했다.

32:28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소출을 둘 저장고를 지었으며, 온갖 가축을 위한 우리와 양 떼를 위한 우리를 만들었다.

32:29 나아가 그는 성읍들을 얻었고 양 떼와 소 떼를 아주 많이 소유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다.

32:30 바로 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다윗성 서쪽으로 곧장 흘러내리게 끌어들였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했다.

32:31 그러나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으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아보고자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32:32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선한 일들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32:33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로 올라가는 비탈에 장사지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예우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3장

33:1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열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33:2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33:3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다. 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섬겼다.

33:4 그는 주님께서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들을 쌓았다.

33:5 그는 주님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해 제단들을 쌓았다.

33:6 그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또 점을 치고 복술과 마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크게 행하여 주님의 진노를 돋우었다.

33:7 그는 자기가 만든 우상의 조각한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 두었다. 이 성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33:8 만일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곧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해 준 땅에서 이스라엘의 발이 다시는 떠돌지 않게 하겠다."

33:9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꾀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했다.

33:10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33:11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쇠갈고리로 꿰어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33:12 므낫세는 고통 가운데서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했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다.

33:13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받아들이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33:14 그 뒤에 므낫세는 기혼 서쪽 골짜기에 다윗성을 위한 외곽 성벽을 쌓아 물고기 문 입구까지 이르게 했다. 또 오벨을 둘러 성벽을 매우 높이 쌓았으며,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용맹한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했다.

33:15 그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없애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제단을 성 밖으로 내던졌다.

33:16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으며,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했다.

33:17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렸다.

33:18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자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열왕의 기록에 담겨 있다.

33:19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스스로 낮추기 전에 그가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신상들을 세운 곳들에 관한 이야기는 호새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33:20 므낫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궁전에 장사지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3:21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다스렸다.

33:22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조각한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섬겼다.

33:23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낮춘 것과는 달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많이 지었다.

33:24 그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여 그의 궁전에서 그를 죽였다.

33:25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 뒤를 잇게 했다.

34장

34:1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34:2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았다.

34:3 그는 왕위에 오른 지 팔 년째 되던 해에 아직 어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십이 년째 되던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다.

34:4 사람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요시야는 그 제단들 위에 높이 솟아 있던 분향 제단들을 찍어 버렸다. 그는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34:5 그는 우상 사제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34:6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성읍들에서도 이렇게 행했다.

34:7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신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으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분향 제단을 찍어 버린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34:8 요시야는 통치 십팔 년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뒤, 아살리야의 아들 사반과 성읍의 장관 마아세야와 여호아하스의 아들 서기관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34:9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건네주었다.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손에서 거두어들인 것이었다.

34:10 그들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돈을 성전의 파손된 곳을 고치고 수리하는 데 썼다.

34:11 그들은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돈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에 쓸 목재를 사게 하고, 유다의 왕들이 허물어뜨린 건물들의 들보를 만들게 했다.

34:12 일꾼들은 성실하게 일했다. 그들을 감독하고 지휘한 사람은 므라리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 야핫과 오바댜였고, 고핫 자손에 속한 스가랴와 므술람도 지휘를 맡았다. 또 다른 레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자들이었다.

34:13 그들은 또한 짐꾼들을 감독하고 온갖 종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을 지휘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도 있었다.

34:14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를 통해 주신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34:15 힐기야는 사반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건네주었다.

34:16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보고하며 말했다. "왕의 종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종들이 다 행하고 있습니다.

34:17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다 쏟아내어 감독관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34:18 또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하고 아뢰고는,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34:19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34:20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34:21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참으로 큽니다."

34:22 이에 힐기야와 왕이 명령한 사람들은 예복을 맡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핫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 예언자 훌다에게 갔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가서 이 사정을 말했다.

34:23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라.

34:2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다.

34:25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의 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 꺼지지 않을 것이다.'

34:26 그러나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들은 말에 관해서는,

34:27 이곳과 그 주민들을 거슬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었고, 내 앞에서 겸손해져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 역시 네 말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이다.

34:28 보아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네가 평안히 네 무덤에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34:29 그러자 왕은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34:30 왕은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는 데서 소리 내어 읽어 주었다.

34:31 왕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주님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실천하기로 맹세했다.

34:32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언약에 동참하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34:33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온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요시야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5장

35:1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35:2 왕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정해 주고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격려했다.

35:3 그는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며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십시오.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어깨에 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35:4 이스라엘 왕 다윗이 쓴 글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쓴 글에 따라, 여러분의 조상 가문별로 분과를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35:5 여러분의 형제인 일반 백성의 조상 가문의 구분에 따라 성소에 서서, 레위 사람들의 조상 가문이 각 분과에 배정되게 하십시오.

35:6 유월절 양을 잡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35:7 요시야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 자기 소유의 양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 주었고, 수소 삼천 마리도 함께 내어 주었다.

35:8 왕의 고관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총감독들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작은 가축 이천육백 마리와 소 삼백 마리를 주었다.

35:9 또한 고나냐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인 하사비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작은 가축 오천 마리와 소 오백 마리를 주었다.

35:10 이처럼 섬김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자,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분과별로 섰다.

35:11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으며,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35:12 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일반 백성의 조상 가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어 주님께 바치게 했고, 소도 그와 같이 했다.

35:13 그들은 규례대로 유월절 제물을 불에 구웠다. 또 거룩한 제물들을 솥과 가마솥과 냄비에 삶아 온 일반 백성에게 재빨리 날라다 주었다.

35:14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밤까지 번제물과 기름을 바치는 일에 분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했다.

35:15 아삽 자손의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있었고, 문지기들도 각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

35:16 이리하여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치는 주님의 모든 섬김이 바로 그날에 온전히 준비되었다.

35:17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35:18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곳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것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35:19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야 통치 십팔 년째 되던 해였다.

35:20 이 모든 일 뒤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뒤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35:21 그러나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나와 그대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가문을 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35:22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므깃도 골짜기로 나아가 싸웠다.

35:23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아 맞혔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거라!"

35:24 그리하여 신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내려 그가 가진 다른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는 숨을 거두어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애도했다.

35:25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고, 노래하는 모든 남녀는 오늘날까지 애가에서 요시야를 기리며 노래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이 노래들은 애가에 기록되어 있다.

35:26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그의 선한 일들과,

35:27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36장

36:1 그 땅의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다.

36:2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스물세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36:3 애굽 왕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하고, 그 땅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벌금을 부과했다.

36:4 애굽 왕은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느고는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애굽으로 끌고 갔다.

36:5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36:6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36:7 느부갓네살은 또한 주님의 성전 기물들 가운데 얼마를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두었다.

36:8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서 드러난 모든 악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9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36:10 해가 바뀌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성전에 있던 값진 기물들과 함께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오게 하고, 그의 친족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36:11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스물한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36:12 그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았다.

36:13 그는 또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했다. 그는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36:14 더욱이 모든 제사장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이방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따라 큰 죄를 지었으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36:15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거처를 가련히 여기셨으므로, 사신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36:16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조롱했다.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향해 치밀어 올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36:17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대아 왕을 끌어들이셨다. 그는 그들의 성소 안에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고, 청년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병약한 자를 가련히 여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36:18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성전 모든 기물과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과 고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36:19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궁전을 불사르고 그곳의 모든 값진 기물을 파괴했다.

36:20 그는 칼에서 벗어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은 바사 왕국이 들어설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다.

36:21 이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으며, 그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였다. 그 땅은 황폐한 동안 안식을 누려 칠십 년을 채웠다.

36:22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리고 조서도 써서 이렇게 선포했다.

36: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주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 가운데 주님의 백성 된 자는 누구든지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니, 그는 올라가도록 하라.'"

에스라

1장

1: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리고 조서도 써서 이렇게 선포했다.

1:2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주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1:3 너희 가운데 주님의 백성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1:4 어디에 머물러 살든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1:5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1:6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보물을 주어 그들에게 힘을 보탰다.

1:7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성전 기물들을 꺼내어 왔다.

1:8 바사 왕 고레스는 국고 관리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낱낱이 세어 건네주게 했다.

1:9 그 수량은 이러했다. 금 접시가 서른 개, 은 접시가 천 개, 칼이 스물아홉 개,

1:10 금 대접이 서른 개, 두 번째 종류의 은 대접이 사백열 개, 다른 그릇이 천 개였다.

1:11 금과 은으로 된 기물은 모두 오천사백 개였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 모든 기물을 가지고 올라왔다.

2장

2: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던 포로들 가운데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마을로 들어간 이 지방 사람들은 이러하다.

2:2 이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개, 빌산, 미스발, 비그왜, 르훔, 바아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수는 다음과 같다.

2:3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다.

2:4 스바디야 자손이 372명이다.

2:5 아라 자손이 775명이다.

2:6 예수아와 요압 자손에 속한 바핫모압 자손이 2,812명이다.

2:7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2:8 삿두 자손이 945명이다.

2:9 삭개 자손이 760명이다.

2:10 바니 자손이 642명이다.

2:11 베배 자손이 623명이다.

2:12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다.

2:13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다.

2:14 비그왜 자손이 2,056명이다.

2:15 아딘 자손이 454명이다.

2:16 히스기야 집안에 속한 아델 자손이 98명이다.

2:17 베새 자손이 323명이다.

2:18 요라 자손이 112명이다.

2:19 하숨 자손이 223명이다.

2:20 깃발 자손이 95명이다.

2:21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다.

2:22 느도바 사람이 56명이다.

2:23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다.

2:24 아스마웹 자손이 42명이다.

2:25 기랏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다.

2: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다.

2:27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다.

2:28 벧엘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2:29 느보 자손이 52명이다.

2:30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다.

2:31 또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다.

2:32 하림 자손이 320명이다.

2:33 로옷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다.

2:34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다.

2:35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다.

2:36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안에 속한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다.

2:37 임멜 자손이 1,052명이다.

2:38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다.

2:39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2:40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에 속한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74명이다.

2:41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다.

2:42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몬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배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다.

2:43 성전 봉사자들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2:44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바돈 자손,

2:45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2:46 하갑 자손, 삼래 자손, 하난 자손,

2:47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2:48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2:49 웃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새 자손,

2:50 아스나 자손, 마온 사람들 자손, 느부심 자손,

2:51 박북 자손, 하구바 자손, 할훌 자손,

2:52 바슬룻 자손, 므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2:53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2:54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이다.

2:55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브루다 자손,

2:56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2:57 스바디야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핫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이다.

2:58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2:59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자기 집안과 혈통이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2:60 이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으로 모두 652명이었다.

2:61 제사장 자손 가운데는 하바야 자손, 곳 자손,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 그 집안의 이름을 따서 불린 사람이었다.

2:62 이 사람들은 족보 기록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되었다.

2:63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할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2:64 온 회중의 수는 다 합하여 42,360명이었다.

2:65 그 밖에 그들이 거느린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2:66 그들의 말은 736마리요, 노새는 245마리였다.

2:67 낙타는 435마리요, 나귀는 6,720마리였다.

2:68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도록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다.

2:69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건축 기금 창고에 금 61,000다릭과 은 5,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100벌을 바쳤다.

2:70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자기 마을들에 정착했고, 온 이스라엘도 저마다 자기 마을들에 자리 잡았다.

3장

3:1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3:2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도 자기 친족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3:3 그들은 주변 땅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그 터 위에 바로 세웠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3:4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날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정해진 수대로 날마다 드려야 할 번제물을 드렸다.

3:5 그 뒤에는 늘 드리는 번제물과 초하루 제물과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모든 정한 절기의 제물,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의 자원제물을 드렸다.

3:6 일곱째 달 첫날부터 그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으나, 그때까지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은 상태였다.

3:7 그들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고, 바사 왕 고레스가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다로 욥바까지 실어 오도록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

3: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형제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스무 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주님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3:9 이에 예수아가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과 함께 섰고, 갓미엘도 유다 자손인 자기 아들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려고 일어섰으며, 헤나닷의 자손들도 자기 아들들과 레위 사람 형제들과 함께 힘을 보탰다.

3:10 건축자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규례를 따라 주님을 찬양했다.

3:11 그들은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서로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주님은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했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였으므로, 모든 백성은 주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3:12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첫 성전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했다.

3:13 그리하여 백성이 기뻐 지르는 환호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으므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4장

4: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4:2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처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정착시킨 앗수르 왕 에살핫돈의 때부터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

4:3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나머지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여러분이 우리와 상관할 일이 아니오.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 자신이 다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오."

4:4 그러자 그 땅의 백성은 유다 백성의 손을 꺾어 기를 죽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괴롭혔다.

4:5 그들은 바사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날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다스릴 때까지, 조언자들을 매수하여 유다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4:6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통치 초기에도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4:7 아닥사스다 때에는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아람 문자로 적혔고 아람 말로 낭독되었다.

4:8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는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써서 올렸다.

4:9 그때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 곧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 다블래 사람, 아바새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데해 사람, 엘람 사람과,

4:10 위대하고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읍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나머지 땅에 이주시켜 정착하게 한 다른 여러 민족들이 편지를 올렸다.

4:11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닥사스다 왕께, 강 건너편에 있는 종들이 올립니다.

4:12 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왕에게서 떠나 올라온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 반역하고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고 있으며, 이미 성벽 공사를 마치고 기초를 수축하고 있습니다.

4:13 이제 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만일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과 세금과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왕들의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4:14 이제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고 살면서 왕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왕께 사람을 보내어 알려 드립니다.

4:15 왕의 조상들의 역사 기록 책을 조사해 보십시오. 왕께서는 그 기록 책을 찾아보시면, 이 성읍이 반역하는 성읍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쳐 온 성읍이며, 예로부터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성읍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4:16 우리가 왕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완공되면, 왕께서는 강 건너편의 영토를 모두 잃게 되실 것입니다."

4:17 이에 왕이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 및 강 건너편 나머지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냈다. "평안을 빈다.

4:18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4:19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해 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슬러 반역을 꾀했으며, 그 안에서 거역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4:20 또한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온 땅을 다스렸고, 그들에게 조공과 세금과 통행세가 바쳐지기도 했다.

4:21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성읍을 짓지 못하게 하라.

4:22 너희는 이 일을 행하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라. 어찌하여 왕들에게 해가 되는 손해를 키우겠는가?"

4:23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이 르훔과 심새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력을 앞세워 억지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4:24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가 다스린 지 둘째 해까지 멈추어 있었다.

5장

5:1 그때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5:2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다.

5:3 바로 그때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완공하게 했느냐?"

5:4 그들은 또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캐물었다.

5:5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을 지켜보고 계셨으므로, 그 문제는 다리오에게 보고되고 이에 관한 공식 서한이 회답으로 도착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5:6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강 건너편에 있던 그의 동료 아바삿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은 다음과 같다.

5:7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리오 왕께 큰 평안을 빕니다.

5:8 왕께 아룁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보니, 큰 돌로 성전을 짓고 벽에는 목재를 얹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빈틈없이 착착 진행되어 그들의 손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9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완공하게 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5:10 또한 왕께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알려 드리고자,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5:11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본래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건축하여 완공했던 것입니다.

5:12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그는 이 성전을 헐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5:13 하지만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5:14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신전에서 꺼내어, 총독으로 삼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5:15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5:16 그리하여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해 왔으나 아직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5:17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물 보관소에서 조사를 벌여 과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일에 관한 왕의 뜻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6: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바벨론의 보물을 보관해 두던 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게 했다.

6:2 메대 지방 악메다 궁전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었다.

6:3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이르노니, 희생제물을 드리던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되, 그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라.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6:4 큰 돌 세 켜에 새 목재 한 켜를 쌓아 올려라. 그 비용은 왕실에서 대 줄 것이다.

6:5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로 다시 가져가게 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 한다.'

6:6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 동료 아바삿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러서 있어라.

6:7 하나님의 이 성전 공사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도록 내버려 두라.

6:8 내가 또한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너희가 유대인의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명한다. 강 건너편에서 거두는 세금 등 왕실의 재산에서 비용을 빈틈없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 공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라.

6:9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에 필요한 것들, 곧 어린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뿐만 아니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그들에게 대 주어야 한다.

6:10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6:11 내가 또 조서를 내리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달아 꿰뚫고, 그의 집은 이 일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6:12 자기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이 조서를 바꾸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헐려는 모든 왕과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를 바란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빈틈없이 실행하라."

6:13 이에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냈으므로 그대로 빈틈없이 실행했다.

6:14 유대인의 장로들은 학개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을 힘입어 건축을 순조롭게 이어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했다.

6:15 이 성전은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완공되었다.

6: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나머지 자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6:17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쳤고,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다.

6:18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을 그 갈래별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그 반차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6:19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손들은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6: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자손과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6:21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 민족들의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고자 그들에게 합류한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제물을 먹었다.

6:22 그들은 이레 동안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서 그들의 손에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이다.

7장

7: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스라야는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7:2 힐기야는 살룸의 아들이요, 살룸은 사독의 아들이요, 사독은 아히둡의 아들이요,

7:3 아히둡은 아마랴의 아들이요, 아마랴는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므라욧의 아들이요,

7:4 므라욧은 스라히야의 아들이요, 스라히야는 웃시의 아들이요, 웃시는 북기의 아들이요,

7:5 북기는 아비수아의 아들이요, 아비수아는 비느하스의 아들이요,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다.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왕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7: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7:8 에스라는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7:9 그는 첫째 달 첫날에 바벨론을 떠나 길을 떠났고,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다섯째 달 첫날에 예루살렘에 닿았다.

7:10 에스라가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다.

7:11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자 학자요 주님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에 통달한 학자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다.

7:12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이 글을 보낸다.

7:13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도 좋다.

7:14 너는 왕과 일곱 조언자의 보냄을 받아, 네 손에 들린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정을 조사하도록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7:15 또한 너는 왕과 조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7:16 바벨론 온 지방에서 얻게 될 모든 은과 금뿐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라.

7:17 그러므로 너는 이 돈으로 정성을 다해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을 사고,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바쳐라.

7:18 그리고 남은 은과 금으로 무엇을 할지는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되,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7:19 네 하나님의 성전 섬김을 위해 네게 맡겨진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모두 전달하라.

7:20 그 밖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더 있어서 네가 바쳐야 할 일이 생기면, 왕실 보물창고에서 내어 주어라.

7:21 나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의 모든 재무관에게 조서를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빈틈없이 실행하라.

7:22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밧까지, 기름도 100밧까지 주고, 소금은 정한 한도 없이 주어라.

7:23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철저하게 이행하라. 어찌하여 왕과 왕자들의 나라에 진노가 미치게 하겠는가?

7:24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알리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봉사자들이나 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에게는 조공이나 세금이나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7:25 너 에스라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관리와 재판관들을 세워, 강 건너편에 있는 백성 곧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가르쳐라.

7:26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지체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라."

7: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마음에 이런 뜻을 품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셨고,

7:28 왕과 왕의 조언자들과 왕의 모든 힘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나는 힘을 얻어,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을 수 있었다.

8장

8:1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8:2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핫두스요,

8: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인데,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가 150명이었다.

8:4 바핫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호에내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었다.

8:5 스가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었다.

8:6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었다.

8:7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다.

8:8 스바디야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댜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었다.

8:9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었다.

8:10 슬로밋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브야의 아들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었다.

8:11 베배 자손 가운데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랴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었다.

8:12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인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었다.

8:13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 나중에 온 이들의 이름은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인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었다.

8:14 비그왜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삽붓인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다.

8:15 내가 그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사흘 동안 진을 쳤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8:16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또 다른 엘라단, 나단, 스가랴, 므술람을 불렀고, 지혜로운 교사인 요야립과 엘라단도 불렀다.

8:17 그리고 가시뱌 지방의 우두머리 잇도에게 그들을 보내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가시뱌 지방에 있는 잇도와 그의 형제 성전 봉사자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 주었다.

8: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마흘리의 자손 가운데서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브야를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함께 우리에게 데려왔다.

8:19 또 하사비야와 함께 므라리 자손인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도 데려왔다.

8:20 또한 성전 봉사자들 곧 다윗과 고관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섬기도록 넘겨주었던 이들 가운데서 220명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었다.

8:21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 위함이었다.

8:22 우리가 길에서 대적을 만나거나 도적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 줄 보병과 기병을 왕에게 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돌보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진노는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라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8:23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 일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8:24 그 뒤에 나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열두 사람을 따로 세웠으니, 곧 세레브야와 하사비야와 그들의 형제 열 사람이었다.

8:25 그리고 왕과 그의 조언자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8:26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였고,

8:27 금 대접은 20개로 1,000다릭에 달했으며, 금처럼 귀한 번쩍이는 고급 청동 그릇 두 개도 넘겨주었다.

8:28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며, 이 그릇들도 거룩합니다. 이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원예물입니다.

8:29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방에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이것들을 달아 넘겨줄 때까지, 잘 지키고 간수하십시오."

8: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 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8:31 첫째 달 십이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대적의 손과 매복한 도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8:32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8:33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야 제사장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넘겨주었다. 그 곁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고,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댜도 함께 있었다.

8:34 모든 것을 낱낱이 세고 달아 보았으며, 그 모든 무게를 그때 기록해 두었다.

8:35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수소 12마리, 숫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였고,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였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8:36 그들은 왕의 조서를 왕의 지방관들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그 관리들은 유다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을 적극 지원했다.

9장

9:1 이 일들을 마친 뒤에 고관들이 내게 나아와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여러 백성에게서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의 역겨운 행실을 따르고 있습니다.

9:2 그들이 이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 자기 자신과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거룩한 혈통이 이 땅의 백성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고관들과 관리들이 이러한 배임과 잘못에 앞장섰습니다."

9:3 내가 이 말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9:4 그러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러한 배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9: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일어나,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두 손을 펼쳐 들었다.

9:6 그리고 내가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머리 위로 넘쳐흐르고, 우리의 허물은 자라나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9:7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나큰 죄를 지어 왔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이 땅의 여러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로 끌려가며, 약탈을 당하고, 오늘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9:8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잠깐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말뚝을 박아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9:9 비록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사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폐허가 된 곳을 보수하게 하셨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보호벽을 주셨습니다.

9:10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11 그 계명은 일찍이 주님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으로, 이르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여러 백성이 더럽고 역겨운 짓을 저질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9:12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도 마라.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결코 바라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튼튼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9: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훨씬 가볍게 벌을 내리셨고 우리에게 이처럼 살아남은 자들을 남겨 주셨습니다.

9:14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주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이러한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백성들과 혼인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셔서 남은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도록 우리를 모조리 쓸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9:15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을 지닌 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허물 때문에 아무도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10장

10: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아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백성도 매우 슬피 울었다.

10:2 엘람의 자손 가운데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백성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해서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0:3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따르는 사람들의 권고를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읍시다. 율법대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10:4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어른께서 맡으셔야 하고 저희가 함께할 것이니, 용기를 내어 실행하십시오."

10:5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맹세했다.

10:6 그 뒤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슬퍼했기 때문이다.

10:7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모이라고 알렸다.

10:8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 자신도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모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다.

10:9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남자가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때는 아홉째 달 스무날이었다. 모든 백성은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있었다.

10: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범죄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책을 더했습니다.

10:11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과 이방 여인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10:12 그러자 온 모임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10: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여서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에서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루나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14 그러니 온 회중을 위해 우리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 성읍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셔서, 이 일로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15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에 반대하여 일어섰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도왔다.

10:16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가문별로 각 조상의 집안 우두머리 몇 사람을 모두 이름대로 따로 구별해 세웠다. 그들은 열째 달 첫날에 둘러앉아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0:17 그들은 첫째 달 첫날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0:18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확인되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야였다.

10:19 그들은 아내들을 내보내겠다고 손을 내밀어 서약했고, 죄책이 있으므로 자기들의 죄책을 위해 양 떼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바쳤다.

10:20 임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였다.

10:21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웃시야였다.

10:22 바스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내,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밧, 엘르아사였다.

10:23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 시므이, 겔라야(그리다라고도 함), 브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이었다.

10:24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었고,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 텔렘, 우리였다.

10:25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했다.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먀, 잇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브나야였다.

10:26 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맛다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였다.

10:27 삿두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내, 엘리아십, 맛다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였다.

10:28 베배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삽배, 아들래였다.

10:29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므술람, 말룩, 아다야, 야숩, 스알, 여레못이었다.

10:30 바핫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앗나, 글랄, 브나야, 마아세야, 맛다냐, 브살렐, 빈누이, 므낫세였다.

10:31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 잇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10:32 베냐민, 말룩, 스마랴였다.

10:33 하숨의 자손 가운데서는 맛드내, 맛닷다, 사밧, 엘리벨렛, 여레매, 므낫세, 시므이였다.

10:34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대, 아므람, 우엘,

10:35 브나야, 베대야, 글루히,

10:36 바냐, 므레못, 엘리아십,

10:37 맛다냐, 맛드내, 야아수,

10:38 바니, 빈누이, 시므이,

10:39 셀레먀, 나단, 아다야,

10:40 막나드배, 사새, 사래,

10:41 아사렐, 셀레먀, 스마랴,

10:42 살룸, 아마랴, 요셉이었다.

10:43 느보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 맛디디야, 사밧, 스비나, 잇도, 요엘, 브나야였다.

10:44 이들 모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를 낳아 준 아내들이 있었다.

느헤미야

1장

1: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궐에 있을 때의 일이다.

1: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혀 가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들에게 물었다.

1:3 그들이 내게 말했다. "그 지방에 남아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큰 고통과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1:4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며칠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1:5 내가 말씀드렸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1:6 이제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 주셔서, 주님의 종인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지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1:7 우리는 주님께 매우 악하게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8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을 것이다.

1:9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비록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택한 곳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0 "이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11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이 잘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자비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 맡은 관리였다.

2장

2: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다.

2:2 왕이 내게 물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어찌하여 얼굴에 슬픈 빛이 있느냐? 이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그때 나는 몹시 두려워했다.

2:3 내가 왕께 말씀드렸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는데, 어찌 내 얼굴에 슬픈 빛이 없겠습니까?"

2:4 그러자 왕이 내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2:5 그리고 왕께 말씀드렸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으로 보내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2:6 그때 왕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다. "너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는 기한을 정해 드렸다.

2:7 내가 또 왕께 말씀드렸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에 이를 때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제게 주십시오.

2:8 또한 왕의 숲지기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에 있는 요새 문들의 들보를 만들고 성벽과 내가 머물 집을 짓는 데 쓸 목재를 제게 주게 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왕이 내 청을 들어주었다.

2:9 그 뒤 나는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조서를 전했다. 왕은 군대 지휘관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 주었다.

2: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언짢아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도우려는 사람이 왔기 때문이었다.

2:11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2:12 나는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일어났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내 마음에 넣어 주셨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2:13 나는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 자칼 우물을 지나 거름 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 버린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2:14 이어 샘 문과 왕의 연못으로 나아갔으나,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었다.

2:15 그래서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며 성벽을 살펴본 뒤,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되돌아왔다.

2:16 관리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나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2:17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2:18 나는 그들에게 나를 도우신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왕이 내게 한 말을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말하며 이 선한 일을 위해 힘을 내었다.

2:19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말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대체 무엇이오? 왕에게 반역하려는 것이오?"

2: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몫도, 권리도, 기억할 만한 연고도 없다."

3장

3:1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 문을 건축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들을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거룩히 구별했다.

3:2 그 다음 부분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임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3:3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3:4 그 다음 부분은 곳의 손자이자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이자 베레갸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했다.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다.

3: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으나, 그들의 유력자들은 주의 일에 기꺼이 목을 숙여 섬기지 않았다.

3: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보수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3: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믈라댜와 메로놋 사람 야돈, 곧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강 건너편 총독의 관저를 보수했다.

3:8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보수했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3: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 구역을 다스리는 훌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다.

3:10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했다.

3: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숩이 다른 한 구역과 화덕 망대를 보수했다.

3: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절반 구역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했다.

3:13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주민들이 보수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일천 규빗을 보수했다.

3:14 거름 문은 벧학게렘 구역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3:15 샘 문은 미스바 구역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다. 그는 문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으며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 또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셀라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에 이르게 했다.

3:16 그 다음은 벧술 절반 구역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묘지 맞은편과 만들어 놓은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렀다.

3:17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인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절반 구역을 다스리는 하사비야가 자기 구역을 위해 보수했다.

3:18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이자 그일라 절반 구역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보수했다.

3:19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성벽 굽은 곳에 있는 무기고로 올라가는 맞은편의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3:20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을 내어 성벽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3:21 그 다음은 곳의 손자이자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끝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3:22 그 다음은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다.

3:23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숩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곁을 보수했다.

3:24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 굽은 곳과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3:25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벽 굽은 곳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튀어나온 망대, 곧 시위대 뜰 곁에 있는 부분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보수했다.

3:26 (그때 성전 봉사자들은 오벨에 살며 동쪽 물 문 맞은편과 튀어나온 망대에 이르는 곳에 머물렀다.)

3: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튀어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벨 성벽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3:28 말 문 위쪽으로는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3: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동쪽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다.

3:30 그 다음은 셀레먀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한 구역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방 맞은편을 보수했다.

3:31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가운데 하나인 말기야가 성전 봉사자들과 상인들의 집과 함밉갓 문 맞은편, 그리고 모퉁이의 높은 방으로 올라가는 곳까지 보수했다.

3:32 모퉁이의 높은 방과 양 문 사이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다.

4장

4:1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며 크게 격분하여 유대인들을 비웃었다.

4:2 그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가냘픈 유대인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타 버린 흙더미 속에서 저 돌들을 다시 살려 내려는가?"

4:3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거들며 말했다. "그들이 쌓는 것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오."

4:4 "우리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퍼붓는 모욕이 그들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약탈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4:5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이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4:6 우리는 계속 성벽을 쌓아 나갔고, 온 성벽이 절반 높이까지 이어졌다. 백성이 한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진척되어 무너진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4:8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싸우고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

4:9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경비병을 두어 방비했다.

4:10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짐꾼들의 힘이 다 빠졌는데도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다 쌓을 수가 없다."

4:11 우리의 원수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불시에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역사를 중단시킬 때까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4:12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도 와서, 사방에서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열 번이나 경고했다.

4:13 그래서 나는 성벽 뒤의 낮고 트인 곳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백성을 가문별로 세웠다.

4:14 내가 둘러본 뒤 일어나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4:15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의 음모를 우리가 알아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성벽으로 돌아가 각자 자기 일을 계속했다.

4:16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잡았다. 관리들은 유다의 온 집안 뒤에 배치되었다.

4:17 성벽을 쌓는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각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4:18 건축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으며, 나팔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서 있었다.

4:19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으며,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20 여러분이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곳으로 우리에게 모여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4:21 이렇게 우리는 공사를 계속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무렵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다.

4:22 그때 내가 백성에게 또 말했다. "각자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밤을 보내며, 밤에는 우리를 지키는 경비병이 되고 낮에는 일하게 하십시오."

4:23 그리하여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종들도, 나를 따르는 경호대 사람들도 아무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각자 물을 마시러 갈 때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5장

5:1 그때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같은 동포인 유대인 형제들을 원망하며 크게 울부짖는 일이 일어났다.

5:2 어떤 이들은 "우리와 우리 아들딸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먹고 살려면 곡식을 얻어야 한다" 하고 말했다.

5:3 또 어떤 이들은 "흉년 때문에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하는 형편이다" 하고 말했다.

5:4 또 어떤 이들은 "우리는 왕에게 바칠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만 했다.

5:5 우리의 몸도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보라,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처지다. 우리 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이 되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다" 하고 말했다.

5:6 나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5:7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각자 동포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소!" 그리고 나는 그들에 맞서 큰 집회를 열었다.

5:8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팔려 간 유대인 형제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몸값을 주고 되찾아 왔소. 그런데 당신들은 도리어 동포를 팔려 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팔려 오게 만든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9 내가 또 말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결코 옳지 않소. 우리의 원수인 이방 민족들의 모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소?

5:10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소. 이제 이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제발 그만둡시다.

5:11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백분의 일 이자도 돌려주시오."

5:12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에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5:13 또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집과 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에서 털어 버리셔서, 그가 이렇게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아멘" 하고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백성은 이 약속대로 실천했다.

5:14 더욱이 내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때부터,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5:15 그러나 나보다 먼저 있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빵과 포도주와 은 사십 세겔을 빼앗았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에게 군림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5:16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념했고, 우리는 아무 땅도 사들이지 않았으며, 내 모든 종들도 함께 모여 일에 매달렸다.

5:17 또한 내 식탁에는 유대인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도 함께 앉았다.

5:18 날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였고, 닭들도 준비되었으며, 열흘에 한 번씩 온갖 포도주가 넉넉히 갖추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이 짊어진 부역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5:19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6장

6:1 내가 성벽을 다시 쌓아 무너진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에 문짝들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6:2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십시오!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납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속셈이었다.

6:3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다.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습니까?"

6:4 그들은 네 번이나 이처럼 내게 전갈을 보냈고, 나도 매번 같은 말로 대답했다.

6:5 산발랏은 다섯 번째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종을 시켜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6:6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고 가스무도 이를 확인했는데,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오. 그 때문에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으며,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오.

6:7 또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선포하도록 예언자들을 세워 '유다에 왕이 있다!' 하고 외치게 했다는 것이오. 이제 이러한 소문이 왕에게 보고될 것이니, 지금 와서 함께 의논합시다."

6:8 이에 내가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으며, 당신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일 뿐이오."

6:9 그들은 모두 우리를 겁주려 하며 "그들의 손이 풀려 공사가 중단되고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6:10 그 뒤 나는 므헤다벨의 손자이자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의 집에 갔는데, 그는 문을 닫아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 성전 문들을 닫아겁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참으로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6:11 그러나 내가 대답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쳐야 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제 목숨을 건지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6:12 내가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에 그가 나를 해치려고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다.

6:13 그들이 그를 매수한 까닭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 그렇게 행동하다가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려 나를 모욕하려는 속셈이었다.

6:14 "저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행한 이 악행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두렵게 하려 했던 여예언자 노아댜와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6:15 그리하여 성벽 공사는 쉰두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6:1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기가 꺾였다. 그들은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6:17 또한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6: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맹세를 맺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6:19 그들은 내 앞에서도 도비야의 선행을 늘어놓았고, 내가 한 말도 그에게 전했다. 도비야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들을 계속 보내왔다.

7장

7:1 성벽이 건축되고 내가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7:2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채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겼다. 하나냐는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3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질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보초를 서는 동안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시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병으로 세우되, 각자 자기 초소에 서게 하고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시오."

7:4 그 성읍은 넓고 컸으나 성 안의 백성은 적었고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7:5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마침 내가 맨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7:6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던 포로들 가운데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간 이 지방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7:7 그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먀, 나하마니, 모르드개, 빌산, 미스베렛, 비그왜, 느훔, 바아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 수는 이러하다.

7:8 바로스의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다.

7:9 스바디야의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다.

7:10 아라의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다.

7:11 바핫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이다.

7:12 엘람의 자손이 일천이백오십사 명이다.

7:13 삿두의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이다.

7:14 삭개의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다.

7:15 빈누이의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이다.

7:16 베배의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이다.

7:17 아스갓의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이다.

7:18 아도니감의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이다.

7:19 비그왜의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이다.

7:20 아딘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이다.

7:21 아델의 자손, 곧 히스기야의 자손이 구십팔 명이다.

7:22 하숨의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이다.

7:23 베새의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이다.

7:24 하립의 자손이 일백십이 명이다.

7:25 기브온의 자손이 구십오 명이다.

7:26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일백팔십팔 명이다.

7:27 아나돗 사람이 일백이십팔 명이다.

7:28 벧아스마웹 사람이 사십이 명이다.

7:29 기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다.

7: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이다.

7:31 믹마스 사람이 일백이십이 명이다.

7:32 벧엘과 아이 사람이 일백이십삼 명이다.

7:33 다른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이다.

7:34 다른 엘람의 자손이 일천이백오십사 명이다.

7:35 하림의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다.

7:36 여리고의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다.

7:37 로옷과 하딧과 오노의 자손이 칠백이십일 명이다.

7:38 스나아의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이다.

7:39 제사장들은 이러하다. 예수아 집안인 여다야의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다.

7:40 임멜의 자손이 일천오십이 명이다.

7:41 바스훌의 자손이 일천이백사십칠 명이다.

7:42 하림의 자손이 일천십칠 명이다.

7:43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호드와의 자손인 예수아와 갓미엘의 자손이 칠십사 명이다.

7:44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의 자손이 일백사십팔 명이다.

7:45 문지기들은 살룸의 자손, 아델의 자손, 달몬의 자손, 악굽의 자손, 하디다의 자손, 소배의 자손이 모두 일백삼십팔 명이다.

7:46 성전 봉사자들은 시하의 자손, 하수바의 자손, 답바옷의 자손,

7:47 게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바돈의 자손,

7:48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살매의 자손,

7:49 하난의 자손, 깃델의 자손, 가할의 자손,

7:50 르아야의 자손, 르신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

7:51 갓삼의 자손, 웃사의 자손, 바세아의 자손,

7:52 베새의 자손, 마온 사람들의 자손, 느비스심의 자손,

7:53 박북의 자손, 하구바의 자손, 할훌의 자손,

7:54 바슬릿의 자손, 므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7:55 바르고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데마의 자손,

7:56 느시야의 자손, 하디바의 자손이다.

7:57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대의 자손, 소베렛의 자손, 브리다의 자손,

7:58 야알라의 자손, 다르곤의 자손, 깃델의 자손,

7:59 스바디야의 자손, 핫딜의 자손, 보게렛핫스바임의 자손, 아몬의 자손이다.

7:60 모든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7: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자기 조상의 가문이나 혈통이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7:62 이들은 들라야의 자손, 도비야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으로 모두 육백사십이 명이었다.

7:63 제사장들 가운데는 호바야의 자손, 곳의 자손, 바르실래의 자손이 있었다.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장인의 이름을 따서 불린 사람이다.

7:64 이 사람들은 족보 기록에서 자기 명단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되었다.

7:65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섬길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7:66 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었다.

7:67 이 밖에도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 있었다.

7:68 그들의 말은 칠백삼십육 마리, 노새는 이백사십오 마리였다.

7:69 낙타는 사백삼십오 마리, 나귀는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다.

7:70 족장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공사를 위해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일천 다릭과 대야 오십 개와 제사장의 옷 오백삼십 벌을 보물 창고에 바쳤다.

7:71 또 족장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공사 보물 창고에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이백 마네를 바쳤다.

7:72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옷 육십칠 벌이었다.

7:73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봉사자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성읍에 있었다.

8장

8:1 모든 백성이 일제히 물 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다.

8:2 일곱째 달 초하룻날에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회중 앞, 곧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가지고 나왔다.

8:3 그는 물 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 주었다. 온 백성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8:4 학자 에스라는 이 목적을 위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맛디디야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그의 왼쪽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다.

8:5 에스라는 모든 백성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8: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송축하자, 온 백성은 손을 치켜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님께 경배했다.

8:7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브야와 야민과 악굽과 삽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벨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백성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8:8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책을 또박또박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해 주어, 백성이 그 읽은 내용을 깨달아 알게 했다.

8: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다.

8:10 그가 또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8:11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8:12 온 백성은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어 보내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8:13 이튿날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학자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8:14 그들은 율법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8:15 또한 그들이 온 성읍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공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산으로 올라가 올리브나무 가지와 들올리브나무 가지, 도금양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8:16 그리하여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저마다 자기 집 지붕 위에, 자기 뜰 안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 물 문 광장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8:17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행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매우 크게 기뻐했다.

8: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그들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고, 규례에 따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었다.

9장

9:1 그달 스무나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썼다.

9:2 이스라엘의 후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했다.

9:3 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낮의 사분의 일 동안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고, 또 다른 사분의 일 동안은 죄를 고백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했다.

9:4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 갓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브야, 바니, 그나니가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9:5 이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 바니, 하삽느야, 세레브야,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말했다.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찬송과 찬양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9:6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 무리와, 땅과 그 위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9:7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 곧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9:8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성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며, 주님은 의로우시므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9:9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겪는 고난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9:10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표징과 기적을 나타내셨으니, 이는 그들이 조상들에게 오만하게 군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9:11 주님께서는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자들을 마치 거센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깊은 바다속으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9: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9:13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올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 선한 규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9:14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으며,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15 그들이 굶주릴 때에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 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16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은 거만하게 굴고 목을 뻣뻣하게 하여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17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뻣뻣하게 하고 반역하여, 종살이하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9:18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고는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너의 신이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크게 모독했을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9:19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서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9:20 또 주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에는 물을 주셨습니다.

9:21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해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9:22 주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몫에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9:23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9:24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 굴복시키셨고, 그 왕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뜻대로 처분하게 하셨습니다.

9:25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파 놓은 저수조,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풍성한 과일나무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배불렀으며 살이 쪘고, 주님의 크신 선하심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9:26 그런데도 그들은 불순종하여 주님께 반역했고, 주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 버렸습니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타이르던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9:27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자비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9:28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셔서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셨고, 자비로 여러 번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9:29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안에서 살게 되는 법도인데도, 그들은 등을 돌리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9:30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셨고, 주님의 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땅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9:31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으니,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32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며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과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앗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온 백성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서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9:33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9:34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계명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35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살면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선하심과 그들 앞에 넓게 펼쳐 주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9:36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누리라고 주신 바로 이 땅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9:37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이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의 몸과 가축을 지배하니, 우리가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9:38 이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언약을 세워 글에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10장

10:1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10: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10:3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10:4 핫두스, 스바냐, 말룩,

10:5 하림, 므레못, 오바댜,

10:6 다니엘, 긴느돈, 바룩,

10: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10: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이다. 이들은 제사장이었다.

10:9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가운데 빈누이, 갓미엘과,

10:10 그들의 형제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벨라야, 하난,

10:11 미가, 르호브, 하사비야,

10:12 삭굴, 세레브야, 스바냐,

10:13 호디야, 바니, 베니누였다.

10:14 백성의 지도자들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10:15 분니, 아스갓, 베배,

10: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0: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0:18 호디야, 하숨, 베새,

10:19 하립, 아나돗, 노배,

10: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10:21 므세사벨, 사독, 야두아,

10:22 벨라디야, 하난, 아나야,

10:23 호세아, 하나냐, 핫숩,

10:24 할로헤스, 빌하, 소벡,

10: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10:26 아히야, 하난, 아난,

10:27 말룩, 하림, 바아나였다.

10:28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이들, 성전 일꾼들과, 그 땅의 여러 백성에게서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 곧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모두 동참했다.

10:29 그들은 귀족들인 자기 형제들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신 주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저주와 맹세로 서약했다.

10:30 곧 우리는 딸들을 그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0:31 또 그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식을 가져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사지 않겠으며, 일곱째 해에는 땅의 소출을 거두지 않고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10:32 우리는 또한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섬김을 위해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치기로 했다.

10:33 이것은 차려놓는 빵과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식 제물,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들에 바칠 제물과 거룩한 제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었다.

10: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은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땔나무를 바치기로 정했다. 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나무를 가져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려는 것이었다.

10:35 또한 해마다 우리 토지의 맏물과 온갖 나무 열매의 첫 수확물을 주님의 집에 가져오기로 했다.

10:36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아들들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소 떼와 양 떼의 첫 새끼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10:37 우리는 또 반죽의 첫 몫과 우리의 거제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 여러 방에 두며, 우리 땅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모든 마을에서 십일조를 거두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10: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며,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 가운데 십분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집 곧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져와야 했다.

10:39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거제물을 성소의 기구들이 있는 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11장

11: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를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하고,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들에 살게 했다.

11:2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스스로 자원한 모든 사람을 백성은 축복했다.

11:3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성전 일꾼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각자 자기 성읍에 있는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다.

11:4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얼마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자손 가운데는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야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으로, 베레스 자손에 속했다.

11:5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었다.

11:6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팔 명으로, 용맹한 용사들이었다.

11:7 베냐민 자손은 다음과 같다. 살루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었다.

11:8 그 뒤를 이어 갑배와 살래가 있었으며, 모두 구백이십팔 명이었다.

11: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성읍의 부감독이었다.

11:10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있었고,

11:11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책임자였다.

11:12 성전 일을 맡아보던 그들의 동료는 팔백이십이 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랄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었다.

11:13 가문들의 우두머리인 그의 동료들은 이백사십이 명이었다. 또 아마새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새의 손자요 므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었다.

11:14 용맹한 용사들인 그들의 동료는 백이십팔 명이었고, 그들의 감독은 학게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11:15 레위 사람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핫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야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었다.

11:16 또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삽브대와 요사밧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 바깥일을 맡고 있었다.

11:17 또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지도자 맛다냐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었다. 또 그의 동료들 가운데 둘째인 박부갸가 있었고, 압다가 있었는데 그는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었다.

11:18 거룩한 성에 사는 레위 사람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었다.

11:19 문지기로는 악굽과 달몬과 그들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성문들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백칠십이 명이었다.

11:20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각자 자기 유업의 땅에 흩어져 살았다.

11:21 그러나 성전 일꾼들은 오벨에 살았으며, 시하와 기스바가 그 성전 일꾼들을 다스렸다.

11:22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웃시였다.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야의 손자요 맛다냐의 증손이요 미가의 현손으로서, 아삽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집 일을 맡은 노래하는 자들에 속했다.

11:23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매일 필요한 몫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다.

11:24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백성에 관한 모든 일에서 왕의 곁에 있었다.

11:25 들에 딸린 마을들로 말하자면, 유다 자손 가운데 일부는 기랏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고,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세엘과 그에 딸린 마을들에 살았다.

11:26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벧벨렛,

11:27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11:28 시글락, 메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11:29 엔림몬과 소라와 야르뭇,

11:30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 골짜기까지 진을 치고 살았다.

11:31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시작하여 믹마스와 아이야, 벧엘과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다.

11:32 또 아나돗, 놉, 아나냐,

11:33 하솔, 라마, 깃다임,

11:34 하딧, 스보임, 느발랏,

11:35 로옷,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인 오노에 살았다.

11: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부서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지역에 정착했다.

12장

12: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곧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12:2 아마랴, 말룩, 핫두스,

12:3 스가냐, 르훔, 므레못,

12:4 잇도, 긴느도이, 아비야,

12:5 미야민, 마아디야, 빌가,

12:6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12:7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시절에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의 우두머리들이었다.

12:8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 빈누이, 갓미엘, 세레브야, 유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 찬송을 맡았던 맛다냐가 있었고,

12:9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에 따라 그들 맞은편에 섰다.

12:10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았으며,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다.

12:11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두아를 낳았다.

12:12 요야김 시절에 제사장이자 가문의 우두머리였던 이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는 므라야, 예레미야 가문에는 하나냐,

12:13 에스라 가문에는 므술람, 아마랴 가문에는 여호하난,

12:14 말루기 가문에는 요나단, 스바냐 가문에는 요셉,

12:15 하림 가문에는 앗나, 므라욧 가문에는 헬개,

12:16 잇도 가문에는 스가랴, 긴느돈 가문에는 므술람,

12:17 아비야 가문에는 시그리, 미냐민 가문과 모아디야 가문에는 빌대,

12:18 빌가 가문에는 삼무아, 스마야 가문에는 여호나단,

12:19 요야립 가문에는 맛드내, 여다야 가문에는 웃시,

12:20 살래 가문에는 갈래, 아목 가문에는 에벨,

12:21 힐기야 가문에는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에는 느다넬이었다.

12:22 엘리아십, 요야다, 요하난, 야두아 시절에 레위 사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제사장들도 기록되었다.

12:23 레위 자손의 가문 우두머리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었다.

12:24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비야와 세레브야,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였으며, 그들의 맞은편에 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반차를 나누어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12:25 맛다냐, 박부갸, 오바댜, 므술람, 달몬, 악굽은 성문들의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12:26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시대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12:27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자,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이는 감사 찬양과 노래, 제금과 줄 악기와 하프로 기쁨 가득한 봉헌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12:28 노래하는 이들의 자손은 예루살렘 주변 평야와 느도바 족속의 마을들에서 모여들었고,

12:29 벧길갈과 게바 및 아스마웻의 들에서도 모여들었으니, 노래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스스로 마을들을 세워 두었기 때문이다.

12: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12:31 그때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를 드리며 행진할 큰 두 무리를 임명했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 문을 향해 나아갔다.

12:32 그들의 뒤를 호사야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따랐고,

12:33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

12:34 유다와 베냐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12:35 또 나팔을 든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가 따랐으니, 곧 스가랴였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요 스마야의 손자요 맛다냐의 증손이요 미가야의 현손이요 삭굴의 오대손이요 아삽의 육대손이었다.

12:36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래, 길랄래, 마애, 느다넬, 유다, 하나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따랐으며,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섰다.

12:37 그들은 샘 문을 지나 곧장 앞으로 나아가 다윗성의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다윗 집안의 위를 지나 동쪽의 물 문까지 이르렀다.

12:38 감사를 드리는 다른 한 무리는 그들을 맞이하여 나아갔고, 나와 백성의 절반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화덕 망대 위를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

12:39 그리고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 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서 멈추어 섰다.

12:40 그리하여 감사를 드리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집에 섰고, 나와 내 곁에 선 관리들의 절반도 함께 섰다.

12:41 제사장 엘리아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료에내, 스가랴, 하나냐는 나팔을 들고 섰으며,

12:42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웃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섰다. 노래하는 이들은 그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힘차게 노래했다.

12:43 그날에 그들은 큰 제물을 드리고 기뻐했으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12:44 그날에 보물 창고와 거제물, 첫 수확물과 십일조를 두는 방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각 성읍의 밭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 방들로 모아들이게 했다. 이는 유다가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기 때문이다.

12:45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으며,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했다.

12:46 옛적 다윗과 아삽 시절에는 노래하는 이들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와 감사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12:47 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시절과 느헤미야 시절에 매일 필요한 대로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몫을 따로 떼어 두었으며, 레위 사람들은 아론 자손을 위한 몫을 따로 떼어 두었다.

13장

13:1 그날 사람들은 백성이 듣는 데서 모세의 책을 낭독했는데, 거기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3:2 그것은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려 복이 되게 하셨다.

13:3 그들은 이 율법을 듣고서 이방 무리를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떼어내 분리했다.

13:4 이 일보다 앞서, 우리 하나님의 집 여러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야와 친족 관계였다.

13:5 그는 도비야를 위해 큰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이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 기구들과 십일조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곧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된 것들과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제물을 두던 곳이었다.

13:6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얼마 뒤에 왕에게 휴가를 청하여,

13:7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집 뜰 안에 방 하나를 마련해 줌으로써 도비야를 위해 저지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13:8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파서,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를 그 방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13:9 그리고 명령을 내려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한 뒤, 하나님의 집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곳으로 들여놓았다.

13:10 또 살펴보니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지급되지 않아,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이들이 저마다 자기 밭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11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는가?" 나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다.

13:12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13:13 나는 제사장 셀레먀와 학사 사독, 레위 사람 가운데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했고, 맛다냐의 손자요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의 조력자로 삼았다. 그들은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13:14 나의 하나님, 이 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하나님의 집과 그 모든 예배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13:15 그 무렵에 나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 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으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싣고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파는 바로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했다.

13:16 거기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물고기와 온갖 물품을 들여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 팔고 있었다.

13:17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어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오?

13:18 당신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성읍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당신들이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소."

13: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성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에 세워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13:20 그러자 상인들과 온갖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

13:21 이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벽 주위에서 밤을 지새우는가?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들을 붙잡을 것이오." 그 뒤로는 그들이 안식일에 다시 오지 않았다.

13:22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3:23 그 무렵에 나는 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다.

13:24 그들의 자녀 절반은 아스돗 말을 썼고, 유다 말은 할 줄 모른 채 각 민족의 말만 쓰고 있었다.

13:25 그래서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은 뒤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13:26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이런 일로 죄를 짓지 않았더냐?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만한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데도 이방 여인들이 그마저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

13:27 그러니 우리가 어찌 너희 말을 듣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13: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나는 그를 내게서 쫓아내 버렸다.

13:29 나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13:30 이렇게 나는 모든 이방인에게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직무를 정해 주었다.

13:31 또 정한 때에 바칠 땔나무와 첫 수확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에스더

1장

1: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백스물 일곱 지방을 다스렸다.

1:2 그 무렵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궁에 있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1:3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삼 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모든 대신과 관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바사와 메대의 군대 지휘관들과 지방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왕 앞에 모였다.

1:4 왕은 여러 날 동안, 곧 백팔십 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가 지닌 부와 더없이 뛰어난 위엄의 영광을 널리 보여 주었다.

1:5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수산 궁에 있던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백성을 위해 왕궁 안뜰 정원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1:6 그곳에는 흰색과 청색 천으로 만든 휘장들이 은 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걸린 고운 세마포와 자주색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붉은색, 흰색, 노란색, 검은색 대리석을 깐 바닥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이 놓여 있었다.

1:7 사람들은 모양이 각기 다른 온갖 금잔으로 술을 마셨고, 왕이 베푼 풍성한 잔치에 걸맞게 어주가 넉넉했다.

1:8 어명에 따라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은 없었다. 왕이 궁내의 모든 관리에게 지시하여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1:9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1:10 칠 일째 되던 날, 왕은 술로 흥이 오르자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모시는 일곱 내시인 므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1 그것은 와스디 왕비가 왕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백성과 관리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라는 것이었다. 왕비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1:12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내시들이 전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기를 거절했다. 그러자 왕은 몹시 화가 났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났다.

1:13 왕은 시대를 잘 아는 현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왕은 법률과 판례에 밝은 이들과 상의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14 왕 곁에서 왕을 직접 뵈며 나라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있던 이들은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도자인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므무간이었다.

1:15 "와스디 왕비가 내시들을 통해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처분해야 하겠소?"

1:16 므무간이 왕과 관리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와 온 백성에게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1:17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어전에 나아오라고 명령했으나 왕비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왕비가 한 이 행동이 모든 여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1:18 오늘 왕비의 행동을 전해 들은 바사와 메대의 귀족 부인들이 왕의 모든 대신에게도 똑같이 말할 것이니, 업신여김과 분노가 끝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1:19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어명을 내리시어 다시는 바꿀 수 없도록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녀보다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십시오.

1:20 왕이 내리신 조서가 온 나라에 두루 선포되면, 나라가 아무리 넓다 해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1:21 이 제안이 왕과 관리들의 마음에 들었으므로 왕은 므무간의 말대로 행했다.

1:22 왕은 왕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보냈다. 지방마다 고유한 글자로,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로 조서를 내려, 모든 남자가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했다.

2장

2: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그녀가 저지른 행동, 그리고 그녀를 두고 내려진 조서를 다시 떠올렸다.

2:2 그러자 왕을 모시는 젊은 신하들이 말했다. "왕을 위해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게 하십시오.

2:3 왕께서 왕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셔서,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 도성의 후궁으로 모아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인들을 돌보는 왕의 내시 헤개의 보호 아래 두고 몸을 가꿀 화장품을 주게 하십시오.

2:4 그런 뒤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2:5 그 무렵 수산 도성에는 모르드개라는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다.

2:6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아 온 포로들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이었다.

2:7 모르드개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누이가 있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 그가 직접 키웠다. 그 젊은 여인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르드개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던 것이다.

2:8 왕의 명령과 조서가 선포되고 많은 처녀가 수산 도성으로 모여들어 헤개의 보호 아래 들어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불려 가 여인들을 돌보는 헤개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9 헤개는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헤개는 곧바로 에스더에게 몸을 가꿀 화장품과 정해진 몫의 음식을 내주었고, 왕궁에서 엄선한 일곱 시녀를 딸려 주었다. 또한 에스더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처소로 옮겨 주었다.

2:10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친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이를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2:11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그녀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다.

2:12 처녀들은 저마다 열두 달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야 순서대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 향유와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여섯 달 동안 채우게 되어 있었다.

2:13 젊은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이러했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건너갈 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어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

2:14 저녁에 왕에게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첩들을 돌보는 왕의 내시 사아스가스가 맡고 있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왔다. 왕이 그녀를 특별히 마음에 들어 하여 이름을 지명해 부르지 않는 한, 그녀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

2:15 모르드개가 딸처럼 키운 삼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여인들을 돌보는 왕의 내시 헤개가 권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사랑스러웠다.

2:16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 칠 년 열째 달인 데벳월에 궁궐로 이끌려 왕 앞으로 나아갔다.

2:17 왕은 다른 어떤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에스더는 다른 모든 처녀보다 왕의 눈앞에서 더 큰 은총과 총애를 얻었다. 그리하여 왕은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 왕비로 삼았다.

2:18 왕은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곧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왕은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다운 넉넉한 씀씀이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2:19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였을 때, 모르드개는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

2:20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당부한 대로 여전히 자기 친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때처럼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2:21 그 무렵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2:22 이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가 에스더 왕비에게 이를 전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2:23 이 일을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나자 두 사람은 나무틀에 매달렸고, 이 사건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 실록에 기록되었다.

3장

3: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주었다. 왕은 그를 승진시켜 함께 있던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3:2 대궐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 왕이 하만에 관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3:3 그러자 대궐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3:4 그들이 날마다 권유했으나 모르드개가 듣지 않자, 그들은 모르드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알렸다. 모르드개가 이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었기 때문이다.

3:5 하만은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

3:6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만 해치는 것은 하찮은 일로 여겼다. 사람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이 누구인지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 전체를 몰살할 궁리를 했다.

3:7 아하수에로 왕 십이 년 첫째 달인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날마다 달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았는데, 열두째 달인 아달월이 뽑혔다.

3: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의 나라 모든 지방의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져 섞여 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률은 다른 모든 백성의 법률과 다르고,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3:9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만 달란트를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들의 손에 넘겨 왕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겠습니다."

3:10 그러자 왕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대인의 적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3:11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은은 그대에게 주겠소. 그 백성도 그대에게 넘기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처분하시오."

3:12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의 명령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지휘관들과 귀족들에게 글을 썼다. 지방마다 고유한 글자로,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로 작성되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되었다.

3:13 보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으로 서신이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고 죽여 없애며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이었다.

3:14 모든 지방에 법령으로 공포될 조서의 사본이 모든 민족에게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

3:15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길을 떠났고, 수산 도성에도 조서가 내려졌다.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셨지만, 수산 도성은 혼란에 빠졌다.

4장

4:1 모르드개는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재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크고 애통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4:2 그는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대궐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4:3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은 크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울며 통곡했다.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다.

4:4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왕비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굵은 베옷을 벗고 갈아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4:5 이에 에스더는 자신을 시중들도록 왕이 배정해 준 궁궐 내시 가운데 하나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또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4:6 하닥은 대궐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나아갔다.

4:7 모르드개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창고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정확한 돈의 액수를 하닥에게 알려 주었다.

4:8 또한 수산에서 공포된 유대인 몰살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여 주어 사정을 알리고 그녀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청하고 호소하도록 당부하게 했다.

4:9 하닥은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했다.

4:10 에스더는 하닥에게 모르드개에게 전할 말을 이렇게 일러 주었다.

4:11 "왕의 모든 신하와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법이 적용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어 주는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왕에게서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삼십 일이 되었습니다."

4:12 사람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했다.

4:13 그러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왕궁에 계신다고 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14 만일 지금 입을 다물고 잠잠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겠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버지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4:15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4:16 "가셔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시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4:17 모르드개는 물러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5장

5:1 삼 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예복을 차려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왕은 어전 안 문 맞은편 왕좌에 앉아 있었다.

5:2 왕은 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비를 보고 호의를 보였다. 왕은 손에 쥐고 있던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나아가 그 지팡이의 끝을 만졌다.

5:3 왕이 그녀에게 물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5:4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차린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5:5 왕이 명령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만을 급히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로 갔다.

5:6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이루어 주겠소."

5:7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의 간청과 소청은 이것입니다.

5:8 제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제 간청을 들어주시고 제 소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할 잔치에 내일도 와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왕의 말씀대로 아뢰겠습니다."

5:9 그날 하만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 자리를 나섰다. 그러나 대궐 문에서 모르드개를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은 모르드개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다.

5:10 그럼에도 하만은 감정을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사람을 보내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모았다.

5:11 하만은 그들에게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자녀, 그리고 왕이 자신을 높여 왕의 대신들과 신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 준 온갖 일들을 자랑했다.

5:12 하만은 덧붙여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오. 에스더 왕비가 잔치를 차리고 왕과 함께 오도록 허락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소. 내일도 왕과 함께 왕비의 초대를 받았소.

5:13 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영광도 내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오."

5:14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틀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말씀드려 모르드개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십시오."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겨 곧바로 나무틀을 만들게 했다.

6장

6:1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궁중 실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6:2 그 책에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했을 때 모르드개가 이를 고발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6:3 왕이 물었다. "이 일로 모르드개에게 어떤 영예와 벼슬을 내렸느냐?"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6:4 왕이 물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마련해 둔 나무틀에 모르드개를 매달게 해 달라고 왕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와 있었다.

6:5 왕의 신하들이 아뢰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들어오게 하라."

6:6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왕이 특별히 영예롭게 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겠소?" 하만은 마음속으로 '왕이 나보다 더 영예롭게 해 주고 싶어 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6:7 하만이 왕께 아뢰었다. "왕께서 특별히 영예롭게 해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6:8 왕께서 입으시는 왕의 예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곧 머리에 왕관 장식이 달린 군마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6:9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고귀한 귀족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의 손에 맡겨, 왕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으로 다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왕이 특별히 영예롭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준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6:10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서둘러 그 옷과 말을 가져다가, 그대가 말한 대로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6:11 하만은 그 옷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으로 이끌고 다니며 그 앞에서 외쳤다. "왕이 특별히 영예롭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준다!"

6:12 그 뒤에 모르드개는 대궐 문으로 돌아왔으나, 하만은 부끄러워 머리를 감싼 채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6:13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다. "모르드개가 유대인 혈통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틀림없이 그 앞에서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6:14 그들이 하만과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들이닥쳐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다.

7장

7:1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함께 갔다.

7:2 이튿날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이루어 주겠소."

7:3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 간청대로 제 목숨을 살려 주시고 제 소청대로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7:4 저와 제 민족이 몰살당하고 학살당하여 멸망하도록 팔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리기만 했어도 제가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도 왕께서 입으실 손해를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7:5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냐? 감히 마음속으로 그런 짓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7:6 에스더가 말했다. "그 대적이자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공포에 질렸다.

7:7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아채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려고 일어섰다.

7:8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누워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소리쳤다. "이자가 내가 집 안에 있는데도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드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7:9 그때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하만이 왕을 위해 충성스럽게 고변했던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마련한 높이 오십 규빗의 나무틀이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그자를 거기에 매달아라!"

7:10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해 둔 바로 그 나무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러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8장

8:1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의 적인 하만의 집안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어떤 관계인지 왕께 밝혔으므로, 모르드개도 왕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

8:2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안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다.

8:3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가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꾸민 악한 짓과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세운 음모를 막아 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8:4 왕이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자,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다.

8:5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들을 취소하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8:6 제 민족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을 제가 어찌 차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제가 어찌 차마 견뎌 볼 수 있겠습니까?"

8:7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말했다. "보시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안 재산을 에스더에게 넘겨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나무틀에 매달았소.

8:8 이제 그대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오."

8:9 그리하여 셋째 달인 시완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즉시 소집되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명령한 모든 내용에 따라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는 백스물일곱 지방의 유대인들과 지방관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썼다. 각 지방에는 고유한 글자로, 각 민족에게는 고유한 언어로 썼으며,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고유한 글자와 언어로 썼다.

8:10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봉인한 뒤, 왕실의 날랜 준마를 탄 보발꾼들을 시켜 서신을 급히 보냈다.

8:11 그 서신에서 왕은 각 성읍에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다. 곧 그들과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쳐서 죽이고 진멸하여 없애며,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약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8:12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 시행하도록 정해졌다.

8:13 모든 지방에 법령으로 공포될 조서의 사본이 모든 민족에게 널리 알려졌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8:14 왕의 명령에 따라 왕실의 준마를 탄 보발꾼들이 재촉을 받으며 급히 떠났고, 그 조서는 수산 도성에도 선포되었다.

8:15 모르드개는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왕실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으며, 고운 세마포로 만든 자주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러자 수산 성읍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8:16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예가 넘쳐났다.

8:17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모든 지방과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땅의 뭇 백성에게 임했으므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

9장

9:1 열두째 달인 아달월 십삼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조서가 집행될 때가 이르렀다. 이날은 유대인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제압하기를 바랐던 날이었으나,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9:2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자기들의 성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던 자들을 처단하려 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다.

9:3 지방의 모든 귀족과 관원들과 총독들과 왕의 공무를 맡은 관리들도 모르드개를 두려워했으므로 다 유대인들을 도왔다.

9: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큰 권세를 떨쳤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널리 퍼졌으며, 모르드개라는 인물은 갈수록 더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9:5 유대인들은 칼날로 모든 원수를 쳐서 도륙하고 멸망시켰으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다.

9:6 수산 도성에서도 유대인들은 오백 명을 죽여 없앴다.

9:7 또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9:8 보라다, 아달리야, 아리다다,

9:9 바마스다, 아리새, 아리대, 왜사다,

9:10 곧 유대인의 적인 함므다다의 손자이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9:11 그날 수산 도성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9:12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수산 도성에서만 하만의 열 아들을 포함해 오백 명을 죽여 없앴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무엇을 했겠소! 이제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들어주겠소. 당신의 추가 요청이 무엇이오? 그대로 이루어 주겠소."

9:13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의 조서대로 행하게 해 주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신을 나무틀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9:14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 조서가 내려졌고, 사람들은 하만의 열 아들을 나무틀에 매달았다.

9:15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십사일에도 다시 모여 수산에서 삼백 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9:16 왕의 여러 지방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 칠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9:17 이 일은 아달월 십삼일에 일어났으며, 십사일에는 휴식을 취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9:18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으므로, 십오일에 휴식을 취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9:19 그러므로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대인들은 아달월 십사일을 기쁨과 잔치의 날이자 축제의 날로 삼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보낸다.

9:20 모르드개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가깝고 먼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9:21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규정했다.

9:22 이날들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이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의 날이 된 달이기 때문이다. 모르드개는 그날들을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날로 삼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게 했다.

9:23 유대인들은 모르드개가 써 보낸 대로 자기들이 시작했던 이 관습을 계속 지키기로 받아들였다.

9:24 모든 유대인의 적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으나,

9: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은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나무틀에 매달게 했기 때문이다.

9:26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르'라는 낱말을 따라 이 날들을 '부림'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편지에 적힌 모든 말과, 이 일에 관하여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모든 일로 인하여,

9:27 자신들과 자손들과 그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기록된 규정과 정해진 때에 따라 이틀을 거르지 않고 지키기로 확정하고 스스로 규례로 삼았다.

9:28 또한 대대로 가문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이 날들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부림일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했다.

9:29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비와 유대인 모르드개는 전권을 가지고 글을 써서 부림일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증했다.

9:30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국 백스물일곱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9:31 그것은 유대인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비가 명령한 대로, 또 유대인들이 금식과 애통에 관하여 자신들과 자손들을 위해 정한 대로, 정해진 기한에 이 부림일을 확정하여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9:32 에스더의 명령으로 부림일에 관한 이러한 규례들이 확증되었고, 이 일은 책에 기록되었다.

10장

10:1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와 바다 섬들에 조공을 부과했다.

10:2 왕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행한 모든 업적과, 왕이 모르드개를 승진시켜 높여 준 그의 위대함에 대한 전말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궁중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10:3 유대인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자리에 올랐으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대하게 여겨지고 수많은 동족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모든 후손에게 평화를 선언했다.

욥기

1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1:2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다.

1:3 그의 재산은 양 칠천 마리, 낙타 삼천 마리, 소 오백 쌍, 암나귀 오백 마리였고, 집안에 딸린 사람도 아주 많았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1:4 그의 아들들은 각자의 생일이 되면 차례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곤 했는데, 사람을 보내 세 누이도 함께 먹고 마시도록 초대했다.

1:5 잔치 기간이 한 차례 지나가면, 욥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이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처럼 행했다.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1:7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1:8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온 땅에 없다."

1:9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10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방에 울타리를 둘러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온 땅에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1:11 하지만 이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1:12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리하여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갔다.

1:13 어느 날,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1:14 그때 한 전령이 욥에게 와서 말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1:15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짐승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님께 이렇게 알리러 왔습니다."

1:16 그 사람이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삼켜 버렸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님께 이렇게 알리러 왔습니다."

1:17 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에게 돌진하여 그것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님께 이렇게 알리러 왔습니다."

1:18 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1:19 갑자기 광야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쳤고,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져 내려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님께 이렇게 알리러 왔습니다."

1:20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1:21 욥이 말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두어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2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탓하지 않았다.

2장

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님 앞에 섰다.

2:2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땅을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2:3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온 땅에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 그를 아무 까닭 없이 파멸시키도록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2:4 사탄이 주님께 대답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2:5 하지만 이제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2:6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가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2:7 그리하여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아픈 부스럼이 나게 했다.

2:8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며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었다.

2:9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으세요."

2:10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처럼 말하고 있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2:11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의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 온 것이었다.

2:12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지만 욥을 알아볼 수 없자, 목 놓아 소리 내어 울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뿌려 머리에 끼얹었다.

2:13 그들은 칠 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보았기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했다.

3장

3:1 그 뒤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3:2 욥이 이렇게 말했다.

3:3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져 버리기를. '남자아이가 배었다'라고 말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리기를.

3:4 그날이 어둠이 되기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기를.

3:5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구름이 그 위에 머물고, 낮을 캄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기를.

3:6 그 밤을 짙은 어둠이 붙잡기를. 그 밤이 한 해의 날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달의 수에도 들지 못하기를.

3:7 보아라, 그 밤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기를. 그 안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3: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깨울 준비가 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기를.

3:9 그 밤의 어스름 속 별들도 어두워지기를. 그 밤이 빛을 바라지만 얻지 못하고, 아침이 눈뜨는 모습도 보지 못하기를.

3:10 그 밤이 내 어머니의 모태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에서 고난을 숨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3:11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3: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 주었고, 젖가슴이 있어 내가 젖을 빨았던가?

3:13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누워 평온했을 텐데, 잠들어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3:14 자신들을 위해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웠던 세상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3:15 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은으로 가득 채웠던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3:16 아니면 남몰래 유산된 아이처럼,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3:17 거기서는 악인들도 소란을 그치고, 지친 자들이 쉼을 얻는다.

3:18 거기서는 갇힌 자들도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감독관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는다.

3:19 거기에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함께 있고, 종도 주인에게서 풀려나 자유롭다.

3:20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3:21 이들은 죽기를 간절히 바라도 오지 않으니,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찾아 헤매다가,

3:22 무덤을 찾아내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3:23 어찌하여 갈 길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을 울타리로 둘러막으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가?

3:24 내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탄식이 먼저 나오고, 내 앓는 소리는 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3:25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닥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3:26 내게는 평온도 없고 고요도 없으며 쉼도 없고, 오직 고난만이 밀려오는구나."

4장

4:1 그러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4:2 "누군가 그대에게 말을 건네려고 하면 언짢아하겠소? 하지만 누가 입을 다물고 참을 수 있겠소?

4:3 보시오, 그대는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연약한 손을 굳세게 해 주었소.

4:4 그대의 말은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들어 주었고, 떨리는 무릎을 단단하게 해 주었소.

4:5 그런데 이제 이 일이 그대에게 닥치자 그대는 기운을 잃고, 그대에게 미치자 당황해하고 있소.

4:6 그대의 경외함이 그대의 자신감이 아니었소? 그대의 온전한 행실이 그대의 희망이 아니었소?

4:7 이제 생각해 보시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었소?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곳이 어디 있었소?

4:8 내가 본 바로는, 불의를 밭 갈고 해악을 뿌리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거두었소.

4:9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그분의 진노의 콧김에 사라져 버리오.

4:10 사자의 포효와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고, 힘센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오.

4:11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굶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지오.

4:12 어떤 말씀이 은밀히 내게 이르렀는데, 내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려왔소.

4:13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밤, 이상으로 생겨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소.

4: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엄습하여 내 모든 뼈마디를 흔들어 놓았소.

4:15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곤두섰소.

4:16 그 영이 멈추어 섰지만 나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소. 어떤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고요함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소.

4:17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4:18 보아라,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며, 자기 천사들에게도 허물을 물으신다.

4:19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에 기초를 두고, 좀벌레 앞에서도 짓눌려 으스러지는 자들이겠느냐!

4:20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산산이 부서지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4:21 그들 안의 장막 줄이 뽑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

5장

5:1 "이제 부르짖어 보시오. 그대에게 대답할 자가 있겠소? 거룩한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그대가 돌아서겠소?

5:2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우둔한 사람을 멸망시키오.

5:3 내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으나, 곧 그의 거처를 저주하게 되었소.

5:4 그의 자녀들은 안전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성문에서 짓밟히지만, 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5:5 그가 추수한 것은 굶주린 자들이 먹어 치우되 가시덤불 속에서까지 털어가며, 덫이 그들의 재산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소.

5:6 재난은 티끌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오.

5:7 불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인간은 고난을 겪으려고 태어난 것이오.

5:8 그러나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소.

5:9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오.

5:10 그분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판에 물을 보내시며,

5:11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시오.

5:12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려 그 손으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5:13 지혜롭다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 교활한 자들의 흉계는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마오.

5:14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거리오.

5:15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입의 칼날에서, 곧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자를 구해 내시오.

5:16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불의는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오.

5:17 보시오,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소.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5:18 그분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수 고쳐 주시오.

5:19 그분은 여섯 가지 환난에서 그대를 구원하실 것이니,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그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5:20 기근 속에서도 그분은 그대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전쟁 속에서도 칼의 위협에서 그대를 건져내실 것이오.

5:21 그대는 혀의 채찍질을 피해 숨을 수 있을 것이며, 파멸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5:22 그대는 파멸과 기근을 비웃을 것이며, 땅의 들짐승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오.

5:23 그대는 들판의 돌들과도 계약을 맺을 것이며, 들짐승들도 그대와 평화를 누릴 것이오.

5:24 그대는 그대의 장막이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양 떼를 살펴보아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오.

5:25 그대는 또한 그대의 자손이 많아지고, 그대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번성할 것을 알게 될 것이오.

5:26 제때에 곡식단이 모이듯이, 그대는 장수를 누리다가 무덤에 이르게 될 것이오.

5:27 보시오, 우리가 이것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사실이 그러하오. 그러니 이 말을 귀담아듣고 그대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오."

6장

6: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6:2 "아, 내 고뇌의 무게를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앙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6:3 지금 그것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6:4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꽂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구나.

6:5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부짖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울겠느냐?

6:6 싱거운 음식을 소금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6:7 내 영혼이 그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그것들은 내게 역겨운 음식과 같구나.

6:8 아, 내 간구를 들어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만 있다면!

6:9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손을 뻗어 내 목숨을 끊어 주셨으면 좋겠구나!

6:10 그럴지라도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내 위로가 되고, 가차 없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텐데.

6:11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더 참겠느냐?

6:12 내 힘이 돌의 힘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 살이 놋쇠라도 된단 말이냐?

6:13 내 안에 나를 도울 능력이 전혀 없고, 지혜마저 내게서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느냐?

6:14 낙담하여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는 친구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하거늘, 친구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일마저 저버리는구나.

6:15 내 형제들은 계곡물처럼 믿을 수 없고, 물이 말라 버리는 개울 바닥 같구나.

6:16 얼음 때문에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녹아 숨어들지만,

6:17 따뜻한 계절이 오면 사라지고, 더워지면 있던 자리에서 온데간데없이 말라 버린다.

6:18 상인들의 행렬이 물을 찾아 길을 벗어나 황무지로 들어갔다가 멸망하고 마는구나.

6:19 데마의 대상들이 길을 살피고, 스바의 여행자 무리가 물을 기대했으나,

6:20 그들이 잔뜩 믿고 기대했기에 실망하고, 그곳에 이르러 당황하고 말았구나.

6:21 지금 그대들이 바로 그 물 없는 개울과 같소. 그대들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먹고 있소.

6:22 내가 언제 '내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소? 아니면 '그대들의 재산에서 나를 위해 선물을 바쳐 달라'고 했소?

6:23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 달라'거나 '압제자의 손에서 나를 속량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소?

6:24 나를 가르쳐 보시오, 내가 입을 다물겠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깨우쳐 주시오.

6:25 올바른 말은 얼마나 큰 힘이 있소! 하지만 그대들의 책망은 무엇을 꾸짖는 것이오?

6:26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 바람과 같을진대, 그대들은 내 말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오?

6:27 참으로 그대들은 고아를 두고 제비를 뽑고, 친구를 두고 흥정이라도 할 사람들이오.

6:28 그러니 이제 부디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내가 그대들 면전에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소.

6:29 부디 생각을 돌리시오. 불의한 말을 하지 마시오. 다시 돌아서시오. 내 의로움이 여전히 여기에 있소.

6:30 내 혀에 무슨 불의가 있단 말이오? 내 입맛이 재앙을 분별하지 못하겠소?"

7장

7:1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삶은 고된 노동과 같지 않은가? 그의 날들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은가?

7:2 그늘을 간절히 바라는 종처럼, 품삯을 손꼽아 기다리는 품꾼처럼,

7:3 나도 몇 달째 허무한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운 밤들이 내게 정해져 있구나.

7:4 누울 때마다 나는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고 생각하며, 동틀 때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

7:5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였고, 내 살갗은 아물었다가도 다시 터져 곪는구나.

7:6 내 날들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고, 희망도 없이 다 지나가 버린다.

7:7 주님, 제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7:8 저를 보던 사람의 눈이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눈이 저를 찾으실지라도 저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7:9 구름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7:10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고향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7:11 그러므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괴로움 속에서 말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7:12 제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감시하는 파수꾼을 세우십니까?

7:13 제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내 침상이 내 탄식을 덜어 주겠지'라고 말할 때면,

7:14 주님께서는 꿈으로 저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저를 두렵게 하십니다.

7:15 그리하여 제 영혼은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며, 이 뼈만 남은 몸으로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7:16 저는 제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 날들은 한낱 숨결에 불과합니다.

7: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크게 여기시며, 어찌하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7:18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7:19 언제까지 제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렵니까? 침을 삼킬 동안만이라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렵니까?

7:20 사람을 지켜보시는 주님, 설령 제가 죄를 지었다 한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저 자신에게조차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7:21 어찌하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제 죄악을 없애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이니, 주님께서 애써 저를 찾으실지라도 저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8장

8:1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

8:2 "그대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소? 그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까지 거센 광풍 같겠소?

8:3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소?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겠소?

8:4 그대의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오.

8:5 하지만 그대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께 간구한다면,

8:6 그대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이제라도 그분께서 그대를 위해 일어나셔서 그대의 의로운 집안을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오.

8:7 그대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대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오.

8:8 옛 세대에게 물어보시오. 그 조상들이 배운 것을 잘 살펴보시오.

8:9 (우리는 어제 태어난 자들이라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사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오.)

8:10 그들이 그대를 가르치고 일러 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해 주지 않겠소?

8:11 파피루스가 진흙탕 없이 자랄 수 있겠소?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있겠소?

8:12 아직 푸른빛을 띠고 있어 베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어떤 풀보다도 먼저 말라 버리오.

8: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며, 불경건한 자의 희망은 사라지고 마오.

8:14 그가 의지하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소.

8:15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하고, 집을 붙잡아도 견디지 못하오.

8:16 그는 햇볕 아래에서 푸르름을 뽐내며, 그 줄기는 정원 너머로 뻗어 나가고,

8:17 그 뿌리는 돌무더기를 휘감으며 바위틈을 뚫고 들어가오.

8:18 하지만 그가 자기 있던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는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며 그를 부인할 것이오.

8:19 보시오, 그의 삶의 기쁨이란 이런 것이며, 흙에서는 다른 것들이 돋아날 것이오.

8:20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며, 악행을 일삼는 자를 붙들어 주지도 않으시오.

8:21 그분께서는 아직도 그대의 입에 웃음을 가득 채우시고, 그대의 입술에 기쁨의 함성을 채워 주실 것이오.

8:22 그대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옷 입듯 입을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오."

9장

9: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9: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9:3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려 든다 해도, 천 마디 말 가운데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할 수 없다.

9:4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막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거역하여 자신을 완고하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9:5 그분은 산들이 미처 알기도 전에 그것들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들을 뒤엎으신다.

9:6 그분은 땅을 그 자리에서 뒤흔드시니 땅의 기둥들이 떨린다.

9:7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고, 별들도 봉해 버리신다.

9:8 그분 홀로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의 파도를 밟으신다.

9:9 그분은 곰자리와 오리온자리와 플레이아데스, 그리고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는 분이다.

9:10 그분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9:11 보아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며,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셔도 나는 알아채지 못한다.

9:12 보아라,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겠는가?

9:13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니, 라합을 돕던 자들도 그분 발아래 엎드린다.

9:14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으며,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말다툼을 할 수 있겠는가?

9:15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께 자비를 빌 따름일 것이다.

9:16 내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해도, 그분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는 믿지 못하겠다.

9:17 그분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도 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기 때문이다.

9:18 그분은 내가 숨조차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쓰라림으로 가득 채우신다.

9:19 힘을 겨루는 문제라면 보아라, 그분은 참으로 강하시다! 재판의 문제라면 '누가 나를 법정으로 소환하겠느냐?' 하실 것이다.

9:20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흠이 없을지라도 내 입이 나를 그르다고 증명할 것이다.

9:21 나는 흠이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내 목숨조차 지긋지긋하다.

9:22 모든 것이 매한가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흠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멸망시키신다.

9:23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쳐 사람을 죽일 때, 그분은 죄 없는 자들의 시련을 비웃으실 것이다.

9: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있고, 그분은 세상 재판관들의 눈을 가려 놓으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그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9:25 내 날들이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빠르니, 좋은 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쏜살같이 달아나는구나.

9:26 갈대 배처럼 덧없이 지나가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리꽂히는 독수리처럼 지나가 버린다.

9:27 내가 '내 불평을 잊고 어두운 얼굴빛을 고쳐 밝게 웃어 보아야겠다'라고 말한다 해도,

9:28 주님, 저는 제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9:29 어차피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을진대, 어찌하여 제가 헛되이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9:30 내가 눈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는다 해도,

9:31 주님께서는 저를 구덩이에 처박으실 터이니, 제 옷조차 저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9:32 그분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맞서 답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법정에 나아갈 수도 없구나.

9:33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해 줄 중재자가 우리 사이에 없구나.

9:34 그분이 내게서 회초리를 거두시고, 그분의 두려움이 나를 덮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9:35 그러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상태로는 그럴 수가 없구나."

10장

10:1 "내 영혼이 삶에 지쳤으니, 내 탄식을 마음껏 쏟아놓고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말하겠다.

10:2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저와 다투시는지 제게 밝혀 주십시오.

10:3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작품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며, 악인들의 꾀에는 미소를 보내시는 것이 주님께 좋습니까?

10:4 주님께도 육체의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도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10:5 주님의 날들이 죽을 인생의 날들과 같습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의 햇수와 같습니까?

10:6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의 허물을 캐물으시고, 제 죄를 샅샅이 뒤지십니까?

10:7 제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만, 주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0:8 주님의 손이 저를 빚으시고 제 온몸을 지으셨는데, 이제 저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10:9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흙처럼 저를 빚으셨는데 이제 저를 다시 흙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까?

10:10 주님께서 저를 젖처럼 쏟아부으시고,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0:11 가죽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어 짜 주셨습니다.

10:12 주님께서는 제게 생명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제 영을 지켜 주셨습니다.

10:13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속셈을 마음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저는 압니다.

10:14 제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눈여겨보시며, 제 허물을 무죄로 놓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15 제가 악하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고, 제가 의롭다 해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니, 수치로 가득 차 있고 제 고통을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16 제가 머리를 높이 들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사냥하시고, 제게 거듭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10:17 주님께서는 저를 치는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제게 쏟으시는 분노를 더하시니, 새로운 군대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해 옵니다.

10:18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숨을 거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10:19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처럼 되어, 모태에서 곧장 무덤으로 실려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10:20 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멈추어 주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셔서 제가 잠시라도 안식을 얻게 해 주십시오.

10:21 제가 돌아오지 못할 곳, 곧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해 주십시오.

10:22 그 땅은 칠흑처럼 어둡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혼돈의 땅이며, 빛조차 한밤중처럼 어두운 곳입니다.'"

11장

11:1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11:2 "말이 이처럼 많은데 어찌 대답하지 않겠는가? 말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겠는가?

11:3 그대의 헛된 자랑에 사람들이 침묵해야 하겠는가? 그대가 비웃는데도 그대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는가?

11:4 그대는 '내 가르침은 흠이 없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고 말한다.

11:5 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를 향해 입술을 여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1:6 그분께서 지혜의 비밀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참된 지혜는 다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악보다 훨씬 덜 벌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11:7 "그대가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분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11:8 그것은 하늘처럼 높으니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올보다 깊으니 그대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11:9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11:10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가두거나 법정을 여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11:11 그분은 허망한 자들을 아시며, 깊이 따져 보지 않으셔도 악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다.

11:12 머리가 빈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11:13 "만일 그대가 마음을 바로잡고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11:14 그대의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가 그대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11:15 틀림없이 그대는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것이며, 굳건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1:16 그대는 고통을 잊을 것이며, 지나간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11:17 그대의 삶은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며, 어둠이 닥쳐와도 아침처럼 환해질 것이다.

11:18 희망이 있으므로 그대는 안심할 것이며, 주위를 둘러보고 안전하게 쉴 것이다.

11:19 그대가 누워도 아무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이가 그대의 호의를 구할 것이다.

11:20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은 멀어지고 달아날 길조차 사라질 것이니,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12장

12: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12:2 "과연 여러분만이 참된 백성이군요. 여러분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네요!

12:3 그러나 나에게도 그대들 못지않은 지각이 있고, 내가 그대들보다 못할 것도 없소. 그런 것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12:4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2:5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 발을 헛디디는 자들을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소.

12:6 강도들의 장막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며, 제 손에 있는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도 안전하오.

12:7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것들이 그대들을 가르칠 것이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것들이 알려 줄 것이오.

12:8 땅에게 말해 보시오, 땅이 그대들을 가르칠 것이오. 바다의 물고기도 그대들에게 일러 줄 것이오.

12:9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손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모르는 자가 누구겠소?

12: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있소.

12:11 입천장이 음식 맛을 보듯,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소?

12:12 나이 든 이들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들 하오.

12:13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분의 것이오.

12:14 보시오, 그분께서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 줄 수 없소.

12:15 보시오, 그분께서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고, 물을 풀어놓으시면 물이 땅을 뒤엎소.

12:16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손아래 있소.

12:17 그분은 조언자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오.

12:18 왕들이 묶은 줄을 푸시고 그들의 허리를 띠로 묶어 포로로 삼으시오.

12: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권력자들을 넘어뜨리시오.

12:20 신임받는 자들의 말을 빼앗으시고, 장로들의 분별력을 거두어 가시오.

12:21 귀족들에게 멸시를 쏟아부으시고, 강한 자들의 허리띠를 푸시오.

12:22 어둠 속에 숨겨진 깊은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림자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오.

12:23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오.

12:24 세상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으시고, 길 없는 거친 황야에서 헤매게 하시니,

12:25 그들은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오."

13장

13:1 "보시오,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소.

13:2 그대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대들보다 못하지 않소.

13:3 "정녕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오.

13:4 그러나 그대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며,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오.

13:5 그대들이 제발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소! 그것이 차라리 그대들의 지혜일 것이오.

13:6 이제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이 호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13:7 그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말하고, 그분을 위해 궤휼을 말하려 하오?

13:8 그대들이 그분의 편을 들려 하오?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려 하오?

13:9 그분께서 그대들을 철저히 조사하신다면 좋겠소?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소?

13:10 그대들이 은밀하게 편을 든다면, 그분께서 분명히 그대들을 책망하실 것이오.

13:11 그분의 위엄이 그대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소? 그분에 대한 공포가 그대들에게 덮치지 않겠소?

13:12 그대들이 기억하는 명언들은 재 같은 속담일 뿐이고, 그대들의 방패는 진흙 요새에 불과하오.

13:13 "잠잠하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내가 말하게 해 주시오.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감당하겠소.

13:14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목숨을 내 손에 쥐어야 하겠소?

13:15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변호하겠습니다.

13:16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이것이 또한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13:17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내가 밝히는 말을 그대들의 귀에 담아 두시오.

13:18 보시오, 이제 내가 내 주장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으니,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13:19 나와 겨루어 따질 자가 누구겠소? 만일 있다면 내가 잠잠히 숨을 거두겠소.

13:20 "오직 주님, 제게 두 가지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13:21 주님의 손을 제게서 멀리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두려움으로 저를 떨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13:22 그러고 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하시고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13:23 저의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반역과 죄를 제게 알려 주십시오.

13:24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13:25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같은 저를 억누르시렵니까? 마른 지푸라기 같은 저를 뒤쫓으시렵니까?

13:26 주님께서는 저를 거슬러 괴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제 젊은 날의 죄악들을 물려받게 하십니다.

13:27 또 제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저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며, 제 발바닥 둘레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13:28 저는 썩어 버린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14장

14: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2 꽃처럼 피어났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며 머물지 못합니다.

14:3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도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하십니까?

14:4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4:5 사람의 날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 달려 있으며, 주님께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14:6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어 그가 쉬게 해 주시고, 품꾼처럼 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4:7 "나무는 베어지더라도 다시 싹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14:8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어 갈지라도,

14:9 그래도 물 냄새만으로 다시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14:10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힘없이 쓰러지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4:11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물이 마르고 말라붙듯이,

14:12 사람도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며 잠에서 깨워지지도 않습니다.

14:13 "아, 주님께서 저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저를 숨겨 두셨다가, 기한을 정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14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풀려날 때까지 고된 복무의 모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14:15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고, 주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14:16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제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제 죄를 일일이 살피지 않으십니까?

14:17 저의 허물은 자루에 밀봉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저의 죄악을 덮어 두셨습니다.

14:18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면 가루가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14:19 물결이 돌을 닳아 없어지게 하고 급류가 땅의 흙을 씻어 가듯, 주님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14:20 주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억누르시면 그는 떠나가며, 주님께서 그의 안색을 바꾸어 쫓아내십니다.

14:21 그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어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14:22 오직 그 몸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며, 그의 영혼은 속으로 슬퍼할 뿐입니다."

15장

15:1 그러자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15:2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제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는가?

15:3 유익하지도 않은 말로 변론하며, 아무 쓸모도 없는 말로 떠벌리겠는가?

15:4 참으로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을 가로막고 있다.

15:5 그대의 죄악이 그대의 입을 가르치니, 그대가 간교한 자들의 혀를 택한 것이다.

15:6 내가 아니라 그대의 입이 그대를 정죄하며, 그대의 입술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15:7 "그대가 인류 가운데 맨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도 되는가?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그대가 태어났는가?

15:8 그대가 하나님의 은밀한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는가? 지혜를 그대 혼자서만 독점했는가?

15:9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없는 깨달음이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15:10 우리 가운데는 머리가 센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다.

15:11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대에게는 너무 사소한가? 그대에게 온유하게 건네는 말씀이 가소로운가?

15:12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흥분하고, 그대의 두 눈이 번뜩이며,

15:13 그대의 분노를 하나님께 돌려 그 입에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15:14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15:15 보아라,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조차 신뢰하지 않으시며, 하늘이라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다.

15:16 하물며 역겹고 부패하여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켜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15:17 "내가 가르쳐 줄 터이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직접 본 것을 밝히 말하겠다.

15:18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제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고 전해 준 것이니,

15:19 그 땅은 오직 그 조상들에게만 주어졌고, 이방인은 그들 사이로 드나들지 못했다.

15:20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포악한 자에게 정해진 햇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15:21 무서운 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고, 평안할 때에도 파멸시키는 자가 그를 덮칠 것이다.

15:22 그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며,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15:23 그는 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어디에 있는가?' 묻고, 어둠의 날이 자기 곁에 닥쳐왔음을 안다.

15:24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왕처럼 그를 짓누른다.

15:25 그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하신 분께 오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15:26 그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두꺼운 방패를 앞세워 그분께 무모하게 돌진했다.

15:27 그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고 허벅지에는 살이 쪘으며,

15:28 폐허가 된 성읍들과 아무도 살지 않아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살았다.

15:29 그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하고 재산도 오래가지 못하며, 그의 소유가 이 땅에 넓게 퍼져 나가지 못할 것이다.

15:30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 버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 사라질 것이다.

15:31 그가 스스로 속아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5:32 그 일은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나뭇가지는 푸르지 못할 것이다.

15:33 그는 포도나무가 덜 익은 포도알을 떨어뜨리듯, 올리브나무가 꽃을 떨구듯 망할 것이다.

15:34 경건하지 않은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15:35 그들은 재앙을 임신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은 속임수를 준비한다."

16장

16: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16:2 "이런 말은 나도 여러 번 들었소. 그대들은 다 비참하게 만드는 위로자들일 뿐이오!

16:3 허무한 말에 끝이 있겠소? 무엇이 그대들을 자극하기에 그토록 맞받아치는 것이오?

16:4 그대들의 처지가 내 처지와 같았다면 나 역시 그대들처럼 말할 수 있었을 것이오. 나도 그대들을 거슬러 말을 그럴듯하게 엮어 대며 머리를 흔들 수 있었을 것이오.

16:5 그러나 나는 내 입술로 그대들을 북돋워 주고, 내 입술의 위로로 그대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을 것이오.

16:6 "내가 말을 해도 내 슬픔은 가라앉지 않고, 말을 참는다고 해서 내 고통이 얼마나 덜어지겠소?

16:7 그러나 이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를 지치게 하셨고, 제 온 집안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16:8 주님께서 저를 바짝 여위게 하셨으니 이것이 저를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 수척함이 일어나 저를 고발하며 제 얼굴에 대고 증언합니다.

16:9 그분은 진노로 저를 찢고 핍박하셨으며, 저를 향해 이를 가셨습니다. 제 대적이 저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봅니다.

16:10 사람들이 저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치고, 다 함께 뭉쳐 저를 공격합니다.

16:11 하나님께서 저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 내던지셨습니다.

16:12 내가 평안할 때에 그분께서 나를 산산조각 내셨소. 내 목덜미를 잡아채 부서뜨리시고, 나를 과녁으로 삼으셨소.

16:13 그분의 궁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분께서 가차 없이 내 콩팥을 꿰뚫으시며 내 쓸개즙을 땅에 쏟아부으시오.

16:14 그분께서 부수고 또 부수어 나를 치시며,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오.

16:15 내가 내 살갗에 베옷을 꿰매어 입고, 내 뿔을 흙먼지 속에 처박았소.

16:16 울다 지쳐 내 얼굴은 붉어졌고, 내 눈꺼풀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소.

16:17 그러나 내 손에는 아무런 폭력이 없고, 내 기도는 순결하오.

16:18 "땅아, 내 피를 덮지 마라. 내 울부짖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게 하라!

16:19 지금도 보시오,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증해 주실 분이 저 높은 곳에 계시오.

16:20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아붓소.

16:21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인자가 자기 이웃과 변론하듯 그분께서 사람의 권리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오!

16:22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오.

17장

17:1 "내 기운은 다 빠졌고 내 날들은 다하였으며,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17:2 참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내 곁에 있어, 내 눈이 그들의 도발을 지켜보고 있소.

17:3 "주님, 이제 담보물을 주시고 친히 저를 위한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손을 맞잡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17:4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총명을 숨기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17:5 몫을 챙기려고 제 친구들을 팔아넘기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오.

17:6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소.

17:7 슬픔 때문에 내 눈은 어두워졌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처럼 야위었소.

17:8 정직한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무죄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보고 분개할 것이오.

17:9 그래도 의인은 제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오.

17:10 그러나 그대들 모두 다시 와 보시오. 내가 그대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 한 명도 찾지 못할 것이오.

17:11 내 날들은 지나갔고 내 계획은 끊어졌으니, 내 마음에 품었던 뜻도 무너졌소.

17:12 그들은 밤을 낮으로 바꾸며, 어둠 속에서도 '빛이 가깝다' 하고 말하오.

17:13 내가 스올을 내 집으로 바라며 어둠 속에 내 잠자리를 펴고,

17:14 무덤의 썩음에 '너는 내 아버지다' 하고,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누이'라 부른다면,

17:15 내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소? 나의 희망을 볼 자가 누구겠소?

17:16 희망이 나와 함께 스올의 문으로 내려가겠소? 우리가 다 함께 흙먼지 속으로 가라앉겠소?"

18장

18:1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

18:2 "그대가 언제까지 말을 물고 늘어지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말하겠다.

18: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그대 눈에 미련하고 부정한 자로 보는가?

18:4 분노로 스스로를 찢는 자여, 그대 때문에 이 땅이 버려지겠는가?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는가?

18:5 "참으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것이다.

18:6 그의 장막 속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18:7 힘차던 그의 걸음걸이는 위축되고, 자신의 계략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18:8 그는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고, 얽힌 그물망 위를 걷게 되기 때문이다.

18:9 덫이 그의 발꿈치를 낚아채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옭아맬 것이다.

18:10 그를 잡을 밧줄이 땅속에 숨겨져 있고, 그를 칠 덫이 길목에 놓여 있다.

18:11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올 것이다.

18:12 그의 힘은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재앙이 그의 곁에서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

18:13 질병이 그의 살갗을 갉아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의 사지를 집어삼킬 것이다.

18:14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던 장막에서 뽑혀 나와, 공포의 왕 앞으로 끌려갈 것이다.

18:15 그의 장막에는 그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깃들고, 그의 처소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18:16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잘려 나갈 것이다.

18:17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18:18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며, 세상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

18:19 그의 백성 가운데는 아들도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가 머물던 곳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8:20 서쪽 사람들이 그의 비참한 날을 보고 놀라듯이, 동쪽 사람들도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18:21 불의한 자의 거처가 참으로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바로 이러하다."

19장

19: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19:2 "그대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겠소?

19:3 여러분이 열 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나를 학대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군요.

19:4 내가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잘못은 내게만 머물러 있을 뿐이오.

19:5 그대들이 진정 나를 향해 우쭐대며, 내 치욕을 들어 나를 탓하려 한다면,

19:6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알아야 하오.

19:7 "보시오, 내가 '폭행이다!' 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하여 외치나 공의가 없소.

19:8 그분께서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길목에 어둠을 깔아 두셨소.

19:9 내 영광을 벗겨 가셨으며, 내 머리에서 관을 벗겨 내셨소.

19:10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허무시니 내가 사라지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 버리셨소.

19:11 그분은 나를 향해 진노를 불태우시며, 나를 자신의 대적 가운데 하나로 여기시오.

19:12 그분의 군대가 일제히 몰려와 나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고, 내 장막 둘레에 진을 쳤소.

19:13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알던 이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었소.

19:14 내 친척들은 떠나갔고,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소.

19:15 내 집에 얹혀사는 이들과 내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소.

19:16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입으로 그에게 애원해야 할 지경이오.

19:17 내 아내는 내 숨결을 역겨워하고, 내 친형제들도 나를 혐오하오.

19:18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멸시하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놀려대오.

19:19 내 절친한 벗들이 다 나를 끔찍해하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내게 등을 돌렸소.

19:20 내 뼈가 가죽과 살에 달라붙었고, 나는 겨우 잇몸 하나로 살아남았소.

19:21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내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오.

19:22 어찌하여 그대들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며, 내 살을 먹고도 성에 차지 않아 하오?

19:23 "아, 지금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19:24 쇠로 된 필기구와 납으로 내 말이 바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19:25 그러나 나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19:26 내 살갗이 다 망가진 뒤에도, 나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19:27 바로 내가 내 편에 계신 그분을 뵐 것입니다. 내 눈으로 뵐 것이며, 낯선 사람으로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19:28 만일 여러분이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몰아붙이겠다!'라고 말한다면,

19:29 칼을 두려워하십시오.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니, 여러분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장

20:1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20:2 "그러므로 내 복잡한 생각이 내게 대답을 재촉하니,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초조함 때문이다.

20:3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 명철한 영이 내게 대답하게 한다.

20:4 그대는 예로부터, 사람이 땅 위에 세워진 이래로 그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20:5 악인의 승전가는 짧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기쁨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20:6 비록 그의 키가 하늘까지 치솟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20:7 그는 제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를 보았던 자들도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20:8 그는 꿈처럼 날아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며, 밤의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다.

20:9 그를 보았던 눈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20:10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이들의 호의를 구걸할 것이며, 그의 손은 빼앗았던 재물을 도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20:11 그의 뼈마디에는 젊음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그 젊음도 그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20:12 "비록 악이 그의 입에 달콤하여 그가 혀 밑에 악을 숨겨 두고,

20:13 그것을 아껴 버리지 않고 입속에 그대로 물고 있을지라도,

20:14 그의 뱃속에서 그 음식이 변하여 속에서 코브라의 독이 될 것이다.

20:15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해 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그것을 쫓아내실 것이다.

20:16 그는 코브라의 독을 빨 것이며, 살무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20:17 그는 강들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며, 꿀과 버터가 흐르는 시내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20:18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도로 돌려주어야 하며, 벌어들인 재산으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20:19 그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20:20 "그는 제 뱃속에서 만족을 알지 못했으므로, 자기가 아끼는 것 중 어느 하나도 건져 내지 못할 것이다.

20:21 그가 집어삼키지 않고 남겨 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20:22 풍족함이 넘쳐날 때에도 고난이 그를 덮칠 것이며, 억압받는 모든 자의 손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20:23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으실 것이며, 그가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위에 진노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20:24 그가 쇠 무기를 피해 달아나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20:25 그가 화살을 뽑아내면 몸에서 빠져나오고, 번쩍이는 화살촉이 그의 간에서 튀어나올 것이니 공포가 그를 덮칠 것이다.

20:26 짙은 어둠이 그의 보물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고 그의 장막에 남은 것마저 태워 버릴 것이다.

20: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땅이 그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20:28 그의 가산은 사라져 갈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거센 물결처럼 휩쓸려 갈 것이다.

20:29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유업이다."

21장

21:1 욥이 대답했다.

21:2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의 위안을 삼으십시오.

21:3 내가 말할 수 있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말한 뒤에 조롱하십시오.

21:4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찌 참을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5 나를 보고 놀라십시오. 손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21:6 내가 기억할 때마다 불안하고, 공포가 내 몸을 사로잡습니다.

21:7 어찌하여 악인이 살아서 장수하고, 세력까지 강해집니까?

21:8 그들의 자녀는 그들 곁에 든든히 서고,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잘 자랍니다.

21:9 그들의 집은 두려움 없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매도 그들 위에 내리지 않습니다.

21:10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아 유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21:11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양 떼처럼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을 춥니다.

21: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에 맞춰 노래하고, 피리 소리에 맞춰 기뻐합니다.

21:13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날을 보내다가, 순식간에 스올로 내려갑니다.

21:14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21: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분께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21:16 보십시오, 그들의 번영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21:17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고통을 내리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21:18 그들이 바람 앞의 검불처럼 되고, 폭풍에 날려 가는 겨처럼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21:19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 자신에게 갚으셔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합니다.

21:20 악인이 자기 파멸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직접 마시게 해야 합니다.

21:21 자기에게 정해진 달수가 다 차서 끊어지고 나면, 뒤에 남겨질 자기 집안일에 그가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21:22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21:23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넘치고, 온전히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21:24 그의 양동이마다 젖이 가득하고, 뼛속 골수는 촉촉합니다.

21:25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음의 쓰라림 속에 죽어가며,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21:26 그들은 다 같이 흙먼지 속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을 덮습니다.

21:27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나를 해치려는 여러분의 음모를 압니다.

21:28 여러분은 '고관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21:29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증언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까?

21:30 악한 자는 재앙의 날을 위해 남겨지고, 진노의 날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21:31 누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행실을 꾸짖으며, 누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에게 갚아 주겠습니까?

21:32 그래도 그는 무덤으로 실려 가고,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지켜 줄 것입니다.

21:33 골짜기의 흙덩이도 그에게는 달콤할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듯이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21:34 그런데도 어찌 여러분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에는 거짓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22장

22: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22: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22:3 그대가 의롭다고 한들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그대의 길이 온전하다고 한들 그분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22:4 그분의 책망을 받고 심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대의 경건함 때문이겠습니까?

22:5 그대의 악함이 크지 않습니까? 그대의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22:6 그대는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담보로 잡았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벗겨 빼앗았습니다.

22:7 지친 이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22:8 오히려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22:9 그대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 버렸습니다.

22:10 그러므로 덫이 그대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그대를 괴롭히며,

22:11 어둠이 닥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넘쳐흐르는 물이 그대를 덮치는 것입니다.

22:12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22:13 그런데도 그대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그분이 짙은 어둠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는가?

22:14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지 못하시니, 그분은 하늘 둥근 덮개 위를 거니실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22:15 그대는 악인들이 밟아 온 옛길을 계속 고집하려 합니까?

22:16 그들은 제때가 되기도 전에 붙들려 갔고, 그들의 기초는 강물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22:17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십시오!' 하고 말하며,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했습니다.

22:18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22:19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22:20 '과연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끊어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을 불이 삼켜 버렸다' 하고 말합니다.

22:21 이제 그분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일이 그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22:22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22:23 그대가 전능자께로 돌아오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치워 버리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22:24 그대의 보물을 흙먼지 속에 던져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개울가의 돌멩이 사이에 버리십시오.

22:25 그러면 전능자께서 그대의 보물이 되시고, 그대에게 귀한 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22:26 그때에 그대는 전능자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22:27 그대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며, 그대는 서원한 것을 갚게 될 것입니다.

22:28 그대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대의 길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22:29 사람들이 그대를 낮출 때에, 그대는 '일으켜 주소서' 하고 말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22:30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도 구원하실 것이니, 참으로 그대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23장

23:1 욥이 대답했다.

23:2 "오늘도 내 불평은 거칠기만 합니다. 내가 신음해도 그분의 손은 무겁기만 합니다.

23:3 아,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분의 심판 자리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23:4 내가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조목조목 진술하고, 내 입에 변론을 가득 채울 텐데.

23:5 그분이 내게 대답하실 말씀을 알고, 내게 이르실 바를 깨달을 텐데.

23:6 그분이 큰 권능으로 나와 다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23: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분과 함께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내 재판관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3:8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23:9 그분이 북쪽에서 일하시나 뵐 수 없고,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얼핏 볼 수도 없습니다.

23:10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23:11 내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굳게 따랐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키며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3:12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23:13 그러나 그분은 홀로 뜻을 정하시니, 누가 그분을 거스르겠습니까? 그분은 마음에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23:14 그분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며, 그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23:15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23:16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낙담하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3:17 내가 어둠이 오기 전에 끊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짙은 어둠을 내 얼굴에서 가려 주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4장

24:1 "어찌하여 전능자는 심판의 때를 정해 두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합니까?

24:2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 있고, 남의 양 떼를 강제로 빼앗아 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24:3 그들은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갑니다.

24:4 가난한 사람들을 길에서 몰아내니, 이 땅의 불쌍한 자들이 다 숨어 버립니다.

24:5 보십시오, 그들은 사막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부지런히 일터로 나갑니다. 광야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양식을 내어 줍니다.

24:6 그들은 들에서 다른 사람의 꼴을 베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포도를 줍습니다.

24:7 그들은 옷이 없어 밤새도록 헐벗은 채 눕고, 추위 속에서도 덮을 것이 없습니다.

24:8 산에서 내리는 소나기에 젖고,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껴안습니다.

24:9 어머니의 품에서 젖먹이 고아를 빼앗아 가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담보로 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24:10 그래서 그들은 옷도 없이 헐벗은 채 돌아다니고, 굶주린 채로 곡식 단을 나릅니다.

24:11 그들은 악인의 돌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도 목마름으로 괴로워합니다.

24:12 사람 많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목숨이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행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24:13 이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24:14 살인자는 새벽빛과 함께 일어나 가난한 이와 궁핍한 이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처럼 행동합니다.

24:15 간음하는 자의 눈도 땅거미를 기다리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24:16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며,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빛을 알지 못합니다.

24:17 그들에게는 아침도 짙은 어둠과 같으니, 짙은 어둠의 공포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4:18 그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덧없고, 땅에서 그들의 몫은 저주를 받으니, 아무도 포도원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24:19 가뭄과 열기가 눈 녹은 물을 삼켜 버리듯, 스올도 죄를 지은 자들을 그렇게 삼켜 버립니다.

24:20 모태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콤하게 파먹으며, 그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여 버릴 것입니다.

24:21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괴롭히고, 과부에게 어떤 친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24:22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힘 있는 자들을 보존하시니, 살아남을 가망이 없던 자도 다시 일어섭니다.

24:23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을 주셔서 평안히 쉬게 하시지만,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살피십니다.

24:24 그들은 높아지지만, 잠시 뒤에는 사라집니다. 참으로 그들은 낮아져서 다른 모든 이처럼 제거되며, 이삭의 윗부분처럼 잘려 나갑니다.

24:25 이제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증명하고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25장

25: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

25:2 "주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25:3 그분의 군대를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5:4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25:5 보십시오, 그분의 눈에는 달조차 밝지 않고 별들도 순결하지 못한데,

25: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며, 벌레 같은 사람의 아들이겠습니까!"

26장

26:1 욥이 대답했다.

26:2 "그대가 힘없는 자를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가! 힘없는 팔을 얼마나 훌륭하게 구원해 주었는가!

26:3 지혜 없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충고를 해 주었으며, 참된 지식을 얼마나 넉넉하게 가르쳐 주었는가!

26:4 그대가 누구를 향해 말을 쏟아냈는가? 누구의 영이 그대에게서 나왔는가?

26:5 죽은 자들의 영이 떨고 있으니, 물 밑에 있는 자들과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떱니다.

26:6 스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아바돈도 덮인 데가 없습니다.

26:7 그분은 북쪽 하늘을 빈 공간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달아 두십니다.

26:8 그분은 물을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지만, 구름은 물의 무게로 터지지 않습니다.

26:9 그분은 자기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자기 구름을 펼치십니다.

26:10 그분은 수면에 경계를 그으셔서, 빛과 어둠이 갈리는 경계선을 정하셨습니다.

26:11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떨며, 그분의 꾸짖음에 경악합니다.

26:12 그분은 권능으로 바다를 뒤흔드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십니다.

26:13 그분의 영으로 하늘이 맑아지고, 그분의 손이 날랜 뱀을 꿰뚫으셨습니다.

26:14 보십시오, 이것들은 그분의 행적의 언저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얼마나 작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큰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27장

27:1 욥이 다시 말을 이어 말했다.

27:2 "내 정당성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 영혼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27:3 (내 호흡이 아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남아 있는 한)

27: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27:5 나는 결코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7:6 나는 내 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27:7 나의 원수는 악인처럼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27:8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끊어 버리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실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7: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습니까?

27:10 그가 전능자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27:11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전능자께 속한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27:12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았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27:13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몫이며, 포학한 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는 유산입니다.

27:14 그의 자녀가 번성한다 해도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입니다.

27:15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음으로 매장될 것이며, 그의 과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27:16 비록 그가 은을 먼지처럼 쌓고, 옷을 진흙처럼 많이 준비할지라도,

27: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27:18 그가 지은 집은 좀벌레 집 같고, 파수꾼이 세운 초막과 같습니다.

27:19 그가 부유하게 잠자리에 들지만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27:20 공포가 홍수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를 앗아 갑니다.

27:21 동풍이 그를 날려 버리니 그가 사라지고, 그가 있던 자리에서 그를 쓸어버립니다.

27:22 바람이 그를 사정없이 내리치니, 그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힘껏 달아납니다.

27:23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뼉을 치며 조롱하고, 그가 있던 곳에서 쉿 소리를 내며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

28장

28:1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28:2 쇠는 흙에서 캐내고, 구리는 돌을 녹여 얻습니다.

28:3 사람은 어둠을 끝까지 파헤치고, 캄캄하고 짙은 어둠 속의 광석을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냅니다.

28:4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갱도를 뚫으니, 발길조차 닿지 않아 잊힌 곳에서 사람들은 줄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28:5 땅 위에서는 양식이 나오지만, 그 지하 깊은 곳은 마치 불에 탄 듯 뒤엎여 있습니다.

28:6 그 바위에서는 사파이어가 나오고, 금가루도 있습니다.

28:7 그 길은 어떤 사나운 새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28:8 거만한 짐승들도 그 길을 밟지 못했고, 사나운 사자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28:9 사람은 단단한 바위에 손을 대고, 산들을 뿌리째 뒤엎습니다.

28:10 바위투성이 속에 수로를 파내며, 그의 눈은 온갖 보물을 찾아냅니다.

28:11 물줄기를 막아 스며 나오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밝은 빛 속으로 끌어냅니다.

28: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8:13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며,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28:14 깊은 바다가 '내 안에는 없다' 하고, 바다가 '내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28:15 순금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고,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28:16 오빌의 금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28:17 금이나 유리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순금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28:18 산호나 수정 따위는 입에 올릴 필요도 없으니, 참으로 지혜의 값은 루비보다 귀합니다.

28:19 구스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28:20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8:21 지혜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눈에서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28:22 파멸과 죽음도 '우리는 귀로 그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28:23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다.

28:24 그분은 땅 끝까지 굽어보시며, 온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8:25 그분께서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어 정하셨습니다.

28:26 그분께서 비를 위한 법칙을 세우시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정하셨을 때,

28:27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것을 굳게 세우시고 깊이 살피셨습니다.

28:28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29장

29:1 욥이 다시 말을 이어 말했다.

29:2 "아, 지난 시절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던 그 날들 같았으면!

29:3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추었고, 나는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속을 걸어갔는데.

29:4 내가 원기 왕성하던 시절,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내 장막 위에 머물던 때와 같았으면!

29:5 그때는 전능자께서 아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아이들이 내 곁에 둘러서 있었는데.

29:6 내 발걸음마다 버터로 씻기고,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쏟아 내던 시절이었는데.

29:7 그때에는 내가 성문으로 나아가 거리의 광장에 자리를 마련하면,

29:8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몸을 숨겼고,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29:9 고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29:10 귀족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29:11 내 말을 듣는 귀는 나를 축복했고, 나를 보는 눈은 나를 칭찬했습니다.

29:12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를 내가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9:13 멸망할 뻔한 자의 축복이 내게 임했고, 나는 과부의 마음이 기뻐서 노래하게 해 주었습니다.

29:14 나는 의를 입어 그것이 내 옷이 되었고, 내 공의는 겉옷과 관 같았습니다.

29:15 나는 눈먼 사람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29:16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송사도 샅샅이 조사해 주었습니다.

29:17 나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러뜨리고, 그의 이빨에서 먹잇감을 빼앗아 냈습니다.

29:18 그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내 집에서 숨을 거둘 것이며, 내 날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누릴 것이다.

29:19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밤새 내 가지 위에 머물며,

29:20 내 영광은 내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내 손의 활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29:21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기다렸으며, 내 조언을 듣고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29:22 내가 말을 마치면 사람들은 다시 덧붙이지 않았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비처럼 내렸기 때문입니다.

29:23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습니다.

29:24 그들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내가 미소를 지어 주었고, 그들은 내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29: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 주고 우두머리로 앉았으니, 군대 가운데 있는 왕처럼,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30장

30: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두기조차 꺼리던 자들입니다.

30:2 기력이 쇠하여 늙어 버린 자들이니, 그들의 손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30:3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수척해져서, 황폐하고 적막한 어둠 속에서 마른 땅을 갉아먹습니다.

30:4 덤불 곁에서 짠맛 나는 나물을 뜯으며, 대싸리 뿌리로 끼니를 잇습니다.

30:5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도둑을 쫓듯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30:6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골짜기와 땅의 굴, 바위틈에서 살아야 합니다.

30:7 그들은 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쐐기풀 아래 모여 웅크립니다.

30:8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이며 이름 없는 천한 자들의 자식으로, 채찍질을 당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30:9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30:10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서슴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30:11 그분께서 그분의 끈을 푸시고 나를 괴롭히셨기에, 그들은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30:12 불량배들이 내 오른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쳐내고, 나를 멸망시킬 공격로를 쌓아 올립니다.

30:13 그들은 내 길을 망쳐 놓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내 파멸을 재촉합니다.

30:14 그들은 무너진 성벽의 넓은 틈으로 들어오듯 밀려오고, 폐허 가운데로 들이닥칩니다.

30:15 공포가 나를 덮치고, 그들이 바람처럼 내 명예를 쫓아버리니, 내 번영은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30:16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녹아내리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30:17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갉아먹는 고통은 쉴 줄을 모릅니다.

30:18 심한 통증으로 내 옷이 일그러져, 겉옷의 깃처럼 내 몸을 죕니다.

30:19 그분께서 나를 진흙탕 속에 던지셨으니, 내가 먼지와 재처럼 되었습니다.

30:20 주님께 부르짖으나 제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제가 일어서 있어도 저를 바라만 보십니다.

30:21 주께서는 제게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30:22 저를 바람 위에 들어 올려 날려 보내시고, 폭풍 속에서 저를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30:23 참으로 저는 주께서 저를 죽음으로, 곧 살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해 정해진 집으로 이끄실 것을 압니다.

30:24 "그러나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30:25 내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 마음에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30:26 내가 좋은 것을 바랐을 때 재앙이 닥쳤고, 빛을 기다렸을 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30:27 내 마음이 요동쳐 쉴 줄 모르고,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습니다.

30:28 나는 햇볕도 없이 슬퍼하며 거닐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30:29 나는 자칼의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벗이 되었습니다.

30:30 내 살갗은 검어져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타들어 갑니다.

30:31 그러므로 내 수금 소리는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 소리는 우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31장

31:1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 처녀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겠는가?

31:2 그렇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은 무엇이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께서 주시는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31:3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요,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아니겠는가?

31:4 그분께서 내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않으신단 말인가?

31:5 만일 내가 거짓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속임수로 급히 달려갔다면,

31:6 (하나님께서 내 온전함을 아시도록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기를 바란다.)

31:7 만일 내 걸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31:8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하시고, 내 밭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게 하십시오.

31: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거나, 내 이웃의 문앞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31:10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맷돌을 돌리게 하시고, 다른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십시오.

31:11 그것은 흉악한 범죄이며, 재판관들에게 처벌받을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31:12 그것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삼켜 버리는 불이며,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입니다.

31:13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다툴 때 내가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면,

31:14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심판하러 찾아오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31:15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그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모태에서 빚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 아니십니까?

31:16 만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바람을 물리쳤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으로 지치게 만들었거나,

31:17 내 빵 한 조각을 혼자만 먹고, 고아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31:18 (아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아는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자랐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때부터 과부를 인도해 주었다.)

31:19 만일 옷이 없어 죽어 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31:20 그가 내 양털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31:21 성문 재판정에 나를 도울 자들이 있음을 보고, 내가 고아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면,

31:22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뼈마디에서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31:23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내게는 두려움이며, 그분의 위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1:24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고,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지할 곳이다'라고 말했다면,

31:25 내 재산이 많다고 기뻐했거나, 내 손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우쭐했다면,

31:26 만일 해가 빛날 때나 달이 찬란하게 떠서 움직일 때 그것을 쳐다보고,

31:27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아 내 손으로 입을 맞추어 경배했다면,

31:28 이 또한 재판관들에게 처벌받을 죄악이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29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파멸을 보고 기뻐했거나, 그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우쭐거렸다면,

31:30 (나는 그의 목숨을 저주하여 내 입으로 죄를 짓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31:31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그가 베푼 고기로 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31:32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나는 길손들에게 내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31:33 만일 내가 아담처럼 내 허물을 가리고, 내 죄악을 품속에 숨겼다면,

31:34 많은 무리가 두렵거나 여러 가문의 멸시가 무서워서, 잠자코 문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면-

31:35 아, 내 말을 들어줄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빈다! 고발자가 나를 칠 고소장을 쓰기를 바란다!

31:36 나는 그것을 분명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두를 것이다.

31:37 나는 내 걸음 수를 그분께 낱낱이 밝히고, 귀족처럼 당당하게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31:38 만일 내 땅이 나를 향해 울부짖고, 밭이랑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면,

31:39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거나, 그 땅의 본래 주인을 죽게 만들었다면,

31:40 밀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자라게 하십시오."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32:1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다.

32:2 그러자 람 가문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에게 몹시 화를 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었다.

32:3 그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는데, 그들이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32:4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2:5 엘리후는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32: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 말했다. "저는 나이가 젊고 여러분은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며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32:7 저는 '나이가 든 이들이 말해야 하고, 오랜 세월을 산 이들이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2:8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32:9 신분이 높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32:10 그러므로 제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32:11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저는 여러분의 말을 기다렸고 여러분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2:12 제가 여러분에게 깊이 주의를 기울였지만, 여러분 가운데 욥을 굴복시키거나 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2:13 여러분은 '우리가 지혜를 찾았으니, 그를 꺾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32:14 그가 저를 향해 말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니, 저도 여러분의 논리로 그에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2:15 "그들은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32:16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32:17 이제 저도 제 몫을 다하여 대답하고, 저 역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32:18 제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고, 제 속의 영이 저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32:19 보십시오, 제 가슴은 숨구멍이 없는 포도주 같아서, 새 가죽부대처럼 터지기 직전입니다.

32:20 제가 입을 열어 말해야 답답함이 풀릴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32:21 저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칭호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32:22 저는 아첨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를 지으신 분께서 저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33장

33:1 "그러니 욥 어르신,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제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3:2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입을 열었고, 제 입안에서 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3:3 제 말은 제 마음의 정직함을 드러낼 것이며, 제 입술은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33:4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33:5 할 수 있다면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제 앞에 말을 정돈하여 맞서 보십시오.

33:6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욥 어르신과 똑같습니다. 저 역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33:7 보십시오, 저를 두려워하여 떨 필요가 없으며, 제 압박이 어르신을 짓누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33:8 "어르신께서는 제가 듣는 데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어르신이 하신 이런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33:9 '나는 깨끗하여 허물이 없고 결백하며 내 안에 죄악이 없다.

33:10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트집을 잡으시고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33:11 그분께서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33:12 "보십시오, 제가 어르신께 대답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어르신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3:13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사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그분과 다투려 하십니까?

33:14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33:15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침상에서 졸 때, 꿈속에서나 밤의 환상 가운데서,

33:16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경고를 단단히 새겨 주십니다.

33:17 이는 사람을 자신의 나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꺾으시려는 것입니다.

33:18 그분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생명이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

33:19 "사람은 또한 침상에서 고통으로 징계를 받고, 뼈마디가 끊임없이 쑤시는 아픔을 겪습니다.

33:20 그래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역겨워하고, 그의 마음은 맛있는 음식조차 싫어하게 됩니다.

33:21 그의 살은 다 말라붙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33:22 그리하여 그의 영혼은 무덤에 가까워지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사자들에게 다가갑니다.

33: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사람 곁에 중재하는 천사로 있어,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일깨워 준다면,

33:24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하여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33:25 그러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젊은 시절의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33:26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33:27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내가 죄를 짓고 바른길을 굽게 하였으나,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33:28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 주셨으니, 내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33:29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하십니다.

33:30 이는 사람의 영혼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시려는 것입니다.

33:31 욥 어르신, 귀담아듣고 제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자코 계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33:32 만일 하실 말씀이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이 옳음을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33:33 만일 없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잠자코 계십시오, 제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34:1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다.

34:2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식이 있는 분들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34:3 입천장이 음식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34:4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봅시다.

34:5 욥은 말하기를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빼앗으셨다.

34:6 내가 옳음에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내게 허물이 없음에도 내 상처는 나을 가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34:7 비웃기를 물 마시듯 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34:8 그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고,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34:9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겨도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34:10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께서는 결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34:11 그분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사람의 행실에 따라 마땅한 결과를 겪게 하십니다.

34:12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께서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34:13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습니까?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세웠습니까?

34:14 만일 그분께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자신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34:15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숨을 거두고,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4:16 "만일 그대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이것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34:17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어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습니까?

34:18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다' 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희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34:19 그분은 고관들의 낯을 보아주지 않으시며, 부유한 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34:20 그들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니 한밤중에도 백성이 흔들리며 사라지고, 권력자들도 사람 손을 대지 않아도 제거됩니다.

34:21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의 모든 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34:22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캄캄한 어둠이나 짙은 그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4:23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재판정에 불러들이기 위해 더 이상 자세히 따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34:24 그분께서는 조사할 필요도 없이 권력자들을 꺾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34:25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꿰뚫어 아시기에 밤사이에 그들을 뒤엎어 멸망시키십니다.

34:26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훤히 보는 곳에서 그들을 악인으로 여겨 치십니다.

34:27 그들이 그분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고, 그분의 길을 전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28 그들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34:29 그분께서 평온을 주실 때 누가 그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누가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에나 한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34:30 이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을 옭아매는 덫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4:31 "누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34:32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34:33 그대가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그대의 뜻대로 갚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그대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니, 알고 있는 바를 말해 보십시오.

34:34 분별력 있는 사람들과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내게 말할 것입니다.

34:35 '욥은 아는 것도 없이 말하고 있으니, 그의 말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34:36 욥이 악인들처럼 대답하였으니, 그가 끝까지 시험받기를 나는 바랍니다.

34:37 그는 자신의 죄에 반역까지 더하고,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슬러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장

35:1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다.

35:2 "그대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35:3 그대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보다 내게 무슨 유익이 더 있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35:4 내가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35:5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대보다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35:6 그대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으며, 그대의 죄악이 늘어난들 그분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35:7 그대가 의롭다 한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35:8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해를 끼칠 뿐이며, 그대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게나 유익이 될 뿐입니다.

35:9 "사람들은 억압이 심하므로 울부짖고,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35:10 하지만 '밤에도 찬가를 주시는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35:11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5:12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 때문에 부르짖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35:13 하나님께서는 헛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께서는 그것에 눈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35:14 하물며 그대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할 때이겠습니까! 소송 사건이 그분 앞에 놓여 있으니, 그대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35:15 그러나 지금은 그분께서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만함을 크게 탓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35:16 욥은 입을 열어 헛된 말을 쏟아내며, 지식도 없이 수많은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36장

36:1 엘리후가 말을 계속 이어갔다.

36:2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36:3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가져와, 나를 지으신 분께 의로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36: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며, 지식이 온전한 사람이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36:5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헤아리는 힘이 무궁하십니다.

36:6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36:7 그분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영원히 왕좌에 앉히셔서 높여 주십니다.

36:8 설령 그들이 쇠사슬에 묶이거나 고난의 줄에 얽매이게 되더라도,

36:9 그분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허물, 곧 그들이 교만하게 굴었던 일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36:10 그분은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고, 악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36: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면 번영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즐거움 속에서 햇수를 누릴 것입니다.

36:12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깨달음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36:13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아 두며, 그분께서 결박하실 때도 도움을 구하여 부르짖지 않습니다.

36:14 그들은 젊은 나이에 죽고, 그들의 목숨은 부정한 자들 틈에서 파멸합니다.

36:1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를 그 고난을 통해 건져내시며, 억압 속에서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십니다.

36:16 그분께서는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아무런 막힘이 없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 하셨고, 그대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을 가득 차려 주려 하셨습니다.

36:17 "그러나 그대는 악인의 판결로 가득 차 있으니,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36:18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6:19 그대의 재산이나 그대가 가진 온갖 막강한 힘이 환난 중에 그대를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36:20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끊겨 나가는 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36:21 주의하십시오. 불의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대는 고난을 받기보다 불의를 택했습니다.

36:22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으로 드높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6:23 누가 그분께 길을 정해 주었으며, 누가 '주님께서 불의를 저지르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6:24 "사람들이 찬양해 온 그분의 일을 높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36:25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것을 봅니다.

36:26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으며, 그분의 햇수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36:27 그분께서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면, 그것이 수증기에서 빗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36:28 구름이 그것을 쏟아내어 사람 위에 풍성하게 빗줄기를 뿌립니다.

36:29 구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분의 장막에서 어떻게 천둥이 치는지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36:30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둘레에 번갯불을 펼치시며, 바다 밑바닥까지 덮으십니다.

36:31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36:32 그분은 번갯불로 두 손을 감싸 쥐시고, 그것에 명하여 표적을 치게 하십니다.

36:33 천둥소리가 그분에 대해 알려 주고, 가축들도 다가오는 폭풍을 알아챕니다."

37장

37:1 "이 때문에 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제자리에서 벗어날 듯합니다.

37:2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우레 같은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37:3 그분은 온 하늘 아래로 그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번갯불을 뻗치십니다.

37:4 그 뒤를 이어 천둥소리가 포효하니, 그분의 위엄 찬 음성으로 우레를 울리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번갯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37:5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으로 우레를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37:6 그분은 눈에게 '땅에 내리라' 명하시고, 소나기와 거센 폭우에게도 그렇게 명하십니다.

37:7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묶어 두셔서, 손수 지으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37:8 그러면 짐승들도 은신처로 들어가 자기 굴에 머뭅니다.

37:9 폭풍은 밀실에서 밀려 나오고, 매서운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옵니다.

37:10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얼고, 넓은 물이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37:11 그분은 짙은 구름에 습기를 가득 실으시고, 번갯불을 품은 구름을 흩뿌리십니다.

37:12 구름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리저리 돌며, 사람이 사는 온 세상 위에서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37:13 징벌을 위해서든, 자신의 땅을 위해서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든 그분은 비구름을 오게 하십니다.

37:14 "욥 어르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37:15 하나님께서 구름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 구름에서 번갯불을 어떻게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37:16 구름이 공중에 어떻게 균형을 잡고 떠 있는지, 지식이 온전하신 분의 기이한 솜씨를 아십니까?

37:17 남풍이 불어 땅이 고요해질 때, 옷이 더워 땀을 흘리는 어르신께서 그것을 아십니까?

37:18 부어 만든 금속 거울처럼 단단한 창공을, 어르신이 그분과 함께 펼쳐 낼 수 있습니까?

37:19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둠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습니다.

37:20 내가 말하겠다는 뜻을 그분께 여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파멸을 자청하여 삼켜지기를 바라겠습니까?

37:21 지금은 하늘에 눈부신 빛이 있어도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며 구름을 걷어냅니다.

37:22 북쪽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습니다.

37:23 우리는 전능자께 다다를 수 없으니, 그분은 권능이 크신 분입니다. 정의와 넘치는 공의 가운데서 그분은 아무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37:2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38장

38:1 그때 주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38:2 "지식도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3 사내답게 단단히 준비해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너는 내게 대답해라!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말해 보아라.

38:5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38:6 그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잇돌은 누가 놓았느냐?

38:7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다.

38:8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38:9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삼고, 짙은 흑암으로 그 포대기를 감싸 주었으며,

38:10 그 경계를 정하고 빗장과 문을 달아 두었다.

38:11 그러고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으나 더는 나아가지 못한다.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38:12 "네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을 내려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준 적이 있느냐?

38:13 그래서 새벽빛이 땅끝을 붙잡고, 악인들을 그 땅에서 털어내게 한 적이 있느냐?

38:14 땅은 도장 밑의 진흙처럼 모양이 바뀌고, 옷처럼 윤곽을 드러낸다.

38:15 악인들에게서는 그들의 빛이 빼앗기고, 치켜든 그들의 팔은 꺾이고 만다.

38:16 "너는 바다 속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바다의 숨은 곳들을 걸어 보았느냐?

38:17 죽음의 문이 네게 드러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38:18 땅의 너비를 네가 다 이해하느냐?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 보아라.

38:19 "빛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38:20 네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38:21 너는 틀림없이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고, 네가 살아온 날수가 아주 많으니 말이다!

38:22 너는 눈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38:23 내가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쌓아 둔 것들이다.

38:24 번갯불이 어느 길로 퍼져 나가며, 샛바람이 어떻게 온 땅에 흩어지느냐?

38:25 누가 쏟아지는 폭우를 위해 수로를 터 주었으며, 번개와 천둥의 길을 내주었느냐?

38:26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38:27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셔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한 이가 누구냐?

38:28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낳은 자가 누구냐?

38:29 얼음은 누구의 모태에서 나왔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8:30 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깊은 바다의 표면이 얼어붙는구나.

38:31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를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자리의 띠를 풀 수 있느냐?

38:32 네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새끼들을 이끌 수 있느냐?

38:33 너는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의 다스림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38:34 "네가 구름을 향해 소리를 높여 많은 비가 너를 덮치게 할 수 있느냐?

38:35 네가 번갯불을 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네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더냐?

38:36 가슴속에 지혜를 넣어 준 이가 누구냐? 마음에 깨달음을 준 이가 누구냐?

38:37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기울여 쏟을 수 있느냐?

38:38 그리하여 티끌이 엉겨 덩어리가 되고, 흙덩이들이 서로 달라붙게 하겠느냐?

38:39 "네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어린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 줄 수 있느냐?

38:40 그것들이 굴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덤불 속에 숨어 엎드려 기다릴 때 말이다.

38:41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헤매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39장

39:1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지켜보느냐?

39:2 그 짐승들이 달수를 다 채우는지 네가 셀 수 있느냐?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때를 아느냐?

39:3 그것들은 몸을 웅크려 새끼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끝낸다.

39:4 그 새끼들은 튼튼해져서 들판에서 자라며, 밖으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39:5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밧줄을 풀어 주었느냐?

39:6 내가 광야를 그 집으로, 소금 땅을 그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

39:7 그것은 성읍의 소란을 비웃고, 몰이꾼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39:8 산줄기가 그 방목지이며, 온갖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39:9 "들소가 기꺼이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네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39:10 네가 밭고랑에 밧줄을 매어 들소를 묶어 둘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39:11 그 힘이 세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네가 할 수고를 그것에게 맡겨 두겠느냐?

39:12 그것이 네 씨앗을 집으로 싣고 오며, 네 타작마당의 곡식을 모아들일 것이라고 믿겠느냐?

39:13 "타조의 날개는 자랑스럽게 퍼덕이지만, 그것이 사랑을 품은 날개깃과 깃털이겠느냐?

39:14 타조는 알들을 땅에 그냥 두고, 흙 속에서 따뜻해지게 둔다.

39:15 누군가의 발이 알을 깨뜨리거나 들짐승이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39:16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매정하게 대하고, 수고가 헛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39:17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지혜를 빼앗으셨고, 그에게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39:18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치며 높이 일어설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비웃는다.

39:19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입혀 주었느냐?

39:20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그 콧김의 위엄은 두렵기까지 하다.

39:21 말은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며 자기 힘을 기뻐하고, 무장한 자들을 맞서러 나아간다.

39:22 두려움을 비웃으며 질리지 않고, 칼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39:23 화살통이 그를 향해 덜거덕거리고, 번쩍이는 창과 투창이 번뜩인다.

39:24 사나움과 격정으로 땅을 삼킬 듯 달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도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

39:25 나팔이 울릴 때마다 '히힝!' 하고 소리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외침 소리를 알아챈다.

39:26 "매가 날아오르고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는 것이 네 지혜 때문이냐?

39:27 독수리가 높이 솟구쳐 오르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 네 명령에 따른 것이냐?

39:28 그것은 벼랑 위에 살며 집을 짓고, 깎아지른 절벽 끝과 요새에 머문다.

39:29 거기서 먹잇감을 살피니, 그 눈이 멀리 있는 것도 꿰뚫어 본다.

39:30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먹으니, 쓰러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40장

40:1 주님께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40: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반박하는 자는 대답하여라."

40:3 그러자 욥이 주님께 대답했다.

40:4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40:5 제가 한 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으나, 더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40:6 그때 주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40:7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어라.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40:8 네가 내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자신을 의롭다 하려고 나를 단죄하겠느냐?

40:9 네게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느냐?

40:10 "이제 위엄과 존귀로 너 자신을 꾸며 보아라. 영광과 장엄함으로 옷을 입어 보아라.

40:11 네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어 보아라. 교만한 자를 모두 쳐다보고 그들을 낮추어 보아라.

40:12 교만한 자를 모두 쳐다보고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40:13 그들을 다 함께 흙 속에 묻어 버리고, 은밀한 곳에 그들의 얼굴을 싸매어 보아라.

40:14 그러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인정하겠다.

40:15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 낸 베헤못을 보아라. 그것은 소처럼 풀을 먹는다.

40:16 보아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힘센 기운은 배 근육에 있다.

40:17 그것은 꼬리를 백향목처럼 휘두르고, 그 넓적다리 힘줄들은 서로 얽혀 있다.

40: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갈비뼈는 쇠막대기 같다.

40:19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신 분께서 그에게 칼을 주셨다.

40:20 참으로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들이 그것을 위해 먹이를 낸다.

40:21 그것은 연꽃 나무 아래에 눕고, 갈대숲과 늪지대의 은신처에 몸을 숨긴다.

40:22 연꽃 나무들이 그늘로 그것을 덮어 주고, 시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40:23 보아라, 강물이 넘쳐흘러도 그것은 떨지 않는다. 요단강 물이 불어나 입에까지 차올라도 태연하다.

40:24 그것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 덫으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41장

41:1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줄로 그 혀를 눌러 맬 수 있겠느냐?

41:2 네가 밧줄을 그 코에 꿸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턱을 꿰뚫을 수 있겠느냐?

41:3 그것이 네게 끊임없이 간청하겠느냐? 네게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겠느냐?

41:4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어, 영원히 네 종이 되겠느냐?

41:5 네가 새를 가지고 놀듯 그것을 데리고 놀겠느냐? 네 어린 딸들을 위해 그것을 끈으로 묶어 두겠느냐?

41:6 어부들이 그것을 두고 흥정하겠느냐? 상인들 사이에 그것을 나누어 팔겠느냐?

41:7 네가 쇠작살로 그 가죽을 채우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41:8 그것 위에 손을 얹어 보아라. 다시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41:9 보아라,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되다. 보기만 해도 쓰러져 꺾이지 않겠느냐?

41:10 그것을 감히 건드릴 만큼 사나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내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

41:11 누가 내게 먼저 주었기에 내가 갚아야 한단 말이냐?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41: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막강한 힘, 그 잘 짜인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41:13 누가 그 겉옷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겹턱 안으로 들어가겠느냐?

41:14 누가 그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 이빨 둘레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41:15 그 빽빽한 비늘들은 그의 자랑이니, 굳게 봉인된 듯 빈틈없이 닫혀 있다.

41:16 비늘들이 서로 너무 바짝 붙어 있어, 그 틈으로 바람조차 들어갈 수 없다.

41:17 비늘들이 서로 맞닿아 달라붙어 있어서, 도무지 떼어 낼 수가 없다.

41:18 그 재채기는 빛을 뿜어내고, 그 눈은 아침 햇살의 눈꺼풀 같다.

41:19 그 입에서는 타오르는 횃불이 뿜어져 나오고, 불티가 튀어 나온다.

41:20 그 콧구멍에서는 갈대로 불을 땐 끓는 솥에서처럼 연기가 솟아난다.

41:21 그 입김은 숯불을 피우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솟구친다.

41:22 그 목에는 힘이 넘쳐흐르고, 공포가 그 앞에서 춤을 춘다.

41:23 그 살점들은 서로 단단히 붙어 있어, 몸에 굳게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41:24 그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니, 참으로 아랫맷돌처럼 단단하다.

41:25 그것이 일어서면 용사들조차 두려워하며, 그것이 몸부림칠 때 당황하여 물러난다.

41:26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힘을 쓰지 못한다.

41:27 그것은 쇠를 짚처럼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41:28 화살도 그것을 도망치게 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와 같다.

41:29 몽둥이도 지푸라기처럼 여기며, 날아드는 투창 소리를 비웃는다.

41:30 그 배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기처럼 자국을 남긴다.

41:31 그것은 깊은 물을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게 하고, 바다를 향기름 솥처럼 만든다.

41:32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번쩍이는 길이 생겨나, 깊은 바다가 백발이 된 것처럼 보인다.

41:33 땅 위에는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으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41:34 그것은 높은 모든 것을 굽어보며,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42장

42:1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했다.

42:2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어떤 뜻도 가로막힐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42:3 주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너무나 놀라워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42:4 주님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2:5 제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42:6 그러므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42:7 주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를 터뜨린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8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9 그리하여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주님께서는 욥을 받아들이셨다.

42:10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욥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가졌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

42:11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온갖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달래 주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에게 돈 한 닢씩을 주고, 각자 금반지 하나씩을 주었다.

42:12 주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리하여 욥은 양 만 사천 마리, 낙타 육천 마리, 소 천 쌍, 암나귀 천 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42:13 그에게는 또한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생겼다.

42:14 그는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불렀고, 둘째 딸의 이름을 긋시아라 불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을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42:15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남자 형제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42:16 이 일이 있은 뒤에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며 자손을 사 대까지 보았다.

42:17 그리하여 욥은 나이가 많고 삶을 누릴 만큼 다 누린 뒤에 죽었다.

시편

1장

1:1 악한 이들의 조언을 따라 걷지 않고, 죄짓는 이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비웃는 이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2 그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1:3 그는 물줄기 곁에 심겨 제철에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될 것이다.

1:4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바람에 날려 가는 겨와 같다.

1:5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죄짓는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서지 못할 것이다.

1:6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아신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길은 끝내 망할 것이다.

2장

2:1 민족들은 왜 분노하고, 백성들은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2:2 땅의 왕들이 들고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의하며, 주님과 그분께 기름부음 받은 이를 대적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2:3 "그들의 결박을 끊어 버리고, 우리를 묶은 그들의 줄을 던져 버리자."

2:4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웃으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2:5 그때 그분은 분노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노로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다.

2:6 "그러나 나는 내 거룩한 언덕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2:7 나는 그 명령을 전하겠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2:8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네 유산으로 주고,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네 소유로 주겠다.

2:9 너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부수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처럼 산산조각 낼 것이다."

2:10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땅의 재판관들아, 가르침을 받아라.

2:11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떨면서 기뻐하여라.

2:12 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라. 그가 노하여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의 진노가 곧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3장

3:1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시. 주님, 저를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많은 사람이 저를 거슬러 일어납니다.

3:2 많은 사람이 제 영혼을 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3:3 그러나 주님은 저를 둘러싼 방패이시며, 제 영광이시고, 제 고개를 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3:4 저는 소리 내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언덕에서 제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3:5 저는 누워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6 저를 대적하려고 사방에 자리 잡은 수만 명의 사람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3:7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 모든 원수의 광대뼈를 치시고, 악한 사람들의 이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3:8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이 주님의 백성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셀라.

4장

4:1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기 반주로. 다윗의 시. 저의 옳음을 밝혀 주시는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4:2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이 수치로 바뀌어야 하느냐? 너희는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으려느냐? 셀라.

4:3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실 것이다.

4:4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가만히 있어라. 셀라.

4:5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라.

4:6 많은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 주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4:7 주님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늘어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4:8 저는 평안히 누워 잠들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

5:1 지휘자를 위하여. 피리 반주로. 다윗의 시. 주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깊이 되새기는 생각을 헤아려 주십시오.

5:2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부르짖는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5:3 주님, 아침이면 제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제 간청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5:4 주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5:5 거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5:6 주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혐오하십니다.

5:7 하지만 저는 주님의 풍성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절하겠습니다.

5:8 주님, 저에게 원수들이 있으니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제 앞에 곧게 펴 주십시오.

5:9 그들의 입에는 진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파멸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은 혀로 아첨합니다.

5:10 하나님,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때문에 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많은 죄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5:11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언제나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5:12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호의로 그를 방패처럼 둘러싸 주실 것입니다.

6장

6: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추어 여덟 줄 수금에 얹은 노래, 다윗의 시. 주님, 주님의 분노로 저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저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6:2 주님, 제가 쇠약해졌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 뼈가 떨리오니 저를 고쳐 주십시오.

6:3 제 영혼도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6:4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건져 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6:5 죽음 속에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6:6 제가 탄식하느라 지쳤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잠자리를 적십니다.

6:7 슬픔 때문에 제 눈이 쇠약해졌고, 제 모든 원수들 때문에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6:8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6:9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다.

6:1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몹시 떨며, 물러나 갑자기 수치를 당할 것이다.

7장

7:1 다윗의 식가욘,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 때문에 주님께 부른 노래. 주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저를 뒤쫓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해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7:2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이 사자처럼 제 목숨을 찢고 산산조각 낼까 두렵습니다.

7:3 주 저의 하나님, 제가 만일 이런 일을 행했거나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7:4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사람을 약탈했다면,

7:5 원수가 제 목숨을 뒤쫓아 붙잡게 하시고, 제 생명을 땅에 짓밟으며 제 영광을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게 하십시오. 셀라.

7:6 주님, 분노 가운데 일어나 주십시오. 제 대적들의 광포함에 맞서 주님 자신을 높여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깨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7:7 뭇 민족의 무리가 주님을 둘러싸게 하시고, 그들 위의 높은 곳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7:8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저의 의로움과 제 안에 있는 온전함을 따라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7:9 악인의 악을 끝내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 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7:10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7:11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12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실 것이니, 이미 활을 당겨 메겨 두셨다.

7:13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죽음의 무기를 마련하셨고, 불화살들을 준비해 두셨다.

7:14 보라, 악인이 죄악을 품고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다.

7:15 그가 구덩이를 깊이 파더니, 자기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7:16 그가 일으킨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폭력은 자기 정수리로 내려앉을 것이다.

7:17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8장

8:1 지휘자에게. 가드의 악기에 맞추어. 다윗의 시.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8:2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시려고, 대적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로 힘을 세우셨습니다.

8:3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달과 별들을 제가 바라볼 때,

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8:5 주님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8:6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8:7 곧 모든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들의 짐승들이며,

8:8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닷길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8:9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합니까!

9장

9:1 지휘자를 위한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이다.

9:2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9:3 내 원수들이 뒤돌아설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9:4 주님께서 저의 정당한 소송을 변호해 주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9:5 주님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지워버리셨습니다.

9:6 원수는 영원한 폐허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읍들은 그 기억조차 사라졌습니다.

9:7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보좌를 마련해 두셨다.

9:8 그분은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함으로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9:9 주님은 짓밟히는 사람의 요새이시며, 고난의 때에 피할 높은 요새이시다.

9:10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이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9:11 시온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라.

9:12 피 흘림을 갚아주시는 분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고통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9:13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제 고통을 살펴보시고, 저를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9:14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모든 찬양을 전하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9:15 민족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고, 숨겨 둔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9:16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심판을 행하셨으니,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혀들었다. 힉가욘. 셀라.

9:17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될 것이다.

9:18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며, 짓눌린 사람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9:19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9:20 주님,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십시오.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셀라.

10장

10:1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몸을 숨기십니까?

10:2 악인이 오만하여 힘없는 사람을 거칠게 뒤쫓으니, 악인들은 자기가 꾸민 계략에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10:3 악인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축복하며 주님을 멸시합니다.

10:4 악인은 얼굴에 교만을 띠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0:5 그의 길은 언제나 평안하며, 주님의 법은 너무 높아 그의 눈앞에 닿지 않으니, 그는 자기의 모든 적을 비웃습니다.

10:6 그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10:7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0:8 그는 마을 근처에 숨어 엎드려 무죄한 사람을 몰래 죽이고, 그의 눈은 무력한 사람을 남몰래 노려봅니다.

10:9 그는 자기 굴에 웅크린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며, 힘없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그물로 끌어들여 낚아챕니다.

10:10 무력한 사람이 짓눌리고 엎드러지며, 악인의 억센 힘에 쓰러집니다.

10:11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10:12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10: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10:14 그러나 주님께서는 괴로움과 슬픔을 살피시며, 그것을 직접 주님의 손으로 갚으려고 지켜보십니다. 희생자와 고아가 주님께 의지하니, 주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15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한 사람의 악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철저히 찾아내어 주십시오.

10:16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민족들이 주님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10:17 주님,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실 것이며,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10:18 고아와 짓눌린 사람을 위해 공정하게 판결하시어, 흙에서 난 사람이 다시는 세상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장

11: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내가 주님께 피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너의 산으로 날아가라"고 말하느냐?

11: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메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하고 있다.

11:3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11:4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분의 눈이 살피시며, 그분의 눈길이 사람의 자손들을 시험하신다.

11:5 주님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11:6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타는 숯을 비처럼 내리실 것이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이 마실 잔의 몫이 될 것이다.

11:7 주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12장

12:1 지휘자를 위한 여덟 줄 수금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2:2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12:3 주님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2:4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는 혀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다스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합니다.

12:5 "힘없는 이들의 짓밟힘과 가난한 이들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헐뜯는 자들에게서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2:6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니,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정제한 은과 같다.

12:7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며, 이 세대로부터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2:8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서 비열한 짓이 칭송을 받을 때, 악인들이 사방에서 날뜁니다.

13장

13: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렵니까?

13:2 언제까지 제가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날마다 마음에 슬픔을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억누르며 우쭐대어야 합니까?

13:3 주 저의 하나님, 저를 굽어살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13:4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3:5 그러나 저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며, 제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13:6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찬양 노래를 부를 것이다.

14장

14: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4:2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살피시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다.

14:3 그들이 다 곁길로 가 함께 부패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하나도 없다.

14: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14:5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4:6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14: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 된 처지를 되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15장

15:1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습니까?

15:2 흠 없이 살아가며 의를 행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15:3 그는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

15:4 그의 눈은 비열한 자를 멸시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존경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맹세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

15:5 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6장

16:1 다윗의 믹담.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16:2 내 영혼아, 네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저의 주님이시니, 주님 밖에는 제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16: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이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16: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자들은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16:5 주님은 내 몫의 몫과 내 잔의 분깃이시니, 주님께서 제 몫을 지켜 주십니다.

16:6 내게 줄로 그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주어졌다.

16:7 나에게 조언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겠다. 참으로 밤마다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친다.

16:8 내가 주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셨으니,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6:9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16:10 주님께서 제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11 주님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실 것이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17장

17:1 다윗의 기도. 주님, 저의 의로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7:2 주님 앞에서 저를 향한 판결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공정함을 굽어살펴 주십시오.

17:3 주님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단련하셨으나 아무 흠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제 입이 법을 어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7:4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제가 폭력적인 자들의 길을 멀리했습니다.

17:5 제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켰고, 제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17:6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므로 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제게 귀를 기울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17:7 주님의 오른손으로 피하는 이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17:8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십시오.

17:9 저를 억압하는 악인들과, 저를 둘러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7:10 그들은 기름진 마음을 굳게 닫았고, 입으로는 오만하게 말합니다.

17:11 그들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에워싸고, 우리를 땅에 쓰러뜨리려고 눈을 번뜩입니다.

17:12 그는 먹잇감을 탐내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웅크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17:13 주님, 일어나 그에게 맞서 주시고, 그를 쓰러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제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17:14 주님, 주님의 손으로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 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의 배를 채워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배부르며 남은 재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하십니다.

17:15 그러나 저는 의로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며,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을 뵙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18장

18: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주님의 종 다윗의 시.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주님께 아뢰어 이르기를, "나의 힘이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였다.

18:2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높은 요새이시다.

18:3 내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을 부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8:4 죽음의 줄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18:5 스올의 줄이 나를 둘러치고, 죽음의 덫이 내게 닥쳤다.

18:6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분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분 앞에서의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이르렀다.

18:7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렸으며, 산들의 기초도 요동치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18:8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 삼키는 불이 뿜어져 나와 숯불이 그것에 피어올랐다.

18:9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이시고 내려오시니, 짙은 어둠이 그분의 발아래에 깔려 있었다.

18:10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가셨으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솟구치셨다.

18:11 어둠을 은밀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물의 짙은 어둠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사방의 장막을 두르셨다.

18:12 그분 앞에 비치는 광채로 말미암아 짙은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숯불이 쏟아졌다.

18:13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

18:14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셨고, 큰 번개로 그들을 궤멸시키셨다.

18:15 주님, 주님의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콧김 소리로 말미암아 물의 물길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18:16 그분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8:17 그분께서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18:18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내게 들이닥쳤으나, 주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

18:19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구해주셨다.

18:20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따라 내게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18:21 내가 주님의 길을 지켰고, 악을 행하여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22 그분의 모든 법규가 내 앞에 있었고, 그분의 규례를 내가 멀리하지 않았다.

18:23 나 또한 그분 앞에서 흠이 없었으며,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켰다.

18:24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18:25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시며,

18:26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약삭빠르게 대하십니다.

18:27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28 주님께서 정녕 제 등불을 켜 주시니, 주 저의 하나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18:29 제가 주님을 힘입어 적군을 향해 내달리며, 저의 하나님을 힘입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18:30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며, 주님의 말씀은 단련을 거친 말씀이니,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이시다.

18:31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18:32 하나님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시며, 내 길을 온전하게 만드신다.

18:33 그분께서 내 발을 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굳게 세우신다.

18:34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

18:35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으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저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8:36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넓혀 주셨으므로, 제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18:37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 따라잡을 것이며, 그들을 다 멸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18:38 내가 그들을 찔러 쓰러뜨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발아래 엎드러질 것이다.

18:39 주님께서 전쟁을 위하여 저를 힘으로 무장시키셨고, 저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18:40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셨으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렸다.

18:41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주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않으셨다.

18:42 내가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잘게 부수었고, 거리의 진흙처럼 내버렸다.

18:43 주님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저를 건져내셨고, 뭇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워 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18:44 그들이 내 소문을 듣자마자 내게 복종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18:45 이방인들은 기운을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올 것이다.

18:46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을 찬양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라.

18:47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고, 뭇 백성을 내 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시다.

18:48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시고, 폭력적인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십니다.

18:49 그러므로 주님, 내가 뭇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 노래할 것입니다.

18:50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신다.

19장

19: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넓은 공간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19:2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19:3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19:4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위하여 장막을 치셨으니,

19: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다.

19:6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돌아가니, 그 열기에서 벗어나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9:7 주님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언약은 확실하여 어수룩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19:8 주님의 교훈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 준다.

19:9 주님을 경외함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참되어 다 의롭다.

19:10 그것들은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보다, 꿀송이에서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

19:11 더욱이 주님의 종이 그것들로 경고를 받고,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큰 상을 받습니다.

19:12 자기 허물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숨은 잘못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9:13 주님의 종을 오만한 죄에서 지켜 주셔서, 그 죄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온전하여져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 흠이 없을 것입니다.

19: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장

20: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 성소에서 왕에게 도움을 보내 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 왕의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고, 왕의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20:4 그분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5 우리가 왕의 구원을 기뻐하며 소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6 이제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하늘에서 오른손의 구원하는 권능으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20:7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20:8 그들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지만, 우리는 일어나 꼿꼿이 서 있습니다.

20:9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21: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주님, 왕이 주님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그가 어찌 그리 크게 즐거워합니까!

21:2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21:3 주님께서 그를 좋은 복으로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21:4 그가 주님께 생명을 구하자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 영원무궁토록 이어질 날들의 길이입니다.

21:5 주님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이 크고, 주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21:6 주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만드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해 주십니다.

21:7 왕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1:8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21:9 왕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풀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21:10 왕께서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21:11 그들이 왕을 해치려고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몄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1:12 왕께서 당긴 활을 그들의 얼굴을 향해 겨누실 때, 왕께서 그들을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21:13 주님, 주님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22장

22:1 지휘자에게. "새벽의 암사슴"에 맞추어.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돕지 않으시고, 저의 신음 소리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22:2 나의 하나님, 제가 낮에도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잠잠하지 못합니다.

22:3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22:4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22:5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22:6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22:7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저를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고 말합니다.

22:8 "그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라지. 주님이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해 주시라지."

22:9 그러나 주님은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며, 제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22:10 제가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맡겨졌고,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부터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2:11 고난이 가깝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22:12 수많은 황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22:13 먹잇감을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들이 저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립니다.

22:14 저는 물처럼 쏟아졌고, 제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제 마음은 밀랍 같아서 제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22:15 제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제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죽음의 흙먼지 속에 두셨습니다.

22:16 개들이 저를 에워쌌고 악한 자들의 무리가 저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제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22:17 제가 제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인데, 그들이 저를 바라보고 빤히 쳐다봅니다.

22:18 그들은 제 옷들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제 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22:19 그러나 주님,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서둘러 저를 도와주십시오!

22:20 칼에서 제 목숨을 건져 주시고, 개의 세력에서 제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22:21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22:22 저는 주님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2:23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후손 여러분,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22:24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으셨고,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2:25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제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22:26 겸손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22:27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뭇 민족의 모든 가문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22:28 나라가 주님의 것이며, 그분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2:29 땅의 모든 부유한 사람이 먹고 예배할 것입니다. 흙먼지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 자기 목숨을 살려 두지 못하는 사람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22:30 후손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것입니다.

22:31 그들이 와서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3장

23:1 다윗의 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23:2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

23:3 주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23:4 제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안심시켜 줍니다.

23:5 주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23:6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24장

24:1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의 것이다.

24:2 주님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물줄기들 위에 땅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24: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24:4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속여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24:5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24:6 이들이 바로 주님을 찾는 세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백성이다. 셀라.

24: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24:8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힘세고 강하신 주님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다.

24: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높이 들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24: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25장

25:1 다윗의 시.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25:2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했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5:3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25:4 주님, 주님의 길들을 내게 보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25:5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온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25:6 주님, 옛적부터 이어져 온 주님의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25:7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25:8 주님은 선하시고 올곧으시니,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25:9 겸손한 사람을 정의로 인도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25:10 주님의 모든 길은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이다.

25:11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25:12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그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25: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머물고, 그의 자손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25:14 주님의 친밀한 우정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알려 주실 것이다.

25:15 내 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5:16 내게 돌아서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25:17 내 마음의 고뇌가 번져 가니, 부디 나를 괴로움 가운데서 이끌어 내 주십시오.

25:18 내 고통과 수고를 살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5:19 내 원수들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지독한 증오로 나를 미워합니다.

25:20 부디 제 영혼을 지켜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하니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5:21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25:22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26장

26:1 다윗의 시. 주님, 내가 온전하게 살아왔으니 나를 판결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26:2 주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뜻을 단련해 주십시오.

26: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눈앞에 있어,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왔습니다.

26:4 나는 거짓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고,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26:5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을 미워하며,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26:6 주님,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며

26:7 감사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들려주고,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26:8 주님, 나는 주님께서 머무시는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를 사랑합니다.

26:9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목숨을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26:10 그들의 손에는 사악한 음모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6:11 그러나 나는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니, 나를 건져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6:12 내 발이 평평한 곳에 서 있으니,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7장

27:1 다윗의 시.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27:2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 달려들었을 때, 바로 내 대적들과 원수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27:3 군대가 나를 치려고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27:4 내가 주님께 부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27:5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초막에 은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7: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높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7:7 주님, 내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27:8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27:9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분노하여 주님의 종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27:10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27:11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들이 보고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27:12 나를 내 대적들의 욕망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거짓 증인들과 잔혹한 독기를 내뿜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27:13 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27:14 주님을 기다려라. 힘을 내고 마음에 용기를 가져라. 참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28장

28:1 다윗의 시.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바위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아질까 두렵습니다.

28:2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내 간구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8:3 악인들과 함께,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해악을 품고 있습니다.

28:4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으로 빚어낸 일대로 갚아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돌려주십시오.

28:5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이루신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28:6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8:7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28:8 주님은 자기 백성의 힘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28:9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유산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떠받쳐 주십시오.

29장

29:1 다윗의 시. 권능 있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라. 영광과 힘을 주님께 돌려라.

29:2 주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광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여라.

29:3 주님의 목소리가 물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내시니, 곧 많은 물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29:4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넘치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으로 가득하다.

29:5 주님의 목소리가 백향목을 부러뜨리시니, 참으로 주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신다.

29:6 주님께서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리온을 들소 새끼처럼 뛰게 하신다.

29:7 주님의 목소리가 번갯불을 쪼개신다.

29:8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뒤흔드시니,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29:9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라 새끼 낳게 하고, 숲을 말끔히 벗겨 내신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든 이가 "영광!" 하고 외친다.

29:10 주님께서 홍수 위에 보좌를 두고 앉으셨으니, 참으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신다.

29:11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실 것이다.

30장

30:1 시. 성전 봉헌가. 다윗의 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30:2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30:3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30:4 주님의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여라.

30:5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다. 밤에는 울음이 머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

30:6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30:7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 산을 굳게 세워 주셨으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0:8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께 간구했습니다.

30:9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 멸망한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30:10 주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30:11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 띠워 주셨습니다.

30:12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31장

31:1 지휘자에게. 다윗의 시.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해 주십시오.

31:2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할 든든한 바위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31:3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31:4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31:5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31:6 나는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31:7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고난을 보셨고 역경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31:8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31:9 주님,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슬픔으로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31:10 내 생명은 슬픔으로 다하였고, 내 세월은 탄식으로 지나갔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31:11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나는 이웃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되었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길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31:12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혔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31:13 사방에서 몰려오는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이 헐뜯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의하며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31:14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31:15 내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31:16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31:17 주님,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31:18 교만과 멸시로 의인을 거슬러 오만하게 말하는 거짓된 입술을 틀어막아 주십시오.

31:19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쌓아 두신 주님의 선하심, 주님께 피하는 이들을 위해 인생들 앞에서 베푸신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31:20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빛이 머무는 은밀한 곳에 그들을 사람들의 음모로부터 숨겨 주시고, 혀들의 다툼을 피해 안전한 거처에 그들을 숨겨 주실 것입니다.

31:21 주님을 찬양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31:22 내가 당황하여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끊어졌다" 하고 말했으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31:23 주님의 모든 성도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지켜 주시지만, 거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31:24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너희 마음에 용기를 가져라.

32장

32:1 다윗의 시. 묵상시.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덮인 사람은 복이 있다.

32:2 주님께서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32:3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밝히지 않았을 때, 온종일 신음하느라 내 뼈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32:4 밤낮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내 기력이 여름철 가뭄에 마르듯 쇠진했기 때문입니다. 셀라.

32:5 내가 내 죄를 주님께 털어놓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겠다" 하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32:6 이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센 물결이 넘쳐흐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32:7 주님은 나의 숨는 곳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며, 구원의 노랫소리로 나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셀라.

32:8 "내가 너를 교훈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겠다. 내 눈을 네게 두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32:9 너희는 지각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네게 다가오지 않는다.

32: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닥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둘러쌀 것이다.

32:1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33장

33: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아라! 올곧은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33:2 수금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열 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33:3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솜씨 있게 연주하여라!

33:4 주님의 말씀은 올바르며, 주님의 모든 일은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3:5 주님은 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온 땅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33: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지어졌고, 하늘의 모든 별 무리가 주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졌다.

33:7 주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언덕처럼 쌓으시며, 깊은 물들을 창고에 모아 두신다.

33:8 온 땅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주민은 주님을 경외하여라.

33:9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굳게 섰기 때문이다.

33:10 주님께서 뭇 나라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여러 민족들의 생각을 헛되게 하신다.

33:11 주님의 뜻은 영원히 확고하게 서고, 그 마음의 생각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33:12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주님께서 자신의 유산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33:13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신다.

33:14 주님께서는 자신이 머무시는 처소에서 땅의 모든 주민을 내려다보신다.

33:15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33:16 군대가 많다고 구원받는 왕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33:17 군마는 안전을 지키는 데 헛된 것이며, 힘이 세다고 사람을 구해 내지 못한다.

33:18 보라,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향하여,

33:19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 두신다.

33:20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십니다.

33:21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33:22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34장

34:1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 떠나갈 때 지은 시.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내 입에 있을 것이다.

34:2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34:3 나와 함께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34:4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34:5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빛이 났으니, 그들의 얼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34:6 이 가련한 사람이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34:7 주님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34:8 너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34:9 주님의 성도들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34:10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34:11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34:12 생명을 원하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34:13 네 혀를 악에서 지키고, 네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라.

34:14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여라.

34:15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34:16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맞서시어,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 버리신다.

34:17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34:18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꺾인 사람을 구원하신다.

34:19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신다.

34:20 주님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켜 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34: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34:22 주님께서 자기 종들의 영혼을 건져 주시니,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35장

35:1 다윗의 시. 주님, 나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 주십시오.

35:2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35:3 창을 빼 드시고 나를 뒤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35:4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겪게 해 주십시오.

35:5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몰아내어, 그들이 바람 앞의 겨와 같게 해 주십시오.

35:6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쫓으니,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해 주십시오.

35:7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에 그물을 숨겼고, 까닭 없이 내 목숨을 노려 구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35:8 파멸이 뜻밖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겨 둔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게 하시며, 그 파멸 속으로 그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35:9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35:10 내 모든 뼈가 외칠 것입니다. "주님, 힘센 자에게서 가련한 사람을 건지시고, 약탈하는 자에게서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35:11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게 캐묻습니다.

35:12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고 황량하게 만듭니다.

35:13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5:14 나는 마치 내 친구나 형제를 대하듯 슬퍼하며 다녔고,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고 애통해했습니다.

35:15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멈추지 않고 나를 물어뜯었습니다.

35:16 잔치 자리에서 거만하게 조롱하는 자들처럼, 그들은 나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35:17 주여,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들의 파멸에서 건져 주시고, 내 하나뿐인 목숨을 사자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35:18 내가 큰 모임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5:19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된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5:20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슬러 속임수의 말을 꾸며냅니다.

35:21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아하!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고 외칩니다.

35:22 주님,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35:23 나의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다투어 주십시오!

35:24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내 옳고 그름을 가려 주시고,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5:25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하! 바로 우리가 원하던 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5:26 내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거슬러 우쭐대는 자들이 수치와 불명예의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35:27 제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인정하는 이들이 기뻐 소리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35:28 내 혀가 온종일 주님의 의를 말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36장

36: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주님의 종 다윗의 시. 악인의 불순종에 관하여 내 마음에 떠오른 깨달음이 있으니,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36:2 그는 자기 눈으로 스스로를 치켜세우느라, 자기 죄악을 찾아내어 미워하지 못한다.

36: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뿐이며,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36:4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죄악을 꾸미며, 좋지 못한 길에 자신을 두고 악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36:5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36:6 주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높은 산들과 같고, 주님의 판결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돌보아 살려 주십니다.

36:7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요! 인생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36: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즐거움의 강에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36:9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볼 것입니다.

36:10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36:11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6:12 보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거꾸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37장

37:1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37:2 그들은 풀처럼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37:3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머물며 안전한 풀밭을 누려라.

37:4 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들어주실 것이다.

37:5 네 길을 주님께 맡겨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37:6 주님께서 네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고, 네 정의를 한낮의 햇빛처럼 밝히실 것이다.

37:7 주님 안에서 잠잠히 쉬며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라. 제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이나 악한 음모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안달하지 마라.

37:8 화를 멈추고 분노를 버려라. 안달하지 마라. 그것은 오직 악을 행하는 길로 이끌 뿐이다.

37:9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37:10 잠깐만 지나면 악인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네가 그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그는 거기에 없을 것이다.

37:11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고, 넘치는 평화 속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37:12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간다.

37:13 그러나 주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37:14 악인들이 칼을 빼 들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바른길을 걷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

37:15 그러나 그들의 칼은 그들 자신의 심장을 찌를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37:16 의인이 가진 적은 소유가 수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37:17 악인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37:18 주님께서는 흠 없는 사람들의 날들을 알고 계시니, 그들의 유산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37:19 재앙의 때에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에도 배부를 것이다.

37:20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풀밭의 아름다움 같아서, 사라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37:21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37:22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37:23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니, 주님께서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37:24 비록 그가 비틀거릴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37:25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녀들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7:26 그는 온종일 너그럽게 베풀고 빌려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37: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평안히 살 것이다.

37:28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겠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37:29 의인은 땅을 물려받아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37:30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이야기한다.

37:31 그의 마음에는 자기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37:32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찾는다.

37:33 주님께서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37:34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길을 지켜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높여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끊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37:35 내가 악인이 큰 세력을 떨치며 제 땅에 뿌리박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았다.

37:36 그러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더 이상 없었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37:37 온전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올곧은 사람을 살펴보아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37:38 그러나 범죄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고 말 것이다.

37:39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환난의 때에 주님은 그들의 요새이시다.

37:40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신다. 그들이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인들에게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신다.

38장

38:1 다윗의 시, 기념하기 위한 시. 주님, 주님의 진노 속에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38:2 주님의 화살들이 나를 깊이 찔렀고,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38:3 주님의 분노 때문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38:4 내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쳐나 무거운 짐처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38:5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가 곪아 악취를 풍깁니다.

38:6 내가 고통스러워 몹시 굽어졌으며 온종일 슬퍼하며 돌아다닙니다.

38:7 내 허리가 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있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38:8 내가 기력이 쇠하고 심하게 짓밟혔으며,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였습니다.

38:9 주여, 내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으며, 나의 신음 소리도 주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38:10 내 심장이 요동치고 힘이 빠져나가며, 내 눈의 빛조차 나를 떠났습니다.

38:11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 친구들은 내 재앙을 보고 멀리 서 있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38:12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덫을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해로운 말을 하며 온종일 거짓을 꾸밉니다.

38:13 그러나 나는 귀먹은 사람 같아서 듣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말 못 하는 사람 같습니다.

38:14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서 입에 아무런 반박도 담지 못합니다.

38:15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니,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38:16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38:17 내가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고 내 고통이 늘 내 앞에 있습니다.

38:18 내가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38:19 그러나 내 원수들은 기운이 넘치고 강하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38:20 내가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를 대적합니다.

38:21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38:22 서둘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원이신 주여.

39장

39:1 지휘자에게. 여두둔에게. 다윗의 시. 내가 말하였다. "내가 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길을 조심하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지키겠다."

39:2 나는 묵묵히 침묵을 지켰으며, 좋은 말조차 삼갔으나 내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39:3 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깊이 생각하는 동안 불길이 타올라 내가 혀로 말하였다.

39:4 "주님, 내 종말을, 내 날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39:5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날을 한 뼘 너비만큼 만드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서 있는 모든 사람도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39:6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림자처럼 걸어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분주합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그것을 거두어 갈지 알지 못합니다.

39:7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주께 있습니다.

39:8 내 모든 죄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어리석은 자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39:9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에 내가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39:10 주님의 채찍질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맞아 내가 기진맥진하였습니다.

39:11 주께서 죄악 때문에 사람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 좀벌레처럼 그 귀한 것을 삼키십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한낱 숨결에 불과합니다." 셀라.

39:12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곁에 머무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39:13 내가 떠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전에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내가 기력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40장

40:1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시. 내가 주님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로 돌아서시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40:2 주께서 나를 끔찍한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건져 올리셨다.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굳건하게 하셨다.

40:3 주께서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두셨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40:4 주님을 신뢰하고 교만한 자들이나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40:5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많아 주께 다 아뢸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말하려 해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40:6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고 내 귀를 뚫어 열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40:7 그때 내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8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40:9 내가 큰 모임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시듯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40:10 내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 두지 않았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40:11 주님, 주님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언제나 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40:12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덮쳐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13 주님, 기꺼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서둘러 나를 도와주십시오.

40: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다 함께 실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내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나 망신을 당하게 하십시오.

40:15 나를 향해 "아하! 아하!" 하고 외치는 자들이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황폐해지게 하십시오.

40:16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40:17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41장

41:1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재앙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41:2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려 두실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를 원수들의 뜻에 내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41:3 주님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며 그가 앓아누운 자리를 다 고쳐 주실 것이다.

41:4 내가 말하였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고쳐 주십시오."

41:5 내 원수들이 나를 거슬러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질까?" 합니다.

41:6 누군가 나를 보러 오면 헛된 말을 늘어놓고,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모았다가 밖으로 나가 그것을 퍼뜨립니다.

41:7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향해 최악의 음모를 꾸밉니다.

41:8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달라붙었으니, 그가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41:9 참으로 내가 신뢰하던 가장 친한 친구, 나와 함께 빵을 먹던 자마저 나를 짓밟으려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41:10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갚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41: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써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내가 압니다.

41:12 주께서는 온전함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41: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42장

42:1 지휘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묵상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42: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42:3 사람들이 나에게 온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동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42:4 명절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 속에서 내 영혼을 쏟아붓습니다.

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얼굴빛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42:6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강 땅과 헤르몬의 능선들과 미살 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42:7 주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42:8 낮에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어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다.

42:9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여쭐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42:10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여 온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습니다.

42: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43장

43:1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대적하여 내 소송을 이끌어 주십시오. 속이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43:2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슬퍼하며 다녀야 합니까?

43:3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의 장막으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43:4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내 구원자이시요 내 도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44장

44:1 지휘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묵상시.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44:2 주께서 친히 손으로 뭇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뭇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조상들을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44: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며 자기 팔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빛이 행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44:4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해 주십시오!

44:5 우리가 주를 힘입어 우리 대적들을 밀어내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나는 자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44: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44:7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44:8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셀라.

44: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십니다.

44:10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적 앞에서 등을 돌려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약탈하였습니다.

44: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여러 민족 사이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44:12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으나 그들을 파신 값으로 얻으신 이익도 없습니다.

44:13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44:14 주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뭇 백성들 사이에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44:15 내 불명예가 온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44:16 나를 헐뜯고 모욕하는 자의 소리 때문이며 원수와 복수자 때문입니다.

44: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44:18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44:19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들의 소굴에서 우리를 짓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44:20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다른 신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면,

44:21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44:22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44:23 깨어나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44:24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억압을 잊으십니까?

44:25 우리 영혼은 흙먼지 속에 엎드러졌고 우리 몸은 땅에 달라붙었습니다.

44:26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45장

45:1 지휘자를 위한 "백합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묵상시, 혼인 노래. 내 마음이 고귀한 주제로 넘쳐흘러 내가 왕을 위하여 지은 시를 읊으니, 내 혀는 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과 같습니다.

45:2 왕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빼어나시며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습니다.

45:3 용사여, 왕의 영화와 위엄 속에서 왕의 허벅지에 칼을 차십시오.

45:4 왕의 위엄을 갖추고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왕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45:5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뭇 백성들이 왕의 발아래 쓰러지며, 그 화살들이 왕의 원수들의 염통을 꿰뚫습니다.

45:6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공평의 규가 주님의 나라의 규입니다.

45:7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셨기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동료들보다 더 넘치게 기쁨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습니다.

45:8 왕의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 향기가 나며, 상아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 소리가 왕을 기쁘게 합니다.

45:9 왕이 귀하게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의 오른편에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습니다.

45:10 딸이여, 듣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라.

45:11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탐낼 것이니, 그분은 너의 주인이시므로 그분을 공경하여라.

45:12 두로의 딸이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너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45:13 궁궐 안의 왕녀는 온통 영화로우며,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져 있다.

45:14 그녀가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그 뒤를 따르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올 것이다.

45:15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려 가 왕의 궁궐로 들어갈 것이다.

45:16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의 뒤를 이을 것이며, 왕께서는 그들을 온 땅의 군왕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45:17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대대에 기억되게 하겠으니, 그러므로 뭇 백성이 영원무궁토록 왕께 감사할 것입니다.

46장

46:1 지휘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시,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시다.

46:2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들이 흔들려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46:3 바닷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일으키고 그 넘쳐남으로 산들이 떨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셀라.

46:4 한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장막을 기쁘게 한다.

46:5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도우실 것이다.

46:6 뭇 나라가 날뛰고 왕국들이 흔들렸으나,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렸다.

46:7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46:8 와서 주님의 행적을 보아라. 주께서 땅에 이루신 황폐함을 보아라.

46:9 주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며 창을 부러뜨리시고 병거를 불사르신다.

46:10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내가 뭇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46:11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47장

47:1 지휘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시.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환호성을 질러라!

47:2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47:3 주께서 뭇 민족들을 우리 아래 복종시키시고, 뭇 백성들을 우리 발아래 두신다.

47:4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주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셀라.

47:5 하나님께서 환호성 소리와 함께 오르셨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셨다.

47:6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47: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의 시로 찬양하여라.

47:8 하나님께서 뭇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신다.

47:9 뭇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였으니, 온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다!

48장

48:1 고라 자손의 노래, 시.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48:2 높이 솟아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이 되는 곳은 북편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48:3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의 요새들 가운데서 자신을 피난처로 나타내셨다.

48:4 보라, 왕들이 모여서 다 함께 진격해 왔다.

48:5 그들이 그 성을 보고 놀랐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달아났다.

48: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

48:7 주께서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십니다.

48: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님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셀라.

48:9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 한가운데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48:10 하나님, 주님의 이름처럼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48:11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라.

48:12 시온을 거닐며 그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 망대들의 수를 세어 보아라.

48:13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궐들을 살펴보아라.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하게 하여라.

48:14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49장

49:1 지휘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시.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49:2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어라.

49:3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요,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할 것이다.

49:4 내가 속담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에 맞추어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49:5 재앙의 날에, 나를 해치려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에워쌀 때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겠는가?

49:6 자신의 재산을 신뢰하고 부유함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여,

49:7 그들 가운데 아무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으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몸값을 바칠 수도 없다.

49:8 생명을 구속하는 대가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것을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49:9 그리하여 그가 영원히 살아서 무덤의 썩음을 보지 않게 할 수는 없다.

49:10 누구나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도 함께 망하며,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주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49:11 그들의 마음속 생각에는 자기 집들이 영원히 이어지고 자기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땅의 이름을 짓는다.

49:12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존귀할지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49:13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며, 그들의 말을 기쁘게 따르는 자들의 최후이다. 셀라.

49:14 그들은 양 떼처럼 스올에 들어가도록 정해졌으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모습은 거처를 떠나 스올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49:1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셀라.

49:16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안의 영화가 늘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49:17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화가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49:18 비록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네 성공을 칭찬할지라도,

49:19 그도 자기 조상들의 대대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은 결코 다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49:20 재물이 있으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50장

50:1 아삽의 시. 전능하신 분 하나님,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신다.

50: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50:3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하지 않으시니,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길이 있고 그 사방에는 거센 폭풍이 인다.

50:4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외치신다.

50:5 "내게로 내 거룩한 자들을 모아라. 그들은 희생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50:6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50:7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거슬러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50:8 내가 너의 희생 제물 때문에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니, 너의 번제물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50:9 내가 네 외양간에서 황소를 가져오거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50:10 숲속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수많은 언덕의 가축들도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50:11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알고 들의 야생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50:12 내가 배고프더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세상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50:13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50:14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너의 서원을 갚아라.

50:15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50:16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담느냐?

50:17 너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등 뒤로 던져 버리지 않았느냐?

50:18 너는 도둑을 보면 그와 한패가 되었고,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렸다.

50:19 너는 입을 악에 내맡기고 혀로는 거짓을 꾸며낸다.

50:20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다.

50:21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했더니, 너는 내가 너와 똑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꾸짖고 너의 눈앞에 네 죄를 낱낱이 들추어낼 것이다.

50: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이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50:23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51장

51:1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뒤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자비에 따라 제 죄들을 지워 주십시오.

51:2 제 죄악에서 저를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51:3 저는 제가 지은 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죄가 언제나 제 앞에 있습니다.

51:4 저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옳으심이 드러나고, 판단하실 때 정당하심이 인정됩니다.

51:5 보십시오, 저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제 어머니는 죄 가운데 저를 임신했습니다.

51:6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51:7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51:8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51:9 제 죄에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제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51:10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51:11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51:12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원하는 영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51:13 그러면 제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51:14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큰 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51:15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제 입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51:16 주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셨다면 제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51:17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51:18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주십시오.

51:19 그때 주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에 수소들을 바칠 것입니다.

52장

52:1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묵상시, 에돔 사람 도엑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 하고 알렸을 때 지은 시. 힘센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행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

52:2 네 혀가 파멸을 꾀하니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거짓을 일삼는구나.

52:3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다. 셀라.

52:4 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집어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한다.

52:5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쫓아내시며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네 뿌리를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52:6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할 것이다.

52:7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풍부한 재산만을 신뢰하며 자기 악행으로 힘을 기르려던 자다."

52: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토록 신뢰한다.

52:9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에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바라볼 것입니다.

53장

53:1 지휘자를 위한 "마할랏"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묵상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으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53:2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

53:3 그들이 다 빗나갔고 다 함께 더러워졌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53: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53:5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너를 치려고 진 친 자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에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다.

53: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오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포로 된 자기 백성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54장

54: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다윗의 묵상시,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지은 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54:2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54:3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포악한 자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셀라.

54:4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는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4:5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한 짓을 되갚으실 것이니,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54:6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로 주께 희생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에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54:7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내 눈으로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55장

55: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노래. 다윗의 묵상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55:2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안절부절못하며 탄식합니다.

55:3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악인의 억압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재앙을 쏟아붓고, 분노하여 내게 원한을 품습니다.

55:4 내 속에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덮쳤습니다.

55: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닥치고, 끔찍한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55:6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날아가 편히 쉴 텐데.

55:7 보라, 그렇다면 내가 멀리 방황하여 광야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셀라.

55:8 "광풍과 폭풍을 피해 서둘러 피난처로 달아났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55:9 주님,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혀를 흩으십시오. 내가 성읍 안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5:10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서성거리며, 성읍 안에는 악행과 학대가 가득합니다.

55:11 성읍 안에 파괴하는 세력이 있고, 협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55:12 나를 모욕한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 자기를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다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55:13 그러나 그것은 바로 너, 나와 같은 사람, 나의 동료이자 나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55:14 우리는 함께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55:15 죽음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거처 가운데, 곧 그들 속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55:16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55: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것이니,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55:18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거스르는 전쟁에서 내 영혼을 평안히 건져 주셨습니다.

55:19 영원 전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5:20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손을 뻗쳐 자신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55:21 그의 입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으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웠으나 뽑힌 칼이었습니다.

55:22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55:23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겠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56장

56:1 지휘자를 위한 "먼 곳의 잠잠한 비둘기"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그를 붙잡았을 때 지은 것.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하고, 종일토록 공격하며 억압합니다.

56:2 내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 하니, 교만하게 나와 맞서 싸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56:3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56:4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6:5 그들이 종일토록 내 말을 왜곡하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나를 해치려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56:6 그들이 모여 숨어 엎드려 내 걸음을 엿보며,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56:7 그들이 죄악을 짓고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저 백성들을 내던져 주십시오.

56:8 주님께서는 나의 방황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6:9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56:10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찬양할 것입니다.

56:11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56:12 하나님, 주님께 서원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56:13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막아 주셨으니, 이는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을 걸어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57장

57:1 지휘자를 위한 "멸망시키지 마라"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그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것.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57: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7:3 그분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뒤쫓는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57: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내가 불타는 자들, 곧 이가 창과 화살이며 혀가 날카로운 칼인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57:5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57:6 그들이 내 걸음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쳤으니 내 영혼이 억눌렸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셀라.

57:7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7:8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57:9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7:10 주님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까지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57:11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58장

58:1 지휘자를 위한 "멸망시키지 마라"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침묵하는 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정의를 말하느냐?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재판하느냐?

58:2 아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불의를 꾀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달아 주는구나.

58: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빗나갔으며,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

58:4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귀를 막은 귀먹은 코브라 같으니,

58:5 아무리 능숙한 술사라 할지라도 술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코브라와 같다.

58:6 하나님,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58:7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활을 당길 때 화살이 꺾이게 하십시오.

58:8 녹아 사라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햇빛을 보지 못한 사산아 같게 하십시오.

58:9 너희 가마솥이 가시나무 불길을 느끼기도 전에, 그분께서 생나무든 불타는 나무든 회오리바람으로 휩쓸어가실 것이다.

58:10 의인은 복수를 보고 기뻐할 것이며,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을 것이다.

58:11 그리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녕 의인에게 보상이 있고, 정녕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 것이다.

59장

59:1 지휘자를 위한 "멸망시키지 마라"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집을 감시했을 때 지은 것.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은 곳에 두어 지켜 주십시오.

59:2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59:3 보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려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힘센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들었으나, 이는 나의 허물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59:4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여 보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59:5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깨어나셔서 모든 민족을 벌하십시오. 악한 배신자들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셀라.

59:6 그들이 저녁마다 돌아와 개처럼 짖어대며 성읍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59:7 보십시오, 그들이 입으로 악담을 쏟아내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듣겠는가?" 합니다.

59:8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59:9 나의 힘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59:10 나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들을 승리 가운데 내려다보게 하실 것입니다.

59:11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잊어버릴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십시오.

59:12 그들의 입이 짓는 죄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니, 그들이 내뱉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해 그들의 교만 속에서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59:13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셀라.

59:14 그들이 저녁마다 돌아와 개처럼 짖어대며 성읍 주변을 서성거리게 하십시오.

59:15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59:16 그러나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높이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59:17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0장

60:1 지휘자를 위한 "언약의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교훈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 및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이천 명을 쳐 죽였을 때 지은 것.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무너뜨리셨으며,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60:2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찢으셨으니, 땅이 요동치고 있으므로 그 갈라진 틈을 고쳐 주십시오.

60:3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힘든 일들을 보이셨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60:4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깃발을 주셨으니, 진리 때문에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입니다. 셀라.

60:5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60:6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60:7 길르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방어요, 유다는 나의 홀이다.

60:8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며, 에돔에는 내가 내 샌들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을 향해 내가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60:9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습니까?

60:1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60:11 대적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60:12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용감하게 싸울 것이니, 우리의 대적들을 짓밟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61장

61: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61:2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61:3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원수를 막는 견고한 망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61:4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61:5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61:6 주님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니, 그의 햇수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61:7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왕좌에 앉을 것이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정하셔서 그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61:8 그리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내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62장

62:1 지휘자에게. 여두둔에게. 다윗의 시.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잠잠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62:2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62:3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공격하겠느냐? 기울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 모두가 그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62:4 그들은 오직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생각만 하고 거짓을 기뻐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셀라.

62:5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라.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62:6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2:7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 안에 있다.

62:8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셀라.

62:9 참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헛된 거짓일 뿐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올라갈 것이니, 다 합쳐도 한낱 입김보다 가볍다.

62:10 억압을 신뢰하지 말고, 강도질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마라.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62:11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은 이것이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62:12 주님, 한결같은 사랑 또한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63장

63:1 다윗의 시,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것.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63:2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63: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63:4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63:5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63:6 내가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밤의 경점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63:7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63:8 내 영혼이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63:9 그러나 내 목숨을 찾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은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63:10 그들은 칼의 위세에 넘겨져 자칼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63:11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그분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가 찬양할 것이니,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64장

64: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64:2 악인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란스러운 무리에게서 나를 숨겨 주십시오.

64:3 그들은 자기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고, 치명적인 말을 화살처럼 겨누어,

64:4 숨은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쏘려 합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갑자기 그를 쏩니다.

64:5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서로 격려하고, 덫을 은밀히 놓는 것을 의논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겠는가?" 합니다.

64:6 그들은 불의를 꾀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니, 참으로 사람의 속마음과 마음은 깊고 교활합니다.

64:7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64:8 그들 자신의 혀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니, 그들을 보는 자마다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64: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지혜롭게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64:10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로 피할 것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모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65장

65: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다윗의 시. 노래. 하나님, 시온에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 서원이 이행될 것입니다.

65:2 기소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65:3 죄악들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65:4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65:5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땅의 모든 끝과 바다 멀리 있는 자들의 소망이십니다.

65:6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셨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65:7 바다의 포효와 바다 물결의 출렁임과 민족들의 소란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65:8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침의 여명과 저녁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65:9 주님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물을 대어 주시고, 땅을 심히 비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65:10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65:11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면류관처럼 씌우시니, 주님의 수레바퀴 자국마다 풍요가 흘러넘칩니다.

65:12 광야의 풀밭에도 넘쳐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옷 입습니다.

65:13 초장은 양 떼로 덮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소리치며 노래합니다.

66장

66: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노래. 시. 온 땅아,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질러라!

66:2 그분의 이름이 지닌 영광을 노래하라! 영광스럽게 찬양을 드려라!

66:3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의 일들이 얼마나 경외로운지요! 주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66:4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셀라.

66: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경외롭다.

66:6 그분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으니, 그들이 걸어서 강을 건넜다. 거기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였다.

66:7 그분께서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이 여러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마라. 셀라.

66:8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66:9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있게 지켜 주시고,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66:1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으며, 은을 연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66:11 주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66:12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66: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께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66:14 그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입술이 약속하고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66:15 내가 살진 짐승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며, 숫양의 제물과 함께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셀라.

66: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66:17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높여 찬양하였다.

66:18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66: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고,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66:20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67장

67: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시.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67:2 그리하여 주님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지게 하십시오.

67:3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67:4 민족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67:5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67:6 땅이 그 소출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67: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68장

68: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다윗의 시. 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68:2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날려 보내십시오.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하십시오.

68:3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68:4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름을 타고 달리시는 분을 높여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니, 그분 앞에서 기뻐 뛰놀아라!

68:5 그분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시다.

68:6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 안에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셔서 노래하게 하시지만, 반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산다.

68:7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서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에... 셀라.

68:8 시내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도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68:9 하나님, 주님께서는 풍성한 비를 내리셔서, 지쳐 있는 주님의 유산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68:10 주님의 회중이 그 가운데 살았으니,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68:11 주께서 말씀을 내리시니,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룹니다.

68:12 "군대의 왕들이 도망친다! 그들이 도망친다!" 집에 머물던 여인도 전리품을 나눈다.

68:13 너희가 모닥불 곁에 누울 때에,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깃털은 번쩍이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 같을 것이다.

68:14 전능자께서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에, 살몬에 눈이 내렸습니다.

68:15 바산의 산들은 웅장한 산이요, 바산의 산들은 험준한 산들이다.

68:16 너희 험준한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택하신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참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68:17 하나님의 병거는 수만 수천이며, 수천의 수천이다. 주께서 시내에서 나오셔서 성소로 오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계신다.

68:18 주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이끌고 가셨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반역자들 가운데서도 선물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게 하려 하심입니다.

68:19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68: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죽음에서 벗어남은 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

68: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의 머리를, 여전히 자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털 많은 정수리를 부수실 것이다.

68:22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바산에서 다시 데려오겠고, 바다 깊은 곳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68:23 이는 네가 피에 발을 담그고 그들을 부수며, 네 개들의 혀가 네 원수들에게서 자기 몫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68:24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행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나아가시는 행렬입니다.

68:25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며, 그 가운데서 소고를 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68:26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라!"

68:27 거기에는 그들의 통치자인 어린 베냐민이 있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 스불론의 지도자들과 납달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68:28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68:29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때문에,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68:30 갈대밭의 들짐승과 수소들의 무리, 곧 여러 민족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십시오. 은덩이를 발아래 짓밟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흩으십시오.

68:31 귀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요, 구스는 급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내밀 것입니다.

68:32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 셀라 –

68:33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노래하라. 보라, 그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내시니, 강력한 음성이다.

68:34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다.

68:35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은 경외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69장

69:1 지휘자를 위한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69:2 내가 발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며, 깊은 물속에 들어가니 큰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69:3 내가 부르짖다가 지쳤고 내 목이 말랐으며, 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69: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없애려는 자들이 강합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69:5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니, 나의 죄들이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69:6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69:7 내가 주님을 위해 비방을 견디어 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69:8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69:9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9:10 내가 울며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69:11 내가 굵은 베옷으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69:12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에 대해 말하며, 내가 술 취한 자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69:13 그러나 주님, 은혜의 때에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69:14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69:15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그 입을 내 위로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69:16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선하시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69:17 주님의 종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69:18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들 때문에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69:19 주님께서는 내가 받는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십니다. 내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69:20 비방이 내 마음을 깨뜨려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동정해 줄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자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69:21 그들은 또한 내 음식물로 독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식초를 주었습니다.

69:22 그들 앞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응보와 덫이 되게 하십시오.

69: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끊임없이 떨리게 하십시오.

69:24 주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덮치게 하십시오.

69: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69:26 그들은 주님께서 치신 자를 박해하며, 주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69:27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69:28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십시오.

69:29 그러나 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들어 올려 주십시오.

69: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69:31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69:32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나게 하라.

69:33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며, 갇혀 있는 자기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69:34 하늘과 땅아, 그분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69: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소유할 것입니다.

69:36 그분의 종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살 것입니다.

70장

70:1 지휘자를 위한 부르는 다윗의 시. 기억하게 하는 노래. 하나님, 서둘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70:2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십시오. 나의 파멸을 바라는 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70:3 "하하! 하하!" 하고 놀려대는 자들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십시오.

70:4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70:5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게 속히 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71장

71:1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71:2 주님의 의로 저를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71:3 언제나 피하여 들어갈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바위이시며 저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71:4 나의 하나님, 저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71:5 주 하나님, 주님은 저의 소망이시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뢰해 온 분이십니다.

71:6 제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주님은 제 어머니의 배에서 저를 이끌어 내신 분이십니다. 제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71:7 제가 많은 사람에게 경이거리가 되었으나, 주님은 저의 강한 피난처이십니다.

71:8 제 입은 온종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의 영예로 가득 찰 것입니다.

71:9 제가 늙었을 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 힘이 다할 때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71:10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며,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하여

71:11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를 건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뒤쫓아 잡자"라고 합니다.

71:12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서둘러 저를 도와주십시오.

71:13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해치려는 자들이 치욕과 멸시로 뒤덮이게 해 주십시오.

71:14 그러나 저는 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71:15 주님의 의와 구원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입으로 온종일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71:16 제가 주 하나님의 강력한 행적을 힘입어 나아가며, 오직 주님의 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71:17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를 가르치셨고,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 왔습니다.

71:18 하나님, 제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힘을 선포할 때까지 지켜 주십시오.

71:19 하나님, 주님의 의는 하늘에까지 미칩니다. 주님께서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71:20 저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땅 깊은 곳에서 저희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71:21 저의 명예를 높여 주시고, 저를 돌이켜 위로해 주십시오.

71:22 나의 하나님, 제가 또한 비파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수금으로 주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71:23 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제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제 영혼도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71:24 저를 해치려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샀으므로, 제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72장

72:1 솔로몬의 시.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공의를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십시오.

72:2 그가 주님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며,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할 것입니다.

72:3 산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언덕들도 의의 열매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72:4 그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압제자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72:5 해가 있는 한, 달이 있는 한, 대대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72: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72:7 그의 날에 의인이 번성하며, 달이 다할 때까지 풍성한 평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72:8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72:9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은 흙을 핥을 것입니다.

72:10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세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72:11 참으로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72:12 궁핍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가 건져 주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건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2:13 그는 약한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72:14 그는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것이며, 그들의 피를 자신의 눈에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72:15 그는 장수할 것이며, 사람들은 스바의 황금을 그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온종일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72:16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산꼭대기마다 그 열매가 레바논처럼 흔들릴 것이며, 도시 사람들은 들의 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72:17 그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72:18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2:19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72: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73장

73:1 아삽의 시.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73:2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내 발이 거의 빗나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73:3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73: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튼튼하다.

73:5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을 겪지도 않는다.

73: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폭력이 그들의 옷처럼 그들을 휘감는다.

73:7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튀어나오고, 그들의 마음에는 오만한 생각이 넘쳐난다.

73:8 그들은 조롱하며 악의를 품고 말하며, 거만하게 압제를 위협한다.

73:9 그들은 입을 하늘에 두고, 혀로는 온 땅을 휘젓고 다닌다.

73:10 그러므로 백성도 그들에게 돌아서서 물을 넘치도록 들이켠다.

73:11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는가?"라고 한다.

73:12 보라, 이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재산을 불려 간다.

73: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내 손을 씻어 죄 없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

73:14 나는 온종일 재앙을 겪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73:15 내가 "나도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했다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녀들 세대를 배신했을 것입니다.

73:16 내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했으나, 그것은 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73:17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최후를 깨닫게 되었다.

73:18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멸망으로 내던지십니다.

73:19 그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파멸되었는지요! 그들은 공포 속에서 완전히 쓸려 사라졌습니다.

73:20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꿈을 잊어버리듯, 주님, 주께서 일어나실 때 그들의 헛된 모습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73:21 제 영혼이 쓰라렸고, 제 마음이 찔리듯 아팠습니다.

73:22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 앞에서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73:23 그럼에도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께서는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73:24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고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저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73:25 하늘에서 주님 말고 제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제가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73:26 제 몸과 마음은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제 몫이십니다.

73:27 보십시오,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73:28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제게 복입니다. 제가 주 하나님을 저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74장

74:1 아삽의 묵상시.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내뿜으십니까?

74:2 주님께서 옛적에 사두신 주님의 모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상속받은 지파로 속량하신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머무르셨던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74:3 원수가 성소에서 행한 온갖 악을 보시고, 영영 폐허가 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74:4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모임 한가운데서 포효하였으며, 자신들의 깃발을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74:5 그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74:6 이제 그들은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고 있습니다.

74:7 그들이 주님의 성소를 불태워 땅에 엎었으며,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74:8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하고 말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장소를 불태웠습니다.

74:9 저희에게는 아무런 기적의 표적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는 사람도 저희 중에 없습니다.

74:10 하나님, 언제까지 대적이 조롱하겠습니까? 원수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하게 두시겠습니까?

74:11 어찌하여 주님의 손, 곧 주님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74:12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저의 왕이시며, 온 땅 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74:13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물 가운데서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74:14 주님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74:15 주님께서는 샘과 개울을 터뜨리셨고, 도도히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74:16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74:17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74:18 주님, 원수가 주님을 조롱하였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74:19 주님의 비둘기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의 생명을 영영 잊지 마십시오.

74:20 주님의 언약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땅의 어두운 곳마다 폭력의 소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74:21 억눌린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74:22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을 변호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온종일 주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74:23 주님의 대적들이 내는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의 아우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5장

75:1 지휘자를 위한 "멸망시키지 마라"에 맞춘 노래, 아삽의 시, 노래.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75:2 "내가 정한 때가 이르면, 내가 올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75:3 땅과 그 모든 주민이 흔들릴 때, 내가 그 기둥들을 굳게 붙든다. 셀라.

75:4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하였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마라.

75: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75:6 사람을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남쪽 광야에서도 오지 않는다.

75:7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니,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

75:8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를 섞어 거품이 이는 포도주로 가득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 내시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것을 찌꺼기까지 들이마신다.

75:9 그러나 나는 영원히 이를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75:10 내가 악인들의 모든 뿔을 꺾을 것이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76장

76:1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노래, 아삽의 시, 노래. 유다에서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다.

76:2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분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76:3 거기서 그분이 번뜩이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들을 꺾으셨다. 셀라.

76:4 주님은 찬란하시며, 먹잇감이 풍부한 산들보다 더 위엄이 있으십니다.

76:5 용맹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여 마지막 잠에 빠졌고, 용사들 가운데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76:6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꾸짖음에 병거와 말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76:7 주님, 오직 주님만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주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76:8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니, 땅이 두려워하며 숨죽였습니다.

76:9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억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셀라.

76:10 참으로 사람의 분노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주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스스로 삼가게 될 것입니다.

76:11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갚아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께 예물을 드려라.

76:12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기세를 꺾으실 것이니, 그분은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다.

77장

77:1 지휘자에게. 여두둔에게. 아삽의 시.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나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는다.

77:2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밤새도록 내 손을 뻗치고 지치지 않았으나, 내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77: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탄식하고, 하소연하니 내 영이 쇠약해진다. 셀라.

77:4 주님께서 제 눈꺼풀을 붙잡아 잠들지 못하게 하시니, 제가 너무 괴로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77:5 내가 지나간 옛날, 아득한 옛적의 세월들을 생각했습니다.

77:6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하며,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내 영이 부지런히 묻습니다.

77: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77:8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이 대대로 끊어졌는가?

77: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분의 긍휼을 거두셨는가?"라고 했습니다. 셀라.

77:10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호소하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일하던 세월에."

77:11 내가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겠으며, 옛적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77:12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77:13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겠습니까?

77:14 주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77:15 주님께서는 주님의 팔로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77:16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보고 몸부림쳤으며, 깊은 바다도 뒤흔들렸습니다.

77:17 구름이 물을 쏟아붓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냈으며, 주님의 화살들도 사방으로 번쩍였습니다.

77:18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바람 속에 있었고, 번개가 온 세상을 밝혔으며, 땅이 떨고 흔들렸습니다.

77:19 주님의 길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주님의 행로는 큰 물 가운데에 있었으나, 주님의 발자국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77:20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78장

78:1 아삽의 묵상시. 내 백성이여, 내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78: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옛적부터 내려오는 깊은 뜻이 담긴 말을 쏟아 내겠다.

78:3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78:4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78:5 그분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78:6 이는 다음 세대, 곧 태어날 자녀들도 이를 알게 하고, 그들도 일어나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여

78:7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다.

78:8 또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영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78: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지녔으나, 싸움의 날에 물러섰다.

78:10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78:11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다.

78:12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곧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78:13 그분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물을 무더기처럼 우뚝 서게 하셨다.

78:14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78:15 그분께서 광야에서 바위들을 쪼개시고, 깊은 물에서처럼 물을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78:16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78:17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여전히 그분께 죄를 지었다.

78:18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78:19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78:20 보라,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시내가 넘쳐흘렀지만, 빵도 줄 수 있겠는가?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78:21 그러므로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길이 타올랐고,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78:22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8:23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위의 하늘에 명령하셔서 하늘 문들을 여셨다.

78:24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비처럼 내려 주셨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78:25 사람이 천사들의 빵을 먹었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보내 주셨다.

78:26 그분께서 하늘에 동풍을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이끄셨다.

78:27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날개 달린 새들을 그들 위에 비처럼 내리셨다.

78:28 그것들이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들의 거처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다.

78:29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아주 배불렀으니, 그분께서 그들이 바라던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78:30 그러나 그들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78:31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치솟아 그들 가운데 가장 힘센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78:32 이 모든 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다.

78:33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끝나게 하셨고, 그들의 세월을 공포 속에서 보내게 하셨다.

78:34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그분을 찾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

78:35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반석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

78:36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께 아첨했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했다.

78:37 그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았다.

78:38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참으로 여러 번 진노를 거두셨고, 자신의 모든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다.

78:39 그분께서는 그들이 한낱 육체에 불과하며,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78:40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그분께 반역하였으며, 사막에서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였던가!

78:41 그들은 거듭하여 하나님을 시험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노엽게 했다.

78:42 그들은 그분의 손길도,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속량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78:43 그분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표적들을 베푸셨고, 소안 들판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았다.

78:44 그분께서는 그들의 강들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의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78:45 그분께서 파리 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개구리를 보내어 그들을 망치게 하셨다.

78:46 그들의 농작물을 쐐기벌레에게 넘겨주셨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메뚜기에게 넘겨주셨다.

78:47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망치셨고, 서리로 그들의 돌무화과나무를 죽이셨다.

78:48 그분께서는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넘기셨고,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다.

78:49 그분께서는 맹렬한 분노와 격분과 노여움과 재앙, 곧 재앙을 몰고 오는 천사들의 무리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셨다.

78:50 그분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위하여 길을 닦으셨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다.

78:51 또한 애굽의 모든 맏이를 치셨으니, 곧 함의 장막에서 그들 기력의 으뜸을 치셨다.

78:52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끌어 내셨고, 광야에서 양 무리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

78:53 그분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바다가 그들의 원수들을 뒤덮었다.

78:54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소 경계로, 곧 자신의 오른손으로 차지하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78:55 그분께서는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줄을 띄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민족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78:56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다.

78:57 오히려 조상들처럼 등을 돌리고 배신하였으며, 빗나가는 활처럼 어긋났다.

78:58 그들은 자신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다.

78:59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몹시 혐오하셨다.

78:60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실로의 장막, 곧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던 장막을 버리셨다.

78:61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셨고, 자신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78:62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며, 자신의 유산을 향해 진노하셨다.

78:63 불이 그들의 젊은이들을 삼켰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듣지 못했다.

78:64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졌고, 과부들은 슬피 울지도 못했다.

78:65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78:66 그분께서 대적들을 뒤에서 치셔서, 그들을 영원한 수치거리가 되게 하셨다.

78:67 또한 그분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78:68 오히려 유다 지파와,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다.

78:69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소를 높은 산처럼 지으셨고, 영원히 세워 두신 땅처럼 견고하게 지으셨다.

78:70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양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 내셨다.

78:71 젖먹이 양을 돌보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인 야곱과 자신의 유산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78:72 이에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었고, 능숙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79장

79:1 아삽의 시.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주님의 유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을 폐허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79:2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시신을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습니다.

79:3 그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그들의 피를 물처럼 흘렸으나, 그들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79:4 저희는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고, 저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79:5 주님,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투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79:6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 위에 주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79:7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79:8 저희 조상들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서둘러 저희를 맞아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79:9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건져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79:10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게 두십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가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 눈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79:11 갇힌 자의 탄식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살려 주십시오.

79:12 주님, 저희 이웃들이 주님을 조롱한 그 모욕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아 주십시오.

79:13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 목장의 양인 저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대대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80장

80:1 지휘자를 위한 "언약의 백합"에 맞춘 노래, 아삽의 시. 이스라엘의 목자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셉을 양 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여, 그룹들 위에 앉으신 분이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80: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일으키십시오!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80:3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80:4 만군의 주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백성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80:5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셨고, 눈물을 넘치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80:6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웃들의 다툼거리로 만드셨으니, 저희 원수들이 저희를 두고 서로 비웃습니다.

80:7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80:8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셨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80:9 그것을 위하여 땅을 일구시니, 뿌리가 깊이 내려 땅에 가득 찼습니다.

80:10 산들이 그 그늘에 덮였고, 그 가지들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습니다.

80:11 그것이 바다까지 가지를 뻗었고, 그 강까지 줄기를 뻗었습니다.

80:12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무셔서,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십니까?

80:13 숲속의 멧돼지가 그것을 파헤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뜯어먹습니다.

80:14 만군의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80:15 주님의 오른손이 심으신 밑동과, 주님을 위하여 굳세게 기르신 가지를 돌보아 주십시오.

80:16 그것이 불에 타고 베어졌으며, 주님의 꾸짖음에 백성이 망해 갑니다.

80:17 주님의 손을 주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주님을 위하여 굳세게 세우신 인자 위에 얹어 주십시오.

80:18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를 되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80:19 만군의 주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81장

81:1 지휘자를 위한 시. 가드의 악기에 맞춘 노래. 아삽의 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크게 노래하여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겁게 외쳐라!

81:2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가져오며, 비파와 함께 아름다운 수금을 연주하여라.

81:3 초하루와 보름, 우리 축제 날에 나팔을 불어라.

81:4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법령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81:5 그분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실 때 요셉 안에 이를 규례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를 들었다.

81:6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그의 손은 광주리에서 풀려났다.

81:7 네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건져 주었고, 천둥이 치는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다. 므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 셀라.

81:8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네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81:9 너희 가운데 어떤 딴 신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81: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린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 주겠다.

81:11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81:12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어,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걷게 했다.

81:13 아,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했더라도!

81:14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다.

81:15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 굴복했을 것이며, 그들의 벌은 영원히 이어졌을 것이다.

81:16 또한 그분께서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셨을 것이다. '내가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

82장

82:1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공회 가운데 서 계시며,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82:2 "너희가 언제까지 불의하게 재판하며,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82:3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하고, 가련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

82:4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구해 내고,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82: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맨다.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

82: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82:7 하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쓰러질 것이다" 했다.

82:8 하나님, 일어나셔서 땅을 심판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주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83장

83:1 노래. 아삽의 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83:2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이 소란을 피우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83:3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꾸미며, 주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을 거슬러 음모를 세웁니다.

83:4 그들이 말하기를 "자, 그들을 없애서 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자" 합니다.

83:5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83:6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83: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두로 주민과 함께한 블레셋입니다.

83:8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83:9 미디안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83:10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83:11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모든 고관들을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해 주십시오.

83:12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초지들을 차지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83:13 나의 하나님, 그들을 굴러가는 엉겅퀴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겨 같게 해 주십시오.

83:14 숲을 사르는 불처럼, 산들을 불태우는 불길처럼,

83:15 주님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 주십시오.

83:16 주님,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 채우셔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 주십시오.

83:17 그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겪게 하시며, 참으로 당황하여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83:18 오직 주님만이, 그 이름이 주님이신 분만이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84장

84:1 지휘자를 위한 시. 가드의 악기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시. 만군의 주님, 주님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84:2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지경이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외칩니다.

84:3 참으로 참새도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의 제단 곁입니다.

84:4 주님의 집에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84:5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 순례의 길을 품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84:6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참으로 가을비가 그곳을 복으로 덮어 줍니다.

84: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며, 저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84:8 만군의 하나님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84:9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의 얼굴을 살펴 주십시오.

84:10 주님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84:11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흠 없이 걷는 자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84:12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85장

85:1 지휘자를 위한 시. 고라 자손의 시.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땅에 호의를 베푸셨고, 야곱의 번영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85:2 주님께서는 주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85:3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으며,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셨습니다.

85:4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여움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85:5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모든 대에 걸쳐 이어가시겠습니까?

85:6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85:7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85:8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곧 성도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85:9 진실로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85:10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85:11 진리는 땅에서 돋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85:12 참으로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낼 것입니다.

85:13 의가 그분 앞에 앞서가며, 그분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86장

86:1 다윗의 기도. 주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련하고 궁핍합니다.

86:2 내 목숨을 지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해 주십시오.

86:3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86:4 주님의 종의 영혼에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86:5 주님,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86:6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비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86:7 내 환난의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6:8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주님의 행적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86:9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86:10 주님께서는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86:11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걷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86:12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86:13 나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크시며,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가장 깊은 스올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86:14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난폭한 자들의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86:15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86:16 내게로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86:17 주님의 선하심의 표적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7장

87:1 고라 자손의 시, 노래. 그분의 기초는 거룩한 산들에 놓여 있다.

87:2 주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87: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일들이 전해진다. 셀라.

87:4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들 가운데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구스까지 보아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할 것이다."

87:5 참으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안에서 태어났다" 할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 성을 굳게 세우실 것이다.

87:6 주님께서 뭇 백성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고 세실 것이다. 셀라.

87:7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의 모든 샘이 네 안에 있다" 할 것이다.

88장

88:1 노래.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고난의 고통' 곡조에 맞춤. 에스라인 헤만의 묵상시.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88:2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8:3 내 영혼에 고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88:4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힘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88:5 죽은 자들 사이에 버려졌고,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당한 자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졌습니다.

88:6 주님께서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에, 가장 어두운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88:7 주님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누르고, 주님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셀라.

88:8 주님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를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88:9 슬픔으로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향해 내 두 손을 펼쳤습니다.

88:10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떠나간 영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88:11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알려지겠습니까?

88:12 어둠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알려지겠습니까? 잊힘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지겠습니까?

88:13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88:14 주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88:15 내가 어릴 때부터 고통을 겪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의 공포를 겪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88:16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덮쳤고, 주님의 공포가 나를 끊어 놓았습니다.

88:17 그것들이 날마다 물처럼 나를 에워쌌고,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88:18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 친구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89장

89:1 에스라인 에단의 묵상시.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으며, 내 입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을 모든 대에 알리겠습니다.

89:2 내가 진실로 선포하기를 "사랑은 영원히 굳게 서며, 주님께서 하늘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89:3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89: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세우며, 네 왕위를 모든 대에 걸쳐 세우겠다.'" 셀라.

89:5 주님, 하늘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89:6 하늘에서 누가 주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존재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89:7 그분은 거룩한 자들의 회의에서 심히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둘러싼 모든 이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89:8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과 같이 강한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89:9 주님께서는 바다의 도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십니다.

89:10 주님께서는 라합을 죽임당한 자처럼 산산이 부수셨고,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89:11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89:12 북쪽과 남쪽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89:13 주님께는 강한 팔이 있고, 주님의 손은 힘이 넘치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 있습니다.

89:14 의와 공의가 주님의 왕좌의 기초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앞서갑니다.

89:15 주님을 환호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89:16 그들이 종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높임을 받습니다.

89:17 주님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뿔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89:18 우리의 방패는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속해 있습니다.

89:19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를 높였다.

89: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89:21 내 손이 그와 함께 굳게 설 것이며, 내 팔도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89:22 원수가 그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가 그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89:23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89:24 내 성실함과 내 한결같은 사랑이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89:25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둘 것이다.

89:26 그가 나를 부르기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할 것이다.

89:27 나 또한 그를 내 맏아들로 삼아,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이 둘 것이다.

89:28 내가 그를 향한 내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지킬 것이며, 그와 맺은 내 언약은 굳게 설 것이다.

89:29 내가 또 그의 자손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겠다.

89:30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걷지 않으며,

89:31 내 율례를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89:32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릴 것이다.

89:33 그러나 내 한결같은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내 성실함이 실패하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89:34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이 낸 것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89:35 내가 내 거룩함을 걸고 한 번 맹세했으니, 다윗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89:36 그의 자손이 영원히 이어지고, 그의 왕좌는 내 앞에서 해와 같을 것이다.

89:37 그것은 달처럼, 하늘의 신실한 증인처럼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셀라.

89:38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버리시고 물리치셨으며,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89:39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더럽히셨습니다.

89:40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셨고, 그의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89:41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가 그를 약탈하며, 그는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89:42 주님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셨고, 그의 모든 원수를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89:43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고, 전쟁에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89:44 그의 광채를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좌를 땅에 내던지셨습니다.

89:45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셨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89:46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숨어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89:47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아들들을 얼마나 헛되게 지으셨는지요!

89:48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입니까? 셀라.

89:49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주님의 예전 한결같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89:50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는 치욕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강한 민족들의 조롱을 내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89:51 주님, 주님의 원수들이 조롱한 그것을, 그들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조롱한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89:52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90장

90:1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90:2 산들이 태어나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90:3 주님께서는 사람을 파멸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돌아가라" 하십니다.

90:4 주님 보시기에는 천 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차례 보초를 서는 시간과 같습니다.

90:5 주님께서는 그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을 쓸어가십니다. 아침에 그들은 새 풀처럼 돋아납니다.

90:6 아침에는 풀이 싹을 내고 자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90:7 우리가 주님의 분노에 소멸되며, 주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90:8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두셨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90:9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 속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햇수가 한숨처럼 끝나 버립니다.

90:10 우리가 사는 햇수는 칠십 년이고, 튼튼하면 팔십 년입니다. 그래도 그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날들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90:11 누가 주님의 분노의 힘을 알며, 주님께 마땅한 경외심에 따른 주님의 진노를 알겠습니까?

90:12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90:13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90:14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90:15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본 햇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90:16 주님의 일이 주님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90:17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손이 한 일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손이 한 일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91장

91: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쉴 것이다.

91:2 나는 주님을 두고 이렇게 말하겠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며 요새이시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91:3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91:4 그분께서 너를 그분의 깃털로 덮으실 것이니, 네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방패와 성벽이 된다.

91: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91:6 어둠 속을 돌아다니는 전염병이나 대낮에 덮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91:7 네 곁에서 천 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91:8 너는 오직 네 눈으로 지켜보며,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91:9 네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91:10 어떤 해도 네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네 거처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91:11 그분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1:12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받쳐 주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91:13 네가 사자와 코브라를 밟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91:14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아므로 내가 그를 높이 두겠다.

91:15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환난 중에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져내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91:16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92장

92:1 시. 안식일을 위한 노래. 주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92:2 아침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92:3 열 줄 현악기와 비파로, 수금의 울림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92:4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님의 손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크게 기뻐 외칩니다.

92:5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92:6 지각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92:7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92:8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높이 계십니다.

92:9 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원수들, 보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92:10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고, 나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92:11 내 눈은 내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내 귀는 나를 치려고 일어난 악한 원수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92:12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92:13 그들은 주님의 집에 심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92:14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즙이 가득하며 푸를 것입니다.

92:15 그리하여 주님께서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바위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떤 불의도 없습니다.

93장

93:1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위엄을 옷 입으셨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무장하셨다. 세상도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93:2 주님의 왕좌는 옛적부터 굳게 세워졌으며, 주님은 영원부터 계십니다.

93:3 주님, 바다의 물결이 높였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그 파도를 높입니다.

93:4 많은 물의 소리보다, 바다의 거센 파도보다, 높이 계신 주님이 더욱 능력이 넘치십니다.

93:5 주님의 증거들은 확실하며, 거룩함이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어울립니다, 주님.

94장

94:1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94:2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내려 주십시오.

94:3 주님, 언제까지 악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기양양해하겠습니까?

94:4 그들이 오만한 말을 쏟아내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쭐거립니다.

94:5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유산을 억누릅니다.

94:6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94:7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은 보지 못할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94:8 백성 가운데 지각없는 자들아, 생각하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쯤 지혜로워지겠느냐?

94:9 귀를 만드신 분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94:10 뭇 나라를 훈계하시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못하시겠느냐?

94:11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헛될 뿐임을 아신다.

94:12 주님, 주님께서 훈계하시고,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94:13 그리하여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일 때까지, 환난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94:14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신의 유산을 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4:15 판결이 다시 의로 돌아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모두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94:16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한 자들을 맞서겠는가? 누가 나를 위해 서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맞서겠는가?

94:17 주님께서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94:18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94:19 내 속에 많은 번민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94:20 법령으로 해악을 꾸미는 파괴적인 통치자가 주님과 어찌 한패가 될 수 있겠습니까?

94:21 그들이 떼를 지어 의인의 목숨을 노리며, 무죄한 피를 정죄합니다.

94:22 그러나 주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94:23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실 것이며, 그들의 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 버리실 것입니다.

95장

95:1 오라,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바위를 향해 기쁘게 외치자!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며, 노래로 그분을 높여 부르자!

95:3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95:4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봉우리들도 그분의 것이다.

95:5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만드셨고,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빚으셨다.

95:6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95:7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백성이요 그분이 돌보시는 양 떼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95:8 "므리바에서처럼, 광야 맛사의 날에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5:9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였으며, 내가 행한 일을 보았다.

95:10 사십 년 동안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에 방황하는 백성이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했다.

95: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했다."

96장

96:1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96:2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96:3 그분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선포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

96:4 주님은 위대하시니 마땅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모든 신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96:5 민족들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다.

96:6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

96:7 민족들의 모든 가문아, 주님께 돌려라!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려라!

96:8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오라.

96:9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96:10 여러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고 외쳐라.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공평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96: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은 크게 외쳐라!

96:12 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은 기뻐 뛰놀아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도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96:13 주님 앞에서 그리할 것이니,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97장

97:1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은 기뻐하라!

97:2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싸고, 의와 정의가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다.

97:3 불이 그분 앞에서 나아가 사방에서 그분의 대적들을 태워 버린다.

97:4 그분의 번개가 온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떤다.

97:5 산들이 주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97:6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97:7 새긴 신상을 섬기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라. 모든 신들아,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라!

97:8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주님, 주님의 심판 때문에 유다의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97:9 주님, 주님께서는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모든 신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7:10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목숨을 지키시며,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97:11 의인을 위해 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위해 기쁨이 뿌려진다.

97:12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98장

98:1 시.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

98:2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셨고, 여러 민족의 눈앞에서 자신의 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

98:3 그분께서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98:4 온 땅이여, 주님께 즐겁게 외쳐라! 소리 높여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라!

98:5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수금과 노랫소리로 찬양하라.

98:6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님 앞에서 즐겁게 환호하라.

98:7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은 크게 외치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리하라!

98:8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 함께 기뻐 노래하라.

98:9 주님 앞에서 그리할 것이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99장

99:1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은 떨어라!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니, 땅은 흔들려라!

99:2 주님은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다.

99:3 그들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99:4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공평을 세우셨고, 야곱 가운데 정의와 의를 행하셨습니다.

99:5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높여라! 그분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99:6 그분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99:7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분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99:8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벌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99:9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100장

100:1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주님께 즐겁게 외쳐라!

100:2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

100:3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그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목장의 양이다.

100:4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분의 뜰에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100:5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진다.

101장

101:1 다윗의 시. 내가 한결같은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01:2 내가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나는 흠 없는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101: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그런 일들이 내게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101:4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나는 악한 일과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101:5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를 내가 침묵하게 만들고, 거만하고 우쭐대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01:6 내 눈이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을 바라보아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물게 할 것이며, 흠 없는 길을 걷는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101:7 속임수를 쓰는 자는 내 집 안에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눈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101: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여, 주님의 성읍에서 모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 버리겠습니다.

102장

102:1 고난받는 사람이 지쳐서 주님 앞에 자신의 탄식을 쏟아놓을 때 드리는 기도.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102:2 내가 고난을 겪는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02:3 내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횃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102:4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고 말라 버렸으니, 내가 빵 먹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102:5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뼈가 가죽에 들러붙었습니다.

102:6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폐허의 올빼미처럼 되었습니다.

102:7 내가 잠 못 이루고 지새우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습니다.

102:8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미쳐 날뛰는 자들이 내 이름을 저주거리로 삼습니다.

102:9 내가 재를 빵처럼 먹었고, 내 마실 것에 눈물을 섞었으니,

102:10 이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렸다가 내던지셨습니다.

102:11 내 날들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말라 갑니다.

102:12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주님을 기억함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102:13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 지금이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요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02:14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아끼고, 그 흙먼지마저 불쌍히 여깁니다.

102:15 그리하여 여러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02:16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102:17 그분께서 빈민의 기도를 돌아보셨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102:18 이 일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될 것이니, 앞으로 지으심을 받을 백성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02:19 주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102:20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102:21 그리하여 사람들이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102:22 그때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102:23 그분께서 길 중간에서 내 힘을 쇠약하게 하셨고, 내 날수를 줄이셨습니다.

102:24 내가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날들의 한가운데서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해는 대대에 이어집니다.

102:25 옛적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102:26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겠지만,

102:27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해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102:28 주님의 종들의 자녀들은 계속 머물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주님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103장

103:1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의 모든 것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103:2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103:3 그분께서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103:4 네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네게 관을 씌워 주시며,

103: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어,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신다.

103:6 주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베푸신다.

103:7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자신의 행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103:8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103:9 그분께서는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103:10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103:11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

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103:13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103:14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며,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103:15 인생은 그 날들이 풀과 같아서, 들의 꽃처럼 피어난다.

103:16 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고, 그 있던 자리조차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

103:17 그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니,

103:18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미친다.

103:19 주님께서는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굳게 세우셨고, 그분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103:20 주님을 찬양하라, 힘이 강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 소리에 순종하는 그분의 천사들아!

103:21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모든 군대와 일꾼들아!

103:22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104장

104:1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104:2 주님께서는 빛을 옷처럼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104:3 물 위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를 얹으십니다.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104:4 바람들을 자신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타오르는 불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104:5 땅의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104:6 주님께서 깊은 물로 옷을 입히듯 땅을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104:7 주님의 꾸짖음에 물들이 도망쳤고, 주님의 천둥소리에 서둘러 물러갔습니다.

104:8 산들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가라앉아, 주님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104:9 주님께서 경계를 정해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4:10 주님께서는 샘물을 골짜기로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십니다.

104:11 그것들이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실 물을 주니, 들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104:12 공중의 새들이 그 곁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합니다.

104:13 주님께서는 높은 방에서 산들에 물을 주시니, 주님께서 이루신 열매로 땅이 풍족합니다.

104:14 주님께서는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가꾸도록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어, 땅에서 먹을거리를 얻게 하십니다.

104:15 곧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가 돌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입니다.

104:16 주님의 나무들에 물이 넉넉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입니다.

104:17 거기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황새는 잣나무로 제 집을 삼습니다.

104:18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차지요, 바위는 바위너구리들의 피난처입니다.

104:19 주님께서 절기들을 위해 달을 정하셨고, 해는 지는 때를 압니다.

104:20 주님께서 어둠을 지으시니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104:21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합니다.

104:22 해가 뜨면 그것들은 물러가서 자기 굴에 눕습니다.

104:23 사람은 일하러 나가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104:24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지혜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104:25 크고 넓은 바다가 저기에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이 있습니다.

104:26 거기에는 배들이 오가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뛰놀도록 만드신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104:27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며,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104:28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배부릅니다.

104:29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불안에 떨고,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104:30 주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고, 주님께서는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104:31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일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04:32 그분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면 땅이 떨고, 산들을 건드리시면 산들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104:33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 노래하며,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04:34 나의 묵상이 그분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104:35 죄인들이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105장

105:1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라.

105:2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하라.

105:3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즐거워하라.

105:4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찾아라.

105:5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기적들과 그분의 입으로 내리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105:6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105:7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 그분의 심판이 온 땅에 있다.

105:8 그분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105:9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105:10 야곱에게 율례로 확증해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 주신 것이다.

105:11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겠다."

105:12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참으로 적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다.

105:13 그들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105:14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셨다.

105:15 "내가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105:16 그분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시어, 양식의 공급을 다 끊어 버리셨다.

105:17 그분께서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 갔다.

105:18 사람들이 그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 상하게 했고, 그의 목은 쇠칼에 채워졌다.

105:19 마침내 그가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105: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 주었으니, 곧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105:21 왕은 그를 자기 집의 주관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자로 삼아,

105:22 그의 뜻대로 신하들을 훈계하게 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105:23 그때에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들어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105:24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만드셨다.

105:25 그분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바꾸시어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종들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105:26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와, 자신이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105:27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표징들을 행하고,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행했다.

105:28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시어 캄캄하게 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다.

105:29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이셨다.

105:30 그들의 땅에 개구리들이 떼 지어 끓어올라, 왕들의 침실에까지 들어갔다.

105:31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파리 떼가 몰려왔고,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겨났다.

105:32 그분께서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셨고, 그들의 땅에 번갯불을 내리셨다.

105:33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셨고, 그들 영토의 나무들을 부러뜨리셨다.

105:34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셀 수 없이 많은 풀무치가 몰려왔다.

105:35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를 갉아먹었고, 그 땅의 열매를 다 먹어 치웠다.

105:36 그분께서는 또 그들 땅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으니, 곧 그들 모든 기력의 첫 열매였다.

105:37 그분께서는 은과 금을 지니게 하여 그들을 이끌어 내셨으니, 그 지파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05:38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105:39 그분께서는 덮개로 구름을 펴셨고, 밤에는 불로 빛을 비추어 주셨다.

105:40 그들이 구하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105:41 그분께서 바위를 여시니 물이 솟구쳐 나와, 마른 땅에서 강물처럼 흘렀다.

105:42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105:43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이끌어 내셨고, 자신이 택한 자들을 노랫소리와 함께 이끌어 내셨다.

105:44 그분께서는 여러 나라의 땅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으니,

105:45 이는 그들이 그분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을 찬양하라!

106장

106:1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시다.

106:2 누가 주님의 강력한 행적을 다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을 향한 모든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106:3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언제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106:4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106:5 그리하여 내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번영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106:6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6:7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주님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바다 곧 홍해에서 반역했습니다.

106:8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신의 큰 권능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106:9 그분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말랐고, 마치 사막을 지나듯 그들을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셨다.

106:10 그분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106:11 물이 그들의 대적들을 덮쳤으니,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

106:12 그제야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106:13 그러나 그들은 곧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106:14 오히려 광야에서 탐욕에 사로잡혔고,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106:15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에는 쇠약해지는 질병을 보내셨다.

106:16 진영 안에서 그들이 모세를 질투했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했다.

106:17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켰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 버렸다.

106:18 불이 그들의 무리 가운데 붙었고, 불꽃이 악인들을 태워 버렸다.

106:19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부어 만든 신상에게 경배했다.

106:20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다.

106:21 그들은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06:22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다.

106:23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분께서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 서서 그분 앞을 가로막고, 그분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게 했다.

106:24 참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땅을 멸시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106:25 오히려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06:26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리시겠다고 맹세하셨고,

106:27 그들의 후손을 여러 민족 가운데 쓰러뜨리시며, 여러 땅으로 흩어 버리시겠다고 맹세하셨다.

106:28 그들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

106:29 이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들이닥쳤다.

106:30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마침내 전염병이 그쳤다.

106:31 이 일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다.

106:32 그들은 므리바 물가에서도 주님을 노하시게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도 화가 미쳤다.

106:33 이는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격동시켰으므로, 모세가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106:34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106:35 오히려 여러 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106: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106:37 참으로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106:38 그들은 무죄한 피, 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자기 아들과 딸들의 피를 흘렸고, 그 땅은 피로 더러워졌다.

106:39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더러워졌고, 자기들의 행동으로 음란하게 행했다.

106:40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발하셨고, 자신의 상속 백성을 혐오하셨다.

106:41 그분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106:42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은 원수들의 손 아래 굴복당했다.

106:43 그분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 뜻대로 반역했고 자기 죄악으로 낮아졌다.

106:44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106:45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자신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106:46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106:47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106:48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107장

107:1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107:2 주님께서 속량하신 사람들, 원수의 손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107:3 그분은 동과 서, 북과 남의 여러 땅에서 그들을 모으셨다.

107:4 그들은 광야 사막 길에서 헤매며 살 만한 성읍을 찾지 못했다.

107:5 그들은 굶주리고 목말라 속에서 영혼이 지쳐 쓰러져 갔다.

107:6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107:7 또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셔서 살 만한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107:8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107:9 그분은 목마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

107:10 어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107:11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107:12 그러므로 그분은 고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 그들이 쓰러졌으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07:13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07:14 그분은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셨다.

107:15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107:16 그분께서 놋문들을 깨뜨리시고 쇠빗장들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107:17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하는 길을 걷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107:18 그들의 영혼은 모든 음식을 역겨워하며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다.

107:19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107:20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무덤에서 건져내신다.

107:21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107:22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라.

107:23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들,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7:24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깊은 바다에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107:25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이 일어 파도를 높이 들어 올렸다.

107:26 그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바다로 곤두박질쳤으며, 고난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107:27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렸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헤맸다.

107:28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이끌어 내셨다.

107:29 그분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시니 파도가 멈추어 고요해졌다.

107:30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은 기뻐했고, 그분은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107:31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107: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분을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라.

107:33 그분은 강들을 광야로 만드시고 물샘들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107:34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만드셨다.

107:35 그분은 광야를 물웅덩이로 만드시고 가문 땅을 물샘으로 바꾸셨다.

107:36 거기에 굶주린 이들을 살게 하셔서 살 만한 성읍을 세우게 하셨고,

107:37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107:38 또 그분께서 복을 주시니 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

107:39 그러나 그들은 압제와 재난과 슬픔으로 인해 다시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졌다.

107:40 그분은 귀족들에게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길이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다.

107:41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에서 높이 건져 올리시고 그들의 가족을 양 떼처럼 불어나게 하셨다.

107:42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겠으나 모든 악인은 입을 다물 것이다.

107:43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108장

108:1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 제 마음이 굳건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온 영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08:2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108:3 주님, 제가 뭇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뭇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8:4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108:5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떨치게 해 주십시오.

108:6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108:7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여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108:8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투구이고 유다는 내 지휘봉이다.

108:9 모압은 내 목욕통이며, 에돔에는 내 샌들을 던지고 블레셋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다."

108:10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108:11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108:12 원수에 맞설 도움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108:13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용감하게 싸울 것이니,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109장

109:1 지휘자를 위한 시. 다윗의 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109:2 악한 입과 속이는 입이 나를 향해 열렸고, 거짓된 혀로 나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09:3 그들은 미움의 말로 나를 에워쌌고, 아무런 까닭도 없이 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109:4 내 사랑을 갚는 대신 그들은 내 대적이 되었으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109:5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109:6 그를 다스릴 악한 자를 세우시고, 고소하는 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109:7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 주십시오.

109:8 그의 날을 짧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109:9 그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109:10 그의 자녀는 떠돌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 먹을 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

109:11 채권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약탈하게 해 주십시오.

109:12 그에게 친절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비 없는 그의 자녀를 불쌍히 여길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109:13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 주십시오.

109:14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109:15 그 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 버리시게 해 주십시오.

109:16 그가 친절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뒤쫓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109:17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닥쳤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109:18 그는 옷을 입듯 저주를 입었으니,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09:19 저주가 그에게는 몸을 감싸는 옷과 같고 늘 두르는 띠와 같게 해 주십시오.

109:20 이것이 내 대적들과 내 목숨을 해치려고 악담하는 자들이 주님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해 주십시오.

109:21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선하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109: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속에서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109:23 나는 기울어지는 저녁 그림자처럼 사라져 가고 메뚜기처럼 털려 나갑니다.

109:24 금식하느라 내 무릎은 떨리고, 내 몸은 파리하여 기름기가 없습니다.

109:25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은 나를 볼 때 머리를 흔듭니다.

109:26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09:27 이것이 주님의 손이며,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109:28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겠지만, 주님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109:29 내 대적들이 불명예를 옷 입듯 입게 하시고, 겉옷을 두르듯 자신의 수치를 두르게 해 주십시오.

109:30 내가 내 입으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9:31 그분께서 궁핍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셔서, 그의 목숨을 유죄로 판결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10장

110:1 다윗의 시.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110:2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뻗치실 것이니, 원수들 한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110:3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백성이 자원하여 나아오며, 새벽의 태에서 태어난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110:4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110:5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이다.

110:6 그분께서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들을 쌓아 두실 것이며, 온 땅의 우두머리를 쳐부수실 것이다.

110:7 그분은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그러므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다.

111장

111:1 주님을 찬양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다.

111:2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니,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깊이 생각한다.

111:3 그분이 하신 일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넘치며,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토록 이어진다.

111:4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111:5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111:6 그분은 뭇 나라의 유산을 백성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 주셨다.

111:7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그분의 모든 법도는 신실하다.

111:8 그 법도들은 영원무궁토록 굳게 서 있으며, 진실과 정직으로 이루어졌다.

111:9 그분은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셨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렵다!

111: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훌륭한 통찰력을 지녔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112장

112:1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112:2 그의 후손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며,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는 복을 받을 것이다.

112: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이어진다.

112:4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아오른다.

112:5 은혜를 베풀며 빌려주는 사람, 자기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될 것이다.

112:6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12:7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므로 마음이 굳건하다.

112:8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볼 것이다.

112:9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중에 높이 들릴 것이다.

112:10 악인은 그것을 보고 속이 상해 이를 갈며 녹아내릴 것이니, 악인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113장

113:1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113:2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113:3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아야 한다.

113:4 주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113:5 높은 곳에 보좌를 두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113:6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과 땅을 굽어살피신다.

113:7 가난한 사람을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113:8 귀족들과 함께, 그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113:9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머물게 하셔서 자녀들을 둔 기쁨 넘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114장

114: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 족속이 낯선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114:2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되었다.

114:3 바다가 그것을 보고 달아났으며, 요단강은 뒤로 물러섰다.

114:4 산들은 숫양처럼 뛰놀았고, 작은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놀았다.

114:5 바다야, 네가 달아난 까닭이 무엇이냐? 요단강아, 네가 뒤로 물러선 까닭이 무엇이냐?

114:6 너희 산들아, 너희가 숫양처럼 뛰놀며 작은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 양처럼 뛰노는 까닭이 무엇이냐?

114:7 땅이여,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114:8 그분은 바위를 물웅덩이로 바꾸셨고, 부싯돌을 샘물로 바꾸셨다.

115장

115:1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115:2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115:3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115: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115: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115: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115: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115: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들과 같아질 것이다.

115:9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

115:10 아론 집안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

115:11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다.

115:12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 집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115:13 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나 높은 자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실 것이다.

115:14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욱 번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115:15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빈다.

115:16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115:17 죽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 속으로 내려간 자들도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115:18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116장

116:1 주님께서 내 목소리와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내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116:2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분을 부르겠다.

116:3 죽음의 밧줄이 나를 휘감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닥쳐 내가 환난과 슬픔을 겪었다.

116:4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116:5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116:6 주님은 순박한 사람들을 지키신다. 내가 낮아졌을 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116:7 내 영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가거라. 주님께서 너를 후하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116:8 주님께서 내 목숨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116:9 내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 앞을 걸어가겠다.

116:10 내가 믿었기에 "내가 큰 고통을 겪었다" 하고 말했다.

116:11 내가 당황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했다.

116:12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116: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116:14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그분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갚겠다.

116:15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하다.

116:16 주님, 진실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제 사슬을 풀어 주셨습니다.

116:17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16:18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그분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갚겠다.

116:19 주님의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아, 바로 네 한가운데서 갚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117장

117:1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칭송하여라!

117:2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118장

118:1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118:2 이스라엘은 이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말하여라.

118:3 아론 집안은 이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말하여라.

118:4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말하여라.

118:5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118:6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118:7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들 가운데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패배를 당당히 바라볼 것이다.

118:8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18:9 주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18:10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버렸다.

118: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녕 끊어 버렸다.

118:12 그들이 벌 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불붙은 가시덤불처럼 꺼졌으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버렸다.

118:13 너는 나를 세차게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118:14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

118:15 의인들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떨치셨다.

118:16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떨치셨다!"

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

118:18 주님께서 나를 엄하게 징계하셨으나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않으셨다.

118: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 주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118:20 이것이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118:21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18:22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8:23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울 따름이다.

118:24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18:25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118:26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

118:27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밧줄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매어라.

118:28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118:2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119장

119:1 [알레프] 길이 흠이 없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119:2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119:3 참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119:4 주님께서는 주님의 법도를 명령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119:5 주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제 길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9:6 제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에 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19:7 제가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배울 때,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19:8 제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베트]

119:9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119:10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9:11 제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품었습니다.

119:12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119:13 제 입술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규례를 선포했습니다.

119:14 온갖 재물을 얻은 것만큼이나, 주님의 증거의 길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119:15 제가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깊이 살피겠습니다.

119:16 제가 주님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멜]

119:17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19:18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것입니다.

119:19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냅니다. 주님의 계명을 제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119:20 언제나 주님의 규례를 사모하다가, 제 영혼이 지쳐 바스러질 지경입니다.

119:21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저주를 받은 오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19:22 제가 주님의 증거를 지켰으니, 모욕과 멸시를 제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119:23 통치자들이 앉아서 저를 헐뜯더라도,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를 묵상하겠습니다.

119:24 참으로 주님의 규례는 저의 기쁨이며, 저의 조언자들입니다. [달렛]

119:25 제 영혼이 흙먼지 속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26 제가 살아온 길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규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19:27 주님의 법도가 가르치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119:28 제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녹아내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굳세게 해 주십시오.

119:29 거짓된 길을 제게서 멀리 치워 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율법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119:30 제가 진리의 길을 택했고, 주님의 규례를 제 앞에 두었습니다.

119:31 주님, 제가 주님의 증거에 매달립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9:32 주님께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 제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헤]

119:33 주님, 주님의 규례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119:34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참으로 온 마음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119:35 주님의 계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19:36 제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증거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119:37 제 눈을 돌려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38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의 종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119:39 제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없애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119:40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법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와우]

119:41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구원이 제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119:42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므로, 저를 비난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119:43 진리의 말씀이 제 입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규례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119:44 그러면 제가 주님의 율법을 언제나 영원무궁토록 지키겠습니다.

119:45 제가 주님의 법도를 구했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119:46 왕들 앞에서도 주님의 증거를 말하겠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19:47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겠습니다.

119:48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저는 주님의 규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자인]

119:49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9:50 주님의 말씀이 저를 되살렸으니,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의 위로입니다.

119:51 오만한 자들이 저를 몹시 조롱하지만, 저는 주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19:52 주님, 예전부터 이어진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하며, 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119:53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악인들을 보며, 거센 분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119:54 제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집에서, 주님의 규례는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19:55 주님,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119:56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헤트]

119:57 주님은 저의 몫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9:58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19:59 제가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고, 제 발걸음을 주님의 증거로 돌렸습니다.

119:60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119:61 악인들의 밧줄이 저를 옭아매어도, 저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119:62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해,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9:63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들의 친구입니다.

119:64 주님, 온 땅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테트]

119:65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선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119:66 제가 주님의 계명을 믿으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19:67 고난을 겪기 전에는 제가 빗나갔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119:68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주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119:69 오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저를 헐뜯었지만, 저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119:70 그들의 마음은 기름 덩이처럼 무감각하지만, 저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119:71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 되었으니, 그 덕분에 제가 주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19:72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이 제게는 수천 개의 금은 조각보다 더 좋습니다. [요드]

119:73 주님의 손이 저를 만들고 빚으셨습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119:74 제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었으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119:75 주님, 저는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며,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제게 고난을 주셨음을 압니다.

119:76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119:77 주님의 자비가 제게 임하여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율법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9:78 오만한 자들이 부당하게 저를 넘어뜨렸으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겠습니다.

119:79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제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증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119:80 제 마음이 주님의 규례 앞에서 흠이 없게 하셔서,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카프]

119:81 제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다 지쳤으나, 저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119:82 제 눈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서 "주님께서 언제 저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119:83 제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으나, 주님의 규례를 잊지 않습니다.

119:84 주님의 종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119:85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율법을 거스르며 저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119:86 주님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저를 박해하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119:87 그들이 이 땅에서 저를 거의 없애 버릴 뻔했으나, 저는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19:88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라메드]

119:89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119:90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19:91 모든 만물이 주님을 섬기므로, 주님의 법규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119:92 주님의 율법이 저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고난 가운데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119:93 주님께서 그것들로 저를 되살려 주셨으니, 제가 주님의 법도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19:94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법도를 찾았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19:95 악인들은 저를 파멸시키려고 숨어 기다리지만, 저는 주님의 증거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119:96 완전하다는 모든 것에도 끝이 있음을 보았으나, 주님의 계명은 한없이 넓습니다. [멤]

119:97 제가 주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119:98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저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이 저를 제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119:99 주님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제가 저의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119:100 주님의 법도를 지켰으므로, 제가 노인들보다 더 깊이 깨닫습니다.

119:101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에는 발도 디디지 않았습니다.

119:102 주님께서 친히 저를 가르치셨으므로, 제가 주님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19:103 주님의 약속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19:104 주님의 법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기에,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눈]

119:105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119:106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119:107 제가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108 주님, 제 입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19:109 제 목숨이 늘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저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119:110 악인들이 저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저는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19:111 주님의 증거를 영원히 제 기업으로 삼았으니, 그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9:112 주님의 규례를 끝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메크]

119:113 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119:114 주님은 저의 은신처요 저의 방패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119:115 너희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19:116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살게 해 주시고, 제 희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19:117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전할 것이며, 늘 주님의 규례를 마음에 품겠습니다.

119:118 주님께서는 주님의 규례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를 내버리시니, 그들의 속임수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119:119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치워 버리시므로, 제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119:120 주님을 두려워하여 제 몸이 떨리며, 제가 주님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아인]

119:121 제가 공평과 정의를 실천했으니, 저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119:122 주님의 종의 유익을 보증해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19:123 제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바라보다 지쳤습니다.

119:124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주님의 종을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19:125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증거를 알게 해 주십시오.

119:126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주님, 이제는 일하실 때입니다.

119:127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19:128 그러므로 제가 주님의 모든 법도를 옳게 여기고,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페]

119:129 주님의 증거는 놀라우니, 제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119:130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순박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119:131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였으니, 주님의 계명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19:132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하시던 대로, 제게로 돌아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19:133 주님의 말씀으로 제 발걸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고, 어떤 죄악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19:134 사람들의 억압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119:135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19:136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제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립니다. [짜디]

119:137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주님의 판단은 올곧습니다.

119:138 주님께서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온전히 신실합니다.

119:139 제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므로, 제 열정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119:140 주님의 약속은 철저히 검증되었으므로, 주님의 종이 그 약속을 사랑합니다.

119:141 제가 보잘것없고 멸시를 받지만,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119:142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이며, 주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119:143 환난과 고통이 저를 사로잡았으나, 주님의 계명은 저의 기쁨입니다.

119:144 주님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습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코프]

119:145 제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119:146 제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119:147 제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119:148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제 눈이 깨어 있었습니다.

119:149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에 따라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150 사악함을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나,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19:151 주님,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19:152 주님께서 주님의 증거를 영원히 세우셨음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레쉬]

119:153 제가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으니, 저의 고난을 살피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119:154 저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저를 구속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155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리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규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119:156 주님, 주님의 자비가 크오니, 주님의 규례에 따라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157 저를 박해하는 자들과 제 대적들이 많지만, 저는 주님의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19:158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제가 그 배신자들을 몹시 혐오하며 바라보았습니다.

119:159 제가 주님의 법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되살려 주십시오.

119:160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는 하나하나 영원히 지속됩니다. [신과 쉰]

119:161 고관들이 까닭 없이 저를 박해하지만, 제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119:162 큰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119:163 저는 거짓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지만, 주님의 율법은 사랑합니다.

119:164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해, 제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119:165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19:166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계명들을 실천했습니다.

119:167 제 영혼이 주님의 증거를 지켰으며, 제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119:168 제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제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증거를 지켰습니다. [타브]

119:169 주님, 저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119:170 저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건져 주십시오.

119:171 주님께서 제게 주님의 규례를 가르치시니, 제 입술이 찬양을 쏟아내게 해 주십시오.

119:172 주님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니, 제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119:173 제가 주님의 법도를 택했으니, 주님의 손이 저를 도울 준비를 갖추게 해 주십시오.

119:174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율법은 저의 기쁨입니다.

119:175 제 영혼을 살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규례가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119:176 제가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으니, 주님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120장

120:1 올라가는 노래.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120:2 주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제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120:3 너 속이는 혀야, 네게 무엇을 주며 네게 무엇을 더 얹어 주겠느냐?

120:4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120:5 내게 재앙이 닥쳤다! 내가 메섹에서 살고, 게달의 천막들 사이에 머물다니!

120:6 내 영혼이 평화를 미워하는 자와 너무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다.

120:7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121장

121:1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121:2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121:3 주님은 그대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121:4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121:5 주님은 그대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그대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121:6 낮에는 해가 그대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는 달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121:7 주님께서 그대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주시며, 그대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121:8 주님께서 그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122장

122:1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사람들이 내게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나는 기뻤다.

122:2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다!

122:3 예루살렘은 긴밀하게 하나로 뭉쳐진 도시로 건축되었으니,

122:4 그곳으로 여러 지파들, 곧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규에 따라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122:5 거기에 심판을 위한 왕좌들, 곧 다윗 집안의 왕좌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122: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다.

122:7 네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네 궁궐 안에 번영이 있기를 빈다.

122:8 내 형제들과 동무들을 위해, 내가 이제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말하겠다.

122:9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유익을 구하겠다.

123장

123:1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123:2 보십시오,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 눈도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123:3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멸시를 견뎌 왔습니다.

123:4 안일한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가득 찼습니다.

124장

124:1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124:2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124:3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켜 버렸을 것이며,

124:4 물이 우리를 덮쳐 휩쓸어 갔을 것이고, 급류가 우리 영혼 위로 흘러 넘쳤을 것이며,

124:5 거센 물결이 우리 영혼 위로 넘쳐흘렀을 것이다."

124:6 우리를 그들의 이에 찢길 먹이로 내어주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4:7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도망쳤으니, 올무가 찢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다.

124:8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의 이름에 있다.

125장

125:1 올라가는 노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125: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백성을 둘러싸고 계신다.

125:3 의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손을 대지 않도록, 악의 홀이 의인들의 몫으로 정해진 땅 위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25:4 주님,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125:5 그러나 굽은 길로 돌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

126장

126:1 올라가는 노래.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데려오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

126:2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넘쳤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126:3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쁩니다.

126:4 주님, 네게브의 시내들처럼 우리의 번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126:6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127장

127:1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127: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니, 참으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127:3 보라,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다.

127:4 용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처럼, 젊어서 낳은 자녀들도 그러하다.

127:5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28장

128:1 올라가는 노래.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128:2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먹을 것이니, 네가 행복하고 네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128: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는 어린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다.

128:4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복을 받는다.

128:5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며, 네 평생의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를 바란다.

128:6 참으로 네가 네 자녀의 자녀들을 보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

129장

129:1 올라가는 노래.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129:2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129: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엎고 고랑을 길게 내었다.

129:4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밧줄을 끊으셨다."

129:5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기를 바란다.

129:6 그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지붕 위의 풀처럼 되기를 바란다.

129:7 그런 풀은 베는 자도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단을 묶는 자도 자기 품을 채우지 못한다.

129:8 지나가는 자들도 "주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130장

130:1 올라가는 노래. 주님, 깊은 곳에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30:2 주님,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30:3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기록하신다면, 주여,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130:4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130:5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제 영혼이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130: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130:7 이스라엘아, 주님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께 한결같은 사랑이 있고,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130:8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131장

131:1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으며, 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나 너무 놀라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31:2 참으로 내가 내 영혼을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하였으니, 어머니 품에 안긴 젖 뗀 아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습니다.

131: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132장

132:1 올라가는 노래. 주님, 다윗과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132:2 그가 어떻게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께 서원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132:3 "내가 결단코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132:4 내 눈에 잠을 주지 않고, 내 눈꺼풀에 졸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132:5 내가 주님을 위한 장소, 곧 야곱의 전능자가 머무실 거처를 찾을 때까지 그리하겠습니다."

132:6 보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에브랏에서 들었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132:7 "우리가 그분의 거처로 들어가서, 그분의 발판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자."

132:8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권능의 궤가 함께 들어가십시오.

132:9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해 주십시오!

132:10 주님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32:11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하게 맹세하셨으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네 몸의 열매를 네 왕위에 둘 것이다.

132:12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증거를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을 것이다."

132:13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자 바라셨기 때문이다.

132:14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안식처다. 내가 이곳을 바랐으니 여기서 살 것이다.

132:15 내가 시온의 식량에 풍성하게 복을 내리고,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132:16 내가 또한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겠고, 그곳의 성도들은 기뻐 크게 외칠 것이다.

132:17 거기서 내가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하겠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불을 마련해 두었다.

132:18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겠지만, 그의 머리 위에서는 왕관이 빛날 것이다."

133장

133:1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보라,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133:2 그것은 머리 위에 부은 귀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133: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언덕들 위에 내리는 것과 같다. 거기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134장

134:1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마다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134:2 성소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134: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빈다.

135장

135:1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135:2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서 있는 자들아,

135:3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 노래하라, 그것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135:4 주님께서 야곱을 자신을 위해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135:5 내가 알거니와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135:6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물에서 다 행하셨다.

135:7 그분은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며,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이끌어 내신다.

135:8 그분은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맏이를 치셨다.

135:9 애굽아, 그분은 네 한가운데에, 곧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내셨다.

135:10 그분은 많은 민족들을 치셨고,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135:11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들을 치셨다.

135:12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곧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다.

135:13 주님, 주님의 이름은 영원하며, 주님,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135:14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135:15 이방 나라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135: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35: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숨결도 없다.

135:18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135:19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론 집안아, 주님을 찬양하라!

135:20 레위 집안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135:21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님은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136장

136:1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3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4 홀로 큰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5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6 물 위에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7 큰 빛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8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9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0 애굽 사람의 맏이를 쳐서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1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2 강한 손과 뻗으신 팔로 이끄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3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4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뒤엎어 던지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6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7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8 강력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19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1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2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3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4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5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6: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37장

137:1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었고, 시온을 기억하며 참으로 눈물을 흘렸다.

137:2 그 땅의 버드나무 위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다.

137:3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흥겨운 노래를 요구하며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 보아라!" 하였다.

137: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137: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게 하기를.

137:6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큰 기쁨보다 예루살렘을 더 앞세우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를.

137:7 주님, 예루살렘의 그날에 에돔 자손이 한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헐어 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137:8 멸망당할 바벨론의 딸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네게 갚아 주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137:9 네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138장

138:1 다윗의 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여 노래하겠습니다.

138:2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138:3 내가 부르짖던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138:4 주님, 땅의 모든 왕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38:5 참으로 그들이 주님의 길들을 노래할 것이니, 주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138:6 주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거만한 자는 멀리서도 다 아십니다.

138:7 내가 환난 한가운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실 것이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38:8 주님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139장

139:1 지휘자를 위한 시. 다윗의 시.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피셨으니 나를 아십니다.

139:2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아채십니다.

139:3 주님께서는 내가 길을 갈 때와 누울 때를 가려내시며, 나의 모든 길에 익숙하십니다.

139:4 내 혀에 말이 오르기도 전에, 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그 말을 다 아십니다.

139:5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주님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습니다.

139:6 이 지식은 내게 너무 놀라워 미칠 수 없으며, 너무 높아 내가 다다를 수 없습니다.

139:7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주님의 면전에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39:8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보십시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139: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 바다 끝 가장 먼 곳에 머물지라도,

139:10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39:11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어둠이 나를 덮칠 것이며, 나를 둘러싼 빛이 밤이 될 것이다" 할지라도,

139:12 어둠조차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며, 밤도 대낮처럼 밝게 빛납니다. 주님께는 어둠도 빛과 같습니다.

139:13 주님께서 내 속을 만드셨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엮으셨기 때문입니다.

139:14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들은 기이하며, 내 영혼이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39:15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땅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였을 때에, 나의 뼈마디조차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139:16 주님의 눈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내 몸을 보셨으며, 정해진 날들 가운데 아직 하루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그 날들이 모두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139:17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총합이 얼마나 방대한지요!

139:18 내가 그것을 세려 해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139:19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139:20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슬러 말하며,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릅니다.

139:21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으며, 주님께 맞서 일어나는 자들을 보고 어찌 비통해하지 않겠습니까?

139:22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139:23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139:24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140장

140:1 지휘자를 위한 시. 다윗의 시. 주님,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폭력적인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140:2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꾸미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여듭니다.

140:3 그들은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벼리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셀라.

140:4 주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폭력적인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140:5 거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숨겨 두고, 길가에 그물의 줄을 펼쳤으며, 나를 노려 덫을 놓았습니다. 셀라.

140:6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40:7 주님이신 주여, 내 구원의 힘이시여, 주님께서는 싸움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140:8 주님,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쭐댈 것입니다. 셀라.

140:9 나를 둘러싼 자들의 머리로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입술이 쏟아낸 해악이 그들을 덮치게 해 주십시오.

140:10 불타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 속과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40:11 남을 헐뜯는 자는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며, 악이 폭력적인 사람을 뒤쫓아 쓰러뜨릴 것입니다.

140:12 나는 주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공의를 세우실 것을 안다.

140:13 참으로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141장

141:1 다윗의 시. 주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어서 내게로 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41:2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바치는 향처럼 놓이게 하시고, 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141:3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141:4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에도 기울어지지 않게 하셔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악한 행실을 저지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141:5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은 은혜요, 그가 나를 꾸짖을지라도 그것은 머리에 바르는 기름 같으니,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 기도는 언제나 그들의 악한 행실을 거스를 것입니다.

141:6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낭떠러지로 내던져질 때에, 사람들은 내 말이 옳음을 깨닫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141:7 "마치 사람이 땅을 갈아 부수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스올 어귀에 흩어졌구나."

141:8 주님, 나의 주님, 제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제 영혼을 궁핍한 채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141:9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가미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덫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141:10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함께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142장

142:1 다윗의 묵상시, 그가 동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142:2 내가 그분 앞에 내 원통함을 쏟아 놓으며, 내 환난을 그분 앞에 털어놓습니다.

142:3 내 영혼이 속에서 짓눌려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숨겨 두었습니다.

142:4 내 오른쪽을 둘러보아 주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도 사라졌고, 내 영혼을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142:5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십니다."

142:6 내가 너무나 궁핍한 처지에 놓였으니,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뒤쫓는 자들이 나보다 너무 강하니,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42:7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므로,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143장

143:1 다윗의 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143:2 주님의 종을 심판의 자리에 세우지 마십시오,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3:3 원수가 내 목숨을 뒤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았고,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143:4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내 영이 지쳐 쓰러질 것 같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143: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되새기며,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143:6 내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며, 내 영혼이 가뭄 든 땅처럼 주님을 목말라합니다. 셀라.

143:7 주님,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143:8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143:9 주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하여 몸을 숨깁니다.

143:10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143:11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 주십시오.

143:1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원수들을 끊어 버리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자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144장

144:1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쟁에 임하게 하신다.

144:2 그분은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높은 망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분 안으로 피하며, 내 백성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다.

144:3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144:4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144:5 주님, 주님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을 만지셔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해 주십시오.

144:6 번개를 번쩍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십시오.

144:7 위에서부터 주님의 손을 뻗으셔서, 거센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144: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으로 들어 올린 오른손입니다.

144:9 하나님, 내가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겠으며, 열 줄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노래하겠습니다.

144:10 주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자신의 종 다윗을 치명적인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144:11 나를 건져 주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으로 들어 올린 오른손입니다.

144:12 그러면 우리의 아들들은 젊을 때 잘 자란 식물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꾸미려고 다듬은 모퉁잇돌 기둥 같을 것입니다.

144:13 우리의 곳간은 가득 차서 온갖 곡식이 넘쳐나며, 우리의 양들은 들판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로 번성할 것입니다.

144:14 우리의 소들은 무거운 짐을 질 것이며, 무너지는 성벽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144:15 이러한 처지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행복하다.

145장

145:1 다윗의 찬양시. 나의 하나님이신 왕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겠습니다.

145:2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겠습니다.

145:3 주님은 위대하시니 마땅히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145:4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송하며, 주님의 권능 있는 행적들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145:5 주님의 존귀함이 지닌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145:6 사람들이 주님의 두려운 행적들이 지닌 힘을 말할 것이며, 나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145:7 그들은 주님의 크신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쏟아 놓으며, 주님의 의를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145:8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크신 분이다.

145:9 주님은 모든 이에게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위에 머문다.

145:10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145:11 그들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145:12 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능 있는 일들과, 그분 나라의 찬란한 위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145:13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신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자비로우십니다.

145:14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짓눌려 굽은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

145:15 모든 것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145:16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145:17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분의 모든 일에서 은혜로우시다.

145:18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 곧 진실하게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145:19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145:20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시지만, 악인은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145:21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전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기를 빈다.

146장

146:1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146:2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고, 내가 숨 쉬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 노래하겠다.

146:3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마라.

146:4 그의 숨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도 사라진다.

146: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

146:6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며, 영원토록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146: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풀어 주신다.

146:8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짓눌려 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146:9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뒤흔들어 엎으신다.

146:10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147장

147:1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 좋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즐겁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147:2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147:3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147:4 그분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 별들을 모두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147: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니,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147:6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신다.

147:7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라.

147:8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

147:9 그분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시고, 우짖는 어린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147:10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 힘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147:11 주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147:12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라!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147:13 그분께서 네 성문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셨고,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47:14 그분은 네 국경 안에 평화를 가져다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신다.

147:15 그분께서 땅에 자신의 명령을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빠르게 내달린다.

147:16 그분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재를 날리듯 서리를 흩뿌리신다.

147:17 그분은 자갈 같은 우박을 쏟아부으시니, 그분의 추위 앞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147:18 그분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른다.

147:19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셨다.

147:20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찬양하라!

148장

148:1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148:2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야, 그분을 찬양하라!

148:3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148:4 하늘 위의 하늘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148:5 그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분이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148:6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무궁토록 굳게 세우셨고,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정하셨다.

148:7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큰 바다 생물들과 모든 깊은 바다야,

148:8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 구름아,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거센 폭풍아,

148:9 산들과 모든 언덕아, 과일나무와 모든 백향목아,

148:10 들짐승과 모든 가축아, 기어 다니는 생물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148: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아,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148:12 젊은 남자와 처녀들아, 노인과 아이들아,

148:13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148:14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는 그분의 모든 성도, 곧 그분께 가까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찬양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149장

149:1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 드려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149: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149:3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분께 찬양을 노래하라!

149:4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꾸미시기 때문이다.

149:5 성도들은 이 영예 속에서 기뻐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149: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선 칼이 쥐어지기를 빈다.

149:7 이는 이방 나라들에 원수를 갚고, 민족들에게 벌을 내리며,

149:8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149:9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집행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영예가 있다. 주님을 찬양하라!

150장

150:1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권능의 행동 때문에 그분의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150:2 그분의 강력한 행동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탁월한 위대하심에 걸맞게 그분을 찬양하라!

150:3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150:4 소고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현악기와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150:5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라! 울려 퍼지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라!

150:6 숨 쉬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잠언

1장

1: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1: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1:3 지혜롭게 처신하는 법과 의로움과 공의와 공평함을 훈련받게 하며,

1:4 어수룩한 사람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이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니,

1:5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배움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훌륭한 지도침을 얻을 것이다.

1:6 이는 잠언과 비유, 지혜로운 이들의 말씀과 그들의 수수께끼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1: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1: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1:9 그것들은 네 머리에 얹을 은혜로운 화관이요, 네 목에 걸어줄 목걸이가 될 것이다.

1:10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1:11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엎드려 피를 흘리게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죄한 사람을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리자.

1:12 스올처럼 그들을 산 채로 삼켜 버리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1:13 우리가 온갖 값진 재물을 찾아내어, 약탈한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1:14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모두 돈주머니 하나만 같이 쓰자."라고 하더라도,

1:15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다니지 마라. 네 발을 그들의 길에서 떼어놓아라.

1:16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1:17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참으로 헛수고이다.

1:18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엎드려 있는 꼴이다.

1:19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사람의 길은 이러하니, 그 탐욕이 주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다.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1:21 지혜는 시끄러운 길목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안에서 이렇게 말한다.

1:22 "어수룩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조롱하기를 즐기며, 미련한 자들이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1: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붓고, 내 말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 주겠다.

1: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뻗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1:25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조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1:26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나도 웃을 것이며, 파멸이 너희에게 덮칠 때 내가 조롱할 것이다.

1:27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파멸이 회오리바람처럼 너희에게 닥치며, 고통과 고뇌가 너희를 짓누를 때 그리할 것이다.

1:28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나를 부지런히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1:29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1:30 나의 조언을 원하지도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1:31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른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온갖 꾀로 배부를 것이다.

1:32 어수룩한 자들의 변절은 그들을 죽일 것이요, 미련한 자들의 안일함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1:33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것이다."

2장

2: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

2: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2:3 참으로 네가 분별력을 얻으려고 부르짖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2:4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아낸다면,

2:5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2:6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2:7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참된 지혜를 쌓아 두시며, 흠 없이 걷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2:8 이는 그분께서 공의의 길을 지키시고, 그분의 신실한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2:9 그때에 너는 의로움과 공의와 공평함,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0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11 분별력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2:12 그리하여 너를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고,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2:13 그들은 어둠의 길을 걸으려고 정직한 길을 저버리며,

2:14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의 비뚤어짐을 즐거워하며,

2:15 그들의 길은 굽어 있고, 그들의 행로는 빗나가 있다.

2:16 또한 지혜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2:17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저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2:18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내려앉고, 그 여자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

2:19 그 여자에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에 이르지도 못한다.

2:20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걷고,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지켜라.

2:21 정직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 것이요, 흠 없는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2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신의를 저버린 자들은 그곳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3장

3:1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계명을 지켜라.

3:2 그것들이 네게 긴 날들과 오랜 삶, 평안을 더해 줄 것이다.

3:3 친절과 진실함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의 판에 새겨라.

3:4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와 좋은 분별력을 얻을 것이다.

3:5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네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라.

3:6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3:7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3:8 이것이 네 몸에 건강이 되고, 네 뼈에 활력이 될 것이다.

3:9 네 재물과 네가 거둔 모든 것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3:10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흐를 것이다.

3:11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꾸지람에 지치지 마라.

3:12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과 같다.

3:13 지혜를 찾아낸 사람은 행복하다. 분별력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3:14 지혜를 얻는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소득이 순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3:15 지혜는 루비보다 값지니, 네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3:16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와 영예가 있다.

3:17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평안이다.

3:18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3:19 주님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3:20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3:21 내 아들아,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라.

3:22 그것들이 네 영혼에 생명이 되고, 네 목에 아름다운 장식이 될 것이다.

3:23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것이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3:24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정녕 네가 누우면 네 잠이 달콤할 것이다.

3:25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한 자들에게 닥치는 파멸이 이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3:26 주님께서 네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시며, 네 발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3:27 네 손에 도울 힘이 있다면,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거절하지 마라.

3:28 네게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와. 내일 줄게." 하고 말하지 마라.

3:29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이웃을 해치려고 악을 꾀하지 마라.

3:30 어떤 사람이 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그 사람과 다투지 마라.

3:31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동 방식도 따르지 마라.

3:32 비뚤어진 자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그분은 정직한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신다.

3:33 악한 자의 집에는 주님의 저주가 있으나, 그분은 의인의 거처에는 복을 내리신다.

3:34 참으로 그분은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3:35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겠지만, 미련한 자들에게 돌아갈 영예는 수치일 것이다.

4장

4: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4:2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배움을 주니,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4:3 나 또한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는 여리고 사랑받는 외아들이었다.

4:4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4:5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잊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4:6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4:7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4:8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 줄 것이다. 네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4:9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로운 화관을 씌워 줄 것이요, 너에게 빛나는 영광의 관을 건네줄 것이다."

4:10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 생명의 햇수가 길어질 것이다.

4:11 내가 너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쳤고, 너를 곧은 길로 이끌었다.

4:12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달릴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4:13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훈계가 곧 네 생명이기 때문이다.

4:14 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인의 길로 걷지 마라.

4:15 그 길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마라. 그 길에서 돌아서서 지나가 버려라.

4: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며,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4:17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4:18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완전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난다.

4:19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4:20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네 귀를 기울여라.

4:21 그것들이 네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4:22 그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은 생명이 되며,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4:23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지켜라. 생명의 샘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4:24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굽은 입술을 네게서 멀리하여라.

4:25 네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네 시선을 곧장 네 앞쪽으로 두어라.

4:26 네 발이 디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굳건하게 하여라.

4:27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떼어놓아라.

5장

5: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5:2 그리하여 네가 분별력을 간직하고, 네 입술로 지식을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5:3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5:4 결국에는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롭다.

5:5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스올로 곧장 이어진다.

5:6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자기 길이 비뚤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5:7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5:8 그 여자에게서 네 길을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5:9 네 존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하고, 네 수명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5:10 낯선 자들이 네 재산으로 배를 채우지 않도록 하고, 네 수고로 얻은 것이 다른 사람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

5:11 네 살과 네 몸이 다 쇠잔해질 때, 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탄식하며

5:12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쩌자고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했던가!

5:13 내가 스승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를 가르쳐 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구나!

5:14 모여든 온 무리와 회중 가운데서 내가 완전한 파멸의 벼랑 끝에 이르고 말았구나."

5:15 너는 네 자신의 저수조에서 물을 마시고, 네 자신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라.

5:16 어찌하여 네 샘물이 거리로 흘러넘치게 하며, 네 물줄기가 광장으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5:17 그 물이 오직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5:18 네 샘이 복을 받게 하여라.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5:19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우아한 암노루 같은 아내이니, 언제나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에 언제나 흠뻑 빠져 있어라.

5:20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음행하는 여자에게 흠뻑 빠져 있겠으며, 어찌하여 다른 여자의 가슴을 품겠느냐?

5:21 사람의 길은 주님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로를 살펴보신다.

5:22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동에 걸려들고, 자기 죄의 밧줄에 단단히 얽매인다.

5:23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 죽을 것이며, 그 큰 어리석음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6장

6: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를 섰거나, 낯선 사람을 위해 손을 마주 잡고 보증을 섰다면,

6:2 너는 네 입에서 나온 말에 얽혀들었고,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덫에 걸린 것이다.

6:3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가서 자신을 낮추고, 네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6:4 네 눈에 잠을 자지 말고, 네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여라.

6:5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노루처럼, 새 잡는 사람의 덫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네 자신을 구해내어라.

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로워져라.

6:7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관도 통치자도 없지만,

6:8 여름 동안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 둔다.

6:9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잠을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겠느냐?

6:10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6:11 네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칠 것이요, 네 궁핍이 무장한 군사처럼 덮칠 것이다.

6:12 쓸모없는 인간이자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말을 입에 담고 돌아다니며,

6:13 눈짓을 하고 발로 신호를 보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6:14 마음에 비뚤어짐을 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언제나 다툼을 일으킨다.

6:15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작스럽게 닥칠 것이니, 그가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16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섯 가지요, 참으로 그분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다.

6:17 곧 오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6:18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

6:19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다.

6:20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6:21 그것들을 늘 네 마음에 묶어 두고, 네 목에 매어 두어라.

6:22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6:23 명령은 등불이요 가르침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6:24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빗나간 남의 아내가 아첨하는 혀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6:25 네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의 눈짓에 사로잡히지 마라.

6:26 창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귀한 목숨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6:27 사람이 불을 품에 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6:28 사람이 숯불 위를 걸으면서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않겠느냐?

6:29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이와 같으니, 그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6:30 도둑이 배가 고파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겠지만,

6:31 들키게 되면 일곱 배로 갚아야 하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6:32 여자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니,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멸망시킨다.

6:33 그는 상처와 수치만 얻을 것이요, 그의 치욕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6:34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격발시키니,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다.

6:35 그는 어떤 보상금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7장

7: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7:2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7:3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매고, 네 마음 판에 새겨라.

7: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하고 말하며, 명철을 "친척"이라 불러라.

7:5 그리하면 이것들이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7:6 내가 내 집 창가에서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7:7 어수룩한 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각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7:8 그는 그 여자의 골목 모퉁이 가까운 거리를 지나,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7:9 해 질 무렵 저녁때, 한밤중 어둠 속에서였다.

7:10 보라, 창녀의 옷차림을 하고 교활한 마음을 품은 한 여자가 그를 맞이하였다.

7:11 그 여자는 소란스럽고 제멋대로여서, 그의 발은 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7:12 때로는 거리에, 때로는 광장에 나가 길목 모퉁이마다 숨어서 엿본다.

7:13 그 여자가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더니,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7:14 "내게 화목제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서원한 것을 다 갚았습니다.

7:15 그래서 내가 그대를 맞으러 나와 간절히 찾다가, 마침내 그대를 만났습니다.

7:16 내 침상에는 화려한 요를 펴놓았고, 애굽의 실로 짠 무늬 있는 천을 둘러놓았습니다.

7:17 또 내 잠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향기를 냈습니다.

7:18 자, 어서 아침까지 우리 사랑을 흠뻑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즐겨 보아요.

7:19 남편은 집에 없고 먼 길을 떠났답니다.

7:20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날이나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7:21 여자가 온갖 설득하는 말로 그를 빗나가게 하고, 매끄럽게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유혹하였다.

7:22 젊은이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미련한 자가 덫에 발을 들이밀듯 곧바로 그 여자를 뒤따라갔으니,

7:23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때까지 그러하였다. 새가 그물로 쏜살같이 날아들면서도 그것이 자기 목숨을 앗아갈 줄 모르는 것과 같았다.

7:24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7:25 네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행로에서 길을 잃지 마라.

7:26 그 여자가 상처를 입혀 쓰러뜨린 사람이 많으며, 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큰 무리를 이룬다.

7:27 그 여자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8장

8:1 지혜가 부르짖지 않느냐? 명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8:2 길가의 높은 곳 꼭대기, 여러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 지혜가 서 있다.

8:3 성문 곁, 성읍 어귀, 성문 출입구에서 지혜가 크게 외친다.

8: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인류의 자손들에게 내 목소리를 보낸다.

8:5 어수룩한 자들아, 너희는 슬기를 깨달아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품어라!

8:6 들어라, 내가 가장 뛰어난 것들을 말하겠고, 내 입술을 열어 올바른 것을 선포하겠다.

8: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사악한 것은 내 입술이 역겨워하기 때문이다.

8:8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의로우니,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비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8:9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말들이 모두 분명하며, 지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올바르다.

8:10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며, 순금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8:11 지혜는 루비보다 나으니, 바랄 만한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8:12 "나 지혜는 슬기를 내 거처로 삼았다. 지식과 분별력을 찾아라.

8:1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비뚤어진 말을 미워한다.

8:14 모략과 참된 지식이 내게 있으며, 내게는 명철과 능력이 있다.

8: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고, 군주들이 공의를 세운다.

8:16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땅의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8:18 부귀와 영예가 내게 있고, 영속하는 재물과 번영도 내게 있다.

8:19 내 열매는 금보다, 곧 순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순은보다 낫다.

8:20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다닌다.

8: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곳간을 가득 채워 주려는 것이다.

8:22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시던 태초에, 옛적에 행하신 일들보다 앞서 나를 가지셨다.

8:23 나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8:24 깊은 바다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물이 넘쳐흐르는 샘들이 아직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다.

8:25 산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니,

8:26 그때는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판도,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드시지 않았을 때였다.

8:27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분께서 깊은 바다 표면에 둥근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8:28 그분께서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만드실 때,

8:29 그분께서 바다에 경계를 정해 주셔서 물이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들을 정하실 때,

8:30 그때 내가 그분 곁에서 숙련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8:31 그분의 온 세상을 즐거워하였고,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았다.

8:32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8:33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져라. 그것을 거부하지 마라.

8:34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지켜보고, 내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8:35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8:36 그러나 나를 놓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9장

9:1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었다.

9:2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섞었으며, 상도 차려 놓았다.

9:3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친다.

9:4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또 지각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9:5 "와서 내가 차린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9:6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명철의 길을 걸어라."

9:7 거만한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은 모욕을 사고,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9:8 거만한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9:9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인을 가르치면 배움이 더 늘어날 것이다.

9: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9:11 나를 통해 네 날이 많아질 것이며, 네 삶의 햇수가 더해질 것이다.

9:12 네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는 너 자신에게 이롭고, 네가 거만하다면 너 홀로 그 책임을 질 것이다.

9:13 미련한 여자는 소란스럽고, 제멋대로이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9:14 그 여자는 자기 집 문간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9:15 자기 길을 곧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말한다.

9:16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또 지각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9:17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9:18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의 영이 그곳에 있고, 그 여자의 손님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10장

10:1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슬픔을 안겨 준다.

10:2 악하게 모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져 준다.

10:3 주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10:4 게으른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손은 부를 가져온다.

10:5 여름에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겨 주는 아들이다.

10: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여 있다.

10:7 의인을 기억하는 일은 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10:8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입만 놀리는 바보는 넘어질 것이다.

10:9 흠 없이 걷는 사람은 안전하게 걷지만, 자기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

10:10 눈짓하는 사람은 슬픔을 일으키고, 입만 놀리는 바보는 넘어질 것이다.

10: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여 있다.

10:12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10:13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각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기다린다.

10:14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 두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파멸에 가깝다.

10: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파멸은 그들의 가난이다.

10: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이끌고, 악인의 소득은 죄로 이끈다.

10:17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있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10:18 미움을 감추는 사람에게는 거짓된 입술이 있고, 비방을 퍼뜨리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10:19 말이 많으면 불순종이 없기 어렵지만, 입술을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한다.

10: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거의 없다.

10:21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지각이 없어 죽는다.

10:22 주님의 복은 부를 안겨 주며, 주님께서는 거기에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

10:23 미련한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10:24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닥치지만,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10:25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굳건히 서 있다.

10:26 식초가 이에 시리고 연기가 눈에 매운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10:27 주님을 경외하면 날이 길어지지만, 악인의 햇수는 줄어들 것이다.

10:28 의인의 바람은 기쁨이 되지만, 악인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10:29 주님의 길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요새이지만,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10:30 의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지만, 악인은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10: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지만, 비뚤어진 혀는 잘릴 것이다.

10:32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주는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삐뚤어진 말만 한다.

11장

11:1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 기쁨이 된다.

11:2 교만이 오면 수치도 뒤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11:3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하지만, 신의 없는 사람들의 간사함은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11:4 진노의 날에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져 준다.

11:5 흠 없는 사람의 의로움은 그의 길을 곧게 펴 주지만,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11:6 정직한 사람의 의로움은 그들을 건져 주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다.

11:7 악인이 죽을 때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기대도 허사가 된다.

11:8 의인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11:9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11:10 의인이 잘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11:11 정직한 사람들의 축복으로 성읍이 높아지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무너진다.

11:12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이지만, 명철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11:13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신의를 저버리지만,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11:14 지혜로운 인도가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11:15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큰 고통을 겪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11:16 너그러운 여자는 명예를 얻고,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11:17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친다.

11:18 악인은 헛된 삯을 얻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11:19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악을 좇는 사람은 죽음을 얻는다.

11:20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그 행위가 흠 없는 사람은 주님께 기쁨이 된다.

11:21 분명히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겠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22 분별력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은 돼지 코에 달린 금고리 같다.

11:23 의인의 소망은 오직 좋은 것으로 이어지지만, 악인의 기대는 진노에 이를 뿐이다.

11:24 널리 흩어 주어도 더욱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아껴야 할 이상으로 아끼고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11:25 너그럽게 베푸는 영혼은 기름지게 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받을 것이다.

11:26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곡식을 파는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임할 것이다.

11:27 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호의를 얻지만, 악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악이 닥칠 것이다.

11:28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겠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11:29 자기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바람을 물려받을 것이요,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11:30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11:31 보아라,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12장

12:1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12:2 선한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입지만, 주님께서는 흉계를 꾸미는 사람을 정죄하실 것이다.

12:3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2:4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12:5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지만, 악인의 조언은 속임수로 차 있다.

12:6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는 것과 같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을 구해 낸다.

12:7 악인은 쓰러져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12:8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12:9 남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도 종을 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서 먹을 빵도 없는 사람보다 낫다.

12:10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악인의 자비조차 잔인할 뿐이다.

12:11 자기 땅을 갈아 일구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12:12 악인은 악한 자들의 약탈품을 탐내지만, 의인의 뿌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12:13 악인은 입술의 허물 때문에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12: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넉넉히 누리고, 손으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12:15 미련한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는 옳아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12:16 바보는 불쾌함을 당장에 드러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12:17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12:18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

12: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뿐이다.

12:20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온다.

12: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겠지만, 악인은 불행으로 가득 찰 것이다.

12:22 거짓된 입술은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쁨이 된다.

12:23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지만,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널리 퍼뜨린다.

12:24 부지런한 사람들의 손은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름은 강제 노동으로 끝난다.

12:2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12:26 의인은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하지만, 악인의 길은 그들을 그릇된 곳으로 이끈다.

12:27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 온 것도 굽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하게 여겨진다.

12:28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13장

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13:2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누리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폭력을 갈망한다.

13:3 자기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지만, 입술을 함부로 벌리는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

13:4 게으른 사람의 영혼은 바라기만 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소망은 넉넉하게 채워질 것이다.

13: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온다.

13:6 의로움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켜 주지만, 사악함은 죄인을 쓰러뜨린다.

13:7 부자인 체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체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13:8 사람의 재물이 자기 목숨의 몸값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들을 일이 없다.

13:9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13:10 교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13:11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은 재물을 불려 간다.

13:12 바라는 것이 미루어지면 마음이 병들지만, 갈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13:13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죗값을 치르겠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13:14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13:15 선한 지각은 은혜를 얻게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길은 험난하다.

13:16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지식으로 행동하지만, 바보는 자기 미련함을 드러낸다.

13:17 악한 심부름꾼은 불행에 빠지지만, 신실한 사절은 회복을 가져온다.

13:18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책망을 귀담아듣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13:19 소원이 이루어지면 영혼에 달콤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악에서 돌아서기를 몹시 싫어한다.

13:20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사람은 지혜로워지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동무는 해를 입는다.

13:21 불행은 죄인을 뒤쫓지만, 번영은 의인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

13:22 선한 사람은 자손 대대로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13:23 가난한 사람들의 밭에는 먹을 양식이 많지만, 불의 때문에 그것이 휩쓸려 사라진다.

13:24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자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 훈육한다.

13:25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의 배는 주린다.

14장

14:1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나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14:2 정직하게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자기 길을 비뚤게 걷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한다.

14:3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등에 매를 부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그들을 지켜 준다.

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는다.

14:5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14:6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찾아도 얻지 못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쉽게 찾아온다.

14:7 미련한 사람을 멀리하여라. 그의 입술에서 지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8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깊이 살피는 것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속임수일 뿐이다.

14:9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속죄하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는 호의가 있다.

14:10 마음은 자기만의 씁쓸함과 기쁨을 알며, 다른 사람은 그 기쁨에 끼어들지 못한다.

14:11 악인의 집은 무너지겠지만,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14:12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끈다.

14:13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이 근심이 되기도 한다.

14:14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실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 역시 자기 행실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14:15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14:16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지만, 바보는 성급하고 무모하다.

14:17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14:18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함을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쓴다.

14:19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사악한 자는 의인의 문턱에 엎드린다.

14:20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조차 버림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다.

14:21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14:22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겠는가?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신실함이 따른다.

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따르지만, 입술의 헛된 말은 가난만 가져올 뿐이다.

14:24 지혜로운 사람의 면류관은 그들의 재물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미련함만 더할 뿐이다.

14:25 진실한 증인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쏟아낸다.

14:26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14:2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람들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14: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14:30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14:31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14:32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 속에서도 피난처가 있다.

14:33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며, 미련한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드러난다.

14:34 의는 나라를 드높이지만, 죄는 어느 민족에게나 수치가 된다.

14:35 왕의 호의는 슬기롭게 행동하는 신하에게 향하지만,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에게 향한다.

15장

15:1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15:2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돋보이게 하지만, 미련한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15:3 주님께서는 모든 곳을 눈으로 살피시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지켜보신다.

15:4 따뜻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거짓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15:5 미련한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책망을 귀담아듣는 사람은 슬기를 얻는다.

15: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따른다.

15:7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15:8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 기쁨이 된다.

15:9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15:10 올바른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기다리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15:11 스올과 아바돈도 주님 앞에 훤히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15:12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15:13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지만, 마음이 아프면 영혼이 상한다.

15:14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삼킨다.

15:15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비참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잔치를 누린다.

15:16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보물이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15:17 사랑이 있는 곳에서 채소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15:18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싸움을 가라앉힌다.

15:19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 같지만, 정직한 사람의 길은 탄탄대로다.

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15:21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짓이 기쁨이 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자기 길을 곧게 걷는다.

15:22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15:23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니, 제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15:24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로 나 있어서, 아래에 있는 스올로 내려가지 않게 해 준다.

15:25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지만, 과부의 땅 경계는 지켜 주신다.

15:26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생각을 몹시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15:27 부당한 이익을 탐내는 자는 자기 집안을 망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15:29 주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15:30 눈의 밝은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15:31 생명에 이르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물 것이다.

15:32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업신여기는 것이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은 명철을 얻는다.

15:3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며, 겸손은 영광에 앞선다.

16장

16:1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혀의 대답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16:2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동기를 달아보신다.

16:3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16:4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지으셨다.

16:5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니, 그들은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6:6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덮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

16:7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16:8 의를 행하며 적게 가지는 것이, 불의하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16:9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6:10 왕의 입술에는 영감 어린 판결이 있으니, 그의 입은 공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다.

16:11 공평한 저울과 천칭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모든 저울추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16:12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몹시 역겨운 일이니, 왕위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서기 때문이다.

16: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쁨이며,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16: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16:15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16: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16:17 정직한 사람의 큰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16:18 교만은 파멸에 앞서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선다.

16:19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16:20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21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롭다 일컬음을 받고, 부드러운 입술의 말은 배움을 더해 준다.

16:22 명철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함 자체가 벌이다.

16:23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그의 입술에 배움을 더해 준다.

16:24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영혼에 달콤하고 뼈에 건강을 준다.

16:25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끈다.

16:26 일하는 사람의 식욕은 그를 위해 일하니, 그의 입이 그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16:27 쓸모없는 사람은 악을 꾀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16:28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험담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16:29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

16:30 눈짓하는 사람은 비뚤어진 짓을 꾀하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사람은 악을 저지른다.

16:31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게 된다.

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16:33 제비는 품 안에서 뽑히지만, 모든 결정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17장

17:1 조용함 가운데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다툼이 가득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낫다.

17:2 지혜롭게 행동하는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17:3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17:4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해를 끼치는 혀에 귀를 기울인다.

17:5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며,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17: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자녀의 영광은 그 부모다.

17:7 격조 높은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듯이, 거짓된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17:8 뇌물을 주는 사람의 눈에 뇌물은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 일이 잘 풀린다.

17:9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람은 사랑을 북돋우지만, 지난 일을 거듭 들추는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17:10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꾸지람 한마디가 어리석은 자를 백 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17:11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꾀하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치러 보냄을 받을 것이다.

17:12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편이, 어리석은 짓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

17:13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의 집에서는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7:14 다툼의 시작은 둑을 터뜨리는 것과 같으니, 말다툼이 터지기 전에 싸움을 그쳐라.

17:15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17:16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데, 어찌하여 지혜를 사겠다고 손에 돈을 쥐고 있는가?

17:17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역경을 함께하려고 태어났다.

17:18 지각이 없는 사람은 손을 마주 잡고 서약하며,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17:19 반역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하고, 자기 대문을 높이 짓는 자는 파멸을 부른다.

17:20 마음이 뒤틀린 자는 번영을 얻지 못하고, 혀가 왜곡된 자는 재앙에 빠진다.

17:21 미련한 자를 낳은 아버지는 슬픔을 겪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없다.

17:22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 되지만, 꺾인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한다.

17:23 악인은 품속에서 뇌물을 받고, 정의의 길을 굽게 만든다.

17:24 분별력 있는 사람의 얼굴 앞에는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을 헤맨다.

17:25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고통이 된다.

17:26 의인을 처벌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고결한 관리를 때리는 것도 옳지 않다.

17:27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고, 침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17:28 어리석은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총명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18장

18:1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좇고, 모든 건전한 판단에 맞선다.

18:2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18:3 악함이 오면 멸시도 함께 오고, 부끄러운 일과 함께 수치가 찾아온다.

18:4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시내와 같다.

18:5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고, 무죄한 사람에게서 정의를 빼앗는 것도 옳지 않다.

18:6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18:7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그의 입술은 자기 영혼의 올무가 된다.

18:8 남을 헐뜯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18:9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파괴를 일삼는 자의 형제다.

18:10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같아서,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을 얻는다.

18:11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 같아서,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18:12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

18:13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한다.

18:14 사람의 영은 질병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주지만, 꺾인 심령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18:15 분별력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18:16 사람의 선물은 그가 갈 길을 넓혀 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이끈다.

18:17 먼저 자기 사건을 변론하는 사람은 옳아 보인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에게 따져 묻기 전까지는 그렇다.

18:18 제비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하고, 힘센 사람들 사이를 판가름해 준다.

18:19 마음이 상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견고한 성읍을 함락하기보다 어렵고, 그런 다툼은 요새의 문빗장과 같다.

18:20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입술이 거두는 것으로 만족한다.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께 은총을 받는다.

18:23 가난한 사람은 자비를 간청하지만,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18:24 친구가 많아도 파멸에 이를 수 있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19장

19:1 온전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19:2 지식 없는 열정은 좋지 않고, 발걸음이 너무 급하면 길을 잃는다.

19:3 사람의 미련함이 자기 길을 망쳐 놓고도,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다.

19: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해 주지만, 가난한 사람은 있던 친구마저 떠나간다.

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쏟아내는 자는 화를 피하지 못한다.

19: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19:7 가난한 사람은 친척들조차 다 멀리하는데, 하물며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를 피하겠는가! 그가 애원하며 따라가도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다.

19: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19:9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19:10 호화롭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듯이,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19:11 사람의 신중함은 노하기를 더디 하게 하고, 허물을 덮어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19:12 왕의 분노는 사자의 포효 같지만, 그의 은총은 풀잎 위의 이슬과 같다.

19:13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19:15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 나태한 사람은 굶주림을 겪을 것이다.

19:16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죽을 것이다.

19:17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의 선행을 되갚아 주실 것이다.

19:18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마라.

19:19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 그를 건져 주더라도 또다시 건져 주어야 할 것이다.

19:20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네 마지막 날에 지혜롭게 될 것이다.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끝내 이루어질 것이다.

19:22 사람이 사모받는 까닭은 그의 인자함 때문이며,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19:2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만족하여 편히 쉬고 재앙을 겪지 않는다.

19:24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조차 귀찮아한다.

19:25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러면 어수룩한 자가 분별력을 배울 것이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19:26 아버지를 털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고 욕을 끌어오는 자식이다.

19:27 내 아들아, 훈계 듣기를 그만두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

19:28 몹쓸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19:29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심판이 마련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등에는 매질이 준비되어 있다.

20장

20:1 포도주는 조롱꾼이고 맥주는 싸움꾼이다. 이것들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다.

20:2 왕이 주는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 같으니, 그를 노엽게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

20:3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가 되지만, 미련한 자마다 걸핏하면 다툰다.

20:4 게으른 사람은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구걸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20:5 사람의 마음에 담긴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낸다.

20:6 많은 사람이 저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20:7 온전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있으니, 그의 뒤를 잇는 자녀들은 복이 있다.

20:8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가려내어 흩어 버린다.

20:9 누가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고, 죄 없이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10 서로 다른 저울추와 서로 다른 부피 기준, 이 둘은 모두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20:11 아이라도 자기 행동으로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내어, 자기 행위가 순결한지 올바른지 보여 준다.

20: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둘 다 주님께서 만드셨다.

20:13 잠을 사랑하지 마라, 가난해질까 두렵다. 눈을 떠라, 그러면 빵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20:14 물건을 사는 사람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제 갈 길로 가서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20:15 금도 있고 루비도 많지만,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값진 보석이다.

20:16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벗겨라. 부정한 여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그를 담보로 잡아 두어라.

20:17 사기로 얻은 음식은 사람에게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 차게 된다.

20:18 계획은 조언을 받아 세우고, 지혜로운 인도를 받아 전쟁을 치러라!

20:19 남의 말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가볍게 놀리는 자와는 어울리지 마라.

20:20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질 것이다.

20:21 처음에 성급히 얻은 유산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20:22 "내가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20:23 서로 다른 저울추는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

20:24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20:25 섣부르게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나서 나중에 서원을 재고하는 것은 사람에게 덫이 된다.

20:26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가려내 키질하고, 그들 위에 탈곡기 바퀴를 굴린다.

20:27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등불이니,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샅샅이 살핀다.

20:28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이 왕을 지켜 주고, 그의 왕위는 사랑으로 굳게 선다.

20:29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화려함은 백발에 있다.

20:30 상처를 내는 매질은 악을 씻어 내고, 매는 사람의 깊은 속을 깨끗하게 한다.

21장

21:1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있는 물길과 같아서,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그것을 돌리신다.

21:2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다 옳게 보여도, 주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21:3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21:4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곧 악인의 등불은 죄다.

21:5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가져오지만, 너무 서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에 이른다.

21:6 거짓된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찾는 자들이 쫓는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

21:7 악인의 폭력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어가니,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21:8 죄지은 자의 길은 뒤틀려 있지만, 결백한 사람의 행동은 올곧다.

21:9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한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21:10 악인의 영혼은 악만을 갈망하니, 그의 눈에는 이웃에게 베풀 자비가 없다.

21:11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21:12 의로우신 분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파멸에 빠뜨리신다.

21:13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21:14 은밀히 건네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찔러 주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21:15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파멸이다.

21:16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21:17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21:18 악인은 의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고, 배신자는 올곧은 사람을 대신하여 바쳐진다.

21:19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

21:20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다 삼켜 버린다.

21:21 의와 인자를 좇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예를 얻는다.

21:22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굳게 믿던 요새를 무너뜨린다.

21:23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21:24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일컬어 "조롱꾼"이라 부르니, 그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한다.

21:25 게으른 사람의 욕심은 자기를 죽이니,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21:26 하루 종일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21:27 악인의 제물은 역겨운 것이니, 하물며 사악한 뜻으로 그것을 가져올 때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21:28 거짓 증인은 망하겠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증언은 끝까지 남는다.

21:29 악인은 얼굴을 뻔뻔하게 굳히지만, 올곧은 사람은 자기 길을 바르게 다진다.

21:30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명철도, 어떠한 모략도 주님을 당해 낼 수 없다.

21:31 싸울 날을 위해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다.

22장

22:1 명예를 얻는 것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고, 호의를 받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낫다.

22:2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는 것이다.

22:3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몸을 숨기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22:4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함에 따르는 보상은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다.

22:5 뒤틀린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을 멀리한다.

22:6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육하여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22:7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22:8 불의를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그의 분노의 몽둥이는 부러질 것이다.

22:9 너그러운 눈길을 지닌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자기 음식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기 때문이다.

22: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과 모욕도 그칠 것이다.

22:11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22:12 주님의 눈은 참된 지식을 지키시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의 말은 뒤엎으신다.

22:13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거리에서 찢겨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22: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진노를 산 자가 그곳에 빠진다.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회초리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22:16 자기 이익을 늘리려고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자나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둘 다 가난해질 뿐이다.

22:17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가르침에 네 마음을 두어라.

22:18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며 네 입술에 늘 머물게 한다면, 참으로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22:19 네가 주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오늘 바로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

22:20 내가 너를 위하여 모략과 지식을 담은 서른 가지 훌륭한 교훈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22:21 이는 너에게 진리와 믿을 만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다.

22:22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고, 재판정에서 불쌍한 사람을 짓밟지 마라.

22:23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2:24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고, 분노를 품은 자와 어울리지 마라.

22:25 네가 그의 행동거지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22:26 너는 손을 마주 잡고 서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자가 되지 마라.

22:27 만일 네가 갚을 것이 없다면, 네가 누워 있는 침상마저 빼앗기지 않겠느냐?

22:28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22:29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들을 섬길 것이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23장

23:1 네가 통치자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라.

23:2 네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라면, 네 목에 칼을 대어라.

23:3 그의 진미를 탐내지 마라. 그것은 속임수의 음식이다.

23:4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몸을 혹사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여 자제하여라.

23:5 어찌하여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눈길을 두느냐? 재물은 반드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23:6 인색한 눈을 가진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요리를 탐내지 마라.

23:7 그는 속으로 셈을 따지는 사람이니,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가 너에게 "먹고 마셔라!"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23:8 너는 먹었던 몇 안 되는 음식마저 토해 낼 것이고, 네가 건넨 고운 말도 헛되게 될 것이다.

23: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마라. 그가 네 말에 담긴 지혜를 업신여길 것이다.

23:10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23:11 그들의 옹호자는 강하시니, 그분께서 너를 상대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실 것이다.

23:12 훈계에 네 마음을 기울이고, 지식의 말씀에 네 귀를 기울여라.

23:13 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는 않는다.

23:14 그를 매로 때려,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여라.

23:15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마음도 참으로 기쁠 것이다.

23:16 진실로 네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할 때 내 깊은 속이 즐거워할 것이다.

23:17 네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님을 경외하여라.

23:18 분명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 네 희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3:19 내 아들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라!

23:20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자들이나, 고기를 게걸스럽게 먹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23:21 술주정뱅이와 탐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잠에 취한 사람은 넝마를 걸치게 되기 때문이다.

23:22 너를 낳아 준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가 늙었을 때 업신여기지 마라.

23:23 진리를 사들이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23: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23:2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하게 하여라!

23:26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걷는 길을 지켜보아라.

23:27 창녀는 깊은 구덩이요, 부정한 아내는 좁은 우물이다.

23:28 참으로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배신하는 자를 늘린다.

23:29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는가? 붉게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23:30 늦도록 술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맛보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23:31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매끄럽게 넘어갈지라도, 그것을 쳐다보지 마라.

23:32 그것은 결국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독을 쏜다.

23:33 네 눈은 기괴한 것들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은 횡설수설 헛소리를 지어낼 것이다.

23:34 정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사람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사람 같을 것이다.

23:35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아프지 않았고, 나를 쳤어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 언제 잠에서 깰까? 다시 한잔해야겠다. 술을 더 찾아보아야지"라고 할 것이다.

24장

24:1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도 마라.

24:2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기 때문이다.

24:3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굳건해지며,

24:4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들이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로 가득 차게 된다.

24:5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힘을 지녔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한다.

24:6 지혜로운 지도를 받아 전쟁을 치러야 하니, 조언자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24:7 지혜는 너무 높아 어리석은 자에게 닿지 않으니, 그는 성문 광장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24:8 악행을 꾸미는 사람은 계략꾼이라 불릴 것이다.

24:9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다.

24:10 환난의 날에 네가 낙담한다면, 네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드러낼 뿐이다.

24:11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하여라! 참으로, 도살당할 곳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라!

24:12 네가 "보라, 우리는 이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지 않겠느냐?

24:13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몸에 좋다. 송이꿀은 네 입맛에 달콤하다.

24:14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음을 알아라. 네가 지혜를 얻으면 장차 보상이 있을 것이요, 네 희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4:15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며 숨어 기다리지 말고, 그가 쉬는 보금자리를 허물지 마라.

24:16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에 걸려 완전히 넘어진다.

24:17 네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라.

24:18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 원수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

24:19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24:20 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릴 것이다.

24:21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24:22 그들의 재앙은 갑자기 닥쳐올 것이니, 그 둘이 내릴 파멸을 누가 알겠느냐?

24:23 이것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 편을 드는 것은 좋지 않다.

24:24 악인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고 민족들이 혐오할 것이다.

24:25 그러나 죄인을 꾸짖어 판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잘 풀릴 것이요, 풍성한 복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24:26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입술에 맞추는 입맞춤과 같다.

24:27 밖에서 네 일을 정돈하고 밭을 다듬은 뒤에, 네 집을 지어라.

24:28 까닭 없이 네 이웃을 거슬러 증언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마라.

24:29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에게 갚아 주겠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24:30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없는 사람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다.

24:31 보라,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쐐기풀이 지면을 가득 채웠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24:32 내가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였다. 내가 보고 교훈을 얻었다.

24:33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24:34 네 빈곤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네 궁핍이 무장한 전사처럼 덮칠 것이다.

25장

25:1 이것 역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것이다.

25: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을 살피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25:3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들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다.

25:4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인이 쓸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

25:5 왕의 앞에서 악한 자들을 없애라. 그러면 그의 왕좌가 의로움으로 굳게 설 것이다.

25:6 왕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25:7 네 눈으로 직접 본 귀족 앞에서 낮은 자리로 밀려나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시오"라는 말을 듣는 편이 더 낫다.

25:8 법정으로 서둘러 소송하러 가지 마라. 결국 네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25:9 네 소송거리는 이웃과 직접 변론하되,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마라.

25:10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네 나쁜 평판이 결코 가시지 않을 것이다.

25:11 때에 맞게 한 말은 은 장식 속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

25:12 귀 기울여 듣는 귀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금 귀고리와 순금 장식품과 같다.

25:13 신실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사람들에게 수확할 때 내린 시원한 눈과 같으니,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준다.

25:14 비 없는 구름과 바람처럼, 선물을 준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25:15 인내로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25:16 꿀을 찾았느냐? 적당할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을 토해 내지 않도록 하라.

25:17 이웃의 집에는 발길을 자주 두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25:18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25:19 환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썩은 이나 삐어 절룩거리는 발과 같다.

25:20 추운 날에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나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 주는 사람도 그러하다.

25:21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25:22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되고, 주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25:23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혀는 성난 얼굴을 불러온다.

25:24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25:25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과 같이,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도 그러하다.

25:26 흙탕물이 된 샘과 오염된 우물처럼,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의인도 그러하다.

25:27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영광스럽지 않다.

25:28 성벽이 무너져 내린 도시와 같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26장

26:1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이나 수확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명예는 어울리지 않는다.

26:2 떠도는 참새처럼,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머물지 않는다.

26:3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굴레가, 미련한 자들의 등에는 막대기가 제격이다!

26: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역시 그와 같아질 것이다.

26:5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26:6 미련한 자의 손에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발을 자르고 폭력을 들이켜는 것과 같다.

26:7 다리 저는 사람의 힘없이 매달린 다리처럼, 미련한 자들의 입에 담긴 잠언도 그러하다.

26:8 물매에 돌을 묶어 매는 사람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사람도 그러하다.

26:9 술 취한 자의 손에 찔려 들어간 가시덤불처럼, 미련한 자들의 입에 담긴 잠언도 그러하다.

26:10 닥치는 대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궁수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고용하는 자도 그러하다.

26:11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듯,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26:12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26:13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사나운 사자가 거리를 돌아다닌다!" 하고 말한다.

26:14 문짝이 돌쩌귀를 축으로 돌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만 뒹군다.

26:15 게으른 사람은 접시에 손을 묻고도, 입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귀찮아한다.

26:16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26:17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사람은 개의 귀를 붙잡는 사람과 같다.

26:18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마구 쏘아 대는 미친 사람처럼,

26:19 이웃을 속이고는 "그냥 장난삼아 한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26:20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으면 다툼도 가라앉는다.

26:21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땔나무를 더하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채질한다.

26:22 귓속말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26:23 악한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입술은, 질그릇 위에 입힌 은 찌꺼기와 같다.

26:24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본심을 숨기지만, 마음속에는 속임수를 품고 있다.

26:25 그가 말을 상냥하게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 있다.

26:26 그의 악의가 속임수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의 사악함은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26:27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자기에게 되굴러올 것이다.

26:28 거짓말하는 혀는 자기가 상처를 입힌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멸망을 불러온다.

27장

27:1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7:2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마라.

27:3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27:4 분노는 잔인하고 격분은 압도적이지만, 질투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느냐?

27:5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 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

27:6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함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넘쳐나도 믿을 수 없다.

27:7 배부른 사람은 꿀송이라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달다.

27:8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고향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27:9 향유와 향이 마음에 기쁨을 주듯이,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도 그러하다.

27:10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재앙의 날에 네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곳에 있는 형제보다 낫다.

27:11 내 아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다오. 그래야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27:12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몸을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대로 지나가다가 해를 입는다.

27:13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그의 옷을 잡아 두고, 방탕한 여인을 위해 보증을 섰거든 그 옷을 담보로 잡아 두어라.

27:14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27:15 비 오는 날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똑같다.

27:16 그런 여자를 붙잡아 두려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27:17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 사람도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27:18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

27:19 물에 얼굴이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27:20 스올과 아바돈이 결코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27:21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검증된다.

27:22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더라도, 그의 미련함은 그에게서 벗겨지지 않는다.

27:23 네 양 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네 소 떼에게 온 마음을 기울여라.

27:24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7:25 풀을 베어 내면 새싹이 돋아나고, 산에서 자란 풀들도 거두어들인다.

27:26 어린양들은 네 옷감이 되고, 염소들은 밭을 사는 값이 된다.

27:27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네 양식이 되고 네 집안사람들의 양식이 되며, 네 여종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28장

28:1 악인은 뒤쫓아 오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28:2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많아지지만, 명철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인해 질서가 유지된다.

28:3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궁핍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쓰는 폭우와 같다.

28:4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에게 맞서 싸운다.

28:5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의를 온전히 깨닫는다.

28:6 흠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길이 삐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28:7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먹보들과 어울리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28:8 과도한 이자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것을 모으는 셈이다.

28:9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의 기도조차 역겨운 것이다.

28:10 올곧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꾀어내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겠지만, 흠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28:11 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명철한 가난한 사람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본다.

28:12 의인이 승리하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몸을 숨긴다.

28:13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얻는다.

28:14 늘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은 불행에 빠진다.

28:15 포효하는 사자나 달려드는 곰처럼, 힘없는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도 그러하다.

28:16 통치자가 폭정을 휘두르면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할 것이다.

28:17 살인죄로 고통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가 될 것이니, 아무도 그를 붙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28:18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굽은 길을 가는 자는 갑자기 쓰러질 것이다.

28:19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겠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가난으로 배를 채울 것이다.

28:20 신실한 사람은 복을 넘치게 받겠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8:21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빵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

28:22 인색한 눈을 가진 사람은 부를 좇아 서두르지만, 가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28:23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큰 총애를 얻는다.

28:24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을 빼앗고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파멸을 일삼는 자의 짝이다.

28:25 욕심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번영을 누린다.

28:26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28:27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눈을 감아 버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8: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지만, 그들이 망하면 의인이 번성한다.

29장

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세우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된다.

29:2 의인이 번성하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29:3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들과 어울리는 자는 재산을 탕진한다.

29:4 왕은 정의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지만, 뇌물을 거두는 자는 나라를 무너뜨린다.

29:5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셈이다.

29:6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다.

29:7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잘 알지만, 악인은 그런 지식에 관심조차 없다.

29:8 거만한 자들은 도시를 들끓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29:9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소송을 벌이면, 어리석은 자는 분통을 터뜨리거나 비웃어 평온함이 없다.

29: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의 목숨을 노린다.

29:11 미련한 자는 자기 분노를 모조리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린다.

29:12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신하가 사악해진다.

29:13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주님께서 둘 다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점이다.

29:14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왕은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29:15 훈계하는 회초리는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내버려 둔 아이는 어머니에게 수치를 안겨 준다.

29: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다.

29:17 네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네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 줄 것이다.

29:18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29:19 종은 말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니, 알아듣기는 해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29:20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29:21 종을 어릴 때부터 응석받이로 키우면, 나중에는 아들 행세를 하려 들 것이다.

29:22 쉽게 화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를 잘 터뜨리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29:23 사람의 교만은 자기를 낮아지게 만들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

29: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원수다. 맹세를 하고도 감히 증언하지 못한다.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29:26 통치자의 호의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에 대한 공정한 판결은 주님에게서 나온다.

29:27 부정한 자는 의인을 혐오하고, 행실이 올곧은 자는 악인을 혐오한다.

30장

30:1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며 계시이다. 그가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30:2 "참으로 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지하며, 내게는 사람으로서의 명철이 없다.

30:3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자기 주먹에 모아 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자기 옷자락에 싸맨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운 자가 누구인가? 네가 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30: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 그분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30:6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30:7 "내가 주님께 두 가지 일을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30:8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치워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30:9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이 누구인가?' 하고 말하거나,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30:10 "종을 그의 주인에게 헐뜯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하여 네가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30:11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30:12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30:13 아,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으스대는 무리가 있다.

30:14 이빨은 칼 같고 턱뼈는 칼날 같아서,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사람들 가운데서 궁핍한 자들을 집어삼키는 무리가 있다.

30:15 "거머리에게는 '주시오, 주시오' 하는 두 딸이 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셋 있고, '족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넷 있으니,

30:16 곧 스올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과 '족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30:17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섬겨 순종하기를 업신여기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 내고 새끼 독수리가 먹어 치울 것이다.

30:18 "내게 너무나 신기한 것이 셋 있고,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30:19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배의 길과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하는 길이다.

30:20 "간통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다. 여자는 먹고 나서 입을 닦고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말한다.

30:21 "세 가지 일로 땅이 떨고, 네 가지 일 아래서 견뎌 내지 못하니,

30:22 곧 종이 왕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30:23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30:24 "땅 위에 아주 작으면서도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 넷 있으니,

30:25 개미는 힘이 없는 무리이지만 여름에 먹을 양식을 장만하고,

30:26 바위너구리는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지으며,

30:27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다 함께 줄지어 나아가고,

30:28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왕들의 궁궐에 드나든다.

30:29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셋 있고, 걸음걸이가 위풍당당한 것이 넷 있으니,

30:30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30:31 사냥개와 숫염소, 그리고 아무도 맞서 일어설 수 없는 왕이다.

30:32 "네가 스스로를 높이며 미련하게 굴었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라.

30:33 젖을 휘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분노를 격발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31장

31:1 르무엘 왕의 말,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준 계시이다.

31:2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오,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31: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고, 왕들을 파멸시키는 것에 네 길을 두지 마라.

31:4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왕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통치자들이 '독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다.

31:5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공의를 왜곡할 것이다.

31:6 독주는 죽어 가는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비통함을 품은 사람에게 주어라.

31:7 그가 마시고 자기 빈곤을 잊게 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하라.

31:8 말 못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입을 열고, 버림받아 외로운 모든 사람의 사정을 위해 변호하라.

31:9 입을 열어 공의롭게 판결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의 값어치는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다.

31:11 남편의 마음은 그를 굳게 신뢰하니, 그에게는 이득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31:12 그 여자는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남편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준다.

31:13 양털과 삼을 구하여 기쁜 마음으로 손을 놀려 일한다.

31:14 그 여자는 상선들과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온다.

31:15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할 일을 배당해 준다.

31:16 밭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사들이며, 자기가 손수 번 열매로 포도원을 일군다.

31:17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힘을 내며, 자기 팔을 강하게 만든다.

31:18 자기가 벌이는 장사가 잘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31:19 손으로 실꾸리대를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바퀴를 돌린다.

31:20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팔을 벌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뻗는다.

31:21 집안사람들이 모두 다홍색 옷을 입고 있으므로, 눈이 내려도 집안사람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31:22 자신을 위해 침상 덮개를 만들고, 고운 모시와 자줏빛 옷을 입는다.

31: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을 때 성문에서 존경을 받는다.

31:24 모시옷을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겨준다.

31:25 힘과 위엄이 그의 옷이며, 다가올 날을 두려움 없이 웃으며 맞이한다.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인애 어린 교훈을 전한다.

31:27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게으름으로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

31:28 자녀들은 일어나 그를 축복하고, 남편도 그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31:29 "귀한 일을 훌륭하게 해낸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를 뛰어넘소." 하고 말한다.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31:31 그 손이 거둔 열매를 그에게 돌려라! 그가 행한 일들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하라!

전도서

1장

1:1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의 말씀이다.

1:2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3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1:4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다.

1:5 해도 뜨고 해도 지며, 떴던 그곳으로 다시 서둘러 돌아간다.

1:6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선다. 끊임없이 돌며 불다가, 바람은 다시 돌던 길로 돌아간다.

1:7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나왔던 곳으로 다시 끊임없이 흐른다.

1:8 모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피로로 가득하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1:9 이전에 있던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1:10 "보아라, 이것이 새것이다" 하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오랜 세월 속에도 이미 있었다.

1:11 이전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가 없듯이, 앞으로 올 세대 역시 그 뒤에 올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1: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

1:13 나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깊이 탐구하고 살피려고 마음을 쏟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 주셔서 괴로움을 겪게 하신 무거운 짐이었다.

1:14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뒤쫓는 일이다.

1:15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가 없다.

1:16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얻었다. 참으로 내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깊이 경험했다."

1:17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알기 위해 마음을 쏟았지만,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일임을 깨달았다.

1:18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사람은 슬픔을 더하기 때문이다.

2장

2:1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겠으니, 쾌락을 누려 보아라." 그러나 보라, 이것 또한 헛되었다.

2:2 나는 웃음에 대하여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을 이루겠는가?"라고 말했다.

2:3 나는 내 마음을 지혜로 이끌면서, 어떻게 해야 포도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자 했다.

2:4 나는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일구었다.

2:5 나를 위해 정원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었다.

2:6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들을 만들었다.

2:7 남종과 여종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거느렸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소 떼와 양 떼를 재산으로 가졌다.

2:8 은과 금, 그리고 여러 왕과 여러 지방의 보물도 나를 위해 쌓아 두었다.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과, 사람들이 누리는 온갖 악기 같은 기쁨의 대상들도 모두 얻었다.

2:9 이렇게 나는 번성하여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커졌으며, 내 지혜 또한 줄곧 내 곁에 머물렀다.

2:10 내 눈이 탐내는 것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바라는 어떤 즐거움도 막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했으니,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었다.

2:11 그러나 내 손으로 일군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애쓴 모든 수고를 돌아보았을 때,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으며, 해 아래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

2:12 나는 돌아서서 지혜와 미친 짓과 어리석음을 곰곰이 살펴보았다. 왕의 뒤를 잇는 사람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오래전에 행해진 일뿐이다.

2:13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2:14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리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2:15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더 지혜로웠던가?" 그리하여 나는 이것 또한 헛되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2:16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니, 다가올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오래전에 잊힐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고 만다!

2:17 그래서 나는 삶을 미워하게 되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게 괴로움만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2:18 나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노고를 미워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모두 남겨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19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다해 애써 이룩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헛되다.

2:20 그러므로 나는 해 아래에서 애쓴 내 모든 수고를 두고 마음속으로 절망하기 시작했다.

2:21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고도,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몫을 다 넘겨주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헛되고 큰 잘못이다.

2:22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마음을 쏟아 애쓴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2:23 그의 모든 날은 고통뿐이고, 그의 일은 슬픔일 뿐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쉬지 못한다. 이것 또한 헛되다.

2:24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는 수고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2:25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2:26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노고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3장

3:1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3:2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3: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3: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품에 안을 때가 있고 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3: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다.

3: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3: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3:9 일하는 사람이 힘써 수고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3:10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 주셔서 괴로움을 겪게 하신 노고를 보았다.

3:11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마다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다 알아낼 수 없다.

3:12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음을 나는 안다.

3: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3: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아무것도 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3:15 지금 있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3:16 나는 또 해 아래에서 보았다.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악이 있었다.

3:17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이다."

3:18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는 그들 스스로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3:19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일어나며,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기 때문이다.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죽으며, 모두에게 똑같은 숨이 있다.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3:20 모두가 한곳으로 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3:21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3: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후에 일어날 일을 보도록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이겠는가?

4장

4:1 나는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억압을 살펴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인데도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 억압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

4:2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이들을 더 칭송했다.

4:3 그러나 이 둘보다 더 복된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4:4 나는 온갖 수고와 성취가 이웃 사이의 질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았다.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4:5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제 몸을 망친다.

4:6 한 손에만 가득 쥐고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두 손 가득 쥐려고 애쓰며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보다 낫다.

4:7 나는 돌이켜 해 아래에서 또 다른 헛된 것을 보았다.

4:8 어떤 사람은 홀로 있어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런데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재물에 만족할 줄 모른다.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는가?" 이것 또한 헛되며 비참한 노역이다.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에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4:10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자기 동무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넘어져도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는 외톨이에게는 화가 있다.

4: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4:12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해 굴복시키려 해도 두 사람이면 그에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4:13 더 이상 훈계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4:14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으며, 비록 그 왕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러했다.

4:15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백성이 왕의 뒤를 이어 일어난 그 다른 젊은이의 편에 섰다.

4:16 그가 다스렸던 온 백성의 수가 끝이 없었으나, 그 뒤에 올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5장

5:1 네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네 발걸음을 조심해라.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2 너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서둘러 말을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말을 적게 해라.

5: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5:5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5:6 네 입이 너 자신을 죄짓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에 진노하셔서 네 손으로 이룬 일을 망치시게 하겠느냐?

5:7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5:8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공의와 정의를 난폭하게 짓밟는 것을 보더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높은 관리 위에는 더 높은 관리가 지켜보고 있고, 그들 위에는 또 더 높은 관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5:9 더구나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유익을 얻는다.

5:10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헛되다.

5:11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그러니 그 주인에게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5:12 노동하는 사람은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넉넉한 재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5:13 내가 해 아래에서 심각한 재난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쥐고 있다가 오히려 해를 입는 일이다.

5:14 그 재물이 불행한 일로 사라져 버리면, 그가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5:15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듯이, 왔던 그대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손에 쥐고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5:16 이것 또한 심각한 재난이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야 하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5:17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좌절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

5:18 보라, 내가 살펴본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애쓴 모든 수고 가운데 보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5:19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자기 몫을 챙기고 수고를 기뻐하게 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5:20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므로, 그는 자기 삶의 날들을 깊이 번민하지 않을 것이다.

6장

6: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이다.

6:2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갖추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누릴 권한을 주지 않으셔서 엉뚱한 낯선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일이다. 이것은 헛되며 몹쓸 질병과도 같다.

6:3 사람이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오랜 세월을 살아 그 나이가 많더라도, 그의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사산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겠다.

6:4 사산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고, 그 이름도 어둠 속에 묻히기 때문이다.

6:5 그 아이는 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나, 그 사람보다 더 큰 안식을 누린다.

6:6 비록 그 사람이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6:7 사람의 모든 수고는 제 입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6:8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6:9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6:10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오래전에 이름이 불렸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이미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6:11 말이 많아질수록 헛된 것도 많아지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6:12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헛된 평생 동안,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뒤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에게 말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7장

7:1 좋은 이름이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7:2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7:3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이 어릴 때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7:4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

7: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7:6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도 그러하다. 이것 또한 헛되다.

7:7 참으로 강탈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명철한 마음을 망쳐 놓는다.

7: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을성 있는 마음이 거만한 마음보다 낫다.

7:9 마음속으로 급하게 성내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다.

7:10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7:11 지혜는 유산만큼이나 좋으며, 해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훌륭한 것이다.

7:12 돈이 보호막이 되듯 지혜도 보호막이 되지만, 지식이 더욱 뛰어난 까닭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7:13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분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는가?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두셔서, 사람이 자기 앞날의 일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게 하셨다.

7:15 나는 내 헛된 날들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7:16 지나치게 의롭게 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체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겠는가?

7:17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어찌하여 제 기한도 차기 전에 죽으려 하는가?

7:18 이것도 붙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모든 극단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7:19 지혜는 성읍 안의 열 통치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된다.

7:20 참으로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7: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7:22 너 자신도 남을 여러 번 저주했다는 사실을 네 마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7: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지혜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었다.

7:24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득히 멀고 한없이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7:25 나는 마음을 돌이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탐구하여 깨닫고자 했으며, 악함이 어리석음이요 우매함이 미친 짓임을 알고자 했다.

7:26 그 마음이 덫과 올가미 같고, 그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그 덫에 걸려들고 만다.

7:27 전도자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치를 깨닫고자 하나하나 살펴보아 이것을 발견했다.

7:28 내 영혼이 줄곧 찾아 헤맸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 일천 명 가운데 의로운 남자는 하나를 찾았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여자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7:29 보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온갖 꾀를 꾸며 냈다는 사실이다."

8장

8:1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이가 누구이며, 사물의 이치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굳어 있던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바꾼다.

8:2 나는 말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맹세가 있으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8:3 왕의 앞을 서둘러 떠나지 말고 악한 일에 고집부리지 마라. 왕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행하기 때문이다.

8:4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니,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겠는가?

8:5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마음은 알맞은 때와 절차를 안다.

8:6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와 절차가 있지만,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이 무겁기 때문이다.

8:7 사람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닥칠지 그에게 알려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8:8 바람을 붙잡아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죽는 날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터에서 면제될 수 없듯이, 악행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를 구해 내지 못한다.

8:9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여 해를 끼치는 때가 있다.

8:10 그때 나는 악인들이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거룩한 곳을 드나들었으나, 악을 행하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잊혀지고 말았다. 이것 또한 헛되다.

8: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저지르는 데 담대해진다.

8:12 비록 죄인이 백 번 죄를 짓고도 오래 산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안다.

8:13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잘되지 못하며, 그림자 같은 그의 날들도 길어지지 못할 것이다.

8:14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 또한 헛되다고 말했다.

8:15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칭송했다.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평생 동안 그의 수고와 함께할 것이다.

8:16 내가 지혜를 알고 땅 위에서 벌어지는 온갖 수고를 보고자 마음을 쏟았을 때(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8:17 그때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찾아내려 해도 알아내지 못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다.

9장

9:1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깊이 탐구해 보니, 의인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것이 사랑일지 미움일지 사람은 알지 못하며, 모든 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9:2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은 다 똑같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나 부정한 사람에게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나 같은 일이 일어난다.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마찬가지이며, 맹세하는 사람이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9:3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닥치는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살아 있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는 광기가 머물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9:4 살아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9:5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다 잊혀지기 때문이다.

9:6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질투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은 영원히 다시 몫을 얻지 못한다.

9: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이미 기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9:8 네 옷을 언제나 희게 하고, 네 머리에 기름 바르는 일을 거르지 마라.

9:9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네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 동안,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 평생의 삶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네 수고 속에서 얻는 네 몫이다.

9:10 네 손이 찾아낸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해 해라.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9:1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발이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지혜롭다고 빵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었다.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닥치기 때문이다.

9:12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모진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사람들도 재앙의 때가 갑자기 닥치면 그 올가미에 걸려든다.

9:13 나는 해 아래에서 이런 지혜의 본보기도 보았는데, 내게 매우 인상 깊었다.

9:14 주민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큰 왕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제방을 쌓았다.

9:15 그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지혜로 성읍을 구해 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9:16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는다.

9:17 조용히 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고함보다 낫다.

9:18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쳐 놓는다.

10장

10:1 죽은 파리가 향유 제조사의 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약간의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를 짓누르고 만다.

10:2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10:3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분별력이 모자라,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드러낸다.

10:4 통치자의 분노가 너를 향해 일어나더라도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온순함이 큰 허물을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10:5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재난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통치자에게서 비롯되는 실책과 같은 것이다.

10:6 어리석은 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유한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는다.

10:7 종들은 말을 타고 가는데, 왕족들은 종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다.

10:8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수 있다.

10:9 돌을 떠내는 사람은 돌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나무를 패는 사람은 나무 때문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

10:10 도끼가 무딘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지만, 지혜는 일을 성공시키는 데 유익하다.

10:11 뱀을 홀리기 전에 물려 버리면, 마술사의 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10:12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입술에 삼켜지고 만다.

10:1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말의 끝은 해로운 광기이다.

10:14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마구 쏟아낸다. 사람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에게 말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10:15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지치게 할 뿐이니, 그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조차 알지 못한다.

10:16 왕이 어린아이 같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다!

10:17 왕이 귀족의 아들이고 대신들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력을 돋우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다!

10:18 게으르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놀리면 집에 비가 샌다.

10:19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고 포도주는 삶을 즐겁게 하지만, 돈은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

10:20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네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날개 달린 짐승이 그 일을 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1장

11:1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11:2 일곱이나 여덟 몫으로 나누어 주어라. 땅 위에 무슨 재난이 닥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1:3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에 쏟아붓고,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뿐이다.

11:4 바람만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11:5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하고 아이 밴 여인의 태 안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듯,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네가 알지 못한다.

11:6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네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될지 저것이 잘될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잘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1:7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1:8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면 그 모든 날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일은 다 헛되다.

11:9 젊은이여, 네 젊은 시절을 기뻐하며, 네 젊음의 날들에 네 마음을 즐겁게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다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실 줄은 알아라.

11:10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근심을 털어내고, 네 육신에서 악을 물리쳐라. 젊음과 인생의 새벽은 헛되기 때문이다.

12장

12:1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12: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기억해라.

12:3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이들이 떨고, 힘센 남자들이 몸을 구부릴 것이다. 맷돌질하는 이들은 수가 적어져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이들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12:4 거리로 통하는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지며, 새소리에 사람이 일어나고, 음악의 딸들은 모두 쇠약해질 것이다.

12:5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아몬드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사그라질 것이다.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가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기 때문이다.

12:6 은줄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깨어지며, 샘 곁에서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 위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기억해라.

12:7 흙은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12:8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2:9 전도자는 지혜로웠기에 백성에게 계속 지식을 가르쳤다. 참으로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많은 잠언을 잘 정리해 두었다.

12:10 전도자는 받아들일 만한 말과 흠 없이 기록된 진리의 말을 찾아내려고 힘썼다.

12:11 지혜로운 이들의 말은 소를 모는 뾰족한 막대기 같다. 모임의 스승들이 하는 말은 단단히 박힌 못과 같으며,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12:12 내 아들아, 이 말도 경고로 받아들여라. 많은 책을 만드는 일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지치게 한다.

12:13 이것이 일의 결론이다. 모든 말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다.

12:14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온갖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가

1장

1:1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다.

1:2 그이가 자기 입으로 내게 입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1:3 당신의 향기름은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은 쏟아진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1:4 나를 데려가 주세요. 서둘러 갑시다. 왕이 나를 자기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칭송할 것입니다. 연인: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5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검지만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1:6 내가 검다고 해서, 햇볕에 그을렸다고 해서 나를 빤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에, 나는 내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1:7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정오에는 어디에서 양 떼를 쉬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동료들의 양 떼 곁에서 너울을 쓴 여자처럼 헤맬 까닭이 무엇입니까?

1:8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만일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국을 따라가십시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 떼를 먹이십시오.

1:9 내 사랑이여, 나는 그대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견주었습니다.

1:10 귀고리로 장식한 그대의 뺨이 아름답고, 구슬 목걸이를 두른 그대의 목이 곱습니다.

1:11 우리가 그대를 위해 은구슬을 박은 금 귀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1:12 왕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내 향수가 그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1:13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밤새 내 가슴 사이에 머무는 몰약 주머니와 같습니다.

1:14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서 피어난 고벨화 꽃송이입니다.

1:15 보십시오, 내 사랑이여,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1:16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참으로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1:17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고, 우리 서까래는 잣나무입니다.

2장

2:1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2:2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화처럼, 딸들 가운데 내 사랑이 그러합니다.

2:3 숲속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젊은이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가 그러합니다.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콤했습니다.

2:4 그분이 나를 연회장으로 데려가셨으니, 내 위에 걸린 그분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2:5 건포도로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사과로 내 기운을 되살려 주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2:6 그분의 왼손은 내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은 나를 껴안습니다.

2:7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들의 노루와 암사슴을 두고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도 말고 흔들어 깨우지도 마십시오.

2:8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십니다.

2:9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봅니다!

2:10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2:11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습니다.

2:12 땅에는 꽃이 피어나고 노래하는 때가 왔으며, 우리 땅에 멧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습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2:14 바위틈, 산비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2:15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 저 작은 여우들을 우리를 위해 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2:16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이의 것입니다. 그이는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습니다.

2:17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이여,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되어 주십시오.

3장

3:1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습니다.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3:2 내가 지금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와 광장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3:3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를 보셨습니까?'

3: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3:5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들의 노루와 암사슴을 두고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도 말고 흔들어 깨우지도 마십시오.

3: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3:7 보십시오,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 용맹한 사람 예순 명이 가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3:8 그들은 모두 칼을 잘 다루고 전쟁에 능숙한 이들입니다. 밤의 두려움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3:9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나무로 손수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3:10 그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고 자리는 자주색 천으로 덮었으며, 그 안쪽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아로새겼습니다.

3:11 시온의 딸들이여,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의 혼인 날,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 준 관을 쓰고 계십니다.

4장

4:1 보십시오, 내 사랑이여,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너울 뒤에 있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산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 떼 같습니다.

4:2 그대의 이는 막 털을 깎고 목욕하고 나온 양 떼 같아서, 모두 쌍태를 낳았고 그 가운데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3 그대의 입술은 진홍색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습니다. 너울 뒤에 있는 그대의 뺨은 쪼개 놓은 석류 한 쪽 같습니다.

4:4 그대의 목은 무기고로 건축된 다윗의 망대 같아서, 천 개의 방패, 곧 용사들의 온갖 방패가 걸려 있습니다.

4:5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어린 노루 두 마리 같습니다.

4:6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4:7 내 사랑이여, 그대는 온통 아름다워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4:8 내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갑시다.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갑시다.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과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다보십시오.

4:9 내 누이, 내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대의 눈짓 한 번으로, 그대의 목걸이 사슬 하나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10 내 누이,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름 냄새는 온갖 향품보다 낫습니다.

4:11 내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는 레바논의 향기 같습니다.

4: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닫힌 우물이요, 봉해진 샘입니다.

4:13 그대에게서 돋아난 싹들은 고벨화와 나도풀을 곁들인 보배로운 열매 가득한 석류나무 과수원입니다.

4:14 나도와 사프란, 창포와 계수나무, 온갖 향나무와 몰약과 침향, 그리고 온갖 으뜸가는 향품들입니다.

4:15 그대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입니다.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 향기가 퍼지게 하여라.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으로 들어와, 그 보배로운 열매를 맛보게 하여라.

5장

5:1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향품과 함께 몰약을 거두었고, 내 꿀과 함께 벌집을 먹었으며, 내 젖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 친구들아, 먹어라! 마셔라, 사랑하는 이들아, 흠뻑 마셔라!

5:2 내가 잠들었으나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누이, 내 사랑, 흠 없는 내 비둘기여, 내게 문을 열어 주세요. 내 머리가 이슬로 젖었고 내 머리털이 밤이슬로 흠뻑 젖었습니다.'

5:3 내가 이미 겉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이미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5:4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자,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요동쳤습니다.

5:5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서는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는 액체 몰약이 문빗장 손잡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5:6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해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이미 돌아서서 가 버렸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5:7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자 나를 때리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5:8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만일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5:9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그대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간절히 부탁합니까?

5:10 내 사랑하는 이는 눈부시게 희고 붉으며 만 사람 가운데 으뜸입니다.

5:11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그의 머리채는 곱슬곱슬하며 까마귀처럼 검습니다.

5:12 그의 눈은 물가에 앉은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5:13 그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 나는 언덕 같으며, 그의 입술은 몰약 즙을 흘리는 백합화 같습니다.

5:14 그의 손은 감람석을 물린 금가락지 같고, 그의 몸은 사파이어를 덧입힌 상아 조각 같습니다.

5:15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풍채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당당합니다.

5:16 그의 입은 더없이 달콤하며 그는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친구입니다.

6장

6:1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그대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대의 사랑하는 이가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겠습니다.

6:2 내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서,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습니다.

6:3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입니다. 그분은 백합화 사이에서 양 떼를 먹입니다.

6: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어여쁘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합니다.

6:5 그대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내게서 눈을 돌려 주십시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에 누워 있는 염소 떼 같습니다.

6:6 그대의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 같아서 모두 쌍태를 낳았고, 그 가운데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7 너울 뒤에 있는 그대의 뺨은 쪼개 놓은 석류 한 쪽 같습니다.

6:8 왕비가 예순 명이고 후궁이 여든 명이며 처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6:9 그러나 흠 없는 내 비둘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딸입니다. 처녀들이 그녀를 보고 복되다 하였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6:10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6:11 골짜기의 푸른 풀을 보고 포도나무에 움이 텄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나는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습니다.

6:12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고귀한 백성의 병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6:13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 여자여! 우리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연인: 너희는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을 보듯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려 하느냐?

7장

7:1 귀한 가문의 딸이여, 신을 신은 그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둥그스름한 그대의 넓적다리는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보석 같습니다.

7:2 그대의 몸은 섞은 포도주가 마르지 않는 둥근 잔 같고,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싼 밀단 같습니다.

7:3 그대의 두 젖가슴은 어린 쌍둥이 노루 두 마리 같습니다.

7:4 그대의 목은 상아 탑 같고, 그대의 눈은 바드랍빔 성문 곁 헤스본 연못 같습니다. 그대의 코는 다메섹을 바라보는 레바논의 탑 같습니다.

7:5 그대 위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자주색 비단 같습니다. 왕조차 그 머리카락에 사로잡혔습니다.

7:6 내 사랑이여, 나를 기쁘게 하는 그대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7:7 그대의 자태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습니다.

7:8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열매를 붙잡겠다.'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의 숨결 향기는 사과 같습니다.

7:9 그대의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잠든 사람들의 입술을 스쳐 지나갑니다.

7:10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분의 갈망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7:11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여! 들로 나아가 마을에서 밤을 보냅시다.

7:12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살펴봅시다. 거기서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치겠습니다.

7: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보배로운 열매들이 햇것과 묵은 것 모두 가득하니, 내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쌓아 둔 것입니다.

8장

8:1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내 오라비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2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나를 가르치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을 것이며, 향기로운 술, 곧 내 석류즙을 당신에게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8:3 그의 왼손은 내 머리를 받치고, 그의 오른손은 나를 껴안았을 것입니다.

8:4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도 말고 흔들어 깨우지도 마십시오.

8:5 자기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연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거기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했고, 거기서 산고를 겪으며 당신을 낳았습니다.

8:6 나를 도장처럼 당신 마음에 두고, 도장처럼 당신 팔에 두어 주십시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스올처럼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번쩍임은 불의 번쩍임이며, 바로 주님의 불꽃입니다.

8:7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삼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 한다 해도 도리어 철저히 멸시를 당할 뿐입니다.

8:8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하나 있는데 아직 가슴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받는 날이 오면 우리가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8:9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러쌀 것입니다.

8:10 나는 성벽이고 내 젖가슴은 망대 같으니, 그제야 나는 그의 눈에 평화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8:11 솔로몬은 바알하몬에 포도원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관리인들에게 맡겼고 사람마다 그 열매 대가로 은 천 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8:12 내 소유인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이여, 천 세겔은 당신의 것이고 이백 세겔은 열매를 돌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8:13 동산에 머무는 그대여, 친구들이 귀 기울이고 있으니 내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8:14 내 사랑하는 이여, 서둘러 오십시오! 향기 가득한 산 위의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십시오!

이사야

1장

1: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1: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들을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1:3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1:4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의 짐을 진 백성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이요, 부패한 자식들이구나! 그들이 주님을 저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멸시하였으며, 등을 돌려 멀어졌다.

1:5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자꾸 반역을 일삼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지쳐 있다.

1:6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맞은 자국과 터진 종기뿐이다. 그것들을 짜내지도 못했고, 싸매지도 못했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못했다.

1:7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낯선 자들이 너희 농토를 집어삼키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황폐해졌다.

1:8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참외밭의 초막처럼, 포위된 성읍처럼 홀로 남겨졌다.

1:9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생존자라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요,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1:10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1:11 "너희의 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물렸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12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1:13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역겨운 것이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 곧 악을 행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14 내 마음이 너희의 초하루 축제와 정한 절기들을 미워한다. 그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내가 지쳤다.

1:15 너희가 손을 펼 때마다 내가 눈을 가릴 것이며,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16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 버리고, 악행을 멈추어라.

1:17 옳은 일 하기를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론하여라."

1:18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따져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될 것이요, 붉은빛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1:19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1:20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정의가 가득했고 의로움이 그 안에 머물렀건만,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다.

1:22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1:23 너의 고관들은 반역자요 도둑들의 짝이다. 다들 뇌물을 좋아하며 보상을 좇아간다. 그들은 고아를 변호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는 그들 앞에 이르지도 못한다.

1: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아,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내 마음을 풀고,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1:25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깨끗이 걸러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없애 버리겠다.

1:26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너의 조언자들을 예전처럼 회복시키겠다. 그런 뒤에야 너는 '의로운 성읍, 신실한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1:27 시온은 정의로 구속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의로움으로 구속받을 것이다.

1:28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파멸할 것이며,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1:29 너희가 탐내던 상수리나무들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정원들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겪을 것이다.

1:30 너희는 잎사귀가 시든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정원 같을 것이다.

1:31 힘센 자는 지푸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둘이 함께 탈 것이나 아무도 꺼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장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말씀이다.

2:2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전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오를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리로 밀려들 것이다.

2:3 많은 민족이 가며 말할 것이다.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의 일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두드려 쟁기의 날로 만들고, 창을 두드려 가지 치는 낫으로 만들 것이다.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 칼을 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2: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2:6 주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인의 자손들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여 보물에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말들도 가득하여 병거에도 끝이 없다.

2:8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빚어낸 것을 숭배한다.

2:9 사람이 낮아지고 인생이 굴욕을 당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2:10 너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흙먼지 속에 숨어라. 주님의 두려우심과 그분의 찬란한 위엄을 피하여라.

2:11 사람의 거만한 눈초리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오만이 꺾일 것이며,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2:12 만군의 주님의 날이 오면, 거만하고 오만한 모든 자와 스스로 높아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2:13 높이 솟아오른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위에,

2:14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 위에,

2:15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위에,

2: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위에 임할 것이다.

2:17 사람의 거만함이 꺾이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질 것이며, 그날에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2:18 우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2:19 주님께서 일어나 땅을 무섭게 뒤흔드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우심과 그분의 찬란한 위엄을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2:20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숭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릴 것이다.

2:21 주님께서 일어나 땅을 무섭게 뒤흔드실 때, 주님의 두려우심과 그분의 찬란한 위엄을 피하여 바위 틈과 험한 바위 벼랑의 찢어진 틈새 속으로 들어가려 함이다.

2:22 너희는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인 사람을 그만 의지하여라. 그가 쳐줄 만한 무슨 가치가 있느냐?

3장

3:1 보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할 것과 기댈 것, 곧 빵의 모든 공급과 물의 모든 공급을 빼앗아 가신다.

3:2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복술가와 장로,

3:3 오십부장과 존귀한 자, 조언자와 노련한 장인과 능숙한 마술사를 빼앗아 가신다.

3:4 내가 어린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니, 철부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3:5 백성은 서로 억누르고, 사람마다 제 이웃을 짓밟을 것이다. 아이가 노인에게 무례하게 굴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오만하게 대할 것이다.

3:6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제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어라" 할 것이다.

3:7 그날에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는 상처를 고쳐 줄 사람이 못 됩니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십시오" 할 것이다.

3:8 예루살렘이 걸려 넘어졌고 유다가 쓰러졌으니,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실이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앞에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3:9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 죄를 드러내어 떠벌리고, 숨기지도 않는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3:10 의인에게는 잘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3: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의 손이 저지른 행위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3:12 내 백성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를 이끄는 자들이 너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네가 걸어갈 길을 망쳐 놓고 있다.

3:13 주님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 계신다.

3:14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재판에 부치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원을 삼켜 버렸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약탈물이 너희 집에 있다.

3:15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대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3:16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홀리는 눈짓을 하며 걷고, 아장거리며 걸으면서 발목의 장식으로 딸랑거리는 소리를 낸다.

3: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여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의 이마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3:18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발목 고리와 머리띠와 반달 모양 목걸이를 없애실 것이다.

3:19 귀걸이와 팔찌와 면사포,

3:20 머리 장식과 발목 사슬과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

3:21 인장 반지와 코걸이,

3:22 축제용 겉옷과 망토와 외투와 손가방,

3:23 손거울과 고운 베옷과 터번과 너울을 다 없애실 것이다.

3:24 향기로운 냄새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에 밧줄이 감길 것이며, 잘 손질한 머리채 대신에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두르며, 아름다움 대신에 화인이 찍힐 것이다.

3:25 너의 장정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3:26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4장

4:1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빵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없애 주십시오."

4:2 그날에 주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4:3 시온에 남아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곧 예루살렘의 산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불릴 것이다.

4:4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고,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피 흘린 죄를 씻어 내실 때에 그리될 것이다.

4:5 주님께서 시온산의 온 처소와 그 모임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의 광채를 만드실 것이니,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덮일 것이다.

4:6 또한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마련해 줄 초막이 있을 것이요,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다.

5장

5:1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 내 사랑하는 분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겠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

5:2 그분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파 놓으셨다. 그러고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5:3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결해 다오.

5: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느냐?

5: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5:6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매기도 하지 않아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도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5:7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안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바라셨지만, 보라, 억압이 있었다. 의로움을 바라셨지만, 보라,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었다.

5:8 집을 잇대어 짓고 밭을 이어붙여 더는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땅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9 내 귀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수많은 집들이 황폐해져,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라도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5:10 열흘갈이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밧이 나고,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를 얻을 것이다."

5:11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아다니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해 달아오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12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갖추어져 있으나, 주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의 손이 이루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5: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들의 귀족들은 굶주리고 평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5:14 그러므로 스올이 목구멍을 넓히고 입을 한량없이 벌렸으니, 그들의 영화와 군중과 호화로움과 그 안에서 흥겨워하던 자들이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5:15 이처럼 사람이 낮아지고 인생이 굴욕을 당하며, 거만한 자들의 눈초리도 꺾일 것이다.

5:16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정의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5:17 그때에 어린양들이 자기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나그네들이 부자들의 폐허에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이다.

5:18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수레 줄로 묶듯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19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더러 서두르시라고 해라, 그분의 일을 재촉하여 우리가 보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가까이 다가오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게 하라!" 하는구나.

5:20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부르며,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21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22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용사요, 독주를 섞는 데는 선수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23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무죄라 선언하며, 의인에게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다.

5:24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길 속에 사그라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어 들어가고 그들의 꽃은 티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5:25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자기 백성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손을 뻗어 그들을 치셨다. 산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쓰레기처럼 되었다. 이 모든 일에도 그분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5:26 그분께서 먼 곳의 민족들을 향해 깃발을 세우시고, 땅끝에서 그들을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보라, 그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달려올 것이다.

5:27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자가 없고, 졸거나 잠자는 자도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 끈이 끊어지는 자도 없다.

5: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그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다.

5:29 그들의 포효는 암사자 같고 젊은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정녕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낚아채 끌고 가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5:30 그날에 그들이 성난 바다의 포효처럼 그들을 향해 으르렁거릴 것이다. 누군가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고통뿐이요, 빛마저 먹구름에 가려 어두워져 있다.

6장

6: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더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6: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모셔 서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가 여섯 개씩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으며, 둘로는 날아다녔다.

6:3 그들이 서로 외치며 말했다. "만군의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6:4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6:5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게 화가 미쳤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주님이신 왕을 내 눈으로 직접 뵈었기 때문이다!"

6:6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게로 집어 든 불타는 숯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왔다.

6:7 그가 그것으로 내 입에 대며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라지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6:8 그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이에 내가 말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6:9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분명히 듣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분명히 보지만 알아차리지 못한다.'

6: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먹먹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라."

6:11 그때 내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해져 주민이 없고, 집들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6:12 주님께서 사람들을 먼 곳으로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아질 때까지다.

6:13 그 땅에 십분의 일이 남아 있어도 그것 역시 다시 소멸될 것이다. 테레빈스나무나 참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듯,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다."

7장

7: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7:2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다윗 집안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7:3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숩과 함께 윗못의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7:4 그에게 일러라. '삼가며 침착하여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맹렬히 분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이 두 부지깽이 꽁두머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라.

7: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너를 해치려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7:6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 그것을 찢어 놓고,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며, 그 한가운데에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7:7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7:8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이 나서 한 백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7: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7:10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7:11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여라. 깊은 곳에서 구하든지 저 높은 곳에서 구하든지 하여라."

7:12 그러나 아하스가 말하였다.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7:13 이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집안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 나의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려 하십니까?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7:15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쯤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7:16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왕께서 질색하는 그 두 왕의 땅이 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17 주님께서 왕과 왕의 백성과 왕의 아버지 집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이니, 곧 앗수르 왕이 올 것입니다.

7:18 그날에 주님께서 저 멀리 애굽 강들의 끝에 있는 파리와, 앗수르 땅에 있는 벌을 휘파람으로 부르실 것이다.

7:19 그것들이 다 날아와 황량한 골짜기와 바위틈과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이다.

7:20 그날에 주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앗수르 왕으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까지 깎아 버리실 것이다.

7:21 그날에 사람이 암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키울 것이다.

7:22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7:23 그날에 은 천 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천 그루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성할 것이다.

7:24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들고 그리로 갈 것이다.

7:25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덤불이 두려워 너희가 가지 못할 것이며,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고 다니는 곳이 될 것이다."

8장

8: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가 통용되는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에게'라고 써라."

8:2 "그리고 내가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8:3 내가 여예언자를 가까이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불러라.

8:4 그 아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8:5 주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8:6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저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고 있으니,

8:7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께서 거세고 넘쳐흐르는 유브라데강의 홍수 물,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세를 그들 위에 덮치게 하실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 위로 차오르고 모든 둑을 넘칠 것이다.

8:8 그것이 유다로 밀려들어 와 범람하고 지나가며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그 펼친 날개가 왕의 땅 너비에 가득 찰 것이다."

8:9 너희 민족들아, 소동을 일으켜 보아라, 그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먼 나라의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무장을 해 보아라, 그러나 박살이 날 것이다! 무장을 해 보아라, 그러나 박살이 날 것이다!

8:10 함께 계책을 꾸며 보아라, 그러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말을 꺼내 보아라, 그러나 서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8:11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나를 훈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8:12 "이 백성이 반역이라 부르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반역이라 부르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마라.

8:13 오직 만군의 주님을 너희는 거룩하다 인정하여라. 그분이 바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요,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다.

8:14 그분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실 것이다.

8:15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며,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8: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하여라.

8:17 야곱 집안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겠다.

8:18 보라, 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징표와 기적이 되었다.

8:19 사람들이 너희에게 "속삭이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에게 물어보라"고 하거든, 백성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사람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물어서야 되겠느냐?

8:20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정녕 그들에게는 새벽빛이 없을 것이다.

8:21 그들이 몹시 곤고하고 굶주린 채 그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이 굶주릴 때 분노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다가,

8:22 땅을 굽어보아도 고난과 어둠과 번민의 흑암뿐일 것이니, 그들이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9장

9:1 그러나 고통받던 그곳에 더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 그분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닷길과 요단강 건너편, 여러 민족의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9:2 어둠 속에서 걸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9:3 주님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하셨습니다. 마치 추수할 때의 즐거움처럼, 탈취물을 나눌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9:4 이는 미디안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9:5 요란한 전투에서 무장한 군인의 모든 군화와 피투성이가 된 군복은 불에 탈 것이며, 땔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6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놓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릴 것이다.

9:7 그의 통치와 평화가 넓어지는 데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왕국을 세우고, 그 때부터 영원히 정의와 의로움으로 지탱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9:8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다.

9:9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니,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9: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요, 돌무화과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하는구나.

9:11 그러므로 주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그를 거슬러 높이 세우실 것이요, 그의 원수들을 부추기실 것이다.

9:12 앞쪽에는 아람 사람들이요 뒤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니,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그분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9:13 그런데도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9:14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하루아침에 잘라 버리실 것이다.

9:15 장로와 존귀한 자가 머리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꼬리다.

9:16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인도를 받는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9: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다들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에도 그분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9:18 악행은 불처럼 타올라 찔레와 가시덤불을 삼키며, 숲의 덤불 속에 불이 붙어 연기 기둥이 되어 위로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오른다.

9:19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 땅이 불타 버리고, 백성은 불의 땔감이 될 것이니, 아무도 제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9:20 오른쪽에서 움켜 먹어도 여전히 배고플 것이요, 왼쪽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여, 저마다 자기 팔의 살점을 먹을 것이다.

9:21 곧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으며,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그분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10장

10:1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과 압제하는 판결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0:2 가난한 자들의 정의를 굽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물로 삼고 고아들을 약탈물로 삼는 자들이다!

10:3 징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닥쳐올 파멸의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망쳐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남겨 두겠느냐?

10:4 포로들 밑에 엎드러지거나 살육당한 자들 밑에 쓰러질 뿐이다. 이 모든 일에도 그분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10:5 "아, 내 분노의 막대기인 앗수르 사람이여, 그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격분이다!

10:6 내가 그를 불경건한 민족에게 보내며,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치도록 명령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게 하며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할 것이다.

10:7 그러나 그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고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그의 마음은 멸망시키고 적지 않은 민족들을 잘라 버리는 데 있다.

10:8 그가 말하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10: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으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으냐?

10:10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으니, 그 새긴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10: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구나."

10:12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에, "내가 앗수르 왕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거만하게 치켜뜬 눈의 오만함을 벌하겠다" 하실 것이다.

10:13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 나는 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없앴고 그들의 보물을 약탈하였으며, 용사처럼 그들의 통치자들을 끌어내렸다.

10:14 내 손이 둥지를 찾듯 민족들의 재물을 찾아냈고, 버려진 알을 거두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였기 때문이다.

10:15 도끼가 도끼를 쥐고 찍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위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느냐?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려 하거나, 몽둥이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

10: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살진 자들 사이에 파리함을 보내실 것이요, 그의 영광 아래에 불이 붙듯 타오르는 불길을 일으키실 것이다.

10: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아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살라 삼킬 것이다.

10:18 그분께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을 영혼부터 육체까지 완전히 소멸시키실 것이니, 마치 깃발 든 군인이 쓰러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10:19 그의 숲에 남아 있는 나무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아이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다.

10:20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족속의 피난민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10:21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10:22 이스라엘이여, 비록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오직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의로움이 넘쳐흐르는 파멸이 이미 작정되었다.

10:23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완전한 멸망을 온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10: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앗수르 사람이 애굽이 했던 것처럼 몽둥이로 너를 치고 너를 향해 막대기를 치켜들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10:25 이제 아주 잠깐만 있으면 너를 향한 내 분노가 끝나고, 내 진노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10:26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도륙하셨던 것처럼 그를 칠 채찍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있을 것이니,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10:27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겨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겨질 것이며, 기름부음 때문에 그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10:28 그가 아야에 이르렀고 미그론을 지나갔으며, 믹마스에 군수품을 맡겨 두었다.

10:29 그들이 고개를 넘어 게바에서 밤을 지새웠다. 라마는 떨고 있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쳤다.

10:30 갈림의 딸아, 목청껏 소리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돗이여!

10:31 맛메나는 피난길에 올랐고, 게빔 주민들은 몸을 숨기려고 달아난다.

10:32 바로 오늘 그가 놉에서 멈추어 서서 시온 딸의 산, 곧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 손을 흔들 것이다.

10:33 보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큰 가지들을 꺾으실 것이니, 높이 솟은 것들이 잘려 나가고 우뚝 솟은 것들이 낮아질 것이다.

10:34 그분께서 쇠붙이로 숲의 덤불을 베어 내실 것이며, 레바논은 전능하신 분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11장

11:1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11:2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실 것이다. 지혜와 분별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11:3 그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실 것이다.

11:4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땅의 겸손한 자들을 위해 판결하실 것이다. 그분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시고, 그분 입술의 입김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11:5 의로움이 그분의 허리띠가 될 것이요, 신실함이 그분의 허리띠가 될 것이다.

11:6 늑대가 어린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송아지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 것이다.

11:7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11:8 젖먹이가 코브라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 위에 손을 댈 것이다.

11:9 내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11:10 그날에 백성들의 깃발로 우뚝 설 이새의 뿌리를 민족들이 찾아올 것이니, 그분이 머무시는 곳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11:11 그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뻗으셔서,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되찾아 오실 것이다.

11:12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11:13 에브라임의 질투도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11:14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를 덮치고,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이 에돔과 모압으로 손을 뻗칠 것이요,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11:15 주님께서 애굽 바다의 물굽이를 완전히 말려 버리실 것이며, 뜨거운 바람으로 유브라데강 위에 손을 흔드셔서 일곱 개울로 가르시어 사람들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11:16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있었던 것처럼, 앗수르에서 살아남은 그분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큰길이 열릴 것이다.

12장

12:1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2: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 곧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12: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것이다.

12:4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주님의 이름이 높으심을 널리 알려라!

12:5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리라!

12: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외치고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13장

13: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13:2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라. 손을 흔들어 그들이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13:3 내가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해 나의 용사들, 곧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다.

13:4 산들에서 들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는 큰 백성의 소리 같고,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싸울 군대를 소집하고 계신다.

13:5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오고 있으니, 곧 온 땅을 멸망시키려는 주님과 그분의 진노의 무기들이다.

13:6 울부짖으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오는 파멸처럼 닥칠 것이다.

13:7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13:8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덮칠 것이며,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아파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놀라서 쳐다볼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처럼 붉어질 것이다.

13:9 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잔혹함과 분노와 맹렬한 진노로 닥쳐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죄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13:10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해는 돋을 때에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13:11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고 악인의 죄악을 징벌할 것이다. 내가 거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고 잔인한 자들의 거만함을 낮출 것이다.

13: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드물게 만들고, 인류를 오빌의 정금보다 귀하게 만들 것이다."

13:13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의 진노 속에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내가 하늘을 흔들 것이며 땅이 제자리에서 뒤흔들릴 것이다.

13:14 그들은 쫓기는 영양 같고 모으는 이 없는 양 떼 같아서,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다.

13:15 눈에 띄는 자마다 창에 찔릴 것이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13:16 그들의 어린아이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메어쳐져 부서질 것이며,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능욕을 당할 것이다.

13:17 "보라, 내가 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금도 반기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13:18 그들의 활은 젊은이들을 메어쳐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은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눈으로 보고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3:19 여러 왕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자 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을 때처럼 될 것이다.

13:20 그곳에는 영원히 주민이 살지 못하고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 떼를 누이지 않을 것이다.

13:21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눕고, 그들의 집들에는 자칼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13:22 하이에나들이 그 성채들에서 울부짖고, 화려한 궁전들에서는 자칼들이 울어댈 것이다. 바벨론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날들이 더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14장

14:1 주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결합하여 야곱 집안과 하나가 될 것이다.

14:2 여러 민족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주님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억압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14:3 주님께서 너의 슬픔과 불안, 그리고 네가 겪었던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14:4 너는 바벨론 왕을 향해 이 풍자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압제자가 어찌하여 끝장났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하여 멈추었는가!

14:5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홀을 꺾으셨다.

14:6 그 홀은 분노로 백성들을 끊임없이 내리쳤고, 맹렬한 노여움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며 아무도 막지 못할 박해를 가하던 것이었다.

14:7 온 땅이 평안과 안식을 얻어, 소리 높여 노래를 터뜨린다.

14:8 참으로 잣나무들도 레바논의 백향목들과 함께 너를 두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쓰러졌으니 우리를 베어 넘길 벌목꾼이 더는 올라오지 못한다' 하는구나.

14:9 저 아래의 스올이 네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술렁이며, 너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들,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깨운다. 스올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다.

14:10 그들이 모두 네게 말할 것이다. '너도 우리처럼 나약해졌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14:11 너의 영화와 네 비파 소리가 스올로 떨어졌구나. 네 밑에는 구더기가 깔려 있고, 너를 덮은 것은 지렁이들이로구나.

14:12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하여 땅으로 찍혀 넘어졌는가!

14:13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겠다! 북쪽 끝에 있는 모임의 산 위에 내가 앉겠다!

14:14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였구나.

14:15 그러나 너는 스올로, 곧 구덩이 밑바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14: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바라보고 곰곰이 생각하며 말할 것이다. '이자가 바로 땅을 떨게 하고 여러 왕국을 뒤흔들던 그 사람인가?

14:17 세상을 광야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주지 않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14:18 민족들의 모든 왕은 저마다 자기 무덤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다.

14:19 그러나 너는 가증스러운 나뭇가지처럼 네 무덤에서 내팽개쳐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의 돌들 속으로 내려간 주검들의 옷을 입었으며, 짓밟힌 시체와도 같구나.

14:20 네가 네 땅을 파멸시키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할 것이다.

14:21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도살할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거나 세상 표면을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게 하라."

14:22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에서 이름과 남은 자,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 끊어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4:23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가 되게 하고 물웅덩이가 되게 하며, 파멸의 빗자루로 쓸어버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14:24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설 것이다.

14:25 내가 내 땅에서 앗수르 사람을 꺾고 내 산들 위에서 그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14:26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 작정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뻗친 손이다.

14:27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으며, 그분의 손이 뻗쳤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14: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다.

14:29 너 블레셋 온 땅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30 가장 가난한 자들의 맏아들은 먹을 것을 얻고 궁핍한 자들은 안전하게 누울 것이지만,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며 네 남은 자들은 살육당할 것이다.

14:31 성문아, 슬피 울라! 성읍아, 부르짖으라! 너 블레셋 온 땅아, 너는 녹아내렸구나. 북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며, 그의 대열에서 낙오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14:32 그 나라의 사절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곤고한 백성이 그 안으로 피신할 것이라 하라.

15장

15:1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참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아르가 황폐해져 파멸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길이 황폐해져 파멸하였다.

15:2 그들은 울기 위해 바잇과 디본의 산당들로 올라갔다. 모압이 느보와 메드바를 두고 통곡하며, 모든 사람의 머리는 밀렸고 모든 수염은 깎였다.

15:3 그들은 거리에서 굵은 베옷을 걸쳤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 모두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다.

15:4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야핫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용사들이 크게 소리치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떨린다.

15: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는다! 그 귀족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도망치며, 루힛 비탈길을 울며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파멸의 비명을 내지른다.

15:6 니므림의 물들이 말라버려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돋지 않아 푸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15:7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풍부한 재물과 쌓아둔 것을 버드나무 시내 건너편으로 짊어지고 간다.

15:8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의 국경을 둘렀고, 그 통곡 소리가 에글라임에 이르며 브엘엘림까지 울려 퍼진다.

15:9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디몬에 더 큰 재앙을 내려, 모압에서 도망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16장

16:1 너희는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양들을 보내되,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내라.

16:2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흩어진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터에서 방황할 것이다.

16:3 "너희는 조언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 한낮에도 네 그늘을 밤처럼 짙게 드리우라!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친 자를 넘겨주지 말라!

16:4 내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모압에게는 파멸시키는 자의 얼굴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라." 억압하는 자가 사라지고 파멸이 멈추었으며 압제자들이 땅에서 멸절되었기 때문이다.

16:5 한결같은 사랑 속에서 왕좌가 굳게 세워질 것이요, 다윗의 장막에서 진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한 통치자가 있을 것이니, 그는 재판하며 정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16: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그가 심히 교만하다는 것과 그의 거만과 오만과 분노를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은 헛될 뿐이다.

16: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모두가 통곡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낙담하여 길하레셋의 건포도 과자를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다.

16:8 헤스본의 밭들과 시브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좋은 가지들을 꺾어버렸다. 그 가지들은 야셀까지 뻗어가 광야로 뻗어 나갔으며, 그 싹은 널리 퍼져 바다를 건너갔었다.

16: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눈물과 함께 시브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 것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니, 네 여름 실과와 추수물 위에 전쟁의 함성이 덮쳤기 때문이다.

16:10 기쁨이 사라지고 풍성한 밭에서 즐거움이 거두어졌으며, 포도원에는 노래도 없고 환호성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니, 내가 그 외치는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16:11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하프처럼 울리고,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요동친다.

16:12 모압이 나타나 산당에서 지치도록 빌고 기도하러 성소에 들어갈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16:13 이것은 지난날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16:14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품꾼의 정해진 햇수처럼 꼭 삼 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 많은 큰 무리와 함께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매우 적고 나약해질 것이다."

17장

17:1 다메섹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보라, 다메섹은 성읍의 자리를 잃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17: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받아 양 떼의 처소가 될 것이니, 양 떼가 거기에 누워도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17:3 에브라임에서는 요새가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나라가 없어지며,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쇠락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17:4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여위고, 그의 살진 몸이 야위어 갈 것이다.

17:5 그것은 마치 곡식을 거두는 자가 밀을 베어 그 팔로 이삭을 거두는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곡식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다.

17:6 그러나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올리브 열매 두세 개가 남고 무성한 나무의 끝 가지에 네댓 개가 남는 것처럼, 약간의 주울 것은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17:7 그날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공경할 것이다.

17:8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이나 분향단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17:9 그날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았던 숲속이나 산꼭대기의 버려진 곳들처럼 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17: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힘의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름다운 식물을 심고 외국의 묘목을 갖다 심을지라도,

17: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씨가 싹트게 할지라도, 슬픔과 절망적인 고통의 날에 추수할 곡식이 달아나 버릴 것이다.

17:12 아,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으르렁거리는 많은 민족들의 소동이여! 거센 물결의 내달림처럼 몰아치는 여러 나라들의 내달림이여!

17:13 여러 나라가 많은 물의 용솟음처럼 내달리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그들이 멀리 도망할 것이다. 바람 앞의 산 위의 겨처럼, 폭풍 앞의 소용돌이치는 먼지처럼 쫓겨 갈 것이다.

17:14 저녁때에는 보라, 공포뿐이더니,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18장

18:1 아,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여!

18:2 그들이 바다를 통해, 물 위에 뜬 파피루스 배에 사절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 날랜 사절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에게로 가라.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 자로 재며 짓밟는 민족, 강들이 그 땅을 가로지르는 나라로 가라!" 하는구나.

18:3 세상의 모든 거민아, 땅에 사는 너희 거주민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세워지거든 보라! 나팔이 울리거든 들으라!

18:4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조용히 머물며 내 거처에서 바라볼 것이다. 쬐는 햇살 속의 맑은 더위 같고 추수 때 더위 속의 이슬구름 같을 것이다."

18:5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꽃이 익은 포도송이가 될 때, 주님께서 가지치기 칼로 싹을 자르시며 뻗은 가지들을 베어버리실 것이다.

18:6 그것들이 산의 사나운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한데 버려질 것이니, 사나운 새들은 여름 동안 그것들을 먹고 땅의 모든 짐승은 겨울 동안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18:7 그때에 키가 크고 매끄러운 백성,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 자로 재며 짓밟는 민족, 강들이 그 땅을 가로지르는 나라로부터,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이 올라올 것이다.

19장

19:1 애굽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오신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떨 것이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속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19:2 내가 애굽 사람들을 충동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맞서며, 성읍과 성읍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19:3 애굽의 정신이 그 안에서 쇠약해질 것이며,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주술사들과 혼백을 부르는 자들과 마술사들을 찾아갈 것이다.

19:4 내가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넘길 것이며,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19:5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강이 바싹 말라버릴 것이다.

19:6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의 물줄기들이 줄어들어 마르며, 갈대와 골풀이 시들어 갈 것이다.

19:7 나일강가의 초원과 나일강 기슭, 그리고 나일강변에 씨 뿌린 모든 밭이 말라버려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19:8 어부들이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가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이 기운을 잃을 것이다.

19:9 빗질한 삼을 가공하는 자들과 흰 천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19:10 그 나라의 기둥들이 부서지고, 품삯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모두 마음 깊이 슬퍼할 것이다.

19:11 소안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의 조언은 우둔해졌다. 너희가 어찌 바로에게 감히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아들이요 옛 왕들의 후예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19:12 그렇다면 네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애굽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들로 너에게 알리게 하고 밝히게 하라.

19:13 소안의 지도자들은 바보가 되었고 놉의 지도자들은 속아 넘어갔다. 그 지파들의 머릿돌인 그들이 애굽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19:14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취한 자가 토사물 위에서 비틀거리듯 애굽이 모든 일에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19:15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애굽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19:16 그날에 애굽 사람들은 여자들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손의 흔들림 때문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19:17 유다 땅은 애굽에게 공포가 될 것이니, 유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세우신 계획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19:18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께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는 '파멸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19:19 그날에 애굽 땅 한가운데에는 주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요,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19:20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변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19:21 주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알리실 것이며,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고, 주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갚을 것이다.

19:22 주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지만 치신 뒤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19:23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이어지는 큰길이 열려, 앗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다.

19:24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째가 되어 온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19:25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백성 애굽과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와 내 상속 재산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기를!"

20장

20:1 앗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을 때, 다르단이 아스돗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함락한 그해의 일이다.

20:2 그때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 허리에서 굵은 베를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걸어 다녔다.

20: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표징과 경고가 된 것 같이,

20:4 앗수르 왕이 애굽의 포로들과 구스의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벗은 몸과 맨발로,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끌고 가 애굽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20:5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 때문에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20:6 그날에 이 해안가 주민들이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구출받으려고 도움을 청하러 도망갔던 대상이 이 꼴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21장

21:1 바다 광야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지역에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듯, 광야에서, 무서운 땅에서 재앙이 밀려온다.

21:2 참혹한 환상이 내게 전해진다.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는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라! 공격하라! 내가 메대의 모든 탄식을 그치게 했다.

21:3 그러므로 내 허리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찼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아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너무나 아파서 듣지 못하고, 너무나 질려 보지 못하겠구나.

21:4 내 마음이 떨리고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내가 바라던 황혼의 시간마저 내게는 떨림으로 변하였다.

21:5 그들이 식탁을 차리고 파수꾼을 세우며 먹고 마신다. 너희 지도자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21:6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알리게 하라.

21:7 그가 한 무리의 병사들, 곧 쌍쌍이 늘어선 기병들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21:8 파수꾼이 사자처럼 소리 질렀다. "주님, 제가 낮에는 파수대 위에 줄곧 서 있고, 밤마다 제 근무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21:9 보십시오, 여기에 한 무리의 군사들과 쌍쌍이 늘어선 기병들이 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그녀의 신들의 모든 조각 신상이 땅에 산산이 부서졌다."

21:10 내 타작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타작한 백성이여! 내가 만군의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포하였다.

21:11 두마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1:12 파수꾼이 말하였다. "아침이 오고 있으나 밤도 올 것이다. 묻고 싶거든 물으라. 다시 오라."

21:13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의 대상들이여, 너희는 아라비아의 수풀 속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21:14 그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주었다. 데마 땅의 주민들이 도망쳐 온 자들을 자기들의 빵을 들고 맞이하였다.

21:15 그들이 칼들을 피해, 곧 빼어 든 칼과 당겨진 활과 치열한 전쟁터의 불꽃을 피해 도망쳐 왔기 때문이다.

21:16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계약 노동자의 햇수처럼 꼭 일 년 안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21:17 그리고 게달 자손의 용사들인 활 쏘는 자들의 남은 수가 적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2장

22:1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간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22:2 함성으로 가득 차고 떠들썩하던 도시, 흥겨워하던 성읍아, 너의 죽임당한 자들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요 전투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다.

22:3 너의 모든 지도자는 다 함께 도망쳤으나 활 쏘는 자들에게 사로잡혔고, 네 안에서 발견된 자들은 모두 함께 묶인 채 멀리 달아나려 하였다.

22:4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 "내게서 눈을 돌리라. 내가 비통하게 울겠다. 내 백성의 딸의 파멸을 두고 나를 위로하려 애쓰지 말라."

22: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혼란과 짓밟힘과 당혹감의 날이 임하였으니, 성벽이 무너지고 산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22:6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에 탄 군사들과 기병들을 이끌고 왔으며, 길은 방패의 덮개를 벗겼다.

22:7 네 가장 좋은 골짜기들은 병거들로 가득 찼고, 기병들은 성문 앞에 대열을 갖추었다.

22:8 그가 유다의 방어막을 벗겨버렸으니, 그날에 너희는 숲의 궁전에 있는 무기들을 바라보았다.

22:9 너희는 다윗성의 무너진 틈이 많은 것을 보고, 아래 못의 물을 모았으며,

22:10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보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려고 집들을 헐었다.

22:11 너희는 또 옛 못의 물을 저장하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를 계획하신 분을 존중하지 않았다.

22:12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부르셨거늘,

22:13 보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소를 잡고 양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22:14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직접 밝혀 주셨다. "너희가 죽기까지 이 죄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22:15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내 대신인 궁궐의 관리자 셉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22:16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기에 여기에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깎아 만들었구나!'

22:17 보라, 주님께서 너를 세차게 내던져 버리실 것이다. 참으로 그분이 너를 단단히 움켜쥐실 것이다.

22:18 그분이 너를 둘둘 말아 공처럼 넓은 땅으로 집어 던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며, 네 자랑거리였던 병거들도 네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한 너와 함께 거기에 남을 것이다.

22:19 내가 너를 네 직위에서 쫓아낼 것이며, 너는 네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다.

22:20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22:21 너의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로 그를 동여매어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2:22 내가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22:23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안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될 것이다.

22:24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걸 것이니, 곧 종손과 비속, 작은 그릇들, 잔으로부터 온갖 항아리까지 다 걸릴 것이다.

22:25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다. 그 위에 걸렸던 무거운 짐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23장

23:1 두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황폐해져서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기 때문이다. 깃딤 땅에서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23:2 너희 해안가 주민들아, 잠잠하라. 바다를 건너다니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채웠었다.

23:3 큰 물결 너머 시홀의 곡식, 나일강의 추수가 그녀의 소득이었으며, 그녀는 여러 민족의 시장이었다.

23:4 시돈아, 부끄러워하라.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내가 진통을 겪지도 못하였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으며 젊은이들을 양육하지도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다" 하였기 때문이다.

23: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도 두로의 소식을 듣고 몹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23: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안가 주민들아, 슬피 울라!

23:7 이 성읍이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어 제 발로 먼 곳까지 가서 나그네처럼 살던 너희의 환희의 도시인가?

23:8 왕관을 씌워주던 자요, 상인들은 제후들이었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23:9 만군의 주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니, 모든 영화의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업신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23:10 딸 다시스여, 나일강처럼 너의 땅을 덮쳐 흐르라. 너를 묶는 구속이 더는 없다.

23:11 주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으시고 여러 왕국을 뒤흔드셨다. 주님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다.

23:1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짓밟힌 처녀 딸 시돈아, 너는 다시는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너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23:13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은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앗수르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자들을 위해 그곳을 세웠고 망대를 세웠으며 그 궁궐들을 헐어 무더기로 만들었다.

23:14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너희 요새가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23:15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수명과 같은 칠십 년 동안 잊힐 것이다. 칠십 년이 지난 뒤에 두로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될 것이다.

23:16 잊힌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안을 돌아다녀라. 아름다운 가락을 연주하고, 많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23:17 칠십 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두로는 다시 몸값을 받는 일로 돌아가 지면 위의 세상 모든 나라와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23:18 그러나 그녀의 무역품과 수입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될 것이며 쌓아두거나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물품은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튼튼한 옷을 입는 데 쓰일 것이다.

24장

24:1 보라, 주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흩으신다.

24:2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안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다 같을 것이다.

24:3 땅이 완전히 텅 비고 철저히 황폐해질 것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24:4 땅이 슬퍼하며 시들어가고, 세상이 쇠약해져 쇠잔해지며, 땅의 높은 백성들도 쇠약해진다.

24:5 땅 또한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혀졌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규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24: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타고 남은 사람의 수가 적다.

24:7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시들며,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던 자들이 모두 한숨짓는다.

24:8 소고 치는 흥겨움이 그치고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수금의 즐거움이 멎었다.

24:9 그들이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독주는 마시는 자들에게 쓰디쓸 것이다.

24:10 혼돈의 성읍이 무너지고 집마다 닫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24:11 포도주가 없어 거리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모든 즐거움은 어두워졌으며 땅의 기쁨은 사라졌다.

24:12 성읍은 황폐한 채로 남겨졌고 성문은 부서져 폐허가 되었다.

24:13 땅 가운데 민족들 사이에서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와 같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24: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바다 건너편에서 크게 외칠 것이다.

24:15 그러므로 동방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바다 섬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24:16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렸다.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야위어 간다! 나는 야위어 간다! 내게 재앙이 닥쳤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했다. 참으로, 그들은 몹시 비열하게 배신했다.

24:17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 위에 있다.

24:18 두려움의 소리를 피해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요, 함정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높은 곳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24:19 땅이 완전히 깨어지고, 땅이 쪼개지며, 땅이 심하게 뒤흔들린다.

24:20 땅이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오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그 죄악이 땅을 무겁게 짓눌러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24:21 그날에 주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24:22 그들이 죄수들이 구덩이에 모이듯 함께 모여 감옥에 갇힐 것이며, 오랜 날이 지난 뒤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24:23 그때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니,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5장

25:1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완전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5:2 주님께서 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인들의 궁전을 더는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25:3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잔인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25:4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셨고 곤경에 처한 궁핍한 자의 요새가 되셨으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요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5:5 가뭄 속의 열기를 꺾으시듯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소동을 잠재우실 것이며, 구름 그늘로 더위를 식히시듯 포악한 자들의 승전가가 낮아질 것입니다.

25:6 이 산에서 만군의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과 잘 거른 맑은 묵은 포도주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25:7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덮고 있는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 위에 드리워진 너울을 없애실 것입니다.

25:8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셨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온 땅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거두실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5:9 그날에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25: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실 것이나, 모압은 거름물 속에서 짚이 짓밟히듯 자기 자리에서 짓밟힐 것이다.

25:11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듯 모압이 그 한가운데서 손을 펼 것이나, 주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함께 그 손의 교활함을 낮추실 것이다.

25:12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낮추시어 땅으로, 곧 먼지 바닥으로 떨어뜨리셨다.

26장

26:1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가 불릴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성곽으로 삼으셨다.

26:2 문들을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가게 하라.

26:3 주님께서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 주실 것이니,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26:4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 곧 주님 안에 영원한 반석이 있기 때문이다.

26:5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사는 자들과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그 성읍을 허물어뜨려 땅바닥에 내던지시고, 먼지 바닥에 처박으셨다.

26:6 발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니, 가난한 사람의 발과 궁핍한 사람의 발걸음이 짓밟을 것이다."

26:7 의로운 사람의 길은 올곧습니다. 올곧으신 주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26:8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저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 영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6:9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고,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세상 주민들이 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26:10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는 의를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올곧은 땅에서도 불의를 저지르고,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26:11 주님,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으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참으로 불이 주님의 대적들을 삼킬 것입니다.

26:12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화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룬 모든 일도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13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 외에 다른 주인들이 저희를 다스렸으나,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기억하겠습니다.

26:14 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고, 떠나간 영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멸망시키셨고,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26:15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26:16 주님, 환난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26:17 아이를 밴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 진통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듯이,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26:18 저희가 아이를 배고 진통을 겪었으나, 낳은 것은 바람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고, 세상 주민들을 쓰러뜨리지도 못했습니다.

26:19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속에 사는 자들아, 깨어나서 노래하라! 주님의 이슬은 풀잎 위의 이슬 같으니, 땅이 떠나간 영들을 내던질 것입니다.

26:20 내 백성아, 오라. 네 방으로 들어가서 네 뒤로 문을 닫아라.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26:21 보라, 주님께서 땅 주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땅도 그 위에 흘려진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덮어 두지 않을 것이다.

27장

27:1 그날에 주님께서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로 달아나는 뱀 리워야단과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27:2 그날에 너희는 그를 향해 노래하라. "아름다운 포도원이여!

27:3 나 주님이 그것을 지키는 자다. 내가 때마다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킬 것이다.

27:4 내게는 분노가 없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맞선다면, 내가 싸우러 나갈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향해 진격하여 모두 함께 불태워 버릴 것이다.

27:5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굳게 붙잡고 나와 평화를 맺게 하라. 나와 화친하게 하라."

27:6 앞으로 올 날들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며 싹을 낼 것이다. 그들이 온 세상의 지면을 열매로 가득 채울 것이다.

27:7 주님께서 그들을 치신 자들을 치셨듯이 그들을 치셨겠는가? 아니면 그들을 죽인 자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그들이 죽임을 당했겠는가?

27:8 주님께서는 적절한 한도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다투셨고, 동풍이 불던 날에 거친 바람으로 그들을 몰아내셨다.

27:9 그러므로 이것으로 야곱의 죄악이 용서받을 것이며, 그의 죄를 없애는 완전한 열매는 이러하니, 곧 제단의 모든 돌을 부스러진 횟돌처럼 만들어 아세라 목상과 분향 제단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7:10 견고한 성읍은 황량해져 버려지고 내버려진 처소가 광야처럼 되었다. 송아지가 거기서 풀을 뜯고, 거기에 누워 나뭇가지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27:11 그 가지가 마르면 꺾일 것이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은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빚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27:12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곧 주님께서 유브라데강 줄기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낟알을 떠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 것이다.

27:13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던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28장

28:1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술에 찌든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시들어 가는 꽃에 화가 있을 것이다!

28:2 보라, 주께 힘세고 강한 자가 있으니, 쏟아붓는 우박 폭풍과 파멸의 폭풍 같고, 범람하는 거센 물결의 폭풍 같아서, 그가 손으로 그것들을 땅에 내던질 것이다.

28:3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28:4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시들어 가는 꽃은 여름이 오기 전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보는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따먹을 것이다.

28:5 그날에 만군의 주님께서 그분의 남은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자 아름다운 관이 되실 것이며,

28:6 재판 자리에 앉은 자에게는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28:7 이들 또한 포도주로 비틀거리며 독주로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도 독주로 비틀거리며, 포도주에 집어삼켜지고, 독주로 휘청거린다. 그들은 환상을 볼 때 그릇되며, 재판할 때 비틀거린다.

28:8 모든 식탁이 더러운 토사물과 오물로 가득 차 빈 곳이 없다.

28:9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는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깨우쳐 주려 하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막 벗어난 젖먹이들에게인가?

28:10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28:11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28:12 주님께서 전에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처이니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어라", 또 "이것이 상쾌한 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28:13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될 것이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덫에 걸려 붙잡히게 될 것이다.

28:14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8: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동맹을 맺었다. 밀어닥치는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 아래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8:1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놓으니, 곧 시험을 거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모퉁잇돌이다. 믿는 사람은 조급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28:17 내가 공의를 측량줄로 삼고 정의를 다림줄로 삼을 것이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릴 것이며, 물이 그 숨는 곳을 휩쓸어 갈 것이다.

28:18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고, 스올과 맺은 동맹은 서지 못할 것이다. 밀어닥치는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희는 그 재앙에 짓밟힐 것이다.

28:19 그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붙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고 낮에도 밤에도 지나갈 것이다. 그 소식을 깨닫는 것 자체가 오직 공포일 뿐이다."

28:20 잠자리가 너무 짧아서 몸을 뻗을 수 없고, 이불이 너무 좁아서 몸을 감쌀 수가 없기 때문이다.

28:21 주님께서 페라심산에서처럼 일어나실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진노하실 것이니, 자신의 일 곧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행위 곧 그 놀라운 행위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28:22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결박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온 땅에 내려진 멸망의 결정을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28: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하여 내 말을 들어라!

28:24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쉬지 않고 밭만 갈겠느냐? 계속해서 흙을 뒤엎고 흙덩이를 부수기만 하겠느냐?

28:25 그 지면을 고르게 갈고 나면, 회향을 심고 대회향 씨를 뿌리며, 밀을 줄지어 심고 보리를 정해진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28:26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지혜를 일러 주시고 그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28:27 회향은 날카로운 도구로 떨지 않으며, 대회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회향은 막대기로 털어내고, 대회향은 도리깨로 턴다.

28:28 곡식은 빻아야 하지만 끝없이 털기만 하지는 않는다. 탈곡 수레바퀴를 그 위로 굴릴지라도, 말발굽으로 그것을 부스러뜨리지는 않는다.

28:29 이 또한 만군의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그분의 모략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탁월하다.

29장

29:1 아리엘, 아리엘,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절기를 되풀이하여 지켜 보아라.

29: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슬픔과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은 내게 제단 화덕처럼 될 것이다.

29:3 내가 너를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고, 군대를 배치하여 너를 포위하며, 너를 치려고 공성 요새를 쌓을 것이다.

29:4 너는 낮아져 땅에서 말할 것이며, 네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나직이 흘러나올 것이다. 네 목소리는 땅에서 나오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을 것이며, 네 말소리는 먼지 속에서 속삭이듯 들릴 것이다.

29:5 그러나 너를 치는 대적의 무리는 고운 먼지 같고, 잔인한 자들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을 것이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닥칠 것이다.

29:6 그 성읍은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만군의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9:7 아리엘을 치고 싸우는 모든 민족의 무리, 곧 그 성읍과 요새를 쳐서 괴롭히는 모든 자는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될 것이다.

29:8 굶주린 사람이 꿈에 음식을 먹었으나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 같고, 목마른 사람이 꿈에 물을 마셨으나 깨어나면 기진하여 여전히 목이 마른 것 같을 것이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29:9 너희는 멈추어 서서 놀라라! 너희 눈을 감고 눈먼 자가 되어라! 그들이 취하였으나 포도주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

29:10 주님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 눈은 예언자들이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그 머리는 선견자들이다.

29:11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글처럼 되었다. 사람들이 글을 아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며 "이것을 읽어 주십시오" 하면, 그가 "봉인되었으니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29:12 또 그 책을 글을 모르는 자에게 건네며 "이것을 읽어 주십시오" 하면, 그가 "나는 글을 모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29:13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경외하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다.

29: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질 것이다."

29:15 주님을 피해 자기들의 계획을 깊이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일을 꾸미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를 알겠는가?"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9:16 너희가 일을 거꾸로 뒤집는구나!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게 여길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자에 대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29:17 조금만 더 지나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29:18 그날에 귀먹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눈먼 사람의 눈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29:19 겸손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기뻐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할 것이다.

29:20 잔인한 자가 사라지고 조롱하는 자가 없어지며, 죄악을 저지르려고 기회를 노리던 모든 자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9:21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성문에서 판결하는 자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며, 헛된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의 공의를 짓밟는 자들이다.

29: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얼굴이 다시는 하얗게 질리지 않을 것이다.

29:23 그가 자기 한가운데서 내 손으로 지은 그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29:24 마음이 방황하던 자들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불평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다."

30장

30:1 "거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내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30:2 그들이 내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길 떠나, 바로의 힘으로 자신을 강화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하려 한다!

30:3 그러므로 바로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며, 애굽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다.

30:4 그들의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들의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30:5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 백성은 도움이 되지도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수치와 치욕이 될 뿐이다."

30:6 남쪽 지역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환난과 고통의 땅, 곧 암사자와 사자,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땅을 지나, 그들이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육혹에 보물을 싣고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간다.

30:7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 불렀다.

30:8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이것을 석판에 적고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올 날들을 위해 영원히 남아 있게 하라.

30:9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님의 율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30:10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속임수를 예언하라.

30:11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 길목에서 비켜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치워 버려라"라고 말한다.

30: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제와 비뚤어진 것을 신뢰하며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30:13 이 죄악이 너희에게 높은 성벽에 금이 가 불룩 솟아올라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틈과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30:14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아낌없이 박살 내어 부수듯 그분께서 그것을 깨뜨리실 것이니, 그 부서진 조각 가운데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작은 조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30:15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돌아와 안식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절하며,

30:16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빠른 것을 타고 달리겠다" 하였으니,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30:17 한 사람의 위협에 천 사람이 도망치고, 다섯 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칠 것이니, 결국 너희는 산꼭대기의 깃대 같고 언덕 위의 깃발처럼 남겨질 것이다.

30:18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30:19 백성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머무를 것이니, 네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30:20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네 스승들은 다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니, 네 눈이 네 스승들을 직접 볼 것이다.

30:21 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든 왼쪽으로 돌아서든, 네 뒤에서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라." 하는 목소리가 네 귀에 들릴 것이다.

30:22 너는 은으로 입힌 네 조각 신상들과 금으로 도금한 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길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불결한 물건처럼 내던지며 "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30:23 네가 땅에 뿌릴 씨앗을 위해 그분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며, 땅에서 나는 곡식은 기름지고 풍성할 것이다. 그날에 네 가축들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30:24 밭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삽과 갈퀴로 까불어 가려낸 맛있는 먹이를 먹을 것이다.

30:25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살육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마다 시냇물과 개울물이 흐를 것이다.

30:26 더욱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이 맞아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레 동안의 빛과 같을 것이다.

30:27 보라, 주님의 이름이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그분의 분노가 불붙듯 타오르고 짙은 연기가 치솟는다. 그분의 입술에는 진노가 가득하며,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30:28 그분의 입김은 목까지 차오르는 넘쳐흐르는 시내 같아서, 멸망의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실 것이다. 백성들의 턱에는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재갈이 물릴 것이다.

30:29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너희에게 노래가 있을 것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께로 나아갈 때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30:30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맹렬한 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뇌우와 우박으로 그분의 팔이 내리치시는 것을 보이실 것이다.

30:31 주님의 목소리로 앗수르 사람이 두려워 떨 것이니, 주님께서 막대기로 그를 치실 것이다.

30:32 주님께서 그 위에 내리치시는 징벌의 몽둥이질마다 소고와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주님께서는 무기를 휘두르시며 격렬한 전투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30:33 그를 태울 자리가 이미 오래전에 마련되었고, 참으로 왕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분께서 장작더미를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땔나무가 있으니, 유황 개울 같은 주님의 입김이 그것을 불태우신다.

31장

31:1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다고 하여 병거를 신뢰하며, 기병이 매우 강하다고 하여 기병을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31:2 그러나 그분께서도 지혜로우시니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일어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집안을 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31:3 애굽 사람들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돕는 자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그들 모두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31:4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힘센 젊은 사자가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릴 때, 많은 목자가 불려 나와 맞선다 해도 그 목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 소란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우시려고 내려오실 것이다.

31:5 공중을 맴도는 새들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보호하여 건져 내시고, 넘어가 지키실 것이다."

31:6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심히 반역했던 분께로 돌아오라.

31:7 그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손으로 죄를 지어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내던질 것이다.

31:8 "앗수르 사람은 사람의 칼이 아닌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킬 것이다. 그가 칼을 피해 달아날 것이요,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31:9 그의 반석은 공포 때문에 사라질 것이며, 그의 고관들은 깃발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시온에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화덕이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32장

32:1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고관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32:2 사람마다 바람을 피하는 피난처 같고 폭풍을 막아 주는 은신처 같을 것이며, 메마른 곳에 흐르는 물줄기 같고 지친 땅에 드리운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32:3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듣는 자들의 귀가 기울여 들을 것이다.

32: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을 더듬는 자의 혀가 유창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32:5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고결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며, 파렴치한 자를 존귀하다 여기지 않을 것이다.

32:6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악을 품어 불경건을 행하며, 주님을 거슬러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자의 배를 주리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32:7 파렴치한 자의 수단은 악하니, 가난한 사람이 바른말을 할 때조차 거짓말로 비천한 자를 멸망시키려고 악한 꾀를 꾸민다.

32:8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일을 계획하며, 고결한 일에 굳건히 설 것이다.

32:9 안일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 없이 지내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32:10 걱정 없이 지내는 여인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떨게 될 것이니, 포도 수확이 실패하고 거둘 곡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2:11 안일한 여인들아, 떨어라! 걱정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허리에 굵은 베를 둘러라.

32:12 아름다운 밭과 열매 맺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가슴을 쳐라.

32:13 내 백성의 땅에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며, 참으로 환희에 찬 성읍의 모든 즐거운 집들 위에도 자랄 것이다.

32:14 궁궐은 버려지고 붐비던 성읍은 황량해질 것이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굴혈이 되어 들나귀들이 즐겨 찾는 곳이자 양 떼의 풀밭이 될 것이다.

32: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32:16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머무를 것이며, 공의가 기름진 밭에 거할 것이다.

32:17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온과 확신일 것이다.

32:18 내 백성이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32:19 우박이 숲을 쓰러뜨리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32: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자유롭게 놓아먹이는 너희는 복이 있다.

33장

33:1 자신은 파멸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파멸시키고,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배신하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파멸시키는 일을 끝마칠 때 너 자신이 파멸을 당할 것이며, 네가 배신하는 일을 마칠 때 너 자신이 배신을 당할 것이다.

33:2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의 때에 저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33:3 천둥 같은 소리에 민족들이 달아났고,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33:4 황충이 모으듯 너희의 노략물이 모일 것이며,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들 것이다.

33:5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높임을 받으신다. 그분께서 시온을 공의와 정의로 채우셨다.

33:6 네 시대에 안정이 있을 것이며, 풍성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다.

33:7 보라, 그들의 용사들이 밖에서 울부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통곡한다.

33:8 큰길들은 황량해지고 나그네의 발길이 끊어졌다. 적이 언약을 깨뜨리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33:9 땅이 슬퍼하며 시들어 가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바짝 마른다. 사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잎을 떨어뜨린다.

33:10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나를 높이겠다. 이제 내가 높임을 받겠다.

33:11 너희는 겨를 배고 지푸라기를 낳을 것이다. 너희의 숨결은 너희 자신을 삼켜 버릴 불이다.

33:12 민족들은 횟돌이 불타는 것 같겠고, 베어져 불 속에 던져진 가시덤불 같을 것이다.

33:13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내 권능을 인정하라."

33: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불경건한 자들이 떨림에 사로잡혔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33:15 의롭게 행동하고 흠잡을 데 없이 말하는 사람, 억압해서 얻은 이익을 멸시하고 손짓으로 뇌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피 흘리는 일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악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33:16 바로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살 것이다. 견고한 바위 요새가 그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그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33:17 너의 두 눈이 아름다운 왕을 볼 것이며, 아득히 먼 땅을 바라볼 것이다.

33:18 네 마음이 지나간 공포를 되새기며 "수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는가? 무게를 달던 자가 어디 있는가? 망대들을 세던 자가 어디 있는가?" 할 것이다.

33:19 네가 더 이상 그 거만한 백성을 보지 않을 것이니, 곧 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깊은 말을 쓰며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를 말하는 백성이다.

33:20 우리의 정한 절기들의 성읍인 시온을 바라보아라. 네 눈이 조용한 거처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은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3:21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께서 위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넓은 강과 시내들이 흐르는 곳과 같아서 노 젓는 배가 다니지 못하고 위풍당당한 군함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33:22 주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요, 주님은 우리의 입법자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33:23 너의 밧줄들이 풀렸으니 돛대 밑둥을 단단히 고정하지 못하였고 돛을 펴지도 못하였다. 그때 많은 탈취물이 나뉘었으니, 다리를 저는 사람도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33:24 그곳 주민은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사는 백성은 자기 죄악을 용서받을 것이다.

34장

34:1 민족들아, 나아와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어라.

34:2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해 분노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셨고 도살당하도록 넘겨주셨다.

34:3 살해당한 자들은 내던져지고 시체의 악취가 치솟을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내릴 것이다.

34:4 하늘의 모든 별 무리가 녹아내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며, 하늘의 모든 군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시들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34:5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취하였으니, 보라, 내 칼이 심판하기 위해 에돔 위에, 내가 저주하기로 작정한 백성 위에 내려올 것이다.

34:6 주님의 칼이 피로 가득 찼고 기름으로 덮였으니, 곧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덮였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제사를 여시고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벌이시기 때문이다.

34:7 들소들이 그들과 함께 쓰러지고 어린 황소들이 힘센 황소들과 함께 쓰러질 것이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고 그들의 흙먼지가 기름으로 번들거릴 것이다.

34:8 주님께는 복수의 날이요, 시온의 소송을 갚아 주시는 보응의 해가 있기 때문이다.

34:9 그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고 흙먼지는 유황으로 변하며, 그 땅은 타오르는 역청이 될 것이다.

34:10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를 것이며, 대대로 황폐하여 영원무궁토록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34:11 그러나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다림줄을 드리우실 것이다.

34:12 사람들이 그 귀족들을 불러 나라를 세우려 해도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 모든 지도자도 헛것이 될 것이다.

34:13 궁궐에는 가시가 돋아나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가 자랄 것이니, 자칼들의 거처가 되고 타조들의 뜰이 될 것이다.

34:14 광야의 짐승들이 늑대들과 마주치고 들염소가 제 짝을 부를 것이며, 밤의 짐승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쉴 곳을 찾을 것이다.

34:15 화살뱀이 거기에 깃들여 알을 낳고 까서 그 그늘 아래 모을 것이며,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일 것이다.

34:16 너희는 주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내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34:17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셨고, 그분의 손이 줄을 띄워 그것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35장

35: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처럼 꽃을 피울 것이다.

35:2 사막이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기쁨과 노래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그 땅에 주어질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35: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라.

35:4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라.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35:5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35:6 그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 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할 것이니,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35:7 뜨거운 모래가 연못이 되고, 목마른 땅이 샘이 될 것이다. 자칼이 누워 지내던 거처에 풀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다.

35:8 거기에 큰길이 생길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부정한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35:9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짐승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속량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것이다.

35:10 주님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다.

36장

36:1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치러 올라와 그것들을 점령하였다.

36: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장의의 밭으로 가는 큰길가, 윗못의 수도 곁에 섰다.

36:3 그때 궁내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에게 나아왔다.

36:4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대왕 곧 앗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믿는 이 신뢰는 대체 무엇이냐?

36:5 전쟁을 위한 네 계략과 힘은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가 말한다. 이제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거역하였느냐?

36:6 보라, 네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사람이 그것을 짚으면 손에 박혀 찔리고 만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다.

36:7 그러나 너희가 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려느냐?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그 신이 아니냐?"'

36:8 그러므로 이제 내 주인 앗수르 왕과 내기를 해 보아라. 네가 말을 탈 사람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겠다.

36:9 그런데도 네가 어찌 내 주인의 부하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지휘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으며,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애굽을 신뢰한단 말이냐?

36:10 이제 내가 주님의 뜻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켜라' 하셨다."""

36:11 그러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저희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36:12 그러나 랍사게가 말하였다. "내 주인께서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겠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36:13 그리고 랍사게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대왕 곧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36:14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36:15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며 너희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권하지 못하게 하라.'

36: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앗수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항복해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며, 각자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36:17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 양식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리하라.

36:18 히스기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며 너희를 꾀어넘기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낸 신이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

36: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 냈느냐?

36:20 이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낸 자가 누구이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36:21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하신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36:22 그 뒤 궁내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옷을 찢은 채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였다.

37장

37:1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37:2 그는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37: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책과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37:4 앗수르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보낸 그의 신하 랍사게의 말을,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틀림없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37: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다.

37: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왕께 이렇게 전하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앗수르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지껄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37:7 보아라, 내가 그 사람 속에 한 영을 넣어 그가 어떤 소문을 듣게 할 것이니,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37:8 랍사게는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나, 그가 립나를 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7:9 앗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에 대해 "그가 너와 싸우려고 나왔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말했다.

37: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속지 마라.

37:11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며 어떻게 해왔는지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혼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37:12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냈느냐?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쌀에 살던 에덴 자손을 그 신들이 구해냈더냐?

37: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와 이와의 왕이 어디 있느냐?'"

37:14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37:15 그리고 히스기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37:16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37:17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보낸 저 산헤립의 온갖 말을 들어보십시오.

37:18 주님, 참으로 앗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37:19 또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37:20 그러니 주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7:21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했으므로,

37:22 주님이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시온의 처녀 딸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37:23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한 짓이다!

37:24 너는 네 종들을 시켜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고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내가 그 높은 백향목과 빼어난 잣나무를 베어 넘겼으며, 가장 높은 꼭대기와 울창한 숲에 들어갔다.

37:25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려 버렸다" 하였다.

37:26 그러나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내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고, 아득한 옛적부터 세운 일이다.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로 만든 것도, 이제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37:27 그러므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빠져 당황하고 수치를 당했다. 들의 풀처럼, 푸른 채소처럼, 지붕 위의 풀처럼, 자라기도 전에 바짝 타버린 곡식 밭처럼 되었다.

37:28 그러나 나는 네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알며, 네가 나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알고 있다.

37:29 네가 나를 향해 사납게 날뛰고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닿았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내 재갈을 네 입술에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37:30 그리고 왕께 드릴 징조는 이러합니다. '너희는 올해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씨를 뿌려 거두고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어라.

37:31 유다 족속 가운데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7:32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37:33 그러므로 주님께서 앗수르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으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이 성 앞에 다가서지도 못하고, 흙 언덕을 쌓아 포위하지도 못할 것이다.

37:34 그는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성읍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7:35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37:36 그러자 주님의 사자가 나아가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37:37 그리하여 앗수르 왕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 머물렀다.

37:38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8장

38:1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집안일을 정리해라. 네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38:2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

38:3 그가 말했다.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으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히스기야가 서럽게 울었다.

38:4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38:5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네 수명에 십오 년을 더해 주겠다.

38:6 그리고 너와 이 성읍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 주겠다.

38:7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너에게 보여 주는 주님의 징조다.

38:8 보아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내려앉은 해의 그림자를 뒤로 열 계단 물러나게 하겠다."" 그리하여 해가 해시계 위에서 이미 내려갔던 열 계단을 되돌아 올라갔다.

38: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된 뒤에 쓴 글이다.

38:10 내가 말했다. "내 인생의 한창때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남은 햇수를 다 빼앗겨 버렸구나."

38:11 내가 말했다. "산 자들의 땅에서 주님을, 주님을 다시 뵙지 못하겠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구나.

38:12 나의 장막은 목자의 천막처럼 걷혀서 내게서 멀리 옮겨졌구나. 나는 직조공처럼 내 목숨을 둘둘 말아 올렸더니, 그분께서 나를 베틀에서 잘라내셨구나. 낮부터 밤까지 주께서 나를 끝장내려 하시는구나.

38:13 내가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렸으나,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를 꺾으시는구나. 낮부터 밤까지 주께서 나를 끝장내려 하시는구나.

38:14 나는 제비나 두루미처럼 지저귀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느라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를 위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38:15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몸소 그 일을 이루셨다.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내 모든 날 동안 내가 조심스럽게 걸어갈 것이다.

38:16 주님, 사람은 이러한 일들로 살고, 내 영도 이 모든 것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38:17 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이 임한 것은 참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38:18 스올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죽음이 주님을 찬미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38:19 오직 살아 있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만이 오늘 내가 하듯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38:20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38:21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이면 왕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38:22 히스기야도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었다.

39장

39:1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는데, 그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39:2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자기 보물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기름, 그리고 무기고 전체와 자기 보물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히스기야의 궁궐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서 그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39:3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왕을 찾아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39:4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9:5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9:6 '보아라, 네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 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 갈 날이 올 것이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39:7 '또 너에게서 태어날 네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자손 가운데 일부가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39: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그대가 전해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테니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40장

40:1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40:2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곳을 향해 외쳐라. 그 전쟁이 끝났고, 그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의 손에서 갑절을 받았다고 말하여라."

40:3 외치는 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광야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평탄한 큰길을 만들어라.

40:4 모든 골짜기는 돋우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40:5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주님의 입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0:6 소리가 들려온다. "외쳐라!"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40:7 주님의 입김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참으로 백성은 풀과 같다.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40:9 시온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힘껏 목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40:10 보아라, 주 하나님께서 권능을 지니고 오실 것이니, 그분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분께서 주실 상급이 그분께 있고, 베푸실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40:11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 떼를 먹이실 것이다. 어린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새끼를 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이끄실 것이다.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어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천칭으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40:13 누가 주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40:14 그분께서 누구와 상의하셨으며, 누가 그분을 깨우쳐 주었느냐? 누가 그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알려주었느냐?

40:15 보아라, 뭇 나라는 두레박에 맺힌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 위의 작은 먼지처럼 여겨질 뿐이다. 보아라, 그분께서 섬들을 티끌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40:16 레바논의 숲도 땔감으로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할 것이다.

40:17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덜한 존재요 헛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40:18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어떤 형상에 그분을 빗대겠느냐?

40: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금세공업자가 금으로 입히며, 은사슬을 만들어 붙인 것이다.

40:20 그런 예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우려고 솜씨 좋은 목수를 찾아다닌다.

40:21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바가 없었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40:22 그분은 둥근 땅 위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니,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을 뿐이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사람이 거주할 천막처럼 펴셨다.

40:23 통치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시며, 세상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다.

40: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땅속에 겨우 뿌리를 내렸을 뿐인데, 그분께서 입김을 한번 불기만 하셔도 곧 말라 버리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검불처럼 날려 보낸다.

40:25 "그러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와 대등한 자가 누구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별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아라. 그분은 수효를 세어 저 군대를 이끌어 내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그분의 권능이 너무나 크고 그분의 힘이 강하시므로,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다.

40:27 야곱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왜 "내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내가 받아야 할 공정한 판결은 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하고 말하느냐?

40:28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끝까지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며,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

40:29 그분은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기운이 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40:30 젊은이들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건장한 청년들도 비틀거리며 쓰러지겠지만,

40:31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로 솟아오르고, 달려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기진하지 않을 것이다.

41장

41:1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새 힘을 얻어라. 다가와서 말하여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41:2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의로움으로 그를 불러 자기 발치에 서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뭇 나라를 그에게 넘겨주시고 왕들을 굴복시키셨다. 그의 칼 앞에 그들은 먼지처럼 흩어졌고, 그의 활 앞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흩어졌다.

41:3 그가 원수들을 뒤쫓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이전에 발로 밟아보지도 못한 길을 지나갔다.

41:4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여러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바로 나 주님이다. 내가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있을 자들에게도 내가 바로 그다."

41:5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이 떨고 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41:6 사람마다 이웃을 도우며, 자기 동료에게 "힘을 내라!" 하고 말한다.

41:7 목수는 금세공업자를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게 펴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북돋우며, 땜질에 대해 "잘 붙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41: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9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왔고, 그 가장 먼 구석에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하였다.

41:10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

41:11 보아라,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할 것이다.

41:12 네가 너와 맞서 싸우던 자들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허무하게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41:13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며, 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41:14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41:15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이가 박힌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놓겠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가루로 만들고, 언덕들을 겨처럼 날려 버릴 것이다.

41:16 네가 그것들을 키질하면 바람이 날려 보낼 것이요, 회오리바람이 흩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41:17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바짝 마를 때,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41:18 내가 헐벗은 산 위에 강들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이 솟아나게 하겠다. 광야를 물웅덩이로 만들고, 마른 땅을 샘터로 만들겠다.

41:19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나무와 도금양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자라게 하겠다.

41:20 그리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음을 다 함께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41:21 "너희의 소송 거리를 내놓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41:22 "그 우상들은 나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아라!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 말해 보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어라.

41:23 앞으로 올 일들을 말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번 일으켜 보아라. 우리가 함께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다.

41:24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된 것뿐이다. 너희를 신으로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41: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왔고, 해 뜨는 동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불러내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회반죽을 밟듯이 통치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41:26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려주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였느냐? 누가 옛적부터 알려주어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게 하였느냐? 알려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으며, 너희의 말을 들은 자도 전혀 없다.

41:27 내가 맨 먼저 시온에게 '보아라, 그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보냈다.

41:28 그러나 내가 둘러보아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조언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물어보아도 한마디조차 대답하지 못한다.

41:29 보아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란일 뿐이다."

42장

42:1 "보아라, 내가 붙들어 주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자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뭇 나라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2 그는 소리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42:3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가물거리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공의를 집행할 것이다.

42:4 그는 땅 위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섬들은 그의 법을 기다린다."

42:5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시고,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을 펴셨으며, 그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2:6 "나 주님이 의로움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고 너를 지켜 줄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여러 민족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42:7 그리하여 네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42:8 나는 주님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받을 찬양을 깎아 만든 우상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42:9 보아라, 이전에 예고했던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노니, 그 일들이 싹트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다."

42:10 바다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생물들아, 섬들과 거기 사는 주민들아,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여라!

42:11 광야와 그 성읍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소리쳐라!

42:12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에서 그분의 찬양을 널리 선포하게 하여라.

42:13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아가시며, 전사처럼 열심을 불태우실 것이다. 그분께서 전쟁의 함성을 지르시며, 참으로 크게 외쳐 적들을 제압하실 것이다.

42:14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고, 조용히 내 자신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쉴 것이다.

42:15 내가 산과 언덕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곳의 모든 풀을 바짝 말려 버리겠다. 내가 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늪지대와 웅덩이들을 말려 버릴 것이다.

42:16 내가 눈먼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이끌며, 가보지 못한 낯선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고, 굽은 길을 곧게 펴 주겠다. 내가 이 일들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42:17 그러나 깎아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신상들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물러나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42:18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보아라!

42:19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나의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나의 사자만큼 귀먹은 자가 누구냐? 나와 화목하게 지낸 자만큼 눈먼 자가 누구이며, 주님의 종만큼 눈먼 자가 누구냐?

42:20 너는 많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유의하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었으면서도 듣지 않았다."

42:21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율법을 크게 높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42:22 그러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빼앗겼으며, 그들 모두가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숨겨졌다. 그들이 먹잇감이 되었으나 구해 주는 이가 없고, 노략을 당했으나 '돌려보내라!' 하고 외치는 이가 없다.

42:23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하여 누가 귀를 기울여 듣겠느냐?

42:24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내주었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주님이 아니시냐? 백성이 그분의 길로 걷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25 그러므로 주께서 맹렬한 진노와 격렬한 전쟁을 그들 위에 쏟아부으셨다. 그것이 그들의 사방을 불태웠으나 깨닫지 못했고, 그들을 불살랐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43장

43:1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들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그슬리지 못할 것이다.

43:3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몸값으로 내주었고, 구스와 세바를 너 대신 넘겨주었다.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목숨을 대신하여 뭇 민족들을 내줄 것이다.

43:5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동쪽에서 네 자손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43:6 내가 북쪽을 향해 '그들을 내놓아라!' 하고 말하고, 남쪽을 향해 '붙잡아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와라' 하고 말하겠다.

43: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빚었으며 만든 사람들을 데려와라."

43: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들을 이끌어 내어라.

43:9 모든 나라가 함께 모이고, 뭇 백성이 집결하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미리 선포할 수 있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증인들을 세워 자신들의 옳음을 입증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듣고 '그것이 참말이다' 하고 인정하게 하여라.

43:10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과 함께 나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43:11 나, 곧 내가 주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43:12 내가 선포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직접 알렸다. 너희 가운데 낯선 다른 신은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3:13 "참으로 태초부터 나는 바로 그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일할 것이니,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43:14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군대를 보내어, 모든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이 자랑하던 배를 타고 도망치는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자 신세로 끌어내리겠다.

43:15 나는 주님, 너희의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이며, 너희의 왕이다."

43:16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속에 길을 만드시는 분,

43:17 병거와 말,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 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일제히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어 꺼져가는 등불 심지처럼 사라졌다.

43:18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지나간 옛일들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마라.

43:19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싹트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도 만들 것이다.

43:20 들의 짐승들과 자칼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니, 내가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은 백성이니, 그들이 나를 향한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43: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귀찮아했다.

43:23 너는 번제로 바칠 양 한 마리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너의 희생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는 곡식 제물로 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을 바치라고 너를 지치게 하지도 않았다.

43:24 너는 돈을 들여 나를 위해 향기로운 갈대를 사 오지도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는 네 죄악으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네 허물로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43:25 나,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지워버리는 자이니,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43:26 너는 나에게 기억을 되살려 보아라. 우리 함께 변론해 보자. 네 입장을 밝혀 네 정당함을 입증해 보아라.

43:27 너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고, 너의 중재자들도 나를 거역하였다.

43: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파멸에 넘겨지고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44장

44:1 "그러나 이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44:2 너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으셨으며, 너를 도와주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마라.

44:3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부어 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네 자손에게 쏟아붓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베풀 것이다.

44:4 그리하면 그들이 풀밭 사이에서 돋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44:5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손에 '주님의 것'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44:6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 그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44:7 내가 옛적에 백성을 세운 이래로, 나와 견줄 자가 누구냐? 나와서 선포하고, 그것을 내 앞에 설명해 보아라. 앞으로 닥쳐올 일들과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 보아라.

44:8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옛적부터 너희에게 들려주고 밝혀 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들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참으로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다른 어떤 반석도 알지 못한다."

44:9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한 자들이며, 그들이 아끼는 우상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우상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결국 수치를 당할 뿐이다.

44:10 도대체 누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든단 말인가?

44:11 보아라, 우상을 섬기는 무리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만든 장인들도 일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보아라. 그들은 떨며 다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44:12 대장장이는 쇠로 연장을 만들어 숯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으며, 힘센 팔로 그것을 만든다. 그러나 그도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지쳐 쓰러진다.

44:13 목수는 줄자를 늘여 긋고 분필로 본을 뜨며, 대패로 다듬고 컴퍼스로 금을 긋는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떠 만들어 집안에 모셔 둔다.

44:14 그는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기도 하고, 잣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골라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도 한다. 또 잣나무를 심고 비를 맞아 자라게도 한다.

44:15 그 나무는 결국 사람이 불을 피우는 땔감이 될 뿐이다. 그는 그것으로 불을 지펴 몸을 녹이기도 하고,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44:16 나무의 절반은 불에 태우고, 그 불로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는다. 또 몸을 녹이면서 "아하, 따뜻하다! 불을 보았구나!" 하고 말한다.

44:17 그러고는 그 나머지 나무로 신을,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며 "당신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친다.

44:18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44:19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자도 없고, 지식이나 총명이 없어 "내가 그 절반을 불에 태웠고, 그 숯불 위에 빵도 구웠으며,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런데 내가 그 남은 것으로 가증한 우상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토막 앞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고 말하는 자도 없다.

44:20 그는 재를 먹고 살며, 미혹된 마음에 사로잡혀 빗나가 버렸다. 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이 거짓된 우상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지도 못한다.

44: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빚었다. 너는 나의 종이니,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44:22 내가 네 허물을 짙은 구름처럼, 네 죄를 안개처럼 흩어 버렸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44:23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땅속 깊은 곳들아, 크게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 환호성을 터뜨려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44:24 너의 구속자이시며 모태에서부터 너를 빚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지은 주님이다. 나 홀로 하늘을 펼쳤고, 혼자 힘으로 땅을 넓게 펼쳤다.

44:25 나는 거짓말쟁이들의 징조를 무너뜨리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만들며, 지혜로운 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음으로 바꾸는 자다.

44:26 나는 내 종의 말을 이루어 주고, 내 사자들의 뜻을 실행하는 자다. 예루살렘을 두고는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며, 유다의 성읍들을 두고는 '다시 세워질 것이니, 내가 그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고 말하는 자다.

44:27 깊은 바다를 향해 '말라 버려라, 내가 네 강들을 바짝 말리겠다' 하고 말하는 자다.

44:28 고레스를 두고는 '그는 나의 목자이니,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두고는 '다시 건축될 것이다' 하고, 성전을 두고는 '네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다."

45장

45:1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뭇 나라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며,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주어 닫히지 않게 하겠다.

45:2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산들을 평탄하게 만들고, 놋 문들을 부수며 쇠빗장들을 산산조각 내겠다.

45:3 내가 어둠 속에 묻힌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나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45:4 나의 종 야곱을 위하여,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너에게 존귀한 칭호를 주었다.

45:5 나는 주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는 신이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주었다.

45:6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는 아무도 없다.

45:7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만들고 재앙을 창조한다. 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한다.'

45:8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단비처럼 내리고, 구름아, 공의를 쏟아부어라! 땅은 열려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자라나게 하여라.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45:9 자기를 지으신 분과 다투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땅의 질그릇 조각들 가운데 한 조각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자가 아니냐!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소?' 하고 따질 수 있겠느냐? 네가 만든 작품이 '그에게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45:10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거나, 어머니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산통을 겪었소?' 하고 따져 묻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45: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를 지으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너희가 나에게 묻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만든 일에 대해 너희가 내게 명령하려 하느냐?

45: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 손이 하늘을 펼쳤고, 내가 하늘의 모든 별 무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45:13 내가 의로움으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웠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내 성읍을 다시 지을 것이며, 몸값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5:1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의 재물과 구스의 무역품과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 건너와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사슬에 묶인 채 건너와 너를 따를 것이며, 네 앞에 엎드려 빌기를 '하나님이 분명 그대 안에 계시고 다른 이는 아무도 없으니, 다른 신은 전혀 없습니다' 하고 간청할 것이다."

45:15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구원자이십니다.

45:16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큰 망신을 겪을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함께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다.

45:17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영원무궁토록 수치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지 않을 것이다.

45:18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 땅을 빚어 만드시고 굳게 세우시되 황무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45:19 나는 은밀한 곳에서, 캄캄한 땅 한구석에서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아라' 하고 말하지도 않았다. 나 주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며, 바른 것을 선포한다.

45:20 여러 나라에서 빠져나온 너희 피난민들아, 함께 모여 오너라! 가까이 나아오너라!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들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자들이다.

45:21 너희는 밝히 말하고 증거를 내놓아라. 그들로 함께 상의해 보게 하여라. 옛적부터 이 일을 들려준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이 일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주님이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45:22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45:23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내 입에서 의롭게 나온 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45:24 사람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오직 주님 안에만 공의와 힘이 있다'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께로 나아갈 것이며, 그분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45:25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분을 자랑할 것이다!"

46장

46: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지친 짐승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46:2 우상들은 일제히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그들은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마저 포로로 끌려갔다.

46:3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모든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안겼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업혀 왔다.

46:4 너희가 늙을 때까지도 내가 바로 그다. 너희의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닐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짊어지고 구원할 것이다.

46:5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며 누구와 대등하다고 여기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46:6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붓고 저울로 은을 달아본다. 그들은 금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한다.

46:7 그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제자리에 세워 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이 그것을 향해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 속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46:8 너희 반역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답게 처신해라.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46:9 먼 옛날의 지난 일들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와 견줄 이가 없다.

46:10 나는 태초부터 결말을 선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알리는 자다. 나는 '내 뜻이 굳게 설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말한다.

46:11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독수리를 불러내며,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행할 것이다.

46:12 마음이 완고하여 공의에서 멀어져 있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46:13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온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내 구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온에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줄 것이다."

47장

47:1 "처녀 딸 바벨론아, 내려와 먼지 속에 앉아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가냘프다 불리지 않을 것이다.

47:2 맷돌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갈아라.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리며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47:3 네 알몸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며, 아무도 봐주지 않겠다."

47:4 우리의 구속자,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47:5 "잠잠히 앉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라, 딸 갈대아여.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47:6 내가 내 백성에게 분노하여 내 상속 재산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노인에게도 매우 무거운 멍에를 얹었다.

47:7 너는 '내가 영원히 왕비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 결말도 기억하지 않았다.

47:8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안전하게 앉아 있으며 마음속으로 '나뿐이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과부로 앉아 있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어라.

47:9 자식을 잃는 일과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네가 온갖 마술을 부리고 수많은 주술을 행하더라도, 그 재앙들이 너에게 온전히 덮칠 것이다.

47:10 너는 네 악행을 믿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빗나가게 했고, 너는 마음속으로 '나뿐이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47:11 그러므로 재앙이 너에게 닥칠 터인데, 너는 그것이 언제 터져 나오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파멸이 너에게 덮치겠지만 너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파멸이 갑자기 너에게 닥칠 것이다.

47:12 너는 젊어서부터 애써 행해 온 주술과 수많은 마술을 가지고 이제 맞서 보아라. 혹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47:13 너는 수많은 조언 때문에 지쳐 버렸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 너에게 닥쳐올 일들에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하여라.

47:14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불꽃의 권세에서 자기 목숨조차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할 숯불도 아니고, 둘러앉을 불도 아니다.

47:15 네가 애써 힘써 온 일들이 이 지경이 될 것이다. 젊어서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은 저마다 제 갈 길로 흩어질 것이며, 너를 구해 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48장

48:1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에서 나온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

48:2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성의 시민이라 부르며,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

48:3 내가 옛적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했다. 그것들은 내 입에서 나왔고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갑자기 그것들을 행하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48:4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 힘줄이며 네 이마는 놋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48:5 그러므로 내가 옛적부터 그 일을 너에게 선포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네가 '내 우상이 이 일들을 행했고,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를 명령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48:6 너는 이미 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들, 곧 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48:7 그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지 옛적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했으니, 이는 네가 '보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8:8 너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예전부터 네 귀가 열리지도 않았다. 네가 몹시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 불렸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분노를 늦출 것이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억제하여 너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48: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나 은처럼 하지는 않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너를 택했다.

48:11 나 자신을 위하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48:12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다.

48:13 참으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선다.

48:14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선포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벨론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을 칠 것이다.

48:15 나, 곧 내가 말했다. 참으로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를 데려왔으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48: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 일이 일어나던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함께 나를 보내셨다."

48:17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48:18 아, 네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랬다면 네 평화가 강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48:19 네 자손도 모래 같았겠고, 네 몸에서 난 자식도 모래알 같았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기쁨의 외침으로 이를 알리고, 땅끝까지 전하여라. "주님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하여라.

48:21 그분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구치게 하셨다.

48:2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49장

49:1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49:2 그분께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그분의 손 그늘 아래 나를 숨기셨다. 또 나를 갈고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그분의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다.

49: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49:4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아무 유익도 없이 헛되게 내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49:5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야곱을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분께로 모으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종으로 빚으신 분이시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며, 나의 하나님은 내 힘이 되셨다.

49:6 참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다. 내가 또한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 민족에게 미움받는 자, 통치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니, 이는 신실하신 주님, 곧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다."

49: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지켜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일으켜 황폐해진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게 하겠다.

49:9 갇힌 자들에게는 '나오너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할 것이다. 그들이 길을 따라 먹을 것을 얻겠고, 그들의 풀밭이 모든 벌거숭이 언덕 위에 있을 것이다.

49:10 그들이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샘터 곁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49:11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내 큰길들을 높일 것이다.

49:12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49:13 하늘아, 노래하여라! 땅아, 기뻐하여라! 산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49:14 그러나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했다.

49:15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49:16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늘 내 앞에 있다.

49:17 너를 재건할 자식들이 서둘러 오고, 너를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49:18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이들이 다 모여서 네게로 오고 있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몸에 걸치고, 신부처럼 그들로 몸을 단장할 것이다.

49:19 너의 버려진 곳들과 황폐한 곳들과 무너졌던 네 땅이 이제는 주민들에게 너무 좁을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나갈 것이다.

49:20 자식을 잃고 낳은 아이들이 네 귀에 대고 '이곳이 내게 너무 좁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49:21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자식을 잃고 홀로 남아 유배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이 아이들을 낳았는가? 누가 이들을 길러냈는가? 보라, 나는 홀로 남겨졌었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49:22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뭇 민족을 향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 내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며,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49:23 왕들이 너의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49:24 용사가 빼앗은 전리품을 도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포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49:25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용사의 포로라도 빼앗길 것이며, 사나운 자의 전리품도 되찾아올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투겠고, 네 자녀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49:26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고, 그들이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듯 자기 피에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주님이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50장

50: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또는 내 채권자 가운데 내가 너희를 팔아넘긴 자가 누구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팔려갔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허물 때문에 내쫓긴 것이다.

50:2 내가 왔을 때 어찌하여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어찌하여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건져낼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든다. 물이 없어 물고기들이 썩고 목말라 죽는다.

50: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옷으로 덮개를 삼는다."

50:4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피곤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알게 하셨다. 아침마다 그분께서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50:5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다. 모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50:7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안다.

50:8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일어서 보자. 내 대적이 누구인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보아라.

50:9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보라, 그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이며, 좀이 그들을 갉아먹을 것이다.

50:10 너희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속을 걸으며 한 줄기 빛도 없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50:11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찬 너희 모두여, 너희가 피운 불꽃 속으로 걸어가며 너희가 붙인 횃불 사이로 걸어가거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고통 속에 눕는 것이다.

51장

51:1 "의를 따르며 주님을 찾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쳐다보고, 너희가 파내어진 구덩이를 바라보아라.

51: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아라. 그가 혼자일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했다.

51:3 참으로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그분께서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고, 그 광야를 에덴처럼,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셨다.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51:4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 말을 들어라.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51:5 내 공의가 가까웠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뭇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섬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팔을 신뢰할 것이다.

51:6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그 아래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그곳 주민들도 그처럼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내 공의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51:7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품은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욕에 낙심하지 마라.

51:8 좀이 옷을 갉아먹듯 그들을 먹어 치울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51:9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옛날, 먼 옛적 세대들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 내시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51:10 바다를, 그 깊고 큰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51:11 주님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날 것이다.

51:12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 곧 나다. 네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처럼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51:13 너는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너의 창조주 주님을 잊어버렸느냐?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 온종일 끊임없이 두려워하느냐? 그 압제자의 분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51:14 사로잡힌 포로가 곧 풀려날 것이다. 그는 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빵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51:15 나는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뒤흔드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만군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다.

51: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51:17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서라, 예루살렘아! 너는 주님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51:18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그녀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녀가 길러낸 모든 아들 가운데 그녀의 손을 잡아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51:19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겠는가? 황폐와 파멸, 흉년과 칼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51:20 네 아들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꾸짖음이 가득 찼다.

51:21 그러므로 고난받으며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취해 있는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어라.

51:22 자기 백성을 위해 변호하시는 네 주 하나님, 곧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잔, 곧 내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51:23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둘 것이니, 그들은 네게 '우리가 밟고 지나가도록 엎드려라'라고 말하던 자들이다. 너는 지나가는 자들에게 네 등을 땅처럼, 거리처럼 내주었다."

52장

52:1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내어라, 시온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이제는 다시 너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52:2 먼지를 털어버려라! 일어나 자리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사로잡힌 딸 시온아, 네 목의 쇠사슬을 스스로 풀어라!

52: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구속받을 것이다."

52:4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에 내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고, 앗수르 사람도 까닭 없이 그들을 억압했다.

52:5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끌려갔으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조롱하며, 온종일 끊임없이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52: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말하는 이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바로 나다.'"

52:7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해 "너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52:8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인다. 그들이 일제히 노래하니,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기 때문이다.

52:9 기쁨을 터뜨려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52:10 주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52:11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주님의 기물을 나르는 너희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라.

52:12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도망치듯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방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52:13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는 높임을 받고 들어 올려져 매우 높아질 것이다.

52:14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모습은 어느 사람보다 더 상했고, 그의 형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망가졌다.

52:15 그처럼 그가 많은 민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다. 그들이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53:2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식물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잘생긴 모습도 위엄도 없다. 우리가 그를 보아도 마음이 끌릴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53:4 참으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떠맡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께 맞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여겼다.

53:5 그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눌렸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형벌이 그에게 내려졌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받았다.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로 갔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우셨다.

53:7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53:8 그는 억압과 재판으로 끌려갔다.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생각했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내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맞았다는 것을.

53:9 그는 아무런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었을 때 부자와 함께 두었다.

53:10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고통받게 하셨다. 네가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을 때,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다. 그는 오래 살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다.

53:11 자기 영혼의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고, 그가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르게 했고 반역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반역자들을 위해 중보했다.

54장

54:1 "아이를 낳지 못한 너 임신하지 못한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며 크게 외쳐라!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4:2 "네 장막 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펼쳐라. 네 줄을 길게 늘이고 네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54:3 네가 좌우로 뻗어 나갈 것이며, 네 자손이 뭇 민족을 차지하고 황폐해진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54:4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느끼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을 것이고, 과부 시절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4:5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이시니,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속자이시며,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54:6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젊어서 버림받은 아내를 부르듯 하셨다. "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54:7 "내가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54:8 넘치는 진노 속에서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네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4:9 "이것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가 땅을 뒤덮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듯이, 내가 너에게 분노하지 않으며 너를 꾸짖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54:10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흔들릴지라도, 내 한결같은 사랑은 네게서 떠나지 않으며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4:11 "너 고난당하며 폭풍에 시달리고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채의 돌로 네 돌들을 세우고 청옥으로 네 기초를 놓겠다.

54:12 내가 홍옥으로 네 성벽 탑을 만들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며, 온갖 보석으로 네 모든 성벽을 두를 것이다.

54:13 네 모든 자녀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들의 평화가 클 것이다.

54:14 너는 공의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억압에서 멀어질 것이며, 공포가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므로 공포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54:15 보라, 그들이 모여들어 칠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여 모여드는 자는 너로 인해 쓰러질 것이다.

54:16 보라, 숯불을 불어서 쓸 만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를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는 파괴자도 내가 창조했다.

54:17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네가 유죄로 판결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종들의 유산이며, 그들의 공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5장

55:1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가로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을 귀담아듣고 좋은 것을 먹어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라.

55: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너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55:4 보라, 내가 그를 여러 민족에게 증인으로 주었고, 그들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55: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던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55:6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55:7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55:8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주님의 말씀이다.

55:9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55: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땅에서 자라고 싹이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이,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맡긴 일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55: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화 속에서 인도를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터뜨릴 것이며, 들판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55:13 가시나무 대신 사이프러스나무가 자라나고, 찔레 대신 도금양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56장

56: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의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56:2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자기 손을 금하여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56:3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드시 갈라놓으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여라. 고자도 "보라,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여라.

56: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56:5 내가 내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56:6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분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모든 이방인에게는,

56:7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줄 것이다.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내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니,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56: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모아들인 자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아들일 것이다."

56:9 들판의 모든 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삼켜라.

56:10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다 무지하다. 그들은 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꿈이나 꾸고 누워 있으며 잠자기를 좋아한다.

56:11 참으로 이 개들은 탐욕스러워서 만족할 줄 모른다.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목자들이요, 다 제 길로 돌아서서 제각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56:12 그들은 말한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독주를 흠뻑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아주 엄청날 것이다."

57장

57:1 의인이 망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도 의인이 재앙을 피하여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

57:2 그는 평화 속으로 들어간다. 바르게 행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

57:3 "그러나 마술사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음녀의 자손들아, 여기로 가까이 나아오너라.

57:4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요 거짓의 씨앗이 아니냐?

57:5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우며, 골짜기 바위틈 아래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57:6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 가운데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바로 네 몫이다. 네가 그것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바치고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런 일들을 보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57:7 높고 솟아오른 산 위에 네 침상을 차려 놓았고, 너는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까지 올라갔다.

57:8 문과 문설주 뒤에 너의 우상을 세워 두었으니, 너는 나를 버리고 옷을 벗은 채 올라갔다. 너는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들의 침상에서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

57:9 너는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으며 많은 향수를 뿌렸다. 멀리까지 사신들을 보냈고, 스스로를 스올에까지 낮추었다.

57:10 네 길이 멀어서 지쳤을지라도 너는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는 기력을 되찾았으므로 지치지 않았다.

57:11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에 거짓말을 하며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57:12 내가 네 의를 선포하겠다. 네가 행한 일들은 네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57:13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아놓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하여라. 바람이 그것들을 다 날려 버릴 것이며, 한 입김에도 다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57:14 어떤 이가 말할 것이다. "돋우어라, 돋우어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걸림돌을 치워라."

57:15 영원히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마음이 꺾이고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되살리고 꺾인 자의 마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57: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언제까지나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지은 사람의 영과 영혼이 내 앞에서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57:17 그의 탐욕의 죄악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내가 얼굴을 숨기고 분노했으나,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되돌아섰다.

57: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 주겠다. 내가 그를 인도하겠고, 그와 그를 위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되돌려주겠다.

57:19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57:20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쉴 수가 없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찌꺼기를 솟구쳐 올린다.

57:21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58장

58:1 "목청을 돋우어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선포하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58:2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마치 공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그들은 내게 의로운 판결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58:3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했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 자신의 쾌락을 좇고 너희 일꾼들을 모두 억압하고 있다.

58:4 보라, 너희가 다투고 싸우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려고 금식한다. 오늘 너희가 하는 식의 금식으로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한다.

58:5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낮추는 날이냐?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희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날이라고 하겠느냐?

58:6 내가 택한 금식은 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58:7 굶주린 사람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을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 주고, 네 혈육에게서 몸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58:8 그러면 네 빛이 아침처럼 터져 나오고, 네 치유가 빨리 나타날 것이다. 네 의로움이 네 앞에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킬 것이다.

58:9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며,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만일 네가 너희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악한 말을 치워버리고,

58:10 굶주린 사람에게 네 마음을 쏟으며 고통받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처럼 될 것이다.

58:11 주님께서 끊임없이 너를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뼈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58:12 네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된 폐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자, 사람이 살도록 길을 복원한 자라 부를 것이다.

58:13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네 쾌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불러 그 날을 소중히 여기며, 네 갈 길을 가지 않고 네 자신의 쾌락을 좇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58:14 그때에 네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먹여줄 것이다."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59장

59:1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59:3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사악함을 중얼거린다.

59:4 의롭게 소송하는 사람이 없고 진실하게 변호하는 사람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고 죄악을 낳는다.

59:5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밟혀 깨진 알에서는 독사가 튀어나온다.

59:6 그들이 짠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며, 그들이 만든 것으로 스스로를 가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력이 있다.

59:7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서두른다.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며, 그들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다.

59:8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도 평화를 알지 못한다.

59:9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캄캄한 속을 걷는다.

59:10 우리는 눈먼 자처럼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사람처럼 더듬거린다.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같다.

59:11 우리가 다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처럼 구슬피 운다. 우리가 공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

59:12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거슬러 증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고 있다.

59:13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했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 억압과 반역을 말했고, 거짓된 말을 마음에 품어 입 밖으로 냈다.

59:14 공의가 뒤로 물러나고 정의가 멀리 서 있으니, 진실이 길거리에 쓰러졌고 정직이 들어오지 못한다.

59:15 참으로 진실이 사라졌으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도리어 노략거리가 된다. 주님께서 이를 보셨고, 공의가 없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셨다.

59:16 그분께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중재하는 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팔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의 의가 친히 그분을 붙들어 주셨다.

59:17 그분께서는 공의를 가슴받이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보복의 옷을 겉옷으로 입으셨고 열심을 망토처럼 두르셨다.

59:18 그들의 행위에 따라 마땅히 갚으실 것이니,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며 원수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섬들에게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실 것이다.

59:19 그리하여 사람들이 서쪽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의 입김이 몰아치는 급류처럼 대적이 덮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59:20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며, 야곱 가운데서 죄과에서 돌아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9:21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입에서, 네 자손의 입에서,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0장

60: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60:2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주님께서 네 위에 떠오르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60:3 민족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떠오르는 네 광채로 나아올 것이다.

60: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온다.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네 딸들은 품에 안겨 올 것이다.

60:5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네 마음이 뛰놀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풍부함이 네게로 돌아오고 뭇 민족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60:6 수많은 낙타 무리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널리 퍼뜨릴 것이다.

60:7 게달의 모든 양 떼가 네게로 모여들 것이며, 느바욧의 숫양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니, 내가 내 영광스러운 집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60:8 구름처럼 날아오며 보금자리 창문으로 날아드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60:9 진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와서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그들의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위함이다.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60:10 외국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60:11 사람들이 네게 뭇 민족의 재물을 가져오고 포로로 사로잡힌 그들의 왕들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네 성문들이 늘 열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60:12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할 것이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60:13 레바논의 영광이 네게 이를 것이니,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와서 내 성소 처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60:14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네게 올 것이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네 발바닥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주님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60:15 전에는 네가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이자 대대로 이어질 기쁨으로 만들겠다.

60:16 너는 뭇 민족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 것이다. 그리하여 나 주님이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60:17 내가 놋쇠 대신 금을 가져오고 쇠 대신 은을 가져올 것이며, 나무 대신 놋쇠를, 돌 대신 쇠를 가져올 것이다. 또 평화를 네 관료로 삼고 공의를 네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60:18 네 땅에서 다시는 폭력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네 국경 안에서 황폐나 파멸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60:19 낮에는 해가 다시는 네 빛이 되지 않고 달의 밝음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60:20 네 해가 다시는 지지 않으며 네 달이 몸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주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네가 슬퍼하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60:21 그때에 네 백성이 다 의로워져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빚은 작품이니, 이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60:22 가장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 주님이 때가 되면 서둘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61장

61:1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겸손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묶인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61:2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61:3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며, 그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무거운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리게 하셨다.

61:4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다시 세울 것이며, 예전부터 황폐했던 곳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 대 동안 황폐해져 있던 무너진 성읍들을 수리할 것이다.

61:5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 떼를 먹일 것이며, 외국인들이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61:6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61:7 너희가 수치를 겪는 대신 두 배를 얻을 것이다. 모욕을 당하는 대신 그들은 자기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땅에서 두 배를 차지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61:8 "나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강도질과 불의를 미워한다. 나는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61:9 그들의 자손은 민족들 사이에 알려질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뭇 백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주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61:10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니, 그분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신랑이 화관으로 자신을 단장하듯,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듯 하셨다.

61:11 땅이 싹을 틔우고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돋아나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앞에서 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62장

62:1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니, 그의 의가 새벽빛처럼 빛나고 그의 구원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타날 때까지이다.

62:2 민족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주님의 입으로 직접 정해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62:3 너는 또한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며, 너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의 관이 될 것이다.

62:4 너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땅도 다시는 황폐한 땅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는 헵시바라 불리고, 너의 땅은 쁄라라 불릴 것이니, 주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너의 땅이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젊은이가 처녀와 결혼하듯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62:6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부르는 너희는 쉬지 말아라.

62:7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온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 쉴 틈을 드리지 마라.

62:8 주님께서 오른손과 권능의 팔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음식으로 주지 않을 것이며, 네가 수고하여 얻은 새 포도주를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62:9 오직 그것을 거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것을 모은 사람들이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62:10 문들로 나아가라, 문들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아라! 큰길을 돋우고, 큰길을 돋우어라! 돌들을 골라내어라! 뭇 백성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어라.

62:11 보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른다!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보응이 그분 앞에 있다!'"

62:12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부를 것이며, 너는 '찾아낸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63장

63:1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화려한 옷을 입고 큰 힘으로 당당히 걸어오는 이가 누구인가? "의를 말하며, 구원할 능력이 있는 바로 나다."

63:2 어찌하여 입으신 옷이 붉으며, 겉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습니까?

63:3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뭇 백성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밟았고, 내 격분으로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생명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온통 더럽혔다.

63:4 내 마음에 복수의 날이 있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63:5 내가 둘러보았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놀랐다.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63:6 내가 분노하여 뭇 백성을 짓밟았고, 내 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생명의 피를 땅에 쏟아부었다."

63:7 내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전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긍휼과 수많은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혜에 따른 것이다.

63:8 주님께서 "정녕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을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63:9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분도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 얼굴 앞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옛적 모든 날 동안 그분께서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 주셨다.

63:10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해 드렸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63:11 그때에 그분께서는 옛적 날들, 곧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셨다. "양 떼의 목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이끌어 올리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63:12 자신의 영광스러운 팔이 모세의 오른편에 있게 하신 분,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 자신에게 영원한 이름을 남기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63:13 마치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깊은 물을 지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63:14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떼처럼, 주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63:15 하늘에서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처에서 내려다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강력한 행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과 긍휼이 나를 향해 억제되어 있습니다.

63:16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속자'라 불리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63:17 주님, 어찌하여 우리로 주님의 길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와 주십시오.

63:18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동안 그것을 차지했으나, 우리의 대적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63:19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한 번도 다스리신 적 없는 사람들처럼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64장

64:1 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64:2 마치 불이 섶나무를 태우고, 불이 물을 끓이듯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셔서,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64:3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셨고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64:4 예로부터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달은 적도 없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64:5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아 주십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노하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64: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더러워진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64:7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스스로 힘을 내어 주님을 붙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삼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64:8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64:9 주님,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비오니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64:10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64:11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아끼던 모든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64:12 주님, 이런 일들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계속 잠잠하시면서 우리를 몹시 심하게 벌하시겠습니까?

65장

65:1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묻게 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되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하고 말했다.

65:2 내가 온종일 손을 벌려 거역하는 백성을 맞이하려 했으나,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걸었다.

65:3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면전에서 계속해서 내 노여움을 일으키는 백성이다.

65:4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앉아 있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보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그들의 그릇에는 가증한 것들의 국물이 들어 있다.

65:5 그들은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한다. 이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오르는 불이다.

65: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갚을 것이다. 참으로 그들의 품에 갚아 줄 것이다.

65: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함께 갚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산 위에서 분향하였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의 대가를 헤아려 그들의 품에 갚아 줄 것이다."

65: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새 포도즙이 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 복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없애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65:9 내가 야곱에게서 자손을 나오게 하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물려받을 자를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자들이 그곳을 물려받을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65:10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하여, 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될 것이며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65:11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산을 잊으며, 행운의 신을 위해 상을 차려 놓고, 운명의 신을 위해 섞은 술을 가득 채우는 너희여,

65:12 내가 너희를 칼에 넘기도록 정하였으니, 너희는 모두 학살을 당하려고 몸을 굽힐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65:13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보라, 내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라, 내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65:14 보라, 내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부짖으며 영혼의 괴로움으로 통곡할 것이다.

65:15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 저줏거리로 남겨 놓을 것이니,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65:16 그러므로 땅에서 스스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빌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지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65:1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다.

65: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65:20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는 갓난아이나 자기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할 것이며, 백 살이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자일 것이다.

65:21 그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65:22 그들이 짓고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고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며,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랫동안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65:23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재난을 겪게 하려고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들을 것이다.

65:25 늑대와 어린양이 함께 먹이를 먹고,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흙이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이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장

66: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66:2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돌볼 사람은 바로 가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으며, 내 말을 두려워하여 떠는 사람이다.

66:3 소를 잡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고, 어린양으로 제사 지내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자와 같으며, 곡식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유향을 피우는 자는 우상을 찬양하는 자와 같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다.

66:4 나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택하여 내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올 것이니, 내가 불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내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66:5 그분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이름을 이유로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쫓아내는 너희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였다. 그러나 수치를 당할 자들은 바로 그들이다.

66:6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성전에서 소리가 들린다! 원수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내리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

66:7 "해산의 고통을 겪기 전에 시온이 아이를 낳았고,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66:8 누가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 있는가? 누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는가? 땅이 하루 만에 생겨날 수 있겠는가?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온은 진통을 느끼자마자 자녀들을 낳았다.

66:9 내가 아이가 태어나게 하려 하면서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태를 닫아 두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66: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을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66:11 이는 너희가 그 위로의 젖을 빨아 만족을 얻고, 젖을 듬뿍 마셔 그 풍성한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66: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평화를 강처럼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며, 뭇 나라의 영광을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흐르게 할 것이니, 너희가 젖을 빨 것이다. 너희는 옆구리에 안길 것이며, 무릎 위에서 어림을 받을 것이다.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66:14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 뼈는 연한 풀처럼 무성할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그분의 종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그분의 분노가 그분의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다.

66:15 보라, 주님께서 불과 함께 오실 것이며,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다. 그분은 격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며, 타오르는 불길로 꾸짖으실 것이다.

66:16 주님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육체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임을 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66:17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며, 한가운데 있는 자를 뒤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과 쥐를 먹는 자들은 모두 함께 파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18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66:19 "내가 그들 가운데 표징을 둘 것이며,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러 민족에게로, 곧 다시스와 활을 당기는 불과 룻에게로, 그리고 두발과 야완에게로,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66:20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형제를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21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택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22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23 매 초하루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6:24 "그들이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한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않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혐오거리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1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1:2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이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3 주님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도 그에게 임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열한째 해가 끝날 때까지,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어졌다.

1:4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1:5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1:6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1:7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하며,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1:8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9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1: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민족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며, 세우고 심게 했다."

1:11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대답했다. "아몬드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1:1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1:13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대답했다. "끓고 있는 솥이 보입니다. 솥이 북쪽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1:14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나와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닥칠 것이다.

1:15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집안을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와 사방 성벽을 마주한 곳에, 또 유다의 모든 성읍을 마주한 곳에 저마다 왕좌를 놓을 것이다.

1:16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했으니, 그 모든 악행을 두고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할 것이다.

1:17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주눅 들게 하겠다.

1: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에 맞서는 요새 성읍과 쇠기둥과 청동 성벽으로 만들었다.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한 것이다.

1:19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장

2: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젊은 시절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부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일을 기억한다.

2:3 이스라엘은 주님께 거룩한 자요, 주님의 첫 수확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는 누구나 죄인이 되었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2:4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족속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며 스스로 헛되게 되었느냐?

2:6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메마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사람도 살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았다.

2: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2:8 제사장들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묻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통치자들도 내게 반역했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아무 유익도 없는 우상들을 따랐다.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다시 다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 자손의 자손과도 내가 다투겠다.

2:10 깃딤 섬들로 건너가 보아라. 게달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아라.

2:11 어느 민족이 실상은 신도 아닌 신들을 다른 신으로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도 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다.

2:12 하늘아, 이 일에 놀라라! 몸서리치며 두려워하고 몹시 황폐해져라." 주님의 말씀이다.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2:14 이스라엘이 종이냐? 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약탈을 당하게 되었느냐?

2:15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어졌다.

2:16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네 정수리를 깨뜨렸다.

2:17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길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네가 주님을 버렸으니, 너 스스로 이 일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2:18 이제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오른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브라데강의 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오른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2:19 네 악이 너를 벌할 것이요, 네 반역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이신 주님을 버린 것과,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속에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일인지 알고 똑똑히 보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2:20 "오래전에 내가 네 멍에를 꺾고 네 굴레를 끊었으나, 너는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너는 모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몸을 구부리고 음행을 일삼았다.

2:21 내가 너를 순수하고 참된 씨앗, 곧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게 낯선 이방 포도나무의 변질된 가지로 바뀌었느냐?

2:22 네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를 많이 쓸지라도, 네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아 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23 "네가 어찌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 네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네가 한 일을 깨달아라. 너는 이리저리 길을 어지럽히며 달리는 발 빠른 암낙타요,

2:24 광야에 익숙하여 욕정에 들떠 바람을 들이켜는 들나귀다. 그 들나귀가 발정 났을 때 누가 그 암컷을 돌려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을 찾는 수컷들은 힘들이지 않고 제 짝짓기 철에 그것을 쉽게 찾을 것이다.

2:25 '네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조심하고, 네 목이 타지 않게 하여라' 하였으나, 너는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26 도둑이 붙잡힐 때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 집안,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수치를 당했다.

2:27 그들은 나무더러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고, 돌더러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다가, 환난의 때가 되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2:28 그러나 네가 너를 위해 만든 네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네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라고 해라. 유다야, 너의 신들은 너의 성읍 수만큼이나 많지 않느냐?

2:29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반역했다." 주님의 말씀이다.

2:30 "내가 너희 자녀들을 헛되이 때렸다.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나운 사자처럼 너희 자신의 칼이 너희 예언자들을 삼켜 버렸다.

2:31 이 세대여,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같았느냐? 짙은 어둠의 땅과 같았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은 '우리는 풀려났으니 다시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느냐?

2:32 처녀가 자기 패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오랜 날 동안 나를 잊어버렸다.

2:33 사랑을 찾아다니는 데는 네 길이 참으로 능숙하구나! 그래서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네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

2:34 네 옷자락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네가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일 때문에 피를 흘리게 했다.

2:35 그러면서도 너는 '나는 결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라, 네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2:36 네가 어찌하여 길을 바꾸며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애굽 때문에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2:37 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네가 신뢰하는 자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로 인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장

3:1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 그 여자가 그를 떠나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정부와 음행을 저지르고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려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3:2 "민둥산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광야의 아라비아 사람처럼 너는 길가에 앉아 정부들을 기다렸다. 너는 너의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3:3 그러므로 단비가 멈추었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뻔뻔스러운 창녀의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했다.

3:4 이제부터라도 네가 내게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내 젊은 시절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3:5 너는 '주께서 영원히 노여움을 품으시겠는가? 끝까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는가?' 하고 말했다. 보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고, 네 마음대로 행했다."

3:6 요시야 왕 시대에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보았느냐? 그 여자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다.

3:7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뒤에 나는 '그 여자가 내게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배신자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3:8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써 주었음을 유다가 보았다. 그런데도 그녀의 배신자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음행을 저질렀다.

3:9 그녀가 자기 음행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혔고, 돌과 나무를 섬기며 간음했다.

3:10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자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반역한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 오히려 더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3:12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을 외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반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자비로우므로 너를 노여운 눈으로 보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영원히 분노를 품지 않겠다.

3:13 오직 네 죄악을 인정하라. 곧 네가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 반역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네 길을 흩뿌려 방황했으며,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주님의 말씀이다."

3:14 "반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한 사람씩, 한 족속에서 두 사람씩 뽑아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3:15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통찰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3:16 그 시절에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늘어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주님의 언약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며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3:17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3:18 그 시절에는 유다 집안이 이스라엘 집안과 함께 걸을 것이며,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함께 들어갈 것이다.

3:19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고, 아름다운 땅, 곧 여러 민족의 군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네게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하였고, '너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3:20 진실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가듯,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주님의 말씀이다.

3:21 민둥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통곡과 간청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했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3:22 "반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쳐 주겠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23 진실로 언덕들에서 오는 도움이나 산 위의 소란은 헛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3:24 그러나 그 부끄러운 우상이 우리 젊은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의 수고의 결실, 곧 양 떼와 소 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3:25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 눕고 우리의 모욕이 우리를 덮게 하십시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젊은 시절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4:1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주님의 말씀이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네 가증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 버린다면, 너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4:2 네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 민족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복을 빌고, 주님을 자랑할 것이다."

4:3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4:4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주님을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내 분노가 불처럼 터져 나와 아무도 끌 수 없도록 타오를 것이다.

4:5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알려라. '온 땅에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하며 크게 외쳐라. '모여라! 우리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4:6 시온을 향해 깃발을 세워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4:7 사자가 덤불 속에서 올라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네 땅을 황폐하게 만들려 하니, 네 성읍들이 무너져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4:8 이 일로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4:9 "그날이 오면" 주님의 말씀이다. "왕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고관들의 마음도 녹아내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고 예언자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4:10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칼이 목숨에 닿았으니,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4:11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전해질 것이다. "광야의 민둥산에서 내 딸 백성을 향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것은 키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4:12 이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올 것이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겠다."

4:13 보라, 그가 먹구름처럼 솟아오르고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우리가 망했기 때문이다.

4:14 예루살렘아, 구원을 받으려거든 네 마음에서 악을 씻어 내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머무는 것이 언제까지이겠느냐?

4:15 단에서 선포하는 소리가 들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4:16 "너희는 여러 민족에게 알리고, 보라,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여라. '감시하는 군대가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소리를 높인다.

4:17 밭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 여자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18 "네 길과 네 행실이 이 일들을 네게 불러왔다. 이것이 네 악함이니, 참으로 쓰라리고 네 마음에까지 사무친다."

4:19 내 고통이여, 내 고통이여!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쑤시듯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두근거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내 영혼아,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4:20 파멸 위에 파멸이 선포되니 온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내 천막들이 부서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장막 휘장들이 찢겨 나갔다.

4:21 내가 언제까지 군기를 보아야 하며, 언제까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4:22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녀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4:23 내가 땅을 보니, 보라,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하늘을 보니 빛이 없었다.

4:24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고 있었고 모든 작은 언덕들이 요동쳤다.

4:25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공중의 새들도 다 날아가 버렸다.

4:26 내가 보니, 보라, 기름진 밭이 광야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4:2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나, 내가 완전히 끝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4:28 이 일로 땅이 슬퍼하고 위의 하늘이 검어질 것이다. 내가 말했고 내가 계획했으니, 후회하지도 않고 그것을 되돌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29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의 소리에 모든 성읍 주민이 도망친다. 그들이 수풀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위로 기어오른다. 모든 성읍이 버림받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4:30 황폐해진 너여,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신구로 몸을 꾸미며 눈을 화장으로 크게 칠할지라도, 네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헛된 일이다. 너의 정부들이 너를 멸시하며 네 목숨을 노린다.

4:31 내가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 첫아이를 낳는 여인의 진통 같은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니,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젓는 시온의 딸의 목소리다. "이제 내게 화가 미쳤구나! 살인자들 앞에서 내 영혼이 기절하는구나."

5장

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오가며 둘러보고 알아보아라. 그 넓은 광장들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렇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5:2 그들이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할지라도, 틀림없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5:3 주님, 주님의 눈은 진리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하셨으나 그들은 훈계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5:4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5:5 내가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멍에를 꺾어 버리고 결박을 끊어 버렸습니다.

5:6 그러므로 숲속의 사자가 그들을 죽일 것이요, 저녁의 늑대가 그들을 멸할 것이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엿볼 것이다.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찢겨 죽을 것이니, 그들의 반역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5: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더니 그들은 간음하며 창녀의 집에 떼를 지어 몰려갔다.

5:8 그들은 잘 먹고 방탕하게 날뛰는 말 같아서,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다.

5:9 내가 이런 일들을 두고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민족에게 내 마음이 보복하지 않겠느냐?

5:10 너희는 그녀의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그러나 완전히 끝장을 내지는 마라. 그녀의 덩굴 가지들을 잘라 버려라. 그것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11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내게 매우 큰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12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시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5:13 예언자들은 바람이 될 뿐이며,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자신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5: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보라, 내가 네 입에 있는 내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

5:15 보라,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강한 민족이요 고대의 민족이며,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다.

5:16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다 용사들이다.

5:17 그들은 네 아들딸들이 먹어야 할 네 수확물과 네 양식을 먹어 치울 것이다. 그들은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어 치우고,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어 치울 것이다. 그들은 네가 신뢰하는 견고한 요새 성읍들을 칼로 쳐부술 것이다.

5:18 그러나 그 시절에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5:19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듯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5:20 너는 이것을 야곱의 집안에 선포하고 유다에 알려 이렇게 말하라.

5:21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각없는 어리석은 백성아, 이제 이 말을 들어라.

5:22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경계로 모래를 둔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겠느냐?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이기지 못하고, 물결이 포효해도 모래를 넘지 못한다.

5:23 그러나 이 백성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품어, 내게서 등을 돌려 떠나갔다.

5:24 그들은 마음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정해진 추수 주간을 지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을 이제 두려워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5:25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복을 가로막았다.

5: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숨어 엎드리듯 엿보고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다.

5:27 새장에 새들이 가득 차 있듯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권세를 얻고 부유해졌다.

5:28 그들은 살이 찌고 번드르르하며, 참으로 악행에는 한도가 없다. 그들은 고아들이 잘되도록 그 송사를 변호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 주지도 않는다.

5:29 내가 이런 일들을 두고 벌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민족에게 내 마음이 보복하지 않겠느냐?

5:30 이 땅에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5:31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6장

6:1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피하여 달아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 위에 신호 불을 올려라.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다보고 큰 파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6:2 내가 아름답고 연약한 자, 시온의 딸을 멸망시키겠다.

6:3 목자들이 양 떼를 몰고 그녀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사방에 천막을 치며 저마다 자기 몫의 풀을 먹일 것이다."

6:4 "그녀를 칠 전쟁을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한낮에 올라가자.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날이 저물고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기 때문이다.

6: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 그녀의 궁궐들을 부수자."

6: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무들을 베어 예루살렘을 향해 포위 흙언덕을 쌓아라. 이 성읍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성읍이니, 그 속에는 압제가 가득하다.

6:7 우물이 물을 솟구쳐 내듯, 그녀는 자기 악을 뿜어낸다. 폭력과 파괴가 그녀 안에서 들려오고, 질병과 상처가 끊임없이 내 앞에 있다.

6:8 예루살렘아,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떠나고, 내가 너를 황무지, 곧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6:9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남김없이 털어내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 거둘 것이다. 포도 따는 사람처럼 바구니마다 손을 다시 돌려 넣어라."

6:10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하여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수치가 되어, 그들이 그 말씀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6:11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서, 그것을 참아 내기에 지쳤습니다.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모임에 그것을 쏟아부어라. 남편과 아내가 다 잡혀갈 것이며, 노인과 살 날이 다 찬 늙은이도 잡혀갈 것이다.

6:12 그들의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밭과 아내들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민들을 향해 내 손을 뻗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6:13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탐욕에 빠져 있고,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속임수를 쓴다.

6:14 그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말하며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 주었다.

6: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6: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길목들에 서서 살펴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묻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6:17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6:18 그러므로 여러 민족들아, 들어라! 회중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똑똑히 알아라.

6:19 땅아, 들어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니, 그들이 품었던 생각의 열매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6:20 스바에서 들여오는 유향과 먼 나라에서 가져오는 달콤한 향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번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희 희생제물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6:21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을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이 다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가 함께 망할 것이다."

6:2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땅에서 온다. 큰 민족이 땅끝에서부터 들고일어날 것이다.

6:23 그들은 활과 창을 쥐고 있다.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고, 그들은 말을 탄다. 시온의 딸아, 그들이 저마다 싸우러 나서는 전사처럼 너를 치려고 대열을 갖추었다."

6:24 우리가 그 소문을 들으니 우리 손이 맥없이 풀렸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다.

6:25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을 걸어가지도 마라. 사방에 원수의 칼과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6:26 내 딸 백성아,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몹시 슬프게 통곡하여라. 파멸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6:27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금속을 시험하는 자와 요새로 삼았으니, 너로 하여금 그들의 길을 살피고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6:28 그들은 다 극도로 거역하는 자들이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놋과 쇠 같아서 모두가 타락한 짓만 일삼는다.

6:29 풀무질을 맹렬히 하여 납이 불에 다 타 버렸으나, 정련하는 일이 헛되니 악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6:30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려진 은'이라 부를 것이다."

7장

7:1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7:2 "너는 주님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외쳐라. '주님을 예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7:3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머물러 살게 하겠다.

7:4 너희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7:5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행실을 고치고,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하며,

7:6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7:7 내가 너희를 이곳에, 곧 예로부터 영원토록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머물러 살게 하겠다.

7:8 보라, 너희가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7:9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7:10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계속 저지르려고 그러느냐?

7:11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다 보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7:12 "이제 너희는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의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내가 그곳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 보아라.

7:13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7: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했던 것처럼, 너희가 신뢰하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그대로 행하겠다.

7:15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내쫓았듯이 너희도 내 눈앞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다.

7:16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게 간청하지도 마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17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7:18 아이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빚어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 드리는 제물을 쏟아부어 나를 분노하게 한다.

7:19 그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스스로 얼굴에 부끄러움을 뒤집어써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7:20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분노와 진노가 이곳에, 곧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져 내릴 것이니, 꺼지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7:21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번제물을 희생제물에 더해 그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7:22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

7:23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

7:24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꾀와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7: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7:26 그런데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목을 곧게 하여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

7:27 네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은 네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7:28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민족은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7:29 너는 머리털을 잘라 내던지고 민둥산 위에서 애가를 불러라. 주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산 이 세대를 물리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7:30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 그곳을 더럽혔다.

7:31 그들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 산당들을 짓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으니,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7:32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곳이 다시는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니,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시체를 묻을 것이기 때문이다.

7:33 이 백성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7:34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 버릴 것이니,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장

8:1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고관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8:2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고 찾고 예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무리 앞에 그 뼈들을 펼쳐 놓을 것이니, 그 뼈들은 거두어지지도 묻히지도 못하고 땅바닥의 똥처럼 될 것이다.

8:3 이 악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자, 곧 내가 쫓아낸 모든 곳에 남아 있는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8:4 "너는 또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8:5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 곧 예루살렘 백성은 끊임없이 반역하며 빗나가는가?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8: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으나 그들은 바른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 악을 뉘우치며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싸움터로 내닫는 말처럼 저마다 제 갈 길로 치닫고 있다.

8:7 참으로 공중의 황새도 자기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지키건만, 내 백성은 주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8: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보라,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붓이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8:9 지혜로운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놀라고 덫에 걸렸다. 보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8: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탐욕에 빠져 있고, 예언자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다.

8:11 그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말하며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해 주었다.

8:12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8:13 "'내가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잎사귀도 시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8:14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가? 모여라! 우리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잠잠히 죽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

8:15 우리가 평화를 바랐으나 아무 좋은 것도 오지 않았고, 치유의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공포뿐이로구나!

8:16 단에서 그의 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그의 힘센 준마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온 땅이 떨린다. 그들이 와서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8:17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뱀들, 곧 어떤 마술로도 홀릴 수 없는 독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8:18 슬픔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 가슴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8:19 보라, 먼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내 딸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다. "주님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시온의 왕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조각한 신상들과 헛된 이방 우상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는가?"

8:20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8:21 내 딸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내가 슬퍼하며 애통해하니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8: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딸 백성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는가?

9장

9:1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9:2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묵는 숙소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백성을 떠나 그들에게서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9:3 "그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한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세력을 얻었으나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4 "너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철저하게 속여 빼앗고, 이웃마다 돌아다니며 비방하기 때문이다.

9:5 그들은 저마다 친구를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혀를 가르쳐 거짓을 말하게 하고, 죄악을 짓느라 스스로 지친다.

9:6 네가 사는 곳은 속임수 한가운데에 있다. 그들은 속임수 때문에 나를 알기를 거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7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시험하겠다. 내 백성의 딸을 두고 내가 달리 어떻게 하겠느냐?

9:8 그들의 혀는 치명적인 화살 같아서 거짓을 말한다.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덮치려고 숨어 기다린다.

9:9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민족에게 내 마음이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9:10 내가 산들을 위해 슬피 울며 통곡하고, 광야의 풀밭들을 위해 애가를 부를 것이다. 그것들이 불타 버려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다 달아나 사라져 버렸다.

9:11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자칼들의 서식처가 되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

9:12 이것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의 입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찌하여 이 땅이 망하여 광야처럼 불타 버렸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9:13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둔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내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9:14 도리어 자기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르고, 그들의 조상이 가르쳐 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9:15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9:16 내가 그들도,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9:17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게 하라. 곡을 잘하는 여인들을 불러오게 하라.

9:18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라.

9:19 시온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어찌 이리 망했는가! 우리가 땅을 버려두고 떠났으며, 사람들이 우리 거처를 허물어 버렸기에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당했다.'"

9:20 여인들이여,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너희 딸들에게 통곡을 가르치고,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9:21 죽음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오고 우리 궁궐에 들어와, 밖에서는 아이들을,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을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9:22 너는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의 시체가 빈들에 거름처럼 쓰러질 것이며, 추수하는 사람 뒤에 남겨진 곡식 단처럼 될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9:23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9:24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하여라. 분별력을 지니고 나를 안다는 것, 곧 내가 땅에서 한결같은 사랑과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다. 내가 그런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25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을 모두 벌하겠다.

9: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털을 깎고 광야에 사는 모든 자를 벌하겠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장

10:1 이스라엘 집안이여,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은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한다.

10:3 여러 민족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숲에서 나무를 베어 내어 장인이 도끼로 손질한 작품에 불과하다.

10:4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단단히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10:5 우상들은 둥글게 깎아 만든 야자나무 같아서 말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걸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메고 날라야 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선을 베풀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10:6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합니다.

10:7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외를 받으시는 것은 주님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 민족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에도, 그들의 모든 왕국에서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10:8 그러나 그들은 다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상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다니, 우상은 그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10:9 다시스에서 가져온 얇게 편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장식하고, 조각가와 금세공인의 손으로 만듭니다. 그 옷은 청색과 자주색 옷감이며, 그것들은 모두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10:10 그러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은 그분의 분노를 견디지 못한다.

10:11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멸망할 것이다.'"

10:1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10:13 그분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들이 포효하고, 땅끝에서 수증기를 피어오르게 하신다.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끌어내신다.

10:14 사람은 누구나 미련하고 지식이 없다. 금세공인은 누구나 자기가 새겨 만든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된 것이며, 그 안에 숨결이 없기 때문이다.

10:15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인 작품이다. 그것들은 징벌을 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10:16 야곱의 몫이신 분은 이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분깃인 지파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10:17 포위되어 사는 자여, 이 땅에서 너의 보따리를 싸라.

10:1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의 주민들을 물매로 던지듯 내던져 버릴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

10:19 내 부상 때문에 내게 화가 미쳤구나! 내 상처가 심하구나. 그러나 나는 "참으로 이것이 내 고통이니 내가 짊어져야 한다" 하고 말했다.

10:20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들이 내게서 떠나가 더는 없으니, 내 장막을 다시 쳐 주거나 내 휘장을 세워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0:21 목자들이 미련해져서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번성하지 못했고, 그들의 모든 양 떼는 흩어졌다.

10:22 소식의 소리가 들린다, 보라, 북쪽 땅에서 큰 소동과 함께 밀려온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칼들의 서식처가 되게 하려고 온다.

10:23 주님,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발걸음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10:24 주님, 저를 바로잡아 주시되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로 하지 마셔서,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10:25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이 야곱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이 그를 삼켜 집어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1장

11:1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11: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11:3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11:4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 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11:5 그리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맹세,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맹세를 오늘날처럼 이루겠다" 하였다.'" 그때에 내가 대답하여 "아멘, 주님" 하고 말했다.

11:6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11:7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리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간곡히 경고하되, 일찍 일어나 경고하며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11:8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저마다 자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걸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했으나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였다.'"

11:9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사이에 반역의 음모가 드러났다.

11:10 그들은 내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자기 조상의 죄악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 그것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11:11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11:12 그때에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서 자기들이 분향하던 신들에게 부르짖겠지만, 그 신들은 고난의 때에 그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1:13 유다야, 네 신들의 수가 네 성읍들의 수만큼 많구나.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 너희가 그 부끄러운 것을 향해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구나.'

11: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마라. 그들이 고난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15 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거룩한 제물 고기가 네게서 떠나갔는데, 그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악을 행하면서도 기뻐하는구나."

11:16 주님께서는 너를 "좋은 열매가 열려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나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그분은 큰 함성 소리와 함께 그 나무에 불을 지르셨고, 그 가지들은 꺾였다.

11:17 너를 심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바알에게 분향하여 내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저지른 악 때문이다.

11:18 주님께서 내게 알려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11:19 그러나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며 "열매가 달린 그 나무를 없애 버리자. 그를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 버려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말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11:20 그러나 의롭게 심판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님, 제가 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원수 갚으심을 볼 것입니다. 제가 제 사정을 주님께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11:21 "그러므로 네 목숨을 노리며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 손에 죽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1:2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11:23 그들에게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장

12:1 주님, 제가 주님과 다툴 때에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께 한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의 길은 번성합니까? 어찌하여 아주 교활하게 배신하는 자들이 모두 편안히 지냅니까?

12:2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기에 그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주님이 가까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멀리 있습니다.

12:3 그러나 주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학살의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해 두십시오.

12: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고 온 들의 풀이 말라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함 때문에 짐승들과 새들도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2:5 "네가 보행자들과 함께 달렸는데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네가 어떻게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안전하겠지만, 요단강의 울창한 숲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12:6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안조차 너를 배신하였고, 그들조차 네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네게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12:7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유산을 내던졌다. 내 마음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12:8 내 유산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12:9 내 유산이 내게 점박이 맹금 같다는 말이냐? 맹금들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고 공격하느냐? 가서 들의 모든 짐승을 모아 오너라. 그것들을 데려와 집어삼키게 하라.

12: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몫을 발로 짓밟았다. 그들이 내가 아끼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어 버렸다.

12:11 그들이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니, 황폐해진 채 나를 향해 슬퍼하고 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온 땅이 황폐해졌다.

12:12 파멸시키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헐벗은 언덕에 들이닥쳤다. 주님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켜 버리니, 어떤 육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12:13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두었고, 지치도록 일했으나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다. 주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너희는 너희 수확물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12:1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받게 한 유산에 손을 대는 악한 이웃들에 대해 말하겠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 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집안을 뽑아낼 것이다.

12:15 내가 그들을 뽑아낸 뒤에,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제각기 자기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12:16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을 두고 맹세하게 했던 것처럼,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 내 이름을 두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맹세한다면, 그들은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12:17 그러나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뽑아서 멸망시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3장

13: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마포 띠를 하나 사서 네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닿지 않게 하라."

13:2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다.

13:3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게 임하였다.

13:4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르고 있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틈에 그것을 숨겨 두어라."

13:5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숨겼다.

13:6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숨기라고 명령했던 그 띠를 거기서 가져오너라."

13:7 그래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땅을 파고 숨겨 두었던 곳에서 그 띠를 꺼냈는데, 보라, 띠가 썩어서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 있었다.

13:8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3: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처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망쳐 버리겠다.

13:10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걸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러 따라간 이 악한 백성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된 이 띠처럼 될 것이다.

13:11 띠가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안과 유다의 온 집안을 내게 달라붙게 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명성이 되며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13:12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항아리는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네게 '모든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13:13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 곧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취함으로 가득 채우겠다.

13:14 내가 그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되,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부딪치게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13:15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3:16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바랄 때에 그분이 그것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흑암으로 만드시기 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13:17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영혼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주님의 양 떼가 사로잡혀 갔기에 내 눈이 비통하게 울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13:18 왕과 왕대비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관, 곧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3:19 남쪽 지역의 성읍들이 닫혔으나 열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유다가 사로잡혀 가되 모두가 사로잡혀 갔다. 온전히 포로로 끌려갔다.

13:20 너희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네게 맡겨졌던 양 떼, 곧 너의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에 있느냐?

13:21 네가 스스로 가르쳐 친구로 삼았던 자들을 그분이 너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13:22 네가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고 묻는다면,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발뒤꿈치가 짓밟힌 것이다.

13:23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13:24 "그러므로 광야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지푸라기처럼 내가 그들을 흩어 버리겠다.

13:25 이것이 네 몫이요, 내가 네게 재어 준 분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13:26 그러므로 나 또한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들추어 네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13:27 들판의 언덕들 위에서 네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 곧 네 간음과 네 울음소리와 네 음란한 매춘을 내가 보았다. 예루살렘아, 네게 화가 있구나! 너는 깨끗해지려 하지 않는구나.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14장

14:1 가뭄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14:2 "유다가 슬퍼하고 그 성문들이 쇠약해진다.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땅에 주저앉아 있으며, 예루살렘의 울부짖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14:3 귀족들이 종들을 물을 구하러 보내지만, 그들이 웅덩이에 가도 물을 찾지 못한다. 그들이 그릇을 비운 채 돌아오니, 부끄럽고 당황하여 머리를 감싼다.

14:4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흙이 갈라지므로, 밭을 가는 농부들이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감싼다.

14:5 들판의 암사슴조차 새끼를 낳고도 버리니, 풀이 없기 때문이다.

14:6 들나귀들은 헐벗은 언덕에 서서 자칼처럼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이 흐려진다.

14:7 주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반역이 많으며,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4: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환난 때의 구원자이신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하룻밤을 묵으려고 들른 길손처럼 계십니까?

14:9 왜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구원할 수 없는 용사처럼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14:10 주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처럼 헤매기를 좋아하여 자기 발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받지 않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14:1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14: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절하겠다."

14:13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도 겪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겠다' 합니다."

14:14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를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14: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14:16 그들이 예언해 준 그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도 그들의 아내도 아들들도 딸들도 묻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14:17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그치지 않게 하라. 처녀인 내 백성의 딸이 큰 파멸과 심히 중한 상처로 짓밟혔기 때문이다.

14:18 내가 들로 나가면 칼에 죽은 자들이 보이고, 성안으로 들어가면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보인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14:19 주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시온을 몹시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셨는데도 우리에게 치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때를 바랐지만, 보십시오, 두려움뿐입니다!

14:20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4:21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십시오.

14:22 여러 민족의 헛된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바로 주님이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5장

15:1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라!

15:2 그들이 네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맞을 자는 칼로, 기근을 겪을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혀 갈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가라."'

15:3 "내가 그들 위에 네 가지 재앙을 정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이는 칼과, 찢어발기는 개들과, 삼키고 멸망시키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15:4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 가운데서 이리저리 내몰리게 하겠으니, 이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이다.

15:5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 안부를 물으러 들르겠느냐?

15:6 네가 나를 버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뒤로 물러갔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쳐 너를 멸망시켰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데 지쳤다.

15:7 내가 이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그들을 까불렀다. 내가 그들에게서 자녀들을 빼앗고 내 백성을 멸망시켰다.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15:8 그들의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내가 대낮에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칠 파멸자를 그들에게 데려왔다. 내가 번민과 공포를 그 어머니 위에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15:9 일곱 자녀를 낳은 여인이 기운을 잃고 숨을 거둔다. 아직 대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져 버려, 그녀가 수치와 당혹감을 겪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5:10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온 땅에 다툼과 분쟁의 사람인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빚을 놓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내게 빚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나를 저주합니다.

15:1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재앙의 때와 환난의 때에 내가 원수로 하여금 네게 간구하게 하겠다.

15:12 쇠, 곧 북쪽의 쇠와 놋쇠를 사람이 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15:13 네 모든 국경 안에서 네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보물을 값도 받지 않고 약탈물로 넘겨주겠다.

15:14 내가 네 원수들과 함께 너를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내 진노로 불이 붙어 너희 위에 탈 것이기 때문이다."

15:15 주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은 오래 참으시니 저를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15:17 저는 흥겨워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길 때문에 제가 홀로 앉아 있었으니, 주님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15:18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낫기를 거부하는 제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참으로 제게 속이는 시내처럼, 물이 마르는 개울처럼 되시렵니까?

15:19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와 내 앞에 서게 하겠고, 네가 쓸모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겠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15:20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5:21 "내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겠다."

16장

16: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6:2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두지 마라."

16:3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16:4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묻어 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땅 위에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16: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를 거두어 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곧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거두었다.

16:6 이 땅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묻히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않고, 제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지도 않을 것이다.

16:7 죽은 자를 위해 위로하려고 슬퍼하는 자에게 빵을 떼어 주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사람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16:8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16: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너희 눈앞에서, 너희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16:10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셨는가?' 하거나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거든,

16:11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6:12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보라, 너희가 저마다 자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걸으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6: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으로 내쫓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16:14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리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고,

16:15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자신이 쫓아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 올리신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16:16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그들을 낚아 올릴 것이다. 그 뒤에 내가 많은 사냥꾼을 불러오겠으니,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16:17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겨지지 않으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앞에서 감추어지지 않는다.

16:18 내가 먼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갑절로 갚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로 내 유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16:19 주님, 제 힘이시요 제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주님, 여러 민족이 땅끝에서 주님께 나아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오직 거짓과 헛된 것과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만 물려받았습니다.

16:20 사람이 신도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16:21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번에 내가 내 손과 내 권능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이름이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7장

17:1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금강석 끝으로 새겨졌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판과 너희 제단들의 뿔에 새겨졌다.

17:2 그들의 자녀조차 높은 언덕 위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자기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을 기억한다.

17:3 들판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국경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네 산당들을 약탈물로 넘겨주겠다.

17:4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산을 스스로의 탓으로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으니, 너희가 내 분노로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17: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며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17:6 그는 사막의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17:7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확신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17:8 그는 물가에 심겨 강가로 뿌리를 뻗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며, 가뭄이 든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17:9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었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17:10 "나 주님은 생각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하여, 저마다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 준다."

17:11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처럼, 불의로 재물을 얻는 사람도 그러하다. 그의 인생 한가운데에 재물이 그를 떠날 것이며, 그의 마지막에는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17:12 처음부터 높이 들린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 성소의 자리이다.

17:13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될 것이니,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7:14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찬양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17:15 보십시오, 그들이 제게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해 보아라" 하고 묻습니다.

17:16 저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 직분을 저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재앙의 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17:17 제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제 피난처이십니다.

17:18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황하게 하시고, 저는 당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갑절의 파멸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17:19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자손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라.

17:2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문들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17: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고, 예루살렘 성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마라.

17: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가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7:23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17:24 만일 너희가 내게 부지런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안식일에 이 성읍의 문들로 짐을 들여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17:25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이 성읍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며, 이 성읍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17:26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 곳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쪽 지역에서 나아와,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주님의 집에 감사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17: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온다면, 내가 그 문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않을 것이다."""

18장

18:1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18: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18:3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18:4 그가 진흙으로 빚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자, 토기장이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18:5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18:6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스라엘 집안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18:7 내가 어느 민족이나 왕국에 대하여 뽑아내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에,

18: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18:9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왕국에 대하여 세우고 심겠다고 말할 때에,

18:10 만일 그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눈앞에서 악한 짓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복에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18:11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해 재앙을 준비하고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희는 저마다 지금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길과 행실을 고쳐라."'

18:12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고, 저마다 자기 악한 마음의 고집을 따르겠다.'"

18:1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여러 민족 가운데 물어보아라. '누가 이런 일을 들어 보았는가?' 처녀 이스라엘이 참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18:14 레바논의 눈이 들판의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마르겠느냐?

18:15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들은 옛길에서 벗어나 자기 길에서 걸려 넘어졌고, 닦이지 않은 샛길로 걸어갔다.

18:16 그리하여 자기들의 땅을 놀라움과 영원한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 그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18:17 동풍처럼 내가 원수 앞에서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18:18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음모를 꾸미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조언이, 예언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자."

18:19 주님,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와 다투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18:20 어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제 목숨을 노려 웅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좋게 말씀드려 주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했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18:21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주시고, 칼의 세력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며, 그들의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해 주십시오.

18:22 주님께서 군대를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실 때에,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고 제 발을 걸려고 덫을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18:23 그러나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님의 눈앞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19장

19: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병을 하나 사고,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과 제사장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19:2 그리고 하시트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서, 내가 네게 전할 말을 거기서 선포하여라.

19:3 너는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19: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더럽혔으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이곳에서 분향했고,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19:5 또한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자기 자녀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치려고 불에 살랐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내 마음에 품지도 않았던 일이다.

19:6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곳이 다시는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지 않고, 오직 '학살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19:7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칼로 쓰러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19:8 내가 이 성읍을 놀라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으니, 그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 때문에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19:9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가할 포위와 환난 속에서, 그들이 저마다 자기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다.'"

19:10 "그런 다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병을 깨뜨리고,

19:11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없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이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사람들이 더는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을 것이다.

19:12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9:13 더러워진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지붕 위에서 하늘의 온 무리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드렸던 그 모든 집이 도벳 같은 곳이 될 것이다.'"'

19:14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도록 자기를 보내셨던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집 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19:15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그들이 목을 뻣뻣하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성읍에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에 딸린 모든 마을에 내리겠다.'"

20장

20:1 임멜 제사장의 아들이자 주님의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훌 제사장은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20:2 이에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윗문 쪽에 마련된 차꼬에 그를 채워 두었다.

20:3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차꼬에서 풀어 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밋사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0: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너는 그 광경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칼로 죽일 것이다.

20:5 또한 내가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소득과 귀한 보물을 넘겨주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원수들은 그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20:6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며, 너와 너에게서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20:7 주님, 주님께서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주님께 설득당했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강하시므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저를 조롱합니다.

20:8 제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파멸이다!" 하고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웃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20:9 제가 그분을 언급하지도 않고, 더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고 하면, 제 마음속에는 마치 뼛속에 갇힌 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억누르고 있느라 지쳤고, 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20:10 저는 많은 사람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제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제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말합니다. "그가 설득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이기고 원수를 갚을 수 있다."

20:11 그러나 주님은 강하고 두려운 분으로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저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아 완전히 실망하고,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20:12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만군의 주님, 제 사정을 주님께 털어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제게 보게 해 주십시오.

20:13 주님께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20:14 내가 태어난 날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를 빈다.

20:15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그분을 몹시 기쁘게 해주었던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16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차 없이 무너뜨리신 성읍들처럼 되어,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함성을 듣게 되기를 빈다.

20:17 그가 나를 모태에서 죽이지 않아서,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못했고 어머니의 배가 영원히 나를 품은 채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통과 슬픔을 보며, 내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서 다 보내야 하는가?

21장

21:1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청했을 때,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렸다.

2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 주님께 뜻을 여쭈어 주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예전에 행하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셔서,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지도 모릅니다."

21:3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21:4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성벽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너희 손의 전쟁 무기들을 내가 뒤돌려놓겠고, 그것들을 이 성읍 한가운데로 모아들이겠다.

21:5 내가 뻗은 손과 강한 팔로, 분노와 진노와 커다란 격분 속에서 직접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

21:6 내가 이 성읍의 주민들을 칠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21:7 그런 뒤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곧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칠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21:8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21:9 이 성읍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며,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21:10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복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로 이 성읍에 얼굴을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가 이곳을 불로 태울 것이다.'

21:11 유다 왕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1:12 다윗 집안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빼앗긴 사람을 건져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내 분노가 불처럼 터져 나와 아무도 끌 수 없도록 타오를 것이다.

21:13 골짜기의 주민아, 평원의 바위야,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희는 "누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겠는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가?" 하고 말한다.

21:14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벌하겠고, 그 숲에 불을 놓아 그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22장

2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궁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전하여라.

22:2 '다윗의 왕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왕과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왕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2: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억압자의 손에서 건져내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22:4 너희가 참으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궁궐 문으로 들어올 것이니, 왕들뿐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도 그렇게 할 것이다.

22:5 그러나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건대 이 궁궐은 폐허가 될 것이다.""

22:6 유다 왕의 궁전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우두머리 같으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겠다.

22:7 내가 너를 칠 파괴자들을 준비할 것이다. 저마다 무기를 쥐고 네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베어 불속에 던질 것이다.

22:8 많은 나라 사람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 큰 성읍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물을 것이다.

22:9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2:10 너희는 죽은 사람을 두고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도 마라. 차라리 끌려간 사람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2:11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을 떠나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2:12 그는 사로잡혀 끌려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22:13 "불의로 자기 집을 짓고 부당함으로 다락방들을 올리며, 이웃의 노동을 부려먹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22:14 그는 '내가 나를 위해 넓은 집과 널찍한 방들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창문을 내고 백향목 널판으로 천장을 덮고 붉은 물감으로 칠하는구나.

22:15 네가 백향목을 경쟁하듯 늘어놓는다고 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으므로 그 일이 잘 풀렸다.

22:16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정당하게 재판해 주었고, 일이 잘 풀렸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22:17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직 부정한 이득을 챙기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에만 쏠려 있다."

22:18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두고 '아, 내 형제여!'라거나 '아, 내 자매여!' 하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아, 주군이여!'라거나 '아, 그분의 영광이여!' 하면서 애곡하지도 않을 것이다.

22:19 그는 나귀처럼 묻힐 것이니, 예루살렘 문들 밖으로 끌려 나가 내던져질 것이다."

22:20 "너는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 울어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울부짖어라. 너를 사랑하던 모든 자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22:21 네가 평안하게 살 때에 내가 네게 경고했으나, 너는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의 생활 방식이었다.

22:22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를 쓸어갈 것이며, 너를 사랑하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네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22:23 레바논의 거주자야, 백향목에 보금자리를 꾸민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진통이 네게 닥칠 때에 네가 얼마나 가련하게 보이겠느냐!"

22:24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의 도장 반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뽑아내겠다.

22:25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22:26 내가 너와 너를 낳아 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쫓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22:27 그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땅으로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2:28 이 사람 고니야는 천대받고 깨진 질그릇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내쫓겨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던져졌는가?

22: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2:3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라. 일평생 번영을 누리지 못할 자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를 다시 다스리며 번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3장

23:1 "내 목장의 양 떼를 멸망시키고 흩어 버리는 목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3:2 그러므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어 버렸고 내쫓았으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23:3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자들을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다시 우리로 데려오겠고, 그들이 번성하여 번식할 것이다.

23:4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워 양 떼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더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3:5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그가 왕으로 다스리며 지혜롭게 처신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23:6 그가 다스리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를 부를 이름은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다.

23:7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 않고,

23:8 '이스라엘 집안의 자손을 북쪽 땅과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 내시고 인도하신 살아 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3:9 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찢어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나는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압도된 사람 같다.

23:10 "이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저주 때문에 땅이 통곡하고 광야의 풀밭들이 메말랐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악하고 그들의 권세는 옳지 않다.

23:11 예언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다. 내 집 안에서도 그들의 악행을 발견했다." 주님의 말씀이다.

23: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어둠 속 미끄러운 곳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내몰려 거기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할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3:13 "내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어리석은 짓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23:14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며 거짓 속에 걸어간다.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자기 악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내게 다 소돔 같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 같다."

23:15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불경함이 나와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23:1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23:17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늘 말하며, 자기 마음의 완고함대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23:18 그러나 누가 주님의 회의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들었는가?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는가?

23:19 보아라, 주님의 폭풍, 곧 주님의 진노가 터져 나왔다. 회오리치는 폭풍이다! 그것이 악인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칠 것이다.

23:20 주님의 진노는 그분의 마음에 품으신 뜻을 다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것을 똑똑히 깨달을 것이다.

23:21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달려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했다.

23:22 그들이 만일 내 회의에 섰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23:23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곳에는 있지 않은 하나님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23:24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23: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

23:26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에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이다.

23:27 그들의 조상이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어버렸듯이,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꿈을 통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

23:28 꿈을 가진 예언자는 꿈을 이야기하게 하고, 내 말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을 충실하게 말하게 하라. 짚이 알곡과 어찌 같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23:29 "내 말이 불과 같지 않으냐?" 주님의 말씀이다. "바위를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않으냐?

23:30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내 말을 훔치는 자들이다.

23:31 보아라, 혀를 놀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23:32 "보아라,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여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23:33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무슨 짐이란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내버릴 것이다.'

23:34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을 벌하겠다.

23:35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라거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말해야 한다.

23:36 너희는 다시는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사람마다 자기 말이 스스로에게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23:37 너는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네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라거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23:38 너희가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너희가 이 말 곧 "주님의 부담되는 짐 같은 말씀"이라는 말을 썼다.

23:39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희와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던져 버리겠다.

23:40 내가 영원한 치욕과 결코 잊히지 않을 영구한 수치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24장

24: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지도자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뒤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었다.

24: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24:3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24:4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24:5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쫓아낸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보겠다.

24:6 내가 그들을 좋게 돌보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고,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

24:7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4:8 그러나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그처럼 버리겠다.

24:9 내가 그들을 온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리저리 내몰려 고통받게 하겠고,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모욕과 속담거리와 조롱과 저줏거리가 되게 하겠다.

24:10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25장

25: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일년에 온 유다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렸다.

25:2 예언자 예레미야가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선포했다.

25:3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제십삼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이십삼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렸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거듭하여 여러분에게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25:4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듭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25:5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옛적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5:6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진노를 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25:7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진노를 사서 스스로 해를 입었다.'

25:8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25:9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이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여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들과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놀라움과 비웃음거리와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25:10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을 끊어 버릴 것이다.

25:11 이 온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움거리가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25:12 칠십 년이 차면,'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의 죄악을 벌할 것이며,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25:13 내가 그 땅을 향해 선포한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해 예언하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임하게 하겠다.

25:14 참으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바로 그들을 자기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 손이 행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겠다.'"

25:15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다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25:16 그들은 마시고 비틀거리며,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 때문에 미쳐 버릴 것이다."

25:17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25:18 곧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곳들이 폐허와 놀라움과 비웃음과 저줏거리가 되게 했다.

25:19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25:20 그리고 모든 섞여 사는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모든 왕,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에게 마시게 했다.

25:21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25:22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너머 섬의 왕들에게,

25:23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수염 가장자리를 깎은 모든 사람에게,

25:24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사는 섞여 사는 족속의 모든 왕에게,

25:25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에게,

25:26 원근을 막론하고 서로 이어져 있는 북쪽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에 마시게 했다. 그리고 세삭 왕은 그들 뒤에 마실 것이다.

25:27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 때문에 너희는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25:28 만일 그들이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

25:29 보아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하여라.

25:30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예언하여 전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포효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다. 그분의 우리를 향해 크게 포효하시며, 포도를 밟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주민을 향해 외치실 것이다.

25:31 땅끝까지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니, 주님께서 민족들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5:3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재앙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퍼져 나갈 것이며, 큰 폭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25:33 그날에 주님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곡할 사람도 없고, 거두어들이거나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그들은 땅바닥에서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25:34 목자들아, 통곡하며 부르짖어라. 양 떼의 지도자들아, 잿더미 속에 뒹굴어라. 너희가 도살당하고 흩어질 날이 다 찼으니, 너희는 값진 그릇처럼 떨어져 깨어질 것이다.

25:35 목자들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고, 양 떼의 지도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25:36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양 떼의 지도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25:37 주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평화롭던 우리들이 적막에 잠겼다.

25:38 주님께서 사자처럼 자기 굴을 떠나셨으니, 억압하는 자의 칼날과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었다.'"

26장

26: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에게서 이 말씀이 내렸다.

26: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그들에게 전하게 한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한 마디도 빼놓지 마라.

26:3 혹시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리하면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뜻했던 재앙을 거둘 것이다.'

26:4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며,

26:5 내가 너희에게 아침 일찍부터 끊임없이 보내온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26:6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겠다.""

26:7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26:8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26:9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고 이 성읍은 황폐해져 주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느냐?" 그러자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있는 예레미야 주위로 몰려들었다.

26:10 유다의 고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님의 성전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26:11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귀로 직접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이 성읍을 거슬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26:12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들은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성전과 이 성읍을 거슬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26:13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26:14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26:15 다만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씌우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6:16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26:17 그때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모임에게 말했다.

26:18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 산은 수풀 우거진 언덕이 될 것이다."'

26:19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가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히스기야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큰 악을 우리 스스로에게 저지르려 한단 말입니까?"

26:20 한편 기랏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그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똑같이 이 성읍과 이 땅을 거슬러 예언했다.

26:21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 우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쳤다.

26:22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다.

26:23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끌고 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신을 평민의 무덤에 내던졌다.

26:24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지켜 주었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27장

27: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내렸다.

27:2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27:3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사절들의 편에 들려,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어라.

27:4 그 사절들에게 그들의 상전들에게 전할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상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27:5 "내가 내 큰 능력과 뻗은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

27: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고,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했다.

27:7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며, 마침내 그의 땅에도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자기 종으로 삼을 것이다.

27:8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바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멸절할 때까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

27:9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예언자들이나 복술가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27: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를 너희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하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27:11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들을 자기 고향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 땅을 갈게 하겠다.""

27:12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 모든 말씀대로 전했다. "왕과 백성은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 사십시오.

27:13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민족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하여 왕과 백성이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십니까?

27:14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왕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왕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15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27: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주님의 성전 기물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27:17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여 살아라. 어찌하여 이 성읍이 폐허가 되게 하려느냐?

27:18 만일 그들이 예언자이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만군의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다.
'

27:19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대들과 이 성읍에 남아 있는 나머지 기물들을 두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7:20 이것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27:21 참으로 주님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을 두고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22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내가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끌어 올려 이곳으로 되돌려놓을 것이다.'"

28장

28:1 바로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 앗술의 아들인 예언자 하나냐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했다.

28:2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28:3 만 이 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간 주님의 성전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28:4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28:5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28:6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전 기물들과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리라고 당신이 예언한 그 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7 그러나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 보시오.

28:8 예로부터 나와 당신보다 앞서 있었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소.

28:9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의 경우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임이 인정받게 될 것이오."

28:10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어 버렸다.

28:11 하나냐가 온 백성 앞에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만 이 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

28:12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28:13 "가서 하나냐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28:14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 멍에를 씌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28:15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었소.

28: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네가 주님을 거슬러 반역을 말했으므로,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28:17 그리하여 예언자 하나냐는 바로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29장

29:1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29:2 이 편지는 여고냐 왕과 왕대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보낸 것이다.

29:3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르아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들려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29:4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29:5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아라. 밭을 가꾸어 그 소출을 먹어라.

29:6 아내를 맞아 아들과 딸을 낳고, 아들들을 장가보내며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과 딸을 낳게 하여라.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29:7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29:8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너희가 꾸게 하는 꿈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29:9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29:10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벨론을 위한 일흔 해가 다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한 좋은 말을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29:11 나는 너희를 향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생각이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다.

29:12 너희는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29:14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포로 된 처지를 되돌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바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

29:15 너희가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29:16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사로잡혀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9:1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보내어, 그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29:18 내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쫓고,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리저리 내몰리게 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모든 나라에서 놀라움과 비웃음과 치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29:19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거듭하여 보냈으나,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29:20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9:21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29:22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의 이름을 들어 저줏거리로 삼으며 '주님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에 구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이다.

29:23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내가 명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증언하는 자가 바로 나다." 주님의 말씀이다.

29:24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여라.

29:25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29:26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뒤를 이어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워 주님의 성전 관리자가 되게 하신 것은, 미쳐서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모든 사람을 차꼬에 채우고 쇠칼을 씌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29:27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29:28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포로 기간이 길어질 터이니 집을 짓고 살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29:29 스바냐 제사장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29:30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29:31 "너는 모든 포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여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29:32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아 거할 그의 자손이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을 거슬러 반역을 말했기 때문이다.""

30장

30:1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30:2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30:3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된 처지를 되돌릴 날이 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30:4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30: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에 찬 소리를 들었다.

30:6 이제 물어보고 확인해 보아라.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있으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는가?

30:7 슬프다! 그날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와 견줄 날이 없다. 그날은 야곱에게 환난의 때이지만, 그는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30:8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네 결박을 끊겠다.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30:9 도리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30:10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겠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30:11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흩어 놓았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지만,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맞게 바로잡을 것이며, 결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30: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심히 중하다.

30:13 네 상처를 싸매 주도록 네 사정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에게는 낫게 할 약도 없다.

30:14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너를 찾지도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네 죄가 많으므로, 내가 원수가 입히는 상처로 너를 치고 잔인한 자의 징계로 너를 벌했기 때문이다.

30:15 네가 어찌하여 다친 것 때문에 울부짖느냐? 네 고통은 고칠 수가 없다. 네 죄악이 크고 네 죄가 많아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

30:16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은 모두 삼켜질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를 먹잇감으로 삼는 자들은 내가 다 먹잇감으로 만들겠다.

30:17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며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다"라고 말했으나,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네 상처를 고쳐 주겠다.'

30:1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이 사로잡혀 간 처지를 되돌리고, 그의 거처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 성읍은 허물어진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질 것이며, 그 궁궐도 제자리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30:19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늘려 적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작지 않게 할 것이다.

30:20 그들의 자녀들은 예전처럼 될 것이며,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 굳건히 설 것이다.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30:21 그들의 통치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그들의 다스리는 자도 그들 중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가 내게 나아올 것이다. 스스로 담대히 나에게 나아올 자가 도대체 누구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30: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30:23 보아라, 주님의 폭풍, 곧 그분의 진노가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으니, 악인의 머리 위에 몰아칠 것이다.

30:24 주님의 맹렬한 진노는 그분이 마음먹으신 뜻을 다 이루고 실행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끝날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31장

31:1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쉬게 하려고 나아갔을 때였다."

31:3 옛적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한결 같은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31: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니 네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단장하며,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31:5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포도를 심는 자들이 심고 그 열매를 누릴 것이다.

31:6 에브라임 산등성이의 파수꾼들이 '일어나라, 시온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31: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여러 민족의 으뜸을 위하여 외쳐라. 널리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31:8 보아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31:9 그들이 울면서 올 것이요,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곧은 길로 걷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31:10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들에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31:11 주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31: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할 것이며, 주님의 좋은 선물들,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떼와 소 떼의 어린 것들을 얻으려고 몰려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물 댄 동산 같아서,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31:13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을 거두고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31:14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고, 내 백성은 나의 은혜로 만족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1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 자녀들이 더는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마다하는구나."

31: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울음소리를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네 수고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31:17 너의 장래에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자녀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31:18 "에브라임이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징계하시니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주 저의 하나님이시니,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31:19 참으로 제가 돌아선 뒤에 뉘우쳤고, 깨우침을 받은 뒤에 제 넓적다리를 쳤습니다. 제 젊은 날의 수치를 짊어졌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31: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여쁜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여전히 그를 애타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향해 깊이 흔들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21 "너는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어라. 네가 지나갔던 큰길로 마음을 기울여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이 너의 성읍들로 다시 돌아오너라.

31:22 방황하는 딸아, 네가 언제까지 이리저리 헤매겠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품는 일이다."

31:23 만군의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처지를 되돌릴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31: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주민들, 농부들과 양 떼를 이끌고 다니는 목자들도 그곳에서 함께 살 것이다.

31:25 내가 지친 사람을 배부르게 채워 주고, 슬픔에 잠긴 사람마다 영혼을 가득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31:26 이에 내가 깨어나 바라보았는데, 내 잠은 나에게 달콤했다.

31:27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31:28 내가 그들을 지켜보며 뿌리째 뽑고, 허물고, 뒤엎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지켜보며 세우고 심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29 "그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31:30 그러나 저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사람은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31:31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31:32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31:33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1:34 그들이 더 이상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31:35 낮을 비추는 빛으로 해를 주시고, 밤을 비추는 빛으로 달과 별의 법칙을 정하셨으며, 바다를 뒤흔들어 그 물결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 곧 만군의 주님이 그 이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1:36 주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도 영원히 내 앞에서 한 민족이 되기를 그칠 것이다."

31:3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저 높은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저 아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일 때문에 그들을 다 내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1:38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이 성읍이 하나넬 망대에서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 다시 세워질 것이다.

31:39 측량줄이 더 나아가 곧장 가렙 언덕으로 뻗어가서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31:40 시체와 재가 가득한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들판과, 동쪽 말 문 모퉁이에 이르는 곳이 모두 주님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은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장

32:1 유다 왕 시드기야 제십년, 곧 느부갓네살 제십팔년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32:2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궐에 있는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32:3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32:4 유다 왕 시드기야도 갈대아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마주 보고 말할 것이며, 눈과 눈을 마주 대할 것이다.

32:5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가 그를 찾아볼 때까지 그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과 싸울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소?"

32:6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2:7 '보아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물러서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 하고 말할 것이다.'

32:8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 뜰로 나에게 와서 말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 주십시오.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고 무를 권리도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을 위해 그것을 사십시오.' 그때에 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32:9 그래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에게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었다.

32:10 나는 매매 증서에 서명하고 봉인했으며, 증인들을 세우고 저울로 그에게 돈을 달아 주었다.

32:11 그리고 규정과 조건이 적혀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증서를 둘 다 가져왔다.

32:12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앞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 앞, 곧 경호대 뜰에 앉아 있던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이자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32:13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32:14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이 증서를 가져다가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토기에 넣어 두어라."

32:15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32:16 내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준 뒤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32:17 "아, 주 하나님! 주께서는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2:18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뒤를 잇는 자녀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32:19 주께서는 계략에 크시며 일에 능하시고, 주님의 눈은 사람의 자녀들의 모든 길을 지켜보시며, 각 사람에게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 주십니다.

32:20 주께서는 애굽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32:21 그리고 표징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32:22 또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2:23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했으나,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32:24 보십시오, 성읍을 함락하려고 공격용 흙 언덕들이 성읍을 향해 쌓여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이 성읍이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으며, 보시다시피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32:25 주 하나님,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졌는데도, 주께서는 저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2:26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2:27 "보아라, 나는 주님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32:28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32:29 이 성읍을 치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지르고 성읍을 태울 것인데,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내 노여움을 일으켰던 그 집들도 함께 태울 것이다.

32:30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젊었을 때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일만을 행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노여움만 일으켰다. 주님의 말씀이다.

32:31 이 성읍은 사람들이 세운 날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내 분노와 노여움을 일으켜 왔으므로, 내가 내 얼굴 앞에서 이 성읍을 없애 버리겠다.

32: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내 노여움을 사려고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이니,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

32:33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내가 일찍부터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32:34 오히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집에 가증한 것들을 들여놓아 그 집을 더럽혔다.

32:35 그들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자기 아들딸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여 몰렉에게 바쳤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며,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하였다."

32:36 "그러므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갔다고 너희가 말하는 이 성읍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2:37 '보아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큰 분개 속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렸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32:38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2:39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하나의 길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나를 경외하게 하겠으니, 그들 자신과 그들 뒤를 이을 자녀들의 복을 위한 것이다.

32: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32:41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32:4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가져왔듯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겠다.

32:43 사람이나 짐승도 없이 황폐해져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고 너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살 것이다.

32: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곳곳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 지역의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매매 증서에 서명하고 봉인하며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처지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3장

33:1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3:2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것을 짓고 굳건히 이루시는 주님, 그 이름이 주님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3:3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33:4 공격용 흙 언덕과 칼을 막아 방어하려고 헐어 버린 이 성읍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궐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33:5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와서,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곳을 가득 채우려 한다.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33:6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여 그들을 고쳐 주겠고, 그들에게 풍성한 평화와 진리를 드러내 보이겠다.

33:7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을 회복시키고, 처음처럼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

33:8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고,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과 나를 거역한 반역을 용서하겠다.

33:9 이 성읍이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나에게 기쁨의 이름이 되고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민족들은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주는 모든 복과 모든 평화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33: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해졌다'고 너희가 말하는 이곳, 곧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쓸쓸해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33:11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와 주님의 집에 감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내가 이 땅의 포로 된 처지를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3:1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해진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목자들이 양 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33:13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 지역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곳곳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 떼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양 떼가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3:14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관하여 약속했던 그 선한 말을 이룰 것이다.

33:15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33:16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성읍을 부를 이름은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다."

33:1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3:18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사르며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3:19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3:2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제때에 낮과 밤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다면,

33:21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어져 그 왕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3:22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33:23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3:24 "이 백성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버리셨는가?' 하고 말하는 것을 너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이처럼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더 이상 자기들 앞에서 한 민족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33:25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거나,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33:26 나도 야곱의 자손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 된 처지를 되돌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34장

34: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34:2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라.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다.

34:3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직접 마주 보고 말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34:4 유다 왕 시드기야여,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34:5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네 조상들 곧 너보다 앞서 있던 이전 왕들을 위해 향을 피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도 향을 피우며 '슬프다, 주군이시여!' 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4:6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34:7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아 있는 유다의 모든 성읍,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치고 있었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요새로 남아 있는 곳은 이 성읍들뿐이었기 때문이다.

34: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뒤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34:9 그 언약은 각 사람이 히브리 남종이나 히브리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유대인을 아무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34:10 언약에 참여했던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남종과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놓아주었다.

34:11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생각을 바꾸어,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과 여종들을 다시 끌고 와서 억지로 종과 여종으로 삼았다.

34:12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4: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집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했다.

34:14 "칠 년이 끝날 때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를 섬긴 동족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너에게서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34:15 그런데 너희는 최근에 돌아서서 각자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내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집에서 내 앞에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34:16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 각 사람이 제 뜻대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과 여종들을 다시 끌고 와서, 굴복시켜 다시 너희의 종과 여종으로 삼았다.'

34: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여,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지게 하겠다.

34:18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갠 부위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자들을 내가 넘겨주겠다.

34:19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던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34:20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34:21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도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 곧 너희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34:22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명령하여 그들을 이 성읍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이 성읍을 치고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겠다.'"

35장

35:1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35:2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안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방들 중 하나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여라."

35:3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니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 곧 레갑 사람들의 온 집안을 데려왔다.

35:4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고관들의 방 곁에 있고 문지기인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인도했다.

35:5 내가 레갑 집안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찬 사발들과 잔들을 차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드십시오" 하고 말했다.

35:6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35:7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가꾸거나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35:8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아들과 딸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35:9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5:10 우리는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35:11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자,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하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35:12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5:13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 훈계를 받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35: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지켜져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마시지 않고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말했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35:15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며 일찍부터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 지금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행위를 바로잡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35:16 참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조상이 명령한 계명을 지켰으나,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35:17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가져오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5:18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안에게 말했다.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으므로,

35:19 만군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장

36:1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김 제사년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셨다.

36: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에 대하여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위에 기록하여라.

36:3 내가 유다 집에 내리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36: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36: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며 말했다. "나는 매여 있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소.

36:6 그러므로 당신이 가서 금식하는 날에 주님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대고, 내 입을 통해 기록한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시오. 또한 각 성읍에서 올라온 모든 유다 사람들의 귀에도 그것을 낭독하시오.

36:7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큰 분노와 노여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오."

36:8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책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36:9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김 제오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36:10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그 책에 적힌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했는데, 곧 주님의 집 새 문 어귀 위뜰에 있는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

36:11 사반의 손자이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36:12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갔다. 보라, 거기에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36:13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알렸다.

36:14 그러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이자 셀레먀의 손자이며 느다니야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당신이 백성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다.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로 갔다.

36:15 그들이 그에게 "이제 앉아서 우리가 듣도록 그것을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하니, 바룩이 그들이 듣는 데서 낭독했다.

36:16 그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겠소."

36:17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을 기록했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36:18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분이 이 모든 말을 입으로 나에게 불러 주셨고, 나는 먹으로 책에 기록했습니다."

36:19 그러자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과 예레미야는 가서 숨으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36:20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뜰에 계신 왕에게 나아가 왕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말을 보고했다.

36:21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여후디를 보내니,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여후디는 왕이 듣는 데서, 또 왕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이 듣는 데서 그것을 낭독했다.

36:22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궁에 앉아 있었고, 왕 앞에는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

36:23 여후디가 서너 칸을 읽을 때마다 왕은 작은 칼로 그 부분을 잘라 화로의 불에 던졌다. 그렇게 두루마리 전체가 화로의 불에 타 버렸다.

36:24 왕과 이 모든 말을 들은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36: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36:26 왕은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먀에게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 주셨다.

36:27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들을 태워 버린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6: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 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그 위에 기록하여라.

36:29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곳에서 끊어 버릴 것이라고 어찌하여 거기에 기록했느냐?'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36:30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는 내버려져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겪을 것이다.

36:31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겠다. 내가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니,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36: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웠던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기록했고,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많은 말씀이 덧붙여졌다.

37장

37: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다스렸다.

37:2 그러나 그도, 그의 신하들도, 그 땅의 백성도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37:3 시드기야 왕이 셀레먀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했다.

37:4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으므로, 그는 백성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

37:5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37:6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7:7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나를 찾아와 뜻을 묻도록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들의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37:8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치고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37: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떠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들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37:10 비록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 사람의 온 군대를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는다 해도,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태울 것이다.'"

37:11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을 때,

37:12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다.

37:13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경호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먀의 아들인 이리야였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으며 "당신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려 하고 있소!" 하고 말했다.

37:14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

37:15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노하여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했는데,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37:16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 굴속 방들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다.

37:17 그 뒤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왕은 자기 왕궁에서 은밀히 그에게 "주님에게서 온 말씀이 있소?" 하고 물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또 그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37:18 또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37:19 '바벨론 왕이 왕이나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예언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7:20 그러니 내 주 왕이시여, 부디 들으시고 제 간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셔서, 제가 거기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37: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두고, 성읍에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빵 굽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덩이씩을 그에게 주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38장

38:1 맛단의 아들 스바디야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야와 셀레먀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들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38: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읍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갈대아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건져 살게 될 것이다.'

38: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읍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며, 그가 이 성읍을 차지할 것이다.'"

38:4 그러자 고관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제발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가 이런 말을 하여 이 성읍에 남아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온 백성의 손에 힘이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않고 재앙을 바라고 있습니다."

38:5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보시오, 그가 여러분의 손안에 있소. 왕이라 해도 여러분의 뜻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소."

38:6 그리하여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들은 밧줄로 예레미야를 내려보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져 들어갔다.

38:7 왕궁에 있던 구스 사람 환관 에벳멜렉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38:8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38:9 "내 주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행동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성읍에 더는 양식이 없어 그가 갇힌 곳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38:10 그러자 왕은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서른 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라."

38:11 에벳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보물 창고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헌 헝겊과 낡은 옷들을 가져다가 밧줄에 묶어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38:12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헌 헝겊과 낡은 옷을 밧줄 아래 겨드랑이에 대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다.

38:13 그리하여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그 뒤 예레미야는 감옥 뜰에 머물렀다.

38:14 그 뒤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출입구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을 것이오.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38: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내가 왕께 말씀드리면, 왕께서 정녕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조언을 해 드린다 해도 왕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38:16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의 목숨을 지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38:17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 나아가면 네 목숨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네 집안이 살 것이다.

38:18 그러나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불태울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38: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한 유대인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저들의 손에 넘겨 내가 조롱을 당하게 할까 염려되오."

38:20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왕께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잘되시고 살아남으실 것입니다.

38:21 그러나 만일 왕께서 나아가기를 거절하시면,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말씀입니다.

38:22 '보아라, 유다 왕의 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인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나갈 것이며, 그 여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의 절친한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이겼다. 너의 발이 진흙탕에 빠지자 그들은 너를 버리고 돌아섰다."

38:23 그들이 왕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어낼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힐 것이며, 왕 때문에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38:24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 대화를 알리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오.

38:25 만일 고관들이 내가 당신과 이야기한 것을 듣고 당신에게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왕이 네게 무엇이라 말했는지도 말하라'고 하거든,

38:26 당신은 그들에게 '내가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져 거기서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왕 앞에 간청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시오."

38:27 그 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캐물었으나, 그는 왕이 명령한 이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대답했다. 일이 탄로 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8:28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다.

39장

39:1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포위했다.

39:2 시드기야 제십일년 넷째 달 구일에 성벽이 뚫렸다.

39:3 그러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들어와 가운데 문에 자리를 잡았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 삼갈느보, 랍사리스 사르스김, 랍막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고관이었다.

39:4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인은 그들을 보고 밤중에 왕의 정원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 문을 통해 성읍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며, 왕은 아라바 쪽으로 나아갔다.

39:5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 하맛 땅 립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가니,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39:6 바벨론 왕은 립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바벨론 왕은 또한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다.

39:7 더욱이 그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39:8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39:9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읍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탈영자들과 그 밖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39:10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39:1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 관하여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려 이렇게 말했다.

39:12 "그를 데려다가 잘 돌보아라.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39:13 그리하여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랍사리스 느부사스반과 랍막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39:14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

39:15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39:16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룰 것이니, 그날에 그 일들이 네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9:17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9: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 줄 것이니, 네가 칼에 쓰러지지 않고 네 목숨을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0장

40:1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놓아준 뒤에, 주님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40:2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소.

40:3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셔서 행하셨소. 당신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이오.

40:4 이제 보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어 주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면 그만두시오. 보시오, 온 땅이 당신 앞에 있소. 당신이 보기에 좋고 옳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시오."

40:5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서기 전에 근위대장이 덧붙였다.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로 돌아가시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머물든지, 아니면 당신이 보기에 옳은 곳 어디로든 가시오." 그러고서 근위대장은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떠나보냈다.

40:6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살았다.

40:7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40:8 이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들인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왔다.

40:9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될 것이오.

40:10 나로 말하자면, 보시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올 갈대아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오. 그러나 여러분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담아 두고, 여러분이 차지한 성읍들에 정착하여 사시오."

40:11 모압과 암몬 자손 가운데와 에돔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 있던 모든 유대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은 자들을 남겨 두었고,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그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40:12 그러자 모든 유대인이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거두었다.

40:13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와서,

40:14 그에게 말했다.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40:15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에게 은밀히 말했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인 모든 유대인을 흩어지게 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멸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40:16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41장

41:1 일곱째 달에 왕족이자 왕의 고관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왔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41:2 그때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칼로 쳐서 죽였다.

41:3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인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인들도 죽였다.

41:4 그가 그달리야를 죽인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직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을 때였다.

41:5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여든 명의 사람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제 몸을 베어 상처를 낸 채,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곡식 제물과 유향을 손에 들고 찾아왔다.

41:6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그들을 맞으러 갔다. 그는 그들을 만나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로 가십시다"라고 말했다.

41:7 그들이 성읍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41:8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열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밭에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숨겨 둔 저장고가 있소." 그리하여 그는 멈추고, 그들을 그 형제들과 함께 죽이지 않았다.

41:9 이스마엘이 그달리야의 곁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모든 시체를 던져 넣은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었다.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구덩이를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웠다.

41:10 그 뒤 이스마엘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맡겼던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 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넘어가려고 길을 떠났다.

41:11 그러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의 모든 지휘관은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이 모든 악행을 전해 들었다.

41:12 그들은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섰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물가에서 그를 찾아냈다.

41: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모든 지휘관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41:14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사로잡아 끌고 가던 모든 백성은 돌아서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건너왔다.

41:15 그러나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빠져나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쳤다.

41:16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은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죽인 뒤 미스바에서 사로잡아 갔던 남은 백성, 곧 기브온에서 되찾아온 군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환관들을 모두 데려왔다.

41:17 그들은 길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렀다.

41:18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42장

42:1 그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다가와서,

42:2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우리의 간청을 부디 받아 주시고, 당신의 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겨우 이렇게 적은 수만 남았으니, 이 남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42:3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42:4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시든 내가 여러분에게 다 밝히 전하겠으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42: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당신을 보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셔도 좋습니다.

42:6 좋든 나쁘든, 우리가 당신을 보내어 여쭙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잘될 것입니다."

42:7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42:8 예레미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42:9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어 그분 앞에 여러분의 간청을 드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10 '너희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재앙에 대해 마음 아파하기 때문이다.

42:11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42:12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42:13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겠다" 하며,

42:14 "아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빵에 주리지도 않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한다면,

42:15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정말로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로 굳게 마음먹는다면,

42:16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뒤따라잡을 것이며, 너희가 염려하는 그 기근이 애굽에서 너희 뒤를 바짝 쫓아갈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42:17 애굽에 머물러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살아남거나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2:18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와 진노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할 것이다."

42:19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했음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42:20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42:21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 드렸으나,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2:22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살고자 바라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임을 이제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43장

43:1 예레미야가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온 백성에게 남김없이 전하기를 마치자,

43: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어 '애굽에 가서 머물러 살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소.

43:3 도리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는 것이오."

43:4 그리하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43: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의 지휘관은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여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을 데려갔다.

43:6 곧 남자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다 데려갔다.

43:7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43:8 다바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43:9 "너는 손에 큰 돌들을 쥐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 어귀에 놓인 벽돌 바닥의 회반죽 속에 그것들을 숨겨 두어라.

43:1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고, 내가 숨겨 둔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세울 것이니 그가 그 위에 자기의 왕실 장막을 펼칠 것이다.

43: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니, 죽을 자는 죽음에 넘겨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로 끌려가며 칼에 맞을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43:12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가 그 신당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을 몸에 두르듯이 그가 애굽 땅을 둘러 입고 그곳에서 무사히 떠날 것이다.

43:13 그는 또한 애굽 땅에 있는 벧세메스의 석상들을 부수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44장

44:1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44:2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아라, 오늘날 그 성읍들은 황폐해졌고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

44:3 이는 그들이 지은 악행 때문이니,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섬김으로써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44:4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어 "내가 몹시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결코 저지르지 마라" 하고 경고했다.

44:5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않았으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그치고 자신들의 악에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44:6 그러므로 내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타올랐고, 오늘날처럼 황폐하고 적막하게 되었다.'

44:7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치며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갓난아이와 젖먹이를 끊어 버려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느냐?

44:8 너희는 머물러 살러 들어간 애굽 땅에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노여움을 일으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끊어 버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 하느냐?

44:9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그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자신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악행을 너희가 잊었느냐?

44:10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겸손해지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둔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44:11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향해 재앙의 얼굴을 들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다.

44:12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붙잡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44: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했던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벌하겠다.

44:14 그리하여 애굽 땅에 머물러 살려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다 땅으로 피하거나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도망쳐 피하는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44:15 그러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인의 큰 무리,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44:16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한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소.

44:17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반드시 실천하여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신에게 전제 제물을 부어 바칠 것이오.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해 오던 대로 말이오. 그때에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했고 형편이 좋았으며 아무런 재앙도 보지 않았소.

44:18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신에게 전제 제물 붓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모든 것이 부족해졌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해 가고 있소."

44:19 여인들도 말했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신에게 전제 제물을 부어 바칠 때, 그 신의 모습을 본뜬 과자를 만들고 전제 제물을 바친 것이 우리 남편들의 허락도 없이 한 일이었겠습니까?"

44:20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이렇게 대답한 온 백성, 곧 남자들과 여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44:21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의 왕들과 고관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으며, 그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44:22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여러분이 저지른 가증한 일들을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땅이 오늘날처럼 황폐해지고 놀람과 저줏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된 것입니다.

44:23 여러분이 분향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증거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입니다."

44:24 예레미야가 온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덧붙여 말했다. "애굽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44:25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우리가 서원한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제물을 바치는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어디 너희의 서원을 굳게 세우고 너희의 서원을 지켜 보아라!'

44:26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온 유다 백성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온 애굽 땅 어디에서도 유다 사람의 입에서 "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44:27 보아라,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복이 아니라 재앙을 위한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여 마침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44:28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애굽 땅에 머물러 살러 들어간 유다의 모든 남은 자는 누구의 말이 참으로 굳게 서는지, 곧 나의 말인지 그들의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44:29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여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할 표징이 이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4:3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45장

45: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할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한 말씀이다.

45:2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45:3 '너는 "내게 화가 미쳤구나! 주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으로 지쳤고 쉴 곳을 찾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했다.'

45:4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 버릴 것이니 온 땅에 걸쳐 그러할 것이다.

45:5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해 큰일을 찾느냐? 그것들을 찾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목숨만은 건져 주겠다.'"

46장

46:1 여러 민족에 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46:2 애굽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의 유브라데강 가에서 쳐부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것이다.

46:3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고 전투를 향해 나아가라!

46:4 말에 안장을 얹고 기병들아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정렬하여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46:5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겁에 질려 물러서고 있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급히 도망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사방에 공포가 가득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46:6 발 빠른 자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북쪽 유브라데강 가에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46:7 나일강처럼 솟구쳐 오르고 물살이 거세게 출렁이는 강들처럼 일어나는 자가 누구인가?

46:8 애굽이 나일강처럼 솟구쳐 오르고 물살이 거세게 출렁이는 강들처럼 일어난다. 그가 '내가 일어나 땅을 덮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46:9 말들아 진격하라! 병거들아 미친 듯이 질주하라! 방패를 잡는 구스와 붓 사람과 활을 당겨 쏘는 루딤 사람 등 용사들아 출동하라!

46:10 그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니, 그분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날이다. 칼이 삼키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니,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북쪽 땅 유브라데강 가에서 제물을 잡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46:11 처녀 딸 애굽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구하여라. 네가 많은 약을 쓴다 해도 헛되니 네게는 나을 길이 없다.

46:12 민족들이 너의 수치를 들었고 온 땅에 너의 울부짖음이 가득 찼으니, 용사가 용사와 부딪쳐 둘 다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46:1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46:14 "애굽에 선포하고 믹돌에 알리며,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라. '일어나 준비하여라. 사방에서 칼이 삼켜 버렸다' 하고 외쳐라.

46:15 너의 용사들이 어찌하여 휩쓸려 쓰러졌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밀어붙이셨기에 그들이 버티지 못했다.

46:16 그분께서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니 사람들이 서로의 위에 쓰러졌다. 그들이 '일어나라! 잔혹한 칼날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로, 우리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했다.

46:17 그들이 거기서 외치기를 '애굽 왕 바로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며, 정해진 기회를 놓쳐 버렸다' 했다.

46:18 만군의 주님이신 왕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산들 가운데 있는 다볼처럼, 바닷가의 갈멜처럼 참으로 그가 올 것이다.

46:19 애굽에 사는 딸아, 포로로 끌려갈 짐을 꾸려라. 놉이 황폐해지고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46:20 애굽은 참으로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북쪽에서 멸망이 닥쳐왔다. 정녕 닥쳐왔다.

46:21 그 가운데 있는 용병들도 외양간의 살진 송아지 같아서 그들 또한 돌아서서 함께 달아났다. 그들이 버티지 못했으니, 재앙의 날 곧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46:22 뱀이 기어가듯 소리를 내며 달아날 것이니, 적군이 군대를 이끌고 행진하여 나무꾼처럼 도끼를 들고 애굽을 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46:23 그 숲이 울창하여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베어 버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메뚜기보다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이다.

46:24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46:25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그 신들과 왕들을 벌할 것이니, 곧 바로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46:26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겠다. 그 뒤에는 예전처럼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6:27 그러나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먼 곳에서 너를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돌아와 평온하고 안락하게 살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46:28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쫓아 보냈던 모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맞게 훈계할 것이며 결코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47장

47: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47: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물이 북쪽에서 솟구쳐 넘쳐흐르는 시내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덮칠 것이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47:3 그 준마들의 발굽이 울리는 소리와 요란한 병거 소리와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의 손이 너무 풀려서 제 자식들을 돌아보지도 못한다.

47:4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모든 조력자를 끊어 버릴 날이 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갑돌 섬의 남은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47:5 가사는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은 파멸되었다. 골짜기에 남아 있는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제 몸을 칼로 베어 상처를 내겠느냐?

47:6 '오, 주님의 칼이여, 언제까지 잠잠하지 못하겠느냐? 칼집으로 들어가 쉬며 가만히 있어라.'

47:7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칼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아스글론과 바닷가를 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다."

48장

48:1 모압에 관한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느보에 화가 미쳤으니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함락되었으며, 미스가브가 수치를 당하고 무너져 내렸다.

48:2 모압의 찬란한 영광이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칠 악한 계획을 세우며 '오라! 모압을 쳐서 더 이상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고 한다. 맛멘아, 너 또한 침묵하게 될 것이니 칼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48:3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황폐와 큰 파멸이다!

48:4 모압이 멸망당했다. 그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

48:5 사람들이 끊임없이 울면서 루힛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는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48:6 달아나라! 너희 목숨을 건져라!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48:7 네가 네 행위와 보물들을 의지했으므로 너 또한 사로잡힐 것이다. 그모스 신은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48:8 파멸시키는 자가 모든 성읍에 닥칠 것이니 아무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도 망하고 평원도 파멸될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8:9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 주어 날아서 달아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48:10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제 칼을 멈추어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48:11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안락하게 살았고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술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었으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기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

48:12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에게 쏟아 내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그를 쏟아 내고, 그의 그릇들을 비우며 용기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48:13 이스라엘 집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벧엘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48:14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요 전쟁에 나갈 강한 전사다'라고 말하느냐?

48:15 모압이 파멸되었고 적들이 그 성읍들로 올라갔으며, 그의 빼어난 젊은이들이 학살당하러 내려갔다. 만군의 주님이신 왕께서 말씀하신다.

48:16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 왔고 그의 고난이 맹렬히 닥쳐온다.

48:17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슬퍼하여라.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자들아, '어쩌다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하고 말하여라.

48:18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목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 네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48:19 아로엘의 주민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도망치는 남자와 빠져나가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아라.

48:20 모압이 수치를 당했으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슬피 울며 부르짖어라! 아르논 강가에서 모압이 황폐해졌다고 선포하여라.

48:21 평원 땅에 심판이 임했으니 홀론과 야하스와 메바앗에 임했고,

48:22 디본과 느보와 벧디블라다임에 임했으며,

48:23 기랴다임과 벧가물과 벧므온에 임했고,

48:24 그리욧과 보스라와 멀고 가까운 모압 땅의 모든 성읍에 임했다.

48:25 모압의 뿔이 잘려 나갔고 그의 팔이 부러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48:26 그를 취하게 하여라. 그가 주님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 속에서 뒹굴 것이며 그 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48:27 이스라엘이 너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더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발각되기라도 했더냐? 너는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지 않았더냐?

48:28 모압의 주민들아,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 살아라. 깊은 구덩이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48: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그가 몹시 교만하다. 그의 오만과 자만과 거만과 마음의 오만함을 들었다.

48:30 그의 분노가 헛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의 자랑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48: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온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겠다. 사람들이 길하레셋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 것이다.

48:32 야셀의 울음보다 더 크게 내가 너를 위해 울겠다, 시브마의 포도나무야. 너의 넝쿨이 바다를 건너 야셀의 바다에까지 이르렀으나,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 위에 덮쳤다.

48:33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하였으니 아무도 흥겹게 외치며 포도를 밟지 않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아닐 것이다.

48:34 헤스본의 부르짖음이 엘르알레를 지나 야핫에까지 이르고, 소알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랏 슬리시야에 이르기까지 소리쳐 울부짖으니, 니므림의 물마저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48:35 더욱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자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모압에서 끊어 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48:36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처럼 애태우고, 내 마음이 길하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처럼 애태운다. 그가 모았던 풍부한 재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48:37 모든 머리는 깎여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수염은 잘려 나갔다. 모든 손에는 상처가 있고 허리에는 굵은 베를 둘렀다.

48: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와 거리마다 온통 애곡하는 소리뿐이니, 내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질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8:39 '어찌하여 모압이 부서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통곡하는가! 모압이 어찌하여 수치스럽게 등을 돌렸는가!' 그리하여 모압은 자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48:4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모압을 향해 날개를 펼칠 것이다.

48:41 그리욧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되었다. 그날에 모압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48:42 모압은 주님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였으므로 멸망하여 더 이상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48:43 모압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덫이 너에게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48:44 공포를 피해 달아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기어 나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에 벌의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48:45 도망친 자들이 힘이 빠져 헤스본 그늘 아래 서 있구나.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혼 한가운데서 나와 모압의 관자놀이와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48:46 모압아, 네게 화가 미쳤구나! 그모스의 백성이 망했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네 딸들이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48:47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모압의 포로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여기까지이다.

49장

49:1 암몬 자손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말감이 갓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49:2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암몬 자손의 랍바를 거슬러 전쟁의 경보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랍바는 황폐한 언덕더미가 되고, 그 딸린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쫓아내고 차지했던 자들의 땅을 도로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9:3 "헤스본아, 통곡하여라! 아이가 짓밟혔기 때문이다. 랍바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애곡하며 울타리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라. 말감이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49:4 변절한 딸아, 네가 어찌하여 골짜기들, 곧 네 기름진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자신의 보물을 신뢰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오겠는가?' 하고 말하는구나.

49:5 보라, 내가 네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서 공포를 네게 몰아오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저마다 앞만 보고 내쫓길 것이며, 도망치는 자들을 모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49:6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49:7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슬기로운 자들에게서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렸느냐?

49:8 달아나라! 뒤돌아서라! 깊은 곳에 숨어 살아라, 드단 주민들아. 내가 에서를 벌할 때에 그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49:9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른다면 남은 포도를 얼마쯤 남겨 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온다면 만족할 만큼만 훔쳐 가지 않겠느냐?

49:10 그러나 나는 에서를 발가벗겨 그 은밀한 곳들을 드러냈으니, 그가 스스로 숨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후손은 멸망하였고, 그의 형제들과 이웃들도 함께 망하여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49:11 네 고아들을 남겨 두어라. 내가 그들을 살려 둘 것이다. 네 과부들도 나를 신뢰하게 하여라."

49: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그 잔을 마실 까닭이 없는 자들도 반드시 마시는데, 네가 전혀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겠느냐? 너는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셔야 할 것이다.

49:13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스라가 놀람과 조롱과 폐허와 저줏거리가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49:14 내가 주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특사가 민족들에게 보내져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그 도시를 치러 오너라! 일어나 싸우러 나아가라!"

49:15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다.

49:16 네가 일으킨 공포에 관해 말하자면, 바위틈에 살며 언덕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자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둥지를 높이 짓는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49:17 "에돔은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며,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49:1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자식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49:19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울창한 숲에서 솟아나 견고한 거처를 덮치듯이, 내가 순식간에 에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가 누구이든 내가 그를 그 땅 위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를 법정으로 소환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맞설 목자가 누구냐?"

49:20 그러므로 에돔을 거슬러 세우신 주님의 계획과, 데만 주민들을 거슬러 품으신 그분의 뜻을 들어라. 정녕 원수들이 그 양 떼의 어린것들을 끌고 갈 것이며, 정녕 그들의 거처를 그들로 인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49:21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까지 들린다.

49:22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보스라를 향해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49:23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나쁜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낙담하였다. 바다에 근심이 있어 고요할 수가 없다.

49:24 다메섹이 힘을 잃고 돌아서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과 슬픔이 그를 엄습하였다.

49:25 어찌하여 찬양받던 성읍, 내 기쁨이었던 성읍이 버림받지 않고 남아 있겠느냐?

49:26 그러므로 그날에 그녀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모든 전사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49:27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49:2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부순 게달과 하솔의 여러 나라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사람들을 파멸시켜라.

49:29 사람들이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고, 천막과 온갖 세간과 낙타들을 차지하여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49:30 달아나라! 멀리 헤매어라! 깊은 곳에 숨어 살아라, 하솔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모략을 세웠고 너희를 칠 계획을 품었기 때문이다.

49:31 일어나라! 평안히 살며 걱정 없이 지내는 민족에게로 올라가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에게는 성문도 빗장도 없고 홀로 살고 있다.

49:32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그 많은 가축은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수염 가장자리를 깎는 자들을 사방 바람에 흩어 버리고, 그 사방에서 재앙을 몰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49:33 "하솔은 자칼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해질 것이니,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자식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49:34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에 엘람에 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49:35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 힘의 으뜸가는 무기를 꺾어 버리겠다.

49:36 내가 하늘의 네 끝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와 그들을 이 모든 바람 쪽으로 흩어 버리겠다.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않을 민족이 없을 것이다.

49:37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 원수들 앞과 그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멸절할 때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49:38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지도자들을 그곳에서 멸망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49:39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50장

50:1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관하여 선포하신 말씀이다.

50:2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고 널리 알려라. 깃발을 세우고 알리며 숨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벨이 수치를 당했으며, 므로닥이 산산이 부서졌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우상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50:3 북쪽에서 한 민족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짐승도 다 달아나 사라져 버렸다.

50:4 "그날과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은 울며 길을 가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이다.

50:5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잊히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하자' 할 것이다.

50: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였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이끌어 산으로 방황하게 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으로 떠돌며 자기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50:7 그들을 발견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삼켜 버렸다. 원수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의로운 안식처이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주님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였다.

50:8 너희는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쳐 나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빠져나와 양 떼 앞서 달리는 숫염소처럼 되어라.

50:9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게 하겠다. 그들이 바벨론을 마주하여 전열을 갖추면, 바벨론은 거기서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50:10 갈대아는 약탈거리가 되고, 그 땅을 약탈하는 자는 누구나 만족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0:11 "내 소유를 약탈하는 자들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곡식 떠는 암송아지처럼 날뛰고 힘센 말처럼 울부짖었으니,

50:12 너희 어머니가 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를 낳은 여인이 부끄러움을 겪을 것이다. 보라, 바벨론은 민족들 가운데 꼴찌가 되어 거친 들과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다.

50:13 주님의 진노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고 온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바벨론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깜짝 놀라며,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50:14 바벨론을 둘러싸고 사방에서 전열을 갖추어라,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아! 바벨론을 향해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마라. 그녀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50:15 바벨론을 향해 사방에서 함성을 질러라! 그녀가 항복하였다. 그 요새들이 무너졌고 성벽들이 허물어졌다. 이는 주님의 보복이니, 그녀에게 복수하여라.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어라.

50:16 씨 뿌리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쥐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고향 땅으로 달아날 것이다.

50:17 이스라엘은 쫓기는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쫓아냈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그를 삼켰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어 버렸다."

50:18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앗수르 왕을 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할 것이다.

50:19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는 갈멜과 바산에서 먹이를 먹고, 에브라임 언덕들과 길르앗에서 그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50:20 그날들과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보아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를 찾아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겨 둔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50:21 너는 므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라, 바로 그 땅과 브곳 주민들을 치러 올라가라. 그들을 뒤쫓아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라.

50:22 그 땅에 전투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50:23 온 세상의 쇠망치가 어찌 이리도 꺾이고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이토록 황폐한 폐허가 되었는가!

50:24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더니, 네가 알지도 못한 채 걸려들었구나. 네가 발견되어 붙잡혔으니, 이는 네가 주님을 거슬러 싸웠기 때문이다.

50:25 주님께서 그분의 무기고를 여시고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셨으니,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50:26 먼 국경에서부터 그녀를 치러 오너라. 그 곡식 창고들을 열어젖혀라. 그녀를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아무것도 남겨 두지 마라.

50:27 그곳의 황소들을 모두 죽여라.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들의 날, 곧 벌을 받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50:28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고 빠져나온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그들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향한 복수를 선포한다.

50:29 바벨론을 칠 궁수들, 곧 활을 당기는 모든 자를 불러 모아라. 그녀를 둘러싸고 진을 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녀가 저지른 일에 따라 갚아 주고, 그녀가 행한 모든 일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어라. 그녀가 주님을 거슬러,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오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50:30 그러므로 그날에 그녀의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모든 전사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0:31 "오만한 자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50:32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 넘어지겠으나 그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 버릴 것이다."

50:33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굳게 붙잡고 놓아주기를 거부한다.

50:34 그러나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그들의 송사를 확실하게 변호하셔서, 이 땅에는 안식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을 안겨 주실 것이다.

50:35 갈대아 사람 위에 칼이 떨어진다." 주님의 말씀이다. "바벨론 주민과 그 지도자들과 지혜자들 위에 칼이 떨어진다.

50:36 자랑하는 자들 위에 칼이 떨어져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녀의 용사들 위에 칼이 떨어져 그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50:37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 한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백성 위에 칼이 떨어져 그들이 여인처럼 약해질 것이다. 그녀의 보물들 위에 칼이 떨어져 모두 약탈당할 것이다.

50:38 그 물들 위에 가뭄이 임하여 그것들이 바짝 마를 것이다. 그 땅은 새긴 우상들의 땅이며, 그들은 끔찍한 우상에 미쳐 있기 때문이다.

50: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늑대들과 함께 거기에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고 대대로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50:40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으셨을 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거기 살지 못하며 사람의 아들이 그곳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50:41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 오고 있다. 큰 민족과 많은 왕이 땅끝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50:42 그들은 활과 창을 쥐고 있다. 그들은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한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저마다 싸우러 나서는 전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너를 치러 온다.

50:43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손에 힘이 빠졌으며,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50:44 보라, 원수가 요단강의 울창한 숲에서 사자처럼 솟아나 견고한 거처를 덮치듯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가 누구이든 내가 그를 그곳 위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를 법정으로 불러낼 자가 누구냐? 내 앞에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50:45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을 거슬러 품으신 뜻을 들어라. 정녕 원수들이 양 떼의 어린것들을 끌고 갈 것이며, 정녕 그들의 거처를 그들로 인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50:46 바벨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 민족 사이에 들려온다.

51장

5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바벨론을 거스르고 렙가매 주민들을 거슬러 파멸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51:2 내가 키질하는 이방인들을 바벨론에 보내어 그녀를 키질하게 하고 그 땅을 텅 비우게 하겠다.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벨론을 에워싸고 칠 것이기 때문이다.

51:3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서는 자를 향하여 궁수는 활을 당겨라.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아끼지 마라! 그녀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라!

51:4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고, 그 거리에서 칼에 찔려 쓰러질 것이다.

51:5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한 죄과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께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51:6 너희는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쳐 각자 자기 목숨을 건져라! 그녀의 죄악 때문에 함께 끊어지지 마라. 지금은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이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51:7 바벨론은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으니,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뭇 민족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고, 그 때문에 민족들이 미쳐 버렸다.

51:8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망하였다! 그녀를 위해 통곡하여라! 그녀의 상처를 위해 유향을 가져오너라.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51:9 "우리가 바벨론을 고쳐 주려 하였으나 낫지 않았으니, 그녀를 버려두고 우리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녀가 받을 심판이 하늘에 닿았고 저 구름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51:10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51:11 화살들을 날카롭게 갈아라! 방패들을 굳게 쥐어라! 주님께서 메대 왕들의 영을 깨우치셨으니,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복수, 곧 그분의 성전을 향한 복수이다.

51:12 바벨론 성벽을 향해 깃발을 높이 세워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배치하며 복병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바벨론 주민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51:13 많은 물가에 살며 풍부한 보물을 가진 자야, 네 종말이 이르렀고 네 탐욕의 한계가 다 찼다.

51:14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군대로 너를 가득 채울 것이니, 그들이 너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51:15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51:16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들이 포효하고, 땅끝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게 하신다.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그곳간간에서 바람을 이끌어 내신다.

51:17 사람마다 어리석고 지식이 없으며 금세공업자는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수치를 당하니,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51:18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인 작품이니, 벌을 받을 때에 망할 것이다.

51:19 야곱의 분깃이신 분은 이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지파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51:20 '너는 나의 철퇴요 전쟁 무기이다. 내가 너로 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너로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51:21 내가 너로 말과 그 탄 자를 부수고, 너로 병거와 그 탄 자를 부수겠다.

51:22 내가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로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겠다.

51:23 내가 너로 목자와 그 양 떼를 부수고, 너로 농부와 그 멍에 멘 소를 부수며, 너로 총독들과 지휘관들을 부수겠다.

51:24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이 시온에서 행한 온갖 악행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 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51:25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네 위에 내 손을 뻗어 너를 바위에서 굴려 떨어뜨리고, 불타 버린 산이 되게 하겠다.

51:26 사람들이 네게서 모퉁잇돌 하나도, 기초를 놓을 돌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1:27 '그 땅에 깃발을 세워라! 여러 민족 가운데 나팔을 불어라! 민족들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왕국들을 불러 모아 그녀를 치게 하라! 사령관을 세워 그녀를 치게 하고, 몰려드는 메뚜기 떼처럼 군마들을 몰아오게 하라!

51:28 민족들과 메대 왕들과 그 총독들과 모든 지휘관과 그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녀를 치게 하라!

51:29 땅이 진동하며 고통스러워하니, 이는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확고히 서서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51:30 바벨론의 용사들은 싸움을 멈추고 요새 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힘이 빠져 여인처럼 되었고, 그 거처들은 불에 탔으며 빗장들은 부러졌다.

51:31 달리는 전령이 또 다른 전령을 맞으러 달리고, 사자가 또 다른 사자를 맞으러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그의 성읍이 사방에서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51:32 나루터들은 빼앗겼고 갈대밭은 불에 탔으며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다.'

51:3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딸 바벨론은 밟힐 때의 타작마당과 같다. 조금만 있으면 그녀를 위한 추수 때가 이를 것이다.'

51:3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짓밟아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내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뒤 나를 쫓아냈습니다.

51:35 나와 내 살점에 행해진 폭력이 바벨론에 임하기를!' 하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며,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를!' 하고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다.

51:3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변호하고 너를 위해 복수하겠다. 내가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 샘을 마르게 하겠다.

51:37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51:38 그들이 다 함께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51:39 그들의 열기가 솟아오를 때에 내가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여 흥겨워하다가, 영원한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51:40 '내가 그들을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양처럼, 숫양과 숫염소처럼 끌어내리겠다.

51:41 어찌하여 세삭이 함락되었는가! 어찌하여 온 세상의 칭송을 받던 성읍이 정복당했는가! 어찌하여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 폐허가 되었는가!

51:42 바다가 바벨론 위로 밀려왔고, 그 수많은 파도가 바벨론을 뒤덮었다.

51:43 그 성읍들은 황폐한 땅과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되었으니, 아무도 살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지나가지 않는 땅이 되었다.

51:44 내가 바벨론에 있는 벨을 심판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토해 내게 하겠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들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의 성벽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51:45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 한가운데서 빠져나와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저마다 제 목숨을 건져라.

51:46 너희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마라. 그 땅에 들려올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한 해에는 이 소문이 돌고, 이듬해에는 저 소문이 돌며, 그 땅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통치자가 통치자를 맞서 싸울 것이다.

51:47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 한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51:48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바벨론을 두고 기뻐 노래할 것이다. 파괴하는 자들이 북쪽에서 그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1:49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죽임당한 자들을 쓰러뜨렸듯이, 온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쓰러질 것이다.

51:50 칼을 피한 너희여, 떠나라! 멈추어 서지 마라! 먼 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51:51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를 당하였으며, 이방인들이 주님의 성전 성소들에 들어왔으므로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을 덮었습니다.'

51:52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심판할 것이며, 온 땅에서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51:53 비록 바벨론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가 요새를 높이 쌓아 견고하게 할지라도, 내가 파멸시킬 자들을 그녀에게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51:54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려온다!

51:55 주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 큰 목소리를 그곳에서 끊어 버리시기 때문이다. 원수들의 파도가 큰 물처럼 포효하고, 그 목소리의 소음이 울려 퍼진다.

51:56 파멸시키는 자가 그녀에게, 곧 바벨론에 닥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으니,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51:57 내가 그녀의 고관들과 지혜자들과 총독들과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영원한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신 왕의 말씀이다.

51:58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그녀의 높은 성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민족들의 노고는 불타 버릴 것이니 그들이 지쳐 쓰러질 것이다.'

51:59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사년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아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스라야는 병참총책이었다.

51:60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관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였다.

51: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벨론에 이르거든, 잊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51:62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1:63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돌을 하나 매달아 유브라데강 한가운데로 던지십시오.

51:64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 때문에 바벨론은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지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52장

52:1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스물한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며 립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52:2 그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52:3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였다.

52:4 시드기야의 통치 제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으며,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았다.

52:5 그리하여 그 성읍은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52:6 그해 넷째 달 구일에 성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먹을 빵이 전혀 없었다.

52:7 마침내 성벽이 뚫리자, 갈대아 사람이 성읍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모든 군사가 밤을 틈타 왕의 정원 곁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와 달아났다. 그들은 아라바 길을 향해 갔다.

52:8 그러나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았고, 왕의 군대는 모두 흩어져 그를 떠나 버렸다.

52:9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립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니,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52:10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고, 립라에서 유다의 모든 지도자도 죽였다.

52:11 그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52: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구년 다섯째 달 십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52:13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곧 모든 큰 집을 불태웠다.

52:14 시위대장과 함께 온 갈대아 사람의 온 군대는 예루살렘 둘레의 모든 성벽을 헐어 버렸다.

52:15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일부와 성안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변절자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52:16 그러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 얼마를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52:17 갈대아 사람은 주님의 성전에 있던 놋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성전의 놋바다를 산산조각 내어 그 모든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52:18 그들은 또한 솥과 부삽과 부집게와 대야와 숟가락과 성전 섬김에 쓰이던 모든 놋기구를 가져갔다.

52:19 시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숟가락과 대접 등 금으로 만든 것은 순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은 순은으로 모두 가져갔다.

52:20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받침대 아래 있던 열두 놋황소가 있었는데, 이 모든 기물의 놋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다.

52:21 그 기둥들로 말하면, 한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었고 둘레는 십이 규빗 줄로 잴 수 있었으며, 두께는 손가락 네 개 굵기였고 속은 비어 있었다.

52:22 기둥 위에는 놋으로 된 기둥머리가 있었는데 그 높이는 오 규빗이었고, 기둥머리 둘레에는 그물망과 석류들이 있었으며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기둥도 석류가 달린 채 이와 꼭 같았다.

52:23 측면에 달린 석류가 아흔여섯 개였고, 그물망 둘레에 달린 석류는 모두 백 개였다.

52:24 시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52:25 그는 또 성안에서 군사를 지휘하던 장교 한 사람과 성안에서 발견된 왕의 시종 일곱 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 사령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안에서 발견된 그 땅 백성 육십 명을 잡아들였다.

52:26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립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52:27 바벨론 왕은 하맛 땅 립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처럼 유다는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다.

52:28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제칠년에 사로잡혀 간 유대인이 삼천이십삼 명이었다.

52:29 느부갓네살 제십팔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사람은 팔백삼십이 명이었다.

52:30 느부갓네살 제이십삼년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대인은 칠백사십오 명이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사천육백 명이었다.

52:31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년째 되던 해, 열두째 달 이십오일에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 원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그를 감옥에서 석방해 주었다.

52:32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자리를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다.

52:33 그는 여호야긴의 죄수복을 갈아입게 했다. 여호야긴은 평생 날마다 그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52:34 여호야긴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몫은 바벨론 왕이 계속 내주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 날마다 정해진 몫을 받았다.

예레미야애가

1장

1:1 사람들로 가득했던 성읍이 어찌 이렇게 홀로 앉아 있는가! 민족들 가운데 위대했던 그 성읍이 과부처럼 되었다. 여러 지방 가운데 공주였던 그곳이 노예가 되었다!

1:2 그녀는 밤에 서럽게 울고, 뺨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그녀의 모든 연인 가운데 위로해 줄 이는 아무도 없다.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다.

1:3 유다는 고난과 혹독한 종살이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살며 쉴 곳을 찾지 못한다. 뒤쫓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 빠진 유다를 따라잡았다.

1:4 엄숙한 모임에 오는 사람이 없어 시온으로 가는 길들이 슬퍼한다. 그곳의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한다. 처녀들은 고통받고, 시온 자신도 쓰라림에 잠겨 있다.

1:5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하니, 이는 그녀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은 대적에게 끌려 포로가 되었다.

1:6 시온의 딸에게서 모든 위엄이 떠나갔다. 지도자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1:7 예루살렘은 고난과 방황의 날들에 옛 시절부터 누리던 온갖 보물을 기억한다.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돕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때,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 파멸을 비웃었다.

1:8 예루살렘이 큰 죄를 지어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녀를 존경하던 모든 자들이 그 벗은 몸을 보았기에 업신여긴다. 참으로 그녀는 탄식하며 얼굴을 돌린다.

1:9 그녀의 치마폭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으나,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놀라울 정도로 몰락했으나 위로해 줄 이가 없다. "주님, 제 고난을 보아 주십시오. 원수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1:10 대적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이 그녀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이다.

1:11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먹을 빵을 찾는다. 목숨을 건지려고 아끼던 보물들을 음식과 바꾸었다. "주님, 굽어보아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1:12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신 날에 내게 내리셔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슬픔이 어디 있는지 보고 살펴보십시오.

1:13 "높은 곳에서 그분께서 내 뼈 속으로 불을 보내시어 뼈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내 발에 그물을 치셨고 나를 뒤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나를 처참하게 만드시어 온종일 기진맥진하게 하셨습니다.

1:14 "내 죄악의 멍에가 그분의 손으로 묶여 얽혀 있고, 내 목에 얹혀 내 힘을 꺾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나를 넘겨주셨습니다.

1:15 "주께서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를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내 젊은이들을 짓밟으시려고 성회를 소집하여 나를 치셨습니다. 주께서 유다의 처녀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짓밟으셨습니다.

1:16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줄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1:17 시온이 두 손을 펴지만 위로해 줄 이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야곱을 두고 명령하시어 주위 사람들이 그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더러운 물건처럼 되었다.

1:18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여, 부디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십시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19 "내가 사랑하던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먹을거리를 찾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20 "주님, 보아 주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속이 뒤집힙니다. 내가 몹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자식을 빼앗아 가고, 집 안은 죽음과 같습니다.

1:21 "사람들은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원수는 내가 겪는 재난을 듣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면, 그들도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1:22 "그들의 모든 악행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 때문에 내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2장

2:1 주께서 진노하시어 어찌 이리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고, 진노하신 날에 자신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2: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정없이 삼키셨다. 분노하시어 유다 딸의 요새들을 허무시고 땅바닥에 내던지셨으며, 그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2:3 그분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다.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셨고, 사방을 삼키는 타오르는 불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2:4 원수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보기 좋던 자들을 다 죽이셨다. 시온 딸의 장막에 자신의 진노를 불처럼 쏟아부으셨다.

2:5 주께서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 모든 궁궐을 삼키시고 요새들을 무너뜨리시어, 유다의 딸에게 애통과 곡성을 더하셨다.

2:6 마치 동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장막을 거칠게 헐어 버리셨고, 모이는 처소를 파괴하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고, 맹렬한 분노 가운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2:7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내버리셨고 성소를 몹시 싫어하셨다. 궁궐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니, 원수들이 절기 날처럼 주님의 집에서 요란하게 떠들었다.

2:8 주님께서 시온 딸의 성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시고 줄자를 늘이셨다. 파멸시키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으시어, 성곽과 성벽이 함께 통곡하며 쇠잔하게 하셨다.

2:9 성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분께서 빗장들을 부수어 깨뜨리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흩어졌고, 예언자들도 주님에게서 아무런 묵시를 얻지 못한다.

2:10 시온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킨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을 향해 고개를 떨구었다.

2:11 내 백성의 딸이 파멸하여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눈물이 흘러 눈이 짓무르고 애간장이 끓으며 내 쓸개가 땅에 쏟아졌다.

2:12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부상자처럼 기절하며 어머니의 품에서 목숨이 꺼져 갈 때, 어머니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다.

2:13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증언하겠느냐? 너를 무엇에 빗대겠느냐? 처녀 시온의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려고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2:14 네 예언자들은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을 보았다. 그들은 네 죄악을 드러내어 네 포로 된 처지를 되돌려 놓지 않고, 도리어 너를 위해 거짓된 계시와 추방당할 구실만을 보았다.

2:15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너를 보고 손뼉을 치며, 예루살렘의 딸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사람들이 온전한 아름다움이자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성읍이 바로 이 성읍인가?"

2:16 네 모든 원수가 너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휘파람을 불며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그 성읍을 삼켜 버렸다. 참으로 이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마침내 찾아내었고 보았구나."

2:17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행하셨다. 옛 시절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사정없이 무너뜨리셨다. 원수가 너를 보며 즐거워하게 하셨고, 네 대적들의 뿔을 높이 드셨다.

2:18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었다. 시온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너 자신을 쉬게 하지 말고, 네 눈을 쉬게 하지 마라.

2:19 일어나 밤에, 야경이 시작될 때 부르짖어라! 주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온갖 길모퉁이에서 굶주려 기절하는 어린 자녀들의 목숨을 위하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어라.

2:20 "주님, 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처럼 행하셨는지 굽어보아 주십시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 품에 안아 기른 아이들을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2:21 "젊은이와 노인이 길거리 맨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신 날에 그들을 죽이셨고, 사정없이 도륙하셨습니다.

2:22 "절기 날에 사람을 부르시듯, 주님께서는 사방에서 내게 공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보살피고 길러 낸 이들을 내 원수가 다 삼켜 버렸습니다."

3장

3:1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3:2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걷게 하셨다.

3:3 참으로 그분께서는 온종일 손을 돌려 거듭거듭 나를 치신다.

3:4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꺾으셨다.

3:5 나를 공격하여 진을 치시고 쓰라림과 고난으로 나를 에워싸셨다.

3:6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살게 하셨다.

3:7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에 담을 쌓으셨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3:8 참으로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지만, 그분께서는 내 기도를 가로막으신다.

3:9 다듬은 돌로 내 길을 가로막으셨고, 내 길들을 굽어지게 하셨다.

3:10 그분은 내게 엎드려 기다리는 곰 같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사자 같으시다.

3:11 내 길을 벗어나게 하시어 나를 갈기갈기 찢으셨고, 나를 버려두어 황폐하게 하셨다.

3:12 그분께서 활을 당기시고 나를 과녁으로 삼으셨다.

3:13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깊은 곳을 꿰뚫으셨다.

3: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온종일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

3:15 그분께서 나를 쓰디쓴 것으로 가득 채우셨고, 쓴 쑥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3:16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셨고, 나를 재로 덮으셨다.

3:17 주께서 내 영혼을 평안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번영을 잊어버렸습니다.

3:18 내가 말하기를 "내 힘도 사라졌고, 주님께 품었던 내 희망도 사라졌다" 하였다.

3:19 제 고난과 괴로움, 쑥과 쓰라림을 기억해 주십시오.

3:20 내 영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여 내 속에서 낙심합니다.

3:21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되새기므로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3:22 우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가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3:23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3:24 "주님은 나의 몫이시다" 하고 내 영혼이 말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희망을 두겠다."

3:25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선하시다.

3:26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3:27 사람이 젊은 시절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3:28 그분께서 멍에를 지우셨으니, 홀로 앉아 침묵을 지켜라.

3:29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입을 흙먼지에 대어라.

3: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어 주고, 치욕으로 가득 채워져라.

3:31 주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3:32 그분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3:33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기를 본심으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3:34 땅의 모든 죄수를 발로 짓밟는 것이나,

3:35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3:36 재판에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옳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3:37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말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3:38 재앙과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3:39 살아 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는가?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으면서 어찌 불평하겠는가?

3:40 우리의 행실을 살펴 조사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3:41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함께 마음을 높이 들자.

3:42 "우리가 죄를 짓고 거역하였으나, 주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3:43 "주께서 진노로 우리를 덮으시고 뒤쫓으셨으며, 죽이시고 사정없이 도륙하셨습니다.

3:44 어떤 기도도 뚫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3:45 주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셨습니다.

3:46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3:47 공포와 함정, 황폐와 파멸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3:48 내 백성의 딸이 파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린다.

3:49 내 눈이 쉼 없이 쏟아부으며 그치지 않으니,

3:50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피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3:51 내 성읍의 모든 딸을 보며 내 눈의 눈물이 내 영혼을 아프게 한다.

3:52 까닭 없이 내 원수가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끈질기게 뒤쫓았다.

3:53 그들이 깊은 구덩이에 내 목숨을 던져 넣고 내 위에 돌을 던졌다.

3:54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쳐흘러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끝장났다" 하였다.

3:55 주님, 내가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56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3:57 내가 주님을 부른 날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58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의 송사를 변호하셨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3:59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당한 억울함을 보셨으니, 내 송사를 판결해 주십시오.

3:60 그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해치려는 모든 음모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3:61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방과 나를 해치려는 모든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3:62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의 입술과 온종일 나를 해치려는 그들의 계략을 들으셨습니다.

3:63 그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3:64 주님,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3:65 주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에게 내리실 주님의 저주입니다.

3:66 주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시어,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4장

4:1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온갖 길모퉁이에 쏟아져 버렸구나.

4:2 순금에 비길 만큼 고귀했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옹기 항아리처럼 여겨지는가!

4:3 자칼도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건만,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해졌다.

4:4 젖먹이의 혀가 목말라 입천장에 달라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보채나 떼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4:5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자들이 길거리에서 버림받았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쓰레기 더미를 끌어안는다.

4:6 내 백성의 딸의 죄악이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소돔은 사람의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

4:7 그녀의 귀족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었으며, 그 몸은 루비보다 붉고 그 다듬어진 모습은 청옥 같았다.

4:8 이제 그들의 모습은 숯보다 검어져 거리에서 알아보는 이가 없다. 살갗은 뼈에 달라붙어 바짝 말라 막대기처럼 되었다.

4:9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밭의 소출이 없어 찔림을 받듯 쇠약해져 죽어가기 때문이다.

4:10 자애로운 여인들의 손이 제 자식들을 삶았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것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

4:11 주님께서 진노를 다 쏟으시고 맹렬한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시어 그 기초까지 삼키셨다.

4: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쳐들어올 줄은 세상의 왕들도,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믿지 않았다.

4:13 이는 그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4:14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며 피로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그들의 옷깃을 만질 수 없었다.

4:15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켜라, 부정하다! 비켜라, 비켜라, 손대지 마라!" 하고 외쳤다. 그들이 도망쳐 떠돌아다니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들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하고 말했다.

4:16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흩으셨으니, 다시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대적들은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았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4:17 우리를 도울 손길을 헛되이 바라보다가 우리의 눈이 다 쇠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애타게 바라보았다.

4:18 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뒤쫓으니 우리가 우리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이 다 찼으니,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4:19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랐다. 산 위까지 우리를 추격하였고 광야에서 우리를 치려고 매복하였다.

4:20 우리의 콧김이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살겠다" 하고 말하던 자였다.

4:21 우스 땅에 사는 에돔의 딸아, 기뻐하며 즐거워해 보아라. 그 잔이 너에게도 넘어갈 것이니, 너도 취하여 벌거벗게 될 것이다.

4:22 시온의 딸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 끝났다. 주께서 너를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에돔의 딸아, 그분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고 네 죄들을 들추어내실 것이다.

5장

5:1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굽어살피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보아 주십시오.

5:2 우리의 유산이 낯선 이들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5:3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처럼 되었습니다.

5:4 우리는 돈을 주고서야 마실 물을 마시고, 값을 치르고서야 땔나무를 얻습니다.

5:5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짓누르니, 우리가 지쳐 쉴 틈이 없습니다.

5:6 우리가 빵을 배불리 얻으려고 애굽 사람들과 앗수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5:7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짓고 이제는 사라졌으나, 우리가 그들의 죗값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5:8 종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9 광야의 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빵을 얻습니다.

5:10 굶주림의 지독한 열기 때문에 우리의 살갗이 가마솥처럼 검게 탔습니다.

5:11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짓밟고,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5:12 지도자들이 손으로 매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5:13 젊은이들이 맷돌을 메고, 아이들은 땔나무 짐 밑에서 비틀거렸습니다.

5:14 장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앉지 않고, 젊은이들은 음악을 멈추었습니다.

5:15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5:16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5:17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5:18 황폐해진 시온 산 때문에 그러하니, 여우들이 그 위를 뛰어다닙니다.

5:19 주님,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의 왕좌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5:20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어찌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5:21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해 주십시오.

5:22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고,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장

1:1 서른째 해 넷째 달 다섯째 날, 나는 그발강 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이 보였다.

1:2 그달 다섯째 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다섯째 해였다.

1:3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거기서 주님의 손이 그 위에 내렸다.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왔다. 큰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그 둘레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 불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금속 같은 것이 있었다.

1:5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1:6 그들에게는 각기 얼굴이 넷씩 있었고, 날개도 각기 넷씩 있었다.

1:7 그들의 다리는 곧게 뻗어 있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윤을 낸 놋처럼 반짝거렸다.

1:8 그들의 사방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했다.

1:9 날개들은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동할 때 돌아서지 않고, 각자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1:10 그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넷 모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1:11 그들의 얼굴은 이러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각자 두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1:12 그들은 각자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갔으며, 움직일 때 돌아서지 않았다.

1:13 생물들의 모양을 보면, 그 모습이 활활 타는 숯불 같고 횃불 모양 같았다. 그 불이 생물들 사이를 오르내렸는데, 불은 밝았고 그 불에서는 번개가 뿜어져 나왔다.

1:14 생물들은 번갯불이 번쩍이는 모습처럼 빠르게 왕래했다.

1:15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생물들 곁의 땅 위에 바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1:16 바퀴의 모습과 구조는 녹주석 같았다. 네 바퀴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다. 그 모습과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1:17 그것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갔으며,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1:18 바퀴의 테는 높고 두려울 정도로 위엄이 있었으며, 네 바퀴의 테 둘레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차 있었다.

1:19 생물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도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1:20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도 갔고, 영이 가려는 곳으로 함께 갔다.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21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떠올랐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넓은 공간의 형상이 있었는데, 보기에 두려운 수정 같았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1:23 그 넓은 공간 아래에서 그들의 날개는 서로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각자 날개 둘로는 이쪽 몸을 가렸고, 날개 둘로는 저쪽 몸을 가렸다.

1:24 그들이 나아갈 때 나는 날개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했으며, 군대의 함성처럼 웅성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들이 멈추어 설 때는 날개를 내렸다.

1:25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넓은 공간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들은 멈추어 설 때 날개를 내렸다.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넓은 공간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 높은 곳에는 사람의 모양을 닮은 형상이 있었다.

1:27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 위쪽에는 빛나는 금속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안 둘레에는 불 같은 모습이 있었다.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 아래쪽에도 불 같은 모습이 보였으며, 그를 둘러싼 밝은 빛이 있었다.

1:28 사방으로 비치는 그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모양 같았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2장

2:1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와 말하겠다."

2: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발로 일으켜 세우셨고,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2: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거역해 온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오늘날까지도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어 왔다.

2:4 그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라.

2:5 그들은 반역하는 집안이다. 그래도 듣든 거부하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6 사람의 아들아,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들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빛에 질리지 마라.

2:7 그들은 몹시 반역하는 자들이니, 듣든 거부하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2:8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 그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마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2:9 내가 바라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해 뻗쳐 있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다.

2:10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3장

3:1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 눈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3:2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여 주셨다.

3: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네 배를 채우며 네 속을 가득 채워라." 이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3:4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3:5 너를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나 이해하기 힘든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3:6 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언어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그런 민족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3: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3:8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과 맞서게 단단히 만들었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와 맞서게 굳세게 만들었다.

3:9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빛에 질리지 마라."

3:10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고 귀로 똑똑히 들어라.

3:11 너는 사로잡혀 온 사람들, 곧 네 동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거부하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라."

3:12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내 뒤에서 거세게 울리는 큰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에서 찬송받기를!"

3:13 그것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와 그 곁에 있는 바퀴들의 소리였으며, 거세게 울려 퍼지는 큰 소리였다.

3:14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나는 마음이 괴롭고 격앙된 채로 나아갔으며, 주님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해 있었다.

3:15 나는 그발강 가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앉아 넋을 잃은 채 칠 일을 보냈다.

3:16 칠 일이 지난 뒤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3:17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3:18 내가 악한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지도록 말해 주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은 네게 묻겠다.

3:19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기 악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죽겠지만 너는 네 목숨을 건진 것이다.

3:20 의로운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은 네게 묻겠다.

3:21 그러나 네가 그 의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고, 너도 네 목숨을 건진 것이다."

3:22 주님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내렸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평야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3:23 그래서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았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3:24 그때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발로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가서 네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라.

3:25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보라, 사람들이 네 위에 밧줄을 씌워 너를 동여맬 것이니, 네가 그들 가운데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3:26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 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3: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어 줄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거부할 자는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4장

4:1 "너 사람의 아들아,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려라.

4:2 그 성읍을 포위하고, 성벽을 공격할 탑을 쌓으며, 공격용 언덕을 쌓아 올려라. 또 그 둘레에 군대의 진을 치고 사방으로 성벽을 부수는 망치를 배치하라.

4:3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고, 얼굴을 성읍을 향해 두어라. 성읍이 포위될 것이며 네가 그것을 에워싸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4: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몸에 짊어져라. 네가 그쪽으로 눕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

4:5 내가 그들의 죄악의 햇수를 날수로 정해 주었으니, 곧 삼백구십 일이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4:6 이 기간을 다 채우거든, 너는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내가 네게 사십 일을 정해 주었으니, 일 년을 하루로 셈한 것이다.

4:7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두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성읍을 향해 예언하라.

4:8 보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둘 것이니, 네 포위 기간이 다 찰 때까지 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4:9 너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빵을 만들어라.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그것을 먹어야 한다.

4:10 네가 먹을 음식은 하루에 이십 세겔씩 무게를 달아 먹어야 하며, 때를 정해 놓고 먹어야 한다.

4:11 물도 양을 재어서 육분의 일 힌씩 마시되, 때를 정해 놓고 마셔야 한다.

4:12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똥을 말려 불을 피워 구워야 한다."

4:1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어 흩어 버릴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4:14 이에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제 영혼은 더러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고기를 먹은 적이 없으며, 가증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4:15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인분 대신에 소똥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 너는 그 위에 네 빵을 구워라."

4:16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양식의 공급을 끊어 버릴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빵을 달아 먹고 근심 속에 물을 재어 마시게 될 것이다.

4:17 빵과 물이 모자라 서로를 보며 질겁하고,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메말라 갈 것이다."

5장

5:1 "너 사람의 아들아,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가져와라.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칼처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런 다음 저울을 가져다가 깎은 털을 달아 나누어라.

5:2 포위하는 날수가 다 차면, 너는 그 삼분의 일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태워라. 또 삼분의 일은 가져다가 그 둘레에서 칼로 쳐라. 그리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날려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 들 것이다.

5:3 너는 그 가운데서 얼마를 조금 가져다가 네 겉옷 자락에 싸 두어라.

5:4 그것 가운데서도 일부를 다시 꺼내 불 한가운데 던져 살라 버려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져 나갈 것이다.

5:5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여러 민족들 한가운데 두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다.

5:6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하여 내 법도를 거역했고,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내 규례를 거슬렀다. 그들이 내 법도를 배척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5:7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보다 더 분란을 일으켰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너희 주변 민족들의 규례조차도 따르지 않았다.

5:8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며,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5:9 네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 앞으로도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5:10 그러므로 네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네게 심판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두 온갖 바람에 흩어 버리겠다.

5:11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으로 네가 네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우상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 또한 너를 가차 없이 깎아내릴 것이다. 내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5:12 너희 가운데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고 네 안에서 굶주림으로 쓰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너를 둘러싼 사방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머지 삼분의 일은 내가 온갖 바람에 흩어 버리고, 칼을 빼들어 그 뒤를 쫓을 것이다.

5:13 이렇게 내 분노가 다 쏟아지고 그들을 향한 내 진노가 풀려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다 쏟아부을 때에야, 나 주님이 열심 가운데 말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5:14 더욱이 내가 너를 둘러싼 민족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를 폐허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5:15 내가 분노와 진노와 무서운 책망으로 너를 심판할 때, 너는 주변 민족들에게 치욕과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놀라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5:16 내가 멸망을 가져오는 파멸의 악한 기근 화살을 너희에게 쏘아 보낼 것이니, 곧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양식 공급을 끊어 버리겠다.

5:17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 자식들을 잃게 할 것이며,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칼을 불러오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6장

6: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6: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얼굴을 두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6:3 너는 말하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들과 언덕들, 물줄기들과 골짜기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곧 내가 너희에게 칼을 불러와 너희 산당들을 무너뜨리겠다.

6:4 너희 제단들은 황폐해지고 분향 제단들은 부서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살육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쓰러뜨려 놓겠다.

6:5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 앞에 던져 두고, 너희 뼈를 제단 둘레에 흩어 놓겠다.

6:6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산당들이 황폐해질 것이니, 이는 너희 제단들이 무너져 황폐해지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사라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혀 넘어지고, 너희가 만든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6:7 살육당한 자들이 너희 한가운데 쓰러질 것이며,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6: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여러 민족 가운데서 칼을 피한 사람들이 약간이나마 남도록 내가 남은 자들을 둘 것이다.

6:9 살아남은 자들은 사로잡혀 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곧 나를 떠나 음란해진 그들의 마음과 우상들을 좇아 음란하게 굴던 그들의 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가증한 악행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하게 될 것이다.

6:10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헛되이 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6:11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아!" 하고 외쳐라. 이스라엘 족속의 온갖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 때문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6:12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아 포위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아부을 것이다.

6:13 살육당한 자들의 시체가 그들의 우상들 사이, 곧 제단 둘레와 모든 높은 언덕 위, 모든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 잎이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널브러질 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들은 그들이 온갖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바치던 곳이다.

6:14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뻗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황폐하고 삭막하게 만들겠다.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7장

7:1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7:2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끝났다! 이 땅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닥쳤다.

7:3 이제 너에게 끝이 닥쳤으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의 온갖 가증한 일을 네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7:4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오직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네 가증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7:5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일찍이 없던 재앙이 다가온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7:6 끝이 닥쳤다. 끝이 닥쳐왔다! 그것이 너를 치려고 깨어 일어났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7:7 이 땅의 주민아, 너에게 파멸이 닥쳤다! 때가 이르렀고 그날이 가까웠으니, 산 위에서 즐거운 함성이 아니라 큰 혼란이 일어나는 날이다.

7:8 이제 내가 곧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내 진노를 네게 다 갚을 것이며,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네 온갖 가증한 일을 네게 갚아 주겠다.

7:9 내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너희는 치시는 분이 나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7:10 보라, 그날이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너의 파멸이 이르렀고, 몽둥이가 꽃을 피웠으며 교만이 싹 텄다.

7:11 폭력이 일어나 악을 치는 몽둥이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 많은 무리도, 그들의 재물도 남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값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7:12 때가 이르렀고 그날이 다가왔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슬퍼하지 마라. 그 모든 무리 위에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7:13 파는 자가 살아남는다 해도 판 물건을 다시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무리 전체를 향한 환상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자기 죄악 가운데서 삶을 유지하거나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7:14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싸움터로 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7: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삼켜질 것이다.

7:16 그들 가운데 살아남아 피하는 자들은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산으로 도망치겠지만, 각자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7:17 모든 손은 맥이 풀리고 모든 무릎은 물처럼 흐물흐물해질 것이다.

7:18 그들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하고 모든 머리는 밀려 대머리가 될 것이다.

7:19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내던지고 금을 더러운 물건처럼 여길 것이다. 주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도 못하고 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 그들의 죄악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7:20 그들은 화려한 장식품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신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더러운 물건이 되게 하겠다.

7:21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노략물로 넘겨주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약탈품으로 주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히게 하겠다.

7:22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힐 것이다. 강도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7:23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피 흘린 죄악이 가득하고 성읍에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7:24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이들의 집들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강한 자들의 교만을 꺾을 것이며, 그들의 거룩한 곳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7:25 파멸이 닥치고 있다! 그들이 평안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7:26 재앙 위에 재앙이 닥치고 소문 위에 소문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들이 예언자에게 환상을 구하겠으나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사라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로운 조언이 사라질 것이다.

7:27 왕은 애통해하고 고관은 절망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그 땅 백성의 손은 공포로 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판결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8장

8:1 제육년 여섯째 달 오일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였다.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내렸다.

8:2 내가 바라보니, 불의 모양 같은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허리 모양 아래쪽으로는 불이었고, 허리 위쪽으로는 빛나는 금속처럼 번쩍이는 광채의 모양이 있었다.

8:3 그분께서 손 모양을 내밀어 내 머리채 한 줌을 잡으셨고, 성령께서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을 향한 안뜰 문 입구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8:4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평야에서 보았던 모습과 같았다.

8: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북쪽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

8:6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저지르는 큰 가증한 일들을 보아라. 그들이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8:7 그분께서 나를 뜰 문으로 데려가셨는데, 내가 보니 벽에 구멍 하나가 나 있었다.

8:8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을 파내어라." 내가 벽을 파내자 문 하나가 나타났다.

8:9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저지르고 있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아라."

8:10 그래서 내가 들어가 바라보니, 온갖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형상,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벽 둘레에 새겨져 있었다.

8:11 그 우상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칠십 명이 서 있었고, 사반의 아들 야아사니야도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향구름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8:12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각자 우상이 그려진 자기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한다."

8:13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8:14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집 북쪽으로 난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울고 있었다.

8:15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8:16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다. 보라, 주님의 성전 문 어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스물다섯 명가량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해 해를 경배하고 있었다.

8:17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가벼운 일로 여기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고, 거듭 나를 노엽게 만들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대고 있다.

8:18 그러므로 나 또한 분노로 갚을 것이다. 내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9:1 그때 그분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말씀하셨다. "이 성읍을 벌할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각자 손에 파멸시키는 무기를 들고 오게 하라."

9:2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한 위쪽 문 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쥐고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허리춤에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 놋 제단 곁에 섰다.

9:3 머물러 있던 그룹 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모시옷을 입은 사람을 부르셨다.

9: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두루 돌아다니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가증한 일 때문에 한숨지으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9:5 내가 듣는 데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을 돌아다니며 쳐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9:6 노인과 젊은이,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러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치기 시작했다.

9:7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뜰을 시체들로 가득 채워라. 나가거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안에서 사람들을 쳤다.

9:8 그들이 사람들을 치고 있을 때 나만 홀로 남겨졌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 주님의 분노를 쏟아부으시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9:9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온 땅이 피 흘림으로 가득 찼고 성읍은 왜곡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 하기 때문이다.

9:10 나 역시 내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9:11 보라, 허리에 먹통을 차고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보고하여 아뢰었다. "제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10장

10:1 내가 바라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넓은 공간 위에 사파이어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좌의 형상 같은 모습이었다.

10:2 그분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회전하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 아래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 담아 성읍 위에 흩뿌려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들어갔다.

10:3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 차 있었다.

10:4 주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 위에 머물렀다.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고, 뜰에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다.

10:5 그룹들의 날개 치는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렸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시는 음성 같았다.

10:6 그분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회전하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 섰다.

10:7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갔다.

10:8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10:9 내가 바라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 하나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 하나가 있었다.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 보석처럼 반짝였다.

10:10 그들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넷이 모두 한결같은 모습이었으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10:11 그것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갔다.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며, 우두머리가 향하는 곳을 따라 나아갔고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10:12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뿐만 아니라 바퀴들에도 사방으로 눈이 가득 박혀 있었는데, 넷이 가진 바퀴들이 모두 그러했다.

10:13 내가 듣는 데서 그 바퀴들은 "회전하는 바퀴들"이라 불렸다.

10:14 각자 얼굴이 넷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0:15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이었다.

10:16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오르려고 날개를 펼칠 때에도 바퀴들이 그 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0:17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고, 그룹들이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으니,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10:18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위에서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10:19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문 어귀에 멈추어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높이 머물렀다.

10:20 이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그룹들임을 알았다.

10:21 각자 얼굴이 넷씩 있었고 날개도 넷씩 있었으며,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10:22 그들의 얼굴 모양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었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가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자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11장

11:1 그때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 동쪽을 향한 주님의 집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보라, 그 문 입구에 스물다섯 명이 있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앗술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브나야의 아들 벨라디야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보였다.

11:2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 성읍 안에서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다.

11:3 그들은 말하기를 '집을 지을 때가 아직 가깝지 않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의 고기다' 한다.

11:4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11:5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

11:6 너희는 이 성읍 안에서 살육한 자들을 늘렸고, 그 길거리들을 시체들로 가득 채웠다."

11:7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성읍 한가운데 눕혀 둔 살육당한 자들이 고기이고, 이 성읍이 가마솥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한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11:8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칼을 불러오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1:9 "내가 너희를 성읍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다.

11:10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1:11 이 성읍은 너희 가마솥이 되지 못하고 너희는 그 안의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11:12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너희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11:13 내가 예언하고 있을 때 브나야의 아들 벨라디야가 죽었다. 그러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11:14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1:15 "사람의 아들아, 네 형제들, 곧 네 형제들과 네 친족과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향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기를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였다.

11:16 그러므로 너는 전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멀리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어 버렸으나, 그들이 이른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

11:17 그러므로 너는 전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가 흩어져 살던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11:18 그들은 그곳에 와서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을 모두 없앨 것이다.

11:19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두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겠다.

11:20 그리하여 그들이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1:21 그러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가증한 우상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

11:22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올렸고 바퀴들도 그 곁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11:23 주님의 영광이 성읍 한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11:24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환상 가운데 나를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데려가셨다. 그러자 내가 보았던 환상이 내게서 떠나 올라갔다.

11:25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모든 일을 포로들에게 전했다.

12장

12:1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12:2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족속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12:3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사 갈 짐을 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어쩌면 깊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12:4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이사 갈 짐처럼 네 짐을 밖으로 내가라.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듯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 스스로 나가거라.

12:5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 짐을 밖으로 날라라.

12:6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려 땅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2:7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다. 대낮에 이사 갈 짐처럼 짐을 밖으로 내어놓았고, 저녁에는 내 손으로 벽을 뚫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짐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메었다.

12:8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2:9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더냐?

12:10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경고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것이다." '

12:11 너는 말하라. '내가 여러분의 표징입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귀양을 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12:12 '그들 가운데 있는 통치자는 어두울 때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짐을 밖으로 나르려고 벽을 뚫을 것이며, 그는 두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12:13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올무에 걸려들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 곧 갈대아 땅으로 데려갈 것이나, 그는 거기서 죽을지언정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12:14 그를 돕는 주변의 모든 자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내가 사방으로 흩어 버리고, 칼을 빼 들어 그 뒤를 쫓을 것이다.

12:15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여러 나라로 헤쳐 놓을 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2:16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할 사람 몇을 남겨 두어, 그들이 이르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자기들의 온갖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겠다.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2:17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12:18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떨면서 빵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물을 마셔라.

12:19 그 땅 백성에게 전하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빵을 먹고 질겁하며 물을 마실 것이니, 이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폭력 때문에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2:20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2:2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2:22 "사람의 아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고 온갖 환상은 헛되이 사라진다' 하고 말하는 그 속담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12:23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도 가까이 왔다.

12:24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12:25 나 주님이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겠고 내가 전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 반역하는 족속아, 바로 너희 생전에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을 이루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2:26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12:27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을 위한 것이요, 그가 먼 앞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하는구나.

12: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말은 어느 하나도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포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3장

13: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3:2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13: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13:4 이스라엘아, 너의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들 같았다.

13:5 너희는 무너진 틈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주님의 날에 일어날 전투에서 버텨 서 있도록 이스라엘 집안을 위해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13:6 그들은 거짓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았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3:7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13:8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3:9 '내 손이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안의 명부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10 '그들이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라고 말하여 내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누가 벽을 쌓으면, 보아라, 그들은 거기에 회칠을 한다.

13:11 회칠을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쏟아지는 폭우가 내리고, 너희 큰 우박들아, 떨어져라. 거센 바람이 그것을 찢어 버릴 것이다.

13:12 보아라, 그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칠한 그 회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느냐?'

13:13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분노로 거센 폭풍을 일으켜 벽을 찢어 버리고, 내 진노로 쏟아지는 폭우를 내리며, 내 분노로 큰 우박을 내려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13:14 너희가 회칠한 그 벽을 내가 헐어 땅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지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15 이렇게 내가 그 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아붓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벽도 사라졌고, 거기에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13:16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며, 평화가 없는데도 그 성읍을 위해 평화의 환상을 보았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3:17 "너 사람의 아들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네 백성의 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13:18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꿈치에 부적 띠를 꿰매 붙이고, 키가 크든 작든 온갖 사람의 머리에 씌울 너울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들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들을 살려 두려 하느냐?

13:19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는 거짓말을 귀담아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 두었다."

13:20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날아가게 하려고 사냥할 때 쓰는 그 부적 띠들을 내가 대적하여 너희 팔에서 뜯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여 옭아맨 그 영혼들을 놓아주어 날아가게 하겠다.

13:21 너희의 너울도 찢어 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22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으로 슬프게 했고, 악인의 손을 북돋아 주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3:23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거짓 환상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장

14:1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14:2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4:3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우상들을 품었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의 묻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14:4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 가운데 자기 마음에 우상들을 품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서 예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나 주님이 그 수많은 우상에 걸맞게 직접 대답하겠다.

14:5 이는 이스라엘 집안이 다 자기 우상들 때문에 나를 멀리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14: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 얼굴을 돌려 모든 역겨운 짓을 멀리하여라.

14:7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나를 떠나 자기 마음에 우상들을 품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둔 채, 나에 관해 묻고자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님이 친히 그에게 응답하겠다.

14:8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를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 버리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9 만일 예언자가 꾐에 넘어가 어떤 말을 전한다면, 나 주님이 그 예언자를 꾀어넘긴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14:10 그들이 자기 죄악의 짐을 질 것이니, 예언자의 죄악이나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나 같을 것이다.

14:11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안이 다시는 나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그들의 온갖 죄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

14:12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4:13 "사람의 아들아, 어떤 땅이 불성실하게 죄를 지어 내게 반역하고, 내가 그 땅 위에 손을 뻗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의 지팡이를 꺾고 기근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어 버릴 때,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신의 목숨만 건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4:15 "만일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가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면,

14:16 비록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 자신만 건짐을 받을 것이요,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14:17 또는 내가 그 땅에 칼을 불러와 '칼아, 그 땅을 훑고 지나가라' 명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어 버릴 때,

14:18 비록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그들 자신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4:19 "또는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내 분노를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어 버릴 때,

14: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도 딸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 의로 자신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14:21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리려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네 가지 혹독한 심판을 예루살렘에 보낼 때에는 얼마나 더 참혹하겠느냐!

14:22 그러나 보아라, 그 안에서 빠져나올 남은 자들, 곧 아들과 딸들이 있을 것이다.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올 것이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모든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일에 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14:23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그 성읍에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5장

15: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5:2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15:3 그 나무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그릇이라도 걸어 둘 말뚝을 만들 수 있겠느냐?

15:4 보아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뿐이다. 불이 그 양쪽 끝을 삼키고 가운데도 타 버렸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15:5 보아라, 온전할 때에도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불이 그것을 삼키고 타 버린 뒤에야 어찌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15: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불에 땔감으로 내준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내줄 것이다.

15:7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향해 돌릴 것이다.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올지라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돌릴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5:8 그들이 불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장

16:1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16:2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그 역겨운 일들을 알려 주어라.

16:3 그리고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근본과 출생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비롯되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16:4 네가 태어난 일로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에 네 탯줄도 잘리지 않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길 물로 씻기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문질러지지도 못했고 포대기에 싸이지도 못했다.

16:5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일 가운데 하나라도 해 주거나 너를 측은하게 여긴 눈이 아무도 없었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가증스럽게 여겨져 들판에 내버려졌다.

16:6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가 된 너에게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그렇다, 피투성이가 된 너에게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16:7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나 번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나서 빼어난 아름다움에 이르렀다. 가슴이 부풀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16:8 내가 네 곁을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아라, 네 때가 사랑을 나눌 때였다. 내가 내 옷자락을 네 위에 펼쳐 네 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16:9 내가 물로 너를 씻기고 네 몸에서 피를 깨끗이 씻어 냈으며 기름을 발라 주었다.

16:10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 신을 신겼으며, 고운 아마포로 단장해 주고 비단으로 감싸 주었다.

16:11 내가 너를 장신구로 꾸며 주고 손목에 팔찌를 끼워 주었으며 목에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16:12 네 코에 코걸이를 걸고 귀에 귀고리를 달아 주었으며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다.

16: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했고, 네 옷은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옷이었다.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더없이 아름다워져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16:14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민족 가운데 널리 퍼졌다. 내가 네게 입혀 준 내 위엄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6:15 "그러나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을 이용해 음란하게 행동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네 음행을 쏟아부어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

16:16 너는 네 옷의 일부를 가져다가 여러 색깔로 꾸민 산당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다.

16:17 너는 내가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16:18 너는 수놓은 네 옷을 가져다가 우상들에게 덮어 주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 앞에 바쳤다.

16:19 내가 네게 먹으라고 준 양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마저도 너는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다. 참으로 그러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6:20 "게다가 너는 내게 낳아 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삼켜지게 했다. 네 음행이 부족해서 그랬단 말이냐?

16:21 너는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우상들에게 넘겨주었다.

16:22 너는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행하면서, 네가 벌거벗은 맨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버둥거리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16:23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재앙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6:24 "너는 너를 위해 둥근 당을 짓고 모든 거리에 높은 산당을 만들었다.

16:25 너는 모든 길목에 네 산당을 짓고 네 아름다움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네 다리를 벌리고 음행을 일삼았다.

16:26 너는 몸집이 큰 네 이웃 애굽 사람들과도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네 음행을 더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16:2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손을 너 위에 뻗어 네 몫을 줄이고, 네 방탕한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네 원수들, 곧 블레셋 사람의 딸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었다.

16:28 너는 만족할 줄을 몰라 앗수르 사람들과도 음행을 저질렀다. 참으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도 만족하지 못했다.

16:29 너는 상인들의 땅인 갈대아에까지 네 음행을 넓혔지만,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16:30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뻔뻔스러운 창녀의 짓인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느냐!

16:31 너는 모든 길목에 둥근 당을 짓고 모든 거리에 높은 산당을 만들었으면서도, 화대를 비웃었으니 보통 창녀 같지도 않았다.

16:32 남편 대신 낯선 남자들을 맞아들이는 간음한 아내로구나!

16:33 사람들은 모든 창녀에게 선물을 주지만, 너는 네 모든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어 사방에서 네게로 와서 음행을 하도록 불러들였다.

16:34 음행에 있어서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으니, 아무도 너를 따라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네가 화대를 주고 화대를 받지 않았으므로 너는 전혀 달랐다.'

16:35 그러므로 창녀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16:36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연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네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네 벗은 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네 역겨운 온갖 우상들과 네가 그 우상들에게 바친 네 자녀들의 피 때문에,

16:37 보아라, 네가 즐거워하던 모든 연인과 네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 그리고 네가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 사방에서 그들을 너를 대적하도록 모아들이고, 그들 앞에서 네 벗은 몸을 드러내어 그들이 네 벌거벗은 몸을 다 보게 하겠다.

16:38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하여, 분노와 질투의 피를 네게 내리겠다.

16:39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네 둥근 당을 헐고 네 높은 산당들을 부술 것이다. 또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아 너를 벌거벗은 맨몸으로 남겨 둘 것이다.

16:40 그들이 무리를 모아 너를 치게 할 것이니, 돌로 너를 치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16:41 그들이 불로 네 집들을 태우고 많은 여자가 보는 앞에서 네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내가 네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니, 너는 다시는 화대를 주지 못할 것이다.

16:42 이렇게 하여 너를 향한 내 분노를 풀고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게 하겠다.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

16:43 네가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했으므로, 보아라, 나 또한 네 행실대로 네 머리 위에 갚아 주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네 온갖 역겨운 짓에 더하여 이런 음란한 행실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16:44 보아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너를 두고 "그 어머니에 그 딸이다"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16:45 너는 남편과 자식들을 혐오한 네 어머니의 딸이며, 남편과 자식들을 혐오한 네 자매들의 자매이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다.

16:46 네 왼쪽에 살고 있는 네 언니는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고, 네 오른쪽에 살고 있는 네 아우는 소돔과 그 딸들이다.

16:47 너는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의 역겨운 짓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으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 네 모든 행실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16:48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16:49 보아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했다.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과 풍족한 양식과 안락한 태평함이 있었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

16:50 그들은 거만하여 내 앞에서 역겨운 짓을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 버렸다.

16: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짓지 않았다. 너는 그들보다 더 많은 역겨운 짓을 저질러, 네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로 네 자매들을 오히려 의롭게 보이게 했다.

16:52 네 자매들을 판결한 너 자신도 네 수치를 짊어져라. 네가 그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다. 네가 네 자매들을 정당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부끄러워하며 네 수치를 짊어져라.

16:53 내가 그들의 포로 생활을 돌려놓겠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 생활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 생활을 돌려놓고, 그들 가운데 있는 너의 포로들도 돌려놓겠다.

16:54 이는 네가 네 수치를 짊어지고 네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6:55 네 자매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16:56 네가 교만하던 날에는 네 아우 소돔의 이름이 네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16:57 그것은 네 악함이 드러나기 전, 곧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던 때, 그리고 너를 사방에서 멸시하던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수치를 당하던 때의 일이었다.

16:58 너는 네 음란함과 역겨운 일들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 주님의 말씀이다.

16:59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언약을 깨뜨려 맹세를 멸시한 너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겠다.

16:60 그럼에도 나는 네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16:61 그때에 네가 네 언니들과 아우들을 맞아들일 때 네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딸로 주겠지만, 그것은 너와의 언약 때문이 아니다.

16:62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6:63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너로 하여금 옛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여 네 수치 때문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7장

17: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7: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17: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 날개와 긴 깃털을 가지고 온갖 색깔의 깃털이 가득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와서 백향목의 꼭대기를 꺾었다.

17:4 그 가장 높은 어린 가지 끝을 꺾어 무역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

17:5 또 그 땅의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많은 물가에 두고 버드나무처럼 심어 놓았다.

17:6 그것이 자라나서 키가 낮고 옆으로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뻗고 싹을 내었다.

17:7 그런데 큰 날개와 깃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다.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심긴 두둑에서 그 독수리가 물을 대주기를 바라며 그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17:8 그 포도나무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많은 물가 기름진 땅에 심겨 있었다."

17:9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잘 자라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열매를 잘라 내어 말라 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새로 돋아난 모든 잎이 시들 것이다.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없어도 그것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다.

17:10 보아라,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닿으면 완전히 말라 버리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 버릴 것이다.""

17:1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또 임했다.

17:12 "너는 저 반역하는 집안에게 '너희가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아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17:13 그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맹세를 시켰으며, 그 땅의 힘 있는 자들을 끌고 갔다.

17:14 그것은 그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의 언약을 지켜야만 서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17:15 그러나 그 왕은 말과 많은 군사를 얻으려고 애굽에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반역했다. 그가 성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깨뜨리고도 피할 수 있겠느냐?

17:16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를 왕으로 세워 준 왕이 머무는 곳, 곧 자기가 멸시한 맹세와 깨뜨려 버린 언약의 상대인 그 왕과 함께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17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흙언덕을 쌓고 요새를 세울 때, 바로는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17:18 그가 언약을 깨뜨려 맹세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서약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17:19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가 멸시한 내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내 언약을 내가 반드시 그의 머리 위에 갚겠다.

17:20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배신하고 지은 죄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하겠다.

17:21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 도망친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사방 바람을 향해 흩어질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나 주님이 말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7:22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심겠다. 그 어린 가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17:23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니, 그 가지가 뻗어나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 아래 깃들일 것이다.

17:24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했다는 것을. '나 주님이 말했고, 그대로 이루었다.'"

18장

18:1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18: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이 속담을 쓰고 있으니, 무슨 뜻이냐?

18:3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더는 이 속담을 쓰지 않을 것이다.

18:4 보아라,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18:5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정의를 행하고,

18:6 산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며,

18:7 아무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빚진 사람에게 담보물을 돌려주며, 강도질로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 양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며,

18:8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더 얹어서 받지도 않으며, 죄악에서 손을 거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정의를 실천하며,

18:9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18:10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도질을 하고 피를 흘리며, 이런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한다면,

18:11 (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 아들은 산당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18: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강도질을 하며,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며, 역겨운 일을 행하고,

18:13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거나 가난한 자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8:14 이제 보아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18:15 산 위에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으며,

18:16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담보물을 잡지 않으며, 강도질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고,

18:17 가난한 자를 해치지 않으려 손을 거두며, 이자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18:18 그의 아버지는 잔인하게 억압하고 자기 형제를 강탈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서 좋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보아라,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18:19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아들이 법과 정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18:20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8:21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법과 정의를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18:22 그가 저지른 모든 죄과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 것이다.

18:23 내가 악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18:24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악한 사람이 행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한다면, 그가 살아야 하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18:25 그런데도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이제 들어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으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18:26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 안에서 죽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다.

18:27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돌아서서 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18:28 그가 생각하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과에서 돌아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18:29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의 길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정하지 않으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18: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 행실대로 심판하겠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돌아서라.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18:31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던져 버리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왜 죽겠느냐?

18:32 나는 죽는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돌아서서 살아라!

19장

19:1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라.

19:2 그리고 말하여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었느냐? 암사자였다. 그가 사자들 사이에 엎드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새끼들을 길렀다.

19:3 그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워 내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먹이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19:4 여러 민족도 그에 대해 듣고 그를 함정에 빠뜨렸으며,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19:5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새끼들 가운데 다른 하나를 데려다가 젊은 사자로 키웠다.

19:6 그가 사자들 사이를 오가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먹이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19:7 그는 그들의 궁궐들을 무너뜨리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19:8 그러자 여러 민족이 주변 지방들에서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와 그 위에 그물을 쳤고, 그는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19:9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우리에 가두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그를 요새에 가두어, 다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19:10 네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네 혈통 속의 포도나무 같았다. 풍부한 물 덕분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19:11 그 나무에는 통치자들의 홀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들이 있었고, 빽빽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키가 높이 솟아올라 그 많은 가지와 함께 높이 돋보였다.

19:12 그러나 분노 속에서 뽑혀 땅에 내던져졌고, 동풍이 그 열매를 말려 버렸다.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여 말라 버렸고 불이 그것들을 삼켜 버렸다.

19:13 이제 그것은 광야, 곧 메마르고 목마른 땅에 심겨 있다.

19:14 그 가지 가운데서 불이 나와 그 열매를 삼켜 버렸으니, 그 안에 통치할 홀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애가이며, 애가가 될 것이다."

20장

20:1 제칠년 다섯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주님께 묻고자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0:2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0:3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4 사람의 아들아,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20:5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던 날, 야곱 집안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손을 들어 맹세하던 그날에,

20:6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20:7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각자 눈을 사로잡는 역겨운 우상들을 내던지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20:8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눈을 사로잡는 역겨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내 진노를 다 이루겠다고 말했다.

20:9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해 행동하여, 그들이 머물던 여러 민족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내가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20:10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이끌었다.

20:11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내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내 법도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20:12 또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20:13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내 규례들을 따르지 않았고 내 법도들을 거부했다.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 위에 내 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했다.

20:14 그러나 나는 여러 민족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이름을 위해 행동했다.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20:15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20:16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부하고 내 규례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니,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랐던 까닭이다.

20:17 그럼에도 내 눈이 그들을 아껴 멸망시키지 않았으며, 광야에서 그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았다.

20:18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20:19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 규례들을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여라.

20:20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0:21 그러나 그 자녀들도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내 규례들을 따르지 않았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으며,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내 진노를 다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2 그러나 나는 내 손을 거두고 내 이름을 위해 행동하여, 여러 민족의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20:23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 버리고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다고 했다.

20:24 그들이 내 법도들을 행하지 않고 내 규례들을 거부하며 내 안식일들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조상들의 우상들을 좇았기 때문이다.

20:25 그래서 나 또한 그들에게 좋지 못한 규례들과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법도들을 주었다.

20:26 그들이 모든 첫 태생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할 때 내가 그들의 제물로 그들을 더럽혔으니, 이는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내가 주님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20:27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불성실하게 행하여 이런 일로도 나를 모욕했다.

20:28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였을 때,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는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헌물을 바쳤다. 그곳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전제물을 부었다.

20:29 그때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찾아가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바마라 불린다."

20: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를 더럽히느냐? 그들의 역겨운 우상들을 따라 음란하게 행동하느냐?

20:31 너희가 예물을 바치고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너희의 온갖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구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허락해야 하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묻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32 "너희가 '우리가 여러 민족처럼, 다른 나라들의 족속처럼 되어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33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강한 손과 편 팔과 쏟아지는 분노로 반드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20:34 내가 강한 손과 편 팔과 쏟아지는 분노로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이끌어 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20:35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의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심판하겠다.

20: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심판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37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끈으로 너희를 묶어 매겠다.

20:38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거역하는 자들을 내가 걸러낼 것이다. 그들이 머물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39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각자 자기 우상들을 섬겨라. 나중에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다시는 너희의 예물들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20:40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땅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이 다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너희의 헌물과 첫 열매의 예물과 온갖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20:41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이끌어 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일 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눈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20:42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일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43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행실과 스스로를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할 것이며, 너희가 저지른 온갖 악 때문에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20:44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타락한 행실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행동할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0:45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0:46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향해 선포하며, 남쪽 들의 숲을 쳐서 예언하여라.

20:47 남쪽의 숲에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네 안에 불을 지필 것이니, 그것이 네 안의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이 그 불에 그을릴 것이다.

20:48 모든 사람이 나 주님이 그 불을 지폈음을 보게 될 것이니,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20:49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 그들이 저를 가리켜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21장

21: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1: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들을 향해 선포하며,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여라.

21:3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 버릴 것이다.

21: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어 버릴 것이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21:5 모든 사람이 나 주님이 칼을 칼집에서 빼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1:6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탄식하여라. 마음이 부서진 채 비통한 슬픔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탄식하여라.

21:7 그들이 네게 '왜 탄식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다가오고 있는 소식 때문이다!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무력해지며, 모든 영이 낙담하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보아라, 그 일이 오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1:8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1:9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이다! 칼이 날카롭게 갈렸고 또한 번쩍이도록 닦였다.

21:10 살육하려고 날을 세웠고, 번개처럼 빛나도록 닦았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의 지팡이가 모든 나무를 정죄한다.

21:11 그 칼은 손에 쥘 수 있도록 번쩍이게 닦여서 주어졌다. 칼이 날카롭게 갈렸고 닦였으니, 살육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이다.'"

21:12 사람의 아들아, 부르짖고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에게 닥쳤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겨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네 넓적다리를 쳐라.

21:13 "시험이 있다. 정죄하는 그 지팡이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1: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라. 치명상을 입히는 칼, 곧 사람들을 죽이는 그 칼이 두 번, 세 번 거듭 내리치게 하여라. 이것은 치명상을 입히는 큰 자의 칼이며, 그들의 방으로 뚫고 들어가는 칼이다.

21:15 내가 그들의 모든 성문을 향해 위협하는 칼을 겨누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녹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 칼이 번개처럼 번쩍이도록 만들어졌고, 학살을 위해 날카롭게 벼려졌다.

21:16 칼아, 모여서 오른쪽으로 가라. 대열을 갖추고 왼쪽으로 가라. 네 얼굴이 향하는 곳은 어디로든 가라.

21:17 나 또한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21:18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전해졌다.

21:19 "너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갈래 길을 그려 놓아라. 두 길 모두 한 땅에서 나오게 하고,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 성읍으로 가는 길목 머리에 세워 놓아라.

21:20 너는 칼이 올 길을 그려, 하나는 암몬 자손의 랍바로 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요새화된 예루살렘의 유다로 향하게 하여라.

21:21 바벨론 왕이 갈림길, 곧 두 길의 머리에 서서 점을 치기 때문이다. 그는 화살들을 흔들고, 드라빔 우상에게 물으며, 간을 살핀다.

21:22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을 뽑은 제비가 들려 있으니, 성벽 파괴용 철퇴들을 설치하고, 학살의 함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성문들을 향해 성벽 파괴용 철퇴들을 세우며, 흙언덕을 쌓고, 포위 요새를 세우려는 것이다.

21:23 바벨론 사람들에게 맹세를 했던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거짓 점괘처럼 보이겠지만, 왕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21:24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반역이 드러나 너희의 온갖 행위에서 죄가 나타남으로써 너희 스스로 너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였으니, 너희가 기억되었으므로 손으로 붙잡힐 것이다.

21:25 너 치명상을 입을 사악한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마침내 죄악의 끝에 이를 때, 곧 네 날이 이르렀다.'

21:26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터번을 벗기고 왕관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어라.

21:27 내가 뒤엎고, 뒤엎고, 뒤엎을 것이다. 마땅히 통치할 권리를 가진 이가 올 때까지 이 통치권은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이며, 그가 오면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21:28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는 수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을 위해 번쩍이도록 닦였고, 삼켜 버리려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21:29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된 환상을 보며 거짓 점을 치는 동안, 마침내 죄악의 끝에 이를 때, 곧 날이 이른 저 치명상을 입을 악인들의 목 위에 너를 얹어 놓을 것이다.

21:30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네가 창조된 곳에서, 네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21:31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내 격분의 불을 네게 뿜어댈 것이다. 파괴하는 데 능숙한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21:32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네 피가 그 땅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나 주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22장

22:1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전해졌다.

22:2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하겠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성읍에 그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똑히 알려 주어라.

22:3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한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신의 때가 이르게 하고, 스스로를 더럽히려고 우상들을 만든 성읍아!

22:4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네가 유죄가 되었고, 네가 만든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너는 네 날들을 앞당겼고, 네 해의 끝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게 수치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22:5 악명이 높고 혼란으로 가득 찬 너를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 모두 조롱할 것이다.

22:6 보아라,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저마다 제 권세를 믿고 피를 흘리려고 네 안에 있었다.

22:7 네 안에서 그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고, 네 가운데서 외국인을 억압하였다. 네 안에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다.

22:8 너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22:9 네 안에는 피를 흘리려고 남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안에 있었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

22:10 네 안에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고, 네 안에서 부정한 기간에 있어 불결한 여인을 범하였다.

22:11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를 음란하게 더럽혔으며, 네 안의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욕보였다.

22:12 네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다. 너는 이자를 받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이웃을 억압하여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모았고, 나를 잊어버렸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2:13 "그러므로 보아라, 네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네 안에서 흘린 피를 보고 내가 손뼉을 쳤다.

22:14 내가 너를 다룰 그 날들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겠으며, 네 손이 굳셀 수 있겠느냐? 나 주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22:15 내가 너를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더러움을 너에게서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22:16 너는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더럽혀질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2:17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2:18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용광로 속에 있는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다. 그들은 은의 찌꺼기이다.

22:19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을 것이다.

22:20 사람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용광로 한가운데 모아 놓고 불을 불어 녹이듯이, 나도 내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22:21 그렇다,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어댈 것이니, 너희가 그 한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22:22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듯이 너희도 그 한가운데서 녹을 것이며, 너희는 나 주님이 내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부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2:23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2:24 "사람의 아들아, 그 땅에 말하여라. '너는 정결하게 되지 못한 땅이며, 진노의 날에 비를 맞지 못한 땅이다.'

22:25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의 음모는 먹이를 찢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그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삼켰고 보물과 귀한 물건들을 빼앗았으며, 그 가운데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22:26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어겼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사람들이 분별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내 안식일들에서 눈을 감아 버렸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22:27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과 같아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의 목숨을 멸망시킨다.

22:28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을 위해 회칠을 하고, 거짓 환상을 보며, 그들에게 거짓 점을 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22:29 그 땅의 백성은 억압을 일삼고 강도질을 행하였다. 참으로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외국인을 부당하게 억압하였다.

22:30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내 앞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22:31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삼켜 버렸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3장

23:1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전해졌다.

23:2 "사람의 아들아,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여인이 있었다.

23:3 그들은 애굽에서 음행을 저질렀는데, 젊은 시절에 음행을 저질렀다. 거기서 그들의 가슴이 애무를 받았고, 거기서 그들의 젊은 젖가슴이 더듬어졌다.

23:4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였고, 동생이 오홀리바였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23:5 오홀라는 내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음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연인들, 곧 자기 이웃인 앗수르 사람들에게 연정을 품었다.

23:6 그들은 푸른 옷을 입은 총독들과 통치자들로, 모두 탐스러운 젊은이들이었으며 말을 타는 기병들이었다.

23:7 오홀라는 앗수르의 가장 빼어난 자들인 그들 모두에게 매춘부처럼 몸을 내주었고, 자기가 연정을 품은 모든 자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23:8 그는 애굽을 떠난 이후로도 음행을 그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그들이 그와 함께 누웠고, 그의 젊은 젖가슴을 더듬었으며, 그에게 음란한 욕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23:9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의 손, 곧 그가 연정을 품었던 앗수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23: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벗겨 내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갔으며, 그를 칼로 죽였다.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였으므로, 그는 여인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23:11 그의 동생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욕정이 언니보다 더 부패하였고, 그의 음행은 언니의 음행보다 더 흉악하였다.

23:12 그는 자기 이웃인 앗수르 사람들, 곧 화려하게 옷을 입은 총독들과 통치자들, 말을 타는 기병들, 모두 탐스러운 젊은이들에게 연정을 품었다.

23:13 나는 그도 더럽혀진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똑같은 길을 갔다.

23:14 그는 음행을 더욱 늘렸다. 벽에 그려진 남자들의 형상, 곧 붉은 색으로 그려진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23:15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는 화려한 터번을 둘렀으며, 모두 귀족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태어난 땅 갈대아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

23:16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욕정을 품고 갈대아에 있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23:17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의 침상으로 그에게 나아와 음행으로 그를 더럽혔다. 그는 그들로 인해 더럽혀지자, 마음속으로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23:18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음행을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자,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돌아섰듯이 그에게서도 돌아섰다.

23:19 그런데도 그는 애굽 땅에서 음행을 저지르던 젊은 시절의 날들을 기억하며 음행을 더욱 늘렸다.

23:20 그는 그 연인들에게 욕정을 품었는데, 그들의 육체는 나귀의 육체와 같고 그들의 사정은 말의 사정과 같았다.

23:21 이렇게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짓을 다시 떠올렸으니, 애굽 사람들이 너의 젊은 가슴 때문에 네 젖가슴을 더듬던 때의 일이다.

23: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네 마음이 돌아선 네 연인들을 내가 네게 맞서 일으켜, 사방에서 그들을 끌어들여 너를 치게 할 것이다.

23:23 곧 바벨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 브곳과 쇼아와 고아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탐스러운 젊은이들이며 총독들과 통치자들이고, 귀족들과 유명한 자들이며, 모두 말을 타는 자들이다.

23:24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를 갖추고, 여러 백성의 무리를 이끌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권을 맡길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법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23:25 내가 내 질투를 너를 향해 둘 것이니, 그들이 분노로 너를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네 코와 귀를 베어 낼 것이며, 네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갈 것이며, 네 남은 자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23:26 그들은 또한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을 것이다.

23:27 이렇게 내가 네 음란한 짓을 네게서 그치게 하고,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된 네 음행을 없애 버릴 것이니, 네가 다시는 그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고 애굽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23:28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네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 곧 네 마음이 돌아선 자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23:29 그들이 미움으로 너를 다루어 네 수고의 열매를 다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빈 몸으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하여 네 음행의 부끄러운 곳, 곧 네 음란한 짓과 네 음행이 드러날 것이다.

23:30 네가 여러 민족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들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네게 닥칠 것이다.

23:31 네가 네 언니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쥐여 주겠다.'

23:32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깊고 큰 네 언니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 잔에 가득 담겨 있으므로, 너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3:33 너는 취함과 슬픔, 곧 놀람과 황폐의 잔,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23:34 너는 그 잔을 다 들이켜 비우고, 깨진 조각들을 씹으며, 네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3:35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네 등 뒤로 던져 버렸으니, 너 또한 네 음란한 짓과 네 음행의 대가를 짊어져야 한다.'"

23:36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알려 주어라.

23:37 그들이 간음을 저질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들과 간음하였으며, 나에게 낳아 준 아들들까지 우상들에게 삼켜지도록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23:38 게다가 그들은 내게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 바로 그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다.

23:39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성소를 더럽혔으니, 보아라, 그들이 내 집 한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였다.

23:40 더욱이 너희 자매는 먼 곳에서 오는 남자들을 사람을 보내어 불러들였다. 사자를 보내자 보아라, 그들이 찾아왔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몸을 씻고 눈화장을 하였으며, 장신구로 몸을 꾸몄다.

23:41 그리고 화려한 침상에 앉았고, 그 앞에는 상을 차려 놓았으며,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올려놓았다.

23:42 그 여인과 함께 평안히 지내는 무리의 소리가 있었고, 천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술주정뱅이들이 끌려왔다. 그들이 여인들의 손에 팔찌를 채워 주고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23:43 그때 내가 간음으로 늙은 그 여인을 두고 말하였다. '이제 그들이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를 것이며, 그 여인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23:44 사람들이 매춘부에게 들어가듯 그들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그들이 음란한 여인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들어갔다.

23:45 의로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심판하는 법과 피를 흘린 여인들을 심판하는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들이며,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23:46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칠 무리를 끌어올려, 그들이 공포와 약탈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23:47 그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벨 것이며,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23:48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음란한 짓을 그치게 하여, 모든 여인이 너희처럼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를 받게 할 것이다.

23:49 그들이 너희의 음란한 짓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며, 너희는 너희 우상들을 섬긴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4장

24:1 제구년 열째 달 열흘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4:2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날,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다가왔다.

24:3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마솥을 불 위에 얹어라. 얹어 놓고 물도 부어라.

24:4 고기 토막들을 그 안에 모아 넣되,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등 온갖 좋은 토막들을 다 넣어라. 고른 뼈들로 가득 채워라.

24:5 양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가마솥 아래에 뼈들을 삶을 나무를 쌓아 두어라. 푹 끓여서 뼈들까지 가마솥 안에서 푹 삶아지게 하여라.'"

24: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 흘린 성읍, 녹이 슬어 녹이 벗겨지지 않는 가마솥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고기 토막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라.

24:7 그 성읍이 흘린 피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성읍은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었고, 흙으로 덮으려고 땅에 쏟지 않았다.

24:8 분노를 일으켜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어 덮이지 않게 하였다.'

24:9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 흘린 성읍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장작더미를 크게 쌓겠다.

24:10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세게 지펴라. 고기를 푹 삶고 국물을 졸이며, 뼈들을 태워 버려라.

24:11 그런 다음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달구어지게 하여, 그 놋이 달아오르고 그 안의 더러운 것이 녹아내려 녹이 다 타 없어지게 하여라.

24:12 그 성읍이 수고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으니, 불 속에서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24:13 너의 더러움 속에 음란함이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 주었으나 네가 깨끗해지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향한 내 분노를 다 쏟아내기 전까지는 네가 다시는 네 더러움에서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다.

24:14 나 주님이 말하였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뜻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네 행실과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4:15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4:16 "사람의 아들아, 보아라, 내가 네 눈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단 한 번의 침으로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24:17 탄식하되 소리 내어 탄식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어라. 입술을 가리지 말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마라."

24:18 그리하여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

24:19 백성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24:20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4:21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며 너희 마음이 아끼는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남겨 두고 온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24:22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는 입술을 가리지도 않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빵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24:23 너희 머리에는 터번을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은 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을 것이며, 오직 너희 죄악 가운데서 야위어 가며 서로를 바라보며 신음할 것이다.

24:24 이렇게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4:25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힘,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쁨, 그들의 눈의 기쁨,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쏟는 것, 곧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는 날에,

24:26 바로 그 날에 피하여 도망한 사람이 네게로 와서 네 귀로 그 소식을 듣게 하지 않겠느냐?

24:27 그 날에 피하여 도망한 사람을 향해 네 입이 열려, 네가 말을 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장

25: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5: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암몬 자손으로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25:3 너는 암몬 자손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네가 그것을 보고 '아하!'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그것을 보고 '아하!' 하였으며,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을 보고 '아하!' 하였구나.

25: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네 땅에 진을 치고 네 안에 거처를 정할 것이다. 그들이 네 열매를 먹고 네 젖을 마실 것이다.

25:5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자손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6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네 마음속 깊은 멸시로 기뻐하였으니,

25: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뻗어 너를 여러 민족에게 약탈물로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니, 그때에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8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 족속도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를 바 없다' 하였구나.

25:9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국경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영광인 벧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으로부터 모압의 옆구리를 열어,

25:10 암몬 자손을 치러 가는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할 것이다.

25:11 내가 모압에 심판을 내릴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12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이 원수를 갚으려고 유다 족속을 대적하여 큰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 복수하였구나."

25:13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뻗어 사람과 짐승을 그에게서 끊어 버릴 것이며, 데만에서부터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드단에 이르기까지 칼에 쓰러질 것이다.

25: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에돔에 내 복수를 갚을 것이다. 그들이 내 분노와 진노를 따라 에돔에서 행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내 복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5:15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행하였고, 끊임없는 적개심으로 멸망시키고자 마음속 깊은 멸시로 원수를 갚았구나."

25:1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위에 내 손을 뻗어 그렛 사람들을 끊어 버리고, 바닷가에 남은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25:17 내가 분노에 찬 꾸짖음으로 그들에게 큰 복수를 집행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복수를 내릴 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6장

26:1 제십일년 어느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6:2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아하! 그 성읍이 무너졌다! 여러 민족의 관문이던 그곳이 내게 돌아왔다. 그곳이 황폐해졌으니 나는 다시 풍족해질 것이다.'

26:3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내가 많은 민족들을 이끌고 올라와 너를 치게 할 것이다.

26:4 그들이 두로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헐어 버릴 것이다. 나 또한 그에게서 흙먼지를 긁어내어 맨 바위로 만들겠다.

26:5 그 성읍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니,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여러 민족에게 약탈물이 될 것이다.

26:6 들에 있는 그의 딸과 같은 마을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6:7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북쪽에서 왕 중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과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두로로 끌어올 것이다.

26:8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과 같은 마을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그는 너를 대적하여 포위 요새를 세우고, 흙언덕을 쌓으며, 너를 향해 방패를 들어 올릴 것이다.

26:9 그는 네 성벽에 성벽 파괴용 철퇴들을 설치하고, 도끼로 네 망대들을 헐어 버릴 것이다.

26:10 그의 말이 너무나 많아서 그 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사람이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가듯 그가 네 성문들로 들어갈 때에, 기병들과 수레들과 병거들의 소리로 인해 네 성벽들이 흔들릴 것이다.

26:11 그가 자기 말들의 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가 네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기둥들은 땅으로 쓰러질 것이다.

26:12 그들이 네 재물을 약탈하고 네 상품들을 노략할 것이다. 그들이 네 성벽들을 헐고 네 아름다운 집들을 파괴할 것이며, 네 돌과 나무와 흙먼지를 물 한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26:13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니, 네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26:14 내가 너를 맨 바위로 만들겠다. 너는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니, 나 주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6:15 주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하고 네 안에서 학살이 일어날 때, 네가 쓰러지는 소리에 섬들이 뒤흔들리지 않겠느냐?

26:16 그때에 바다의 모든 군왕들이 왕좌에서 내려와 겉옷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벗어 던질 것이다. 그들은 떨림으로 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 매 순간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26:17 그들이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며 말할 것이다. "뱃사람들이 살던 명성 높은 성읍, 너와 네 주민들이 바다에서 강성하여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주던 성읍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26:18 이제 네가 몰락하는 날에 섬들이 떨 것이며, 참으로 바다에 있는 섬들이 네 사라짐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26:19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 때, 곧 깊은 바다를 네 위로 끌어올려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26:20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사람들에게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도록,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날부터 황폐해진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는 내가 영광을 둘 것이다.

26:21 내가 너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7장

27:1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전해졌다.

27:2 "너 사람의 아들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불러라.

27:3 두로에게 말하여라. '바다 어귀에 살면서 많은 섬의 뭇 백성과 무역하는 자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구나.

27:4 네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너를 지은 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27:5 그들이 스닐의 사이프러스나무로 네 모든 널빤지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네 돛대를 만들었다.

27:6 바산의 참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고, 깃딤 섬들의 사이프러스나무에 상아를 상감하여 네 갑판을 만들었다.

27:7 애굽에서 가져온 수놓은 고운 모시로 돛을 만들어 네 깃발로 삼았고, 엘리사 섬들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주색 천으로 네 차양을 만들었다.

27:8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노 젓는 자들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안에 있던 지혜자들이 네 항해사들이었다.

27:9 그발의 노인들과 그 지혜자들이 네 안에서 배 틈을 메우는 자들이 되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뱃사람들이 네 안에서 네 물품을 거래하였다.

27:10 바사와 룻과 붓 사람이 네 군대 안에서 네 전사들이 되었다. 그들이 네 안에서 방패와 투구를 걸어 네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27:11 아르왓 사람들은 네 군대와 함께 사방 네 성벽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망대들에 있었다. 그들이 사방 네 성벽 위에 방패를 걸어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27:12 온갖 풍부한 재물 때문에 다시스가 네 무역 상대가 되었으며, 은과 쇠와 주석과 납으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다.

27:13 야완과 두발과 메섹이 네 상인들이 되었으며, 사람의 목숨과 놋그릇으로 네 상품을 거래하였다.

27:14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다.

27:15 드단 사람들은 너와 무역하였고, 많은 섬들이 네 손의 시장이 되어 상아 뿔과 흑단을 네게 예물로 가져왔다.

27:16 네 손으로 만든 물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이 네 무역 상대가 되었으며, 옥과 자주색 천과 수놓은 것과 고운 모시와 산호와 루비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다.

27:17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네 상인들이 되었으며, 민닛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으로 네 상품을 거래하였다.

27:18 네가 만든 많은 물품과 온갖 풍부한 재물 때문에 다메섹이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로 네 무역 상대가 되었다.

27:19 위단과 야완은 길쌈한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제련된 쇠와 계피와 창포가 네 상품 가운데 있었다.

27:20 드단은 말을 탈 때 까는 귀한 안장 천으로 네 무역 상대가 되었다.

27: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은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로 너와 거래하는 고객들이었으며, 이런 것들로 너와 무역하였다.

27:22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이 네 상인들이었으며, 온갖 최고의 향료와 온갖 보석과 금으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다.

27:23 하란과 간네와 에덴, 스바의 상인들, 앗수르와 길맛이 네 상인들이었다.

27:24 이들은 아름다운 옷, 곧 청색 겉옷과 수놓은 옷, 그리고 끈으로 묶은 백향목 상자에 든 화려한 옷으로 네 상품 가운데서 너와 거래하던 상인들이었다.

27:25 다시스의 배들은 네 물품을 실어 나르는 대상단이었다. 너는 채워졌고, 바다 한가운데서 매우 영화롭게 되었다.

27:26 네 노 젓는 자들이 너를 깊은 물로 이끌었으나,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산산조각 내었다.

27:27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배 틈을 메우는 자들과 네 물품을 거래하는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모든 전사들과 네 가운데 있는 온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27:28 네 항해사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들판이 뒤흔들릴 것이다.

27:29 노를 잡은 모든 자와 뱃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항해사들이 배에서 내려 뭍에 서서,

27:30 너를 두고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머리에 흙먼지를 날리고 잿더미에 뒹굴 것이다.

27:31 그들이 너 때문에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고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마음의 비통함으로 너를 위해 울며 슬프게 애곡할 것이다.

27:32 그들이 통곡하며 너를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며 슬퍼하기를 '바다 한가운데서 잠잠해진 자, 두로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할 것이다.

27:33 네 상품들이 바다에서 나갈 때 너는 많은 백성을 만족시켰고, 네 풍부한 재물과 물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였다.

27:34 네가 바다 깊은 물에서 산산조각 나던 때에, 네 상품과 네 안의 온 무리가 함께 가라앉았다.

27:35 섬의 모든 주민들이 너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들의 왕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이 일그러졌다.

27:36 뭇 백성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보고 쉭쉭 비웃으니, 너는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였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할 것이다.""

28장

28:1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28:2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였구나. 네 마음을 신의 마음처럼 여길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28:3 보아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어떤 비밀도 네게 숨겨지지 않는구나.

28:4 네 지혜와 명철로 재물을 얻었고, 네 곳간에 금과 은을 모아들였다.

28:5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늘렸고, 그 재물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28: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겼으므로,

28:7 보라,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 두려운 자들을 너에게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고, 네 찬란한 빛을 더럽힐 것이다.

28:8 그들이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릴 것이며,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해당한 자들의 죽음처럼 죽을 것이다.

28:9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겠느냐? 너를 상하게 하는 자의 손 안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다.

28:10 너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처럼 죽을 것이니,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8:11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28:12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부르며 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인장이었고, 지혜로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28:13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다. 온갖 보석이 너를 꾸몄다.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크리솔라이트, 오닉스, 벽옥, 사파이어, 터키석, 녹주석이 있었다. 금으로 세공한 탬버린과 피리가 네게 있었다. 그것들은 네가 창조되던 날에 준비되었다.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 덮는 일을 하는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세웠다. 너는 불의 돌들 사이를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28:15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네 길에서 온전하더니, 마침내 네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

28:16 네 무역이 풍성해지면서 네 안이 폭력으로 가득 차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너 덮는 그룹아, 내가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망시켰다.

28:17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 영화 때문에 네 지혜를 타락시켰다. 내가 너를 땅에 내던졌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구경거리로 삼게 하였다.

28:18 네 수많은 죄악과 불의한 무역으로 네가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삼키게 하였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너를 땅 위의 재가 되게 하였다.

28:19 여러 민족 가운데 너를 아는 사람은 모두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8:20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28:21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곳을 쳐서 예언하여라.

28:22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돈아,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네 한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성읍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8:23 내가 전염병을 그 안으로 보내고 그 거리들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칼이 덮쳐 부상당한 자들이 그 안에서 쓰러질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8:24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던 주변의 모든 자들 가운데서 찌르는 가시나 고통을 주는 찔레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8:25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흩어져 살던 여러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들이고,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28:26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멸시하던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내가 심판을 집행할 때에,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9장

29:1 제십년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9:2 "사람의 아들아, 애굽 왕 바로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와 온 애굽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29: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 왕 바로야,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워 있는 거대한 괴물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구나.

29:4 내가 네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네 강의 물고기들이 네 비늘에 달라붙게 하겠다. 네 비늘에 달라붙은 네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한가운데서 끌어내겠다.

29:5 내가 너와 네 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내던질 것이니, 네가 빈 들판에 쓰러질 것이며, 다시 모이거나 거두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다.

29:6 그때 애굽의 모든 주민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9:7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았을 때 너는 부러져 그들의 어깨를 모두 찢어 놓았고, 그들이 네게 기댔을 때 너는 부러져 그들의 허리를 모두 마비시켰다."

29:8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칼을 끌어들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리겠다.

29:9 애굽 땅은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강은 내 것이며, 내가 만들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29:10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세베네 탑에서부터 구스 국경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을 철저한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겠다.

29:11 사람의 발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사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29:12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해진 나라들 한가운데서 황무지로 만들겠고, 그 성읍들도 무너진 성읍들 가운데서 사십 년 동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애굽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고,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다."

29:1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십 년이 끝날 때에 내가 흩어졌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29:14 내가 애굽의 포로 생활을 되돌려, 그들이 태어난 땅인 바드로스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서 그들은 보잘것없는 왕국이 될 것이다.

29:15 그곳은 가장 미약한 왕국이 되어 다시는 다른 민족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다시는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

29:16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의 신뢰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죄악을 떠올려 주는 것일 뿐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29:17 제이십칠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29:18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두로를 치는 데 큰 고역을 치르게 했다. 모든 머리가 벗겨지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다.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는 두로를 쳐서 치른 그 고역에 대해 두로에서 아무 보수도 얻지 못했다.

29:19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그가 애굽의 무리를 잡아가고, 노략질을 하며, 약탈물을 취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될 것이다.

29:20 그들이 나를 위해 일했으므로, 내가 그가 치른 고역의 대가로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29:21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해 뿔이 돋아나게 하겠고, 그들 가운데서 네 입을 열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장

30:1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전해졌다.

30:2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울부짖으며 '아, 슬픈 그 날이여!' 하고 외쳐라.

30:3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구름 낀 날이며 여러 민족들의 심판 때가 될 것이다.

30:4 칼이 애굽에 닥칠 것이며,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쓰러질 때 구스에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애굽의 무리를 잡아가고, 애굽의 기초들이 무너질 것이다.

30:5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동맹한 땅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30: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며, 그 권세의 교만도 무너질 것이다. 세베네 망대에서부터 그 안에서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0:7 "그들은 황폐해진 나라들 한가운데서 황폐해질 것이며, 그 성읍들은 무너진 성읍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30:8 내가 애굽에 불을 지르고 그를 돕는 모든 자가 파멸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9 그날에 사자들이 배를 타고 내 앞에서 나가 방심하고 있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애굽의 날과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보아라,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30:10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애굽의 무리를 끊어 버리겠다.

30:11 그와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곧 민족들 가운데서도 무서운 자들이 끌려와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애굽을 치고 죽임당한 자들로 그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30:12 내가 강들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30:1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또한 우상들을 없애고, 놉에서 신상들을 끊어 버리겠다. 애굽 땅에서 다시는 통치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 공포를 불어넣겠다.

30:14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에 심판을 내리겠다.

30:15 내가 애굽의 요새인 신 위에 내 분노를 쏟아붓고, 노의 무리를 끊어 버리겠다.

30:16 내가 애굽에 불을 지를 것이니, 신은 큰 고통에 휩싸일 것이며, 노는 깨어지고, 놉은 대낮에 대적들을 맞을 것이다.

30:17 아웬과 피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 성읍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30:18 내가 다합느헤스에서 애굽의 멍에를 꺾을 때, 거기서 낮도 어두워질 것이다. 애굽의 힘의 교만이 그 안에서 그치고, 짙은 구름이 그 땅을 덮으며, 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30:19 이렇게 내가 애굽에 심판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20 제십일년 첫째 달 초이렛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0:21 "사람의 아들아,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보아라, 약을 바르지도 못했고 붕대로 싸매지도 못하여 칼을 쥘 만큼 다시 강해지지 못했다.

30:22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의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다 꺾어 버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30:23 내가 애굽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다.

30:24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여 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꺾어 버릴 것이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30:25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떠받쳐 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쥐여 주고 그가 애굽 땅을 향해 그 칼을 뻗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26 내가 애굽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어 놓을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1장

31:1 제십일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1:2 "사람의 아들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네 위대함에 비길 자가 누구인가?

31:3 보아라, 앗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니, 가지가 아름답고 숲처럼 그늘이 짙으며 키가 컸고, 그 우두머리 가지는 울창한 잎사귀 사이에 솟아 있었다.

31:4 물들이 그것을 자라게 했고, 깊은 샘이 그것을 키워 주었다. 그 시내들은 그것이 심긴 곳 사방으로 흘렀고, 들판의 모든 나무로 물길을 뻗어 보냈다.

31:5 그러므로 그 키가 들판의 모든 나무보다 높이 솟았고 굵은 가지가 번성했다. 물이 풍부했으므로 가지를 뻗칠 때마다 그 잔가지들이 길게 자라났다.

31: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굵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잔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았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 그늘 아래 살았다.

31:7 이렇게 그 위대함과 길게 뻗은 가지로 아름다웠으니, 그 뿌리가 풍부한 물가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31:8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그것을 가리지 못했고, 사이프러스나무들도 그 굵은 가지만 못했으며, 소나무들도 그 잔가지만 못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었다.

31:9 내가 그 가지들을 무성하게 하여 아름답게 꾸몄으므로,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에덴의 모든 나무가 그것을 부러워했다.'

31:10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키가 높아졌고 우두머리 가지를 울창한 잎사귀 사이에 두었으며 그의 마음이 높은 키로 교만해졌으므로,

31:11 내가 그를 민족들의 강한 통치자의 손에 넘겼다. 그가 반드시 그를 다룰 것이다. 내가 그의 사악함 때문에 그를 쫓아냈다.

31:12 이방인들, 곧 민족들의 포악한 자들이 그를 찍어 버려두었다. 그의 가지들은 산들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의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물길 곁에서 꺾였다.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그의 그늘에서 떠나가 그를 버려두었다.

31:13 공중의 모든 새가 그의 쓰러진 몸 위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가지들에 깃들 것이다.

31:14 이는 물가에 있는 어떤 나무도 키가 높다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며, 그 우두머리 가지를 울창한 잎사귀 사이에 두지 못하게 하고, 물을 마시는 그 어떤 힘센 나무도 높은 키를 자랑하며 서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땅 아래 깊은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31:15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스올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을 일으켰다. 내가 그를 위해 깊은 샘을 덮고 그 강들을 막았으며 큰 물들을 멈추게 했다.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해 슬퍼하게 했고 들판의 모든 나무가 그 때문에 맥을 잃었다.

31:16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스올로 떨어뜨릴 때, 그 쓰러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떨게 했다. 물을 마시던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나무들이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31:17 그들도 그와 함께 칼에 살육당한 자들에게로, 곧 스올로 내려갔다.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의 팔이 되어 그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이었다.

31:18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영광과 위대함에서 너와 견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질 것이다.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한가운데서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가 바로 이러하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2장

32:1 제십이년 열두째 달 초하루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2:2 "사람의 아들아, 애굽 왕 바로를 두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에 비유되었으나 실은 바다의 괴물과 같다. 네가 네 강들에서 솟구쳐 나와 발로 물을 흐려 놓고 그 강들을 더럽혔다.'"

32: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네 위에 내 그물을 치겠다.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릴 것이다.

32:4 내가 너를 땅에 버려두고 빈 들판에 내던져 공중의 모든 새가 네 위에 내려앉게 하겠으며 온 땅의 짐승들을 너로 배부르게 하겠다.

32:5 내가 네 고기를 산들 위에 두고 네 거대한 시체로 골짜기들을 채우겠다.

32:6 네가 헤엄치던 땅을 네 피로 적시되 산들에까지 미치게 하겠고 물길들이 너로 가득 찰 것이다.

32:7 내가 너를 꺼뜨릴 때 하늘을 덮어 그 별들을 어둡게 하겠다. 내가 구름으로 해를 덮을 것이며 달도 그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32:8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네 위에서 어둡게 하고 네 땅에 어둠을 내리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2:9 "내가 너의 파멸 소식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전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겠다.

32:10 그렇다,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많은 백성이 너를 보고 경악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해 몹시 두려워할 것이다. 네가 쓰러지는 날에 그들은 저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매 순간 떨 것이다."

32:11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바벨론 왕의 칼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32:12 내가 용사들의 칼로 네 무리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자들이다.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짓밟아 없앨 것이며 그 모든 무리가 멸망할 것이다.

32:13 내가 또한 큰 물가에 있는 애굽의 모든 짐승을 없앨 것이니 사람의 발도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짐승의 굽도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32:14 그때 내가 그들의 물을 맑게 하고 그 강들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2:15 "내가 애굽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한때 가득 찼던 것들을 모두 잃은 땅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을 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2:16 이것이 그들이 부를 슬픔의 노래이다.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들이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두고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2:17 또한 제십이년 그 달 보름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2:18 "사람의 아들아,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통곡하여라. 애굽과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던져 버려라.

32:19 '네가 누구보다 아름답단 말이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32:20 그들은 칼에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애굽은 칼에 넘겨졌으니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끌어내어라.

32:21 용사들 가운데 힘센 자들이 그를 돕던 자들과 함께 스올 한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려왔다. 칼에 살육당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누워 있구나.'

32:22 거기에 앗수르와 그의 온 무리가 있고 그 무덤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살육당하여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32:23 그 무덤들이 구덩이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그의 무리가 그의 무덤 주위에 있으니 모두 살육당하여 칼에 쓰러진 자들이며 한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 공포를 떨치던 자들이다.

32:24 거기에 엘람과 그의 무덤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무리가 있다. 그들은 모두 살육당하여 칼에 쓰러져 할례받지 않은 채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공포를 떨쳤으나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짊어졌다.

32:25 사람들이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엘람과 그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마련하였다. 그의 무덤들이 사방에 둘러 있으니 모두 할례받지 않은 자요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공포를 떨쳤으나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짊어지고 살육당한 자들 가운데 두어졌다.

32:26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들의 모든 무리가 있다. 그들의 무덤이 주위에 둘러 있으니 모두 할례받지 않은 자요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공포를 떨쳤기 때문이다.

32:27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간 넘어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못할 것이다. 그 용사들은 칼을 자기 머리 밑에 베고 누웠으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뼈 위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용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32:28 그러나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부러져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32:29 거기에 에돔과 그 왕들과 모든 통치자들이 있다. 그들이 용맹을 떨쳤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웠으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32:30 거기에 북쪽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으니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들이 용맹으로 공포를 떨쳤으나 수치를 당하였고 할례받지 않은 채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누워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짊어졌다.

32: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자기의 모든 무리를 두고 위로를 받을 것이니 곧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2:32 "내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 그의 공포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니 곧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3장

33: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33:2 "사람의 아들아, 네 민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끌어들일 때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33:3 그가 그 땅에 칼이 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했는데,

33:4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아 칼이 닥쳐 그를 데려가 버리면, 그의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33:5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경고를 새겨들었더라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졌을 것이다.

33:6 그러나 칼이 닥치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칼이 닥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끌려간 것이지만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물을 것이다.'

33:7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여라.

33:8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네가 그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네 손에서 물을 것이다.

33:9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네 목숨을 건진 것이다.

33:10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위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33:11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33:12 사람의 아들아, 너는 네 민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도 그가 자기 악에서 돌아서는 날에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범죄하는 날에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33:13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가 자기 의로움을 믿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33:14 다시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아서서 법과 정의를 행하면,

33:15 그 악인이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돌려주며 생명의 규례를 따라 걸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33:16 그가 저지른 어떤 죄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법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33:17 그런데도 네 민족의 자손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길이다.

33:18 의인이 자기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악을 저지르면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33:19 그러나 악인이 자기 악에서 돌아서서 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33:20 그런데도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33:21 우리가 사로잡혀 온 지 제십이년 열째 달 닷샛날에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33:22 그 탈출한 사람이 오기 전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셨고, 그 사람이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 주셨다. 그리하여 내 입이 열려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상태로 있지 않았다.

33:23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33:24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그 황폐한 곳들에 사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뿐이었는데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구나.

33: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피째 고기를 먹고 너희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며 피를 흘린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33:26 너희는 자기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며 각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고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33:27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폐한 곳들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며 빈 들판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짐승들에게 먹이로 넘겨줄 것이다. 산성과 동굴 속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33:28 내가 이 땅을 폐허와 놀람거리가 되게 하겠고 그 힘의 교만이 그치게 하겠다.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33:29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폐허와 놀람거리가 되게 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3:30 "사람의 아들아, 네 민족의 자손들이 담장 곁과 집 문간에서 너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자, 가서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 보자' 하는구나.

33:31 그들은 백성이 모여들듯 네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큰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 잇속만을 좇기 때문이다.

33:32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부르는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와 같을 뿐이다. 그들이 네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33:33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보아라, 그 일이 오고 있으니, 그때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34장

34:1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셨다.

34: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목자들이 양 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34:3 너희는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으며 살진 양을 잡지만 양 떼는 먹이지 않는다.

34:4 너희는 병든 양을 튼튼하게 하지 않았고, 아픈 양을 고쳐 주지 않았다. 부러진 곳을 싸매 주지도, 쫓겨난 양을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힘과 가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34:5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졌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34:6 내 양들이 온 산과 모든 높은 언덕을 헤매 다녔다. 그렇다, 내 양들이 온 땅에 흩어졌으나 찾아다니거나 수소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34:7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4:8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내 양들이 먹잇감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은 내 양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고 목자들은 자기 자신만 먹이고 내 양들은 먹이지 않았다.

34:9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4:10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다.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고 그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게 그만두게 하겠다. 목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34:11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 자신이 직접 내 양들을 찾고 찾아낼 것이다.

34:12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양들을 찾아낼 것이다. 구름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졌던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34:13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이끌어 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오겠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과 물가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사는 곳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34:14 내가 그들을 좋은 목초지에서 먹일 것이니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들의 기름진 목초지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34:15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눕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4:16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쫓겨난 양을 데려오며, 부러진 곳을 싸매고 병든 양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진 양과 힘센 양은 없앨 것이다. 내가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34:17 "내 양 떼인 너희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

34:18 너희가 좋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져서 남은 풀밭마저 너희 발로 짓밟아야 하겠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아서 남은 물마저 너희 발로 더럽혀야 하겠느냐?

34:19 내 양들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먹어야 하고 너희 발로 더럽힌 물을 마셔야 하는구나.'

34:20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

34: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붙이고 뿔로 병든 양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밖으로 흩어 버렸으므로,

34:22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

34:23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다. 곧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34:24 나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34:25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며 숲속에서도 잠을 잘 것이다.

34:26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의 모든 곳을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릴 것이니 축복의 소나기가 될 것이다.

34:27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출을 내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노예로 삼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4:28 그들이 다시는 이방 민족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34: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름난 밭을 가꾸어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쓰러지지 않고 민족들의 수치를 다시는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34:30 그때 그들은 나 주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 곧 이스라엘 집안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4:31 '너희는 내 양 떼요 내 목초지의 양들인 사람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5장

35:1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5:2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것에 맞서 예언하여라.

35:3 그것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네 위에 내 손을 뻗어 너를 황무지와 놀람거리가 되게 하겠다.

35:4 내가 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겠고 너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5:5 네가 끊임없이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의 재난의 때, 곧 마지막 죄악의 심판 때에 그들을 칼의 권세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35:6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피에 내어 줄 것이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니 피가 너를 뒤쫓을 것이다.

35:7 이렇게 내가 세일산을 놀람거리와 황무지로 만들겠고 그곳을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를 그에게서 끊어 버리겠다.

35:8 내가 그 산들을 살육당한 자들로 채울 것이니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네 언덕들과 골짜기들과 모든 물길에 쓰러질 것이다.

35:9 내가 너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고 네 성읍들에는 다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5:10 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음에도 이 두 민족과 이 두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35:11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그들을 향한 미움으로 나타낸 네 분노와 시기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알리겠다.

35:12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그 산들이 황폐해져 우리에게 삼킬 먹이로 주어졌다' 하고 모욕한 모든 말을 나 주님이 들었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35:13 너희가 입으로 나를 거슬러 우쭐대며 나를 대적하여 많은 말을 쏟아내었으니 내가 그것을 다 들었다."

35:14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 땅이 기뻐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35:15 이스라엘 집안의 기업이 황폐해졌다고 해서 네가 기뻐했던 것처럼 나도 네게 그대로 행하겠다.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곧 에돔 전체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6장

36:1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6:2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여 "하하! 옛 산당들이 우리의 차지가 되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36:3 그러므로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서 삼켜 너희가 남은 다른 민족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으며, 너희가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36: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들과 언덕들과 물길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폐허들과 버림받은 성읍들, 곧 사방에 남은 민족들에게 먹잇감과 조롱거리가 된 곳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36:5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내 불타는 질투로 남은 민족들과 온 에돔을 향해 말하였다. 그들은 내 땅을 먹잇감으로 내쫓으려고 온 마음의 기쁨과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다."

36: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예언하고, 산들과 언덕들과 물길들과 골짜기들을 향하여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너희가 여러 민족의 수치를 짊어졌으므로 내가 내 질투와 분노 가운데서 말하였다."

36:7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맹세하였으니,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정녕 자기들의 수치를 짊어질 것이다.

36: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36:9 보아라, 내가 너희 편이며 너희에게로 돌아설 것이니, 너희가 일구어지고 씨 뿌려질 것이다.

36:10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의 수를 늘리되 온 이스라엘 집안, 곧 그 전체를 늘리겠다.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폐허가 된 곳들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36: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늘릴 것이니 그들이 번성하고 자손을 많이 낳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하고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6:12 그렇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너희 위를 걷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차지하여 네가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며, 너는 다시는 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36:1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너를 향해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네 민족의 자식을 빼앗아 간 땅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36:14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네 민족에게서 자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6:15 "내가 다시는 민족들의 수치를 네가 듣지 않게 하겠고 백성들의 비방을 네가 다시는 짊어지지 않게 하겠으며 네 민족을 다시는 비틀거리게 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6:16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36:17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 길과 행동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은 불결한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36:18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 때문에, 또 그들이 우상들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 위에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36:19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으며 그들이 여러 나라로 쫓겨났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했다.

36:20 그들이 이르렀던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들은 주님의 백성인데도 그분의 땅에서 떠나야 했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36:21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찾아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36: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36:23 너희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더럽힌 내 큰 이름, 곧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여러 민족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36:24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겠다.

36:25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게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36:26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겠다.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겠다.

36:27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어 너희로 내 규례를 따르게 하겠으니, 너희가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36:28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36:29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곡식을 불러 번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

36:30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을 늘려 너희가 다시는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의 수치를 겪지 않게 하겠다.

36:31 그때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못했던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36:32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여라."

36:3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하겠고 폐허가 된 곳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36:34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에 황폐해 보이던 그 황무지가 경작될 것이다.

36:35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허물어졌던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민들이 산다' 할 것이다.

36:36 그때 너희 주위에 남아 있는 민족들은 나 주님이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황폐했던 곳에 나무를 심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36:37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이 또한 이것을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이루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니, 곧 내가 양 떼처럼 사람의 수를 늘려 주는 것이다.

36:38 제사에 바칠 양 떼처럼,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양 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의 양 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7장

37:1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다.

37:2 주님께서 나를 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보아라, 그 넓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았고, 보아라, 그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37: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37:4 그분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37:5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37:6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얹고 살이 오르게 하며 피부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7:7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예언하는 동안 소리가 났고, 보라,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뼈들이 서로 맞는 뼈와 붙었다.

37:8 내가 바라보니, 보아라,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으며 그 위로 피부가 덮였으나, 그들 속에 아직 숨은 없었다.

37:9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람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고 바람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숨아, 사방의 바람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라.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37:10 그리하여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니,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는데 대단히 큰 군대였다.

37:11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보아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한다.

37:12 그러므로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37:13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끌어올릴 때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7:14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나 주님이 말하고 이루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37:15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전해졌다.

37:16 "너 사람의 아들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써라. 그런 다음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인 요셉과 그의 동료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라고 써라.

37:17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맞붙여 막대기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37:18 네 민족의 자손들이 네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37:19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막대기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니,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37:20 네가 글을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쥐고 있어라.'

37:2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본토로 데려오겠다.

37:22 내가 그들을 그 땅,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한 나라로 만들겠고,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37:23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이나 가증한 물건들이나 그 어떤 범죄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37:25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37:26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둘 것이다.

37:27 내 거처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7:28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 민족들은 나 주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38장

38: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졌다.

38:2 "사람의 아들아,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

38:3 그리고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인 곡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38:4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네 턱에 갈고리를 꿰어, 너와 네 모든 군대, 곧 말과 기병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모두 완전무장을 갖추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능숙하게 칼을 다루는 큰 군대다.

38:5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하며, 모두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다.

38:6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 북쪽 끝자락의 도갈마 집안과 그의 모든 부대, 곧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다.

38:7 너는 준비를 갖추어라. 그래, 너와 네게 모여든 모든 무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너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라.

38:8 여러 날 뒤에 네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네가 한 땅으로 진군할 텐데, 그 땅은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여든 백성이 사는 땅이다. 그곳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산들이었지만, 그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인도되어 나와 이제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38:9 너는 올라올 것이다. 너는 폭풍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땅을 뒤덮는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38:10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너는 악한 계획을 꾸밀 것이다.

38:11 너는 말할 것이다. "성벽이 없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겠다.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히 사는 이들, 곧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문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겠다.

38:12 그리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노획물을 차지하며, 폐허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여 가축과 재산을 얻고 세상 중심에 사는 백성을 손으로 칠 것이다."

38:13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네게 물을 것이다. "네가 물건을 약탈하려고 왔느냐? 네가 노획물을 챙기고 은과 금을 털어가며, 가축과 재산을 빼앗고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하려고 네 군대를 모았느냐?"'

38: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 곡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38:15 너는 북쪽 끝에 있는 네 처소에서 올 것인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모두 말을 탄 큰 무리이자 막강한 군대가 함께 올 것이다.

38:16 너는 땅을 뒤덮는 구름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다. 곡아,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데려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38:17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에 내 종들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했던 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그들은 그 당시에 여러 해 동안 내가 너를 데려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38:18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날에, 내 분노가 콧김처럼 치솟을 것이다.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분노 속에서 말하였다. 참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38:20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38:21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 모든 산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이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38:22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쏟아붓는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38:23 이렇게 내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많은 민족의 눈앞에 나를 알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장

39:1 "너 사람의 아들아, 곡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인 곡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39:2 내가 너를 돌려세워 이끌고,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갈 것이다.

39:3 내가 네 왼손에서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네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39:4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에서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갖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잇감으로 내줄 것이다.

39:5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빈 들판에 쓰러질 것이니,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39:6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내가 주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8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 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날이다.

39:9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을 땔감 삼아 불태울 것이니,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가지고 칠 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다.

39:10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않고 숲에서 나무를 베지도 않을 것이니, 무기들을 땔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략질하던 자들을 노략질하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던 자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39:11 그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매장지를 줄 것인데, 곧 바다 동쪽에 있는 여행자들의 골짜기다.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서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39:12 이스라엘 집안이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묻을 것이다.

39:13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며, 내가 영광을 받는 그날에 그 일은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39:14 그들은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상시로 고용되어 그 땅을 두루 다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울 것이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땅 위에 남아 있는 시신들을 묻는 자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일곱 달이 지난 뒤에 그들이 자세히 수색할 것이다.

39:15 그 땅을 수색하는 이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둘 것이다.

39:16 한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39:17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갖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모여서 오너라. 사방에서 내 제물로 모여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치는 제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차려진 큰 제물로 모여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39:18 너희는 용사들의 고기를 먹고 세상 군주들의 피를 마실 것인데, 마치 바산의 살진 짐승인 숫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황소들을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39:19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친 제물에서 기름진 것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39:20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마부, 용사와 모든 군사로 배부를 것이다."'

39:2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내가 집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될 것이다.

39:22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안은 그날 이후로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집안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졌던 것이다.

39:24 나는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죄를 따라 그들에게 갚아 주었으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

39:25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을 되돌려 놓고 온 이스라엘 집안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쏟을 것이다.

39:26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갈 때, 자신들의 수치와 내게 지었던 모든 반역을 잊을 것이다.

39:27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들여, 많은 민족의 눈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39:28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모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포로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9:29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안에 부어 주었으므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않을 것이다.'"

40장

40:1 우리가 포로로 잡혀 온 지 스물다섯째 해, 새해 첫 달 열흘날, 곧 성읍이 함락된 지 열네째 해 되던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다.

40:2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 남쪽에는 성읍의 건물 구조 같은 것이 있었다.

40:3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구리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삼줄과 측량 갈대를 손에 쥐고 문간에 서 있었다.

40:4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가 네게 보여 줄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내가 네게 이것들을 보여 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 전하여라."

40:5 보라, 성전 바깥 사방으로 벽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각 척마다 손바닥 너비 하나를 더한 여섯 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가 들려 있었다. 그가 그 건축물의 두께를 재니 갈대 하나였고, 높이도 갈대 하나였다.

40:6 그런 다음 그는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문의 문턱을 재니 너비가 갈대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너비가 갈대 하나였다.

40:7 각 방은 길이가 갈대 하나, 너비가 갈대 하나였으며, 방들 사이의 간격은 다섯 큐빗이었다. 성전 쪽을 향한 문 현관 곁에 있는 문턱은 갈대 하나였다.

40:8 그는 또한 성전 쪽을 향한 문 현관을 재었는데, 갈대 하나였다.

40:9 그가 문 현관을 재니 여덟 큐빗이었고, 그 기둥들은 두 큐빗이었으며, 문의 현관은 성전을 향해 있었다.

40:10 동쪽 문의 곁방들은 이쪽에 셋, 저쪽에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의 치수가 모두 같았다. 기둥들도 이쪽과 저쪽의 치수가 같았다.

40:11 그가 문 입구의 너비를 재니 열 큐빗이었고, 문의 길이는 열세 큐빗이었다.

40:12 곁방들 앞에는 이쪽에 한 큐빗의 난간이 있고 저쪽에도 한 큐빗의 난간이 있었으며, 곁방들은 이쪽이 여섯 큐빗이고 저쪽도 여섯 큐빗이었다.

40:13 그가 한 곁방 지붕에서 맞은편 곁방 지붕까지 문을 재니, 서로 마주 보는 문과 문 사이의 너비가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14 그는 또한 예순 큐빗 높이의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문 사방의 뜰이 그 기둥들에 이르렀다.

40:15 바깥 입구 문 앞면에서 안쪽 문 현관 앞면까지의 거리는 쉰 큐빗이었다.

40:16 곁방들과 문 안쪽 사방의 기둥들에는 살창이 있었고, 아치 통로에도 마찬가지였다. 창문들이 안쪽 사방으로 나 있었고, 각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40:17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들어갔다. 보라, 뜰 사방으로 방들이 있고 돌이 깔린 바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돌 바닥 위에는 서른 개의 방이 있었다.

40:18 돌 바닥은 문들의 측면을 따라 문들의 길이에 맞춰 이어졌는데, 이것이 아래쪽 돌 바닥이었다.

40:19 그가 아래쪽 문 앞면에서 안뜰 바깥 앞면까지의 너비를 재니, 동쪽과 북쪽 모두 백 큐빗이었다.

40:20 그는 바깥뜰에서 북쪽을 향한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40:21 그 문의 곁방들도 이쪽에 셋, 저쪽에 셋이 있었다. 그 기둥들과 아치 통로는 첫 번째 문의 치수와 같았는데, 길이가 쉰 큐빗이고 너비가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22 창문들과 아치 통로와 종려나무들도 동쪽을 향한 문의 치수와 같았다. 일곱 계단을 올라가 그 문에 이르렀고, 아치 통로는 그 앞에 있었다.

40:23 북쪽과 동쪽 모두, 그 문을 마주 보는 안뜰 문이 있었다. 그가 문에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백 큐빗이었다.

40:24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인도하였는데, 보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기둥들과 아치 통로를 재니 이 치수들과 같았다.

40:25 그 문과 아치 통로 사방에도 다른 창문들처럼 창문들이 나 있었는데, 길이는 쉰 큐빗이고 너비는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26 거기로 올라가는 일곱 계단이 있었고, 아치 통로는 그 앞에 있었다. 기둥들 위에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씩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40:27 남쪽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그가 남쪽으로 문에서 문까지의 거리를 재니 백 큐빗이었다.

40:28 그가 남쪽 문을 통해 나를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남쪽 문을 재니 이 치수들과 같았다.

40:29 그 곁방들과 기둥들과 아치 통로도 이 치수들과 같았다. 그 문과 아치 통로 사방에는 창문들이 있었고, 길이는 쉰 큐빗이며 너비는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30 사방에 아치 통로들이 있었는데, 길이는 스물다섯 큐빗이고 너비는 다섯 큐빗이었다.

40:31 그 아치 통로는 바깥뜰을 향해 있었고, 기둥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40:32 그가 나를 동쪽으로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그 문을 재니 이 치수들과 같았다.

40:33 그 곁방들과 기둥들과 아치 통로도 이 치수들과 같았다. 그 문과 아치 통로 사방에는 창문들이 있었고, 길이는 쉰 큐빗이며 너비는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34 그 아치 통로는 바깥뜰을 향해 있었고, 이쪽과 저쪽 기둥들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40:35 그가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가서 치수를 재었는데, 이 치수들과 같았다.

40:36 곧 곁방들과 기둥들과 아치 통로가 그러하였고, 사방에 창문들이 있었다. 길이는 쉰 큐빗이고 너비는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40:37 그 기둥들은 바깥뜰을 향해 있었고, 이쪽과 저쪽 기둥들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거기로 올라가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40:38 문들의 기둥들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번제물을 씻었다.

40:39 문의 현관 안쪽 이쪽에 상 둘, 저쪽에 상 둘이 있어, 그 위에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았다.

40:40 북쪽 문 입구로 올라가는 바깥쪽 한편에 상 둘이 있었고, 문 현관에 속한 다른 편에도 상 둘이 있었다.

40:41 문 곁 이쪽에 상 넷, 저쪽에 상 넷이 있어 모두 여덟 개의 상이 있었으며, 그 위에서 제물을 잡았다.

40:42 번제물을 위해 다듬은 돌로 만든 상 넷이 있었는데, 길이는 한 큐빗 반, 너비는 한 큐빗 반, 높이는 한 큐빗이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는 기구들을 그 위에 두었다.

40:43 손바닥 너비만 한 갈고리들이 안쪽 사방에 고정되어 있었고, 상들 위에는 제물의 고기가 놓였다.

40:44 안쪽 문 바깥, 북쪽 문 곁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남쪽을 향해 있었다. 동쪽 문 곁에 있는 방 하나는 북쪽을 향해 있었다.

40:45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40: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독의 자손들이다."

40:47 그가 뜰을 재니, 길이가 백 큐빗이고 너비가 백 큐빗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40:48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각 기둥을 재니, 이쪽이 다섯 큐빗이고 저쪽이 다섯 큐빗이었다. 문의 너비는 이쪽이 세 큐빗이고 저쪽이 세 큐빗이었다.

40:49 현관의 길이는 스무 큐빗이고 너비는 열한 큐빗이었으며, 사람들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기둥들 곁에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씩 기둥이 서 있었다.

41장

41:1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가서 기둥들을 재니, 이쪽 기둥 너비가 여섯 큐빗이고 저쪽 기둥 너비가 여섯 큐빗이었는데, 이것이 장막의 너비였다.

41:2 입구의 너비는 열 큐빗이었고, 입구 양쪽 벽은 이쪽이 다섯 큐빗, 저쪽이 다섯 큐빗이었다. 그가 길이를 재니 마흔 큐빗이었고, 너비는 스무 큐빗이었다.

41:3 그런 다음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입구 기둥을 재니 두 큐빗이었고, 입구는 여섯 큐빗이었으며, 입구의 너비는 일곱 큐빗이었다.

41:4 그가 성소 앞쪽을 재니 길이는 스무 큐빗이고 너비는 스무 큐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곳이 지성소다."

41:5 그런 다음 그가 성전 벽을 재니 여섯 큐빗이었고, 성전 사방을 둘러싼 각 곁방의 너비는 네 큐빗이었다.

41:6 곁방들은 삼 층으로 되어 층마다 서른 개씩 포개져 있었다. 곁방들이 사방으로 성전 벽에 닿아 있었으나 성전 벽 자체를 파고들지 않고 턱에 얹혀 지탱되도록 되어 있었다.

41:7 위층으로 갈수록 성전 벽이 좁아졌으므로 곁방들은 더 넓어졌다.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건물 전체의 너비가 넓어지는 구조였으며,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41:8 내가 보니 성전 사방에 돋우어 쌓은 기초 바닥이 있었다. 곁방들의 기초는 큰 큐빗으로 꽉 찬 한 갈대, 곧 여섯 큐빗이었다.

41:9 곁방 바깥벽의 두께는 다섯 큐빗이었다. 곁방들과 성전에 속한 공간 사이에 빈 터가 남아 있었다.

41:10 성전 사방을 둘러싼 방들 사이의 너비는 스무 큐빗이었다.

41:11 곁방 문들은 비어 있는 빈 터를 향해 났는데, 문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다른 문 하나는 남쪽을 향했다. 빈 터의 너비는 사방으로 다섯 큐빗이었다.

41:12 서쪽을 향한 분리된 구역 앞에 있는 건물은 너비가 일흔 큐빗이었다. 그 건물의 벽 두께는 사방으로 다섯 큐빗이었고, 길이는 아흔 큐빗이었다.

41:13 그가 성전을 재니 길이가 백 큐빗이었다. 분리된 구역과 건물과 그 벽들을 합한 길이도 백 큐빗이었다.

41:14 성전 정면과 동쪽을 향한 분리된 구역의 너비도 백 큐빗이었다.

41:15 그가 뒤편 분리된 구역 앞에 있는 건물의 길이와 양쪽의 복도들을 재니 백 큐빗이었으며, 내부 성전과 뜰의 현관들도 그러하였다.

41:16 문턱들과 살창들과 삼 층으로 된 사방의 복도들, 그리고 문턱 맞은편 사방은 널판자로 둘러쳐져 있었고, 바닥에서 창문까지 판자로 덮여 있었다(창문들은 가려져 있었다).

41:17 문 윗공간과 안쪽 성전, 그리고 바깥에 이르기까지 안팎의 모든 벽을 치수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41:18 벽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씩이 있었고 각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41:19 한쪽으로는 사람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하고, 다른 쪽으로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성전 전체 사방 벽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었다.

41:20 바닥에서부터 문 윗공간에 이르기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벽이 다 이러하였다.

41:21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반듯하였다. 성소 정면의 모습도 성전의 모습과 같았다.

41:22 나무 제단은 높이가 세 큐빗이고 길이가 두 큐빗이었다. 모퉁이와 받침과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 앞에 있는 상이다."

41:23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겹문이 있었다.

41:24 문마다 두 짝씩 접히는 회전문이 있었는데, 한 문에 두 짝, 다른 문에도 두 짝이 있었다.

41:25 성소 문들 위에도 벽에 새긴 것처럼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41:26 현관 양쪽 벽에는 살창들과 종려나무들이 이쪽저쪽에 있었으니, 성전의 곁방들과 디딤판들이 다 이와 같이 꾸며져 있었다.

42장

42:1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뜰로, 곧 북쪽으로 난 길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분리된 구역 맞은편이자 북쪽 건물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42:2 길이가 백 큐빗인 북쪽 문을 마주하고 있었고, 너비는 쉰 큐빗이었다.

42:3 안뜰에 속한 스무 큐빗 맞은편과 바깥뜰에 속한 돌 바닥 맞은편으로, 삼 층에 걸쳐 복도가 복도와 마주 대하고 있었다.

42:4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너비가 열 큐빗인 복도가 있었고 한 큐빗 너비의 통로가 있었으며, 방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42:5 위층 방들은 더 좁았는데, 복도들이 아래층과 중간층 방들보다 위층 방들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42:6 그 방들은 삼 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장 위층은 바닥에서부터 아래층과 중간층보다 더 안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42:7 방들 곁 바깥쪽, 곧 방들 앞 바깥뜰을 향한 벽의 길이는 쉰 큐빗이었다.

42:8 바깥뜰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쉰 큐빗이었고, 보라, 성전을 마주한 방들의 길이는 백 큐빗이었다.

42:9 이 방들 아래쪽 동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42:10 동쪽 뜰 벽의 두께 속에도, 곧 분리된 구역 앞과 건물 앞에도 방들이 있었다.

42:11 그 방들 앞의 통로는 북쪽에 있는 방들의 모습과 같았다. 길이와 너비도 같았고, 모든 출입구와 구조와 문들도 동일했다.

42:12 남쪽을 향한 방들의 문들과 마찬가지로, 길 어귀, 곧 동쪽 벽 바로 앞길 어귀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다.

42:13 그때 그가 내게 말하였다. "분리된 구역 맞은편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을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은 가장 거룩한 제물들을 거기에 둘 것이다.

42:14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깥뜰로 나갈 때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거기에 벗어 두고 나가야 하니,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백성을 위한 구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42:15 그가 성전 내부 측량을 마친 뒤, 동쪽을 향한 문길로 나를 데리고 나와 사방을 측량하였다.

42:16 그가 측량 갈대로 동쪽을 재니, 측량 갈대로 사방이 오백 갈대였다.

42:17 그가 북쪽을 측량 갈대로 재니 사방이 오백 갈대였다.

42:18 그가 남쪽을 측량 갈대로 재니 오백 갈대였다.

42:19 그가 서쪽으로 돌아서서 측량 갈대로 재니 오백 갈대였다.

42:20 그가 사방을 재었다. 그곳에는 사방으로 둘러싼 벽이 있었는데, 길이가 오백 큐빗이고 너비가 오백 큐빗이었으며, 거룩한 구역과 속된 구역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었다.

43장

43:1 그 후에 그가 나를 문으로, 곧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갔다.

43:2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다.

43:3 그 광경은 내가 본 환상과 같았는데, 곧 그 성읍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보았던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3:4 주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43:5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43:6 한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성전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43:7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자리이며 내 발바닥이 머무는 자리니,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과 그들의 왕들이 음란한 행위와 산당에 둔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43:8 그들은 자기 문턱을 내 문턱 곁에 두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 나와 그들 사이에 벽 하나만 두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43:9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위와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워 버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43:10 너 사람의 아들아, 이 성전을 이스라엘 집안에 보여 주어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성전의 설계도를 측량하게 하여라.

43:11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성전의 모양과 구조, 그 출입구들과 전체 구조, 그리고 모든 규례와 양식과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써서 남겨, 그들이 그 모든 양식과 규례를 지키고 실행하게 하여라.

43: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꼭대기 주변의 모든 경계 구역은 가장 거룩할 것이다. 보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43:13 큐빗으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한 큐빗은 보통 큐빗에 손바닥 너비 하나를 더한 것이다). 바닥 받침은 높이가 한 큐빗, 너비가 한 큐빗이며, 그 가장자리를 두른 턱은 한 뼘이다. 이것이 제단의 받침이다.

43:14 땅에 닿은 바닥 받침에서 아래쪽 턱까지는 두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이며, 작은 턱에서 큰 턱까지는 네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이다.

43:15 번제단 윗부분은 네 큐빗이며, 번제단의 화덕에서부터 위쪽으로 솟은 네 개의 뿔이 있다.

43:16 번제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큐빗, 너비가 열두 큐빗으로 네 면이 정사각형이다.

43:17 그 턱은 네 면의 길이가 열네 큐빗, 너비가 열네 큐빗이며, 둘러싼 가장자리 테두리는 반 큐빗이고, 그 밑받침은 둘레가 한 큐빗이다. 그 계단은 동쪽을 향해 있다."

43:18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날에 지켜야 할 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43:19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어야 한다.

43:20 너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턱의 네 모퉁이와 사방 테두리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하여라.

43:21 또 속죄제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 성전의 정해진 처소에서 불태워라.

43:22 둘째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수소로 제단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43:23 네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뒤에는,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바쳐라.

43:24 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끌어다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3:25 이레 동안 너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하고, 또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양 떼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43:26 그들은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해야 한다.

43:27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날들을 다 채우고 나면, 여덟째 날 이후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44장

44:1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성소의 바깥문, 곧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44: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아 두고 열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44:3 오직 통치자만 통치자로서 주님 앞에서 빵을 먹기 위해 그 안에 앉을 수 있다. 그는 문 현관길로 들어왔다가 같은 길로 나가야 한다."

44:4 그런 다음 그가 북쪽 문길을 통해 나를 성전 앞으로 데려갔다. 내가 보니, 보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4:5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님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에 관해 내가 네게 일러 주는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눈으로 똑똑히 보며 귀로 잘 들어라. 성전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를 마음에 깊이 새겨라.

44:6 너는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짓을 이제 그만 그쳐라!

44:7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바칠 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와 내 성소, 곧 내 성전에 머물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짓에 더하여 내 언약을 깨뜨렸다.

44:8 너희는 내 거룩한 물건을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사람들을 세워 내 성소에서 내 직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44:9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이방인이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44:10 그러나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게서 멀리 떠나 우상을 따라간 레위 사람들은 자기 죄악의 짐을 질 것이다.

44:11 그래도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시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44:12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집안을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들었으니 그들이 자기 죄악의 짐을 질 것이다.

44:13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며, 내 거룩한 물건이나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한 짓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44: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세워, 성전의 모든 일과 그 안에서 행해질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44:15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성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것이다.

44:16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식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내가 맡긴 직무를 지킬 것이다.

44:17 그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는 가는 베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문 안쪽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는 양모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4:18 그들은 머리에 가는 베로 만든 터번을 쓰고 허리에는 가는 베바지를 입어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어떤 것도 몸에 둘러서는 안 된다.

44:19 그들이 바깥뜰, 곧 바깥뜰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44:20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오직 머리털을 단정하게 깎기만 해야 한다.

44:21 제사장들은 안뜰로 들어갈 때 아무도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44:22 그들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이스라엘 집안 혈통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44:23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어야 한다.

44:24 분쟁이 생기면 그들이 재판하기 위해 일어서야 하며, 내 규례를 따라 그것을 판결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한 모든 절기에서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44:25 그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아직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44:26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사람들은 그를 위해 이레를 세어야 한다.

44:27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성소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 자기 속죄제물을 바쳐야 한다.

44: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을 것이니, 내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소유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소유다.

44:29 그들은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헌물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44:30 모든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너희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 반죽의 첫 덩이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집에 복이 머물게 해야 한다.

44:31 제사장은 새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45:1 너희가 땅을 제비뽑아 기업으로 나눌 때, 너희는 주님께 거룩한 몫으로 땅의 한 부분을 바쳐야 한다. 그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이고 너비는 만 갈대다. 그 사방 모든 경계 구역이 거룩할 것이다.

45:2 이 가운데서 성소를 위한 구역은 가로 오백 큐빗, 세로 오백 큐빗인 정사각형이며,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쉰 큐빗의 목초지가 딸려 있을 것이다.

45:3 너는 이 측량 구역에서 길이 이만 오천과 너비 만을 재어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자리 잡을 것이다.

45:4 이곳은 땅의 거룩한 몫이니, 성소에서 섬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시중드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집을 지을 터가 되고 성소를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45:5 길이 이만 오천 큐빗과 너비 만 큐빗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소유로서 스무 개의 방을 위한 것이다.

45:6 너희는 성읍의 소유지로 너비 오천 큐빗, 길이 이만 오천 큐빗을 거룩한 몫의 헌물과 나란히 정해야 하니, 이것은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이다.

45:7 통치자의 몫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소유지 양쪽에 자리 잡을 것이니, 거룩한 구역 앞과 성읍의 소유지 앞, 곧 서쪽으로는 서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는 동쪽으로 향하며,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각 지파의 몫 중 하나와 맞먹을 것이다.

45:8 이 땅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통치자들은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집안에 넘겨주어야 한다.

45:9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이제 그만하여라! 폭력과 약탈을 없애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여라! 내 백성의 소유를 빼앗는 일을 그쳐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45:10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밧을 사용하여라.

45:11 에바와 밧은 같은 용량이어야 하니,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아야 한다. 그 기준은 호멜과 같을 것이다.

45:12 세겔은 이십 게라다.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을 더한 것이 너희의 일 미나가 될 것이다.

45:13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은 이러하다.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바치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바쳐야 한다.

45:14 기름의 정해진 몫은, 기름 한 밧을 기준으로 하여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이니,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다(열 밧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45:15 또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 떼 이백 마리 가운데 어린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45:16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위해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45:17 절기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들, 곧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치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안을 위해 속죄하도록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마련해야 한다.

45:18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첫째 달 초하룻날에 너는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45:19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들과 제단 턱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들에 발라야 한다.

45:20 너는 그달 초이렛날에도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행하여 성전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45:21 첫째 달 열나흗날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 이레 동안의 절기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45:22 그날에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해야 한다.

45:23 절기의 이레 동안 그는 주님께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이레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바치고,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5:24 그는 곡식제물도 마련해야 하는데, 수소 한 마리에는 일 에바, 숫양 한 마리에도 일 에바이며, 일 에바마다 기름 일 힌이다.

45:25 일곱째 달 보름날 절기에도 그는 이레 동안 이와 같이 행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똑같이 마련해야 한다.

46장

46:1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쪽을 향한 안뜰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 두어야 하지만, 안식일에는 열어야 하고 초하루 날에도 열어야 한다.

46:2 통치자는 바깥에서 문의 현관 길을 통해 들어와 문기둥 곁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때 그는 문 문턱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런 뒤에 그는 밖으로 나가야 하며,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46:3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그 문 입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한다.

46:4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여야 한다.

46:5 곡식 제물로는 숫양 한 마리당 1에바를 바치고, 어린 양들에게는 그가 바칠 수 있는 만큼 바치되, 곡식 1에바마다 기름 1힌을 곁들여야 한다.

46:6 초하루 날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여야 하며,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46:7 그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 숫양 한 마리에 1에바의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어린 양들에게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준비하며, 곡식 1에바마다 기름 1힌을 곁들여야 한다.

46:8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문의 현관 길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46:9 그러나 정한 절기들에 이 땅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하러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도 자기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곧장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

46:10 백성이 들어올 때 통치자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백성이 나갈 때 그도 나가야 한다.

46:11 절기들과 정해진 축제일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 숫양 한 마리에 1에바여야 하고, 어린 양들에게는 바칠 수 있는 만큼 바치되, 곡식 1에바마다 기름 1힌을 곁들여야 한다.

46:12 통치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로 주님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를 위해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뒤에 그가 나가면, 그가 나간 뒤에 문을 닫아야 한다.

46:13 너는 날마다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46:14 또한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운 밀가루를 적실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힌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에 따라 주님께 계속해서 바칠 곡식 제물이다.

46:15 이렇게 그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끊이지 않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6:16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 재산이 된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차지가 될 것이니, 상속으로 얻는 그들의 소유다.

46:17 그러나 그가 자기 상속 재산 가운데서 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통치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의 상속 재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46:18 또한 통치자는 백성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 그들을 자신들의 소유에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이 저마다 자기 소유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자기 소유에서 떼어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한다."

46:19 그 뒤에 그분은 문 곁에 있는 통로를 통해 제사장들을 위한 북향 거룩한 방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보라, 서쪽 맨 끝 뒤편에 한 장소가 있었다.

46:20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그것들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46:21 그런 다음 그분은 나를 바깥뜰로 데리고 나가 뜰의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뜰의 각 구석마다 또 다른 뜰이 있었다.

46:22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뜰들이 있었는데, 길이는 40규빗이고 너비는 30규빗이었다. 구석에 있는 이 네 뜰은 모두 같은 크기였다.

46:23 그 네 뜰의 안쪽 사방에는 돌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둘레의 벽 밑에는 고기를 삶는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46:24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곳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삶는 방들이다."

47장

47:1 그분은 나를 다시 성전 문으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물이 성전 문턱 밑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물은 성전 오른쪽 밑에서, 곧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47:2 그분은 북쪽 문 통로로 나를 데리고 나가셔서, 바깥 길을 따라 동쪽을 향한 바깥 문으로 나를 이끌고 돌아가셨다. 보라,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 규빗을 측량한 뒤, 나를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에 찼다.

47:4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측량하고 나를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에 찼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에 찼다.

47:5 그 뒤에 그가 또 천 규빗을 측량하셨는데,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나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물이 되었고,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47:6 그분이 내게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나를 이끌어 강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47:7 내가 돌아와 보니, 보라, 강둑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아주 많이 있었다.

47:8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 아라바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다음 바다로 향해 그 바다에 흘러들 것이다. 그 바다는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물은 치유될 것이다.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떼 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물이 그곳에 이르러 바닷물이 정화되므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생겨날 것이며,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47:10 어부들이 그 곁에 설 것이다.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될 것이다.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아주 많을 것이다.

47:11 그러나 그 늪과 웅덩이들은 정화되지 못하고 소금땅으로 남겨질 것이다.

47:12 강둑 양쪽에는 먹을 것을 내는 온갖 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은 치유에 쓰일 것이다."

47:1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상속받을 땅으로 나눌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 것이다.

47:14 너희는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그것을 상속해야 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 땅이 너희에게 떨어져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47:15 "그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북쪽 경계는 큰 바다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지나 스닷 어귀에 이르고,

47:16 하맛과 베로다와 시브라임(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다)을 거쳐 하우란 경계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에 이른다.

47:17 바다에서부터 그 경계는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에논이 될 것이며, 북쪽으로 더 북쪽에는 하맛 경계가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47:18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메섹과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이다. 너희는 북쪽 경계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해야 한다. 이것이 동쪽 경계다.

47:19 "남쪽으로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시내를 지나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으로 남쪽 경계다.

47:20 "서쪽 경계는 남쪽 경계에서부터 하맛 어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큰 바다가 된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47:21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이 땅을 너희끼리 나누어야 한다.

47:22 너희는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이 되게 해야 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상속 재산을 얻을 것이다.

47:23 그 나그네가 어느 지파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너희가 그에게 상속 재산을 주어야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8장

48:1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귀에 이르고, 하맛 곁 북쪽으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에난에 이르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차지하는 단의 몫이 한 몫이다.

48:2 "단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 한 몫이다.

48:3 "아셀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 한 몫이다.

48:4 "납달리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 한 몫이다.

48:5 "므낫세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 한 몫이다.

48:6 "에브라임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 한 몫이다.

48:7 "르우벤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 한 몫이다.

48:8 "유다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바쳐야 할 특별 구역이 될 것인데, 너비는 2만 5천 갈대이고 길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른 몫들 가운데 하나와 같으며, 그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을 것이다.

48:9 "너희가 주님께 바쳐야 할 구역은 길이가 2만 5천 갈대요 너비가 1만 갈대여야 한다.

48:10 이 거룩한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갈대, 서쪽으로 너비가 1만 갈대, 동쪽으로 너비가 1만 갈대,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갈대이며,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소가 있을 것이다.

48:11 이것은 사독 자손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고 헤매어도 내 지시를 지키고 곁길로 가지 않은 이들이다.

48:12 그 땅에서 바친 구역 가운데서 이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니, 레위 사람들의 경계 곁에 있는 가장 거룩한 몫이다.

48:13 "제사장들의 경계와 나란히, 레위 사람들은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너비가 1만 규빗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체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너비가 1만 규빗이다.

48:14 그들은 이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되며, 그 땅의 첫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주님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48:15 "길이 2만 5천 규빗 앞쪽에 너비로 남은 5천 규빗은 일반적인 용도로 성읍과 주거지와 목초지를 위한 땅이 될 것이며, 그 성읍은 그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48:16 그 크기는 이러하다. 북쪽이 4천 5백 규빗, 남쪽이 4천 5백 규빗, 동쪽이 4천 5백 규빗, 서쪽이 4천 5백 규빗이다.

48:17 그 성읍에는 목초지가 딸려 있을 것인데, 북쪽으로 2백 5십 규빗, 남쪽으로 2백 5십 규빗, 동쪽으로 2백 5십 규빗, 서쪽으로 2백 5십 규빗이다.

48:18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남은 길이는 동쪽으로 1만 규빗, 서쪽으로 1만 규빗이며,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이어질 것이다. 그 소출은 그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48:19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해야 한다.

48:20 바쳐진 전체 구역은 가로 2만 5천 규빗, 세로 2만 5천 규빗인 정사각형이다. 너희는 성읍의 소유지와 함께 그것을 거룩한 구역으로 바쳐야 한다.

48:21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소유지 양옆으로 남은 땅은 통치자의 몫이 될 것이다. 곧 거룩한 구역의 2만 5천 규빗 앞 동쪽 경계 쪽과, 서쪽으로 2만 5천 규빗 앞 서쪽 경계 쪽으로, 지파들의 몫과 나란히 있는 땅은 통치자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한 구역과 성전 성소가 그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48:22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지와 성읍의 소유지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통치자의 몫 가운데에 자리 잡은 땅, 곧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에 있는 땅도 통치자의 것이 될 것이다.

48:23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 한 몫이다.

48:24 "베냐민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 한 몫이다.

48:25 "시므온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이 한 몫이다.

48:26 "잇사갈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 한 몫이다.

48:27 "스불론의 경계 곁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 한 몫이다.

48:28 "갓의 경계 곁으로 남쪽으로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므리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시내를 지나 큰 바다에 이른다.

48:29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며, 이것이 그들의 각 몫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8:30 "그 성읍의 출구들은 이러하다. 북쪽의 측량 길이는 4천 5백 갈대다.

48: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세 문이 있다. 르우벤 문이 하나, 유다 문이 하나, 레위 문이 하나다.

48:32 "동쪽은 4천 5백 갈대이며 문이 셋인데, 곧 요셉 문이 하나, 베냐민 문이 하나, 단 문이 하나다.

48:33 "남쪽은 측량 길이가 4천 5백 갈대이며 문이 셋인데, 시므온 문이 하나, 잇사갈 문이 하나, 스불론 문이 하나다.

48:34 "서쪽은 4천 5백 갈대이며 문이 셋인데, 갓 문이 하나, 아셀 문이 하나, 납달리 문이 하나다.

48:35 "그 둘레는 만 팔천 갈대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다."

다니엘

1장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포위했다.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1:3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했다.

1:4 그들은 아무런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을 갖추며 학문을 이해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어야 했다.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1:5 왕은 자기가 먹는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먹을 몫을 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삼 년 동안 교육하여, 그 기간이 끝나면 왕 앞에 서게 했다.

1:6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1:7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 하며,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 했다.

1:8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1:9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의 눈앞에서 호의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1: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내 주 왕이 나는 두렵다. 왕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초췌한 것을 보실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왕 앞에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1:11 그러자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맡아 돌보도록 세운 관리에게 말했다.

1:12 "부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채소와 마실 물만 주게 하십시오.

1:13 그런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종들을 처우하십시오."

1:14 그는 이 일에 대해 그들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했다.

1:15 열흘 뒤에 보니, 그들의 얼굴은 왕이 먹는 진미를 먹던 모든 젊은이보다 더 좋아 보였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1:16 그래서 그 관리는 그들에게 배정되었던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치우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1:17 하나님께서는 이 네 젊은이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닫는 지식과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온갖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

1:18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왔다.

1:19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되었다.

1:20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물어보니, 그들이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머물러 있었다.

2장

2: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2:2 왕은 마술사와 주술사와 마법사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왕에게 그 꿈들을 말해 주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와 왕 앞에 섰다.

2:3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싶어 내 마음이 번민하고 있다."

2:4 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아람 말로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5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내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 몸은 토막 날 것이며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2:6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밝혀 준다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영예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밝혀라."

2: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왕께서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8 왕이 대답했다.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내 명령이 확고함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다.

2:9 너희가 내게 그 꿈을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를 다스릴 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너희는 형편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꾸며 말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내게 밝힐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2:10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했다. "세상에는 왕의 일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나 통치자도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나 갈대아 사람에게 이런 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2:11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2:12 이 때문에 왕은 크게 성을 내고 격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2:13 조서가 내려져 지혜자들을 죽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2:14 그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한 말로 대답했다.

2:15 그는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조서가 어찌하여 이처럼 급박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사정을 알려 주었다.

2:16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자신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다고 간청했다.

2:17 그 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무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다.

2:18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일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했다.

2:19 그리하여 밤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일이 드러났다. 이에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2:20 다니엘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2:21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이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2:22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머뭅니다.

2:23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 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2:24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임명한 아리옥에게 갔다. 그가 가서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25 그러자 아리옥은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유다 포로 자손 가운데서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2:26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 줄 수 있느냐?"

2: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했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일은 지혜자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쟁이도 왕께 밝혀 드릴 수 없습니다.

2:28 그러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왕의 꿈과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본 환상은 이러합니다.

2:29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 누우셨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2:30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드러난 것은, 살아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려, 왕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생각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2:31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십시오, 큰 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그 광채가 매우 뛰어난 이 신상이 왕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2:32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습니다.

2:33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2:34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깎아 낸 돌 하나가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2:35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2:36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 앞에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2:38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2:39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다음으로 온 땅을 다스릴 놋으로 된 셋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2:40 그리고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굴복시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짓부수는 쇠같이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짓밟을 것입니다.

2: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인 것을 보셨듯이, 그 안에 쇠의 강함이 얼마간 있을 것입니다.

2:42 그 발가락의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듯이, 그 나라도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2:43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인 것을 보셨듯이, 그들이 사람의 혈통으로 서로 섞일 것이나, 쇠가 진흙과 섞이지 않듯이 서로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2: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권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2:45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 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틀림없습니다."

2:46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라고 명령했다.

2:47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왕들의 주님이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말이다."

2:48 그 후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2:49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자,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겼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렀다.

3장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예순 규빗이고 너비는 여섯 규빗이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3:2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총독들과 부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고문관들과 법관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를 불러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3:3 이에 총독들과 부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고문관들과 법관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

3:4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자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3: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풍각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3: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다."

3:7 그러므로 그때에 모든 백성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했다.

3:8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대인들을 고발했다.

3: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3:10 왕이여, 왕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풍각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듣는 자마다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11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에 던져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3:12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겨 세우신 몇몇 유대인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3:13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고 왔다.

3: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3: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풍각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낼 신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님,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3:17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는 화로에서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왕님,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도 저희를 구하실 것입니다.

3:18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왕께서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3:19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노가 가득 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가 명령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했다.

3:20 그리고 군대 가운데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3:21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바지와 속옷과 겉옷과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되어,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3:22 왕의 명령이 매우 급박하고 풀무불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올린 그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3:23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3:24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여, 옳습니다."

3:25 왕이 말했다. "보아라,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는데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3:26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귀로 다가가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다.

3:27 총독들과 부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바지도 상하지 않았고 불 탄 냄새조차 배지 않았다.

3:28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신뢰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바친 종들을 구원하셨다.

3:29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몸이 토막 날 것이며,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3:30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 번영하게 했다.

4장

4:1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너희에게 큰 평안이 넘치기를 바란다.

4: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알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

4:3 그분의 표적은 얼마나 크며, 그분의 기사는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4: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며 내 궁궐에서 번영하고 있을 때였다.

4:5 내가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머릿속으로 본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4:6 그래서 내가 조서를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으로 불러 모아,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 주도록 했다.

4:7 그리하여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했다.

4:8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불렸으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4:9 "마술사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곤란하게 하지 못함을 내가 안다. 내가 본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해 보아라.

4:10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본 환상들은 이러했다.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매우 키가 큰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4:11 그 나무가 자라서 튼튼해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온 땅 끝에서도 그 모습이 보였다.

4: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만민이 먹을 만한 양식이 있었으며,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거하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였으며 모든 생물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다.

4:13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본 환상 가운데 보니, 거룩한 순찰자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4:14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베어 넘기고 가지들을 쳐내라! 잎사귀들을 떨쳐 버리고 열매들을 흩어 버려라!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4: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 들의 연한 풀 가운데 두어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몫을 차지하게 하라.

4:16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그 위로 지나가게 하라.

4:17 이 선고는 순찰자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판결에 의한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살아 있는 이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4: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벨드사살아, 너는 그 해석을 밝혀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으니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4:19 그러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한동안 넋을 잃고 큰 번민에 휩싸였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해석 때문에 번민하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4: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튼튼해졌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온 땅에서도 보였습니다.

4: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두를 위한 먹거리가 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습니다.

4:22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자라서 강해지신 왕이십니다. 왕의 위대함이 자라나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4:23 왕께서 보신바,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 들의 연한 풀 가운데 두며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때가 그 위로 지나갈 때까지 들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라'고 했습니다.

4: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4:25 왕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실 것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 때가 왕 위로 지나갈 것이며,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왕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4:26 또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께서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왕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4:27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제 조언을 받아들이셔서, 의를 행하여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혹시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4:28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4:29 열두 달이 지난 뒤, 왕은 바벨론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4:30 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큰 권세로 세워 도읍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4:31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남아 있을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내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한다. 왕권이 네게서 떠났다.

4:32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일곱 때가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4:33 바로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마침내 그의 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4:34 그 기한이 차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4:35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게나 땅의 주민에게나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따져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

4:36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과 광채도 내게로 돌아왔다. 내 모사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내 나라에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더하게 되었다.

4: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높인다. 그분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분의 길은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낮추실 수 있기 때문이다.

5장

5:1 벨사살 왕이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5:2 벨사살은 포도주 맛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5:3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들을 가져왔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다.

5:4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5:5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왕은 글을 쓰는 손가락의 일부를 보았다.

5:6 그러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 허리 관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쳤다.

5:7 왕이 큰 소리로 외쳐 주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밝히는 자는 자주색 옷을 입을 것이요, 목에 금목걸이를 걸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5:8 그리하여 왕의 모든 지혜자가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주지도 못했다.

5:9 이에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고, 그의 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5:10 왕과 귀족들의 말소리를 듣고 왕비가 잔칫집으로 들어왔다. 왕비가 입을 열어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마음에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빛을 바꾸지도 마십시오.

5: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모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빛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졌음이 드러났습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왕께서 그를 마술사와 주술사와 갈대아 사람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5:12 이 다니엘은 뛰어난 영과 지식과 총명을 지녔고,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풀어내며 의문을 해소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왕께서는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밝혀 드릴 것입니다."

5:13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 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자손의 그 다니엘이냐?

5:14 내가 너에 대해 들으니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고, 네게서 빛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구나.

5:15 지금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에 불려 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려 했으나, 그들은 그 일의 해석을 밝혀 내지 못했다.

5:16 그러나 내가 너에 대해 들은바, 너는 해석을 내놓고 의문을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준다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5:17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다. "왕의 선물은 왕이 직접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나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어 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5:19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함 때문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자를 죽이고 살리고 싶은 자를 살렸으며, 높이고 싶은 자를 높이고 낮추고 싶은 자를 낮추었습니다.

5:20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영이 오만하여 교만하게 행하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5:21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아졌고 들나귀들과 함께 살았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러했습니다.

5:22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5:23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슬러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성전 기물들을 왕 앞으로 가져왔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시며 왕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5:24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이 기록된 것입니다.

5:25 기록된 글은 이러하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5:26 그 뜻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햇수를 세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5:27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5: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 사람들과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5:29 그러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에 관하여 조서를 내려 그가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임을 선포하게 했다.

5:30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5:31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의 나이는 대략 예순두 살이었다.

6장

6:1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총독 백스무 명을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6:2 또 그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는 총독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6:3 이 다니엘은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어 총리들과 총독들보다 훨씬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를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했다.

6:4 그러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의 일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6:5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그에게서 아무런 구실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6:6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무리를 지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6:7 나라의 모든 총리와 부총독과 총독과 고문관과 지방관들이 의논하여 한 왕의 법령을 세우고 엄한 금령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곧 삼십 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면, 그를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6:8 이제 왕이여, 그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서명하셔서, 고치지 못하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 그것이 번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6:9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문서와 금령에 서명했다.

6:10 다니엘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갔다. 그의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 있었다. 그는 전과 같이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

6:11 그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애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6:12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했다. "왕이여, 삼십 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에 왕께서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 일은 확실하니, 고치지 못하는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른 것이다."

6:13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했다. "왕이여, 유다 포로 자손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 왕도 존중하지 않고 왕께서 서명하신 금령도 무시한 채, 하루에 세 번씩 간구하고 있습니다."

6:14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썼다.

6:15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리를 지어 나아와 말했다. "왕이여, 아십시오. 왕께서 세우신 어떤 금령이나 법령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입니다."

6:16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와서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6:17 돌 하나를 가져다가 굴 어귀를 막았고, 왕은 자기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그것을 봉인하여 다니엘에 대한 처분을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게 했다.

6:18 그 후 왕은 궁궐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했다. 악기도 자기 앞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다.

6:19 왕은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갔다.

6:20 굴 가까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왕은 슬피 부르짖는 목소리로 외쳤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

6:21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6:22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분 앞에 내게 무죄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23 그러자 왕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6:24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짓부수었다.

6:25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글을 썼다. "너희에게 큰 평안이 넘치기를 바란다.

6:26 내가 조서를 내리니, 내 나라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를 것이다.

6:27 그분은 건져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다."

6:28 이리하여 이 다니엘은 다리오가 다스릴 때와 바사 사람 고레스가 다스릴 때에 형통했다.

7장

7: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았다. 그 후 그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말했다.

7:2 다니엘이 입을 열어 말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십시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몰아쳤습니다.

7:3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7:4 첫째는 사자와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7:5 또 보십시오, 곰과 같은 다른 둘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 한쪽을 들고 있었으며 입의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 세 개가 물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7:6 그 뒤에 내가 또 보았는데, 보십시오, 표범과 같은 다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7:7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십시오,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몹시 강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어 치우고 산산이 부수었으며, 그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고, 뿔 열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8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사이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그 앞에서 첫째 뿔들 가운데 셋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오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7:9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이었고,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7:10 불의 강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천씩 수천 무리가 그분을 섬겼고, 만의 만 배가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마련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7:11 그때 그 뿔이 오만하게 지껄이는 말소리 때문에 내가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파괴되어 타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7:12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얼마 동안 목숨은 연장되었습니다.

7:13 "밤의 환상 속에서 보니,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갔고, 그 앞 가까이로 인도되었습니다.

7:14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7:15 나 다니엘은 몸속에서 영이 번민하였고, 머릿속으로 본 환상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7:16 내가 거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알려 주었습니다.

7:17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7: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니,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7:19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몹시 흉악했고, 쇠 이빨과 놋 발톱을 가졌으며, 먹어 치우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7:20 또 그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나 그 앞에서 셋이 빠진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오만하게 말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억세 보였습니다.

7:21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7:22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심판을 베푸셨고, 때가 이르러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7:23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다를 것이며, 온 땅을 먹어 치우고 짓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들 뒤에 또 다른 왕 하나가 일어날 터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며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7:25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을 내뱉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려고 꾀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7: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앨 것이다.

7:27 온 하늘 아래의 나라와 통치권과 여러 나라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지배 세력이 그분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7:28 여기서 그 일이 끝났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 얼굴빛이 변했으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8장

8:1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던 해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났던 환상에 이어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났다.

8:2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볼 때에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성채에 있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을래강 가에 있었다.

8:3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 뿔을 가진 숫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었다. 그 두 뿔은 모두 길었지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더 긴 뿔이 나중에 돋아났다.

8:4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는데, 어떤 짐승도 그 앞에 맞서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구해 낼 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는 제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8:5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땅 위를 지나갔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뚜렷이 보이는 뿔 하나가 있었다.

8:6 그 염소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두 뿔 가진 숫양에게 다가오더니, 맹렬한 힘으로 분노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8:7 내가 보니 그 염소가 숫양에게 바짝 다가가 격분하여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 버렸다. 숫양에게는 그 염소에 맞설 힘이 없었다. 염소는 숫양을 땅에 내던져 짓밟았고, 숫양을 그의 손에서 구해 낼 자가 아무도 없었다.

8:8 그 숫염소는 스스로를 심히 높였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졌을 때에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뚜렷이 보이는 뿔 넷이 돋아났다.

8:9 그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더니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

8:10 그 뿔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8:11 참으로 그 뿔은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스스로를 높였으며, 그에게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가 있는 곳을 무너뜨렸다.

8:12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매일 드리는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제 마음대로 행하며 번영을 누렸다.

8:13 그때 내가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고 있던 그 거룩한 자에게 물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황폐하게 하는 반역, 곧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짓밟히게 하는 일에 관한 이 환상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8:14 그가 내게 말했다. "저녁과 아침이 이천삼백 번 지날 때까지다. 그러고 나면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8: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닫고자 했을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8:16 그리고 내가 을래강 양 언덕 사이에서 외쳐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 주어라."

8:17 그리하여 그가 내가 서 있는 곳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가 올 때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8:18 그가 나와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8:19 그가 말했다. "보아라, 진노하시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네게 알려 주겠다. 이것은 정해진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8:20 네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8: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8:22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일어선 것은, 그 나라에서 네 왕국이 일어날 것이나 그의 힘만은 못할 것임을 뜻한다.

8:23 "그들의 왕국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 찰 때, 얼굴이 사납고 수수께끼에 능통한 왕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8:24 그의 힘이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파멸을 일으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는 힘센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8:25 그는 간계를 써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이 평안히 있을 때에 많은 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통치자들의 통치자에게도 맞서 일어설 것이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8:26 "앞서 말한 저녁과 아침에 관한 환상은 참되다. 그러나 너는 그 환상을 봉해 두어라. 그것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8:27 나 다니엘은 지쳐 쓰러져 며칠 동안 앓았다. 그 뒤에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 나는 그 환상 때문에 크게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9장

9: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첫해,

9:2 곧 그가 다스린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햇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는 데 칠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9:3 나는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았다.

9:4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며 아뢰었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한결같은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9:5 저희가 죄를 짓고 그릇된 길을 걸었으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돌아섰습니다.

9:6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땅의 백성에게 전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7 "주님, 의는 주님의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얼굴의 수치는 저희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곧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주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진 이들에게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9:8 주님,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저희와 저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얼굴의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9:9 저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나, 긍휼과 용서는 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9:10 주님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저희 앞에 두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11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범하고 빗나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으니,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9:12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저희와 저희를 다스리던 재판관들을 거슬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닥친 것과 같은 일은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저희 죄악에서 돌아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9:14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 저희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15 "이제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습니다.

9:16 주님, 주님의 모든 의로움을 따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성읍 예루살렘,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주변 모든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9:17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9:18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저희의 황폐한 모습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을 보아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9:19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여 행동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해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읍과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9:20 내가 이처럼 말하며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9:21 곧 내가 기도로 아뢰고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보았던 사람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내게 손을 대었다.

9:22 그가 내게 가르쳐 주며 나와 이야기하며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려고 왔다.

9:23 네가 간구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 주려고 왔다.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읍을 위해 일흔 주가 정해졌다. 불순종을 끝내고 죄를 그치게 하며, 죄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대상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다.

9:25 "그러므로 알고 분별하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세우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곧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주와 예순두 주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때에도 예루살렘은 거리와 성 주위의 도랑을 갖추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9:26 예순두 주가 지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끊어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다가오는 통치자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오고, 끝까지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황폐해질 일이 정해져 있다.

9:27 그는 많은 이들과 한 주 동안 굳건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 바치는 일을 그치게 할 것이다. 역겨운 것들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이가 올 것이다. 정해진 완전한 끝에 이르기까지, 황폐해진 이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10장

10:1 바사 왕 고레스 삼 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했다.

10:2 그 무렵 나 다니엘은 세 이레 동안 슬퍼하고 있었다.

10:3 세 이레가 다 차기까지,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10: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

10:5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순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서 있었다.

10:6 그의 몸은 녹주석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은 모습이었으며,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다. 그의 팔과 발은 윤을 낸 놋 같았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10:7 나 다니엘만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덮쳐 그들은 몸을 숨기려고 달아났다.

10:8 그리하여 나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 있지 않았으니, 내 얼굴빛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다.

10:9 그러나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10:10 그런데 한 손이 내게 닿더니,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바닥으로 짚고 일어나게 했다.

10:11 그가 내게 말했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말을 내게 했을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10:12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다.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10:13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으뜸가는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10: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게 깨닫게 해 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아직 먼 훗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10:15 그가 이러한 말로 내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

10:16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을 닮은 한 분이 내 입술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했다. "내 주님, 이 환상 때문에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 내게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10:17 내 주님의 종인 제가 어떻게 내 주님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곧바로 힘이 다 빠져나갔고 숨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10:18 그때 사람 모양을 한 이가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10:19 그가 말했다.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힘을 내어라. 그래, 힘을 내어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내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10:20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왜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군주가 올 것이다.

10:21 그러나 나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 주겠다. 이들과 맞서 나를 돕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다."

11장

11:1 "나로 말하자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그를 지지하고 강하게 해 주려고 일어섰다.

11:2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보여 주겠다. 보아라, 바사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질 때, 그는 그리스 왕국에 맞서 모든 사람을 충동질할 것이다.

11:3 용맹한 왕 하나가 일어날 것이니, 그는 큰 권세를 쥐고 다스리며 제 뜻대로 행할 것이다.

11:4 그러나 그가 일어설 때에 그의 왕국은 산산이 깨어져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갈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가 다스리던 권세와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왕국이 뿌리째 뽑혀 그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11:5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휘관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권세를 쥐게 될 것이니, 그의 다스림은 큰 권세가 될 것이다.

11:6 몇 해가 지난 뒤에 그들은 서로 결탁할 것이다.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나아가 화친을 맺겠지만, 그녀는 자기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또한 서지 못하고 그의 팔도 서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사람들과 그녀를 낳은 아버지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던 자가 모두 넘겨질 것이다.

11:7 "그러나 그녀의 뿌리에서 난 싹 가운데 하나가 그의 자리를 이어 일어설 것이다. 그가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치고 승리할 것이다.

11:8 그는 또한 그들의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삼아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북쪽 왕을 치지 않고 물러서 있을 것이다.

11:9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로 침입하겠지만,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11:10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큰 군대를 많이 모을 것이다. 그 군대는 물밀듯이 밀려와 넘쳐흐르며 지나갈 것이고, 되돌아가 그의 요새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벌일 것이다.

11:11 "남쪽 왕은 격분하여 나와서 그, 곧 북쪽 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겠으나, 그 무리는 남쪽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1:12 그 무리를 사로잡아 물리친 뒤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나, 그는 승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11:13 북쪽 왕이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뒤에 큰 군대와 풍부한 보급품을 갖추고 진격해 올 것이다.

11:14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남쪽 왕에게 맞서 일어날 것이다. 네 백성 가운데 난폭한 자들도 스스로를 높여 그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11:15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읍을 점령할 것이다. 남쪽의 군대는 맞서지 못할 것이며 그의 정예 부대라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11:16 그를 치러 오는 자는 제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파멸이 있을 것이다.

11:17 그는 온 나라의 힘을 다해 쳐들어오기로 결심하고 화친 조건을 내세워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여자들 가운데서 난 딸을 그에게 줄 것이나, 그녀는 서 있지 못하고 그의 편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11:18 그 뒤에 그는 얼굴을 섬들로 돌려 많은 곳을 점령하겠지만, 한 통치자가 그가 안겨 준 치욕을 끝장내고 오히려 그 치욕을 그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11:19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땅의 요새들을 향해 얼굴을 돌릴 것이나, 걸려 넘어져 쓰러질 것이며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11:20 "그의 자리를 이어 왕국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세금 징수관을 보내는 자가 일어날 것이나, 그는 분노 때문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니게 며칠 못 가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11:21 "그의 자리를 이어 비열한 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않았지만 그는 평안한 때에 슬그머니 들어와 아첨으로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11:22 넘쳐흐르는 군대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패망할 것이며, 언약의 통치자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11:23 그와 조약을 맺은 뒤에 그는 속임수를 쓸 것이니, 비록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오겠지만 강성해질 것이다.

11:24 그는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쳐들어와서, 그의 조상들도 조상의 조상들도 행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다. 그는 노획물과 약탈물과 재물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흩뿌려 줄 것이다. 그는 요새들을 칠 계책을 꾸미겠지만 한동안만 그렇게 할 것이다.

11:25 "그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왕에 맞서 자기 힘과 용기를 떨칠 것이며, 남쪽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맞서겠지만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11:26 참으로 그의 진미를 먹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니, 그의 군대는 쓸려 나가고 많은 이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11:27 이 두 왕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 쏠려 있어서, 한 식탁에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끝은 여전히 정해진 때에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11:28 북쪽 왕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적대할 것이다. 그는 제 뜻대로 행한 뒤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11:29 "정해진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나,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11:30 깃딤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낙담하여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를 터뜨리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눈여겨볼 것이다.

11:31 "그의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요새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없앨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11:32 그는 언약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아첨으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를 내어 굳세게 행동할 것이다.

11:33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 포로 됨과 약탈에 쓰러질 것이다.

11:34 그들이 쓰러질 때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이 아첨하며 그들과 합세할 것이다.

11:35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얼마가 쓰러질 것인데, 이는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만들기 위함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1:36 "그 왕은 제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여기며,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해괴한 말을 지껄일 것이다. 진노가 다 찰 때까지는 그가 번영을 누리겠으나,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1:37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도, 그 어떤 신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높이기 때문이다.

11:38 그러나 그는 그 신들 대신에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값진 보물로 공경할 것이다.

11:39 그는 이방 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강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11:40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그러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이끌고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몰아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 물밀듯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11:41 그가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가 쓰러질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11:42 그가 여러 나라를 향해 손을 뻗칠 것이니, 애굽 땅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1:43 그는 금과 은의 보물과 애굽의 모든 값진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11:44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큰 분노를 품고 나갈 것이다.

11:45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기 궁전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2장

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지키는 위대한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네 백성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2:2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깨어날 것이니,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할 것이다.

12:3 지혜로운 자들은 넓은 공간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12:4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들을 닫아 두고 책을 봉하여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려 다니고, 지식이 늘어날 것이다."

12:5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12:6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물 위에 계시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2:7 나는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했다. 한 기간과 여러 기간, 그리고 반 기간이 걸릴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힘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끝나면 이 모든 일도 끝날 것이라고 했다.

12:8 내가 듣기는 했으나 깨닫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내 주님, 이 일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9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기 때문이다.

12:10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12:11 "매일 드리는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지날 것이다.

12: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12:13 "너는 끝까지 네 길을 가거라. 너는 쉬게 될 것이며, 날들이 끝날 때 네 상속 몫에 서게 될 것이다."

호세아

1장

1:1 유다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와,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1:2 주님께서 처음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땅이 주님을 버리고 크게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1:3 그리하여 그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1: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예후의 집안에 이스르엘에서 흘린 피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안의 나라를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1:6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내가 유다 집안은 불쌍히 여겨 주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1:8 그녀가 로루하마의 젖을 뗀 뒤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1:9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1:11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스르엘의 날이 참으로 클 것이다.

2장

2:1 "너희 형제들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여라.

2:2 너희 어머니를 고소하여라! 고소하여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로 하여금 얼굴에서 음란함을 치우게 하고, 가슴 사이에서 간통의 흔적을 없애게 하여라.

2:3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 태어난 날처럼 드러나게 하고, 광야처럼 만들며, 메마른 땅처럼 만들어 갈증으로 죽게 할 것이다.

2:4 참으로 내가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음란함으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2:5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을 임신한 여자가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다. 그녀가 '내게 빵과 물, 양털과 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2:6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너의 길을 막고, 그녀를 둘러 벽을 쌓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2:7 그녀가 자기 애인들을 따라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녀는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녀에게 준 이가 나였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은과 금을 그녀에게 넉넉하게 부어 준 이도 나였음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다.

2:9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 곡식을 거두어 가고, 그 계절에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올 것이며, 그녀의 벗은 몸을 덮어 주어야 마땅할 내 양털과 삼을 빼앗을 것이다.

2:10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낼 것이니,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2:11 또 그녀의 모든 잔치를 그치게 할 것이니, 그녀의 축제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거룩한 모임들을 끝낼 것이다.

2:12 그녀가 '이것은 내 애인들이 내게 준 품삯이다'라고 말했던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숲으로 만들어 들짐승들이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2:13 그녀가 귀고리와 패물로 몸을 꾸미고 자기 애인들을 뒤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린 채, 바알들에게 분향하던 날들의 죗값을 내가 물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1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달래어 광야로 데려가, 그녀의 마음에 와닿도록 따뜻하게 말할 것이다.

2:15 거기서 내가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거기서 응답할 것이다.

2:16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2: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녀의 입에서 없앨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2:18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 다니는 생물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없애고,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2:19 내가 너와 영원히 약혼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의로움과 공정함과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너와 약혼할 것이다.

2:20 내가 신실함으로 너와 약혼할 것이며, 너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2:21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2:22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할 것이다.

2:23 내가 그녀를 이 땅에 나를 위해 심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3장

3: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3:2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나를 위해 그녀를 샀다.

3:3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하오.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3:4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며, 제사도 없고 성스러운 돌기둥도 없고, 에봇이나 우상도 없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두려워 떨며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올 것이다.

4장

4:1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선함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2 오직 저주와 거짓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그들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피 흘림이 또 다른 피 흘림을 낳는다.

4: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쇠약해질 것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 곧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그러할 것이다.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마저 죽어 갈 것이다.

4:4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고, 아무도 서로 비난하지 마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다.

4:5 네가 낮에 비틀거릴 것이고, 예언자도 밤에 너와 함께 비틀거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망시킬 것이다.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4: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4:8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쏟는다.

4:9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다.

4: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음행을 저질러도 번성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4:11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4:12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대답한다. 참으로 음란한 영이 그들을 빗나가게 하여,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

4:13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백양나무와 테레빈스나무 아래에서 하니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4:14 너희 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해도 내가 벌하지 않을 것이니, 남자들 자신이 창녀들과 어울리고 신전 창녀들과 함께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말 것이다.

4:15 "이스라엘아, 비록 네가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벧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마라.

4:16 이스라엘이 완고한 암송아지처럼 몹시 고집스럽게 굴었으니, 이제 주님께서 넓은 풀밭의 어린 양처럼 그들을 먹이실 수 있겠느냐?

4:17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짝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4:18 그들의 술은 시어졌고, 그들은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른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수치스러운 길을 몹시 좋아한다.

4:19 바람이 날개로 그녀를 감쌌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바친 제물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5장

5:1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왕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심판이 너희에게 내려졌으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덫이 되었고 다볼산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5:2 반역자들이 깊은 학살에 빠져 있으나, 내가 그들 모두를 징계할 것이다.

5:3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도 내게서 숨겨지지 않는다. 에브라임아, 지금 네가 음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5: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음란한 영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면전에서 증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죄악으로 비틀거릴 것이며, 유다도 그들과 함께 비틀거릴 것이다.

5: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이끌고 주님을 찾으러 갈 것이나,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5:7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으니, 사생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제 초하루 축제가 그들과 그들의 밭을 삼킬 것이다.

5:8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어라! 벧아웬에서 전쟁의 함성을 지르고, 베냐민아, 네 뒤를 보아라!

5:9 책망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렸다.

5:10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같다. 내가 그들 위에 내 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5:11 에브라임은 심판 속에서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있으니, 그가 헛된 우상을 열심히 좇았기 때문이다.

5: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고, 유다 집안에게는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5:13 "에브라임이 자기 질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칠 수 없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한다.

5: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집안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곧 내가 찢어발기고 떠나갈 것이다. 내가 먹이를 물어갈 것이니 아무도 구해 내지 못할 것이다.

5:15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간절히 나를 찾을 것이다."

6장

6:1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6:2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6:3 우리가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자.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6:4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6:5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조각내었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너희의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6:6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6:7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들은 거기서 내게 불성실했다.

6:8 길르앗은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도시이며, 피로 얼룩져 있다.

6:9 강도 떼가 사람을 숨어 기다리듯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며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다.

6:10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에는 음행이 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6:11 "유다야, 너에게도 추수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곧 내가 내 백성의 번영을 회복시킬 때이다.

7장

7: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행이 드러난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 떼가 밖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7:2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내 면전에 놓여 있다.

7:3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7:4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을 뭉쳐 부풀 때까지 불 지피기를 멈추고 기다리는 동안 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7:5 우리 왕의 축일에 지도자들은 포도주의 열기로 병이 났고, 왕은 조롱하는 자들과 손을 잡았다.

7:6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 화덕처럼 자기 마음을 준비하니,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연기를 내며 타오르다가 아침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른다.

7:7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집어삼킨다. 그들의 모든 왕이 쓰러졌으나, 그들 가운데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7: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뒤섞이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

7: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 버렸으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백발이 여기저기 성성해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

7:10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면전에서 증언하건만,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다.

7:11 "에브라임은 지혜가 없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비둘기 같다. 그들이 애굽을 부르고, 앗수르로 간다.

7: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 위에 내 그물을 펼치고,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7:13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 방황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했으나,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했다.

7:14 그들이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침상에서 울부짖는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으려고 모여들지만, 내게서 등을 돌린다.

7:15 내가 그들의 팔을 훈련하고 강하게 해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한다.

7:16 그들이 돌아오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지는 않으니, 그들은 고장 난 활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8장

8:1 "나팔을 네 입에 대어라! 독수리 같은 것이 주님의 집 위에 떠 있으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8:2 그들이 내게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부르짖는다.

8:3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을 것이다.

8: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8:5 사마리아야, 너의 송아지 우상을 내던져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쯤에야 정결해질 수 있겠느냐?

8: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장인이 만든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8: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자라는 곡식도 없고, 줄기는 이삭을 맺지 못할 것이며, 혹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그것을 삼켜 버릴 것이다.

8:8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있다.

8:9 그들이 홀로 헤매는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올라갔고,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해 애인들을 돈으로 샀다.

8:10 비록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몸을 팔았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강력한 군주의 압제 때문에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8:11 에브라임이 죄를 짓기 위해 제단을 늘렸으므로, 그 제단들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제단이 되었다.

8:12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8:13 그들이 내게 바치는 제물에 관하여는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먹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니,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8: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궁궐들을 지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그 요새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9장

9:1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며 환호하지 마라. 네가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9:2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모자랄 것이다.

9:3 그들은 주님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며, 앗수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9:4 그들은 주님께 전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제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자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나 더러워질 것이다. 그들의 빵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일 뿐이며,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9:5 너희는 거룩한 모임의 날에, 주님의 축제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9:6 보아라, 그들이 파멸을 피해 달아날지라도 애굽이 그들을 모으고 놉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쐐기풀이 그들의 값진 은 보물들을 덮을 것이며,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질 것이다.

9:7 징벌의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들이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영감을 받은 사람을 미친 자로 여길 것이니, 이는 너의 죄가 많고 너의 적개심이 크기 때문이다.

9:8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길에는 새 사냥꾼의 덫이 놓여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는 적개심이 가득하다.

9:9 그들이 기브아의 시절처럼 심각하게 부패했다.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9:10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하듯 이스라엘을 찾았고, 무화과나무에서 첫 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듯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브올로 가서 그 수치스러운 우상에게 자신을 바쳤고, 자기들이 사랑한 우상처럼 가증해졌다.

9:11 에브라임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출산도 없고 임신도 없으며 잉태조차 없을 것이다.

9:12 비록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9:13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겼으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살인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9:14 그들에게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메마른 젖가슴을 주십시오.

9:15 "그들의 모든 악행이 길갈에 있으니,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모든 지도자는 반역자들이다.

9:16 에브라임이 얻어맞아 그 뿌리가 말랐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죽일 것이다."

9:17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실 것이니, 그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10장

10:1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는 제단을 늘렸고, 그의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성스러운 돌기둥들을 화려하게 꾸몄다.

10:2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으니 이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을 허무시고 그들의 성스러운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10:3 이제 틀림없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인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것이다.

10:4 그들이 헛된 말을 늘어놓으며 언약을 맺을 때 거짓 맹세를 하니, 밭이랑에 돋아난 독초처럼 심판이 솟아난다.

10:5 사마리아 주민들이 벧아웬의 송아지들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니, 그 백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며, 그것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던 그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다. 그 영광이 그것에게서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10:6 그 송아지 또한 앗수르로 옮겨져 위대한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꾀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10:7 사마리아와 그 왕은 물 위의 나뭇가지처럼 떠내려간다.

10:8 이스라엘의 죄인 아웬의 산당들도 무너질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 위에 자라날 것이며,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어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10:9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의 시절부터 죄를 지어 왔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불의한 자식들을 치는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10:10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두 가지 죄악에 묶일 때 민족들이 모여 그들을 칠 것이다.

10:11 에브라임은 길들여져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송아지 같아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얹을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부술 것이다.

10:12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한결같은 사랑에 따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 위에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10: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악을 거두었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네가 네 길과 네 수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10:14 그러므로 네 백성 가운데 전쟁의 함성이 일어날 것이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벧아르벨을 파괴했던 것처럼 네 모든 요새가 파괴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내동댕이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10:15 너희의 큰 악행 때문에 벧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동틀 녘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1장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11:2 그들이 그들을 불렀지만, 불린 이들은 부르는 이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했다.

11: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내가 그들의 팔을 붙잡아 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알지 못했다.

11: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그들에게, 목 위의 멍에를 들어 올려 주는 이들과 같았다. 나는 몸을 굽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11: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했으므로 앗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11: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덮쳐 성문 빗장을 부수고 그들의 계략을 끝장낼 것이다.

11:7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비록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부를지라도, 그 분께서는 결코 그들을 높여 주지 않으실 것이다.

11: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흔들리고, 내 긍휼이 불붙듯 타오르는구나.

11:9 내가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며, 에브라임을 다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11:10 그들이 주님을 따를 것이니, 그분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포효하시면 자녀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11:11 그들이 애굽에서 새처럼, 앗수르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정착시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1: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집안은 속임수로 나를 둘러싼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으며, 거룩하신 분께 신실하지 못하다.

12장

12: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뒤쫓으며, 끊임없이 거짓과 파멸을 늘린다. 그들이 앗수르와 동맹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실어 보낸다.

12:2 주님께서 유다와도 변론하시며, 야곱의 행실대로 그를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12:3 모태에서 그는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장성해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12:4 참으로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며, 울면서 그에게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벧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12:5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12:6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끊임없이 네 하나님을 기다려라.

12:7 상인은 손에 거짓 저울을 쥐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12: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정말이지 나는 부자가 되었고 재물을 얻었다. 내가 얻은 모든 재물 중에서 죄가 될 만한 어떤 불의도 내게서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12:9 "그러나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었다. 정한 절기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살게 할 것이다.

12:10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했고 환상을 많이 보여 주었으며,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비유를 베풀었다.

12:11 길르앗이 악하다면 그들은 참으로 헛된 자들이다. 길갈에서 그들이 황소를 제물로 바치지만, 참으로 그들의 제단은 밭이랑의 돌무더기 같다.

12:12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했다. 아내를 얻으려고 양 떼와 소 떼를 쳤다.

12:13 주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고, 한 예언자를 통해 그를 보호하셨다.

12:14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격노하게 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피의 책임이 그에게 남아 있을 것이며,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스러운 모욕을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13장

13:1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스스로를 높였으나, 바알을 숭배하여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렀다.

13:2 이제 그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 은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었으니,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든 우상들이며 모두 장색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두고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며 송아지 신상에 입을 맞춘다'라고 말한다.

13:3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13:4 "그러나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이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되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13:5 내가 광야에서, 몹시 가문 땅에서 너를 돌보았다.

13:6 그들이 먹을 것이 넉넉해지자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13: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다. 표범처럼 내가 길가에 숨어 기다릴 것이다.

13:8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내가 그들을 덮쳐 그들의 심장 꺼풀을 찢을 것이다. 거기서 내가 암사자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며, 들짐승이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13:9 이스라엘아, 네가 멸망하였으니 네가 나를 대적하고, 너의 구원자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13:10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서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하겠느냐?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십시오'라고 네가 말했던 너의 재판관들은 어디에 있느냐?

13:11 내가 분노하여 네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여 그를 없애 버렸다.

13:12 에브라임의 죄악이 싸여 있고, 그의 죄가 저장되어 있다.

13:13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식이니, 때가 이르러도 태어날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13:14 내가 스올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겠느냐? 내가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죽음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서 긍휼이 숨겨질 것이다.

13:15 비록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번성할지라도 동풍이 불어올 것이니, 광야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바람이다.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샘터가 바싹 마를 것이다. 원수가 모든 귀한 보물이 쌓인 보물 창고를 약탈할 것이다.

13:16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죄책을 질 것이다. 그들이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내동댕이쳐져 산산조각 날 것이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14장

14: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 돌아와라. 네가 네 죄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14:2 아뢸 말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말하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것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입술로 서원한 대로 황소를 바치겠습니다.

14:3 앗수르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말을 타지 않을 것이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다시는 '우리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님 안에서 자비를 얻기 때문입니다."

14:4 "내가 그들의 엇나간 행실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14:6 그의 가지가 뻗어 나가며,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을 것이다.

14:7 사람들이 그의 그늘 아래 살 것이며, 그들이 곡식처럼 살아나고 포도나무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들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을 것이다.

14:8 에브라임아, 내가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더 있겠느냐? 내가 응답하고 그를 돌볼 것이다. 나는 푸른 사이프러스나무와 같으니, 네 열매는 나에게서 얻어진다."

14: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들을 알겠느냐? 주님의 길은 곧아서 의인은 그 길로 걸어가지만, 반역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요엘

1장

1: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1:2 장로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민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날에나 여러분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1:3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 일을 전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십시오.

1:4 떼 메뚜기가 남긴 것을 큰 메뚜기가 먹었고, 큰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으며, 메뚜기가 남긴 것을 애벌레가 먹었다.

1:5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달콤한 포도주 때문에 통곡하여라.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1:6 한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셀 수 없이 많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를 지녔다.

1:7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내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겼다. 껍질을 완전히 벗겨 내버리니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변했다.

1:8 젊은 시절의 남편을 잃고 굵은 베옷을 입은 처녀처럼 슬피 울어라!

1:9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주님의 집에서 끊어졌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1:10 밭이 황폐해졌고 땅이 슬퍼하니, 곡식이 망가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1:11 농부들아, 부끄러워하여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밀과 보리 때문에 통곡하여라. 밭의 수확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12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를 비롯해 들판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1:13 제사장들아, 베옷을 두르고 슬퍼하여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와서 밤새도록 베옷을 입고 누워 있어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1:14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1:15 아, 슬프다 그 날이여!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처럼 닥칠 것이다.

1:16 우리 눈앞에서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1:17 씨앗들이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 가고, 곡물 창고들은 황폐해졌으며, 곳간들은 무너졌으니 곡식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1:18 짐승들이 얼마나 신음하는가! 가축 떼는 풀밭이 없어 방황하고, 양 떼도 고통을 겪고 있다.

1:19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풀밭을 삼켜버렸고, 불꽃이 들판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1:20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해 헐떡거리니, 시냇물이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풀밭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이 땅의 모든 주민은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으며, 이미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2:2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처럼 크고 강한 백성이 몰려온다. 예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로도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없을 것이다.

2:3 불이 그들 앞에서 삼켜버리고, 그들 뒤에서는 불꽃이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가 되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피하지 못했다.

2:4 그들의 모습은 말의 모습과 같고, 그들은 기병처럼 달린다.

2:5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전차 소리를 내며 뛰어오르고, 곡식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를 내며,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처럼 진격한다.

2:6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2:7 그들은 용사들처럼 달리고, 전사들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각자 자기 줄을 맞춰 행진하며,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8 서로 밀치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행진하며,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도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2:9 그들은 성읍으로 돌격하고, 성벽 위를 달리며, 집들로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간다.

2:10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2:11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로 천둥소리를 내시니, 그 군대가 매우 크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강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은 참으로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2:12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3 너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14 누가 알겠는가?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뜻을 바꾸시고, 그 뒤에 복을 남겨 주실지도 모른다.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까지 남겨 주실지도 모른다.

2:15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여라.

2:16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아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자기 신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2:17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유산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두시겠습니까?"

2:18 그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열정을 품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2:19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 줄 것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2: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내고, 그들을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낼 것이다. 그 앞머리는 동쪽 바다로, 뒷부분은 서쪽 바다로 몰아넣을 것이니, 그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풍길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2: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22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다해 결실하기 때문이다.

2:23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알맞게 이른 비를 주시고,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시되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2:24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통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흐를 것이다.

2:25 떼 메뚜기와 큰 메뚜기와 메뚜기와 애벌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내 큰 군대가 먹어 치운 그 햇수들을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겠다.

2:26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27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2:28 "그 후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2:29 그 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겠다.

2:30 내가 하늘과 땅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겠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2:31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변하고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2:32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 가운데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장

3:1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회복시키는 그때에,

3:2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겠다. 거기서 내 백성 곧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린 내 유산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내 땅을 나누었고,

3:3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소년을 창녀의 몸값으로 주고 소녀를 포도주와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다.

3:4 "두로와 시돈아,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려는 것이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려 한다면, 내가 너희가 행한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로 되돌려 주겠다.

3:5 너희가 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나의 가장 좋은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3:6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넘겨,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쫓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3:7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행한 보복을 너희 머리로 되돌려 주겠다.

3:8 내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넘길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3:9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일깨워라. 모든 전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을 올라오게 하여라.

3:10 너희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하고 말하게 하여라.

3:11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서둘러 와서 모여라." 주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3:12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3:13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통들이 넘쳐흐르니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3:14 판결의 골짜기에 무리가 많고 많다! 판결의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3:15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3:16 주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천둥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3:17 "그때에 너희는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며,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3:18 그 날에는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언덕마다 젖이 흘러넘치며,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싯딤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3:19 애굽은 황폐해지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3:20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사람이 살 곳이 되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3:21 내가 아직 씻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씻어 주겠다. 주님께서 시온에 사시기 때문이다."

아모스

1장

1:1 드고아의 양치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의 말이다. 이것은 유다 왕 웃시야 시대와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에 관해 본 계시이다.

1:2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목자들의 초원이 슬퍼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쇠도리깨로 길르앗을 타작하듯 짓밟았기 때문이다.

1:4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1:5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을 끊으며, 에덴 집안에서 왕홀을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그리고 아람 백성은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온 주민을 사로잡아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1:7 내가 가사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그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1:8 내가 아스돗에서 주민을 끊고 아스글론에서 왕홀을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내가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칠 것이니, 블레셋 사람의 남은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온 주민을 에돔에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0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그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1: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모든 동정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며 그 진노를 영원히 품었기 때문이다.

1:12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1:1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14 그러나 내가 랍바의 성벽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전쟁 날의 함성과 회오리바람 부는 날의 폭풍과 함께 그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1:15 그들의 왕과 고관들이 다 함께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장

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그리욧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은 소란과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3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재판관을 끊어 버리고, 그와 함께 모든 고관을 죽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된 우상들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2: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킬 것이다."

2:6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았기 때문이다.

2:7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 속에 짓밟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길을 굽게 만든다.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인에게 드나들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2:8 그들은 모든 제단 곁에 담보로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신다.

2:9 그러나 나는 그들 앞에서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참나무처럼 강했던 아모리 사람을 멸망시켰다. 내가 위로는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는 그의 뿌리를 없애 버렸다.

2:10 또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인도하였으니,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2:11 내가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예언자들을 일으키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인들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2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다.

2:13 보라,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짓누르듯, 내가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2:14 발 빠른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2:15 활을 다루는 자도 버텨 서지 못하고 발이 빠른 자도 도망치지 못하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2:16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라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3장

3:1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하신 이 말씀, 곧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린 온 족속을 거슬러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3: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3:3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

3:4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도 수풀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도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3:5 새를 잡으려는 올가미가 놓여 있지 않은데 새가 땅 위의 덫에 걸리겠느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올가미가 땅에서 튀어 오르겠느냐?

3: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성읍에 닥쳤는데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아니겠느냐?

3:7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3:8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3:9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말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큰 소동과 그들 가운데 행해지는 압제를 보아라."

3:10 "자기 궁궐에 폭력과 약탈로 얻은 것을 쌓아 두는 자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3:11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적이 이 땅을 에워싸고 너의 힘을 무너뜨릴 것이며, 너의 요새들은 약탈당할 것이다."

3: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 다리 두 짝이나 귀 한 조각을 건져 내듯, 사마리아에서 긴 의자의 구석이나 비단 방석 깔린 침대에 걸터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건짐을 받을 것이다."

3:13 "너희는 듣고 야곱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3:14 "내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하는 날에, 벧엘의 제단들도 벌할 것이다. 제단의 뿔들이 잘려 나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3:15 내가 겨울 저택과 여름 저택을 함께 칠 것이니, 상아 집들이 부서지고 큰 저택들이 끝장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장

4:1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자기 남편들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라!" 하고 말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4:2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너희에게 날들이 닥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갈 것이며 너희의 남은 자들도 낚싯바늘로 끌고 갈 것이다.

4:3 너희는 성벽의 무너진 틈을 통해 각자 곧장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르몬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4 "너희는 벧엘로 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사흘마다 너희 십일조를 바쳐라.

4:5 누룩을 넣은 빵으로 감사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자원제물을 선포하며 소문내어 자랑해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4:6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 먹을 것이 없게 하였고, 모든 마을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7 "추수하기까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가 내렸으나, 비가 내리지 않은 밭은 말라 버렸다.

4:8 두세 성읍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찾아갔으나 충분히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9 "내가 너희의 동산과 포도원에 시드름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여러 번 쳤고, 메뚜기 떼가 너희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갉아먹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10 "내가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고,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다.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11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셨을 때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건져 낸 불붙은 나무토막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4: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4:13 보라, 산들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아침을 어둠으로 만드시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5장

5:1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를 두고 지어 부르는 이 애가의 말을 들어라.

5:2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내팽개쳐졌으나 일으켜 세워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5:3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천 명이 출전하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출전하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을 것이다."

5:4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5:5 그러나 벧엘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건너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벧엘은 헛된 것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5:6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불처럼 요셉 집안에 번져 삼키실 것이며, 벧엘에는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5:7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5:8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을 찾아라.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다.

5:9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을 닥치게 하시어, 파멸이 요새에 이르게 하신다.

5:10 그들은 성문에서 옳게 꾸짖는 사람을 미워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몹시 싫어한다.

5:11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에게서 밀로 곡물세를 빼앗았으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5:12 너희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너희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밀쳐내는 자들이다.

5:13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입을 다무니,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5:14 너희는 살기 위해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5:15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5:16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 곧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마다 통곡이 있을 것이요, 모든 거리마다 사람들이 '아아, 슬프다! 아아, 슬프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들이 농부를 불러 슬퍼하게 하고, 곡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울게 할 것이다.

5:17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므로 모든 포도원마다 통곡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5:18 "주님의 날을 바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5:19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벽에 손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5:20 주님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겠느냐? 한 줄기 밝은 빛도 없는 짙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5:21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견딜 수 없다.

5:22 너희가 내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5:23 너희 노랫소리의 소음을 내 앞에서 치워라! 나는 너희 비파 연주 소리를 듣지 않겠다.

5:24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로움이 힘차게 흐르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여라.

5:25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가져왔느냐?

5:26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왕의 장막과 너희 우상들의 신당, 곧 너희 신의 별 형상을 짊어지고 다녔다.

5:27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저편으로 사로잡혀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6장

6:1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안이 찾아오는 으뜸가는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6:2 너희는 갈레로 가서 보아라.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6:3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고 밀어젖히면서,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

6:4 그들은 상아 침대에 누우며 긴 의자 위에서 몸을 뻗고, 양 떼에서 골라낸 어린양과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내어 먹는다.

6:5 그들은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6:6 대접으로 포도주를 들이켜고 가장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이 겪는 파멸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6:7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혀 가는 자들의 맨 앞에서 끌려갈 것이니, 누워서 흥청거리던 잔치가 끝장날 것이다.

6:8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의 오만함을 몹시 싫어하고 그의 요새들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성읍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6:9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다 해도 그들 또한 죽을 것이다.

6:10 시신을 불태워 줄 친척이 집에서 뼈들을 밖으로 내가려고 시신을 메고 나갈 때, 집 안 깊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너와 함께 남은 사람이 아직 더 있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가 "없다" 하고 대답하면, 친척은 "쉿, 조용히 하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6:11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큰 집은 부서져 조각나고 작은 집은 깨어져 산산조각 날 것이다."

6:12 말이 바위 절벽 위를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독초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

6:13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6:14 "이스라엘 집안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7장

7:1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 주셨다. 보라, 왕의 풀베기가 끝난 뒤에 늦은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

7:2 메뚜기 떼가 그 땅의 풀을 다 뜯어먹었을 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7:3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7:4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 주셨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니, 그 불이 거대한 심연의 물을 말려 버리고 그 땅마저 삼키려 하였다.

7:5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7:6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7:7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 주셨다. 보라, 주께서 다림줄을 띄워 쌓은 성벽 곁에 손에 다림줄을 쥐고 서 계셨다.

7:8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둘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7: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허물어질 것이며,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 여로보암의 집안을 칠 것이다."

7:10 그때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왕을 거역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의 모든 말을 다 견뎌 낼 수 없습니다.

7: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7:12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너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도망가거라! 거기서나 밥을 벌어 먹으며 예언을 하거라.

7:13 다시는 벧엘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실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7:14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양치기이며 돌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7:15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던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16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 집안을 거슬러 말을 쏟아내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7: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아내는 성읍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너의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땅은 측량줄로 나뉘어 팔릴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8장

8:1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 주셨다.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8:2 그분께서 물으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8:3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체가 많아서 곳곳마다 사람들이 조용히 내다 버릴 것이다."

8:4 힘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8:5 너희는 말하기를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속임수 저울로 속이고,

8:6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며 신 한 켤레 값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고,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자" 하는구나.

8:7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결코 하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8:8 이 일 때문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고, 애굽의 강처럼 요동치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8:9 그날이 오면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의 맑은 날에 땅을 캄캄하게 만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8:10 "내가 너희 절기들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통곡으로 바꿀 것이며, 너희 모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날을 외아들을 잃은 슬픔의 날처럼 만들고, 그 끝을 쓰라린 날로 만들 것이다."

8:11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 날들이 오고 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니,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8:12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맬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8:13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청년들도 목이 말라 쓰러질 것이다.

8:14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단아, 네 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브엘세바의 길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9장

9: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그것들을 부수어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라. 그들 중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니,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9:2 그들이 땅속을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하늘로 기어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9:3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뒤져서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9:4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내 눈을 그들에게 둘 것이다."

9:5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는 땅을 만져 녹아내리게 하시는 분이니,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할 것이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고 애굽의 강처럼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9:6 그분은 하늘에 자신의 높은 방들을 지으시고 땅 위에 하늘 둥치를 세우셨으며,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이니,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다.

9:7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사람들과 같지 않으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길에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

9:8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이 죄 있는 왕국을 향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온 땅 위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야곱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9 "보라, 내가 명령하여 체로 곡식을 거르듯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흔들 것이지만,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9:10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내 백성 가운데 모든 죄인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9:11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갈라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옛날처럼 지을 것이다.

9:12 그리하여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9:13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밭 가는 사람이 곡식 거두는 사람을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을 따라잡을 것이다. 산들에서는 단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언덕들에서는 흘러내릴 것이다.

9: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고, 포도원을 가꾸어 그 포도주를 마시며, 동산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9: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바댜

1장

1:1 오바댜의 환상이다.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소식을 들었으니, 민족들 사이에 특사가 파견되어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 나라와 맞서 싸우자" 하고 외쳤다.

1:2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는다.

1:3 바위틈에 살며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고 말하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1: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1:5 "도둑들이 네게 오거나 밤중에 강도들이 든다면 – 아, 너에게 닥칠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가! – 그들이 만족할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들이 네게 온다면, 이삭으로 주울 포도를 얼마쯤 남겨 두지 않겠느냐?

1:6 에서가 얼마나 샅샅이 털리겠는가! 그가 숨겨 둔 보물이 얼마나 철저히 찾아내어지는가!

1:7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이 너를 국경까지 몰아냈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굴복시켰다. 네 빵을 나누어 먹던 자들이 네 발밑에 덫을 놓았으나, 그에게는 깨달음이 전혀 없다."

1:8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없애고 에서의 산에서 깨달음을 없애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9 "데만아, 네 용사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니, 결국 살육을 당해 에서의 산에서 모든 사람이 끊어질 것이다.

1:10 네 형제 야곱에게 저지른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칠 것이며, 너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1:11 네가 맞은편에 서 있던 날, 곧 낯선 자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에, 너 역시 그들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다.

1:12 그러나 네 형제의 재앙의 날에 그를 업신여기며 바라보지 말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마라. 그들이 고난을 겪는 날에 거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마라.

1:13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고통을 업신여기며 쳐다보지 말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재물을 빼앗지 마라.

1:14 도망치는 이들을 가로막아 죽이려고 갈림길에 서 있지 마라. 고난의 날에 살아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마라.

1:15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도 행해질 것이니,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1:16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도 끊임없이 마실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마시고 꿀꺽 삼킬 것이니, 마침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1:17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곳은 거룩해질 것이다. 야곱 집안은 자기들의 소유를 차지할 것이다.

1:18 야곱 집안은 불이 되고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집안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에서 집안 가운데서 불타올라 그들을 삼킬 것이니, 에서 집안에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1:19 남쪽 지역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평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1:20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 군대의 포로들은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네게브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1:21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서의 산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요나

1장

1:1 주님께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1: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 경고를 외쳐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1:3 그러나 요나는 주님 앞에서 벗어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길을 나섰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 뱃삯을 내고 배에 오른 요나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주님 앞에서 벗어나려 했다.

1:4 그러자 주님께서 바다에 거센 바람을 보내셨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었다.

1:5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실려 있던 짐을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요나는 배의 가장 안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1:6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7 선원들이 서로 말했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다.

1:8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1:9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깁니다."

1:10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요나가 이미 말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그가 주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1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습니까?"

1:12 요나가 대답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협하는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폭풍이 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1:13 그런데도 선원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다.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거세져서 돌아갈 수 없었다.

1:14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간청합니다.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1:15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사납게 몰아치던 바다가 잠잠해졌다.

1:16 그들은 주님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은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했다.

1:17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다.

2장

2: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했다.

2:2 그가 말했다. "괴로움에 빠져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외쳤더니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3 주님께서 저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물살이 저를 에워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로 넘쳐흘렀습니다.

2:4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5 물이 저를 에워싸 영혼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깊은 바다가 저를 둘러싸고 바닷풀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2:6 저는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은 저를 영원히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2:7 제 영혼이 힘을 잃어 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제 기도가 주님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2:8 헛된 우상을 받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비를 저버립니다.

2:9 그러나 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2:10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냈다.

3장

3:1 주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3: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전해 주는 말을 외쳐라."

3:3 요나는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가는 데 사흘이 걸릴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다.

3:4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3:5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3:6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졌다. 왕은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겉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걸친 뒤 재 위에 앉았다.

3:7 왕은 자신과 귀족들의 명령으로 니느웨 온 성읍에 이렇게 선포하게 했다. "사람도 짐승도, 소 떼도 양 떼도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3:8 사람과 짐승 모두 굵은 베를 두르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자기 손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그쳐라.

3:9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 뜻을 거두시고,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3:10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행동을 보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장

4:1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4:2 그가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제가 아직 고향에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랑이 넘치시며,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뜻을 거두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4:3 주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4:4 주님께서 물으셨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4:5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

4:6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덩굴 하나를 준비해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다.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워 불편을 덜어 주시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그 덩굴 때문에 무척 기뻤다.

4:7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 벌레가 덩굴을 갉아 먹자 덩굴이 시들었다.

4:8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 후덥지근한 동풍을 준비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어 그는 기운을 잃고 죽기를 바랐다. 그가 말했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4:9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그 덩굴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화를 내도 마땅합니다."

4: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덩굴을 위해 수고하지도 않았고 직접 키우지도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덩굴인데도 너는 그것을 안타까워한다.

4:11 그렇다면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이만 명 넘게 살고, 수많은 짐승도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미가

1장

1:1 유다의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는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1:2 백성들아, 너희 모두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언하시게 하라. 곧 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증언하시게 하라.

1:3 보라, 주님께서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내려오시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다.

1:4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의 밀랍 같고 가파른 비탈로 쏟아져 내리는 물 같을 것이다.

1:5 "이 모든 일은 야곱의 반역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반역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1:6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돌무더기처럼, 포도나무를 심는 곳처럼 만들 것이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1:7 그의 모든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신전에 바친 그의 모든 예물은 불에 탈 것이며, 내가 그의 모든 신상을 파괴할 것이다. 그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1:8 이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내가 벗은 몸으로 다닐 것이며, 자칼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곡할 것이다.

1:9 그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유다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재앙이 내 백성의 성문에,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1:10 가드에 그것을 알리지 마라. 전혀 울지도 마라. 벳오브라에서 내가 먼지 속에 굴렀다.

1:11 사빌 주민아, 벗은 몸과 수치를 띠고 지나가라.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벳에셀의 통곡이 너희에게서 그의 보호를 빼앗을 것이다.

1:12 마롯 주민이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니, 이는 재앙이 주님에게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1:13 라기스 주민아, 날쌘 준마에 병거를 매어라.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었으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14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가드에 작별 선물을 줄 것이다.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1:15 마레사 주민아, 내가 아직 너에게 정복자를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를 것이다.

1:16 너의 기쁨인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를 밀고 머리털을 깎아라. 독수리처럼 너의 대머리를 넓혀라.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다!

2장

2:1 침상에서 죄악을 꾸미고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으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2:2 그들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차지한다. 그들은 사람과 그의 집안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기업을 빼앗는다.

2:3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향해 재앙을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가 거기서 목을 빼내지 못할 것이며, 교만하게 걸어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2:4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 풍자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재산이 나뉘었다. 정녕 그분이 내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밭을 배반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할 것이다."

2:5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사람이 너희에게 아무도 없을 것이다.

2:6 "예언하지 마라!" 하고 그들이 예언한다. "이런 일들에 관해 예언하지 마라. 수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2:7 야곱 집안아, 어찌 이렇게 말하겠느냐? "주님의 영이 분노하셨느냐? 이것이 그분이 행하신 일이냐? 흠 없이 걷는 사람에게 내 말이 유익하지 않더냐?"

2:8 그러나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걱정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겉옷과 의복을 벗겨 낸다.

2:9 너희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이 아끼는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 복을 영원히 빼앗는다.

2:10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파멸을 부르는 부정함, 곧 참혹한 파멸 때문이다.

2:11 거짓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너희에게 예언하겠다"고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2: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를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 떼처럼, 그 목초지 한가운데 있는 양 떼처럼 함께 둘 것이니, 사람들이 가득하여 북적거릴 것이다.

2: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을 뚫고 나가며,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들의 맨 앞에 서실 것이다."

3장

3:1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통치자들아, 제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니냐?

3:2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 내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3:3 너희는 또한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를 꺾고 조각조각 잘라 솥에 넣을 고기처럼, 가마솥 안의 고기처럼 만든다."

3:4 그때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분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3:5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예언자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기 입에 먹을 것을 채워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외치지만, 자기 입에 아무것도 넣어 주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3:6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덮쳐 환상이 없을 것이요, 너희에게 어둠이 임하여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들 위로 해가 지고, 그들 위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3:7 선견자들이 실망하고 점술가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두 입술을 가릴 것이다."

3:8 그러나 나로 말하면, 야곱에게 그의 반역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포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힘과 정의와 능력이 충만하다.

3:9 정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올바른 것을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통치자들아, 제발 이 말을 들으라.

3:10 너희는 피로 시온을 건축하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구나.

3:11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 가르치며, 그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3:12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릴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 산은 숲의 언덕들처럼 될 것이다.

4장

4:1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성전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언덕들 위로 높이 들릴 것이요,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4:2 많은 민족이 가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4:3 그분께서 많은 백성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에 관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이다.

4:4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만군의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5 정녕 모든 민족은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토록 행할 것이다.

4:6 "그날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들과 내가 괴롭혔던 자들을 모을 것이다.

4:7 내가 저는 자들을 남은 자로 만들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 산에서 그때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4:8 너 양 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의 언덕이여, 권능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렇다, 이전의 주권, 곧 예루살렘의 딸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4:9 이제 네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네 조언자가 죽어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너를 사로잡았느냐?

4:10 시온의 딸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파하며 몸부림쳐 낳으라.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 들판에 머물며 바벨론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네가 구출될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서 네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4:11 이제 많은 민족이 너를 치려고 모여들어 말하기를, "시온이 더럽혀지게 두라, 우리 눈으로 시온을 고소하게 바라보자" 하는구나.

4:12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듯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4:13 시온의 딸아, 일어나 타작하라. 내가 너의 뿔을 쇠로 만들고 너의 굽을 놋으로 만들 것이니, 네가 많은 백성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주님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5:1 군대의 딸아, 이제 너는 군대를 모으라. 적이 우리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랏아, 비록 네가 유다의 족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나아옴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5:3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가 그들을 버려둘 것이다.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는 주님의 능력과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양 떼를 돌볼 것이다. 그들은 살 것이다. 그때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5:5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수르가 우리 땅을 침략하고 우리 요새들을 짓밟고 지나갈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지도자를 일으켜 그를 맞설 것이다.

5: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다스리고, 칼날로 니므롯 땅을 다스릴 것이다.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고 우리 국경 안으로 쳐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5:7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니, 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사람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5:8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서 숲속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 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그 사자가 지나갈 때 밟고 찢어발기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5: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 올려져 네 모든 원수가 멸망하기를 바란다.

5:10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말들을 없애고 너희 병거들을 파괴할 것이다.

5:11 내가 너희 땅의 성읍들을 없애고 너희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5:12 내가 너희 손에서 마술을 없애 버릴 것이니, 너희에게 더 이상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5:13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새긴 우상들과 돌기둥들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지 못할 것이다.

5:14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아세라 목상들을 뿌리뽑고 너희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5:15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복수할 것이다."

6장

6:1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일어나 산들 앞에서 네 사정을 변론하여라. 언덕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듣게 하여라.

6:2 산들아, 주님의 고발을 들으라! 땅의 영원한 기초들아, 들으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6:3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6: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고,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서 보냈다.

6:5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무엇을 꾸몄는지,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또 싯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깨달아라."

6: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까? 내가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6:7 주님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을 기뻐하실까? 수만의 강줄기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바칠까?

6:8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좋은지 너에게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6:9 주님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회초리와 그것을 정하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6: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하게 모은 보물이 있고 저주받을 줄인 에바가 있느냐?

6:11 내가 부정한 저울과 속이는 추 주머니를 둔 자들을 용납하겠느냐?

6:12 그 성읍의 부자들은 폭력이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입에 있는 혀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6:13 그러므로 나 또한 너를 쳐서 심한 상처를 입혔고, 너의 죄 때문에 너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6:14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굶주림이 네 속에 머물 것이다. 네가 재물을 모아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네가 건져낸 것도 내가 칼에 넘겨줄 것이다.

6:15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올리브를 밟아도 그 기름으로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6:16 너희가 오므리의 법도와 아합의 집안이 행한 모든 일을 지키고, 그들의 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네 주민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 짊어질 것이다."

7장

7:1 나는 참으로 비참하구나! 나는 여름 과일을 거두거나 포도밭에 남은 것을 줍는 사람과 같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내 영혼은 처음 익은 무화과를 먹고 싶어 한다.

7:2 경건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사람마다 그물을 쳐서 자기 형제를 사냥한다.

7:3 그들의 손은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데 쏠려 있다. 통치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고, 권력자는 자기 영혼의 악한 욕망을 강요한다.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음모를 꾸민다.

7:4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찔레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울타리보다 나쁘다. 너의 파수꾼들의 날, 곧 너의 징벌의 날이 왔으니,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이다.

7:5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말을 조심하라!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거슬러 일어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 일어난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자기 집안사람들이다.

7:7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7:8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다.

7:9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이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공의를 집행하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견딜 것이다.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며,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7:10 그때에 내 원수가 그것을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내게 말하던 자가 수치로 덮일 것이다. 내 눈이 그를 볼 것이니, 이제 그가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다.

7:11 너의 성벽을 쌓는 날이 온다! 그날에 그분이 너의 경계를 넓히실 것이다.

7:12 그날에 사람들이 앗수르와 애굽의 성읍들에서, 애굽에서부터 그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네게로 올 것이다.

7:13 그러나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 때문에, 곧 그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7:14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십시오. 숲속에서 외따로 살고 있는 주님의 기업인 양 떼를 먹여 주십시오. 옛날처럼 그들이 바산과 길르앗의 기름진 초원 한가운데서 풀을 뜯어 먹게 해 주십시오.

7:15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들처럼,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7:16 민족들이 보고 자기들의 모든 힘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그들의 귀는 먹먹해질 것이다.

7:17 그들이 뱀처럼 먼지를 핥을 것이다. 땅에 기어 다니는 벌레처럼 떨며 자기 소굴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 나아올 것이며,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7:18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기 기업의 남은 자들의 반역을 덮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7:19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짓밟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7:20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신실함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훔

1장

1:1 니느웨에 대한 계시이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의 책이다.

1:2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주님은 보복하시며 진노로 가득 차 계신다. 주님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1:3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능력이 크시지만, 죄 있는 자를 결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가운데 길을 가시며, 구름은 그분의 발에 이는 먼지이다.

1:4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1:5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린다. 그분의 면전에서 땅이, 곧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뒤흔들린다.

1:6 누가 그분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견뎌 내겠는가?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 내리니, 바위들이 그분 앞에서 깨어진다.

1:7 주님은 선하시며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에게 피하는 이들을 알고 계신다.

1:8 그러나 넘쳐흐르는 홍수로 그녀의 자리를 완전히 끝장내실 것이며, 자기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추격하실 것이다.

1:9 너희는 주님을 거슬러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분께서 완전히 끝내실 것이니, 재앙이 다시는 두 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10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자신들의 술에 흠뻑 취하여,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1:11 너에게서 주님을 거슬러 악을 꾀하고 사악함을 조언하는 자가 나왔다.

1:1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비록 온전한 힘을 갖추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베임을 당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비록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1:13 이제 내가 너에게 씌운 그의 멍에를 부수어 버리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 버리겠다.'

1:14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이렇게 명령하셨다. '더 이상 네 이름을 이을 후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네가 가증하니, 내가 네 무덤을 파겠다.'

1:15 보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네 절기들을 지켜라! 네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니, 그가 완전히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2장

2:1 산산조각 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요새를 지켜라! 길을 살펴라!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라! 힘을 한껏 키워라!

2:2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엄처럼 야곱의 위엄을 회복시키신다. 약탈자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 놓았기 때문이다.

2: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물들었고, 군사들은 진홍색 옷을 입었다. 그가 준비를 마치는 날에 병거의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들이 번뜩인다.

2:4 병거들이 거리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내달린다. 그 모습은 횃불 같고, 번개처럼 내달린다.

2:5 그가 자신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지만, 그들은 길을 가다가 비틀거린다. 그들이 성벽으로 달려가고 방어 덮개가 설치된다.

2:6 강의 수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무너져 내린다.

2:7 정해진 대로 왕후가 벌거벗겨져 끌려가고, 그녀의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가슴을 친다.

2:8 니느웨는 옛적부터 물이 고인 연못 같았으나, 이제 그들이 달아난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외치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2:9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보물이 끝이 없고 온갖 귀한 물건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2:10 도시가 털리고 텅 비어 황폐해졌다. 마음은 녹아내리고 무릎은 서로 부딪치며, 온몸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11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와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과 함께 거닐며 아무도 두렵게 하지 않던, 그 어린 사자들의 먹이터가 어디 있느냐?

2:12 수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찢어발겼고, 암사자들을 위해 사냥감을 목 졸라 죽였으며, 굴을 사냥한 고기로 채우고 자기 처소를 먹이로 채웠다.

2:13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연기 속에서 그녀의 병거들을 불태울 것이며, 칼이 네 어린 사자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니, 네 전령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3장

3:1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온통 거짓과 약탈로 가득 차 있으며, 노획물이 끊이지 않는다.

3:2 채찍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날뛰는 말들과 덜컹대며 질주하는 병거들,

3:3 돌격하는 기병과 번쩍이는 칼, 번뜩이는 창, 수많은 살육당한 자들과 무더기로 쌓인 시체들, 시체가 끝이 없어 사람들이 그 시체들에 걸려 넘어진다.

3:4 이 모든 것은 매혹적인 창녀, 곧 마술의 여주인이 수많은 음행을 일삼은 탓이니, 그녀는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아넘기고 마술로 족속들을 팔아넘겼다.

3:5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걷어 올리겠다. 내가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은 몸을 보여 주고,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드러내겠다.

3:6 내가 혐오스러운 오물을 네 위에 던져 너를 모욕하고,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3:7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말하기를, '니느웨가 황폐해졌다! 누가 그녀를 위해 슬퍼하겠는가?' 할 것이다.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사람들을 찾겠느냐?'

3:8 네가 여러 강 사이에 자리 잡고 물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바다가 외벽이 되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던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3:9 구스와 애굽은 끝없는 그녀의 힘이었고, 붓과 리비아는 그녀를 돕는 자들이었다.

3:10 그러나 그녀도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다.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길모퉁이에서 메어쳐져 산산조각 났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고, 그녀의 모든 위대한 자들은 쇠사슬에 묶였다.

3:11 너 역시 술에 취할 것이다. 너는 숨을 것이다. 너 역시 원수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3:12 네 모든 요새는 첫 열매를 맺은 무화과나무 같아서,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3:13 보라, 네 가운데 있는 네 군대는 여자들과 같다.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들에게 활짝 열렸고, 불이 네 빗장들을 삼켜 버렸다.

3:14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 물을 길어 두어라. 네 요새들을 강화하라. 진흙 속으로 들어가 회반죽을 밟고, 벽돌 가마를 단단하게 다져라.

3: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 버릴 것이며, 그것이 메뚜기처럼 너를 삼킬 것이다. 메뚜기 떼처럼 수를 늘려 보아라. 메뚜기처럼 번성해 보아라.

3:16 네가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늘렸으나, 메뚜기가 벗겨 먹고 날아가 버린다.

3:17 네 경비병들은 메뚜기 같고 네 관리들은 메뚜기 떼 같아서, 추운 날에는 담벽에 머물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알 수가 없다.

3:18 앗수르 왕이여, 네 목자들은 잠에 빠졌고 네 귀족들은 누워 쉰다. 네 백성은 산들 위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3:19 네 상처는 나을 수 없고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두고 손뼉을 치니, 네 끝없는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박국

1장

1:1 예언자 하박국이 본 계시이다.

1:2 주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폭력입니다!" 하고 외쳐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1:3 어찌하여 저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행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고, 다툼이 있으며 갈등이 일어납니다.

1:4 이 때문에 율법이 마비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어 나옵니다.

1:5 "너희는 민족들을 둘러보고 주목하며 크게 놀라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너희에게 말해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1: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땅을 가로질러 행진하여 자기들의 것이 아닌 거처들을 차지할 것이다.

1: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그들의 재판과 위엄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1:8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들은 당당하게 내달린다. 그렇다,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에서 오며, 먹이를 덮치려고 서두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1:9 그들은 모두 폭력을 휘두르려고 온다. 그들의 무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며, 모래처럼 많은 포로를 모아들인다.

1:10 그렇다, 그들은 왕들을 비웃고 군주들을 조롱거리로 여긴다. 그들은 흙 언덕을 쌓아 요새를 점령하므로 모든 요새를 비웃는다.

1:11 그러고는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 계속 나아간다. 자신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니, 그들은 참으로 유죄이다."

1:12 주 나의 하나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들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1:13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악행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1:14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 다니는 생물 같게 만드십니까?

1:15 그가 낚시로 그들을 모두 낚아 올리고,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16 그러므로 그는 자기 그물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투망에 분향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의 음식이 기름지기 때문입니다.

1:17 그렇다면 그가 계속해서 그물을 비우며, 무자비하게 여러 민족을 죽여도 됩니까?

2장

2:1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 지켜보며, 그분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나의 불평에 대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지 살펴보겠다.

2:2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묵시를 기록하고 서판에 분명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3 이 묵시는 아직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니, 끝을 향해 서두르고 있으며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보라, 그의 마음은 부풀어 올라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2:5 그렇다, 더구나 술은 교활하며, 교만한 자는 집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스올처럼 탐욕을 넓히고 죽음 같아서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은다.

2:6 이들 모두가 그를 두고 비유를 지으며, 그를 향해 조롱하는 속담을 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고 갈취로 부를 쌓는 자에게 화가 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2:7 네 채권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떨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네가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2:8 네가 많은 민족을 약탈했으므로, 사람의 피를 흘린 죄와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저지른 폭력 때문에 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약탈할 것이다.

2:9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자기 집안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

2:10 너는 많은 백성을 없앰으로써 네 집안에 수치를 가져왔고, 네 자신의 영혼을 상대로 죄를 지었다.

2: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목재에서 들보가 그 소리에 화답할 것이다.

2:12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다!

2:13 보라, 백성들이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위해 지치는 것이 만군의 주님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냐?

2:14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2:15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되, 너의 독한 술을 부어 취하게 만들어 그들의 알몸을 쳐다보는 자에게 화가 있다!

2:16 너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가득 찼다. 너 또한 마시고 네 알몸을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네게로 돌아갈 것이며, 치욕이 네 영광을 덮을 것이다.

2:17 레바논에 저지른 폭력이 너를 덮칠 것이며, 짐승들을 학살한 일이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피를 흘린 죄와, 땅과 모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폭력 때문이다.

2:18 "새긴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만드는 자가 새겼을 뿐이다. 거짓을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을 어찌 믿겠느냐? 말 못 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자기가 빚어낸 것을 의지하는구나!

2:19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고 말 못 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것이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으나, 그 속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2:20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3장

3:1 승리의 음악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3:2 주님, 제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에 제가 경외심을 품습니다. 세월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월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3:3 하나님께서 데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온 땅에 가득했다.

3:4 그분의 광채는 해돋이와 같고, 그분의 손에서는 광선이 뻗어 나오니, 그곳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

3:5 전염병이 그분 앞에서 나아갔고, 열병이 그분의 뒤를 따랐다.

3:6 그분께서 서시자 땅이 흔들렸다. 그분께서 바라보시자 여러 민족이 떨었다. 태고의 산들이 부서지고 오랜 언덕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분의 길은 영원하다.

3:7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고난에 빠져 있었고, 미디안 땅의 거처들이 흔들렸다.

3:8 주님께서 강들을 언짢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들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에 오르신 것이 강들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향한 진노 때문이었습니까?

3:9 주님께서는 활을 꺼내셨고, 맹세하신 화살들을 부르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3:10 산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으며, 거센 물결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3:11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빛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의 제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3:12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땅을 가로질러 행진하셨고, 분노하시며 여러 민족을 타작하셨습니다.

3:13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가셨습니다. 악한 땅의 우두머리를 부수셨고,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셀라.

3:14 그들이 저를 흩뜨리려고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왔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려는 듯이 기뻐 날뛰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 자신의 창으로 꿰뚫으셨습니다.

3:15 주님께서는 말들을 타고 바다를 짓밟으시며 거센 물결을 휘저으셨습니다.

3:16 내가 듣고 몸을 떨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렸다. 썩음이 내 뼈 속으로 스며들고, 나는 제자리에서 떤다. 우리를 침략하는 백성이 올라오는 고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서 먹을거리가 나지 않으며, 우리에서 양 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3:18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3:19 하나님이신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들을 다니게 하신다. 지휘자에게, 내 현악기에 맞춘 노래이다.

스바냐

1장

1:1 아몬의 아들인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며 그달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1:2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돌무더기들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끊어 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향해 내 손을 뻗치겠다. 내가 이곳에서 바알의 남은 자들과 우상 숭배를 이끄는 이교 제사장들의 이름을 끊어 버리겠다.

1:5 지붕 위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말감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1:6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선 자들과,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는 자들을 끊어 버리겠다."

1:7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분이 초대한 손님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1:8 "주님의 희생 제물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고관들과 왕자들과 외국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벌하겠다.

1:9 그날에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과,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는 모든 자를 내가 벌하겠다.

1:10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이 구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언덕들에서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11 막데스 주민들아, 통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망했고, 은을 가득 싣고 다니던 자들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다.

1:12 "그때에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찌꺼기 위에 가라앉아 마음속으로 '주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1:13 그들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14 주님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까이 다가와 매우 서두르고 있으니, 주님의 날의 소리다. 거기서 용사가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1: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파멸과 황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다.

1:16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을 불며 경보를 울리는 날이다.

1:17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큰 고통을 내려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걸어 다니게 하겠다.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처럼 흩어질 것이다.

1:18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도 금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그분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분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을 끝장내시되, 참으로 끔찍한 파멸로 끝장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2장

2:1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여라. 그렇다, 함께 모여라.

2:2 정해진 때가 이르러 그날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모여라.

2:3 주님의 법도를 지켜 온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주님을 찾아라.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주님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2:4 가사는 버림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대낮에 사람들이 아스돗 주민들을 쫓아내고 에그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2:5 해변에 사는 주민들, 그렛 민족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주님의 말씀이 너를 치신다. "내가 주민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너를 멸망시키겠다."

2:6 그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들을 위한 움막과 양 떼를 위한 우리가 들어설 것이다.

2:7 그 해안 지대는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울 것이니,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2:8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여 스스로를 높였다.

2:9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정녕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되어, 쐐기풀이 무성하고 소금 구덩이가 있는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내 민족의 생존자들이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2:10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을 향해 스스로를 높였으므로, 자신들의 교만에 대한 대가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2:11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분이 되실 것이니, 그 땅의 모든 신을 굶주려 쇠약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뭇 나라의 모든 해변에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2:12 "너희 구스 사람들아, 너희 역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2:13 그분께서 북쪽을 향해 손을 뻗으시어 앗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어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실 것이다.

2:14 그 한가운데에 온갖 짐승과 떼가 누울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기둥머리에 머물고, 창가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문지방은 황폐해질 것이니, 그분께서 백향목 들보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2:15 이곳이 걱정 없이 살며 마음속으로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던 기쁨에 넘치던 성읍이다. 어쩌다 이 성읍이 이렇게 황폐해져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혀를 차며 주먹을 흔들 것이다.

3장

3:1 반역하고 더러워진 성읍, 압제하는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3:2 그 성읍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3:3 그 안의 고관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요,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 저녁 늑대들이다.

3:4 그 성읍의 예언자들은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았다.

3:5 그 성읍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은 자신의 정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결코 멈추지 않으시지만,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

3:6 "내가 여러 민족을 끊어 버렸으니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해졌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폐허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였다. 그들의 성읍들이 파괴되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전혀 없게 되었다.

3:7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경외하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두고 정한 모든 처벌에 따라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타락시켰다.

3:8 그러므로 내가 먹이를 치러 일어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소집하여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맹렬한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는 것이 나의 결정이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3:9 그때에 내가 만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3:10 구스의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나를 예배하는 자들, 곧 흩어진 내 백성의 딸이 내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

3:11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슬러 저지른 모든 행위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게 뽐내는 이들을 없앨 것이며, 너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오만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3:12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억눌리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둘 것이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3: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 속이는 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3:14 시온의 딸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외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3:15 주님께서 너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16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3:17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께서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너를 평온하게 하실 것이다.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3:18 "정해진 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을 내가 네게서 치워 버리겠다. 그들은 네게 짐이요 치욕이다.

3:19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벌하겠다. 다리를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겠다. 온 땅에서 수치를 당하던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3:20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형편을 회복시킬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학개

1장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1: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1:3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1:4 "이 집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 자신은 판벽을 댄 너희 집에 살 때란 말이냐?

1: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행실을 깊이 살펴보아라.

1:6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적게 거두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아무도 따뜻하지 못하다. 품삯을 받는 사람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으려고 품삯을 받을 뿐이다.'

1: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행실을 깊이 살펴보아라.

1:8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아라, 적게 거두었을 뿐이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불어 날려 버렸다. 왜 그렇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폐허로 남아 있는 내 집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 일로 바쁘다.

1:10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그 소출을 내지 않는다.

1:11 내가 가뭄을 불러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이 내는 것 위에, 또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임하게 하였다."

1:12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남은 모든 백성과 함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따라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했다.

1:13 그때 주님의 특사인 학개가 주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14 주님께서 유다 총독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일깨우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

1:15 그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스무나흗날이었다.

2장

2:1 일곱째 달 스무하룻날에,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2:2 "너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2:3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남아 있느냐? 지금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2:4 그러나 이제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5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으로 맺은 말이며,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살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2: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2:7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의 보배가 이를 것이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8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9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0 다리오 통치 둘째 해 아홉째 달 스무나흗날에,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2:11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해 물어보아라.

2:12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다가,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라."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2:13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이 이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부정해집니다."

2:14 이에 학개가 말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5 이제 오늘부터 그 이전을, 주님의 성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전을 생각해 보아라.

2:16 그 모든 기간에는 스무 단위 분량의 더미에 오면 열 단위뿐이었고, 포도주 통에서 쉰 단위를 길어 올리러 오면 스무 단위뿐이었다.

2:17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마름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8 '오늘부터 그 이전을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스무나흗날부터, 곧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부터 깊이 생각해 보아라.

2:19 아직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2:20 그달 스무나흗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두 번째로 전해졌다.

2: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2:22 내가 여러 왕국의 왕좌를 뒤엎고, 여러 민족들의 왕국의 힘을 멸하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을 것이니, 말들과 그 탄 자들이 제각기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2:23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스알디엘의 아들인 내 종 스룹바벨 너를 데려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인장 반지처럼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스가랴

1장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1:2 "주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분노하셨다.

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1:4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1:5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더냐?

1:6 그러나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나의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대로 닥치지 않았느냐? 그제야 그들이 회개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셨다' 하였다."

1:7 다리오 왕 제이년 스밧월인 열한째 달 스무나흗날에,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1:8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1:9 그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겠다.'

1:10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1:11 그들이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사자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1:12 그러자 주님의 사자가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이 칠십 년 동안 분노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1:13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1:14 그러자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 전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질투하며 아낀다.

1:15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몹시 분노한다. 내가 조금만 분노했을 뿐인데, 그들은 재앙을 더했기 때문이다."

1: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펼쳐질 것이다.'"

1:17 너는 또 외쳐 전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읍들이 다시 번영하여 넘쳐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1:18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네 개의 뿔이 있었다.

1:19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 버린 뿔들이다."

1:20 주님께서 내게 장인 네 명을 보여 주셨다.

1:21 내가 물었다. "이들은 무엇을 하러 오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저것들은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 버린 뿔들이다. 그러나 이 장인들은 그 뿔들을 떨게 하고, 유다 땅을 흩뜨리려고 뿔을 치켜들었던 뭇 민족들의 뿔을 꺾어 떨어뜨리려고 온 것이다."

2장

2: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한 사람이 있었다.

2:2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2:3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와서,

2:4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이 젊은이에게 전하여라.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마을들처럼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다.

2:5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둘레를 감싸는 불성벽이 되어 주고, 그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

2:6 주님의 말씀이다. '자,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바람처럼 사방으로 흩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2:7 '자, 바벨론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시온아, 도망쳐라!'

2:8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영광을 위해 그분이 나를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보내셨으니,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9 보라, 내가 그들 위로 내 손을 흔들 것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0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기뻐하여라! 보라, 내가 가서 네 가운데 머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2:11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네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2 주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2:13 모든 육체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분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3장

3:1 그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려고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3:2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이것은 불 속에서 꺼낸 타는 나무토막이 아니냐?"

3:3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3:4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일렀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죄악을 네게서 없애 버렸으니, 네게 화려한 옷을 입혀 주겠다."

3:5 내가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두건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두건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주님의 사자는 곁에 서 있었다.

3:6 주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엄숙하게 확언하며 말했다.

3: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만일 내 길을 걷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 또한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이들 사이를 드나들게 해 주겠다.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동료들은 들어라. 그들은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내 종인 싹을 나오게 하겠다.

3:9 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아둔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거기에 글을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 버리겠다.

3:10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날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4장

4:1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잠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4:2 그가 내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제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 위에 등잔 일곱 개가 있으며, 꼭대기에 있는 등잔들마다 기름관이 일곱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4:3 또 그 곁에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4:4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물어 말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4:5 그러자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했다.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4:7 큰 산아, 너는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다. 그가 맨 위에 놓을 마감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은혜, 그 돌에 은혜가 있기를!' 하고 환호할 것이다.

4:8 주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주님의 눈이다."

4:11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4:12 내가 두 번째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을 쏟아 내는 두 금관 곁에 있는 이 올리브나무 가지 둘은 무엇입니까?"

4:13 그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했다.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4:14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5장

5: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

5:2 그가 내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길이가 이십 규빗이고 너비가 십 규빗입니다."

5:3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저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5:4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저주를 내보내겠으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 한가운데 머물면서, 나무와 돌과 함께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5:5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 내게 말했다. "이제 눈을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5:6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에바 바구니다." 그가 또 말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5:7 그때 무게가 한 달란트 나가는 납 뚜껑이 들렸는데, 에바 바구니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5:8 천사가 "이 여자는 사악함이다" 하고 말하더니, 그 여자를 에바 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고 납 뚜껑을 바구니 아귀 위에 덮었다.

5:9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고, 그들이 그 에바 바구니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5:10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들이 에바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5:11 그가 내게 대답했다. "시날 땅에 그 여자를 위해 집을 지어 주려는 것이다. 그 집이 준비되면, 그 여자는 그곳 자기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6장

6: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네 대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산들은 청동 산이었다.

6:2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매여 있었다.

6:3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에는 얼룩말들이 매여 있었는데,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6:4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입니까?"

6:5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자들이다.

6:6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얼룩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아간다."

6:7 그 힘센 말들은 나아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기를 원했다. 그가 "가서 온 땅을 두루 다녀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녔다.

6:8 그러자 그가 나를 불러 내게 말했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가라앉혀 평온하게 했다."

6:9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6:10 "포로 되었던 자들 가운데서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너는 바로 그날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거라.

6:11 은과 금을 가져다가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6:12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름이 싹인 사람이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나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6:13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지닐 것이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자기 왕좌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 둘 사이에 평화의 협의가 있을 것이다."

6:14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 기념물이 될 것이다.

6:15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와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것이니,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7장

7: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르월 나흗날에,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7:2 벧엘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고,

7:3 만군의 주님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해 온 것처럼 다섯째 달에 몸을 구별하여 울어야 합니까?" 하게 했다.

7:4 그때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7:5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할 때에, 과연 나를 위해, 진정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7: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스스로를 위해 먹고 스스로를 위해 마신 것이 아니더냐?

7:7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사람들이 살며 번영을 누리고, 남쪽 지역과 평원 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옛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냐?'"

7:8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7:9 "만군의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한 판결을 내리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7: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자기 형제를 해칠 악한 꾀를 품지 마라.'

7:11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7:12 그렇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이 자신의 영으로 옛 예언자들을 통해 보낸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에게서 큰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7:13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듯이, 그들이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7:14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뭇 민족들 사이로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흩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난 뒤에 그 땅은 황폐해져서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8장

8:1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8: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을 몹시 질투하며 아끼고, 큰 분노로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

8: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한가운데 머물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고,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8:4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노인들과 할머니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 쉴 것이며, 나이가 많아 사람마다 손에 지팡이를 짚을 것이다.

8:5 성읍의 거리들에는 거리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8:6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이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도 놀랍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8:7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8:8 내가 그들을 데려오겠으니,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9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요즘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여라.

8:10 그날들 전에는 사람에게도 품삯이 없었고 짐승에게도 삯이 없었으며, 대적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기 때문이다.

8:11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지난날처럼 대하지 않겠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8:12 평화의 씨앗이 뿌려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겠다.

8:13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뭇 민족 가운데서 저줏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여라."

8:14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품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듯이,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8:15 요즘에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복을 내리기로 다시 뜻을 품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8:16 너희가 행해야 할 일들은 이러하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에서 진리와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8:17 너희 가운데 아무도 마음에 이웃을 해칠 악한 꾀를 품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8:18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8:19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 집안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여라."

8:20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다시 올 것이다.

8: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서 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8:22 그렇다, 많은 백성과 강한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다."

8:23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여러 민족의 온갖 언어를 쓰는 열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 것이다."

9장

9:1 경고의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메섹에 머물 것이니, 사람들의 눈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9:2 그 땅에 인접한 하맛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다.

9:3 두로는 자신을 위해 요새를 쌓고, 은을 먼지처럼 쌓아 올렸으며 순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9:4 보라, 주께서 그녀의 재물을 빼앗으시고 바다에서 그녀의 권세를 치실 것이니, 그녀는 불에 삼켜질 것이다.

9:5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보고 몹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에그론 또한 자기 희망이 무너져 그러할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9:6 아스돗에는 혼혈 민족이 살 것이며,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 버리겠다.

9:7 내가 그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들을 치워 버릴 것이다. 그 또한 남아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9:8 내가 내 집 둘레에 진을 쳐서 군대로부터 지켜 아무도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억압자가 다시는 그들을 짓밟지 못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친히 내 눈으로 지켜보기 때문이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네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9:10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없애겠다. 전쟁용 활도 없어질 것이며, 그가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9:11 너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너와 맺은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풀어 주었다.

9:12 희망을 품은 죄수들아,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선언하노니, 너희에게 두 배로 갚아 주겠다.

9:13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으로 화살을 메웠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의 아들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처럼 만들겠다.

9:14 주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의 화살이 번개처럼 번뜩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것이며, 남쪽의 회오리바람을 타고 나아가실 것이다.

9:15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돌팔매 돌로 원수를 삼키며 굴복시킬 것이다. 그들은 술을 마신 것처럼 마시고 흥겨워 소리칠 것이며, 대접처럼 제단 모퉁이처럼 가득 차오를 것이다.

9:16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그분의 땅 위에 높이 빛날 것이다.

9:17 그분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대단한가! 곡식은 청년들을 활기차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생기 넘치게 할 것이다."

10장

10:1 봄비가 내릴 때에 주님께 비를 구하여라. 주님은 먹구름을 만드시는 분이니, 사람마다 밭의 채소를 위해 소나기를 내려 주실 것이다.

10:2 드라빔 우상은 헛된 것을 말하고 복술가들은 거짓을 보며 헛된 꿈을 이야기하니,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그러므로 백성이 양 떼처럼 헤매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10:3 "목자들에게 내 분노가 타올랐으니,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이 자기 양 떼 곧 유다 집안을 돌보아, 그들을 전투에서 빛나는 군마처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10:4 그에게서 모퉁잇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말뚝이 나오며, 그에게서 전쟁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모든 지휘관이 다 함께 나올 것이다.

10:5 그들은 전투에서 거리의 진흙탕을 짓밟는 용사들처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므로 그들이 싸울 것이며, 말을 탄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0:6 내가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않았던 자들처럼 될 것이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10:7 에브라임은 용사처럼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10:8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신호를 보내어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이 이전처럼 번성할 것이다.

10:9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뿌릴지라도,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며,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 돌아올 것이다.

10:10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데려오고, 앗수르에서 모아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들이 살 곳이 비좁을 것이다.

10:11 그분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며 바다 물결을 치실 것이니, 나일강의 모든 깊은 물이 마를 것이다. 앗수르의 교만이 꺾이고 애굽의 왕홀이 사라질 것이다.

10:12 내가 그들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다닐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11장

11:1 레바논아, 네 문들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들을 삼키게 하여라.

11:2 사이프러스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쓰러졌고 웅장한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바산의 참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11:3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의 영광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어린 사자들의 포효 소리가 들려온다! 요단강의 울창한 숲이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11:4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여라.

11:5 그들을 산 자들은 잡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 파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하며, 그들의 목자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11:6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보라, 내가 모든 사람을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이 땅을 칠 것이나,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11:7 그리하여 내가 잡혀 죽을 양 떼, 곧 양 떼 가운데서도 억압받는 양들을 먹였다. 내가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혜'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부르며 양 떼를 먹였다.

11:8 한 달 만에 내가 세 목자를 없애 버렸다. 내 마음에 그들을 견딜 수 없었고, 그들도 나를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11:9 그때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을 것은 죽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두며, 남은 것들은 서로의 살을 먹게 두어라."

11:10 내가 '은혜'라는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꺾어 버렸으니, 모든 민족과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려는 것이었다.

11:11 그날에 언약이 깨어졌다. 그리하여 내게 귀를 기울이던 양 떼 가운데 가련한 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11:12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마라." 그러자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삼십 개를 달아 주었다.

11:13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매긴 그 엄청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져 버려라!" 그리하여 내가 은 삼십 개를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11:14 그런 다음 내가 '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 버렸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애를 끊으려는 것이었다.

11:15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장비들을 취하여라.

11:16 보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터인데, 그는 사라져 가는 양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진 양들을 찾지 않으며, 다친 양들을 고치지 않고 성한 양들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름진 양들의 살코기를 먹어 치우고 발굽까지 찢어 버릴 것이다.

11:17 양 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다. 그의 팔은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멀어 버릴 것이다!"

12장

12:1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계시 말씀이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2:2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선 모든 백성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유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12:3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돌을 들어 올리려는 자는 누구나 큰 상처를 입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12:4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집안은 눈을 뜨고 보살필 것이며, 이방 민족들의 모든 말은 쳐서 눈멀게 하겠다.

12:5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만군의 주님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12:6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들 사이의 불 화로처럼 만들고 곡식 단 사이의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불태워 삼킬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그 자리 곧 예루살렘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12:7 주님께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높아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2:8 그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며,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의 사자처럼 될 것이다.

12:9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려 나설 것이다.

12:10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위해 곡하듯 그를 위해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해 비통해할 것이다.

12:11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므깃도 골짜기의 하닷림몬에서 애통해하던 것과 같을 것이다.

12:12 그 땅이 애통해하되 가문마다 따로 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문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집안의 가문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다.

12:13 레위 집안의 가문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가족의 가문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할 것이다.

12:14 남아 있는 모든 가문도 가문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다."

13장

13:1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부정을 씻는 샘 하나가 열릴 것이다.

13:2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니, 그것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13:3 누군가 여전히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13:4 그날에 예언자들은 저마다 예언할 때 보았던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13:5 오히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종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3:6 누군가 그에게 '당신의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맞은 상처들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13:7 "칼아, 깨어나 내 목자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내가 작은 이들을 향해 손을 돌릴 것이다.

13:8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고, 삼분의 일만 거기에 남을 것이다.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속으로 이끌어 은을 제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이다."

14장

14:1 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네게서 빼앗은 약탈품이 네 한가운데서 나뉠 것이다.

14:2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인들이 능욕을 당할 것이다. 성읍 주민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4:3 그때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저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14:4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설 것이다.

14:5 너희는 내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산들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이들이 너와 함께 올 것이다.

14:6 그날에는 빛도 없고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14:7 주님께서 아시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닐 것이지만, 저녁 무렵에 빛이 있을 것이다.

14:8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14:9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14:10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변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올라 제자리에 우뚝 설 것이니,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탑에서 왕의 포도주 틀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14:11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머물 것이다.

14:12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을 주님께서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어 없어지며, 입 속에서 혀가 썩어 들어갈 것이다.

14:13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공황을 일으키실 것이니, 그들이 저마다 이웃의 손을 붙잡고 자기 이웃의 손을 치려고 손을 들 것이다.

14:14 유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며, 사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다.

14:15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들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이와 똑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4:17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을 주님께서 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14:19 이것이 애굽이 받을 벌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이 받을 벌이다.

14:20 그날에는 말방울 위에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며,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의 대접들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14:21 그렇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님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니,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다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에 상인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라기

1장

1:1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주님의 말씀, 곧 계시이다.

1: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1:3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광야의 자칼들에게 넘겨주었다."

1:4 에돔은 "우리가 무너졌으나, 다시 돌아와 황폐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지만, 만군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악한 땅'이라 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1:5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1:6 만군의 주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묻는다.

1: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가 '주님의 상은 하찮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

1:8 너희가 눈먼 것을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이 악하지 않으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바칠 때, 그것이 악하지 않으냐? 그것을 지금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너그럽게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1:9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 보아라. 너희가 이런 제물을 바쳤는데, 그분이 너희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1:10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성전 문들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바치는 제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1:11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뭇 나라 가운데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피우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뭇 나라 가운데서 위대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1:12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열매 곧 그 음식은 하찮다'라고 말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13 너희는 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그것을 코웃음 쳐 넘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빼앗은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니, 내가 너희 손에서 그것을 받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1:14 "자기 가축 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하고는 흠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사기꾼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뭇 나라 가운데서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2장

2:1 "이제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2:2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했다.

2:3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너희 얼굴에 똥, 곧 너희 절기 제물의 똥을 칠할 것이다. 너희는 그 똥과 함께 치워질 것이다.

2:4 그때에 너희는, 레위와 맺은 내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2:5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2:6 진리의 법이 그의 입에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평화와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 걸었으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했다.

2: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 제사장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2:8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걸려 넘어지게 했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2:9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적용할 때 사람을 차별했듯이, 나 또한 온 백성 앞에서 너희를 멸시받고 비천하게 만들었다."

2:10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배신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느냐?

2:11 유다는 배신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일이 저질러졌다. 유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2:12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깨어 있는 자든 응답하는 자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며,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라 해도 끊어 버리실 것이다.

2:13 너희가 또 이런 일을 행한다. 주님께서 더 이상 너희 제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므로, 너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덮는다.

2:14 그러면서 너희는 '어째서입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께서 너와 네가 젊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네 동반자요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네가 그 아내를 배신했다.

2:15 그분께 영이 남아 있었는데도 너희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로 만드셨겠느냐? 경건한 자손을 찾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잘 살피고, 아무도 젊을 때 맞이한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2:16 "미워하여 이혼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는 자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주의 깊게 살펴 배신하지 마라."

2:17 너희가 말로 주님을 지치시게 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지치시게 했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의 눈에 선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3장

3:1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올 것이다. 보라,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오고 있다!"

3:2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 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사람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다.

3:3 그는 은을 제련하고 정화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제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의롭게 주님께 제물을 바칠 것이다.

3: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오랜 세월 전처럼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 점술가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품삯을 가로채 억압하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억누르는 자들, 나그네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재빨리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3:6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인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3:7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벗어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3:8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묻는다. 바로 십일조와 헌물에서 도둑질했다.

3:9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3:10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 문들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3: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을 것이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없애지 못할 것이며, 들에 있는 너희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를 떨어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3:12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부를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3:13 "너희 말이 나를 거슬러 완악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묻는다.

3:14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님 앞에서 슬피 걸어 다닌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3:15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고 부른다.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면하기 때문이다.'"

3:16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념책이 기록되었다.

3:17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 곧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3:18 그때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4장

4:1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화덕처럼 불타는 날이 오고 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해가 그 날개에 치유를 품고 떠오를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뛰놀 것이다.

4:3 너희는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의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4:4 "너희는 내 종 모세의 율법, 곧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그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5 보라,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4:6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1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이다.

1: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1:4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1: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으며,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1: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웃시야를 낳았다.

1:9 웃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1: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1:11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12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1: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았으며,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1:14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1: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았으며,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1: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1: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일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1: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했다.

1:20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1: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1: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23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1:24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1:25 그러나 마리아가 첫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2장

2:1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다.

2:2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2: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해했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술렁였다.

2:4 왕은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모아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2:5 그들이 대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통치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냈다.

2:8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아기를 자세히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2: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2: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크게 기뻐했다.

2:11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

2:12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꿈에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2:13 그들이 떠난 뒤,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2: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2:15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곧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2: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였다.

2:17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2:18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더 이상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2:19 헤롯이 죽은 뒤, 주님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했다.

2: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에 경고를 받은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

2:23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3장

3: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했다.

3:2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3:3 이 사람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3: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3:5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3:6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3:7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3:9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3: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3:11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3:12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실 것이다. 밀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버리실 것이다."

3:13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3:14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3:1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했다.

3: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3: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다."

4장

4: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올라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2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몹시 배가 고프셨다.

4:3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4:5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4:6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4: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기록되기를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4:8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몹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4:9 말했다.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4:10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기를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였다."

4:11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4:12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4:13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4:1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4: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여,

4:16 어둠 속에 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 아래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4:18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4: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4:20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4: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4: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4:23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4:24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사람들이 여러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환자들, 몸이 마비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4: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5장

5:1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5:2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5:4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5:7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5:8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5: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온갖 악한 말을 거짓으로 지어내 너희를 비난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5:12 기뻐하고 몹시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앞서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박해했다.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5:15 등불을 켜서 곡식의 양을 재는 바구니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 등잔 받침대 위에 두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5:16 이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5: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5:18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 하나나 아주 작은 획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가장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5: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21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5: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이 바보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5: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네게 원망할 만한 일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5: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바쳐라.

5:25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그와 서둘러 합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주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5:26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5:27 '간음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5: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했다.

5:29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내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네게 더 이롭다.

5: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네게 더 이롭다.

5:31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려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라고 하였다.

5: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5:33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한 맹세를 지켜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5: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5:35 땅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5: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5:37 너희 말은 다만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다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5:38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5: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5:40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5:41 누구든지 너더러 억지로 일 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이 마일을 가 주어라.

5:42 네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을 뿌리치지 마라.

5: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5: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5: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5: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5:47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6장

6: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6:2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6:3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6:4 그리하여 네 구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실 것이다.

6:5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6:6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실 것이다.

6:7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한다.

6: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6:9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해 주십시오.

6: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6:11 오늘 저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6:12 저희도 저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하듯이, 저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6:1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6: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6: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6:16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6:17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6:18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6:19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녹이 갉아먹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6:20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갉아먹지 않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6:21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6: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6:23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6: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6: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6:28 너희는 왜 옷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6: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6: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6: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7장

7:1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

7:2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척도로 너희에게도 재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7: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7:4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7: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똑똑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7:6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7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7:8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7:9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7:10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7: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아낌없이 주시겠느냐!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이다.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7:14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7: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늑대들이다.

7: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7: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7:20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7: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7: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7:23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불의를 행하는 이들아, 내게서 떠나라.'

7: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겠다.

7: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7:26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7: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자,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7:28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7:29 그분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8장

8:1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8:2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8: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8: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8:5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아와 도움을 청하며 말했다.

8:6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집에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습니다."

8: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8:8 백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8:9 저도 남의 지휘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며,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8:10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8:11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동과 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8:12 그러나 그 나라의 본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8:13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8:14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으며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8:15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내렸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

8: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

8:17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곧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8:18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8:19 어떤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8:2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8:21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8:22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두어라."

8:23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랐다.

8:24 그런데 바다에 거센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일 지경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8:25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8: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8:27 그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8:28 예수님께서 건너편 게르게사인들의 지역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다.

8:29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8:30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8:31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8: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귀신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온 돼지 떼가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

8: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달아나 도시로 들어가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비롯한 모든 일을 전했다.

8:34 그러자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을 보자 자기들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했다.

9장

9:1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셔서 자신의 동네에 이르셨다.

9:2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9:3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9: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9:5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9: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매트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9:7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9:8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하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9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9:10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

9: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9:12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9: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며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러 왔다."

9:14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9: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9:16 아무도 줄어들지 않은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 기운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9:17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히 보존된다."

9:18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9:19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동행하였다.

9:20 그때 십이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뒤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9:21 그 여자가 속으로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22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부터 그 여자가 나았다.

9:23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사람들과 소란을 피우는 무리를 보시고

9:24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러들 가거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9:25 무리를 밖으로 내보낸 뒤 예수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다.

9:26 이 소문이 그 온 지역에 퍼졌다.

9:27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실 때 두 눈먼 사람이 따라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9:28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9:2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9: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엄히 당부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주의하여라."

9: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온 지역에 예수님의 명성을 퍼뜨렸다.

9:32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9:33 귀신이 쫓겨나자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였다. 무리가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9: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9:35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9:36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9:37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지만 일꾼이 적다.

9:38 그러므로 추수하시는 주님께 추수할 일터로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구하여라."

10장

10: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온갖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10: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10: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라고도 불린 레배오,

10:4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10: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10:6 오히려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거라.

10:7 가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10:8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0: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지니지 마라.

10:10 여행을 위해 가방도, 두 벌 옷도, 샌들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10:11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10:12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주어라.

10: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0:14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도시를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라.

10: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0:16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10: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10:18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10:19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받을 것이다.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10: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10: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23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도시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돌지 못할 것이다.

10:24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10:25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안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10: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드러나지 않을 덮인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숨겨진 것이 없다.

10: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 동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0:30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다.

10: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10: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10: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10: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10:35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10:36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사람일 것이다.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10: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10:39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10:40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10:41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10:42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11장

11: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를 마치신 뒤 그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11:2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

11:3 예수님께 여쭈었다.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1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11:5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11:6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1:7 그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11:8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11:9 그러면 너희는 왜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예언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다.

11:10 이 사람에 관해 기록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11:1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11:12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거친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11:13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이다.

11:14 너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11:15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1:16 이 세대를 무엇에 빗댈 수 있겠느냐? 마치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부르며

11:17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11: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 하고 말한다.

11:19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사람들은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음이 증명된다."

11:20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이 가장 많이 행해진 성읍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11: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행해진 그 권능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11: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1:23 그리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에게 행해진 그 권능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11: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1:25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11: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11:27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11:30 내 멍에는 메기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12장

12:1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12:2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했느냐?

12: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자신이나 일행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12:5 또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고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 보지 못했느냐?

12: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12:7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12:9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12:10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다.

12: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12: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12:13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펴니, 다른 쪽 손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12:1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12:15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2:16 그리고 자신에 관해 알리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다.

12:17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2:18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12: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12:20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니,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도록 이끌 것이다.

12:21 이방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둘 것이다."

12:22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12:23 모든 무리가 몹시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12:2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12:25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황폐해지고, 어느 도시나 집안이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버텨 내지 못한다.

12: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12:27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12:29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 수 있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집을 털 것이다.

12: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의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2:32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2:33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고 여겨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2:34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12:35 선한 사람은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12: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내뱉는 온갖 쓸데없는 말에 대해 심판 날에 책임을 지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12:37 네 말로 네가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며, 네 말로 네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12:38 그때 몇몇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12: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12:40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12: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12:42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12:43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12:44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말하였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 정돈되어 있었다.

12:45 그러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이 악한 세대에게도 그대로 될 것이다."

12:46 예수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12:47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2:48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12:49 그리고 손을 제자들에게 내미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12: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13장

13:1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다.

13:2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바닷가 언덕에 서 있었다.

13: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13:4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13: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이 곧 나왔으나,

13:6 해가 돋자 타버렸고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다.

13:7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숨을 막아 버렸다.

13:8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의 결실을 맺었다.

13: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3:10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어째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3: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3:12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3: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13:15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둔해졌으며 눈은 감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줄지도 모른다.'

13: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13: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3:18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13:19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로채 간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이다.

13:20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13:21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딘다.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13: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이 시대의 걱정과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13: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참으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를 낸다."

13:24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13:25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덧뿌리고 갔다.

13:26 싹이 트고 이삭이 팰 때 독보리도 드러났다.

13:27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13:28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원수가 이렇게 해 놓았구나.' 종들이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바라십니까?'

13:29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독보리를 뽑아 모으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스럽다.

13: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모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여라" 하고 이르겠다.'"

13:31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13:32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지만, 자라면 풀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13: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밀가루 세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13:34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13:35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요,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져 온 것들을 털어놓을 것이다."

13:36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밭의 독보리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13:37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13:39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13:40 그러므로 독보리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13:41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인자의 나라에서 가려내어 모아들일 것이다.

13:42 그리고 그들을 활활 타는 불 불가마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43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3:44 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 두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13:45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13:46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13: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13:48 그물이 가득 차자 어부들이 바닷가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13:49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13:50 그리고 그들을 활활 타는 불 불가마에 던져 넣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13: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것과 헌것을 꺼내 오는 집주인과 같다."

13:53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마치신 뒤 그곳을 떠나셨다.

13:54 자기 고향에 이르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의 능력을 얻었을까?

13: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가 아니냐?

13:56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13:57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13:58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14장

14:1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4:2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14:3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다.

14:4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거듭 말했기 때문이었다.

14:5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무리가 그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을 두려워했다.

14:6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14:7 그래서 헤롯은 그 소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했다.

14:8 소녀는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말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제게 주십시오."

14:9 왕은 괴로웠지만, 자신이 한 맹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14:10 그리고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14:11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와서 소녀에게 건네졌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4: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알렸다.

14:13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무리가 소문을 듣고 마을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14:14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4: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이곳은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 마을로 들어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14:16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4:17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14:1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너라."

14:19 그리고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14:20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14:21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오천 명이었다.

14:22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고, 자신이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14:23 무리를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거기에 혼자 계셨다.

14:24 그때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 물결에 시달리고 있었다.

14:25 새벽 네 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14: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14:27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14:28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14: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다.

14: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무서워졌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소리쳤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14:31 예수님께서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14:32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14:33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4:34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14:35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온 주변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14:36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손을 댄 사람은 모두 온전히 나았다.

15장

15:1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5:2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1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15:4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15:5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해 드릴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15:6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었다.

15:7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참으로 잘 예언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다.

15: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15:9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15:10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아라.

15: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5:12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 말씀드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5:1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째 뽑힐 것이다.

15:14 그들을 그냥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15:15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15:1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5: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배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15: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15: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성적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이 나오기 때문이다.

15: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15:2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물러가셨다.

15:22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가나안 여인이 나와 소리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령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5:2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15:2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15:25 그러나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15:2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15:27 여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

15:28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여인의 딸이 나았다.

15:29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15:30 큰 무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말을 못 하는 사람들, 지체를 못 쓰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31 그리하여 무리는 말 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성치 못한 사람이 온전해지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15:3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가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15:33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이 외딴곳에서 이렇게 큰 무리를 배불릴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15: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일곱 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15:35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15:36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15:37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15:38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15:39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내신 뒤, 배에 올라 마그달라 지역으로 가셨다.

16장

16:1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16: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맑겠다' 하고,

16: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다' 하고 말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16: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빵 챙겨 오는 것을 잊었다.

16: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6:7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16:8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어찌하여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16: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빵 다섯 개와,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6:10 사천 명이 먹은 빵 일곱 개와,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6:11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6:12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임을 깨달았다.

16:13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14 제자들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1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려 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16:18 나 또한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6:19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묶으면 하늘에서도 이미 묶여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16:20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16:21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16:22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모시고 가 말리며 말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16: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6:24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16:25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16: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내주겠느냐?

16:27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다.

16: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17장

17:1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17: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17:3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7:4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17:5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17:6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했다.

17:7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17: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17: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7: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7: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17: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7:13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세례자 요한임을 깨달았다.

17:14 그들이 무리에게 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17:15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가 간질을 앓아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빠집니다.

17:16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17:17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너라."

17:18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는 바로 그 시각에 나았다.

17:19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7: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해도 옮겨 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17: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17:22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7:23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사흗날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했다.

17: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두 드라크마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의 선생님은 두 드라크마를 내지 않습니까?"

17:25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17:26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된다.

17: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라. 맨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면 스타테르 동전 한 닢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라."

18장

18:1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18:2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곁으로 부르셔서 그들 한가운데에 세우셨다.

18:3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18: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18: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18:7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18:8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 내어 던져 버려라. 성치 않은 몸이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18:9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뽑아내어 던져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18:10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뵙고 있다.

18:11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18:12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8:13 그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는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18:14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18:15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되찾은 것이다.

18:16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모든 말을 확증하려는 것이다.

18:17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마저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묶으면 하늘에서도 이미 묶여 있을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18:19 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 청할 일에 마음을 모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

18:21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18: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여라.

18: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셈을 밝히려고 한 어떤 왕과 같다.

18:24 왕이 셈을 시작하자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18:25 그러나 그에게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사람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18: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주인 앞에 절하며 말했다. '주인님, 제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18:27 그 종의 주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18: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하나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말했다. '빚진 것을 갚아라!'

18:29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제게 참아 주게. 그러면 다 갚겠네!'

18: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18:31 다른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여,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렸다.

18: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원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겠느냐?'

18:34 주인은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9장

19:1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19:2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19: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며 물었다. "어떤 이유로든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9: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19:5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것이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셨다.

19:6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9: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까?"

19: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요,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19: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남편과 아내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19:11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오직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19:12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에 의해 고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19:13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9:14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9:15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19:16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9:1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것에 대해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9:18 그가 예수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9: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19:20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젊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19:21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19:22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9:2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19:24 다시 너희에게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19:25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19: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9:27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19: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로워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9:29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 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19:30 그러나 첫째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인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20장

20:1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집주인과 같다.

20:2 그는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20:3 그가 오전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장터에 다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서 있었다.

20:4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고 말했고, 그들은 포도원으로 갔다.

20:5 그는 정오와 오후 세 시쯤에도 다시 나가 똑같이 했다.

20:6 오후 다섯 시쯤에 나가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느냐?' 하고 묻자,

20:7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당한 품삯을 받을 것이다.'

20:8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했다.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주어라.'

20:9 오후 다섯 시쯤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20:10 맨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20:11 그들은 품삯을 받고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20:12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20:13 그러나 집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그대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20:14 그대의 몫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 마지막 사람에게 그대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소? 아니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대의 눈이 악해지는 것이오?'

20:16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20:17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곁으로 데리고 가셨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18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기로 정죄할 것이다.

20:19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며, 사흗날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20:20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했다.

20: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말씀드렸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명령해 주십시오."

20:22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20: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사람들의 것이다."

20:24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몹시 화를 냈다.

20:25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듯이 세상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20:26 너희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20:27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0:28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온 것과 같다."

20:29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20:30 길가에 앉아 있던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0:31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0:32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20:33 그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20:34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21장

2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2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곧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둘 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21: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 줄 것이다."

21:4 이 모든 일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21: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니,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21:6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21:7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다.

21:8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21:9 앞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계속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21:1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21:11 무리가 말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 예수님이시다."

21:1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21:1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21:14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21: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분개했다.

21:16 그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주님께서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했느냐?"

21:1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도시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21:18 이른 아침에 도시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다.

21:19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21: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버렸을까?"

21: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21:22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1:23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21: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21:25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가 '그렇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21:2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21:27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1:28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21:29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21:30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21:31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21: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 뉘우쳐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21:33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집주인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도지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21:34 열매를 거둘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21:35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21:36 주인은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

21:37 나중에 그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21:38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가로채자.'

21:39 그리하여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진 뒤 죽였다.

21:40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21:41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그는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처치하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도지로 줄 것입니다."

21: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다.'

21: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21: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가루로 흩어 버릴 것이다."

21: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아챘다.

21:46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22장

2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22: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22:3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22:4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 내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혼인 잔치에 오너라."'

22:5 그러나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22:6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22:7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22:8 그런 뒤에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22:9 그러므로 너희는 큰길의 네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여라.'

22:10 그 종들은 큰길로 나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모아들였다. 그리하여 혼인 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찼다.

22:11 그러나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22:12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도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2:13 그때 왕이 시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22:14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22:15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모의했다.

22:16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참되시며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임을 압니다.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니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2:17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2:18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22:19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보여 주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22: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22:21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2: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예수님을 남겨 두고 떠나갔다.

22:23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22:24 그들이 말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을 자손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2:25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자손이 없었으므로 자기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22:26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22:27 그들 모두가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2:28 일곱 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22: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22:31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22:33 무리가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22:34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다.

22:35 그들 중 율법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22: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네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22: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22:39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22:40 온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22: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22: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22:4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겠느냐?

22:44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2:45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22:46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23장

23:1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2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23: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고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3:4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23:5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성구함을 넓게 만들고 옷단을 길게 늘이며,

23:6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23:7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23: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한 분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다.

23:9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3:10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23:11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23:13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23:14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23:15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23:16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23:17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23:18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그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23:19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제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23: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23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박하와 딜과 회향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23:24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23:25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그 속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3:26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3:27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3: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23:29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비를 꾸미면서,

23:30 '만일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조상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23:31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23:32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23:33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23:34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그들 중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박해할 것이다.

23:35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갸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의 죗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23:3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23:38 보아라, 너희의 집이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23: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기를!' 하고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24: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길을 가고 계실 때,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 드렸다.

24: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24:3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나아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징조와 세상 끝 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24: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6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24:7 민족이 민족을 거스르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24:8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24:11 많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12 불법이 많아지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4:14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야 끝이 올 것이다.

24:15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24:16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24: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24:18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24:19 그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 화가 있다!

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24:22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다.

24:23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24: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다.

24:26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아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24:27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24: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24:29 그 날들의 환난이 지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24:30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4: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24:32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을 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24: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가 문 앞에 가까이 다다른 줄 알아라.

24:3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4:35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4: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24:38 홍수 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가,

24: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24:40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24: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43 그러나 이것을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24: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24:45 그렇다면 주인이 자기 집안사람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24:46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24: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24:48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24:49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주정뱅이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24:50 그 종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24:51 주인은 그를 찢어발기고 위선자들이 받는 몫에 처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

25장

25:1 "그때에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25:2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25:3 어리석은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함께 챙기지 않았으나,

25:4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

25:5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25:6 그런데 한밤중에 '보아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는 외침이 일어났다.

25:7 그러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등의 불을 손질했다.

25: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말했다.

25: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 모두 쓰기에 모자랄지도 모른다.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거라' 하고 대답했다.

25: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25: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25:12 그러나 신랑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했다.

25: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5:14 하늘나라는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25: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25: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장사를 하여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벌었다.

25:17 이와 같이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또 다른 두 달란트를 벌었다.

25:18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두었다.

25:19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정산했다.

25: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아와 다른 다섯 달란트를 가져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그에 더하여 다른 다섯 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너라.'

25:22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나아와 말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그에 더하여 다른 두 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5: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너라.'

25:24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나아와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굳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25:25 그래서 두려워하여 밖으로 나가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25:26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더냐?

25: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환전상들에게 맡겨 두어야 마땅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본전에 이자를 더해 받았을 것이다.

25:28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5:29 가진 사람마다 받아 넉넉해질 것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5:30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25:31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25:32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분은 그들을 하나하나 갈라놓으실 것이다.

25:33 양은 그분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다.

25:34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25:35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들였다.

25:36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와 주었다.'

25:37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25:38 언제 저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25:39 언제 저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습니까?'

25: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25:41 그때 왕은 자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25:42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25:43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25:44 그때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돕지 않았습니까?'

25:45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25:46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26장

26:1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6:2 "너희가 알듯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26:3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불리는 대제사장의 저택 안뜰에 모였다.

26:4 그들은 속임수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26:5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 중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했다.

26:6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26:7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26:8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는가?

26:9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26:10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26: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26: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26: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26:14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26:15 말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유다에게 은화 서른 개를 달아 주었다.

26: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

26: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26:1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안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26:1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26:20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6:21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26:22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26:2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26:24 인자는 자기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26:25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26: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6:27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마셔라.

26:28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내 피다.

26: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30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갔다.

26:31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6:32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26:33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모두가 주님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26: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26:35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

26:36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곳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26:37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몹시 슬퍼하시며 큰 괴로움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26:38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심히 괴로우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26:39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26:4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26: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26:42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6:43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눈이 무거워 또 자고 있었다.

26:44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신 채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26:45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26:46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나를 배반할 자가 가까이 왔다."

26:47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26:48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신호를 주며 일러두기를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라고 했다.

26:49 유다는 곧장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26: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26:51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26:5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사람은 누구나 칼로 망할 것이다.

26:53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지금이라도 천사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 주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26:54 그렇다면 일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26:55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붙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26: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26:57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26: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26:59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언을 찾았다.

26:60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섰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서서

26:61 말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26:62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말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거슬러 증언하는 이 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26:6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엄명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26:6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6:65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 자가 신성모독을 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그의 신성모독 발언을 들었소.

26:66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오?"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26:67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26:68 말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해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26:69 그때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26:70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26:71 베드로가 현관으로 나가자, 다른 여자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26:72 베드로는 맹세하며 다시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26:73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도 분명 그들 중 한 사람이에요. 말투를 들으니 알겠어요."

26:74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26: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슬피 울었다.

27장

27:1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27:2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27:3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서른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27:4 말했다.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넘겨주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말했다.

27:5 유다는 그 은화를 성소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27:6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거두며 말했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 두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

27:7 그들은 의논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묻는 곳으로 삼았다.

27:8 그러므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27:9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화 서른 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몇몇 사람이 값을 매겨 놓은 그분의 몸값을 받아,

27:10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다."

27: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27:12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7:13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거슬러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들리지 않소?"

27:14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총독은 몹시 놀라워했다.

27:15 명절 때마다 총독은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27:16 그때 그들에게는 바라바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

27:17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요?"

27: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7: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27: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은 처형하도록 부추겼다.

27:21 총독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바라바요!" 하고 외쳤다.

27: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모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말했다.

27:23 총독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7:24 빌라도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죄가 없소.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27:25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27:26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었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27:27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전 부대를 그분 주위에 모이게 했다.

27:28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겉옷을 입혔다.

27:29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여 주었다. 그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27:30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다.

27:31 그들은 실컷 조롱한 뒤 진홍색 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27: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그를 끌고 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27:33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27:34 쓸개즙을 탄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27: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27:36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분을 지켜보았다.

27:37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적힌 죄패를 붙였다.

27:38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다.

27:39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27:40 말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27:41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조롱하며 말했다.

27:42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27:43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원하시게 해 보아라.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

27:44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비난했다.

27:45 여섯째 시각부터 아홉째 시각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27:46 아홉째 시각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리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27:47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27:48 곧바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를 가득 적신 뒤, 갈대에 달아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

27: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말했다.

27:50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27:51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27:52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어 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27:53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27: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27:55 그곳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27:56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27:57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부자가 왔는데,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

27: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27:59 요셉은 시신을 모셔다가 깨끗한 세마포 천으로 감싸서,

27:60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고 떠났다.

27:61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27:62 다음 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왔다.

27:63 그들이 말했다. "각하,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27:64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27: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단단히 지키시오."

27:66 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28장

28:1 안식일이 지나고 주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28: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로 다가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던 것이다.

28: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28:4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28: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을 압니다.

28: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주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십시오.

28:7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전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28:8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안고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

28:9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28: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28:11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28: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뒤, 군인들에게 많은 은을 주며

28:13 말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 갔다'고 말하시오.

28:14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총독을 설득해서 당신들이 걱정할 일이 없게 해 주겠소."

28:15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28:16 한편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28: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으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8:18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8: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나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2 예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소식을 전할 사람을 네 앞에 보낸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1: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1:4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세례를 베풀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1:5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갔다.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1:6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1:7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1: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9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10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1 하늘에서 목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1:12 그 직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13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1: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1:15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16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17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18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1:19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1:20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1:21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1:22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그분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쳤다.

1:24 "아!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1:25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1:26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왔다.

1:27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새로운 가르침은 뭐지? 저분은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도 명령하시는데, 그 영들이 복종하잖아!"

1:28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그 주변 온 지역으로 곧바로 퍼져나갔다.

1: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

1:30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앓아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곧바로 장모의 상태를 예수님께 알렸다.

1:31 예수님은 다가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자 곧바로 열이 내렸고, 장모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1:32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1:33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1:34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35 아주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외딴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1: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1:37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는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38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나왔다."

1:39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1:40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말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41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1:42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병이 곧바로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깨끗해졌다.

1:43 예수님은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그를 곧바로 보내셨다.

1:44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1:45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내 놓고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어서 마을 밖 외딴곳에 머무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2장

2:1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2:2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조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2:3 네 사람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왔다.

2:4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냈다. 지붕을 뚫고 몸이 마비된 사람이 누워 있는 자리를 내려보냈다.

2:5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2:6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7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2:8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으로 곧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느냐?

2:9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2: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2:11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2:12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 자리를 걷어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은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했다.

2:13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2:14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2:15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 및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2:16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2:17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2: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2: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자기들과 함께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20 그러나 그들에게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2:21 낡은 옷에 줄어들지 않은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덧댄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짐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2: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2:23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했다.

2:24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2: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 본 적이 없습니까?

2: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2:27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2:28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3장

3:1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3: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3:3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3:4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나 그들은 잠잠했다.

3:5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한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회복되었다.

3:6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했다.

3: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쪽으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따랐다. 또 유대와

3:8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들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다.

3:9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밀어닥치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을 위해 작은 배 한 척을 대기시켜 두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3:10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을 앓는 사람마다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3:11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12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3:13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3:14 예수님께서는 열둘을 세우셨는데, 이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3:15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3:16 그분께서 세우신 열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3:17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

3:18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열심당원 시몬,

3:19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3:20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일행은 빵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3:21 예수님의 친척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섰다. 그분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3: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3:23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3: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3:25 한 집안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은 바로 설 수 없다.

3:26 사탄이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바로 설 수 없고 파멸에 이른다.

3:27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3:28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자손들이 짓는 모든 죄는, 그들이 저지르는 신성모독까지도 용서받을 것이다.

3:29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된다."

3:3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3: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32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3:3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3:34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3: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4장

4:1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분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

4:2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3 "잘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4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4:5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돋아났으나,

4:6 해가 돋자 타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4: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4: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고 무성해져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결실을 맺었다."

4:9 그리고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4:10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비유들에 관해 여쭈었다.

4: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진다.

4:12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어쩌면 돌아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13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4:14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4:15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곧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4:16 마찬가지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곧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4:17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4:18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4:19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온갖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4: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4:2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됫박 아래나 침대 밑에 두려는 것이겠느냐? 등경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4:22 드러나지 않을 숨겨진 것이 없고, 밝히 알려지지 않을 비밀이 없다.

4: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4:24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돌려 받을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는 더 얹어 줄 것이다.

4:25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4: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4:27 그 사람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터서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4: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 찬 알곡이다.

4: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4:30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며,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4: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어떤 씨보다 작지만,

4:32 심긴 뒤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4:33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런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셨다.

4:34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따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4: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4:36 그들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4:37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4:38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방석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물었다. "선생님, 저희가 죽어 가는데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4:39 예수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멎고 아주 잔잔해졌다.

4:4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4:41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5장

5:1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5:2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마주했다.

5:3 그 사람은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조차 묶어 둘 수 없었다.

5:4 여러 번 그를 차꼬와 쇠사슬로 묶었으나, 쇠사슬도 끊어 버리고 차꼬도 부수어 버려서,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5:5 그는 밤낮으로 줄곧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짓찧고 있었다.

5:6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5:7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5:8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5:9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5:10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다.

5:11 마침 그곳 산기슭에 큰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5:12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5:13 예수님께서 곧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가파른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었다.

5:14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다.

5:15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5:16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5:17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5:18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5:19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네 친척들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또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하여라."

5:20 그 사람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5:21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5:22 그때에 야이로라는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5:23 간절히 간청하며 말했다. "제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이가 나아서 살게 해 주십시오."

5:24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뒤따르며 사방에서 예수님을 밀어댔다.

5:25 열두 해 동안 피가 흐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5: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겪고 가진 재산을 다 썼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고 도리어 병이 더 깊어졌다.

5:27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서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5:28 그 여자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5:29 그러자 곧 피가 흐르던 근원이 마르고, 여자는 고통스러운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5:30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속으로 곧 알아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5:31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5:3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5:33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5:34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네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5:35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5:36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곧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5: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5: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울며 크게 통곡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셨다.

5:39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5:40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온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5: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5:42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 걸어 다녔다. 아이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5:43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6장

6: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6: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는 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의 손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6: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6: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6:5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신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6:6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6:7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6:8 그리고 여행을 위해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다. 빵도, 자루도,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6:9 신발만 신고 속옷도 두 벌은 입지 말라고 하셨다.

6:10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6:11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 너희 발아래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심판의 날에 그 마을보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6:12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6:13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 많은 이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다.

6:14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이 소문을 듣고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6:15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예언자다" 하고 말했다.

6:16 그러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내가 목을 벤 바로 그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6:17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었다. 헤롯이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6:18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거듭 말했기 때문이었다.

6: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6: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다.

6:21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다.

6:22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자리에 앉은 손님들을 기쁘게 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게 구하여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6:23 왕은 소녀에게 맹세했다.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6:24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말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6:25 소녀는 곧바로 서둘러 왕에게 들어가 요구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6:26 왕은 몹시 근심했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함께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6:27 왕은 곧바로 호위병 한 사람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6:28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6:29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했다.

6: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그분께 보고했다.

6: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6:32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곳으로 갔다.

6:33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이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발을 맞추어 걸어서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이르러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6:34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6:35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다. "이곳은 외딴곳이고 날도 이미 많이 저물었습니다.

6:36 이 사람들을 보내시어, 주변 시골과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6:37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란 말씀입니까?"

6:3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했다. "다섯 개가 있고, 물고기 두 마리도 있습니다."

6:39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푸른 풀밭 위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6:40 사람들은 백 명씩, 쉰 명씩 줄지어 앉았다.

6:41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빵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주셨다.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6: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6:43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들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6:44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

6:45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새다로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 친히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6:46 무리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6:47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뭍에 계셨다.

6:48 바람이 거슬러 불어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를 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6:4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6:50 모두가 그분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6:51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너무나 놀라 어리둥절해했다.

6:52 그들은 빵을 떼어 주신 일도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6: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6: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6:55 사람들은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자리에 누인 채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6:56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7장

7:1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7:2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았다.

7:3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손과 팔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7:4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잔과 주전자와 놋그릇과 침상을 씻는 등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7:5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7: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적절하게 예언했다.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7:7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라고 하였다.

7: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굳게 지킨다. 곧 주전자와 잔을 씻는 일이며, 너희는 이런 일을 그 밖에도 많이 행하고 있다."

7:9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도 저버리는구나!

7:10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7:11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해 드릴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7:12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

7:13 그리하여 너희가 전해 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여러 가지로 행하고 있다."

7:14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7:15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7: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7:17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여쭈었다.

7: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7:19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갔다가 변소로 나가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7:20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7:21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성적인 죄와 살인과 도둑질과

7:22 탐욕과 악행과 속임수와 음탕한 욕망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7: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7:24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하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7:25 어린 딸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7: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7:27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7:28 그러나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7:29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7:30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 있었다.

7:31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

7:32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7:33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7: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열려라!"라는 뜻이다.

7: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려 똑똑하게 말하게 되었다.

7:36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명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퍼뜨렸다.

7:37 사람들은 더없이 놀라며 말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내셨다.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8장

8:1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으로 불러 말씀하셨다.

8:2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문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8:3 내가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8:4 제자들이 대답했다. "이 외딴곳에서 어디서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8: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8:6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뒤,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아주었다.

8:7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신 뒤, 이것도 함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8:8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들이니 일곱 광주리가 찼다.

8:9 먹은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그런 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8:10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8:11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8:12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8:13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8:14 제자들은 빵을 챙겨 오는 것을 잊어, 배 안에는 빵이 겨우 한 개밖에 없었다.

8: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8:16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8:17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느냐?

8:1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8:19 내가 오천 명에게 빵 다섯 개를 떼어 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를 몇 바구니나 거두어들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열두 바구니입니다."

8:20 "사천 명에게 빵 일곱 개를 나누어 주었을 때는, 부스러기를 가득 채운 광주리를 몇 개나 거두어들였느냐?" 제자들이 "일곱 개입니다"라고 말했다.

8: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22 예수님께서 벳새다에 이르셨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 주시기를 간청했다.

8:23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두 손을 얹으신 뒤,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셨다.

8:24 그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8:25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똑바로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8:26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8:2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가셨다.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28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8: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8:30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8:31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거부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8:3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 놓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8:3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8:34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곁으로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8: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8: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8:37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꾸려고 무엇을 내놓겠느냐?

8:38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9장

9: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9:2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셨다.

9:3 예수님의 옷은 눈처럼 눈부시게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어떤 빨래장이도 그토록 희게 빨 수는 없었다.

9:4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9:5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랍비님, 저희가 여기 있으니 좋습니다. 천막 셋을 세웁시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9: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9:7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9:8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9: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9:10 제자들은 이 말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물었다.

9:11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9: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9: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으며,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제 멋대로 행하였다."

9:1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9:15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했다.

9:16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그들과 무슨 일로 논쟁하고 있느냐?"

9:17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을 못 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9:18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마다 바닥에 내던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9:19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9:20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아이는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렸다.

9:21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9:22 그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물속에도 자주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9: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9:24 곧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9:25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말 못 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9:26 그 영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는 나갔다.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 많은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다.

9:27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9:28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9: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9:30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9:31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9: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9:33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무엇 때문에 논쟁하였느냐?"

9:34 그러나 제자들은 잠잠했다.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9:35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9:36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신 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9: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9:38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 일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9:39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9:41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9:42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커다란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

9:43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9:44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9:45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다리를 절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9:46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9:47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뽑아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9:48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9:49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절여질 것이며,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간이 맞추어질 것이다.

9: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10장

10:1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10:2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10: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

10:4 그들이 말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0:5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써 준 것이다.

10:6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10:7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10: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10: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10 집 안에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10: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10:12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10:13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 주시기를 바랐으나, 제자들은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10:14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내버려 두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0: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0:16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10: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1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0: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10:20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10:21 예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10: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워져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0:23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10:24 제자들은 이 말씀에 몹시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애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10:25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10:26 제자들은 몹시 놀라 예수님께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27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0:28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0: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밭을 버린 사람은,

10:30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함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10:31 그러나 첫째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10:32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워했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열두 제자를 곁으로 부르셔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

10:33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10:34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10:35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청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10:37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10:38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10:39 그들이 말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10:40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0:41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기 시작했다.

10:42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듯이, 민족들의 통치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10:43 그러나 너희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10:44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10:45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10: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10:47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48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49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사람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10:50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왔다.

10:51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0:5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나섰다.

11장

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11:2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11:3 만일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바로 그 나귀를 이리로 보낼 것이다."

11:4 제자들이 가서 보니, 어린 나귀 하나가 길가 문 밖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풀었다.

11:5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11: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주었다.

11:7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11:8 많은 사람이 길 위에 겉옷을 펼쳐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11:9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11:10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11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11: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기를 느끼셨다.

11: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 보셨다. 그러나 가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1:14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11:15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1:16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11:17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1: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없앨 방도를 찾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1:19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11:20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보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11:21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11: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11:2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 말대로 될 것이다.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1:25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맺힌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11: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1: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11:28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11: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11: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11:31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11:32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된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11:33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1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도지로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12:2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열매의 몫을 받아 오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12:3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2:4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은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여 돌려보냈다.

12:5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주인이 또 다른 많은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12:6 이제 주인에게는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만 남아 있었다.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며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

12:7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12:8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12:9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12:10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적도 없느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2:11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구나.'"

12:12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

12:13 그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덫을 놓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가운데 몇몇을 예수님께 보냈다.

12:14 그들이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며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2:15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내게 가져와 보아라."

12:16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12: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몹시 감탄했다.

12: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2:19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글을 남겨,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녀 없이 아내만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이을 자손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2:20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2:21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22 그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자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12:23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나면, 이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12: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12:25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12:26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나오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 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

12:27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12:28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대답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12: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12: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12:32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옳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한 분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참되십니다.

12:33 마음을 다하고 이해력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12:34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2:35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12:36 다윗 자신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

12:37 이처럼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12:38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12:39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12:40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41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 부유한 사람 여럿이 많은 돈을 넣었다.

12:42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고드란트 동전 한 닢에 해당하는 작은 놋동전 두 닢을 넣었다.

12:43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12:44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13장

13: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3: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큰 건물들이 보이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13:3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여쭈었다.

13:4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13:5 예수님께서 대답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13: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13:7 전쟁 소식과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들어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13:8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13:9 너희 자신을 살펴라.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고, 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13:10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길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거나 준비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13:12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기고, 아버지가 자녀를 넘길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13: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13:14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역겨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13: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13:16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13:17 그날들에 임신한 여자들과 아기에게 젖 먹이는 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느냐!

13:18 너희가 도망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3:19 그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억압이 있을 것이다.

13:20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골라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이셨다.

13:21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보아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해도 믿지 마라.

13: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며,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할 것이다.

13:23 그러나 너희는 경계하여라. 보아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다.

13:24 그날들에 그 억압이 지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13: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13:26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3:27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13:28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13: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까이 문 앞에 와 있음을 알아라.

13:30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3:31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3:32 그러나 그날이나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13:33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여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13:34 이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도 깨어 지키라고 명령했다.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13: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라.

13: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14장

14:1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속임수로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14:2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

14:3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담긴 설화석고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항아리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14:4 그런데 몇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했다. "왜 이 향유를 낭비합니까?

14:5 삼백 데나리온이 넘는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그 여자를 나무랐다.

14:6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14:7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4:8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발랐다.

14:9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를 기억하며 그가 한 일도 이야기할 것이다."

14:10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14: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에 알맞은 기회를 찾았다.

14:12 유월절 제물을 잡는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14:13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항아리를 메고 오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14:14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14:15 그가 가구를 갖추고 준비해 놓은 큰 위층 방을 직접 보여 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라."

14:16 제자들은 나가서 성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여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14:17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오셨다.

14:18 그들이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14:19 그들은 슬퍼하며 한 사람씩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다. 또 다른 사람도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했다.

14:2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열두 사람 가운데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찍어 먹는 사람이다.

14:21 인자는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4:22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드셨다. 축복하신 뒤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14:23 또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뒤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14:2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내 피다.

14:25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을 더는 마시지 않겠다."

14:26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갔다.

14: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14:29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모두 걸려 넘어져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4: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네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14:31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말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14:32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14:33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셨다.

14:34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죽을 만큼 슬프다. 여기 머물며 깨어 있어라."

14:35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각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14:3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14:37 예수님께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14: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14:39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14:40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14:41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계속 자며 쉬어라. 충분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14:42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다."

14:43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바로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14:44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미리 그들에게 신호를 정해 주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십시오."

14:45 유다는 오자마자 예수님께 다가가 "랍비님! 랍비님!" 하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다.

14:46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14:47 그런데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다.

14:4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

14:49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14: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14:51 한 젊은 남자가 맨몸에 아마포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14:52 그는 아마포 천을 버리고 맨몸으로 그들에게서 달아났다.

14:53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대제사장과 함께 모였다.

14:54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다. 그는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불빛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14:55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14:56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14:57 몇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14:58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4:59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14:60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소?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말이 무엇이오?"

14:6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인 그리스도요?"

14:6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14:63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14:64 여러분은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판결했다.

14:65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뒤 주먹으로 때리며 "예언해 보아라!" 하고 말했다. 경비병들도 손바닥으로 그분을 때렸다.

14:66 베드로가 아래쪽 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다.

14:67 그 여종은 몸을 녹이는 베드로를 보고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14:68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가 현관으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14:69 그 여종은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예요."

14:70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그들 중 하나요. 갈릴리 사람이고 말투에도 드러나잖소."

14:71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오!"

14:72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그 일을 생각하자 눈물이 났다.

15장

15:1 아침이 되자마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의회와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15:2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5:3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15:4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15:5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놀랐다.

15:6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 주곤 했다.

15:7 바라바라는 사람이 동료 반란자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15:8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늘 해 주던 대로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15:9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풀어 주기를 바랍니까?"

15: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5: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하게 했다.

15:12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5:13 그들이 다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14 빌라도가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15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게 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다.

15:16 군인들은 예수님을 뜰 안, 곧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불러 모았다.

15:17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씌웠다.

15:18 그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15:19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했다.

15:20 그렇게 조롱한 뒤 그들은 자주색 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15:21 마침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도록 강요했다.

15: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15:23 그들은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15: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어 가졌다. 각자 무엇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다.

15: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셋째 시각이었다.

15:26 예수님 위에는 죄목을 적은 글이 붙어 있었다. "유대인의 왕."

15:27 그들은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15:28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려졌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15:2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겠다는 사람아,

15:30 네 자신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15:31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서로 조롱하며 말했다. "남들은 구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군요.

15:32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다.

15:33 여섯째 시각이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내려 아홉째 시각까지 이어졌다.

15:34 아홉째 시각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15:35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보시오,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15:36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가득 적시고 갈대에 달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다. "가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는지 봅시다."

15:37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15:38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15:39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은 그분께서 이렇게 외치고 마지막 숨을 내쉬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15:40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15:41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15:42 이미 저녁이 되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15:43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다.

15:44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었다.

15:45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확인한 뒤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15:46 요셉은 아마포 천을 샀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그 천으로 감싼 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놓았다.

15: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모셔지는지 보았다.

16장

16: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가서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16:2 주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뜬 뒤에 그들은 무덤으로 왔다.

16:3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의 돌을 굴려 치워 줄까요?"

16:4 그 돌은 매우 컸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16:5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흰 겉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16:6 그가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모셨던 자리를 보십시오!

16:7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16:8 그들은 떨리고 너무 놀라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6:9 예수님께서는 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여자였다.

16:10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16:11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마리아가 그분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16:12 그 뒤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16:13 그 두 사람이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이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16:14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 그분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16: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며,

16:18 뱀을 집어 들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16:19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6:20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뒤따르는 표징들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1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차례로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1:2 처음부터 그 일들을 목격하고 말씀을 섬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그대로입니다.

1:3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저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살펴왔으므로 각하께 차례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4 각하께서 배우신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유대의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제사장 반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1:6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따랐다.

1:7 그러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이 들었다.

1:8 사가랴는 자기 반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 제사장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게 되었다.

1:10 향을 피우는 시간에 모인 백성이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1:11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섰다.

1:12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당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13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간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1:14 그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 아이의 탄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1:15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1:16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1:17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마련할 것입니다."

1: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1:19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대에게 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1:20 보십시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그대는 입을 다문 채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1 백성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오래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다.

1:22 그가 나왔지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사가랴는 계속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

1:23 봉사할 날들이 다 지나자 사가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24 그 뒤에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말했다.

1:25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당하던 수치를 없애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해 주셨다."

1:26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다.

1: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1:28 천사가 들어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기뻐하십시오,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1:29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그 말에 몹시 당황했다. 이것이 무슨 인사일까 생각했다.

1: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1:31 보십시오. 그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1:32 그는 큰 사람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1: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안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1: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35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1:36 보십시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습니다.

1:37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38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를 떠났다.

1:39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에 있는 유다의 한 동네로 갔다.

1: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배 속의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1:42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 배 속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1: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내가 어째서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1:44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아기가 내 배 속에서 기뻐 뛰었습니다!

1:45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을 믿은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1:46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높입니다.

1:47 내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1:48 그분께서 자기 종의 낮은 처지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1:49 능력 있는 분께서 나를 위해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1:50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1:51 그분께서는 팔로 힘을 나타내셨고,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1: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1:53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1:54 그분께서는 자비를 기억하시려고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1: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지낸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57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1:58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

1:59 여드레째 되는 날 사람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러 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를 사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1:60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1:61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요."

1:62 그들은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싶은지 물었다.

1:63 사가랴는 글 쓸 판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썼다. 모두 놀랐다.

1:64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1:65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이야기가 유대의 산간 지방 전체에 퍼졌다.

1:66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했다.

1:67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예언했다.

1:68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구속하셨습니다.

1:69 자기 종 다윗의 집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1:70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71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려는 것입니다.

1: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1:74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도록 허락하시고,

1:75 평생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6 그리고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1:77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을 알게 해 줄 것이다.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 때문이다. 그 자비로 높은 곳에서 오는 새벽빛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1: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 것이다."

1:80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다. 그는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2장

2:1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주민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2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한 첫 번째 등록이었다.

2:3 모든 사람이 등록하려고 저마다 자기 동네로 갔다.

2:4 요셉도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의 집안과 가문에 속했기 때문이다.

2:5 요셉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다.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2:6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

2:7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2:8 그 지역에는 들에서 지내며 밤에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2:9 주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2:10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을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2:12 여러분이 알아볼 표징은 이것입니다. 천으로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2:13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의가 있기를!"

2: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봅시다."

2:16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다.

2:17 그들은 이를 보고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널리 알렸다.

2:18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한 이야기에 놀랐다.

2: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2:20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듣고 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2:21 여드레가 되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기가 배 속에 생기기 전에 천사가 지어 준 이름이었다.

2:22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들의 정결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2: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처음 여는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아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24 또 주님의 율법에 나오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2: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2:26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성령께 받았다.

2:27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2:28 그는 아기를 품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2:29 "주인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2:30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31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구원입니다.

2:32 민족들에게 계시를 전할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2:33 요셉과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 관해 하는 말에 놀랐다.

2:34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며,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세워졌습니다.

2:35 칼이 그대 자신의 영혼도 꿰뚫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6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다. 안나는 매우 나이가 많았다. 처녀 때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함께 살았고,

2:37 그 뒤 과부로 지낸 지 여든네 해쯤 되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간구로 하나님을 섬겼다.

2:38 바로 그때 안나가 다가와 주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관해 말했다.

2:39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른 모든 일을 마친 뒤 갈릴리의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2:40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2:41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2:42 예수님께서 열두 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명절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43 명절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으셨다.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이를 몰랐다.

2:44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행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뒤,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을 찾았다.

2:45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46 사흘 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분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다.

2:47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이해력과 대답에 놀랐다.

2:48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2:4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2:50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2:51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순종하셨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2:52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3장

3:1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열다섯째 해였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으며,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3: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3:3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3:4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한 책에 쓰인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3: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굽은 것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3: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3:7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3:8 그러니 회개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끼리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고 말하려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다!

3:9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3:10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11 요한이 대답했다. "겉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3: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13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지 마라."

3:14 군인들도 물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아무에게도 폭력으로 빼앗지 말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라.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여라."

3: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3: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3:17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말끔히 정리하실 것이다. 밀은 자기 곳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3:18 요한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면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3:19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3:20 헤롯은 그 모든 일에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3:21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고,

3: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3:23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나이는 서른 살쯤이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다.

3:24 헬리는 맛닷의 아들, 맛닷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얀나이의 아들, 얀나이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3:25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 에슬리는 나개의 아들이었다.

3:26 나개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맛다디아의 아들, 맛다디아는 세메인의 아들, 세메인은 요셉의 아들,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었다.

3:27 유다는 요아난의 아들,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었다.

3:28 네리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앗디의 아들, 앗디는 고삼의 아들,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었다.

3:29 엘은 요세의 아들,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 요림은 맛닷의 아들,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었다.

3:30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 유다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요난의 아들, 요난은 엘리아김의 아들이었다.

3:31 엘리아김은 멜레아의 아들,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 메난은 맛다다의 아들, 맛다다는 나단의 아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다.

3:32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었다.

3:33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람의 아들, 아람은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었다.

3:34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었다.

3:35 나홀은 스룩의 아들, 스룩은 르우의 아들, 르우는 벨렉의 아들, 벨렉은 에벨의 아들, 에벨은 셀라의 아들이었다.

3:36 셀라는 가이난의 아들, 가이난은 아르박삿의 아들,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었다.

3:37 라멕은 므두셀라의 아들,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 에녹은 야렛의 아들,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었다.

3:38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4장

4:1 성령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끄셨고,

4:2 그분은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그날들이 다 지나자 배가 고프셨다.

4:3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5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었다.

4:6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나라들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4:7 그러니 네가 내 앞에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4: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4:9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4:10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너를 맡겨 지키게 하실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11 또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12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 하나님이신 주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다."

4:13 마귀는 모든 유혹을 마친 뒤 다른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떠났다.

4:14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그분에 관한 소식이 주변 모든 지역에 퍼졌다.

4:15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4:16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으로 오셨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4:17 사람들이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4:18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고, 포로들에게 석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며, 짓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4:19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0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어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했다.

4:21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4:22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4:2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라!'라는 속담을 내게 말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하여라'라고 할 것이다."

4:24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4:25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다.

4:26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았고,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4:27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으나, 아람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4:28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4:29 그들은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동네가 세워진 언덕의 벼랑 끝으로 그분을 끌고 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4:30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을 가셨다.

4:31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4:3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4:33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4: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4:35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린 뒤, 아무 해도 입히지 않고 나왔다.

4:36 모두 놀라 서로 말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나오는구나!"

4:37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주변 지역 곳곳에 퍼졌다.

4:38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일어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장모를 도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4:39 예수님께서 장모 위쪽에 서서 열을 꾸짖으시자 열이 떠났다. 장모는 곧 일어나 그들을 섬겼다.

4:40 해가 질 무렵, 여러 가지 병을 앓는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4:41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그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42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 무리는 그분을 찾아와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시도록 붙잡았다.

4:43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4:44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5장

5:1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밀려들었다.

5:2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5:3 예수님께서는 그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다.

5:4 말씀을 마치신 뒤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려라."

5:5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6 그렇게 하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

5:7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 달라고 손짓했다. 동료들이 와서 두 배를 모두 채우자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5:8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5:9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에 놀랐기 때문이다.

5:10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살아 있는 채로 잡을 것이다."

5:11 그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 올린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5:12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5:1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곧 나병이 그를 떠났다.

5:14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일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쳐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5:15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다.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모여들었다.

5:16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5:17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마을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을 고칠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5:18 사람들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왔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눕히려 했다.

5:19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갔다. 기와 사이로 그를 침상째 내려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 앞에 놓았다.

5:20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보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

5:21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5:22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5:23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5: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5:25 그 사람은 곧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 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다.

5:26 모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말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5:27 그 뒤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금을 걷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5:28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5:29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기대어 누워 식사하고 있었다.

5:30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5:3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5:32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러 왔다."

5:33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5:3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5: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5: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 헌 옷에 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되고, 새 옷에서 뗀 조각도 헌 옷과 어울리지 않는다.

5: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5:38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5:39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곧바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6장

6:1 첫 안식일 다음의 둘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6:2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오?"

6: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6: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6: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6: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6: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6:8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섰다.

6: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6:10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둘러보신 뒤,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다른 쪽 손처럼 온전해졌다.

6:11 그러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했다.

6:12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6:13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열둘을 뽑아 사도라고 이름 붙이셨다.

6:14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6:15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리던 시몬,

6:16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였다.

6:17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수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6:18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나음을 입었다.

6:19 온 무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썼는데,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6:20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6: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6:22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6: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대했다.

6:24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6:25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6:26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대했다.

6:27 그러나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6: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6:29 네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도 돌려 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6:30 너에게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네 물건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6:31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똑같이 해 주어라.

6: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점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6:33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점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6:34 너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점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빌려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6:35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우시기 때문이다.

6: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6:37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놓아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놓임을 받을 것이다.

6:38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넉넉히 담고 꾹 눌러 흔들어서 넘칠 만큼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재어 주는 바로 그 기준으로 너희에게도 재어 줄 것이다."

6: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6:40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온전히 배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6:41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느냐?

6: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6:43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

6:44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 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6: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6:46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6:47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6:48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6:49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자 곧 무너져 내렸고, 그 집의 파멸이 컸다."

7장

7:1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듣는 데서 말씀을 다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7:2 어떤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7:3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7:4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7: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7:6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하게 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 안으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7:7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직접 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7:8 저도 남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7:9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돌아서서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7: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들었던 종이 나아 있었다.

7:11 그 뒤 곧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많은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분과 동행했다.

7:12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죽은 사람 하나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는 과부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오고 있었다.

7:13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7:14 예수님께서 다가가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7:15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했다.

7:17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져 나갔다.

7: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7:19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렇게 묻게 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7:20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7:21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눈먼 사람에게 보게 해 주셨다.

7:2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7:23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7:24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7:25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7:26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예언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7:27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7: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7:29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인정했다.

7: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7:31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빗대어야 하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7:32 그들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7:33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

7:34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7:35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옳음이 입증된다."

7:36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7:37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기대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설화석고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7:38 여인은 예수님의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랐다.

7:39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7:4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7:41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7:42 갚을 돈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7:43 시몬이 대답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7:44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7:45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7: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7:4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7:48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7:49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한단 말인가?"

7:50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8장

8:1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했다.

8:2 악한 영들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고 불리는 마리아와,

8:3 헤롯의 집사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긴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8:4 큰 무리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각 도시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8: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었다.

8:6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트자마자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8:7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숨을 막아 버렸다.

8:8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8:9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8:1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8:11 그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8:12 길가의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뒤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8:13 바위 위의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잠시 믿다가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을 떠난다.

8: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가다가, 삶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짓눌려 온전히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8:15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단단히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8: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다.

8:17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8: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8:19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8:20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뵙고자 서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8: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8:22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출발했다.

8:23 배를 저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호수 위로 광풍이 몰아쳐 물이 배 안으로 위험하게 들어찼다.

8:24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사나운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8: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까지 명령하시고,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8:26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다.

8:27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그 동네에서 귀신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했다. 그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으며 무덤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다.

8:28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8:29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영이 자주 그 사람을 사로잡았으므로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 감시했지만, 그는 묶은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8: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했으니,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8:31 귀신들은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8:32 마침 그곳 산비탈에 많은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8: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 떼가 가파른 비탈길을 내달려 호수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8: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동네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8:35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8:36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8:37 가다라 주변 지방의 모든 백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8:38 귀신들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8:39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지 전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8:40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기쁘게 맞이했으니, 모두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8:41 마침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 주시기를 간청했다.

8:42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무리가 그분을 에워싸 밀어댔다.

8:43 그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썼지만 아무에게도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있었다.

8:44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곧 여인의 피가 멎었다.

8:45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모두가 부인하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어대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8:46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8:47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어떻게 곧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8:48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8:49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혀 드리지 마십시오."

8:50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8:51 그 집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8:52 사람들이 모두 그 아이를 두고 울며 애통해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8:53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다.

8:54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신 뒤,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짖으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8:55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8:56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9장

9:1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9:2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9: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길에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자루나 빵이나 돈도 챙기지 말고, 옷도 두 벌씩 가지고 다니지 마라.

9: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9:5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9:6 제자들은 떠나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9:7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9:8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9:9 헤롯이 말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어 했다.

9: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벳새다라고 하는 동네의 외딴곳으로 따로 물러가셨다.

9:11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9: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다가와 말했다. "무리를 보내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자리를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9:13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했다.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9:14 장정만 해도 약 오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오십 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

9: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를 앉혔다.

9:16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9:17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9:18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19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9:2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9:21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9:22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9: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9:24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9: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9: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9: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9: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다.

9:30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9:31 그들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는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9:32 베드로와 그 일행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9: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있게 하겠습니다."

9:34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9: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는 예수님만 홀로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9:37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

9:38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제 외아들입니다.

9:39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영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심하게 다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9:40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9:4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9:42 아이가 다가올 때에도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9:43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크게 놀랐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44 "이 말을 너희 귀에 똑똑히 담아 두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9:45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깨달을 수 없었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

9:46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9:47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9:48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9:49 요한이 대답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기에 못하게 막았습니다."

9:5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9:51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9:52 그리고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9:53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9:54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주님,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하도록 저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9:55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9:56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9: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9:5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9:59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9:60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지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려라."

9:61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9:62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10장

10:1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칠십 명을 따로 세우시고, 자신이 친히 가시려는 모든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다.

10: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절히 청해라.

10:3 가거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리 떼 가운데로 어린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10:4 돈주머니도 가방도 신발도 챙기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10: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해라.

10:6 만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가 빈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10:7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10:8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10:9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해라.

10:10 그러나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10:11 '우리에게 묻은 여러분 도시의 먼지마저도 여러분에게 털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10: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0: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10:14 그러나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0:15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10:16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10:17 칠십 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령들까지도 저희에게 굴복합니다!"

10: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0: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10:20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10:21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10:22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다.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으며,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10:23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10: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10:25 그런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10:2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10:27 그 사람이 대답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10:2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10:29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10: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다.

10: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쳐 갔다.

10:32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쳐 갔다.

10:33 그러나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10:34 그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10:35 다음 날 떠날 때,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10: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10:37 그가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10: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10:39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10:40 그러나 마르다는 시중드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주님, 제 자매가 시중드는 일을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데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며 마음을 쓰고 있구나.

10: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11장

11:1 예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1:3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11:4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 스스로도 용서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11:5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11: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고 말한다고 하자.

11:7 그러면 안에서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잠겼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1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11: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계속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1:10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으며,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11: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12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아낌없이 주시겠느냐?"

11:14 예수께서 말 못 하게 하는 악령을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 악령이 나가자 말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군중은 놀랍게 여겼다.

11:15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악령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했다.

11:16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다.

11:17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11:18 사탄도 스스로 갈라져 싸운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말이다.

11:19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11: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11: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 그를 이기면, 그가 믿고 의지하던 온갖 무기를 빼앗고 그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다.

11:23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 버리는 사람이다.

11:24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말한다.

11:25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11:26 그러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11: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렸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11:28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11:29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11: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11:31 심판 때에 남쪽 지역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파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11:33 누구도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바구니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니, 이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11: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지만,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다.

11: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11:36 그러므로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환한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을 것이다."

11:37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했다. 예수께서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11:38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11:39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닦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11: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11:41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11:42 그러나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도,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는구나. 너희는 이것들도 실천하고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11:43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구나.

11:44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

11:45 율법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11: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짊어지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여 그 짐을 거들지 않는다.

11:47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다.

11:48 그러므로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고 동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11: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들 가운데 얼마를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11:50 세상 창조 이래로 흘려 온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11:51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1:52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가 버렸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가로막았다."

11:5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몹시 분노하여 여러 가지 일로 캐묻기 시작했고,

11:54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흠을 잡아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며 노렸다.

12장

12:1 그동안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12:2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12: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12:4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12: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경고하겠다.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해라.

12:6 참새 다섯 마리가 앗사리온 동전 두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지 않는다.

12:7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 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1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12: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2:10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2:11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대답할지, 무엇을 답변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12:12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2:13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12:14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12:15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 있지 않다."

12: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다.

12:17 그는 속으로 '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했다.

12:18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겠다.

12: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여라."'

12: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2:21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12:2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12:23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12:24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12:25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12:26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작은 일조차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12:27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12: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12:29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아 헤매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12:30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12:31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12:32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12:33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다함없는 보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다.

12:34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35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 두어라.

12: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12:37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힌 뒤 다가와 시중들 것이다.

12:38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12: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12: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12:41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12: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이 자기 집안사람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이겠느냐?

12:43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12: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12: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12:46 그 종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히 벌하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과 같은 자리에 처하게 할 것이다.

12: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12: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사람은 매를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12:49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12:50 그러나 내게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12:51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12:52 이제부터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갈라져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12:53 그들은 갈라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설 것이다."

12:54 예수께서 군중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다'고 말하고, 과연 그렇게 된다.

12: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몹시 덥겠다'고 말하고, 과연 그렇게 된다.

12:56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12:57 너희는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12:58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그와 합의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판관에게 끌고 가고, 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며, 간수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12:59 내가 네게 말하는데,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3장

13:1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다.

1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13:3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13:4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13:5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13:6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두었는데, 열매를 찾으러 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13:7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삼 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잘라 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낭비하게 하겠느냐?'

13: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3:9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잘라 버리십시오.'"

13:10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3:11 거기에 십팔 년 동안이나 쇠약하게 하는 영에 눌려 몸이 굽어져 조금도 똑바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13: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네가 질병에서 풀려났다."

13:1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곧바로 몸이 똑바로 펴졌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3:14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했다. "일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오지 마시오!"

13:15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13:16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십팔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13: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온 군중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했다.

13: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빗대어 말할까?

13:19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13:20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대어 말할까?

13:21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밀가루 석 말 속에 숨겨 넣어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13:22 예수께서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거쳐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계셨다.

13:23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린 뒤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13:26 그때에 너희는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13:27 그러나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13: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29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3:30 보아라, 꼴찌로서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로서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13:31 바로 그날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13: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보아라, 내가 오늘과 내일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며,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사명을 마칠 것이다.'

13:33 그러나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한다.

13: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13:35 보아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할 때까지는 나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14: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빵을 잡수시려고 바리새파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14:2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14:3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14:4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시고 보내셨다.

14:5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14: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14:7 예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14:8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어쩌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받았을 수도 있다.

14:9 그러면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맨 끝자리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14:10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더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14:11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4:12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하여 갚아 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14:13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초대해라.

14:14 그러면 그들이 네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15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즐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14:16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14:17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말하게 했다.

14: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종에게 '내가 밭을 샀으니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14:19 다른 사람은 '내가 소 다섯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14:20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소' 하고 말했다.

14: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일들을 보고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14:22 종이 말했다.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14:23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14: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14: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4:26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뒤로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4: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한다면,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해 보지 않겠느냐?

14:29 기초만 놓고 끝마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으며,

14:30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하더니 끝마치지는 못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14:31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사람을 일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14:32 만일 맞설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청할 것이다.

14: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4:34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14:35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5장

15: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15:2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1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5: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15:5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15:6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15: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15:8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동전 열 개가 있는데 그중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15:9 그리고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15: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는 기쁨이 있다."

15:11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5:12 그중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게 돌아올 몫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5: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가진 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탕진했다.

15:14 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그는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15:15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주민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15:16 그는 돼지가 먹는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15:17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수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여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 가는구나!

15: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5:19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15:20 "그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15: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15: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15: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축하하자.

15:24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했다.

15:25 "그때 맏아들은 들에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15:26 그는 종들 중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다.

15:27 종이 대답했다.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분을 무사하고 건강하게 맞아들이셨기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15:28 그러나 맏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15: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5:30 하지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15: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15:32 하지만 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16장

16: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주인에게 들어왔다.

16:2 주인이 그를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 대해 듣고 있는 이 말이 어찌 된 일이냐? 네 청지기 일의 장부를 결산하여 내놓아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맡아볼 수 없다.'

16: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16:4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겠다.'

16: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16:6 그가 대답했다. '기름 백 밧입니다.' 청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증서를 받아 쥐고, 빨리 앉아서 쉰이라고 적으십시오.'

16:7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가 말했다. '밀 백 고르입니다.' 청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증서를 받아 쥐고, 여든이라고 적으십시오.'

16:8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행동했으므로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기 때문이다.

16: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 너희가 힘을 잃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16:10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16:11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6: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6:13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굳게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16: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16: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16:16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사람마다 그리로 힘써 들어가고 있다.

16:17 그러나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16:18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16: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16:20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인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

16: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16:22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16: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16:24 그가 소리 질러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 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6: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그와 같이 나쁜 것들을 겪었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16:26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16:27 "부자가 말했다. '아버지여,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16:28 제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마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16:29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16:30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16: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17장

17: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17:2 그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17:3 너희는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짓거든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17:4 그가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17:5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17: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돌무화과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것이고, 그 나무는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17:7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 '곧바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17:8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그 뒤에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17:9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우리는 자격 없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17: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국경 지대를 지나가고 계셨다.

17:12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17:13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예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7:14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17: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7:16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1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17:18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17:19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17: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17:21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라거나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17:2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17:23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라거나 '보아라,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마라.

17: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 끝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17:25 그러나 먼저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17:26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17: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17:28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17:29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17:31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아서지 마라.

17: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17: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잃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보존한다.

17: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17: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

17:36 [원문에 본문 없음 - 편집자 표시]

17:37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이다."

18장

18: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18: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18:3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에게 자주 찾아와,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18:4 그는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18:5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찾아와서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18: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18:7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두고 오래 지체하시겠느냐?

18: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18:9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며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8: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18: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곧 약탈하는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18: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얻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18:13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8: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8:15 사람들이 젖먹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을 꾸짖었다.

18:16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8: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18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겠습니까?"

18:1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18:20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18:21 그 사람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18:22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18:23 그러나 그 사람은 매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18:24 예수님께서는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18:25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18:26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18:2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18:28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8: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18:30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18:3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려가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을 통해 인자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8: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 뱉음을 당할 것이다.

18:33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흗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18:34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18:35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18:36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18:37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 주었다.

18:38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8:39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8:40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18: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8:4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18:43 그는 곧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백성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19장

19:1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19:2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19:3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 없었다.

19:4 그래서 그는 앞서 달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참이었기 때문이다.

19:5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올려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19:6 삭개오는 서둘러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19:7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19:8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군가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19: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9:10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9:11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덧붙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9:1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

19:13 그는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미나 은화 열 개를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19:14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 뒤로 사절단을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9:15 "그는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고자 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19:16 첫째 종이 나아와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더 벌었습니다.'

19:17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19:18 "둘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벌었습니다.'

19:19 "주인이 그에게도 말했다. '너도 다섯 고을을 맡아 다스려라.'

19:20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19:21 주인님은 엄한 분이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19:22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단 말이냐?

19:23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았을 것 아니냐?'

19:24 그러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에게서 한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19:25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미나가 있습니다!'

19: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누구나 더 받을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9: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19:28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9:29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19:30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19:31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19:32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19:33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물었다.

19:34 제자들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19:35 그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태웠다.

19:36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19:37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19:38 그들은 외쳤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되시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19:39 무리 가운데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19:4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19:41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19:42 그리고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네 눈에 숨겨져 있구나.

19:43 원수들이 네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서 사방에서 옥죄어 올 날들이 네게 이를 것이다.

19:44 그리고 원수들은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칠 것이며, 네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19:45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19:46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9:47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했다.

19:48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20장

20:1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가왔다.

20:2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다. "말해 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20: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내게 말해 보아라.

20: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었느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느냐?"

20:5 그들은 속으로 의논하며 말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오,

20: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오."

20:7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20: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0:9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

20:10 철이 되자 그는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열매의 몫을 받아 오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20:11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20:12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20:13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아들을 보면 존중할지도 모른다.'

20:14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상속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20:15 그러고서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20:16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17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20:18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20:19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 손을 대려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20:20 그들은 기회를 엿보며 밀정들을 보냈다. 밀정들은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아, 그분을 총독의 통치와 권세 아래 넘겨주려 했다.

20:21 밀정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20:22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0:2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함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0:24 데나리온 한 닢을 내게 보여라. 거기에 누구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20: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0: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지 못했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20: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다가와

20:28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써 주었습니다.

20: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20:30 둘째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나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20:31 셋째도 그 여자를 맞이했고, 이처럼 일곱 명이 다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0: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20: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20:35 그러나 저세상에 이를 자격을 얻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20: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20: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20: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39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참으로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20:40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20: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20:42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0: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셨다'라고 했다.

20:44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20: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46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으뜸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20:47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21장

21: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다.

21: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작은 놋전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2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21:4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21:5 몇몇 사람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봉헌 예물로 꾸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21:6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다."

21:7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표징이 있겠습니까?"

2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21:9 전쟁과 소요의 소식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21:10 이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르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21: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21:12 그러나 이 모든 일 전에,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며,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21:13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21:14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변호할지 미리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라.

21:15 내가 너희에게 말솜씨와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의 모든 적대자가 이에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21:16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21:17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1:18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21:19 너희는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21:20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함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

21: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21:22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21:23 그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큰 재난이 닥치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21:24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1:25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가 나타나고, 땅 위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노호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에 빠져 불안해할 것이다.

21:26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므로,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두려워하고 예상하다가 기절할 것이다.

21:27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지니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1: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21: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1:30 싹이 트는 것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21: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21:3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21:33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덫처럼 갑자기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21:35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21:36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격을 얻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21:37 예수께서는 낮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머무르셨다.

21:38 온 백성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그분께 나아왔다.

22장

22:1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22:2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찾고 있었다.

22:3 그때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로 꼽히는, 가룟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22:4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줄지 상의했다.

22:5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22:6 유다는 승낙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

22:7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의 날이 이르렀다.

22: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라."

22:9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22: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가라.

22: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22:12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22:13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유월절을 준비했다.

22:14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2: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22: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22:17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어라.

22: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22:19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며 이렇게 해라."

22:20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2:21 그러나 보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22:22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2:23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묻기 시작했다.

22:24 또 그들 사이에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22: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은인'이라 불린다.

22:26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 더 큰 사람은 더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22:27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22:28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어 준 사람들이다.

22: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22:3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22:3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22:32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다시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22:33 베드로가 주께 말했다. "주님, 저는 감옥이든 죽음이든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2: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할 것이다."

22: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갑과 자루와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없었습니다."

22:36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지갑이 있는 사람은 지갑을 챙기고 자루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22: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무법자들과 함께 헤아려졌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38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22:39 예수께서 밖으로 나와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22:40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22:41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22:4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22:43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다.

22:44 예수께서는 고통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22:45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22: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22: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이끌고 앞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22:48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22:49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보고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칠까요?"

22:50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22:51 그러나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일은 내가 하게 해라" 하고 대답하시며,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22:52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22: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간이며, 어둠의 권세의 때이다."

22:54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22:55 그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둘러앉자,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22:56 어떤 여종이 불빛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눈여겨보며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22:57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며 말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22: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요!"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

22:59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단언하며 말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오!"

22:60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곧바로 닭이 울었다.

22:61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22:62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슬피 울었다.

22:63 예수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며 때렸다.

22:64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물었다. "예언해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22:65 그들은 이 밖에도 여러 말로 예수를 모욕했다.

22:66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임이 소집되어 예수를 공회로 끌고 가서 말했다.

22:67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22:68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도 않고 나를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22:69 이제부터는 인자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22:70 그들이 모두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22:71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지 않은가!"

23장

23:1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3:2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선동하여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합니다."

23:3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23:5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했다.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3:6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다.

23:7 그리고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다.

23: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예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기에 오랫동안 예수를 보고 싶어했고, 예수가 행하는 어떤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23:9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께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3:10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격렬하게 예수를 고발했다.

23:11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혀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23:12 헤롯과 빌라도는 그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

23: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23:14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해 보았으나, 너희가 고발한 죄목들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

23:15 헤롯도 마찬가지였으니,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냈지만 보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

23:16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한 뒤에 풀어주겠소."

23:17 (명절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했다.)

23:18 그러나 무리가 다 함께 소리쳤다. "이 사람을 없애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23:19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다.

23:20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무리에게 호소했으나,

23:21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22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한 뒤에 풀어주겠소."

23:23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끈질기게 요구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청했다. 결국 그들의 소리와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이겼다.

23:24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

23:25 그는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넘겨주었다.

23: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를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 메고 가게 했다.

23:27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중에는 예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23:28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23:29 보라,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이 있다' 하고 말할 날들이 올 것이다.

23:30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언덕들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23:31 푸른 나무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23:32 다른 두 사람, 곧 두 명의 범죄자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23:33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23:34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23:35 백성은 서서 지켜보았고, 지도자들도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지!"

23:36 군인들도 다가와 신 포도주를 건네며 예수를 조롱했다.

23:37 그들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23: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글자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가 적혀 있었다.

23:39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가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23:40 그러나 다른 범죄자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23: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23:42 그리고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23: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3:44 이제 여섯 시쯤 되었고,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아홉 시까지 계속되었다.

23:45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23:47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23:48 구경하러 모여든 모든 무리도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23:49 예수의 모든 지인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들을 지켜보았다.

23:50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 의원이었으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23:51 (그는 공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23: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

23:53 그는 시신을 내려 세마포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는데, 그곳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곳이었다.

23:54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23: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보았다.

23:56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24장

24:1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덤으로 갔다.

24:2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았다.

24:3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24:4 이 일로 그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을 때, 보라,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24: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24: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24:7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24: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24:9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24: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했다.

24: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헛소리처럼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24: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 천만 따로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24:13 보라,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24: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4: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직접 다가와 그들과 동행하셨다.

24:16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24: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가면서 슬픈 기색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24:18 그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나그네입니까?"

24: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24:2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을 받도록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4:21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24:22 게다가 우리 일행 중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 일찍 무덤에 갔다가,

24: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24 그래서 우리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4: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더디구나!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24:27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해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4:28 그들은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고,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행동하셨다.

24:29 그러나 그들이 간청하며 말했다. "저녁때가 다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러 들어가셨다.

24:30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24: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24:32 그들이 서로 말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24:33 그들은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24:34 그들은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24:35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24:36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직접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4:37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24: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24:39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너희가 보다시피 내게 있는 것과 같은 살과 뼈가 없다."

24:40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24:41 그들이 너무 기뻐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24: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약간을 예수께 드렸다.

24: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24:44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4:45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24:4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했으며,

24:47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용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했다.

24: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24:49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24:50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24:51 축복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24: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24:53 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1:2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3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1:7 그는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고 증인으로 왔다.

1:8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1: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다.

1:10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1:11 그분이 자신에게 속한 곳으로 오셨지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1: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지닌 영광이었다.

1:15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쳤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던 분이다."

1: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1:17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1:18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려 주셨다.

1: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했다.

1:20 요한은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밝혔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21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그 예언자입니까?" 하고 물었고, 그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다.

1:22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전할 대답을 주십시오.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1:23 요한이 대답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1:24 그 사절들은 바리새파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1:25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1: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1: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1: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1:29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1:30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던 분입니다.

1:31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32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33 나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1:34 내가 그것을 보았기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1:35 다음 날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서 있었다.

1:36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1: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1:38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열째 시각쯤이었다.

1: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1:41 그는 먼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1: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다.)

1:43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1: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마을인 벳새다 출신이었다.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1:46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말했다. "와서 보십시오."

1:47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것이 전혀 없다."

1:48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1:49 나다나엘이 고백했다.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1:5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해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장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다.

2:3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2: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2:5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하여라."

2: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아둔 돌 물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각 두세 메트레테스씩 들어가는 크기였다.

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물항아리를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웠다.

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조금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주어라."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다.

2:9 잔치를 맡은 사람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으나(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신랑을 불러

2:10 그에게 말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흠뻑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군요!"

2:11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2:12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그들은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

2:13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14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2:15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모든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며 그들의 탁자를 둘러엎으셨다.

2:16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2:17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2:18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 주겠소?"

2: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

2:20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마흔여섯 해가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오?"

2:21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2:2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2:23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2:24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2:25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친히 알고 계셨다.

3장

3:1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3:2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렸다.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4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3: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6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3:7 내가 너에게 '너희가 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3: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3:9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3:11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12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3:13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3:15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17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3:18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3:19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3:20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3: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3:22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3:23 요한도 살림 근처의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3:24 그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였다.

3:25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몇몇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3: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여,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고 선생님께서 증언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3:27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3: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3:29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기쁨은 가득 찼다.

3:30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3:31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3:32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3: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3:35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4장

4:1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어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4:2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4:3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4:4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셔야만 했다.

4: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4: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정으로 지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여섯 시쯤이었다.

4: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4:8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4:9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1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살아 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오."

4:11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살아 있는 물을 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4: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신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마셨습니다."

4:1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오.

4: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오."

4:15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4: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시오."

4:17 여자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당신의 말이 옳소.

4:18 당신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이 참된 말을 하였소."

4:19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4:2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고 있소.

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오.

4:23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고 있으며 바로 지금이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오."

4:25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4:2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4:27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으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라거나 "왜 그 여자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28 그러자 여자는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4:29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4:30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다.

4:31 그 사이에 제자들은 "랍비여, 음식을 드십시오" 하며 예수님께 권했다.

4:32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4:33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했다.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4:35 너희는 '추수할 때까지 아직 네 달이나 남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하얗게 익어 추수하게 되었다.

4:36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으니, 이는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4:37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참되다.

4:38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들어간 것이다."

4:39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녀가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4:40 그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4:41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4: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오. 우리가 친히 듣고,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오."

4:43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44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4:45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다. 그들도 축제에 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4:46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4:47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청했다.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4:4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4:49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4:5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다.

4:51 그가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전했다.

4:52 그래서 그는 아이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시간을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제 일곱 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4:53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고 말씀하셨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4:54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5장

5:1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인들의 축제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5:2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행각 다섯 개가 딸려 있었다.

5:3 이 행각들 안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된 사람 등 많은 환자가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4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했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다.

5:5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 동안 앓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5:6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 온 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낫기를 원하느냐?"

5:7 그 환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속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5: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5:9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5:10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오."

5:11 그가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12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5:13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다.

5: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나쁜 일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5:15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다.

5:16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

5: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5:18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5: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행할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5: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또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5: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5: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5:23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5: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며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5:27 또한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집행할 권한도 주셨다.

5:28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니,

5:29 그들이 나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며,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5:31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5:32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5: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5:34 그러나 내가 받는 증언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5:35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안에서 기꺼이 즐거워하고자 했다.

5:36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 너희는 언제라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5:38 또 너희 속에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 있지 않으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5:39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5:40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5: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5:42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5: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5:45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다.

5: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썼기 때문이다.

5: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6:1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곧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6:2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는 그분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6:3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6:4 그때 유대인들의 축제인 유월절이 가까워져 있었다.

6:5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6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으니,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6:7 빌립이 대답했다. "각자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6:8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6: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10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6:11 예수님께서는 빵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다.

6: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6:13 그래서 제자들이 거두어 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6:14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이시다"라고 말했다.

6:15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다.

6:16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다.

6:17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6:18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거세게 일었다.

6:19 그들이 노를 저어 25나 30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6:20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6:21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에 맞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다.

6: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거기에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던 것을 보았다.

6:23 그러나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그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6:24 무리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배들에 올라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6:25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6: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6:27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6:28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6: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6:30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6: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6:3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에서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신다.

6:33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6:34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6: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6: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6:39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6: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6:41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6:42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가?"

6: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6:45 예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내게로 온다.

6:46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6: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6: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6: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6:50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이다."

6:52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6: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6:59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들을 하셨다.

6:60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6:6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로 수군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6:62 그렇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63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6: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6:65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6:66 이 일이 있은 뒤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6:67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떠나가기를 원하느냐?"

6:68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6:69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6: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6:71 예수님께서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장

7:1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7: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7:3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7:4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7:5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7: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나는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7:8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7:9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7:10 그러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7:11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했다.

7:12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7: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14 명절이 이미 중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7:15 유대인들은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하고 말했다.

7: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7: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7: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7:20 무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7: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모두 그 일로 놀라워하고 있다.

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준다.

7: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7:24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7:25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7:26 보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구나.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일까?

7: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7:28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7:29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7:30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7:31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하고 말했다.

7:32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경비병들을 보냈다.

7:33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7: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7:35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7:36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한 그의 말은 무슨 뜻인가?"

7:37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7: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7:39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7:40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라고 말했다.

7:41 다른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7:42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했다.

7:43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

7:44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7:45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7:46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47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마저 미혹된 것은 아니겠지?

7:48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7:49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7:50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7:51 "우리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7:52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오? 조사해 보시오.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소."

7:53 그리고 모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장

8: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8:2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8: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두고,

8:4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8: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8: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8:7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8:9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님만 그 가운데 있던 여자와 함께 남으셨다.

8:10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8:11 여자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8:12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8:13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8: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8:16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8: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8:1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8:19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8:20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 못했으니,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8: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8:22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니,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인가?"

8: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8:24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녕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8:25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그대로이다.

8:26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내게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들을 세상에 말한다."

8:27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8:28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므로,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8:30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8:3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8:32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8:33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8: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8:35 종은 집에서 영원히 머물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8:37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8:38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본 것들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들을 행한다."

8:39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다.

8: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8: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소.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곧 하나님이 계시오."

8: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8:43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8:45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8:46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밝혀내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8:47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8:48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8:4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하는구나.

8:50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8:5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8:52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소.

8:53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8:5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

8: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8:57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8: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8:59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을 빠져나가셨는데,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쳐 가셨다.

9장

9:1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9: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9: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9:4 낮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9: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9:7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9:8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9:9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를 닮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9:10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하고 물었다.

9:11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9:12 그들이 그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9:13 그들은 전에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9:14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9:15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지금 봅니다."

9:16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9: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네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9:18 유대인들은 그가 전에 눈멀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다가, 보게 된 사람의 부모를 불러,

9: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멀었다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9:20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직접 말할 것입니다."

9: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9: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었다.

9:24 그리하여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9:25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9:26 그들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네게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9:27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들으려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9:28 그러자 그들이 그를 욕하며 말했다.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9: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9: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9:31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9:33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9:34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

9:35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고, 그를 만나서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9:36 그가 대답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9: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9:38 그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

9:3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9: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이오?"

9: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10장

10: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10: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10: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인도해 낸다.

10:4 자기 양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마다 그는 양들 앞에 서서 간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

10: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피해 달아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0:6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10: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10:8 나보다 앞서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들이었지만,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11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0:12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닌 삯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가로채고 흩어 버린다.

10:13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삯꾼이어서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10:14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0: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10:16 또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내가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이다.

10: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다.

10:18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내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10:19 이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10:20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소!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는 거요?" 하고 말했다.

10:21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 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10:22 예루살렘에 봉헌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었다.

10:23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

10:24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겠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10: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10:2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이다.

10: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10: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10: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0:31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집어 들었다.

10: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 주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10:33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 모독 때문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오."

10: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10: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다면(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10:36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를 두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해서 너희가 '너는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느냐?

10: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10:38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행한다면,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될 것이다."

10:39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가셨다.

10:40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다시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10:41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다.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10:42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11장

11:1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출신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11:2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인이었는데,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병든 것이었다.

11:3 그러므로 그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11:4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1:5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11:6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11:7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1:8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랍비여,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11: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으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1:10 그러나 밤에 걸으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11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11:12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나을 것입니다."

11:13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잠에 들어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11:14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1: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그에게 가자."

11:16 그러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했다.

11:17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십오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

11:19 많은 유대인들이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와 있었다.

11:20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11:21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11:22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압니다."

11:23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11:24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저도 압니다."

11:25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11: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11:27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다. "예,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11:28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며 너를 부르신다" 하고 말했다.

11: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11:30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

11:31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머물며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구나" 하며 그를 따라갔다.

11: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11:33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비통해하시며 괴로워하셨다.

11:34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11:35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11: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셨는가!" 하고 말했다.

11:37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준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하고 말했다.

11:38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해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곳은 동굴이었는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11: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은 이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11:4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11:41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누워 있던 자리에서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위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해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11:43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11:44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손발이 천으로 감긴 채 나왔는데, 그의 얼굴도 수건에 싸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11:45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다.

11:46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다.

11:47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말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징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1:48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거룩한 곳과 우리의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갈 것입니다."

11:49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군요.

11: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51 그는 이 말을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11:52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11:53 그래서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1:5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 시골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11:55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1:56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전혀 오지 않겠습니까?"

11: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12장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셨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었다.

12:2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렸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2:3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일 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12:4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배반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했다.

12: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12: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상자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돈을 가로채곤 했다.

12:7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의 날을 위해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12:8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2:9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다.

12:10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했다.

12:11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12:12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12:13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12:14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다.

12: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12:16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런 일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12:17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 일을 증언했다.

12:18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까닭도,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2:19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보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소."

12: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12: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했다.

12:22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했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12: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12: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12:27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때에 왔다.

12: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12:29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무리는 천둥이 쳤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고 말했다.

12:3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12:32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12:33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었다.

12:34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12: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12:36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하시고 떠나가셔서 그들에게 몸을 숨기셨다.

12:37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12:38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2: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12: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2: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분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12:42 그럼에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드러내어 고백하지 못했다.

12:43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12:44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12: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12:46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2: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12:49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친히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12: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13장

13:1 유월절 명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3:2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다.

13:3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13: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13:5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13:6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하고 말했다.

1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13:8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13:9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13: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13:11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13:1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13:13 너희가 나를 '선생님'과 '주님'이라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참으로 그렇다.

13: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마땅하다.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못하다.

13: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13:18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13:1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13: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13:2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13:2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하며 서로 쳐다보았다.

13:23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식탁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13:24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게" 하고 말했다.

13:25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13:2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13:27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여라."

13:28 그러나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는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3: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상자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했다.

13:30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다. 그때는 밤이었다.

13:31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13:32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바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13:33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13: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36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13:37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13:3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14장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4: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살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

14: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머물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14: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도 알고 있다."

14:5 도마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을 뵈었다."

14:8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14: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또 다른 분을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4: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14:19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14:20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4:21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14:22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14: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곳을 마련할 것이다.

14: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14: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해 주었다.

14: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 둔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14:28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14:29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14:30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안에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

14:31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15장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15:2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15: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로 이미 다듬어져 깨끗해졌다.

15:4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6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내버려져 마르고 만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15: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할 것이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15: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5: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15:11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5:12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5:13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5:14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15:15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5:17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5: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15:21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5: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15:2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15:24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보고도 미워했다.

15:25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15:26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다.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16장

16:1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6: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

16:3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6: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해 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했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16:5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는데, 너희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6:6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구나.

16:7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16:8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밝혀내실 것이다.

16:9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16:10 의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6:11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16:13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6:14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16: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16:16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16:17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서로 말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16:18 그러므로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고 말했다.

16:19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시 조금만 지나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너희끼리 서로 묻고 있느냐?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슬피 울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16:21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이르면 산통이 찾아와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16:22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에게 슬픔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16:23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16:25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으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일러 줄 때가 오고 있다.

16:26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16:27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16:28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으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16:29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런 비유도 쓰지 않으십니다.

16:30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므로 아무도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16: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16:32 보아라, 너희가 흩어져서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고 있으며, 이미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므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16:33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17: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것입니다.

17:3 영생은 곧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7:4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17:5 그러니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17:6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17: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7:8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제가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고,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7:9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7:10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이며, 저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17:11 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17:12 제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제가 지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7:13 그러나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가며,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제 기쁨을 그들 안에서 가득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7:14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15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17:16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18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7:19 그들을 위해 저는 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7:20 저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7:21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17:22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7:23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7:24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나 저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7:26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또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장

18: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18:2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주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배신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18:3 유다는 군대 한 부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온 경비병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그곳으로 왔다.

18:4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18:5 그들이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분을 배신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18: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서며 땅에 엎드러졌다.

18:7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요."

18:8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18:9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18:10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18:11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18:12 군부대와 지휘관과 유대인들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었다.

18:13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18:14 가야바는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갔다.

18:16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18:17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오." 하고 말했다.

18:18 날이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18:19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18:2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 놓고 말하였다. 나는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언제나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8:21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18: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말했다. "대제사장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18: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점을 증언하여라. 그러나 내가 바르게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18:24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인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18: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아니오."

18:26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하였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소?"

18: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18:28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18:29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물었다. "너희는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18:30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18:31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직접 그를 데려다가 너희 율법대로 재판하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18:32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18:33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18:3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해 준 말이냐?"

18:35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18:3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18:37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였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18:38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18:39 너희에게는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8:40 그러자 그들이 다시 다 함께 소리쳤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19:1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19:2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19:3 그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계속 외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계속 때렸다.

19:4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온다.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19:5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다!"

19:6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직접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19:7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9: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19:9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9:10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다. "내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1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네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19: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쳤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19: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깐 곳',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19:14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여섯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너희 왕이다!"

19:15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19:16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아 끌고 갔다.

19:17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19:18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계셨다.

19:19 빌라도는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19: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 글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19: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라고 쓰십시오."

19:22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쓴 것은 그대로 쓴 것이다."

19:23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그리고 속옷도 가져갔는데,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19:24 군인들이 서로 말했다.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구의 것이 될지 정하자." 이는 "그들이 내 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19: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19:26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19:27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 어머니시다."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19:28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19:29 거기에는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식초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얹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19:30 예수님께서는 식초를 받으신 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주셨다.

19:31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그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시신들이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들의 다리를 꺾어 내려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19:32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19:33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19:34 하지만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19:35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 또한 믿게 하려는 것이다.

19:36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19:37 또 다른 성경 말씀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19:38 이 일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청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 갔다.

19:39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로마 파운드쯤 가지고 왔다.

19:40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품과 함께 아마포 천으로 쌌다.

19:4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19:42 그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 그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20장

20:1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20:2 마리아는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와서 말했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꺼내 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20:3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길을 나서서 무덤으로 향했다.

20: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20:5 그는 몸을 굽혀 들여다보고 아마포 천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20:6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이르러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아마포 천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20:7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아마포 천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말려 있는 것을 보았다.

20: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랐던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갔고, 보고 믿었다.

20:9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0:10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20:11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20:12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다.

20: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모셔 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4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20:1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20: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예수님께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20:1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20:18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다.

20:19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20: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은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20:24 그러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0: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20: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0:27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20:28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20:30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20:31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21:1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21: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들이 말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들은 곧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21:4 날이 이미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2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21:7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21: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약 이백 규빗 거리에 있었으므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며 작은 배를 타고 들어왔다.

21:9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거기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21: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21: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그물에는 백쉰세 마리의 큰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21: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1:13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21:14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21:15 그들이 아침을 다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21:16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21:17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21: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21:19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신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21:20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다.

21: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1: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1:23 그러므로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21: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25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은데,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기록된 책들을 세상이라도 다 담아 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1장

1:1 데오빌로 님, 제가 쓴 첫 번째 책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을 내리신 뒤,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의 일을 다루었습니다.

1:3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에 여러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자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1:4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이렇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1:5 요한은 참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6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는 것입니까?"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1:8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1:10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1:11 그들이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12 그 뒤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1:13 그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매와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14 이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

1:15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섰는데(모인 사람의 수는 약 백이십 명이었다), 그가 말했다.

1:16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마땅했습니다.

1:17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헤아려졌고, 이 사역에서 자기 몫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1:18 (이 사람은 불의한 삯으로 밭을 샀으나, 거꾸로 떨어져 몸 한가운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1: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 밭은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다.)

1:20 "시편에 '그의 거처가 황폐해지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었고, 또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실 때에 줄곧 우리와 동행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1:22 곧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 함께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23 그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는데, 바르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였다.

1:24 그들은 기도하며 말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셔서,

1:25 유다가 제 갈 길을 가려고 버려둔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해 주십시오."

1:26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맛디아에게 뽑혔다. 그리하여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2장

2:1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한곳에 모여 있었다.

2:2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2:3 불꽃 같은 혀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

2:4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2:5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온갖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2:6 이 소리가 나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각 사람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2:7 그들은 모두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서로 말했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2:8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고향 말로 듣게 되니 어찌 된 일입니까?

2:9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2: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2:11 그리고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이들이 우리 말로 하나님의 큰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12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말했다.

2:13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고 말했다.

2:14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쳤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15 지금은 하루의 세 번째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2:16 이것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2: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2:18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겠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2:19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징들을 보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2:20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2:21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2:22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권능과 기이한 일들과 표징들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23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2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25 다윗이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니,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 또한 희망 속에 머물 것이다.

2:27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이 썩어 없어짐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28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2:29 형제 여러분, 조상 다윗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2:30 그는 예언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자손 가운데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의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1 그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분의 육체가 썩어 없어짐을 겪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2: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에 관한 약속을 받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2:34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2: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2:36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2:37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2: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0 베드로는 다른 많은 말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 뒤틀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2:41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약 삼천 명의 사람이 더해졌다.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꾸준히 힘썼다.

2:43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났다.

2:44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2: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2:46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꾸준히 모이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2:47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공동체에 더해 주셨다.

3장

3:1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인 오후 세 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3:2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실려 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던 것이었다.

3:3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청했다.

3:4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말했다. "우리를 보십시오."

3:5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줄로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3:6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3:7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었다.

3:8 그는 벌떡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3:9 온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3:10 그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3:11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온 백성이 몹시 놀라며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에게 달려 모여들었다.

3:12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까? 왜 우리의 고유한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3: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그의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3:14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요구했으며,

3:15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3:16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앞에서 그에게 이러한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3:17 이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지해서 그렇게 행했음을 내가 압니다.

3: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알리신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3:19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때가 오고,

3:20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3:21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22 모세는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세우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3:23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3:24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도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이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렸습니다.

3:25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예수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각자를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4장

4:1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닥쳤다.

4:2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에 격분했다.

4:3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4:4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 명에 이르렀다.

4:5 이튿날 아침에 그들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4: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다 모여 있었다.

4:7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 놓고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권능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소?"

4:8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분,

4:9 만일 우리가 오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면,

4:10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한 몸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4:11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십니다.

4:12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1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배움 없는 평범한 사람임을 알고서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4:14 게다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4:15 그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4:16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참으로 그들을 통해 분명한 표징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4:17 그러나 이 일이 백성 가운데 더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위협합시다."

4:18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4: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21 공회 사람들은 사도들을 거듭 위협한 뒤 놓아주었다.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4:22 이러한 치유의 표징이 나타난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었다.

4:23 사도들은 풀려나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전했다.

4:2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주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4:25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4:26 세상의 왕들이 들고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4:27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모였습니다.

4:28 주의 손과 주의 뜻이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신 일들을 행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4:29 이제 주님,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주의 종들이 온전히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4:30 주께서 손을 뻗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징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4:31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4:32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썼다.

4:33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4:34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값의 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4:35 그들이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4:36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서 바나바(번역하면 '격려의 아들')라고 불리던 요세가 있었다.

4:37 그는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5장

5:1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다.

5:2 그는 그 아내도 아는 가운데 값의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5:3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까?

5:4 그것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대의 것이 아니었으며, 팔린 뒤에도 그대의 권한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5: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졌다.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5:6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5:7 약 세 시간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5:8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땅을 판 값이 이만큼인지 내게 말해 보시오." 그녀가 말했다. "예, 그만큼입니다."

5:9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이 서로 짜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대도 메어 갈 것입니다."

5:10 그녀는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다.

5:11 온 교회와 이 모든 일을 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5:12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징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5:13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했다.

5:14 주를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더욱더 더해졌다.

5:15 사람들은 병자들을 길거리까지 메고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눕혀 두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드리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5:16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5:17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 곧 사두개파 무리가 들고일어나 시기심에 사로잡혔다.

5:18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

5:19 그러나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했다.

5: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5:2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날이 밝을 무렵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냈다.

5:22 그러나 관리들이 감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돌아와 보고했다.

5:23 "우리가 가 보니 감옥은 철저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어 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24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했다.

5:25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26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관리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백성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5: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5:28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소."

5:29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30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5:3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5:32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5:33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5:34 그러나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5:35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5: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체했을 때 약 사백 명의 사람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37 그 사람 뒤에 호적 등록을 하던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 또한 망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5:38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너질 것입니다.

5:39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5:40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매질한 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5:41 그리하여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5: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와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6장

6:1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날마다 음식을 베푸는 일에서 자기 과부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6:2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온 무리를 불러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두고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6:3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6:4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6: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를 뽑았다.

6:6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 나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했다.

6:8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기이한 일들과 표징들을 행했다.

6:9 그때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6:10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그들은 당해 낼 수 없었다.

6:11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몰래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했다.

6:12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닥쳐와 그를 붙잡고 공회로 끌고 갔다.

6:13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쉬지 않고 지껄여 대고 있습니다.

6:14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습을 고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6:15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7장

7:1 대제사장이 "이것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다.

7:2 스데반이 말했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7:3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4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7: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그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에도 그와 그 뒤를 이을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6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의 후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 학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7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종으로 섬길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열두 족장을 낳았습니다.

7:9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7:10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7:11 그 무렵 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과 큰 환난이 닥쳐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12 그러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7:13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혔고, 바로도 요셉의 집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7:14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일흔다섯 명을 불러 모셨습니다.

7:15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야곱도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7:16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7: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 백성은 애굽에서 크게 불어나 번성했습니다.

7:18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7:19 그 왕은 우리 민족을 간계로 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내버리게 함으로써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7:20 바로 그 무렵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자랐습니다.

7:21 모세가 버려졌을 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7:22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7:23 모세는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 볼 마음이 들었습니다.

7:24 그는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편을 들어, 억압받는 사람의 원수를 갚아 주려고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7:25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7:26 이튿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형제입니다. 왜 서로 해치고 있습니까?'

7:27 그러나 이웃을 해치던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7:28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7:29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7:30 사십 년이 차자, 시내산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7:31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7:33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7:34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오너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7:35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하며 배척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통해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7:36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을 행했습니다.

7:37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여러분을 위해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7:38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모임 중에 있었고, 우리에게 전해 줄 살아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7: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마음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7:40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41 그 무렵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7:42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셔서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내게 잡은 짐승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7:43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우상들을 짊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 버릴 것이다.'

7:44 우리 조상들에게는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에게 보여 주신 본을 따라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7:45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갔으며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7:46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7:47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7:48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7:49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7:50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7: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7:52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미리 알린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7:53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 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5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7:55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7:56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7:57 그러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7:58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놓았다.

7:59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7:60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잠들었다.

8장

8:1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8: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 주고 그를 위해 크게 슬피 울었다.

8:3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8:4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8:5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8:6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징들을 보면서, 한마음으로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8:7 더러운 영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중풍병자들과 걷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았다.

8:8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8:9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부터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척했다.

8:10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그의 말을 따르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하고 말했다.

8:11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다.

8: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을 믿고 남녀가 모두 세례를 받았다.

8:13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뒤 빌립을 줄곧 따라다녔다. 그는 나타나는 표징들과 큰 기적들을 보며 몹시 놀랐다.

8:14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8:15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8:16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8:17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8:18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건네며,

8:19 "내게도 이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8:20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네 은이 너와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

8:21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네가 나눌 몫도 상관할 것도 없다.

8: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라. 혹시 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8:23 내가 보니 너는 쓴 독에 빠져 있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

8:24 시몬이 대답했다. "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셔서, 말씀하신 일들이 하나도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8:25 두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8:26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8:27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큰 권세를 지닌 내시였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8:28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8:29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저 병거에 바짝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8:30 빌립이 달려가 그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8:31 내시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며, 빌립에게 올라와 곁에 앉으라고 간청했다.

8:32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8:33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그의 판결도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이다."

8:34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했다.

8: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8:37 [원문에 본문 없음 – 편집자 표시]

8:38 내시는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모두 물속으로 내려갔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8: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으나,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

8: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

9장

9: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내뿜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9:2 그는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보낼 공문을 요청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9: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의 둘레를 둘러쌌다.

9:4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9:5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9:6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네게 일러 줄 것이다."

9:7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여 넋을 잃고 서 있었다.

9: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을 떠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9:9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9:10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9: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9:12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9:13 그러나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9:14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9:15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민족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9:16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 줄 것이다."

9:17 아나니아는 길을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제가 다시 앞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9:18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9:19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냈다.

9:20 그는 곧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9:21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짓밟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9: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9:23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9:24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있었다.

9:25 그러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다.

9: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9:27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9:28 그리하여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9:29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도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하며 논쟁했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했다.

9:30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서 갔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9:32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9:33 거기서 그는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 여덟 해 동안 침상에 누워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9:34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다.

9: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9:36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이름이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9:37 그 무렵 그녀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뉘었다.

9:38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웠으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다.

9: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지어 준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 주었다.

9:40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을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9:41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9:42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9:43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10장

10: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야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10:2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10:3 어느 날 오후 세 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와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10:4 고넬료가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두려워하여 물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10:5 이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10:6 그는 해변가에 집이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10:7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두 사람과 자기를 늘 수행하는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10:8 그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 뒤 욥바로 보냈다.

10: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 베드로는 정오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10:10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먹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황홀경에 빠졌다.

10: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가 매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10:13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0:14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10:15 두 번째로 다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10: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10: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며 속으로 몹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섰다.

10:18 그들은 큰 소리로 불러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 이곳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10: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10:21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0:22 그들이 대답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23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묵어가게 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고, 욥바에서 온 몇몇 형제들도 동행했다.

10:24 그 다음 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0:25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10:26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10:27 베드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10:2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 사람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10:29 그래서 부름을 받았을 때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10:30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금식하고 있었는데, 오후 세 시에 집에서 기도하던 중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10:31 '고넬료야, 네 기도가 들렸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10:32 그러므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가 오면 네게 말해 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10:33 그래서 제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와 주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10:35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십니다.

10:3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0:37 그 일은 요한이 선포한 세례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널리 퍼졌는데, 여러분 자신도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10:38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10:39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10:40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10:41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42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10:43 모든 예언자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44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10:46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다.

10:47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10:4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다.

11장

11: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11: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파 사람들이 그를 따지며 말했다.

11:3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11:4 그러자 베드로가 차근차근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1:5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가 매여 하늘에서 내려와 내 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1:6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펴보니, 땅 위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11:7 또 내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1:8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한 번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11:9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11: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11:11 바로 그때 세 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 문 앞에 섰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1:12 성령께서 내게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나와 동행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11:13 그는 천사가 자기 집에 서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11:14 그가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전해 줄 것이다' 하고 말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1:15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11:16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1:17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11:1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11:19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1:20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11: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11:22 그들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 들어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11:23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11: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떠났다.

11:26 그를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꼬박 일 년 동안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11:27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11: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

11:29 제자들은 저마다 가진 여유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기로 정했다.

11: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장로들에게 보냈다.

12장

12:1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의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12:2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3 그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붙잡았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12:4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군인 네 명으로 구성된 네 개 조에 맡겨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작정이었다.

12: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공동체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

12:6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날 밤,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인 채 군인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12:7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감방 안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12:8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옷을 입고 샌들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다시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다.

12:9 베드로는 따라 나와 천사를 따랐다. 그는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12:10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곧 그를 떠났다.

12:11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했다.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2:12 이 일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2: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12:14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12:15 사람들이 그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지만, 그녀는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천사다" 하고 말했다.

12:16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2:17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뒤,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 뒤,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12:18 날이 밝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12:19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12:20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헤롯에게 나아와 왕의 개인 시종인 블라스도를 구슬려 친분을 맺은 뒤 화친을 청했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2:21 정해진 날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12:22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12:23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곧바로 그를 쳤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12: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확산되었다.

12:25 바나바와 사울은 맡은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13:1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몇몇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형제처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13:2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맡긴 일을 위해, 그들을 나를 위해 따로 세워라."

13:3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13:4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갔다.

13:5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은 요한도 조수로 두고 있었다.

13:6 그들이 온 섬을 지나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거짓 예언자인 한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다.

13:7 그는 총명한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13:8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그들을 대적하며,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썼다.

13:9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눈여겨보며

13:10 말했다. "온갖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가득 찬 자여, 마귀의 자식이자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올바른 길을 왜곡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13:11 이제 보아라.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아 헤맸다.

13:12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믿게 되었다.

13:13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3: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3:15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뒤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백성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3: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13:17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머물 때에 그 백성을 높이셨으며, 높이 드신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13:18 그리고 광야에서 약 사십 년 동안 그들의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13:19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신 뒤에, 약 사백오십 년 동안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13:20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13: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3:22 그를 폐하신 뒤에는 다윗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13:23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셨습니다.

13:24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13:25 요한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의 발에 신긴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13:26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들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졌습니다.

13:27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하여,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그 예언들을 이루었습니다.

13:28 그들은 죽일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3:29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 그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13:3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3:31 그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며, 그들이 지금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입니다.

13:32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3: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다.'

13:34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시는 썩어질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13:35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3:36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 곁에 묻혀 썩음을 보았습니다.

13:37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13:38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곧 이분을 통하여 죄 사함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과,

13:39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40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글에 말씀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41 '보아라,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할 터인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일이다.' 하셨습니다."

13:42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청했다.

13:43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13:44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

13:45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질투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모독했다.

13:46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13:47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3:48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

13:49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널리 퍼졌다.

13:50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13:51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14장

14:1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의 큰 무리가 믿었다.

14:2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부추겨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14:3 그러므로 두 사람은 그곳에 오래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 증언해 주셨다.

14:4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14:5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함께 사도들을 학대하고 돌로 치려고 격렬하게 달려들자,

14:6 그들은 이를 알아채고 루가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피했다.

14:7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14: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14:9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눈여겨보며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4:10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뛰어올라 걷기 시작했다.

14:11 무리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높여 말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14:12 그들은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머큐리'라고 불렀다.

14:13 도시 앞에 신전이 있는 주피터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으로 가져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14:14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외쳤다.

14:15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14:16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각기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4:1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14:18 그들은 이렇게 말하여 무리가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14:19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와서 무리를 설득한 뒤,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14:20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14:21 그들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14:22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4:23 그리고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어 온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14:24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14:25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14:26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그들이 다 완수한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던 곳이었다.

14:27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일을 보고했다.

14:28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5장

15:1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5:2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정했다.

15:3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선 일을 전하여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15:4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15:5 그러나 믿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15:6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살펴보려고 모였다.

15:7 많은 토론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15:8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15:9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15: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얹으려 합니까?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5:12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경청했다.

15:13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15:14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택해 내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시므온이 보고했습니다.

15:15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15:16 '이 일들 뒤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폐허를 다시 지어 세울 것이다.

15:17 그리하여 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15:18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15:19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15:20 다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

15:21 예로부터 각 도시마다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 왔기 때문입니다."

15:22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15:23 그들은 그들의 손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15:24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나가서, 말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25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15:26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5:27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도 말로 같은 사실을 직접 전할 것입니다.

15:28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꼭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15:29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면 잘될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15:30 그리하여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무리를 모은 뒤에 편지를 전달했다.

15:31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 그 격려에 기뻐했다.

15:32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세게 해 주었다.

15:33 그들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문 뒤,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돌아갔다.

15:34 [원문에 본문 없음 – 편집자 표시]

15:35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15:36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로 이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15:37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 했다.

15:38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15:39 그리하여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났고,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15:41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다.

16장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으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16:2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16:3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6:4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달하여 지키게 했다.

16:5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해졌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16:6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16:7 그들이 무시아 맞은편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16:8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16:9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자,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16:11 그리하여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항해하여, 이튿날 네압볼리에 이르렀다.

16:12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가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16:13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16:14 두아디라 도시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을 팔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16:15 루디아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에게 간청했다. "여러분이 저를 주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들어와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루디아는 우리를 설득했다.

16:16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영을 지닌 한 여종이 우리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16:17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18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자, 바울은 몹시 성가셔서 돌아서며 그 영에게 말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 영이 나왔다.

16:19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

16:20 치안관들에게 데려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16:22 무리도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고, 치안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다.

16:23 그들은 많은 매를 때린 뒤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16:24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16:25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고, 죄수들이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16:26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으며,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풀렸다.

16:27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16:28 그러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16: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16:30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했다.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31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6:32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16:33 간수는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즉시 세례를 받았다.

16:34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 주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

16:35 날이 밝자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하고 말했다.

16:36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다. "치안관들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16:37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린 뒤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제 와서 비밀리에 우리를 내보내려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16:38 부하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16:39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했다.

16:40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

17장

17:1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17:2 바울은 자기 관습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17:3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다.

17:4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와 유력한 부인들도 적지 않았다.

17:5 그러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장터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패거리를 지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두 사람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찾아다녔다.

17:6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도시의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 외쳤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17:7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17:8 무리와 도시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17:9 관원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17:10 형제들은 밤에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그들은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17:11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17:12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귀부인인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17:13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 베뢰아에서도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무리를 흔들고 소동을 일으켰다.

17:14 그러자 형제들이 곧바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렀다.

17:15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는 바울의 명령을 전해 듣고 떠났다.

17:16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분개했다.

17:17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17: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몇 사람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 같다"고도 했는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7:19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17:20 당신이 우리 귀에 낯선 것들을 가져왔으니, 우리는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17:21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외에는 다른 일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

17:22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매사에 매우 종교적입니다.

17:23 내가 지나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17:24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17:25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7:26 그분은 한 혈통에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정해진 때와 그들이 사는 곳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17:27 그들이 주님을 찾으며, 혹시라도 그분께 손을 뻗어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17:28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17:29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17:30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7:31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에, 친히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17:32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했다.

17:33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17:34 그러나 몇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하여 믿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18장

18:1 이 일들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18:2 거기서 본도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최근에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18:3 그리고 생업이 같았으므로 그들과 함께 살며 일했는데,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18: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18: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18:6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여 모욕하자, 바울은 자기 옷을 털며 말했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18:7 그는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18:8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18:9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18:11 바울은 일 년 육 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8:12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18:13 그리고 말했다.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8:14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만일 이것이 어떤 부정한 일이나 사악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18:15 그러나 이것이 말과 명칭과 여러분 자신의 법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8:16 그리고 그들을 재판정에서 쫓아냈다.

18:17 그러자 모든 그리스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18:18 바울은 그 후에도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는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18:19 그들이 에베소에 이르자 바울은 그들을 거기에 남겨 두었다. 그리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했다.

18:20 그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으나 바울은 거절했다.

18:21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며 말했다. "내가 이번 다가오는 명절을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18:22 가이사랴에 상륙한 바울은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18:23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18:24 한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18:25 아볼로는 주님의 길을 배운 사람으로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다.

18: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18: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를 영접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었다.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18:28 그가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중 앞에서 밝히 보여 주며, 유대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기 때문이다.

19장

19: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러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19:2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19:3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19:4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19:5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19:6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예언을 했다.

19:7 그 사람들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다.

19: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토론하고 설득했다.

19:9 그러나 몇몇 사람이 완고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토론했다.

19:10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모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19:11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9:12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나갔다.

19:13 그러자 떠돌아다니며 악령을 쫓아내는 몇몇 유대인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19:14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19:15 그러자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19:16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덮치고 억누르니, 그들은 발가벗겨지고 상처를 입은 채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19:17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19:18 또 믿게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털어놓았다.

19:19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화 오만 개에 달했다.

19:20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널리 퍼져 나가며 세력을 얻었다.

19:21 이 일들이 끝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내가 거기에 들렀다가 로마도 꼭 보아야겠다" 하고 말했다.

19:22 그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19:23 그 무렵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19:24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 모형 신전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안겨주고 있었다.

19:25 그가 이 장인들과 동종 업계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이 생업 덕분입니다.

19: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19:27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하찮게 여겨지고 그분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19:2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19:29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바울의 여행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야외극장으로 몰려갔다.

19:30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19:31 또한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 지방 관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야외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다.

19:32 모임이 혼란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말을 외쳤는데, 대다수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19: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우자, 무리 속에서 그를 앞으로 밀어냈다. 알렉산더가 손짓을 하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했다.

19:34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채고, 모두 한목소리로 약 두 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19:35 시청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킨 뒤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에베소 시가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36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9:37 여러분은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19:38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에게 걸고넘어질 문제가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게 하십시오.

19:39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밖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기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9:40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 오늘 일어난 이 폭동 때문에, 우리는 소요죄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소동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19:41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다.

20장

20:1 소동이 가라앉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20:2 그는 그 지역들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 그리스에 이르렀다.

20:3 바울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20:4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뢰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20:5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6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이르러, 거기서 이레 동안 머물렀다.

20:7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을 때, 바울은 다음 날 떠날 생각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며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했다.

20:8 우리가 모여 있던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20:9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바울의 말이 더 길어지자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삼 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20:10 바울이 내려가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20:11 바울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뒤 날이 밝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길을 떠났다.

20:12 사람들은 살아난 그 청년을 데려가며 큰 위로를 받았다.

20:13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배로 가서 앗소를 향해 항해했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는 계획이었는데, 바울이 육로로 걸어가려고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20: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20:15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다음 날 사모에 들렀다가 드로길리온에 머물렀으며,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다.

20:16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작정했다. 될 수 있으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20:17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20:18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19 온갖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시련들을 견뎌냈습니다.

20:20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여,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0:21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20:22 이제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20:23 오직 도시마다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20:24 그러나 나는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20:25 "이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20:26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하건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20:27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8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양 떼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곧 그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20:29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20:30 또한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31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20:32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게 세우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20:33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20:34 여러분 자신이 잘 알다시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마련했습니다.

20:35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6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20:37 그들은 모두 소리 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0:38 특히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바울의 말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하며, 배 타는 곳까지 그를 배웅했다.

21장

21:1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띄워 곧장 항해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다음 날 로도를 거쳐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21:2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배에 올라 항해를 계속했다.

21:3 구브로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배가 거기서 짐을 부려야 했기 때문이다.

21:4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서 이레 동안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21:5 그 기간이 끝나자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두 나와 도시 밖까지 우리를 배웅했다. 우리는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21:6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21:7 우리는 두로에서 출발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도착했다. 거기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21:8 다음 날 바울의 동행자들인 우리는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21:9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미혼인 딸 넷이 있었다.

21:10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예언자 한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왔다.

21:11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과 손을 묶고 말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처럼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21:12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21:13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21:14 바울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을 멈추었다.

21:15 이 며칠이 지난 뒤 우리는 짐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1:16 가이사랴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가 머물 집주인인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는 초기 제자였다.

21: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21:18 다음 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도 모두 모여 있었다.

21:19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했다.

21:20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형제님, 보다시피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1:21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관해 전해 듣기로는, 형제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전해 내려오는 관습도 따르지 말라고 하며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1:2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형제님이 왔다는 소식을 틀림없이 들을 것이니 군중이 반드시 모여들 것입니다.

21:23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을 한 사람 네 명이 있습니다.

21:24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님에 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1:25 그러나 믿게 된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고 우리가 결정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21:26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 제물을 바칠 때까지 정결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신고했다.

21:27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며 그를 붙잡았다.

21:28 그들은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21:29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도시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1:30 온 도시가 소동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문은 곧바로 닫혔다.

21:31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수비대 지휘관에게 전해졌다.

21:32 지휘관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갔다. 무리는 지휘관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21:33 지휘관이 다가와 바울을 체포하고 두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한 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캐물었다.

21:34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말을 외쳤다. 소동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지휘관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21:35 바울이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의 폭력이 너무나 거세어서 군인들이 그를 둘러업고 가야 했다.

21:36 많은 백성이 "그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치며 뒤따라왔기 때문이다.

21:37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려 할 때, 지휘관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지휘관이 말했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21:38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21:39 바울이 대답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유대인이며, 결코 보잘것없는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1:40 지휘관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했다. 사방이 아주 조용해지자, 그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22장

22:1 "형제들과 아버지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22:2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이었다.

22:3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았으며,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22:4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22:5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공회도 내 말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2:6 내가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22:7 나는 땅에 쓰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2:8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분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2:9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2:10 내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네가 행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거기서 들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2:11 나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22:12 거기서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22:13 내게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시력이 회복되어 그를 보았습니다.

22:14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22:15 당신이 보고 들은 일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16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내십시오.'

22:17 그 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깊은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22:18 그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거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2:19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때렸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22:20 또한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 역시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22:21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22:22 군중은 바울의 이 말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려라! 살려둘 가치가 없다!"

22:23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자,

22:24 지휘관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군중이 무슨 죄 때문에 그를 향해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며 심문하라고 명령했다.

22:25 그들이 가죽 끈으로 바울을 묶자,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물었다. "로마 시민이자 아직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22:26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지휘관에게 가서 보고했다. "하시려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22:27 지휘관이 와서 바울에게 물었다. "내게 말해 보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2:28 지휘관이 말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바울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22:29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자들이 곧바로 그에게서 물러났다. 지휘관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22:30 다음 날, 지휘관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의 결박을 풀어 주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23:1 바울이 공회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23:2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23:3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회칠한 담벼락 같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23:4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23:5 바울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너는 네 백성의 통치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6 그러나 바울은 공회의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아채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23:7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무리가 갈라졌다.

23:8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23:9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리새파 쪽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격렬하게 맞서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23:10 논쟁이 너무 거세어지자, 지휘관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강제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23:11 다음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23:12 날이 밝자 유대인 몇몇이 무리를 짓고 저주를 자청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23:13 이런 음모를 꾸민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23:14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엄숙한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23:15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함께 지휘관에게 청하여, 그의 사건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바울을 여러분에게 데려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기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16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영으로 찾아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23:17 바울이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을 지휘관에게 데려다주십시오. 지휘관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23:18 백부장이 청년을 데리고 지휘관에게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23:19 지휘관이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은밀히 물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23:20 청년이 대답했다. "유대인들이 내일 바울에 관해 더 정확히 캐물으려는 척하면서 지휘관님께 바울을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21 그러니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마흔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하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마치고 지휘관님의 승낙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22 지휘관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엄히 당부한 뒤 청년을 돌려보냈다.

23:23 그리고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했다. "오늘 밤 제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시켜라."

23:24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짐승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3:25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23:26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23: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구해냈습니다.

23:28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23:29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했을 뿐, 사형이나 투옥에 해당하는 죄목은 없었습니다.

23:30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해치려고 매복 음모를 꾸몄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그를 각하께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23:31 군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에 이르렀다.

23:32 다음 날 그들은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맡기고 병영으로 돌아왔다.

23:33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총독 앞에 인계했다.

23:34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었다.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23:35 총독은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자세히 듣겠소" 하고 말한 뒤,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했다.

24장

24:1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24:2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벨릭스 각하 덕분에 우리가 큰 평화를 누리고 있고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에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4:3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4:4 그러나 각하를 더 오래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짧은 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4:5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파의 우두머리입니다.

24:6 그는 성전마저 더럽히려 했으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24:7 [원문에 본문 없음 - 편집자 표시]

24:8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4:9 유대인들도 함께 바울을 공격하며 이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4:10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변론합니다.

24:11 각하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4: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4:13 또한 지금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일들에 대해 각하 앞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24:14 그러나 각하께 이것만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분파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라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24:15 또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품고 있습니다.

24:16 이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품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24:17 여러 해 만에 나는 내 민족에게 줄 구제 헌금과 제물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24:18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이 내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군중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24:19 만일 그들이 내게 걸고넘어질 만한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각하 앞에 출석하여 나를 고발했어야 합니다.

24:20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점을 찾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24:21 다만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던 이 한마디 말뿐입니다."

24:22 그러나 벨릭스는 그 도에 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지휘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24:23 총독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시중들거나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24:24 며칠 뒤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었다.

24: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 강론하자,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은 그만 가보시오.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대답했다.

24:26 한편 벨릭스는 바울이 석방되는 대가로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24:27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그대로 결박된 채 남겨두었다.

25장

25:1 베스도는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5:2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 유력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며 간청했다.

25:3 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길목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 달라고 호의를 청했다.

25:4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며 자신도 곧 그리로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25:5 그리고 베스도가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권한이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를 고발하도록 하십시오."

25:6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열흘 남짓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다음 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25:7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고발했으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25:8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든 성전에 대해서든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든,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25:9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일들에 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하고 물었다.

25:10 바울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할 가이사의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5:11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질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25:12 그러자 베스도가 참모 회의와 상의한 뒤 대답했다.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오."

25:13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25: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렀으므로,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 앞에 꺼내놓으며 말했다. "벨릭스가 죄수로 남겨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고발하며 그를 처벌해 달라고 판결을 청했습니다.

25:16 나는 피고가 고발자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얻기 전에는, 그 사람을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25:17 그러므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몰려왔을 때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25:18 고발자들이 일어섰으나,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악행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25:19 다만 그들은 자기네 종교에 관한 문제와, 죽었으나 바울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인물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두고 그와 다투고 있었을 뿐입니다.

25:20 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난감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일들에 관해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25:21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기까지 구금되어 있겠다고 상소했으므로, 나는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켜두라고 명령했습니다."

25: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5:23 다음 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군 지휘관들과 도시의 유력자들과 함께 접견실로 들어왔고, 베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끌려 나왔다.

25:24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이곳에서나 모든 유대인 무리가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내게 탄원했던 자입니다.

25:25 그러나 내가 확인해 보니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그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5:26 하지만 그에 대해 우리 군주께 올릴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문을 거친 뒤에 무엇인가 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앞, 특히 아그립바 왕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25:27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도 밝히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6장

26:1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하도록 허락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울은 손을 뻗어 변호를 시작했다.

26:2 "아그립바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관해 오늘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6:3 특히 왕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논쟁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제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6:4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26:5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아 왔기에 증언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 가운데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26:6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6: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바로 이 희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26:8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하여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26:9 나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26:10 실제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사형당할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6:11 또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하면서 억지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외국 도시들까지 찾아가 박해했습니다.

26: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26:13 왕이시여, 정오에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26:14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러졌을 때, 히브리 말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통일 뿐이다.'

26:15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26:16 그러나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네가 본 것들과 내가 앞으로 네게 보여 줄 일들에 대해 너를 일꾼과 목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26:17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26:18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26:19 그러므로 아그립바 왕이시여, 나는 하늘에서 나타난 환상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26:20 오히려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26:21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6:22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날까지 서서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으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6:23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통해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6:24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26:25 그러나 바울이 말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이치에 맞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6:26 왕께서는 이 일들을 알고 계시므로 내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들은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26:27 아그립바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압니다."

26: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다. "조금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합니까?"

26:29 바울이 대답했다. "얼마나 설득해야 하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 결박만 빼고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6:30 왕이 총독과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다.

26:31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 사람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6:3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장

27:1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주었다.

27:2 우리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려는 아드라뭇디온 배에 올라 출항했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했다.

27:3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다.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며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27:4 거기서 다시 출항했으나 맞바람이 불어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해안을 끼고 항해했다.

27: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한 뒤, 루기아의 무라 시에 도착했다.

27:6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27:7 여러 날 동안 배가 느리게 나아가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모네 맞은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했다.

27:8 우리는 해안을 따라 간신히 항해하여 라새아 시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닿았다.

27:9 많은 시간이 흘러 금식일도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27:10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27:11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27:12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다수는 어떻게 해서든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며 출항하기를 권했다. 뵈닉스는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열려 있는 그레데의 항구였다.

27:13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그들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린 뒤 그레데 해안을 바짝 끼고 항해했다.

27:14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섬 쪽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세차게 내리꽂혔다.

27:15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포기하고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27:16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바람막이 쪽으로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단단히 잡아맬 수 있었다.

27:17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뒤 밧줄로 선체를 둘러묶어 보강했다. 그리고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밀려가는 대로 표류했다.

27:18 우리가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27:19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자기 손으로 배의 장비들을 내던졌다.

27:20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폭풍이 계속 몰아치자, 우리가 살아남을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27:21 사람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27:22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며,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27:23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 내 곁에 서서

27:24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게 맡겨 주셨다.'

27:25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27:26 그러나 우리 배는 어느 섬에서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27:27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했다.

27:28 물의 깊이를 재어 보니 이십 패덤이었고, 조금 뒤 다시 재어 보니 십오 패덤이었다.

27:29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27:30 그런데 선원들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 놓고 배에서 달아나려 했다.

27: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7:32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바다에 떨어뜨렸다.

27:33 날이 밝아 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오늘이 여러분이 굶주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다린 지 열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27:34 그러므로 음식을 좀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의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7:35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빵을 집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뒤,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다.

27:36 그러자 그들도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27:37 배에 있던 사람은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

27:38 그들은 배부르게 먹은 뒤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다.

27:39 날이 밝았을 때 어느 땅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만이 보여, 될 수 있으면 배를 그곳에 대기로 결정했다.

27: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의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돛을 바람에 맞춰 올리고 해변을 향해 나아갔다.

27:41 그러나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르러 배가 바닥에 걸리고 말았다. 뱃머리는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거센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했다.

27:42 군인들은 죄수 가운데 아무도 헤엄쳐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27:43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 그들의 뜻을 가로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27:44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의 잔해를 붙잡고 나가게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무사히 육지로 빠져나왔다.

28장

28:1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온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았다.

28:2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우리 모두를 맞아들였다.

28:3 바울이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 불 위에 올려놓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28:4 원주민들은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두지 않는구나."

28:5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털어 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28:6 그들은 바울의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말했다.

28:7 그 근처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토지가 있었다. 그는 우리를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28:8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28:9 이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 고침을 받았다.

28:10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예를 갖추어 극진히 대접했고,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28:11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쌍둥이 형제' 상이 새겨져 있었다.

28:12 수라구사에 닿아 사흘 동안 머물렀다.

28:13 거기서 빙 둘러 항해하여 레기온에 이르렀다. 하루가 지난 뒤 남풍이 불어와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했다.

28:14 우리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간청으로 이레 동안 함께 머물렀다. 그런 뒤 마침내 로마로 갔다.

28:15 그곳 형제들은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었다.

28: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은 죄수들을 근위대 대장에게 넘겼으나,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28:17 사흘 뒤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체포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28:18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해 보고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없었으므로 놓아주려 했습니다.

28:19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했습니다.

28:20 이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28:21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대에서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곳에 온 형제들 가운데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험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8:22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8:23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에 대해 설득하며 설명했다.

28:24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28:25 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26 이르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28:27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고, 귀는 듣기에 둔해졌으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8:28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으니,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28:29 바울이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물러갔다.

28:30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만 이 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

28:31 그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로마서

1장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1:3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1:4 거룩하신 영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5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 내도록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1:6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1:7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1:8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억하며,

1:10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게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1:11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1:12 이것은 곧 나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1:13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맺고자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고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막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1:14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나 외국인들에게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1:15 그러므로 나는 내게 있는 힘을 다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1:16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1:17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나타나 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거슬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19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 주셨다.

1: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게 분명히 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1:21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헛되어졌고,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1: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1:23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과 맞바꾸었다.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1: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으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 아멘.

1:26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로 바꾸었다.

1:27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정에 불타올랐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자신들의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자신들 안에 스스로 받았다.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1: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음행,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다.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수와 악한 습관으로 가득하며, 뒤에서 남을 헐뜯고,

1:30 남을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다. 무례하고 거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고안해 내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1:31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하며,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이다.

1:32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서도, 스스로 그런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옳다고 찬동까지 한다.

2장

2:1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일로 그대 자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하는 그대 역시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을 안다.

2:3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4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가?

2:5 그대는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대 자신에게 닥칠 진노를 쌓고 있다.

2: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2:8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2:10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2:1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2:12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14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2:15 그들은 율법의 요구가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그들의 양심 또한 함께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2:16 이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비밀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2:17 그대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2:18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2:19 스스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2:20 율법에 담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지녔으므로 어리석은 자의 교도관이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확신한다면,

2:21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그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도둑질하는가?

2:22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대가 간음하는가? 우상을 혐오하는 그대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가?

2:23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2: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

2:25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만다.

2:26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2:27 본래 육신의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2:28 겉모양으로만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에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2:29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기록된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3장

3:1 그렇다면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3:2 모든 면에서 많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다.

3:3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떠한가?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겠는가?

3:4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해야 할 것이다. 기록된 바, '주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입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

3: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인가?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하고 있다.)

3:6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3:7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나 또한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가?

3:8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으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3:9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발했다.

3:10 기록된 바와 같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3: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3:12 모두가 곁길로 벗어났으며, 다 함께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
'

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거짓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

3: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3:15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3:16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으며,

3:17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3: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3:19 율법이 하는 모든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는 것이다.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3:21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 의를 증언한다.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아무런 차별이 없다.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3:25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3:26 곧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친히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임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3:27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는가? 자랑은 배제되었다. 어떤 법에 따른 것인가? 행위의 법인가? 아니다. 믿음의 법에 따른 것이다.

3: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주장한다.

3:29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신가? 참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3:30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3:31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4장

4:1 그렇다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는가?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4: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다.

4:4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4:5 그러나 일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4:6 이것은 다윗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한 것과 같다.

4:7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4:8 주님께서 결코 죄를 묻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4:9 그렇다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4:10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는가?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인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다.

4:11 그는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의 의를 보증하는 표로서 할례의 표징을 받았다.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4:12 또한 할례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게 하려는 것이다. 곧 단순히 할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4:13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4:14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고 만다.

4:15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4:16 그러므로 약속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이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4:18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4:19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이가 백 세쯤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쇠약해졌고 사라의 태도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4:20 그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4:21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

4:22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4: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요,

4:24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곧 그렇게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4:25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5장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다.

5:2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5: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고난이 인내를 낳고,

5:4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5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정하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5: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른다.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5:9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5:11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해를 얻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5: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5: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5: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양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 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5:15 그러나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넘쳐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

5:16 또한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거저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를 거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더욱 왕노릇 할 것이다.

5:18 그러므로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5: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늘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쳐났다.

5:21 이는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한 것과 같이, 은혜 또한 의를 통해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6장

6:1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는가?

6:2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는가?

6:3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6:4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6: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다.

6:6 우리는 이것을 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없애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6:7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6: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도 믿는다.

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6:10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 사시는 것이다.

6: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겨라.

6:12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게 두어 그 몸의 욕망에 따르지 마라.

6:13 또한 여러분의 몸 어느 부분도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마라. 오히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의 각 부분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6: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6:15 그렇다면 어찌하겠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6:16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

6:17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맡겨진 그 가르침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다.

6:18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6:19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사람의 방식으로 말한다. 전에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거듭되는 악의 종으로 내주었다. 이제는 몸의 각 부분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라.

6:20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매이지 않았다.

6:21 그렇다면 그때에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지금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다.

6: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6:23 죄의 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7장

7:1 형제 여러분, 율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7:2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7: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통한 여자라 불리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7:4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7: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7:6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문의 낡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긴다.

7:7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율법이 죄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7:8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엿보아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7:9 전에는 율법 없이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7: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11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7:12 그러므로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7:13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을 통해 죄가 극도로 죄악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7: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죄 아래 팔려 있다.

7: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7:16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7:17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이다.

7:18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게는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7: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7:20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이다.

7:21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7: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7:23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7:24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8장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

8: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8:3 육신 때문에 무력해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 죄를 다루게 하셨고, 육신 안에서 죄에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

8:4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8: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8:6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사실 복종할 수도 없다.

8:8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8:10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어도 영은 의로움 때문에 살아 있다.

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자신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다.

8: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13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8: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8: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영을 받았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8:17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다.

8:18 나는 지금 겪는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19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8:20 창조된 세상이 허무함에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다.

8:21 창조된 세상 자체도 썩어 없어짐에 매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8:22 우리는 창조된 세상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

8:23 그뿐만이 아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8:24 우리는 이런 희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8:25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릴 것이다.

8:26 이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8: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8:28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8:29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8: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며,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8:31 그렇다면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8: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는가?

8:33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8:34 누가 유죄 판결을 내리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는가? 억압이나 괴로움,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이나 위험, 칼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8:36 기록된 바와 같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8: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

8:38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지배자들도, 현재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어떤 권능도,

8:39 높은 곳도 깊은 곳도, 그 밖에 창조된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9장

9: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

9:2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9:3 육신으로 내 친족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

9: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자녀로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9: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며,

9:7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인 것도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다.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9:9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정해진 때에 내가 오겠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10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 또한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을 때도 그러했다.

9:11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하시려고,

9:12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다.

9:14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9: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9: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이나 달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9:17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9: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고하게 하신다.

9:19 그렇다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잘못을 꾸짖으시는가?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9:20 그러나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가? 빚어진 물건이 빚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거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는가?

9:22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너그러운 인내로 오래 참으셨다면 어떠하겠는가?

9:23 또한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어떠하겠는가?

9:24 그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이니,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신 사람들이다.

9:25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을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9: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다.

9:27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9:28 주님께서 의 가운데 그 일을 마치시고 속히 끝내실 것이며, 주님께서 온 땅 위에 그 일을 단번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9:29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9:30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9:31 그러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9:32 왜 그런가?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9:33 기록된 바와 같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10:1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10: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건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10: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10: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10:5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10:6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려오시게 하려는 것이다.)

10:7 또 '누가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겠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올라오시게 하려는 것이다.)"

10:8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10:9 곧 그대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10:11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10: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10: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10:14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

10:15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다.

10: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라고 했다.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10:18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틀림없이 들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으로 퍼지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10:19 그러나 나는 묻는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는가?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는 이들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고, 깨달음이 없는 민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10: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 대해 묻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다.

10:21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다.

11장

11: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11:2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했습니까?

11:3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11: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나 자신을 위해 남겨 두었다." 하셨습니다.

11:5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11:7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던 그것을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그것을 얻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11:8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게 하셨다."

11:9 다윗도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응당한 보응이 되게 하십시오.

11: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십시오."

11:11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이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 일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11: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가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가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11:13 이제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11:14 어떻게 해서든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11:15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과의 화해를 가져왔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1:16 첫 열매로 바친 반죽 한 덩이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합니다.

11:17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였는데, 야생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사이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 뿌리와 풍성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11:18 그 꺾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19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1:20 맞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11:21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려 나갈 것입니다.

11:23 그들도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1:24 여러분이 본래 타고난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본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 자기 원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일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11:2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이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없애실 것이다.

11: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나의 언약이 이것이다."

11:28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11:29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3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비를 얻게 된 것처럼,

11:31 이와 같이 그들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니, 이는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1: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11: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11: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11:35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갚게 하셨습니까?"

11: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12: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2:2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12:3 나에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으로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별 있게 생각하십시오.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만일 예언이라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예언하고,

12:7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에 힘쓰며,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12:8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격려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다스리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12:9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굳게 달라붙으십시오.

12:10 형제간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아끼고, 서로를 존경하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12:11 부지런함을 잃지 말고, 마음에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12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한결같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12:13 성도들의 궁핍함을 돕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12:14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2: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12:18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2:19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2: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12:21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13:1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으며,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13:2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거스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3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권세자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13:4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칼을 헛되이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입니다.

13:5 그러므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13:6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세금도 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십시오. 세금을 내야 하면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하면 관세를 내십시오. 존중해야 하면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면 공경하십시오.

13: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들과 그 밖의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13:10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3:11 또한 여러분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이렇게 행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3:12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13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며, 다툼과 시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체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14장

14:1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따지고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14: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14:3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14:4 남의 종을 판단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4:5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4:6 특정한 날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중하게 여기고, 그 날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며,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4:7 우리 가운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14:8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14:9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10 그런데 여러분은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 여러분은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4:11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12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14:13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할 장애물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14:14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14:15 만일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가 마음 아파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마십시오.

14: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14:17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4:18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4:19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14:20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참으로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14:21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4:22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4:23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이 먹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14:24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오랜 세월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수 있는 분께,

14:25 그 비밀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26 오직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5장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15:2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15: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졌습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5:4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15: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15:6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15:8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들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15:9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15:10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셨으며,

15:11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15:12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방인들을 다스리려고 일어나실 분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15:13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4 형제 여러분, 나 자신도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넘쳐서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5:15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고 몇 가지 점을 아주 담대하게 적었습니다.

15:16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처럼 전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리하여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17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8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동으로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15:19 그 일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주변을 거쳐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습니다.

15:20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15:21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15:22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15:23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므로,

15:24 스페인으로 여행할 때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행길에 여러분을 만나, 먼저 얼마 동안 함께 지내는 기쁨을 누린 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5:25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15:26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15:27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며, 사실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5: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안전하게 전해 준 뒤에, 여러분을 거쳐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15: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임을 압니다.

15:30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나와 함께 힘써 주십시오.

15:31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5:32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5:33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16장

16: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인 우리의 자매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16:2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태도로 주님 안에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그녀 자신도 많은 사람과 나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6: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16:5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첫 열매입니다.

16: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7 내 친척이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인물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6:8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불로의 집안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기수의 집안사람들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2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3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5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6:1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16: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며, 그럴듯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16:19 여러분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16:20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16:21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내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안부를 전합니다.

16:22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6: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집주인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16:25 [원문에 본문 없음 – 편집자 표시]

고린도전서

1장

1:1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1:4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1:5 곧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모든 일, 온갖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1:6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확인된 것과 같다.

1:7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1:8 그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1:9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1:1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없으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1:11 내 형제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12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1:13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는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1:14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15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16 (내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19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다.

1: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학자가 어디 있는가?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1:22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1: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1:24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1: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1:26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보라. 육신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1:28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1: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30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1:31 이는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과 같다.

2장

2: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할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나아가지 않았다.

2: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2:3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약했고, 두려워했으며, 심히 떨었다.

2:4 나의 말과 설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졌다.

2:5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2:6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멸망해 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2:7 오히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 두신 것이다.

2:8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2:9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

2: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2:11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일을 알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2: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2:13 우리는 이 일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전하며,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한다.

2: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며, 또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므로 그가 깨달을 수도 없다.

2: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2:16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3장

3:1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했다.

3:2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여러분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도 준비되지 않았다.

3:3 여러분이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3:4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하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3:5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종들일 뿐이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3:7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시다.

3:8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마음이지만,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이다.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다.

3: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의 장인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조심해야 한다.

3:11 이미 놓인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12 만일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지으면,

3:13 각 사람의 일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불로 나타나 그것을 밝힐 것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3:14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3:15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 자신은 불 속을 뚫고 나오듯 구원을 받을 것이다.

3: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3: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3: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다.

3:20 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했다.

3:21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3:22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며,

3:23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시다.

4장

4:1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여겨야 한다.

4:2 그리고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 입증되는 것이다.

4:3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거나 인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내게 아주 사소한 일이다. 나는 내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는다.

4:4 나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4:5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4:6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 일들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아무도 서로를 대항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7 누가 여러분을 남다르게 구별해 주었는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가?

4:8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을 했다. 여러분이 정말 왕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4: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가장 마지막 자리에 두셨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4:10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지만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

4:11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돈다.

4:12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며 수고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견뎌낸다.

4:13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간청한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의 오물처럼, 모든 사람이 닦아 버리는 때처럼 되었다.

4:14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훈계하려는 것이다.

4:15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만 명 있더라도 아버지가 여럿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4:16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4:17 이런 이유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의 각처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4:18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여겨 교만해져 있다.

4:19 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곧 여러분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어떠한지 확인할 것이다.

4: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4:21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매를 들고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가기를 원하는가?

5장

5:1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실제로 들리는데, 그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담지 않는 음행으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다.

5:2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하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되도록 슬퍼하지 않았다.

5:3 비록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했다.

5: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일 때, 내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5:5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은 멸망하게 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5:6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5:7 묵은 누룩을 없애라.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5:8 그러므로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고,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키자.

5:9 내가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다.

5:10 이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전혀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5:11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가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5:12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5: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라."

6장

6:1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받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작은 일들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

6:3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가? 하물며 이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잘 판단하겠는가?

6:4 그러니 여러분이 일상의 일로 재판할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인가?

6:5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들 사이의 시비를 가려 줄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6: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소송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단 말인가!

6:7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큰 잘못이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는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면 안 되겠는가?

6:8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6:9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속지 마라.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남성 매춘부, 동성애자,

6:10 도둑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6:11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6:12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6:13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신다.

6:14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다.

6: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6:16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된다.

6:18 음행을 피하여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그러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

6: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다.

6:20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7장

7:1 이제 여러분이 내게 써 보낸 문제들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7:2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7:3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히 줄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7:4 아내의 몸에 대한 권한은 아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도 남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다.

7:5 서로 거절하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간을 두는 경우는 예외이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라.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여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7:6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는 뜻으로 말한다.

7: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마다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7:8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건대, 그들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7:9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열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7:10 결혼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

7:11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7:12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

7:13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도,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남편을 떠나지 마라.

7:14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겠지만, 이제는 거룩하다.

7:15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난다면 헤어지게 두어라. 이런 경우 형제나 자매는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 가운데 부르셨다.

7:16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7:17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7:18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말라.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

7:19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7: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7:21 그대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활용하라.

7:22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7:23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7:24 형제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7:25 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신실한 자가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제시한다.

7:26 그러므로 지금 닥친 환난을 생각할 때,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7:27 그대가 아내에게 매여 있는가? 벗어나려 하지 말라. 그대가 아내에게서 벗어나 있는가? 아내를 얻으려 하지 말라.

7:28 그러나 그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니,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 이를 면하게 해 주고 싶다.

7:29 형제 여러분,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7:30 우는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며, 기뻐하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지내며,

7: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야 한다. 이 세상의 모습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7:32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7:33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일에 마음을 쓴다.

7:34 남편이 있는 여자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영을 모두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여 세상일에 마음을 쓴다.

7:3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합당하게 행하여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7:36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와 관계된 처녀를 부적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그 처녀가 한창 나이를 지났으며 필요도 그렇다고 요구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해라.

7:37 그러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긴급한 필요도 없으며 자기 뜻을 다스릴 수 있어서, 자기와 관계된 처녀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한 사람은 잘하는 것이다.

7:38 그러므로 자기와 관계된 처녀를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고,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한다.

7:39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법에 매여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야 한다.

7:40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한다.

8장

8:1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8:2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8:3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8:4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8:5 하늘에나 땅에나 이른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8:6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이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 살아간다.

8:7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의식하면서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는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진다.

8:8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 주지는 않는다. 먹지 않는다고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8:9 하지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10 지식이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할 때 용기를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는가?

8:11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형제다.

8:12 이처럼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8: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9장

9:1 내가 자유인이 아닌가? 내가 사도가 아닌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닌가?

9: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 사도직을 증명하는 도장이기 때문이다.

9:3 나를 심문하는 사람들에게 내 변호는 이것이다.

9: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가?

9:5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가?

9:6 아니면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인가?

9:7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이 어디 있겠는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양 떼를 치면서 그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9:8 내가 사람의 관례만을 따라 이런 말을 하는가?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9:9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여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9:10 아니면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밭을 가는 사람은 희망을 품고 갈아야 하고, 곡식을 떠는 사람은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곡식을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9:11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는가?

9:12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누린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

9:13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9:14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셨다.

9:15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또 내게 그렇게 해 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

9: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9:17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겠지만, 자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내게는 직무가 맡겨져 있다.

9:18 그렇다면 내 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9: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9:20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9:21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으니(내가 하나님을 향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는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9:22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9:23 내가 복음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9:24 경주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도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려라.

9:25 경기에서 경쟁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러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

9:26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

9:27 오히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뒤에 나 자신이 자격을 잃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0장

10:1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란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다.

10:2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10:3 그리고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10:4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10: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멸망했다.

10:6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일을 탐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0: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놀았다."

10:8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저질렀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다.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지 말자.

10:9 그들 중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10:10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불평했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

10:11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말세를 맞이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10: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10:13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은 인간으로서 겪는 시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10: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라.

10:15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니,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

10: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10:17 빵이 하나이므로 많은 사람인 우리도 한 몸이다.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이다.

10:18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10:19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라도 되며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10:20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10:21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10:22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단 말인가?

10:23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10:24 아무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10:25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10:26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10:27 믿지 않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10:28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해 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10: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는가?

10:30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왜 내가 감사하는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겠는가?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10:32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10:33 나 역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며,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과 같다.

11장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11:2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그대로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칭찬합니다.

11:3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11:4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11:5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다 민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11:6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머리카락도 자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라면 머리를 가리게 하십시오.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11:9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1:10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자기 머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11:11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에게서 독립해 있지 않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독립해 있지 않습니다.

11: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 태어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11:13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11:14 자연 그 자체도 남자에게 긴 머리가 수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1:15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리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1:16 어떤 사람이 이 문제로 논쟁하려 한다 해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11:17 이제 이 지시를 내리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1:18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1:19 여러분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20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11:21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저녁 식사를 먼저 먹어 버려,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11:22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11:2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빵을 들어

11:24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11:25 저녁 식사 뒤에 잔도 이와 같이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11:26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11:28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11:29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11:30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잠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11:31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1:32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1:33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11:34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심판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의 문제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잡겠습니다.

12장

12:1 형제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2:2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이끌리든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12: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4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12:5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12:6 활동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12:7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12:9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12:10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언어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주십니다.

12:11 그러나 오직 하나이며 같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12: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12:13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2:14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15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2:16 만일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2:17 온몸이 눈이라면 어디로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냄새는 어디로 맡겠습니까?

12: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을 하나하나 몸에 두셨습니다.

12:19 만일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20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12:21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2:22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 요긴합니다.

12:23 우리가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존귀를 베풀고,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더 큰 단정함으로 대합니다.

12:24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에게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더 풍성한 존귀를 주셔서 몸을 고르게 맞추셨습니다.

12:25 그것은 몸 안에 분열이 없고,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돌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12:26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12:27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마다 그 지체입니다.

12:28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이며, 그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 돕는 일, 다스리는 일,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12:29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12:30 모두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습니까? 모두가 여러 언어로 말합니까? 모두가 통역합니까?

12:31 그러나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 줍니다.

13장

13:1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놋쇠나 요란하게 울리는 심벌즈가 된 것입니다.

13:2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온갖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3:3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13:5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극받아 화내지 않고, 악한 일을 셈해 두지 않습니다.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3:7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13:8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라지고, 여러 언어는 그치며,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13: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3:10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13:11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13:12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볼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13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14장

14:1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14:2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4:3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14: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14:5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언하는 사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14:6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해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4:7 피리나 수금처럼 생명이 없는 악기라도 소리를 구별해서 내지 않으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4:8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14:9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14:10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을 터이지만, 뜻이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14:11 그러므로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14:12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것들이 더욱 넘치기를 힘쓰십시오.

14:13 그러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4:14 내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4: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이성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하면서 또한 이성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14:16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찬양한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4:17 여러분은 분명 감사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14:18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다른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4:19 그러나 교회 모임에서는 다른 언어로 만 마디를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하는 다섯 마디를 말하고 싶습니다.

14:20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젖먹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성숙한 어른이 되십시오.

14:21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4:22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14:23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4:24 그러나 모두가 예언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14:25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14:26 형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자 시편, 가르침, 계시, 다른 언어, 또는 통역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일을 서로 세워 주기 위해 하십시오.

14:27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게 하십시오.

14:28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14:29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십시오.

14:30 그러나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14:31 여러분은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권면을 받도록,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14:32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14:33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34 아내들은 교회 모임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율법도 말하듯이, 복종하는 태도로 말하는 경우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4:35 무엇을 배우고 싶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게 하십시오. 아내가 교회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4:36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이르렀습니까?

14:37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말들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14:38 그러나 누구든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채로 두십시오.

14:3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14:40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15장

15: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밝힙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15:2 여러분이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5:3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15:4 묻히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15:5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신 뒤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6 그 뒤에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습니다.

15:7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8 맨 마지막에는 때에 맞지 않게 태어난 아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5:9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15:10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5:11 그러므로 내가 전하든 그들이 전하든 우리는 이렇게 전하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5:13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15: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5:15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텐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5:16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5:1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15:18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5:19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5: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15:23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5:24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분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15: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이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5:26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15:27 성경에 "그분이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복종되었다"고 말할 때, 만물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5:28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15:29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15:30 또 우리는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15:31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품고 있는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15:32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15:33 속지 마십시오. "나쁜 사귐은 좋은 품성을 망칩니다."

15:34 의롭게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15:35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15:36 어리석은 사람이여, 여러분이 심는 씨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15:37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알맹이 씨앗뿐입니다.

15:3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시며, 각각의 씨앗에게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15:39 모든 살이 다 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이 있고, 짐승의 살이 있으며, 물고기의 살이 있고, 새의 살이 있습니다.

15:40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15: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15: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겨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15:43 비천한 것으로 심겨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15:44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15:46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영적인 것입니다.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15:48 흙으로 빚어진 사람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하신 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15:49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지닙시다.

15:50 형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15:51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15:52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15:53 이 썩을 몸은 썩지 않게 되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54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에 삼켜졌다."

15:55 "죽음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은 이들의 세계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15:56 죽음의 독침은 죄이고,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15: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16장

16:1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16:2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는 자기 형편에 맞추어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을 거두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16:3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주어 여러분의 은혜로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도록 보내겠습니다.

16:4 나도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16:5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지나갈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16:6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거나 겨울을 함께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나를 떠나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6:7 지금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잠깐 보고 싶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6:8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것입니다.

16:9 크고 효과적인 사역의 문이 내게 열렸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16:10 디모데가 가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두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나처럼 그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평안히 길을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16:12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그에게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었으며, 기회가 생기면 갈 것입니다.

16: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16:1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16:15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16:16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돕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16:17 나는 스데바나와 포르투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16:18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으니,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16:20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16:21 나 바울이 친필로 이 문안 인사를 씁니다.

16:22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시오!

16: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6: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며 온갖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1:4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온갖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쳐나기 때문이다.

1:6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참을성 있게 견디도록 힘을 북돋워 준다.

1:7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굳건하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8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을 여러분이 알기 바란다. 우리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짓눌려 살 희망마저 잃었다.

1:9 참으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10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그분께 두었다.

1: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함께 돕고 있다. 많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1:12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특별히 여러분을 대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처신했다는 사실이다.

1:13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온전히 깨닫기를 바란다.

1:14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다.

1:15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려고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1:16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배웅을 받으며 유대로 가고자 했다.

1:17 내가 이 계획을 세웠을 때 가볍게 변덕을 부렸겠는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정을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아니요" 하려고 했겠는가?

1:18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거니와,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한 것이 아니었다.

1: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가 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었다.

1:20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21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22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1:23 내 영혼에 관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다.

1:24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다.

2장

2:1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슬픔을 안겨 주며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2:2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해 주겠는가?

2:3 내가 바로 이런 편지를 쓴 까닭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2:4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짓눌림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넘치도록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2:5 누가 슬픔을 일으켰다면, 나에게 슬픔을 안겨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으려는 뜻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 준 것이다.

2:6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린 이 처벌로 충분하다.

2:7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큰 슬픔에 짓눌려 무너질지도 모른다.

2:8 그러므로 나는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 분명히 보여 줄 것을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2:9 내가 편지를 썼던 목적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었다.

2:10 여러분이 누구를 무엇이든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용서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이다.

2:11 이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간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2:13 그러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2:14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이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15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2:16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악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2: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 파는 수많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3장

3:1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3:2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적혀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이다.

3:3 여러분은 우리가 섬겨 마련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났다. 잉크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의 판에 쓰인 편지이다.

3: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3:5 우리가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낼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3:6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3:7 돌에 글자를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을 띠고 나타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결국 사라져 버릴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3:8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에는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3:9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더 넘쳐난다.

3:10 사실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도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3:11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 속에 있었다면, 길이 남아 있을 것은 훨씬 더 큰 영광 속에 있을 것이다.

3:12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말한다.

3:13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 그는 사라져 버릴 것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썼다.

3:14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고해졌다.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3:15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다.

3:16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

3:17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4장

4: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4:2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 둔 일들을 버렸고,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운다.

4: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4:4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4: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한다.

4:6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시려는 것이다.

4: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4:8 우리는 사방으로 짓눌려도 으스러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겪어도 절망하지 않으며,

4: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4:10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4:11 살아 있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4: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한다.

4:13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 말한다.

4:14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세워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4:15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은혜가 많은 사람을 통해 더욱 풍성해져서,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4:17 우리가 잠시 겪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4:18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5장

5: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5:2 참으로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5:3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5:4 참으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는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며,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5:5 우리를 바로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5: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다. 우리가 몸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7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5:8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담대하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5:9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

5: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5:11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나 있으며,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란다.

5:12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 겉모습만 자랑하고 마음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받아칠 말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5:13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15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5:16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기준으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육신의 기준으로 알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아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5: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

5:19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5: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6장

6:1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6: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6:3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서도 아무에게도 걸림돌을 놓지 않는다.

6:4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곧 큰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겪으면서,

6:5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소요를 겪으며, 수고하고,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다.

6:6 또한 순결함과 지식과 참을성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6: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쥔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한다.

6:8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악평을 듣거나 호평을 듣거나 그렇게 한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6:9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 가는 사람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6:10 슬퍼하는 사람 같으나 언제나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6:11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입을 열었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혔다.

6:12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옹졸해져서 좁아진 것이다.

6:13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소연한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넓히십시오.

6:14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메지 마라. 의로움과 불법이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빛이 어둠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으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몫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뜻을 같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 안에 살며 그들 가운데 거닐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6:17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떨어져 있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6:18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7장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있으니 몸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7:2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7:3 내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이다.

7:4 나는 여러분을 향해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며, 여러분을 두고 크게 자랑한다. 나에게 위로가 가득 차고,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난다.

7: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는 전혀 쉴 틈이 없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겪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7:6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온 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7:7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리움과 슬픔과 열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더욱 기뻐했다.

7:8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전에는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7:9 이제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회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맞는 방식으로 슬퍼했다. 우리 때문에 어떤 손해도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7:10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내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온다.

7:11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바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가! 얼마나 간절한 변호와 분개와 두려움과 그리움과 열정과 바로잡음을 불러일으켰는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이 일에 대해 자신들이 순결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7:12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명백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7:13 이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 우리는 더욱 더 기뻐했다. 그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로 인해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7:14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두고 무언가 자랑한 일이 있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말을 참되게 했던 것처럼,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7:15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한 것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맞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7:16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8장

8:1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8:2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후하게 헌금했다.

8:3 내가 증언하거니와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주었다.

8:4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서 이 은혜와 나눔을 받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했다.

8:5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내맡겼다.

8:6 그리하여 우리는 디도에게 권하기를, 그가 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은혜로운 일도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8:7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솜씨와 지식과 모든 열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넘쳐나는 것처럼, 이 은혜로운 일에도 넘쳐나기를 바란다.

8:8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들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8: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다. 그분의 가난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8:10 이 일에 관하여 내 의견을 말하자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은 일 년 전에 이미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다.

8:11 그러니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마음에 품었던 열의에 맞게 여러분이 가진 형편에 따라 끝마쳐야 한다.

8:12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가진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없는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8:13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8:14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면, 훗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어 균등하게 될 것이다.

8:15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된 것과 같다.

8:16 여러분을 향해 이와 똑같은 열정을 디도의 마음에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8:17 디도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매우 열성을 품고 자원하여 여러분에게 갔다.

8:18 우리는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8:19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의 지명을 받아,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선한 열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이 은혜로운 모금 여행에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다.

8:20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이 거액의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흠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8:21 우리는 주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옳은 일을 떳떳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8:22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형제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 우리는 그가 여러 일에서 열심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므로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8:23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동역자이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절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8:24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 교회 앞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을 두고 우리가 자랑했던 말이 참되다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9장

9:1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구제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쓸 필요가 없다.

9:2 여러분의 열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자랑했다. 여러분의 열심은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만들었다.

9:3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을 두고 우리가 자랑한 것이 이 일에서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게 하려는 것이다.

9:4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볼 경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이 확신에 찬 자랑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9:5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선물이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에서 나온 것으로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9:6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둔다는 사실이다.

9:7 각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내야 하며,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9:8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것에 넉넉하여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신다.

9:9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다" 하고 기록된 것과 같다.

9:10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빵을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뿌릴 씨앗을 주시고 늘려 주시며, 여러분의 의로운 열매를 자라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9:11 여러분은 모든 일에 부유해져서 아낌없이 후하게 베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이어질 것이다.

9:12 여러분이 행하는 이 봉사의 섬김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감사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9:13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나타난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나눈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9:14 그들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을 깊이 사모한다.

9:15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0장

10:1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나는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담대하다.

10:2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에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할 생각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지 않아도 되기를 간청한다.

10:3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전쟁하지는 않는다.

10:4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

10:5 우리는 상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10:6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에, 온갖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10:7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겉모습만 보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8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인데, 내가 이 권위를 두고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10:9 나는 편지들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10:10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의 몸은 왜소하고 말솜씨는 보잘것없다"고 한다.

10:11 그런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이나 똑같다는 사실이다.

10:12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한통속으로 묶거나 비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잣대를 대어 자기를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있으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10:13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도를 벗어나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활동 구역의 범위 안에서만 자랑한다. 그 범위는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10:14 우리는 여러분에게 닿지 못할 사람처럼 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뻗어 나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10:15 우리는 정해진 한도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크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10:16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 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이미 일구어 놓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자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10:17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였다.

10:18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11장

11:1 여러분이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만 참아 주기를 바란다. 참으로 여러분은 나를 참아 주고 있다.

11:2 나는 거룩한 질투로 여러분을 질투한다.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이다.

11:3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부패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11:4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나 잘도 받아들인다.

11:5 나는 저 대단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11:6 비록 내가 말솜씨는 서툴지 몰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보여 주었다.

11:7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내가 지은 죄라는 말인가?

11:8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에서 삯을 받아 그들의 것을 빼앗은 셈이 되었다.

11:9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궁핍했지만,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1:1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하건대, 아가야 지역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11:11 왜 그렇겠는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11:12 그러나 나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인정받을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11: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11:14 그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11: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11:16 내가 다시 말한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라도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도 조금은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1:17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확신 속에서 하는 말이다.

11:18 많은 사람이 육정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다.

11:19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꺼이 잘 참아 준다.

11:20 실제로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삼켜 버리거나 사로잡거나 거만하게 굴거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 낸다.

11:21 부끄럽지만 고백하건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만큼 약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다.

11: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인가?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도 그렇다.

11: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수고했고 옥에도 훨씬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11:24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다.

11:25 세 번 막대기로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았다. 세 번 배가 난파되었으며, 깊은 바다에서 하룻밤과 하루 낮을 보냈다.

11:26 나는 여러 번의 여행에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의 위험을 겪었다.

11:27 수고하고 고생하며 자주 밤을 지새웠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자주 금식했고,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다.

11:28 이런 외적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이다.

11:29 누가 약한데 내가 함께 약하지 않겠는가? 누가 걸려 넘어지는데 내가 분노로 타오르지 않겠는가?

11:30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11:31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11:32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사람들의 성을 지키고 있었다.

11:33 그러나 나는 성벽의 창문을 통해 광주리에 담겨 달아 내려져서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12장

12:1 자랑하는 것이 내게 득 될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해 보겠다.

12:2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12:3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

12:5 나는 이런 사람을 두고는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을 두고는 나의 약점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12:6 내가 자랑하고자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서 보거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말을 아끼겠다.

12:7 너무나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 곧 나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2:8 이것을 두고 나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했다.

12: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도록 나의 약점들을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겠다.

12:10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함과 해를 입는 일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쁘게 여긴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12:11 내가 자랑을 늘어놓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 마땅히 여러분이 나를 추천해 주었어야 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대단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12:12 사도의 표징들이 온갖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있는 일들로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났다.

12:13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 말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12: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다.

12:15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 자신마저 다 바칠 것이다. 내가 여러분을 더 넘치도록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서 덜 사랑받아야 하겠는가?

12:16 어쨌든 나 자신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붙잡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12:17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가?

12:18 내가 디도에게 가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디도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같은 발걸음으로 걷지 않았는가?

12:19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12:20 내가 갈 때에 내가 바라는 모습의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역시 바라지 않는 모습의 나를 보게 될까 두렵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열과 비방과 험담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렵다.

12:21 또한 내가 다시 갈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고, 전에 죄를 짓고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더러움과 음행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

13장

13:1 이번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13:2 나는 전에 경고했고 다시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었을 때처럼,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씁니다. 다시 가면 봐주지 않겠습니다.

13: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13:4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13:5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13:6 그러나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3:7 이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듯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13:9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여러분이 강할 때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니, 곧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13: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에 따른 것인데, 그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13:11 끝으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한마음을 품으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13: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13:13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사도가 된 바울과,

1: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1:3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재의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1:5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이토록 빨리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나는 놀랍기만 합니다.

1:7 그러나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1:8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1:9 전에 말했듯이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1:10 내가 지금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11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1:12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습니다.

1: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짓밟았다는 사실입니다.

1:14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내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더 앞서 나갔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1:16 자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셨을 때, 나는 혈육과 곧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1: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1:18 그러고 나서 삼 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19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1:20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글은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건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1:21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1:22 그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여러 교회에 얼굴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23 그들은 오직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없애 버리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1:24 그리고 그들은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2:1 그로부터 십사 년 뒤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2 나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일이나 이미 달린 일이 헛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2: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인이었음에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2:4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2:5 우리는 그들에게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6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내게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 존중받던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덧붙여 주지 않았습니다.

2:7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맡았음을 보았습니다.

2:8 베드로를 통해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에서 일하신 분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2:9 기둥으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바나바와 나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2:10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은 나 역시 힘써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2:11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2:12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나 스스로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2:13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이 위선에 가담했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2:14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2: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 이방인 죄인이 아닙니다.

2:16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7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18 내가 헐어 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임을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2:19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3장

3:1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3:2 내가 여러분에게서 알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3: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 합니까?

3:4 그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겪었습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다면 말입니다.

3:5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3:6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3:8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음을 미리 전했습니다.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3: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언제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11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나 저주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14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15 형제 여러분, 사람의 일에 빗대어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된 뒤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3:16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3:17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어 그 약속을 효력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3: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3:19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받으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20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3:21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로움은 틀림없이 율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3: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3:23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앞으로 드러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3:24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했습니다.

3:25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3:26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3:27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누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3:28 거기에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29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4장

4:1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도 종과 다를 바가 없고,

4:2 아버지가 정해 놓은 날까지는 후견인들과 청지기들 아래에 있습니다.

4: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4:4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4:5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6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십니다.

4:7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4:8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4:9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는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가련한 초보적인 원리들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4:10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4:11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써 수고한 일이 헛수고가 되었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4:1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4:13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4:14 그리고 내 육체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음에도,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맞아들였습니다.

4:15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던 그 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증언하건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4:16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4:17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우리에게서 갈라놓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4:18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4:19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20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4:21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여,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4:22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4:23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4:24 이것들은 비유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되어 종노릇할 아이를 낳은 하갈입니다.

4: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4:27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출산하지 못한 여인아, 기뻐해라.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여인아,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남겨진 여인들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4:28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4:29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4:30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4:3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5장

5:1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다시 종살이의 멍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5:2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5:3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5:4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5:5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움에 대한 희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5:7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5:8 그러한 권유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5:9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5:10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전혀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자는 누구이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11 형제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째서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5:12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잘라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5: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5:14 온 율법은 한마디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5:15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는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5:16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5: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바라심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5:18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5:19 육체의 행위들은 명백합니다. 곧 간음, 음행, 부정함, 방탕함,

5:20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노의 폭발, 당파 싸움, 분열, 이단,

5:21 질투, 살인, 술 취함, 흥청망청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미리 경고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5: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믿음,

5:23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5:2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5: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걸어갑시다.

5:26 헛된 영광을 바라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6장

6:1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6:2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6:3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6:4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자랑할 근거를 찾게 될 것입니다.

6:5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저마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6:6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6:7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6:8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6:9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6:10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에 속한 이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6:11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6:12 육체의 겉모양을 좋게 꾸미려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합니다.

6:13 할례를 받는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6:1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뿐입니다.

6:16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6: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6: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1:4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5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1:6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우리 잘못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다.

1:8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셨다.

1:9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다.

1:10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다.

1:11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져,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

1:12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 먼저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사람이 되었다.

1:14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구속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

1:15 이러한 까닭에 나 역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전해 듣고,

1:16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1:17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1:18 또한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닌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1:19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힘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 나타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

1: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영역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1:21 그리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훨씬 높이 두셨다.

1: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셨고, 교회를 위해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다.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2장

2:1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다.

2:2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2:3 우리도 전에는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2:4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2:5 우리가 잘못으로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2: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영역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을 통해, 장차 올 여러 세대에 그분의 은혜의 비할 데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2: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2:11 그러므로 기억해라. 여러분은 전에 육신으로 이방인이었으며, 이른바 "할례"라 불리는 사람들(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 "무할례"라고 불렸다.

2:12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자였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낯선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2:13 그러나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2: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가로막힌 분리의 담을 허무셨다.

2:15 그리스도께서는 규례로 된 계명의 율법인 적대감을 자신의 육체로 없애셨다.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2:16 또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십자가로 적대감을 죽이셨다.

2:17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2:18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2: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2: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이 되셨다.

2:21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2:22 여러분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3장

3:1 이러한 이유로 나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3: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은혜를 맡아 관리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이 들었다면 말이다.

3:3 내가 전에 몇 마디로 적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려 주셨다.

3:4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3:5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3:6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며, 그분의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3:7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3:8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3:9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비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는 것이다.

3:10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려는 것이다.

3: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3: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3:13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이다.

3:14 이러한 까닭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3:15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에게서 이름을 받았다.

3:16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3:17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3:18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고,

3:19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3:20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빈다. 아멘.

4장

4:1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하니,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4:2 온전히 낮아짐과 겸손과 인내로 대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 참아 주십시오.

4:3 평화의 띠로 묶여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기에 힘쓰십시오.

4:4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4: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4: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물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

4: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4:8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다.

4:9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10 내려오셨던 바로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모든 하늘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4:11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다.

4:12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섬김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4:13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맞는 크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4:14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책, 곧 그릇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15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4:16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잘 맞추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일하는 역사를 따라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간다.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엄숙히 권고한다. 여러분은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4: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

4:19 그들은 무감각한 자가 되어 탐욕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며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다.

4: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이다.

4: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속이는 욕망으로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

4:23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4: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4:25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 사람은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4:26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4:27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4:28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힘써 일하십시오.

4:29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는 데 좋은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4: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위해 성령 안에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4:31 모든 악독과 분노와 성냄과 외침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여러분에게서 버리십시오.

4: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5장

5: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5:3 성적 부도덕과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성도에게 어울리게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5:4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천박한 농담도 어울리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5:5 이것을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우상 숭배자인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5:6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임한다.

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5: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5:9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5:10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분별하십시오.

5:11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5: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며,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다.

5:14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5:15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5:16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5:18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5:20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5:21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5:22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5:23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으니,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5:24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5: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5: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과 함께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5:27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5:29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듯 누구나 육체를 먹이고 보살피기 때문이다.

5:30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5:31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5:32 이 비밀이 참으로 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5:33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6장

6:1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6:3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6:4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6:5 종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전한 마음을 품고, 육신의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6:6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6: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6:8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에게서 그대로 다시 보상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6:9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치십시오. 그들의 상전이자 여러분의 상전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에게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다.

6:10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6:11 마귀의 교묘한 계략에 맞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몸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맞서 버티고, 모든 일을 마친 뒤에도 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6:14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굳건히 서십시오.

6:15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발에 신으십시오.

6: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다.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6: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늘 깨어 온 힘을 다해 인내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6:19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20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묶인 사절입니다.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21 여러분에게도 나의 사정, 곧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리기 위해,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이다.

6:22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를 여러분에게 보냈으니,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6: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빈다.

6:24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편지합니다.

1: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 여러분 모두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1:5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6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1:7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애정 어린 자비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1:9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1:10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지내며,

1: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2 형제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1:13 그리하여 내가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이 온 근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1:14 또한 주님 안에 있는 대다수의 형제가 내가 갇힌 일로 인해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15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파합니다.

1:16 전자들은 나의 쇠사슬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1:17 후자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1:18 그렇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겉치레로 하든 진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1:19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결국 나의 구원에 이를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1:20 나는 어떤 일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1:21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22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될 터이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며,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1:25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계속 살아남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게 될 것을 압니다.

1:26 이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나로 인해 자랑할 거리가 넘쳐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7 오직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1:28 또한 대적자들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1:29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1:30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싸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보았던 싸움이며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는 싸움입니다.

2장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떤 애정과 자비가 있다면,

2:2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같이하고 한마음이 되어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2:3 이기적인 경쟁이나 허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2:4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2: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2:7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2:8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2:10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2:11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2:13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뜻을 품고 실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14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 없이 하십시오.

2:15 그러면 여러분은 흠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한가운데서 결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보입니다.

2:16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리거나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7 설령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부어드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2:18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2:19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나도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20 여러분에 대해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2:21 모두가 자기 일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2:22 그러나 디모데가 스스로를 입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섬기듯이,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섬겼습니다.

2:23 그러므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살피는 대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4 나 자신도 곧 갈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25 그러나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여러분의 사자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 준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26 그는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27 실제로 그는 거의 죽을 정도로 병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2: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냈으니,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나도 슬픔을 덜려는 것입니다.

2:29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2:30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며,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3장

3:1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3:2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3:3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4 비록 나 자신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지만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3:5 나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따른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7 그러나 내게 이익이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로 여깁니다.

3:8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3:9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3:10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3:11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3:12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3:13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3:15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품읍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에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3:16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같은 규칙을 따라 걷고, 같은 생각을 품읍시다.

3:17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3:18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19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자신들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3:21 그분은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4장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4:2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게도 권면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4:3 그렇습니다. 참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힘써 일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건대, "기뻐하십시오!"

4:5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4:7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

4: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이든, 존경할 만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순결한 것이든, 사랑스러운 것이든, 칭찬할 만한 것이든,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4:9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4:10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마침내 다시 나타내었으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늘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4:11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4:12 나는 비천하게 지내는 법도 알고, 풍족하게 지내는 법도 압니다.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도 잘 지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4:13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4:14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었으니 잘한 일입니다.

4:15 빌립보 사람들인 여러분 자신도 알다시피,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눔을 함께한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한 번 보내고 또 보내 주었습니다.

4:17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으로 늘어나는 열매를 바랄 뿐입니다.

4:18 나는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해졌으니,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4:19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4:20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4: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4:22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며, 특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에 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1:5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통해 이미 들은 것입니다.

1:6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1:7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서 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1:8 그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1: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10 그리하여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구합니다.

1:11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따라 온갖 능력으로 강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끈기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1:12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속에 동참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1:13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1:14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1: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맏이이십니다.

1:16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와 주권과 통치와 권세까지 모두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유지됩니다.

1:18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신 맏이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1:19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셨고,

1: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만물을 그분을 통해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21 전에 여러분은 악한 행실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22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1:23 여러분이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머물러, 들었던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1: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내 육체로 채워 가고 있습니다.

1:25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따라,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1:26 이 비밀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1:27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곧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1:28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며 온갖 지혜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1:29 이 일을 위해 나 역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2장

2:1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육신으로는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해 얼마나 크게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2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깨달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 곧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2:4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5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2:6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7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2:8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근원적인 영들을 따릅니다.

2:9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습니다.

2:10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얻었으며,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2:11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육신의 죄된 몸을 벗어 버린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2:12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2:13 여러분은 잘못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14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던 법조문이 적힌 채무 문서를 지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 버리셨습니다.

2:15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축제일이나 초하루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17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2:18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에 파고들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거립니다.

2:19 그는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온몸은 머리로부터 관절과 인대를 통해 공급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2:20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근원적인 영들에게서 벗어났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정에 복종합니까?

2:21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규정들 말입니다.

2:22 (이런 것들은 다 쓰면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른 것 아닙니까?

2:23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정한 예배와 겸손과 몸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을 제멋대로 따르는 일을 막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3장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3:2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3: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4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한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3:6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3:7 여러분도 전에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3:8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3: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렸고,

3:10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3:11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3: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답게, 긍휼의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너그럽게 품어 주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3:14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온전함을 이루는 띠입니다.

3:15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은혜를 품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3:17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3:18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3:19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3:20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3:21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3:22 종 여러분, 육신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3: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십시오.

3:24 여러분이 주님께 상으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3:25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해 그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4장

4:1 주인 여러분, 종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2 기도에 늘 힘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속에 깨어 있으십시오.

4:3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 비밀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4:4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바대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5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십시오.

4:6 여러분의 말을 언제나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 수 있게 하십시오.

4:7 나의 모든 형편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료 종입니다.

4:8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니, 그가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4:9 또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4: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에 관해서는 "그가 여러분에게 오면 받아들이십시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4:11 또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이들뿐이며, 이 사람들은 내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4:12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도록 언제나 기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4:13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건대,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큰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4:14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4:16 이 편지를 여러분 가운데서 읽은 뒤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히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4:17 그리고 아킵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4:18 나 바울이 친필로 이 문안 인사를 씁니다. 내가 묶여 있는 사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1:2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1:3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1:4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받았음을 알고 있다.

1:5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1:6 여러분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1: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1: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소문이 모든 곳에 퍼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다.

1:9 그들 자신이 우리에 대해 보고하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환대를 받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1:10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2장

2:1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은 헛되지 않았다.

2:2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겪었지만, 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2:3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2: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2:5 여러분이 알듯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탐욕을 가리는 겉치레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2:6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2:7 오히려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유하게 대했다.

2:8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줄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2: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2:10 우리가 믿는 사람인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동했는지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시다.

2:11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간곡히 당부했다.

2:12 이는 여러분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2: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로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인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작용하고 있다.

2: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2:15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신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

2:16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언제나 자기 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이르렀다.

2:17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에, 더욱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온 힘을 다했다.

2:18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다. 특히 나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거듭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2:19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2:20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3장

3:1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만 아테네에 남기로 작정했다.

3:2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여,

3:3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자신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도록 정해져 있다.

3:4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3:5 이런 까닭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고자 디모데를 보냈다. 혹시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3: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또한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3:7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온갖 곤경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큰 위로를 받았다.

3: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3: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이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3:10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워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3:11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

3:12 또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바란다.

3:13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흠 없고 거룩하게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4장

4:1 끝으로 형제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간청하며 권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그 일에서 더욱더 풍성해져라.

4:2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

4:3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니, 곧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다.

4:4 여러분 각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고,

4: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정욕의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4:6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형제나 자매를 속여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증언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4: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4:8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4:9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4:10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니 더욱더 그렇게 사랑하라.

4:11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한 생활을 하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라.

4:12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13 형제 여러분, 잠든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이 알기 바란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4: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4: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4: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4: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5:1 형제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5:2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올 것임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5: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5: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못할 것이다.

5: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5: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맑은 정신을 차리자.

5:7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한다.

5: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 믿음과 사랑의 가슴받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며 맑은 정신을 차리자.

5:9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5: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5:11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주라.

5:12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5:13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해라. 여러분끼리 평화롭게 지내라.

5:14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무질서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5:15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언제나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라.

5:16 항상 기뻐하라.

5:17 끊임없이 기도하라.

5:18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5: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5:20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5:21 모든 것을 헤아려 살펴보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5:22 온갖 모양의 악은 멀리하라.

5: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5: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5:25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5: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5:27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엄히 명하니,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 주라.

5: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1: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3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으며,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향해 품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보여 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자랑합니다.

1:5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여 주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6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7 또한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1:8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1:9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이라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1:10 그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찬탄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1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선을 행하려는 모든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2장

2:1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 곁으로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2 어떤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은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3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반역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4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예배받는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2: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2:6 지금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2:7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으며, 그가 치워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8 그때 불법한 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숨으로 그를 죽이시고, 오시는 모습이 드러남으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2:9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이니,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반할 것입니다.

2:10 또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온갖 불의한 속임수가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2:12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13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2:1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이 구원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15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말로나 편지로 우리에게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2: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17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갖 선한 일과 말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3:1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3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므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3:4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바를 여러분이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반항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에게서 물러나십시오.

3:7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반항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8 아무에게서도 값을 내지 않고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일했습니다.

3:9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 주려 한 것입니다.

3:10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3:11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반항하며 살고,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12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십시오.

3: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3:14 누구든지 이 편지에 담긴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3:15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훈계하십시오.

3: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3:17 나 바울이 친필로 이 인사말을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에 들어가는 표시이니, 나는 이렇게 씁니다.

3: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1:2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

1: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권면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1: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은 일을 수행하게 하기보다 논쟁을 일으킵니다.

1:5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1:6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이야기로 돌아섰다.

1:7 그들은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그토록 확신 있게 주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1:9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과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우리는 안다.

1:10 또한 음행하는 자들과 동성애자들과 노예 상인들과 거짓말쟁이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온갖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1:11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졌다.

1:12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무를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1:13 나는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믿지 않던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므로 자비를 입었다.

1: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1: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믿을 만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만하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이다.

1:16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그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온전한 인내를 보여 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1:17 영원하신 왕,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빈다. 아멘.

1:18 내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에게 주어졌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이 지침을 그대에게 맡기니, 그대는 그 예언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1: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버렸다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겪었다.

1:20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않도록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2장

2:1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2:2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품위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2: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2:6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으며, 적절한 때에 이에 대한 증거가 주어졌다.

2:7 이 증거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임명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2:8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나 남자들이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2:9 이와 같이 여자들도 땋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과 소박함과 정숙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2:10 오직 선한 행실로 단장해야 마땅하니, 이것이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2:11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2:12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있어야 한다.

2:13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뒤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2:14 또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불순종에 빠졌다.

2:15 그러나 그들이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계속 머문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출산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3장

3:1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힘쓴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믿을 만하다.

3:2 그러므로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

3:3 술에 빠지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으며 돈을 탐내지 않고 온유해야 하며, 다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3:4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온전한 품위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5 (자기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3:6 그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니, 우쭐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3:7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니, 비방을 받거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3:8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만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포도주에 빠지거나 돈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

3:9 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3:10 그들도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하며, 흠이 없을 때 봉사하게 하십시오.

3:11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만해야 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3:12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3:13 봉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훌륭한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기 때문이다.

3:14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쓴다.

3:15 내가 늦어질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기초이다.

3:16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참으로 크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민족들 사이에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을 얻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4장

4:1 그러나 성령께서는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정신을 팔려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4:2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이며, 그들은 자기 양심에 뜨거운 쇠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다.

4:3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음식들은 믿는 이들과 진리를 아는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4:6 그대가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대는 자신이 따라온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4:7 세속적이고 늙은 여인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4:8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현재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생명의 약속을 품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 유익하다.

4:9 이 말은 믿을 만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만하다.

4:10 우리가 수고하고 비난을 겪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

4:11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4:12 아무도 그대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4:13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4:14 장로들의 무리가 안수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그대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4:15 이 일들에 부지런히 힘쓰고 온전히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4: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일들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5:1 나이 많은 남자를 거칠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며,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십시오.

5:2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한 순결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대하십시오.

5:3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참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5:4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안에서 효도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5:5 참 과부로서 홀로 남겨진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않는다.

5:6 그러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5:7 그들이 흠잡힐 데가 없도록 이러한 것들도 명령하십시오.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안 식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자이다.

5:9 과부의 명부에는 예순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만 올리십시오.

5:10 선한 행실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고, 고난받는 사람을 도우며, 모든 선한 일에 부지런히 힘써 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5:11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릴 때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5:12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의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5:13 게다가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른 습관을 익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하고 참견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5:14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며, 적대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5:15 이미 어떤 이들은 빗나가 사탄을 따라갔다.

5:16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돌봐야 할 과부가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교회가 참으로 과부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5:17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5:18 성경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했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5:19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5:20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5:21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하니,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5:22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대의 위장과 잦은 질환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5: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여 먼저 심판의 자리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5:25 이와 같이 선한 행실도 명백히 드러나며, 그렇지 않은 것도 결국 숨겨질 수 없습니다.

6장

6:1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누구나 자기 상전을 온전히 공경할 사람으로 여겨야 하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6:2 믿는 사람을 상전으로 둔 종들은 그들이 형제라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6:3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교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6:4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논쟁과 말다툼의 병에 걸린 자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겨나고,

6:5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빼앗긴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대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참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분명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6:8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6:9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욕망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욕망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6:10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 헤매고,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

6: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6:13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6:15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이십니다.

6:16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6:17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6:18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십시오.

6:19 다가올 때를 위해 자신에게 좋은 기초를 쌓아 두어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십시오.

6: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거짓되게 지식이라 불리는 것의 헛된 말장난과 반론들을 피하십시오.

6:21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우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1:3 나는 조상들이 그랬듯이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1:4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니, 이는 내 기쁨을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1:5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깃들어 있었고, 그대 안에도 깃들어 있음을 확신한다.

1:6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준다. 내가 손을 얹어 줌으로써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1: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이나 그분의 죄수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견뎌 내십시오.

1: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1:10 이제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드러났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않음을 밝혀 주셨다.

1:11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1:12 이 때문에 나 또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1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지키십시오.

1:14 그대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키십시오.

1:15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1:16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자주 나에게 새 힘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17 오히려 그가 로마에 왔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마침내 만났다.

1:18 (그날에 그가 주님의 자비를 얻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일로 섬겼는지는 그대가 아주 잘 알고 있다.

2장

2:1 그러므로 나의 자녀인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2:2 그리고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 내야 합니다.

2:4 복무 중인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불러 준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2:5 또한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2:6 수고하는 농부가 수확한 곡식을 먼저 나누어 받는 것이 마땅하다.

2:7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모든 일을 이해하는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2:8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2:9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이기까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

2:10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딘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2:11 이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2:12 우리가 참아 내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2:13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

2:14 그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일깨우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듣는 이들을 파멸로 이끌 뿐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엄숙히 명하십시오.

2: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2:16 그러나 헛되고 세속적인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경건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2:17 그 말들은 괴저처럼 퍼져 나가며 파괴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다.

2:18 그들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났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2:19 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며, 거기에는 이런 인이 새겨져 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라."

2:2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이 쓰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될 것이다.

2:22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2:23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2:24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며, 온갖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2:25 거역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2:26 그리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3장

3:1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3:3 또한 정이 없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3:4 배신하며, 고집이 세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도 멀리하십시오.

3:6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죄에 짓눌리고 온갖 욕망에 이끌리는, 잘 속는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다.

3:7 그 여자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3: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이 썩어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3:9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듯이, 이들의 어리석음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3:10 그러나 그대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목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 따랐고,

3:11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박해와 고난도 그대는 잘 지켜보았다. 나는 그 박해들을 견뎌 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3: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이다.

3:13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3:14 그러나 그대는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으며,

3:15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알아 왔습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3:17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장

4:1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나타나시고 자신의 나라가 임할 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4:2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꾸짖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4:3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 자기 욕망에 따라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4:4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려 허탄한 신화에 빠져들 것입니다.

4: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4:6 나는 이미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다.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4:8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 온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4:9 그대는 서둘러 나에게 빨리 오도록 힘쓰십시오.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4:12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4:13 그대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4: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4:15 그대도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말을 몹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4:16 나의 첫 번째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고, 모두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그 죄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4:17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통해 복음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져 모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4:18 주님께서는 나를 온갖 악한 행위에서 건져 내시고, 자신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4:19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4: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내가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

4:21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불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하며,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도 안부를 전합니다.

4:2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도서

1장

1:1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따르고,

1:2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품고 있다.

1:3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 주신 선포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다.

1:4 같은 믿음을 따르는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1:5 내가 그대를 그레데에 남겨 둔 까닭은, 미처 다하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1:6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1:7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

1:8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1:9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니, 이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10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많다.

1: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온 집안을 망가뜨리고 있다.

1:12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들 자신의 예언자도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했다.

1:13 이 증언은 참되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고,

1:14 유대인의 꾸며 낸 이야기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라.

1: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 더럽혀졌다.

1:16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떤 선한 일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다.

2장

2:1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들어맞는 것을 말하라.

2:2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해야 한다.

2:3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경건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2:4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아내들을 가르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2:5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6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라.

2:7 모든 일에서 그대 자신이 선한 행실의 모범을 보이라. 가르칠 때에는 성실함과 진지함과 순수함을 보이고,

2:8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그리하면 반대하는 자도 우리에 대해 악하게 말할 거리가 없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9 종들에게는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모든 일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하지 말라고 권면하라.

2:10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2:12 우리를 훈련하여 경건하지 않은 생활과 세상적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셨다.

2:13 그리고 복된 희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다.

2: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으니,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2:15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며 꾸짖으라.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3장

3:1 그대는 사람들을 일깨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3:2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너그럽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겸손을 보이게 하라.

3:3 우리 역시 이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미혹을 받았고, 온갖 욕망과 쾌락의 종노릇을 했으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면서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했다.

3:4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3:5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3:6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

3:7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3:8 이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3:9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3:10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고를 한 뒤에 멀리하라.

3:11 그대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빗나간 자로서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고 있다.

3:12 내가 아르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13 법률가 제나와 아볼로가 길을 떠날 때 서둘러 도와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

3:14 우리 사람들도 꼭 필요한 일들을 채우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1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갇힌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1:2 또 사랑하는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싸우는 아킵,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1:3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4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떠올리며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 그대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1:6 그대가 믿음을 나누는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알아 가는 가운데 힘을 발휘하기를 기도합니다.

1:7 형제여, 성도들이 그대를 통해 마음에 새 힘을 얻었기에 우리도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1:8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마땅한지 그대에게 명령할 만큼 담대하지만,

1:9 사랑 때문에 차라리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늙은 사람이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1:10 갇혀 있는 동안 내가 아버지가 된 내 자녀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1:11 그는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2 나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를 받아 주십시오. 그는 바로 내 마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1:13 나는 그를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나를 그대 대신 돌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1:14 하지만 그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선을 베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15 그가 잠시 그대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곁에 두게 하려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16 이제 그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종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특히 나에게 그렇다면, 육신으로도 주님 안에서도 그대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1:17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료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1:18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 몫으로 돌리십시오.

1:19 나 바울이 직접 손으로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대 자신까지도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20 그렇습니다,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십시오.

1:21 그대가 내 말을 따를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해 줄 줄 압니다.

1:22 그리고 내가 머물 방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1:24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인사를 전합니다.

1: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1 옛적에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 온 세상도 만드셨다.

1:3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4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만큼, 천사들보다 그토록 더 뛰어나게 되셨다.

1:5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언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1:6 그리고 그 맏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신다.

1:7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자기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고 말씀하신다.

1:8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님 나라의 왕홀은 올바름의 왕홀입니다.

1:9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동료들보다 높여 주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1:10 또 말씀하신다. "주님, 주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1:12 주님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며, 그것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햇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1: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언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1:14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닌가?

2장

2: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행여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도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2:3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2:4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2: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2:6 그러나 어떤 이가 어디선가 이렇게 증언하였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2:7 주님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2:8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2:9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던 분, 곧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2:10 만물이 그분을 위해 있고 그분을 통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끄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2: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이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2:12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셨다.

2:13 또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시고,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셨다.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듯이, 그분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지니셨다. 이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2:15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을 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2:16 참으로 그분은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신다.

2: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었다.

2:18 그분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3장

3: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눈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3:2 그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다.

3:3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여겨지셨다.

3:4 집마다 누군가가 짓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5 모세는 장차 전해질 말씀들을 증언하기 위해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신실했다.

3:6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을 맡아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희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안이다.

3: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3: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반역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3: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여, 사십 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3:10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몹시 화가 나서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으로 방황하고,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였다.

3:11 그리하여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3:12 형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겨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13 오히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3:14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3: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러하다.

3:16 듣고서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는가?

3:17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죄를 지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었는가?

3:18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는가? 불순종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3:19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본다.

4장

4: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두려워합시다.

4:2 참으로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4:3 그러나 믿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비록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어 있었지만 말이다.

4:4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고 말씀하셨고,

4:5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4:6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고, 이전에 복음을 들은 이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4:7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뒤에 다윗을 통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다시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셨다.

4: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

4:10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서 쉬신 것처럼, 자신도 하던 일에서 쉬었기 때문이다.

4:11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서, 아무도 저 불순종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합시다.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을 가려낸다.

4:13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숨겨져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해야 할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들을 통과해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4: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4:16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5장

5:1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맡은 사람이며, 예물과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친다.

5:2 그는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빗나간 이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5:3 이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

5:4 아무도 이 영예를 스스로 얻지 못하며,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5: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높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다.

5:6 또한 다른 곳에서도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5:7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던 날들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다.

5:8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5: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5: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5:11 그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데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5: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누군가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5:13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갓난아기이므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5: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다 자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거듭 사용하여 감각을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6장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 완전한 데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맙시다.

6:2 세례들에 관한 가르침과 손을 얹는 일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6: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을 나누어 받고,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6:6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히 욕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7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 땅을 경작하는 목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6:8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받기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6: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따르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의 수고, 곧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잊지 않으신다.

6:11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도록 같은 열심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6:12 그리하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6: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셨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6:14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6:15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

6: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이를 두고 맹세하며, 맹세는 그들의 모든 다툼을 끝내고 확정해 준다.

6:17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6:18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달려간 우리가 큰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6:19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있으니, 안전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6:20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들어가셨으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7장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다.

7:2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먼저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인데, 이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다.

7: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영원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다.

7:4 조상 아브라함조차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십분의 일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7:5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십일조를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7:6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을 축복했다.

7: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다.

7:8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지만, 저기서는 살아 계시다고 증언을 받은 분이 받는다.

7:9 말하자면,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십일조를 바친 셈이다.

7:10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7:11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직을 통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면(백성이 그 제사직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므로),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로 불리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7:12 제사직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7:13 이러한 말씀이 가리키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다.

7:14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세는 이 지파에 관해서는 제사장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7:15 멜기세덱의 모습을 닮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은 훨씬 더 분명하다.

7:16 그분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7:17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증언되었기 때문이다.

7:18 이전의 계명은 그것이 약하고 무익하므로 폐지되었고

7:19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소망이 도입되었으니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7:20 그분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7:21 저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되셨다. 곧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맹세다.

7:22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7:23 저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7:24 이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지니신다.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하시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다.

7:27 그분은 저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뒤에 온 맹세의 말씀은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영원히 세운다.

8장

8:1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며, 그분은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8:2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8:3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진 사람이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8:4 만일 그분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8:5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곳에서 섬긴다. 이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바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8:6 그러나 이제 그분은 훨씬 더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다. 그만큼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8:7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찾을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8: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8:9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8:10 '그날들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8:11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가르치며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8:12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8:13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9장

9:1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9:2 장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부분에는 등잔대와 상과 차려 놓은 빵이 있었다. 이곳을 성소라 부른다.

9:3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9:4 거기에는 금 분향제단과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었다.

9:5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판을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할 수 없다.

9:6 이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첫째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한다.

9:7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을 위해 바치는 것이다.

9:8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 첫째 장막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신다.

9:9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이며, 이에 따라 바치는 예물과 희생제물은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9:10 이런 것들은 음식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함께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의 규례일 뿐이다.

9: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9:14 그렇다면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

9:15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이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9:16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9:17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9:18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9:19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책 자체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9:20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다.

9:21 그는 장막과 섬김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다.

9: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되어야 했다.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바로 그곳에 들어가셨으며,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

9:25 대제사장이 해마다 자기 피가 아닌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9:26 만일 그러해야 했다면 그분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셨다.

9: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바쳐지셨고, 두 번째로는 죄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다.

10장

10: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의 참 모습이 아니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물로는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10:2 만일 그럴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해져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았을 터이니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는가?

10:3 그러나 저 희생제물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

10: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5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0:6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0:7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10:8 위에서 먼저 "주님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들이다.

10:9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다. 그분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애신다.

10:10 이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

10: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는 똑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리지만,

10:12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영원히 유효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0:13 그 후로 그분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10:14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되어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10:15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10:16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하신 뒤에,

10:17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10:18 이것들이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는 필요 없다.

10:1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20 그 길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입니다.

10:21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니,

10:22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마음에 피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10:23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10:24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북돋울지 생각합시다.

10: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스스로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10:26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서도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10:27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대적자들을 집어삼킬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10:28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따라 가차 없이 죽었다.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라.

10:30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다.

10: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10:32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낸 지난날들을 기억하십시오.

10:33 한편으로는 비난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10:34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나를 동정해 주었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더 낫고 영구한 재산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10:35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

10:36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37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10:38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10: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영혼을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11장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11:2 옛 어른들도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11:3 믿음으로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를 통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므로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인정을 받았다.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외심으로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배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떠났다.

11:9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살듯이, 같은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 및 야곱과 천막에서 지냈다.

11:10 이는 그가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도시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11: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았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1:12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닷가의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

11: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기며 자신들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고백했다.

11:14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11:15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11:16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바라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다.

11: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다. 약속들을 기쁘게 받았던 그가 자기의 외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이다.

11:18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네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11: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예배를 드렸다.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생을 마칠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유골에 관하여 지시를 남겼다.

11:23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1:24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뒤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

11:25 그는 잠시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

11:26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1:27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굳건히 견뎌 냈다.

11:28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여, 맏아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11:29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듯 홍해를 건넜다.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삼켜져 빠져 죽었다.

11: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성벽을 돌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11:31 믿음으로 매춘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아들여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11: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11: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11:34 불의 위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 외국 군대를 패주시켰다.

11:35 여인들은 부활을 통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돌려받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풀려나는 것을 마다하며 고문을 견뎠다.

11: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로 시련을 겪었고, 더 나아가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까지 겪었다.

11:37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겪었다.

11:38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11:39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11:4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12장

12:1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짐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립시다.

12:2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12:3 여러분은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신을 거슬러 저지른 이러한 반대를 참아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12:4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12:5 여러분은 자녀에게 타이르듯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12:6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자신이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신다."

12:7 여러분이 견디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처럼 대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12:8 그러나 모든 자녀가 다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자녀가 아니다.

12:9 더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징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는 훨씬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12: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12:11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해 준다.

12:12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12:13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저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12:15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2:16 음행하는 자나, 한 끼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불경한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12:17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그 축복을 물려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했으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찾지 못했다.

12:18 여러분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산, 흑암과 어둠과 폭풍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12:19 또한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했다.

12:20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견뎌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2:21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웠기에 모세도 "내가 몹시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다.

12:22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모임에 이르렀다.

12:23 또한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축제 모임과 총회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이르렀으며,

12:24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 주는 뿌린 피에 이르렀다.

12:25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절한 사람들도 피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12:26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라고 약속하셨다.

12:27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기 위해,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없애 버리신다는 뜻이다.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은혜를 간직합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12:29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13장

13:1 형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13:2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13:3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억하십시오.

13:4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3:5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3: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13:7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시다.

13:9 온갖 낯선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매달리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13:10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거룩한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

13:11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동물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13:1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13: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13: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고, 앞으로 올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13:15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충성을 선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13:16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13:17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책임을 밝혀야 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하면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18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3:19 내가 여러분에게 더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13:20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 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13:21 온갖 선한 일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3:2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짧게 썼으니, 부디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13: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13:24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3:25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합니다.

1:2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모두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1:3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1:4 인내가 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1:7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님에게서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8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자신의 모든 길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1:9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1:10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낮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풀의 꽃처럼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11 해가 뜨거운 바람과 함께 떠올라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1:12 시험을 견뎌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나면,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3 시험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14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16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17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모든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1:18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19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십시오.

1:20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 나는 악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1:22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을 속이며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1:24 그는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는,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1:25 그러나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곧 잊어버리는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1:26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1:27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장

2:1 내 형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서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지 마십시오.

2:2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회당에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해 봅시다.

2:3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으시오" 또는 "내 발판 옆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2:4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에서 차별을 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2:5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2:6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직접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2:7 그들은 여러분이 불리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2:8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2:9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판정됩니다.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2: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저지른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2:12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들답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2:13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2:14 내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2: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2:16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2:18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 보아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2:19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2:20 어리석은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2:22 여러분도 보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2:23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2:24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듯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25 마찬가지로 매춘부 라합도 보냄받은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까?

2: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3장

3:1 내 형제 여러분, 우리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기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3:2 우리는 모두 많은 일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몸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3:3 참으로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온몸을 제어합니다.

3:4 보십시오, 배들도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지만, 키잡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로든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 버리는지 보십시오!

3:6 혀는 불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불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혀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흐름을 불태우며, 그 자체도 게헨나에 의해 불이 붙습니다.

3:7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기어 다니는 것과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3:8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잠하지 않는 악이며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9 우리는 이 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3:10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3:11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뿜어낼 수 있습니까?

3:12 내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단물을 함께 내지 않습니다.

3:13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14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도 마십시오.

3:15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3:16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3: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로우며, 부드럽고, 사리에 맞으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 차 있고, 편견이 없으며, 위선이 없습니다.

3:18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4장

4:1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4:2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고 탐을 내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 여러분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4:4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4:5 아니면 성경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영께서는 질투할 만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헛되이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4:6 그러나 그분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4: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4:9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4:10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4:11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4:12 입법자이자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4:13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4:14 그러나 여러분은 내일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4:15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4:16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오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4:17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5장

5:1 부유한 사람들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로 인해 울부짖으십시오.

5:2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5: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은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5:4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5 여러분은 땅 위에서 호화롭게 살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도살의 날에 그러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5:6 여러분은 의로운 이를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5:7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기까지 그것을 위해 참고 기다립니다.

5:8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5:9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관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5:10 형제 여러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삼으십시오.

5:11 보십시오, 우리는 견딘 사람들을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그 결과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동정과 자비로 가득하신지도 보았습니다.

5:12 내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어떤 다른 맹세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십시오.

5:13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5:14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5:16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끈질긴 기도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5: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5:18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려 주었고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5:19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5:20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1:2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받게 하려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빕니다.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 있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

1:4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시들지 않는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으니, 이는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1: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1:6 이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기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1:7 이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검증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8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했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9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10 이 구원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1:11 그들은 자신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누구를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탐구했습니다.

1:12 그들이 섬긴 이 일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으며, 천사들도 깊이 살펴보고 싶어 하는 일들입니다.

1:13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은혜에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1:14 순종하는 자녀답게, 여러분이 무지했던 시절의 이전 욕망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1:15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십시오.

1:16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7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절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서 보내십시오.

1: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에서 여러분이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19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1: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1: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22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애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1:23 여러분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아 있고 영원히 남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1:24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1: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입니다.

2장

2: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 위선과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십시오.

2:2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으로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여러분이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임을 참으로 맛보았다면 그리하십시오.

2:4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2:5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2:6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2: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영예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2:8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걸려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10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2:11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인이자 순례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2:12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2:13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가장 높은 통치자인 왕에게도 복종하고,

2:14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2:15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16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덮는 구실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2:17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왕을 존경하십시오.

2:18 종 여러분, 모든 존경심을 다하여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뿐 아니라 악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2:19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픔을 참아내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2:20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묵묵히 견뎌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2:21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22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23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2:24 그분은 친히 나무 위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으신 상처로 여러분은 나았습니다.

2:25 여러분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습니다.

3장

3:1 이와 같이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해 말없이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2 그들이 두려움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의 순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3:3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머리를 땋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화려한 옷을 차려입는 외면의 치장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3:4 오직 온유하고 고요한 영의 썩지 않는 단장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가꾸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3: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신을 꾸몄습니다.

3:6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7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존중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3:8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한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처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3:9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도록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3:10 성경에 이르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지켜 악을 말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3: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3:12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열려 있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3:13 여러분이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3: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3:15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십시오.

3:16 선한 양심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17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3:18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해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3:19 그 영으로 그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3:20 그 영들은 예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서 물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겨우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3:21 이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의 표상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22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4장

4:1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4:2 이는 여러분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우리가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을 행하며 방탕과 정욕, 만취, 방탕한 잔치, 술판,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낸 것은 지난 세월로 족합니다.

4:4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극단적인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합니다.

4:5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자신들이 한 일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4:6 이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맑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4:8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주기 때문입니다.

4:9 투덜거림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4:10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십시오.

4:11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4: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온 불 같은 시련을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4:13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4: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쪽에서는 그 영을 모독하지만, 여러분 쪽에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4: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4: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4:17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18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것조차 어렵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 영혼을 맡기십시오.

5장

5:1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나 역시 동료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독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5: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5:4 그리하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5:5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연장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모두 겸손으로 옷 입고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분이 알맞은 때에 여러분을 높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5:7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5:8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5:9 믿음을 굳게 지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은 뒤에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5:11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5: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짧게 써 보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면하고 증언합니다.

5:13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그 여인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5:14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1:3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1:4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해 그분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여러분이 욕망 때문에 세상에 생겨난 부패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1: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더하십시오.

1: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1:8 이런 덕목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풍성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가까운 것만 보며,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1:10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도록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실천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11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다.

1:1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들을 알고 있고 지금 받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일깨워 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1:13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분명히 밝혀 주신 대로,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닥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1:15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

1:16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였다.

1:17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위엄 있는 영광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1:18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

1:19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1:20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개인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21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2장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멸망을 불러올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신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스스로 빠른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2:2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2:3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않고 있다.

2: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져 어둠의 구덩이에 맡겨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면,

2:5 또한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보존하셨다.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로 만들어 멸망하도록 정죄하심으로써, 앞으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갈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2:7 그리고 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

2:8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며 의로운 영혼에 깊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2:9 이처럼 주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처벌 아래 두실 줄 아신다.

2:10 특히 더러움을 탐하며 육체를 따라 살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대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비방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2: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붙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다가 자신들의 멸망 속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13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자들이며, 티와 흠 같은 존재들로서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있다.

2:14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2:15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으니, 불의의 삯을 사랑했던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것이다.

2:16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꾸짖음을 받았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아섰다.

2: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

2:18 그들은 허망하고 거창한 말을 늘어놓으며,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벗어나고 있는 이들을 육체의 욕망과 방탕으로 유혹한다.

2:19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든 제압당하면 그에게 종이 되기 때문이다.

2:20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얽매여 굴복한다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2:21 의의 길을 알고 나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2:22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는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다.

3장

3:1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3:2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에 한 말과, 주님이시자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3:3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며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3:4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조상들이 잠든 날부터 모든 것은 창조의 시작 때와 다름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5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적부터 하늘이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고 있다.

3:6 그때의 세상은 그 물에 잠겨 멸망했다.

3:7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간직되고 있다.

3:8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

3:9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3: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듯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맹렬한 열에 녹아내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해체되고, 원소들은 맹렬한 열에 녹아내릴 것이다.

3: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머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십시오.

3:15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기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신이 받은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과 같다.

3:16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들을 다루며 말하고 있다. 그 편지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어서, 무지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처럼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

3: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굳건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18 오직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께 지금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1서

1장

1:1 태초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1:2 (그 생명이 나타나셨으므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1: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1:4 우리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다.

1:5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1: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1:7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1: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1: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1: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2장

2:1 내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2: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시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시다.

2:3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2:4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2:5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해진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안다.

2:6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살아가신 것과 똑같이 자신도 살아가야 마땅하다.

2: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2:8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2:9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2: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다.

2:11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걸어 다니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2:12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다.

2:13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다.

2:14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썼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썼다.

2: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삶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2:17 세상도 그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무른다.

2:18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2:20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

2:21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2:22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이겠는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2: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지만,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있다.

2:24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또한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2:25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2:26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썼다.

2:27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분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에 관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그 기름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무를 것이다.

2:28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29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것이다.

3장

3: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임을 안다.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그분을 향해 이 희망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3:4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니, 죄는 곧 불법이다.

3:5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3:6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다.

3:7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

3:8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3:9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3:10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하다.

3:11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3:12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가 왜 형제를 죽였겠는가? 자기 행위는 악하고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3:13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3:14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는 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다.

3: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이며,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

3:16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3:17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있겠는가?

3:18 내 어린 자녀 여러분,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3: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0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3:2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자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얻는다.

3:22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에게서 받게 되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3:23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3: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4장

4:1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4:2 이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4: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나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4:4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4:5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한다.

4: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안다.

4: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4:10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4: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

4:12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4:13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4:14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

4: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알고 또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졌으니, 이는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4:18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이다.

4:19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4:20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자신이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4: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이다.

5장

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녀 또한 사랑한다.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

5:3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5:4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이것이니, 곧 여러분의 믿음이다.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5:6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5:7 증언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이다:

5:8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5:9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다.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5:11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5:12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5:14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무엇이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5:15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한 그 요청들을 얻었음도 우리는 안다.

5: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 나는 그 죄에 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5:17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5:18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5:19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놓여 있음을 안다.

5:20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며, 참되신 분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분이 참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5:21 자녀 여러분,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2서

1장

1: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2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1:3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1:4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고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1:5 사랑하는 부인, 이제 간곡히 부탁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 곧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1:6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1:7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1:8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9 선을 넘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1:10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가르침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환영하지도 마십시오.

1:11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1:12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니, 이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3 택하심을 받은 부인의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요한3서

1장

1:1 장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1:2 사랑하는 그대, 그대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1:3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해 주었을 때, 나는 크게 기뻐했다.

1:4 내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것은 곧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다.

1:5 사랑하는 그대, 형제들이며 낯선 이들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그대는 신실한 일을 하고 있다.

1:6 그들은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대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의 여정을 도와 보낸다면 참 잘하는 일이다.

1:7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길을 떠났으며,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1:9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0 그러므로 내가 가게 된다면 그가 하는 일들을 지적하겠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한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내쫓는다.

1:11 사랑하는 그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1: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받았고 진리 자체로부터도 증언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 또한 증언하며, 그대도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1:13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펜으로 쓰고 싶지는 않다.

1:14 하지만 곧 그대를 만나보기를 바란다. 그때에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안부를 전하라.

유다서

1장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한다.

1:2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1: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편지하려 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야만 했다.

1:4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1:5 비록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 주님께서는 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나중에 멸망시키셨다.

1:6 자기들의 처음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거처를 버린 천사들도, 그분이 큰 날의 심판을 위해 어둠 속에 영원한 사슬로 묶어 두셨다.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음행에 빠지고 다른 육체를 좇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1:8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멸시하며, 하늘의 존재들을 비방한다.

1: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며 모세의 시신에 관해 논쟁할 때, 감히 모욕적인 정죄를 내리지 못하고 단지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했다.

1:10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비방한다. 그리고 이성 없는 피조물들처럼 본능으로 이해하는 바로 그 일들로 멸망을 당한다.

1:11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고, 보수를 바라고 발람의 그릇된 길로 내달렸으며, 고라의 반역 속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다.

1:12 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의 애찬에 숨겨진 암초이며, 두려움 없이 자신만을 먹이는 목자들이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없어 두 번 죽고 뿌리째 뽑힌 가을 나무이며,

1:13 자신의 수치를 거품으로 뿜어내는 거친 바다 물결이며,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떠도는 별들이다.

1:14 아담부터 세어 일곱 번째인 에녹도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셨다.

1:15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한 온갖 불경건한 일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온갖 거친 말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1:16 이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 입으로는 거만한 말을 하며,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편애한다.

1:17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1:18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불경건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1: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1: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1:21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1:22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별하여 자비를 베푸십시오.

1:23 또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마저도 미워하십시오.

1:24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고, 큰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의 면전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1:25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지금도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분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그분은 자신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것을 알려주셨다.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1:4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에게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맏이이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러하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신 분,

1:6 곧 우리를 한 나라로 삼으셔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7 보라,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그렇다. 아멘.

1:8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 곧 전능하신 분인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1:9 여러분의 형제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다.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다.

1:11 그 음성이 말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1:12 나는 나와 말씀하시는 음성을 확인하려고 돌아섰다. 돌아섰을 때 일곱 금 등잔대가 보였다.

1:13 그 등잔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발에 닿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두르고 계셨다.

1:14 그분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같고 눈처럼 희었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1:15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빛나는 놋쇠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1: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이 나왔으며, 얼굴은 해가 가장 밝게 비치는 것 같았다.

1:17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 그러자 그분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1:18 살아 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아멘.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1: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2장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2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여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안다.

2:3 너는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 냈고, 지치지 않았다.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곧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이다.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하던 일들을 행해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2: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이다. 나 또한 그것을 미워한다.

2:7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먹게 해 줄 것이다.'

2: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9 나는 네 행위와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의 모독도 안다.

2:10 네가 겪으려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2: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2:12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좌우에 날 선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13 나는 네 행위와 네가 사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사탄이 살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의 시대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2:14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2: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있다.

2:16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2:17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며, 흰 돌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2:18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19 나는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끈기 있는 인내를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안다.

2:20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여자 이세벨이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데도 네가 그 여자를 용납한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2:21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2:22 보라, 그들이 그 여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여자와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큰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2:23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속마음과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2:24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25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2:26 이기는 사람,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2:27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려 진흙 그릇처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와 같다.

2:28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2:29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평판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3:2 너는 깨어나 버려질 뻔한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너의 행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회개해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며, 내가 어느 시간에 네게 닥칠지 너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3: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3:5 이기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3:6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3:8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 너는 능력이 적은데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3:9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가 네게 주겠다.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알게 하겠다.

3:10 네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그 시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칠 것이다.

3:11 내가 속히 오겠다!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3:12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니, 그가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3:13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3:15 나는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3:16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낼 것이다.

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18 나는 네가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 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눈에 바를 약을 사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권한다.

3: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3:20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3:21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 줄 것이다.

3: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장

4:1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던 나팔 소리 같은 처음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 일들 뒤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했다.

4:2 나는 즉시 성령에 사로잡혔다. 보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고, 보좌 둘레에는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4:4 보좌 둘레에 스물네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소리들과 천둥이 일어났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4:6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4:7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8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있고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4: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4:10 스물네 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했다.

4:11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5:1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다.

5:2 또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5:3 그러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5:4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몹시 울었다.

5:5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분께서 두루마리와 그 일곱 봉인을 여실 것입니다."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 서 계셨다. 그 어린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5:7 그 어린양이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다.

5:8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어린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수금과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5:9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5:10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5:11 내가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레에서 수많은 천사의 음성과 같은 것이 들렸다. 그 수는 만의 만 배와 천의 천 배였으며,

5:12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5: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주권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14 네 생물은 "아멘!" 하고 말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6장

6:1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와서 보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6:2 그러자 흰 말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이기며 또 이기려고 나아갔다.

6:3 어린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6:4 그러자 다른 말, 곧 붉은 말이 나왔다. 그 위에 탄 사람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 주어졌고, 큰 검이 그에게 주어졌다.

6:5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셋째 생물이 "와서 보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보라,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6:6 네 생물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다. "밀 한 코이닉스에 한 데나리온, 보리 세 코이닉스에 한 데나리온이다!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6:7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와서 보라!" 하고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6:8 보라, 창백한 말이 나타났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고 음부가 그와 함께 뒤따랐다. 땅의 사분의 일을 검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들짐승으로 죽일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

6:9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어린양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6:10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실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6:11 그들 각자에게 길고 흰 겉옷이 주어졌다.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자신의 길을 마칠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6:12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해는 검은 털로 짠 자루처럼 검어졌고, 달은 온통 피처럼 붉어졌다.

6:13 하늘의 별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나무에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다.

6: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6:15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지휘관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었다.

6:16 그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말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 다오!

6:17 그분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7장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7:2 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7: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7:4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내가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십사만 사천 명이었다.

7:5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7:6 아셀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7:7 시므온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7:8 스불론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만 이천 명이었다.

7:9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7:10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습니다!"

7: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7:12 그들이 말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13 장로들 중 하나가 내게 물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7:14 내가 그에게 "나의 주인님, 그대가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습니다.

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장막을 덮으실 것입니다.

7:16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어떤 열기도 그들을 내리쬐지 못할 것입니다.

7:17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8장

8:1 어린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에 약 삼십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8:2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8:3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섰다. 보좌 앞 금 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에 더하도록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8:4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8:5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채운 뒤 땅에 던졌다. 그러자 천둥과 소리들과 번개와 지진이 뒤따랐다.

8: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다.

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 땅에 쏟아졌다. 그리하여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렸고, 나무들의 삼분의 일도 타 버렸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다.

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리하여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고,

8:9 바다 속에 있던 생명체들의 삼분의 일이 죽었으며,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었다.

8: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삼분의 일과 물 샘들 위에 떨어졌다.

8:11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물의 삼분의 일이 쑥처럼 되었고, 물이 쓰게 변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 때문에 죽었다.

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낮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이 비치지 않았고, 밤도 마찬가지였다.

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화, 화,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아직 불어야 할 세 천사의 남은 나팔 소리들 때문이다!"

9장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 그 별에게 무저갱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다.

9:2 그가 무저갱 구덩이를 열자,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덩이에서 올라왔다.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9:3 그리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세와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9:4 그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9:5 그들에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9:6 그 시절에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기를 간절히 바랄지라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9:7 메뚜기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았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9:8 그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

9:9 또 철 갑옷 같은 흉갑을 둘렀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내닫는 수많은 병거와 말들의 소리 같았다.

9:10 그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세가 있었다.

9:11 그들에게는 무저갱의 천사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9:12 첫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이 일들 뒤에 아직 두 가지 화가 더 닥칠 것이다.

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뿔들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9:14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 하고 말했다.

9:15 그리하여 그 연, 월, 일, 시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으니, 이는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함이었다.

9:16 마병대의 수는 이억 명이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9:17 내가 환상 속에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다. 그들은 불처럼 붉은색, 히아신스처럼 푸른색, 유황처럼 노란색의 가슴 갑옷을 입고 있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았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왔다.

9:18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했다.

9:19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다. 그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달려 있어 그것으로 해를 입혔다.

9:20 이 재앙들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귀신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놋쇠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9:21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과 주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10장

10:1 나는 구름으로 옷 입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다.

10:2 그는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딛고 서서,

10:3 사자가 포효하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자 소리를 내어 말했다.

10:4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고 말했다.

10:5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10:6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을 가리켜 맹세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날들에, 곧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10:8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며 일렀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10:9 내가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이것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10: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내 배가 쓰라렸다.

10:11 그때 그들이 내게 말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11장

11:1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말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11:2 성전 바깥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졌으니,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11:4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잔대이다.

11:5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 버린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

11:6 이들은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을 가지고 있다.

11:7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움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11:8 그들의 시체는 그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며,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11:9 백성들과 지파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1:10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니,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11:11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덮쳤다.

11:12 그들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자기들에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다.

11:13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다. 그 지진으로 칠천 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1:14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닥칠 것이다.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울려 퍼지며 말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11:16 하나님 앞의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1:17 말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18 이방 민족들이 분노했으나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이르렀으며, 땅을 망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11: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분의 성전 안에 주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어 번개와 소리들과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뒤따랐다.

12장

12:1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아래 두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

12:2 그 여자는 아이를 배어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해산하려 애쓰고 있었다.

12:3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 나타났다. 보라,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그 머리들에 일곱 왕관을 쓴 거대한 붉은 용이었다.

12: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12:5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12:6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다. 그곳에는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들이 여자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자리가 있었다.

12:7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

12:8 그러나 용의 무리는 이기지 못했고, 하늘에는 그들이 머물 자리가 더 이상 없었다.

12:9 그리하여 그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인 옛 뱀이 내던져졌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

12:10 내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머무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2:13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보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했다.

12:14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 광야에 있는 자기 자리로 날아가 뱀을 피해 한 때와 여러 때와 반 때 동안 보살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12:15 뱀은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물처럼 토해 내어, 여자를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12:16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해 낸 강물을 삼켜 버렸다.

12:17 그러자 용은 여자에게 격분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다.

13장

13:1 그리고 나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었다. 그 뿔들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13: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았으며,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13:3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자 온 땅이 그 짐승을 보고 놀라워했다.

13:4 사람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했고, 또한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13:5 그 짐승에게는 거만한 말과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싸울 권세가 주어졌다.

13:6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했다.

13:7 또 그에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

13:8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곧 땅에 사는 그런 사람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13: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3:10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사람은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13:11 내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13:12 그는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했다. 그는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다.

13:13 그는 큰 표적들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도 했다.

13:14 그는 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표적들로 땅 위에 사는 내 백성을 미혹하며,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13:15 그에게 짐승의 우상에 숨을 불어넣는 권세가 주어져,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할 뿐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했다.

13:16 그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13:17 그리하여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했다.

13:18 여기에 지혜가 있다.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이다.

14장

14:1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4:2 내가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소리 같기도 했다.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를 타는 사람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았다.

14:3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14:4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값을 치르고 되찾으신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릴 첫 열매다.

14: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6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14:7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해라!"

14:8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성은 자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14: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4:10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그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4:11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14:12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14:13 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기록해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14:14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머리에는 금관이 씌워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쥐고 계셨다.

14: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주의 낫을 보내어 거두십시오. 거둘 시간이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14:16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셨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14: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14:18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너의 날카로운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나무 송이들을 거두어라. 땅의 포도가 완전히 익었다!"

14:19 그리하여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다.

14:20 그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다.

15장

15:1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 곧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였다.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15:2 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짐승과 그 형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었다.

15:3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이신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15:4 주님,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5:5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15: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깨끗하고 빛나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성전에서 나왔다.

15:7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금 대접 일곱 개를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15:8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16장

16:1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16:2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해롭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다.

16:3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16:4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물의 샘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16:5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일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16:6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만합니다."

16:7 또 나는 제단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16:8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다.

16:9 사람들은 극심한 열에 데었고,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들은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16:10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었고,

16:11 자신들의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16: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다.

16:13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16:14 그것들은 귀신들의 영으로서 표징들을 행하며,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은다.

16:15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16 그는 히브리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16:17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자 하늘 성전의 왕좌에서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나왔다.

16:18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쳤고, 사람이 땅에 생겨난 이래로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크고 강력한 지진은 일찍이 없었다.

16:19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었다.

16:20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16:21 무게가 약 한 달란트인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사람들은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재앙이 몹시 심했기 때문이다.

17장

17:1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네게 보여 주겠다.

17:2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17:3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나는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

17:4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땅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다.

17:5 그리고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였다.

17:6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17:7 천사가 내게 말했다. "왜 놀라워하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달린 짐승의 비밀을 네게 말해 주겠다.

17: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다.

17:9 여기에 지혜가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17:10 그것들은 또한 일곱 왕이다. 다섯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한다.

17:11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그 자신도 여덟 번째 왕이며 그 일곱에 속한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17:12 네가 본 열 뿔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한 열 왕이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는다.

17:13 이들은 한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준다.

17:14 이들이 어린양과 맞서 싸우겠지만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며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신실한 사람들이다."

17:15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네가 본 그 물, 곧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17:16 네가 본 열 뿔과 그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 여자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워 버릴 것이다.

17: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 주셔서, 그들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17: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18장

18:1 이 일들 후에 나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18:2 그는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곳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감옥이자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다.

18:3 모든 민족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의 넘쳐나는 사치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8:4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리하여 그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18:5 그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18:6 그 여자가 갚아 준 그대로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가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을 섞어서 그 여자에게 주어라.

18:7 그 여자가 자신을 높이고 방탕하게 산 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18:8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흉년이다. 그 여자는 불로 완전히 타 버릴 것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18:9 그 여자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땅의 왕들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볼 때에 그를 두고 울며 통곡할 것이다.

18:10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이다. '화있다, 화있다, 큰 도시, 견고한 도시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네 심판이 이르렀구나.'

18:11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이니,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18: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붉은색 옷감, 온갖 값비싼 나무와 온갖 상아 물건, 가장 값진 나무와 놋쇠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

18:13 계피와 향과 향수와 유향,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병거, 그리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다.

18:14 네 영혼이 탐하던 열매들을 너는 잃었다. 맛좋고 호화로운 것들이 모두 네게서 사라졌으니 너는 그것들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18:15 그 여자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18:16 이렇게 말할 것이다. '화있다, 화있다, 큰 도시여!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던 도시여!

18:17 한 시간 만에 그토록 큰 재물이 황폐해졌구나!' 모든 선장과 배를 타고 어디든 다니는 모든 사람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여 먹고사는 모든 사람이 멀리 서서,

18:18 그 도시가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며 외쳤다. '이 큰 도시와 같은 곳이 어디에 있었는가?'

18:19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울고 슬퍼하며 외쳤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큰 도시!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도시의 막대한 부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도시가 한 시간 만에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 여러분, 그 도시를 두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도시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18:21 힘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다.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내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18:22 하프 타는 사람들과 음악가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직종의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18:23 등불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상인들은 땅의 고관들이었으며,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18:24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되었다."

19장

19:1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19: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자기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그 여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19:3 두 번째로 말하는 이가 말했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갑니다."

19:4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다. "아멘! 할렐루야!"

19:5 왕좌에서 음성이 나와 말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19:6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19:8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다.

19:9 천사가 내게 말했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고 기록해라." 또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19:10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보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형제들과 함께된 동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19:11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린다. 그분은 의로움으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

19: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그분에게는 이름들이 적혀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다.

19:13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다.

19:15 그분의 입에서는 민족들을 칠 날카롭고 양날 달린 칼이 나온다. 그분은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19:16 그분의 옷과 허벅지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19:17 나는 한 천사가 해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함께 모여라.

19:18 왕들의 살과 지휘관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 그리고 자유인이든 종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19:19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인 것을 보았다.

19:20 짐승이 사로잡혔고, 그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다. 그는 그 표징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을 속였던 자이다. 이 둘은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다.

19:21 나머지 사람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20장

20:1 나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20:2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요 옛 뱀이며 마귀이자 사탄인 용을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했다.

20:3 그 천사는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고 닫은 뒤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한다.

20:4 나는 왕좌들을 보았다.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고,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다.

20:5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20:7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20:8 그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나올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다.

20:9 그들은 땅의 넓은 들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포위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

20:10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도 있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다.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20:11 나는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땅과 하늘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달아났고, 그것들이 있을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20:12 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사람들이 왕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곧 생명책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았다.

20:13 바다가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어 주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다.

21장

21: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21:2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21:3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보아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1: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21:5 왕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또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21:6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생명수 샘에서 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21:7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들을 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21:8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에서 자기 몫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1: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겠다."

21:10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었다.

21:11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빛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아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았다.

21:12 그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문이 열둘 있었는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고 문들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었다.

21:13 동쪽에 문이 셋, 북쪽에 문이 셋, 남쪽에 문이 셋, 서쪽에 문이 셋 있었다.

21:14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다.

21:15 나와 말하던 천사는 그 도시와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측량 도구로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다.

21:16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았다.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일만 이천십이 스타디온이었으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21:17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로 백사십사 규빗이었다.

21:18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었고,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

21:19 그 도시 성벽의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사파이어이고, 셋째는 옥수이고, 넷째는 에메랄드이고,

21:20 다섯째는 홍마노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감람석이고, 여덟째는 녹주석이고, 아홉째는 황옥이고, 열째는 비취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었다.

21: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는데,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도시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

21:22 나는 그 도시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21:23 그 도시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그 도시를 밝혔고 어린양이 그 도시의 등불이시기 때문이다.

21:24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시로 가져올 것이다.

21:25 낮에는 그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1:26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시로 가져와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21:27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다.

22장

22:1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다.

22:2 그 강은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강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22:3 다시는 어떤 저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 도시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22: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2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등불 빛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22:6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의 영의 주 하나님께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자기 천사를 보내셨다."

22:7 "보아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22:8 나 요한이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 일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22:9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네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된 동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22:10 또 내게 말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게 두어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어라."

22:12 "보아라, 내가 곧 온다! 내가 줄 상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갚아 줄 것이다.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22:14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문들을 통해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22:15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너희에게 이 일들을 증언하려고 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22:17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라. 목마른 사람도 오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라.

22:18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22:19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무언가를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시에서 그의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22:20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22: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